韓國戰爭史

第 7 卷

對陣初期

(1951. 9. 1～1952. 3. 31)

國防部





國防部長官 徐 鐘 喆



國防部次官 崔 侊 洙



合同參謀會議議長陸軍大將 韓 信

各軍 參謀總長



陸軍大將 盧 載 鉉



海軍大將 黃 汀 淵



空軍大將 周 永 福

當時의 各軍總參謀長 및 海兵隊 司令官



陸軍中將 李 鍾 贊



海軍中將 孫 元 一



空軍少將 金 貞 烈



海兵少將 申 鉉 俊

當時의 美第 8 軍、第 7 艦隊 및
第 5 空軍司令官



美 陸軍大將 James A. Van Fleet



美 海軍中將 Harold M. Martin



美 空軍中將 Frank F. Everest

序　　文

現下 國內外情勢의 緊迫性에 비추어 우리의 精神姿勢를 더욱 가다듬어 國難克服의 前進에 積極參與하는 全國民 總和的인 蹶起를 促求해 마지않는 時點에 當面하고 있읍니다.

안으로는 民族繁榮과 自主安保를 期約하는 維新課業이 줄기차게 推進되고, 밖으로는 國威宣揚과 國勢伸張을 위한 多邊外交가 적극 전개되고 있읍니다만은 이 國內外的인 國力誇示의 根底가 되는 것은 첫째로 國民精神의 團合이며, 이를 위하여는 올바른 民族史觀을 定立함으로써 슬기로운 民族正氣가 淨化暢達되어야 함은 贅言을 要치 않을 것입니다.

무릇, 올바른 民族史觀은 民族史를 總括的인 史觀에 立脚하여 溫故知新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國難을 克服한 戰爭史分野를 歷史的敎訓의 觀點에서 勝敗의 要因을 體系化하여 오늘과 내일의 國民精神의 團合에 寄與하는 戰史編纂業務는 깊고 값진 意義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번 韓國戰爭史 第7卷이 上梓되었음을 慶賀해 마지않는 바이며 특히 本卷에 收錄되어 있는 內容이 韓國戰爭을 통하여 가장 凄絶無比하였던 制限進擊 및 對陣期에 전개된 高地爭奪戰임에 비추어 自主安保를 期約하는 오늘의 國家總力體制確立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도리켜 보건대, 1951年 9月~1952年 3月에 걸친 이 高地爭奪戰은 休戰會談의 軍事分界線을 劃定함에 앞서 優位의 戰略進出線 및 有利한 戰術高地를 占領確保하기 위하여 거듭되었던 血戰의 반복이었읍니다.

그 激戰地는 休戰 24個星霜이 흘러간 지금, 草木이 다시 우거지고 山容도 變하여 옛 피어린 흔적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만은 그 稜線과 溪谷, 바위 뿌리와 길목의

구석구석마다 스며들고 새겨져 있는 國軍勇士들의 護國精神과 滅共鬪魂은 民族正氣로 찬연하게 昇華하여 永劫으로 메아리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아리 소리를 글로 새겨 펴낸 記錄이 바로 韓國戰爭史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本戰史는 共產侵略을 물리쳤던 우리 民族의 鬪爭史를 戰鬪作戰面에서 體系化하였고, 子孫萬代에 이어나갈 國難克服의 實戰敎訓과 歷史的證言을 定立해 놓았읍니다.

또한 여기에는 祖國疆域을 지키기 위하여 뿌려야만 했던 高貴한 殉國勇士들의 핏자국을 兒孫에 전한는 精神的資產이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옷깃을 여미어 護國英靈앞에 이 한 卷을 바치는 경건한 追念과 더불어 上梓의 序言에 代합니다.

1974年 12月 10日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　刊　辭

當 委員會가 韓國戰爭史의 編纂事業을 시작한지도 금년으로 於焉 十個星霜이 되었읍니다.

그 동안 編纂陣이 저마다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心境으로 研鑽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흔적이랄까, 努力을 아끼지 않았던 보람이랄까, 이제 그 일곱권째를 펴 내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 알의 밀알」에 比喩하는 까닭은, 훗날의 歷史에서 韓國戰爭이 우리 世代가 겪은 가장 큰 民族受難史의 한 章이라고만 記錄되어서는 안된다는— 오늘 날의 民族中興의 契機와 累代의 兒孫에 自由를 爭取하는 힘, 平和를 守護하는 信念, 이 모두가 다름 아닌 이 戰爭에서 얻어진 것이 되어야 한다는—이것을 우리의 信條로 삼고 있는 所以에서 입니다.

생각컨데, 戰後의 새 世代는 이 戰爭을 마치 江건너의 불이었던 것 같이 無關한 것으로 느끼지는 않는가, 또는 이를 몸소 겪은 바 있는 우리 世代에서는 意識的으로 여기에서 疏遠해지려는 傾向이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一沫의 疑懼心마저 가지게 됩니다. 戰爭 그 實相을 경험치 못한 탓이라고 하든, 그것에서의 被害觀念때문이라고 하든, 兩者 모두 우리의 現實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思考方式이 되지 못한다 하겠읍니다.

近者에 各界의 幅넓은 支持아래 維新體制에 立脚한 民族史觀의 再定立에 대한 基礎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이 韓國戰爭에 대한 認識도 차츰 새로워지고 있음은 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라 하겠는데, 不遠 이 戰爭史는 한 시대를 風靡한 武勇譚으로서가 아니라 1950年代의 民族史로서 眞摯하게 研究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確信합니다.

今年에 上梓하는 本卷에는 1951년 9월 1일 부터 1952년 3월 31일까지의 戰況을 網羅하였는데, 제6권에 이어 我軍이 대체로 現 休戰線부근에서 戰線을 整齊하면서 協商이 具體化되어, 彼我間에 對陣狀態로 移行케 되는 그 初期의 상황을 一括하여 「對陣初期」라는 副題를 붙혀 보았읍니다.

그러나 嚴密히 따져서, 韓國戰爭에서의 對陣期의 시작을 과연 어느 時點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戰火가 멎은지 四半世紀가 지난 오늘날까지 이에 관하여 定說化된 것이 없는 만큼—이는 本 戰爭에 대한 關心度가 稀薄하였다는 證左로도 볼 수 있겠읍니다만—觀點에 따라 見解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本卷에 包括된 初期의 상황 일부는 制限戰線에서의 激動期의 延長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當初에는 제6권에 收錄하기로 계획된 것이나 紙面의 制約에 따라 本卷으로 移越케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對陣初期라는 卷의 성격이 다소 明確하게 浮刻되지 못하는 흠이 없지도 않습니다.

卷의 分類를 分量本位로 하지 않을 수 없는 點을 먼저 諒察하시기 바라며, 本卷의 發刊에 즈음하여 休戰會談과 後方의 共匪擊滅戰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附言코자 합니다.

첫째 : 휴전회담에 대하여서는 이미 제6권을 펴 낼 때에도 言及한 바 있거니와, 이 會談의 進展與否가 戰線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만큼 戰況의 推移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서는 每卷마다 該當 기간의 회담경과를 살펴봄이 마땅하다는 讀者의 要請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는 2년여에 걸쳐 苦戰을 벌이는 複雜多端한 그 過程의 顚末을 一目瞭然하게 整理한다는 趣旨아래 이를 後方戰史에서 따로이 取扱키로 하였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둘째 : 共匪擊滅戰에 관한 것도 이 역시 後方戰史에서 全 戰爭期間의 該當사항을 一括하여 다루기로 하였읍니다.

오늘 날, 兵戰의 樣相은 核武器등 大量 同時 殺傷兵器가 登場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非正規戰이 그 한 類型으로 普遍化되어 가는 趨勢에 있다고 보겠는데, 우리는 일찌기 濟州道와 三南地區의 共匪擊滅作戰으로써 20년 전에 이미 이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前線에 못지 않는 廣範한 地域에서 後方의 警備부대와 警察은 물론 前線의 戰鬪師團까지도 여기에 動員되었던 非正規戰이라는 點에서,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結論을 抽出키 위한 體系的인 分析이 필요할 듯 하여, 이도 後方戰史에서 非正規戰部門으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白野戰戰鬪司令部 관계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부대의 편성경위와 그 編組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의 作戰槪況을 本卷에서 1개의 章으로 略述하였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이제 이 編纂事業은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本 軌道에 오른 듯 합니다.

이는 오로지 江湖諸賢의 協力과 參戰諸位의 적극적인 參與의 결과로, 이를 感謝드리면서 倍前의 指導로써 계속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삼가 護國英靈의 冥福을 빌며 發刊辭에 代합니다.

1974년 12월 10일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1. 本卷의 編纂上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나. 章은 作戰本位로 구성하되, 旣刊된 제6권에 이어 全帙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節——1. 2. 3. 4. 5.

      項——가. 나. 다. 라. 마.

      目——(1) (2) (3) (4) (5)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槪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를 넣는다.

3. 槪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나. UN軍側 兵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라.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必要한 內容은 이를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싣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돌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하였다.

나. 我軍과 UN軍, 그리고 北傀軍과 中共軍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行軍路와 攻擊 및 突擊 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記錄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紙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靑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 하여 本文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破線으로 구분한다.

例 : 我 軍 ⟵ 我 軍 ⟵

敵 軍 ⟵ 敵 軍 ⟵

10.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등, 한글로 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軍事術語를 쓰되, 各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 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의 개요」 앞뒤에 각각 「전투 전의 개황」 및 「전투 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4.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 1952년 3월 15일 오후 5시 45분

52.3.15.17.45

마. 필요한 경우 부대 記號에 北傀軍을 NC, 中共軍은 CCF로 표시하고 그 밖의 UN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案과 육군대학 규정 부호 및 군특명검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韓國戰爭史 第7卷 目次

序 文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 烱 錫
凡 例

對 陣 初 期

概 說 ……(9)

第47章 夏季作戰의 續行

要 旨 ……(29)
1. 第3次 蘆田坪地區 戰鬪 ……(30)
2. 第1次 加七峰附近 戰鬪 ……(41)
3. 883高地 및 892高地附近 戰鬪 ……(78)
4. 第1次 白石山 戰鬪 ……(95)
5. 第2次 白石山 戰鬪 ……(121)
6. 登大里附近 戰鬪 ……(130)
7. 楸峴里—芳洞附近 戰鬪 ……(154)
8. 海兵隊의 月山嶺附近 防禦 및 搜索戰 ……(165)
9. 美 海兵隊의 Punch bowl 附近 戰鬪 ……(186)
10. 美 第10軍團의 沙汰里—文登里附近 戰鬪 ……(198)
(一名, 斷腸의 稜線 戰鬪)
11. 海軍의 活動 ……(242)
12. UN海軍의 活動 ……(253)
13. 空軍의 單獨出擊 作戰 ……(259)
14. UN空軍의 活動 ……(280)

第48章 秋 季 作 戰

要 旨 ……(301)
1. 第1次 月比山 戰鬪 ……(302)
2. 第2次 加七峰附近 戰鬪 ……(316)
3. 魚隱山 南側地區 戰鬪 ……(332)
4. 金城川附近 戰鬪 ……(374)
5. 金化—金城 進擊戰 ……(391)
6. 九化里附近 戰鬪 ……(411)
7. 美 第1軍團의 Commando 作戰 ……(421)
8. 美 第9軍團의 金城附近 戰鬪 ……(436)
(一名, Nomad—Polar線 進擊戰)
9. 空軍의 第2次 共匪擊滅 支援作戰 ……(447)
10. UN空軍의 活動 ……(453)

第49章 冬 季 作 戰

要 旨 ……(479)
1. 第2次 月比山 戰鬪 ……(480)
2. 949高地 戰鬪 ……(493)
3. 281高地 및 395高地 戰鬪 ……(518)
4. 395高地附近 戰鬪 ……(536)
5. 岩洞(바우골)附近 戰鬪 ……(547)
6. 1090高地附近 戰鬪 ……(560)
(一名, Christmas高地 戰鬪)
7. 662高地 爭奪戰 ……(578)
8. 杜梅里附近 戰鬪 ……(587)
9. 海兵隊의 黃土島 戰鬪 ……(610)
10. 海兵隊의 洋島 戰鬪 ……(616)
11. 海兵隊의 胡島 戰鬪 ……(623)

12. 海軍의 活動 ……(631)
13. UN海軍의 活動 ……(654)
14. 空軍의 補給路 遮斷作戰 ……(663)
15. UN空軍의 活動 ……(696)

第50章 白野戰 戰鬪司令部의 共匪擊滅 作戰

1. 參加部隊 및 主要指揮官 ……(713)
2. 作戰 前의 槪況 ……(714)
3. 作戰計劃 ……(717)
4. 作戰 經過의 槪要 ……(718)
5. 作戰 後의 槪況 ……(742)

第51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745)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 狀況 ……(747)

附 錄

1. 作命·作指·訓令 ……(767)
2. 年 表 ……(813)
3. 戰歿者 名單 ……(889)
4. 索 引 ……(901)

狀況圖 目次

제 1 호 戰線의 膠着과 主要 前進制限線 ……(12)
제 2 호 敵軍部隊 展開 ……(18)
제 3 호 師團配置 現況 ……(25)
제 4 호 第35聯隊 作戰計劃 ……(61)
제 5 호 我軍部隊展開 및 攻擊目標 ……(81)
제 6 호 第5聯隊 892高地 攻擊 ……(90)
제 7 호 第3聯隊 883高地 攻擊 ……(92)
제 8 호 第1次 白石山 戰鬪 ……(109)
제 9 호 登大里 進擊戰 ……(135)
제10호 819高地 防禦戰 ……(149)
제11호 榛峴里一 芳洞進擊 狀況 ……(158)
제12호 陣地占領과 偵察限界線 ……(169)
제13호 9月 7日의 搜索經路 ……(171)
제14호 海兵第1聯隊 偵察區域 ……(175)
제15호 9月 16日의 部隊展開 ……(181)
제16호 美海兵 Punch bowl戰鬪 配置 ……(188)
제17호 第1段階 作戰 ……(189)
제18호 第2段階 作戰 ……(192)
제19호 第1次 攻擊計劃 ……(205)
제20호 第2次 攻擊計劃 ……(222)
제21호 松禾地區 戰鬪 ……(252)
제22호 元山南方 出擊作戰(51. 1. 1～11. 28) ……(261)
제23호 1052高地 爭奪戰 ……(322)
제24호 1211高地 攻防戰 ……(328)
제25호 各聯隊의 攻擊方向 ……(359)
제26호 金城川 附近 戰鬪 ……(380)
제27호 金化一金城 進擊狀況 ……(396)
제28호 第1次 奇襲戰(10. 5) ……(415)
제29호 第2次 奇襲戰(10. 9) ……(419)

제30호 美第1軍團의 Commando作戰 計劃 ……(424)
제31호 北韓의 飛行場 現況 ……(455)
제32호 Gary線 進擊狀況 ……(497)
제33호 281高地 夜間戰鬪 ……(524)
제34호 第29聯隊 524高地 晝間戰鬪 ……(527)
제35호 第29聯隊 281高地 戰鬪 ……(530)
제36호 第29聯隊 395高地 戰鬪 ……(532)
제37호 395高地 夜間戰鬪 ……(539)
제38호 395高地 逆襲(11. 17) ……(545)
제39호 第5聯隊 第2大隊 攻擊計劃(11. 23) ……(551)
제40호 1090高地附近 戰鬪前의 一般狀況 ……(564)
제41호 1090高地附近 第1次戰 ……(568)
제42호 1090高地附近 第2次戰 ……(574)
제43호 662高地 爭奪戰 ……(584)
제44호 12月 28日 戰鬪 ……(590)
제45호 12月 29日 戰鬪 ……(591)
제46호 52年 1月 3日 戰鬪 ……(599)
제47호 1月 5日 戰鬪 ……(600)
제48호 1月 8日 戰鬪 ……(607)
제49호 黃土島 戰鬪 ……(613)
제50호 洋島 戰鬪 ……(619)
제51호 胡島 戰鬪 ……(626)
제52호 海上 作戰狀況(12. 19) ……(640)
제53호 UN海軍의 活動 ……(655)
제54호 中共의 飛行場 現況 ……(699)
제55호 第1期作戰 前半期(51. 12. 3~6) ……(721)
제56호 第1期作戰 後半期(51. 12. 7~15) ……(723)
제57호 第2期作戰 前半期 ……(729)
제58호 第2期作戰 後半期 ……(731)
제59호 第3期 智異山 攻擊計劃 ……(734)
제60호 第3期 白雲山 攻擊計劃 ……(737)

對陣初期概說

對 陣 初 期

概 說

참조 : 별책부도 제 1 호
상 황 도 제1.2.3호

本卷에는 我軍이 全戰線에 걸쳐 主導權을 장악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敵과 停戰을 協商키 위하여 스스로 공격을 제한하여 對陣하게 된 1951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末에 이르는 그 初期 상황을 一括하였다.

즉, 休戰會談의 개최로 Kansas 및 Wyoming線에서 前進을 멈추고 防守態勢로 轉換한 我軍은 協商이 결렬 위기에 직면하자, 8월中旬에 한정된 목표와 부대로써 一連의 공격을 감행하고 다시 8월末에는 계속되는 敵 공세 준비에 대한 先制와 아울러 보다 유리한 地形에서 前進陣地를 擴充하고 강화하려는 이른바 「夏季공세」를 再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세는 時日을 얻어 陣地를 강화한 敵의 執拗한 抵抗에 부딪쳐 苦戰을 면치 못하였으며 各 當面의 敵을 격멸하고서야 예정된 목표線에 進出할 수 있었다.

이어서 我軍은 停滯된 休戰會談의 속개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계속 敵을 强壓하고 또한 停戰에 따르는 分界를 감안한 10Km 前進을 목표로 中西部와 西部에서 이른바 「秋季공세」를 10월初부터 再開하였다. 이리하여 同月 中旬까지 계속한 이 공격에서 我軍은 金城川 河口로부터 半月形을 그리면서 中江里一驛谷川一臨津江 北쪽 沿岸을 따라 北으로 躍進하여 陣地線을 補强하게 되었다.

空軍의 「Strangle」작전과 併行하여 실시된 지상에서의 이러한 攻勢는 敵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10월 25일에 休戰會談이 續開되었고 11월 27일에는 30일間의 期限부로 접촉線을 중심으로 하여 쌍방의 戰線을 固定하는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전투는 이 軍事分界線을 軸心으로 對陣하면서 수색戰과 一進一退의 高地쟁탈戰만을 되풀이 하는 양상으로 變貌하였다.

夏季作戰의 續行 : 1951년 6월 以來로 我軍은 UN당국이 北進한계線으로 開城지역을 제외한 38°線 北쪽 너머 10Km線에 沿하여 제한함에 따라 부득이 그 進擊을 멈추고 開城에서의 協商추이만을 관망하게 되었으나 이 期間에 敵의 증원이 현저하게 露呈함에 이르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를 擊碎하기 위한 이른바 「夏季공세」를 감행한 것은 이미 제6권에서 언급한 바 있다.

8월 18일에 James A. Van Fleet 대장은 제1군단 隸下의 首都사단, 제11사단, 그리고 美 제10군단에 배속된 제8사단으로 하여금 Punch bowl 東쪽 稜線을 목표로 공격케 하고 같

은 날 제5사단 제36연대로써 Kansas線을 위협하는 大愚山 西쪽의 이른바 「피의 稜線」을 탈취케 하였는데, 제1군단은 敵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8월 27일까지 목표를 모두 점령할 수 있었으나 그 反面에 제36연대는 일단 점령한 목표를 敵의 逆襲으로 喪失하는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이에 我軍은 8월 31일 美제10군단 正面에서 協調된 一齊공격을 감행토록 하는 한편 美제9군단의 右翼인 제6사단과 美제7사단(Ethiopia 대대 배속)의 兩개 사단으로써 美 제10군단의 左翼을 엄호케 하는 광범한 전선에서의 공세를 取하게 되었다. Clovis E. Byers 소장 麾下의 美제10군단의 右翼인 美해병제1사단(해병제1연대 배속)은 Punch bowl 北東쪽 Hays 線을, 그리고 제5사단은 加七峰을 中心으로한 左右 稜線을, 또 美제2사단(France대대 배속)은 「피의 稜線」을, 제7사단은 白石山 南쪽 高地群을 각기 목표로 삼아 北쪽으로 躍進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William M. Hoge 중장 麾下의 美제9군단에 배속된 제6사단은 美제10군단과 連繫하면서 北漢江 左岸의 高地群를 따라 △819를 直衝하고 美제7사단은 그 左翼에서 攻勢을 감행키로 하였다.

이 공세에서 해병제1연대를 포함한 美 해병제1사단의 일부와 제5사단의 主力은 敵의 一線부대 교대를 틈타 突進을 계속하여 Punch bowl 北쪽 一帶의 능선을 점령하게 되었으나 군단 左翼인 美제2사단과 제7사단의 進出度는 不振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즉, 美제2사단은 처음 병력의 逐次사용으로 苦杯를 마시다가 衝擊力을 한층 증가한 다음인 9월 5일에야 비로소 △983—△778를 점령하고 제7사단은 같은 날 목표를 탈취하였던 것이다.

8월 18일에서 9월 5일에 이르는 사이의 이 공격에서 我軍의 死傷者는 都合 2,700명에 達하고 敵의 손실은 「피의 稜線」에 遺棄한 시체 500具를 포함하여 15,000명으로 추산되었는데 敵은 그들의 堅固한 진지에서 甚한 打擊을 받은 연후에야 할 수 없이 물러났던 것이다.

당시의 敵은 中共과 北傀의 연합아래 西部및 中部전선에 제64, 제47, 제26, 제27의 中共 4개군을 第一線에 展開하고 中共 제40, 제63, 제65, 제15, 제42등 5개군을 예비로 控置하여 美제9군단 및 美제1군단과 對峙하고 그 東部에는 金日成을 두목으로 하여 崔鏞健을 그 副로, 南 日을 參謀長으로 하는 體制밑에 金 雄을 野戰司令官으로 한 北傀가 담당하고 있었다.

北傀는 9월初에 西部에 배치되었던 제1군단 예하의 제19사단을 長箭—通川—庫底 일대의 해안경비를 맡고 있는 제6군단에 轉入하여 그들의 最左一線에 새로 전개하고 金城 부근의 中共軍과 提携하면서 제5, 제2, 제3의 3개 군단으로써 我 제1군단 및 美제10군단과 서로 對應하는 한편 제1, 제4의 兩개 군단을 西해안에, 그리고 제7, 제8 兩개 군단을 東海岸에 배치하고 있었다.

美제10군단 正面의 北傀軍은 그들의 진지를 固守하려는 方針아래 진지 前面에 넓은 지뢰

지대를 設置하고 敵軍의 포격과 항공지원이 끝날 때까지 直擊彈이 아니고서는 파괴할 수 없는 壕에서 待機하다가 突擊 직전에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露出된 我軍에 대한 集中打擊을 노리는 戰法을 常例로 삼았다.

美제10군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美제8군 사령관 Van Fleet대장은 東部전선을 整齊할 목표하에 「Talons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일부로써 元山 南岸에 상륙하여 東部에 集中된 北傀군을 차단 섬멸하여 戰線을 1.6Km—24Km 推進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諸般事情으로 이의 實現을 보지 못하게 된 다음 Elbowing(밀어올리기)작전으로 轉換하여 戰線을 整理키로 결심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9월 8일에 목표의 제한된 공격과 수색정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반지침을 各 軍團長에게 하달하고 같은 날 美제10군단으로 하여금 다시 Punch bowl 西北쪽 稜線과 「피의 稜線」 北쪽 高地일대를 탈취케 하여 敵전선上의 불균형을 더욱 作爲토록 피하였다.

따라서 美제10군단은 9월13일 제8사단—美해병제1사단(해병제1연대 배속)—제5사단—美제2사단(France대대 배속)—제7사단으로 그 右翼을 堅守하면서 加七峰에 連한 △1,211와 沙汰里—文登里間의 △894—△931—△851를 連하는 高地 및 白石山에 공격의 重點을 指向하는 동시에 美제1군단은 美제3사단(Philippine, Belgium 대대 배속)—美제1기갑사단(Greece, Thailand 대대 배속)—英聯邦사단—제1사단(해병제5대대 배속)으로 各 正面에서 威力수색을 전개토록 하였다.

그런데 美제2사단은 이 공격에서 제7사단의 協同에도 不拘하고 苦戰하는 바 되어 27일까지 1,67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을 일단 中斷키로 하였으며 제7사단은 공격 도중에 군단 右翼으로부터 轉進한 제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예비가 되었다.

이 보다 앞서 中西部에서 21일 공세를 取한 美 제9군단은 제6사단—美제7사단(Ethiopia 대대 배속)—제2사단—美제25사단(Turkey여단 배속)을 전개하고 美제24사단(Colombia 대대 배속)을 예비로 하여 Wyoming線 前方의 敵진지를 격파키로 企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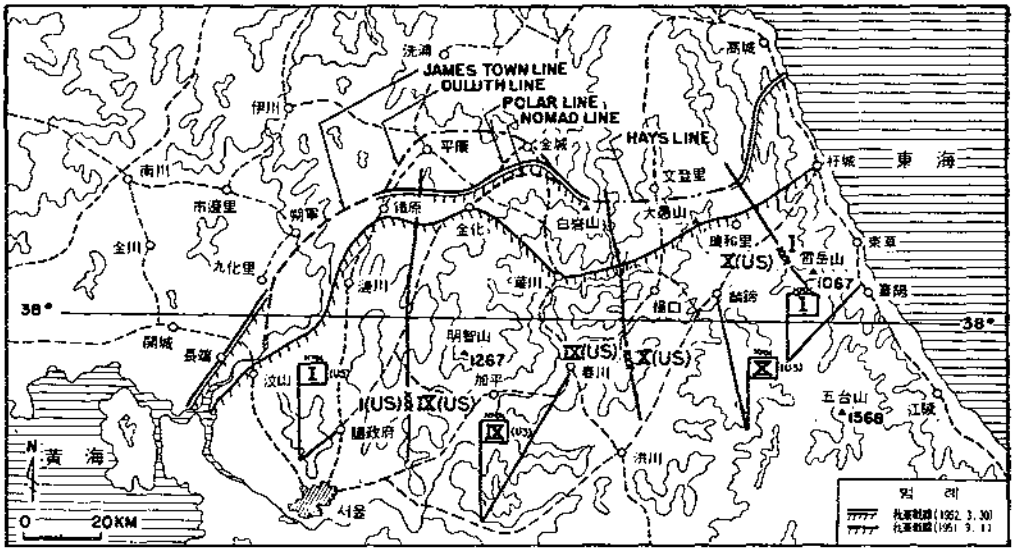
이 작전에서 제6사단은 登大里 부근에서 金城川을 向하여 전진하고 제2사단은 赤根山 北쪽 5Km 稜線(金化面 北쪽)을 공격한 결과 9월末까지 中共 제27, 제26 兩개군을 驅逐하고 목표線을 確保하였다.

秋季作戰 : 美제10군단이 공격을 시작한지 얼마 뒤에 美제8군은 「Cudgel」과 「Wrangler」라고 명명한 意慾的인 두개의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Wrangler」는 2개 사단을 東海岸에 上陸시켜 제1군단 및 美제10군단과 대치중인 北傀軍을 遮斷 강타하고 전선을 庫底—平康線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Cudgel」은 「Wrangler」에 先行하여 먼저 鐵原—金化의 철로를 確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륙군과 美제9군단이 南北에서 連繫를 試圖할 경우 그 西側方에 대한

◇상황도 제1호 戰線의 교착과 主要 前進制限線



敵의 反擊을 유발할 가능성을 內包하고 있어서 이로 因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 판단에 對比하여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였다.

Van Fleet 대장은 이 작전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그 대신 9월 末 美제1군단장 J.W. O'danil 중장이 제출한 「Commando」 계획을 채택하고 美제9군단 左翼과 美제1군단 全面에서 10Km의 前進을 期約하는 James town線(鐵原 東北 8Km—驛谷川 南岸—漣川 西北 13Km—臨津江 北岸)으로의 進擊을 결심하였다.

冬季에 앞서 補給路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울러 美제10군단작전에 생기를 불러 이르키기 위한 意圖가 있었던 이 작전은 10월3일 06,00를 期하여 發動되었으며 美제9군단 예하의 美제25사단과 美제1군단 소속의 4개 사단은 오랫동안의 교착에서 脫皮하고 前方으로 전진하였다.

이 작전에서 美제25사단(Turkey 旅團 배속)은 漢灘江과 南大川의 合流지역을 공격하여 美제1군단 右翼부대의 진격을 엄호하고 美제3사단(Philippine, Belgium 대대 배속)은 鐵原 北西 10Km의 △281—△373—△324를 連하는 線을 목표로 急進하였다. 또한 美제1기갑사단(Greece, Thailand 대대 배속)은 校洞—갑골로부터 躍進하였으며 英聯邦사단은 校洞 北쪽—沙尾川으로, 군단 左翼인 제1사단(해병제5대대 배속)은 臨津江 南岸에서 渡江하여 목표를 향하여 直衝하였다.

中共 제65, 제64, 제47, 제42의 4개군의 진지를 擊破하여야 했던 이 進擊에서 美제25, 美제3 兩개사단과 英聯邦사단, 그리고 제1사단은 비교적 가벼운 저항을 받았으나 美

제1기갑사단은 中共 제42군 隷下의 제139 및 제140 兩개사단으로부터 甚한 반격에 直面하게 되었다.

敵은 美제10군단 正面에서와 같이 그들 진지가 자동화기로 상호지원되었고 高地와 稜線에 이르는 接近路에는 조밀한 彈幕을 구성하였으므로 목표상의 高地는 하룻동안에 3~4回씩이나 주인이 뒤바뀌는 激戰이 전개되었다.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Commando작전」에서 我軍은 500명을 사로 잡고 최소한 21,000명을 殺傷하였는데 損失은 4,000명에 達하였으며 그중 美 제3사단이 2,900명을 차지하였다.

한편 10월 5일에 美제10군단 예하인 美제2사단(France 대대 배속)은 9월末에 中斷하였던 이른바 「斷腸의 稜線」에 대한 공격을 續行하기 위하여 「Touch down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 左翼과 연계한 제8사단은 白石山에서 文登里 西南쪽에 대한 공격으로 戰線을 擴開코자 企圖하였다.

그런데 이 兩부대의 공격은 「피의 稜線」과 白石山에서 敗退한 北傀 제5군단 예하의 제6, 제12, 제32의 3개사단과 이를 增援한 中共 제68군 제204사단의 固守에 直面하여 美제2사단은 2,000명의 死傷者를 내면서 15일에 이를 점령하였으며 제8사단은 中共제68군 예하부대와의 死鬪 끝에 28일에야 戰線을 整理할수 있었다. 비록 이러한 迂餘曲折은 있었으나 이 작전의 성공으로 美제10군단은 뒤로 처졌던 전선을 整齊하고 擔當正面을 短縮할수 있었다.

이와 같은 美제10군단이 공격을 계속하고 또한 美제1군단이 「Commando작전」을 斷行하게 되자 美제9군단은 Nomad 및 Polar의 制限線을 策定한 다음에 이에 대한 進擊을 계획하였다.

이 공격에는 제6사단과 美제24사단(Colombia 대대 배속), 그리고 제2사단이 참가하였으며 이 3개사단은 10월13일부터 金城 南쪽 6Km의 河川을 따라 選定한 Nomad線을 제1차 목표로 하고 Polar線을 제2차 목표로 選定하였다.

공격 첫날인 13일에 敵의 逆襲과 포격을 무릅쓰고 3.5Km에 達하는 進陟度를 보인 끝에 17일에는 제1차 목표에 到達하였으며 20일에는 Polar線上의 모든 목표들을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確保하게 되었다.

23일에 끝마친 이 작전으로써 美제9군단은 美제10군단의 戰線上의 均衡을 깨고 突出하게 되었으나 金城을 要扼하고 敵의 陣勢를 弱化하는 利點을 얻는데 貢獻하였다.

10월에 계획한 각 군단의 작전이 이렇듯 進展하자 Van Fleet대장은 기간중 손실이 많았던 一線부대의 정비에 착수하고 敵에 대한 軍事上의 壓力을 잠시도 中斷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美제1군단의 「Commando작전」에서 활약한 美제3사단을 10월 中旬에 제9사단과 교대케 하였으며 이어서 月末에는 陸本直轄로 있는 제3사단을 美제10군단에 배속하여 제5사단 진지를 引受토록 하고, 美제9군단 예비인 美제7사단(Ethiopia 대대 배속)을 美제10

군단 隷下 美제2사단(France 대대 배속)의 진지를 引受케 하였다.

10월 25일, 板門店에서 休戰協商이 再開되어 다시 軍事分界線을 토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前途에는 많은 難航이 예견되었으므로 我軍의 白兵强攻이 敵으로 하여금 協商을 再開케 하는데 촉진제가 된 것과 같이 敵勢의 증강에 미리 對備하는 조치로서 戰術上의 제한공격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方針아래 「Sundial작전」을 策案키로 하였다.

즉, 이것은 美제9, 美제1 兩군단을 使用하여 Duluth線(金城—平康—鐵原 北쪽)을 점령한 다음 東海岸의 제1군단을 通川으로 急進케 하고 連繫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Wrangler계획」에서 상륙작전만을 除外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10월 27일에 수립하여 東京에 있는 UN軍司令部(UNC)에 제출되었으나 UN군 사령관 Mattew B. Ridgway 대장은 10월 31일에 이를 保留토록 조치하였는데 당시 UN군 당국은 이러한 작전이 방금 시작된 휴전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美合同參謀會議(JSC)의 情勢判斷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의 논쟁의 초점이 軍事分界線 문제에 있는 만큼 자칫하면 현전선에서 數Km씩 撤收케 되는 결과가 초래될 公算도 없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8군사령관은 11월 5일까지 또 다시 Duluth線만이라도 탈취하기 위한 方案을 건의하였으나 이것마저도 12일에 하달된 당시의 Ridgway 대장의 腹案을 단적으로 反映한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令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았다.

『제8군은 現陣地線을 유지하는데 必要한 소규모의 공격만으로써 「攻勢방어(Active defence)」에 임하라.』

冬季作戰 : 12월 12일에 UN군 사령관이 示達한 「攻勢방어」 方針에 따라 美제8군은 現進出線에 연하여 방어에 적합한 地形을 확보하고 여기의 진지 강화에 注力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戰線에는 「기다려 보자(wait and see)」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停頓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 무렵인 11월 16일에 美국동사령부가 Washington의 陸軍省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Ridgway대장과 JSC는 11월 8일에 UN총회에서 U.S.S.R 外相 Andrei Ianuerievich Vyshinskii가 10일 이내에 한국전쟁을 中止하자고 제의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協商마당에서 敵側이 我側의 제안을 곧 수락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어떠한 작전도 이에 惡影響을 미쳐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견해에 一致하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전투는 소규모의 정찰戰으로 限定되는 가운데 11월初와 中旬에 美제10군단에 배속된 제3사단이 前進진지 몇개를 手中에 넣어 Minnesota線을 整備하였으며, 美제9군단의 제6사단이 Gary線을 각기 점령하고 진지를 編成하였다.

그러나 軍事分界線에 대한 合意에 도달하기 이전에 보다 유리한 진지를 미리 차지하려는 것은 彼我 서로 공통되는 戰略的인 布石이기 때문에 全戰線을 걸쳐 치열한 高地爭奪戰

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11월 27일에 이르러 쌍방이 비로소 分界線에 合意하게 되자 Van Fleet 대장은 이날 다음과 같은 要旨의 訓令을 하달하였다.

『제8군은 만일에 休戰協商이 지나치게 長期化된다면 공세작전을 준비하는 한편 協定에 도달하려는 意慾을 분명히 表示하여야 한다. 協定成立을 위한 意慾을 表示하려면 이미 合意된 軍事分界線에 拘碍됨이 없이 現陣地를 유지함에 緊要한 범위에서 最少限度로 작전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사령부로부터 別途 指示가 없는 한 敵의 공격으로 喪失한 주요 地形을 탈환할 목적의 逆襲이 장차 곧 取하게 될 唯一한 공격작전이 될 것이다. 즉, 불필요한 死傷者를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上 Van Fleet 대장의 이와 같은 命令은 我軍작전이 敵의 行動如何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였으므로 訓令이 지휘系統을 따라 少單位까지 전달되는 사이에 誤傳되기를 『곡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의 직접 사용을 피할 것이며 敵의 發砲時에만 限하여서 應射하라』는 것으로 歪曲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戰線은 敵의 守勢로 말미암아 長期에 걸친 交綏狀態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 美從軍記者들이 이러한 제8군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들어 『여기서 地上戰鬪가 일시 中止되는 경우에는 이대로의 완전한 停戰을 초래케 할 것이다. (…brought Korean ground fighting to a complete, if temporary, halt.)』라고 辛辣한 論評을 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主張은 당시의 情勢에 비추어 그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수 있는데 AP通信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震源이 白堊館으로부터 비롯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였다. 따라서 Truman 大統領이 11월 29일에 『전투는 中止되지 않았으며 休戰협정의 조인時까지 敵에게 壓力을 加한다』라는 강경한 聲明을 발표함으로써 그릇 인식된 UN군의 작전方針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UN군사령부 당국은 이와 같은 「전투중지」의 인상을 拂拭하기 위하여 29일 全전선에서 68回에 걸친 偵察隊의 活動을 보였는데 그 규모는 2개分隊로부터 聯隊級에 이르렀으며 各隊의 獨自的인 공격으로 敵을 擊退하였다고 밝혔다.

여하튼 協商이 진행되는 동안에 UN군 당국은 現戰線을 유지하는 것으로서만 方針을 굳히고 自衛를 위한 소규모의 전투와 敵情의 탐색에 필요한 정찰만으로 활동 범위를 限定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中共은 初期작전에서 機動을 重視하던 常用戰法을 바꾸어 主로 西部전선에서 그들 진지의 强度를 높이면서 종심을 강화하여 현전선을 固守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北傀는 西部로부터 제1군단을 東部로 이동 배치하여 6군단 戰區을 引受케 한 다음 그들 一線에 제2, 제3의 3개군단을 東部에 전개하고 敵軍과 같이 이른바 「坑道式 진지」를 掘設하는 것으로 確認되었다.

12월에 들어선 뒤로부터 各 高地上의 敵은 견고한 有蓋壕로써 强化되어 直擊彈이 아니

고서는 覆滅할 수 없었으며 我軍의 砲擊속에서도 그들의 사격이 가능하도록 設備되어 있었다.

이렇듯 彼我의 戰線이 서로 對峙하여 交綏狀態로 들어가게 되자 Van Fleet 대장은 後方에 대한 安保對策으로 제1군단으로부터 首都사단을, 美제10군으로부터 제8사단을 각기 抽出하여 共匪 격멸戰을 遂行케 하였으며 동시에 제3사단을 美제10군단으로부터 陸本直轄로 그 배속을 轉換하여 부대교육에 임하게 하고 이미 부대 정비를 끝낸 제7사단을 다시 美제10군단에 배속하여 제8사단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또한 그는 美제1군단 예비인 美제3사단(Philippine, Thailand, Belgium 대대 배속)을 다시 전선에 投入하고 美제1기갑사단을 예비로 控置하였다.

이어서 12월 17일부터 28일 兩일간에는 美제9군단 예비인 美제2사단(Netherland, France 대대 배속)을 美제25사단(Turkey여단 배속)과 交代케 하고 美제1군단 예비가 된 美제1기갑사단을 부대 교대 계획에 따라 日本에 駐屯中인 美제45사단과 서로 임무를 바꾸도록 하였다.

12월 27일로서 30일간을 기한으로 하는 軍事分界線에 대한 敵과의 合意時效가 滿了되자 Ridgway 대장은 Van Fleet 대장에게 공세로 移轉할 제8군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에 그는 『상황이 急轉하여 이제는 我軍의 전갈은 進擊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敵이 그 동안에 全전선에서 堅固한 진지를 마련하였으므로 화력만으로서는 이를 격파하기 어려우니만큼 과감한 돌격만이 이를 해결할 것으로 전제할 때, 막대한 代價를 치르지 않고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무렵 제8군의 군단장급 고급 지휘관들도 情勢를 分析하되, 『현재 우리가 확보중인 前進陣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아래 소규모의 공격을 斷行한다는 것은 다만 희생만이 뒤따를 뿐이고 그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見解에 到達한 듯 하다는 바,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의 主張), 이 당시 Van Fleet 대장은 Ridgway대장이 요구하는 공격계획에 대한 뚜렷한 指針을 세울 수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美合同전략계획단「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 Group(JSPOG)」의 11월 18일字 참모보고서에 의하면 이보다 앞서인 11월初旬에 제8군이 장차 협상이 결렬되거나 그 전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鴨綠江까지의 進軍계획을 염두에 두고 元山—平壤線으로의 前進계획을 策立한 바 있었으나 여기에 대하여 군사령관은 예상손실에 비하여 가치가 없다는 견지에서 懷疑的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同 JSPOG의 12월 10일字 보고서에서는 이 계획을 分析한 결과 제8군이 元山—平壤線에 진격하는 과정에서 200,000명의 손실이 豫想된다고 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른 海軍과 空軍의 전해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즉, 극동海軍은 『이 작전 中에 北傀가 만일 空中공격을 시도한다면 우리의 艦艇과 상륙

부대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이며 또 극동 空軍 역시 이에 同調하여 『滿洲에 있는 敵의 空軍기지 가까이로 戰線을 넓히는 것은 支持할 수 없으므로 愼重한 前進계획으로 代置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51년 末의 戰線은 UN당국이 協商을 통하여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결말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敵의 계속적인 증원으로 쌍방의 세력이 점차 均衡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제 大規模 공격에 대하여서는 實現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Van Fleet대장은 1월중에 美제1군단 砲兵들이 「High Boy」라는 작전으로 重砲와 戰車를 高地 頂上에 推進하고 傾斜面에 구축된 敵의 築城진지를 直接 사격하는 동안 제1군단 隷下의 제11사단을 제5사단과 代替하는 한편 제6사단(美제9군단)의 진지를 제3사단(陸本直轄)으로 하여금 引受케 하였으며 또한 美제45사단에 이어서 제8군에 배속되어 戰線에 배치된 美제40사단을 美제24사단 陣地를 인수케 하는 부대交代로 이 기간을 充用하였다. 그러다가 2월 2일에 Van Fleet대장은 「Big Stick」이라 命名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UN군 사령관에게 이의 承認을 要申하였는데 그 骨字는 다음과 같다.

『目標 : 開城을 탈환하고 市邊里에 있는 敵의 보급 策源을 剝奪한다.

方針 : ① 美제1군단 正面을 北쪽 禮成江線으로 推進케 한다.

② 美제1해병사단으로써 東海岸에 上陸陽攻을 실시한다.

③ D-day는 4월 5일로 예정한다.』

그러나 이 작전에는 當面한 中共 4개군을 擊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서 我軍은 11,000명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Van Fleet대장은 이 예상손실로 말미암아 이것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이의 代案으로서 「Home Coming」 계획을 22일에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 계획은 「Big Stick」 계획에 比하여 이 공격에는 韓國軍만을 使用하는 것과 해병의 상륙陽攻을 中止하는 것, 그리고 D-day를 4월 1일로 예정하는 세가지 點에 差異가 있었다

제8군은 이와 같은 계획으로 다가오는 春季 공세를 기약하면서 이 계획과는 관계없이 同一한 부대 규모와 동일한 지역에 限定된 수색戰의 反復실시에 젖은 惰性에서 脫皮코자 2월初에 「Clam up작전」이라는 誘引작전을 한차례 試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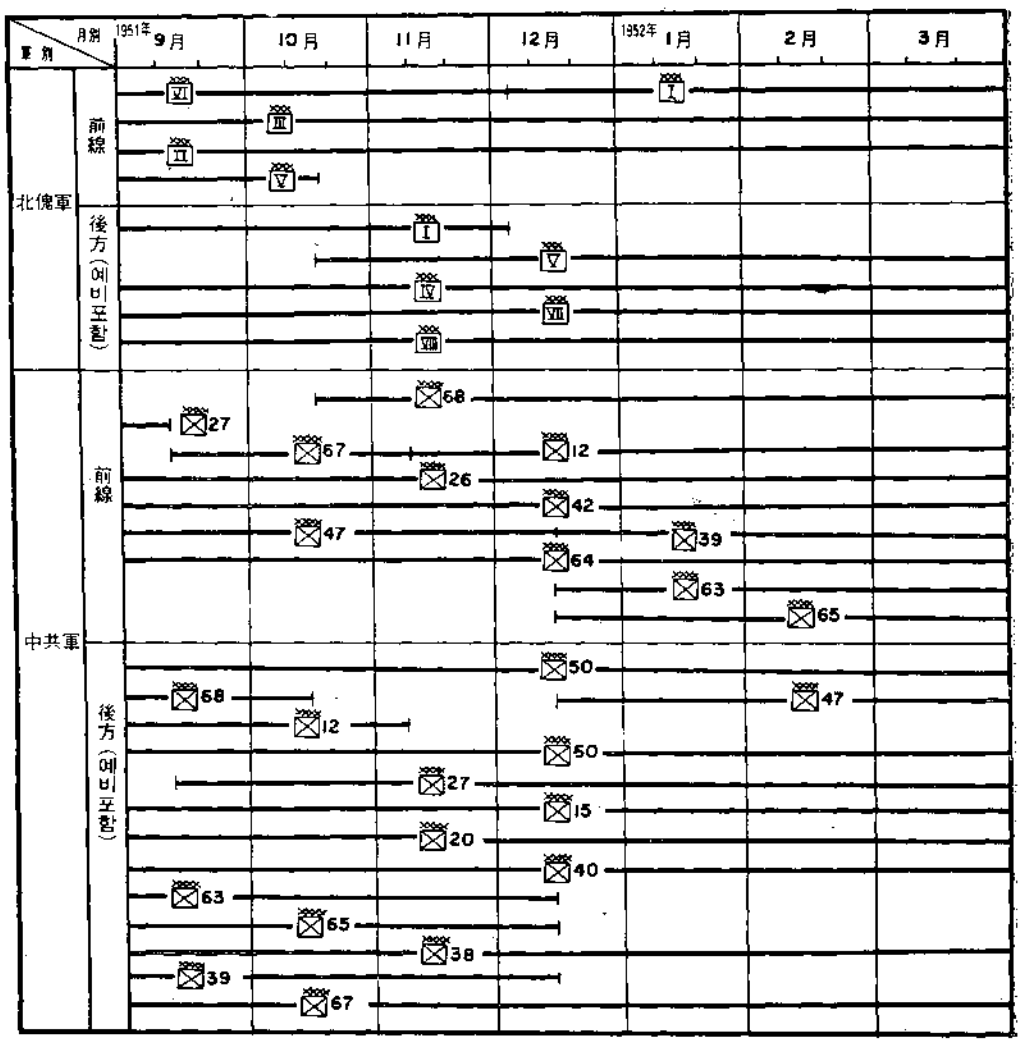
이 계획의 要綱은 我軍이 前線에서 一切의 接戰활동을 중지하고 撤收한 것으로 假裝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이의 眞僞를 확인키 위하여 출격토록 誘導한 다음 反轉으로써 捕獲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敵은 이미 이러한 企圖를 看破한 듯이 이 작전기간 中에 가벼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所期의 목적을 達成치 못하였다.

2월末에 Van Fleet대장은 白野戰전투사령부가 후방에서 潛伏暗躍中인 共匪들을 격멸하고 戰線에 復歸하는 것과 함께 美제9군단 예비인 美제25사단(Turkey 여단 배속)을 美제10군단에 배속하여 美제7사단(Colombia 대대 배속)진지를 인수토록 하는 부대교대를 실시하면

서 예정線上으로의 진격작전에 對備하여 陣容을 정비하였다. 그런데 3월 2일에 Ridgway 대장이 제8군에 이르기를 『본관의 차후 命令이 있을 때까지는 地上작전에 있어서 我軍 前線의 안전과 경계에 필요한 정찰 및 逆襲만으로 制限한다』는 要旨로써 다시 한번 이 方針을 强調하고 제8군의 이 두 계획을 保留하였는데, 이는 2월末에 板門店에서의 休戰會談에 약간의 進展을 보인 까닭으로 愼重을 期하라고 한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3월에 접어들어서도 我軍전선은 여전히 변동없는 對陣이 繼續되었으며 敵은 會談進行中에도 그들의 戰力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니 그들이 會談을 지연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기 어렵지 않게 되었다.

◇상황도 제2호 敵軍 部隊展開



海空作戰 : 制限된 戰線으로 地上戰이 膠着되는 가운데 我軍의 優勢한 海空軍은 敵의 모든 戰力의 根源을 분쇄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美제5공군은 Ridgway대장의 命令으로 8월에 시작한 「Strangle」작전을 계속 감행하고 鐵道, 橋梁, 道路, 兵營, 集結地, 飛行場, 補給所등에 대한 空襲에 많은 戰力을 사용하였으며 美제7함대의 함정과 함재기들은 제5공군작전을 지원하고 封鎖 및 교란 그리고 砲擊활동을 계속하였다.

U.S.S.R.와의 國境線에 가깝다는 이유로 한때 공격을 보류한 羅津에 대하여 8월 25일에 35대의 B-29 重爆擊機 編隊는 24대의 海軍機의 엄호로 첫번째의 공격을 斷行한 것을 비롯하여 기간中에 空軍은 「Strangle」작전에 最優先權을 부여하였다.

이 작전은 문자 그대로 一線의 敵이 그들 후방으로부터 一切의 補給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敵의 兵站線은 그 어느 때 보다도 甚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전이 줄곳 감행된 기간중에 제5공군은 지상 근접지원에 월평균 出擊回數가 339回 내지 2,461回로 감소된 反面에 遮斷 폭격 및 정찰임무를 위한 出擊은 9,000回를 넘었다. 때문에 Van Fleet대장은 9월과 10월에 실시한 공군의 지상근접지원이 줄어든데 대하여 불평하였으나 「Strangle」작전을 지휘한 美극동공군사령관 Otto P. Weyland 대장은 그의 所信을 「The Air Campaign in Korea」(Air University Quarterly Review, Vol. 6, 1953)에서 밝히고 있는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固定된 전선에 대한 계속적인 근접 항공지원은 全 標的에 分散된 持續的인 화력을 요구하게 된다. 在來式 폭탄으로서는 價値있는 火集點에 대하여 空軍의 특성인 機動力과 화력을 이용할 機會가 없으며 固定된 상황下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砲兵사격보다도 高價의 것이 아닐 수 없다.

空軍은 妨害폭격과 무장정찰로 敵의 능력을 줄이고 군수물자의 戰線수송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 敵을 꼼짝도 못하게 할 때 비로소 所任을 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지상에서의 決定的인 전투와 협조하여 근접지원에 노력을 集注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951년 가을에 敵 후방에 대하여 우리의 노력이 게을리 되었다면, 그들의 공세로 轉換할 수 있는 資源을 자유로이 集結토록 放置하였을 것이며 절대적인 기동화력을 아무 效果없이 소모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我軍의 공격은 完全制空權밑에 이루어졌으나 이에는 敵 MIG—15와 날로 增加한 對空砲火의 挑戰을 받았다.

9월에 있어서 MIG—15는 滿洲에 있는 基地로부터 국경을 넘어 때때로 新安州—江界—新義州 上空에 出現하여 我軍폭격기를 공격하였으며 10월 中旬에는 1일 동안에 이들 공격으로 말미암아 5대의 B—29 重폭격기가 격추되고 8대가 損傷을 입었는데 開戰이래 다만 6대의

重爆擊機를 상실한 것에 比하면 敵의 공군은 相當한 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敵의 對空砲火는 보다 넓은 地域에서 我軍機의 低空飛行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我空軍의 爆擊機들은 목표 上空으로 出擊할 때에 戰鬪機의 엄호를 同伴하고 戰爆機들은 事前에 항공사진으로 敵의 對空砲火의 位置를 확인하고 이를 공격 粉碎한 다음에 목표물에 접근하였다.

美제5空軍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美海軍의 艦載機와 美해병대의 航空機, 그리고 Australia 및 South Africa 航空機들도 一齊히 이를 增援하였는데 11월에 이들은 敵공군의 甚한 挑戰을 받지 않으면서 기관차, 貨車등 모든 교통수단과 施設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B-26 輕폭격기는 夜間出擊으로 敵의 主補給路를 制壓하고 B-29 重爆擊機는 그들 兵站기지 폭격에 附加하여 비행장을 폭격하였으며 海軍의 艦戰機들은 18일에 시작한 鐵路및 橋梁파괴계획에 置重하였다.

敵은 이 기간에 推算 7,700명으로 구성된 3개 鐵道勞務團을 編成하여 空襲으로 파괴된 철도와 교량의 補修를 專擔케 하였으며 이러하여 이에 强徵된 인원은 군인과 주민을 합하여 一日 평균 500,000명에 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월 初에 Ridgway대장은 JSC에 空軍작전의 성과에 대하여 評價書를 發送하고 그 결론에서 要旨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換言하면 敵은 계속적으로 爆擊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보급품 및 兵力을 集結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만 戰鬪상황에 있어서 공산측으로 하여금 보급품과 탄약의 소모를 증가토록 하는 변동을 强要하지 않는 한 결국 그들은 大攻勢를 감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본다.』

Ridgway대장이 지적한 내용은 분명히 敵이 對應方策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과 지상공격을 同伴한 空中 공격이어야 効果가 클 것이라는 點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中에 航空母艦 Essex號, Valley Forgs號와 Antietam號의 艦載機들은 39Km~58Km에 達하는 담당구역內의 철도에 대하여 1,500m~4,000m 길이로 路床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폭격지점을 계속 監視하여 敵의 復舊를 10일~20일간 遲延케 함으로써 「Strangle」작전에 이바지 하였다.

그런데 冬季기간에 있어서 空軍作戰의 큰 결함은 夜間과 氣象條件이 나쁜 기간에도 공격을 계속하여 敵이 이 기간을 이용하여 파괴된 철로를 신속히 修理하는 것을 妨害하지 못하였다는 點과 땅이 凍結되어 폭격의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美제5공군은 解凍이 시작된 3월에 가서 美海軍 항공대가 철도 遮斷에 있어서 効果를 본 것과 같이 一定한 철로구역에다 24시간 계속적으로 파괴력을 集中하여 敵의 對應策을 강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큰 威力을 發揮하였으나 25,26 兩일간에 定州—新義州間 철로를 공

격하는데는 都合 307대의 戰爆機와 761대의 戰鬪機 그리고 8대의 B-26輕爆擊機가 動員되어야 하는 큰 代價를 支拂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한편 海軍의 함정들은 空軍이 惡天候로 出擊할 수 없을때 5″艦砲로써 沿岸철도를 포격하여 계속 이들 철로가 차단 상태下에 있게 하였으며 戰艦 New Jersey號와 Wisconsin號, 重巡洋艦 Toledo號와 Los Angeles號, 그리고 Rochester號와 St. Paul號, 輕巡洋艦 Manchester號는 11월과 12월에 걸쳐 제1군단에 각종艦砲 지원사격을 제공하였다. 또한 英國海兵特攻隊는 12월에 元山 및 端川에 기습상륙을 감행함으로써 敵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美合同參謀會議는 기간中에 板門店에서의 협상을 促進하는 方策으로 空軍및 海軍으로 하여금 中共海岸을 封鎖하는 문제를 建議하였으나 이 案은 英國이 반대할 것이라는 美國務省의 消極策으로 말미암아 挫折되어 海軍의 戰力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海軍의 활동이 東·西 兩海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안 敵의 威脅은 크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不斷히 浮遊機雷를 敷設하고 또한 海岸砲臺를 增設하여 沿岸에 접근하는 我艦艇들을 공격하였다.

특히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東·西岸 島嶼에서 美제95기동함대의 지원아래 作戰하는 海兵獨立부대에 대하여 敵이 기습을 꾀하다가 오히려 큰 損失을 自招하기도 하였다.

西南地區 共匪격멸 作戰 : 彼我戰線의 固定을 奇貨로 하여 戰力再정비의 機會를 갖게된 敵은 遊擊隊를 南派시켜 그들에게 同調하는 者들을 규합시켜 所謂「南部軍團」과 道黨 유격대를 編成토록 하고 도처에서 出沒케 하면서 治安의 교란과 軍事시설의 파괴등을 일삼았다.

이들의 暗躍은 9월부터 10월에 이르러 더욱 活潑化하여 釜山近郊에서는 白晝에도 通行車輛을 습격하고 掠奪과 殺人을 茶飯事로 恣行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沃川을 기습하여 放火와 要人납치를 서슴치 않았다.

또한 그들의 本據地로 알려졌던 智異山 일대에서는 警察의 配備에도 不拘하고 夜間에는 治安上 一切의 通行이 禁止되는 가운데 그 피해가 不貲하였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10월 31일 國會는 앞서 忠淸南北道 및 全羅北道의 戰鬪경찰 合同수색대가 沃川을 侵襲한 共匪들을 追擊한 끝에 全北 錦山郡 南面 △653에서 그들 主力 350명을 捕捉 섬멸한 것이 계기가 되어 國軍 1개師團의 후방배비를 軍당국에 건의하게 되었다.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韓國 朝野에서 治安유지에 필요한 적극책을 要望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戰線의 小康으로 一線에서 전투병력의 抽出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共匪들의 潛伏根據地를 急襲하여 격멸 성과를 높이기에는 冬季가 適期임을 판단하고 11월 29일 首都 및 제8 兩개사단을 제1군단과 美제10군단으로부터 白野戰司로 轉用하여 對遊擊戰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兩개사단은 白善燁중장 指揮밑에 智異山 지구로 轉進하여 警察과 合同으로 我空軍의 支援을 얻어 一大 共匪섬멸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白野戰司는 이 作戰을 4期로 區分하되 2월 30일까지 終了할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즉, 제1기作戰('51. 12. 2~12. 14)은 首都 및 제8사단과 경찰부대로 하여금 智異山 일대를 包圍케 하여 12월 2일을 期하여 일제히 決行토록 하였는데, 이 작전에서 首都사단은 南쪽에서 北쪽으로 細石—老姑壇을, 제8사단은 北쪽에서 南쪽으로 盤若峰—智異山을 목표로 包圍網을 압축하면서 探索戰을 전개하였다.

이들 부대는 8일에 각기 목표를 점령하자 反轉하여 殘匪를 索出하고 그들의 再編을 분쇄하기 위한 再探索을 공격경로의 逆順으로 14일까지 감행하였다.

제2기 作戰('51. 12. 16~52. 1. 4)은 智異山 外廓 지대에 力點을 두고 실시되었는데 期間中에 首都사단은 雲峰山—聖壽山—德泰山—天皇山—長安山—德裕山—三道峰을 急襲하였으며 제8사단은 回文山—將軍峰—內藏山—白雅山을 急衝하였다.

제3기作戰('52. 1. 4~1. 31)은 제1, 제2 兩期 作戰에서 격멸전을 완료한 지역을 再探索하는데 重點을 指向하였는데 이 작전이 끝나자 白野戰司와 제8사단은 2월 6일부터 戰線으로 復歸함에 따라 殘務는 首都사단과 西南地區 戰鬪司令部에 위임되었다.

따라서 제4기 作戰('52. 2. 4—2. 8)은 이들 殘置부대에 의하여 主導되었으며 제1기로부터 제3기作戰 기간에 격멸된 그 殘黨 一掃에 力點을 두고 智異山—回文山—神仙峰—白雲山—國師峰—曹溪山—白雅山—首陽山—華鶴山 지역에서 探索을 반복하였다.

이 作戰이 끝나자 3월 14일 00. 00부로 首都사단은 그 任務를 西南地區전투사령부에 引繼하고 그간 사단에 배속되었던 경비부대와 경찰부대를 同時에 넘겨준 다음 다시 戰線으로 복귀함으로써 白戰司가 계획한 모든 任務를 끝마치게 되었다.

期間中에 白野戰司의 戰果는 射殺, 捕虜, 投降등을 包含하여 22,000명에 達하고 노획무기는 3,000정을 上廻하였다.

休戰會談 : 敵側에서 捏造한 中立地帶 침범문제로 休戰會談은 여전히 결렬되어 時日만을 끌어 오던 바 我軍의 夏季와 秋季공세가 奏效한 탓인지 10월 8일에 있었던 연락장교 會議에서 敵側이 비로소 會談場所의 變更 토의에 응함으로써 그 續開의 端緖를 찾게 되었다.

그뒤 19일에 開催된 연락장교 會議에서는 開城 및 汶山주위 4.8Km에 中立地帶를 設定하는 案에 쌍방이 合意하고 25일에 本會談을 板門店에서 再開하게 됨으로써 8월 이래 논란을 거듭한 軍事分界線 設定문제를 다시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UN側은 斷乎히 例의 合同分科委員會에서 쌍방의 現 戰線을 기초로 하고 이곳에 幅 4Km의 非武裝지대를 설치하는 案을 提示하였으나 敵側은 我側에게 全線에서 24Km의 後退를 强要하고 그 代償으로 그들 占領下에 있는 甕津半島에서 撤退하겠다는 主張을 내세움으로써 事實上 38°線의 부활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은 11월 5일에 彼我 접촉線에 立脚하여 4Km의 非武裝지대를 두자는 案에 접근하고 21일에는 敵側이 이를 正式으로 수락함으로써 그 進展을 보게 되었다.

27일에는 모든 議題가 30일 內에 해결되는 것을 條件으로 分界線協定에 쌍방 代表가 調印하게 되었으며 이에 我軍은 이 협정의 假調印으로 一旦 전선에서 停止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다음으로 會談은 議題 第3項인 休戰監視問題 討議에 들어 갔으나 이 문제 역시 相當한 複雜性을 內包하고 있어서 겨우 12월 4일에 쌍방은 ① 敵對行爲의 停止 ② 非武裝지대로부터의 撤退 ③ 同地帶에 대한 出入禁止 등 3개항에 合意을 보았을 뿐 休戰을 효과적으로 監視하기 위한 UN側의 新제안의 주요部分을 그들은 모두 拒否하고 말았다.

10일에 개최된 會談에서 UN側 首席代表 Charles Turner Joy 해군중장은 議題 제4항인 捕虜交換문제를 提案함에 따라 11일에는 이 문제 討議을 위하여 分科委員會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敵側은 捕虜의 全員 對 全員의 교환조건을 主張하였으며 UN側은 『① 公正한 監視下에 自由 의사에 의한 交換 ② 교환前과 교환中에 있어서 傷兵에 대한 人道的 처우, 그리고 휴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監視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翌日 會談에서 UN側은 妥協的인 7개항을 提示하고 敵側의 要求인 ① 中立國에 의한 休戰監視 ② 北韓沿岸의 島嶼와 領海로부터의 撤收를 受諾하는 양보를 서슴치 않았으나 敵은 依然 UN側이 捕虜교환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당한 主張인 國際赤十字社의 포로수용소 방문 및 포로의 名單과 그 收容所 位置의 明示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나 UN側은 억류포로의 全員 석방에 同意하되, 그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强硬한 態度를 取하였으므로 敵側은 마침내 18일에 포로名簿 제출에 동의하였다.

이때 쌍방이 手交한 명부에서 UN側은 32,474명(北傀 11,754명, 中共 20,720명)인데 反하여 敵側은 11,559명(國軍 7,142명, 美軍 3,193명 기타 UN군 1,216명)을 제시하였는데 敵側이 作成한 명부에는 그들 스스로가 전쟁초기에 발표한 65,000명에도 未達하였고 UN側이 槪算한 80,000명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

이에 公報處와 Truman 美大統領은 敵側이 발표한 포로 명단은 도저히 信憑할 수 없다는 聲明을 발표하였는데 Ridgway대장은 21일에 國際赤十字社가 敵側 수용소를 訪問할 수 있게 하라고 要求하였다.

한편 쌍방의 엇갈린 主張으로 停滯되었던 休戰監視문제는 12월 21일에 開催된 휴전감시 分科委員會에서는 다음 條項에 합의를 보고 있었다.

① 休戰協定이 發効된지 24시간 이내에 一切의 敵對行爲을 停止할 것.

② 쌍방의 무장부대는 休戰協定이 發効時에 70시간 以內에 非武裝지대로 撤退할 것.

③ 쌍방의 무장부대는 5일 以內에 相對方의 후방지역 沿岸水域으로부터 撤退할 것.

그러나 會談은 다시 膠着되어 이로부터 30일간의 잠정協定이 만료됨에 이르러 쌍방은

그 책임을 서로 轉嫁하고 非難하면서도 會談 自體만은 決裂되지 않은채 持續되었다.

1월中 空轉만을 거듭하던 會談은 2월에 접어 들자 監視를 위한 出入口의 選定문제가 중심이 되어 다시 舌戰이 再起되었는데, 6일에 開催된 제33차 本會談에서는 議題 제5항 토의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 문제에 있어서는『韓國문제의 平和的인 해결을 토의하기 위하여 休戰後 3개월 이내에 韓國代表가 참가한 가운데 이 문제에 局限된 高位 政治會談을 開催한다.』로 쉽사리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休戰監視문제에 있어서는 敵側이 中立國으로 Czechoslovakia, Poland의 共産兩國과 U.S.S.R.을 指名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인 포로의 强制送還을 계속 固執하려는 것과 함께 會談에서 主動性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邪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월 2일에 UN側 首席代表는 聲明하기를『앞으로 休戰會談을 계속함이 과연 價値가 있을 것인지 敵側의 眞意에 疑惑을 품는 바이다.』라고 하여 猛省을 促求하였으나 北傀의 南日 대표는 奇想天外로 UN側이 細菌戰을 개시하였다는 事實無根한 악선전을 捏造하여 中傷하기에 汲汲하였다.

이리하여 3월 15일에 개최된 兩側 參謀會議에서 UN側은 休戰監視문제에 관하여 總括的인 妥協案을 提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休戰監視를 위하여 出入할 수 있는 場所를 敵側 要求대로 5개소로 수락한다.

② 主力부대의 소재를 상대방에 통고하자는 案을 敵側 주장대로 삭제한다.

③ 상대방에게 威脅을 주는 병력의 集結을 禁止하자는 條項을 敵側의 要求대로 삭제한다.

④ 中立國에 의한 UN側 비밀군사시설을 조사하자는 敵側 주장을 撤回할 것.

⑤ 敵側은 休戰범위를 明白히 規定하기 위하여 休戰文書中에「韓國內」라는 文句을 挿入하자는 UN側 要求를 수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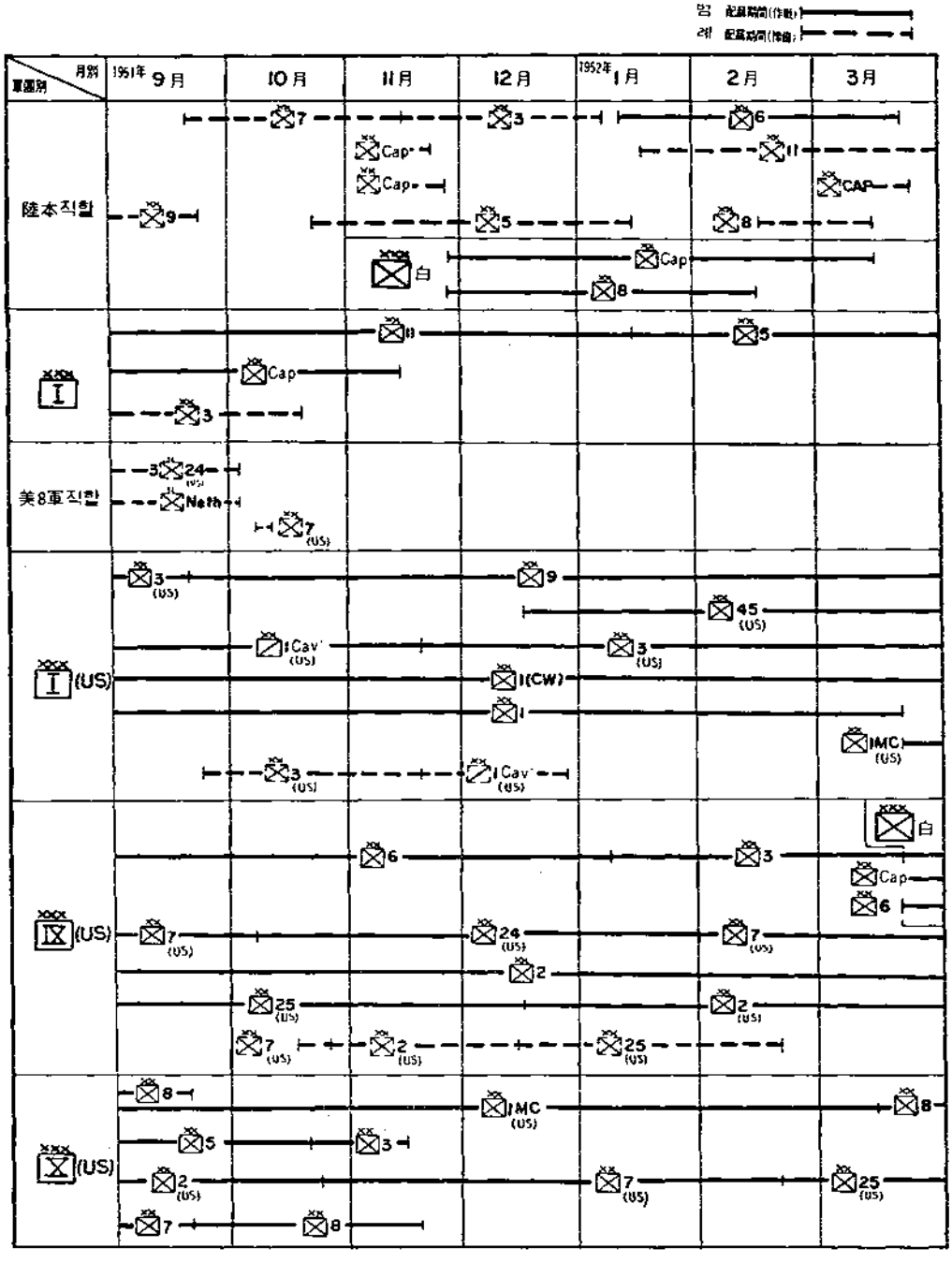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提案에 대하여 敵側은 다음날 잠정적으로 休戰감시를 위한 出入口 문제만을 同意하였으며 20일 會談에서는 我側 지역에서 釜山, 大邱, 江陵, 群山, 仁川(金浦 비행장 포함)이, 敵側 지역에서 新義州, 新安州, 鎭南浦(平壤비행장 포함), 興南, 淸津을 각기 결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의 難關은 監視를 위한 中立國으로 敵側이 UN側에서 容納할 수 없는 U.S.S.R.를 固執하여, 이는 포로송환 문제와 더불어 會談 진전에 큰 暗礁가 되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4일에 쌍방은 참모장교들로 비밀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4월 4일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無期연기를 보게 되었다.

其他事項：韓國전쟁을 停戰으로 마무리 하려는 協商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東西의 冷戰은 격화되었으며 國內事情은 계속된 物價高와 改憲案을 둘러싼 政爭으로 사회불안을 造成하고 있었다.

U.S.S.R.은 10월에 제2, 제3의 原子彈 실험을 발표하고 原子彈이 美國만의 獨占物이 아

◇ 상황도 제3호 師團配置 現況



닙을 豪言하는 가운데 UN으로부터 侵略者의 烙印이 찍힌 中共과의 友誼를 公公然하게 선언하면서 「平和」의 탈을 쓴 僞裝공세 아래 각국에 대한 共産전복 陰謀를 不斷히 恣行하

였으며 Europe에 있어서는 衛星國家에 대한 支配를 강화하고 그 接境에는 115개 사단(U.S.S.R. 75개 사단, 衛星國 40개 사단)을 배치하여 NATO와 對峙하였다.

이런 가운데 美國은 對 U.S.S.R. 包圍戰略의 一環으로 9월 8일 參加國 51개국 中 48개國의 賛同을 얻어 San Francisco 對日 講和條約을 締結한데 이어 美·日相互安全條約을 맺어 日本의 再武裝을 허용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체결된 Philippine과 美國의 相互안전보장 同盟(8.30), 美·Australia·New Zealand 三國安全보장동맹(9.8)을 합쳐 日本—臺灣—Philippine—Australia—New Zealand線의 防壁을 완성하였다.

Europe에서는 對西獨 講和로 歐洲방위 共同體를 구상 준비하면서 Turkey, Greece 兩개 국의 NATO 加盟(9.15)으로 中東—地中海—西獨의 對 U.S.S.R. 防禦線을 구축하고 同盟제국에 대한 원조를 서슴치 않았다.

한편 國內에서는 8.15光復節 경축사에서 李承晩 대통령이 新黨의 組織과 大統領 直選制, 兩黨制 改憲을 示唆함으로써 政街를 술렁이게 하고 民心의 動搖를 자아내게 하였다.

11월 初旬부터 新黨의 發足 기운이 濃厚化함에 따라 大統領 지지 세력은 院內外에서 合同發起준비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黨名을 統一勞農黨이라 假稱하다가 제2차 會合에서는 院內와 院外가 決裂되어 各己別途의 創黨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두개의 自由黨이 동시에 發足하는 混沌을 빚게 되었다.

또 國會에서는 8월 30일에 정부가 제출한 政務官制 설치를 圍繞하고 三巴로 對立하는가 하면 더구나 11월 30일에는 정부에 의하여 大統領 직선제와 上下兩院制를 骨子로 하는 改憲案이 正式으로 提議되어 與野의 격돌을 모면할 수가 없었는데, 1월 18일에 이 案이 表決케 된 바 그 결과는 反對 143, 賛成 19, 棄權 1로 否決되어 일부에서는 國會議員 소환說이 대두하는 등 騷亂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野黨인 民國黨系 의원이 中心이 된 一部에서는 國務院責任制 개헌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署名工作에 착수함으로써 政局은 자못 騷然하였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12월 22일에 釜山 戊區, 潭陽, 求禮, 金堤 등 8개 지구에 對한 補闕選擧를 2월 5일에 실시할 것을 公告하고 이를 실시한 결과 自由黨 3, 民國黨 2, 無所屬 1, 韓青 1, 大韓勞總 1이 각각 당선되었다.

同日에 國務會議는 地方 市, 邑, 面의원 선거를 수복된 全地域에서 4월 25일에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2월 7일에 公告하였으며 同월 20일에는 京畿, 서울, 江原의 未收復지구를 제외한 全國에서 5월 10일에 道의원 선거를 實施할 것을 大統領令 제908호로 公布하여 점차 民主秩序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第 47 章

夏季作戰의 續行

要　　旨

1. 第3次 蘆田坪地區 戰鬪
2. 第1次 加七峰附近 戰鬪
3. 883高地—892高地附近 戰鬪
4. 第1次 白石山 戰鬪
5. 第2次 白石山 戰鬪
6. 登大里附近 戰鬪
7. 棒峴里—芳洞附近 戰鬪
8. 海兵隊의 月山嶺附近 戰鬪
9. 美 海兵隊의 Punch bowl 附近 戰鬪
10. 美 제10군단의 沙汰里—文登里附近 戰鬪
11. 海軍의 活動
12. UN 海軍의 活動
13. 空軍의 單獨出擊 作戰
14. UN 空軍의 活動

第47章 夏季作戰의 續行

要 旨

本章에는 第6卷 第45章에 이어, 1951년 9월 한 달에 걸친, 주로 中東部 戰線의 美 제10군단 戰況을 取扱하였다.

我軍이 敵의 「5월攻勢」를 破碎한 다음, Kansas-Wyoming線으로 進擊하자, 6월 23일에 U.S.S.R의 UN代表 Malik에 의하여 休戰이 提唱되어, 戰線이 膠着된채 月餘를 넘기게 되었는데, 美 제8군이 8월 중순에 접어들어 이와 같은 戰線의 沈滯현상을 打開하기 위하여 夏季攻勢로 移轉하게 되었음은 이미 前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7월 중순에 이어 8월 중순에 이 攻勢를 再興케 되는 緣由 —休戰會談의 早期妥結을 강요키 위한 군사적인 壓力—이것은 戰爭의 樣相을 機動戰에서 陣地戰으로 變貌케 하는 또 하나의 動因을 낳게 된다.

이 期間, 攻勢의 主軸이 되는 美 제10군단은 韓 제8, 美 제1해병, 韓 제5, 美 제2, 韓 제7의 5개 사단으로써 Punch bowl 東北쪽 藏田坪으로부터 加七峯—「斷腸의 稜線」—白石山을 連하는 線에서 攻土爭奪의 血戰을 強要케 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美 제2사단과 北傀 제5군단은 南北縱長 3Km의 稜線 하나를 놓고 한달 동안이나 雌雄을 겨룬 결과 同 사단은 4,000여명을, 그리고 北傀軍은 20,000명을 上廻하는 兵力을 각각 損失하게 되는 바, 그 流血로 稜線을 씻어 내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어떻든 9월 초순의 군단의 全戰線에서 일제히 攻勢를 發起하여 예정된 目標를 하나 하나 手中에 넣게 되고, 이와 아울러 北漢江 西岸과 赤根山 부근에서도 美 제9군단의 韓 제6, 제2사단이 敵의 前進據點을 분쇄하여 이 攻勢의 聲威를 한층 드높이게 된다. 이리하여 10월 15일 「斷腸의 稜線」을 마지막 爭取하는 것으로 夏季攻勢의 幕을 내리게 되는데, 敵이 이 壓力에 굴복한 듯 곧 同月 25일에 板門店에서 休戰會談이 再開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我軍은 韓 제1군단과 美 제9군단 사이의 彎曲部를 修正하여 戰線을 整齊한다는 戰略的인 目的과 休戰協商을 강요한다는 政略的인 意圖를 일단 達成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써 敵의 戰線固守意志가 強靭함을 再評價케 되는 契機가 된 듯, 이 以後로는 제8군이 몇 차례나 계획한 大規模의 攻勢作戰이 UN軍司令部로부터의 政略的인 制約을 받아 모두 實現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이로 보면 이 期間中 彼我間에 自然(地域)의 確保와 人命의 損失에 대한 函數關係에 있어서 그 어떤 共通的인 問題點이 提示된 듯도 하다.

이로부터 移行케 되는 陣地戰에서는 休戰을 위한 現狀維持만으로 局限되어, 作戰의 主導權 掌握보다 더욱 戰力의 均衡에 雙方의 注意가 集中되는 것이다.

1. 第3次 蘆田坪地區 戰鬪(1951년 9월 10일부터 1951년 9월 18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敵軍	
美 제10군단 장 소장 Clovis E. Byers		北傀	
제8사단 장 준장 崔榮喜		제3군단 장 柳京洙	제1연대 장 趙昌浩
제10연대 장 대령 李春景	제3대대 장 소령 鄭順基	제15사단 장 朱燕	제2연대 장 洪一男
제1대대 장 중령 朴致玉	제21연대 장 대령 金富一		제3연대 장 安昌極
제2대대 장 소령 金光	제1대대 장 소령 金光哲		
제3대대 장 소령 崔明道	제2대대 장 소령 金徹		
제16연대 장 대령 李存一	제3대대 장 소령 孟賓永		
제1대대 장 소령 朴海軾	대전차공격대대 장		
제2대대 장 소령 韓炳甲	중령 朴瑞權		
	(9. 1. 부 進級)		
	지원부대 : 美 제300自走砲대대		
	美 제1해병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敵軍의 상황 : 제1,2차 전투에서 敗北한 北傀 제2, 제13 兩 사단은 2개연대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고 △445—△785—△1,031—△965등 要地를 빼앗긴채 △771로 退却하여 이곳에서 新兵을 보충한 다음 제17, 제19 兩연대의 再編에 汲汲하다가 北傀 제3군단 제15사단과 交替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 北傀 제15사단(장, 朱 燕)은 基本병력 9,000여명으로 그간 外金剛에서 부대 再編을 완료하고 8월말 伊布里를 경유 사단 正面에 이동한 것으로 推測되었는 바, 이들은 사단 CP를 伊布里 11Km 東北쪽에 두고 제3연대(장, 安昌極)를 戰線에 投入하여 △771—589를 連하는 線에 제1대대를 配置하고 그 西쪽에 제2대대를, 그리고 △578에 제3대대를 投入하는 한편 제1연대(장, 趙昌浩)를 △802 부근에, 제2연대(장, 洪一男)를 △854 부근에 각각 配置하고 防禦陣地 구축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122mm 곡사포 12문, 120mm 박격포 6문, 82mm 박격포 58문 76mm 16문, 직사포 16문, 重機 60정, 輕機 153정을 保有하고 分隊長級 이상 전원이 다발총으로 裝備하였는데 △854를 제1방어線으로

하여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고 據點으로서 끝까지 이를 固守하려 하였다.

그들은 高地 山頂에 이르는 急斜面을 이용하여 散兵壕를 구축하고 그 前面一帶에 지뢰를 불규칙 하게 埋設하여 놓았는데 대부분의 壕들은 砲彈이나 機銃掃射로부터 능히 支撑할 수있을 정도로 堅固하였으며 僞裝도 잘 되어 있어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 一帶의 地形은 △1,771와 이 高地의 稜線을 따라 뻗어내린 無名高地 및 △589는 岩石이 별로 없고 傾斜도 急하지 않으나 △578와 △854등은 山頂이 저의 奇岩絶壁으로 되어 있고 灌木이 울창하여 防者에는 유리하나 攻者에는 불리한 地形이었다.

捕虜陳述에 의하면 補給은 內金剛 부근에 보급소를 두고 이곳에서 戰線을 통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야간에 차량편으로 伊布里를 경유 보급품을 수송한다는 것인데, 기간중의 보급사정은 비교적 圓滑한 편이라고 하나 하루 하루 給食量이 겨우 1인당 400g였다고 한다.

敵의 隣接部隊로는 右翼에 北傀 제1사단, 左翼에 北傀 제19사단이 있었는데 右翼의 제1사단은 美 제10군단 海兵師團의 공격을 받아 守勢에 몰리고 있었으며 左翼의 제19사단은 東海岸 一帶에서 防禦陣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상황 : 제8사단은 破竹之勢로 △445—△785—△1,031—△965등 戰略的 要地를 逐次的으로 점령하고 계속 사단 戰區內의 Kansas線을 확대강화하면서 次期攻勢에 대비하고 있었다.

사단 CP를 9월 5일 松巨里에서 智禮洞으로 옮기고 △1,031—965—△785—△562를 連한 稜線에 前進陣地를 구축하여 부단히 敵情偵察 및 수색활동을 展開하던중 北傀 제15사단이 사단 正面에 출현하게 되자 사단은 다시 正面의 위협을 받게 되어 제3차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다. 隣接部隊로는 右翼에 제1군단 제11사단이 廣山里에서 主陣地를 강화하고 左翼에는 美 제10군단 제1해병사단이 陽地村에서 사단과 呼應하면서 △1,052—△751와 △673—△749를 併行 공격하고 있었다.

또한 支援部隊로는 美 제300자주포대대가 瑞和里 一帶에 砲陣地를 구축하고 전투기간중에는 사단을 直接支援 하였다. 당시 보급은 論峯里로부터 徹尾洞을 경유하여 北上하는 도로를 따라 수송하였는데 加田里로부터는 도로가 露出된 관계로 차량 수송이 困難하므로 直接兵力을 動員하여 前線까지 8km나 되는 險峻한 山岳地帶를 徒步로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사단사령부의 行政要員들을 비롯하여 各隊 행정요원들까지 동원하는 실정이었고 空輸支援은 기간중 3回에 이르렀다.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正面의 北傀 제15사단이 새로운 威脅要素로 등장하자 敵의 據點인 △854 및 無名高地 일대를 점령하여 군단의 右側을 위협하는 敵을 除去하는 동시에 次期攻勢에 유리한 前進基地를 확보할 것을 결심하고 9월 5일 이에 따르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軍團에 上申하였다.

이에 對하여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9월 6일 군단作戰指示 제229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8사단은 △854 및 無名高地일대를 사단作戰 計劃대로 9월 10일까지 점령하되 H時를 결정 보고하라.

② 작전기간중에는 美 제1해병사단이 화력을 지원할 것이니 兩 사단은 緊密한 연락을

유지하라』

이에 崔榮喜 군장은 9월 8일 사단 作戰命令 제135호를 하달하고 즉각 攻勢로 移轉하였는데 그 作命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854를 점령하여 次期作戰에 對備한 前進陣地로 확보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578 經由, △854를 탈취하라.

③ 제10연대는 2개대대 兵力으로 現陣地를 계속 확보하고 1개대대 병력으로 제21연대공격에 呼應하여 △854側方에서 敵의 퇴로를 遮斷하라.

④ 제16연대는 2개대대로서 제21연대 진지를 인수방어하고 1개대대를 △785에 待機시켜 別命에 따라 제21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對戰車攻擊대대는 D—1일 12.00부로 제16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⑥ 工兵대대는 D—1일 12.00까지 각연대에 1개소대를 배속하여 主로 前進路의 開拓에 任하도록 하라.

⑦ 通信중대는 각연대 CP와 사단전방 CP, 그리고 후방 CP間에 D—1일 09.00까지 有線을 架設하고 有線에는 1,000m 간격으로 標識를 附하라.

⑧ D일 H시는 9.10.05.00이며, 공격間 사단전방 CP는 瑞和里 北方 1km에 位置한다』

(2) 작전실시

9월 10일 : 사단은 전날 12.00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이날 06.00를 期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의 목표는 △854를 공격하기 위한 據點이 될 △771와 그 西쪽에 있는 △589를 점령 확보하고 계속 이 兩高地를 連하는 능선 一帶의 敵을 擊破하면서 △578까지 진출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 △854 側後方의 敵의 退路를 遮斷하여 이를 撲滅키로 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이날 敵의 退路를 차단할 목적으로 △854 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목표로 제2대대와 제3대대 제10중대를 攻擊 第一線으로 하여 △751로부터 進擊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연대 豫備로서 제3대대(一)와 같이 현 陣地에서 隣接 제11사단과 緊密한 연락을 取하면서 계속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제2대대(장, 金 光 소령)와 제3대대의 제10중대는 輕微한 敵의 抵抗을 물리치며 계속 前進하여 15.00에 △854東北쪽에 있는 계곡을 넘어 無名高地 山麓까지 진출하였다.

대대는 이곳에서부터 敵의 저항이 頑强하여 △751부근을 占據中인 제8중대의 重火器 지원下에 據點 西쪽으로 進出한다음 계속 진격을 企圖하였으나 敵의 側方화력의 集中으로 말미암아 19.00에 進出線에서 固守태세를 갖추고 急編防禦를 실시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854 공격을 위한 據點이 될 △771와 △589를 공격목표로 하고 제1대대를 △771에, 제2대대를 △589에 進出시키는 한편 제3대대와 전날 연대에 배속된 對戰車攻擊大隊로 하여금 현방어선을 계속 확보토록 하였다.

△771를 向한 제1대대(장, 朴海軾 소령)는 제1, 제2 兩개 중대를 第一線으로 하여 高地 左側方을 공격하여 09.30에 敵陣에 돌입하자 熾烈한 激戰끝에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에 앞서 敵의 退路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리 高地 北쪽 中腹에 進出하여 대기중인 대대 수색소대는 △578쪽으로 潰走하는 殘敵을 捕捉하여 이를 격멸하였다.

한편 △589로 進擊한 제2대대(장, 韓炳甲 소령)는 右第一線에 제7중대를, 中央第一線에 제5중대를, 左第一線에 제6중대를 전개하고 敵과 接戰하면서 15.00에 돌격준비선까지 진출하여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급기야는 △589를 占領하였는데 이날 연대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手榴彈 200개
射殺		109명	損 失
捕虜		25명	戰死 1명
鹵獲	LMG	1정	負傷 34명
	小銃	20정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854와 △578를 공격목표로 하여 제1, 제3 兩대대가 △578를 공격하고 제2대대가 △854를 공격하였는데 이날 연대는 △578를 점령한 다음 △854 200m 前方까지 進出하였다.

제1대대(장, 金光哲 소령)는 제1중대를 右一線에, 제2중대를 左一線에 각각 展開하고 제3중대를 대대예비로 하여 이날 06.00에 △965로부터 △578 左側으로 進擊하였고 제3대대(장, 孟憲永 소령)는 제9중대로써 東側方의 △578를 强打케 할 목적으로 △924에서 △578로 連하는 稜線을 따라 進擊토록 하였으며, 兩 대대는 13.00에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敵陣前 200m까지 진출하여 同 高地의 左右側面에서 挾攻으로 마침내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어 대대는 계속 그 여세로 전진하여 △578 左側에 있는 無名高地까지 占領하고 △965에 待機中인 제3대대 제10, 제11 兩 중대를 이곳에 진출시켜 점령한 △578와 無名高地 一帶를 확보한 다음 △854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敵의 逆襲으로 제1중대는 그 일부 병력의 分散으로 말미암아 △965로 일단 철수한 다음, 徹夜 부대를 整備하였다.

한편 △854를 向한 제2대대(장, 金 徹 소령)는 제5, 제7 兩중대를 第一線으로 하고 제6중대를 豫備로 하여 △924로 부터 進擊을 개시한 결과 부단히 敵과 交戰을 전개하면서 20.00에 高地下麓까지 진출하였으나 夜陰이 깃들자 陣地를 急編하고 自體警戒를 강화하였는데 이날 연대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殺	58명	戰死	13명
捕虜	11명	負傷	32명

9월 11일 : 사단의 攻勢가 發起된지 불과 하루 사이에 △771—△589—△578 등 前進陣地를 빼앗긴 北傀 제15사단은 전날 △575戰鬪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北傀 제3연대를 제2연대와 交替하는 한편 △854 前方에 새로운 병력을 增强배치하고 頑强한 저항으로 對決코자 하는 듯 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역시 제2대대를 第一線에 내세워 06.00부터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제7중대는 無名高地 정면으로, 제5, 제6 兩 중대는 高地側面에서 頂上을 向하여 一時에 돌격을 감행하여 08.00에는 敵의 第一線을 마침내 돌파하고 血戰끝에 同高地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그 後에 연대 수색소대의 支援을 받아 高地 一帶에서 急編陣地를 마련하면서 敵襲에 對備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제1대대로 하여금 06.00에 △771로부터 無名高地를 목표로 공격케 하였는데, 이날 제1대대(장, 朴海軾 소령)는 제1중대를 右一線에, 제2중대를 左一線에 展開하고 △771와 無名高地 사이의 계곡을 따라 無名高地 下麓까지 저항없이 진출하였으나 이곳에서부터 敵의 側面화력에 부딪쳐 잠시 대대의 공격은 停滯되었다.

이에 대대는 側面화력을 피하여 左側으로 迂回한 다음 제2중대를 先頭로 계속 돌진을 감행한 끝에 10.00에 高地 頂上을 占據하고 後續中인 제3중대로써 이를 固守하는 한편 제1, 제2 兩중대로 하여금 附近一帶에서 殘敵에 대한 擊滅을 계속토록 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美 제300自走砲大隊의 화력 지원下에 06.00부터 전날의 進出線에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제2대대가 △854를 東쪽에서 進擊하여 17.00에 高地 東北쪽 300m 전방에 進出하고, 高地 左側面으로 진격한 제3대대를 右一線에, 제1대대를 左一線에 각각 展開하여 08.00에 高地中腹까지 上向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날 日沒무렵 敵은 2개 中隊兵力으로 제1대대 前面에 强襲을 감행하여 彼我間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부 병력이 分散되어 각 대대는 더 이상 進出하지 못하고 일단 △578로 隨意撤收하여 다음날 전투에 대비하였는데, 이날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245명	戰死	46명
제10연대	127명	제10연대	21명
제16연대	71명	제16연대	9명
제21연대	47명	제21연대	16명

9월 12일 : △854를 끝까지 固守하려는 敵의 저항에 부딪치자 제3사단은 이날부터 예하 3개 연대를 모두 △854 占領一戰에 集中시켰는데 제10연대를 高地 東쪽에서, 그리고 제16연대를 西쪽에서 서로 呼應케 하면서 中央의 제21연대와 같이 同時 挾攻토록 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전날 無名高地를 점령한 제2대대를 豫備로 돌려 수색

소대와 같이 無名高地를 警戒토록 하고 제3대대로써 占領陣地線에서 △854東側을 向하여 공격으로 發進케 하였다.

대대는 東南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7부 능선까지 進出하자 敵의 자동화기의 집중화력으로 攻擊이 不振하여 日沒과 더불어 7부 능선에서 固守태세를 取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계속 제1대대로써 △854 左側을 向하여 제10, 제21 兩연대의 呼應下에 이날 10.00부터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장, 朴海軾 소령)는 제3중대를 右一線에, 제2중대를 左一線에 展開하고 제1중대를 豫備로 하여 敵의 輕微한 抵抗을 물리치면서 前進을 계속하였으나 2Km전방에서부터는 敵의 강열한 側方화력에 부딪쳐 겨우 無名高地 전방 3Km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鄭順基 소령)는 이날 無名高地 一帶에서 대대 豫備로 있으면서 陣地를 防禦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854공격 主攻部隊로서 전날의 進出線에서부터 06.00에 제2대대를 右一線에, 제3대대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제3대대는 이때 豫備隊로서 계속 △578에서 次期攻擊을 待機하였다. 항공기와 포병의 적극 支援下에 전진을 계속한 제1, 제2 兩대대는 15.00에 高地下麓에 다다르자 敵 자동화기의 집중화력으로 공격이 挫折되어 화기소대의 무반동총으로 敵의 화력을 制壓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日沒直前에 겨우 高地 中腹까지 進出하였다.

9월 13일 : 사단은 이날 東海岸으로 부터의 艦砲사격과 航空支援射擊下에 △854 頂上을 목표로 左右 挾攻으로 火力戰을 전개하면서 突進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이날 06.00에 제3대대로써 高地 右側을 目標로 공격을 하였으나 敵의 집중화력으로 전진이 如意치 않았다.

항공지원과 포격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커다란 奏効를 보지 못하였으며 겨우 대대 직사화기로 이를 制壓하면서 18.00에 敵陣 200m 전방에 進出하여 敵과 對峙한채로 急編陣地를 구축하고 固守態勢에 들어갔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제1대대로써 06.00부터 공격을 재개케 하여 15.00까지 接戰하면서 △854 左側 8부 능선에 肉迫하였으나 여기에서부터 頑强한 抵抗에 부딪쳐 공격이 다시 挫折되었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이날부터 예하 3개 대대와 함께 그간 연대 배속으로 無名高地 一帶에서 활동中인 대전차공격대대의 2개중대를 공격에 가담시켜 最後 돌격을 敢行하였다.

연대는 工兵小隊를 선두로 前面에 埋沒되어 있는 지뢰를 除去하면서 一步一步 敵陣에 육박하였으나 高地 急斜面에 교묘하게 구축하여 놓은 散兵壕에서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을 加하였기 때문에 연대의 進擊은 膠着되었다.

연대는 前後 3次에 이르는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21.00까지 끝내 敵의 防禦 第一線을 돌파치 못하고 敵과 對峙한 채로 急編진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데 이날 戰鬪에서 연대는 敵 91명을 사살하고 戰死 21명과 負傷 56명의 損失을 입었다.

9월 14일 : 사단은 공격 4日째를 맞이하면서도 8부 능선에서 敵과 對峙하였을 뿐 戰況에는 아무런 進展이 없는 가운데 이날 未明을 기하여 다시 敵陣을 향해 突擊戰을 감행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제3대대의 제9, 제10, 제11 3개 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전날의 攻擊線에서 다시 돌격을 감행하여 계속 進出을 기도하였으나 彼我間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였을 뿐 戰況에는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20.00에 제1대대와 공격임무를 교대하고 △924로 轉進하여 前進陣地를 방어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이날 제3대대로써 09.00부터 攻擊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8부 능선에서 敵의 執拗한 저항과 자동화기의 集中火力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如意치 못하였는데 오직 無名高地 西南쪽에 있는 △441를 공격한 제1대대 수색소대만이 이날 12.00에 同 高地를 점령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예하 3개 대대와 對戰車공격대대까지 總動員하여 이날도 敵과 4차에 걸쳐 치열한 攻防戰을 반복하였으나 戰況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20.00에 사단장 命令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交替를 실시하였다.

즉, 제1대대는 △854 공격임무를 제16연대 제1대대에 인계한 다음, 제3대대가 확보중인 無名高地 東北쪽으로 轉進하였으며, 제2대대는 계속 공격 梯隊로서 現戰線을 固守하고, 제3대대는 △854 공격임무를 제16연대 제2대대에 인계한 다음 同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無名高地 西南쪽으로 轉進하였다.

9월 15일 : 사단은 제21연대가 連日 계속되는 攻防戰에서 過多한 손실을 입게되자 그 가운데서도 再整備가 必要한 제1, 제3 兩대대를 뽑아 제16연대 제1, 제2 兩대대와 교체케 하고 새로이 支給받은 無反動銃 4정(75mm 2정, 57mm 2정)을 이들에 配定하여 頂上의 敵陣을 强打점령키 위한 措置를 講究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제1대대를 공격 第一線에 내세워 이날 06.00부터 美제300자주포大隊의 支援下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朴致玉 중령) 제1, 제2 兩중대를 高地正面으로, 제3중대를 右側面에 展開하여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18.00에 敵陣 150m前方까지 육박하였으나 날이 저물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들은 進出線에서 야간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21.00에 이르러 야간공격을 試圖하였으나 敵의 反擊에 부딪쳐 이 공격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이날 처음으로 攻擊에 참가한 제2대대를 右一線에, 그리고 제3대대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1대대를 豫備로 하여 06.00부터 △854 左側을 목표

로 攻擊을 개시하였다. 兩 대대는 12.00에 제8, 제12 兩중대와 重砲中隊의 支援사격밑에 敵의 側方화력을 제압하면서 高地 中腹까지 占領한 다음 여기에서 戰列을 재정비하고 계속 頂上을 향하여 步一步 進擊하였다.

이들은 前斜面에 구축하여 놓은 敵의 火器陣地로부터 자동화기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겨우 日沒무렵에야 高地 突擊線에 진출하였으나 戰況進展이 如意치 못하여 다시 山腹으로 反轉하여 다음날의 作戰에 대비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제10, 제16 兩연대의 공격부대와 같이 無反動銃으로 敵陣을 강타하면서 제2대대와 對戰車攻擊대대 수색대로써 전날 固守線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18.00에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突擊線에 進出하여 肉迫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敵의 阻止線을 突破하지 못하고 敵과 對峙한채로 進出線에서 急編防禦에 들어갔다.

이날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90명	戰死	32명
제10연대	87명	제10연대	8명
제16연대	62명	제16연대	13명
제26연대	41명	제21연대	11명

9월 16일 : 敵과 對峙한채로 하루 밤을 보낸 사단은 인접부대와의 緊密한 連繫下에 左隣接인 美 제1해병사단 및 美 제300자주포대대의 砲 支援을 얻는 가운데 이날 07.00부터 頂上을 向하여 계속 肉迫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제1대대로 하여금 攻擊을 계속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右第一線에 제2중대를, 中央第一線에 제1중대를, 左一線에 제3중대를 展開하고 제3대대의 제9, 제10 兩개중대를 後續部隊로 하여 突進하였다. 그리하여 △854右側面에서 로켓砲와 無反動銃으로 敵의 화력을 制壓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는데 제2중대는 18.00에 △854의 한 高地의 頂上을 占領한 다음 즉각 後續部隊인 제9중대와 함께 점령지역 一帶에서 방어 태세를 갖춤에 따라 제1, 제10 兩 중대는 △854 中腹에 配陣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전날과 같이 右一線에 제2대대를, 左一線에 제1대대를 전개하고 제3대대를 豫備로 하여 수류탄으로 敵의 阻止線을 돌파하고 惡戰苦鬪끝에 15.00에는 △854 左側一角을 점령하였으나 불과 20분도 못되어 北斜面에서 敵의 不意의 역습을 받아 다시 그곳을 離脫하게 되었다.

이는 사단 左側地境線上의 壓制高地가 敵의 手中에 들어 있어 左翼의 제16연대는 항시

左側方이 敵의 威脅에 直面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접 美 제1해병사단의 最先端과 제8사단의 最先端과의 地境線上의 거리는 무려 10Km나 떠러져 있어 이 兩 사단간의 間隙上에 있는 敵制高地에서는 敵이 직사포와 박격포로 사단의 進擊을 阻止하고 있어 연대는 高地 탈환작전과 더불어 항시 左側方으로부터의 위협을 견제하고 있어야만 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제2대대가 이날도 돌격을 거듭하였으나 敵은 병력과 화력을 더욱 增强하고 대대가 敵陣에 육박하면 後斜面에 구축하여 놓은 壕속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執拗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공격은 다시 鈍化되었다. 이때에 제2대대장 金 徹 소령이 先頭에 突進하다가 부상하는 등 많은 戰傷者가 속출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의 連日 계속되는 격전에도 불구하고 보급지원 문제는 險峻한 山岳地帶에까지 推進하였기 때문에 車輛은 全然 利用치 못하는 狀況下에서 行政要員까지 동원하여 탄약을 運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그것도 충분치 못하여 空輸支援으로 이를 겨우 충당하는 실정이었다.

이날 밤 대대는 처음으로 야간 공격을 企圖하고 蘆田坪 고개에서 美軍 G.M.C에 설치된 Searchlight 照明을 얻는 가운데 감행하였으나 야간행동의 未熟과 敵의 끈질긴 저항으로 28명의 戰死者와 73명의 負傷者를 내는 損失만을 입고 공격은 中斷되었다.

9월 17일 : 사단은 惡戰苦鬪끝에 高地一角을 점령 확보하고 이날 美 제2사단에서 無反動銃 조작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은 사단교육대 일부 병력을 제10연대에 배속시켜 無反動銃으로 敵陣을 强打하면서 頂上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이날 05.00부터 無名高地를 방어중인 제2대대를 제외한 제1, 제3 兩 대대로써 高地 정상을 향하여 攻擊을 開始하였는데 사전에 대대 OP로 부터 無反動銃으로 敵陣을 强打하고 煙幕遮障을 한 다음 제1대대 제2중대(장 李範俊대위)가 特攻隊를 선두로 제일 먼저 敵陣에 육박 돌입하여 苦戰끝에 19.00에는 △854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高地를 끝까지 固守하려던 1개 대대규모의 敵의 殆半을 사살하자 殘餘兵力은 東北쪽 능선을 타고 潰走하였다. 대대는 즉각 戰列을 재정비하고 陣地를 急編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제21연대로 부터 새로 배속받은 대전차공격대대를 攻擊에 참가시켜 高地 左側面에서 인접부대인 美 제1해병사단의 화력지원을 받는 가운데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敵은 공격대대가 8부능선까지 進出하는 것을 기다려 背斜面에 구축하여 놓은 壕속에서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全화력을 集中하여 逆襲을 감행한 까닭으로 번번히 공격이 挫折되어 7부 능선으로 反轉하는 것을 例로 하였다.

이 때에 제2대대장 韓炳甲 소령은 8부 능선에 對空標識板을 펴놓은 채로 철수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제5중대 제1소대 선임하사관 李善求 이등중사와 金炳浩, 嚴富成 일등병으로

하여금 決死隊를 편성, 이를 제거 철수케 하였는데 이들은 수류탄 6발씩을 휴대하고 敵陣에 육박하여 능선에 마련하여 놓은 對空標識板을 철거하는 한편 수류탄으로 敵陣을 급습하여 堅壘 2개를 파괴하였다.

3. 제21연대(장, 金富一 대령)는 命에 따라 △854와 無名高地를 連하는 능선일대로 轉進하여 戰列을 재정비하고 高地 부근을 완전 확보하기 위한 다음날의 작전에 對備하였다.

△854는 圖上으로 보면 1개 高地로만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最高峰外에 5개의 無名高地가 있고 또한 그 地勢도 매우 嶮峻한데다가 敵이 要地要部에 堅壘를 구축하여 놓고 配陣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을 점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확보하려면 周邊一帶의 5개 無名高地를 모두 掌握하여야만 하였다.

9월 18일 : 전날 高地의 정상을 점령한 사단은 계속 殘敵을 섬멸키로 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는 계속 △854일대의 남은 봉우리를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05.00부터 제21연대와 함께 殘敵에 대한 격멸작전을 개시하여 16.00에는 殘餘 5개 山峰을 모두 확보하고 부근일대에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는 이날 09.00에 마지막 공격을 개시하여 14.00에 高地左側一角을 점령한 다음 △854에서 無名高地에 이르는 능선일대에 병력을 展開하였다.

3. 제21연대(장, 金富一 대령)는 새벽 05.00부터 제10연대와 같이 부근일대의 殘敵을 격멸하여 주변일대에 連한 無名高地를 점령 확보하였다. 그러나 13.00에 이르러 △854 北쪽에 있는 △556로부터 1개 중대규모의 敵이 반격을 加함으로써 이 敵과 交戰끝에 끝내 이를 격퇴하고 이어 無名高地 부근에서 夜間防禦를 실시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9일간에 걸친 치열한 攻防戰끝에 北傀 제15사단은 그들이 끝까지 固守하려던 △854를 점령당한채로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고 △556를 걸쳐 △802일대로 潰走하였다. 이 △802는 敵의 제2방어선의 據點으로서 △854 西北쪽 10Km에 있었는데 北傀 제15사단은 이곳에서 병력과 장비의 새로운 補充을 받아 흩어진 隊列을 정비하면서 次期作戰에 대비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 北傀 제15사단 右側에는 北傀 제19사단이 東海岸으로 連하는 一線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左側에는 北傀 제1사단이 방어진지를 強化中에 있었다.

한편 사단은 제3차 作戰에서 점령한 △854 일대에서 防禦陣地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美 제10군단 作戰指示 제235호에 따라 9월 22일에 사단 戰鬪區域을 美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다시 제7사단 戰鬪區域을 引受하기 위하여 楊口郡 方山面으로 轉進하였다.

9월 28일에 사단은 제7사단의 戰線을 引受한 다음 사단 CP를 下牛望(楊口郡 方山面)에 설치하고 제10연대 CP를 金岳里에, 제16연대 CP를 坪村에, 제21연대 CP를 浪魂尾에 각각 설치하였는데 이로써 主陣地에 進入한 사단은 陣地를 보강하면서 前面의 白石山을 중심으로 하는 敵과 對峙하게 되었다. 사단은 제5사단 戰鬪區域을 引受하고 盧田坪 地區에 進出한 이래 이 지역을 瞰制하는 △785—△1,031—△771—△854등의 要地를 3차에 걸친 작전을 통하여 逐次的으로 점령하고 盧田坪地區를 완전확보함과

동시에 戰鬪地域內의 Kansas 線을 더욱 확대강화 하였다.

이 戰鬪(제3차)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51. 9. 10. ~9. 18)

種別 \ 部隊別	射 殺	捕 虜	HMG	LMG	SMG	多發銃	소式長銃	手榴彈
제 10 연 대	1,092	34	17	21	1	54	225	1,250
제 16 연 대	658	77		9		7	29	836
제 21 연 대	227	41	4	9		12	24	
對戰車攻擊大隊	173	8		1		5	3	
工 兵 大 隊	7	3						
계	2,157	163	21	40	1	78	281	2,086

損 失

O/E

種別 \ 部隊別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戰車攻擊大隊	工兵大隊	計
戰 死	10/116	2/80	7/99	/6	/2	19/303
戰 傷	19/430	21/267	21/654	/23	/8	61/1,382
失 踪	/23	/18	/73		/1	/115

§ 參戰者의 證言

◇ 제10연대장 李春景 대령

(1973. 5. 10, 예 준장)

이 전투에서 우리 聯隊는 △854를 공격하였는데 當初 이 高地는 제21연대 공격목표였고 우리 연대는 △1,031에서 사단 예비로 있었다.

그런데 제21연대가 공격을 개시한지 連 4일간 아무런 戰況의 進展없이 8부 능선에서 계속 苦戰을 거듭하자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우리 연대가 제21연대를 超越攻擊을 하였다.

이 △854는 △1,031前方에 位置하였는데 이 高地에 대한 연대 機動計劃은 제2차 戰鬪에서 功勞가 많은 제2대대를 豫備로 돌리고 제1, 제3 兩 대대로써 攻擊하였다. 兩 대대는 工兵各 1개 小隊를 배속받아 前進路를 打開하면서 進擊하였는데 제3대대가 主攻으로 먼저 △854 정상을 점령하고 배속된 工兵隊를 통하여 敵의 접근 가능지역에 2重 3重으로 지뢰를 매설하며 防禦陣地를 구축하였다.

그 結果, 그날 밤 敵이 逆襲하여 왔으나 무난히 이를 擊退하고 야간전투에 弱하다는 우리 軍의 世評을 바꾸게 하였다. 北傀捕虜 진술에 依하면 이 戰鬪에는 영웅칭호를 받은 者들이 많이 參戰하였으나 거의 戰死한 것으로 안다.

◇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

(1973. 6. 10, 예 중장)

이 戰鬪에서 연대 기동계획은 제1대대를 右一線에, 제2대대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3대대를 豫備로 하여 공격하였는데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쳐 戰況進展이 如意치 않아 豫備로 있던 제3대대까지 動員하였으나 高地 突擊線에서 敵과 對峙한채로 치열한 突擊戰만을 反復하였다.

2. 第1次 加七峯附近 戰鬪 (1951년 9월 4일부터 / 1951년 10월 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4호
상 황 도 제 4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美 제10군단 장 소장 Clovis E. Byers
제 5 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제27연대 장 대령 俞 養 濬
제1대대 장 소령 李 南 周
소령 朴 相 一
(51.9.23附)
제2대대 장 소령 成 泳 煥
제3대대 장 소령 金 椿 集
제35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제1대대 장 소령 崔 乘 旭
제2대대 장 소령 鄭 仁 淳
제3대대 장 소령 李 昌 得
제36연대 장 대령 黃 燁
제1대대 장 대위 李 寅 德
제2대대 장 소령 崔 東 安
제3대대 장 소령 李 圭 昇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孫 介 同
사단수색중대 장 소령 朴 達 仁

배속부대
제26포병대대 장 중령 洪 昌 杓
제5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洪 錫 疇
병력 : 장교 T/O의 88%, 사병 T/O의 85%
장비 : 총포 T/E의 100%, 차량 T/E의 63%
(陸本定期作戰報告 제234호 參照)

인접부대
右인접 : 제1해병연대 장 대령 金東河
左인접 : 美 제2사단 제38연대 장
대령 Frank T.Mildren

敵軍

北傀 제2군단
제27사단 장 소장 趙 寬
제 7 연대
제32연대
제 2 사단 장 소장 李 喆 用
제 4 연대
제 6 연대
제17연대
제13사단 장 소장 鄭 炳 甲
제19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我軍의 상황 : 제5사단 제36연대(장, 黃 燁 대령)가 占領中인 피의 稜線(△983—△940—△773)에 대하여 北傀 제5군단 제6사단主力은 8월 26일 새벽부터 攻擊을 加하여 다음 날에는 이미 이를 掠取하고 그 優勢를 넓혔다. 이에 美 제10군단장 Byers소장은 同연대와 이를 急據增援한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美 제2사단으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에 原隊復歸케 하고 美 제2사단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로 하여금 즉각 反擊케 하였다. 한편 그는 군단예비로 있는 美 제1해병사단과 제5사단을 제8사단 및 美 제2사단의 Kansas線陣地 一部를 각각 인수케 하여 군단예하 각사단의 戰鬪正面을 調整한 다음, 군단作指 제224호로서 Punch bowl(亥安盆地)南端을 점령한 美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제5사단과 美 제2사단의 右 第一線인 제38연대로 하여금 각각 一部공격을 감행케 하여 Punch bowl을 席捲토록 함으로써 敵을 驅逐하고 Hays線(城南洞—西希嶺—加七峰—朴達峙)을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는 Punch bowl東壁의 △1,031를 확보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戰線을 整齊하고 피의 稜線을 공격중인 美 제2사단의 東側背를 엄호하며 나아가서는 沙汰里에 이르는 작전路를 掌握하여 피의 稜線 北쪽에 聳立한 高地群에 據點을 형성한 敵을 압박하기 위한 布石의 第一着이었다.

이에 따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27연대(장, 兪載溶대령)를 右一線,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俗稱 寺跡(萬垈里 東南쪽 3km)—兜率山(△1,148)에 이르는 Kansas線陣地를 점령케 하고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를 倉里(楊口 東南쪽 3.5Km)에서 再編케 하였는데 제27연대는 사단作命 제52호에 따라 Kansas線陣地를 제35연대에 인계하고 8.31.06.00에 Hays線을 目標로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左隣接인 美 제2사단 제38연대와의 긴밀한 協調下에 Punch bowl西端을 횡단하면서 중간목표인 A(△792)—B(五柳里)—C(上坪)—D(俗稱 수뢰골—俗稱 가래덕이)를 逐次로 점령하고 9월 3일에는 最終目標인 W(加七峰 東北쪽 稜線—西希嶺)를 탈취함으로써 Hays線으로의 진격을 完了하였다.

그러나 이날 示達된 사단作指 제45호에 따라 사단戰鬪地境線이 美 제2사단地境으로 2Km가 擴張된 까닭으로 연대는 9월 4일에 美 제38연대의 加七峰陣地를 인수하고 그 西北쪽 1.3Km에 있는 △1,211에 대한 공격임무를 賦與받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상황 : 北傀 제2군단은 Punch bowl西壁에서 東壁에 이르는 一帶에 據點을 형성하여 Punch bowl을 掌握하고 있었는데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美 제10군단 右翼인 제8사단이 그 東壁으로 進擊함에 따라 그 東翼을 北傀 제3군단에 인계한 다음, 正面을 좁혀 예하 제27사단을 Punch bowl西壁 一帶에 配置하여 제5사단과 美 제38연대의 Hays線進擊을 阻止하고 그 一帶를 계속 掌握코자 하였다.

이 北傀 제27사단은 제32연대를 一線으로 하여 △792—靈川里와 杜密(△1,059)—加七峰(△1,248)一帶에 前進據點을 마련하였으나 제5사단과 美 제38연대의 진격에 따라 큰 打擊을 받고 △1,211防守의 임무를 제7연대에 인계한 다음, 매봉(△1,290)으로 撤退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敵은 大部分이 강제로 徵兵된 20세 미만의 학생층과 30세 以上의 농민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一線인 제7연대는 병력이 750명이고 裝備로서는 122mm 榴彈砲 5門과 82mm 迫擊砲 15門, 그리고 61mm 박격포 18門과 75mm 直射砲 4門이며 그밖에 중기관총 18挺과 경기관총 25挺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主力인 제14, 제32 兩연대의 중화기와 사단 및 군단砲 36門이 지원하고 主力은 언제라도 交替 또는 增援可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격목표 △1,211(註 地圖表記 △1,210)는 大愚山(△1,178)—加七峰(△1,243)—매峰(△1 290) 連脈의 한 봉우리로서, 地形으로 보아 加七峰에 瞰制되나 防守에 有利한 條件을 갖추었고 그 西南쪽 稜線上의 連峰인 △1,052(△1,211西南 1.8Km)—△841(沙汰里 東南쪽 1Km)는 美 제10군단地境內의 主要作

戰路인 沙汰里道를 瞰制하고 北傀 제5군단 主力인 제6, 제12 兩사단이 主據點을 형성한 피의 稜線 北쪽에 있는 △894—△931—△851 東側背를 엄호하는 立地的 條件을 갖춤으로써 敵은 이를 固守코자 하였으며 美 제10군단은 期必코 이를 탈취 확보하여야만 하는 要衝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 1 차전(9.4~9.6)

(가) 작전 계획

사단의 戰鬪地境線이 左隣接인 美 제2사단 地境으로 2Km가 擴張됨으로서 加七峯(△1,243)으로 進擊한 美 제2사단 제38연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加七峯一帶의 Hays線陣地를 威脅하는 △1,211에 대한 공격任務를 새로 받게 됨으로써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Hays線陣地를 확보중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로 하여금 이를 공격 奪取케 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45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一部 戰鬪地境線을 변경하고 △1,211를 공격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개대대로 하여금 9월 4일 12.00까지 加七峯의 美 제38연대陣地를 인수케 한 다음, 1개대대로써 9.5.08.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 탈취하라.

③ 제35연대는 主力으로 계속 Kansas線(俗稱 寺跡—兜率山)을 확보하고 Wichita線에서 陣地工事中인 대대로써 9월 4일 12.00까지 德谷里로 移動하여 待機케 하라.

④ 제36연대는 現 再編任務를 계속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美 제96포병대대 1개포대가 대대를 화력 증원할 것이다.

⑥ 보급 및 通信은 現行規定에 따른다.

⑦ 戰鬪地境線의 변경은 9.4.12.00附로 發效한다.

⑧ 사단 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 실시

9월 4일 : 1.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은 사단作指 제45호에 따라 Hays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1,211를 공격하게 되자,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指 제8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Hays線을 확보하면서 △1,211를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右一線으로서 西希嶺—加七峯 東쪽稜線에 이르는 Hays線을 防禦하라.

③ 제3대대는 5일 08.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 탈취하라.

④ 제1대대는 4일 12.00까지 加七峯의 美 제38연대陣地를 인수하고 左一線으로서 Hays線陣地를 확보하라.

⑤ 연대 CP는 支石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西希嶺附近의 陣地를 加七峯 東쪽으로 擴張하여

Hays線 右一線陣地를 확보한 다음 제1대대의 陣地交代를 엄호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12.00에 加七峯으로 진출하여 美 제38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2대대와 連繫하면서 Hays線 左一線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金悌集소령)는 연대예비로 雲川里에서 待機中이었다가 공격대대의 임무를 맡게 되자 08.00부터 徒步로 기동하여 11.00에 俗稱 가래덕이(萬盛里 西北쪽 4Km)로 進出한 다음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Kansas線陣地를 확보하고,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사단作指 제45호에 따라 20.00에 德谷里로 集結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이날 倉里(楊口 東南쪽 3.5km)에 集結하여 피의 稜線戰鬪에서의 戰塵을 씻으면서 再編中이었다.

9월 5일 : 1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은 제3대대의 공격에 앞서 제1대대로 하여금 一部병력으로 加七峯 西北쪽 稜線上의 敵 前進據點을 탈취하여 제3대대의 공격路를 啓開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중대(장, 金容和중위)는 01.00에 전날의 陣地인 加七峯 西南쪽에서 躍進한 다음 奇襲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警戒線에 부닥치면서 치열한 交戰을 벌였다. 중대는 즉각 제1, 제2 兩소대를 전개시켜 兩쪽으로 敵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堅固한 據點을 형성한 敵은 1개소대 규모 兵力으로 頑强하게 抵抗하므로 공격에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後 81mm 박격포의 집중지원下에 一齊히 돌격을 감행하여 血戰을 거듭한 끝에 03.25에 無名高地(加七峯 北쪽 0.5Km)를 奪取하고 07.30에 이곳으로 진출한 제3대대에 該高地를 引繼한 다음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金悌集소령)는 04.30에 전날의 陣地인 俗稱 가래덕이에서 기동하여 07.30에 제2중대가 확보한 無名高地로 진출하여 제9중대(장, 成百元중위)를 예비로 控置하고 08.00를 期하여 △1,211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를 先鋒으로 하여 그 西北쪽 稜線을 타고 突進하였는데 正面과 兩側方에 있는 據點에서 熾烈한 射擊을 받아 突進이 頓挫되었다. 대대는 이에 곧 迫擊砲의 支援射擊을 誘導하여 前後 三次에 이르는 突擊을 거듭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日沒과 더불어 제9중대가 확보중인 無名高地로 撤收한 다음,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장, 咸泳煥소령)는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 右一線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2중대의 복귀와 동시에 Hays線 左一線陣地를 整備하고 제3대대의 공격을 火力으로 支援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 76명을 사살하고 8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8명의 戰死者와 99명의 戰傷者를 내는 損失을 보았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主力은 계속 Kansas線을 확보하고 전날 德谷里에 집결한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12.00에 兜率山(△1,148) 부근으로 이동하여 연대예비로서

待機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倉里에서 再編中에 있었는데 이날 하달된 사단作指 제46호에 따라 16.00에 俗稱 골말(林峴里 東南쪽 2Km)로 집결하고 공격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1개중대로써 제26포병대대의 陣地를 경계토록 하였다.

9월 6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27연대 제3대대의 공격이 豫想外로 頑强한 敵의 抵抗을 받아 進展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逆襲 氣勢마저 보이게 되자 사단作指 제47호를 하달하여 제35연대의 1개대대를 14.00까지 上坪으로 鎭進시켜 제27연대의 後方을 掩護케 하면서 增援態勢를 갖추도록 措置하였다.

1 제27연대 제3대대(장, 金湳集소령)는 未明에 제11, 제10 兩중대로 하여금 無名高地를 奇襲케 하였으나 敵陣前 50m에서 企圖가 暴露되어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중, 17.30에는 증강된 2개중대규모의 敵이 熾熱한 포병지원下에 陣前出擊하면서 대대를 兩翼으로 포위공격케 되었다. 대대는 不利한 地形에서 포병의 엄호사격하에 逐次로 撤收하므로 敵을 전날의 陣地부근까지 유인한 다음 一齊히 反擊을 加하여 이 敵을 모조리 격퇴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장 俞義濬대령은 사단作命 제53호에 따라 제3대대의 공격을 중지케 하고 현위치를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을 준비토록 명령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대대는 無名高地에 前進陣地를 確保하고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主力으로써 계속 Kansas線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사단作指 제47호에 따르는 연대장의 명령으로 09.30에 兜率山을 박차고 떠나 15.30에 上坪으로 진출한 다음 上坪—小五柳洞一帶에 陣地를 점령하고 제27연대의 側後方을 掩護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전날에 掌握한 俗稱 골말(林峴里 東南쪽 2Km)에서 戰備를 강화하였다.

4 이날 示達된 군단作指 제228호로 사단戰鬪地境線이 左隣接인 美 제2사단地境으로 또다시 1Km가 擴張됨에 따라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5연대의 일부병력을 Hays線의 左一線으로 展開케 하여 陣地를 강화하면서 그 一部로써 제27연대를 증원케 하여 공격을 再擧키로 決心하고 20.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53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戰鬪地境線의 변경에 따라 一部兵力을 再展開하고 △1,211를 계속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제3대대의 공격任務를 즉시 해제하고 Hays線의 旣占陣地를 제35연대에 引繼한 다음, D日 H時를 期하여 공격을 再開하라.

③ 제35연대는 1개대대를 Kansas線에 殘置하고 9.7.11.00까지 加七峯으로 진출하는 즉시로 제27연대의 旣占陣地를 인수한 다음, 그 以西까지 擴張된 戰鬪地境線內의 Hays線을 확보하라. 1개대대로 하여금 D日 H時를 期하여 제27연대 공격에 協助토록 하라.

④ 제36연대는 계속 現任務를 수행하라.

⑤ D日 H時는 후달한다.

⑥ 戰鬪地境線의 변경은 7일 12.00附로 發効한다.

⑦ 사단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2) 제 2 차전(9.9)

(가) 작전계획

사단作命 제53호에 의거하여 9.7. 11.00에 제35연대主力이 加七峰으로 진출함으로써 사단은 제27연대를 右第一線, 제35연대를 左第一線으로 展開하여 Hays線陣地를 강화 하고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는데 8일 14.45에 前進陣地를 점령한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正面에 1개대대 규모의 敵이 攻勢를 取하였다. 대대는 即刻 誘導된 포병지원사격下에 激戰을 계속한 끝에 이를 격퇴하였으나 敵勢는 아직도 猖獗하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作命 제53호에 의거한 제2차공격전을 決行하여 △1,211 一帶의 敵을 一擧에 격파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① 사단은 9일 05.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하여 一擧에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개대대 규모로써 △1,21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

③ 제35연대는 1개대대 규모로써 無名高地(△1,211 西南쪽 0.5Km)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고 제27연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④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27연대에 賦與한다.

⑤ 사단 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9월 9일 : 1.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은 이날의 공격에 앞서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37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9.9.05.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하여 이를 一擧에 탈취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9일 02.00까지 Hays線上의 現占有陣地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1,211를 공격하여 탈취하라.

③ 제1대대는 제2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연대地境內 Hays線全域을 防禦하라.

④ 제3대대는 제1대대의 進擊과 동시에 現陣地에서 西希嶺 西南쪽 稜線으로 移轉하여 前進陣地를 점령하라.

⑤ 제35연대의 1개대대는 연대를 支援한다.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한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연대에 있다.

⑦ 연대 CP는 兜率山(△1,148)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공격梯隊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02.00에 Hays線陣地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04.30에는 제5, 제6 兩중대로써 △1,211 東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展開한 다음

05.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突擊중대인 제5중대는 중대장 薛景鎬중위의 陣頭指揮下에 △1,211 東北쪽 稜線을 타고 敵의 警戒陣地를 격파하면서 9部稜線으로 돌진하였을 무렵, 背面據點을 확보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공격이 頓挫되었으나 즉각 誘導된 박격포지원사격으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제6중대(장, 車圭憲대위)의 支援下에 제2차의 돌격을 감행하였다. 중대는 수류탄공격組의 先導下에 敵의 기관총진지를 격파하고 喊聲과 함께 敵陣으로 뛰어들어 一進一退의 血戰끝에 16.15에 △1,211頂上을 탈취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餘勢를 몰아 後續한 제6중대와 南斜面으로 挾擊한 제35연대 제1대대의 지원下에 敵이 潰走하여 蟻集한 無名高地(△1,211 西北쪽 0.8Km)로 공격을 再擧하였으나 17.10에 敵은 熾烈한 포병지원下에 一齊히 陣前出擊을 敢行하면서 대대(—제7중대)를 兩翼으로 包圍하기 始作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激戰을 展開하면서 밀어 닥치는 醜敵을 阻止하는 한편 肉迫戰으로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1,211頂上에 急編陣地를 점령하였으나 계속 증원된 敵의 波狀攻勢와 포위망의 壓縮으로 말미암아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不利하게 되었다.



<敵陣으로 突進!>

이때에 대대를 지원한 제35연대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마저 無名高地(△1,211 西北쪽 0.5Km)에서 敵의 포위망 속에서 混戰中에 있어 상호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연대장 俞載濬대령은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대대는 △1,211 東쪽 0.7Km에 있는 無名高地를 敵이 계속 확보하면서 東側方마저 위협하므로 溪谷쪽에서의 제7중대의 엄호밑에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溪谷을 횡단하여 23.00에 加七峯으로 撤收한 다음 散兵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제7중대(장, 趙昌鎬중위)는 연대作命 제37호에 의거한 대대계획에 따라 04.50에 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로 진출하여 제3대대(장, 金楨集소령)의 陣地를 인수하였는데 이때에 이를 看破한 無名高地(△1,211 東南쪽 0.7Km)의 敵은 2개중대 규모로써 奇襲하였다. 중대는 제3대대와 協同하여 熾烈한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고 敵을 追擊하면서 無

名高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進展없는 激戰을 거듭하던중, 대대장 成泳煥소령의 명령으로 西南쪽 鞍部를 확보하고 대대主力의 撤收를 엄호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02.00에 제2대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연대地境에 있는 Hays線全域을 固守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제7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敵의 奇襲을 격퇴한 다음, 主力으로서 西希嶺 西쪽稜線에 진출하여 前進陣地를 점령하였으며, 제9중대(장, 朴在元중위)는 제1대대를 증원하여 加七峯附近의 Hays線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 54명을 射殺 하고 5명의 投降者를 얻었으며, 22명의 戰死와 84명의 戰傷및 9명의 失踪을 보았다.

2. 제35연대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제27연대 제2대대의 △1,211에 대한 공격에 呼應하면서 05.00에 無名高地(△1,211 西南쪽 0.5Km)를 目標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대대는 제1, 제3 兩중대를 第一線 공격梯隊로 하였는데 제3중대(장, 崔忠吉중위)는 西側方으로 迂回하여 敵線에 육박하는 즉시로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無名高地 頂上을 탈취하였다. 중대는 後續한 제1중대(장, 金敬振중위)와 合勢하여 圓形陣地를 편성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는데 13.30에는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으로 제27연대 제2대대의 돌격에 呼應하여, △1,211 南쪽稜線과 西南쪽稜線에 沿하여 挾擊을 始作하였다. 敵은 地勢의 利를 最大限으로 活用한 主據點에서 熾烈한 기관총사격으로 대대(一제2중대)의 공격을 阻止코자 하였다. 助攻인 대대는 一線으로 전개하여 敵火를 最大限으로 分散케 하여 牽制하면서 敵을 계속 壓迫하여 背面으로 돌진하는 제27연대 제2대대 正面에 대한 증원을 阻止하였다. 이러한 抑留策이 奏效하여 主攻인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1,211의 頂上을 目標로 돌진함으로써 마침내 敵線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無名高地(△1,211 西北쪽 0.5Km)로 突進하였으나 17.10에 恣行된 敵의 逆襲으로 退路가 遮斷되고 포위망 속으로 陷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血戰을 거듭하면서 敵의 壓迫을 排除하고 포위망을 돌파한 결과 無名高地(△1,211 西南쪽 0.5Km)로 逐次 撤收하였으나 제27연대 제2대대의 撤收에 따른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으로 急遽出動한 대대예비인 제7중대(장, 李培億중위)와 연대 수색중대의 掩護下에 23.40에 △1,186(加七峯 西南쪽 1.5Km) 山麓으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加七峯 西南쪽稜線에 沿한 Hays線 左翼陣地를 확보하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Kansas線 陣地를 계속 固守中이었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전날에 이어 사단예비로서 俗稱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서 待機하였다.

4. 이날의 공격에서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와 이에 協力한 제35연대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果敢한 돌격으로 北傀 제27사단 제7연대를 격파하고 △1,211를 탈취

하였으나 이때에 任務交替를 위하여 南下한 北傀 제13사단 제23연대의 逆襲에 대하여 舊戰곹에 衆寡不敵으로 Hays線으로 撤收하게 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Hays線을 강화하여 敵勢를 阻止하는 동시에 好機를 看破하여 공격을 取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48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一部兵力을 이동하여 Hays線에서의 防守態勢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現 Hays線上에 堅固한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공격移轉을 준비하라.

③ 제35연대는 Kansas線陣地를 확보중인 제3대대를 9일 20.00부터 隨意撤收케 하여 Hays線을 確保한 다음 固守 防禦를 준비하라. 但 제3대대는 Kansas線에서의 撤收에 있어서 地雷地帶를 引繼하기 위한 2개소대 兵力을 殘置한 다음 10일 13.00부터 原隊로 복귀케 하라.

④ 제36연대는 1개대대로써 10일 12.00까지 제35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Kansas線을 확보토록 하고 연대主力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5야전공병대대는 제27, 제35 兩연대에 각각 1개중대를 배속하여 短時日內에 Hays線의 防禦陣地工事를 强化하라.

⑥ 사단 CP는 계속 野村里에 위치한다.』

(3) 제 3 차전(9. 16~9. 22)

(가) 작전계획

9월 13일에 北傀 제13사단과 임무를 交替한 北傀 제2사단은 제17연대로써 △1,052—△1,211에 據點을 占領케 하고 제4연대는 매봉(△1,290)에, 제6연대는 西希里一帶에 각각 第二線據點을 마련한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그 제17연대는 激戰으로 破壞된 거점을 補修하는 한편 Hays線 右第一線을 확보중인 제27연대 正面에서 威力探索을 試圖하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敵陣이 더욱 굳어지기 前에 △1,211를 탈취 확보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0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一部兵力으로 △1,21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5일 12.00까지 현임무를 제35연대에 인계하고, 16일 04.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 탈취하라.

③ 제35연대는 15일 12.00까지 제27연대의 陣地를 인수하여 사단地境內의 Hays線陣地 全域을 防禦하라.

④ 제36연대는 15일 12.00까지 1개대대를 杜密(△1,053)로 이동한 다음 待機케 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16일 03.00 以後, 제27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⑥ 사단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9월 16일 : 1.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은 공격에 앞서 제1대대를 北쪽으로 迂回케 하여

△1,211 西北쪽 稜線上의 要衝인 無名高地를 탈취케 함으로써 敵의 증원과 退路를 遮斷케 하는 一方, 東쪽과 南쪽稜線을 타고 공격하는 제2대대와 呼應하여 서로 挾擊을 加하여 △1,211를 一擧에 탈취코자 하는 方策을 樹立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16일 04.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211 北쪽으로 迂回하여 無名高地(△1,211 西北쪽 0.8Km)를 탈취한 다음, 계속 △1,21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奪取한 다음 東쪽과 南쪽에서 △1,211를 挾攻하여 이를 탈취하라.

④ 제3대대는 加七峯에 집결하여 공격대대의 지원태세를 갖추라.』

전날 12.00에 Hays線陣地를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에 인계한 연대는 23.00에 Hays線으로부터 공격개시선에 전개한 다음 04.00를 期하여 공격준비射擊의 射程延伸과 동시에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1중대(장, 金性一중위)를 右第一線, 제3중대(장, 黃德晟중위)를 中央, 그리고 제2중대(장, 金容和중위)를 左第一線으로 展開하여 北쪽으로 迂回하면서 돌진하였는데 제1중대는 △1,211 北쪽稜線을 타고 中腹으로 躍進할 무렵, 敵의 據點으로부터 熾烈한 사격을 받아 공격이 一時 頓挫되었다. 이에 대대장 李南周소령은 대대 81mm박격포를 集中하여 중대를 엄호케 하고, 중대는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一齊히 돌격을 감행 하였으나 有利한 地形에서의 기관총交叉射擊으로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제3중대의 側方支援下에 그 北斜面 遮蔽地點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일부병력(40명)을 제3중대에 증원하였다. 제3중대(장, 黃德晟중위)는 제1중대와 併行, 無名高地(△1,211 西北쪽 0.8Km)—△1,211間 鞍部를 목표로 공격하였는데 제1중대가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後退하기에 이르자 이를 엄호하고 계속 돌진하여 16.30에는 그 頂上에 다다랐으나 無名高地와 △1,211의 敵의 陣前出擊으로 激戰을 벌이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제1중대와 合勢한 다음 逆襲하는 敵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21.00에 西希嶺 西南쪽 稜線에 집결하였다. 이때에 제2중대(장, 金容和 중위)는 △1,211 東北쪽稜線을 타고 △1,211를 直衝하였는데 이에 앞서 背面공격으로 打擊을 받은 바 있는 敵은 背面에도 堅固한 據點을 형성하고 頑强하게 抵抗하므로, 一進一退의 激戰만을 반복하던 중, 主力의 撤收에 따라 이를 엄호하면서 逐次로 後退하여 21.00에 西希嶺 西南쪽 稜線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5중대(장, 薛景鎬중위)를 右第一線으로 하여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공격케 하는 한편 제6중대(장, 車圭憲대위)는 左第一線으로서 △1,211南斜面으로 直衝케 하였다. 제5중대는 04.00를 期하여 後續하는 제7중대(장, 趙昌鎬중위)의 지원밑에 加七峯 北쪽稜線을 따라 無名高地로 近迫하였는데 지난 9일의 공격에서 △1,211頂上을 탈취하였을 때에도 이곳만은 점령하지 못했을 정도로 地形의 利를 活用하여 堅固한 據點을 構築한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그 突進이 制止

되었다. 중대는 즉각 誘導된 제35연대의 81mm박격포와 제8중대에 배속된 75mm 無反動銃의 支援下에 前後 三次에 걸친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제7중대의 엄호하에 그 南쪽 遮蔽點에서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熾烈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제6중대(장, 車圭憲대위)는 제5중대의 공격과 동시에 加七峯 西쪽 溪谷을 橫斷한 다음 △1,211南쪽 稜線을 타고 正面으로 돌진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던중 日沒과 동시에 하달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逐次撤收하여 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의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때 제3대대(장, 金榕集소령)는 연대예비로서 加七峯 北쪽에 집결하였는데 공격梯隊인 제1, 제2 兩대대가 撤收함에 따라 제9중대(장, 成百元중위)가 西希嶺 西南쪽 稜線으로 進出하여 제1대대를 엄호하고 제11중대(장, 全炳烈중위)는 加七峯 溪谷線으로 진출하여 제6중대의 撤收를 엄호하였다.

2.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 12.00에 제27연대 陣地를 인수한 다음 Hays線의 右一線防禦를 담당하고,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左一線을 固守함으로써 사단地境內 Hays線陣地 全域을 確保하였으며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연대예비로서 제2대대 後方에서 再編中에 있었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가 Kansas線陣地를 확보하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사단作指 제50호에 따라 전날 12.00에 杜密(△1,059)로 진출하여 사단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俗稱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서 연대CP경계를 담당하였다.

4. 이날 제27연대(장, 兪義濟대령)의 공격이 進展을 보지 못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로 하여금 공격任務를 交代케 하고 공격을 再開하여 期必코 △1,211를 탈취키로 決心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1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211를 계속 공격하여 탈취하려 한다.

② 제35연대(57mm, 75mm 無反動銃班 配屬)는 Hays線防禦任務를 제27, 제36兩 연대에 인계하고 9.17. 12.0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1,211를 탈취하라.

③ 제27연대는 제35연대가 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에 到達할 때까지 同高地를 확보한 다음 主力으로써 9.17. 09.00까지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인수, 확보하라.

④ 제36연대는 1개대대로써 17일 09.00까지 加七峯 西南쪽 稜線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인수하여 이를 확보하라.

⑤ 제27연대에 배속중인 57mm, 75mm無反動銃을 17일 06.00附로 제35연대에 배속한다.

⑥ 제27, 제36 兩연대의 50mm기관총 및 각종 重火器는 제35연대를 지원하라.

⑦ 제26포병대대는 제35연대를 直接 支援하라.

⑧ 사단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9월 17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사단作指 제51호에 의거하여 연대예비로서 再編中이던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를 07.00에 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로 進出케 하여 제27연대主力이 확보중인 西希嶺 西南쪽 稜線—無名高地에 이르는 陣地를 인수하였으며 主力은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陣地를 제27연대에, 加七峯西南쪽 稜線上의 陣地를 새로이 Hays線으로 進出한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에 각각 인계하고 10.50에는 공격개시선인 加七峯 西南쪽 稜線에 전개하였으며 연대戰鬪指揮所를 大愚山(△1,178)에 개설하였다.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이날의 공격에서는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가 先攻梯隊로서 無名高地(△1,211 東쪽 0.7Km)와 △1,211主峯을 동시에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공격준비사격의 射程延伸에 腰接하여 제2대대는 12.00를 期하여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第一線인 제7중대(장, 趙昌鎬중위)는 연대에 배속중인 57mm 및 75mm無反動銃의 熾烈한 지원사격下에 제1대대가 확보중인 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를 超越, △1,211의 關門인 無名高地(△1,211 東쪽 0.8Km)로 돌진하였다. 敵은 포병지원下에 據點에서의 熾烈한 기관총사격으로 중대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중대는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彈雨속을 뚫고 躍進을 거듭하여 一線據點을 수류탄공격으로 격파하고 主據點으로 돌진하였을 무렵 熾烈한 기관총交叉射擊에 밀려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할 뿐,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加七峯 西南쪽 溪谷을 횡단하면서 공격을 개시한 대대主力은 △1,211 南쪽 稜線에 올라 붙었으나 正面의 敵의 前進據點과 西南쪽 稜線으로부터의 側射로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75mm無反動銃의 지원사격下에 사격전을 展開하면서 突進의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西希嶺 西쪽 稜線—無名高地(加七峯 西北쪽 0.5Km)를 점령하고 제7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加七峯 西쪽 溪谷線에서 敵의 側方火力을 抑制하여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이날 공격대대인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捕虜 3명과 多發銃 2정을 얻고 戰死 2명, 戰傷 4명의 損失을 보았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에 공격을 中止하고 西希嶺 西쪽稜線—無名高地(加七峯西北쪽 0.5km)를 확보하였는데 敵은 陣前出擊을 거듭하여 激戰을 展開하였다.

연대는 未明에 이르러서 敵을 격퇴한 다음 07.00에 無名高地로 進出한 제35연대 제1대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Hays線으로 撤收하였다. 제1, 제3 兩대대는 사단作指 제51호에 의거하여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제35연대 제3대대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서 加七峯 東南쪽 稜線에서 再編成에 착수하였다.

3. 제36연대 제2대대도 杜密(△1,059)에서 사단西側背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던 중, 연대

장의 명령으로 09.00에 加七峯으로 進出하여 加七峯 西南쪽 稜線에 沿한 Hays線 左翼陣地를 제35연대 제2대대로부터 인수하고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Kansas線陣地를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俗稱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서 연대CP를 경계하였다.

9월 18일 :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중령)는 04.30을 期하여 一齊히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였는데 炸裂하는 불빛은 대낮과 같이 周圍를 밝혔다. 그러나 射擊距離가 먼 105mm野砲의 위력으로서는 敵의 堅固한 據點을 破壞하기에 不足하였다.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제1, 제2 兩대대로써 05.00를 期하여 공격준비射擊의 射程延伸과 동시에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1대대(장, 崔昇旭소령)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로 殺到하면서 돌격을 개시하여 右側方의 掩體壕를 격파하여 敵 5명을 射殺하고 1명을 사로 잡았으나 頂上部位의 據點으로부터의 熾烈한 기관총사격으로 제2차, 제3차에 걸친 돌격의 보람도 없이 進展을 보지 못하고 그 南쪽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75mm無反動銃 지원하에 사격전을 벌였다. 이에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중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加七峯 東北쪽 稜線으로 迂回,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10.50에 加七峯 東北쪽으로 迂回케 하여 背面공격을 決行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彈幕射擊과 最後阻止射擊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던 중, 연대장의 명령으로 다시 加七峯 西斜面으로 轉進하여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이때 左一線인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전날에 이어 △1,211를 正面으로 공격하여 11.10에는 敵의 側方火力과 前面에서의 頑强한 抵抗을 무릅쓰고 敵前 50m로 肉迫하여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기관총을 비롯한 자동화기의 사격에 휩싸여 寸步의 躍進도 어려워 血戰의 보람도 없이 進展을 보지 못하고 遮蔽點으로 後退하였다. 이때 제26포병대대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엄호사격을 集中하고 배속중인 57mm, 75mm無反動銃은 據點破壞사격을 加하였으나 射擊陣地의 制限과 視界의 不良으로 크게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대대는 포격이 계속되는 동안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急遽 進出한 제3대대의 지원밑에 16.00를 期하여 돌격을 再擧하였으나 頑强한 敵의 抵抗으로 또다시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夜暗을 利用하여 제3대대에서 差出한 1개중대의 돌격대를 △1,211—無名高地(△1,211 東쪽 0.7Km)鞍部로 挺進시켜 奇襲케 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를 △1,211에 집중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돌격대는 夜暗을 利用하여 隱密하게 機動躍進한 끝에 鞍部로 近迫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奇襲하였으나 陣前出擊하는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였다. 연대主力은 이 틈을 타서 △1,211 正面으로 돌진하면서 제3차의 돌격을 決行하였으나, 前面과 西側方으로부터의 敵火에 휩싸이면서 突進이 阻止되었다. 이에 연대主力은 逐次로 撤收하여 그 南쪽에 急編陣地를 점

령하였고 돌격隊도 또한 撤收하여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射殺 24명, 捕虜 1명, 多發銃 2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고 戰死 7명, 戰傷 115명의 損失을 보았다.

2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를 右第一線, 제3대대(장, 金楫集소령)를 左第一線으로 하여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防禦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를 연대예비로 하여 加七峯 東南쪽 稜線에서 대기케 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Hays線左翼陣地를 담당 防禦케 하고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를 俗稱 절터(萬岳里 東南쪽 3.5Km)—兜率山(△1,148)에 이르는 Kansas線을 확보케 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를 俗稱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서 대기케 하였다.

4 이날 17.00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2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一部부대를 移動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9.19. 14.00까지 Hays線陣地를 제36연대에 引繼하고 兜率山 부근으로 이동하여 再編에 任하라. 9일 14.00까지 1개대대로써 제36연대 제2대대가 담당한 Kansas線陣地를 인수, 확보하라. 또 1개중대 병력으로써 砲兵陣地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라.

③ 제36연대는 9.9. 14.00까지 Hays線上의 제27연대陣地를 引受하여 Hays線 全面防禦에 任하라. Kansas線을 담당 防禦중인 제2대대는 地雷地帶 인계병력 40명을 殘置하고 19일 14.00까지 撤收하라.

④ 제35연대는 △1,211를 계속 공격하라.

⑤ 사단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9월 19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未明을 期하여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로써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로써 △1,211를 각각 奇襲케 하였으나 頑强한 敵의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急編陣地로 복귀하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105mm野砲 및 사단이 保有한 57mm와 75mm無反動銃으로서는 敵의 據點破壞가 어려울 것이고 수류탄공격에만 依存하는 공격방식으로서는 損失만 續出하고 지금과 같이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判斷하고 군단장 Byers소장에게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10.10에 △1,211上空에 나타난 美 제5空軍의 전폭기 3개편대는 急降下로 △1,211 一圓을 强打하기 시작하였는데 봉우리는 마치 火山의 爆發과도 같았다.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勇氣百倍하여 硝煙속을 뚫고 △1,211을 目標로 躍進을 거듭하여 11.20에는 敵前 50m에 다다라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地形地物을 巧妙히 活用한 敵據點은 그 熾烈한 폭격에도 크게 打擊을 받지 않고 一齊히 불을 뿜기 始作하고 暫時동안 침묵을 지키던 左右側方의 敵도 또다시 側射를 加함으로써 頂上 20m前方까지 돌진하던 제7중대(장, 李培億중위)를 비롯한 대대는 그 남쪽 遮蔽點으로 또

다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대대는 14.30에 공격을 再擧하였으나 直射砲의 지원을 받는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계속공격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敵의 側方 火力을 制壓하면서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2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연대예비로서 再編中이던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새벽에 기동하여 제36연대 제2대대가 확보중인 Kansas線陣地를 引受하였으며, Hays線右翼陣地를 담당중인 主力은 사단作指 제52호에 의거하여 14.00에 제36연대 제2대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兜率山(△1,148) 부근으로 轉進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사단作指 제52호에 의거하여 Kansas線陣地를 확보중이던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가 14.00에 Hays線으로 進出하여 제27연대 제1, 제3 兩대대가 확보중인 Hays線 右一線陣地를 인수함으로써 左一線陣地를 확보한 제3대대와 더불어 사단地境內 Hays線全域을 防禦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06.00에 俗稱 골말(林塘里 東西쪽 2Km)을 출발하여 이날 밤에 加七峰 東쪽 稜線으로 집결하여 연대예비로서 대기하였다.

4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공격이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자 이날 Hays線으로 진출한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의 主力을 投入하여 △1,211一帶를 南北으로 挾擊함으로써 一擧에 奪取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3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211를 계속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는 1개대대로써 加七峰 以西의 Hays線陣地를 확보하라. 20일 04.00를 期하여 2개대대로써 加七峰 東北쪽으로 迂回, △1,211를 공격하라.

③ 제35연대는 계속 △1,211를 공격하라.

④ 제27연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⑤ 공병대대는 20일 04.00에 행동을 개시하여 제35연대 正面의 敵의 特火點을 破壞하여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⑦ 사단 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9월 20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제2, 제3 兩대대를 공격대대로 하여 04.00에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一齊공격을 예측하였음인지 전날보다 더욱 熾烈한 포병지원밑에 正面과 左右의 三面에서 全火力을 집중하여 연대의 돌진을 阻止코자 하였다. 연대는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右一線에,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를 左一線에 展開하고 비오 듯 퍼붓는 彈雨속을

붙고 一躍 또 一躍을 거듭하여 10.15에는 敵陣 50m前方까지 肉迫한 다음 수류탄을 던지고 全火力을 집중하면서 연대에 배속된 工兵破壞班을 推進시키고자 하였으나 敵의 最後阻止射擊으로 더 돌진하지 못하고 遮蔽點으로 後退하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13.00에는 2개편대의 전폭기가 출격하였으나 △1,211主峰이 아닌 그 西南쪽 稜線一帶에만 對地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큰 効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연대는 全 81mm박격포와 75mm無反動銃의 집중지원밑에 공격을 再開하여 또다시 敵前 50m까지 近迫하여 세차례에 걸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敵의 熾烈한 사격에 휩싸여 進展을 보지 못하고 急編陣地로 복귀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로 돌진하면서 熾烈한 사격을 加하여 敵火를 牽制함으로써 연대主力의 공격에 대한 敵의 側射를 制壓하였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은 공격에 앞서 사단장의 指針에 따라 大要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제1대대는 △1,211 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無名高地(△1,211 西北쪽 0.8Km)를 공격, 탈취하고 △1,211를 挾擊한다.

② 제2대대는 加七峯 東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1,211—無名高地(△1,211 東쪽 0.7Km) 鞍部를 奪取하고 △1,211 東쪽 稜線을 타고 突進, 제1대대 및 南斜面에서 공격하는 제35연대와 挾擊, 一擧에 △1,211를 奪取 확보한다.』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전날 밤에 加七峯東쪽 稜線으로 진출하여 집결하였는데 이날의 공격을 위하여 쉴 사이도 없이 △1,211 北쪽 稜線으로 迂回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1,211 東北쪽 稜線에 다다랐을 무렵, 敵의 警戒線에 부닥치면서 熾烈한 交戰을 展開하자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즉각 공격케 하였으나 漸次 증원된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1,211 北쪽으로의 迂回가 阻止된 채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加七峯 東北쪽 稜線으로 진출한 다음, 04.00를 期하여 △1,211—無名高地(△1,211 東쪽 0.7Km)鞍部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1,211와 無名高地로부터의 敵의 側射와 斜射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加七峯(△1,243)以西의 Hays線陣地를 확보하면서 無名高地로 81mm박격포사격을 집중하여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3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사단예비로서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Kansas線을 확보하고 主力은 兜率山(△1,148) 부근에서 再編成에 착수하였는데 이날 16.00에 하달된 사단作指 제54호에 따라서 제3대대(장, 金楠集소령)가 24.00에 Hays線으로 急據 出動하여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兜率山에서 再編成中이었다.

9월 21일 : 1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1,211 東北쪽 稜線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중, 이날 03.00를 期하여 一齊히 突擊을 敢行한 끝에 敵을 驅逐하고 東北쪽 稜線一帶를 掌握하였으나 08.00에 이곳으로 轉進한 제2대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西希嶺 西쪽 稜線으로 이동하여 戰列을 가다듬었다. 대대는 22.00에 당초의 공격계획에 따라 △1,211 北쪽 稜線으로 또다시 迂回케 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交戰만을 거듭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03.00에 加七峯 東北쪽 稜線을 타고 敎部(△1,211—無名高地)로 奇襲을 決行하였으나 敵의 彈幕射擊과 자동화기의 집중으로 前後 3次에 걸쳐 거듭된 突擊도 進展을 보지 못하고 △1,211 東北쪽 稜線으로 轉進하여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稜線을 확보하면서 熾烈한 사격전을 벌여 △1,211와 無名高地의 敵火를 分散, 牽制하여 제35연대의 南斜面공격을 지원하였다. 이때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Hays線 左翼陣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제35연대의 공격에 화력증원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제36연대 제2대대가 03.00를 期하여 敎部로 돌진함으로써 敵火가 이곳으로 집중된 好機를 捕捉하고 04.00에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가 無名高地로,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가 △1,211로, 그리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공격梯隊의 西側背를 위협하는 △1,211 西南쪽 稜線으로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主攻인 제2대대는 敵火가 分散된 틈을 타서 敵線으로 近迫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脆弱據點과 散兵壕를 집중 공격하고 돌진하였으나 곧 轉換된 敵砲와 據點에서의 기관총사격으로 據點으로의 突進이 阻止되었다. 대대는 50mm기관총의 지원밑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火를 牽制하면서 工兵破壞班을 據點으로 躍進시키고자 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交叉射擊으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그 南쪽 遮蔽點으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포병엄호사격을 요청한 결과 08.45부터 개시된 포병사격이 △1,211一圓에 집중하였으나 30發의 落伍彈이 제2, 제3 兩대대 陣地에 雨注하여 20餘名의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이에 제2, 제3 兩대대는 다시 安全地帶로 後退하여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11.00를 期하여 제2차의 공격을 강행하였으나 進展을 보지 못하고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점령하여 사격전을 벌이면서 새로운 돌진의 기회를 捕捉코자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로 突進하여 一線據點을 돌파하고 主據點線으로 肉迫한 다음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最後阻止射擊에 휩싸여 돌진이 鈍化되어 다시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이때에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左一線공격 梯隊로서 △1,211 西南쪽 稜線으로 牽制공격하여 主攻인 제2대대의 西側背를 엄호하였는데 08.45부터 시작된 사단포병의 落伍彈이 대대 展開線에 集中하여 戰傷者가 續出함으로써 그 東斜面 遮蔽地點으로 後退한 다음 戰列을 가다듬고 11.00를 期하여 제2대대의 공격과 동시에 돌격을 再擧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激戰을 되풀이 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Kansas線 陣地를 확보하고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西希嶺一加七峰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兜率山 부근에서 再編中에 있었다.

4 사단장은 제35연대의 공격을 지원한 工兵大隊가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據點破壞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자 이날 08.00에 사단作指 제55호를 하달하여 12.00까지 原陣地로 복귀토록 하였다.

9월 22일 : 이날 사단장은 군단장의 指導에 따라, 激戰을 거듭하면서도 進展을 보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作戰을 一旦 중지하고 Hays線陣地를 確保하면서 戰力을 强化한 다음, △1,211에 대한 공격을 再開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6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Hays線上에서의 陣地를 强化하고 再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23일 08.00부터 全병력으로써 西希嶺一加七峰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점령하고 固守하라. 一部 병력으로 OPL를 設置하고 威力搜索을 계속하면서 敵의 據點工事를 妨害토록 하라. Kansas線을 확보중인 병력은 22일 13.00附로 현임무를 해제하고 原隊로 복귀케 하라.

③ 제35연대는 23일 08.00까지 雲川里에 집결한 다음 再編하라.

④ 제36연대는 23일 08.00부터 2개대대 규모로써 現占中인 Hays線 左翼陣地를 固守하고 1개대대로써 △1,181一帶를 확보하여 西側背를 掩護케 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⑥ 제5야전공병대대는 23일 08.00까지 제27, 제36 兩연대에 각각 2개소대를 배속하라. 또 1개중대를 제35연대에 배속하여 雲川里一五柳里一上坪一帶의 地雷를 제거하라.

⑦ 사단 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전날 밤 22.00에 西希嶺 西쪽 稜線上의 陣地를 떠나 雙頭洞溪谷으로 迂回하여 △1,211 北쪽 稜線으로 進擊中에 있었는데 이날 未明에 敵線에 부닥치면서 熾烈한 交戰을 벌였으나 地形이 不利하여 逐次로 撤收한 다음 西希嶺 西쪽 稜線으로 복귀하였는데 연대장 黃 燁대령의 명령으로 포병陣地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1,059—△1,181를 점령하여 사단 西側背를 防護키 위하여 轉進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1,211 東北쪽 稜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熾烈한 사격을 교환하던 중,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3.00부터 隨意撤收를 개시하여 23.00에 加七峰 西南쪽 稜線으로 집결하는 즉시로 다음날에 Hays線 右一線으로 進入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加七峰 以西 Hays線 左翼陣地를 확보하면서 제2, 제1 兩대대의 隨意 撤收를 엄호하였다.

2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1개소대의 특공대를 編成하여 02.30을 期하여

△1,211를 奇襲케 하였는데 이들이 頂上一角으로 近接하여 據點銃眼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刹那, 企圖가 暴露되어 熾烈한 사격에 휩싸였다. 특공대는 一齊히 躍進하면서 수류탄을 兩손에 들고 肉彈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投擲距離에 다다르지 못한 채로 쓰러졌으며 04.00에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07.00를 期하여 대대는 西南쪽 稜線으로 공격하는 제3대대의 엄호하에 △1,211 正面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전날보다도 더욱 熾烈한 敵의 포병사격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에 이어 △1,211 西南쪽 稜線으로 牽制공격을 반복하였으나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이면서도 進展을 보지 못하던 중, 사단作指 제56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제2대대와 合勢하고 日沒과 동시에 逐次로 撤收하기 始作하였다. 이때에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無名高地(△1,211 東쪽 0.7Km)의 敵과 對決하면서 熾烈한 사격을 계속함으로써 제2대대에 대한 敵의 側射를 牽制하였으며, 主力의 撤收에 따라 이를 엄호하였다.

3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Kansas線을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Hays線 右翼陣地를 防禦하였는데, 이날 제2대대는 사단作指 제56호에 의거하여 兜率山 부근에서 再編中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와 合勢하고 22.30에 Hays線으로 進出하였다.

이에 연대장 兪義濬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右一線으로서 西希嶺一加七峰에 이르는 Hays線을 防禦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23일 08.00까지 西希嶺 以西陣地를 占領 確保하라.

③ 제3대대는 加七峰 以東陣地를 점령 確保하라.

④ 제2대대는 西希嶺 西北쪽 稜線에 OPL를 設置하고 威力搜索을 계속하라.』

(4) 제4차전(9.28~10.3)

(가) 작전 계획

사단은 作指 제56호에 의거하여 9월 4일부터 개시한 제3차의 공격戰을 22일에 一旦 中止하고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를 右一線,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希嶺一加七峰一無名高地(加七峰 西南쪽 1.5Km)에 이르는 Hays線 防禦陣地를 강화하면서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사단예비로 轉換하여 공격준비에 착수케 하였다.

그런데 9월 26일에 이르러 左隣接인 美 제2사단의 斷腸의 稜線(△894—△931—△851)에 대한 공격이 △1,211를 主據點으로 한 △841(沙汰里 東南쪽 1.5Km)—△1,052(加七峰 西南쪽 2Km)의 敵의 東側方에 대한 위협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旦 中止되자 군단장 Byers 소장은 제5사단에 대하여 要衝인 △1,211를 早速한 時日內에 期必코 탈취토록 督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예비로서 再編을 끝내고 待機中인 제35연대(장, 高

白圭대령)를 공격梯隊로 하여 28일 10.00부터 공격을 再開하여 △1,211를 탈취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58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28일 10.00를 期하여 △1,211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1,211를 一擧에 탈취하라.

③ 제27연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但 명령에 따라 일부병력으로 제35연대를 증원할 준비를 갖추라.

④ 제36연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⑤ 대전차 공격대대에 배속중인 57mm, 75mm無反動銃은 27일 16.00附로 제35연대에 배속 변경한다.

⑥ 제27, 제36 兩연대의 全 중화기는 제35연대에 화력증원하라.

⑦ 제26포병대대는 제35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⑧ 사단CP는 野村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 실시

9월 28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5연대의 공격에 앞서 敵의 銳氣를 꺾고 堅固한 據點을 파괴하기 위하여 군단장 Byers소장에게 항공지원과 군단포병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09.00에 出擊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 6개편대는 △1,211一圓에 대하여 30분간에 걸쳐 急降下 폭격을 加하고 뒤이어 군단포병의 155mm를 비롯하여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중령)의 105mm野砲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공격준비사격을 實施하였다.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공격에 앞서 제3대대를 右一線 공격梯隊로 하여 △1,211 東쪽稜線을 탈취케 하고 이어 △1,211를 공격, 점령한 다음 그 西北쪽 無名高地(△1,211西北쪽 0.8km)로 계속 돌진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는 左一線 공격梯隊로 하여 △1,211西南쪽 稜線을 탈취케 하고 △1,211를 제3대대와 挾擊, 이를 탈취하는 即時로 西北쪽 無名高地(△1,211西北쪽 0.5km)를 계속 공격하여 △1,211一圓을 점령한 다음 敵의 逆襲據點을 一擧에 격파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72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作指 제58호에 따라 28일 10.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211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목표 "4"(△1,211 東쪽 0.7Km)—"3"(△1,211 東南쪽 0.3Km)—"5"(△1,211)—"7"(△1,211 西北쪽 0.8Km)을 탈취, 확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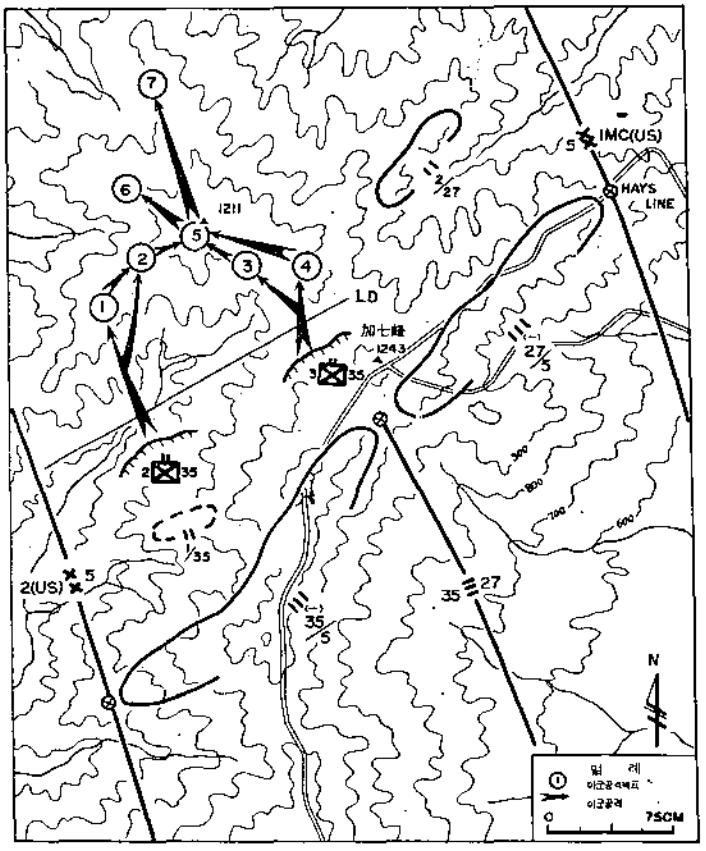
③ 제2대대는 "1"(△1,211 西南쪽 0.8Km)—"2"(△1,211에서 西南쪽 0.4Km)—"5"(△1,211)—"6"(△1,211 西北쪽 0.5Km)을 공격, 탈취하라.

④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최초 無名高地(加七峰 西쪽)를 점령하고 명령에 따라 공격대대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연대를 直接支援한다.

⑥ 연대 전투지휘소는 △ 1,181(加七峰 南쪽 1.5Km)에 위치한다.』

◇ 상황도 제4호 제35연대 作戰計劃



이에 따라 07.20에 공격待機地點인 加七峰 西北쪽稜線一帶에 전개한 연대는 熾烈한 공중공격과 포격에 뒤이어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右一線,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를 左一線 공격梯隊로 하여 10.00에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제9, 제11 兩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목표 "3"—"4"로 돌진하였는데 이에 앞서 1시간에 걸친 對地 공격과 155mm 및 105mm野砲의 사격을 받은 敵은 暫時 침묵을 지킴으로써 대대는 急速進擊으로 敵線 200m 前方까지 肉迫하였으나 敵은 要所마다 형성한 據點에서 一齊히 불을 뿜어 대대의 進擊을 阻止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昌得소령은 後續하는 제10중대(장, 洪永洙중위)를 목표 "4"東쪽으로 迂回공격케 하여 敵火를 분산시켜면서, 제9, 제11 兩중대의 돌진을 督勵하였으나 漸次로 熾烈化하는 敵火로 一進一退의 激戰만을 거듭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溪谷을 뒤덮은 硝煙속을 뚫고 一齊히 躍進하여 깊은 溪谷을 횡단한 다음, 제6중대(장, 金東浩중위)를 右第一線, 제7중대(장, 李培億중위)를 左第一線 공격梯隊로 하여 목표 "2"—"1"로 突進하였는데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敵은 포병지원사격밑에 기관총사격을 시작하였으며 左右側方에서의 敵火는 대대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에 대대장 鄭仁淳소령은 예비인 제5중대(장, 朴亨國중위)를 제6중대 右側方으로 공격케 하여 敵의 側方火力을 牽制토록 하였으나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황을 보고받은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즉각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공격중인 제3, 제2 兩대대는 爆擊線에서 離脫하여 對空布板을 펴도록 명령하고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로써 제2대대를 掩護토록 하였다.

美 제2사단이 공격중인 斷腸의 稜線(△894—△931—△851)一帶를 지원중인 美 공군기는 즉각 △1,211上空에 그 銀翼을 나타내어 20분간에 걸쳐 敵陣을 또 한차례 强打하고 뒤이어 사단포병과 군단포병은 一齊히 砲門을 열어 △1,211一帶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이리하여 다시 攻擊을 再開한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제1대대의 掩護下에 右第一線인 제6중대(장, 金東浩중위)는 목표 "2"의 敵線 50m前方까지 肉迫하였으나 主據點을 형성한 △1,211로부터의 熾烈한 側方射擊을 받아 後續하는 제5중대의 엄호밑에 그 南쪽 遮蔽點에 陣地를 急編하였다. 이때에 제7중대(장, 李培億중위)는 제6, 제7중대의 中間에서 지원하는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와의 緊密한 協調下에 목표 "1"高地 南쪽 稜線으로 迂回하면서 돌진하였는데 그 熾烈한 공중공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큰 打擊을 받지 않은 듯 堅固한 據點에서의 頑强한 抵抗과 左隣接인 美 제38연대地境內의 △1,052—△841로부터의 敵의 側方火力으로 血戰을 거듭하였을 뿐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제1, 제2 兩대대의 공격과 동시에 공격을 再開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목표 "3"(△1,211 東南쪽 0.3Km)으로 牽制공격하는 제11중대(장, 金成梓중위)의 지원下에 主力을 집중하여 목표 "4"(△1,211 東南쪽 0.7Km)를 공격하였다. 제9, 제10 兩중대는 수류탄공격組의 先導下에 8分稜線의 敵據點을 격파하고 頂上으로 肉迫하였으나, 重疊된 據點에서의 頑强한 抵抗으로 세차례에 걸친 돌격의 보람도 없이 遮蔽點에 陣地를 急編하고 散兵을 收拾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 全力을 投入한 공격마저 進展을 보지 못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작전참모대리인 金永逸대위와 정보참모 河泰榮중령을 帶同하고 △1,181의 제35연대 전투지휘소를 訪問하여 直接 作戰을 指導하였는데 제27연대의 1개대대를 목표 "4"(△1,211 東南쪽 0.7Km)의 東北쪽 稜線으로 迂回시켜 제35연대 제3대대를 增援하여 目標 "4"를 合擊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2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金楷集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希嶺一加七峯(△1,243)에 이르는 Hays線 右翼陣地를 확보하고,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加七峯東北쪽 稜線을 占領하였는데 이날 15.00에 하달된 사단장의 口頭명령에 따라 제35연대의 目標인 "4"(△1,211 東南쪽 0.7Km)東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공격을 助攻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右一線,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Hays線 左翼防禦를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杜密(△1,050)一帶에 西面陣地를 占領하고 사단 西側背를 엄호하였다.

9월 25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각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특공대를 편성하여 이날 01.00를 期하여 목표 "4"—"2"—"1"을 奇襲하였으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

다. 다시 04.00에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를 中央, 그리고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목표 "4"—"1"—無名高地(△1,052 東北쪽 0.5Km)에 대하여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대대장 李昌得소령의 陣頭指揮下에 雨注하는 彈幕을 뚫고 敵線에 肉迫하여 과감한 수류탄공격으로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據點을 격파하면서 頂上으로 돌진하였으나 重疊된 據點에서의 기관총의 交叉射擊으로 공격이 頓挫되었다. 대대장은 포병 엄호사격을 요청하여 △1,211로부터의 側方火力을 制壓토록 하는 한편 제10, 제11兩중대를 左右兩側方으로 迂回공격케 하고 제9중대를 正面으로 돌격케 하였으나 進路를 뚫지 못하고 南斜面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점령하여 돌격의 기회를 捕捉키로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제2대대의 공격임무를 인수하여 목표 "1"(△1,211 西南쪽 0.8Km)을 공격하였는데, 先攻梯隊의 소대장 위치에서 陣頭指揮하는 대대장 崔乘旭소령의 勇姿를 우러러보면서 全장병은 決死의 覺悟로 奮戰하였다. 대대는 제2, 제3兩중대를 第一線공격梯隊로 하여 左側方으로 돌진하는 제2대대의 엄호밑에 △1,211 西南쪽 稜線中腹을 타고 목표 "1"로 肉迫하였다. 敵은 前面과 左右兩側方에 형성한 據點에서 미친 듯이 기관총을 쏘았으며 그 中間에 마련한 散兵壕의 敵은 수류탄을 집중하는 火網을 폈다. 공격梯隊는 先頭에서 大號하는 대대장에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돌진하여 敵의 散兵壕를 奪取하고 迂回하여 特火點 銃眼으로 수류탄을 던져 이를 격파하는 즉시로 목표 "1"(△1,211 西南쪽 0.8Km)을 탈취하였다. 대대는 餘勢를 몰아 목표 "2"(△1,211 西南쪽 0.4Km)로 殺到하였으나 △1,211頂上附近의 主據點으로부터의 側方支援을 받는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隨意撤收하여 中腹南斜面에 急編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목표 "1"—"2"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연대 左一線으로서 無名高地(△1,211 西南쪽 1.5Km)로 迂回 공격하였다. 대대는 제5, 제6兩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81mm박격포의 近接支援下에 激戰을 전개하여 熾烈한 敵의 抵抗을 격파하고 이를 점령한 다음, △1,052(美 제38연대 地境內)의 敵火를 制壓하여 제1대대의 西側背를 엄호하였다.

그런데 이날도 결정적인 공격의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薄暮를 期하여 奇襲을 감행할 것을 決心한 결과 제3, 제1兩대대로써 각각 1개중대로 공격을 감행케하였으나 依然한 敵火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原陣地로 복귀하였으며 포병엄호사격밑에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다음 날의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제1, 제3兩대대가 Hays線 右一線陣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전날에 이어 제35연대 제3대대의 目標 "4"공격을 側方支援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 東北쪽 稜線中腹에 急編陣地를 占領한 다음, 熾烈한 사격으로 敵의 逆襲을 牽制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右一線에,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Hays線 左翼陣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杜密(△1,059) 부근에 豫備陣地를 접령하여 사단 西側背를 경계하였는데 이날 『제36연대는 1개중대를 抽出하여 제35연대를 증원하라』는 사단作指 제59호에 따라 연대장 黃 煒대령은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과 協調한 다음 제3대대의 1개중대를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에 증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9중대(장, 盧在萬중위)는 16.30에 Hays線上의 陣地를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에 인계하고 19.00에는 제35연대 제3대대에 合勢하였다.

9월 30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은 공격개시以來 2일간에 걸쳐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큰 전진을 보지 못하자 이날에는 좀 더 과감한 공격을 敢行하여 期必코 △1,211를 탈취토록 督勵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01.00를 期하여 제3대대를 右一線,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一齊히 야간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控置하여 △1,052로부터의 側方火力을 제압하면서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였다.

즉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의 急編陣地에서 躍進하여 목표 "3"(△1,211 西南쪽 0.3Km)로 돌진하였다. 敵은 대대의 奇襲에 唐慌한듯 하였으나 곧 시작된 敵포병의 지원사격下에 겹겹이 형성한 據點에서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昌得소령은 제10중대(장, 洪永洙중위)를 右側方으로, 제11중대(장, 金成梓중위)를 左側方으로 迂回공격케 하는 한편 제9중대(장, 鄭元載중위)는 대대장의 陣頭指揮下에 正面으로 돌진하면서 波狀的인 수류탄공격으로 一線의 敵據點을 침묵시키고 二線으로 肉迫하였다. 敵은 더욱 熾烈한 포격下에 機銃의 交叉射擊을 加하기 시작하고 목표 "4"高地와 △1,211의 敵은 陣前出擊을 敢行하면서 挾擊하기에 이르렀다. 대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엄호사격밑에 대대장을 중심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死傷者만 續出하고 進展을 보이지 못하자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으로 南斜面의 遮蔽點으로 隨意撤收하여 再編成에 착수하였다. 이때 사단포병과 각 연대의 全 81mm박격포는 △1,211와 목표 "3"—"4"로 집중하여 그 炸裂하는 불빛은 대낮과 같이 全 高地를 밝혔다. 지원사격의 射程延伸과 동시에 대대장 李昌得소령은 後續하면서 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제36연대 제9중대(장, 盧在萬중위)에 공격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05.30에 제35연대 제11중대(장, 金成梓중위)의 陣地線을 超越하여 目標 "3"(△1,211 東南쪽 0.3Km)으로 突進하였다. 敵은 침묵중인 據點에서 또 다시 熾烈한 射擊으로 중대의 躍進을 阻止하였다. 중대는 死角點으로 뛰어들어 병력을 收拾한 다음, 제3소대가 正面에서 陽攻하고, 제1, 제2兩소대는 左右側方으로 躍進하여 수류탄공격으로 據點에서 불을 뿜는 기관총을 制壓하면서 突破하여 나갔다.

敵의 第一線을 돌파한 중대는 계속 第二線으로 돌진하였으나 露出된 地形에서의 熾烈한

敵火에 휩싸여 進展을 보지 못하고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엄호밑에 隨意撤收한 다음 명령에 따라 17.00에 原隊로 復歸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제1대대를 超越한 다음 제5중대(장, 朴宇國중위)를 右第一線, 제7중대(장, 李培億중위)를 左第一線으로 하여 목표 "2"(△1,211 西南쪽 0.4Km)로 突進하였는데 敵은 전날보다도 더욱 강력한 화력으로 대대의 돌진을 阻止하였으나 小銃을 어깨에 메고 수류탄만을 兩손에 든 勇士들의 계속적인 공격에 그 一線據點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대는 一齊히 突進하여 主據點으로 近迫하면서 散兵壕를 집중공격한 끝에 그 一角을 탈취하였으나 △1,211頂上 부근으로부터의 側方火力과 據點에서의 熾烈한 交叉射擊으로 砲兵엄호를 받으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1,211 西南쪽 稜線中腹에 急編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제2대대에 공격任務를 인계하고 △1,211西南쪽 稜線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여 △1,052의 敵火를 熾烈한 射擊으로 제압하면서 제2대대의 공격과 撤收를 엄호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 제3兩대대가 Hays線 右翼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목표 "3"공격과 동시에 東北쪽 稜線을 타고 目標 "4"(△1,211 東쪽 0.7Km)로 牽制공격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原陣地로 撤收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3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제2, 제3(一제9중대)兩대대로써 Hays線 左翼陣地를 占領하고 제9중대(장, 盧在萬중위)는 사단作指 제59호(51.9.29. 15.00)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증원, 목표 "3"(△1,211 東南쪽 0.3Km)을 공격하여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進展을 보지 못하고 17.00에 原位置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1,059一帶에 陣地를 점령하여 사단 西側背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였는데 이날 하달된 사단作指 제60호(9.30)에 의거한 연대作指 제42호에 따라 19.30에 加七峰附近으로 이동하여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Hays線 陣地의 引受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로잡은 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北傀 제2사단의 第一線으로서 主據點을 점령한 제17연대는 我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큰 打擊을 받고 다음날 매봉(△1,290)에서 南下하는 제4연대와 陣地를 교대할 예정임이 判明되었다.

10월 1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9월 28일부터 始作된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공격이 堅固한 據點에서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損失만 날로 增加하자, 敵의 陣地 交代를 틈타 決戰을 强要하여 一擧에 最終공격 목표인 △1,211를 탈취키로 決心하고 제36연대(장, 黃 燁대령) 主力을 右一線으로 하여 △1,211를 直衝케 하는 한편, 제35연대는 左一線으로서 △1,052(美 제38연대地境內)로부터의 敵을 牽制하고 그 主力은 無名高地(△1,211西南쪽 0.5Km)를 略取케 하는 同時에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의 1

개대대는 西希嶺으로 迂回하여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攻略한 다음 제36연대의 △1,211공격을 助攻토록 하기로 계획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61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목표인 △1,211를 계속 공격하여 이를 奪取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는 2개대대로서 제35연대 右翼에서 △1,211를 공격하라.

③ 제35연대는 사단左一線으로서 △1,052로부터의 敵의 側方火力을 牽制하면서 無名高地(△1,211 西北쪽 0.5Km)를 공격하라.

④ 제27연대는 1개대대로써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공격한 다음 △1,211를 攻略하라.

⑤ 공격간 각 연대는 緊密한 連絡을 維持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제36연대에 火力의 優先權을 賦與하라.

⑦ 사단 CP는 계속 野村里에 위치한다.』

1 제36연대장 黃 煒대령은 제27, 제35 兩연대장과의 協調下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主攻으로 하여 加七峯 西쪽의 깊은 溪谷을 횡단한 다음, 西南쪽으로 뻗은 △1,211稜線中腹을 타고 正面으로 공격케 하는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의 無名高地(△1,211 東쪽 0.7Km)공격을 지원하고 공격의 進展에 따라 △1,211 東쪽稜線에 沿하여 △1,211를 合擊키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加七峯附近의 Hays線陣地를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에 인계하고 加七峯 西南쪽 稜線에 이른 다음, 10.30에 開始한 공격준비 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11.00를 期하여 3개중대를 第一線에 展開하고 一齊히 躍進한 다음, 깊은 溪谷을 횡단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溪谷을 건너 南斜面稜線으로 올라붙은 대대는 제10중대(장, 白基源중위)를 右第一線으로,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를 左第一線으로 하여 포격에 露出된 敵의 脆弱한 據點을 집중공격하고 主據點을 迂回하면서 돌진하였는데 14.30에 標高 1,100m線으로 肉迫하였을 무렵, 左右側方으로부터의 熾烈한 사격을 받아 공격이 一旦 頓挫되었다.

이에 대대장 李圭昇소령은 포병엄호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제10, 제9 兩중대를 左右側方으로 牽制케 하여 敵火가 分散되는 순간에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를 계속 正面으로 돌진케 하였다. 중대는 大號하는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頂上으로 肉迫하였는데 敵前 50m까지 이르렀을 무렵 圓形을 이룬 地形에 형성한 敵의 主據點에서는 기관총이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하고 계속 落下하여 集中하는 수류탄은 彈幕을 이루워 중대의 進路를 가로 막았다. 중대장 鄭昌鎬중위는 遲滯는 곧 全滅을 뜻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돌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敵陣으로 殺到하면서 散兵壕와 脆弱據點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격파한 다음 主據點背面으로 迂回하여 수류탄공격을 加하였는데 이때에 特火點속의 敵은 발목에 鐵鎖가 묶여 있어서, 背面공격에는 抵抗할 길이 없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頂上의 一角을 무너뜨리고 一齊히 突進하고 唐慌한 敵은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이미 指揮體系가 무너진 다음인지라 중대의 敵手는 되지 못하였다. 중대는 左衝右突로 敵을 무찌르면서 北斜面으로 밀어 닥쳐 據點防禦를 위하여 形成한 敵의 特火點을 背面에서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고 17.40에는 드디어 頂上을 탈취, 확보하기에 이르러, 우렁찬 將兵들의 喊聲은 골자기마다 메아리쳤다.

이때에 左右側方의 敵을 牽制하여 중대의 공격을 지원한 제10, 제9 兩중대는 南斜面一部에서 계속 據點을 固守하면서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을 격파함으로써 戰果를 擴大하였는데 日沒과 더불어 敵의 逆襲에 대비한 대대장 李圭昇소령의 명령으로 急速進擊하여 제11중대와 連繫한 다음 楕圓形 陣地를 편성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제7중대(장, 任正順중위)를 Hays線에 控置하고 加七峯 北쪽으로 진격하여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와의 協調下에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공격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激戰을 전개하던 중, 14.30에 無名高地로부터의 側方火力으로 主攻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공격이 頓挫되자 즉각 공격을 再開하여 敵火를 分散, 牽制한 다음 제3대대의 △1,211점령과 동시에 또 다시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熾烈한 敵의 抵抗으로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돌격의 기회를 捕捉코자 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陣地를 인수하고 Hays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사단作指 제61호에 의거하여 제36연대(장, 黃 燁대령)가 右一線으로서 △1,211主峯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1,211 東南쪽에서 공격을 계속하던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04.00에 西南쪽 稜線으로 轉進케 하여,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가 無名高地(△1,211 西南쪽 0.4Km)를 탈취하는 즉시로 이를 超越한 다음 無名高地(△1,211 西北쪽 0.5Km)를 탈취토록 하고,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無名高地(△1,211 西南쪽 0.8Km)에서 △1,052(美 제38연대地境)一帶로부터의 敵의 사격을 제압하면서 제1, 제3 兩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한 다음, 이를 각 대대에 示達하였다.

이에 따라 先攻梯隊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공격준비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1,211 西南쪽 稜線中腹을 타고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연대 81mm박격포의 근접지원사격과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의 側方엄호밑에 敵線으로 돌진하여 포격에 露出된 敵의 據點을 수류탄공격으로 격파하면서 躍進을 거듭하여 15.30에 無名高地(△1,211西南쪽 0.4Km)를 점령하였다. 이때 右側方에서 後續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一齊히 躍進하여 제1대대를 超越한 다음 無名高地로 突進하였다. 唐慌한 △1,211頂上의 敵은 西쪽 稜線으로 사격방향을 轉換하여 대대의 진격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正面에서 돌진하는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가 近迫함으로써 敵의 화력은 분산되기 시작하였고 이 好機를 捕捉

한 대대는 △1,211 西北쪽 稜線을 타고 無名高地로 돌진하여 果敢한 수류탄공격과 肉迫戰으로 敵을 격퇴한 다음 17.10에 頂上을 탈취하였다, 대대는 △1,211頂上을 탈취한 제36연대 제3대대와 協同하여 즉각 四周防禦陣地를 편성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제3대대의 左翼에 連繫하여 西南쪽 稜線에 陣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1,052의 敵火를 熾烈한 사격으로 制壓하면서 제1, 제3 兩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제3대대가 공격목표인 △1,211 西北쪽의 無名高地를 탈취함과 동시에 △1,211 西南쪽 稜線에 南向陣地를 占領하고, 溪谷에 1개중대를 推進케 하여 △1,052로부터의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金楷集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Hays線 右翼陣地를 防禦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전날에 이어 加七峯 東北쪽 稜線을 따라 제36연대 제2대대와의 協同으로 無名高地(△1,211 東쪽 0.7Km)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敵線에 近迫하자 곧 수류탄을 던지면서 激戰을 벌였으나 特火點을 형성한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東北쪽의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突進의 기회를 노리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10월 2일 : 1.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 17.40에 △1,211頂上을 탈취하고 楕圓形陣地를 점령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07.00에 자욱히 덮힌 안개속을 뚫고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北쪽의 세갈래 稜線을 타고 侵襲하였다.

대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制壓射擊과 동시에 一齊히 步兵火力을 집중하여 敵의 正面突破를 阻止하였으나 2개중대 규모의 敵이 西北쪽 稜線을 타고 突進하면서 後方을 遮斷코자 하고, 이와 併行하여 正面과 東側方의 敵도 수류탄을 集中하여 던지면서 波狀突進을 계속하여 彼我間에 凄絶한 血鬪가 거듭 되었으나 三面으로부터의 挾擊을 받게 된 대대는 時時刻刻으로 狀況이 不利하게 되었으며 西北쪽 無名高地를 탈취한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도 포위망속에 陷入된 채로 激戰중이어서 相互支援은 姑捨하고 連絡마저 杜絶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黃 燁대령은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로 하여금 無名高地(△1,211東쪽 0.7Km)를 目標로 牽制공격케 하는 한편 제3대대는 10.50을 期하여 接敵을 유지하면서 逐次로 撤收케 하였다. 대대는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의 엄호下에 白基淳중위가 지휘하는 제10중대로서 突擊梯隊를 삼아 肉迫戰으로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면서 逐次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1,211 西南쪽 稜線中腹에서 散兵을 收拾한 대대는 즉각 逆襲을 감행하였으나 漸次로 증강된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稜線中腹에서 急編陣地를 점령하여 포병지원下에 熾烈한 사격만을 交換하면서 돌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敵이 제3대대 正面으로 逆襲하자 연대장 黃 燁대령의

명령에 따라 이 敵의 逆襲을 牽制하고 제3대대를 救援코자 전날의 陣地에서 一齊히 躍進한 다음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目標로 공격을 감행하여 頂上으로 近迫하는 즉시로 수류탄으로 激戰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또다시 進展을 보지 못하고 激戰만을 거듭하던 중, 제3대대의 撤收와 동시에 전날의 陣地로 撤退하여 敵의 Hays線으로의 侵襲에 대비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Hays線 防禦를 더욱 강화하였다.

2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에 △1,211 西北쪽의 無名高地를 탈취하고 이를 확보하다가, 사단계획에 의거하여 08.30에 敵이 逆襲據點을 형성한 無名高地(△1,211 北쪽 1Km)를 目標로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는데 07.00부터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 正面으로 逆襲하기 시작한 敵이 漸次로 侵掠威勢를 넓혀 대대를 三面으로 포위하였다.

대대장 李昌得소령은 직접 陣頭에 나서 수류탄을 몸소 던지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였으나 제36연대 제3대대의 西側方이 돌파되면서 後方이 遮斷되자 緊急히 하달된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의 엄호밑에 포위망을 뚫고 逐次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1,211 西南쪽 稜線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포병엄호사격밑에 再編成을 끝낸 다음 被奪된 無名高地로 反擊을 감행하였으나 熾烈한 사격과 陣前出擊하는 敵勢에 밀려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고 急編陣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제3대대가 敵의 逆襲으로 포위망속에 陷入되자 急遽出動하여 제3대대와의 合擊으로 突破口를 헤치면서 제3대대의 撤收를 엄호하고 △1,211 西南쪽 稜線中腹에 陣地를 점령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는 한편 제3대대의 反擊을 지원하였는데 군단계획에 따라 사단戰鬪地境線이 美 제2사단 제38연대 지역으로 2Km가 擴張됨으로써 하달된 사단作指에 의거하여 美 제38연대 陣地의 인수대비로 差出되어 14.30에 撤收하기 시작한 결과 22.00에 연대 戰鬪指揮所가 있는 △1,181로 집결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1,211 西南쪽 稜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1,052로부터의 側方射擊을 制壓함으로써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제1대대의 撤收에 따라 그 陣地로 進出하여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와 連繫하면서 反擊態勢를 갖추었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 제3 兩대대가 Hays線 右翼陣地를 防禦하는 한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36연대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와 協同하여 無名高地(△1,211 東쪽 0.7Km)를 공격하였으나 또한 그 進展을 보지 못한 채로 西希嶺 西南쪽 稜線中腹에 陣地를 掌握하면서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

10월 3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군단作指에 의거하여 戰鬪地境線이 美 제2사단 제38연대地境으로 2Km가 擴張됨을 契機로 공격을 一旦 中止하고 Hays線上의 陣地를 整備한 다음 또 다시 새로운 공격을 감행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63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戰鬪地境線의 변경에 따라 공격을 一時 中止하고 일부병력을 이동 배치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1개대대로써 10.3. 12.00까지 美 제2사단 제38연대의 陣地를 인수하라. 10.3.12.00以後 공격임무를 해제하여 10.3.18.00까지 Hays線 左一線陣地를 점령하고 再編成하라.

③ 제27연대는 10.3.12.00까지 제36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Hays線正面을 擴張하고 1개대대는 OPL을 占領하라.

④ 제36연대는 10.3.19.00以後 공격임무를 해제하고 別紙透明圖地域(加七峯 南斜面)에서 再編成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10.5.24.00까지 萬岔里로 이동한 다음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⑥ 공병대대는 2개중대로써 兜率山(△1,148)—萬岔里間 作戰路 및 萬岔里—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山間道路의 補修와 地雷除去作業에 任하고 殘餘兵力은 Hays線上에 無反動銃陣地를 構築하라.

⑦ 각 연대는 제1차 無反動銃 敎育修了者를 10.4.13.00까지 대전차공격대대에 파견하라.

⑧ 사단 CP는 10.3.12.00以後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 위치한다.』

1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04.00에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1,211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대대는 曉暗을 이용하여 隱密하게 敵線에 近迫한 다음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돌격을 決行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포병 엄호사격밑에 戰列을 가다듬고 再공격을 감행하였다. 대대는 9部稜線에서 血戰을 거듭하던중, 사단作指 제63호에 의거한 연대作指 제45호에 따라서 공격을 중지하고 隨意撤收로 22.00에 加七峯(△1,243)西南쪽 稜線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04.00에 제3대대의 공격에 呼應하여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와의 協同으로 無名高地(△1,211 東쪽 0.7Km)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전날보다도 더욱 熾烈한 敵火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는데 연대장 黃 燁대령의 명령으로 공격을 中止한 다음, 加七峯附近으로 이동 집결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공격梯隊의 집결에 따라 제27연대 제3대대(장, 金諧集소령)에 陣地를 인계하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西側方으로 집결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作指 제63호에 의거하여 Hays線上의 主陣地를 防禦하는 제27, 제35 兩연대의 間隙을 점령하면서 加七峯(△1,243)에 대한 防禦를 강화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제3, 제2 兩대대를 동시에 投入하여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공격과 併行하여 無名高地(△1,211 西北쪽 0.6Km)에 대한 공격을 發起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決死的인 돌격의 보람도 없이 一進一退의 血戰만을 거듭하다가 연대장의 명령으로 12.00에 隨意撤收하여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가 加七峯 西南쪽 一帶에, 그리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1,052(加七峯 西南쪽 2Km) 南쪽 稜線一

帶에 각각 陣地를 점령하였다.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전날에 △1,181에 집결하여 대기중이던 바 이날 06.00에 行動을 개시하여 사단作指 제63호로써 擴張된 사단戰鬪地境線內의 美 제2사단 제38연대의 陣地를 07.30에 인수하여 朴達고개一帶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 左一線으로서 加七峯 南쪽稜線에서 朴達고개一帶에 이르는 Hays線上의 陣地를 확보하고 敵이 主據點을 형성한 △841—△1,052와 對峙하기에 이르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사단作指 제63호에 의거하여 戰鬪地境線이 調整됨에 따라 12.00에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金榕集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希嶺一加七峯 西南쪽 稜線으로 防禦線을 擴張하고 계속 Hays線右一線을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36연대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와의 協同으로 無名高地에 대한 최후공격을 감행하였으나 進展을 보지 못하고 熾烈한 사격전을 전개하다가 제36연대 제2대대가 撤收함에 따라 加七峯 東北쪽 稜線으로 轉進한 다음 제5, 제7, 제6중대順으로 配備하고 연대前進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5) 제 5 차전(10.5)

(가) 작전 계획

사단은 作指 제63호로서 공격작전을 한때 中斷하고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右一線,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擴張된 Hays線을 防禦하는 한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加七峯附近에 陣地를 점령하고 재편중에 있었는데, 이틈을 타서 敵은 國軍服裝으로 僞裝한 유격대를 大愚山(△1,178)附近까지 侵透시켜 병사를 拉致하여 가고, 前進據點에 대하여 계속적인 探索공격을 하면서 파괴된 陣地의 補修作業에 착수하는 徵候를 보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跳梁하는 敵을 격파하고 據點이 補修强化되기 前에 공격을 再擧키로 決心하고 사단作指 제64호(5일 12.00)로써 제27연대를 사단예비로 轉換하여 공격준비에 착수케 하는 한편 제36연대로 하여금 Hays線 右翼陣地를 담당케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65호를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① 사단은 8일 05.00를 期하여 △1,211를 공격, 奪取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목표 1(△1,211 東쪽 0.7Km), 2(△1,211)를 공격, 탈취하라.

③ 제36연대는 1개대대로써 목표 3(△1,211 東北쪽 稜線一帶)을 공격, 탈취하여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35연대는 1개대대로써 목표 4(△1,211 西南쪽 稜線一帶)를 공격, 탈취하여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57mm 및 75mm無反動銃은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27연대에 있다.

⑦ 사단 CP는 俗稱 골말(林塘里 東南쪽 2Km)에 위치한다.』

(나) 작전 실시

10월 8일 : 上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은 공격에 앞서 각 대대장을 소집하여 작전회의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를 세웠다.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는 東北쪽으로 迂回공격하는 제36연대 제2대대와 協同하여 목표 1(△1,211 東쪽 0.7Km)을 탈취하고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1,211 西南쪽 稜線으로 공격하는 제35연대 제2대대의 掩護下에 目標2(△1,211)를 正面으로 공격하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1대대의 공격을 繼續, 支援타가 제1대대가 목표1(無名高地)를 탈취하는 즉시로 이를 超越 △1,211 東쪽 稜線을 타고 돌진하여 正面으로 공격하는 제3대대와 같이 △1,211를 挾擊한다.』

이에 따라 연대는 加七峯(△1,243)西쪽 稜線에 展開한 다음 제26포병대대의 공격준비 射擊과 57mm 및 75mm無反動銃의 一齊사격에 뒤이어 05.0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는 熾烈한 敵火를 뚫고 목표 1(△1,211 東쪽 0.7 Km)로 돌진, 敵線 50m前方으로 肉迫하였을 때 地形의 利를 활용한 敵據點에서는 一齊히 불을 뿜으면서 交叉射擊으로 대대의 돌격을 阻止코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 朴相一소령은 제3중대(장, 黃德晟중위)를 先鋒으로 하여 제1, 제2중대順으로 波狀突擊케 하였다.

거듭된 波狀突擊은 드디어 敵陣에 近迫하는데 성공하여, 수류탄 공격으로 敵의 기관총을 침묵시키고 마침내 戰意를 잃고 潰走하는 敵을 白兵戰으로 撲滅하여 07.30에는 드디어 목표 1(△1,211 東쪽 0.7Km)을 탈취, 확보하였다. 이때 左一線인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加七峯 西南쪽 溪谷을 急速 橫斷하여, △1,211 西南쪽 稜線을 공격하는 제35연대 제2대대의 엄호밑에 △1,211南쪽 稜線으로 一齊히 躍進하였다.

敵은 熾烈한 포병지원하에 화력을 집중하여 대대의 돌진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그 東쪽의 無名高地와 西南쪽 稜線이 각각 위협을 받기에 이르자 포격은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 호기를 捕捉하여 露出된 脆弱據點을 집중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고 主據點線을 迂回, 頂上으로 殺到하여 白兵戰끝에 06.15에 목표 2(△1,211)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1대대를 超越 △1,211 東쪽 稜線을 타고 挾擊하는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가 稜線一帶에 重疊된 據點을 형성한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면서 공격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西南쪽 稜線과 西北쪽 稜線도 敵이 계속 掌握함으로써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는 孤立된 상황下에서 頂上을 확보하였는데, 이때 敵은 포병화력을 △1,211頂上으로 집중하면서 北傀 제2사단 제17연대의 증원下에 潰走하였던 北傀 제4연대主力이 西北쪽 稜線을 타고 陣前出擊하였다. 대대는 대대장 金椿集소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死守를 다짐하고 四周防禦陣地를 急編한 다음, 즉각 誘導된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중령)의 엄호사격밑에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波狀攻勢를 거듭하는 敵勢와 미쳐 陣地를 편성하지 못한 채로의 不利한 상황으로 死傷者가 續出하고 携帶實彈마저 떨어져 갔다.

이에 연대장 金義煥대령은 제1, 제2 兩대대를 一齊히 투입하여 △1,211 東쪽 稜線의 敵陣을 돌파케 하였으나 敵의 强硬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자 21.00에 제3대대에 後退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敵의 追擊을 阻止하는 一方,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그 南쪽 稜線을 타고 後退를 시작하여 10.9.01.00에 加七峯 西南쪽 稜線으로 집결하여 散兵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1,211 東쪽 稜線을 타고 돌진하면서 激戰을 벌이던중, 제3대대의 撤收에 따라 陣前出擊하는 敵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無名高地로 後退한 다음, 제1대대의 엄호下에 다음날 03.00에 加七峯 西南쪽 稜線으로 집결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는 이날 탈취한 無名高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 진출하는 제35연대와의 陣地交代를 준비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 156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하는 戰果를 거두고 65명이 戰死, 378명이 戰傷을 입는 損失을 보았다.

2. 제36연대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는 사단作指 제65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05.00를 期하여 목표 3(△1,211東北쪽 稜線)을 공격하였는데 敵의 頑强한 抵抗으로 中腹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공격으로 敵을 牽制함으로써 제27연대 제1대대의 목표 1(△1,211 東쪽 0.7Km 無名高地)奪取 및 확보에 크게 貢獻하였는데, 제27연대 主力의 後退와 사단作指 제66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逐次로 撤收하여 加七峯 東쪽 稜線으로 집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2대대의 공격에 따라 그 陣地를 인수한 다음, 西希嶺—加七峯에 이르는 연대의 Hays線 全域을 담당 防禦하고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西希嶺 西北쪽 稜線에 前進陣地를 점령하여 제2대대의 공격과 撤收를 엄호하였다.

3.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는 05.00를 期하여 제27연대의 助攻으로서 목표4(△1,211 西南쪽 稜線)을 공격하였다. 敵은 △1,211—1,052(加七峯 西南쪽 2Km)連峯一帶에 堅固한 據點을 형성하고 中腹으로 돌진하는 대대를 熾烈한 사격으로 阻止코자 하였다. 대대는 3개중대를 一線으로 전개하여 敵火를 최대한으로 분산하면서 躍進을 거듭하여 돌격을 決行, 無名高地(△1,211 西南쪽 0.8Km)를 탈취하고 △1,211를 목표로 계속 공격하였으나 敵의 치열한 사격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는데, 제27연대 제3대대 正面으로 陣前出擊한 敵은 그 侵勢를 넓혀 대대를 兩翼으로 포위하면서 逆襲하므로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逐次로 撤收하여 Hays線陣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主力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加七峯一俗稱 새목이(沙汰里 東南쪽 1.5Km)에 이르는 Hays線 左翼을 담당 防禦하였는데 △1,052의 敵이 제2대대의 공격을 側方火力으로 위협함으로써 제3, 제1 兩대대는 全중화기를 △1,052로 집중하여 敵火를 牽制하였다.

4 제27연대를 主攻, 제35, 제36 兩연대의 일부를 각각 助攻으로 한 이날의 一齊공격으로 제27연대 제3대대(장, 金楷集소령)가 △1,211頂上을 탈취하였으나 敵의 역습으로 奮戰의 보람없이 撤收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공격작전을 또 다시 중지하고 Hays線陣地를 강화하면서 공격태세를 갖춘 다음, 공격을 再擧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66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공격을 중지하고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Hays線을 强化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공격임무를 해제하고 1개대대로써 9일 12.00以後 加七峯 西南쪽 제35연대 陣地의 일부를 인수, 방어하라. 主力은 無名高地(加七峯 南쪽 3Km)에 집결 재편성하라.

③ 제35연대는 9일 12.00以後 加七峯西南쪽 稜線上의 一部陣地를 제27연대에 引繼하고 그 以西一朴達고개에 이르는 Hays線을 계속 防禦하라.

④ 제36연대는 西希嶺一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을 계속 防禦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⑥ 사단CP는 골말(林塘里 南쪽 2Km)에 위치한다.』

(6) 제6차전(△841공격전)(10.14)

(가) 작전 계획

사단은 作指 제66호에 의거하여 △1,211에 대한 공격을 一時 中止하고 제36연대를 右一線, 제27연대 1개대대를 中央, 그리고 제35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希嶺一加七峯一朴達고개에 이르는 Hays線 防禦를 강화하는 一方, 제27연대 主力은 無名高地(加七峯南쪽 3Km) 附近에서 再編中에 있었는데 10월 5일에 이르러 左隣接인 美 제2사단(장, Robert N. Young 소장)이 斷腸의 稜線(△894—△931—△851)에 대한 공격을 再擧함으로써 唐慨한 北傀 제5군단 제6사단은 △841(沙汰里 南쪽 1.5Km)—△1,052(加七峯 西南쪽 2Km)—帶의 據點을 北傀 제2군단 제13사단 제19연대에 인계하고 沙汰里附近으로 轉進하였다. 새로이 投入된 제19연대는 對峙한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 主陣地線에 계속 探索공격을 加하면서 挑戰하였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841를 공격, 敵을 격파하고 △1,052를 逐次로 탈취키로 決心하였는데 이는 沙汰里 溪谷道를 瞰制하는 高地를 점령한다는데도 意義가 있었지만 △1,211를 공격할 때 언제나 공격부대의 西側背를 위협하던 敵勢를 拔本塞源한다는데 그 作戰目的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69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一部兵力으로 △841를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1개대대로써 14일 09.00를 期하여 △841를 탈취하라.

③ 사단 수색중대를 제35연대에 배속한다.

④ 제27, 제35연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제35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⑥ 사단 CP는 골말에 위치한다.』

(나) 작전 실시

10월 14일 : 1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사단作指 제69호에 의거한 △841 공격에 앞서 연대에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장, 朴達仁소령)를 제1대대에 再배속하고 제1중대를 증원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梯隊인 제1대대(장, 崔乘旭소령)는 배속부대를 統合지휘하여 03.00에 陣地線을 출발, 06.00에 俗稱 새목이(沙汰里 東南쪽 1.7Km)에 전개하였다. 08.30을 期하여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중령)를 비롯한 제27, 제35 兩개연대의 81mm박격포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841一帶를 강타하였고 이의 射程延伸에 腐接하여 대대는 09.00에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11중대(장, 金成梓중위)는 東쪽으로 迂回하면서 △841—△1,052鞍部로 공격하고 제1대대는 △841正面으로, 그리고 사단수색중대는 △841 西南쪽 稜線을 따라 三面으로 포위 공격하였다. 敵은 橫隔壁을 이룬 유리한 據點에서 頑强하게 抵抗하였으나 主攻인 제1대대는 彈雨속을 뚫고 躍進을 거듭하여 11.20에는 敵陣 20m前方으로 突入한 다음 수류탄을 던지면서 一齊히 돌격을 감행하여 血戰을 벌인 끝에 頂上을 탈취하였다. 대대는 後續한 제11중대 및 사단 수색중대와 協同하여 楕圓形陣地를 편성하였는데 △1,052一帶의 敵主力은 포병지원사격下에 逆襲을 試圖하였으나 즉각 誘導된 제26포병대대의 엄호사격下에 勇戰奮鬪하여 18.00에 此敵을 격퇴하고 △841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때 연대主力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右一線, 제2대대(장, 鄭仁淳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無名高地(加七峯 西南쪽 2Km)一朴達고개에 이르는 Hays線 左翼陣地를 防禦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 24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4명이 戰死, 4명이 戰傷, 그리고 2명이 失踪하는 損失을 보았다.

2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는 제2대대(장, 崔東安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希嶺一加七峯에 이르는 Hays線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寅德대위)는 西希嶺 西北쪽 稜線에 前進陣地를 점령하고 威力搜索을 계속하면서 敵의 陣地工事를 妨害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제1대대(장, 朴相一소령)가 加七峯一無名高地(加七峯 西南쪽 2Km)에 이르는 Hays線中央을 담당 防禦하였으며 主力은 無名高地(加七峯 南쪽 3Km)에 집결, 재편중에 있었으며 제7중대(장, 趙昌錦중위)는 加七峯溪谷을 건너 △1,211 南쪽 稜線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9월 3일에 Hays線으로 進擊한 다음, 9월 4일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1,211에 대한 공격작전을 감행하여 그 頂上을 세번 탈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때마다 恣行된 敵의 거센 逆襲으로 勇戰敢鬪의 보람없이 後退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10월 14일에 이르러 여섯번째의 공격으로 楊口一沙汰

里道路를 職制하는 △841(沙汰里 東南쪽 1.5Km)를 탈취함으로써 地境內 要衝인 △1,052(加七峯 西南쪽 2Km) 공격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36연대를 右一線, 제27연대를 中央, 그리고 제35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Hays線을 防禦하면서 △1,052—△1,211에 대한 一齊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次에 육본作指 제103호에 의거하여 10월 20일 18.00附로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됨과 동시에 육본直轄로 轉換됨에 따라 10월 21일에 새로이 진출한 제3사단(장, 白南權준장)에 작전임무를 인계하고 다음 날에는 襄陽으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敵은 左隣接인 美 제2사단이 斷腸의 稜線(△894—△931—△851)을 탈취하고 文登里—沙汰里의 要線을 압박하자 最後의 堡壘로서 △1,052—△1,211를 限死코 固守코자 10월 17일에 北傀 제2사단 제6연대를 △1,211로 증원하고 제13사단 主力을 急遽南下시켜 近接支援態勢를 갖춘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襄陽으로 轉進한 사단은 CP를 이곳에 開設하고 제27연대가 上村里, 제35연대가 回龍里, 그리고 제36연대가 石橋里에 각각 집결하여 FTC敎育에 臨하였는데 제36연대는 11월 20일에 제1군단에 배속 되고 뒤이어 제11사단에 再배속되었다.

FTC敎育을 끝낸 사단은 52.1.11.06.00附로 육본直轄로부터 제1군단(장, 李亨根중장)에 배속과 동시에 CP를 文堡里로 推進하고 제11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였는데 제11사단의 제20연대와 제51전차중대가 사단에 배속되었다.

再編 제5사단의 初代사단장으로 赫赫한 功勳을 세운 閔機植준장은 51.11.7일에 離任하고 林富澤대령이 代理근무하였는데 52.1.31에 張昌國준장이 제2대 사단장으로 赴任하였다.

本作戰期間中 사단이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射殺		1,102명
捕虜		250명
鹵獲	機關銃	6정
	多發銃	82정
	小銃	63정
	機關短銃	3정

損失	
戰死	23/669명
戰傷	120/4,131명
失踪	1/436명

§參戰者의 證言

◇제27연대 제3대대장 金椿集소령

(1973. 3. 24, 自宅에서, 예 준장)

제27연대는 美 제2사단의 제38연대와 併行공격하여 加七峯쪽으로 進擊한 다음, 美軍으로부터 加七峯을 引受하였다.

연대장은, 金日成高地(△1,211)에는 敵이 1개소대밖에 없고 제1대대가 그 東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였으니, 내가 指揮하는 제3대대는 이를 超越하여 △1,211를 一擧에 奪取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1개중대만으로 充分히 占領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공격을 하였는데 無名高地를 占領하였다는 제1대대는 加七峯 前斜面 200m地點에 있었다.

이리하여 공격중대는 無名高地를 공격하였는데 意外에도 敵의 抵抗이 頑強하여 1개중대를 增援하였으나 날이 저물도록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에 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를 逐次로 投入하여 全연대 병력으로 △1,211를 공격하였으나 亦是 이를 奪取하지 못하자 사단장은 제35연대마저 投入하였다.

그러나 地形條件으로 砲兵支援에 制限을 받아 迫擊砲射擊에 主로 依存하여야 하였고, 機動空間이 좁아서 1개대대밖에 機動할수 없는 곳에 많은 兵力이 進攻함으로써 敵의 砲火에 많은 損失만을 보고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再編成을 끝낸 제36연대마저 投入하여 全사단으로써 공격전을 벌였다.

再공격을 敢行하기에 이르자 우리 연대는 제1대대를 稜線으로, 제3대대는 溪谷으로 奇襲공격케 하였다. 이때 우리 제3대대가 사단主攻이어서 연대의 全81mm迫擊砲를 나의 指揮下에 運營하였다.

우리 대대는 激戰에 激戰을 거듭한 끝에 △

1,211 頂上을 드디어 奪取하였다.

△1,211頂上에는 세갈래의 稜線이 뻗어 있어서 연대장에게 豫備隊를 增援받아 戰果를 擴大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할것을 建議하였으나 연대장은 高地群의 最高峯만 확보하면 足할 것으로 判斷하고 이에 對한 配慮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頂上에 急編陣地를 構築하였는데 反斜面에 據點을 編成하고 待避하였던 敵은 砲擊과 더불어 大大的인 逆襲을 敢行하였다.

우리 대대는 混戰亂鬪를 계속하였으나 力不足하여 占領한지 5시간만에 다시 敵에게 頂上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1,211戰鬪에 있어서 우리 대대는 세번에 걸쳐 공격하였는데 500명의 병력損失이 있었다.

◇제35연대 제12중대 迫擊砲소대장 卞泳澤 소위 (1973. 5. 3, 특검단기획통제담당관실에서, 대령)

이 戰鬪는 제5사단의 각 연대가 몇번씩 공격하여 占領을 하고 확보를 하지 못한 作戰이다.

우리 대대도 △1,211左側 稜線의 頂上을 한번 占領을 하였다가 敵의 逆襲으로 도로 빼앗긴바 있다.

대대가 공격할때 迫擊砲陣地가 加七峯後斜面에 있어서 射距離가 미치지 않아 나는 중대의 50mm가관총과 75mm無反動銃을 지휘하여 敵의 火力據點을 파괴하고 보병중대를 掩護하였다.

이 戰鬪에서 補充받은 新兵들이 突擊精神이 不足한데다가 戰傷者가 發生하면 一部兵力이 이들을 後送해야 하니 頂上을 占領하였을 때는 戰鬪兵力이 반으로 줄고 있었던 것이 敵의 逆襲을 支撐하지 못하고 撤收하여야만 하였던 要因으로 본다.

또 敵은 後斜面에 堅固한 據點을 마련하고 狀況이 不利할때 一旦 待避하였다가 即刻 逆襲을 态行하였는데 이때 공격부대에 뒤이어 後續부대를 投入하여 陣地를 編成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더라면 1個月半에 걸친 爭奪戰도 계속되지 않고 많은 兵力의 損失도 없이 이 要衝을 奪取 확보할수 있었을 것으로 確信한다.

또 한가지 重要한 것은 失敗한 機動路로 兵力을 再次 投入하지 않는 것이 原則인데 그곳으로 계속하여 공격을 시킨 것은 깊이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제36연대 제7중대 제1소대장 李潤馥소위 (1973. 7. 6. 제27사단사령부에서, 대령)

내가 熾烈한 戰鬪를 한 곳은 金日成高地(△1,211)인데 우리 연대가 제35연대와 交代하여 攻擊한 것으로 記憶한다.

우리 연대가 陣地를 占領한 加七峯과 金日成高地사이에는 깊은 溪谷이 가로 놓여 這間에는 彼我間에 機動의 制限을 받았다.

우리 제2대대는 金日成高地에서 東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서 공격을 시작하여 8部稜線까지 進擊한 다음 黎明을 期하여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手榴彈彈幕에 依하여 頓挫된채 進擊線에서 激戰만을 展開하였다.

이 戰鬪가 벌칠간 계속되는 동안에 소대원은 15명으로 減少되었는데 하루는 우리중대 소대장 3명이 기동계획을 協議코자 前方을 觀察하던 중에 높은 곳에서 射擊하는 敵의 狙擊兵의 銃彈에 맞아 제3소대장과 제2소대장이 重傷을 입은 일이 있었다.

중대병력이 40명밖에는 남지 않고 소대장은 나 혼자여서 중대는 6部稜線으로 撤收하였는데 그날 밤에 나는 潛伏組를 激勵코자 100m가 떠러진 곳으로 進出하였을 무렵에 前面에 검은物體가 버란간에 나타나므로 나는 M_2 칼빙을 發射하면서 굴렀는데 나를 따르던 분대병력은 이때 行方不明이 되었다.

이때 나는 責任感때문에 原陣地로 돌아오면서 苦悶을 하였는데 中間에서 兵士한명이 울고 있었다. 理由인즉 自己를 가장 사랑하던 소대장이 戰死한줄로 알았다면서 뭘 듯이 반가와 하였다.

다른 분대원은 소대장이 戰死하였다고 陣地로 돌아 갔다는 것이다.

이戰鬪의 失敗要因은 夜間戰鬪의 未熟과 新兵들의 訓練不足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883高地—892高地附近 戰鬪 (1951년 9월 15일부터 1951년 9월 1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5 호
상 황 도 제5, 6, 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7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3연대	장 대령	鄭 震	
제1대대	장 소령	李 鍾 宅	
제2대대	장 대위	崔 基 宗	
제3대대	장 대위	曺 元 哉	
제5연대	장 중령	蔡 命 新	
제1대대	장 소령	羅 燾 日	
제2대대	장 소령	金 晶 煥	
제3대대	장 소령	盧 沈 根	
제8연대	장 중령	金 基 東	
제1대대	장 소령	咸 炯 甲	
제2대대	장 소령	林 春 勤	
제3대대	장 대위	宋 寅 奎	

제16포병대대장 소령 文 在 駿

인접부대

美제2사단 장 소장 Clark L.Ruffner

韓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병력 : 9,744명

장비 : 105mm 曲射砲 18문
81mm 迫擊砲 51문
60mm 迫擊砲 84문
4.2″ 迫擊砲 6문
3.5″ 로켙砲 10문
2.36″ 로켙砲 30문
Cal.50 71정
HMG 38정
LMG 126정
BAR 242정

敵 軍

北傀 제 5 군단 | 제32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中東部戰線에 있는 Kansas線을 牽制하는 北傀진지(「피의 稜線」)를 制壓하는 동시에 戰線의 균형을 圖謀하려는 제8군의 계획아래, 制限공격으로 移行하게 된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9월 2일에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으로 하여금 北漢江 東岸의 △554—△901를 점령케하는 戰鬪(제6권 松峴里—松亭洞부근 戰鬪 참조)를 비롯하여 5일을 前後하여 美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으로써 亥安盆地(Punch bowl)를, 그리고 美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으로써 「피의 稜線」을 각각 장악케 함으로써, 일단 그 目的을 達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군단 右隣接인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南江 南岸에, 그리고 左隣接인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은 金城川 南岸에까지 進出함에 比하여, 군단 戰線의 左半部(美제2사단, 韓제7사단)는 아직도 그보다 10여Km나 뒤에 처진 「피의 稜線」일대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戰線은 여전히 彎曲線을 形成하고 있었다.

이는 당초 8군이 敵의 5월 攻勢이래로 Kansas線이라는 北進制限線을 設定하여, 군단左翼을 華川저수지 一圓에 釘着시킨 결과로 비롯된 것이나, 이제 北進을 단행한 시점에서 본다면, 8군은 防禦正面의 縮少와 戰線의 균형을 위하여 이 彎曲線의 再調整이 필요하였다.

9월 6일에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計劃을 樹立하기를 『지금까지 北傀에 加한 衝擊효과를 확대키 위하여, 먼저 제10군단을 北上시켜 中東部戰線을 정리한 然後에 中西部戰線의 제1, 제9 兩군단을 진격케 한다』라고 하고, 8일에 제10군단으로 하여금 文登里쪽으로의 진격을 再開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장 Byers소장은 8일에, 제5사단에 Punch bowl 西北의 加七峯부근을, 美제2사단에 「피의 稜線」北쪽의 △894—△931—△851(一名 斷腸의 稜線)를, 그리고 제7사단에는 △883(△901 西쪽 2.5Km)를 각각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은 9월 9일에 사단 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로써 목표 Ⓐ(△883)를 공격케 하였다.

그런데 이 △883는 지난 8월 16일, 사단이 Badger線에서 진격을 시작할 당시에 세웠던 공격목표 ①(△883)—②(△901)—③(△554)가운데 ①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②와 ③을 9월 2일에 점령하였으나, 이 高地만은 점령치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松峴里—松亭洞 부근 戰鬪 참조).

당초 이 高地는 그 東쪽 △901와 함께 사단正面의 北傀제5군단 主抵抗線上의 兩肩을 占하고 있던 것이나, △901가 사단의 손에 들게 됨으로써 敵의 主抵抗線이 白石山(△883 北쪽 2.2Km)線으로 물러서게 되어, 이에 따라 前進陣地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敵으로서는, 이 △883를 잃게 되면 防禦線의 前緣을 모두 잃어, 砲火가 白石山을 뒤덮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므로 우선 여기를 固守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이 △883일대에는 4개의 高地(△883—無名高地—△934—頂嶺)가 連하여, 南北으로 縱長 1Km의 半月形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8월 중순에는 高地와 능선일대에 樹木이 우거져 능선의 形相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森林지대였으나, 그간 한달 가까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我軍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으로 말미암아 頂上이 焦土化하여 마침내 禿山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때 北傀는 여기를 固守코자 제32사단 1개연대(實兵力 1개대대규모)로써 이를 전담케 한 듯하였는데, 그들은 頂上部位의 접근로상 要地要部에 20명규모를 收容 가능한 有蓋壕를 마련하고, 山腹에는 15~20m 간격으로 3인용 散兵壕를 構築하여, 각 高地마다 1개중대규모로써 독립된 방어진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敵의 병력규모나 진지의 強度로 보아, 이의 奪取가 손쉽지 않을 것으로 分析되었는 바 제5연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예상대로 敵의 抵抗이 완강하였다.

연대는 9월 9일~14일에 敵 496명을 射殺하고 24명을 捕虜로 한 반면, 75명이 戰死하고 469명이 負傷을 입었으나 戰況에는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일선 중대장 6명을 잃게 됨으로써 부대를 交替하게 되었다.

이에 15일, 사단장은 제5연대의 공격임무를 제3연대와 교대케 하는 한편, 사단戰線을 再整理하여 New Kansas線에 예비로 控置되었던 제8연대를 前線中央으로 推進하여 제3연대 左側을 엄호케 하고, 제5연대로써 다시 左一線의 방어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3연대(장, 鄭 襄대령)가 새로이 이 △883 攻略에 임하게 된 것인데, 이때의 사단 병력은 9,744명(장교 627명, 사병 9,117명)으로서, 8월 중순보다 16%의 減少된 상태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9월 7일, 군단장의 口頭공격명령(書面命令은 8일에 下達)에 따라,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이날 16.00에 竹里(楊口 南쪽 3Km)의 사단지휘소에서 작전지시 제80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① 제3연대는 현진지(△901)를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부대의 右側方을 엄호하라.

② 제5연대는 일부병력으로 9.9.06.00를 期하여 목표Ⓐ (△883—無名高地—△934—蕩嶺)를 공격 점령하라. 9.7.20.00부로 제8연대 1개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③ 제8연대는 사단 主抵抗線(華川저수지 北쪽 New Kansas線)을 계속 확보하되, 9.7.20.00부로 1개대대를 제5연대에 배속하라.』고 하였다.

이에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 제3대대를 배속받아, 8일밤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는데, 연대장은 공격에 앞서 목표 Ⓐ를 ㉮(蕩嶺)—㉯(△934) ㉰(無名高地)—㉱(△883)로 細分하여 연대목표로 設定한 다음, 제1, 제3 兩대대를 제1선 공격대대로 하고, 제2대대와 배속중인 제8연대 제3대대로써 Badger 線을 방어케 하여, 공격間에 공격부대의 左側方을 엄호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9일 아침에 예정대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2개대대로써 목표 Ⓐ全部를 동시 공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개연대 목표를 1개중대가 분담하여 공격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므로 사단장은 12일 11.00에 修正指示 제81호로써, New Kansas線의 제8연대를 Badger線으로 推進시켜, 제5연대에 배속된 同연대 제3대대를 9.13.10.00부로 原復措置함과 동시에 제5연대로 부터 Badger線 방어임무를 引受케 함으로써, 제5연대로 하여금 공격에만 專念케 하였다.

이리하여 13일 아침부터 戰力을 집중케 된 제5연대의 勇戰으로 격전이 苛烈되어 13~14 兩日에는 목표 高地의 頂上부근에서 白兵戰을 벌이기에 이르렀으나, 병력손실만 激增되었을 뿐, 끝내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14일 저녁, 사단장이 參謀陣과 더불어 사단지휘소에서 戰況을 다시 검토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작전참모 趙秉洪중령이 건의하기를 『9월 1일~14일 사이에 제5연대가 敵 500여명을 射殺하였는데, 이것으로 당초 敵의 방어병력(500~700명으로 推算)을 모두 격멸한 것으로 推斷되나 목표△883의 敵 抵抗이 여전히 완강한 것은 그 後方의 白石山 일대에서 增援되는 새로운 병력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敵의 증원이 계속되는 限, 正面 공격만으로는 攻略이 容易치 않을 것이므로 正面공격에 併行하여 敵의

증원수단을 분쇄하는 것이 要請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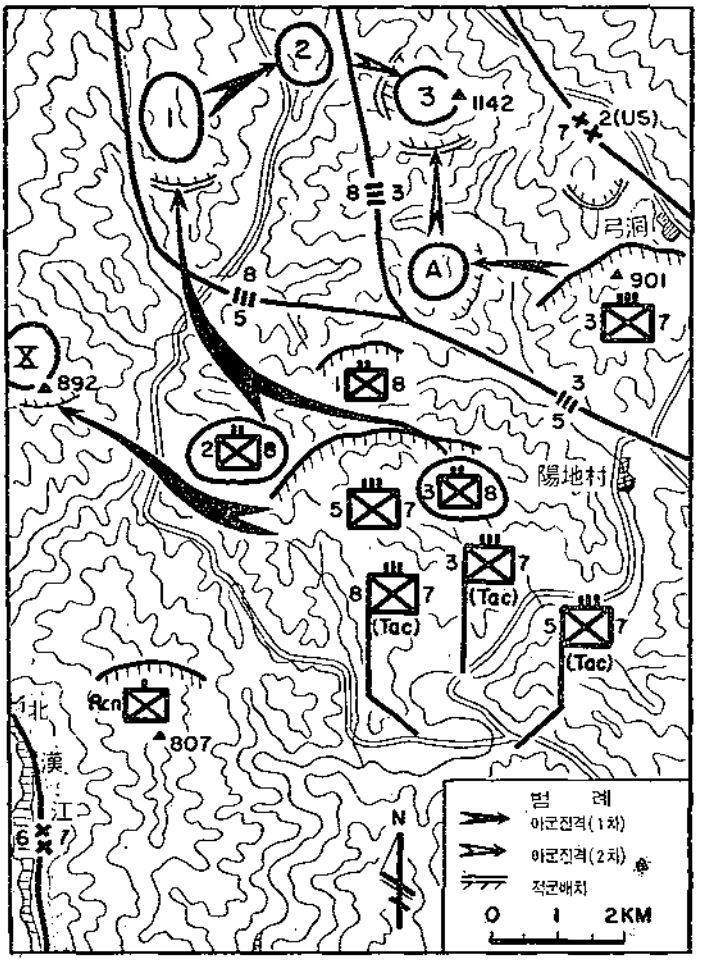
이에 사단장은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의 공격임무를 제3연대(장, 鄭瀅대령)와 교대케 하는 한편,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로 하여금 △883 左側 仙儀洞쪽을 절려 北進케 함으로써, △883에 대한 敵의 병력지원을 방해하는 동시에 그 北쪽 白石山 西側背를 脅威하여 敵의 戰力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날 20.00에 작전지시 제83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병력으로 목표 Ⓐ를 공격하여 占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9.16.02.00를 期하여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 목표를 점령한 다음 제8연대와 긴밀히 協調하여 계속 목표 ③을 공격 확보하라.

③ 제5연대는 9.15.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同日 12.00까지 제8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한 다음, 同연대의 공격間에 左側方을 엄호하라.

◇ 상황도 제5호 我軍部隊 展開 및 공격목표(9.15)



9.15.08.00부로 사단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④ 제8연대는 9.15.12.00까지 현진지를 제5연대에 인계한 다음 9.16.02.00를 期하여 목표①—②를 逐次로 공격하여 점령하라.

①,②를 점령한 다음 제3연대와의 긴밀한 協調아래 목표③을 공격 점령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華川저수지 北쪽 New Kansas線을 확보하라.

⑥ 16포병대대는 지원포병과 긴밀히 協同하여 공격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⑦ 지휘소는 계속 竹里에 위치한다.』

(2) 작전실시

9월 15일 : 사단은 전날밤에 下達된 작전지시 제83호

에 따라 다음 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공격에 앞서 군단으로 부터 對敵宣傳隊(사병 14명)를 지원 받아, 이를 14.00에 제3연대에 배속시켰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은 이날 09.00에 金岳里의 연대OP에서 작전회의를 열어 공격 계획을 熟議한 끝에, 제2대대(장, 崔基宗 대위)를 主攻으로 삼아 △883를 공격케 하고,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로써 이를 助攻케 하기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 제27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命令에 따라, 일부병력으로 목표 Ⓐ(△883—無名高地—△934—頂嶺)를 공격점령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개중대로써 제5연대 제1대대가 확보중인 △883 東南麓 無名高地를 인수한 다음 이것을 제2대대에 인계하라.

2개중대로써 목표Ⓐ에 包含된 △934를 공격하여 제2대대공격을 지원하라.

③ 제2대대는 現진지(△901 東斜面)를 9.15.10.00까지 연대수색중대와 右隣接인 美제2사단 제9연대(제1대대)에 인계하고, 12.00까지 松峴里에 집결하여 부대를 整備한 다음 9.16.02.00를 期하여 △883를 공격 점령하라.

④ 제3대대(수색중대 배속)는 現 △901 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부대의 右側方을 엄호하라.

⑤ 기타 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遂行하되, 공격대대와의 有線을 확보하라.

⑥ 공격間 지휘소와 救護所는 金岳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901 西斜面 진지를 확보중이던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제1중대(장, 裵炳魯 중위)로 하여금 △550(△883 東南쪽 1.7Km)에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케 하고, 제2중대(장, 李孝烈 중위)로 하여금 △883 東南麓 1Km의 無名高地를 제5연대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로 부터 인수하여 主攻인 제2대대의 前進진지로 확보케 하였으며, 제3중대(장, 金啓容중위)로 하여금 △901 西斜面 진지를 계속 확보케 하였다.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901 東斜面진지에서 12.00에 松峴里에 집결하여 戰列을 정비한 다음, 이날 오후에 CP와 3개중대 모두 登梅洞(松峴里 西北쪽 1.5Km)으로 躍進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는 제9, 제10 兩중대로써 △901를 계속 확보케 하고, 제11중대로 그 前方 능선에 前進진지를 마련하여 공격부대의 右側을 엄호케 하는 동시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朴鍾華중위)로써 弓谷(△901 東쪽 1.5Km) 일대를 점령케 하여 右隣接인 美제2사단과의 間隙을 警備토록 하였다.

2.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이날 △883 공격임무를 제3연대에 인계하고, 각 대대별로 15.00에 제8연대의 Badger線 진지를 인수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616(△917 東쪽 2Km)의 연대 前方 CP도 浪龍尾(坪村 東南쪽 1Km)로 추진하였다.

제1대대(장, 羅燾日소령)는 登梅洞 北쪽 1Km에 있는 無名高地에 위치한 OP를 △596(坪村 西쪽 2.2Km)로 이동하고, 대대主力으로 Badger線 左側 △743—△805를 점령하였으며, 수색소대로써 사단 左側 制限點인 北漢江邊의 水於口를 점령케 하여 左隣接인 제6사단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와 連繫토록 하였다.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는 이날 △917(蹟嶺 西南쪽 2Km)에 위치하였던 대대 OP를 金岳里·述元里(金岳里 北쪽 1.5Km)로 옮기고 대대主力으로써 제1대대 右側 △772—△743間 진지를 점령하고, 同日부로 배속된 수색중대로써 △757에서 馬哥垈—高陽洞부근을 수색케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盧沈根소령)는 이날 △616에 위치하였던 대대 OP를 △917 東南쪽 1.5Km(△616—△917 능선 南斜面)으로 移轉하여 主力으로 △616—△917를 점령하였다.

한편 △588(水於口 南쪽 2Km)에서 사단 左제1선진지를 방어하던 사단수색중대는 이날 08.00부로 연대에 배속되어, 19.50에 △558로부터 연대 左一線인 △513—△616間 陣地를 점령하였다.

3.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는 지난 13일에 New Kansas線에서 Badger線으로 進出하여 제5연대의 공격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날 제3연대와 합께 공격 一線에 가담케 됨에 따라, 연대 CP를 坪村에 開設하고, 우선 중대 단위로 Badger線 各高地에 배치된 연대병력을 대대별로 집결시켜 공격을 준비케 하였다.

△616陣地를 확보중인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CP를 縣里(坪村 東北쪽 2.2Km)로 부터 △917로 推進하는 동시에 主力을 양갈래 高地 (△917 北쪽 1Km)에 집결시켰으며,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는 14.00에 제5연대 제3대대(장, 盧沈根소령)에 △917의 陣地를 인계하고 △917 南쪽 1Km에 집결하여, 徹夜로 戰列을 정비하였다.

또한 Badger線 左一線의 △752—△731진지를 확보하였던 제3대대(장, 宋寅奎 대위)는 이날 11.00에 제5연대 제1대대(장, 羅燾日소령)에 진지를 인계하고, △752 西斜面의 馬哥垈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대대 CP는 中間村(坪村 西南쪽 1.5Km)에서 △767(양갈래 高地 西쪽 1.2Km)로 推進하였다.

9월 16일 : 사단은 계획대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그 進展이 遲遲하므로 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제3연대의 목표Ⓐ 공격에는 그 左側 제8연대의 활약이 크게 寄與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8연대의 진격을 촉진키 위하여, 사단 左正面인 北漢江 東岸능선의 敵을 剔抉함으로써 同연대의 左側 위협을 除去키로 결심하고 12.00에 제5연대장 蔡命新 중령에게 口頭로 명령하기를 『제5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9.17.05.00를 期하여 목표 X(△892)를 공격하여 점령하라』고 하였다.

1. 제3연대(장, 鄭瀓대령)의 主攻 第一線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제7중대(장, 趙貞鉉중위)를 登梅洞의 대대 OP부근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전날 제1대대 제2중대(장

金啓容중위)가 확보한 △883 東南쪽 無名高地를 03.00에 제5중대(장, 蔡秉國중위)로써 인수케 한 다음 05.00에 제6중대(장, 權丙元중위)를 俗稱"점말"(△883 東南쪽 1.7Km)로 進出시켜, 그 西北쪽 능선을 따라 △883를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이 중대의 공격은 山腹에서부터 敵의 執拗한 저항에 부딪쳐 그 前進이 膠着되기에 이르렀다. 대대장은 제6중대를 제5중대의 無名高地 右側능선으로 迂回케 하여 제5중대와 併攻토록 하였으나 그 역시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게 되어, 오후에는 高地 頂上의 敵 화력制壓에 注力하다가, 日沒과 더불어 현진지에서 야간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이날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가 전날 제5연대로부터 인수한 無名高地(△883 東南쪽 1Km)를 04.50에 제2대대 제5중대에 다시 인계하고 △550의 제1중대(장, 裵炳魯중위)에 合勢케 함으로써 10.00에 兩個중대가 隊伍를 정비하여 공격을 감행케 되었다.

이들은 제2대대의 左側을 엄호하면서 △883 南쪽 600m △934를 목표로 躍進을 거듭하여, 12.00에 蒜嶺(△934 西南쪽 700m)과의 中央部에서 東南으로 뻗은 700m 능선에서 敵의 前進부대와 激突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의 이 공격으로 敵 側方에 대한 牽制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그 進展은 不振하였다.

이리하여 대대(一)는 저녁에 다시 △544로 復歸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케 되었다.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戰況이 不振한 가운데서도 연대는 이날 敵 42명을 射殺하고 12명을 捕虜로 하였으며, 또한 LMG 1정과 다발총 8정 및 蘇式 소총 1정을 鹵獲하였는데, 손실은 戰死 2명과 負傷 20명이었다.

2.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는 사단 작전지시 제83호에 따라, 사단 右一線인 제3연대와 呼應하여 02.00에 목표 ①(△743:△883 西北 3Km)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공격에 앞서 연대장 金基東중령은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를 공격 右一線으로,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를 공격 左一線으로 전개하고, 제3대대(장, 宋寅圭대위)를 예비대로 △769에 控置하였는데, 이날 제1대대로는 左側 제2대대의 右側方을 엄호하면서 仙儀坐北쪽으로 진격케 하여 △521(△883 西쪽 2Km)를 점령토록 한 다음, 그 東北쪽 능선을 따라 △894(△883 北쪽 800m)로 直衝하여 △883 背後를 挾攻케 하고, 제2대대로는 연대 主攻으로써 목표① (△743:△521 西北쪽 1.2Km)—②(六德谷 東쪽 高地:△743 東北쪽 2.8Km)—③(白石山 : △883 北쪽 2.2Km)으로 逐次공격케 하였다.

이에, 전날 양갈래 高地에 집결한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제1중대(장, 金好圭중위)와 수색대를 공격 第一線에 전개하여 仙儀坐 北쪽으로 진격케 하고, 대대 主力은 양갈래 高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그 北쪽 1Km 蒜嶺의 敵을 牽制케 하였다.

제1중대와 수색소대는 天明과 더불어, △654(양갈래 高地 西北쪽 700m)를 經由, 仙儀坐

—高陽洞—水於口로 흐르는 北漢江 支流에 沿한 계곡을 건너, 仙儀坮 北쪽 瞰制高地인 △521를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이들 부대는 終日 激戰을 거듭한 끝에 오후에 이를 점령하였으나, 16.40에 이르러 그 東北쪽 △894로부터 중대규모의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紛戰後에 다시 同高地를 물러나, 계곡 南쪽의 △654로 撤收하였다. 그런데 △521를 掌中에 넣게 된 敵은 그 餘勢를 몰아 △654까지 奪取코자 중대를 추격한 바 있어, 17.40에 중대는 이를 계곡 너머로 격퇴하였다.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는 02.00에 主力을 △917 南斜面에서 △917로 推進한 다음, 다시 그 西北 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제1대대 左側을 超越하여 목표①(△743)을 공격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대 CP를 △769(△917 西北쪽 1Km)에 推進하였다.

대대는 날이 밝을 무렵, △743 南쪽 1.7Km에서 西南으로 흐르는 河川(北漢江 支流)을 건너 高地下麓에 진출한 다음, 제6, 제7 兩중대를 頂上에 이르는 능선 左右에 전개하여 공격케 하고 제5중대는 500稜線上에 예비대로 控置하여, 공격지원과 공격부대의 側後方 엄호에 注力케 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彈幕과 지뢰지대를 步一步로 前進한 兩중대는 12.00에 高地頂上에 육박하여, 4시간에 걸친 격전끝에 敵을 擊破한 다음 16.10에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에 곧 제7중대(장, 姜東秀중위)는 同高地에 방어진지를 構築하고, 제6중대(장, 安載寧중위)는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18.30에 그 西北쪽 1Km △751마저 手中에 넣어 그곳에 四周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그런데 夜暗이 짙어지자, △1,065(△751 西北쪽 2.5Km)로부터 東南으로 뻗은 능선을 타고 중대규모의 敵이 逆襲하였으므로 제6중대는 그곳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대대장 林春勃소령은 判斷하기를, 敵이 △751와 △743가 서로 分離된 虛隙을 타고 각개격파를 企圖할 것으로 내다보고 △743의 확보에 注力키로 하여, 제6중대를 △743로 撤收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는 이튿날 02.30에 △751를 물러나 제7중대와 함께 △743 진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는 △769일대에 연대 예비대로 控置中, 제2대대가 △743 공격에 快調를 보이게 됨으로써, 그 左側背를 엄호토록 한 연대장의 措置에 따라, 오후에 제9중대(장, 黃鳳翔중위)와 수색중대(장, 金龍澤중위)가 연대 左一線으로, 공격에 참가하여 18.30에 △743 西南쪽 1.8Km인 △621를 接敵없이 점령하였다. 그리고 대대主力인 제10, 제11 兩중대는 계속 예비대로써 제1대대 左側에서 △621 南쪽에 이르기까지 河川南岸의 유리한 地形을 점령함으로써 공격부대를 聲援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이날 △743와 仙儀坮부근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17명	戰死	2명
捕虜	3명	負傷	9명
鹵獲	多發銃 1정, 蘇式小銃 3정		

3.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이날 午前中에 사단 左一線의 Badger線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공격左一線인 제8연대의 左側方을 엄호하였는데, 12.00에 사단장으로부터 『목표X(△892)를 공격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곧 浪龍尾의 연대 CP에서 공격계획을 樹立케 되었다.

이때에 S-2의 情報報告에 의하면 목표X에는 北傀 제32사단의 增强된 1개중대규모가 방어중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敵이 지닌 地形의 利點과 아울러 방어진지의 堅固함을 미루어 보아, 그 敵勢를 결코 輕視할 수는 없었다.

이 당시 연대의 戰力을 分析하여 보면, 9월 9일~14일까지의 △883의 激戰으로 말미암아 3개대대의 병력이 共히 60~70%線으로 減少된 상태였으며, 또한 Badger線의 防守임무를 맡은 연대로서는 3개대대를 공격에만 참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대장은 3개대대 가운데, 병력손실이 적은 제1대대(장, 羅燦日소령)에 이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때 同대대는 T/O에 61%인 454명(장교 17명, 사병 437명)으로서, 그 가운데 실제 공격에 참가 할 수 있는 중대병력은 3개중대 모두 239명 (장교 6명, 사병 233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수색중대(장, 洪淳明중위) 132명(장교 4명, 사병 128명)을 增援토록 하여 攻擊戰力을 강화키로 결심하고, 13.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 제36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일부병력으로 9.17.05.00를 期하여 목표X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9.17.05.00부로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여 목표X를 공격 점령하라.

③ 제2대대는 Badger線 진지를 계속 확보하라. 9.17.05.00부로 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④ 제3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遂行하라.

⑤ 수색중대는 9.17.05.00부로 제1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기타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彈藥보급소와 救護所는 浪龍尾에 위치한다.

⑧ 공격間 지휘소는 浪龍尾에 위치한다.』

연대장은 이에 敷衍하여 제1대대장에게 이르기를 『사단이 △883 공격에 重點을 두고 있으니만큼 화력지원도 마땅히 그쪽에 집중적으로 隨伴되어야 할 것이므로, 要請에 따라 연대에 항공지원은 可能할 것이나, 현단계로는 포병지원이 충분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또 한번 어려운 작전을 수행케 되었다. 오로지 각개 兵士의 白兵力에 기대할 따름이다.

自隊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戰鬪員은 반드시 非常食糧 3일분을 휴대케 하라. 그리고 3基數 이상의 탄약을 예비량으로 확보토록 하라.』고 强調하였다.

이에 대대장 羅燾日소령은 즉시 제1, 제3 兩중대와 수색중대로 하여금 Badger線에서 공격준비토록 하고 제1, 제2 兩중대는 △365(△892 東쪽 2Km)를, 그리고 수색중대는 △421(△892 東南쪽 1.2Km)를 각각 점령케 하여 공격의 발판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3중대는 현진지에서 機動태세를 갖추면서 待機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2 兩중대는 14.00에 Badger線진지를 출발하여 21.45에 高陽洞 北쪽에 있는 △365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수색중대는 13.30에 △757진지에서 馬哥垈를 거쳐 15.30에 △892 東南麓의 △421를 접적없이 점령하였다. 방어진지를 급편한 同중대 1개소대로 하여금 계속 그 西北쪽 능선을 따라 진격케 하여 敵情을 수집케 하였던 바, 同 소대는 △892 東南쪽 400m 無名高地(표고 780m정도)에서 16.20에 前進부대인 듯 한 敵의 一團과 격돌하여 한동안 치열한 交戰을 벌이다가 日沒로 말미암아 △492로 隨意철수하여, 敵의 夜襲에 대비하였다.

9월 17일 : 이날 사단은 3개연대가 모두 공격에 참가함으로써, 사단 全 正面에서 紛戰이 激化되었다.

1. 제3연대(장, 鄭 箕대령)는 05.00에 목포Ⓐ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戰況은 전날과 다름없이 不振하였다.

즉,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04.00에 登梅洞에 예비로 控置된 제7중대(장, 趙貞鉉중위)를 전투에 加入시켜, 제5, 제6 兩중대의 中央에 전개하여 사단 포병의 직접지원과 함공근접지원아래 步, 砲, 空의 立體作戰을 벌여, △883와 그 左側의 無名高地를 공격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이날 05.00에 △550에서 제1, 제2 兩중대로써 戰車砲지원아래 △934 東南쪽 標高 700稜線의 敵 前進진지를 强襲하였으나, 兩대대 모두 전날의 空轉을 계속하다가 日沒과 함께 山腹에 固着되고 말았다.



<戰車지원아래 공격하는 제7사단장병>

이에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은 21.00에 제1, 제2 兩중대로 하여금 現地에서 야간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제1중대병력으로 特攻隊를 편성

토록 하여 야간奇襲을 試圖케 하였다.

이리하여 24.00에 분대규모의 제1중대 특공대가 敵陣으로 突進하였으나, 敵의 지뢰지대를 踏破하다가 지뢰의 폭발로 奇襲의 企圖가 폭로된 까닭으로 손실만을 입게 되어 공격이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는 이날도 계속 △901진지를 확보하면서 제2대대의 東側方을 엄호하였는데, 연대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61명	戰死	2명
捕虜	6명	負傷	21명
鹵獲	多發銃 10정, 蘇式 小銃 6정		

2.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는 이날 04.30에 공격을 再開하려 하였으나, 敵의 先制逆襲으로 말미암아 守勢로 전환하여, 終日陣前에서 混戰을 거듭케 되었다.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제1중대(장, 金好奎중위)로 하여금 △521를 奪取하도록 하였는데, 同 중대가 공격을 시작하기 前에 중대규모의 敵이 먼저 중대 陣前에 近迫함으로써, 새벽부터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白兵으로써 끝내 이 敵을 격퇴하고 진지를 堅守하였으나, 敵은 終日 산발적으로 逆襲을 반복하여 중대의 공격을 牽制하였으므로 이날 중대는 끝내 仙儀岳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제2대대(장, 安載寧중위)가 △751에서 撤收함으로써, 同高地를 手中에 넣게 된 敵은 대대규모로 병력을 증강하여 △743를 공격하였으므로, 06.30부터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743의 제6, 제7중대는 종일 포병지원과 수류탄으로 여러차례 敵을 격퇴하였으나, 數梯波로 試圖된 波狀 공격으로 말미암아 日沒무렵에는 敵이 陣內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鐵火와 劍光이 亂舞하는 彼我의 白兵戰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善戰에도 불구하고 數的인 劣勢에 놓여 있던 兩중대는 戰死 11명과 負傷 111명의 손실을 보게되어 더 이상 진지를 支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咸炯甲소령은 포병의 陣內 지원사격을 要請한 다음, 兩중대를 高地 南麓의 제5중대 진지로 隨意 撤收시켰는데 이날 △743전투에서 敵 54명을 射殺하고 1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는 전날과 다름없이 제9중대와 수색중대로써 △621를 확보하고, 主力은 연대예비대로 △769일대를 점령하였다.

3.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이날 제2, 제3 兩대대로써 Badger線을 확보하는 한편, 제1대대로써 △892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제1대대(장, 羅燾日소령)는 이날 02.30에 △596의 대대본부와 제3중대(장, 金石萬중위)를 △365의 제1, 제2 兩중대진지로 推進한 다음, 05.00를 期하여 목표X를 공격하였다.

공격에 앞서 대대장 羅燾日소령은 高陽洞—水於口間 도로를 攻擊開始線으로 정하고, 제1, 제2 兩중대는 점령중인 △365의 진지로부터 그 西北쪽으로 뻗은 稜線으로 목표X 北端인 △892 北쪽 300m 無名高地(표고 900m정도)를 공격케 하였으며, 수색중대는 △421에서 △892를 공격토록 임무를 分擔시켰다.

이리하여 제1중대(장, 金千石중위)와 제2중대(장, 金榮澤중위)는 △365에서 05.00에 攻擊開始線을 통과한 다음, 목표 東南麓에 병력을 左右로 전개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09.00에 목표 前方(東쪽 500m) 無名高地(표고 750m정도)에서 敵의 前進부대(1개소대규모)와 激突케 되었는데, 兩중대의 接近이 容易치 않았다.

이에 대대장은 △385에 예비대로 控置한 제3중대(장, 金石萬중위)를 제1, 제2 兩중대의 右側으로 迂回시켜 超越前進케 함으로써 그 敵의 東北側面을 협격토록 조치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同중대장에게 명령하기를 『제1, 제2 兩중대와 협공하여 中間목표를 점령한 다음에 兩중대가 최종목표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료하는 즉시 목표 高地 北쪽 능선으로 挺進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10.30에 3개중대가 合勢하여 敵의 前進부대를 격파하고, 목표인 無名高地의 頂上으로 진격하여 13.30에 敵前의 至近距離에서 돌격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421에서 △892를 목표로 진격한 수색중대(장, 洪淳明중위)는 無名高地(△892 東南쪽 400m)에서 09.00부터 또 한번 敵과 격돌하였으나, 14.30에 敵을 制壓하고 목표高地에 육박하여 진지를 급편한 다음 돌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同중대의 先頭였던 제2소대 正面에는 높이 10m의 岩壁이 聳立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위에 敵이 화력據點을 마련하여, 자동화기를 亂射하였다.

이에 소대는 돌격에 앞서 이를 먼저 制壓키로 하고, 2개組의 特攻隊를 편성하여 소대장과 金潤極 소대선임하사가 각각 1개조씩 지휘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同특공대는 먼저 그 바위아래로 死角을 利用한 각개 躍進으로 敵의 彈道밑으로 접근한 다음, 선임하사組의 4명이 岩壁을 기어오르면서 바위 위에 있는 敵의 注意를 끌게 하는 사이에 소대장組 6명은 敵의 등뒤로 迂回하여 有蓋壕의 銃眼속으로 수류탄을 投入함으로써 드디어 이를 격파하였다.

이와같이 제2소대가 突進路를 개척함과 동시에 全중대가 17.30에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擊殺과 刺殺로써 敵을 모조리 撲滅한 다음 17.50에 △892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892 防壁이 무너지고 殘敵이 四方으로 흩어짐으로써, 그 衝擊은 北쪽 無名高地까지 波及되어 그 쪽의 敵을 動搖케 하였다. 이때를 놓칠세라 제1, 제2 兩중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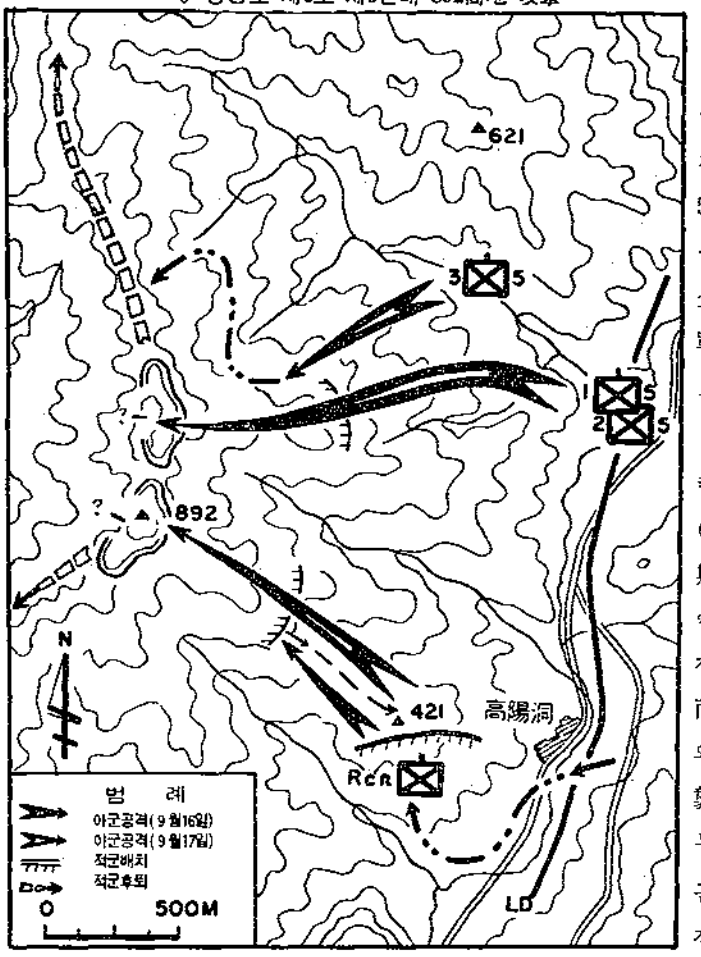
18.00에 또한 과감하게 돌격하여 銃劍으로써 敵을 무찌르고 同高地를 奪取하고야 말았다.

이때에 제3중대는 제1, 제2 兩중대의 돌격개시와 동시에 機敏하게 高地 北쪽 능선으로 迂回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1, 제2 兩중대의 銃劍아래 潰散된 敵을 추격한 끝에 鐵槌를 加하였다.

이와같이 목표X를 점령한 대대는 19.00에 △892와 無名高地 일대를 剔抉하고, 四周방어진지를 갖추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이날 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삽	5개
射殺	63명	82mm 迫擊砲彈	20발
捕虜	3명	損 失	
鹵獲	HMG 1정	戰死	3명
	多發銃 4정	負傷	44명

◇ 상황도 제6호 제5연대 892高地 攻擊



9월 18일 : 이날부로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하였는데, (陸特甲 제550호) 同연대가 전날 목표를 점령함에 힘입어, 사단 全 장병이 唾手奮發함으로써 戰線은 그 激戰의 고비에 이르렀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공격 右一線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05.00를 期하여 전날에 이어 △883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제5중대(장, 蔡秉國중위) 正面에 중대규모의 敵이 03.00와 04.40에 두차례에 걸쳐 逆襲을 감행하였으나, 이를 모두 破碎할 수 있었던 대대는 곧 공격을 개시하여, 지원포격으로 敵의 火網과 지뢰를

제거하면서 頂上을 향하여 약진하였다.

그러나 8部능선에 이르게 되자 敵의 발악적인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또 한번 鈍化되었다.

이에 대대장 崔基宗대위는 공격을 中斷하고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여 頂上의 敵을 强打하게 하는 한편, 우선 사단포병으로 하여금 高地 北쪽 능선上의 敵 지원화력을 制壓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7포병대대가 △894 일대로 射程을 延伸하고, 또한 출격한 F-51戰爆機 편대는 로켙彈과 네이팜彈으로 高地에 痛擊을 加하였다. 네이팜彈의 火焰속에 散飛하는 岩塊와 鐵片이 마치 火山의 噴出과도 彷彿케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은 黑煙과 黃塵이 또한 熔岩과 같이 山腹을 뒤덮어 능선에 對峙한 彼我의 視界를 가로 막았다.

이때에 이 渦中에서 제7중대(장, 趙貞鉉중위)의 鄭福道이등중사가 單身 敵陣으로 突入하여 敵의 대대지휘소를 急襲함으로써 敵 대대장을 포함한 12명의 지휘소 要員을 사로잡아 앞세우고 悠然하게 중대로 復歸하였다.

이로써 결정적인 戰機를 마련한 중대는 폭격이 끝남과 동시에 全員이 怒濤와 같이 敵陣으로 돌격하여, 지휘체제가 崩壞되고 支離滅裂에 臨한 듯 한 敵을 潰滅하고 11.40에 高地를 席捲함으로써 그 主人이 되었다.

한편 左一線 공격梯隊인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08.00에 목표 △934를 공격하였으나 이날도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中腹에서 일시 膠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에 제1중대(장, 裵炳魯중위)가 목표 前方 標高 700능선의 敵 前進진지를 攻略하던 中 敵兵 2명을 사로잡았는데, 이에 중대장 裵炳魯중위가 그 敵의 지휘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審問한 즉, 그 가운데의 한兵士가 말하기를 『저희들은 진작부터 投降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機會를 얻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수류탄을 2개만 주면 저희들의 중대장塹를 파괴하여 赤心을 證明하여 보이겠읍니다』라고 하여, 特攻隊 임무를 自請하였다.

중대장은 그들의 眞意가 분명한 것으로 推斷하고, 『너희들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뜻대로 하되, 만일 추호라도 그릇된 생각을 품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大號한 다음, 각각 수류탄 1개를 주어 放免하였다. 그리고는 중대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嚴重히 監視케 하였는데, 과연 落伍兵과 같이 行勢하여 敵陣으로 接近하는 듯 하더니, 오래지 않아 前方의 한 塹壕에서 두발의 爆音과 함께 壕의 施設物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이에 중대는 그 爆音을 신호로 삼아 일제히 敵陣으로 돌격하여 敵을 制壓함으로써, 09.20에 마침내 前進陣地를 점령하고, 그 捕虜를 救出하여 대대로 後送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폭파한 塹壕에서 敵 중대장을 비롯한 軍官(將校) 3명의 爆殺시체를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標高 700능선을 확보함으로써, 목표 △934에 대한 공격의 발판을 마련케 된 중

대는 곧 그 餘勢를 몰아 東北쪽 능선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8部 능선까지 肉迫하였으나, 그곳에서 敵의 阻止火網에 차단되어 戰勢는 또 한번 固着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出血만이 累增할 것으로 판단한 중대장은 돌격지원 사격을 요청하여 戰車砲와 迫擊砲의 威力으로 敵의 덜미를 누르게 한 然後에 목표 高地를 향하여 중대를 挺進케 하였다. 그리고 중대장이 직접 對空布板을 메고 陣頭에 나서서 『돌격!』을 명령하니, 全 중대원이 앞을 다투어 突進, 高地의 敵陣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血腥어린 山頂은 한동안 白兵의 총검아래 怒號와 悲鳴이 소용돌이쳤는데, 이때에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가 左側에서 白兵戰에 합세함으로써, 敵을 覆滅하고 14.30에 마침내 高地를 점령하였다. 兩중대는 이어, 그 南쪽 嶺嶺의 敵마저 仙儀坮쪽으로 멀리 驅逐하고 목표Ⓐ의 南쪽 地域 모두를 掌握하였는데, 이들은 여기에서 곧 戰場을 整理한 다음, 16.00에 △883의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에 同高地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공격 3일만에 목표Ⓐ를 확보케 된 제2대대는 全兵力으로 △883—嶺嶺間의 半月形능선에 방어진지를 構築하고, 제1대대는 그 右側으로 轉進하여,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의 △901 진지와의 사이에 一連의 防禦線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兩대대가 이날 △883부근 戰鬪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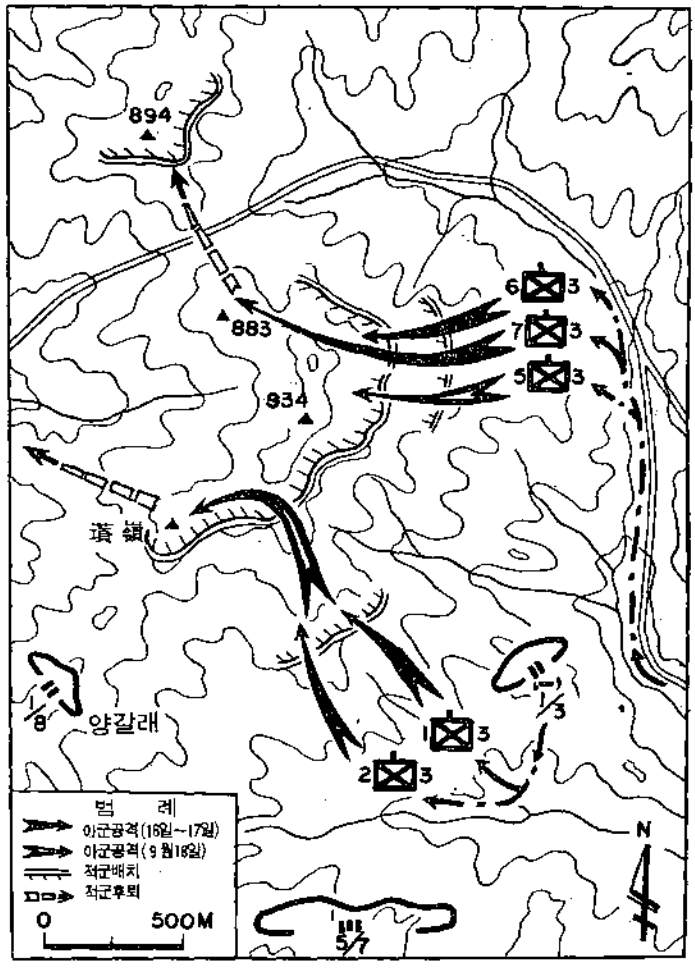
戰 果

射殺 278명
捕虜 42명
鹵獲 LMG 5정
HMG 1정
多發銃 42정
蘇式小銃 37정
手榴彈 50발
EE—8 電話機 2대

損 失

戰死 14명
負傷 80명

◇ 상황도 제7호 제3연대 883高地 攻擊 (9.16~18)



2. 이날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 戰線에도 격전이 再燃되었으나, 그 전반적인 움직임은 전날과 다름이 없었다.

즉, 右一線인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이날 右側 제3연대가 목표Ⓐ를 점령함에 따라 1개중대로써 仙儀坮 南쪽 진지를 확보하면서, 嶺嶺에서 同연대 제2대대와 連繫토록 하고 주력과 수색소대는 다시 계곡을 건너 △521를 공략하였는데, 이날 늦게 同高地의 敵 50여명을 구축하고 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전날 一陣狂風으로 △743을 잃게 된 中央第一線인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는 그 南麓의 제5중대 진지에서 밤을 새워 銃劍을 갈아, 이날 07.00에 同高地를 공격하여 종일 進退가 無常한 攻防戰을 거듭한 끝에 敵 71명을 사살하고 8명을 사로잡음으로써, 22.30에 기어코 그 高地를 다시 차지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은 대대의 손실은 戰死 3명과 負傷 29명 및 失踪 1명이었다.

또한 左一線으로써 △621를 확보한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 일부 병력은 △743 左側의 牛黃谷일대를 威力搜索하였다.

3.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는 전날 △892를 점령한 제1대대(장, 羅燕日소령)가 이른 아침에 敵 1개소대규모의 逆襲을 陣前에서 격퇴한 다음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제3중대로써 △892의 방어진지를 강화토록 하면서 제1, 제2 兩중대로 그 北쪽 2.5Km △992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365의 대대 OP를 △892로 推進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同대대 前進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는 제6중대(장, 金成澤중위)를 △365로 進出시켜 △892 東南쪽의 보급로를 확보케 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이 그 목표를 달성한 18일 밤에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제8연대의 제2대대는 △743 頂上에서 爭奪戰을 반복케 되었는데, 대대가 끝내 이를 失守하여 頂上을 敵에게 넘겨주는 바 되어 南쪽 능선만을 장악하여 그 東西麓에 진지를 再編케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단戰線에는 커다란 변동없이 19일에 제5연대의 제3대대로써 同연대 제1대대 右側의 제8연대와의 地隙을 보강하여 다음 작전을 준비케 되었다.

그런데 이날 제8군에서 제10군단에 명령하기를 『군단의 現 진격은 9월 20일까지 계속하되, 그 以後에는 現戰線에서 방어에 有利한 地形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라. 이 陣地帶를 확보키 위한 제한공격은 이를 계속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군단戰況을 분석컨데, 右翼의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美제1해병사단이 이미 南江南岸까지 進出하였으나, 左翼의 美제2사단이 「斷腸의 稜線」에서 踏步상태를 거듭하고 있었으므로, 군단戰線에 均衡을 圖謀키 위하여 이 右翼兵團의 진격을 제한한 措置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도 20일부터 △901—△883—△621—△892線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군단명령에 따라 제8사단과의 진지교대를 前提로 現전선에서 진지를 강화케 되었는데, 22일에 사단 參謀長인 李哲熙대

령이 陸本으로 전출하고 孫熙善대령이 그 후 임으로 부임하였다. (陸特甲 제551호)

이 戰鬪에 있어서의 사단의 종합전과와 손실(9.16~9.18)은 다음과 같다.

戰果		82mm迫擊砲彈 20발
射殺	696명	手榴彈 50발
捕虜	76명	EE-8 電話機 2대
鹵獲	LMG 7정	삽 5개
	HMG 1정	**損失**
	多發銃 64정	戰死 37명
	蘇式小銃 56정	負傷 314명
	MI 19정	失踪 2명

§ 參戰者의 證言

◇ 제5연대 제7중대 제2소대장 丁海寬 소위

(1973.8.22, 제3군사령부에서, 대령)

이 △883전투는 처음에 제5연대가 먼저 공격하였다. 제2대대 제6중대가 先鋒으로 공방전을 벌여, 爭奪을 반복하다가 제6중대장 尹甲炳중위가 복부 관통상을 입게 되어 우리 중대가 공격케 되었다. 당시 공격간에 美 공군의 근접지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자, 航空機의 機銃掃射의 유도가 잘 못되어 우리병사 몇명이 다치기도 하였으며 SCR 536무전기 1대도 파손되었다.

중대는 이를 무릅쓰고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선두에서 돌진한 제3소대 제2분대장 김태동下士가 敵의 자동화기를 제압코자 수류탄을 투척하다가 전사하였다.

이를 따라 우리는 몇번이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勢가 완강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5중대에 공격임무를 인계하였는데, 이도 목표頂上을 점령치 못한채 나중에는 제3연대에 전선을 인계하게 되었다. 우리대대는 半이상의 병력을 손실한 것으로 안다.

◇ 제3연대 제1중대장 裵炳魯중위

(1973.4.24, 육본 G-1에서, 대령)

처음에 제5연대가 공격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우리연대가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 대대는 먼저 연대에서 공병 1개소대를 지원받아, 子正에 △550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그 곳에는 敵이 지뢰를 매설한 탓으로 우리 병사들의 발목을 많이 다쳤다.

本攻에 들어간 대대는 우리중대(제1중대)와 제2중대로써 東南쪽을 공격하였는데, 6부능선에서 포로 2명을 얻은 것 이외에는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나는 거기서 얻은 포로를 이용하여 그들의 화력據點을 부수고 8부능선까지 올라갔는데, 또 한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그래서 나는 중대원을 一列橫隊로 전개시켜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이를 점령하였다. 頂上에 올라간 순서대로 20명을 기록하여 보고 하였는데 그 뒤에 20번까지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으며, 여기서 우리 대대원에 美 銀星과 銅星 훈장이 수여되기도 하였다.

나는 金星 花郎 훈장을 받았다.

4. 第1次 白石山 戰鬪(1951년 9월 24일부터 1951년 9월 2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6 호
상 황 도 제 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10군단	장	소장	Clovis E.Byers
제7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3연대	장	대령	鄭 瀅
제1대대	장	소령	李 鍾 宅
제2대대	장	대위	崔 基 宗
제3대대	장	소령	曺 元 哉
제5연대	장	대령	蔡 命 新
제1대대	장	소령	羅 燾 日
제2대대	장	소령	金 晶 煥
제3대대	장	소령	盧 沈 根
제8연대	장	대령	金 基 東
제1대대	장	소령	咸 炯 甲
		소령	姜 順 馨 (9.24부터)
제2대대	장	소령	林 春 勃
제3대대	장	소령	宋 寅 奎
대전차공격대대	장	중령	朴 周 用
제16포병대대	장	중령	文 在 駿
제7공병대대	장	소령	金 利 德

지원부대

美 제72전차대대 1개소대

美 제96야전포병대대 A포대

右인접부대 : 美 제2사단 장
소장 Clark L.Ruffner

左인접부대 :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병 력 : 장교 603명, 사병 8,564명

장 비 : 105mm곡사포 16문
81mm박격포 52문
60mm박격포 84문
4.2″박격포 6문(모두 故障)
3.5″ Rocket포 10문
2.36″Rocket포 30문
75mm무반동총 2정
57mm무반동총 2정
Cal 50 71정
HMG 38정
LMG 126정
BAR 295정
SMG 282정

敵	軍
北傀 제5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45mm직사포 3문
제32사단 장 소장 金 大 弘	高射기관총 4정
제12사단 일부	대대當 82mm박격포 5문
병력 : 3,500명	反전차포 7문
장비 : 연대當 120mm박격포 2문	重 機 3정
76mm직사포 3문	輕 機 9정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 末에 Badger線에서 白石山을 목표로 하여 攻勢로 移轉한 제7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그 正面의 北傀 제32사단(장, 소장 金大弘)과 血戰을 벌인 끝에, 9월 중순에는 白石山 南쪽에서 敵의 主抵抗線인 △901—△883—△892의 堅壁을 모두 무너뜨리고 목표의 前緣을 奪取한 다음, (△883 및 △892부근 전투 참조)이어 海拔 1,142m의 山峯에서 전개되는 이 決戰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輸贏을 겨루게 되었다.

8월 이래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敵의 「5월공세」당시에 中東部戰線에서의 策源地였던 Punch bowl의 左右壁과 沙汰里—文登里사이의 능선(一名, 「斷腸의 稜線」)을 확보하는데에 主眼을 두고 제한된 진격을 단행 하였는데, 이 부대 군단 右半部에서는 Punch bowl의 左右壁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左半部의 美제2사단과 제7사단은 각각 「斷腸의 線稜」 南쪽의 「피의 線稜」과 △901—△883부근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그 진전이 如意치 못한 까닭으로, 北漢江 東岸에서는 戰線의 심한 彎曲部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단은 9월 초에 들어서면서 主攻方向을 「피의 稜線」—「斷腸의 稜線」으로 지향케 하여, 美제2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攻略토록 하였는데, 중순에 이르도록 戰況이 遲遲不振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사단正面의 白石山을 早期에 탈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戰線의 整齊上으로도 理所當然하거니와 이것을 掌中에 넣으면 곧 그 東쪽의 「斷腸의 稜線」의 西側背를 脅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단은 앞서 치른 △901—△883—△892전투로 말미암아 戰力에 많은 감퇴를 보아 제103重박격포중대의 42″박격포 6문이 모두 고장으로 사용불능의 상태이고, 실제 전투병력도 1개중대에 60~80명 규모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사단의 戰力을 감안한 군단장은 敵의 「5월공세」때에 新銳로서 군단戰線에 羅兵케 되어 蘆田坪(Punch bowl 東壁)전투에서 聲威를 떨친 바 있는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을 이 白石山戰線에 起用키로 결심하고 9월 20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군단작전지시 제235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해병 제1사단은 9월 21일 中으로 韓제8사단의 전선을 인수하라.

② 韓제8사단은 現戰線을 美해병 제1사단에 引繼한 다음, 9월 23일 12.00까지 下牛望(楊口 北쪽 3Km)부근에 집결하여, 韓제7사단의 戰線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라.

③ 韓제7사단은 現전선을 X일 X시까지 韓제8사단에 인계하고, 竹里부근에 집결하여 군단예비로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에 任하라.

④ 韓제7, 제8 兩사단의 交代日時(X일 X시)는 後達한다』

한편, 美제2사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斷腸의 稜線」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그 當面의 北傀제

6, 제12사단이 同능선에서 固守방어를 편 까닭으로, 그야말로 尺寸의 땅을 다투는 격전만이 반복될 뿐, 이때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12일에는 급기야 同사단이 이 難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23일 06.00를 期하여 文登里계곡 西쪽인 左接境線上의 △1,024(白石山 東南쪽 2Km)를 공격하여 그 공격正面을 확대 함으로써 敵에게 병력 분산을 強要키로 하였다.

이날(21일) 同사단으로부터 이와같은 작전 構想의 內示을 받은 군단장은 白石山(△1,142)에 頑敵가 도사리고 있는 限, △1,024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同사단이 企圖하는 敵병력의 分割使用에 있어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 이에 策應하여 제7사단으로 하여금 當面의 白石山을 攻陷토록 함으로써 敵의 質正面에 보다 威力있는 打擊을 加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인 22일에, 군단장은 사단장에게 命令하기를 『9.24.06.00를 期하여 목표 A(白石山)를 공격하여 이를 奪取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과의 진지교대를 준비중이던 사단은 이날로 급히 部署를 정하여 秋色에 젖은 白石山을 노려보면서 會心의 銃劍을 갈게 되었는데, 이 당시 사단의 陣容은 여전히 제3연대(장, 鄭 襄대령)를 右一線으로,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를 左一線으로 삼아 △901(白石山 東南쪽 3Km)—△883(白石山 西南쪽 2.3Km)—△621(△883 西쪽 4Km)—△892(△621 西南쪽 2Km)線을 확보중이었고, 제5연대의 1개 대대가 양갈래高地(△883 西南쪽 1.5Km)에서 △917까지의 능선의 예비진지에 控置中인 바, 이것이 연대예비이자 곧 사단예비이기도 하였으니 당시 대전차공격대대는 사단 지휘소를 경계중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단의 제16포병대대(장, 文在駿중령)는 1개 연대에 1개 포대씩으로 직접지원에 任하였는데 2개포대는 長坪里에, 1개포대는 驛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단正面에 대한 일반지원은 德巨里(楊口 北쪽 5.7Km)에 위치한 美제96野戰포병대대의 A포대(155mm 6문)가 담당하였다.

한편, 當面의 北傀제32사단은 그간의 戰鬪에서 白石山을 頂點으로 하여 東南과 西南으로 향하여 馬蹄形으로 뻗어내린 능선 下端部의 要衝인 △901와 △883를 잃고, 한 걸음 물러서서 左右 능선에 逐次로 鱗形의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여기를 決死固守하려는 決意를 보였다.

그들은 사단의 連續打로 말미암아 戰力에 많은 감퇴를 보았으나, 平南 成川等地에서 닥치는대로 強制로 끌어낸 少年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보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陸本 G—2는 이 당시에 北傀제32사단의 可用병력을 3,500명內外로 판단하였으니 그들이 罪없는 紅顔少年들을 羊떼와도 같이 이 一戰에 앞장세운 그 冷血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敵은 비록 병력과 裝備面에서 劣勢에 놓여 있으나, 堅固한 방어진지와 地形의 利를 兼有하고 있으니만큼 결코 輕視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더우기 이 白石山은 敵이 이것마저 잃는다면, 北漢江 東岸에서의 突出部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魚隱山(白石山 北쪽 8.5Km)線으로의 撤退가 불가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제5군단이 防禦에 重點을 두고 있는「斷腸의 稜線」의 西側背를 폭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기필코 死守하여야 할 곳이니, 이런 까닭으로 督戰隊의 총부리를 앞세우면서 必是 窮한 쥐가 囓猫하는 格이 될 것이 自明한 노릇이고 보면, 여기에서 또 한차례 腥風血雨가 소용돌이 치게 되리라는 것을 능히 豫見할 수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9월 22일에 군단장 Byers소장으로부터 白石山 공격에 관한 명령을 받게 된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竹里의 지휘소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한 다음, 23일 0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

전명령 제119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9.24.06.00를 期하여 목표 A(白石山)를 强襲 하려한다.

② 제8연대는 △894(△883 北쪽 700m)부근의 敵을 剔抉한 다음, 西北쪽 稜線을 따라 A를 목표로 공격하라.

책임地域內의 天尾里—長財岾 以西를 9.23.16.00까지 제5연대에 인계하라.

③ 제3연대는 現진지를 확보하면서 제8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연대(대전차공격대대 配屬)는 現임무(左一線)를 계속 수행하라.

9.23.16.00까지 天尾里—長財岾 道路 左側의 제8연대 담당지역을 인수하라.

제8연대의 공격間에 同연대의 책임지역에 대한 警戒를 要한다.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9.23.14.00부로 제5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이에 앞서 現임무(사단지휘소 및 新兵敎育隊 경계)를 제103重박격포중대에 인계함을 要한다.

9.23.12.00부로 무반동총 各 1개반 (75mm 및 57mm 무반동총 1정)으로써 제3, 제8 兩연대를 지원케 하라.

⑥ 제103重박격포중대는 9.23.14.00까지 竹里에 집결하여 사단지휘소 및 新兵敎育隊의 경계에 任하라. 但 連絡將校를 13.00까지 대전차공격대대에 派遣함을 要한다.

⑦ 제16포병대대는 제3, 제8 兩연대를 직접지원하라. 但 군단 支援포병과의 協調를 要한다. 사단正面에 대한 일반지원은 美제96포병대대 A포대가 이를 담당할 것이다.

⑧ 제7공병대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⑨ 통신중대는 現 통신軸線을 계속 확보하라.

現 SOI를 準用한다.

⑩ 지휘소는 竹里에 위치한다.』

이 作命을 보면 당시에 사단장은 제8연대를 主攻으로 삼아 西쪽 능선으로 指向토록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단장이 이와같이 결심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考慮要素를 G—2 白彰煜중령과 G—3 趙秉洪중령에 의하여 事前에 검토된 바 있었다.

첫째 : 사단의 공격목표인 白石山은 右一線인 제3연대의 전투지역內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공격방향을 그 兩능선으로 따르게 할 경우, 공격의 발판이 될 △901와 △883를 同연대가 掌握中이라는 것.

둘째 : 공격進路인 左右능선의 地形을 분석하면 兩者 모두 곳곳에 岩壁이 錯立하여 險度에는 大差가 없으나 東쪽의 △901에서 白石山의 東麓으로 뻗은 능선은 傾斜가 다소 완만한 편인데 比하여 西쪽의 △883에서 東北으로 달리는 능선은 傾斜面이 急하고 狹窄하여 1개중대 이상의 展開가 힘들 것이라는 것.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사단장이 제8연대로 하여금 主攻方向을 담당토록한 것은, 白石山

의 陣形이 險固하여 1개 연대로는 早期에 奪取하기 어려울 것으로 豫測되기 때문에 목표 A를 東西로 區分하여 제3, 제8 兩연대로써 나누어 맡게 한 것이다. 이때 東쪽 능선은 右隣接인 美제2사단과의 接境線으로서 中心部는 當該사단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능선上의 △1,024를 23일 06.00부터 同사단 제9연대가 공격중이므로 이것을 점령하기 以前에는 이쪽 능선을 따라 공격 할 수가 어려울 것으로 豫見되었다.

따라서 제8연대로 하여금 日出前까지 먼저 西쪽능선의 奇峻嶄崗을 踏破하면서 西南쪽을 直衝케 하고, 제3연대는 美제2사단이 △1,024를 점령할 때까지는 左側에 있는 제8연대의 공격을 東側에서 엄호토록 措置한 것으로 본다.

(2) 작전실시

9월 24일 : 사단은 이날 이미 하달된 作命 제119호에 따라, 제3, 제8 兩연대로써 白石山 공략에 着手함으로써, 지난 18일에 △883를 점령한 이래로 交綏中인 北漢江邊의 秋日蒼天에는 다시금 戰雲이 짙게 되었다.

1. 이날 右一線인 제3연대는 CP를 계속 金岳里에 두고, 제3대대를 그 右제1선, 제1대대를 中央제1선, 그리고 제2대대를 左제1선으로 併列하여 △901—△883線을 확보중이었는데, 연대장 鄭 震대령은 이 공격에 앞서서, 미리 계획을 構想한 결과 美제2사단 제9연대가 전날에 이어 △1,024를 東側面에서 공격중이므로 우선 이를 도와 공격進路를 啓開하는 것이 急先務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1,024에 연하는 능선을 장악한 然後에 本攻으로 移行키로 할 것을 결심하고, △901를 확보중인 제3대대(장, 曺元哉소령)로 하여금 연대火力의 집중지원아래, △1,024에서 南쪽으로 뻗어 △901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剔抉토록 명령하였다.

가) 제3대대는 그간 연대수색중대(장, 韓致完중위)를 배속하여 弓谷부근에서 美제9연대의 C중대와 連繫하여 제9중대로써 △901를, 그리고 제10, 제11 兩중대로써 각각 그 東西麓의 진지를 확보중이었는데, 대대본부는 계속 於斗員里에 위치하였다.

대대장 曺元哉소령은 전날 아침에 △554(△901 東쪽 2.2Km)의 美제9연대 제1대대가 △1,024를 목표로 進擊함에 따라 空白化된 사단 右接境線일대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이날 未明에 △901東麓의 제11중대(장, 劉七福중위)를 뽑아 △901로 추진한 다음, 10.00를 期하여 그 北쪽 300m에 있는 無名高地 ㉮를 공격케 하였다.

이에 同중대는 10.00에 제16포병대대(1개포대)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목표高地에 대대화력을 집중 발휘한 다음, △901로 부터 능선을 따라 銃砲와 방망이 수류탄으로 저항하는 頑敵을 血戰으로 물리치고 1시간만인 11.00에 목표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여기에서 중대는 戰死 2명과 負傷 15명의 손실을 보았는데, 交通壕속에 敵屍가 가득하여 이를 헤아린 결과, 遺棄시체가 149具나 되었다.

이때 능선의 北쪽에서는, △1,024의 600m 東南쪽에 있는 標高 800m의 능선에서 美제9연

대 제1대대가 同高地의 頂上을 목표로 공격중이어서 高地일대가 砲煙彈雨로 뒤덮혔으므로, 중대는 일단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를 재편하면서 그 戰況의 進展을 지켜 보았다.

나)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이날도 연대의 中央제1선으로서 대대본부를 登梅洞에 두고, 제1중대를 △550(△901 西南쪽 1.7Km)에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2, 제3 兩중대로써 △901와 △883사이의 계곡을 장악하였다.

다)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도 전날과 다름없이 제5, 제7 兩중대로써 △883를 확보케 하면서 제6중대로써 그 南쪽의 頭嶺에 이르는 半月形의 능선에 예비진지를 점령하였는데 대대본부는 제1대대와 같이 登梅洞에 위치하였다.

2. 사단의 中央一線이자 공격左一線인 제8연대는 전날 오전까지 제1대대를 右제1선으로 삼아 仙儀岾—高陽洞道路의 北쪽에 있는 △521를, 제2대대를 中央제1선으로 △743(仙儀岾 西北쪽 2.5Km) 南麓을, 그리고 제3대대로써 左제1선을 담당케 하여 △621에 각각 진지를 확보하는 중, 사단작명 제119호에 따라, 연대장 金基東대령이 전날 12.00부 作指 제45호로 연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A를 목표로 强襲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現진지(△521)를 22일 20.00까지 제3대대에 인계하고, 仙儀岾부근에 집결하여 △894(△883 北쪽 700m)를 공격 점령한 다음, 別命에 따라 東北쪽 능선으로 목표 A를 攻略하라.

③ 제2대대는 22일 22.00까지 現진지를 제5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883에 집결하여 제1대대의 △894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3대대는 22일 22.00까지 제1대대로부터 △521진지를 인수하여, 無名高地Ⓐ(△521 西北쪽 1.3Km)를 공격 점령한 다음, 別命에 따라 목표 A를 공격하라.

⑤ 수색중대는 22일 18.00까지 長財岾 南쪽의 공격待機線으로 진출하여 △696(無名高地Ⓐ 西北쪽 600m)를 점령한 다음, 연대의 左側背를 掩護하면서, 別命을 기다리라.

⑥ 要請에 따라 砲兵과 航空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⑦ 공격개시시간 前까지 無線通信을 禁한다.

⑧ 공격개시 日時는 9.24.06.00이며, 공격개시선은 仙儀岾—△521—△696西南麓 400m 능선이다.

⑨ 공격개시 이후 前方전투지휘소를 △917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는 전날 밤중으로 공격준비를 마무리 짓고, 이날 06.00를 期하여 中間목표를 指向하여 공격에 나섰는데, 이날附로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이 姜順馨소령과 교대되었다.

가) 제1대대는 전날 18.30에 △521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20.30에 仙儀岾부근의 於斗員里—高陽洞道路에 집결하였다가, 이날 06.00를 期하여 新任대대장 姜順馨소령의 陣頭

지휘아래 연대가 지정한 중간목표인 △894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연대의 병력수준은 대체로 T/O의 50%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날 공격에 任한 대대의 병력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중대 : 8/74

제2중대 : 4/87

제3중대 : 3/66

제4중대 : 4/48

대대총원 : 24/372

이에 대대장은 重화기중대(제4중대)의 일부병력을 뽑아 小銃手로써 보충한 다음, 제3중대를 공격개시선에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1,제2 兩중대를 공격제1선으로 삼아 목표高地의 西南쪽을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 △894에 견고한 진지를 마련한 듯한 北傀 1개중대규모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西南山腹에 膠着되어, 종일토록 血戰만을 거듭하다가 18.30부터 日沒을 타서 진지를 急編하고 야간방어 태세로 전환하였다.

나) 제3대대(장, 宋寅奎소령)는 전날 연대作指 제45호에 따라 △621의 연대 左제1선진지를 제5연대에 인계하고, 20.30에 제1대대의 △521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날 05.00를 期하여 無名高地 Ⓐ(標高 783m정도)의 攻略에 나서게 된 대대는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제1선으로 하고 제9중대를 예비로 하되, 제11중대로써 목표高地의 西南쪽 능선으로부터 直衝케 하고, 제10중대를 그 東쪽으로 迂回하여 右側의 제1대대와의 地隙인 계곡을 따라 高地의 東北背를 挾擊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장, 蔡原默중위)가 △521로부터 먼저 敵의 西南正面을 공격하였으나 標高 700m능선에 이르러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곧 예비인 제9중대(장, 李源植중위)로 하여금 제11중대를 超越공격토록 함으로써 敵의 正面에 대한 壓力을 늦추지 않게하고, 아울러 右側面으로 공격 機動中인 제10중대에 명령하여 급히 敵의 背後를 찌르도록 촉구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제11중대가 敵의 正面에서 격돌을 벌이는 사이에 敵의 東北쪽 깊숙히 迂回한 제10중대는 제9중대의 超越공격에 때를 맞추어 그 側後背를 急襲함으로써, 격전끝에 목표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날의 主役이 된 제10중대의 勇戰相에 대한 記錄이 없어서 詳考할 수 없으나, 當時의 중대장 高亨來중위가 이 無名高地를 掌中에 넣기까지의 經過에 대한 證言에서

『중대가 敵의 側方을 찔러 接戰이 시작되자마자 敵의 수류탄 洗禮로 말미암아 공격제1파에서 7명의 負傷者를 내게 되어, 중대의 銳氣가 鈍化되는 듯 하였다. 이에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累增하여 중대원의 戰意가 위축될 것을 근심하고, 중대원에 爭奪之氣

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 危局을 打開키로 결심하였다. 나는 陣頭에 나서서 "제9중대가 西쪽에서 돌격을 개시하였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제9중대가 이것을 먼저 점령하게 된다"고 웨친 다음, "중대, 돌격 앞으로!"라고 號令하였다.

사실 이때 제9중대는 아직 돌격線에 오르기 前이었는데, 지휘관이 부하를 속여서는 않되는 것이지만, 이때는 달리 方途가 없었다.

이리하여 중대원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한 결과, 先頭의 분대장들이 白兵으로 7명을 刺殺하고, 敵陣에 뛰어들어 左衝右突로 風雨같이 高地를 席捲하였다』

라는 것이다.

다) 공격 左제1선인 연대수색중대(장, 金龍澤중위)는 전날 밤에 제3대대의 北쪽에 있는 高陽洞—長財坮계곡 東麓에 집결하였다가, 이날 06.00부터 △696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반나절에 걸쳐 高地의 敵과 치열한 攻防戰을 치른 끝에 12.30에 이를 점령하고, 여기서 그 西北쪽의 長財坮를 손에 넣을 준비를 갖추었다.

라)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는 전날 오후에 △769(△883 西南쪽 2.7Km)의 대대본부를 △883로 推進한 다음, 20.00에 이르러 △743(△769 西北쪽 2.8Km) 南麓진지를 제5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主力을 △883에 집결케 하여, 이날 종일 그 北쪽의 △883 西南麓에서 力攻을 거듭하는 제1대대를 南쪽에서 掩護하였다.

그러나 日沒이 가까와지도록 同대대의 전진이 如意치 못하게 되자, 연대장 金基東대령은 判斷하기를 『△894는 △883와 △521에서 白石山으로 향하는 길목의 要衝인데 만약에 여기를 확보치 못한다면, 그 東北쪽 능선으로 向하는 길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打擊力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제2대대로 하여금 △883에서부터 △894東南쪽을 挾攻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17.00에 △883를 떠나 22.00에 △894와의 鞍部인 於斗員里—高陽洞道를 건너 △894攻略에 나섰으나, 23.00가 넘어서야 겨우 목표 高地의 東南麓인 敵前까지 近接하게 되었으므로 夜暗으로 말미암아 一旦 공격을 다음날로 미루고 急編진지에서 徹夜 索敵하였다. 그런데 이날 연대의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65명	戰死	4명
捕虜	2명	負傷	36명
鹵獲	多發銃 5정, 蘇式小銃 1정		

3 사단의 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는 전날 14.00부로 사단으로부터 대전차공격대대를 배속받게 되어 部署의 一部를 변경하였는데, 대전차공격대대로써 제2대대가 담당하였던 △917의 예비진지를 점령케 하고, 제2대대는 제8연대의 제2대대가 占有中인 △743南麓진지를 인수케 하여 새로이 右제1선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621진지를 확보케 하여 中央제1선을 담당토록 하고, 제1대대는 계속 △892에서 左제1선을 맡게 하였는데, 9월 15일 이래 연대에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는 제8연대와의 協調點인 △769에 配備하였다.

이날, 연대는 전날에 인수한 새로운 진지를 강화하면서 그 正面에 대한 수색활동을 전개하여 當面한 敵의 움직임을 牽制하였는데, 11.30에 △743南麓에 있는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 正面에 그 수효를 알 수 없는 北傀의 一陣이 警戒線을 교란하므로, 紛戰 30여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여기에서 同대대는 6명을 사살하고 부상자 2명을 내었다.

제3대대(장, 盧沈根소령)는 전날 인수한 △621에 主力을 두고 수색소대로써 제2대대의 西쪽에 있는 牛黃谷계곡을 수색케 하였으며, 제1대대(장, 羅泰日소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主力으로 △892를 확보하면서 수색소대로써 高陽谷부근에서 北漢江연안의 敵情을 探索케 하였다.

4. 제16포병대대(장, 文在駿중령)는 전날과 같이 본부를 長坪里에 두고 A砲隊는 縣里에, B,C 兩砲隊는 長坪里에 진지를 점령하여 제3, 제8 兩연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砲兵으로 활약중이던 제103重박격포중대는 保有한 박격포 모두가 故障으로 그 機能을 발휘할수 없게 된 탓으로, 사단作命 제119호에 따라 전날 12.00에 집결지인 立石里를 출발하여 13.00에 竹里에 집결한 다음, 중대의 장교 9명과 사병 160명이 Cal 50 6정 및 CAR 161정으로써 보병編制로 전환하자 곧 사단지휘소와 新兵교육대의 경계임무를 맡게 되었다.

9월 25일 : 이날 正午에, 군단장 Byers소장은 사단장 李成佳준장에게 요구하되 『군단作指 제235호에 따른 제8사단과의 交代日時는 9월 28일 12.00이다. 사단포병(제16포병대대)은 同日時附로 제8사단에 배속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美제2사단을 지원중인 제72戰車대대의 일부로써 사단을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당시 군단장이 包懷하는 意圖가 奈邊에 있었을까?

推測컨대 措置가 있기 15분前인 11.45에 美제9연대(美2제사단의 左一線)가 △1,024를 占領함으로써 바야흐로 美제23연대(同사단의 主役)의 「斷腸의 稜線」攻略에 대하여 本格的인 側面지원태세를 굳히게 되었다는 事實과 또 이에 관련하여 사단의 白石山점령의 時期를 9월 28일 以前으로 못박아 놓음으로써 사단공격에 더욱 拍車를 加하도록 促求하는 뜻인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장은 곧 緊急命令(作指 제84호로 9.26.08.00에 書面하달)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9.26.13.00를 期하여 제3연대는 美제2사단에서 지원된 戰車부대를 統合指揮하라.

② 前項과 同日時에 제8연대는 제5연대에 배속중인 대전차공격대대의 1개중대를 통합지휘하라』

이와같이 白石山에 대한 兩연대의 공격력을 증강케 한 다음, 사단장은 下牛望에 집결중

인 제8사단과의 교대절차를 협의하는 바 있었다.

1. 제3연대(장, 鄭 護대령)는 이날도 제11중대로 하여금 전날 확보한 無名高地 ㉮에서 北쪽 능선을 따라 右隣接의 美제9연대 제1대대와 呼應하면서 △1,024를 向하여 진격토록 하였다. 美제1대대는 11.45에 敵115명을 사살하면서 이 高地를 掌中에 넣게 되었으므로 연대의 進擊도 순탄하게 되었는데 잇달아 사단으로부터 공격력을 강화하라는 命令이 하달됨으로써, 13.00에 연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34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목표A(白石山)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9.26.09.00를 期하여 無名高地 ㉯(△1,042 西쪽 900m)를 점령한 다음, 右側의 제3대대를 超越하여 목표A를 공격하라.

③ 제3대대(수색중대 배속)는 9.26.09.00를 期하여 無名高地 ㉰(△1,024 西北쪽 700m)를 공격 점령한 다음, 左側의 제1대대의 공격을 엄호하라.

④ 제2대대는 제1대대가 중간목표(無名高地 ㉯)를 점령하면, 全병력을 登梅洞에 집결하여 豫備로서 後命을 기다려라.

⑤ 수색중대는 계속 제3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공격間 지원부대와의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라.

⑦ 배속공병중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⑧ 통신은 現 SOI를 준용한다.

⑨ 공격間에 제1, 제2種의 추진보급소를 金岳里에 開設한다. 군수主任은 9.25.17.00이후 추진보급소에 위치하라.

⑩ 공격間 연대救護所는 金岳里에 開設한다. 의무대장은 9.25.17.00이후 구호소에 위치하되, 軍醫官 2명과 위생병으로써 長坪里에 救急所를 開設하라.

⑪ 負傷者와 捕虜(歸順兵 包含)는 系統을 따라 즉시 後送하라.

⑫ 지휘소는 金岳里에 위치한다』

가) 제3대대(장, 曺元哉소령)는 08.00에 제11중대(장, 劉七福중위)로써 전날진지(無名高地 ㉮)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09.00부터 敵과 接戰하면서 그 北쪽 능선을 따라 步一步로 진격하던 중, 右側의 美제9연대의 제1대대가 △1,024를 점령 할 즈음에는 그 南쪽 400m에 있는 無名高地 ㉱에 이르렀다.

여기서 중대는 퇴로를 잃고 右往左往하는 敵을 보는대로 격멸하고 12.15에 이 ㉱高地와 그 능선일대를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대장은 곧 제9중대로 하여금 제11중대를 超越하여 △1,024 西麓의 無名高地 ㉲를 다음날의 공격발판으로 점령토록 하였다.

이에 제9중대(장, 李順鎬중위)는 포병지원 아래 △901 東麓진지를 떠나, 標高 900m능선 西쪽능선上의 목표 ㉲高地(△1,024 西쪽 300m)를 指向코 약진한 바 별다른 저항없이 이를 掌中에 넣게 되었는데, 이 敵陣에는 砲擊으로 遺棄된 屍體 70餘具가 慘景을 이루고

있었다.

중대가 戰場을 정리한 결과 北傀대대장인 듯한 軍官 시체에서 노획된 文書가운데 『草本이 불타 재가 되고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된 ××高地 云云』한 句節이 있었는데, 여기의 敵은 중대가 공격하기에 앞서 포병의 집중强打로 말미암아 섬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推斷되었다.

여기에서 전지를 再編하기 위하여 기관총의 위치를 선정코자 非武裝으로 地形을 정찰중이던 화기소대의 기관총분대장 鄭景來이등중사와 彈藥手 任炫昌일등병은 인기척이 나는 허무러진 塹壕 하나를 발견하고, 그 入口에서 『누구냐! 손들고 나와!』라고 大號하니 그 속에서 北傀軍官 1명과 기관단총을 지닌 戰士 8명이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으므로 이를 捕虜로 하였다.

이렇듯 2명의 중대원이 맨손으로 武裝한 敵 9명을 사로잡는 一場面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당시에 이들 포로를 심문한 바 있는 제3소대장 安亨洙소위는 이들의 陳述을 토대로 하여 그 情況을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우리가 高地를 공격한 이날, 그 일대의 敵은 撤收命令을 받은 모양인데, 我軍의 포격이 간단없이 퍼부어지는 탓으로 運身 할 수가 없어서 모두 待避壕속에 들어앉아 우리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보병이 突擊線에 전개하면 포격이 그친다는 點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포격이 그치면 그 틈을 타서 제각기 三十六計를 할 心算이 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壕밖에는 머리도 못내밀고 포격이 그칠때만 바라고 있던차에 갑자기 포격이 뚝 그쳤기로 "이때다"하고 앞을 다투어 壕속을 빠져나왔는데, 난데없는 포탄 한발이 壕의 入口에 命中하더니 뒤이어 또 다시 포격이 집중하여, 이로 말미암아 서둘러 밖으로 나온 者는 꼴경 모조리 撲殺나고 말았으며, 미쳐 壕밖으로 나오지 못한 몇몇만이 살아 남았던 것이다. 그러나 俘虜로 살아 남은 者들도 壕가 허물어 지는 刹那에 기겁을 한 나머지 정신없이 포로가 되고 만것이다. 그런데 其實은 그때 우리가 突擊線에 올라 간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포격이 잠간 中斷되었던 것이다.』



<계곡에서 咆哮하는 砲兵>

나) 한편 이날 제1, 제2 兩대대는 전날과 다름없이 主抵抗線의 진지를 확보하였다.

오후부터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중이던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의 陣前에서 21.40에 敵 1개소대 규모가 夜襲을 試圖하였으나 23.20에 격퇴되었으며 △1,024南麓에서 活動中이던 연대수색중대(장, 韓致完중위)도 22.20에 數未詳의 일단과 衝突하였으나 곧 격퇴하고 말았다.

이날 연대가 거둔 종합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150명	手榴彈 200발	
捕 虜	9명	損	失
鹵 獲	Czecho式 BAR 1정, 多發銃 3정, 蘇式小銃 7정, 砲彈 200발, 各種實彈 15상자,	戰 死	2명
		負 傷	1명

2.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는 제1, 제2 兩대대로 하여금 06.00를 期하여 목표인 △894에 대한 전날의 공격을 再開토록 하고, 전날에 이미 中間목표를 점령한 제3대대와 수색중대는 계속 現진지를 확보하면서 공격대대의 右側方을 엄호케 하였다.

가) 전날 밤에 새로이 연대의 공격 右제1선으로 참가하게 된 제2대대(장, 林春勁소령)는 이날 06.00에 現진지인 △894 東南麓의 800능선에서 제7중대를 예비로 두고, 제5, 제6 兩중대로써 西北쪽에 있는 高地의 頂上을 向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이 발악적으로 저항하므로 수류탄만을 주고 받는 가운데, 09.00가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10.00에 左側에서 공격한 제1대대가 이를 먼저 점령함으로써, 이 高地(△894)를 인수 하였다.

나) 한편 제1대대(장, 姜順磬소령)는 전날 先鋒이었던 제1중대(장, 金好奎중위)가 戰力에 많은 減退를 본 탓으로 이를 예비로 돌리고, 제2중대(장, 金明烈중위)로써 새로이 先頭 제1선으로 삼고 예비인 제3중대를 投入하여, 06.00에 △894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09.00가 넘도록 진전없는 難況이 거듭되었으므로 대대 OP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이 직접 제1선의 소대장 위치까지 挺進하여 戰況을 관찰한 바 대대正面의 공격進路인 능선의 左右는 絶壁을 이루어 機動하기가 어렵고, 능선의 중앙接近路는 岩壁위에 敵이 화력據點을 마련하여 여기에서 자동화기를 亂射하면서 수류탄洗禮 까지 준비한 까닭으로, 대대의 손실만이 累增될 뿐 그 正面으로는 진로개척이 容易치 않았다.

이에 대대장 姜順磬소령은 「대개 堅壘에도 虛弱한 곳이 있는 법이니라」는 點에 想到하자 곧 그 意表를 찔러 特攻隊로써 死角을 이용하여 絶壁을 기어오르게 함으로써 먼저 이 화력 據點을 覆滅한 다음에 正面으로 白兵을 휘몰아 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先頭소대에서 2명의 특공대원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수류탄 2발만을

휴대토록 하여 敵의 화력據點에 대한 特攻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소대의 TS—10無電機로 대대 OP의 관측장교를 呼出하여 대대의 박격포로 하여금 그 絶壁위에 砲火를 同時집중케 하였다.

이리하여 火器중대(장, 林致煥중위)의 81mm 박격포 3문이 일시에 烈火를 吐하니, 이윽고 절벽위에 瞬發信管이 炸裂하여 鐵片과 石塊가 亂飛하고 黑色火藥의 硝煙이 자욱하여 敵으로 하여금 감히 掩밖으로 머리를 내 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2명의 특공대는 재빠르게 절벽을 기어올라 敵壕의 銃眼밑으로 접근하는 刹那에 銃眼속으로 수류탄을 까넣으니, 마침내 그 절벽을 뒤흔드는 轟然一發과 함께 施設物과 兵伏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이것을 신호로, 대대장이 『돌격!』을 호령한 바, 돌격의 先頭소대가 白刃으로써 敵窟을 急衝하니, 劍閃이 絢爛한 가운데 咆哮가 드높아 창졸간에 敵陣은 阿鼻叫喚의 修羅場으로 돌변하였는데, 이 뒤를 대대 主力이 疾風之勢로써 迅雷의 白兵을 휘몰아 친 결과, 닥치는 대로 모조리 剿滅하고 마침내 10.00 正刻에 이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가 이 △894 마저 손에 넣게 됨으로써 白石山의 西南쪽을 흐르는 稜線의 南端 要衝을 모두 장악하게 된 연대는, 다음날 右側의 제3연대와 더불어 연대 全力으로써 乾坤一擲의 결전을 벌이기로 하였는데, 이때 연대장 金基東대령은 전날에 이은 이 △894 攻略에서 대대가 적지않은 손실을 보았으므로 다음날의 本攻에는 제2대대를 先鋒으로 삼기로 하고, 이로 하여금 여기서 戰列을 가다듬게 하였다. 한편, 제1대대를 西北쪽으로 다시 轉進케 하여 △696 東北쪽 500m의 白石山—△894능선 西麓에 진지를 점령토록하였는데 이는 수색중대와 함께 檜谷부근의 敵을 牽制케 하면서 다음날에 있을 제2대대의 공격에 대한 엄호 태세를 갖추게 하려는 意圖였던 것이다.

다) 제3대대(장, 宋寅奎소령)는 전날의 공격진전에 따라 이날 대대본부를 △769에서 頭嶺으로 추진하고, 主力은 전날 入手한 無名高地Ⓐ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대수색중대(장, 金龍澤중위)는 제1대대가 △696 東北쪽에 새로이 진지를 점령하자, 長財垈(△696 西北쪽)로 전진하여 그 正面의 六德谷—高陽洞道路를 제압함으로써 敵에게는 이를 無用之物로 만들고, 아울러 白石山—△743間의 敵前線을 分斷하면서, 제1대대와 함께 공격부대의 右側方을 엄호케 되었다.

이날 연대는 △894전투에서 다음과 같은 전과와 손실을 보았다.

戰　果

射　殺	142명
捕　虜	15명
投　降	3명
鹵　獲	LMG 4정, M1 2정, 多發銃 2정, 蘇式小銃 27정, 手榴彈 50발, 實彈 1,500발

損　失

戰　死	4명
負　傷	27명

3.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는 전날의 진지를 확보하면서 제8연대의 공격을 엄호하였는데, 다음날에 同연대가 全力으로써 白石山을 공격케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공격부대가 떠난 △894—△696—長財坮間에는 防備가 없는 虛弱性을 露呈케 될 것인 즉, 예비대가 없는 사단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補塡策을 연대에 期待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우선 연대에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19.15에 仙儀坮까지 추진케 하여, 장차 長財坮의 要衝을 담당할 채비를 갖추게 하였다.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는 계속 △743南麓진지를 확보하면서 當面의 敵이 長財坮쪽으로 증원하는 것을 견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621의 제3대대(장, 盧沈根소령)는 이날 그 西北쪽에 있는 △831를 탈취하기 위하여 제10중대(장, 金鍾行중위)로써 04.00에 중대진지 北쪽 500m에 있는 同高地를 공격케 하였다. 05.00에 敵前 15m까지 육박한 중대는 그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白兵戰으로서도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대는 이 一戰에서 사살 10명에 投降 4명의 전과를 얻고, 戰死 1명에 CAR 4정을 亡失하였으며, 제1대대(장, 羅燾日소령)는 接敵없이 △892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4. 한편, 이날 항공정찰과 포병대대의 落彈分析에 따르면, 白石山일대를 지원하는 敵의 砲陣地는 대체로 沙汰里—文登里능선(斷腹의 稜線)의 後端部와 內洞 및 孟岩부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단을 지원하던 美空軍의 戰爆機로 부터 14.00에 △894 北쪽 1Km의 능선 後斜面에 위치한 敵의 박격포 7문을 파괴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 敵의 지원화력의 威力을 過少評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날에 있어서는 敵화력에 대한 制壓能力의 如何가 사단의 공격진전의 與否를 크게 左右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8월 26일 : 사단은 이날 08.00에 군단에서 內示된 부대교대 계획(군단作指 제235호)을 구체화하여 사단作命 제120호로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사단은 現전선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새로운 지역에 집결하려 한다. 집결 後의 各部隊의 任務는 後達한다.

② 제3연대는 9.28.12.00까지 제8사단 제10연대에 現진지를 인계하고 9.29.24.00까지 坮谷里에 집결하라.

9.28.12.00부로 대전차공격대대로부터 배속된 無反動銃班의 배속을 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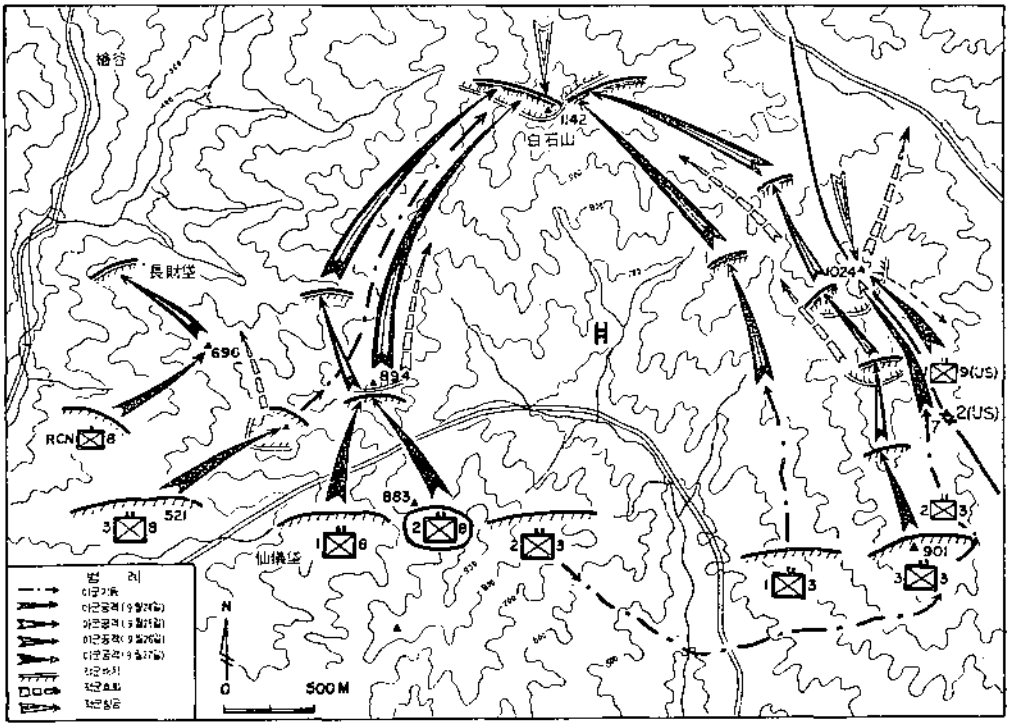
③ 제5연대는 9.28.12.00까지 現전선을 제8사단 제21연대에 인계하고, 9.29.24.00까지 深浦里에 집결하라.

9.28.12.00부로 대전차공격대대와 사단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④ 제8연대는 9.28.12.00까지 現전선을 제8사단 제16연대에 인계하고, 9.30.12.00까지 楸谷里에 집결하라.

9.28.12.00부로 대전차공격대대로부터 배속된 無反動銃班의 배속을 해제한다.

◇ 상황도 제8호 제1차 白石山 戰鬪(9.24~9.27)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9.28.00부로 제5연대로부터 배속을 해제한다. 9.29.24.00까지 生谷里에 집결하라.

⑦ 사단수색중대는 9.28.12.00부로 제5연대로부터 배속을 해제한다. 9.29.22.00까지 水仁里에 집결하라.

⑧ 제16포병대대는 9.28.12.00부로 제8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⑨ 제7공병대대는 9.29.20.00까지 現전투地境內의 방어시설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9.29.24.00까지 竹里에 집결하라.

各 연대에 배속중인 공병은 9.28.12.00까지 原隊에 복귀하라.

⑩ 진지교대를 完了할 때까지 引受부대장에게 協調上의 優先權을 附與한다.

⑪ 기타 細部에 대하여서는 別途 指示한다.

⑫ 지휘소는 竹里에 位置한다』

이로써, 사단장은 28일 正午를 期하여 現임무를 제8사단에 인계하게 된 事實을 비로소 公表하고, 이 白石山의 一戰이 사단의 마지막 攻略임을 밝힘으로써 有終의 美를 거둘 것을 言外中에 促求하였다.

그는 곧 G—2 白彰煜중령과 G—3 趙秉洪중령을 대동하고 △917에 있는 제8연대 지휘소

에 사단CP를 併設하고 제3, 제8 兩연대를 統轄指揮하였는데, 이날 종일 목표 頂上에서는 進退가 無常한 공방의 激鬪가 전개되었다.

1. 이날 아침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은 전날 하달한 작전지시 제34호에 의한 연대의 공격 준비를 점검한 다음, 전투지휘소를 양갈래高地로 推進하고, S—2 金孝稷중위를 지원된 美戰車에 연락관으로 派遣 하였다.

가)제3대대(장, 曺元哉소령)는 연대의 右제1선으로 그 主力과 배속중인 연대수색중대(장, 韓致完중위)로써 09.00부터 美제9연대가 확보중인 △1,024西麓의 제9중대진지(無名高地 ㉮)까지 추진한 다음, 11.00부터 中間목표인 無名高地 ㉯(標高 900m정도)에 대한 공격에 着手하였다.

대대는 敵의 가벼운 저항을 1시간만에 一蹴한 다음, 白石山 南쪽 正面을 공격중인 左제1선 대대(제1대대)의 右側背를 엄호하면서 그 東南麓쪽으로 併進하였는데, 1,000능선部位에서 종일토록 血戰을 벌인 끝에 雌雄을 決하지 못하고 19.00부터 暗中摸索으로 徹夜하였다.

나) 한편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제2, 제3 兩중대를 공격제1선으로 삼아, 09.00부터 △901—△1,024능선의 西麓을 따라 전진하여, 11.00부터 중간목표인 無名高地 ㉯를 공격한 결과, 戰車砲와 무반동총으로 敵의 화력 據點을 逐次로 覆滅하고 12.10까지 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다.

대대는 餘勢를 몰아, 右側에 있는 제3대대의 측방지원을 받으면서, 직접 白石山 頂上으로 그 衝鋒을 指向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登梅洞의 대대본부를 이 無名高地㉯로 추진하고, 예비인 제1중대로 하여금 집결지인 △556로부터 △901西南麓의 제2중대진지에 집결케 하여 공격제1선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제2, 제3 兩중대가 東西로 併列하여 崎嶇한 石徑과 岩壁을 踏破한 결과 14.20에는 600능선(白石山 東南쪽 500m)에서 敵의 경계부대와 격돌케 되었는데 17.30에는 제2중대의 엄호아래 제3중대(장, 金啓容중위)가 頂上을 향하여 躍進하여 저항하는 敵을 간신히 무찌르고, 일시 峯巒 하나를 손에 넣는 즉시로 對空布板을 펴기도 하였으나, 여기에 진지를 確保하기도 전에 敵의 砲火가 雨注하여 물러나는 바 되었다.

이리하여 날이 저문 뒤로 중대는 제2중대와 함께 900능선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頂上에는 대대의 先鋒이 사단의 공격 左一線인 제8연대의 先鋒과 번갈아 드나들어 마치 主人없는 高地와 같았으니, 연대의 右제1선으로서 이 전투에 참가한 제9중대 제3소대장 安亨洙소위의 證言에 의하면, 정작 이날의 격전은 頂上보다 오히려 900~1,000능선에서 더욱 熾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소대(제9중대 제3소대)는 白石山 東南쪽을 공격하던 중, 中腹에서 敵의 강력한 방어線에 부딪쳐 頂上을 目睫之間에 두고 頓挫狀態에 빠졌는데, 당시의 이곳 敵은 頂上에 우리의 항공공격과 포격이 집중된 탓인지, 頂上의 방어에 置重하지 않고 900~1,000능선에 主防禦線을 편 듯 하였다.

소대正面의 1,000능선上에는 敵의 저항이 依然한데 문득 보니, 頂上에 我軍의 대공포판이 걸려 있기로 我軍이 이미 頂上에 올라 간 것으로 믿었으나, 그 아래 능선에는 아직도 완강한 敵이 우리를 가로 막고 있으니, 정녕코 我軍이 頂上을 점령한 것인지, 아니면 我軍이 頂上에서 포위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렇듯 紛亂相이 연속되는 가운데, 우리 소대는 종내 頂上에 올라가 보지 못한채로 현지 진지속에서 서로 對峙하면서 밤을 새웠다』

다) 이날 예비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연대 作命 제34호에 따라, 제1대대가 중간목표(無名高地 ㉮)를 점령할 무렵인 正午에 △883일대의 진지로부터 登梅洞으로 집결하였다가, 18.00에 △901 北쪽의 당초 제11중대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날 연대의 종합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34명		無電機 1대, 電話機 1대
捕　虜	15명	**損　失**	
鹵　獲	HMG 1정, 蘇式 LMG 1정,	戰　死	2명
	多發銃 13정, 蘇式小銃 3정,	負　傷	8명

2.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는 이날 제2대대를 공격제1선으로 삼고, 제3대대를 그 제2선에 後續케 하여 △894에서 東北쪽 능선을 따라 白石山을 强襲케 하고 △894일대의 要衝에는 이날 14.00부로 제5연대로 부터 배속받은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로 담당케 함으로써 공격일선에 대한 後慮를 없애기로 하였다.

가) 제2대대(장, 林春勤소령)는 △894—白石山에 이르는 능선이 좁은 탓으로 3개중대의 同時併進이 곤난하여 대대를 縱隊로 變形하고, 제7중대로 그 先鋒을 삼았다.

이리하여 先制主動으로 대대의 先頭 제1선에 나서게 된 제7중대(장, 姜東秀중위)는 09.50에 포병과 항공지원아래 2Km에 걸친 △894—白石山 능선을 따라 本攻에 착수케 되었는데, Napalm彈의 洗禮로 말미암아 焦土로 변한 능선위에서 수류탄으로 突擊路를 개척하고 총검으로 交通壕를 헤치면서 剽挾의 步武를 재촉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종일토록 血戰을 거듭한 중대는 1개대대규모의 敵이 능선의 南北 數列로 配陣한 그 縱深을 기어코 突破코자 奮迅하여, 16.00에는 마침내 白石山 頂上에 南北으로 우뚝 솟은 두개의 峯巒가운데 南쪽 一峯을 손에 넣고, 뒤이어 當到한 대대主力과 함께 그 150m 北쪽의 突峯을 향하여 합성도 우렁차게 突擊을 감행하여 바야흐로 그 峯上을 制

壓하려는 刹那에 我軍側 戰車砲의 誤着彈의 집중으로 終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戰車의 妄發로 判明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7중대에서는 소대장 2명을 비롯한 先頭소대병력의 殆半을 잃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對空布板과 無電機까지 破損되는 사태가 돌발함으로써, 대대는 일시 병력이 분산되는 혼란상태를 露呈하는 바 되었으나, 곧 南쪽 봉우리까지 물러나 殘兵을 다시 수습하였다.

이렇듯 대대의 戰列이 흩어진 틈을 타서 敵 30여명이 北쪽 峯을 다시 手中에 넣게 되자 여기서 死生을 決하려는 듯이 發惡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右側의 제3연대와도 頂上에서의 連繫를 이루지 못한 채, 연대장 金基東대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日沒과 함께 急히 추진된 연대수색중대(장, 金龍澤중위)와 더불어 頂上의 南峯一角만을 확보케 되었다. 이날 대대가 致命的인 戰車砲의 洗禮를 받게 된 것도 彼我의 戰線이 錯綜無比로 혼합되고 紛亂된 탓이라 할 것이다.

나) 제3대대(장, 宋寅奎소령)는 제2대대의 右側方을 엄호하면서, 同대대를 따라 전진한 끝에 21.00에는 그 右側에 연계하면서 白石山 西南쪽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다) 한편, 제1대대(장, 姜順鎭소령)는 능선 西麓에서 공격부대인 제2, 제3 兩대대의 진격을 엄호하다가 제2대대가 白石山의 頂上一角을 장악하게 되자, 제3대대에 이어 △894 北쪽의 능선에서 同대대와 연계하였다.

이와같이 연대主力이 모두 능선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뒤에 남게 된 △894—△696의 地隙一圓을 塡塞키 위하여 연대에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의 제2중대가 14.20부터 집결지인 △616를 떠나 21.00까지 이 一帶를 모두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날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122명		M1 10정, 多發銃 5정,
捕　虜	8명		蘇式小銃 12정, 手榴彈 520발
投　降	4명	**損　　失**	
鹵　獲	HMG 1정, LMG 1정,	戰　死	17명
		負　傷	63명

3. 사단右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는 계속 전날의 진지를 확보하면서 各대대로 하여금 수색활동을 강화토록 한 바, 수색대가 敵과 산발적인 接戰을 벌여 이날 敵 9명을 사살하고 投降者 4명을 얻었으며 戰死 1명에 負傷 8명의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전날 밤에 仙儀堡로 挺進한 사단수색중대의 1개소대는 이날 오후에 제8연대의 수색중대가 長財堡에서 同연대 제2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白石山으로 出擊함에 따라, 즉각 이 진지를 인수하였다.

4. 이날 제3연대에 배속되어 사단戰線을 지원한 美戰車소대(M4A3型 5대)의 誤砲擊에 대한 경위나 그밖에 이날의 活躍相에 대하여서는 記錄이 남아 있지 않아 헤아릴 수가 없다

다만 連絡官으로서 同戰車隊에 파견된 제3연대 S—2인 金孝稷중위의 證言에 의하면, 이들은 始終 不撓不屈의 鬪志를 발휘하여 사단의 공격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하니, 그 證言의 一端을 다음과 같이 傳頌하려 한다.

『나는 연대장의 命令으로 無電兵 1명을 데리고 戰車에 탑승하였는데, 이 戰車소대는 소대장이 일반적인 指揮를 하고, 사격의 統制만은 소령 한 사람(姓名未詳)이 따로이 있어, 이 소령의 命令에 의하였다. 내가 無電兵을 통하여 공격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國上에 標的을 지적하면, 그 소령이 직접 雙眼鏡으로 목표를 확인한 뒤에 사격을 지휘하였다. 戰車는 登梅洞에서 仙儀堡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白石山 南쪽 계곡까지 깊숙히 전진하여 그곳에 전개하였는데, 계곡이라 掩蔽가 容易치 않았으나 노출된 그대로 공격부대를 지원하였다. 戰車砲는 直射砲라 標的에 그대로 命中됨으로써 그 威力이 대단하여 공격지원효과를 크게 보았다. 이에 敵은 이 戰車砲를 制壓하기에 腐心한 듯, 戰車가 지원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戰車주위에 敵의 박격포탄이 集注하였다. 그래서 소령의 戰車에 同乘한 나는 戰車의 出入口를 닫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막무내가로 내 말을 듣지않고 그대로 上體를 내어 놓은채, 雙眼鏡을 들고 사격을 지휘하다가 끝내는 敵의 박격포탄에 負傷을 입고 말았다. 그리 되어 戰車의 사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단 戰車를 掩蔽할 수 있는 곳을 찾아 登梅洞쪽으로 撤收한 다음, 救急車便으로 소령을 後送하고 소대를 점검하니 戰車나 기타 인원에는 異狀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대장(姓名未詳)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은 즉, 그는 斷乎한 어조로 "우리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韓國軍 제3연대를 지원하라는 命令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대는 아직도 제3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사격지휘도 내가 하겠읍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대는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당초의 地點으로 威風도 堂堂하게 되돌아가 앞서와 같은 方式으로 戰線을 지원하였는데, 5대의 戰車가 敵의 박격포탄이 사방에서 炸裂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動搖치 않고, 소대장의 命令一下에 一絲不亂하게 날이 저물도록 砲지원을 계속하였다. 나는 그때 이 戰車소대원이 보여 준 너무나도 淡淡한 表情과 침착한 행동에서 소령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잠시마나 겁을 먹었던 내 自身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5. 한편, 사단 포병은 이날 종일에 걸쳐, 제3, 제8 兩연대의 공격을 援助하는 한편, 敵의 지원화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對砲兵戰을 전개하였는데, 08.00에는 △1,005(白石山 東北쪽 1.8Km)에서 白石山을 지원중이던 敵의 120mm박격포 6문을 沈默케 하였으며, 오후에는 白石山에 대한 敵의 증원을 방해하기 위한 遮斷射擊을 실시하여 14.30에 澤波原(白石山 西北쪽 7Km)부근에서 東南 쪽으로 출격 中인 敵 일단을 捕捉한 공군정찰기의 誘導에

따라 이를 포격하여 10여명을 殺傷하고 重박격포 4문을 파괴하였다.

잠시 뒤인 14.50에는 △1,088(白石山 北쪽 1Km)로부터 白石山으로 南向하는 敵의 증원부대를 地上觀測으로 포착하는 즉시로 이를 강타하여 150여명을 殺傷하였다.

9월 27일 : 사단은 전날 밤 사이에 攻必取의 決意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날 날이 새는 즉시로 白石山 攻略을 재개키로 하였는데, 날이 밝기도 전에 敵이 먼저 攻勢를 취함으로써 紛戰과 亂鬪相을 보이게 되었다.

敵은 이날의 사단 攻擊企圖를 挫折케 할 목적으로 그들의 可用한 모든 지원병력을 動員하여 여기에 투입한 듯, 先制로 夜襲을 감행하여 斷末魔的으로 발악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날도 종내 이 頂上을 席捲하려는 뜻을 펴지 못하는 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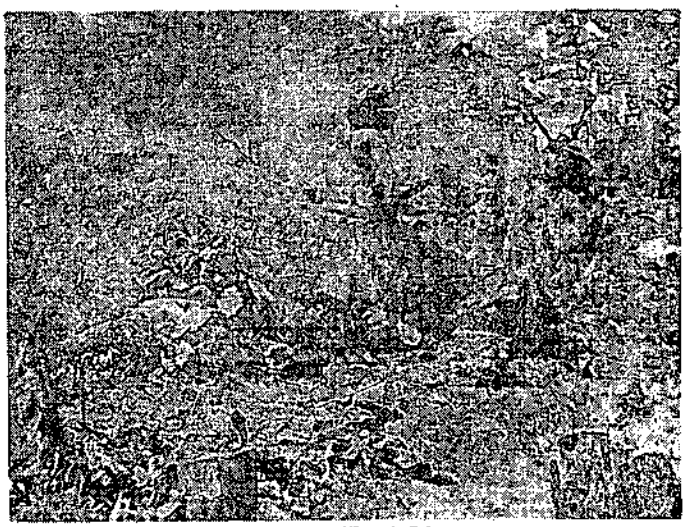
1. 제3연대(장, 鄭愛대령)는 전날 확보한 白石山 東南麓의 진지에서 徹夜로 戰列을 정비하던 중, 이날 01.00에 연대戰線에 밀어 닥친 敵의 攻襲으로 말미암아 그믐 漆夜속에서 混戰과 激鬪를 벌이게 되었다.

兵力規模를 알수 없는 敵이 白石山 東北쪽의 △1,005부근으로부터 연대의 右제1선인 제3대대(장, 曺元哉소령)의 正面과 그 東南쪽 능선上의 △1,024를 强壓하였는데, 2개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挑戰을 받은 대대는 1시간이상이나 격전을 치른 끝에 02.30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의 正面에서는 妖火를 일찍 鎭壓하였으나, 오히려 東南側의 腰部에서 날이 밝도록 銃砲聲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美제9연대 병력이 右接境線上의 △1,024를 防守치 못한 탓으로 敵手에 들어 가, 이로 말미암아 연대의 右側背가 폭로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연대장 鄭愛대령이 예비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로 하여금 이 高地의 敵을 驅逐하여 側面 위협을 除去토록 함으로써, 전투가 다시 여기로 옮겨 간 까닭이었다.

△901부근의 예비진지를 확보중이던 제2대대는 제6중대(장, 尹大鉉중위)를 뽑아 北쪽 능선을 따라 敵이 △1,024에 立脚地를 굳히기 전에 먼저 南쪽을 急衝케 한 바, 중대는 06.00에 수류탄의 閃光과 爆光으로써 進路를 개척하면서 그 頂上을 向한 一氣呵成의 突入으로 이를 되찾았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 高地를 다시 主人(美제1대대)에게 돌



<敵陣으로 躍進突入>

려주고 당초의 △901진지로 反轉하였는데, 이때 사단의 공격 左一線인 제8연대에서도 이 같은 紛爭이 일어나, 날이 밝은 뒤에도 그 戰列을 수습치 못한 까닭으로 이날 예정된 연대의 白石山공격을 猶豫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종일 포병과 空中엄호아래 전날의 급편진지에 陣地工事를 실시하여 다음날의 진지교대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의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鹵獲	M1 5정, 多發銃 12정
射殺	31명	損失	
捕虜	1명	戰死	10명
鹵獲	對空 機關砲 1정, BAR 1정,	負傷	21명
	蘇式小銃 12정, 騎兵小銃 7정	失踪	1명

2.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는 전날 제2대대(장, 林春勳소령)의 碧血로써 白石山의 頂上一角을 점령하여, 咫尺之間에서 敵과 對峙한채 徹夜케 되었는데, 이날 04.00에 수효를 알 수 없는 敵의 一群이 △1,088(白石山 北쪽 1Km)로부터 능선을 타고 南侵하여 同대대의 진지를 奪還하려 하였다.

敵은 사단의 右一線인 제3연대의 正面에 대한 牽制와 陽攻을 노리는 사이에 東쪽의 美제2사단 正面에 布陣하였던 北傀 제12사단의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乘夜越嶺하는 格으로 白石山을 向하여 移動케 하여, 이 공격에 加擔케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의 北傀제32사단은 이제 涸轍之魚의 窮地에 몰리게 되어, 이들만으로는 戰勢를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제6사단을 「斷腸의 稜線」에 投入하면서, 그곳의 제12사단일부를 뽑아 여기를 嬰守케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白石山에 다시금 烈焰이 튀어 오르자, 서로 勢威를 다투는 銃砲聲이 狂想曲을 演奏하는 가운데, 照明彈이 戰夜를 대낮같이 밝히니 空中에는 彼我의 신호탄이 錯綜하여 그 閃火가 亂舞하고 峯上에는 飛散하는 爆片사이로 曳光彈이 交叉하는 不夜城을 나타내게 되었다.

敵은 이미 손에 넣게된 頂上의 北端을 발판으로 삼아, 여기로부터 손실을 돌보지 않는 物量공격을 數梯波로 반복하여 집요하게 決戰을 강요함으로써, 東天이 밝을 무렵에는 대대의 병력이 激減된데다 탄약마저 바닥이 나, 衆寡不敵으로 더 이상 진지를 支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전날 대대의 先鋒에 섰던 제7중대장 姜東秀중위가 뒷날에 이때의 情況을 證言하되 『敵의 攻襲으로 激戰의 幕이 오르니, 막상 나의 눈앞에 닥친 光景은 피에 굶주린 餓鬼의 號哭과 悲鳴속에서 짜르고 빼리는 悽烈한 流血劇의 한 場面뿐이었다. 幕이 내릴 무렵까지 高地에 버틴 대대병력은 나와 제6중대장 安載寧중위, 그리고 제5중대의 소대장

(池소위) 1명등 장교 3명에 사병 11명뿐이었다』고 하였으나, 당시의 血戰의 眞相을 능히 想起할 수 있으리라.

이리하여 대대는 東天이 밝을 무렵에 白石山 南麓의 900능선으로 물러 나서 진지를 재편하였는데, 이와같이 사태가 돌변하므로 말미암아 연대는 이날의 공격을 不得已 단념하고, 제3선의 제1대대(장, 姜順馨소령)를 여기로 推進하여 右側의 제3연대 제1대대와 連繫한 뒤에, 後圍를 策하기로 하였다.

연대는 낮중으로, 다시 제3대대(장, 宋寅奎소령)로 하여금 제1, 제2 兩대대를 赴援토록 하여 白石山의 南쪽 900능선에 진지를 강화한 다음, 18.30에 제1대대를 抽出하여 頂上의 北쪽 峯上을 목표로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敵도 여기에 대한 固守力을 증강하여 완강히 저항한 탓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편 제3대대에서는 이날밤에 제10중대장 高孚來중위로 하여금 제10, 제11 兩중대를 통합하여 特攻隊를 편성토록하고 다음 날의 공격을 期約하였으나 이튿날, 제8사단과의 진지교대로 말미암아 또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九仞之功을 虧一簣」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이날 연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手榴彈 48발, 各種實彈 1,400발
射 殺	22명	損 失
捕 虜	1명	戰 死 2명
鹵 獲	多發銃 3정, 蘇式小銃 4정,	負 傷 61명

3.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는 이날도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11.20에 제1대대의 수색소대가 △922(△892 北쪽 2.5Km)부근에서 수효를 알 수 없는 一群의 敵과 接戰끝에 대대의 主陣地인 △892로 反轉하였다.

그런데 11.50에 항공정찰에 의하면 敵 150여명이 △891(△922 北쪽 1.6Km)에로 南進中이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이날 새벽에 敵이 白石山을 다시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속 확보키 위하여 연대正面에도 防禦力의 증강을 圖謀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12.00에는 △743의 敵 1개소대규모가 제2대대의 정면으로 出擊하여 연대수색중대의 경계선을 攪亂하다가 10분뒤에 同수색중대의 鐵槌로 격퇴되었는데 이날 연대는 投降 8명의 전과를 얻었다.

4. 敵은 이날 마치 白石山 頂上을 다시 차지한 그 底力을 과시하려는 듯, 07.00에는 前例없이 122mm곡사포탄 40여발을 △894에 집중한 것을 비롯하여 盡日토록 이 高地부근에 122mm포탄 120여발을 間歇的으로 퍼부었으며, △1,024부근에도 13.30에 82mm 박격포탄 100여발을 집중하는 등, 이날 사단전선에는 모두 500여발의 각종포탄이 紛飛하였다.

사단의 포병도 여기에 對應하여 全화력으로써 白石山 頂上을 강타하면서, 정찰기의 유도에 따라 射程을 延伸하여 12.00에는 文登里계곡의 上乾培부근에 집결중인 100여명의 敵을 鎭滅하였으며, 또 14.35에는 祠堂谷(上乾培 東쪽 1Km)부근에서 南侵中인 증원병력인 듯한 1개중대규모의 敵을 四散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표인 白石山頂은 兇敵의 手中에서 孤立悄然하기만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28일에 군단명령(작전지시 제235호)대로 白石山 中腹의 現戰線을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에 인계하고, 군단의 예비가 되어 華川저수지 南쪽으로 轉進케 되었는데, 이날 군단장 Byers소장이 다시 사단에 이르기를, 『제8사단이 白石山에 대한 새로운 공격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제3, 제8 兩연대로써 同사단을 지원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은 이 兩연대를 現진지에 그대로 殘置하여, 이날 12.00부로 제8사단에 배속된 제16포병대대와 함께 同사단을 지원케 하고, 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와 대전차공격대대만이 當日로 同사단의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에 진지를 인계한 다음, 29일 오후에 각각 예정지인 深浦里(竹里 東南쪽 2Km)와 岱谷里(竹里 西南쪽 9Km)에 집결토록 하였다.

한편, 戰線에 남게 된 右一線 제3연대(장, 鄭展대령)는 28일 오전에 戰爆機의 編隊群이 白石山頂上에 근접지원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敵을 鎭壓에서 屛息케 하는 사이에 同高地 中腹의 진지를 逐次로 제8사단의 제10연대(장, 鄭剛대령)에 인계하고 登梅洞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인 29일 아침에는 제10연대가 진지를 再編하는 동안 제8사단의 一翼을 맡게 되어 白石山에 대한 공격을 계속키도 하였다.

연대는 이렇게 하여 이날(29일) 正午까지 제10연대를 지원하다가, 오후 늦게야 金岳里一間村을 거쳐 30일 아침에 岱谷里에 집결하였다.

또한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는 28일에 일부진지를 同사단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에 인계한 다음, 계속 그 正面의 敵과 接戰하다가 29일 오후에 진지를 모두 同연대에 인계하고, 29일 새벽에 楸谷里(岱谷里 西北쪽 7Km)에 집결하였으며, 제16포병대대(장, 文在駿중령)는 10월 16일까지 同사단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6월 초순에 華川저수지 東端을 連하는 Kansas 線上에서 제10군단의 左翼으로서 制限攻擊으로 移行한 이래, 4개월동안이나 누볐던 北漢江 東岸 戰線에서의 마지막 決戰場을 떠나 戰塵을 씻게 되었는데, 사단의 全主力이 竹里를 中心으로 하는 지역에 집결을 완료한 9월 30일을 期하여 다시 美제8군의 명령에 따라 美제10군단으로 부터 배속이 解除되어 陸本直轄로 復歸하였다(陸本作戰指示 제97호).

이에 따라, 사단은 육군본부로부터 新兵 2,000명을 보충 받아, 10월 1일부터 1주일동안에 걸쳐 부대를 정비한 다음, 8일부터는 陸本野戰훈련통제본부(FTC)의 훈련에 들어 갔으며, 10월 한달 戰力을 培養하면서 推土重來를 期하게 되었다.

사단의 종합전과와 손실 (9.24~9.27)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投 降	23명
射 殺	740명	鹵 獲	HMG 2명, LMG 6정, 對空機
捕 虜	52명		關砲 1정, 多發銃 46정, 蘇式

小銃 66정, 騎兵小銃 7정, 手榴彈 1,098발, 迫擊彈砲 200발

損 失

戰 死 45명

負 傷 250명

失 踪 1명

(陸本定期作戰報告및제7사단部隊歷史報告 綜合)

§ 參戰者의 證言

◇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

(1973.3.31, 星友구락부에서, 예 소장)

나는 楊口 北쪽 △883전투때에 金容培준장과 교대하여 제7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9월초순부터 중순까지 △901—△883전투를 끝내고 곧이어 白石山 攻略에 들어갔다.

당시에 나는 이 공격에서 제3연대를 主攻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 연대가 앞서 전투를 많이 한 까닭에 제8연대를 主攻으로 삼아 左側능선으로 공격케 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로 하여금 화력으로써 지원케 하였는데, 제8연대 제2대대가 白石山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2대대장이 我軍戰車砲에 우리 애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내가 OP에서 보니 白石山정상에 對空布板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美戰車砲의 火力이 집중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兵士들이 많이 다쳤는데, 당시에 戰車는 제3연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事故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느라 말썽이 빚어졌으나, 제3연대장은 戰功이 特出한 사람이라 연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 제3연대장 鄭 靈대령

(1970.3.6, 淸凉里自宅에서, 예 대령)

白石山을 공격할때에 美軍 戰車 1개소대가 지원되었다. 우리연대가 右一線으로 白石山을 공격하는데, 地形이 험하여 進路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戰車砲의 助力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戰車가 白石山을 점령한 제8연대를 때렸다고 하여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난 뒤 얼마있다가 步兵學校에 入校하였는데, 당시에 高地 하나를 공격하는데 이를 半으로 나누어 2개연대가 兩쪽에서 공격케 한 사단의 공격명령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 제8연대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

(1973.3.9, 鄕軍別館에서)

白石山전투에서 우리대대가 先頭에 서게 되었는데, 地形이 워낙 험하고 機動空間이 좁아서 제7중대를 先鋒으로 삼아 縱隊로 공격하였다.

제7중대가 이것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제3연대를 지원하던 戰車砲가 우리 애들을 敵이라고 사격하여 제7중대의 소대장 2명이 죽는 등 많은 손실을 보았다.

이런 혼란을 틈타 敵이 다시 이것을 점령하였는데, 頂上을 때앗긴 채 그 中腹에서 제8사단과 교대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敵의 主力의 거의 격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戰 訓

◇ 命令의 純粹 劉一性 : 사단은 白石山공격도중에 제8사단과 임무를 交代케 되었는데, 이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군단에서 下達된 부대교대명령이 공격명령보다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換言하면, 공격부대가 장차 交代될 것을 짐작하면서 공격에 임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군단장의 이러한 措置는 戰況의 進展에 따라 不可避하였던 것으로 보나, 결과적으로는 이와같이 本末이 顚倒되어 「交代명령」이 「攻擊명령」에 優先함으로써, 여기에 「數日만 지나면 (목표를 점령하든, 못하든) 交代될 것이다」라는 安易한 생각을 가지는 兵士가 있을 수 있음을 想定한다면, 戰意의 昂揚에 逆行되는 군단장의 명령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차 後方에 돌려서 休息케 할 것이라는 好餌를 던져 士氣를 昂揚시키는 一手段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인가.

此事不成이면 死而不還하리라는 悲壯한 決意를 심어주는 것은 美군단장에게 期待할 것이 아

니라 우리의 지휘관이 몸소 보여주어야 한 道義라고 보는 것이다. 모름지기, 지휘관은 그 部下로 하여금 分明한 목적意識을 가지고 憤起할 수 있도록 垂範하여야 할 것이다.

◇ 協調된 火力支援 : 이 戰鬪에서 사단은 9월 26일에 白石山 頂上점령의 寸前에서 의외의 妨害로 말미암아 挫折된바 있는데, 이는 右一線 제3연대를 지원중이던 戰車의 誤砲擊으로 左一線인 제8연대의 先頭부대가 크게 다치게 된 까닭이다.

이것은 同一목표를 兩面에서 공격할때에 야기될 수 있는, 공격부대간의 偶發的인 충돌의 事例로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原因을 규명컨데 당시의 제3, 제8 兩연대간의 橫的인 협조체제와 사단과 각 연대간의 縱的인 지휘체제에 있어서 어딘가 問題點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격이나 방어를 막론하고 隣接 혹은 지원부대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常識 이전의 것이나, 每 戰鬪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실제로는 戰場에서 그만큼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戰例로써 부대간의 橫的인 협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 本戰鬪에서의 綜合的인 戰訓

1. 指揮官의 職能은 目標의 選定과 그 攻擊開始時機 및 擔當部隊의 割當 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斷然코 攻略에 成功할 수 있도록 步砲火力을 統轄使用하고 그 補給力을 確保하는 同時에 攻擊勢威를 높이도록 必攻不退의 精魂을 鼓舞하여야 한다. 本戰鬪에 있어서 指揮官들이 과연 陣頭에서 그 偉容을 보인 바 있는가.

   가. 各級指揮官의 位置는?

   나. 火力의 協調와 統制事實은?

   다. 步戰砲의 戰力指揮는?

   라. 空地에서의 一點 總集中의 實績은?

2. 高地, 稜線 萬能主義는 同意할 수 없다.

   이러한 곳은 敵의 火力構成의 主要目標가 되는 要衝이므로 내가 必要하면 敵도 또한 必守不讓의 核心으로 삼을 것이다. 「兵力을 逐次使用」하는 것은 用兵上 가장 拙且劣하다는 것이 兵學家의 常識이다.

   高地와 稜線만을 따라 兵力을 配置하는 것은 畫間戰鬪만을 알고 實戰時間 1/3을 占하는 夜戰을 全혀 無視하는 愚를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夜間에는 이러한 要地가 오히려 커다란 弱點이 되고「低에서 高」의 利을 喪失하고 抛棄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높은 곳만 찾는 다는 것은 弱兵의 基礎心理에 屬한다. 強盜라도 極惡한 者가 白晝大路를 노려는 法이요, 힘이 弱한 者는 夜暗를 타게 마련이니 戰力이 不足할 경우 일수록 夜間의 交感力를 活用하여야 한다.

   稜線만을 따라 攻略을 期待하고 中間 低地를 夜間에 活用치 못한 事實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3. 彼我 識別眼에 留意토록 對空布板만이 아니라 顯著한 標識物을 將兵各自가 携帶하는 方式을 採用하여야 할 것이다.

   友軍 戰車火力을 誤導하게 된 根源이 美軍에 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것을 제3연대장 1人만의 責任으로 追窮할 問題가 아니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4. 一旦 奪取한 地點에서 손쉽게 물러서는 것을 習性化하지 말것. 百害 無一利의 思考方式이며 이것은 敵에서 弱點을 造成케 한 것이니만큼, 一點에서 決潰의 妙道를 찾아야 할 것이다. 積水가 決하는 모습을 보라. 一點에서 擴開하지 않는가?

5. 攻擊間의 築城觀念을 提高할 것. 携帶用 築城器具를 敵火속에서도 能히 쓸 수 있도록 訓練의 強化가 必要하다.

§ 硏　　究

1. 이 戰鬪에서, 사단이 목표의 점령에 대한 명확한 線을 긋지 못한데에 基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되 전투 규모에 比하여 남아있는 記錄이 너무나 빈약할 뿐 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각 資料마다 내용에 서로 異同이 적지 않다.

   例컨대,

   첫째 : 전투詳報別로 전투기간을 보면, 사단의 종합전투상보에는 전투기간을 9.23부터 9.26까지로, 제3연대의 전투상보에는 9.26부터 9.28까지로, 그리고 제8연대의 전투상보에는 9.23부터

9.29까지로 잡고 있다(제5연대의 전투상보는 없음).

그러나 作命에 의하면 사단은 이 作戰을 9.24에 실시하여 9.28에 제8사단과 교대한만큼, 本節에서는 D-day인 9.24부터 交代前日인 9.27까지로 하였다.

둘째 : 白石山의 점령日字를 보면, 사단의 전투상보에는 『26일에 제8연대 제2대대가 白石山을 점령』함으로써 작전을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陸軍戰史(陸本 軍史監室 발행)」와 「七星略史(제7사단사령부 발행)」에는 『28일에는 공격을 준비』하였을 뿐이며, 『28일에 목표를 점령하였다』고 밝혔다.

兩者의 이와같은 차이는 資料 取擇上의 문제점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陸軍戰史」는 제8연대의 전투상보를 근거로 하였고, 또 「七星略史」는 이 「陸軍戰史」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으로 미루어 보기 어렵지 않는데, 현재 남아 있는 제8연대의 전투상보에는 정작 요긴한 부분인 26일字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1957.7.28에 발행된 「陸軍戰史」 제6권이 당시에 編纂될 때에도 이 부분의 記錄을 보지 못하여(이로 보면 이 26일字 記錄은 이보다도 앞서 遺失된 듯 함) 이날의 상황을 詳考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이날에는 공격을 준비하였다』고 類推한 듯하다.

그리고 「陸軍戰史」가 『28일에 목표(白石山)를 점령』하였다고 한 것은 제8연대의 전투상보 末尾에 『연대가 목표를 점령하였으나,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한 것을 들어 28일의 記事로 推斷한 것 같다.

그러나 28일에 제8연대가 목표인 白石山을 점령하였다면, 제8사단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제2차 白石山 戰鬪를 再開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資料의 뒷받침에서 이것이 誤謬임을 지적할 수 있다.

가. 9.26字 陸本定期作戰報告 : 『제8연대 제2대대는 △1,142(白石山)를 공격중』

나. 9.27字 陸本定期作戰報告 : 『제8연대 제2대대는 △1,142를 점령확보중』

나. 9.28字 陸本定期作戰報告 : 『제8연대 제2대대는 9.27.04.00에 敵의 大攻勢으로 因하여 南쪽 中腹까지 철수, 交戰中』

라. 9.28字 陸本定期情報報告 : 『9.28 17.00현재 白石山은 敵의 手中에 있음』

마. 美陸軍參戰史(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1) : 『On 25 September the 1st Battalion, 9th Infantry, cleared the crest of Hill 1,024 and the ROK 7th Division won Hill 1,142 the following day.』

2. 이와 같이 記錄이 빈약한 관계로 本文中의 狀況전개는 대체로 參戰者의 證言을 토대로 하여 叙述하였는 바, 高亨來중위가 당시에 제8연대 제10중대를 지휘한 것으로 證言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실었으나, 제8연대의 전투상보上에는 金洙鎬중위가 제10중대장이었음을 밝힌다.

5. 第2次 白石山 戰鬪 (1951년 9월 30일 부터 / 1951년 10월 1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8사단	장 준장	崔榮喜	
제10연대	장 대령	鄭剛	
제1대대	장 소령	車萬石	
제1중대	장 중위	安泰爀	
제2중대	장 중위	李琴永	
제3중대	장 중위	崔鎭玉	
제4중대	장 중위	金寅植	
제2대대	장 소령	金光	
제5중대	장 중위	朴斗瓚	
제6중대	장 중위	尹根世	
제7중대	장 중위	權寧寅	
제8중대	장 중위	崔鳳基	
제3대대	장(대리) 대위	金斗星	
배속부대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朴瑞權	
연대수색중대	장 중위	李技南	
제16연대중박격포중대			
지원부대			
제16포병대대	장 중령	文在駿	
右인접부대			
美 제2사단	장		
	소장	Robert N. Young	
左인접부대			
제6사단	장 준장	張都暎	

敵 軍

北傀 제5군단	장 중장	方虎山	
제12사단	장 소장	崔忠國	
제1연대	主力		

나. 전투 전의 개황

제8사단은 1951년 7월 21일(20일에 江原道 松巨里로 이동) 제5사단의 작전정면을 인수한 이래 제1차(8.9~8.14), 제2차(8.18~8.24), 제3차(9.10~9.18) 蘆田坪地區 戰鬪를 수행하여 △ 1,031—△965—△785—△772—△854등 일련의 瞰制高地를 축차적으로 점령확보하면서 中東部戰線 Kansas線上의 主抵抗線을 확대강화하던 차에 美 제10군단의 作戰指示(제235호 51.9.21부)에 의거 左인접 美 제1해병사단에 蘆田坪作戰地區를 인계하고 江原道 下牛望(楊口 東北方 2.3Km)으로 이동하여 제7사단의 戰線을

인수함으로써 白石山(△1,142)을 점령확보하는 공격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이 정면은 文登里 西南쪽에 있는 白石山을 主峰으로 하는 高地群과 △1,220(白石山 西北 5Km)로부터 北漢江流域까지 西南으로 뻗은 一連의 高地능선이 障壁을 이루고 있으며 1951년 9월하순 현재 △983(피의 稜線)—△1,178(六愚山)—Punch bowl로 北上하는 東部戰線과 △819(北漢江 西岸쪽)—金化—鐵原으로 연결되는 中部戰線의 進出線에 호응하기 위하여 白石山점령후의 文登里進出이 가장 시급해지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 사단 정면의 敵은 北傀 제5군단예하 제12, 제32 兩사단이며 白石山에 배치되었던 제32사단이 我軍 제7사단의 攻擊(51.9.23이후)으로 인하여 전투속행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9월 28일부로 제12사단과 방어임무를 교체시켰다.

이러한 敵의 병력집결상황 및 입수된 정보를 종합판단한 결과 제5군단은 戰略的 要地인 白石山을 최후까지 확보함으로써 我軍 제7사단에게 점령당한 △1,024, △901, △883를 재탈환하여 楊口로부터 松峴里를 거쳐 文登里로 北上하는 主보급로를 제압함으로써 我軍 제10군단의 전반적인 진출을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北傀 제12사단은 △1,220에 CP를 설치하고 我軍 제8사단예하 제10연대의 공격정면에 제1연대를, 左翼에 제2연대를, 右翼에 제3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白石山을 基點으로 하는 △1,088—△1,220—△953의 능선上에 縱深깊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敵병력은 2,700명(美 제10군단의 추정)이며 白石山에 배치된 제1연대(430명)는 重機 12정, 輕機 9정 反戰車銃 6정, 迫擊砲 20문(120mm 4문, 82mm 7문, 76mm 5문, 45mm 4문) 分隊長級 이상은 多發銃, 일반兵士는 蘇式小銃으로 무장되고 每人當 8~10발씩의 수류탄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捕虜진술에 의하면 敵은 停戰會談을 계기로 시간여유를 얻게 되자 탄약등의 보급충당에 전력을 기우렸으며 成川(平南) 및 平壤 加里地區에서 훈련받은 新兵과 義勇軍(北進당시의 越北者)을 基幹으로 하여 訓練度는 양호하나 식량난이 심하고 연일 계속되는 我軍의 砲擊으로 幹部級외의 전반적인 士氣는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白石山은 主峰 △1,142외에 △1,088, △1,040, △920등 3개의 高峰이 인접하고 그 正南斜面은 벼랑에 가까운 急傾斜이며 △883—△934를 거치는 西南쪽의 능선과 △1,024—△901를 거치는 東南쪽의 능선도 모두 急傾斜이므로 攻者에게는 극히 不利한 반면에 白石山 후면 △1,050—△1,220의 능선이 완만하여 보급 및 병력의 긴급지원이 용이하므로 防者에게는 有利한 地勢를 이루고 있다.

我軍의 상황 : 제8사단은 9월 28일 下午里으로 이동집결하고 제7사단의 전투정면을 인수하여 主陣地를 점령하였는데 제10연대는 제7사단 제3연대와 교체하여 △1,024에 진입하는 동시에 主攻임무를 담당하였다. 主攻목표인 白石山은 제7사단이 9월 23일이래 계속 공격하여 9월 27일에 일단 점령한 후에 다시 상실한 高地인 바 제3연대(陣地교체를 앞두고 제8사단에 배속)가 29일 12.00까지 再攻擊을 감행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제10연대에 그 임무를 인계하게 된 것이다.

또 제16연대는 제7사단 제8연대와 교체하는 즉시로 △883(白石山 西南쪽 능선上)를 점령하였으며 제21연대는 제7사단 제5연대와 교체하자 △917(△883 西南쪽 2.2Km의 능선上)를 점령하여 공격기간중 現陣地를 보강하면서 白石山을 중심으로 하는 北傀 제5군단의 右翼에 대한 수색정찰을 감당하게 되었다.

기간중의 氣象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朝夕으로 안개가 낀 까닭으로 接敵행동에는 有利한 편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白石山을 단시일내에 점령확보함으로써 敵의 機先을 制하고 제7사단으로부터 인수한 現防禦진지를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次期作戰을 유리케 할 것을 결심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師團作戰指示 제47호(51.9.29. 12.00부)를 하달하였다.

『① 師團은 軍團命令에 의하여 1951년 9월 29일 12.00부로 第7師團 第3聯隊 및 第8聯隊의 배속을 해제하여 原隊復歸시키는 동시 계속 △1,142를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제10연대

㉮ 제3연대 및 제8연대의 임무를 1951년 9월 29일 11.40까지 인수하라.

㉯ 제16연대의 重迫擊砲中隊 및 對戰車攻擊大隊의 75mm 無反動銃小隊가 도착되는 즉시 통합지휘하라.

㉰ 1951년 9월 30일 07.00부터 공격開始하여 △1,142를 점령확보하라.』

主攻임무를 부여받은 제10연대장 鄭 剛 대령은 연대작전명령(제34호)을 하달하여 제1대대(장, 金 光소령)를 助攻梯隊로 右一線에, 제2대대(장, 車萬石 소령)를 主攻梯隊로 左一線에, 제3대대(장 대리, 金斗星 대위)를 연대예비로 각각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9월 28일 05.00 진지를 인수하여 主攻방향인 左側능선에 제1, 제2, 제3의 3개 중대를 배치하였으며 제2대대는 9월 28일 11.55 助攻방향인 右側능선에 제5, 제6 兩중대를 一線배치하였다.

제3대대 및 사단대전차공격대대는 △1,024—△901(白石山의 東南쪽 능선)에 연대예비로 現陣地를 계속 강화하면서 右인접 美 제2사단 지역내의 北傀 제2연대에 대한 側方警戒에 임하였다.

연대 및 제16연대의 兩 重砲中隊를 비롯한 제4, 제8, 제12의 각 화기中隊와 師團교육대 無反動銃小隊등 각종 重火器梯隊는 白石山 南正面溪谷(△883 東北쪽 斜面)과 △1,024의 西側斜面 7部능선상에 배치되어 공격梯隊를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제16포병대대는 CP를 德巨里에, OP를 縣里에 설치하고 제1, 제3 兩砲隊를 長坪里에, 제2포대를 縣里에 각각 배치하여 공격목표일대에 105mm砲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기간중 2,942발의 포탄을 집중사격하였음).

기간중 사단은 楊口—松峴里를 거쳐 文登里방면으로 北上하는 작전지역내의 간선도로와 下牛望—金岳里—於斗員里의 도로를 主보급로로 하는 한편 高地推進보급의 신속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工兵大隊(장, 徐正雨소령)로 하여금 於斗員里—△883의 溪谷小路를 긴급 보수케 하는 동시에 공격梯隊에 大隊當 100명씩의 民間勞務者를 배속하였다.

사단의 右隣接部隊는 美 제2사단(CP는 下牛望 東쪽 약 1.2Km의 上牛望에 위치), 左隣接部隊는 제6사단(CP는 華川貯水地 西쪽 九萬里에 위치)이며 美 제2사단은 △867(△1,024 東쪽 1.4Km)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제10연대의 右側方을 엄호하게 되며 제6사단은 金城東南方 北漢江上流 左岸일대의 高地群을 확보한 現主陣地를 계속 강화하게 되었다.

(2) 작전실시

9월 30일: 06.00를 기하여 일제히 砲門을 열어 白石山主峰일대의 敵陣을 강타하기 시작한 각종 支援砲의 공격준비 射擊이 07.00 정각에 연신됨에 따라 제1, 제2 兩대대의 공격梯隊는 아침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공격 開始線에서 약진하여 나갔다.

1.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대대 OP를 白石山主峰 正南斜面 7部능선까지 추진시킨 다음 右제1선에 제2중대(장, 李琴永중위), 左제1선에 제3중대(장, 崔鎭玉중위)를 내세우고 제1중대(장, 安泰嬉중위)를 대대예비로 후속시키면서 공격목표 西南쪽의 능선으로 主攻을 지향하였다.

이 공격정면의 北傀 제5군단 제12사단예하 제1연대 제1대대는 가파른 斜面과 突出部에 위장된 화기陣地의 掩體壕를 要部마다 구축하였으나 我軍 제7사단의 공격이래 시간여유를 얻지 못하여 지뢰지대는 보강하지 못한 듯 하였다.

가) 主攻 左제1선의 제3중대(장, 崔鎭玉중위)는 火器소대(장, 李起洙이등상사)를 차폐된 拉石지대 일각에 배치하고 8部능선상의 死角진 斜面을 전진이동하여 接近路上으로 약진하자고 순간부터 집중하는 敵의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敵은 白石山背面 1.3Km지점과 大谷부근(白石山의 西北쪽 3Km)에 82mm 迫擊砲 4문, △1,220 및 △1,054(白石山의 背面능선上)에 76mm 直射砲 5문, 文登里 西南쪽 1.7Km의 溪谷에 120mm 迫擊砲 2문을 배치하여 제12사단 砲聯隊의 지원포격과 더불어 白石山防禦를 엄호하고 있었다.

敵軍에게 완전히 壓制당하고 있는 接近路에는 포탄이 정확하게 집중하였다. 중대는 彈着의 간극을 누비면서 육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구축된 敵 掩體壕와 散兵壕에서 집중되는 直射화기의 치열한 彈雨를 무릅쓰면서 중대主力이 一步一步의 躍進을 거듭하는 동안 차폐지점의 火器소대는 敵陣에 대하여 엄호사격을 집중하였으며 연대에 배속된 교육대대(장, 尹泰皓중령)의 無反動銃小隊도 중대主力을 후속하면서 4문의 無反動銃(57mm 2문, 75mm 2문)으로 엄호하였다.

중대는 공격을 개시한지 9시간이 지난 09.00 현재로 敵前 100m인 수류탄투척거리내에 돌입하여 수류탄을 집중하면서 右側 제2중대의 진출을 기다려 최후돌입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나) 主攻 右제1선인 제2중대(장, 李琴永중위)는 白石山主峰 前斜面의 8部능선에서 공격開始線을 통과하였다. 버랑에 가까운 急斜面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며 우거진 숲과 무수히

깔린 岩石은 유리한 차폐물이 되어 直射화력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모면할 수는 있었으나 敵軍은 急傾斜度를 이용하여 수류탄을 무더기로 투척하는 동시에 主峰의 背斜面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迫擊砲彈이 안개낀 溪谷을 흔들면서 작열하기 시작하였다.

중대장 李琴永중위는 이 집중탄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전진을 감행하여 敵陣前의 지근거리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긴급조처임을 즉각 판단하고 敵 迫擊砲陣地에 대한 지원포격을 요청하는 동시에 각 소대의 계속전진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彈幕속의 急傾斜를 과감하게 극복하고 09.00 현재 제3중대가 수류탄을 집중하고 있는 敵陣前의 右側으로 합세하여 돌입직전의 近接戰에 들어갔다.

다) 제2, 제3 兩중대는 육박에 이은 계속 돌입을 수삼차 거듭한 끝에 11.30 현재 드디어 敵陣 外廓據點의 左端一角을 돌파하고 主攻接近路上에 유리한 공격거점을 일단 확보하였으나 主峰과 右側峰(△1,040)의 瞰制下에 노출당하여 直射 및 側射의 집중 火網이 가열해짐에 따라 60m에 걸친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은 제2대대의 助攻진출로 右側峰의 側射가 제압되는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여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철수지점에서 급편방어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2.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연대의 助攻임무를 부여받자 溪谷 너머로 主峰이 바라보이는 △900의 7部능선에 대대 OP를 추진시키고 左제1선에 제5중대를, 배속받은 연대 수색중대를 支援梯隊로 내세워 07.00를 기하여 右側峰(△1,040)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白石山의 東南쪽으로 △1,024—△901를 잇는 이 助攻방향의 능선은 제1대대의 主攻방향인 西南쪽 능선에 비하면 비교적 완만한 편이면서도 △1,040의 瞰制下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개시와 동시에 집중포화를 받게 되었다.

가) 右제1선인 제5중대(장, 朴斗瓚중위)는 直射화기를 피하면서 능선 南斜面의 死角을 이용하여 200m 전진 이동하여 공격 開始線을 통과한 연후에 △1,040의 右側으로 우회해 나갔다.

중대장 朴斗瓚중위는 중대의 助攻임무가 分秒를 다투는 重大임무이므로 여하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최단시간내에 △1,040를 점령하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으니 이 당시 △1,040에 있는 敵의 火器陣地는 主攻梯隊인 제1대대의 白石山主峰공격을 側射로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대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李技南중위)는 제5중대의 右側에 진출하여 △1,005(△1,040의 東北쪽)의 西南斜面으로부터 側射위협을 가하는 敵陣에 대하여 掩護射擊을 집중시켰다.

나) 助攻인 左제1선의 제6중대(장, 尹根世중위)는 이 掩護射擊下에 제5중대의 右側迂回에 호응하는 直突전진을 감행하여 敵陣 外廓據點의 一角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은 제5, 제6 兩중대의 결사적인 短兵急進은 제2, 제3 兩중대의 主攻에 대한 敵

軍의 側射위협을 크게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화기 據點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敵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였다.

다) 敵은 四周地勢와 방어地域의 유리한 조건에 부합되는 斜射와 側射火網으로 我軍대대의 돌격을 끝까지 저지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信憑할수 있는 提報에 이르기를 敵의 掩體壕는 위두께가 2~3m(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盛土)이며 壕의 너비가 또한 2~3m에 길이가 2.5m로써 2~3명 내지 5명씩의 兵力을 배치하여 독립된 據點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攻擊梯隊의 점령목표인 主陣地를 지근거리에 두면서 육박기세가 일단 停滯되자 제10연대장 鄭 剛 대령은 돌격에 따르는 병력의 손실을 防止코자 11.30 현재 各대대가 점령확보한 공격거점에서 四周방어를 굳건케 하는 즉시로 白石山 背斜面일대에 대한 지원포격을 요청하였다. 그와 아울러 각 대대에 100명씩 배속시킨 民間勞務者를 급거 동원하여 탄약 및 식량을 추진보급케 함으로써 최종적인 돌입감행을 준비하였다.

3. 제10연대의 공격기간중 사단의 중간에 배치된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와 사단 左翼에 배치된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사단작전지시(제45호)에 의하여 9월 28일 제7사단과 교체완료한 白石山 西南쪽 능선上의 現陣地(△1,142—△883—△917—△659)를 보강하는 한편 主陣地 前面일대에 대한 수색정찰을 계속하였다.

10월 1일: 06.00 (日出은 06.29)를 기하여 拂曉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제10연대장은 突擊지원 砲擊을 요청하는 한편 공격 제1일의 경험에 비추어 空軍의 近接支援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1.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은 공격제1일의 격전으로 병력의 손실이 많은 제3중대의 主攻임무를 제1중대에 부여하고 左제1선으로 진출케 하였다.

가) 제1중대(장, 安泰燁중위)는 제3중대의 現進出線을 超越하여 안개낀 斜面을 따라 寸步로 肉迫해 나갔으며 右제1선의 제2중대(장, 李琴永중위)도 동시에 發進하여 과감하게 육박을 거듭한 결과 兩중대는 07.00 현재로 白石山主峰의 敵軍 主陣地 50m 전방까지 접근하여 수류탄으로 紛戰을 惹起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敵은 최후 발악적인 저항으로 반격하였으며 寸地爭奪에 血雨가 霏霏한 死鬪를 3시간에 걸쳐 계속하였다. 안개가 차차 걷히기 시작하자 待望하던 空軍의 근접지원이 猛威를 떨치게 됨에 따라 兩중대는 突擊隊形을 가다듬어 최종적인 돌입에 대비하게 되었다.

나) 이보다 앞서 제1중대장 安泰燁중위는 제2소대(장, 李玄鐸소위)를 先攻으로 내세워 제1, 제3 兩소대의 엄호아래 육탄突入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突擊組를 자원한 제2소대 제1분대장 朴基成하사는 黃色의 對空布板을 등에 업고 沈着敢膽하게 彈雨의 간극을 뚫으며 소대의 최선두에서 분대를 지휘하였다. 분대원들도 하나같이 捨身不屈의 鬪魂을 불태우면서 분대장을 뒤따랐다.

10.35에 이르자 때마침 白石山主峰의 主陣地와 背斜面을 네이팜彈 및 機銃掃射로 강타하는 空軍의 近接支援이 시작됨과 아울러 兩중대의 鬪魂은 더욱 衝天하여 함성도 드높게 일제히 突入하였다. 白兵戰에 이은 急射擊으로 殘敵을 추격하면서 전과를 일거에 확대한 兩중대는 10.50에 白石山 主峰陣地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2.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右側峰을 공격중인 右一線인 제2대대의 助攻梯隊는 07.00 현재 점령한 外廓陣地一角에서 완강한 敵의 저항에 직면하여 寸進尺退의 苦戰을 거듭하고 있었다.

연대장 鄭 剛 대령은 대대의 戰勢가 不振함에 따라 主攻인 제1대대가 점령한 白石山主峰에 대한 敵의 反擊이 必然 있을 것이라고 判斷한 결과 右側峰에 대한 지원포격의 집중과 空軍의 근접지원을 긴급 요청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에게 신속과감한 공격전진을 엄명하였다.

가) 제5중대는 공격 제1일에 이어 여전히 東北쪽의 △1,005로부터 집중되는 자동화기의 側射로 인하여 전진을 저지당하고 있었다.

△1,005의 敵은 北傀 제2연대 예하의 1개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며 我 助攻梯隊로서는 이 側方위협을 배제하지 않는 한 막심한 병력손실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5중대의 右側으로 진출하여 엄호사격에 임하고 있는 연대수색중대에 대대예비인 제7중대를 증원시켜 2개 중대의 全화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나) 제5중대의 右側迂回진출에 호응하여 右側峰의 南正面으로 直突中인 제6중대는 공격 제1일에 점령하였던 外廓陣地의 一角에서 不利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안개가 걷히기 전에 더욱 돌격거리를 단축코자 수차례 약진을 거듭하였으나 急斜面의 地利를 先占한 敵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였다.

다) 제2대대의 助攻을 일단 저지하게 된 敵은 豫想한대로 白石山主峰에 대한 逆襲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니 主峰陣地에서 潰走한 병력과 右側峰 예비兵力의 일부로 逆襲部隊를 급편하여 이미 점령당한 主陣地를 목표로 출격한 것이다.

제1대대의 제1, 제2 兩중대는 급편 방어전지를 확보코자하였으나 대대장 車萬石소령은 兩중대의 병력손실을 감안하여 60m 후방으로의 철수를 명령하는 한편 대대예비인 제3중대 主力을 이 逆襲部隊의 右側方을 向하여 투입하였다.

白石山主峰을 目睫에 놓고 寸尺의 땅을 피로 씻는 처절한 육박전이 수삼차 거듭된 끝에 11.30 현재 右側峰에 대한 제2대대의 助攻이 급진전을 보이게 되자 逆襲部隊는 마침내 背斜面 능선上의 방어 제2선(제2대대의 主陣地)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我 제1대대는 11.55까지 白石山主峰을 완전히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敵逆襲部隊의 潰走야말로 戰勢의 向背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현재 지원砲擊의 연신과 아울러 白石山 背斜面일대에 대한 空軍의 근접지원이 苛烈化함

에 따라 敵의 완강한 저항力도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오직 최종 돌입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제5, 제6 兩중대의 突擊組는 일제히 劫火속으로 뛰어들어 갔다. 팔다리가 없는 屍體가 딩굴고 絶命前의 少年兵은 『날 살려 줘요 아저씨!』라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6중대의 정면에서 집요하게 저항하는 北傀의 掩體壕속에서의 火力集中으로 중대의 전진이 부진하게 되자 제2소대 제1분대 부분대장 孔在浩하사는 單身 육박前進하여 등에 업은 對空布板의 색갈도 선명하게 決死돌진한 끝에 輕機關銃陣地를 폭파하는 즉시로 주변일대의 散兵壕에 急射擊을 가하면서 突擊組의 전진을 엄호하였다. 이에 鼓舞된 全突擊組는 일제히 돌입하여 14.20까지 白石山右側峰을 완전 점령하였다.

제1, 제2 兩대대는 즉각 긴밀한 연결을 짓고 전과를 확대하면서 15.00 현재 白石山主峰 및 右側峰을 거점으로 하는 四周방어에 들어 갔으니 右側으로 부터 제5, 제3, 제1의 3개 중대가 外廓陣地에, 그리고 제2, 제6 兩중대가 內廓陣地에 각각 배치되어 다음 一戰에 대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10연대의 공격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1,050(白石山 背斜面稜線上으로 2Km)방면으로 퇴각한 北傀 제12사단 제1연대는 10월 1일 21.15에 1개 소대의 규모로, 10월 2일 02.00에 2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逆襲하였으나 我軍은 이미 확보한 白石山主陣地에서 寸步도 물러나지 않고 이를 모조리 격퇴하였다.

연대장 鄭 剛 대령은 이 두차례에 걸친 逆襲으로 미루어보아 旣占陣地의 推進확보를 결심하고 10월 2일 拂曉와 동시에 제5중대를 右側峰의 東北 쪽에, 그리고 제6중대를 △1,024 北쪽에, 각각 斜面에 따라 추진시켰다.

이로써 사단은 北傀軍 제1연대 및 제2연대 일부병력의 逆襲을 격파하는 동시에 魚隱山(文登里의 西北쪽 △1,277)까지의 高地群을 목표로 하는 次期 공격作戰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9월 하순 현재 中部戰線과 東部戰線의 진출에 비해 부진했던 中東部戰線을 4Km 北上시켰을 뿐만 아니라 北傀의 前進要地를 점령하는 作戰上의 利點을 안고 右인접 美 제2사단의 진출을 측방으로 엄호하면서 文登里 西쪽의 高地群奪還을 가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戰鬪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110명	戰死	2/48명
負傷	85명	負傷	7/236명
歸順	4명		
捕虜	1/23명		
鹵獲	HMG 1정		
	LMG 5정		
	多發銃 17정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 제21연대 통신대장 裵綉基 중위

(1973. 8. 24, 제3군사령부에서, 대령)

제21연대는 공지협동작전으로 白石山西側高地를 비교적 용이하게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의 美顧問官(黑人)이 空軍의 근접지원을 직접 요청하여 연대의 공격임무를 용이하게 해 준 그 활약이 기억에 뚜렷하다.

◇ 제8사단 제16연대장 李存一 대령

(1974. 5. 6, 코리아·데이팡 관광주식회사 상임간사실에서, 예 소장)

제10연대가 白石山主峰을 主攻하는 동안 제16연대는 그 西쪽의 △977를 점령하고 그 전방 高地인 △938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깊은 溪谷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격 제1일에는 高地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다음 날 機動計劃을 변경하여 정면의 敵軍을 견제하는 한편 主攻梯隊인 제3대대를 측방으로 우회시켰다. 사단포병의 TOT사격과 연대의 全지원화력을 집중시켜 主攻梯隊를 엄호하였으며 美空軍의 근접지원 編隊가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를 맹렬히 가하는 동안 步兵突擊組는 무난히 敵軍主陣地를 점령하였다. 연대는 목표점령후 主攻梯隊로 하여금 급편방어를 굳히는 동시에 일부병력으로 계속 수색정찰에 임하게 하였다.

◇ 제8사단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

(1974. 5. 6 在鄕軍人會에서, 예 중장)

제21연대는 제7사단 제5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北漢江上流의 東쪽 江邊으로 뻗어내린 능선上에 배치해 있었다.

제10연대가 白石山主峯에 대하여 主攻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중 연대는 그 左翼正面을 공격하였다. 때마침 北傀軍의 捕虜를 잡아 심문했던바 연대정면의 敵軍은 中共軍과 교대중이라는 첩보(1개 대대)를 파악하게 되어 그 교대 간극의 虛點을 일거에 찌르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제2대대(장, 金同會소령)를 主攻梯隊로 하여 右一線에,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을 助攻梯隊로 하고 左一線에 제3대대(장, 崔孝三소령)를 연대 예비로 후속시켰다. 助攻 제1대대는 敵陣의 側後方을 奇襲하기 위하여 北漢江上流를 일단 渡河한 다음에 左인접 제6사단 지역을 거쳐 작전을 전개하였다.

사단포병의 지원사격과 美空軍의 근접지원을 얻어 공격목표를 무난히 점령하고 하루에 6Km여 진출하면서 제10연대의 白石山점령을 左翼面에서 지원했던 것이다.

§ 戰 訓

◇ 대대 OP의 추진설치

제10연대의 白石山攻擊은 北傀의 前進陣地 전방 100m~200m이내의 지근거리에서 계속 공격의 임무를 인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공격개시의 시초부터 문자 그대로 피를 뿌리는 육박戰으로 시종일관하였다.

버랑에 가까운 急斜面을 한발한발 기어 올라가는 동안 공격梯隊는 우선 험준한 自然地勢를 극복해야만 했으니 제1, 제2 兩대대장은 그 고난속에서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여 대대 OP를 공격 梯隊와 接觸하는 지점까지 추진하여 항시 공격상황을 파악 지휘하였다.

이 戰鬪는 공격시초부터 처절한 短兵戰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梯隊間의 긴밀한 협조하에 단시간내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主因은 이 대대 OP의 추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火焰放射器의 心要性

本戰鬪 期間을 통하여 험준한 地形을 교묘히 이용한 北傀掩體壕를 砲火로서 파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육탄으로 접근하여 수류탄으로 파괴하여야만 되었으니 我軍의 손실이 不少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으며 공격梯隊는 한결같이 火焰放射器의 보급을 갈망하고 있었다.

때문에 험난한 高地戰에서는 최소한 1개 소대에 1개씩의 火焰放射器가 장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切感되었다는 것이다.

◇ 我軍屍體의 조속한 後送조치

제10연대의 장병은 공격임무를 인수하여 공격開始線까지 이동하는 동안 進路上에 방치되어 있는 我軍屍體(제7사단)를 많이 目睹하였는 바 이는 특히 士兵들의 士氣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지휘관은 이 점을 감안하여 戰死者의 屍體를 즉각 後送하거나 현장에 매장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 것이다.

6. 登大里 附近 戰鬪

제 1 차전(1951년 8월 30일부터 1951년 9월 1일까지)

제 2 차전(1951년 9월 21일부터 1951년 9월 28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9, 1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1 차전>

我 軍

제 6 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 2 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 1 대대 장 소령 洪 載 翊
제 3 대대 장 소령 金 斗 逸
지원부대
포병제27대대장 소령 朴 晶 浩
인접부대
右인접
제7사단의 제5연대장 중령 蔡 命 新

左인접
美제7사단의 제17연대 장
대령 Herbert B. Powell
병 력 : 장교 49명
사병 1,194명
주요장비 : 81mm 박격포 6문
60mm 박격포 15문
2.36″ Rocket포 10문
機關銃 25정 其他

敵 軍

中共
제27군 장 彭 德 淸
제81사단 장 林 風 淸

제242연대 장 명 야
병력 및 장비 : 1個연대 兵力에 團隊號 未詳의 砲兵부대가 支援

<제 2 차전>

我 軍

제 2 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 1 대대 장 소령 洪 載 翊
제 2 대대 장 대위 宋 奇 德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 1 대대 장 소령 林 完 楨
제 2 대대 장 소령 韓 銘 甲

제 3 대대 장 대위 金 明 益
지원부대
포병제27대대장 소령 朴 晶 浩
사단공병대대장 중령 朴 正 采
인접부대
右인접

제7사단의 제5연대장 대령 蔡 命 新 (9.18. 附로 進級) 左인접 美제7사단의 제17연대 장	대령 Herbert B. Powell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編制上의 90%線을 維持함.

敵 軍

中共 제67군 장 馬 襲 제199사단 장 齊 武 (제595, 제596, 제597연대)	병력 및 장비 : 2개연대 규모의 兵力에 團隊號未詳의 砲兵부대가 지원함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6월 初에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은 Kansas線(當面에는 華川—新浦里—華岳山을 連하는線)에서 다시 中部戰線으로 진출하여 廣州山脈을 掌中에 넣고, 同月 中旬에는 白岩山—赤根山—金化를 連하여 설정된 이른바 Ermin線에 到達하였다.

當時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군단의 右翼을 맡아, 6월 6일에 九萬里 發電所 부근에서 躍進하여 華川 東北쪽으로 進出 하는동안 △642—△887—△922—鷲峰 등지에서 中共 제20군(장, 장쩌쌍) 隷下의 제60사단(장, 서 밤)을 逐次로 격파한 연후에 同月 10일에는 군단의 最先峰으로 Ermin線을 占領하였다.

이에 이르자 사단은 제7, 제19兩연대를 九巨里—△782—△1057를 連하는 橫軸陣地上에 配置하는 한편 宋大厚대령이 指揮하는 제2연대를 白岩山 南麓의 寺洞으로 前進시켜 그 일대의 敵情을 探索케 하는 가운데 次期作戰에 대비하였으니 이 부근은 대체로 華川과 金城間의 中間 산악지대였다.

그런데 이때에 UN軍 當局에서는 전투능력의 優劣에 관계없이 현전선에서 終戰으로 대들지어 보려는 協商氣運이 胎動 하였으니, 그 政治的 背景이나 彼我의 戰略方針은 이미 槪說과 第45章 제6節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어쨌든 군단은 이에 따라 현재의 進出線에서 攻勢를 守勢로 轉換하여 예하의 4個사단(제2, 제6, 美제7, 美제24사단)으로 하여금 Ermin線上에 진지를 구축케 하는 동시에 병력과 화력을 防守태세로 조정하고 可用병력을 제한하여 威力搜索만을 許容하였으며 또한 Kansas線上의 진지공사까지 併施하는 等 受動姿勢로 一貫하였다.

이에 反하여 當面의 敵 中共 제20군은 Ermin線上에서 甚한 타격을 받은 결과 一時 金城부근으로 물러섰다가 平康에서 到着한 增援부대와 함께 다시 陣前에서 地域방어를 試圖 하는 듯 하더니, 7월 10일에 休戰 本會談이 시작되자 15일을 前後하여 新高山으로 移動하고(後에 海岸을 警備한 것으로 판명됨) 이번에는 中共 제27군이 金城地域을 인수하여 군단의 正面에 나타나 새로운 양상으로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이 中共 제27군(장, 彭德淸)은 侵略 初期에 長津湖 부근에서 美제1海兵사단과 對戰한 바 있고 또한 51年度 第2次 春季攻防戰 당시에는 楊口에서 中·東部戰線으로 侵攻하여 韓國의 氣候風土와 山岳戰에 경험을 쌓은 부대로서 淮陽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金城地區에 投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金城에 도착하자 곧 그 예하의 제81사단(장, 林風浦)을 白岩山 北쪽으로, 제80사단(장, 吳蘭亭)은 金化와 金城間의 赤根山 後麓으로 각각 전개하는 동시에 제79사단은 金城 北쪽에 예비로 配置시키면서 진지를 강화하고 보급품을 集積하는 等 전투준비에 狂奔하였다.

이리하여 當사단과 새로이 對陣케 된 中共 제81사단은 주진지를 金城川 沿岸에 형성하고 연대규모의 경계부대를 白岩山 北쪽의 登大里 부근으로 推進시켜 사단의 前進陣地와 가까이에 接하게 되었는데 특히 △819와 △462에는 各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堅固한 有蓋陣地와 장애물을 마련하여 固守態勢를 취할 뿐만아니라 不時로 사단의 陣前에서 衝擊을 态行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 敵의 據點을 분쇄키 위한 計劃을 마련하여 몇차례 군단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政戰兩略의 配慮때문에 留保되다가 7월 30일에 美제8군에서 『Ermin線을 主抵抗線으로하여 방어 縱深을 깊게 할 것과, 損失이 甚할 경우에 반격을 위하여 Kansas線으로 撤收할 뿐』이라는 方針이 하달됨으로써 군단은 8월 初旬에야 主陣地 前方의 據點에서 저항하는 敵勢를 驅逐키로 결정하고 사단의 건의를 承認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8월 13일에 제2연대의 제1대대(장, 洪萬湖소령)를 △462로 진출시켜 敵情의 探索과 地形을 偵察케 하였으며 21일에는 同연대의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로 하여금 △819를 威力搜索케 한 다음 綿密한 計劃을 樹立하여 8월 31일 前記 兩대대로써 進擊戰을 開行키로 하였다.

그런데 작전기간중 日氣는 淸明하여 朝夕으로 濃霧가 이를 뿐으로 지장이 없었으나 攻擊軸線은 人跡이 드문 山岳地帶 인데다 綿綿히 이어지는 능선上에 陣地가 堅固하여 많은 제한을 받았다.

當時에 제2연대의 제3대대는 사단 주저항선 후방의 在安山 부근에서 北漢江 西岸을 경비하고 있었으며 또한 主陣地는 그대로 유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個대대의 병력과 장비, 즉 장교 49명에 사병 1,194명과 編制上의 裝備로서 出動하였으며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가 이를 직접 지원하였다.

사단의 右翼에는 北漢江을 건너 제7사단의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가 白石山 西北稜線에 進出하고 있었으며, 左翼에는 美제7사단의 제17연대(장, Herbert B. Powell 대령)가 白岩山 西斜面에서 威力搜索中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登大里 進擊戰(8. 30~9. 1)

(가) 작전계획

8월 29일 13.00에 堂巨里에 있는 제2연대의 前方指揮所에서 사단 작전명령 제167호(1951. 8. 28 17. 00)가 하달되었는데 그 槪要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局部的으로 반격을 企圖하는 敵을 격파하기 위하여 登大里 부근의 主要據點을 탈취하려 한다.

② 제2연대(—)는 2個대대로써 목표 "A"(△462)—"B"(無名高地 : CT812421)—"C"(△819)를 奪取하라.

1個대대로써 北漢江 西岸을 경비케 하라.

③ 제7연대는 계속 현임무를 수행하라.

④ 제19연대는 현재의 임무를 계속 遂行하면서 일부 병력으로 右翼인 美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威力搜索케 하여 제2연대를 掩護하라.

⑤ 포병 제27대대는 제2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工兵대대는 1個중대를 제2연대에 配屬하라.

⑦ D일 H시는 8월 31일 06.00이다.』

이와같은 要旨의 命令으로 미루어 보면 사단은 군단의 方針에 따라 제7, 제19 兩연대로써 堂巨里와 △1,057間의 주저항선을 그대로 堅守維持할 뿐만 아니라 제2연대의 1個대대로써 군단의 右翼을 경비하는 임무까지 併行하는 가운데 제한된 작전을 計劃하고, 登大里부근의 敵의 據點을 粉碎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이와같은 命令을 받은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은 當面의 작전지도방안을 樹立하였는데, 本是 이 地域은 山岳이 嶮하여 機動에 많은 제한을 받을뿐만 아니라 보급充當도 인력이나 騾馬로써 推進하는 실정이었으며 더우기 限定된 병력으로 廣正面의 主要據點을 공격케 된 점 등을 勘案하여 優先 主力을 前方 깊숙히 潛伏待機 시켰다가 强襲으로 이를 奪取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31일 06.00에 공격을 開始하여 목표 A. B. C. 를 奪取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30일 15.00에 △780로 前進하여 待機하였다가 命에 의하여 목표 A와 B를 奪取하라.

③ 제3대대는 30일 15.00에 △791로 前進待機 하였다가 목표 C를 奪取하라.

④ 제2대대는 在安山에서 北漢江 西岸을 警備하라.

⑤ 醫務中隊는 長財洞에 前方救護所를 설치하라.

⑥ 通信隊長은 一線대대 OP까지 有線을 架設하고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延伸하라.

⑦ 제1, 제3 兩대대는 機動間 企圖秘匿을 철저히 하고 목표를 奪取하면 곧 陣地를 構築하라.』

(나) 작전실시

8월 30일 : 出動準備를 마친 연대(제2대대欠)는 이날 15.00에 제1, 제3 兩대대를 예정된 공격 待機地域으로 進出시켰는데, 제1대대는 △819를 東側으로 迂回하여 △780(△819 東北쪽 3Km)로, 그리고 제3대대는 △791(△819 南쪽 3Km)로 각각 진출하여 공격態勢를 갖추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대에서 入手한 捜索隊의 偵察報告에 의하면 當面에는 中共 제81사단 예하의 제242연대로 알려진 연대규모의 병력이 金城川 沿岸의 주요高地에서 連日 진지작업을 계속중이며 特히 △819에는 增强된 대대규모의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그 밖에도 △462와 그에 連하는 일대의 능선에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陣地를 補强中이라는 事實로 보아 그들은 여기를 固守할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각 대대장으로 하여금 機動間 企圖秘匿을 철저히 하면서 敵情을 把握토록 하였던 바, 兩大隊 모두 無難히 예정선으로 진출하여 進攻態勢를 갖추었다.

1. 제1대대(장, 洪哉翊소령)는 지금까지 연대의 搜索據點이던 寺洞(白岩山 東쪽 2Km)에서 이날 15.00에 출동하여 제2중대를 尖兵중대로하고 제1, 제3중대가 後續하는 戰術 機動隊形으로 北上하였는데, 行軍隊伍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으로 溪谷과 樹林을 이용한 끝에 16.40에 廣洞(白岩山 東北쪽 4Km)을 통과하여 17.30에는 △780에 다다랐다.

그런데 이 高地는 그 西北쪽 1Km의 △741와 함께 當初 연대에서 설정한 공격 待機地域으로서 敵의 據點인 △819보다 東北쪽으로 3Km나 더 突出한 까닭으로, 비록 이날 行軍間에 接敵이 없었다고는 하나 四面이 敵陣에 接하기 때문에 대대장은 각 중대를 半圓의 形으로 전개하여 경계를 嚴히 한 가운데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즉, △741에 대대 觀測所를 開設하여 제1중대로 하여금 이를 警備케 하는 한편 제2중대(—)를 그 北쪽 능선에 전개하고 제3중대는 西斜面과 南麓에서 陣地를 占領케 하였으며, 또한 重火器중대는 登大里 溪谷에서 陣地를 選定하되 제2중대의 1개소대로써 外廓警備에 任하게 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는 15.00에 栗木洞(白岩山 東南쪽 3Km)을 출발하여 △819의 正面으로 直行하였는데, 출동에 앞서 제11중대를 14.40에 白岩山의 東斜面으로 先行시켜 機動路 확보와 主力의 進出을 掩護케 한다음 豫定대로 前進하여 16.50에 △791에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각 중대별로 전개하여, 제9중대는 △791의 東北능선을, 제10중대는 그에 連한 西部능선을 각각 점령하고, 제11중대는 白岩山 北麓에서 대대陣地의 左側을 掩護하는 가운데 進攻態勢를 갖추었으니, 이 一帶는 대체로△1,051와 白岩山을 連하는 地域으로서 敵의 據點인 △819로부터 3Km 南쪽이었다.

3. 이상과 같이 一線 兩대대가 機動하는 동안 砲兵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도 陣地를 祐長洞(華川 東北쪽 10Km)으로 移設하고 지원태세를 갖추었으며,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사단 주저항선 側후방의 在安山(△1,074)부근에서 側方警備에 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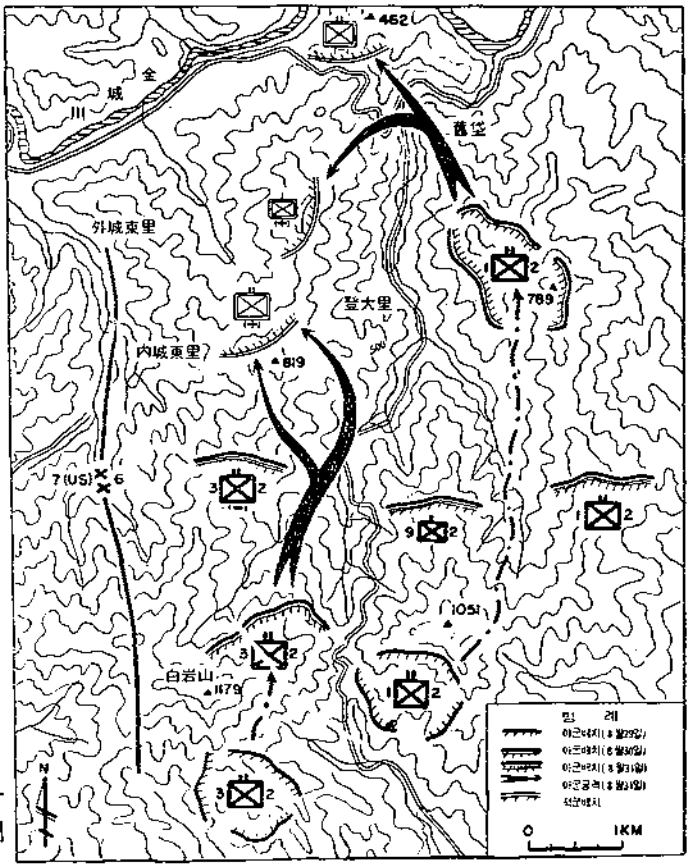
한편 사단의 주저항선은 白岩山 南쪽 4Km의 線을 여전히 堅守하여,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가 堂巨里(華川 東北쪽 16Km) 以東의 北漢江 沿岸을,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鷲峰 北쪽을 각각 담당하여 陣地를 강화하면서 當面의 敵情을 탐색중이었다.

이날 現在 연대 지휘소는 堂巨里에 위치하였으며 제1, 제3대대의 보급소는 水上里(堂巨里 北쪽 2Km)에 있었다.

8월 31일 : 드디어 이날 拂曉에 공격을 시작한 연대(—)는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하여 △462와 그 左側의 無名高地를 목표로, 제3대대는 左一線으로서 △819를 목표로 各各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彼我가 對峙한채로 80여일을 지나는 사이에 陣地가 너무 굳어지고 要所마다 彈幕이 구성되어 공격 初動에 激戰이 전개되었다.

◇ 상황도 제9호 登大里 진격전



1.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는 이날 03.00에 출동하였는데 右 第一線인 제2중대는 金城川 南岸의 △462로 지향하고, 左第一線인 제3중대는 △819의 東北背를 攻擊키로 하였으며, 그동안 제1중대는 예비로 남아 대대 觀測所와 중화기중대의 砲陣地를 경비하면서 출동 대기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6.00에 舊堡(登大里 北쪽의 작은마을)를 통과한 제2, 제3 兩중대는 계속 전진하다가 07.30에 선두인 제2중대가 △462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되었다.

이때에 敵은 北漢江 上流로 흐르는 溪谷을 이용하여 堅固한 有蓋陣地를 構築하고 이에 依據하여 기관총을 亂射할 뿐만 아니라 前例없이 砲擊을 집중하면서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나 중대는 突擊隊를 先鋒으로 하여 수류탄을 集中시키면서 2시간동안의 격전을 편 끝에 이를 격파하고 10.50에는 同 高地의 中腹까지 진출하였다.

이무렵 제3중대는 08.40에 제2중대의 공격線을 超越하여 △819를 멀리서 包圍한 다음 敵의 散兵을 물리치면서 西南쪽으로 進攻중, 外城洞里(白岩山 北쪽 5Km의 마을) 東쪽 1Km의 無名高地에서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과 대결케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砲擊지원을 요청하고 一時에 正面突擊을 감행하였으나 敵 陣地가 너무 견고한데다 地形마저 불리한 까닭으로 이를 突破하지 못하였는데, 교통호로 연결된 敵陣에서는 계속 병력을 增强하면서 완강히 저항하기 때문에 진전없는 激戰만이 반복되었다.

이때에 제1중대도 △462의 中腹에서 膠着된채로 突擊線을 넘지 못하고, 無慮 5시간 등안이나 돌격과 强襲을 거듭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5.00에 이르러서는 敵의 砲火력이 증강되더니 오히려 逆攻勢를 取함으로써 더욱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제1대대는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780로 철수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대장은 18.00에 一線 兩중대로 하여금 接敵遮制하면서 逐次로 轉進토록 명령 하였는데 그 동안 제1중대는 이를 엄호키 위하여 水串地 부근의 기동로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제2중대는 20.40에 △780의 前斜面 진지를 점령하고 뒤를 이어 제3중대도 22.00에 集結함으로써 대대는 主力으로 四周陣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날 戰鬪에서 대대는 敵 25명을 射殺하고, 1명의 戰死者와 13명의 負傷者를 보았다.

2.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는 이날 03.00에 宿營地를 떠나 △819의 正面으로 直進하였는데 06.00에는 長財洞(△819 東南쪽 1.5Km)에서 제10중대를 主攻으로하여 同 高地의 正面으로 直衝하는 한편 제9중대를 右側으로, 제11중대를 左側으로 각각 迂回토록 하여 협공케 하였던 바 06.40까지 進攻態勢를 갖춘 각 중대는 三面에서 포위망을 壓縮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09.50 현재 제9, 제10 兩중대는 敵의 火網을 뚫고 과감히 진출하여 그 東部능선을 점령하였으며 그 중에도 특히 제9중대의 1개소대는 八部능선까지 육박하여 敵火를 制壓하고 10.10부터서는 제11중대가 이에 呼應하여 敵陣의 左肩部를 강타하니 이 高地의 奪取을 目睫之間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敵砲의 集中射擊이 激增하여 대대의 進出全面을 뒤흔들고 더구나 榴彈洗禮에 微動하지도 않은 有蓋陣地에서는 최후저지 사격을 계속하여 進展없는 激戰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砲兵화력의 증원을 긴급히 요청하는 동시에 戰列을 다시 가다듬어 13.00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이를 突破하지 못하였는데 이와같이 攻防熱戰을 반복하는 동안 어느덧 18.00에 이르러 東北쪽의 제1대대가 철수하게 되자 19.00부터서는 敵火力이 더욱 增强되어 戰況은 漸次로 불리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장으로부터 『長財洞 부근으로 撤收하여 防守態勢를 갖추라』는 要旨의 命令이 하달됨으로써 대대는 19.30부터 서서히 長財洞으로 隨意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21.00에는 제9중대가 長財洞 東쪽의 △662를, 제10, 제11 兩중대는 △819의 500m 南쪽鞍部인 無名능선을 각각 점령하고 그 中間에는 경계組를 배복시켜 상호 連繫케 하는 가운데 守勢를 取하였으니 이로써 彼我는 指呼之間에 對峙하게 되었다.

이날 대대의 종합전과는 敵 사살 38명이었으며, 손실은 2명이 戰死하고 22명이 負傷하였다.

3. 한편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여전히 在安山 부근에서 후방경비에 任하였으며, 사단의 주저항선도 변함없이 제7, 제19 兩연대가 陣地를 堅守한 가운데 一部의 병력으로써 사단 戰術地域의 外廓에서 威力搜索을 실시케하여 공격부대를 멀리 엄

호하였다.

이상과같이 이날 공격에서 목표를 탈취하지 못하자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제2연대장에게 22.00에 口頭로 『貴 연대는 9월 1일 12.00 以內로 △819를 점령하라』고 嚴命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一)는 다음날 공격준비에 더욱 박차를 加하였다.

9월 1일 : 연대장은 이날 06.00를 期하여 제1, 제3 兩대대로서 동시에 集中的으로 △819를 攻取키로 決心하였는바, 敵은 이보다 1시간 前에 機先을 制하여 攻勢를 취함으로써 彼我가 正面으로 激突케 되었다. 이때에 敵은 中共 제81사단(장, 林風清) 예하의 제242연대(장, 띵야)를 主軸으로하는 증강된 연대규모로서 主로 제1대대의 正面인 △780—△741(登大里溪谷과 舊堡사이)線을 지향하여 攻勢를 취하는 한편 제3대대의 正面인 △819에서는 補强된 1個대대 규모로써 固守態勢를 취하였으니, 이들은 연대의 進路를 막고 장차 前進基地까지 侵攻하려는 듯 하였다.

1.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는 공격개시시간을 앞두고 그에 따른 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인 05.15에 前方 매복조로부터 2個대대 규모의 敵이 侵襲한다는 급보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에 狀況을 보고하는 동시에 △780—△741線에서 守勢로 전환하여 邀擊태세를 갖추었는데, 어느덧 陣前으로 近迫한 敵은 05.30에 벌써 △741로 侵攻하여 제2중대와 接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高地는 연대의 最右端陣地일뿐 아니라 右隣接인 제7사단의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가 北漢江 東便에 雄據中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白石山(△1142) 南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대는 사실상 三面의 敵勢속에 孤立된 셈이며 더우기 대대규모의 병력이 집중攻勢를 취함으로써 衆寡不敵으로 07.00에는 一時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러한 渦中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격멸전을 펴고 있었는데, 이때에 돌연 제1소대의 선임하사관인 卞中士(本名未詳)를 先頭로하여 金德九하사와 禹重公하사 그리고 白寶京 하사가 △741 東南쪽 300m의 無名능선으로 一時에 돌진하면서 『捕虜잡았다』고 함성을 올리자 敵陣은 이에 唐慌하여 混亂되고 全 중대원은 士氣를 더욱 높혀 이 隣間의 機智로서 逆襲을 감행케 되었으니 중대는 여기에서 中共俘虜 14명을 사로잡고 다시 △741를 점령하였다.

이무렵 左 第一線인 제1중대는 △565(△780와 △819사이의 據點)를 점령중인 警戒小隊를 07.40에 撤收하여 중대의 全兵力으로 제2중대에 連한 左側稜線에서 邀擊態勢를 갖추었는데, 08.00에 대대규모의 敵이 水串地의 溪川을 따라 대대陣地의 左側으로 迂回侵襲함으로써 不時에 激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치열한 肉薄戰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10.10에 右側의 제2중대가 다시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侵攻을 받게되자 攻防의 苛烈相은 더욱 高調에 달하여 포격은 山野에 咆哮하고 銃砲火는 溪谷에 메아리 쳐 一大 殺殺局面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兩

중대는 陣地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인 殺戮戰으로써 敵의 梯波를 그때마다 물리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一時 물러섰던 敵은 12.30에 다시 氣勢를 올리기 시작하여 이번에는 연대규모의 兵力으로 三面에서 掩襲하였으니, 도합 2개 대대규모가 薦岳와 水串地에서 正面으로 直衝하는 한편 1個대대 규모가 멀리 東側으로 迂回하여 △780를 指向코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제2중대로 하여금 1個소대를 △741에 남겨 牽制토록 하는 한편 중대主力으로써 下中士가 勇猛을 떨친바 있던 無名능선으로 轉進하여 薦岳쪽에서의 侵敵을 阻止케 하였으며 또한 제3중대를 急進케하여 △780를 노리는 一群의 敵을 驅逐토록 嚴達하였다.

이리하여 間斷없는 熱戰이 16.00까지 전개되었는데, 本是 이 일대는 人跡이 未踏한 山野이었으나 집중포격으로 말미암아 地殼이 무너지고 水冷式 機關銃은 繼續射擊을 할 수 없을 만큼 灼熱되는 가운데 화력을 계속 發揮한 끝에 敵 300여명을 屠戮하고 5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기관총 4정과 各種小銃 21정 및 수류탄 500餘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세우고 마침내 이 敵을 擊退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戰況을 悠然히 觀望하던 연대장은 日暮가 將至한데 敵勢가 오히려 尤甚하고 대대의 現陣地가 敵中깊이 突出하여 제3대대와의 互相 連繫가 힘들 것을 勘案한 결과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16.30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는 接敵으로써 牽制하면서 廣洞부근으로 撤收하여 제3대대와 連한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此後명령을 待機하라』

이에따라 대대장은 제3중대로 하여금 △780에서 主力의 철수를 엄호케 한 다음 각 중대별로 서서히 轉進시켰는데, 목적지까지는 東南쪽으로 3Km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19.30에는 제1, 제2중대가 벌써 △833(廣洞 뒷산)에 陣地를 점령하고 그 뒤를 이어 제3중대도 20.30에 廣洞을 通過한 다음 22.00에는 △1051의 前斜面에서 兩 대대간의 補給을 위한 陣地를 확보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는 예정대로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819를 목표로 進攻하였는데, 제11중대를 右第一線으로 하고 제10중대를 左第一線으로 하는 한편 제9중대를 예비로 控置하면서 07.20에는 同高地의 南麓까지 近迫한 다음 돌진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 무렵 연대의 右一線인 제1대대가 연대규모의 敵과 對峙하여 벌써 激戰을 전개하고 있는 터이라 兩대대진지의 中間에서 據點을 점령중이던 警戒소대가 本隊와 합세하게 되자 대대장은 07.40에 제9중대의 2個소대를 △565로 推進시켜 이 敵을 牽制케 한 연후에 △819로 돌진하였다.

이리하여 09.10에는 그 八部능선까지 육박한 다음 10.00에 제10, 제11 兩중대가 正面突擊을 감행하였는데 敵陣에서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써 執拗한 저항을 계속하고 熾烈한 火力을 集中하였으며 더우기 下午에 이르러서는 그 步砲의 威力이 증강되더니 16.00에 새로

이 대대규모의 병력이 水串地로부터 △819로 投入됨으로써 끝내 이 敵陣을 攻略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敵勢는 一路强化 되어 이날의 목표탈취가 어렵게 되자 대대는 연대의 계획에 따라 17.00에 공격을 중지하고 전날의 진지로 反轉하여 제10, 제11 兩중대는 長財洞 西쪽의 無名능선에서 四周陣地를 점령하였으며 제9중대는 △662(長財洞 東南쪽 500m)에 主力을 配置하는 동시에 1個소대를 △565로 進出시킨 가운데 20.00까지 모든 陣地確保策을 완료하고 待機하였다.

3. 한편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와 사단의 주저항선에서는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捜索隊의 활동도 또한 前日과 같았다.

이날밤 사단사령부의 作戰會議에서는 當面의 戰況을 분석하였는데,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攻勢로 移轉한 敵의 實力이나 堅固한 진지에서 저항하는 敵의 상황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당장 이를 破摧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 一旦 공격을 留保하는 동시에 제2연대(一)로 하여금 현재의 進出據點을 굳게 지키면서 探索만을 重視 전개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연대(一)는 9월 2일부터 現占 陣地를 보강하는 한편 위력수색을 强化하였는데 敵도 또한 守勢를 취함으로써 戰線은 다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期間中 연대(一)의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手榴彈	500발
射殺	363명	各種實彈	2,000발
捕虜	15명	損失	
鹵獲		戰死	6명
機關銃	4정	負傷	58명
各種小銃	21정		

(2) △819 攻防戰(9.21~28)

(가) 작전계획

中共 제81사단(장, 林風清)은 登大里 附近에서의 攻防戰이 끝나자 9월 2일부터 守勢一邊倒로 威力偵察에만 置重하는 듯 하였다. 즉, 3일에는 △1,051의 東斜面에서 그리고 5일에는 長財洞 부근에서 각각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挑發한 바 있었으나 6일 이후부터서는 消極姿勢로 轉下하여 我의 수색대가 散發的으로 接戰하였을 뿐으로 戰線은 다시 無風지대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다가 10일을 前後하여 그들은 部隊의 교대를 실시한 듯 하였는데, 當時 金城地區에서

버티던 中共 제27군(장, 彭德淸)은 사단의 正面에서 큰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단의 中央左翼인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으로부터 △734에서 致命的인 痛擊을 받아 전투력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 區域을 馬襲이 지휘하는 中共 제67군에 引繼하는 동시에 新高山(元山 南쪽)으로 後退한 다음 部隊를 再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反하여 새로이 군단 正面을 맡게 된 제67군은 中國 本土의 山西와 河北 兩省 등에서 國府軍과 對決한 歷戰의 무리들로 構成되고 51년 6월 末에 鴨綠江을 건너 新義州—定州—順川—成川을 거친 다음 7월 10일부터 陽德에서 20일간의 山岳訓鍊을 마치고 待機하던 바 中部의 要域인 金城盆地를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投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比較的 그 병력과 裝備가 良好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참조 : 入韓 中共軍 部隊經歷 및 제6사단 戰鬪詳報)

이들은 金城地區를 떠맡게되자 제199사단(장, 齊 武)을 白岩山 北쪽으로, 제200사단(장 李 靜)을 赤根山 北麓으로 각각 전개하는 한편 제201사단을 金城 北쪽에 예비로 控置하면서 자못 기세롭게 對應態勢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다시 中共제199사단과 雌雄을 決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金城川 沿邊에 있는 △462—汝乃谷—△565 線上에 主力을 配置하는 동시에 연대규모의 경계부대를 舊堡와 △819를 連하는 線으로 進出시켜 高地마다 搜索據點을 마련하고 사단 正面에서 그 出沒을 보게 되었다. 그 중에도 특히 △819는 사단의 前進據點에서 不過 1.5Km인 要衝의 地로서 敵은 여기에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과 화력을 중점적으로 配置하여 固守를 策하는 한편 不意의 先制衝擊을 노리는 듯 하였다.

한편 사단은 登大里附近의 一戰이 끝난 뒤로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로 하여금 現 進出線인 廣洞과 長財洞 일대의 前進陣地를 堅守 강화케 하는 동시에 堂巨里와 △1,057를 連하여 점령중인 主陣地에는 제19, 제7 兩연대를 配備하는 가운데, 다음 作戰의 好機到來를 摸索中이었는데 이 당시 군단의 方針은 여전히 主陣地를 2個연대 병력으로 確保케해서 威力搜索에 置重토록 하는 한편 北漢江 西岸은 대대병력으로써 右翼인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의 進出이 遲延됨으로 말미암아 露出케 된 군단의 右翼을 掩護토록 하였으니, 사단이 臨機로 可用할 兵力은 2個대대만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在安山 부근에서 北漢江 西岸을 경비하던 제2연대의 제2대대(장, 宋寄德대위)를 6일 밤에 長財洞으로 진출시켜 지난 전투에서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3대대와 그 任務를 交代케한 다음 제2연대의 2개대대 병력만으로서라도 다시 登大里 부근의 敵의 據點을 공격키로 하였는데 前述한 바와같이 敵의 저항 組織의 變化를 보게되자 12일부터 搜索활동을 더욱 强化하는 한편 砲화력을 增加하여 19일까지 거의 每日 敵陣을 강타하면서 動靜을 살피다가 다시 攻擊을 再開키로 결심하고 군단장 Hoge 중장의 承認을 얻어 大要 다음과 같은 作戰指導方案을 마련하였다.

『첫째 : △819를 單一목표로 選定하여 집중공격하되 미리 충분한 砲擊으로 敵의 有蓋陣地를 破壞한 연후에 强襲키로 한다.

둘째 : 제2연대(一)로 하여금 최초에 공격을 담당토록하되 목표를 奪取하면 即時 그 임무를 交代키로 한다.

세째 : D일 H시를 21일 07.00로 豫定한다.』

이에따라 砲兵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20일 하루동안에 △819에 대하여 698발을 同時 集中的으로 砲擊하였으며,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은 제1, 제2 兩대대로써 이 目標를 奪取키 위한 方案을 마련 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一)는 21일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819를 奪取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780에서 敵의 增援을 遮斷하고 제2대대의 진출을 掩護하라.

③ 제2대대는 主力으로써 △819를 奪取하라. 必要에 따라 特攻隊를 編成하여 目標에 대한 突破를 專擔토록 하라.

④ 捜索중대는 白岩山 西斜面에서 연대의 左側方을 엄호하라.

⑤ 醫務중대는 長財洞에 前方救護所를 설치하라.

⑥ 通信隊는 대대 OP까지 有線을 架設하고 목표를 奪取하면 곧 延伸하라.

⑦ 特別指示事項

㉮ 각 중대는 공격間 分隊에 이르기까지 進路와 目標를 區分 明示토록 하라.

㉯ 목표를 奪取하면 즉시 陣地를 構築하라.』

9월 21일 : 연대(제3대대欠)는 지금까지 威力捜索만을 실시하던 消極策을 止揚하고 이날 05.45부터 목표 "C"(△819)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여 07.00에 LD를 通過키로 豫定하였다.

즉 제2대대를 主攻으로 하여 △819를 單獨으로 공격토록 하되, 제1대대를 東北쪽으로 진출시켜 敵의 增援을 遮斷케 하면서 陽攻에 臨하도록 하는 한편, 砲兵 제27대대에 依한 直接지원으로 步砲가 協同키로 하였다.

1.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이날 공격에 앞서 제7중대를 右 第一線으로 하여 △565 (△819 東北쪽 1.5Km)에서 敵陣의 東側背를 공격케 하고 제6중대는 該高地의 南部능선을 따라 正面으로 直衝케 하는 한편 제5중대를 예비로 하여 進擊 態勢를 갖춘 다음 05.45에 각각 陣地를 떠나 07.00에 LD를 통과키로 豫定하였다.

이 LD는 목표 "C"를 起點으로 하여 東쪽과 南쪽으로 각각 1Km의 능선에 沿하여 設定된 線으로서 敵의 前進陣地로 부터의 저항이 豫想되기 때문에 대대는 奇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隱密히 接近하던 바, 06.30에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에서 공격준비射擊으로 263발의 집중砲擊을 △819를 비롯한 그 一圓의 敵陣에 强打하자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一齊히 예정시간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다음 包圍網을 壓縮하였다.

즉, 제7중대는 LD를 통과하자 곧 東部능선을 따라 敵陣의 東側背를 공격하였는데, △600 능선에서 소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一蹴한 다음 계속 돌진하다가 △819 東쪽 500m의 無名능선에서 다시 2개소대 규모의 敵과 接戰케 되었다. 그런데 敵은 이곳에 있는 據點을 掌握하면서 자동화기를 비롯한 각종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집요하게 抗拒할 뿐만아니라 박격포의 砲擊까지 集中하여 중대의 진출을 막고자 함으로써 彼我間에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과감하게 육박하여 5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마침내 이 敵陣을 격파하여 名無능선을 점령하고 中共兵 3명을 사로잡았다.

여기에서 중대는 戰列을 재정비하는 즉시로 계속 △819로 突進하는데 敵은 同 高地 南쪽 200m의 △818에서 다시 중대규모가 버티었으나 左側에서 진출한 제6중대와 協同하면서 이를 격파하고 △818까지 점령하였으니, 중대는 △819의 敵과 指呼之間에서 對陣케 된 셈이었다.

한편 제6중대는 LD線上에서 소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받았으나 곧 이를 격파한 다음 南部능선을 따라 △819의 正面으로 進攻하였는데, 敵은 △818(△819의 東南쪽 200m)에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써 완강히 저항 하였으며 더우기 △819를 비롯한 그 일대의 敵陣에서는 이를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중대의 진출을 阻止하였으므로 無慮 8시간에 걸친 紛戰과 激戰을 전개하였다.

중대는 匍匐과 躍進의 互用으로 一步又一步 육박하여 산병호를 파괴하고 특히 敵의 機關銃座를 폭파키 위하여 편성된 特攻隊는 수류탄의 連投로써 敵進으로 돌진하여 銃眼을 破壞하면서 계속하여 肉薄突入 하자 敵은 이 難攻의 要地固守를 能히 勘當하지 못한 채로 混亂상태에 이르니 이 好機를 看破한 중대는 15.00에 主力으로 突進하여 마침내 △818를 완전히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여기에서 戰列을 정비하고 右側에서 挾攻하는 제7중대와 戰線을 連繫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때에 敵은 그들의 최후 據點인 △819에서 潰走병력을 再糾合하여 決戰을 試圖하기에 이르러 대대장 宋奇德 대위는 이 兩중대로 하여금 敵陣에 衝擊을 加하여 牽制토록 하는 한편 예비인 제5중대를 △818의 西南쪽으로 迂回시켜 △819의 西쪽 鞍部에서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이무렵 제5중대는 제6중대 陣地의 1Km 南쪽에서 後續하다가 이 명령을 받자 急遽 躍進하였는 바 제6, 제7 兩중대의 掩護下에 △819의 南麓까지 進出하자 곧 突衝態勢를 갖춘다음 그 西쪽 鞍部를 목표로 殺到하였다.

이와같이 중대는 好機를 놓치지 않고 敵陣으로 肉薄한 다음 19.20에 이르기까지 前後 5次에 걸친 돌격을 계속 反復하였으나, 능선이 急傾斜를 이루고 堅固한 陣地에 依據한 敵의 執拗無上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戰死傷者의 續出로 日沒과 함께 隨意撤收하여 △818의 後斜面에서 피에 물들인 銃劍을 씻고 推進補給을 받은 다음 酷風에 찬 西쪽 鞍部를 노려

보는 것이었다.

2. 이상과 같이 제2대대가 激戰을 펴고 있는 안동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는 廣洞(白岩山 東北쪽 5Km)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敵의 저항없이 △780 (△819 東北쪽 3Km)를 占領한 다음 제1중대를 다시 舊堡까지 진출시켜 金城川 沿岸의 敵陣을 공격케 하였다. 이는 제2대대가 目標 "C"를 공격하는 동안 敵의 增援手段을 遮斷하고 그 體系있는 戰術活動을 攪亂키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13.30부터 舊堡 北쪽의 △359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交戰케 되었는데 主力으로써 敵陣에 衝擊을 加하여 이를 壓制하는 한편 일부의 兵力으로 △819 北쪽 2.5Km의 능선일대까지 威力搜索을 전개하다가 20.00에 △780의 本陣으로 復歸하였다.

3.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이날 공격부대의 機動에 앞서 04.50에 敵陣에 대한 교란사격을 실시하다가 LD통과시간 30分前인 06.30부터는 263발의 집중砲擊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 하였으며, 공격 第一線이 △818에서 激戰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인 11.40에는 도합 1,033발의 砲擊으로 敵陣을 强打하였다. 이때의 사격 목표는 主로 △819와 그 일대의 敵의 銃座 및 壁壘를 파괴하는데 重點을 두었으며 그 밖에도 對砲兵사격과 敵陣 후방의 지원시설을 파괴하여 進攻대대를 직접지원 하였는데 미리 基點사격을 마치고 火網을 構成하였기 때문에 그 制壓勢力이 的中하여 步兵들의 進出을 容易케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819는 그간 屢次에 걸친 砲擊으로 말미암아 모든 地殼이 무너지고 그 原形을 完全히 바꾸어 놓았는데, 당시의 參戰者인 제2대대 제5중대 제2소대장 咸世泳소위는 回想하기를 『敵은 △819 일대에 半永久 시설을 갖추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이에 집중砲擊을 加함으로써 山이 10cm 程度는 무너져 땅에 발을 더디면 먼지가 발등을 덮었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砲擊지원의 威力과 그 實效를 能히 짐작할 수 있고 또한 敵은 이와같은 砲擊에도 불구하고 地下에 파고들어 집요하게 支撐한 사실도 能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단의 주저항선은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와 제7연대(장, 梁仲鎔대령)가 담당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堂巨里와 △1,057를 連하는 線을 유지함으로써 공격부대와는 7~9Km나 떨어진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위력수색대를 편성하여 사단 戰術地域의 左右側으로 진출시켜 공격대대를 멀리서 掩護하였는데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는 在安山(△1,074)後麓에 陣地를 두고 사단 擔當地域의 東側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날 연대지휘소는 堂巨里에 위치하고 사단지휘소는 九萬里 發電所 부근의 大利里에 있었다.

9월 22일 : 연대(一)는 전날의 공격에서 제2대대가 △818를 확보한 다음 200m 사이를 두고 敵陣을 威壓하였는데 이 敵은 △819를 中心으로 集約的인 四周陣地로써 固守健在에 汲汲하는 듯 하였다.

1.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연대장으로부터 『今日中으로 △819를 奪取하라』는 口頭命令을 받고 이날 拂曉에 제5중대로써 同 高地를 기습케 하였는데, 이는 피아가 至近距離에 있어서 機動路가 露出되고 相互의 監視가 容易하기 때문에 夜暗을 이용하여 不意에 奇襲토록 하는 瞬間에 全面에서 돌격을 감행하려는 決心인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02.40부터 제6중대를 超越하여 야간포복으로 敵陣에 近接한 다음 04.00에는 1個소대가 △819 頂上 10m까지 肉薄, 不時에 100餘발의 수류탄을 집중 投擲하여 敵의 화력據點을 制壓하는 동시에 함성을 높이면서 敵陣으로 突入하였으나 워낙 堅固한 陣地는 爆破되지 않고 오히려 敵火만이 苛烈化되고 더구나 逆襲부대와 正面으로 對決하게 되어 頂上의 夜間 血戰을 전개하다가 大隊長의 無線命令으로 夜暗을 틈타 隨意撤收키로 하였다.



<△819를 목표로 포복전진>

이때에 대대장은 縱隔室을 通한 正面 공격보다도 地形의 嶮을 이용하여 左·右側背를 찌르는 攻擊을 圖謀키로 결심한 결과 一旦 제5중대를 撤收시키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는 날이 밝기前에 부대를 再整備한 다음 新銳의 氣로써 突進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제5중대의 1個소대로 하여금 正面에서 抑留牽制케 하는 동시에 제7중대에서 選拔한 增强된 1개소대로써 △819의 東北쪽에서 그 腹背를 刺擊토록 하고 제5중대의 나머지 主力으로써 左側으로 迂回케 하여 그 西側背를 협공케 하였으며 제6중대와 제7중대의 나머지 主力으로써 이 突擊群을 掩護하면서 後續하여 突破口를 分斷토록 하였다.

이렇듯 虛實의 妙를 간직한 새로운 突破計劃으로 決戰에 나선 장병들은 地形의 險要를 踏破하면서 최후阻止의 雨注하는 火網을 뚫고 돌격거리까지 肉迫하는 즉시로 三面에서 집중强打를 加하니 그토록 집요한 血戰을 사양치 않던 敵陣은 刻 一刻으로 動搖의 빛을 면할 길이 없는 듯 하였으며 특히 제7중대에 依한 東側背의 奇襲은 敵을 分離케 하는데 奏效하여 마침내 崩壞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는 勿失好機로 一時에 擊滅戰을 전개하여 제5중대의 先鋒소대가 08.30에 △819의 최고峰을 탈취한 것을 신호로 하 듯이 후속부대가 그 일대의 敵陣을 蹂躪하고 殘敵을

모조리 覆滅하였으나, 이로써 연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 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한 以來로 攻防과 爭奪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이날 그 中核部를 빼았고 새로운 前進基地로써 入手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대대는 일부병력으로 敗敵에 대한 撲滅을 加하는 한편 竊鼠竊猫에 對備하였는데, 二重 三重으로 構築된 機關銃座를 비롯하여 교통호로 連結된 掩體壕와 지하에 마련한 보급 저장시설 및 炊事施設 그리고 後爆風이 강한 直射화기에 이르기까지 有蓋化한 것으로 보아 遺間의 堅守不動하던 眞意를 無言中에 能히 洞察할 수 있었다.

2.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는 제2대대가 激戰을 펴고 있는 동안 그 東北쪽의 △780에서 이를 掩護하였는데, 이날도 제1중대가 蓋岱부근의 △462까지 進出하여 중대규모의 敵과 散發的으로 접촉하였으나, 主攻正面에서 목표 "C"를 탈취하자 13.00에 本隊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780와 水串地를 연하는 線에서 防守態勢를 갖추고 다음 命令을 대기하였다.

3.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날 목표를 탈취하자 當初의 計劃대로 부대를 교대키로 결심하고 그 準備命令을 하달하였다.

이에따라 새로이 主攻을 담당하게 된 제19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陣地를 引受키 위하여 지금까지 確保中인 주저항선의 東側部에 있는 堂巨里 일대에서 轉進준비를 갖추었다.

9월 23일 : 전날 △819에서 痛擊을 받고 潰走한 敵은 金城川 江畔의 △462와 外城洞里 부근에서 그들의 主力과 合流한 듯하고,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威力搜索隊가 出沒하게 되었다.

제2연대는 이날 陣地交代를 앞둔 터이라 警戒線에서 이를 격퇴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러한 가운데 사단의 計劃에 의한 部隊 교대가 進行되었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引受部隊로서, 제3대대를 현진지에 殘留시켜 지금까지 맡았던 사단주저항선의 東半部를 警備케 하는 동시에 제1, 제2대대는 07.00에 堂巨里와 水上里로 각각 집결하여 각기 擔當地域을 목표로 徒步機動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전날의 激戰場인 △819에 進入하여 제2연대의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와 17.00까지 陣地교대를 완료하였는데 대대는 地形上의 특수성과 敵情을 감안하여 該高地를 중심으로 四周방어陣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埋伏組를 內城洞里 부근에 潛伏시켜 警戒力을 더욱 굳게 하였다. 이무렵 제2대대(장, 韓鎔甲소령)도 △780에 이르러 17.30까지 제2연대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의 진지를 인수하였는데, 대대는 △780 頂上에 대대 觀測所를 開設하여 제5중대로 하여금 이를 警備케 하는 한편 제7중대를 水串地와 蓋岱間의 능선일대를 占領케 하였으며, 제6중대는 水串地 西쪽에서 제1대대와 接한 補强陣地를 점령케 한 가운데 陣地작업에 着手하였다.

2.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의 제1, 제2 兩대대는 진지를 引繼한 다음 제19연대가 擔當하였던 사단 주저항선을 목표로 야간行軍을 계속하였으며, 제3대대는 변함없이 在安山 부근에서 側方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9월 24일 : 새로이 主攻을 담당하게 된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 工兵 1個중대의 지원을 받아 一線 兩대대의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주저항선에 남아있던 제3대대로 하여금 제2연대에 진지를 引繼한 다음 △1,051로 前進하여 연대의 예비진지를 점령케 하였는데, 敵은 陣地교대의 虛를 利用하여 反擊을 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를 阻止 격퇴하고 한편으로는 計劃된 工事를 進行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1. 제2대대(장, 韓錡甲소령)는 연대의 右一線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바, 이날 02.30에 2개 소대 규모의 敵이 重武裝으로서 대대 관측소가 있는 △780 北麓으로 潛入하여 奇襲을 감행하자 제5중대(장, 崔元道대위)가 곧 이를 擊打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夜暗을 이용한 敵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동화기와 수류탄 등으로 對應하면서 陣前으로 육박하여 끝내 一部에서는 白兵戰까지 演出케 되기도 하였으나 3시간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痛擊을 加하여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徹夜한 대대는 날이 밝자 제7중대에서 1個소대를 抽出하여 敵의 據點으로 指目된 △462(舊堡 北쪽 1.5Km)를 威力搜索케 하는 한편 主力은 연대의 계획에 따라 지원된 工兵소대와 더불어 陣地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07.00에 △741를 출발한 수색대는 10.30에 舊堡를 東側으로 迂回한 다음 北漢江(華川 貯水池 北쪽의 北漢江上流)沿岸을 따라 14.20에 △462 南麓에 進出하고 곧 그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는데, 突然 高地 東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包圍를 企圖하려 하므로 이와 對峙하여 1시간 30분동안이나 交戰한 다음 15.50에 本隊로 復歸하였으며, 그동안 主力은 철조망 가설과 지뢰매설 등 計劃된 작업을 완료하였다.

2.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이날 작업을 마치고 △819에서 四周경계에 任하고 있던 바, 深夜의 奇襲을 노린 敵이 23.00에 2個중대 규모로 侵襲하여 제1중대의 陣地를 突破코자 집중공격을 加함으로써 暗黑속의 격전을 展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중대는 1시간 20분동안의 교전끝에 이 敵을 外城洞里 쪽으로 격퇴하고 계속 陣地를 固守하였으며 특히 제2소대는 200m 前方까지 이를 追擊하여 격퇴시킨 다음 該 高地 北麓에서 警戒에 任하였다.

3. 한편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는 제2연대에 진지를 引繼한 다음 11.50에 堂巨里를 출발하여 △1,051(白岩山 東쪽 3Km)로 機動하는 즉시로 17.00까지 陣地 施設을 강화하면서 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이에따라 北漢江 西岸의 경계진지는 사단의 수색중대가 專擔키로 되었다.

9월 25일 : △819를 확보한 연대는 必是 敵의 反擊이 있을 것에 對備하여 이날도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一部 兵力으로 搜索隊를 편성하여 敵情을 探索토록 措置하였다.

1. 제2대대(장, 韓鎔甲소령)는 前方에 配置한 제6, 제7 兩중대의 陣地를 더욱 補强하는 한편 제5중대에서 소대규모의 병력을 選拔하여 △462부근의 敵情과 地形을 偵察케 하였다.

이리하여 08.30에 △780을 출발한 수색대는 12.30에 舊堡에 進出하여 附近一帶를 接敵狀況없이 수색한 다음 계속 △462를 向하여 진출하였는데, 16.40에는 該 高地 南麓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30분동안 交戰하다가 敵勢가 더욱 甚하여지자 17.10에 離脫하여 19.00에 中隊陣地로 復歸하였다.

그동안 主力은 接敵없이 진지작업을 마치고 계속 防守태세를 갖추었다.

2.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819에서 전날밤의 交戰으로 破損된 陣地를 보수하는 한편 제2중대에서 2個소대를 抽出하여 陣前의 주요高地를 돌면서 威力搜索케 하였다.

이리하여 08.30에 △819를 출발한 위력수색대는 10.50에 外城洞里 東北쪽의 稜線 一帶에 이어 계속 그 東北쪽으로 搜索진출 하였는데, 12.15에 無名高地(△819 北쪽 2Km)에서 소대규모의 敵과 遭遇하게 되자 30分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뒤 이들은 無名高地를 넘어 △462쪽으로 進出하다가 16.20에 다시 중대규모의 敵과 正面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40分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驅退하고 18.40에 原隊로 復歸하였다.

3. 이날 제3대대는 △1,051 부근의 진지를 강화 하였으며, 주저항선에서는 제2, 제7 兩연대가 계속 진지를 堅守하였다.

9월 25일 : △819에서 退却한 敵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挑發이 있었으나 그 主力은 이미 金城川의 北岸으로 潛跡한 듯 하더니 이날 反擊을 감행하여 연대의 前進據點을 奪取코자 함으로써 攻守의 激戰이 再演 되었다.

1. 제2대대(장, 韓鎔甲소령)의 제6중대(장, 車儀榮대위)는 △819에서 東北쪽으로 1.8 Km 떠러진 연대의 前進據點을 확보하고 있던 바, 이날 02.40에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反擊을 감행하여 彼我 서로 激突하기에 이르렀으나 2시간 동안의 血鬪끝에 이를 △462쪽으로 물리친 다음 날이 밝으면서부터 陣地를 더욱 보강하여 계속 堅守하였다. 그뒤로 주간에는 敵情이 없다가 17.00에 이르러 대대규모의 병력이 三面으로 侵攻하므로 이에 중대장은 사격통제를 嚴히 하여 敵을 陣前으로 誘引한 然後에 全火力을 집중하여 18.00까지 그 先攻梯波를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一時 물러섰던 敵은 20.40에 다시 攻勢를 취하여 중대의 左端陣地로 집중 侵攻하는 한편 일부의 敵이 夜暗을 이용하여 제1대대 陣地(△819)와의 虛隙을 뚫고 돌연 背後에서 挑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四周방어 隊形으로 진지를 逐縮하면서 계속 분투 하였는데, 이

와같은 戰況의 推移를 檢討한 연대장은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에게 緊急히 命令하기를 『1개 중대를 急派하여 이 敵을 阻止 격멸하라』하는 동시에 水串地 부근에서 야간搜索中이던 연대 搜索중대를 急遽 無名高地의 右端을 목표로 轉進케 하였다.

이윽고 21.50에 無名高地의 左側으로 약진한 제1중대(장, 李源夏중위)는 敵陣의 西側背를 협공하여 그 氣勢를 꺾은 다음 제6중대와 戰線을 連繫하였으며 搜索중대도 21.30부터 보조를 같이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을 격퇴하였다.

그런데 敵은 背後의 기습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제6중대 陣地로 집중攻勢를 취하여, 24.00부터는 混戰을 展開하였으며 다음날 02.00에는 마침내 제6중대가 200m쯤 뒤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敵은 전과를 擴大하려고 追跡하였으므로 제1중대와 搜索중대는 善防으로 이를 阻止하기에 奔忙하였다. 이러한 攻防의 계속으로 徹夜하다가 다음날 未明을 期하여 제2대대의 제5중대(장, 崔元道대위)가 증원되자 제1중대는 이틈을 타 本隊로 복귀하고 제5, 제6 兩중대는 敵들에게 逆襲을 加하여 06.00부터 15.00까지 9시간 동안의 격전으로 이 醜虜의 一群을 격퇴한 다음 다시 前進據點을 탈환하였다. 이와같은 一陣狂風이 지난 뒤 제6중대는 제5중대와 陣地를 교대한 다음 17.30에 대대觀測所가 있는 △780로 轉進하여 예비가 되었으며 제5중대는 새로이 前進據點을 담당하게 되었다.

2. 無名高地에서의 激戰이 계속되는 동안 제2대대의 제7중대(장, 吳天錫중위)는 △741에서 연대의 右端陣地를 굳게 지켰으며, 左一線인 제1대대(一)는 △819를 堅守한 가운데 제3중대에서 1個소대를 抽出하여 陣前의 敵情을 探索 하였다. 즉, 08.00에 △819를 떠난 搜索隊는 13.00에 外城洞里 부근에서 수색中 소대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되었으나 이를 격퇴한 다음 계속 內城洞里 부근까지 수색을 마치고 15.00에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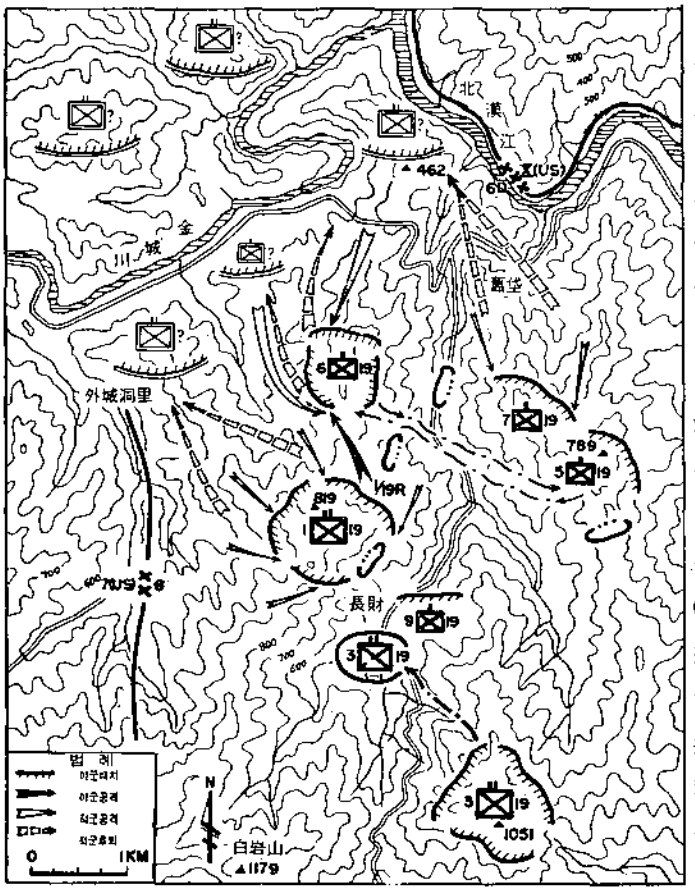
3. 한편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는 如前히 △1,051의 진지를 확보중이었으며, 또 주저항선에서도 변함없이 제2, 제7 兩연대가 그대로 陣地를 維持하면서 인접부대와의 전투地境線 부근을 위력수색하였다.

9월 27일 : 전날 攻勢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敵은 이날밤 다시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全面攻擊을 감행하여 이로 말미암아 紛戰亂鬪가 전개되었다.

1. 제2대대(장, 韓錡甲소령)의 제5중대(장, 崔元道대위)는 이날 16.40에 前進據點을 引受한 다음 四周防守의 態勢를 갖추고 있었는데, 20.00에 대대규모의 敵이 △462 부근에서 중대의 東斜面 진지로 侵襲함으로써 暗中 不時에 激突하여 수류탄의 爆音이 진동하고 銃劍의 閃光이 亂舞하게 되었다.

중대는 3倍以上의 侵敵을 一時 阻止하다가 敵의 强壓으로 말미암아 孤立하게 되자 대대장은 이 戰況에 對處코자 즉시 제5중대로 하여금 水串地 부근의 豫備陣地로 철수하여 後圖를 策할 것을 명령하였다. 夜戰에서는 화력의 强弱보다도 병력의 多寡가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 상황도 제10호 819高地 防禦戰



이리하여 중대장은 22.00부터 水串地 西쪽에서 새로운 阻止線을 형성하기에 힘쓰고 있었는데, 이 무렵 제7중대는 △741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그 餘勢를 몰아 일부의 병력이 제5중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戰意를 돋아 23.00부터서는 一步도 물러서지 않고 兩중대가 渾然一體가 되어 激戰 속에서 勝戰을 期約하였다.

이러한 血戰이 4시간 동안이나 거듭되다가 다음날 03.00에 敵은 하는 수 없어 戰線을 이탈하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예비인 제6중대를 挺進시켜 05.00부터 追擊으로 移行한 끝에 △462쪽으로 이를 擊退하였으며 그동안 제5중대는 無名高地의 前進據點을 再奪還하였다.

2.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이날 05.30에 제1중대가 복귀한 뒤로 대대의 全兵力이 △819에서 四周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날 밤 20.00에 2個대대 규모의 敵이 三面에서 侵攻하여 △819의 攻防血戰을 再演케 되었다. 즉, 제2중대의 陣前으로 대대규모의 一群이 侵攻하는 한편 左, 右 兩側에서 각각 중대규모가 迂回 侵襲하여 집중적으로 同 高地를 포위 공격한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에서는 照明 지원과 동시에 彈幕사격으로 敵線을 强打하고 장병들은 陣地를 固守하면서 殺戮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때에 연대장 林益淳대령은 예비대를 곧 投入키로 決心하고 제3대대로 하여금 長財洞(△819 東南쪽 1.5Km)으로 前進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는 21.00에 長財洞에 挺進하는 즉시로 제9중대(장, 金東根중위)로 하여금 一線 兩대대 間의 陣地를 補强케 하였으며 主力은 다음 命令을 대기하였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819에서는 격전이 계속되다가 23.00에 제2중대의 진지가 무너지

자 混戰이 야기되어 위기에 直面케 되었는데, 이때에 제3중대가 과감한 逆襲으로 2시간 동안이나 육박혈전을 전개하여 이 狂波를 물리치고 다시 陣地를 確保하였다.

이 무렵, 제3대대의 제9중대도 背後의 奇襲을 노린 중대규모의 敵이 長財洞으로 侵襲하여 21.30부터 血戰을 반복한 끝에 이를 격퇴하였으며 대대의 主力은 계속 長財洞에서 대기 하였다.

그러나 敵은 陣地强奪의 意慾을 버리지 않고 다음날 03.00부터 다시 攻略의 毒牙를 벌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5개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殺到하여 최후의 一戰을 强要하였으니, 아무리 打擊을 加하여도 波狀의 濁濤는 그치지 않아 04.10에는 끝내 頂上에서의 壯烈無比한 白兵戰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은 전병력을 △819의 南麓으로 집결토록 명령한 다음 04.30부터 병력의 收拾에 힘써서 戰列을 再整備한 然後에 05.00를 期하여 일제히 반격을 敢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30分동안의 殺戮戰끝에 該 高地를 다시 탈환하였는데 陣地一角을 收拾할 겨를도 없이 强襲을 받은 敵은 많은 屍體와 負傷者를 遺棄한 채로 金城川을 목표로 活路를 찾기에 狂奔하였으니 可히 死中求活의 凄慘한 寸景이라 할 것이다.

3. 이와같이 一線 兩대대가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동안에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지원사격을 계속하였으며 사단의 주저항선에서도 如前히 진지를 堅守하였다.

이날 연대의 종합전과는 敵 131명을 射殺하고 18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 박격포 4문과 기관총 13정, 수류탄 900여발을 노획하고, 損失은 7명이 戰死하고 43명이 負傷하였다.

9월 28일 : 지난 밤에 衆敵을 대파한 연대는 날이 밝자 곧 진지의 補强作業에 착수하였는데, 그동안 敵은 殘兵을 再糾合하여 이날 연대의 前進據點인 제5중대의 陣地에 대한 집중공세를 취함으로써 局地戰을 惹起하였다.

1. 제2대대(장, 韓鎔甲소령)는 이날 △780—△741—無名高地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8.00에 대대규모의 敵이 다시 無名高地를 에워싸고 三面에서 侵攻하였다. 즉, 薗垈쪽에서 東斜面으로, △462에서는 正面으로, 그리고 外城洞里 부근에서는 西斜面으로 各各 중대규모의 兵力으로써 無名高地를 지키는 제5중대의 正面으로 近迫하더니 09.00에는 완전히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 崔元道대위는 砲兵의 制壓사격을 요청하는 동시에 1시간동안 격전을 전개하여, 한때 이를 阻止하였으나 物量의 均衡을 잃은 중대는 10.30부터는 병력의 收拾에 힘쓰면서 △819로 隨意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敵은 다시 △741를 공격키 위하여 水串地의 溪谷을 넘으려 하였는데 이때에 대대는 이 急變事態에 對處하여 곧 제6, 제7 兩중대가 增强된 터이라 이 溪谷에서 彼我가 다시 攻防과 爭奪로 激突케 되었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砲兵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3시간 동안에 걸친 凄殺戰을 전개한 끝

에 △462쪽으로 擊退하고 14.30에는 다시 대대陣地의 全域을 奪還하고야 말았으니 量보다도 質이 所重한 것이 이와 같았다.

2. 한편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819에서 戰場整理를 마치고 연대 計劃에 따라 12.30에 제3대대와 陣地를 교대하였는데, 제2중대(장, 金麟泰중위)를 제3대대에 배속시킨 다음 13.00부터 △819에서 轉進을 시작하여 18.25에는 △1,051 北麓을 占領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3. 이상과 같이 戰線整理를 마친 연대는 白岩山 北쪽의 주요據點을 확보하면서 사단의 前進陣地를 다시 掌握하는 가운데 다음의 공격명령을 待望中에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登大里 부근의 攻防戰을 勝利로 매듭지었는데 稜線과 溪谷에는 屍臭가 가득하고 地形이 變貌한 山野에는 哨煙이 자욱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當面의 敵 中共 제199사단(장, 資 武)은 28일을 고비로 하여 공세를 중지하고 守勢로 전환한 듯 하였다. 즉, 29일에는 △741의 西北쪽에서, 30일에는 △780의 正面에서 각각 중대규모의 兵力으로 散發的인 挑發이 있었으나 이는 威力偵察 정도에 不過하고, 그 主力은 金城川 沿岸에서 陣地作業에 熱中하는것으로 알려졌을 뿐, 戰線은 다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와같이 敵이 태도를 바꾼데는, 첫째로 白岩山 北쪽의 主要據點을 되찾기 위하여 그들은 동원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모두 投入하였으나 오히려 打擊만을 입고 물러서게 됨으로써 사단의 반격 진출을 우려한데서 취한 조치요, 둘째로는 美제8군이 全戰線에서 偵察戰을 강화하여 새로운 作戰氣運이 조성되자 그들의 作戰과 보급의 策源地인 金城을 지키기 위하여 저지진지를 더욱 堅固히 하려는데 그 因由가 있었으리라.

어떻든 군단 正面의 中共 제67군(장, 馬 襲)은 金城地區에서 守勢를 취하여, 當사단의 戰鬪正面에서는 제199사단이 金城川 沿岸에서 橋頭堡陣地를 강화하는가 하면, 中央左翼인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의 正面에서는 李 靜이 지휘하는 제200사단이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要路를 맡았으며 그들의 예비인 제201사단을 金城 北쪽에 保有하면서 군단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때에 사단正面의 中共 제199사단은 主陣地를 龍虎洞—汝文里—△585를 連하는 線에 構築하는 동시에 경계部隊를 제19연대의 陣地로부터 3~5Km 內外인 △462—汝乃谷—△565를 連하는 線까지 進出시키면서 사단의 動靜을 살피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와는 달리 사단에서는 前進基地를 확보한 뒤로 林益澤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로 하여금 이 진지를 堅守케 하는 한편 제2, 제7 兩연대로써 堂巨里와 △1,057間의 주저항선을 確保하는 가운데 인원과 장비를 補充하면서 將次의 決戰을 對備하였는데, 10월에 접어 들면서 UN軍 當局의 새로운 作戰計劃이 마련되자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즉,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休戰會談이 決裂된채로 1개월餘를 지나도 續開를 보지 못하자 美제1군단장 O'Daniel 중장이 建議한 이른바 「Commando작전」을 承認하는 동시에 多目的의 意義를 지닌 새로운 제한공격을 구상하여 10월 1일에 要旨 다음과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美제1군단은 10월 3일을 期하여 Commando 작전을 개시하라.

② 美제9군단은 左翼 제25사단을 進出시켜 美제1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라 (주 : 美제25사단은 8월 29일附로 美제9군단에 配屬됨).

③ 美제10군단은 10월 5일 공격을 再開하여 文登里—△1,211—南江 灣曲部線까지 進出, 戰線의 等齊를 期하라.

④ 제1군단은 東海岸沿道를 따라 攻勢를 취하여 美제10군단의 공격을 용이케 하라』

그런데 「Commando 작전」이란 美제1군단의 현접촉선으로부터 대체로 10Km를 前進하여 敵의 據點을 분쇄키 위한 것으로서 當 군단으로서는 이를 지원토록 계획되었던 바, 10월 9일에 Van Fleet대장이 戰線巡訪次 군단을 訪問한 자리에서 군단장 Hoge 중장은 要旨 다음과같이 建議하여 그의 승인을 얻었다.

『군단은 현접촉선으로부터 5~11Km를 진출하여 金城을 制壓할 수 있는 Nomad線(△548—汝文里—竹洞—△434—下所)을 확보하려 한다』

이리하여 군단은 10월 13일부터 진격전을 再開하였는데 當時 사단은 군단의 右翼을 擔當하여 13일에 前方 지휘소를 堂巨里로 推進하는 동시에 제19연대를 右一線, 제7연대를 左一線으로, 그리고 제2연대를 예비로하여 當面의 Nomad線(△529—汝文里—△585)을 목표로 進擊의 大鼓를 울리게 되는 것이다.

제2차전을 통한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구분 \ 부대	제 2 연 대	제 19 연 대	구분 \ 부대	제 2 연 대	제 19 연 대
射殺	162명	904명	戰死	25명	10명
捕虜	7명	19명	負傷	78명	130명
投降		1명	失踪		62명
鹵獲					
60mm 迫擊砲	2문	4문			
Rocket 砲	2문				
機關銃	14정	4정			
各種小銃	8정	89정			
砲彈	402발	9발			
手榴彈	7,600발	925발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제19연대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

(1973. 2. 26. 재향군인회별관에서, 예 대령)

△819의 攻防戰은 너댓차례 있었다. 최초에는 사단의 경계부대인 제2연대가 이 목표를 탈취하였는데, 당시에 우리 연대와 제7연대는 白岩山南쪽의 사단主抵抗線에 배치되어 있다가 9月 下旬에 제2연대와 경계 임무를 교대 함으로써 연대의 3개대대가 前進陣地로 나갔던 것이다.

이때에 우리 대대는 中央一線을 맡고 △819는 제1대대가 擔當하였는데, 陣地를 보강하고 있던 어느날 敵이 反擊하여 이 고지를 거의 빼앗기고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高地의 頂上에서 全面방어태세를 취한 가운데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대대가 공격명령을 받은 즉시로 이를 逆襲하여 敵의 무리를 무찌른 다음 자동적으로 陣地가 교대되어 우리 대대가 △819를 맡고 제1대대가 中央一線 (약간 뒤로 처진 戰線임)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敵은 다시 대대적으로 반격을 시도하여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이날 밤에 집중공격을 감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徹夜 激戰을 폈는데 특히 左인접인 美제24사단에서까지 照明과 砲擊을 지원하고 사단의 대전차 공격대대에서 2개중대가 赴援하여 合同으로 擊滅戰을 전개한 끝에 이 敵을 격퇴함과 아울러 500여명을 사살하고 많은 장비를 노획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 研 究

◇ 白岩山地區 戰鬪의 時期

陸軍戰史 제6권 133 Page에는 『白岩山 地區 戰鬪』란 題下에 要旨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張部隊준장이 지휘하는 제6사단 예하의 제7연대(장, 韓官興대령)가 51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서, 右翼 제11사단의 正面을 돌파한 中共 제60군 산하의 제80사단을 白岩山부근에서 격퇴하여 다시 失地를 回復한 것으로 되었다.

또한 當時에 제7연대는 사단 作戰命令 제25호에 依하여 戰鬪正面을 제11사단의 제9연대에 引繼하고 盛洞里로 집결하고 있던 중, 右翼인 首都사단의 제1연대 正面으로 敵이 侵攻하자 협동하여 이를 阻止하고 있다가 사단장의 命에 의하여 白岩山으로, 轉進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相異하니 그 이유는,

① 51년 7월 13일 現在, 사단은 美제9군단의 右一線으로, 사단의 右翼에는 美제10군단의 左翼을 담당한 제7사단과 隣接하고, 左翼에는 美제7사단과 接하였으며(참조 : 제6사단 戰鬪詳報級),

② 首都사단과 제11사단은 다 같이 제1군단의 예하부대로서 이날 현재 東部戰線의 杆城 西北쪽에 위치하고(참조 : 首都사단 및 제11사단 部隊歷史資料),

③ 白岩山은 이미 제6사단이 6월 中旬에 奪還하여 掌握한지 1개월餘가 될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北쪽의 登大里부근에서 搜索戰을 펴고 있었다(참조 : 제6사단의 818.9高地 戰鬪詳報).

④ 그밖에도 韓官興대령이 제7연대장으로 就任한 것은 52년 8월 10일附로서 이때는 梁仲鎬대령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참조 : 제6사단 指揮官序列名簿),

⑤ 當時에 사단 當面의 敵은 中共 제20군과 제27군이 部隊교대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참조 : 入韓中共軍 부대경력 및 제6사단 전투상보).

이상과 같은 사실 이외에도 내용 全體가 시기적으로 符合되지 않으니 이는 編纂당시 어떤 錯誤에서 비롯된 듯 하며, 이 白岩山地區 전투는 休戰會談이 調印되기 2週日前인 53년 7월 13일에 전개되었던, 이른바 7.13 攻防戰 당시에 제7연대가 白岩山에서 勇猛을 떨친 전투 記錄인 것으로 판단된다.

◇ 本戰鬪의 題名

陸軍戰史에는 本전투를 『818.9高地 戰鬪』라 하였으나 本節에서는 내용을 더욱 補強하여 『登大里부근 전투』라 改稱하고 2개段階로 區分하여 제1단계는 『登大里 進擊戰』 제2단계는 『△819 攻防戰으로』 分類하였다.

그 理由는,

① 제2연대가 공격당시에 △819가 주요목표이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도 △780—△462—無名高地(CT 812 421)등을 목표로 同時에 공격하였으며 또한 여기에서 激戰을 전개한 바 있으니 △819戰鬪만을 취급함은 妥當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本節에서는 登大里 부근의 主要高地에서 전개된 戰鬪를 종합하는 동시에 題名을 「登大里부근 전투」라 命名하고 小節에서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② △818.9란 白岩山 北쪽의 高地群 가운데 하나로서 CT 905 402地點의 標高인데 당시 參戰者의 증언에 의하면 △819에 無數한 砲擊으로 말미암아 1m정도가 무너졌다하여 △818.9라 呼稱하였다 하니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이는 逸話는 될지 모르나 地名表記의 根據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66年度에 陸軍測地隊에서 測量한 記錄에는 同地點을 △819로 新地圖에 表示 하였으니 이를 參酌하여 本節에서는 △819로 기술하였다.

◇ 제19연대 指揮官의 記錄

本戰鬪에서 제19연대를 지휘한 연대장의 記錄이 陸軍戰史에는 殷碩杓 중령으로 되어 있으며 (제6권 144Page) 제6사단의 戰鬪詳報에는 林益淳대령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리하여 제6사단의 部隊歷史資料와 指揮官序列名簿를 종합검토한 결과 當時의 연대장은 林益淳대령이고 殷碩杓중령은 副연대장이었으며, 52년 3월 4일까지 林益淳대령이 제19연대를 指揮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本節에서는 戰鬪詳報의 記錄을 擇하여 林益淳대령으로 통일하였다.

7. 榛峴里—芳洞附近 戰鬪(1951년 9월 21일)

참조 : 상황도 제1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제32연대 장 대령 金 容 筍
제1대대 장 소령 禹 鉉
제1중대 장 대위 金 漢 基
제2중대 장 중위 金 泰 興
제3중대 장 중위 李 周 基
제4중대 장 중위 金 洙 重
제3대대 장 소령 金 鼎 德
제 9중대 장 중위 李 義 鍾
제10중대 장 중위 金 昊 榮
제11중대 장 대위 金 永 熙
제12중대 장 중위 申 德 均

지원부대
제18포병대대 장 소령 張 圭 栢
제1302공병대대장 소령 鄭 極 徐
제92機甲野砲대대 2個포대
제213, 제555, 제937 野砲대대
제5空軍의 1개편대
右인접부대
美제7사단 제31연대 장
대령 Leoyed R. Moses
左인접부대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병력 : 完編 2個대대

敵 軍

中共·
제67군 장 馬 襲

제200사단 장 李 靜
(제598, 제599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전투는 51년 9월 하순에 赤根山(△1,073) 北麓에서 지역방어에 任하고 있던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이 주저항선 전방의 高地群을 탈환키 위하여 榛峴里와 芳洞일대를 공격한 제한된 進擊戰이다.

당시 사단은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의 中央左翼을 맡아 6월 中旬에 現戰線(杜木—承岩里—△785—△457의 線)까지 약진한 以來 軍의 방침에 따라 3개월 동안이나 進軍을 멈춘채로 防

당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敵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戰力강화에 총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충격행동을 자행함으로써 本戰鬪를 惹起케 되었다.

즉, 그들은 非合理的인 방법으로 휴전회담의 妥結을 지연시키면서(이때는 軍事分界線문제를 논의하였음) 戰線강화에 주력하였거니와, 특히 中部의 要域인 金城地區에는 侵韓이후 陽德에서 산악훈련까지 마친 中共 제67군(장, 馬 襲)을 추진하여 그동안 타격이 컸던 中共 제27군(장, 彭德淸)과 교대시킨 다음 일선진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전투물자를 集積하는 동시에 搜索據點을 편성하는등 보다 積極策을 취하는 듯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진전없는 휴전회담마저 8월 24일에 決裂됨으로써 戰局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게 되자 군단에서는 이른바 『Cleaver 작전』을 計劃하게 된 것이다.

이 작전은 군단의 현주저항선(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 北쪽에 구축된 敵의 前進據點 내지는 수색기지를 直衝격파하여 그 병력과 물자를 파괴하는 동시에 장차 金城으로 進攻키 위한 前進基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군단의 左翼인 美제25사단에서 步戰協同으로 Bycrun 機動部隊를 편성하여 金化에서 月峰山(赤根山 北쪽 7Km)까지 敵陣의 中心部를 突破分斷케 하면서 各 일선사단으로 하여금 담당정면의 高地群을 탈취케 하는 구상이었으며, 그 시기는 淸明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9월 하순으로 예정하였다.

이 작전의 일환으로 사단은 榛峴里와 芳洞 일대를 공격케 되었는데, 當面에는 中共 제67군 예하의 제200사단(장, 李 靜)이 △633—搜洞—△462 線에 主力을 배치하고 △600와 芳洞부근에 수색據點을 형성한 것으로 정찰되었으며, 목표지대내의 병력은 증강된 대대규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그들은 旣設진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일부병력은 不時로 陣前에 넘나들면서 자못 기세롭게 정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단에서는 작년 △734攻防戰(9월 1일부터 3일까지) 당시에 위용을 떨친 바 있는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에 이 공격의 任務를 부여키로 內定하고 威力수색을 강화하여 敵情파악에 힘을 기우렸는데, 이때에 제32연대는 대체로 편제상의 인원과 장비를 갖추었으며 보급이 충분하고 士氣가 높았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特異한 점은 장기간에 걸쳐서 강화된 敵陣인 만큼 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堅陣突破를 하게 된다는 점과, 목표지대가 험준한 岩盤連峰을 이루어 通例的인 평범한 戰法으로는 그 성공을 기하기 어려운 條件이 있는 까닭으로 步·戰·砲·空의 협동작전에 의한 優勢한 火力의 綜合發揮로써 이를 제압하면서 돌파키로 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9월 18일 17.00에 受領한 군단 작전명령에서 이르기를 『제2사단은 21일 06.00를 期하여 Byorun 機動부대와의 협동공격으로 목표 제1, 제2, 제3, 제4(榛峴里와 芳洞 일대의 高地群)를 탈취하라』는 大要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사단에서는 이보다 3일 전인 15일 12.00에 이미 사단 작전계획 제2호를 하달한 바 있었으니, 이는 旣定된 군단의 방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이제 하달된 군단명령도 이와 大同小異의 것이지만 화력통제선의 일부를 수정한 것과 D일 H시를 명시한 것이 進一步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다시 작전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하달된 작전계획 제2호를 토대로 當面의 임무를 分析 熟議한 끝에 수정된 내용을 첨가하고 部署를 결정하여 槪要 다음과 같은 작전

指導方案을 마련하였다.

『첫째 : 현주저항선은 2개연대의 병력으로써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1개연대로써 목표를 탈취키로 한다.

둘째 : 本 임무는 현지의 地形과 敵情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제32연대(現 右一線연대)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현재 占有中인 진지는 제17연대(예비대)가 인수하고 左一線인 제31연대는 공격間 左側方을 掩護토록 한다.

세째 : 포병 제18대대는 제32연대를 직접지원하고, 또한 군단 5개 野砲대대의 일반 지원을 얻어 主攻연대에 강력한 화력을 동시에 집중하되 미리 충분한 공격준비사격으로 機先을 制한다.

네째 : Byorun 기동부대 및 제5공군의 戰術航空통제반과 긴밀히 협조하여 立體的인 협동으로 急襲速決토록 한다.

다섯째 : 제1302공병대대의 1개중대를 제32연대에 배속시켜 장애물 파괴와 突進路 개설을 專擔케 하는 동시에, 화염방사기 등의 특수장비를 집중지원하여 연속돌파를 가능토록 한다.

여섯째 : 목표를 점령하면 지체없이 진지를 구축하되, 제1목표는 제31연대에 인계하고 主攻인 제32연대는 제2, 제3, 제4목표를 核心으로 前進陣地를 확보한다. 또한 이를 지원키 위하여 지뢰 및 철조망과 Booby-trap등을 동시에 추진보급한다.

일곱째 : 全部隊는 공격개시 6시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과 같은 사단의 방침에 따라 主攻正面을 담당케된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은 지금까지 종합분석한 敵情과 地形을 고려하여 현재 左·右一線에 전개되어 있는 제1, 제3 兩대대를 攻擊梯隊로 결정한 다음 要旨 아래와 같은 연대 작전명령을 19일 10.00부로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Byorun 기동부대와의 협동으로 목표 제1, 제2, 제3, 제4를 一擧에 탈취하려 한다.

② 제1대대(공병 1개소대 배속)

㉮ 21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제 1, 제2를 탈취하라.

㉯ 공격개시 12시간 전에 現 占有陣地를 제17연대에 인계하고 △785 南麓에 집결하여 늦어도 6시간 전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라.

㉰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로 진지를 구축하되, 제1목표는 제31연대에 인계하고 制限點(CT 741408) 以東의 담당正面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공병 1個소대 배속)

㉮ 21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제3, 제4를 탈취하라.

㉯ 現陣地를 제17연대에 인계하고 △734고 전진하여 늦어도 공격개시 6시간 전까지 進

攻태세를 갖추라.

㉰ 공격간 1個중대를 鳳堂德里 東쪽으로 추진시켜 主力의 진출을 掩護케 하다가 別命에 따라 즉시 제4목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라.

④ 제2대대는 現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可用한 화력으로써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공병중대는 공격간 장애물 제거를 專擔하고, 목표를 탈취하면 기술적인 진지구축에 협력하라.

⑥ 通信대장은 一線대대의 OP까지 有線을 가설하고, 목표를 탈취하면 軸線을 延伸하라.

⑦ 의무중대장은 承岩里에 救護所를 개설하라.

⑧ 협조지시

㉮ 射擊 統制線을 嚴守하라.

㉯ 공격개시 12시간 전까지 각기 當面의 敵情을 보고하라.

㉰ 공격간 모든 장병들은 등(背)에 赤色布片(천)으로 標識하라.

㉱ 규정에 따라 對空布板을 활용하라.

㉲ 공격개시 前의 無線사용을 금한다.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24시간 이를 개방하라.

⑨ 行政事項 변동없음.

⑩ 隣接부대와의 신호는 曳光彈으로 誰何 3발, 應信 2발로 하며 기타 通信사항은 현행 SOI에 따른다.

⑪ 연대 지휘소는 當日 05.00 이후부터 △785에 開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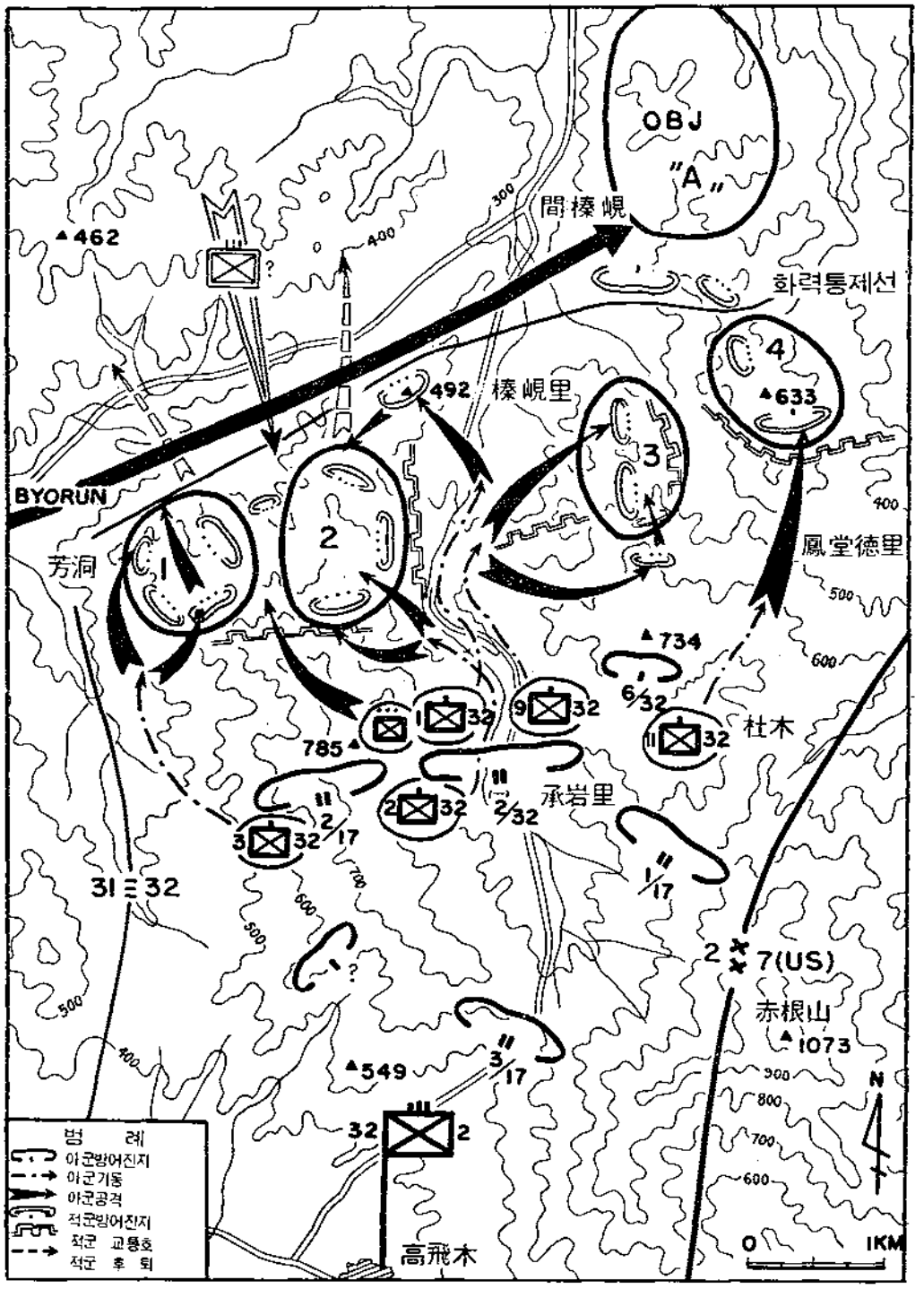
(2) 작전실시

9월 21일 05.40에 드디어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었는데, 포병 제18대대(장, 張圭栢소령)를 비롯한 군단의 제92, 제213, 제937, 제555野砲대대가 협동하여 一時에 砲門을 여니 赤根山 一圓에 轟聲이 진동하고 △633—楪峴里—芳洞 일대의 敵陣은 불길과 硝煙에 싸여 拂曉의 秋天에 戰雲이 가득하였다.

이렇듯 대대적인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것은 그 동안에 敵陣이 계속 보강되었을 것이니만큼 미리 그 堅壁을 깨뜨린 다음에 短兵 급히 속결코자 하는 奇襲戰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였거니와, 20분 동안에 걸친 집중끝에 06.00부터 死命을 制하는 本攻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즉, 제32연대(장, 金容劼대령)는 제1, 제3 兩대대를 左右梯隊로 전개하여 △734에서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砲擊의 終末에 연막탄 3발을 신호로 하여 一齊躍進으로 決戰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1 제3대대(장, 金鼎德소령)는 右一線대대로서 △734에 OP를 선정하는 즉시로 제11중대를 右, 제9중대를 左로 전개하는 한편 제10중대는 예비로써 杜木에 控置한 가운데 대기

◇ 상황도 제11호 榛現里一芳洞 진격 상황



하다가 進攻케 되었는데, 아직 山谷에는 濃霧가 짙어 敵情을 파악키 어려웠으므로 斥候組를 강화하고 側方을 警戒하면서 신호와 함께 一路 東北進하였다.

가) 제11중대(장, 金永熙대위)는 右第一線에서 彈雨속에 杜木고개를 넘은 다음 △633(제4목표)를 목표로 계속 돌진하여 07.15에 鳳堂德里 西쪽의 개활지를 一躍橫斷하자 곧 同高地의 南端에서 橫散開대형을 취하여 急速공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08.30에는 중간목표인 그 西南쪽 능선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무찔러 前方據點을 돌파한 다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上峰으로 휘몰았는데, 여기는 觀測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敵의 주저항선으로서 2개중대 규모의 兵力이 완강히 버티어 피차 優劣을 가릴수 없는 激突相을 보이게 되었으니, 중대는 11.00에 이르기까지 同高地의 200m 前方에서 머문채로 渾身의 力攻을 거듭하였다.

나) 이때에 제9중대(장, 李義鍾중위)는 承岩里를 출발하여 제3목표(△600 西北稜線)로 指向하였는데, 楸峴里 계곡으로 들어서자 마자 敵 자동화기의 不時 집중사격에 부딪쳐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先頭인 제3소대로 하여금 곧 이를 제압케 하는 동시에 主力의 진출을 강행코자 하였으나 敵陣 下端部에 있는 자동화기의 진지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600로 부터 間楸峴에 이르는 西北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동시에 발악함으로써 初頭에 격전을 演出케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敵勢를 확인하는 즉시로 제3소대장에게 △600의 西側에서 돌격을 감행하여 敵陣을 兩斷케 하는 한편 제2소대는 急遽 東南쪽으로 迂回, 그 側背를 강타케 하여 우선 △600를 손에 넣기로 결심하였다.

이윽고 東·西로 分進한 兩소대는 騎虎之勢로 돌진하여 07.40 현재 제3소대는 최초에 불을 토하던 敵의 자동화기 진지를 격파한 다음 同高地의 8부능선까지 진출하고, 제2소대는 △500에서 증강된 분대규모의 敵을 覆滅하자 곧 △600의 東側으로 약진하여 동시에 협동 공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戰勢의 교착을 보게되었으니, 有利한 진지를 점령한 敵은 치열한 統·砲擊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이 집요하여 급경사를 이용한 수류탄의 동시폭발이 激甚한 탓으로 進展없는 공방대결 속에 彼我間에 寸尺을 다투는 血戰을 전개케 되었다.

07.50에 이르러서는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던 UN 空軍의 F-51機 1개編隊(4台)가 機首를 돌려 △600의 敵陣에 10분 동안에 걸친 Napalm彈의 投下와 기총소사로써 進路를 타개하자 好機를 얻게 된 중대는 銳氣를 더하여 空地協同下의 正面돌격으로 이를 격파코자 하였으나, 3개월 동안에 걸쳐 강화한 掩體壕와 화력據點에서 敵은 발악적으로 저항하니 그 위에 地形의 不利까지 겹친 중대는 끝내 이 敵線을 돌파하지 못하고 死傷者 15명을 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화력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각 소대로 하여금 火焰放射器를 포함한 특공대를 편성하여 敵의 據點을 각개격파토록 하면서 戰勢의 逆轉을 꾀하고자 온 힘을 기우렸다

다) 이와같이 兩중대가 正午에 이르기까지 목표의 직전에서 혼전하게 되자 연대장 金容珣대령은 대대장에게 예비대인 제10중대의 사용을 慫慂하는 동시에 △734에서 待機中인 隣接 제6중대장 柳凡洙대위에게 직접 명령하기를 『1個소대를 제3목표의 東側으로 급진시켜 제9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라』고 하였으니 寸刻의 遲留를 허용할 수 없는 이 局面을 타개하려는 措置인 것이다.

이러한 難局에서 대대장은 예비대인 제10중대(장, 金昊榮중위)를 △633의 東쪽으로 약진시켜 그 右肩部를 강타케 하는 한편, 제6중대에서 急派된 제1소대는 △734에서 △600의 東쪽 능선으로 突出하여 敵의 背後를 눌러 挾擊토록 하는 동시에 대대의 全主力으로써 決戰태세로 돌입하게 되었으니 실로 勝敗를 가름하는 嚴肅한 一瞬이었다.

이렇듯 총력공세를 취한 대대는 15.40까지 3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끝에 敵 70여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600 西端의 敵陣一角을 탈취하기도 하였으나, 敵도 또한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 風前燈火格인 진지에서 버팀으로써 끝내 결정적인 轉機를 마련치 못한데다 대대의 死傷者도 또한 累增하여 전반적인 戰況은 그 以上의 전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이때에 Byorun 기동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間椋峴으로 直行하다가 △492 北쪽 고개에서 敵의 對戰車지뢰에 依한 손상을 입고 進路가 막혀 철수명령을 받게 되니 戰況의 打開는 더욱 힘겹게 되었다.

마) 이상과 같은 一連의 狀況을 銳意 注視하던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제1대대의 목표점령 및 Byorun 기동부대의 철수등을 감안하여 16.00에 공격 중지명령을 하달하였으니 연대장으로서는 아직 未練도 많았으나 이와 같은 엄명에 따라 16.20에 要旨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3대대는 즉각 공격을 중지하고, 1個중대로써 △734西쪽에서 제2대대의 陣地에 連한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主力으로써 최초 공격대기선을 목표로 집결하라. 次後의 행동은 別命한다』

이리하여 대대는 일부의 병력으로 敵勢를 逐次牽制하면서 原位置로 집결하였는데 제9중대는 17.30까지 병력배치를 완료하고 제6중대의 제1소대는 本隊와 합세하였으며 대대의 主力은 杜木으로 轉進機動하였다,

2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이날 06.10에 Byorun 기동부대와 보조를 같이 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右第一線인 제2중대는 제2목표(承岩里 西北쪽 1.5Km)를, 左第一線인 제3중대는 제1목표(立石村 南쪽高地)를 각각 탈취키로 하고 제1중대는 △785北麓에서 예비로 待機하면서 隨時로 一線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 Hen地帶(제1, 제2목표지대의 군단명칭)는 크고 작은 劍尖과도 같은 岩壁이 異風形으로 이어지면서 急한 경사나 斷崖와 絶壁으로 형성된 一連의 高地群으로서, 그 西北쪽의 △462와 함께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進路를 鎖立으로 막아선 關門이므로 敵은 여기를 堅陣삼아 固守태세를 취하였으며, 또한 사단의 이날 공격목표도 사실상 이 高地群을 탈취하는데 더욱 注力하게 되었으니 彼我의 激突은 避할 수 없는 形勢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공격의 初動을 타고 强襲키로 하였거니와, 용약진출한 兩중대는 벌써 목표에 다다라 06.50부터 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가) 제2중대(장, 金泰興중위)는 제2목표의 東쪽과 △785의 西北稜線上에 병력을 전개하는 즉시로 兩面공세를 취하였는데 銃砲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하는 敵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공병소대의 지원을 얻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步一步 肉迫하여, 抵抗據點에 火焰放射를 뿜게하고 岩壁을 기어올라 수류탄을 투척하는등 接近戰을 강행하였다. 또 松洞을 출발한 Byorun 기동부대도 이에 뒤질세라 芳洞까지 진출하여 敵陣 背後에 위협사격을 加하는 한편 07.00에는 UN空軍의 戰爆機 1개편대가 근접지원하여 제2목표를 비롯한 그 부근의 敵陣에 Napalm탄과 기총소사를 가하여 立體戰力의 妙를 보이니, 黑煙에 휩싸인 山野는 地軸마저 흔들리고 兩個부대 장병들의 눈초리에는 鐵瓮城도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 岩壁사이에 교묘히 구축된 陣地에서 空地兩面의 制壓을 피하면서 수류탄의 집중과 자동화기의 亂射로 進路를 막고 끝까지 버팀으로써 중대는 목표지대의 中腹에서 머문채로 熾烈한 화력대결을 반복하는 사이에 地勢의 不利로 말미암아 死傷者가 속출하였으며, 08.30에 이르러서는 Byorun 기동부대도 芳通里 고개를 넘으려다가 敵의 對戰車地雷에 의하여 전차 4대의 損傷을 입고 그 진출이 지연되었으니, 대대 右 第一線의 戰況은 당분간 好調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다.

나) 한편 제3중대는 大兵肥滿型의 李周基중위가 지휘하여 芳洞 溪谷으로 들어서자 곧 제1목표의 西南쪽 능선을 向하여 突進하였는데, 목표의 200m 南쪽에서 부터는 敵火의 集中으로 말미암아 草根과 石塊를 헤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의 個匐으로 육박하였다.

그런데 07.50에 F-51 戰爆機 1個편대가 山谷을 누비면서 두번째로 나타나 정면의 목표에 집중적으로 機銃掃射를 加하자 중대는 이에 呼應하여 敵陣地 下端으로 바싹 다가섰다가 08.30에 돌격을 감행하였다. 즉 분대장 柳日馨하사가 선두에서 突進하여 수류탄으로 敵 기관총 진지를 폭파한 끝에 1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잡아 正面突擊의 轉機를 마련하게 되자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함성을 높이면서 일제히 돌격한 중대는 上峰을 목표로 白兵을 휘몰았으며, 이로부터 惹起된 紛戰亂鬪는 4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때에 특히 無名高地(芳洞 東쪽高地) 西斜面의 敵이 발광적으로 저항하여 混戰속에 彼我의 사상자가 누증하였거니와, 그 중에서도 중대본부의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서 敵의 수류탄이 터짐으로써 本部要員 2명이 전사하고 중대장 李周基 중위가 破片傷을 입어 쓰러지

게 되었다. 이에 병사들이 곧 扶腋하려 하였으나 顔面負傷을 입은 중대장은 바위에 기댄 채로 오히려 『돌격 앞으로!』만을 계속 大號하니 이에 분발한 병사들은 다시 힘을 모아 정상으로 돌진하여 挺身力鬪하였다.

이 刹那에 崔鶴根하사는 수류탄을 빼어들고 敵陣에 돌입하여 기관총 銃座를 목표로 風飛雹散의 一擊을 加하는가 하면 뒤를 이어서 일시에 白兵으로 돌입한 병사들이 敵火를 제압하니 이 때가 10.15이었다.

이 好機를 포착한 중대는 全面 돌격을 감행하여 擊滅戰을 편 끝에 저항하는 敵 100餘명을 사살하고 방황하거나 投降하는 者 30명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60mm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장비와 탄약을 노획하는 동시에 10.30에는 드디어 제1목표를 완전히 점령 하였으니, 그토록 치열하던 敵의 이 堅陣도 이제 중대의 掌中에 들게 되어 여기에서 주변의 殘敵을 剔抉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무렵 제2중대는 아직도 목표의 中腹에서 머문채로 彼我俯仰의 대결을 반복하였으니, 대대장은 바로 이 때가 攻擊力을 증강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연대장에게 예비인 제1중대의 사용을 보고하는 동시에 이 중대로 하여금 목표의 東側背를 强襲케하여 제2중대와 함께 협동 공격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명령을 받은 중대장 金漢基대위는 待機中의 陣容을 가다듬어 09.20부터 △785를 뒤로 하여 東北쪽으로 2.5Km를 약진한 다음 敵陣 背後의 △492에 다다르자 곧 進攻태세를 갖추어 09.50에는 이미 同高地를 掩襲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Byorun 기동부대가 進路를 打開하여 東進하면서 協同공격을 加하니 2개소대 규모의 敵은 正面으로 저항할 겨를도 없이 潰走하므로 중대는 突擊으로 一擧에 이를 점령한 다음 다시 공격방향을 제2목표의 東北쪽으로 겨냥하였다.

이로부터 兩중대는 제2목표의 東北과 西南에서 서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집중공격을 하였는데 退路마저 잃어버린 증감된 중대규모의 敵은 아직도 그 陣地에서 頑强히 버팀으로써 좀처럼 최후 阻止線을 돌파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포병 제18대대(장, 張圭栢소령)에 화력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11.00에 다시 重砲중대의 1個소대를 지원 시키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 제1중대는 △492에서 西南쪽으로 1Km를 突進하여 敵陣 背後의 急襲을 노렸는데 全面防禦로 對應하는 敵勢로 말미암아 紛戰이 야기되었으니, 右第一線소대의 자동소총 사수인 具滋春하사는 右脚 上·下腿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방아쇠를 늦추지 않는가 하면, 中央 第一線의 鄭弘俊하사는 기관총 陣地에 수류탄 3발을 계속 投入하여 敵의 화력을 制壓하고 突擊寸前에서 신음하는 戰友를 구출하여 본즉 通信兵인 그의 囊中에서 5일분의 暗號文書를 回收함으로써 鄭하사는 敵陣격파와 戰友救出에 겸하여 機密保持의 공훈을 세우는 등, 중대의 모든 장병들은 渾身의 力攻으로 一角에서 一隅

를 차례로 격파하였다.

제2중대도 또한 유도된 効力射의 포격지원을 받으면서 분대단위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斷崖를 기어 올랐는데, 仰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우리에 오를 때마다 집중되는 敵火로 말미암아 進退維谷에 빠졌을 무렵에 李載春하사의 組에서 허수아비로써 敵을 欺瞞하여 사격방향을 유도한 다음 不時에 수류탄의 連投로 敵火를 제압하면서 岩壁을 넘어서자 곧 左右의 各組마다 이 好機를 捕捉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三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한 兩중대는 13.20에 全面突擊으로 覆滅的인 타격을 加한 끝에 여기에서 130여명을 盡殺하고 投降者 50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속칭 金日成高地라고 불리우던 제2목표를 掌中에 넣었으며, 그 밖에도 각종 銃砲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라) 이와같이 敵의 堅陣을 공격하는 동안에 대대에서도 60여명의 死傷者를 내었으나, 이날의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여 榛峴里 以西의 高地群을 모두 탈환함으로써 사실상 金城에 이르는 第一關門을 넘어선 셈이 되었으며, 이 戰功으로 雪寃의 一端이 된 것을 自慰하면서 대대는 곧 前進陣地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3중대는 최초의 計劃대로 제1목표를 14.50에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에 引繼한 다음 制限點 東쪽으로 이동하여 陣地작업에 착수하고, 제2중대도 또한 占領한 據點에서 17.00까지 陣地編成을 완료하였으며 제1중대는 다시 △785로 轉進하였다.

3 한편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는 一線 兩대대가 공격 하는 동안 △734와 △785를 連하는 主抵抗線上의 旣設진지를 確保하는 가운데 可用한 화력으로써 隨時로 一線대대를 지원 하였는데 특히 제9중대가 △600를 공격할 때에는 제6중대의 1個소대를 分派하여 直接공격선의 一端을 담당토록 하는 동시에 대대 수색대를 榛峴里 溪谷으로 진출시켜 兩대대간의 중간地帶에서 敵情을 살피게 하였다.

또한 대대의 右側에서는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의 제1대대가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左側에서는 同연대의 제3대대가 제1대대의 진지를 맡아 同時에 사단 주저항선의 東半部를 堅守하였으며 그 西半部는 제31연대가 如前히 確保하는 가운데 수색중대를 松洞(金化 東쪽 5Km) 北쪽의 △433로 내어 보내 공격부대의 左側方을 掩護케 하였다.

다른 한편 사단사령부에서는 참모장 柳銀昌대령의 配慮로 각 참모부마다 차질 없는 지원활동에 專力하였다.

이상과 같은 支援과 掩護下에 이날의 공격을 專擔한 연대는 縱深이 깊은 右一線 敵陣은 비록 격파하지 못하였으나 榛峴里 以西의 要域을 확보하여 前進基地를 마련한 가운데 사단의 計劃에 따라 공격을 중지하고 後圖를 策하기로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의 이번 작전은 비록 局部的인 制限공격이기는 하지만 用兵과 戰場心理의 兩面에서 적지 않은 效果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제32연대가 榛峴里와 芳洞 일대에서 中共 제200사단(장, 李 靜)의 前進據點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右翼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이 또한 白岩山 北쪽의 △819와 登大里 부근에서 그들 제199사단(장, 齊 武)의 수색基地를 탈취함으로써 金城地區에서 버티던 中共 제67군(장, 馬 襲)은 陣地를 引受한지 10여일만에 그 兩翼을 꺾이는 동시에, 緖戰의 痛擊으로 말미암아 有形無形의 萎縮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金城一圓의 防護에만 專念하는 듯 하였으니, 사단 正面에는 제200사단의 主力이 竹垈里—月峰山—楓洞—橋田里 線에서 연일 陣地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보아 金城西南쪽의 高地群을 온통 陣地化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그 일부병력은 △ 633와 間榛峴에서 陣을 친채로 사단의 動靜만을 살피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제200사단 예하의 제598 및 제599團(연대)에 소속되어 아직도 많은 병력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어 一邊倒의 受動으로 기운 탓인지 特記할만한 接戰이 없었다.

한편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나자 그동안 제17연대가 맡고 있던 右一線 진지를 다시 제32연대가 인수하고(23일 10.30까지 교대완료) 左一線은 如前히 제31연대가 담당 하였으며 제17연대는 예비로서 말고개(馬峴)와 高飛木 부근에 집결한 가운데 부대의 再整備와 敵情探索에 注力하였다. 즉,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 火焰放射器와 無反動銃등의 특수장비에 대한 巡廻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有功者를 표창하여 戰力과 士氣를 높이는 한편 거의 每日 수색偵察로 敵情을 파악 하였으니, 이는 장차 金城으로 進擊키 위한 事前준비의 一環이었거니와 이로부터 20일 後인 10월 13일에 군단 예하의 4個사단 (제2, 제6, 美제24, 美제25사단)은 Nomad線을 목표로 進軍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사단 제32연대 제12중대장 申德均중위

(1974. 2. 14. 국방부 특검단에서, 대령)

나는 제3대대(장, 金鼎德소령)의 화기중대장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당시 敵은 赤根山 北쪽의 據點을 상실하게 되면 金城까지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785北쪽의 無名高地에서는 前例없이 집요하게 저항하여 공방전이 반복됨으로써 속칭 이를 金日成高地라고 불렀다.

이때에 우리대대는 右一線으로서 그 東쪽의 △633를 공격 하였으므로 직접 그 대열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633의 敵도 또한 強靭하여 苦戰을 치뤘다.

공격당시 나는 기관총소대를 제9, 제11兩중대에 配屬運用하고 81mm 박격포소대만을 직접지휘하였는데, 우리 기관총소대도 소총중대와 거의 같이 돌격을 감행하다가 朴今奉하사(기관총분대장)의 戰死를 비롯하여 1個분대 병력의 손실을 본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전투가 끝나고 有功者를 표창할때에 우리 중대에도 훈장 4개가 활당 되었는데, 戰功爲主로 하지않고 중대별로 활당 하였기 때문에 시비가 많았다.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海兵隊의 月山嶺附近 防禦 및 搜索戰 (1951년 9월 5일부터 1951년 9월 18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2, 13, 14, 1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東 河
제1대대	장 소령	金	鍾 植
제1중대	장 중위	韓	禎 龍
제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3중대	장 (대리)소위	金	永 祥
제4중대	장 중위	李	基 德
제2대대	장 소령	金	秉 鎬
제5중대	장 중위	李	東 用
제6중대	장 중위	朴	鍾 武
제7중대	장 중위	申	鉉 玉
제8중대	장 중위	朴	正 模
제3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대위	韓	禮 澤 (9. 13부터)
제9중대	장(대리)소위	桂	炳 道
제10중대	장 중위	許	泓
제11중대	장(대리)소위	金	晋 卓
제12중대	장 중위	朴	利 稷

지원부대

美해병제11 연대 장 대령 Custis Burton, Jr.

인접부대

右인접

美해병제7연대 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美해병제1연대 장 대령 Sidney S. Wade (9. 13부터)

美해병제5연대 장 대령 Rickard G. Weede (9. 19부터)

左인접

제5사단 제27연대 장 대령 俞 義 濬

제5사단 제35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敵軍

北傀 제3군단	장	柳	京 洙
제1사단	장	金	春 東
제3연대	장	李	희 제
제14연대	장	高	기 한

병력 : 5,200명 장비 : 120mm 6문
105mm 12문
76mm 23문
75mm 10문
82mm 35문

나. 전투 전의 개황

51년 8월 27일에 해병 제1연대는 Kansas線 北쪽으로 진격하여 戰線의 균형을 유지하고 防禦上 보다 유리한 지형에 따라 그 前線을 선정하려는 美제10군단의 作戰계획에 따라 집결지인 寒溪里에서 坪村 (鎭路 北쪽 20Km)을 목표로 直衝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美해병 제1사단의 左一線이 되어 作命 제36호(8.30.07.00)로 敵이 난공불락을 豪言하던 Punch bowl 北壁인 △924—△1,026—△1,056를 強襲한 끝에 3일만에 이를 점령함으로써 我軍작전에 크게 기여케 되었다.

그러나 『Hays線을 확보하고 방어하라』는 命令에 따라 더 以上의 進擊을 斷念하고 指定된 線上에 연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아울러 右인접인 美해병제1사단 제7연대 및 左인접 제5사단 제27연대와 連繫하기 위한 要旨命令 제108호(9.3.22.15)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9월 4일에 △924 西쪽 능선을 중심으로 右제1선에 제3대대를, △1,026 일대인 중앙제1선에 제1대대를, △1,056 일대 능선에 左제1선으로 제2대대를 配備하였으니 이로써 △924(金日成高地)—西希嶺間의 능선을 따라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 연대 正面에는 처음 北傀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의 제6연대가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9월 1일에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北傀제3군단 예하의 제1사단 제3연대가 이들과 임무를 교대하여 제1, 제2 兩 대대를 제1선에, 그리고 제3대대를 예비로 控置하고 △924—△1,026를 堅守하려는 것으로 推測 되었다. 그러나 연대의 공격으로 이들 또한 潰滅하게 되자 敵은 4일에 同사단 소속 제14연대를 急遽 제1선에 증원 投入한 결과 △1,049(西希嶺 北쪽 5Km)—看霧峰(△1,049 東쪽 3Km)—△1,052(看霧峰 東쪽 1Km) 능선 일대에 主陣地를 형성하는 한편 그 南쪽에 前進陣地를 마련하고 소속부대로써 不規로 出沒하였는데 이는 연대의 진출을 牽制하면서 그 주진지를 강화하여 反擊을 기도코자 하는 것으로 추단 되었다.

따라서 연대 正面에는 사실상 北傀제1사단 제3, 제14의 兩연대가 我제3대대 正面에 제14연대 제3대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我제1대대 正面에 제14연대 제1대대를, 我제1대대 正面에 제14연대 제2대대를 각각 배비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무렵 北傀제3군단은 제1, 제15 兩사단을 제1선에 배비하여 美제10군단 右翼인 제8사단과 中央右翼인 美해병제1사단이 담당하는 正面에 配置하는 同時에 제45사단을 예비로하여 伊布里(西希里 北쪽 10Km)에서 再編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敵이 前線을 증원할 수 있는 부대로서는 예비인 제45사단과 北傀 제2군단의 제2사단 및 中共제63군의 제203사단 그리고 北傀제7군단의 예하 부대들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상황 : 해병제1연대가 美해병제1연대에 배속되어 Punch bowl 東壁에 沿하여 橋洞(坪村 西쪽 2Km)—△793(橋洞 北쪽 4.5Km)—月山嶺을 차례로 踏破하면서 사단목표(3)(△924—△1,026—△1,056)을 공격하는 동안 右인접인 美해병제1사단 제7연대는 제1, 제3 兩대대를 제1선에 내세워 목표(1)(△666일대의 高地帶와 목표(2)(△502—△702)를 併合 공격하고 左인접인 제5사단은 加七峰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美제10군단의 中央右翼인 美해병제1사단은 9월 3일을 기하여 목표(1)(2)(3)를 탈취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 제5연대를 계속 Kansas線에 殘置케 하고 그 제7연대로써 右인접인 我제8사단과 그리고 我해병연대로써 左측 인접인 我제5사단의 제27연대와 각각 連繫토록 하면서 Hays線에 沿한 진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次後 작전의 樣相은 극히 制限될 것이 分明하였으며 단지 前線을 相互 等齊化 하려는데 注力하게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9월 3일에 △924—△1,025—△1,056를 점령하고 Hays線을 방어케 된 해병제1연대는 敵의 역습에 대비하여 각대별로 前方에 대한 敵情을 정찰하게 되었는데, 연대장 金東河대령은 다음날인 4일 21.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 제109호를 하달하여 진지를 강화하면서 當面의 敵情을 探索키로 하였다.

『① 연대는 Hays線을 계속 방어하면서 殘敵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려 한다.

② 각 대대는 增强된 1개소대 규모로써 별명이 있을 때 까지 連日連夜 지정 경로를 밟아 탐색활동을 展開토록 하라. 특히 敵陣地의 수와 위치 및 병력을 살피고 이를 격파할 수 있는 我方의 유리한 地形地物을 선택하라.

③ 연대수색대는 別途 지시한다.

④ 大隊는 萬垈里盆地(亥安盆地 : Punch bowl)에서의 殘敵에 대비하여 진지의 前後 兩面에 所要의 병력을 배비하라.

⑤ 각 대대는 鐵條網을 시급히 가설한 다음 방어진지를 구축하되 漸次로 有蓋化하라.

⑥ 지뢰埋設은 美해병工兵대대에서 담당하나 「부비트랩」의 架設은 別名이 있을 때까지 이를 금한다.

⑦ 夜間에 있어서의 燈火를 관제한다.

⑧ 각 대대는 전날 19.00까지 정찰대의 출발시간과 그 行動豫定을 보고하라.

⑨ 통신대장은 연대 左側부대와 연락할 수 있도록 有線을 가설하라.

⑩ 연대지휘소는 坪村에 위치한다.』

(2) 작전실시

(가) Hays線의 확보(9.5~9.9)

9월 5일 : 연대(장, 金東河 대령)는 전날 17.00에 右로부터 제3, 제1, 제2대대 順으로 Hays線을 占領케 하자, 要旨 命令 제109호로 방어진지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一方, 敵情 수색과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날 연대장은 09.00에 연대 OP(月山嶺 南쪽 1Km인 △752)에서 전날 제1대대의 1개분대규모의 수색대가 진지 前方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다가 10.10에 敵 되각 흔적을 발견한 사실과 2개 분대규모의 敵이 23.30에 제2중대진지를 침습한 사실, 그리고 연대수색소대가 진지 후방인 雲田里(萬垈里 北쪽 1Km)근처를 수색하다가 소수의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계참모들에게 敵 侵襲에 대비하여 야간경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하였다.

1.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제1선에 제10, 제9 양개중대를 전개하고 제11중대를 예비로 공치하여 진지강화에 전력하면서 진지 전후방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날 제10중대(장, 許 泓 중위)의 1개소대는 10.00에 진지를 떠나 진지 전방 도미재(△924 北쪽 1.5Km)를 탐색하였으나 敵과 接觸하지 못하고 14.00에 복귀하였는데 예비인 제11중대(장 대리, 金晋卓 소위)는 上後洞(萬垈里 北쪽 3.5Km)일대를 수색하다가 16.30에 負傷한 敵兵 1명을 사로잡아 연대본부로 압송하였다.

그런데 上後洞 南쪽 萬垈里盆地(玄安盆地)일대는 연대가 橋洞에서 月山嶺으로 능선을 따라 直衝한 관계로 殘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지후방에 대한 경계가 요망되었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전날 23.00에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와 제3중대(장, 金永祥 소위)의 진지 間隙을 뚫고 侵襲한 2개분대규모의 敵과 03.00까지 交戰한 결과 81mm 박격포와 3.5″Rocket포의 탄막사격으로 敵 사살 7명, 소총노획 2정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사 2명, 부상 4명의 손실이 있었다.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은 北傀제1사단의 제3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서 再編 이전에 我軍진지를 威力 搜索하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가 있은 다음 제2중대 1개 소대를 10.30 출동케 하여 △1,026 前方 1.3 Km인 △795 一圓을 威力 정찰케 하였는데 여기에서 수개의 진지線과 敵兵 若干명이 徘徊하는 것을 確認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전날 연대의 左一線으로서 제5사단의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 소령)와 連繫하고 右로부터 제7, 제6, 제5중대를 제1선에 並列하였는데 이날 02.00에 △1,056—△930 계곡을 따라 침습한 數未詳의 敵과 교전한 결과 계획된 火網과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와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의 火力으로 30분 후에 이들을 격퇴하고 2명을 사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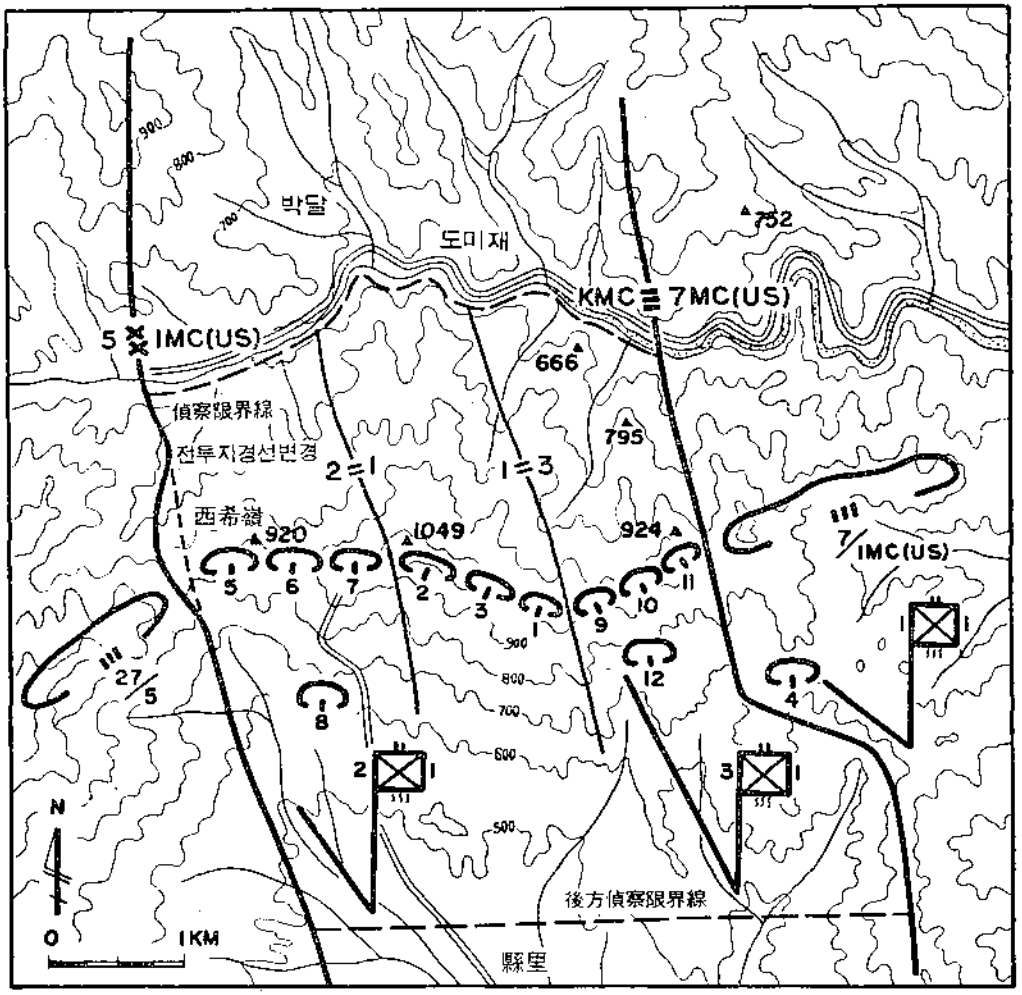
이날 제5중대의 1개소대는 08.00에 계획된 탐색경로를 따라 西希里(△930 北쪽 1.5Km) 東쪽 냇가 北쪽을 수색하다가 敵兵 2명을 사로잡아 15.30에 진지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제5중대가 사로잡은 敵兵은 그 심문에서 北傀제1사단 제14연대소속임을 供述하였는데, 그들 연대는 제3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장차 朴達嶺(南希里 北쪽 1.5Km)으로부터 西希里 東쪽능선을 경유하여 공격할 計劃이라고 하였다.

또 그들 연대는 현재 朴達嶺 西北쪽 능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박격포 9문, 重機 12정, 輕機 18정을 配置하였으며 朴達嶺에는 北傀제3군단 소속 제1사단의 前方 CP와 제14연대의 軍醫所, 그리고 제14연대 제3대대의 供給所가 있다는 것이다.

4. 본부중대(장, 朴東烈 중위)는 이날 수색소대로 하여금 연대 S-2의 지시를 받아 활동케 하면서 연대 OP 후방 △793에서 일부병력으로 공중投下된 군수물자를 收容케 하였는데 이때에 敵의 지뢰폭발로 중상자 1명과 경상자 1명을 내었다.

◇ 상황도 제12호 陣地점령과 偵察限界線(51.9.5 현재)



연대장 金東河 대령은 이날의 戰況에서 미루어 보아 敵의 跳梁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 상호간의 화망交叉를 협의하여 보강토록 각 대대장들에게 긴급지시하는 한편 진지 공사의 進陟을 督勵하였다.

또 연대장은 22.00에 左인접 제5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이 西希嶺(△930 西쪽 600m)西쪽까지 擴大되는 對策으로 다음과 같은 要旨命令 제110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계속 Hays선을 확보하면서 偵察과 探索을 强化하려 한다.

② 각 대대는 要旨命令 제109호에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威力搜索을 强化하라.

③ 제2대대는 인접부대인 제5사단과의 지경선을 20.00부터 별지투명도(상황도 제12 호)와 같이 西쪽으로 연장수정하니 6일 10.00까지 所要의 병력을 配置하라.

④ 新지경선인 戰線도로는 제2대대가 담당한다.

⑤ 각대대는 진지작업진행상황을 매일 17.00까지 보고하라.

⑥ 余는 연대지휘소에 위치하다가 陣地構築現場에 나타날 것이다.』

9월 6일 : 연대는 要旨命令 제110호에 따라 진지의 강화 공사와 敵情에 대한 탐색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이날 연대장은 전날 20.00부로 左인접 제5사단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와의 전투지경선이 西쪽으로 연신됨에 따른 제2대대의 점령상황을 작전주임 金洛泉대위로 하여금 확인토록 현지에 急派하였다. 또 연대장은 情報주임 朴在玉대위로부터 敵情을 청취한 다음 각대의 偵察限界를 전방으로는 陣前 2Km인 昭陽江支流 까지, 후방은 月山里(月山嶺 西南쪽 2.5Km)—上坪(月山里 西쪽 4Km)선으로 지정하였다.

1.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예비로 있던 제11중대(장, 金晋卓 소위)를 右제1선에 參加시켜 右로부터 제11, 제10, 제9중대를 配置하였다. 그런데 이날 04.00에 제12중대(장, 朴利稷 중위)진지에 敵彈 數發이 集中되었으나 이는 敵의 공격준비 사격이 아니었다.

14.00에 제9중대(장, 桂炳道 소위)는 1개소대를 출동케 하여 진지 전방에 대한 敵情을 탐색케 하였는데 이들은 △666 北쪽 500m 능선에서 5발의 사격을 받고 敵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도미재 東쪽 계곡을 경유 18.10에 귀대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이날 右로부터 제1, 제3, 제2중대순으로 제1선에 配置하던중 01.30에 數未詳의 敵과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가 교전케 되었다.

중대는 照明사격과 탄막사격으로 5명을 사살하고 이를 격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며, 이무렵 제1중대는 진지 전방에 장치한 「부비트랩」 4개가 폭발하여 한때 이를 敵侵으로 誤認하기도 하였다.

09.00에 제3중대(장, 金永祥 소위)의 1개소대는 △1,026 前方 2Km지역을 수색하다가 敵의 사격을 받았으나 손실은 없었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전날 要旨命令 제110호에 따라 제5중대(장, 李東用중위)로 하여금 △930 西쪽 西希嶺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케 하고 야간방어에 임하던 中 04.30에 병력未詳의 敵侵을 받게되자 제5, 제6 兩중대의 협동으로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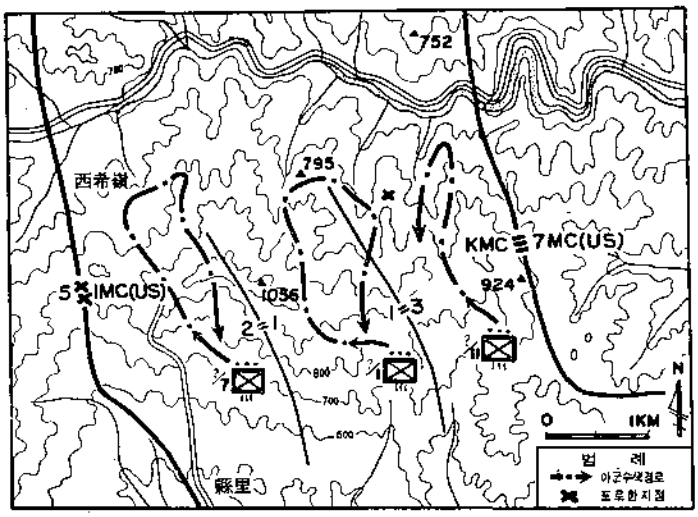
한편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는 이날 08.00에 1개소대를 出動케 하여 敵情을 정찰토록 하였는데 12.30에 西希里부근 高地능선으로 부터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았으나, 潛伏하여 敵의 動靜을 살피다가 16.20에 귀대하였으며, 제8중대(장, 朴正模 중위)는 이날 △735(△930 南쪽 1Km)에서 진지작업중 11.00에 포탄 수발로 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므로 곧 美해병제1사단 의무대대로 후송하였다.

4. 지원부대인 美해병제11연대 제1대대(장, Gordon R. Worthington 중령)는 연대에 파견된 砲兵連絡班을 通하여 이날 晝夜 간단없은 砲擊으로 敵陣을 강타하고 또 美해병 전술항공연락반은 출격한 戰爆機편대를 유도하여 看露峰 敵陣에 대하여 1회의 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7일 : 연대는 전날에 이어 진지작업을 실시하면서 전방에 대한 수색偵察을 계속하였

다(상황도 참조). 이날 연대장 金東河대령은 敵의 連日 계속되는 소부대 침습에 대비하여 各隊로 하여금 예상 침습路에 美해병工兵의 협력으로 지뢰를 매설토록 하는 한편 必要에 따라 鐵條網을 二重으로 補强케 하였는데, 09.00~15.00에 人事主任 趙重次 중위, 軍需主任 白南杓 소령, 政訓官 金得周 대위를 帶同하고 진지를 순방하면서 진지공사의 進陟상황을 살폈다.

◇ 상황도 제13호 9월 7일의 수색경로



1. 제3대대(장, 金濁根 소령)는 △924 西쪽으로부터 無名高地 西側方을 접령하고 계속진 지공사를 실시하면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전방에 대한 주간 정찰을 실시하였다.

제11중대(장, 金晋卓 소위)는 09.00에 依命 1개소대를 출동케 하여 △666 北쪽 昭陽江 支流일대를 탐색케 하였는데 이들은 12.00에 敵의 포사격을 받았으나 계속 임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없이 13.00에 진지로 복귀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야간방어 중 전날 23.30에 제3중대(장, 金永祥소위)正面에서 侵攻을 기도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과 교전하게 되었다. 제3중대장 대리 金소위로부터 敵侵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즉시 敵의 위치를 확인하고 照明사격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중대는 일제사격으로 敵을 격퇴하였다.

그런데 敵은 00.30에 다시 제1중대(장, 韓禎龍 중위)正面에 대하여 輕機, 多發銃, 小銃등으로 侵襲하였으므로 彼我間에 사격전이 10분간 전개되었다. 이 교전에서 중대는 1명을 사살하고 多發銃 1정을 노획하였으며 손실로는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한편 제1중대 1개소대는 중대장 命으로 09.00에 출동하여 전방냇가를 정찰하고 귀대도중 13.00에 △795 西쪽 능선에 潛伏하고 있는 敵 3명을 사로잡고 多發銃 1정, 小銃 1정, 수류탄 3발을 노획하였다.

대대는 이날 17.00에 진지 강화작업을 실시하다가 敵砲彈 30발이 진지에 집중되어 제1중대에서 3명이 부상을 입고, 제2중대와 제4중대(화기중대)에서도 각기 2명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으므로 예상하는 敵 포진지에 대한 포사격을 요청한 결과 30분간에 걸쳐 △752와 △867일대를 강타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 15.30에 CP를 月山嶺으로부터 後里(△1,026 南쪽 2Km)에 이동 開設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이날 05.30에 2개 소대규모의 敵이 夜襲을 기도하였으므로 이를 陣前 10m까지 유인한 다음 수류탄의 投擲과 소총의 일제사격으로 이 敵을 覆滅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사살 15명, 포로 7명을 얻고 장총 3정, 多發銃 3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반면 전사 1명, 부상 1명의 손실이 있었다.

한편 제7중대(장, 申鉉玉 중위)의 1개소대는 이날 예정된 경로를 밟아 08.00에 출동하여 西希里 南쪽 △691일대를 수색하였다.

9월 8일 : 연대는 전날 제2대대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심문하여 이들이 北傀제1사단 제14연대소속 정찰대원임이 判明되었는데 이들은 我軍진지 탐색에 注力하고 있으며 督戰이 加重되고 있다고 하였다.

1.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敵襲없이 진지 補强작업을 續行하면서 要旨명령에 따른 정찰을 强行하였다.

09.00에 출동한 제10중대(장, 許 泓 중위)의 1개소대는 前方 河川 南岸일대를 수색정찰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전날 陣前에서의 敵의 跳梁이 심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09.00에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 陣前에 多發銃 1정을 소지한 敵 3명이 投降하였으므로 이를 연대로 後送하였다.

한편 중대는 1개소대 병력을 抽出하여 09.00부터 정찰토록 하였는데 이들은 도미재 東쪽 1Km 지대를 수색하다가 敵 1명을 사로잡았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전날에 이어 1개소대 규모의 敵이 04.30에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 진지를 노린 결과 30분간의 교전끝에 敵은 5具의 시체를 遺棄하고 潰退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아울러 投降者 3명을 얻었다. 또 08.00에 前方을 정찰차 출동한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의 1개소대는 △930北쪽 1.5Km 계곡에서 敵 1명을 사로 잡았으므로 이날 사로 잡은 자는 모두 4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날 14.00~17.00에 敵 野砲彈 수십발이 대대본부 일대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左인접 제5사단 區域인 西希嶺 西쪽일대 능선에서 我軍과 對峙中인 敵의 射擊으로 판단되었다.

4. 연대를 지원하는 美해병제11연대 제1대대(105mm, 155mm)는 坪村 北쪽 3.5Km에 布陣하면서 이날 01.30~03.00에 3回의 제압 및 요란사격을 실시함으로써 Hays線 방어를 지원하였으며 주간에는 진지 전방 3Km내의 敵陣 10개소를 강타하여 추산 7개소의 포진지와 5개소의 화기진지를 破壞하였다. 그런데 이날 美해병 제11연대 제3대대는 右인접 美해병 제7연대를 직접 지원하여 同 연대의 제1대대와 인접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그 제2, 제4 兩대대는 瑞和里(Kansas線 南쪽 3~4Km)에서 美해병 제1사단을 일반지원하였다.

9월 9일 : 이날 敵의 야간침습과 砲擊활동이 계속되었는데, 연대장 金東河 대령은 이러한 敵情을 분석 판단하기를 이것은 我軍의 제한공격으로 敵이 점차 그 戰線을 정비하고 戰力을 挽回하게 된 徵候이며 더구나 左인접 제5사단과 美제2사단 正面에서 一連의 공세를 取한 것으로 미루어 그들 左翼을 견제키 위한 것으로 추단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각 대대장들에게 指示하기를 『敵 포격에 常時 대비하여 적극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으며 副연대장 高吉勳 중령으로 하여금 工事資材의 需給상황을 點檢토록 하였다.

1. 제3대대는 이날 右인접인 美해병제7연대의 제3대대 D중대와 連繫하면서 전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전개하였다.

제9중대(장, 桂炳道 소위)의 1개소대는 13.00에 출동하여 도미재 東쪽 1Km 일대를 수색하였다.

2. 제1대대는 제9, 제7 兩개중대와 左右 연결하여 Hays線을 방어하면서 수색정찰활동을 전개하였다.

15.40에 제1, 제3 兩중대는 이날 진지補强을 위하여 前方에 障碍物 가설작업을 실시하다가 美해병대의 工兵要員들이 매설한 地雷에 觸發하여 各隊에서 1명씩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그 원인을 규명케 하고 각대로 하여금 지뢰지대에 대한 標識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는 한편 지뢰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 대대는 예정된 정찰계획에 따라 10.00에 제3중대(장, 金永祥 소위)의 1개소대로 敵情을 살피게 하였는데 이들은 11.50에 △795 北端능선(도미재 東쪽 50m)에서 敵 3~4명과 接觸하였다. 20.30에 제2중대 제2소대진지에 敵 3명이 投降하였는데 이들中의 1명은 副소대장으로서 심문 결과 敵은 繼戰과 督戰에 狂奔한다는 것이다.

3. 제2대대는 夜間경비中 04.30에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正面에 敵 1개소대 규모가 나타났으므로 20분간 교전끝에 擊退하고 포로 2명을 얻었다. 중대는 이 전투가 끝난 다음 08.00에 1개소대를 抽出하여 전방 1.7Km에 있는 △1,056 北쪽 左側능선 下端일대를 수색하였다.

또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는 21.00에 左인접인 제5사단의 제35연대 제2대대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警戒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날 07.00~07.15에 대대 CP(△735 南쪽 1Km) 부근에 友軍側의 誤着彈으로 추측되는 105mm 포탄 5발이 떨어져 騷亂을 빚었다. 대대는 곧 美포병연락장교에게 이를 通報하여 是正케 하였으며, 17.00에는 豫期한 敵 포격이 시작되어 15분간에 10발의 野砲彈이 대대 CP 北쪽 150m 일대에 集中하였으나 손실은 없었다.

4. 연대본부 통신대(장, 李判凱 대위)는 일부 병력으로 제2대대의 有線가설과 그 補修작업을 실시하다가 放置된 지뢰로 因하여 2명의 부상자가 있었으나 이에 介意치 않고 陣地작업을 續行하였다.

5. 포병인 美해병제11연대 제1대대는 대대를 직접 지원하여 前後 3차에 걸친 관측사격을 실시하고 5개의 敵 화기진지를 擊滅하였으며 야간에는 敵의 예상集結地와 진지 및 통로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였다.

6. 左인접인 제5사단(장, 閔機植 준장)은 이날 18.30부터 攻勢를 취한 敵과 교전하였으나 事不如意하여 苦戰끝에 이를 支撐치 못하고 △1,210(加七峰 北西쪽 0.7Km)에 失陷케 되었으며 또한 이를 赴援하여 출동한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 제1, 제3 兩중대는 교전중 20.15에 敵에게 包圍되고 그 제5중대는 本隊와의 연락이 杜絶되는 등 苦戰을 겪게 되었다.

한편 제5사단의 左인접부대인 美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은 18.30에 敵의 侵攻으로 △1,065(加七峰 西쪽 2Km)에서 一時 철수케 되어 전황은 다시 樂觀을 不許하게 되었다.

(나) **威力搜索의 强行(9.10~9.14)**

9월 10일 : 연대는 08.00에 美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23—51호를 受領하였다.

『① 美제10군단의 各 부대는 別命이 있을 때에 Hays線 전방에 있는 유리한 진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斷行할 것이며,

군단 右翼인 제8사단은 當사단의 右인접부대로서 △854일대를 점령하고 이를 방어할 것이다.

또 美제5공군은 별도지시에 따라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② 사단은 11일 05.30에 목표 A.B.C(상황도 제14호 참조)를 공격탈취한 다음 次期작전을 준비하려 한다.

③ 美해병제7연대는 11일 05.3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B.C를 점령하라.

④ 해병제1연대는 美제7연대의 목표 A.B.C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면서 할당지역(상황도 참조)내의 정찰임무를 계속하라.』

연대장 金東河 대령은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檢討한 끝에 11.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 제111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진지에서 美제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방에 대한 수색정찰을 강화하려 한다.

② 각 대대는 美제7연대가 목표 A.B.C를 점령할때까지 지정된 구역내에서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목표C 南쪽의 敵에 强壓을 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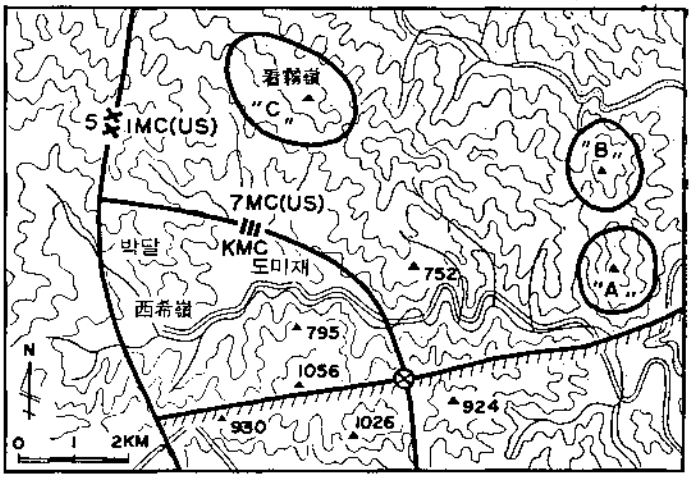
③ 각 대대는 증강 2개소대의 수색대를 編成하여 05.30~20.00 사이에 걸쳐 間斷없는 수색정찰을 실시하라. 1개소대의 수색대는 05.30~12.00間, 나머지 1개소대는 11.00~20.00間에서 활동케 하라.

④ 제3대대는 右인접 美해병제7연대와의 연결을 유지하라.

⑤ 本 수색정찰은 美해병제7연대가 목표 A.B.C를 점령하면 종전계획으로 환원하여 敵情수색활동을 계속하라.

⑥ 연대지휘소는 변동이 없다.』

◇ 상황도 제14호 海兵제1연대 전찰구역



이날의 我軍상황은 이미 공격을 개시한 제8사단(장, 崔榮喜 준장)이 南江과 昭陽江 分水지대인 △602—△854—△772線으로 躍進중이며, 제5사단(장, 閔緩植 준장)은 Hays線을 堅守中이었다.

1. 제3대대(장, 金濁根 소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아침부터 진지를 補强하여 지뢰매설 및 철조망 가설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敵侵襲에 대처하였다.

이날 제11중대(장, 金晋卓 소위)의 제1소대(장, 林孝燮 소위)는 예정된 경로를 따라 09.00부터 △665경유 도미재로 轉進하여 그 일대를 수색정찰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이날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中 15.00에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 제2소대(장, 金東奎 소위) 正面에서 北傀軍 1명이 投降하였는데 이는 北傀 제14연대 제2대대 소속요원으로 오래전부터 歸順을 결심하였으나 그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1중대(장, 韓碩龍 중위)의 1개 소대는 09.30부터 △795 北쪽 능선일대를 정찰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임무수행中 08.05에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에 敵 2명이 投降하였으므로 이들을 대대로 押送, 심문케 하였다. 그리고 제7중대(장, 申鉉玉 중위) 1개소대는 08.00에 前方敵情을 수색하기 위하여 출동하고 西希里 南쪽 △691일대를 정찰한 다음 12.00에 歸隊하였다.

그런데 이날 14.30부터 30분동안 대대는 35발의 敵 포격을 받았는데 이 포격은 대대 CP와 제5, 제8중대진지에 집중되어 한때 敵의 공격준비사격으로 誤判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연대 左側부대인 제5, 美제2 兩개사단 正面에서 공세를 取한 그들이 연대左一線을 제압하려는 기도인 것으로 判明되었다.

4. 한편 美해병제11연대 제1대대는 이날 역시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그간 연대에

배속되었던 육군 제102 박격포 중대(4.2″)의 1개소대는 그 배속이 해제되어 제8사단 지역으로 轉進하였다.

9월 11일 : 연대는 계속 Hays線을 確保하고 要旨命令 제111호에 의거 이날 05.30에 공격을 개시한 美해병 제7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전과 오후 2차에 걸쳐 각기 前方에 대한 수색 정찰을 실시하였는데 연대에 부여한 作命 제23—51호 附表 D 諜報수집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목표 A.B.C의 敵병력

② 北傀제1, 제15 兩사단의 예비연대의 현위치와 그 병력

③ 敵 소부대간의 경계能力

④ 목표 A.B.C에 이르는 敵 보급路

⑤ 敵野砲의 위치, 種類와 그 數量

⑥ 北傀제45사단의 현위치와 그 병력및 임무

1. 제3대대(장, 金濁根 소령)는 연대 命令 제111호에 따라 美해병제7연대를 지원키 위한 수색정찰을 강화실시하기 위하여 작전장교 林東根 중위로 하여금 부대 抽出계획을 작성케 하고 우선 제10, 제9 兩중대에 임무를 賦與 하였다.

제10중대(장, 許 泓 중위)에서 選拔된 1개소대는 06.30에 출동하여 △795—도미재 東쪽에서 敵情을 수색하였으며, 제9중대(장, 桂炳道 소위)의 1개소대는 11.30에 출동하였다.

이들은 12.40에 진지 전방 500m 지역일대를 수색하다가 敵 박격포의 사격을 받았으며, 14.15에는 도미재 北쪽을 통과하다가 敵의 사격을 받게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敵兵 20~30명이 부근에서 활동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각기 1개소대를 抽出케 하여 전방에 대한 수색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는데 06.30에 출동한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 1개소대는 陣前 2Km에서 敵이 구축한 진지 1개소를 발견 조사하고 제3중대(장, 金永祥 소위) 1개소대는 11.00에 진지를 떠나 수색임무를 수행中 12.50에 △574(朴達 東側 능선上 高地)에서 敵 1개분대와 조우하자 이들과 교전하여 부상 1명의 손실끝에 사살 2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날 대대는 19.00에 제1중대(장, 韓禎龍 중위)에서 철조망 가설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 1명이 부상함으로써 이날까지 연대는 我軍지뢰의 폭발사고로 도합 3명이 부상하였다. 또 23.00에는 數을 알수 없는 敵이 제2중대진지에 접근을 시도하다가 중대가 가설한 「부비트랩」에 접촉하여 2명이 폭사하고, 殘敵은 24.00에 潰退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 소령)는 06.00에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에서 1개소대를 選拔하여 10.40에 西希里근처를 수색케 한데에 이어 11.00에는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에서 1개소대를 抽出케 하였다.

이들은 西希里 北쪽 능선上에서 敵 1개분대와 교전하여 1명을 사로잡았다. 또 17.40에는 제5중대 진지로 敵 2명이 투항하였으며 18.30에는 제7중대 前方(△1,056 北쪽 1km)溪谷에 敵3명이 出現하였으므로 이를 追擊하여 그中 1명을 사로 잡았다. 그러나 대대는 17.00에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진지에 敵포탄 6발이 집중되어 4명의 戰死傷者가 있었다.

4. 이날 美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은 05.30에 목표 A를 공격하여 이를 오전중에 점령하고 계속 砲 및 항공지원下에 목표 B를 공격中이었는데 敵의 執拗한 저항과 다량의 地雷로 말미암아 惡戰苦鬪中이고, 左인접 제5사단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 제7중대는 18.30에 加七峰에서 敵의 심한 공격을 받아 紛戰中이었다.

9월 12일 : 1. 제3대대는 06.00에 제11중대(장, 金晋卓 소위) 1개소대를 出動케 하였는데 이들은 △666 西쪽계곡에 60mm 박격포 1문과 경기관총 1정의 진지를 마련한 다음 10.50에 도미재 北쪽高地를 威力수색하고 이어서 제10중대(장, 許泓 중위)의 1개소대는 13.00에 진지를 떠나 14.20에 △666 전방 냇가에서 6발의 敵 박격포사격을 받은 결과 포위치를 추정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 09.00에 右제1선인 제11중대가 △924(金日成高地) 100m 北쪽에서 敵 2명을 사로잡아 연대로 압송하였다.

2. 제1대대는 전날에 계속하여 전방에 대한 敵情을 수집하기 위하여 제1중대(장, 韓禎龍 중위) 및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케 되었는데, 제1중대에서 抽出된 1개소대는 이날 05.00부터 △795 北쪽 下麓에 潛伏하다가 12.00에 歸隊하고 제2중대의 1개소대는 도미재에서 敵 2~3명을 발견하여 交戰하였다. 이어서 19.00에는 敵 1명이 진지로 投降하였다.

이날 대대 正面에는 12.00~14.00에 敵彈 40발이 제1중대와 대대 CP 근처에 집중되었으며 20.00에는 △795—△666—△752에서 敵의 發光신호가 있었다.

3. 제2대대는 이날 제7, 제5 兩중대로 하여금 敵情을 수색 정찰케 하였는데 06.30에 출동한 제7중대(장, 申鉉玉 중위)의 1개소대는 07.50에 △930 北쪽 1Km에서 敵 1명을 사로잡고 이어서 10.00에는 西希里 南쪽 △691에서 또다시 2명을 잡복끝에 사로잡은 다음 12.00에 귀대하였다.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에서 抽出된 1개소대의 수색대는 12.00에 西希里에서 敵 1명을 사로잡은 다음 西希嶺 北쪽 1Km 稜線에서 敵 1개소대-병력을 確認하고 西希里에서 西北으로 通하는 小路邊에는 많은 지뢰가 埋設된 것을 察知하였다.

이리하여 躍進을 거듭한 이들은 14.00에 西希里와 朴達嶺에 흐르는 河川이 合流하는 지점을 통과하다가 敵으로부터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았다. 그런데 대대본부 정보요원은 이날 12.00에 진지 후방 俗稱 돌몰에서 彷徨하는 敵 1명을 사로잡았는데 이는 進擊時에 Pu-

nch bowl을 迂回한 연대의 急進으로 退路가 차단되어 여러 날 逃避中이던 者임이 밝혀졌다

한편 이날부로 연대에 赴任한 韓禮澤 대위가 金潤根소령과 교대케 되었으나 韓 대위의 부대지휘는 사실상 인수인계 관계로 13일부터 시작되었다.

4. 인접부대 상황으로는 이날 美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가 17.40에 목표 B를 점령하자 24.00에 그들 제1연대(장, Sidney S. Wade 대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美제10군단의 예비가 되었으며 左側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加七峰을 확보하면서 그 西北쪽 △1,210를 공격하고 있었다.

9월 13일 : 연대는 이날 각대에서 抽出 出動한 수색정찰隊가 활동中 각처에서 接敵하므로 말미암아 交戰하게 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敵도 역시 그들 主진지를 欺騙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제3대대(장, 韓禮澤대위)는 전날에 이어 07.00에 제9중대의 1개소대가 출동하여 敵陣 깊숙히 △645 北쪽 800m까지 들어가 敵情을 정찰하다가 09.15에 敵으로부터 82mm 박격포 사격을 받고 그 포진지를 확인한 然後에 12.25에 귀대하였으며, 한편 제11중대의 1개소대는 13.00부터 △752—△645를 수색하다가 또한 敵으로부터 重機사격을 받아 10분간 接戰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소령)는 이날 要旨命令 제111호에 의거 계속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05.30에 제2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出動케 하였다. 이들은 09.30에 △795 경유 도미재 北쪽 △574를 수색하여 敵 有蓋진지 3개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11.40에 출동한 제3중대의 1개소대는 13.40에 △645 北쪽에서 敵 1개분대병력을 발견하고 집중사격으로 驅退하였다. 제2중대에서는 07.00에 投降者 1명을 얻었다.

3. 제2대대(장, 金秉錡소령)는 제6중대의 1개소대가 05.30부터 △930 北쪽 1.2Km의 突出部를 수색하다가 그 東쪽 능선에 潛伏中인 敵 1개소대로부터 경기 및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아 應戰하였으나 地形의 불리로 말미암아 苦戰하였다. 이들은 10.25에 本隊로부터 赴援한 1개소대의 도움을 얻어 敵을 격퇴하고 1명의 敵을 사로잡은 다음 13.00에 歸陣하였다.

또 제7중대의 1개소대는 11.10부터 △1,056 北쪽 1Km 西側능선에서 敵 2명을 발견한 다음 이들을 追擊하여 14.00에 西希里河川 南쪽에서 모두 사로잡고 동시에 이들의 휴대무기인 俄式小銃 2정을 노획하였다.

이날 제6중대에는 15.25에 敵 1명이 投降하였으므로 대대로 즉시 後送하였다.

4. 연대를 지원하는 美해병제11연대 제1대대는 계속 방어 正面에 예상 敵陣를 강타하고 右인접인 美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은 이날 제7연대의 D, E 兩개중대가 목표 B에 배비하였으며 제1연대의 G중대는 △752(도미재 東北쪽 2Km)南麓에, 제I중대는 鶴골 東南쪽 1Km에 進出하고 있었다.

9월 14일 : 이날 연대는 續出하는 敵의 投降兵을 얻어 士氣가 高揚되었다.

1. 제3대대(장, 韓禮澤대위)는 右인접 美해병제1사단 예하부대와 連繫하면서 敵情수색을 강화하여 06.00~11.30까지에는 제9중대의 1개소대가, 그리고 11.00~17.00까지는 제11중대의 1개소대가 각기 출동하여 敵 2명을 사로잡았다.

2. 제1대대(장, 金鍾植소령)는 이날 제3중대에서 1개소대가 05.00부터 진지를 떠나 10.00에 도미재 北쪽 1Km 일대를 수색하였으며 이어서 제1중대에서 抽出된 1개소대는 11.30~17.20에 예정된 경로를 踏破하여 △775(도미재 北西쪽 1Km)를 주로 정찰하였다.

이날 대대는 제6중대 제2소대진지에 敵 1명이 投降하여 이를 收容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소령)는 제5중대의 1개소대가 06.20~12.30에, 그리고 제7중대의 1개소대가 13.00~16.20에 各各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제5중대는 주로 西希里 근처를, 제7중대는 西希里 東쪽 1Km지점 일대를 정찰하였다. 이들은 이날 활동에서 제7중대가 敵 7명과 교전하고 4명을 사로 잡았다.

4. 右인접인 美해병제1사단의 제1연대는 목표 C를 점령키 위한 공격을 계속하여 24.00현재 鶴골 南쪽 1.2Km인 △752로 進出하고 左인접 제5사단은 계속 △1,210를 공격중이었다.

(다) 新 Hays線의 掌握(9.15~9.18)

9월 15일 : 연대장 金東河대령은 美해병제1사단으로 부터 『제102 박격포중대(4.2″)를 배속 받아 방어선을 東쪽으로 延伸점령하라.』는 作命을 수령하고 이날 18.00을 기하여 이를 決行키로 결심한 다음 17.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 제112호를 하달하였다.

『① 美해병제5연대는 美해병 제1연대의 作戰임무를 인수하고 16일 07.30를 期하여 목표 D를 공격할 것이며 美해병 제1연대는 목표 B를 확보하면서 殘敵을 격멸할 것이다.

② 연대는 Hays線의 방어선을 일부 연장하여 확보하고 전방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18.00에 제2중대로 하여금 △752로 轉進케 하여 美해병제1연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殘餘부대는 16일 08.00에 별지 투명도와 같이 配備하라(상황도 참조).

④ 제3대대는 △924—△1,026線을 담당 방어하라.

⑤ 제2대대는 △1,026로부터 사단左翼 地境까지 담당 방어하라.

⑥ 제102 박격포중대(4.2″)는 別命이 있을 때 Hays線의 방어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⑦ 각대의 地境線은 별지 투명도(상황도 참조)와 같으며, 수색 정찰활동을 계속 강화하면서 포로획득에 注力하라.

⑧ 제2대대는 60명, 제3대대는 120명의 작업인원을 뽑아 제1대대의 轉進에 따른 탄약운

반에 充當할 것이며 제1대대는 탄약운반이 끝나는 즉시 原隊에 복귀케 하라.

⑨ 통신대장은 제1대대의 新방어선까지 有線을 架設하라.

⑩ 연대지휘소는 계속 坪村에 位置한다.』

1. 제1대대는 이날 06.00~12.20과 11.00~16.00의 2개 區分으로 從來의 점령진지에서 제1, 제2중대로 하여금 각기 1개소대를 抽出케 하여 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제2중대의 1개소대는 13.30에 도미재를 수색하다가 敵 1개소대 규모병력과 30분간 교전끝에 부상자 1명을 내었다. 그런데 제3중대 제2중대진지에 10.30과 15.00 및 19.00의 3次에 걸쳐 敵 9명이 歸順하였으므로 대대에 移送하였다.

한편 제2중대는 命令 제112호에 따라 제2대대 제7중대와 18.55에 진지를 교대하고 美해병대가 점령中인 △752로 進出하여 연대 右一線으로 進出케 된 대대의 先鋒을 담당하였다.

2. 제3대대는 이날 08.00에 제9중대에 投降한 敵 2명을 移送한데 이어 제9, 제11兩중대의 진지를 서로 교환하여 配置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11중대의 1개소대는 10.00~13.30에, 제10중대의 1개소대는 13.00~16.00에 각기 敵情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3. 제2대대는 이날 제7, 제5 兩중대로 하여금 수색활동을 전개 하였는데 제7중대 1개소대는 07.00~12.00까지 朴達 東南쪽 500m 지역을, 제5중대의 1개소대는 11.00~19.00에 제7중대가 수색한 同一지역을 수색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이날 대대방어 구역이 東쪽으로 넓어짐에 따라 이날 18.55에 제2중대진지를 인수하고 방어하였다.

4. 右인접인 美해병제1연대는 이날 美제8軍 命令으로 목표 C의 공격을 中止하고 계속 목표 B를 확보하였으며 美해병제5연대는 목표 D(△812)를 다음날 07.00에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9월 16일 : 이날 연대는 新 Hays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지를 再編케 됨에 따라 제1대대가 연대 右제1선으로 進出한 다음 美해병제1연대진지를 인수하였으며 제3, 제2대대는 △1,026를 基點으로 제1대대 舊진지를 東西로 分割점령함으로써 연대의 방어 正面은 7Km로 延伸되었다.

이런 관계로 제1대대는 전방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제3, 제2 兩대대는 陣地轉換에도 불구하고 敵情수색을 계속하였다.

1.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전날 新진지로 轉進한 제2중대(장, 李應德중위)에 이어서 08.10에 제1, 제3, 제4중대가 일제히 진지를 제3, 제2 兩대대에 인계 완료한 다음 부대기동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6.30에 제3, 제2 兩대대로 부터 지원된 180명의 작업인원의 도움을 받아 제2중대를 △752에, 제3중대를 △752 北쪽 냇가로부터 △924 北쪽 1Km에, 제1중대를 △924 北쪽 1Km로부터 △924에 전개하여 右로부터 제2, 제3, 제1중대 순으로

제1선에 배비하고 제4중대(火器중대)를 △924 南쪽에, 대대본부를 月山嶺에 開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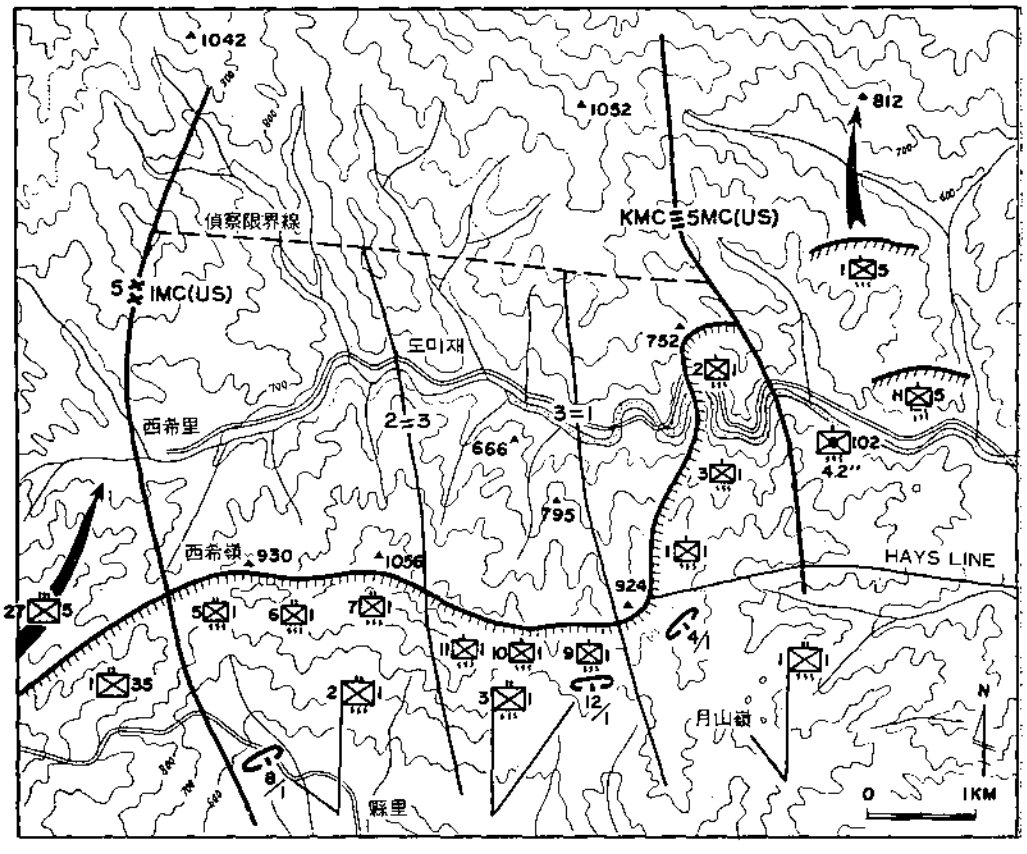
이날 대대는 新진지의 점령에서 2件의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로 말미암아 제3중대에서 1명, 제1중대에서 2명이 부상하는 손실이 있으며 또 敵의 狙擊으로 제2중대에서 1명, 제3중대에서 2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2. 제3대대(장, 韓禮澤대위)는 09.10에 右로부터 제9, 제10, 제11중대 順으로 △924—△1,026間에 配備完了하였는데 09.30~10.00에 제10중대(장, 許 泓중위)陣地 후방에 敵포탄 15발이 집중되었으나 인명손실은 없었다.

13.00에 敵情수색차 출동한 제9중대(장, 대리 桂炳道소위)의 1개소대는 15.00에 도미재 北쪽 高地에서 敵 2명을 발견하자 곧 이들을 사로잡고 多發銃 1정을 노획하여 17.30에 제11중대(장, 金晋卓소위)는 진지 구축작업中에 지뢰폭발로 1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3. 제2대대(장, 金秉鎬소령)는 전날 제2중대진지를 제7중대에 引繼한 다음 10.05부터 △1,026—西希嶺間을 右로부터 제7, 제6, 제5중대 順으로 제1선에 配置하고 左인접 제5사단 제35연대와 계속 連繫를 維持하였다.

◇ 상황도 제15호 9월 16일의 部隊展開



한편 敵情수집차 80.00에 출동한 제5중대(장, 李東用중위)의 1개소대는 西希里 東北쪽 高地를 정찰하고 14.10에 귀대하였으며 14.50에 출동한 제7중대(장, 申鉉玉중위)의 1개소대는 진지 전방 1Km에서 敵 2명을 사로 잡았다.

4. 연대 右인접인 美해병제1사단은 이날도 전날 상황과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左인접인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 제3대대가 △1,210에 대한 공격을 零時에 재개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膠着됨에 따라 잔여부대로 하여금 이날 18.50에 또다시 공격을 감행하고 제35연대 제1대대는 Hays線에서 연대와 연결하면서 방어진지를 編成하고 있었다.

9월 17일 : 연대장 金東河대령은 右제1선으로 進出하여 새로운 陣地線을 점령한 제1대대 장병들에게 指示하기를 『陣地를 강화하고 右인접 美해병제5연대와 早速히 連繫하라』고 激勵하는 한편 진지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색소대를 이에 배속하는 方案을 檢討하였다.

특히 이날 제1중대 正面에서의 敵의 出沒이 빈번하기에 이르자 22.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 제113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新 Hays線을 확보하고 수색정찰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수색소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려 한다.

② 제1대대장은 別命이 있을 때까지 수색소대로 하여금 전방에 대한 偵察을 실시케 하며 敵情을 入手토록 하라.

③ 수색소대장은 18일 10.00에 소대를 지휘하여 제1대대진지로 轉進하는 즉시 제1대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④ 다음과 같이 작업요원을 抽出하여 제1대대장의 지휘를 받게하라.

제1대대 40名, 제2대대 10名.

⑤ 其他 細部에 대하여서는 本部 各主任將校로 하여금 指示토록 한다.』

1. 제1대대장은 이날 09.00에 제3중대에서 1명의 投降者를 얻어 必要한 審問을 하도록 하였으며 16.00에는 제2중대가 진지를 補强하다가 敵의 사격을 받아 2명의 부상자를 보았다. 대대는 이날 21.50에 제2중대 진지 전방 50m에 敵 2개중대 병력이 접근하여 사격으로 牽制하는 一方으로 이틈을 타 散兵壕를 구축하는 것을 確認함에 따라 이들과 接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2. 제3대대는 이날 진지방어와 併行하여 전날과 같이 敵情 수색활동을 전개하였는데 07.00에 출동한 제11중대의 1개소대는 08.00에 △666 北쪽 下麓에서 敵兵 2명을 사로잡은 다음 10.00에 △752 西쪽 능선에 진출하여 搜索중 敵으로부터 15발의 박격포사격을 받았다.

또 제10중대의 1개소대는 이날 13.00에 出動하여 △666 西쪽 溪谷을 수색하였다.

3. 제2대대는 이날 03.00 제5중대(장, 李東用중위) 正面에 敵 1개소대 규모의 兵力이 侵襲하였으므로 05,30에 擊退하였는데 이 接戰의 결과로 捕虜 1명을 얻었고 14.30~19.00

에는 投降者 3명을 後送하였는데 이날 중대는 지뢰폭발과 부비트랩 접촉으로 2명이 전상을 입는 손실이 있었다. 그리고 제6중대(장, 朴鍾武중위)는 1개소대가 13.00에 출동하여 △795 西北쪽 1Km 일대를 수색하였다.

9월 18일 : 연대는 이날 敵으로부터 前後 4回의 소부대 침습을 받아 교전끝에 擊退하고 계속 新 Hays線을 堅守하면서 敵情수색활동을 續行하였다.

1. 제1대대(장, 金鍾植소령)는 제2중대 진지전방에 侵襲하여 散兵壕를 구축하려는 敵과 對峙하여 전날 22.00부터 이날 05.00에 이르기까지 砲兵射擊을 요청하여 敵을 潰滅케 하였으나 10.00에 또다시 수를 알수 없는 一團의 敵이 침공을 기도하였으므로 20분간의 교전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2. 제3대대(장, 韓禮澤대위)는 계속 敵情을 수집키 위하여 제10중대(장, 許 泓중위)의 1개소대로 하여금 07.00에 출동케 하였는데, 이들은 09.30에 △666 北쪽 냇가부근을 수색하다가 敵과 10분간 교전하였다.

제9중대(장, 桂炳道소위)는 1개소대를 抽出하여 13.00에 출동케 하였는바 이들은 14.30에 △752 西南쪽 1Km를 通過中, 敵으로 부터 심한 重機사격을 받았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 18.15~18.45에 제10, 제11 兩중대 진지에 敵 박격포탄 10발이 집중되었으나 인명손실은 없었다.

3. 제2대대(장, 金秉鎬소령)는 00.45에 제7, 제5 兩중대가 占領中인 陣地에 敵 1개소대규모 병력이 侵襲함에 이르러 彼我間 교전이 전개되었고 14.30에는 또 다시 제5중대 진지에 1개소대 규모의 敵이 再侵을 기도하므로 20분간의 교전결과 이를 모두 擊退하고 말았다.

한편 수색대는 이날 제7중대(장, 申鉉玉중위)와 제6중대(장, 朴鍾武중위)에서 각각 1개소대씩 抽出하여 06.00~12.15과 12.15~16.40에 敵情에 대한 수색활동을 벌였는데 前者는 이날 陣前 500m를 수색하다가 敵 3명을 사로잡았으며 後者는 도미재 西쪽 1Km를 수색하였다.

4. 수색소대는 이날 10.00를 期하여 要旨命令 제112호에 따라 제1대대에 배속되자 제1대대 前方 △752 北쪽에 대한 敵情 수색활동을 專擔케 되었는데 이날 연대에는 98명의 보충병이 航空便으로 도착하여 연대兵力을 增强케 됨으로써 △924—△1,026—△1,056 공격戰 이래 입은 인명손실을 補充케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新 Hays線上에 제1, 제3, 제2의 各대대를 전개한 해병제1연대는 18일 이후에도 休戰會談과 관련된 我軍작전의 제한방침에 따라 계속 美해병제1사단의 左翼부대로서 Punch bowl 北壁의 要衝을 담당하여 52년 3월 17일까지 189일간을 同一地域에서 敵과 대치한채로 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기간중 연대는 要旨命令 제114호~제147호로 主陣地를 강화하면서 전지방어에 專念하는 一方으로는 敵情에 대한 수색활동을 間斷없이 실시하였는데 부대配置에 있어서 變動한 狀況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10월 8일 要旨命令 제116호에 의거하여 CP를 坪村에서 月山里(玄安盆地內)로 推進開設한데에 이어 同월 20일에는 要旨命令 제117호에 따라 左一線에 배치된 제2대대가 제3사단 제18연대 제3대대에게 진지를 引繼하고 예비가 되었으며 11월 7일에는 要旨命令 제122호로 제3대대가 예비가 됨으로써 제2대대는 다시 제1선에 復歸하였다.

② 연대 右一線에서 인접 美해병대와 連繫하여 임무를 수행中이던 제1대대는 52년 1월 20일에 예비가 되었으나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同년 2월 16일에 左一線에 赴援케 되었으며 3월 8일에는 제2대대가 제1선에 배비되었다.

③ 한편 연대는 그간 화력지원에 있어서 美해병제11연대로부터 105mm의 적접 지원을 받아 왔으나 51년 12월 16일에 해병포병대대가 鎭海에서 編成을 완료하고 戰線에 參加하게 됨에 따라 화력을 증강하였다.

④ 그리고 지휘면에서의 變動은 제2대대장이 51년 12월 13일에 交替되어 朴成哲 소령이 赴任케 되었고 52년 2월 10일에는 제1대대장이 交代되어 南相徽 중령이 就任하였다.

⑤ 연대는 이리하여 彼我의 對陣이 長期化함에 따라 조성케 된 戰線의 小康상태속에서 敵陣을 撃砕하는 등 그들 활동에 대한 先制와 포로획득을 위한 수색정찰을 續行하는 한편 예비대를 보유하면서부터 戰技연마에도 주력하다가 要旨命令 제148호~제149호에 따라 52년 3월 18일 진지를 美제25사단에 인계하는 즉시로 西部 長湍지구로 轉進한 다음 首都방위를 擔當하게 되었다.

⑥ 敵은 기간중 계속 연대 正面에 北傀 제1사단의 제3, 제14 兩연대를 배비하여 그들 역시 진지를 강화하고 정찰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彼我의 수색대는 번번히 충돌하고 소규모의 接戰은 年中行事와 같이 持續되었다.

⑦ 我軍의 상황으로는 51년 9월 20일에 美제10군단 右翼인 제8사단이 左翼으로 轉進케 됨에 따라 美해병제1사단이 이를 引受하여 東쪽으로 전선을 延伸 점령하고 10월 20일에는 左인접으로 제3사단이 進出하여 제5사단 및 해병제1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였는데 11월 22일에는 제3사단이 다시 美제7사단과 전선을 교대하였다. 以上 各項이 그뒤의 狀況變動의 槪要인데 本 捜索戰에서 연대가 Hays線, 新 Hays線을 점령 완료한 9월 5일~18일 동안의 전과는 사살 18명, 捕虜 22명과 노획으로 俄式小銃 3정, 多發銃 2정에 달하였으며 손실은 전사 6명, 부상이 15명이었다.

이를 다시 52년 3월 17일까지의 月山嶺에서의 防禦期로 通算하면 그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274명	自動小銃	4정
捕虜	192명	俄式小銃	29정
歸順	18명	對空砲	1문
鹵獲		多發銃	33정
重機	3정	手榴彈	72개
輕機	5정	陣地破壞	262개소

損　　失

戰死	78명	M 1	1정
負傷	355명	陣地破壞	10개소
失踪	8명		

§ 參戰者의 證言

◇ 제3대대 제10중대 제3소대장 申仁均 소위

(1966. 3. 9, 해병대사령부에서, 증령)

月山嶺 방어때 1주일에 한번씩 潛伏근무를 실시하고 야간 潛伏은 눈이 많이 오는 때만 실시한 기억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없지만 한번 수색을 나갔다가 우리에게 배속된 美포병 연락장교등 65명~75명의 소대가 敵과 조우하여 큰 손실을 自招할번한 일이 있다.

金日成高地에서 주간 수색대가 出動할 때에는 목적지도 없고 敵과 接戰할때 까지는 그대로 前進만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므로 接戰하지 않을때에는 江을 건너서 敵쪽 깊이 侵透할 때가 非一非再하였다.

어느날 수색정찰을 마치고 歸隊하는 途中 어느 봉우리에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不時에 衝突되었는데 이들은 우리의 수색경로를 확인하고 그 주위에 兵力을 潛伏시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은 我소대가 실시한 急襲사격에 놀라 그들의 위치가 폭로된 것으로 誤認하고 당황한 나머지 早期에 合擊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리한 지형을 점령한 우리들은 陽攻으로써 兵力을 과장하고 그들이 右往左往하는 사이에 死地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제2대대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

(1965. 5. 1, 해병제1사단 인사참모실에서, 대령)

나는 제5중대장으로서 月山嶺방어전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歸順兵이 많았다. 우리가 偵察을 나가면 귀순병들이 전방에 있는 수수밭에 숨어서 그들의 상전의 눈을 피했고 개중에는 많은 자료을 소지하고 투항한 자도 있었는 바 이들의 태반은「감냉이」를 식량으로 하고 있는듯 호주머니에 가득 넣고 있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포로가운데 고향이 黃州라는 17세의 소년이 있어 포로 收容所에 押送되는 것이 애처러워 중대에서 한동안 靜養케 한다음 傳令근무케 한바 있었다.

방어전이 長期化하는 동안 彼我는 정찰전으로 對陣하게 되면서 敵은 해질 무렵에 陣前에 와 있다가 야간침습을 기만하기 위하여『해병대다. 해병대다. 사람살려라』는 등 我軍을 가장하는 野卑한 戰術까지도 恣行하였다. 당시 우리들은 射擊 군기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투경험이 없는 新兵들이 조그마한 이상이 있어도 怯에 질려 사격을 함으로써 敵情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까닭이었다.

나중 해병대는 육군제18연대와 交代하고 長湍地區로 이동하였다.

9. 美 海兵隊의 Punch bowl 附近 戰鬪

제1단계 작전(1951년 8월 31일부터 1951년 9월 3일까지)
제2단계 작전(1951년 9월 11일부터 1951년 9월 20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16, 17, 1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제1사단 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연대 장 대령 Sidney S. Wade
제1대대 장
중령 Horace E. Knapp, Jr.
대리
소령 Edgar F. Carney, Jr.
(9. 14 부터)
중령 John E. Gorman
(9. 16 부터)
제2대대 장 중령 Franklin B. Nihart
제3대대 장 중령 Foster C. Lahue
제5연대 장 대령 Richard G. Weede
제1대대 장 중령 William P. Alston
제2대대 장 중령 Houston Stiff
제3대대 장 중령 Donald R. Kennedy
제7연대 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제1대대 장 중령 James G. Kelly
제2대대 장 중령 Louis C. Griffin
제3대대 장 중령 Bernard T. Kelly
제11연대 장 대령 Custis Burton, Jr.
제1대대 장 대리
소령 Gordon R. Worthington
중령 Sherman W. Parry
(9. 13 부터)
제2대대 장 중령 Dale H. Heely
제3대대 장 중령 William McReynolds
대리 소령 James R. Haynes
(9. 6 부터)
제4대대 장 대리
소령 Norman A. Miller, Jr.
중령 Louis A. Jones
(9. 6 부터)
제1전차대대 장 중령 Holly H. Evans
해병 제161HR수송대대 장
중령 George W. Herring
제1공병대대 장 중령 John V. Kelsey
제1해병비행단 장
소장 Christian F. Schilt
배속부대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大 植
중령 金 東 河
(9. 1 부터)

敵　　軍

北傀 제3군단 제1사단

병력 : 5,200명

장비 : 122mm 野砲 6문
105mm 〃 12문
76mm 直射砲 23문
75mm 山 砲 10문
82mm 迫擊砲 35문

나. 전투 전의 개황

그동안 紛糾만을 거듭한 休戰會談이 8월 22일부터 끝내 中斷됨으로써 戰線에서는 다시 活氣를 띄게 되고 緊張度가 한층 增大되었다.

이때 해병 제1사단(장, Gerald C.Thomas 소장)은 제10군단의 명령으로 다시 戰線에 投入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 8월 30일 및 31일 양일간의 航空偵察보고에 의하면 砲兵 및 기타 지원부대로 增強된 1개사단 규모의 敵이 看雰峰(麟蹄 北쪽 34Km) 일대에서 Punch bowl 北端으로 南進中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때에 군단情報에서는 同부대는 北傀 제2군단과 戰線을 交替하기 위하여 末嬅里(杆城 西쪽 30Km) 一帶에서 南下한 北傀 제3군단 예하의 제1사단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同사단은 北傀軍에서는 精銳부대로 알려졌으며 그간 후방에서 편성과 장비를 一新하고 戰略上의 要地인 Punch bowl을 固守할 임무를 띠고 戰線에 나타난 듯 하였다.

이리하여 임무교대를 완료한 敵사단은 Punch bowl北方의 △924—△1,026 일대와 그 東北方의 △702—△602 일대, 그리고 看雰峰 東南方의 △1,052—△980—△812 일대에 各 1개연대 규모를 配置하고 休戰會談 기간의 小康을 이용하여 二重 三重으로 構築한 진지와 增強된 화력을 믿고 固守無退를 豪言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정보에서 입수한 敵의 능력 判斷은 다음과 같다.

병　력 : 5,200명
장　비 : 122mm 野　砲　6문
105mm 野　砲　12문
76mm 直射砲　23문
75mm 山　砲　10문
82mm 迫擊砲　35문

我軍의 상황 : 사단은 洪川 지역에서 1개월간 군단豫備隊로 있는 동안 대부분의 전투요원을 새로 交替하고 充員하였으며 그간 實戰的으로 훈련하였으므로 戰力面에서는 補強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때 사단의 병력 수준은 장교 1,386명, 사병 24,044명으로 총 25,430명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마침내 8월 27일 야간을 이용하여 계속 쏟아지는 豪雨속에 集結地를 떠나 前線을 목표로 車輛機動을 시작하였는데 昭陽江이 氾濫하고 도처에 洪水와 沙汰가 일어나 洪川—麟蹄—元通을 잇는 通路는 물속에 잠긴 탓으로 온갖 難關을 극복하면서 徹夜로 強行軍 끝에 28일 아침에는 新集結地인 坪村(麟蹄 北쪽 21Km)에 進出하였으며, 즉시 Kansas線을 確保하면서 제2사단과 한국 제8사단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 1 단계 작전(Hays線 공격전)

(가) 작전 계획

Kansas線에서 陣地를 인수한 사단은 前進基地를 설치하는 한편 Punch bowl東北方의 군단목표 "Yoke"를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8월 30일에 사단作命 22—51로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Kansas線을 계속 유지하면서 8월 31일 06.00를 기하여 목표 "Yoke"를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지역내 Kansas線을 유지하고 8월 31일 06.00에 사단목표 "1" 및 "2"를 공격 점령하라.

③ 한국해병 제 1연대는 지역내 Kansas線을 유지하고 8월 31일 06.00에 사단목표 "3"을 공격 점령하라.

④ 제5연대는 Kansas線을 따라 사단지역을 정찰하고 방어시설을 보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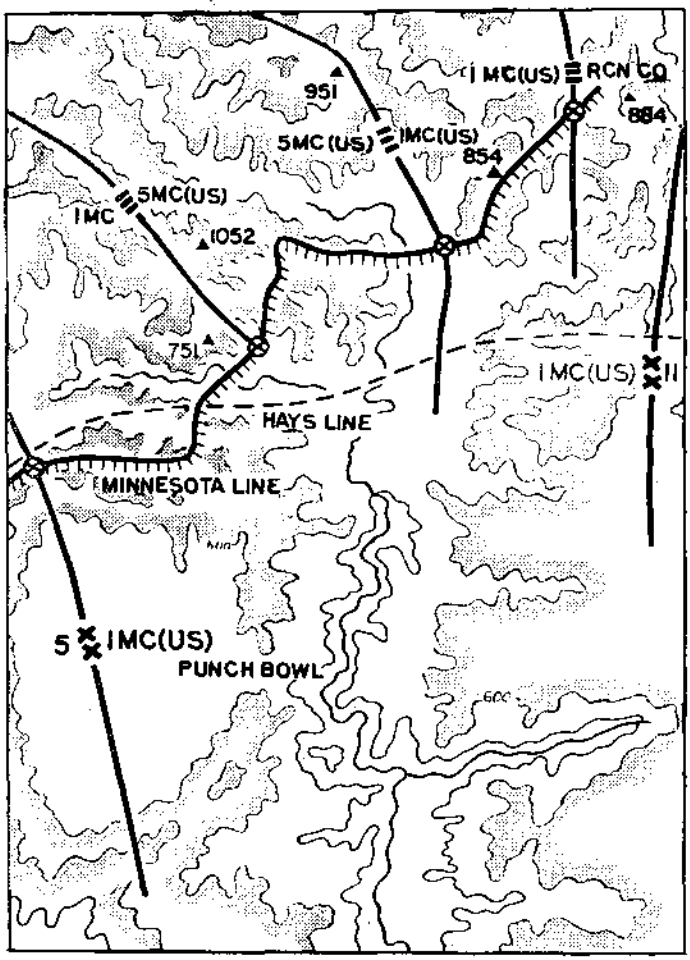
⑤ 제11포병연대는 공격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제1전차대대는 사단을 일반지원하고 依命 공격부대에 배속할 준비를 하라.

⑦ 수색중대는 Punch bowl일대를 수색하여 殘敵을 격멸하고 공격부대의 측후방을 방호하라.

⑧ 사단CP는 陽地村에 위치하며 공격간의 통신은 무선을 主로 하고 목표점령후에는 유선을 主로 사용한다.』

◇상황도 제16호 美海兵 Punch bowl 戰鬪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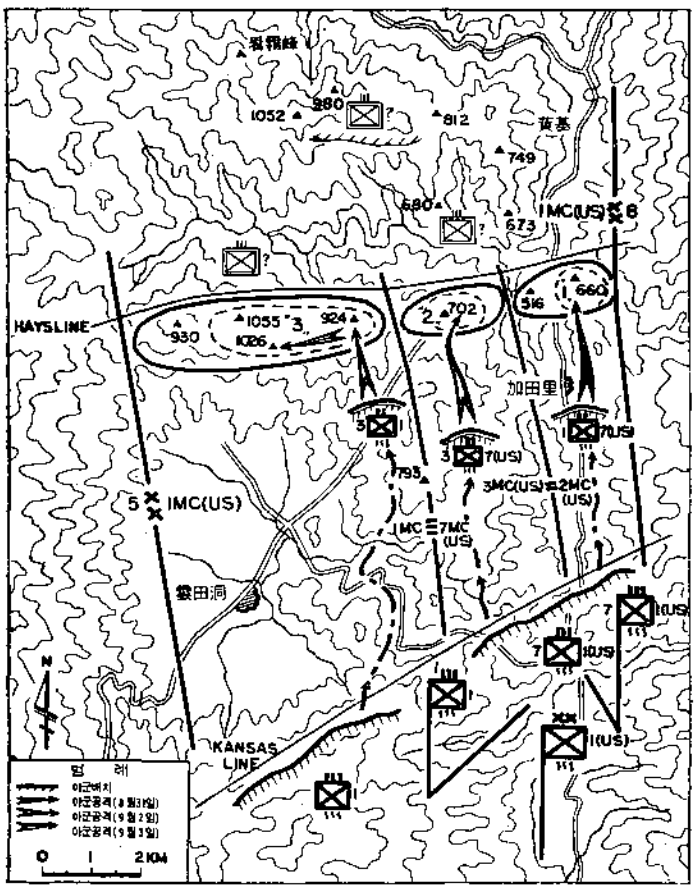
(나) 작전 실시

8월 31일 : 사단은 이날 Punch bowl東北方의 군단목표 "Yoke"를 占領 확보하기 위하여 제7연대를 右側 第一線에 配備하고 사단목표 "1" 및 "2"를 공격하는 한편 한국해병 제1연대를 左側 第一線에서 목표 "3"을 각각 공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는 이날 공격에 앞서 연대 정찰대로 하여금 목표지역을 정탐토록 하였다. 그런데 同정찰대는 10.00에 △683 후방에 敵 1개대대가 集結中인 것을 발견하고 砲擊을 誘導하여 이를 擊碎하였는데 砲彈은 地軸을 뒤흔들고 焰煙은 人員과 裝備를 가리지 않고 空中에 亂舞케 하였다.

연대장 Nickerson 대령은 이를 契機로 제1대대는 右一線에서 △516 및 △666에 進擊토록 하고 제3대대는 左一線에서 △702에 대한 공격을 감행토록 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Bernard T. Kelly 중령)는 初期에 가벼운 敵의 저항을 받으면서 前進하였으나 敵의 拒守는 점차로 熾烈化하고 地雷源과 집중화력으로 말미암아 공격은 停滯되었다.

◇상황도 제17호 제1단계 작전



이때에 昭陽江의 越邊에서 進擊中인 제1대대가 迫擊砲로써 대대의 進路를 타개하는 가운데 200m前方에 있는 한 유리한 능선을 奪取함으로써 進擊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날 제1대대(장, James G. Kelly 중령)는 연대 右一線으로 비교적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擊退하면서 △516와 △666를 逐次로 점령하여 이날 오후에는 사단목표 "1"을 奪取하였다.

한편 이날 한국해병연대(장, 金大植 대령)는 08.30에 △924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執拗한 敵의 저항으로 격전을 展開하였다. 이 때 사단장 Thomas 소장은 항공 및 포병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攻擊연대의 前進을 일단 중단케 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8월 1일 : 제7연대 제3대대는 이날 09.00에 △702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여 견고한 陣地에서 집요하게 對抗하는 敵을 격퇴하면서 前進을 거듭하여 마침내 치열한 白兵戰을 벌인 끝에 10.55에 高地를 奪還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射殺 93명, 捕虜 18명의 戰果를 세운 反面에 我軍도 29명의 戰死者와 51명의 負傷者를 내는 損失을 입었다.

이날 13.45에 △602로부터 1개대대 규모의 敵이 迫擊砲 지원下에 逆襲하였으나 대대는 協調된 火力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이날 정찰대로 하여금 陣前과 西北方 일대에 대한 捜索偵察을 실시토록 하였던 바 △683일대에서 西南進中인 대대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대대에 報告하여 이를 砲擊토록 하였다. 이날 한국해병연대는 09.45에 제7연대 제3대대 陣地를 통과하여 △924의 側後方으로부터 奇襲을 감행하였으나 강력한 敵의 守備에 부딪쳐 激戰만을 거듭하였으며 제5연대(장, Richard G. Weede대령)는 한국해병연대 제2대대(장, 金秉錦소령)로부터 地域內 Kansas線의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8월 2일 : 제7연대 제3대대는 前날 점령한 △702일대에 밤 사이에 소규모의 殘敵들로 부터 散發的인 사격을 받았으나 이날 07.00에 이를 一擊으로 驅逐하였다.

대대는 G 및 H중대를 공격중대로 하여 이날 09.00에 △602에 대한 협조된 攻擊을 시작하여 집요하게 저항하는 敵을 逐次로 격퇴하면서 계속 突進하여 10.50에 마침내 △602의 頂上을 휩쓸고 주위에[숨어 있는 殘敵을 격멸함으로써 사단목표 "2"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로써 연대는 8월 31일에 제1대대가 목표 "1"을 확보한데 이어 이날 제3대대가 목표 "2"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에서 주어진 공격목표를 모두 奪取하였으며 진출限界線인 Hays線(상황도 참조)에 躍進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해병연대는 이날 12.15에 △924를 점령하고 西側方의 △1,026를 계속 공격중에 있었다.

8월 3일 : 이날 사단장 Thomas 소장은 한국해병연대의 戰鬪正面을 縮少시키기 위하여 前線의 일부를 調整하고 예비대로 있던 제7연대 제2대대(장, Houston Stiff중령)를 전방으로 推進케 한 다음 一線 兩연대 사이에 投入하여 △924일대의 방어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날 제7연대가 Hays線上의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전방에 대한 偵察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한국해병연대는 △1,026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여 3시간 이상의 熱戰 끝에 마침내 敵을 潰滅하고 13.45에 高地를 점령하였으며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700m 西北方의 △1,055마저 탈취함으로써 사단목표 "3"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날 군단목표 "Yoke"지역을 확보함으로써 Punch Bowl東北端의 全地域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隣接사단과의 連繫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兩側方에 대한 威力수색을 강화 확대하였는데 후일 左隣接의 제2보병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군

단에 제출한 한 報告書 속에 "해병사단의 Punch bowl 北方에 대한 早期 진출은 제2사단이 戰線을 타개하고 加七峰으로 進擊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述懷하였다.

제1단계 작전기간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656명	戰死	109명
捕虜	40명	負傷	494명

(2) 제2단계 작전

(가) 작전계획

Hays線에 진격한 사단은 陣地를 강화하고 전방에 대한 偵察활동을 전개하면서 제2단계 작전을 계획하였다.

즉, 사단은 右隣接의 韓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이 계속 △854(麒踏 北쪽 35Km)로 진출함에 따라 戰線을 整齊하고 Hays線 北方 4~7Km에서 東北方으로 뻗은 一連의 瞰制高地群을 확보함으로써 看雪峰 일대의 敵을 制壓할 수 있는 유리한 基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作命 23—51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Hays線을 유지하면서 右一線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 Able, Baker, Charlie를 축차로 점령하고 韓 제8사단과 戰線을 연계코자 한다.

② 제7연대는 右側方의 제8사단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9월 11일 03.00에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 Able 및 Baker를 점령 확보하라.

③ 제1연대는 依命 제7연대를 초월하여 목표 Charlie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④ 제5연대는 사단예비대로 제7연대 지역에서 Hays線을 방어하고 1개중대로 Kansas線을 계속 유지하라.

⑤ 韓해병 제1연대는 계속 공격적인 정찰을 실시하고 목표 Charlie의 南方 및 東南方 일대의 敵陣에 壓力을 가하여 제7연대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11포병연대는 前方진지를 점령하고 제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⑦ 사단수색중대는 昭陽江을 따라 黃基일대를 정찰하여 敵의 증원을 早期에 차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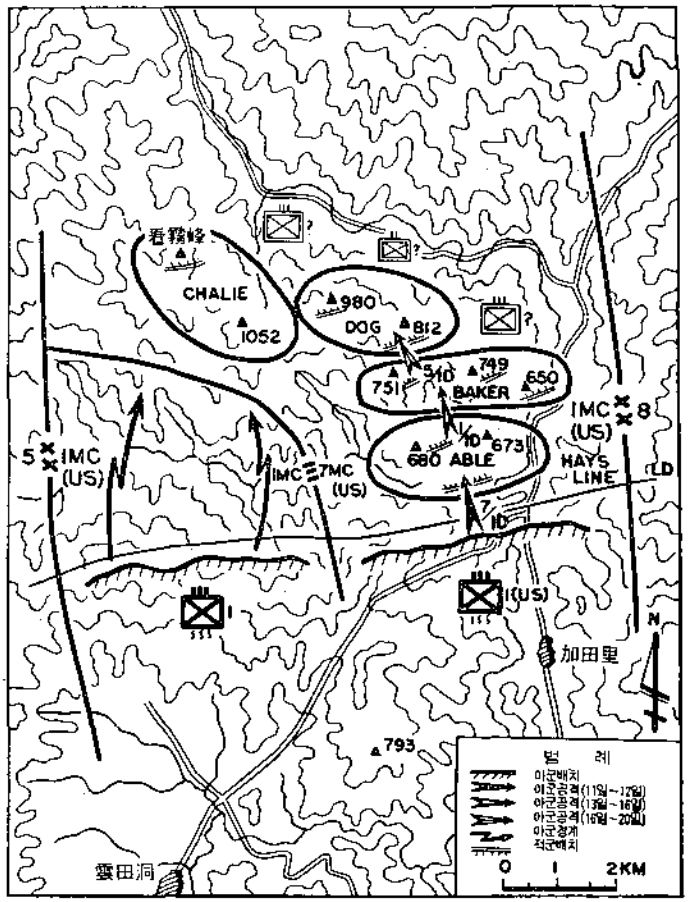
(나) 작전실시

9월 11일(D+1일) : 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는 이날 03.00를 期하여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이때에 연대는 看雪峰 東南方능선인 목표 Able에 진격하여 4Km前方에 있는 敵의 주저항선을 制壓할 수 있는 據點을 확보하고 계속 東北進하여 △749를 점령한 다음 목표 Baker를 확보함으로써 연대右翼을 北方으로 躍突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Bernard T. Kelly중령)는 연대左一線으로 陣前 1Km 에 있는 △

680를 중간목표로 선정하고 H중대를 최초공격중대로 하여 이날 03.00에 夜陰을 이용하여 목표高地의 東南方 돌출부를 奇襲토록 하였으나 이 공격은 豫想外로 완강한 敵의 저항을 받아 高地의 中麓에서 膠着되었다.

◇ 상황도 제18호 제2단계 작전



이에 제3대대장 Kelly중령은 I중대를 左側方으로 迂回시켜 목표의 西南方 돌출부를 挾攻토록 함으로써 敵을 混亂시키는 동안 H중대는 彈雨속에 一進一退을 거듭하여 12.45에 敵陣 100m 앞까지 접근하였으며 이때 左側方에서 진출한 I중대와 連繫하였다.

兩중대가 協調된 최후 공격을 실시하여 突擊線에 이르렀을 때에 敵은 堅固한 塹壕 속에서 물러나와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최후 발악적인 抵抗을 하므로 다시 원위치에 물러나고 말았다.

한편 제1대대(장, James G. Kelly중령)는 연대左一線에서 東側으로 통한 溪谷을 橫斷하여 △673를 공격하였으나 敵은 重迫擊砲와 기관총으로 頑强하게 대항함으로써 역시 공격은 中途에서 挫折되었다.

이에 연대장 Nickerson대령은 제2대대(장, Louis C. Griffin중령)로 하여금 이날 夜半에 兩공격대대 사이의 좁은 溪谷을 따라 進入케 한 다음, 제1대대의 左側端을 돌아 東北進하여 △673의 후방에서 敵의 背後를 奇襲토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이날밤 기동을 개시하였는데 대대 全將兵은 企圖秘匿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敵陣에 侵透하는데 성공하였으며 翌日 黎明에 △673 背面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끝에 高地를 점령하였다.

9월 12일(D+2일) : 제7연대 제1대대(장, James G. Kelly중령)는 전날 제2대대의 奇

襲作戰이 奏功하여 △673에서 敵을 包圍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일대에 무수히 埋設된 지뢰로 말미암아 適時에 포위망을 압축시키지 못하고 正面돌파만을 試圖하였다.

이와 같이 대대가 △673에서 殘敵과 接戰하고 있는 동안 제2대대는 목표 Baker를 확보하기 위하여 △749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敵과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한 끝에 17.10에 高地정상에 돌입하였으나 東側 斜面의 樹林 속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逆襲을 받고 다시 500m 후방으로 撤退하였다.

한편 左一線의 제3대대는 전날 공격에 실패한 △680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H 및 I 兩중대가 正面突破를 시도하는 동안 G중대는 左側方으로 迂回하여 敵의 虛를 찌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G중대는 正面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各個躍進과 포복으로 隱密히 敵陣에 접근하여 강력한 敵의 火器陣地들을 차례로 爆破하면서 高地에 육박하였으며 이때 H 및 I 兩중대도 敵의 밀집사격을 뚫고 突進을 계속하여 10.28에 마침내 △680를 점령하였다.

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23명의 敵을 사살하고 11명의 捕虜를 획득하는 전과를 세운 반면에 9명이 戰死하고 48명이 負傷당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이 彼我間에 死傷者의 대부분은 △680전투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이날 제1연대는 사단장으로부터 『明日 05.00에 Kansas線을 출발하여 제7연대 戰線을 인수하고 목표 Baker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곧 출동을 준비하였다.

9월 13일(D+3일) : 제1연대(장, Sidney S. Wade대령)는 이날 05.00를 期하여 戰線에 參加하려하였으나 彈藥추진이 지연되고 死傷者 후송대책의 未備로 09.00에 비로소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제1연대 제2대대(장, Franklin B. Nihart중령)는 이날 11.00에 △749南麓에 前進하여 제7연대 제2대대 F중대와 交替한 후에 12.00에 △749를 향한 공격을 續行하면서 西北進하여 同고지의 반대편에서 對戰中인 殘餘 D 및 E 兩중대와 連繫코자 하였다. 그러나 西北方으로 뻗은 능선의 숲속에는 대대규모의 敵이 進路를 차단하고 연결을 阻止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대대를 包圍코자 西南進할 기미마저 보였다.

이에 대대장 Nihart중령은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연대지원화력을 총집중하여 이 敵을 강타한 다음 18.20에 敵彈雨속을 縱斷하여 △749를 奪取하고 계속 西北進하여 20.25에 마침내 제7연대의 殘餘중대들과 連結한 然後에 임무를 교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이 連結작전을 위하여 제11연대 제2대대(장, Dale H. Heely중령)는 105mm포탄 2,133발, 제1전차대대 C중대(장, Walter Moore소령)는 90mm포탄 720발로 지원하였고 제1공병대대 C중대(장, Robert L. Broun중위)는 進路의 지뢰제거를 실시하였는데 敵의 砲火力도 熾烈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Foster C. Lahue중령)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751를 목표로 공격하였으나 敵의 강력한 抵抗으로 中間의 한 유리한 地形地物만을 확보하면서 突進을 준비하였는데 이날밤 迫擊砲의 지원을 받는 중대규모의 敵의 奇襲으로 一時 混戰을 벌였으나 새벽까지 擊退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단장 Thomas소장은 제1연대장의 긴급 보급추진 요청에 따라 해병 제161 Helicopter수송대대(장, George W. Herring중령)에 의한 "Wind Mill"이란 긴급공수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16.00를 期하여 개시된 同작전은 2시간 40분만에 18,848 Lb 보급품과 74명의 負傷者를 空輸하였다.

9월 14일(D+4일) : 제1연대는 이날 새벽에 △749일대에서 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逆襲을 받았으나 곧내 이를 擊退한 다음 08.00를 期하여 제2 및 제3 兩대대를 제1선으로 하여 △754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더욱 강화된 敵의 박격포와 重機의 집중사격으로 말미암아 進擊은 難澁을 거듭하였다.

즉 제2대대는 △749北方 400m에 있는 능선의 樹林 속에서 敵의 완강한 對抗으로 공격은 다시 中絶되었으나 이때에 대대는 배속된 戰車砲의 火力 400발을 집중케 하면서 前進을 계속하였다.

이때 E중대의 突擊분대가 敵陣에 접근하자 敵이 던진 수류탄 하나가 마침 密集한 분대 속에 떨어졌는데 이를 발견한 분대원 Edward Gomez일등병은 여러 戰友들의 위험을 直感하는 순간 자기 몸을 재빨리 던져 수류탄을 덮침으로써 그 폭발을 한몸으로 막고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散華하였다. 異域風霜을 헤치면서 언덕위에 쓰러진 청년 勇士여, 그대는 외치리라. 『나는 끝까지 이 땅의 自由民을 지켰노라』고.

9월 15일(D+5일) : 이날 새벽 02.30에 △749일대에 類例없이 强化된 彈幕사격과 함께 1개연대 규모의 敵이 狂波와 같은 氣勢로 반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1연대 제2대대는 연대의 砲兵 지원아래 陣地를 固守코자 熾烈한 激戰을 전개하고 곧내는 白兵戰을 벌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高地후방 500m능선에 후퇴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隊伍를 다시 整頓하는 한편 敵陣에 대한 破壞사격을 집중한 다음 17.00에 突擊을 감행하여 高地의 8부능선에서 敵과 피비린내 나는 激突을 벌였는데 이 전투는 다음날 04.00까지 계속되었다.

이때에 대대장병들은 不眠과 극심한 疲勞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고 實彈추진마저 원활치 못하여 戰勢가 危急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F중대 Joseph Vittori상병은 彈雨 속에서 여러 壕 속을 뛰어다니면서 實彈을 분배하고 射手가 戰死한 화기진지에 要員을 배치하는 등 맹활약을 하다가 16일 새벽 전투가 끝나기 직전에 敵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제3대대도 이날 02.20에 △751 西側方에서 1개중대의 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一蹴하여 버렸는데 이는 제2대대 正面에 대한 主攻을 감추기 위한 敵의 欺瞞戰術에 불과하였다.

이날 제5연대는 『16일 08.00를 期하여 제1연대 제3대대 지역을 超越하여 목표 "Dog"를 공격하라』는 사단作命을 수령하고 Hays線의 방어임무를 한국해병연대와 사단수색중대에게 引繼하고 前方 집결지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이때 제7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元通里에서 계속 부대를 整備하였다.

9월 16일(D+6일) : 제5연대(장, Richard G. Weede대령)는 사단作命 25—51에 依하여 이날 아침 08.00에 제2대대(장, Houston Stiff중령)가 △751에 進出하여 제1연대 제3대대와 임무교대한 것을 위시하여 오전중에 그 밖의 부대들도 교대를 완료하였다.

연대는 12.30에 목표 "Dog"을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開始하였는데 제2대대를 右一線에서 主攻으로 하여 △812를 공격토록 하고 제3대대를 左一線에서 助攻으로 하여 △980에 進出토록 하였다.

이에 제2대대는 F중대를 先遣隊로 하여 △673와 △680 사이의 低地帶를 통과하여 공격을 감행토록 하였는데 敵의 迫擊砲 및 重기관총의 密集火網으로 17.00에 공격이 阻止되었다.

이때에 중대는 대대OP에 進出線을 表示하기 위하여 煙幕彈을 사용하였는데 때마침 △980를 공격중인 제3대대를 지원코자 출격중인 友軍전투기가 목표地點으로 誤認하고 이곳에 네이팜彈을 投下함으로써 한때 혼란을 야기시켰으나 被害는 없었다.

이날 연대의 右翼에서는 제1연대 제1대대가 08.30에 제2대대 지역을 通過하고 △749에 공격을 加하여 熾烈한 격전끝에 18.00에 高地를 再탈환함으로써 목표 Baker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날 특히 砲兵이 실시한 敵 화기진지에 대한 砲擊이 奏効하여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었으며 대대는 敵 101명을 사살하고 21명을 捕虜로 잡았으나 我軍도 13명의 戰死者와 52명의 負傷者를 내었다.

9월 17일(D+7일) : 제5연대는 이날 04.00에 제2대대로 하여금 黎明 공격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나 전날 밤에 격전을 치른 F중대의 준비가 늦어져 07.00로 예정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F중대는 敵이 炊事中인 것을 看破하자 곧 砲火力을 유도하였다.

이에 敵陣이 混亂한 틈을 타서 대대는 東側능선을 따라 △812에 공격을 加하였다.

중대가 稜線끝까지 前進하였을 때에 "T"字형으로 形成된 地形에서 敵의 차단사격을 받고 공격이 中斷되자 대대장 Stiff중령은 E중대에 F중대 제2소대를 배속시켜 超越 공격케

하였다.

이에 중대는 砲兵의 지원을 받으면서 △812頂上을 향하여 一躍一進을 거듭하였으나 2시간만에 100m를 前進하였을 뿐 다시 공격은 中斷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11.00에 可用한 모든 화력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E중대로서 稜線을 따라 正面으로 進擊토록 하고 F중대 제2소대로써 左側方으로 迂回 공격토록 하였는데 공격중대는 과감히 突進하여 30분만에 高地를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사단목표 "Dog"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E중대는 西北方 능선을 타고 △980方向으로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였으며 대대장은 △980를 계속 공격할 것을 연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연대장 Weede대령은 이를 承認하지 않고 각 대대는 現進出線에서 방어 配置할 것을 示達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812를 中心으로 西쪽능선까지, 제3대대는 △751를 中心으로 北方으로 뻗은 廣大한 지역에 방어陣地를 점령하였다.

9월 18일(D+8일) : 敵은 △980 및 △1,052 일대에서 밤새도록 砲擊을 加하더니 이날 04.30에 제5연대 제2대대 E중대 西方側으로부터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奇襲공격을 하였는데 중대는 최선의 防禦戰을 전개하였지만 隣接中隊 사이가 突破되어 끝내 撤退하였다.

이에 敵은 대대본부지역까지 威脅하였는데 이때 사단 및 연대를 지원하는 포병의 화력이 이에 집중되어 勝勝하던 敵의 氣勢는 無慘히 깨져 潰散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대대는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여 退走하는 殘敵을 향하여 突進하고 08.40에 △812를 再奪還하였다. 이때에 敗退한 敵은 △812의 西北方 700m에 있는 岩壁으로 形成된 無名高地를 거점으로 삼고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해병들은 그 高地前面에 識別이 뚜렷한 5m 높이의 花崗岩을 가리켜 "Rock"라고 부르고 있었다.

대대는 이날 △812 反擊戰에서 敵射殺 55명, 捕虜 12명을 획득하였으나 敵기습시에 16명이 전사하고 98명이 부상을 입었다.

9월 19일(D+9일) : 제5연대 제1대대는 이날 제1연대 제1 및 제2 兩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昭陽江에 沿하여 뻗어있는 능선을 따라 제2대대 右側으로 이동하여 東쪽으로 5Km 연장된 防禦陣을 점령하였는데 이날 敵의 砲兵은 長距離 사격을 계속하였다.

제1연대장 Wade대령은 이날 防禦陣地의 축성을 위한 資材와 戰鬪補給品을 긴급히 空輸해줄 것을 사단장에게 요청한 바 Thomas소장이 이를 許諾함으로써 제2차 Wind Mill 空輸作戰이 실시되었으며 이 작전은 1시간만에 10대의 HRS—1 Helicopter가 16회를 往復하여 도합 12,180 Lb의 보급품을 空輸하였다.

9월 20일(D+10일) : 이날 03.15에 敵은 "Rock" 方面에 砲擊을 계속하면서 1개중대

병력으로 제5연대 제2대대 西側方에 侵襲하여 수류탄과 자동화기를 난사하였으므로 E중대는 일단 退陣하였으나 事前 계획된 彈幕사격과 함께 C5.CC에 E중대와 F중대 제2소대가 挾攻을 감행하여 △812를 再奪還하였으며 "Rock" 方向으로 退走하는 敵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追擊하자 敵은 60명의 시체를 유기한채로 황급히 潰散하고 말았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9월 20일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의 특별訓令에 따라 機動戰에서 陣地戰으로 轉換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5연대 제2대대의 △812전투를 끝으로 8월 31일에 개시한 Punch bowl공격전을 모두 끝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전에서의 機動戰의 終熄을 보게 되었다.

한편 이때 사단장 Thomas소장은 美 제10군단 작전지시 1—23E에 의거하여 사단戰線의 再調整에 着手하였는데 이를 위한 사단作命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戰線을 확장하여 韓 제8사단 지역을 인수하고 Minnesota線을 따라 진지를 占領 방어코자 한다.

② 제5연대는 △812—△749線을 고수하고 1개대대로 하여금 제1연대의 Hays線 방어임무를 인수하라.

③ 제1연대는 東進하여 제8사단 지역을 인수하고 △854東側에서 사단수색중대와 連繫하라.

④ 수색중대는 사단右翼에 挺進하여 △884에서 제8사단 일부와 임무를 교대하고 右側方에서 제1군단과 連繫하라.

⑤ 韓해병제1연대는 Hays線上의 현진지를 계속 방어하며 전방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라.

⑥ 제7연대는 元通里에서 사단예비대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사단CP는 계속 陽地村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제1연대 제2대대를 Hays線에 控置하고 제1 및 제3 兩대대를 韓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 지역에 轉進토록 하였는데 제1대대는 △854 일대에서 제8사단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 제3대대는 同사단 제21연대(장, 金富一대령)의 一部와 각각 陣地를 교대하였다.

이날 사단장 Thomas소장은 수색중대를 山岳地帶로 11Km 東北方에 있는 △884에 早期에 空輸하기 위하여 해병 제161Helicopter수송대대에 의한 Summit공수작전을 전개하였는데 9월 21일 10.00에 開始된 이 작전은 4시간만에 전투요원 224명과 荷物 17,772 Lb를 空輸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의 성공은 즉시 美國內 輿論에 큰 反應을 이르켜 都下 여러 新聞에 大大的으로 報道되었으며 이로써 美國民들에게 큰 感銘을 주었다.

한편 美 태평양함대해병대사령관 Lemuel C. Shepherd, Jr. 중장은 紙上을 통하여 해병 제161헬리콥타 수송대대의 果敢한 작전 성과에 대하여 致賀하였으며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은 격찬하되 『今般 전투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된 Helicopter에 의한 部隊交替는 해병사단의 과감하고 組織的인 노력으로 이를 성공케 하였으며 모든 부대들에게 큰 敎訓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의 防禦戰線은 東側方으로 13Km 延長되었고 右에서 左로 사단수색중대, 제1연대, 제5연대, 韓해병제1연대 순으로 새로 劃定된 Minnesota線을 따라 一線진지를 점령하고 右로 韓 제1군단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과 左로 韓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과 連繫하였다.

해병 제1사단의 Punch bowl전투기간중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射　殺 2,799명　　捕　虜　557명

損　失：戰　死　428명　　負　傷 1,062명　　失　踪　3명

10. 美제10군단의 沙汰里—文登里附近 戰鬪

(一名, 「斷腸의 稜線」戰鬪)

제 1 차전 (1951년 9월 13일부터 / 1951년 9월 26일까지)
제 2 차전 (1951년 10월 5일부터 / 1951년 10월 1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9호
상 황 도 제19, 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0군단 장 소장 Clovis E. Byers	제38연대 장 대령 Frank T. Mildren
제 2 사단 장 준장 Thomas E. de Shazo (9. 19까지)	배속부대
소장 Robert N. Young (9. 20부터)	France대대 장 중령 Ralph Monclar
제 9 연대 장 대령 John M. Lynch	Netherland대대 장 중령 W.D.H.Eekhout
제23연대 장 대령 James Y. Adams	사단포병단 장 대령 Edwin A. Walker
제 1 대대 장 소령 George H. Williams, Jr.	제72전차대대 장 중령 John O. Woods
제 2 대대 장 중령 Henry F. Daniels	제2전투공병대대 장 중령 Robert W. Love
제 3 대대 장 중령 Virgil E. Craven	인접부대
	韓제5사단 장 준장 閔 機 植(右인접)
	韓제7사단 장 준장 李 成 佳(左인접)

敵 軍		
北傀 제 5 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제 2 군단 제 13 사단 일부
제 6 사단	장 소장 洪 林	中共 제68군 제204사단 일부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나. 전투 전의 개황

本節에는 8월중순에 New Kansas線에서 「夏季攻勢」로 移轉한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이 10월 중순에 Minnesota線(대체로 現休戰線 南方 限界線)을 점령함으로써, 左隣接 美제9군단과 戰

線을 整齊케 되는 과정에서 군단의 공격主軸인 美제2사단이 沙汰里—文登里사이의 능선에서 벌어게 되는, 이른 바 「斷腸의 稜線」의 決戰場面을 취급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뒤로는 板門店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어 이 Minnesota線에서의 휴전을 前提로 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됨으로써, 여기서 對陣상태로 移行하게 되는 까닭으로 군단이 敵의 「5월攻勢」直後에 보여 준 장쾌한 進擊戰이나 이 전투에서와 같이 攻勢的인 입장에서 主導한 큰 규모의 局地攻防戰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니, 이런 觀點에서 이 능선은 군단의 마지막 激戰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단은 8월 16일에 『戰線의 彎曲部를 수정하여 제9군단과 戰線을 整齊함으로써 防禦正面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병력을 예비로 확보토록 한다』는 제8군의 작전개념에 따라 全面攻勢에 들어갔는데, 右翼인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으로써 Punch bowl 東壁의 徹尾洞부근을, 中央의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으로써 同 西壁의 比雅里—古方山里 사이의 능선(「피의 稜線」)을, 그리고 左翼인 韓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으로써 北漢江 東岸의 白石山 南쪽 高地群(「양갈래 高地」일대)을 각각 점령케 하였다(제5권 참조).

그러나 군단은 이와같이 Punch bowl 攻略에 主眼을 두고, 그 全力으로써 이에 대한 포위태세를 造成토록 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진전이 如意치 못하였으므로 8월 末日에는 예비로서 洪川부근에서 부대를 정비중이던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과 元通里—場口道路 北쪽의 Wichita線에서 예비진지를 확보중인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을 Punch bowl正面공격에 참가시켜, 攻勢를 강화하였다.

이때 군단이 공격의 重點을 둔 「피의 稜線」에서 敵의 방어력이 意外로 완강하여, 攻擊의 一陣으로 제2사단에 배속중인 韓제5사단의 제36연대(장, 黃 燁대령)가 그야말로 이 능선을 피로 물들이면서 爭奪하는 바 되었으므로 (제5권 「피의 稜線」전투 참조) 8월 31일에 제2사단은 군단의 공격력 강화에 策應하여,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로 하여금 韓제36연대의 공격임무를 인수케 하는 동시에 大愚山을 확보중인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로써 그 北쪽 5Km에 있는 加七峯을 점령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9연대가 「피의 稜線」에서 새로운 압력을 加하는 가운데, 제38연대가 沙汰里계곡 東쪽을 밀어올려 9월 3일에 加七峯을 손에 넣은 다음 이를 4일에 韓제5사단 제27연대에 인계하고, 다시 그 餘勢를 西南쪽으로 돌려 同 능선의 東北쪽을 脅威한 然後인 5일에야 제9연대가 이를 점령케 되었다.

이 전투에서 사단(韓제36연대 포함)은 사살 1,389명에 포로 264명의 전과를 거두고 戰死 326명과 負傷 2,032명, 그리고 失踪 414명의 손실을 보았는데, 실제로 敵은 모두 15,000여명이 이 능선에서 殺傷되었을 것으로 推算되었으니 이 전투의 결과, 전투규모에 比하여 彼我의 손실이 엄청났다는 점에서 世人의 注目을 끌었거니와 제8군當局에서는 이로써 敵 특히 北傀의 「戰線固守」意志와 그 戰鬪力을 再評價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8군이 이 전투를 試金石으로 삼아 여러가지 측면에서 敵의 力量을 切上評價케 된 나머지 愼重論을 펴게 되나, 戰線 當面의 사단으로서는 이제 騎虎之勢로 그 北쪽의 △894—△931—△851(「斷腸의 稜線」)를 제2의 목표로 삼아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으니, 戰術的인 面에서 이 稜線을 攻略한다는 것은 沙汰里와 文登里사이에 있는 가로 4Km와 세로 5Km의 矩形인 땅덩어리 하나를 놓고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戰略的인 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었던 까닭이다.

첫째 : 이 능선을 확보함으로써만이 沙汰里와 文登里계곡의 作戰路를 장악할 수가 있고

둘째 : 敵의 策源인 文登里를 無力化할 수 있으며

세째 : 이 능선에 위치한 敵의 포병관측소를 芟薙함으로써 Kansas線에 대한 위협을 排除하는 동시에

네째 : 北漢江 東岸에서 차진 군단의 左翼正面을 推進하여 戰線을 整齊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단이 공격목표로 삼은 △894—△931—△851, 이 세개의 高地를 連하는 稜線은 下野於洞계곡을 사

이에 두고 「피의 稜線」(△773—△940—△983)과 마주보는 形勢에 있어 그 左右에 끼고 있는 水入川 河谷道(文登里와 沙汰里계곡)와 더불어 H字의 地形을 이루는데, 맨 南쪽의 △894와 중간의 △931 사이는 1Km, 그리고 △931와 그 北쪽의 △851間은 2Km로 멀리서 보면 마치 南北 3Km의 城廓에 세개의 望樓가 우뚝 선 것을 聯想케 하나, 가까이 보면 우거진 숲과 岩石으로 錯綜된 高地로서 이것을 旅次로 登攀하기에도 힘들겠거늘 鐵火를 헤치면서 가파른 傾斜를 타기란 쉬운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당시에 北傀제5군단(장, 중장 方虎山)은 「피의 稜線」을 失守한 뒤 逐次로 이 稜線에 물러나 사단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예비로 있던 그들 제6사단(장, 소장 洪 林)을 투입하여 여기에 陣地工事를 실시한 바, 거의 地下施設로서 「피의 稜線」 못지 않는 견고한 진지를 構築하였는데 짙은 樹林의 그늘을 이용하여 我軍의 肉眼관측은 물론 항공사진 判讀으로도 쉽게 捕捉할 수 없으리만큼 僞裝한 까닭으로, 군단이나 사단의 情報當路者는 『이 稜線에서 敵의 「固守防禦」에 대한 徵候를 볼 수 없다』고까지 판단케 될 정도였다.

9월 12일 현재로 제8군의 敵 병력판단에 의하면 이 正面의 北傀제5군단은 모두 15,600명 內外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6사단은 5,500명, 제12사단은 3,800명 그리고 제32사단은 4,800명으로 각각 推算하였다.



<피의 능선의 美제2사단 장병>

그리고 또 同사령부의 敵 포병사항分析에 따르면, 이 당시 敵(中共 및 北傀)은 全 戰線에 걸쳐 150개의 포병대대(1,800여문)를 運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무렵의 항공정찰 결과 군단정면에서만도 실제로 各種砲 330여문을 목격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水入川계곡 즉, 沙汰里 및 文登里계곡일대와 看露峯(加七峯 東北쪽 9Km) 東쪽의 昭陽江 上流 계곡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군단正面의 敵 포병은 그들의 보병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保有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敵이 前述한 바와 같이 我軍의 포병이나 항공공격에도 능히 支撐할 수 있을 정도의 強度를 지닌 掩蓋진지에서—「피의 稜線」에서와 같이 現병력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증원능력을 가지고—그들 포병의 精密한 諸元으로 조직된 火網과 상호지원이 가능한 自動火力, 그리고 박격포의 破摧力등 百方수단을 다 하여, 또 한번 「決死固守」를 부르짖는 다면, 장차 여기의 전투 역시 畢竟 「피의 稜線」의 再版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敵을 물리치고 이 稜線을 奪取키로 한 사단은 9월 6일에 제38연대로 하여금 계속 後項谷(△894 東쪽 2.5Km)일대를 확보키 위하여 △868—△702를 공격케 하는 가운데 전날 「피의 稜線」을 점령한 제9연대와 Kansas線의 제23연대를 교대하여 陣容을 정비하였다. 즉 제38연대는 加七峯에서 西南쪽 三台洞으로 흐르는 계곡 南麓(大思山—加七峯 西麓의 △954—△660線)에 진지를 점령케 되고, 제9연대는 이날로 都沙里(楊口 北쪽 6.5Km)의 연대 CP부근에 집결하여 부대재편에 착수케 되었으며, 제23연대(France대대 배속)는 France대대로써 Kansas線을 계속 확보케 하고 主力은 「피의 稜線」을 인수하여 그 北쪽의 목표 능선을 노려보면서, 沙汰里계곡 東쪽에서 攻擊基盤을 整地中인 제38연대의 戰況을 지켜 보게된 것이다.

이때 사단의 제37, 제38포병대대는 鳩峴 北쪽의 比雅里계곡에 105mm榴門을 放列하였으며, 제96, 제503포병대대(155mm)는 「피의 稜線」에서 14~15Km 南쪽인 "골말"부근에, 그리고 제780포병대대(8″)는 野村里(楊口 東北쪽 4.5Km)에 각각 진지를 점령중이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당시에 水入川 河谷道인 古方山里—文登里道가 「피의 稜線」전투 때에 아미 敵의 지뢰와 장애물에 의하여 閉鎖되어 이 阻絶을 啓開하기 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沙汰里 北쪽에서 下野於洞으로 西南向하여 梨木洞부근에서 合流되는 水入川 支流와 鳩峴에서 흘러내려 楊口를 東南쪽으로 감돌아 華川저수지 東端에 流入하는 西川 河谷道(楊口—比雅里—沙汰里)를 단일 主補給路로 삼게된 바, 여기에 사단의 보급차량과 砲車가 줄을 이어 왕래케 되었다. 이 때문에 機動路의 제한을 받게 된 사단은 군단에서 지원된 전차 1개대대(제72전차대대 : M4A3型 中戰車) 가운데 극히 일부만으로 戰線을 지원케 하고, 主力은 Kansas線에 待機케 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군단장이 9. 12. 10.00부로 사단의 전투地境線을 再調整하였으니, 종내 古方山里에서 文登里계곡을 따라 北上하였던 左接境線을 古方山里에서 白石山 東南쪽 稜線을 따라 魚隱山으로 西北向하게 하여 사단正面을 5Km 이상이나 西쪽으로 擴開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이제 文登里계곡을 포함하여 白石山—魚隱山 以東을 새로이 담당케 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1차전(9. 13~9. 26)

(가) 작전계획

「피의 稜線」전투가 시작되기 前인 8월 12일에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7월 한달 동안 장마로 말미암은 戰線의 침체현상을 克服하기 위하여 「Talons」라고 命名한 劃期的인 작전계획을 立案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에 그의 작전腹案의 大要는 다음과 같았다.

『작전목표 : 現戰線을 長箭—金剛山—金城—金化線으로 推進한다.

기본방침 : ① 먼저 東部戰線(제10군단正面)의 彎曲部를 수정하기 위하여, 同戰線을 10~15mile 北進시킨다.

② 그 다음, 元山부근에 上陸하여 敵의 後方을 교란함과 동시에 中東部戰線에서 攻勢로 移轉한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제10군단이 「夏期攻勢」를 發起케 된 것인데, 「피의 稜線」전투경과를 銳意 注視한 군사령관은 이 전투결과의 分析에서, 전투규모에 比하여 損失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차 Talons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 전투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니 만큼, 이에 比例하는 豫想損失이 戰果의 利를 凌駕하게 되고 따라서 打算이 逆轉될 것이다』라는 판단아래, 9월 6일에 이 작전계획의 實行을 취소하고 말았다.

그 대신 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이날 밤에 在東京 UN 군사령관에게 이의 승인을 具申하였다.

『제1단계 : 9월중으로는 東部전선에서 뚜렷한 목표線을 부여치 않고 現전선을 밀어 올림

으로써 당면한 灣曲部를 수정하여 제9군단과의 戰線을 整齊한다.

제2단계 : 10월에 들어서서는 東部전선의 攻勢를 중지하고 休戰회담이 허용하는 범위內에서 西部戰線의 제1군단을 北進시킨다.

제3단계 : 제1군단의 공격이 進陟되면 東海岸의 通川부근에 상륙하여 金化부근으로 東北進한 제9군단과 連繫하는 새로운 戰線을 形成한다.』

이와같은 제8군의 계획을 검토한 Ridgway대장은『政略的인 次元에서 再考를 要한다』는 이유로 제3단계 계획을 保留措置하고 그 이튿날 7일에 제1, 제2단계만을 승인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9월 8일에 예하 각 군단에 제한된 공격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색 활동을 강화토록 하였는데, 제10군단에 하달된 명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0군단은 조속한 時日內로 다음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제한된 목표를 設定하여 공격을 계속하라.

목표 Ⅰ : 沙汰里—文登里부근의 高地群

목표 Ⅱ : 通先谷(魚隱山 西南쪽 4.5Km)부근의 高地群

목표 Ⅲ : 看霧峯(加七峯 東北쪽 7.5Km)부근의 高地群

② 上記 목표를 탈취하는 順序와 日字는 군단장이 결정하여 보고하라.』

이 명령을 받은 군단장 Byers소장은 이날 즉시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이 목표를 부여하고 공격일자를 指定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各 사단은 當面의 목표를 공격하여 조속히 이를 점령하라.

② 사단별 공격목표와 D일은 다음과 같다.

㉮ 韓제8사단—㉠ 목표 : △854(看霧峯 東쪽 9Km)

㉡ D일 : 9월 10일

㉯ 제1해병사단—㉠ 목표 : △749(△854 西南쪽 4.5Km)

㉡ D일 : 9월 11일

㉰ 韓제5사단은 △1,211(加七峯 西北쪽 1.25Km)에 대한 現공격을 계속하라.

㉱ 제2사단—㉠ 목표 : △894—△931—△851(沙汰里—文登里사이의 稜線)

㉡ D일 : 9월 12일

㉲ 韓제7사단—㉠ 목표 : △883(白石山 南쪽 2.25Km)

㉡ D일 : 9월 9일

③ H시는 사단장이 결정하라.』

이리하여 군단 右翼인 韓제7사단(장, 李成佳준장 : 9.1 金容培준장과 交代)이 9일 아침에 北漢江 東岸에서 출격신호를 높이 올리는 가운데 제2사단은 목표 △894—△931—△851(공격중에 「斷腸의 稜線」이라 불리어 짐)에 대한 攻擊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이때 당면한 敵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一線의 지휘관과 參謀사이에 서로 相反된 見解를 보였다.

즉, 포병사령관 Walker대령을 비롯한 단위지휘관은 이 稜線의 敵 역시 「피의 稜線」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決死固守코자 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는데, 사단의 일반참모진은 이와 반대로 『稜線에 敵의 隻影도 보이지 않는다』는 G—2의 情報提報를 근거로 하여, 敵이 이미 「피의 稜線」에서 甚大한 타격을 입었으므로 다시 여기를 固守할 餘力이 없을 것이라고 速斷한 것이다.

사단장대리로서 「피의 稜線」전투中에 사단을 지휘하게 된 de Shazo준장은 G—2의 情報판단과 같이 敵情이 대수롭지 않으므로 1개연대만으로도 능히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그간 예비로써 France대대와 함께 Kansas線에 控置中인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를 이 攻略에 充用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병력으로 목표R(△834)—S(△931)—T(△85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3연대(France대대배속)는 9. 11. 12.00까지 제38연대 진지를 인수하여 9. 12 07.00를 期하여 △868(加七峯 西南쪽 3.5Km)과 △702(△868 西쪽 1.6Km:△894 東쪽 2Km)를 각각 공격하여 탈취한 다음, 此後 命令에 따라 목표 R—S—T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공격간 제38연대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38연대는 9. 11 12.00까지 현진지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後谷里(楊口 東北쪽 8.5 Km)부근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1개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조치하라.

④ 제9연대는 9. 11. 12.00까지 제23연대로부터 「피의 稜線」진지를 인수하라.

左隣接 韓제7사단 제3연대와의 협조를 유지하라.

⑤ France대대는 계속 제23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제37포병대대는 제23연대를 직접지원하라.

제38, 제96(A포대 缺), 제503, 제780(A, B포대 缺)야전포병대대는 사단 正面에 대한 일반지원을 계속하라.

화력지원의 優先權은 제23연대에 부여한다.

⑦ 제2전투공병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일부병력으로써 後谷里—比雅里間의 道路, 특히 本道上의 교량을 확보토록 하라.

⑧ 通信은 現 SOI에 準用한다.

⑨ 지휘소는 閑田里(楊口 北쪽 5Km)에 위치한다.』

이 명령에 따라, 제23연대는 목표 稜線에 대한 本攻에 앞서 稜線 東쪽에 있는 △868—△702를 먼저 攻略케 되었는데, 사단이 이와같이 同연대로 하여금 목표R(△894)의 南쪽 正面에서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지 않고, 그 主力을 沙汰里계곡 東麓으로 推進케 한 理由는

다음과 같다.

『敵이 이 능선을 따라 깊은 縱深진지를 이루고 있으므로 南으로부터 그 縱深을 逐次로 공격한다는 것은 진퇴가 자유롭고 증원이 또한 容易한 敵으로 하여금 防禦力을 항상 攻擊正面에 집중케 하는 결과를 自招한다고 보는 까닭으로, 능선의 東쪽에서 이미 목표 R인 △894線에 진출한 現戰線을 이용하여 東側方으로부터 그 腰部를 찔러 능선을 兩斷한 다음, 各 高地의 敵을 각개격파 하는 것이 더욱 有効할 것이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제23연대는 12일 07.00를 期하여 배속된 제38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868를, 연대 先遣隊로서 △660을 인수한 제1대대로 하여금 △702를 공격케 한 바, 戰況에 好調를 보여 이날 14.00에는 △702를, 15.20에는 △868를 각각 手中에 넣게 되었다.

이로써 沙汰里道路에 접한 감제要衝을 장악하여 공격부대를 엄호할 수 있는 無反動銃과 重기관총 등의 直射화력진지를 확보케 되자, 이에 곧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命令으로써 제23연대로 하여금 本攻으로 移行토록 하였다.

『① 제23연대(France대대 배속)는 9. 13. 06.00를 期하여 목표 S를 側方공격하여 탈취한 다음, 계속하여 목표 R과 T를 점령확보하라.

② 제9연대는 제23연대가 목표 R을 점령하면, 일부병력으로써 △728(△894 西南쪽 1.7 Km)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

(나) 작전실시

叙述의 便宜上 작전실시 期間을 다음의 3개 段階로 區分키로 한다.

제1段階—△894 攻略(9.13~9.15)

제2段階—中間目標(無名高地Ⓐ)攻略 (9.16~9.21)

제3段階—△931 攻略(9.22~9.26)

① 第1段階—△894攻略(9.13~9.15)

9월 13일 : 이날 06.00에 砲擊初一聲이 山頂에 낮게 깔린 짙은 비구름속으로 怒號하니, 「피의 稜線」전투가 끝난뒤로 交綏상태에 빠져있던 사단戰線에는 8일만에 戰火가 再燃되었다.

1. 攻擊一線인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後項谷(△702 東南쪽 계곡)부근에서 전날 밤 徹夜로 공격을 준비한 다음 이날 06.00를 期하여 예정된 공격을 시작하였다.

연대장 Adams대령은 이에 앞서 전날 △702를 점령한 제1대대를 예비로 돌려 三台洞—野於洞道路 東麓(△702—△660 西麓)의 支援진지를 계속 확보하여 공격부대를 엄호케 하는 가운데 제2, 제3 兩대대로써 능선의 東側方을 공격키로 하되, 목표 S(△931)와 T(△851)사이의 鞍部에 해당하는 無名高地Ⓐ(△931 北쪽 1Km : 標高 850m 정도)를 중간목표로 삼고 이것을 먼저 탈취함으로써 목표 S와 T를 兩斷하여 그 南北의 목표를 각개격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 R(△894)을 점령키로 方針을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목표 R—S—T를 공격하여 탈취하려 한다.

공격간 제37야전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지원 할 것이다.

공격개시 시간은 9. 13. 06.00이다.

공격개시선은 沙汰里—三台洞間 道路이다.

② 제3대대는 공격제1선으로서 無名高地Ⓐ를 탈취한 다음, 北으로 목표 T를 공략하라.

목표를 탈취하면 이를 확보하면서 別命을 기다리라.

③ 제2대대는 공격제2선으로서 제3대대에 後續하여 同대대가 無名高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高地로 부터 南쪽으로 목표 S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한 다음, 계속하여 목표 R을 점령하라.

④ 제1대대는 現진지에서 공격일선 대대를 화력支援하라.

⑤ France대대는 9. 13. 22.00까지 제38연대 제3대대로부터 右제1선 진지를 인수하여 공격간 연대右側方을 엄호하라.

공병작업소대로 하여금 제23전차중대의 진로를 개척케 하라.

⑥ 제23전차중대는 공격일선을 직접지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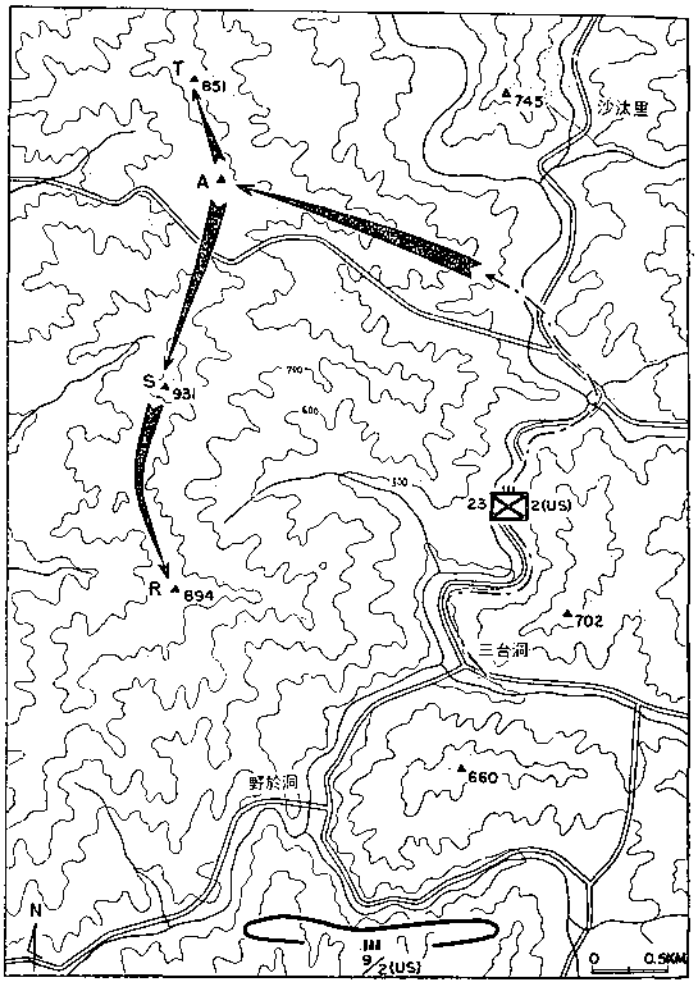
공격간 戰車의 엄호는 France공병소대가 이를 담당할 것이다.

⑦ 공격개시 30분전에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될 것이다.

⑧ 통신중대는 공격진전에 따라 通信軸線을 伸張하되 器材修理班을 非常待機케 하라.

⑨ 공격간 전투지휘소는 鳩峴에 위치할 예정이다.』

◇상황도 제19호 제1차 공격계획(9. 13~9. 26)



가) 공격제1선으로서 先制主動의 임무를 맡게 된 제3대대(장, Virgil E. Craven중령)는 05.30부터, 105mm와 155mm곡사포 각 2개대대와 8″곡사포 1개포대 그리고 4.2″重박격포 2개중대 등 80여문에 달하는 砲門이 일제히 烈火를 吐하여 능선을 뒤흔드는 가운데, 06.00를 期하여 沙汰里도로를 따라 목표 攻略에 나섰다.

대대는 三台洞—沙汰里도로를 따라 중간목표인 Ⓐ高地의 東쪽으로 北進한 다음 Ⓐ高地에서 東으로 沙汰里계곡에 이르는 능선의 下端部에서 공격방향을 西쪽으로 꺾어 나아가기로 하였는데, 이곳(Ⓐ東쪽 稜線 下端部)에 이르는 三台洞—沙汰里도로는 水入川을 끼고 있어 機動空間이 狹窄한 탓으로 대대를 縱隊形으로 전개하였다.

대대가 後項谷에서 △702 東쪽을 돌아 沙汰里도로에 들어서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敵의 步砲火가 一時에 집중하여 縱隊를 四分五裂케 하였다.

대대가 이를 무릅쓰고 LD(沙汰里 계곡에서 Ⓐ高地를 거쳐 文登里계곡으로 빠지는 Ⓐ와 △931와의 사이에 있는 계곡入口, 즉 도로의 分岐點 : Ⓐ高地 東쪽 1.2Km)에 다다르자 敵의 보포화가 더욱 熾盛을 極하였는데, 西北쪽의 △851와 △871(△851 北쪽 1Km) 및 西南쪽의 △931, 그리고 北쪽 △656와 東쪽의 △841(沙汰里도로 東쪽 1.2Km)일대로부터 집중되는 박격포와 기관총의 斜射와 側射火力에 더불어 文登里계곡 西쪽의 內洞부근에서의 重砲의 制壓射擊이 熱火속의 기름격이 되었다.

가까스로 Ⓐ高地로 향하는 계곡於口에 진출한 대대는 그곳에 급히 攻擊壕를 파면서 공격방향을 장차 西쪽의 Ⓐ頂上을 목표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이려는 동안에 死傷者가 續出하여 銳氣가 挫折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Craven중령은 포병의 射程을 延伸토록 하여 敵의 화력을 制壓케 하였으나 敵砲가 계곡 깊숙히 掩蔽되어 있어 射角관계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 敵勢는 依然하기만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가 Ⓐ高地의 東쪽 稜線 하단부(계곡)의 急編진지에 釘着되어 寸步를 움직이지 못한 탓으로 敵火의 標的인 된 채 午前中에는 공간과 시간을 虛費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 Adams대령은 砲兵만으로서는 能히 敵 화력의 制壓 効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陣頭로 달려 나가 대대로 하여금 敵의 火網을 과감하게 직접 突破토록 號令하였다.

대대는 이에 奮起하여 先頭중대로써 突擊중대로 삼아 敵의 彈幕속으로 白兵突進을 감행키로 하였는데, 이때 대대의 공격진로인 △750(無名高地Ⓐ 東쪽 800m)—Ⓐ高地間의 稜線에는 그 南北의 △931와 △851로 부터 敵의 자동화기의 側射와 斜射가 마치 熱湯과 같이 쏟아져 불바다를 이루었으므로 △851에서의 直射火力을 피하여 이 능선의 南쪽 계곡을 따라 先頭중대의 突擊發起만을 재촉하였다.

이리하여 Pete Montfort대위가 지휘하는 突擊중대는 溪逕을 따라 一列縱隊로 散開하여

彈雨를 헤치면서 躍進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日沒무렵에 30명이 채 못되는 병력으로 Ⓐ高地를 점령케 되었다.

그러나 이때 대대主力은 敵砲의 遮斷사격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 중대에 追及치 못하고 △750 南쪽 계곡에 固着된 채 夜間防禦를 모색하게 되었으니, 중대는 비록 목표를 掌中에 넣기는 하였으나 대대主力과는 1km를 떨어져 孤立된 상태에서 이날 밤중으로는 그 증원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오직 『天命에 마끼고 여기를 固守하리라』는 悲壯한 결심아래 중대원으로 하여금 敵의 夜襲에 대비케 하는 일방, 포병의 탄막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이날밤 사단의 全포병이 射向東을 變換하여 모든 화력을 여기로 집중함으로써 밤이 새도록 중대진지 주위에 간단없는 彈幕을 둘러쳤다. 그러나 夜暗으로 말미암아 觀測의 正確度를 헤아릴 수 없는 포병의 엄호만으로는 탄막을 기어 넘는 敵의 白兵을 막을 道理가 없었으니 중대는 彈藥마저 바닥난 상태에서 高地의 南北 兩面으로 들이닥친 衆敵을 맞아 接戰格鬪를 벌이다가 마침내 중대장 以下 全員이 여기서 장렬히 散華하고 말았다.

나) 한편 공격제2선으로서 제3대대를 後續한 제2대대(장, Henry F. Daniels중령)는 同대대와 함께 △750 東南쪽 계곡入口부근에서 敵의 탄막돌파에 노력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그곳 急編진지에서 徹夜하는 바 되었다.

다) 이러는 동안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702—△660간의 진지를 계속확보하면서 대대의 자동화기와 無反動銃으로 공격대대를 지원하는 한편 탄약과 보급품을 推進하고 負傷兵을 後送하기도 하였다.

라) 그리고 공격간 연대의 右側方에 대한 防護임무를 맡게된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Kansas線으로부터 △868로 躍進하여 20.00에 제38연대 제3대대로부터 연대 右제1선진지를 인수한 다음 그 正面 △1,052—△841의 敵을 牽制하였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11일 오후에 제23연대로부터 「피의 稜線」을 다시 인수하여 △862—△778—△785—△582—△554線에서 그 北쪽 제23연대의 戰況을 지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2대대는 장차 同연대가 △894를 점령하는 즉시로 그 西南쪽의 △728를 攻擊하기 위하여 이날 15.00에 鳩峴 南쪽 1Km에 집결하였다.

3.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날 20.00에 France대대에 △868진지를 인계한 제3대대(20.00부로 제23연대로 부터 배속해제)를 後谷里부근으로 집결케 한 다음 곧 Kansas線에 대한 방어임무를 담당케 하고 제1, 제2 兩대대는 계속 CP(後谷里)부근에 控置되었는데, 연대는 이날부로 사단예비 兼 군단예비가 되어 군단장의 手裡에 들게 되었다.

9월 14일 : 전날의 一戰결과로 미루어 보건데, 그 전투양상이 「피의 稜線」전투의 再版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사단장 de Shazo준장은 이날 아침 비로소 이 능선에 대한 敵의 방어력을 過少評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難局의 打開를 모색한 끝에 공격력을 加一層 증강키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당초의 공격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敵이 능선의 東側方에 방어력을 집중한 틈을 타서 南쪽으로부터 △894(목표 R)正面을 直衝突破키로 하고 △728에 대한 出擊을 待機中인 제9연대에 『목표 R을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제72전차대대 B중대(M4A3型 21대)와 重砲 1개대대(155mm 18문) 그리고 重박격포 1개중대(4.2″ 12문)로써 同연대를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도 제2, 제3 兩대대로써 중간목표(無名高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전날과 다름없이 △750 南쪽 계곡의 急編진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Adams대령은 공격일선에 대한 敵의 背射위협을 排除하기 위하여 France대대로 하여금 △1,052—△841를 탈취케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당시에 연대가 이것을 손에 넣으면 右隣接인 韓제5사단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가 공략중인 △1,211(일명 「金日成高地」)의 西南쪽을 脅威할 수 있는 동시에 沙汰里부근의 △655(△841 西北쪽 2Km)에서의 敵의 지원화력을 制壓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같은 決心에 따라 연대장은 16.00에 France대대에 命令하기를 『9. 15. 07.00를 期하여 △841—△1,052를 逐次로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고 하였다.

이에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16.45에 제1중대를 △841 南쪽 鳥項谷으로 추진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케 하였다.

2. 한편 사단장으로부터 △894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은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이날 아침 鳩峴 南쪽에서 △728공격을 待機中인 제2대대를 野於洞계곡으로 추진한 다음, 野於洞—梨木亭間도로 (「피의 稜線」과 「斷腸의 稜線」 사이의 계곡)를 LD로 하여 목표 R을 공격케 하였다.

대대는 제72전차대대 B중대가 戰車砲로써 △894 南斜面의 敵 화력據點을 격파하는 가운데 155mm重砲와 4.2″重박격포의 엄호아래 下野於洞 東쪽에서 北으로 달리는 능선을 따라 叢林속을 踏破한 끝에 日沒무렵에는 목표 R(△894)의 西南쪽 600m에 있는 無名高地Ⓑ(標高 890m 정도)를 手中에 넣게 되었다.

대대는 여기서 다시 東北쪽으로 목표 R을 공격하였으나 이로부터는 敵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쳐 前進이 如意치 않으므로 목표에 대한 공격을 다음날로 미루고 同高地에 진지를 急編하면서 徹夜하였다.

9월 15일 : 사단의 공격부대가 목표Ⓐ高地의 東쪽 계곡에 膠着되자 敵은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서 사단에 계속적인 出血을 강요하려는 듯, 전날부터는 敵砲가 比雅里계곡의 포병진지와 교량을 목표로 命中率이 좋은 効力射를 퍼부었다.

따라서 파괴된 교량의 복구작업으로 말미암아 前線부대의 보급차량이 이 계곡에서 淹滯되는 동안 敵砲에 依한 적지않은 손실을 보는가 하면 後項谷—堈嶺 間路에는 敵의 奇襲組가 隨時로 출몰하여 보급품을 운반중인 車輛縱隊와 韓國노무자들을 차별없이 襲擊한 까닭으로 여기서도 보급품과 人命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때문에 戰線兵士 스스로가 보급품을 메어 올리고 負傷者를 후송하는 일까지 맡아야만 한 탓으로 거기에 意外의 병력이 所要되어 이와같은 보급추진문제가 제1선의 戰力弱化를 더욱 부채질하는 結果가 되었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의 主力인 제2, 제3 兩대대는 이날도 전날의 急編진지에서 進展없는 一方的인 血戰만을 되풀이 하였는데, 兩대대는 지난 13일에 공격을 發起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50여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다.

한편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전날 鳥項谷 南麓으로 進出한 제1중대로써 이날 07.00를 期하여 △841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중대는 鳥項谷을 건너 頂上의 南쪽을 急衝하자 高地 南쪽 斜面인 700稜線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장교 1명을 포함한 15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868에 있는 제3중대로 하여금 급히 鳥項谷 南麓으로 치달리게 하여 우선 제1중대를 화력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힘입은 중대는 敵의 前進線을 强行突破한 끝에 오후 늦게 頂上 15m 앞까지 육박하였으나 견고한 掩蓋壕속에서 굴러내리는 敵의 수류탄 洗禮로 말미암아 끝내 頂上을 점령하지 못하고 17.00에 제3중대의 진지로 反轉하였는데 이날 대대는 장교 3명을 포함한 30여명의 死傷者를 내었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날이 밝자 전날 無名高地Ⓑ를 점령한 제2대대로 하여금 목표 R에 대한 恢復공격을 감행토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戰車와 포병의 協調된 火力이 종일 山頂에 咆哮하는 가운데 濛濛한 爆煙을 헤치면서 直衝과 急襲을 반복한 결과 死傷 11명이라는 意外로 가벼운 손실로써 마침내 山頂을 掌中에 넣게 되었는데, 이때가 15.00로 頂上에 올라선 대대원은 그 北쪽 △931(목표S)너머 無名高地Ⓐ부근에 집중되는 듯한 요란한 敵의 銃砲聲을 들을 수 있었으니, 이로 미루어 當面의 北傀제6사단은 이 능선에서의 방어의 重點을 △931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날 밤 규모를 알 수 없는 敵의 一團이 한차례의 逆襲을 試圖한 바 있는데, 北쪽의 △931로부터 그들이 익혀 두었던 接近路를 이용하여 陣前으로 近迫한 다음, 수류탄으로써 제1선을 攪亂하면서 박격포를 퍼붓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대대는 그때마다 이를 격퇴하고 高地를 堅守하고야 말았다.

② 第2段階—中間目標(無名高地Ⓐ) 攻略(9. 16~9. 21)

9월 16일~9일 21월 : 사단장 de Shazo준장은 15일에 제9연대가 목표 R을 점령함에 따

라 △931의 敵이 南쪽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제23연대로 하여금 당초의 계획대로 능선의 分斷에 拍車를 加하도록 촉구하였으나 敵勢에는 조금도 退潮하는 기미를 찾아 볼 수 없게 同연대에 대한 그 저항이 熾盛依舊하였다.

따라서 敵은 △931의 堅壁 固守만으로도 능히 水入川 河谷으로의 안전한 補給路를 확보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의 보급推進과 병력增援에는 별다른 支障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실제로 이 능선을 지키는 北傀제6사단(장, 소장 洪 林)은 16일 밤에 △931의 제1연대와 예비인 제13연대間의 부대교대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제23연대가 16일부터 18일까지 無名高地Ⓐ(中間目標)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그 戰況은 遲遲不振하여 死傷者만 속출케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連日 부상자의 後送隊列이 比雅里계곡을 메우게 되었다.

이에 제9연대장 Lynch대령은 이와같은 戰況의 推移를 면밀히 分析한 끝에 判斷하기를 『제23연대의 병력이 敵火에 露出된 채 Ⓐ高地의 東쪽에서 너무 오래 머뭇거리는 탓으로 同연대의 손실이 累增되고 있다. 따라서 同연대의 공격을 促進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方法으로 敵의 注意力과 火力을 分散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19일에 사단장에게 건의하되, 自身이 지휘하는 제9연대로써 文登里계곡을 건너 白石山 東南麓의 △867(△894 西南쪽 2Km)와 △1,024(△894 西南쪽 2.6Km)를 攻略케 한다는 공격正面 擴開방안을 具申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단장 de Shazo준장은 『군단장이 공격의 重點을 이 능선에만 두도록 하였다』는 理由로 이 건의를 받아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군단장 Byers소장은 「피의 稜線」전투 이래 사단이 너무 많은 병력을 소모한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限 병력을 아끼도록 强調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20일에 Robert N. Young소장이 새로이 사단장으로 赴任케 되었다.

Young소장은 着任 즉시로 彼我의 戰況을 검토한 결과 견고한 陣地는 正面공격만으로서는 탈취하기 어렵다는 見解에 따라 그 즉석에서 前日에 제9연대장 Lynch대령이 건의한 方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9연대에 명령하기를 『9. 23. 06.00를 期하여 목표 △1,024와 △867를 공격하여 점령하라』고 하는 한편, 제23연대에 대하여서는 당초 계획대로 終始一貫토록 하여 중간목표(無名高地Ⓐ)의 공략에 專力하여 조속히 이를 확보토록 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15일에 제9연대가 목표 R인 △894를 점령하자, 16일에 △702의 제1대대로 하여금 그 일부 병력을 △894로 추진케 하여 여기로부터 목표 S인 △931 南쪽 正面을 直衝케 하고 제3대대와 함께 無名高地Ⓐ를 공격중인 제2대대를 뽑아 △931 東北쪽 능선을 따라 同高地의 東北背를 挾擊케 하는 한편 제3대대는 現진지에서 Ⓐ高地에 대한 공격을 계속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16일 아침에 C중대를 △894에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목표 S 南쪽을 공격케 하였으나 同중대는 종일토록 挺身力鬪한 끝에 목표 △931의 南쪽 500m에 있는 無名高地Ⓒ를 간신히 손에 넣었을 뿐으로 더 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제2, 제3 兩대대 역시 마찬가지로 不振한 상태에서 踏步만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다가 19일에 이르러서야 제23전차중대가 Sherman전차 5台를 잃은 끝에 France공병소대의 엄호아래 沙汰里계곡의 鳥項谷口에 진출함으로써 제2, 제3 兩대대를 직접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兩대대가 사단수색중대의 輕戰車로써 補强된 同전차중대의 助力으로 當面한 공격에 拍車를 加한 결과 21일에 제3대대가 마침내 연대의 중간목표인 Ⓐ高地를 탈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제1대대의 C중대가 △931 南쪽에서 高地의 敵을 견제하는 가운데 同高地의 北斜面을 돌아 Ⓐ高지의 제3대대와 합세하여 밤을 도와 여기에 진지를 再編한 다음, 목표 S(△931)와 T(△851)에 대한 本攻으로 移行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052—△841을 공격중이던 France대대는 목표에 대한 공격을 右隣接인 제5사단이 △1,211를 탈환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여 16일에 이 공격을 中斷하고, 우선 제2, 제3 兩 대대의 목표 Ⓐ高地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일에 제1대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였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15일에 제2대대로써 목표 R인 △894를 점령하여 확보하는 중에 그날밤 한차례 敵의 逆襲企圖를 분쇄한 바 있는데, 16일에도 또 한차례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은 紛亂을 보게 되었다.

대대는 이 두번에 걸친 敵의 逆襲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200여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으나 끝내 이를 固守하였다.

그러자 이 뒤로는 敵이 再奪取를 단념한 듯 더 이상 出血하지 않고 △931에 대한 방어력을 증강하는데에만 힘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23연대의 제1대대가 그 北쪽의 前進진지(無名高地Ⓒ)를 占有하자 그 예비진지로서 이 △894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이러는 동안 △554부근의 제1대대는 △1,024와 △868에 대한 수색활동을 계속하였는데, 20일에 新任사단장의 공격정면 擴開방침에 따라 연대는 제1대대로써 △1,024를 공격할 채비를 차리게 되었다.

3.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 기간에도 계속 예비로서 Kansas線을 확보하였다.

③ 第3段階—△931攻略(9.22~9.26)

9월 22일 : 전날 제23연대가 Ⓐ高地를 占領함으로써 所期한대로 戰線을 兩斷케 되어 戰線에 다시 活氣를 되찾게 되었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 05.30을 期하여 목표 S와 T에 대한

本攻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이를 目標로 하는 연대장의 이날 작전 構想은 大要 다음과 같았다.

『① 제1대대는 목표 S(△931)의 南쪽 正面을 공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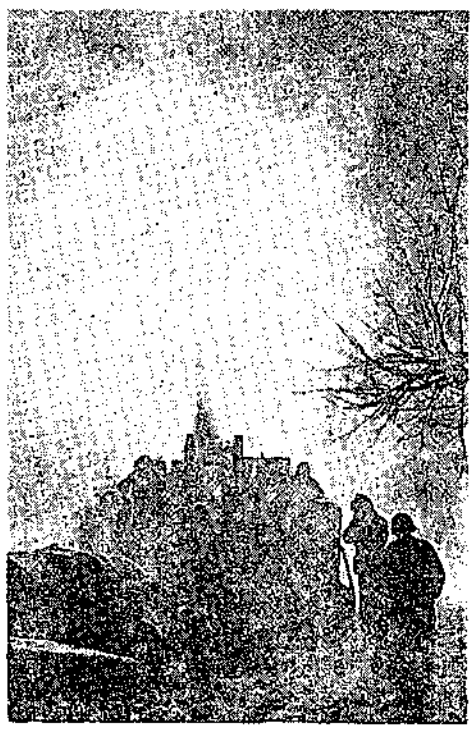
② 제2대대는 無名高地 Ⓐ로부터 목표 S의 北쪽을 挾擊한다.

③ 제3대대는 제1, 제2 兩대대의 공격間에 △851(목표 T)의 敵을 牽制한다.

④ France대대는 제1대대로 화력지원한다.

⑤ 제23전차중대는 제2대대를 지원한다.』

가) 전날 無名高地©로 全 主力을 추진한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이날 05.30부터 공격을 시작키로 하였으나 마침 지원 砲兵의 준비가 뒤따르지 못한 탓으로 공격개시 시간이 지연되어 09.00부터 공격키로 하였는데, B중대로써 목표 S의 南쪽 正面을 指向케 하고 A, C 兩중대로써 그 左右로 우회하여 兩面에서 挾攻토록 함으로써 頂上을 東西南 三面으로 포위하는 形勢를 취하게 하였다.



<砲哮하는 155mm 自走砲>

B중대는 無名高地©에서 稜線을 따라 200m를 前進한 바, 그곳의 塹壕속에 버티고 있는 警戒要員들과 격돌케 되었는데, 그들은 자동화기를 亂射하면서 수류탄을 마구 굴러내리는 까닭으로 더 이상의 접근이 容易치 않았다.

이에 중대는 △660(△931 東南쪽 2.5Km)로부터 France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 警戒線을 突破하고 100m를 더 前進하였는데 이러는 동안 東쪽의 絶壁地帶로 迂回한 C중대는 커다란 接戰없이 頂上부근으로 肉迫하였으며 西쪽의 A중대도 목표高地頂上에서 西쪽으로 뻗은 稜線上의 要部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0.00에 3개중대가 동시에 三面에서 일제히 頂上을 향하여 약진한 결과 頂上의 敵前 30m에까지 이르렀으나 빗발치 듯 炸裂하는 수류탄의 爆焰에 앞을 가로 막히게 되었는데, 이어 敵의 81mm 및 120mm 박격포를 비롯한 76mm와 122mm 野砲등 各樣 砲彈이 서로 競爭하 듯이 집중되는 탓으로 紛飛하는 鐵片과 石塊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이에 대대는 공격을 일단 中止하고 各 중대로 하여금 각각 山腹으로 100m를 물러나게 한 다음 10.45에 두번째의 恢復공격에 들어갔다.

대대의 3개 중대는 앞서의 방식대로 다시 砲煙彈雨속을 헤치고 步一步로 전진하여 이번에는 敵前 10여m 앞까지 육박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敵의 최후저지火網을 뚫지 못한 까닭으로 또 한번 물러서는 바 되었는데, 이에 氣高萬丈한 듯한 敵은 그 虛勢를 자랑하 듯 그들의 砲火가 집중되는 가운데에서도 塹壕속을 뛰쳐나와 대대원의 등뒤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그들의 戰意가 決코 尋常치 않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와같이 대대가 一進一止를 반복하는 동안, 목표인 △931의 北쪽에서 공격준비를 가다듬은 제2대대가 15.00에 공격을 시작케 되었으므로 이에 呼應하여 대대도 15.30에 세번째로 공격을 再興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번에도 敵 砲兵의 陣內사격이 聲勢를 떨친 까닭으로 敵前 10여m에서 다시 100여m로 물러서는 前轍을 밟고 말았는데, 대대는 이에 꺽이지 않고 16.00에 네번째의 공격을 반복하여 敵陣 15m前方까지 다시 육박하였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2명의 擲彈兵이 수류탄을 거머쥐고 頂上으로 突進하여 敵陣의 一角을 깨기도 하였으나 敵 砲火의 狂亂으로 발미암은 頂上의 噴火口를 헤치지 못한 탓으로 대대의 敢鬪가 끝내 無爲로 되고 말았다.

19.00에 대대는 다시 공격을 준비하였으나 이때에 연대장이 항공근접공격으로써 이 頑敵의 命脈을 끊기로 작정하고 대대로 하여금 現 위치에서 突擊陣地를 마련하면서 대기케 하였다.

19.10에 Mustang機 2개 編隊(F—51 8대)가 Radar의 誘導로 薄暮의 蒼空에 나타나 △931 頂上에 Rocket彈과 Napalm彈을 퍼붓고 機銃으로 掃射함으로써 敵陣을 摺伏케 하였는데 Rocket탄의 爆風과 Napalm탄의 熱炎이 山頂을 뒤덮는 사이에 夜暗의 幕이 소리없이 내려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차례의 鐵火洗禮를 끝낸 항공기는 곧 機首를 北으로 돌려 △851과 △871에도 對地攻擊의 威力을 加하였는데, 이때 △851(목표 T)일대에는 Ⓐ高地로의 夜襲을 준비하는 듯한 2개대대 규모가 이 一擊으로 말미암아 火焰속에 屠戮되었다는 것이다.

나) 한편 이날 오전중에 Ⓐ高地에서 목표 S(△931) 北斜面으로의 공격을 준비한 제2대대(장, Henry F. Daniels중령)는 15.00에 南쪽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제23전차중대가 이미 불바다로 변한 鳥項谷口에서 전차의 손실을 무릅쓰고 △931 北斜面으로 直擊彈을 퍼부어 대대의 進路를 엄호하는 가운데, Ⓐ高地로부터 躍出하여 그 南쪽 △931와의 鞍部(△931 北쪽 800m)에 이르니 敵의 砲火가 여기에 집중되어 그 爆聲만으로도 이 고개를 갈라 놓을 듯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에 動搖치 않고 進一步에 築一壘로 한결음씩 꾸준히 전진하였으나, 19.00에 그 南쪽의 無名高地Ⓑ(△931 北쪽 500m : 標高 870m 정도)를 手中에 넣는 것으로써 일단 自慰하면서 이날의 공격을 中斷케 되었는데 이는 여기서부터 敵火가 더욱 세차

그 破壞力으로 말미암아 대대원이 急造한 個人壕가 埋沒되어 그속에 있던 제1파 병력의 殆半을 喪失하는 등, 여기에 이르는 동안 150여명의 死傷者를 보게된 것이 그 動因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는 4시간동안에 300m를 前進한 것인데, 이날까지 이 稜線에서 모두 300여명을 잃게 되었다.

다) 이때 Ⓐ高地에 남아 제2대대에 대한 後據가 된 제3대대(장, Virgil E. Craven중령)는 제2대대가 南쪽으로 △931를 공격하는 동안 火力으로써 그 北쪽에 있는 △851의 敵을 견제하였는데, 22.00에는 △851와 △656(沙汰里계곡 東쪽)로부터 夜襲을 감행케 된 一群의 敵을 照明中의 急射擊을 퍼부어 격퇴하였다.

이때 鳥項谷口부근에서 전차를 엄호하기 위하여 埋伏中이던 France공병소대는 전차를 격파하려고 肉迫奇襲을 단행하려는 敵의 一團을 先制로써 5명을 사살하기도 하였다.

2. 이날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제1대대로써 다음날의 △1,024 공격을 준비하면서 △894의 제2대대로 하여금 당초 연대의 목표인 △728(△894 西南쪽 1.7Km)를 공격케 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Kansas線을 확보中이었다.

9월 23일 : 그간 제8군의 예비로서 忠州에서 부대를 整備中이던 Netherland대대(장, W. D.H. Eekhout중령 : 8.16부로 제8군예비)가 이날 15.00에 後谷里에 進出하자 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사단장은 이를 제38연대와 함께 예비로 확보키로 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전날 발증으로 제1, 제2 兩대대로써 △931 南쪽 中腹 및 北쪽 下麓의 Ⓓ高地에서 急編진지를 維持함으로써 다음 공격의 발판으로 삼는 一方, 사단에서 새로이 充員된 新兵으로 일선중대의 缺員을 보충한 다음, 이날 목표高地(△931)의 北傀 제6사단 제13연대와 攻防戰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이때 當面의 敵제13연대는 전날과 이날에 걸친 전투에서 打擊을 입은 나머지 戰力에 激減을 보게 된 듯 敵의 지원포화의 威力은 다름 없었으나 해가 기울면서는 高地의 저항에 凋色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대의 제1, 제2 兩대대가 高地頂上에 南北으로 근접하여 포위태세를 늦추지 않아 被圍裡에 孤立된 高地의 그들에게 증원이 如意치 못한데에 基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러한 虛隙을 看破한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薄暮를 틈타 南쪽에서 白兵을 휘몰아 高地頂上을 急襲하여 銃劍으로써 刺突과 撲殺로 마침내 이 高地를 席捲하였다.

이에 대대는 1개중대로 頂上을 지키게 하고 2개중대로써 그 西北麓에 警戒진지를 急編케 함으로써 T字形의 陣容으로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가 목표 S를 손에 넣게되자, 그 北쪽의 제2, 제3 兩대대는 각각 Ⓓ와 Ⓐ高地에서 목표 T(△851)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때 △702의 France대대는 攻擊發起 10일만에 이 稜線에서 보여 준 僚軍 제1대대의 奮戰에 快哉를 부르짖으면서도 自隊가 先頭에서 끝내 功을 세우는 機會가 없게 된 것을 切齒扼腕하기도 하였다.

2. 한편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제2, 제3 兩대대로써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케 하는 가운데 △554의 제1대대로써 西北쪽 △1,024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同대대가 敵의 집중포화를 헤치고 오후에는 목표 △1,024의 東南麓까지 近接하게 되었다.

9월 21일 : 사단은 전날 戰況에 好調를 봄으로써 이 餘勢를 몰아친다면 이날 중으로 최종목표 T(△851)를 능히 탈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으나, 날이 밝기도 전에 敵의 逆襲이 들이닥쳐 △931에서 격전이 再演된 탓으로 목표 T에 대한 攻略은 이를 期約할 수 없게 되었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제1대대로써 전날저녁에 점령한 △931을 확보하던 중, 22.00부터 敵의 122mm野砲와 120mm박격포등 重砲화력이 高地에 집중되어 未久에 必是 敵의 逆襲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날 02.30에 北傀 1개연대규모가 東天에 높이 걸린 下弦의 微光을 등지고 夜叉와 같이 陣前에 나타났다.

이리하여 여기서 다시금 鐵火가 夜空에 輝煌하고 爆聲이 地軸을 震動하는 격전의 한 場面이 전개되었는데 敵은 高地의 西北쪽인 文登里계곡을 타고 먼저 Ⓒ高地의 제2대대 진지와의 地隙을 노린 다음, 物量의 優勢를 믿고 數梯波로써 집요하게 돌격을 반복하였다.

이에 맞선 대대는 孤立된 逆境속에 渾身의 力鬪로 拒止코자 버티었으나 衆寡不敵으로 마침내는 이를 失守하는 바 되었으니, 03.10에 高地 西北麓의 경계선이 무너짐에 따라 그 衝撃의 餘波로 04.45에 頂上마저 敵手에 넘겨주고 만 것이다.

이에 곧 高地의 南쪽 中腹으로 집결한 A중대가 병력을 수습하여 逆襲에 나섰으나 이 또한 力不足으로 無爲로 끝났는데, 06.10에 黎明을 期하여 全대대가 또 한번 逆襲을 企圖하였으나 이때 高地 西北쪽에서 제2파로 증원된 200여명의 敵으로부터 오히려 先制攻撃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931 南쪽의 Ⓒ高地로 撤退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날이 밝자 彼我의 陣容이 전날 아침의 것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는데, 이날 새벽에 △931를 攻奪한 敵은 北傀제5군단(장, 중장 方虎山) 예하 제12사단의 제3연대로서 전날 潰滅된 제6사단 제13연대의 뒤를 이어 여기에 投入된 新參인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當面의 北傀제5군단은 그들이 可用한 兵員을 모조리 動員하여 이 능선의 龜裂을 彌縫하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날 낮 연대장 Adams대령은 제1, 제2 兩대대의 減退된 戰力을 감안하여 △702부근에서 공격일선을 엄호중인 France대대를 이 △931전투에 참가케 하기로 決斷을 내리고 이 대대에 命令하되 『France대대는 25일중으로 제2대대로부터 △931北斜面의 Ⓓ高地진지

를 인수하여 26일 오전까지 △931에 대한 공격준비를 완료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연대도 그 全力을 이 능선에 投入하게 되었으니, 이때 이미 연대의 各대대는 모두 30% 이상의 손실을 보아 編制水準을 유지하는 建制부대로서는 이 대대가 그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2. 이날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제1대대로써 △1,024 東南麓에서 전날의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頂上 600m 東南 中腹에서 敵의 강력한 박격포 火網에 걸려 더 이상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2대대도 △894에서 10.30에 △728를 向하여 공격을 再開한 바 있으나, 이 역시 同高地를 嚴守하는 敵의 완강완 저항에 부딪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894로 反轉하였다.

3. 한편 제23연대가 France대대를 공격일선에 參加케 함에 따라, 사단장 Young소장은 이 대대가 빠짐으로써 豫想되는 사단 東側方의 空白部에 대한 補塡策으로서 예비인 제38연대의 1개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여 이 대대로써 종전에 France대대가 맡았던 사단 東側方에 대한 엄호임무를 담당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제38연대장 Mildren대령은 後谷里의 CP부근에 控置된 제1대대로 하여금 △888—△702線으로 약진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9월 25일 : 사단은 이날 右一線인 제23연대가 戰列을 再編하는 동안 左一線인 제9연대로써 左隣接 韓제7사단(장, 李成佳준장)과 서로 協調하여 사단 左正面의 敵에 대한 壓力을 일층 加重케 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ms대령)는 △931 北麓 Ⓓ高地의 제2대대와 France대대의 진지를 서로 교대케하였는데, 제2대대는 Ⓐ高地로 轉進하여 그곳에 있는 제3대대와 함께 이 高地에 대한 엄호진지로서의 機能을 강화하였다.

France대대는 12.00에 새로이 연대에 배속된 제38연대 제1대대에 △868—△702진지를 인계하고 제1중대를 △695(△702 北쪽 500m)에 殘置하여 主力의 진지교대를 엄호케 하는 가운데, 제3중대를 先發隊로 삼아 Ⓐ高地로 推進하여 이로 하여금 어둠이 깃들기 전에 진지를 再編케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날 밤중으로 제2대대의 진지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제3중대에 後續한 제2중대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진지에 到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敵砲의 妨害를 받아 진지교대중에 20여명의 負傷者를 내게 되었다.

한편 △931 南麓 Ⓒ高地의 제1대대는 다음날에 목표高地 北쪽에 있는 France대대와 서로 呼應하면서 挾攻하기 위하여 戰列整備에 박차를 加하였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대대로써 △1,024 東南斜面에서 정상을 목표로 공격을 再起하여 09.00에 頂上부근으로 肉迫케 되었다.

이에 대대는 이 氣勢를 늦추지 않고 頂上을 指向하는 急衝과 강습을 반복한 끝에 11.45에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이를 奪取하였는데, 여기서 대대는 사살 115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대대는 곧 高地주위의 殘敵을 剔抉함으로써 左隣接인 韓제7사단의 제3연대(장, 鄭 震대령)가 목표로 하는 白石山攻略에 그 進路를 열어주는 일방(同사단의 제1차 白石山戰鬪 참조)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867(△1,024 東北쪽 1.7Km)에 대한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날 밤, 韓제7사단의 衝鋒이 白石山을 指向케 됨과 아울러 연대가 △1,024를 탈취하고 △867로 공세를 擴張할 徵候를 보이자, 當面의 北傀제5군단은 여기에 대한 威脅을 크게 느꼈음인지 전날 △931를 탈취한 제12사단 제3연대를 밤을 도와 △867로 급히 뽑아 돌리고 △931에는 다시 제6사단의 제15연대를 投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써 그들이 여기에 대한 「固守決意」를 한층 드높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었다.

3.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배속중인 Netherland대대와 함께 그 主力으로 Kansas線을 확보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1대대는 이날 12.00에 제23연대의 France대대진지를 인수하여 새로이 사단 右側方에 대한 엄호임무를 맡게 되었다.

9월 26일 : 전날 제9연대가 △1,024를 점령한 것을 契機로 左隣接인 韓제7사단이 全力으로 白石山을 공략한 결과 이날 오후에 이를 手中에 넣기도 하여, 사단의 左正面에서 文登里계곡 西쪽으로 溢出할 기세를 보임으로써 隱然中에 △931—△851稜線의 西側背를 脅威하였다.

그러나 이 능선의 敵은 如前히 그 저항이 드세기만 하였으니, 그들은 오히려 전날 △931를 奪還한 그 威勢를 믿기나 하듯이 이날 종일 Ⓐ高地부근에 1,000여발의 박격포탄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 당시 사단은 무엇보다도 威脅的인 敵의 박격포위력을 제압하기에 腐心하였는데, 이날까지도 도무지 그 成果를 헤아릴 수가 없었던 바, 이 능선에서 전투가 시작된 13일 이래로 1일 평균 10,000발에 달하는 사단의 砲彈으로 이 능선일대를 뒤덮었으나 轟聲만이 드높았을 뿐이고, 교묘하게 掩蔽된 敵의 野砲나 박격포진지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결정적인 打擊을 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情況속에서 제1선의 제23연대가 그 全力을 모두 이 능선에 투입하여 乾坤一擲으로써 雌雄을 決하려 하였으나 이날도 戰況은 그 성패를 가름할 수 없는 混迷一路를 거듭하기만 하였으므로 사단은 이에 드디어 이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方途를 모색케 되었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 心機一轉하여 전날 밤에 제2대대와 교대한 France대대로 하여금 13.00를 期하여 △931 北쪽을 공격케 하고 제1대대로써 그 南쪽을 挾擊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France대대를 화력지원케 하고 제3대대는 계속

△851의 敵을 견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새로이 공격제1선이 된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오전중으로 먼저 제1중대로써 △750(Ⓐ高地 東쪽 700m)에 엄호진지를 편성케 하고 대대의 75mm 및 57mm 無反動銃과 Cal 50 機關銃座를 여기에 설치하여, 이들로써 제1선 공격중대의 진로를 개척토록 하는 동시에 81mm 및 4.2″박격포진지를 △931 東南麓 1.5Km의 계곡으로 추진하여 그 頂上에 대한 同時集中의 諸元을 확보케 하였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되, 제3중대를 제1선으로 Ⓓ高地로부터 △931 北斜面을 따라 目標頂上을 强壓케 하고, 제2중대는 제3중대를 後續하다가 同중대가 목표를 점령하는 즉시로 그 西쪽의 △840(△931 西쪽 1.2Km)로 展開토록 함으로써 敵의 예상退路를 차단하여 戰果를 확대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이 이와같은 대대의 공격준비를 看破하고 이에 대한 妨害를 꾀한 듯 오전내 敵砲가 沙汰里계곡—Ⓐ高地間의 대대 後方通路에 계속 집중되어 이로 말미암아 공격준비를 陣頭지휘하던 제2중대장 Goupil대위와 砲隊관측장교가 戰死하고 같이 있던 대대박격포 관측수가 負傷을 입는 가운데 관측용 無電機가 파손되는 등, 일시 대대의 戰列에 風波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곧 연대의 통신수리반이 急派되어 爆焰속에서 無電機를 수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W—110通信線을 배고 마치 曲藝라도 하듯 계곡을 건너뛰면서 移線을 오르내렸으나, 正午가 넘도록 통신疏通이 끝내 원활치 못하여 화력지원에 蹉跌이 생긴 까닭으로 13.00로 예정된 대대의 공격개시시간을 한시간 이상이나 延期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4.30에 제3중대가 공격을 시작케 되었는데, 이때 중대는 1개소대로써 목표 △931의 東쪽으로, 다른 1개소대로써 西쪽으로 각각 迂回케 함으로써 兩面挾擊을 試圖하였다.

이에 따라 高地의 東쪽으로 우회한 소대는 △750에서 지원되는 75mm 무반동총의 엄호아래 頂上의 東麓에 깍아지른 斷崖를 기어올라 千辛萬苦끝에 목표를 目睫之間에 두게 되었으나, 이때 西쪽으로 돌아 頂上을 협격키로 된 소대가 高地의 中腹에 이르기도 전에 敵의 박격포세례를 받아 그 殆半을 喪失케 됨으로써 공격初動에 銳氣를 잃게 되었다.

이에 一翼을 잃은 東쪽 소대는 初志를 一貫코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손실만을 累增케 되어 여기서 중대는 100여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다.

제1선인 제3중대의 戰況이 이에 이르자 대대장은 後續中인 제2중대로 하여금 同중대를 超越공격토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제3중대의 西쪽 소대를 超越한 제2중대도 목표 △931頂上의 西쪽으로 세차례나 突擊을 反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頂上부근에 敵의 수류탄과 자동화기로써 이루어 놓은 火網을 뚫치 못한채로, 17.00에 공격개시선인 Ⓓ高地로 隨意撤收하

고 말았다.

한편 △931 南쪽 ©高地의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이날 France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목표 南麓에 壓力을 加하였으나, 대대의 無反動銃으로 高地 南斜面에 있는 掩蓋壕 몇개를 격파하였을 뿐, 敵의 박격포와 수류탄 그리고 자동화기의 빈틈없는 三重화력속에서 例와 다름없는 苦鬪만을 반복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新鋭인 France대대를 主動으로 내세워 同대대에 도합 5,000여발의 砲彈으로 聲援케 하면서 會心의 一戰을 企圖하였으나, 이도 끝내 無爲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과연 鋼鐵과 돌산의 대결이오, 火藥과 銃劍 그리고 血과 肉의 치열한 競合이었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전날 △1,024를 점령한 제1대대로써 그 東北쪽의 △867를 공격케 하였다.

이에 대대는 △1,024로부터 목표 △867의 西側背를 짜르고 나아가면서 水入川 支流의 河谷주변에 徘徊하는 40여명을 潰滅하고 同高地의 下麓을 席捲하였으나 그 中腹에 다다르게 되면서 高地頂上에서 쏟아지는 자동화기와 박격포 火網에 차단되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1,024로 反轉하여 △867의 敵에 화력으로 應酬하였다.

이때 제2대대는 계속 △894를 확보하면서 그 北쪽 稜線上에서 血戰을 벌이는 제23연대 제1대대의 戰況을 지켜 보았으며, 제3대대는 전날과 다름없이 △785—△582線을 占有하였다.

3. 鳩峴부근의 연대지휘소에서 이날까지의 戰況을 면밀히 분석한 제23연대장 Adams대령은 慨嘆하기를 『연대는 2주일간에 걸쳐 수령속으로 공격을 强行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사단은 그간에 모두 1,670명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는데, 이 가운데서 950명이 연대의 손실이었고, 그것은 T/O의 32%에 該當되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이미 敵이 10,000여명을 이 능선에서 잃었을 것으로 推算되나 △931에서의 抵抗에는 조금도 衰退相을 보이지 않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데 이와같은 狀況에서 전투를 계속한다는 것은 彼我간 始終 병력의 消耗만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斷定하고 이날 밤에 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의 所信의 一端을 披瀝하였다.

『1주일전에 제9연대장 Lynch대령이 建議한 바도 있거니와, 지금이야말로 사단의 공격正面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보다 威壓的으로 敵의 병력분산을 강요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931부근의 稜線에서 當面한 北傀제6사단 제15연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증원이나 補充手段을 없게 한다면 우리 연대는 기필코 이 敵을 물리치고 목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自信합니다. 그러나 敵이 지금과 같이 文登里계곡을 이용하여 계속 증원병력을 投入하는 限 이러한 공격方式으로서는 우리의 손실만이 累增케 될 뿐이며 이 困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敵의 병력을 潰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稜線이라는 自然物을 점령하는데에 있는만큼 지금의 공격계획에 대한 全面的인 再檢討가 요

당된다고 思料되는 바입니다.』

이에 사단장 Young소장은 深思熟考한 끝에 이를 肯定하고 그 이튿날 27일에 군단장에게 건의하기를 『사단은 현재 遂行中인 작전을 일단 中止하고 작전계획을 補完하여 10월초순에 이 능선에 대한 공격을 再開코자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군단장 Byers소장도 이에 同意함으로써 27일부로 제23연대의 △931 공격을 일단 中斷케 되었다.

이리하여 14일간이나 이 능선을 뒤흔들었던 砲火가 멎게 되었는데, 당초에 山腹에 울창하던 樹木이 뿌리채 파 헤쳐져 地殼을 벗겨내고 山頂에 우뚝하였던 岩塊가 깨어져 계곡을 메운 까닭으로 이제 △931—Ⓐ高地—△851에 이르는 능선은 그야말로 碧血로 얼룩져서 본래의 山形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니, 그간의 激戰樣相을 이로써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颱風은 一過하였으되, 秋天에는 瘴霧가 가득하고 山谷에는 哭鬼가 啾啾하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心臟을 터지게 하였으며, 또 얼마나 더 많은 斷腸의 아픔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이 전투를 取材한 外國記者들이 이 능선에 입을 모아 絶叫하기를 「Heart Break!」이라고 한 것도 결코 偶然이 아닐 것이다.

(2) 제2차전(10. 5~10. 13)

(가) 작전계획

9월 27일에 제23연대의 공격을 일단 中斷케 한 사단장 Young소장은 곧 G—3인 Thomas W. Mellon소령에게 지금까지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병력을 逐次 사용한 점과 공격부대에 대한 효율적인 화력지원을 하지 못한 화력 按配上에 결함이 있음을 是認하고, 당초의 사단 작전계획을 全面的으로 재검토 할 것을 指示하였다.

이에 Mellon소령은 사단장의 指針에 따라, 이 두가지 문제에 力點을 두고 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간 사단이 입은 손실 가운데 85%가 敵의 박격포에 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다음 작전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한 制壓方策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그 方案을 모색한 바, 敵의 박격포진지가 沙汰里와 文登里계곡의 掩蔽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까닭에,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포병은 射角관계로 効力있는 制壓射擊을 기대하기 어려우니만큼 直射火器로써 직접 制壓하는 方途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次期작전에 있어서의 基本方針으로서,

『첫째 : 사단의 全병력과 全화력을 동시에 집중한다.

둘째 : 강력한 機甲부대로써 敵線을 돌파하여 敵의 後方(沙汰里와 文登里부근)을 攪亂함으로써 증원을 妨害하는 한편 敵의 포병진지와 화력據點을 撲滅한다.』

이와같은 構想을 定立하고 이에 따라 수립된 細部계획을 「Touch down 作戰」이라 命

命하여 10월 2일에 이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당면의 敵을 撃滅하고 △851—△974線을 점령확보하려 한다.

㉮ 공격개시 일시 : 10. 5. 21.00

㉯ 공격개시선 : 현 진지線

㉰ 전투지경선 : ㉠ 제23연대와 제38연대間 : 下野於洞에서 西北으로 文登里道路를 따라 深浦里까지. 但, 文登里도로의 사용에 대한 優先權은 제38연대에 부여한다.

㉡ 제38연대와 제9연대間 : 古方山里에서 梨木亭—谷內에 이르는 水入川支流의 河谷道를 따라 韓제8사단과의 接境線까지. 但, 梨木亭—谷內道路의 사용에 대한 優先權은 제38연대에 부여한다.

㉱ 공격간 제5공군의 항공지원이 계속 될 것이다.

② 제23연대(France대대 배속)는,

㉮ 목표 S(△931)를 탈취한 다음, 그 北쪽의 목표 T(△851)를 계속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

㉯ 연대전차중대를 主力으로하는 步戰協同특수임무부대(Task Force)를 편성하여 沙汰里부근의 敵 화력을 制壓케 하라.

㉰ 공격간 右隣接 韓제5사단의 左一線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 10. 2. 12.00부로 제38연대 제1대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진지는 同日時부로 韓제5사단의 제35연대에 인계하라.

③ 제38연대(Netherland대대 배속)는,

㉮ 최초 제23연대의 △931공격에 대한 陽攻으로서 文登里道路 左右의 敵을 剔抉한 다음, 제2전투공병대대의 도로개척 작업을 엄호하라.

㉯ 依命 文登里道路 西쪽의 △905—△974를 점령 확보하라.

㉰ 10. 2. 12.00부로 제1대대를 통합지휘하라.

㉱ 공격간에 1개대대로써 Kansas線을 확보케하라. 이 병력의 轉用은 사단장의 承認을 要한다.

④ 제9연대는,

㉮ 먼저 △867를 탈취한 다음, 間乾培—谷內계곡 南龍의 敵을 격멸하고 △1,005를 점령 확보하라.

㉯ 공격간 左隣接 韓제8사단 右一線연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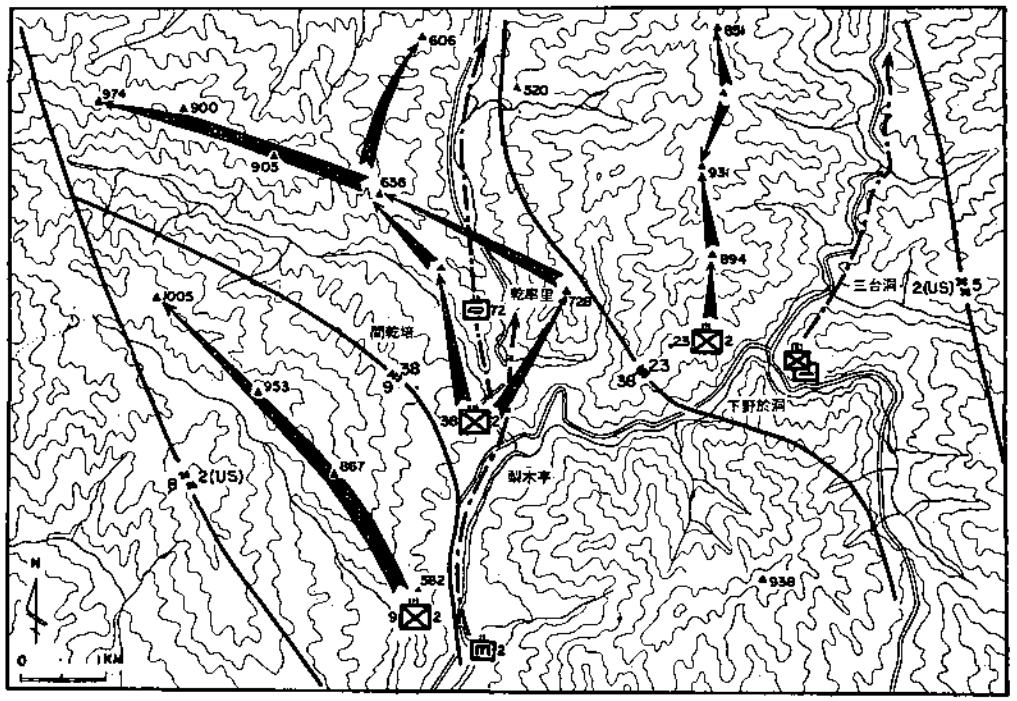
⑤ France대대는 계속 제23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Netherland대대는 D일 H시부로 제38연대에 배속한다.

⑦ 사단포병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화력지원의 우선권은 제23연대에 부여한다.

⑧ 제72전차대대는 공병대대가 水入川道路를 개척 완료하는 즉시로 文登里로 돌진하여,

◇상황도 제20호 제2차 공격계획(10. 5~10. 13)



敵의 화력據點을 격파하고, 계곡 兩岸으로 進出하는 공격부대를 지원하라.

⑨ 제2전투공병대대는 10월 5일까지 古方山里—梨木亭間의 작전로를 개척한 다음, 작전진전에 따라 梨木亭—乾牽里간의 水入川邊道路의 障碍物을 啓開하여 제72전차대대의 本道사용을 保障하라.

⑩ 通信은 現 SOI를 準用한다.

⑪ 지휘소는 계속 閑田里에 위치한다.』

이와같은 명령을 하달한 사단장 Young소장은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실시키로 하되,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그 작전의 重點을 두었다.

『제1단계 : 먼저 主攻인 제23연대가 步戰협동으로 △931를 점령한다. 이와 동시에 공병은 梨木亭—間乾培간의 文登里本道를 개척한다.

제2단계 : 공병대대가 間乾培—乾牽里간도로를 개척한다. 제38연대는 도로 左右邊의 要衝을 확보하여 공병을 엄호한다.

제3단계 : 전차대대가 文登里로 突進하여 敵의 후방을 蹂躪한다. 이와 동시에 제23연대는 △851를 점령하고, 제38연대는 전과를 확대한다.』

이러한 작전지도 方針에 따라 各級부대는 작전준비에 着手케 되었는데, 이 준비단계에서부터 陣頭지휘에 나선 사단장은 먼저 공병의 文登里本道 개척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全 參謀陣을 동원하여 不撤晝夜로 공병대대의 제1단계작업인 古方山里—

梨木亭間의 도로개척작업을 督勵하였다.

이 당시 水入川 河谷道는 農路나 다름없는 等外도로로서 屈曲이 심하고 水田지대를 通過하거나 깊은 계곡의 隘路인 까닭으로 路幅이 좁아 戰車나 砲車가 여기에서 1대라도 擱坐되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장차 이 道上에 M4A3戰車 60여대가 縱橫으로 席捲하여야 할 것이니만큼, 路幅의 확장과 路面의 整地 그리고 장애물 제거가 그 先決要件이었다.

이와같이 이 작전에서 工兵의 寄與度를 重視하면서 이와 아울러 공격간의 彈藥 보급을 위한 조치로 楊口의 군단보급소에 위치한 탄약보급소를 Kansas線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지난 작전에서 지원포병진지가 戰線과 너무 離隔한 까닭으로 步砲協調가 充分치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포병진지를 1Km 이상 前方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限 戰線과의 거리를 短縮케 하는 한편, 이 작전중의 敵火制壓에 있어서는 砲兵依存의 一邊倒를 止揚하고 공격부대의 自隊火力을 활용토록 강조하였는데, 各 대대장으로 하여금 공격全 기간을 網羅한 自隊화력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사단장이 일일히 점검 補完하였다.

이러는 동안 제23연대는 목표 後線에 있는 各대대를 교대로 Kansas線에 뽑아내려 48시간씩 休養케 한 다음 戰列을 再編하였는데, 당초 △931 南쪽 ©고지에 있던 제1대대를 Ⓐ高地로 돌리고, Ⓐ의 제2, 제3 兩대대는 10월 4일에 제9연대 제2대대로부터 △894를 인수케 하였으며, France대대는 계속 Ⓓ高地를 확보케 하였다.

한편 제9연대의 제1대대는 9월 28일에 韓제7사단과 교대한 제8사단에 △1,024를 인계하고 錢坪(長坪里 東北쪽 3Km)에 집결한 바 있는데 △894의 제2대대도 10월 4일에 이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역시 여기에 집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사단戰線에 東西로 나누어졌던 主力을 一東으로 뭉치게 되었으며, 제3대대는 △582를 제38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새로이 △554에 진지를 점령케 되었다.

또한 그간에 Kansas線에서 髀肉을 嘆하던 제38연대도 戰線참가의 준비를 마치고 공격待機線으로 躍出하였는데, 제1대대는 10월 2일에 △868진지를 韓제5사단 제35연대에 인계하고, 4일에 △582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역시 이날(4일)에 梨木亭北쪽의 △485를 점령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계속 Kansas線을 확보케 되어, 이 대신 Netherland대대가 後谷里에서 戰線의 제1, 제2 兩대대를 後續케 되었다.

그리고 이 보다 앞서인 10월 3일에 제23연대는 作命에 따라 同연대의 Kenneth R. Sturman소령을 隊長으로 하는 步戰협동 특수임무부대(Sturman Task Force)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沙汰里부근으로 直衝토록 함으로써, 敵의 화력據點 격파와 敵火를 유도하는 임무를 맡게 하였는데, 이 부대의 編組는 다음과 같다.

제23전차중대

제2수색중대
사단사령부 경비중대
France공병소대

(나) 작전실시

① 작전 제1단계(10.5~10.6)

10월 5일 : 전날 사단은 그간의 공격준비를 마무리 짓고, 이날부터 實地작전으로 移行하였는데, 延49대의 戰爆機 편대가 沙汰里 부근을 폭격하는 가운데, Sturman Task Force가 沙汰里까지 突進함으로써, 道路상태를 점검하고 抵抗정도를 測定하면서 敵의 耳目을 牽制하여 다음에 있을 稜線탈취에 대한 陽攻策을 모색하였다.

이날도 同 Task Force가 沙汰里로 出動하여 敵의 掩蓋壕 30여개소를 격파하였는데, 낮중으로 제2전투공병대대가 예정대로 梨木亭까지의 도로를 開拓함으로써 이 正面의 제38연대가 전투준비를 완료케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戰線에 다시금 腥風이 血雨를 재촉하는 가운데 날이 저물었다.

이윽고 20.30이 되자, 사단장 Young소장은 초닷새의 纖月이 西山에 지는 것을 信號로 다음과 같이 작전개시 명령을 내렸다.

『모든 준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天命이 또한 순조로울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各級부대는 계획대로 실행하라. 諸官의 勇戰에 기대하면서, 神의 가호를 빈다.』

1. 이리하여 20.30부터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 실시되어, 300여문에 달하는 사단砲門에서 일제히 列火를 吐하고, 이어 美제1해병비행단(장, Christian F. Shilt소장)의 Corsair 機편대가 夜空에 亂舞케 되니, 文登里 도로 正面에는 불꽃이 치솟는 不夜城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正面의 능선 主峯인 △931(목표 S)에는 단 한발의 포탄도 炸裂치 않아, 여기에서는 한동안 漆夜 그대로의 靜寂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연대장이 공격에 앞서, 당초 사단에서 공격개시 시간을 달이 진 직후인 21.00로 잡은 취지에 일관하여, 夜間공격에서의 奇襲효과를 높이고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까닭이었다.

즉, 이 당시 연대는 제2대대로써 포병화력과 照明지원없이 △931 南쪽에서 이를 奇襲 탈취하는데에 작전의 重點을 두고, 제3대대로써 同대대를 후속케 하여 상황에 따라 即應케 하였는데, 이때 France대대는 △931 北쪽에서 陽攻으로써 이를 挾擊케 하였으며, 제1대대는 목표 △931 공격間에 그 北쪽의 △851(목표 T)를 南쪽에서 견제공격토록 한 것이다.

이리하여 21.00에 제2대대(장, Henry F. Daniels중령)가 △894에서 그 北쪽의 목표 △931 南麓으로 나아갔는데, 文登里도로변에서는 서로 聲威를 다투는 彼我의 銃砲聲이 不

協和音을 이루는 중이었으나, 대대가 음산한 밤공기를 헤치면서 步一步로 그 北쪽의 능선으로 기어올라 목표高地의 中腹에 있는 敵의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이 능선에서는 단 한발의 砲彈도 교환되지 아니하였으니, 연대의 奇襲을 위한 敵火誘導의 機略이 的中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윽고 대대가 △931 南麓의 敵線에 육박하면서 이와 때를 맞추어 高地 北쪽에서 France 대대가 陽攻으로써 공격威力을 발휘하니 지금까지 사단의 左正面에만 指向되었던 敵火가 △931 北斜面과 Ⓐ高地부근으로 急旋回하였다. 이와같이 敵은 화력의 指向할 바를 모르고 左顧右眄하는 사이에 대대가 高地 南쪽에서 대대장 Daniels중령의 진두지휘아래 단숨에 敵의 제1선을 돌파하고, 일제히 突擊線으로 약진하여 화염방사기의 烈焰을 휘두르며 一氣에 頂上으로 뛰어올라 占領의 信號彈을 높이 올렸으니, 이때가 공격개시 6시간만인 그 이튿날 03.00였다.



<「斷腸의 稜線」의 主峯 △931>

한편, 연대의 공격계획에 따라 Ⓐ高地로부터 南쪽으로 △931를 협격키로 된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제1중대를 △750(Ⓐ高地 東쪽 800m)에 殘置하여 공격간에 △656일대로부터의 敵의 출격을 견제하면서 沙汰里의 本道를 장악함으로써 Sturman Task Force의 활동을 保障케 하고, 제3중대로써 △840(△931 西쪽 1.2Km)의 敵의 움직임을 제압케 하는 가운데 Ⓑ高地를 占有中인 제2중대로써 공격제1선으로 삼아 마치 主攻이 여기로 指向한 듯 陽攻을 策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敵의 지원화력이 △931의 北斜面에 집중되면서 그 頂上의 敵이 또한 방

어력을 이쪽으로 轉換한 탓으로, 그야말로 尺土寸地를 옮길 수 없는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뜻대로의 進展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敵의 注意力과 화력을 유인하여 吸着케 함으로써 제2대대의 頂上탈취에 一役을 맡게되었다.

그런데 이날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예정대로 21.00에 Ⓐ高地로부터 北쪽 稜線을 따라 △851 南麓으로 牽制陽攻을 試圖한 바, 250여m를 前進하여 無名高地Ⓔ(標高 830m정도 : △851 南쪽 300m)에 設定된 敵의 前進線에서 寸步를 다투는 血戰을 벌이게 되었으며, 제3대대(장, Virgil E. Craven중령)는 △894에서 제2대대의 戰況을 지켜보다가 子正을 넘어서면서 목표 △931 점령이 目睫之間에 이르게 되자, Ⓑ高地로 달려가 同대대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연대의 別動隊인 Sturman Task Force는 沙汰里계곡의 鳥項谷口에서 曙間에 확보한 諸元에 따라 戰車砲로써 徹夜로 제1대대와 France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는데, 이를 엄호하기 위하여 戰車주위에 埋伏한 France工兵소대가 肉彈공격으로써 이 전차를 拿捕하려는 敵 80여명을 격멸하기도 하였다.

2.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梨木亭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21.00에 2개 대대로써 文登里道路의 左右로 併進케 하였다.

즉, 제1대대를 右제1선으로 하여 △485—△728軸線으로 공격케 함으로써 水入川 東岸(「斷腸의 稜線」西麓)의 敵을 剔抉케 하고, 제2대대를 左제1선으로 삼아 △490(△728 西쪽 1Km)—△636(△490 西北쪽 2Km)線으로 진격토록하여 水入川 西岸의 敵을 驅逐케 함으로써, 乾率里까지의 本道를 확보케 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포병의 射程延伸에 緊接하여 21.10에 梨木亭부근의 집결지에서 躍出하였는데, 제2대대의 일부가 확보중인 △485를 超越하자 一路 △728(△485 北쪽 1.5Km)로 直向하여 이날 밤에 목표(△728)와의 사이에 있는 계곡을 건넜다.

한편 제2대대는 전날 15.50에 대대 先遣隊가 확보한 △485로 主力을 推進하여 날이 밝는대로 △490 攻略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제3대대는 전날의 집결지인 支石里로부터 月雲里에 집결하여 사단예비로서 Kansas線 방어임무를 담당케 되었다.

그리고 연대에 배속된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는 연대예비로서 이날 20.50에 집결지인 後谷里에서 그 主力을 錢坪으로 추진하고 A중대를 「피의 稜線」으로 躍進케 하여 제9연대 제3대대의 일부병력이 확보중인 △785(梨木亭 東쪽 1Km)를 인수토록 하였다.

3. 이날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도 21.00를 期하여 목표에 대한 공격에 着手하였는데, 제1대대를 공격제1선으로 삼아 錢坪에서 △554의 제3대대를 超越하여 西北쪽으로 △867를 공략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포병지원아래 敵의 抵抗을 누르고, 이날밤 목표 △868의 東南쪽

750m까지 전진하였다.

이때 제2선인 제3대대는 계속 △554를 확보하였는데 일부가 占有中이던 △785를 제38연대의 Netherland대대 A중대에 인계하고, 그 병력을 대대 主진지(△554)에 收容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는 이날밤 △554 東쪽의 松峴으로 前進하여 제3대대와 連繫하여 출격태세로 대기케 되었다.

4. 이날 제1단계로 古方山里에서 梨木亭까지의 제1 區間의 도로개척을 완료한 제2전투공병대대(장, Robert W. Love중령)는 여기서 손을 멈추고 제38연대가 △782와 △490를 확보함으로써 이 도로를 장악하게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 당시 乾率里 以北의 文登里道路는 敵이 보급로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척作業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梨木亭에서 乾率里까지의 2.5Km에 이르는 제2 區間의 阻絶지대의 개척에는 敵의 妨害가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前線이 東西로 兩斷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까닭이었다.

10월 6일 : 이날 새벽에 제23연대가 목표 S(△931)를 탈취하게 됨으로써 Touch down 작전이 軌道에 올라서자 사단장 Young소장은 공병대대로 하여금 제2 區間 개척작업을 시작케 하여 작전의 제2단계를 준비토록 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제1대대로써 최종목표인 △851 공격을 續行하여 接敵을 유지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로써 △931線에서 左側의 제38연대와 步調를 맞추기로 하였다.

가) 제2대대(장, Henry F. Daniels중령)는 이날 03.00에 △931를 손에 넣은 뒤로 頂上에 진지를 재편하는 한편, 주위에 徘徊하는 殘敵을 剔抉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는데 03.30에 그들의 일단이 重砲와 박격포지원아래 西쪽의 △840로부터 한차례 역습을 試圖한 바 있어 後續한 제3대대의 增援을 받아 이를 격퇴하고, 이 餘勢를 몰아 France대대가 공격중인 北斜面으로 攻勢를 擴張하여 07.00에 無名高地Ⓕ(△931 北쪽 200m : 標高 900m 정도)를 탈취한 同대대와 連繫함으로써 드디어 △931일대를 모두 손에 넣게 되었다.

나) 제3대대(장, Virgil E. Craven중령)는 이날 새벽에 △931에서 제2대대를 도와 敵의 역습을 물리친 다음, 날이 밝는 즉시로 高地 西南쪽 능선으로 돌아내려, 제38연대 제1대대의 △728공격을 지원하였다. 여기서 대대는 同高地의 東北背를 협격하다가 同대대가 이를 점령하자, 다시 그 衝鋒을 北으로 돌려 14.00에 △810(△931 西쪽 1.2Km)를 손에 넣고 이어 그 西쪽 계곡의 지뢰를 제거하면서 盃岩(乾率里 北쪽 2Km)일대의 殘敵을 剔抉하였다.

다) △931 北麓의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전날 밤에 Ⓓ高地로부터 南쪽의 △931 頂上을 협격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목표 頂上보다 200m 北쪽에 있는 峯巒(無名高地Ⓕ)을 3명의 俘虜와 함께 손에 넣고, 07.00에 제2대대와 연계함으로써 연대로 하여금 이 능선에서 비로소 Ⓐ高地의 南쪽 부분을 席捲케 하였다.

이에 대대는 여기서 공격방향을 正反對인 北쪽으로 돌려 △851를 공격중인 제1대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라) 한편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는 △931가 연대의 손에 들게 됨에 따라 이제 최종목표 T인 △851에 대한 공격제1선의 重任을 맡게 되었다.

대대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敵의 前進진지에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鱗形으로 重疊된 掩蓋壕속에서 死生을 決斷코자 하는 敵의 발악에 부딪쳐 12.45에 Ⓐ高地로 反轉하였다.

마) Sturman Task Force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낮에도 戰車砲와 자동화기의 威力을 綜合발휘하여, △851 東麓과 沙汰里 北쪽의 △656 일대를 강타함으로써 敵의 기관총 5정과 掩蓋壕 35개소를 격파하였는데, 敵도 45mm對空砲와 76mm 反戰車砲로써 對戰車공격을 試圖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同 Task Force는 전차 3대를 잃은 바 있으나 계속 戰車砲를 휘둘러 敵陣을 左衝右突하다가 15.30에 野於洞에 집결하였다.

2.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날 드디어 敵의 △931 堅壁이 무너짐에 따라 당면의 敵 또한 그 戰意가 萎縮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제1, 제2 兩대대로써 목표 공격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리하여 水入川 東岸의 △728로 指向한 제1대대는 北쪽에서 협격한 제23연대 제3대대의 援助로 정오에 이것을 손에 넣게 되었으며, 西岸의 △490를 목표로 한 제2대대는 여기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마련한 중대규모의 敵과 血戰을 벌인 끝에 15.40에 이를 또한 탈취케 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제3대대와 Netherland대대가 예비로서 각각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공병대대의 제2단계 도로개척작업에 대한 엄호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3.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전날 △867에서의 완강한 敵勢로 미루어 1개 대대만으로는 이를 早期에 탈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554의 제3대대를 이날 아침 공격에 참가케 하였다.

이리하여 10.00를 前後하여 제3대대가 △867 東南麓에서 제1대대와 合勢케 되어, 제1대대는 목표高地의 西南쪽으로, 제3대대는 東南쪽으로 전개하여 포병과 Corsair機의 근접지원 아래 동시 併行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高地 南斜面을 占據中인 敵 1개대대규모가 그들의 野砲와 박격포의 掩護下에 집요하게 저항한 까닭으로 21.00까지 高地 中腹에서 鐵火를 주고 받다가, 現진지에서 야간방어를 모색하여 진지를 急編하였다.

② 작전 제2단계(10. 7~10. 9)

10월 7일~10월 9일 : 사단장 Young소장은 제23연대의 奮戰결과로 6일로서 Touch down 작전의 제1단계가 成功裡에 進陟되었다고 判斷하고, 제2단계에서는 제38연대의 활약에

기대하기로 하였으니, 7일에 그 첫 조치로 제72전차대대를 同연대에 배속하여 이로 하여금 梨木亭—乾率里間 도로가 개척되는 즉시로 文登里의 敵 策源을 蹂躪토록 하였다. 그리고 文登里계곡 東麓은 제23연대에 일임케 하고 제38연대는 도로 西쪽 攻略에만 注力토록 하면서 이날부터 Kansas線에 사단예비로 控置中인 同연대의 제3대대를 통합지휘케 하였는데, 이는 연대에 공격력을 증강하여 道路邊의 瞰制要衝을 시급히 확보케 함으로써 공병대대의 도로개척작업을 엄호케 하기 위함이었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7일 未明에 제1대대로써 △851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이날도 無名高地Ⓔ의 敵 경계선에서 一進一退를 반복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931 西麓의 제3대대로 하여금 6일에 제38연대 제1대대가 점령한 △728를 인수케 하였다가, 이날 오후에 同연대의 공격진전에 따라 이를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同대대를 다시 제1대대의 左側으로 추진하여 △851의 西쪽을 협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가 △719(△851 西南쪽 1.2Km)로 挺進하여 8일부터 그 東쪽 稜線을 따라 △851 西쪽을 공격케 되었으나, 목표 高地와의 稜線중간에 있는 無名高地Ⓒ(標高 790m 정도 : △719 東쪽 500m)에 前進진지를 점령중인 1개대대규모의 敵에 의하여 進路가 막혀 여기서 새로운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무렵 목표 △851 南쪽의 제1대대도 9일까지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高地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러는 동안 제2대대는 계속 △931 頂上을 확보하였으며, France대대는 7일에 제2중대를 Ⓐ高地로 추진하고 제3중대를 Ⓓ高地에 配陣케 하여 △931의 제2대대와 함께 稜線上에 縱深을 강화하면서, △750의 제1중대로써 제1대대의 △851공격을 지원하였다. 8일에 대대는 Ⓓ高地의 제3중대를 Ⓐ高地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대의 75mm 무반동총과 重기관총 등 直射火器를 △750로 옮기고 그 南쪽 계곡에 81mm박격포 진지를 새로이 점령케 하여, 이제 직접 △851 攻略에 나설 채비를 갖추었다.

한편 Sturman Task Force는 7일 아침에 다시 沙汰里로 突進하여 그 一圓을 縱橫無盡으로 席捲하고 敵의 掩蓋壕 33개소를 격파한 다음, 17.00에 三台洞으로 反轉하였는데 이와 같은 攪亂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였다.

2.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7일 낮에 △728의 제1대대를 예비로 돌려 松峴里에 집결케 하는 가운데 제2, 제3 兩대대로써 文登里계곡 西麓의 목표에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7일 04.00에 △490에서 △636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13.25에 頂上 200m 南쪽까지 육박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이 그들 박격포의 지원아래 수류탄과 자동화기로써 집요하게 저항한 탓으로 14.45에 500m를 철수하였다가 16.00에 포병과 空中지원을 받아 공격을 再開하여 17.00에 다시 敵前 200m까지 전진하였다. 여기서 대대

는 진지를 急編하여 徹夜한 다음, 그 이튿날 04.00에 공격을 續行하여 기어코 이 敵을 무찌르고 13.00를 前後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대는 날이 저물때까지 그 부근의 殘敵에 대한 擊滅戰을 벌이다가 이날 밤에 급히 推進된 Netherland대대에 이 高地를 인계하고, 이어 9일 아침에 △905(△696 西北쪽 1.4Km)를 向하여 躍進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7일 21.00에 Kansas線을 떠나 子正에 △490에 집결한 다음, 8일 04.30에 제2대대의 東쪽으로 전개하여 도로 西쪽을 따라 △605(△636 北쪽 1.8Km)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9일에 목표 南쪽 800m에 있는 △600를 손에 넣고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여기를 지키던 敵은 이것을 잃으면 內洞—岩洞에 이르는 그들 戰線의 橫軸道路가 壓制되어 그 계곡일대에 放列된 그들의 포병진지를 폭로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인지 오히려 先制공격을 피하면서 決死固守코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무렵 錢坪에 집결중이던 Netherland대대는 8일에 제2대대가 △636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905로 衝鋒을 伸張케 됨에 따라 이날 子正에 △785의 A중대를 통합지휘하여 △636으로 나아가, 9일 08.00에 여기에 진지를 재편함으로써 이 △636를 예비진지로 확보하면서, 이날 새로이 연대 右제1선이 된 제3대대의 △605 공격을 지원하였다.

3.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7일 06.00에 제1, 제3 兩대대로써 △867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바, 목표의 東南쪽 正面을 直衝한 제3대대가 제1대대의 側方지원을 받으며 血戰을 거듭한 끝에 이날 08.15에 이를 점령케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예비로 松峴里에 殘置중인 제2대대로 하여금 사단의 左接境線인 △1,024—白石山에 이르는 능선으로 迂回케 하여 연대의 최종목표인 △1,005(△867 西北쪽 2.7Km : 白石山 東北쪽 1.8Km)를 攻略케 하고, 제1, 제3 兩대대로써 △868과 △1,005사이에 있는 △953(△868 西北쪽 1Km)와 間乾培—谷內道 南쪽의 △666(△867 北쪽 1.2Km)를 탈취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이날(7일) 16.45에 韓제8사단 제10연대(장, 鄭 剛대령)가 占有中인 △1,024부근으로 躍進하여 8일 06.30에 목표 △1,005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대대는 그 이튿날까지 1개중대규모의 敵과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이 敵을 △1,040(△1,005 西北쪽 900m)쪽으로 물리치고 17.15에 이를 손에 넣게 되었다.

한편 이때 제1, 제3 兩대대도 8일에 목표한 △666와 △953를 각각 탈취함으로써 연대는 9일중으로 間乾培—谷內道 以南의 연대전투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4. 제2전투공병대대(장, Robert W. Love중령)는 제38연대가 文登里도로를 따라 진격함으로써 이 도로에 있어서 敵의 小火器에 의한 위협이 排除되자, 7일부터 間乾培—乾率里간의 제2區間 개척에 착수하였다.

대대는 敵砲에 好餌가 될 것을 우려하여 重裝備를 動員치 않고 간단없이 炸裂하는 敵火속에서 오로지 공병삽만으로써 작업에 임하였는데, 이 당시 여기에도 지뢰가 매설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敵의 作爲로 도로가 切斷되고 군데군데 높이 2m 정도의 障壁이 構築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대는 도로 양쪽의 언덕을 허물어 路面의 爆破溝를 메꾸기도 하고 Tetranol 連鎖폭약장치로써 지뢰를 제거하면서 步一步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뢰와 阻絶設備가 稠密한 곳은 迂回치 않을 수 없었으므로 때로는 河床의 粘土를 헤치기도 하고 언덕위에 새로운 도로를 開拓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와같이 不眠不休로 작업을 강행한 결과 9일 저녁에 기어코 이의 開通을 보게 되었다.

③ 작전 제3단계(10. 10~10. 13)

10월 10일 : 사단은 이날, 제9연대가 그 목표를 달성케 되고 제23, 제38 兩연대의 戰況에 好調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병대대가 도로개척을 완료함으로써 戰機가 결정적으로 成熟하였다고 판단하고 목표공격에 加一層 박차를 加하였는데, 이와같이 하여 沙汰里와 文登里로 白刃이 刻一刻 다가서게 되자, 이제 敵은 여기의 北傀제5군단만으로서는 더 이상 支撑할 餘力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지 7~8월에 새로이 鴨綠江을 건너 金城正面에 나타난 中共제68군 예하 제204사단의 投入으로써 戰線을 교대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목표 △851 南쪽의 제1대대와 西쪽의 제3대대로써 각각 當面의 敵에 대한 공격을 계속케 하고, △931의 제2대대를 제3대대의 西쪽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서히 戰線의 整備를 도모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제1, 제3 兩대대는 각각 無名高地Ⓔ와 Ⓖ를 防守中인 敵과 銃火를 주고받았으며 제2대대는 午前에 제3대대가 占有中인 △719로 전진하였다가 13. 00에 다시 西쪽능선으로 돌아 文登里도로변의 △520(△719 西쪽 1.2Km)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1개중대규모의 敵을 覆滅하고 16. 00에 이를 손에 넣음으로써, 文登里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38연대와 連繫케 되었다.

한편 이날 France대대는 종일 △750—Ⓐ高地間의 능선을 장악하여 沙汰里계곡을 제압하면서 제1대대의 △851 공격을 지원하였는데, 이날 18. 00에 연대장 Adams대령으로 부터 『대대는 別命이 하달되는 즉시로 △851 東側面으로 출격하여 제1대대와 함께 同목표를 협격할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아, △750의 제1중대로 하여금 밤을 도와 그 공격준비에 임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날 Sturman Task Force는 10. 00에 다시 沙汰里로 突進하여 △871와 △851 東斜面에 配置된 敵의 화력據點을 격파하였는데, 그 北쪽 △656부근에서 200여명의 敵이 對戰車 공격을 감행하여 박격포와 自動화력을 集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차위에 탑승한 공병과 掩護보병이 위협을 받게 되어 15. 00에 三合洞으로 反轉케 되었는데, 이 부근에서 5대의 전차를 잃었으며 엄호병력 역시 적지않은 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이날 병력을

점검한 바 France공병소대의 殘餘병력이 14명 뿐이었다.

2. 제38연대장 Mildren대령은 이날 아침에 배속중인 제72전차대대(장, John O.Woods 중령)의 B,C 兩중대와 제3대대의 L중대 및 공병 1개소대로써 步戰협동부대(72 Task Force)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文登里로 돌진케 하여 敵의 戰線을 兩斷함으로써 東西로 相互支援을 방해하면서 연대主力을 엄호토록 하였다.

右제1선인 제3대대는 06.30에 목표 △606에 대한 전날의 공격을 再開하여, 11.45에 기어코 이것을 탈취하여 그 주위에 있는 殘敵을 격멸하고, 15.30에 여기에 진지를 재편케 되었다.

한편 左제1선인 제2대대도 06.30을 期하여 △905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여 09.30에는 頂上부근까지 육박하게 되었으나, 敵의 최후阻止線을 뚫치 못하여 一進一退를 반복하던 중 12.00에 增援부대인 듯한 1개대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대대의 東北과 西南의 兩面으로 포위코자 하므로 이에 Netherland대대가 확보중인 △636진지로 隨意철수하였다.

이때 Netherland대대는 △636의 예비진지를 확보하다가 오후에는 △905 공격중에 反轉한 제2대대에 이를 一任하고 西北으로 약진하여 △606에서 西南으로 뻗어 △905에 이르는 능선을 점령함으로써 △905에 대한 側面협격의 태세에 들어 갔으며, 제1대대는 20.00에 집결지인 松峴里에서 △582로 전진하여 다시 戰線참가에 대비케 되었다.

그런데 이날 드디어 연대가 빼어 들게 된 秘藏의 寶刀, 72 Task Force는 06.00에 지원보병 및 공병과 더불어 縱隊편성을 완료하고 곧 文登里를 향하여 發進하였는데, 本道는 의외로 開放된 채, 敵이 이를 阻止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縱隊가 이에 介意치 않고 진격을 재촉하여 盃岩 北쪽에 이르렀을 무렵, 도로 左右의 계곡을 따라 北傀兵들이 三三五五로 떼를 지어 발길을 北으로 향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전차의 全화력으로써 이들을 격멸하면서 전진을 계속한 바, 12.00에는 文登里를 席捲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B중대는 4Km를 더 北進하여 下深浦부근까지 돌진케 되었다.

이때 同중대는 그 北쪽으로부터 이 本道를 따라 南向中인 敵의 큰 縱隊를 발견하고 戰車를 길 兩쪽의 丘陵으로 전개하여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全화력을 일제히 同時집중하니, 秋野에 肉片과 骨塊가 紛飛하는 修羅의 一場을 연출케 되었다.

居無何에 敵影이 간데 없어지고 血流가 狼藉한 本道위에서 俘虜 몇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들은 北傀진지로 投入되는 中共제204사단의 일부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이날을 前後하여 北傀제5군단이 불러가고 中共제68군이 여기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임을 確認할 수 있었다.

同 Task Force는 이와같이 文登里일대를 蹂躙한 다음 연대主力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16.40에 乾率里로 反轉하였는데, 敵의 對戰車砲火로 말미암아 전차 2대의 손상을 보기도 하였다.

3. 한편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이날 15.00에 △905의 제3대대를 松峴里

로 뽑아 사단예비로 돌리고, 제1대대로써 △666—△953일대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2대대로 하여금 전날 탈취한 △1,005로부터 그 西北쪽 500m에 있는 △1,040를 兼하여 손에 넣게한 바, 16.10에 이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연대는 所期의 목표를 모조리 略取하게 된 것이다.

10월 11일 : 이날 사단正面에는 北傀제5군단이 北으로 물러가고, 中共제204사단의 증원을 받은 北傀제2군단의 제13사단(장, 소장 鄭炳甲)이 새로이 그 戰線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그들은 同사단의 제23연대로써 △851를 맡게하고 제21연대를 그 北쪽의 △871에 配置하여 그 縱深을 강화토록 하는 가운데, 제19연대로써 沙汰里부근에서 兩연대를 엄호케 함으로써, △851의 방어에 그들의 可用한 力量을 모두 投入한 것으로 내다 보였다.

한편 中共제204사단(장, 曹玉清)主力은 北漢江 東岸으로 溢出하려는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의 銃鋒을 阻止코자 한 듯, 그 正面인 △1,005—△1,220(△1,005 西北쪽 4.2 Km)—△1,065(△1,220 西南쪽 4.7Km)間의 능선에 主抵抗線을 점령하고 그 前方 CP를 △1,220에 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단正面의 敵情을 이와같이 분석한 군단장 Byers소장은 △851—△1,220線에서 戰線을 整齊키로 하였는데, 이때 제2사단은 이미 △1,220과의 齊頭線인 △905에 이르렀으나, 그 左側의 韓제8사단은 아직 △1,005線에서 敵의 縱深을 돌파하는 중이어서, 그 戰線이 2~4 Km나 처진 상태에 있었다.

이에 군단장은 조속히 兩사단의 戰線에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사단으로 하여금 △905—△1,220 능선을 따라 西側方으로 突出하여 韓제8사단 正面에서 敵의 主抵抗線上의 鎖鑰인 이 △1,220를 略取케 함으로써 同사단의 진격을 促進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15.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제2사단과 韓제8사단의 戰鬪地境線을 10. 12. 12.00부로 現接境線上의 △1,005에서 西北쪽의 △1,220—嶺同으로 延伸한다. △1,220는 제2사단에 포함된다.

② 제2사단은 △1,220를 공격하여 탈취한 다음, 同高地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編成하라. 別命에 따라 이를 韓제8사단에 인계하라.

兩사단의 交代日時는 後達한다.

③ 同공격에 있어서 사용병력에 제한을 加하지 않는다.』

1. 제23연대(장, Jams Y. Adams대령)는 이날 낮중에 제1대대로써 France대대의 화력지원 아래 △851 南쪽 正面에 대한 공격을 계속케 하고, △851 西南麓의 제3대대로써 제2대대(△520)의 엄호下에 조속히 當面의 敵을 剔抉한 다음 목표頂上을 협격토록 하였으나 이날도 兩대대는 별다른 戰勢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가 5일에 여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래, 그 300m 南쪽의 敵경계선인 無名高地Ⓔ를 돌파치 못한 채 이날까지 踏步상태

를 되풀이 하게 되자, 연대장 Adams대령은 오후에 France대대의 瞬發力에 기대하기로 斷案을 내리고, 전날 밤부터 △851 공격준비를 갖추고 待機中인 同대대에 이르기를 『今夜 20.00를 期하여 제1대대를 超越하여 목표 △851를 攻奪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는 해가 진 다음, Ⓐ高地의 제2중대를 △750로 뽑아돌려, 여기서 공격중대를 화력지원토록 하고, 제1중대를 Ⓐ高地로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목표 △851를 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20.00에 공격에 나선 제1중대는 화염방사기와 수류탄으로 進路를 열면서 敵陣을 蹂進돌파하여 22.00에 첫 關門인 Ⓒ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으나, 여기서 중대가 1개소대 병력의 손실을 본 탓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美제1대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敵의 역습에 대비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 Monclar중령은 Ⓐ高地에 남아 있는 제3중대로써 날이 밝기전에 제1중대의 공격임무를 交代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급히 여기로 추진하여 同중대의 진지를 引受하게 하였다.

한편 Sturman Task Force는 이날도 10.10에 沙汰里부근으로 突進하여 그 機動力과 破壞力을 유감없이 발휘한 다음 18.30에 三台洞으로 反轉하였다.

2.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날 새로이 △582의 제1대대를 △636로 추진하여, 전날 △905를 공격중에 同高地로 철수한 제2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가 09.00에 △905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그 東北쪽 稜線에 엄호진지를 점령중인 Netherland대대의 側面지원을 받으며 急衝과 强襲을 반복한 결과 전날보다는 弱化된 듯한 敵의 저항을 누르고 11.15에 이를 手中에 넣게 되었는데, 대대는 高地의 南斜面에 파괴된 20여개의 掩蓋壕속에서 敵이 遺棄한 시체 150여구와 小銃실탄 7상자 및 MCT실탄 18상자 그리고 82mm박격포탄 300여발을 얻었다.

이에 快勝의 自信을 굳힌 대대는 그 여세를 몰아 연대의 최종목표인 △974(△905 西北쪽 2Km)를 향한 공격을 계속하여, 16.30에 그 중간의 △900(△905 西北쪽 1Km)를 손에 넣고 목표高地의 東南麓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여기를 지키던 敵의 陣前出擊으로 말미암아 激突이 벌어졌는데, 날이 저물면서 彼我 交綏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대대는 △900에서 진지를 급편하고 繼戰對策을 摸索하였다.

한편, 전날 右제1선으로서 △605를 점령한 제3대대는 11.00에 竹浦洞(後谷里 北쪽 5Km)으로 轉進하여 사단예비가 되었으며 그 西南麓에서 제1대대의 △905 공격을 지원한 Netherland대대는 그 일부로써 이 △605를 占有하여 文登里계곡에서 활약중인 72 Task Force를 엄호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905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10.45에 梨木亭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整備하였으며, 72 Task Force는 文登里부근에서

敵의 산발적인 대전차공격을 擊摧하면서 下深浦 근교로 육박하여 敵 掩蓋壕 6개를 격파하였는데 여기서 전차 1대의 損傷을 보았다.

3. 전날, 목표를 달성한 제9연대(장, John M. Lynch 대령)는 제1대대로써 △666—△953 전지를, 제2대대로써 △1,005—1,040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威力수색으로 谷內계곡 北쪽의 제38연대를 지원하였는데, 제3대대는 松峴里에서 11,00에 月雲里에 집결하여 이도 사단예비가 되었다.



<8″曲射砲의 偉容>

10월 12일 : 전날의 군단명령에 따라 이날 12.00부로 사단의 左接境線이 西北으로 기울어져, 그 西南쪽에 敵을 남겨둔채 正面이 3Km나 西쪽으로 擴開됨으로써 새로운 공격임무를 부여받게 되자, 사단은 이에 대한 조치로서 12.00부로 연대간의 전투地境線을 일부 再調整하였다.

즉, 제38연대로 하여금 文登里以東의 現담당지역을 제9연대에 인계토록하고, 새로이 擴開된 지역만을 전담하여 △1,220 攻略에 注力케 한 것이다.

이에 아울러, 사단은 同연대의 72 Task Force를 解體하고, 제72전차대대를 제9연대장이 통합지휘케 하였는데, Netherland대대도 現진지에서 제9연대로 배속을 변경하였다.

1.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도 여전히 Sturman Tark Force가 沙汰里계곡을 누비는 가운데, France대대로써 공격제1선을 삼아 △851 南쪽을 急衝케 한바, 목표 △851 頂上을 향하여 進一步하게 되었다.

즉,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전날 밤중 지원포병이 그 諸元을 수정하는 사이에 戰列을 가다듬고 제3중대로써 이날 02.00에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 당시 同중대는 2개소대 뿐이었다.

중대는 陰曆 열이틀날의 月光아래 군단에서 지원된 60″對空探照燈의 간접조명지원을 받으며, 4.2″重박격포의 射程延伸에 腹接하여 △851를 목표로 躍出하였는데, 1개소대는 Ⓔ高地로부터 능선을 따라 목표 頂上의 東南正面을 直衝케 하고, 1개소대는 西쪽 계곡으로 迂回케 하여 그 西側背를 急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兩소대가 30분에 걸쳐 그 先頭를 다툰끝에 사살 20명과 포로 5명의 전과를 거

두고 나머지 敵을 東北쪽으로 驅逐함으로써 02.30에 대대가 목표로 한 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대대에 『목표 △851 점령 끝』이라고 보고하고, 곧 여기에 진지를 급편하였는데, 東天이 밝은 다음에 다시 보니 중대가 점령한 것은 대대의 공격당초에 敵의 경계진지였던 Ⓔ高地와 목표 △851 사이에 있는 峯巒(無名高地Ⓗ)으로서 그 제2선 逐次陣地였다.

목표인 △851는 아직도 100m 北쪽에 鉢峯과 같이 우뚝 솟아 있어 중대는 전날 제1중대가 점령한 Ⓔ高地로부터 불과 100m를 前進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地形이 흡사한 위에 비록 月光이라지만 夜暗이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에 곧 중대는 제1대대(장, George H. Williams, Jr. 소령)로부터 1개소대를 지원받아 여기를 확보케 하고, 그 北쪽의 △851頂上을 목표로 다시 공격을 계속하였다.

高地 左右의 계곡을 席捲한 戰車부대의 挺身敢鬪로 敵의 砲陣地가 대부분 蹂躪되어, 그 지원砲火의 威力은 減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851 南쪽 中腹에서 수류탄과 자동화기로써 오히려 死生을 決斷하려는 듯이 발악하는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다시 Ⓔ高地로 물러나 戰列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21.00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의 A중대가 다시 여기로 推進되어 同중대가 France 제3중대의 1개소대를 통합지휘하여 △851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이도 역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 Adams대령은 이날밤 『France대대는 제1대대와 合同으로 날이 밝기전에 공격을 續行하여 期必코 이를 탈취하라』고 嚴命하였다.

2. 이날 새로이 사단의 中央一線이 된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오후에 △1,005를 韓제8사단에 인계하고 文登里계곡 西麓진지로 약진하였는데, 연대에 배속된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는 계속 △606—△957 일대를 확보하였으며, 제72전차대대(장, John O. Woods중령)는 A중대 단독으로 下深浦부근의 敵陣을 교란하다가 1개연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집중적인 對戰車공격을 받아 文登里로 철수한 다음 그곳의 主力과 함께 15.30에 乾率里로 反轉한 바, 이날 대대는 敵의 대전차포에 전차 1대의 損傷이 있었다.

3. 한편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이날 오후에 乘勝長驅로 사단 左一線의 새로운 전투지역에 성큼 뛰어들게 됨으로써, 그 武名을 北漢江邊에까지 멀리 떨치게 되었다.

즉, 전날 △900를 점령한 제1대대는 이날 새벽 02.30에 中共의 정찰대인 듯한 일단의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바 있으나, 鐵槌一擊으로 이를 물리치고 날이 밝는 즉시로 수색

대를 목표인 △975 東南쪽에 보내어 敵情을 살펴 본 다음, 13.00에 포병과 항공지원아래 이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대대는 △900로부터 西쪽으로 1Km나 이어 진 稜線의 石逕을 한달음에 踏破하고 敵前에 이르러 白兵을 휘몰아침으로써 鎧袖一觸으로 당초에 연대가 마지막 목표를 삼았던 이 △974를 掌中에 넣게 되었는데, 이때가 15.00 正刻이었다.

여기서 대대는 발을 멈추고, 이날 새로이 부여된 목표 △1,220(△974 西쪽 3.5Km)의 驕敵을 향하여 劍尖을 겨눈채 後續부대의 追及을 재촉하였다.

이에 연대장 Mildren대령은 제2대대가 梨木亭부근에서 아직 부대를 정비하는 중이므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사단예비로 月雲里에 措置된 제3대대를 다시 前線으로 推進키로 하고, 이로 하여금 곧 제1대대에 뒤따를 채비를 갖추게 하였다.

10월 13일 : 이날 사단은 이 「斷腸의 稜線」上에서의 마지막 목표인 △851에서 최후의 決戰을 강요하여 紛戰亂鬪끝에 마침내 이를 한손에 爭取함으로써 14일간이나 계속된 Touch down작전에 그 大團圓의 幕을 내리게 되었다.

1. 제23연대장 Adams대령은 전날 밤의 「France대대와 제1대대의 합동공격」명령에 이어, 兩대대의 공격개시시간을 이날 새벽 月落 직후인 04.30으로 결정하고, 제1대대를 능선의 東쪽으로, France대대를 그 西쪽으로 併行공격케 하되, △719의 제3대대로써 ⓖ高地의 敵線을 강행돌파하여 목표 頂上에서 이 兩대대와 협격키로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931 전투에서의 助役으로 脚光을 받은 바 있는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이 △851 攻略의 掉尾에 즈음하여 이제 主役으로 登場케 되었는데, 이때 대대는 이미 전날밤부터 공격을 계속한 제1, 제3 兩중대가 그간에 병력의 激減을 보았으므로 새로이 제2중대로써 공격제1선으로 삼기로 하고, 이를 急遽 Ⓗ高地로 進出케 하였다.

이에 제2중대는 02.00에 Ⓐ高地 東쪽 능선의 △750 진지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04.20에 Ⓗ高地의 공격대기선에 진출함으로써 공격준비를 완료케 되었으나, 그 東쪽에 전개하여 중대와 隊伍를 나란히 하기로 된 제1대대의 공격제1선인 B중대의 공격준비가 채 마무리 되지 못한 탓으로 공격개시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05.30부터 공격을 시작케 되었다.

중대는 그 主力으로써 B중대와 함께 목표 南쪽을 直衝키로 하고, 1개소대를 뽑아 △851에서 西쪽으로 △719에 연하는 능선과 ㄱ字의 굴곡을 이루는 계곡으로 迂回케 하여 △881와 ⓖ高地를 兩斷한 다음, △851의 西北背를 짜르도록 하였다.

이에 同소대는 중대主力과 B중대가 南쪽 正面에서 목표 頂上의 敵에 압력을 加하는 동안 △851 西麓에 마련된 掩蓋壕속의 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西北쪽 골짜기로 멀리 비켜 돌아, 企圖를 秘匿하면서 △851의 北쪽 背面으로 기어 오른 다음, 그곳에서 우선 據點을 확보키로 하고 陣地工事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목표 高地의 北斜面에서 소대원이 壕를 구축하자, 그 南쪽 正面의 攻擊主力에

대한 방어에만 汲汲하던 敵이 그제야 이를 알아차리고, 南으로 향하였던 그들의 총부리를 급히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이미 그들의 등뒤에서 노려보고 있던 소대의 擲彈兵이 돌진하여 수류탄으로써 高地의 北斜面에 있는 참호를 一擲一破로 모두 空中에 날려 보내고 말았다.

이에 소대원은 工事를 中止하고 저마다 白刃을 뽑아들고 劍閃을 휘둘러 腥風을 불러 일으키면서, 一角에서 一隅로 휩쓸어 나아가니 누가 「寡는 衆에 對敵치 못한다」하였던가! 大號 叱咤에 敵兵은 간데없고 다만 悲鳴만이 발길에 흩어 질 뿐, 거칠것 없이 내달았다.

참으로 France軍의 眞面目이 躍如한 한 場面이었다.

이렇듯 소대가 不意에 그들의 등을 들이치니 창졸간에 그 戰列이 무너져 그예 亂麻와 같이 얽혀들고 말았는데, 敵으로서는 그야말로 앞만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後頭部를 强打당한 꼴이 된 셈이었을 것이다.

이 好機를 看破한 南쪽 正面의 공격주력은 France 제2중대를 先頭로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여 腹背挾擊을 받아 陣內에서 갈팡질팡하는 敵을 모조리 屠戮하고 마침내 그 頂上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이때가 06.40 前後로 멀리 東山에서 朝陽이 우람차게 솟아오르는 刹那였다.

이에 France 중대는 곧 57mm 무반동총으로써 그 西쪽 능선에서 제3대대를 가로막고 있는 ⑥高地의 敵陣을 휩쓸고 同대대의 진격을 촉진한 바, 同대대가 이와같은 중대의 援助에 힘입어 그 敵을 一蹴하고 07.20에 △851頂上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이날 비로소 연대는 △851—△520線을 확보케 되었다.

그리하여 07.25에 연대장 Adams대령은 高地의 France대대로 부터 다음과 같은 勝捷譜를 받게 되었으니, 실로 지난달 13일에 공격을 시작한지 만 30일만의 快報였다.

『우리는 △851를 점령하였읍니다.

Yvonne(France대대 제2중대)는 King(제3대대 제10중대)과 抱擁하였읍니다.』

이에 연대장은 정오에 France대대를 德谷里(後谷里 北쪽 2Km)에 집결케 하여 부대를 정비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이날까지 이 「斷腸의 稜線」에서 모두 戰死 60명과 負傷 200명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는 그간 1,832명에 달하는 死傷者를 낸 끝에 드디어 이날 △851—△520線에 제1, 제3, 제2대대順으로 戰線을 가다듬게 되었다.

2.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Netherland대대와 제72전차대대를 통합지휘하여 그간에 제38연대가 확보한 戰線을 정리하였는데, △606—△974線에 主抵抗線을 편성하는 한편 그 前方의 殘敵을 覆滅하였다.

제2대대는 文登里道路 西쪽의 肩部인 △606를 확보하는 右제1선이 되고, 제1대대는 Netherland대대로 부터 △905 진지를 인수하여 中央제1선이 되었으며, Netherland 대대는 전날

진지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左제1선이 되어 제38연대의 제1대대가 占有地인 △974로 轉進하여 同대대가 △1,120(△1,220 東쪽 1Km)로 西進함에 따라 이를 확보한 다음, 그 北쪽의 △841(△974 北쪽 1Km)의 敵을 척결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제72전차대대는 이날부터 공격임무에서 방어임무로 전환하여 △520와 △606 사이의 1Km에 가까운 文登里도로와 그 沿邊의 地隙을 전차로써 補塡하고 左右연대의 主抵抗線 편성에 따르는 陣地工事를 엄호하였으며, 제3대대는 예비로써 祠堂谷(乾率里 西쪽 2Km)에 控置되었다.

3. 제38연대(장, Frank T. Mildren대령)는 전날 전투地境線의 再調整에 따라 △1,220 부근에서 새로운 攻擊兵무대를 개척케 되었다.

제1대대는 전날에 확보한 △974를 Netherland대대에 인계하고, 그 西쪽 능선을 따라 약진을 거듭하여 13.45에 △1,120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여기서 계속 敵의 腰部를 찔러 목표 △1,220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그 東麓에서 敵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쳐 격전을 벌이다가 17.30에 일단 △1,120로 反轉하여 증원의 來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에 月雲里의 제3대대가 △1,120를 향하여 급히 달렸으며, 제2대대는 계속 梨木동부근에 남아 부대를 정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30일간이나 서로의 技倆을 겨룬 이 「斷腸의 稜線」의 一戰은 마침내 사단의 勝利로 그 매듭이 지어졌다.

12일의 사단左接境 擴開로 말미암아 左一線 △1,220에서 연장된 전투도 14일에 제38연대의 제3대대가 △1,120와 同연대 제1대대를 超越공격하여 15일 15.10에 이것마저 一氣呵成으로 손에 넣게 됨으로써 이날로 交綏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제 △851에서 △1,220에 이르는 12Km의 戰線에 一貫된 진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6일에 군단장 Byers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군단작전지시 제246호로써 사단의 전투지경선을 再調整하였다.

『① 제2사단과 韓제8사단의 現전투지경선을 10. 18. 10.00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0. 12. 12.00 以前으로 還元한다.

㉯ 同日時부로 제2사단은 △1,220를 韓제8사단에 인계하라.

② 1개연대를 예비로써 확보하라.』

이에 사단은 18일 10.00부로 左一線의 제38연대지역을 韓제8사단의 제10연대에 인계하고, 同연대를 後谷里부근에 집결케 함으로써 사단예비로 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Sturman Task Force와 제72전차대대로써 沙汰里와 文登里의 兩 道路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23, 제9 兩연대로써 △851—△974間의 戰線을 강화케 되었는데, 이 時點에서 눈을 돌려 군단의 全戰線을 一瞥키로 하면 右翼인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884—△812(△884 西南쪽 8km)—△930(△812 西南쪽 7Km)의 Minnesota線을 확보중이고, 中央右翼인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加七峙線에서 그 西北쪽 △1,211에서의 一進一退를 계속중이며, 左翼인 韓제8사

단(장, 崔榮喜준장)은 △1,220線을 넘어서서 通先谷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같이 하여, 군단이 右翼인 韓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左翼인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과의 戰線을 整齊한다는 당초의 제8군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게 되자, 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곧 군단의 부대交替를 단행하였다.

즉, 제8군은 20일 08.00부로 韓제1군단의 제3사단(장, 白南權준장)을 군단에 배속하여 제5사단과 진지를 교대케 하고, 23일 08.00부로 제9군단의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을 예속케 하여 제2사단의 진지를 인수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韓제3사단은 22일에 加七峯부근의 韓제5사단진지를 인수하였으며, 韓제5사단은 23일에 육본직할로의 복귀와 동시에 襄陽으로 轉進하여 FTC에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제2사단은 21일 밤부터 제7사단의 先發隊인 제17연대와 제32연대(Ethiopia대대 배속)를 진지교대간에 임시배속하여 각각 제38연대의 Kansas진지와 제23연대의 右一線진지를 인수케 한 다음 23일 15.00부로 제9군단에 예속하여 加平부근에 집결함으로써 同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그런데 左一線인 제9연대는 同사단의 제31연대가 後續할 때까지 진지를 계속 확보하다가 25일에 同연대에 이를 인계하고 사단主力에 追隨하였다.

따라서 군단은 25일부터 새로이 韓제3사단을 中央右翼으로, 제7사단을 中央左翼으로 삼아 Minnesota 線을 整備케 되었는데, 이날 板門店에서 휴전회담이 再開되어 戰線을 다시 여기에 釘着케 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戰局은 이제 對陣상태로 變貌케 되는데, 제2사단이 이 「斷腸의 稜線」전투(9. 13~10. 13)에서 거둔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473명	戰死	597명
殺傷(推定)	22,600명	負傷	3,064명
捕虜	606명	失踪	84명

§ 戰訓

◇ 山嶽戰에서의 화력運用문제

이 「斷腸의 稜線」에서, 美軍은 한국의 地理的 특성에 立脚한 전형적인 山嶽戰을 치르게 된 것인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가지 側面에서 多樣의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여야 될 것은 「산악전에는 포병의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 당시 美軍의 포병은 「이러한 지원은 步兵의 重火器가 할 일이다」라고 푸념할 정도였다고 하니, 포병지원사항에 있어서 그 計數를 살펴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즉, 美陸軍의 參戰史인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 의하면 30일간에 걸쳐 이 능선 전투에 지원된 포탄수는 다음과 같다.

105mm곡사포 : 401,000발

155mm곡사포 : 84,000발

8" 곡 사 포 : 13,000발

75mm직 사 포 : 62,000발

그리고 그 밖에도 각종 박격포탄 119,000발과 무반동총 18,000발, 그리고 1일 평균 45회 출격한 戰爆機가 주야를 통털어 1일 1,000Pound의 폭탄을 投下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894—△931—△851 3개의 高地部位(1Km×3Km 넓이)에만 300,000발의 포탄이 집중되었다고 하니, 이 威力은 실로 山形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敵이 이러한 砲爆擊에도 능히 진지를 支撐하였으며, 보병의 白刃이 그들 눈앞에 다가선 다음에야 비로소 退却하거나 殲滅되거나 하였던 것이다.

목표점령의 어느 경우에나 화력이 결코 萬能일 수 없는 것이며 최후의 決定打는 반드시 地

上에서 加하는 突擊과 전과확보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留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 또 한가지 살펴 볼 점은, 이와같은 美제2사단의 화력지원을 분석한 France軍의 參戰報告書인 「Revue Historique De Lármée : France육군역사학보 1971년 11월호」에 述懷하기를 『우리 (France대대)가 싸우는데에는 步兵의 박격포와 무반동총이 突劾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는 제2사단장 Young소장이 제2차戰의 Touch down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병대대의 화력계획을 특히 重視한 것과 一脈相通한다고 할 것인데 그 다음의 一句를 우리는 깊히 吟味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대저 無反動銃은 그 後爆風때문에 銃座의 위치가 쉽사리 폭로된다. 따라서 최대한 5~6회를 발사한 다음에는 銃座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13,000발 (제23연대분 만인 듯)을 발사하기 위하여 이총좌가 몇번이나 이동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보병의 손실로 계산될 것이다.』

§ 硏 究

◇ 지휘관의 交替문제

「피의 稜線」전투가 시작할 때까지 제2사단을 지휘한 Ruffner소장의 交替日字가 명확치 않다.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 의하면 『de Shazo준장이 피의 능선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사단을 지휘하게 되었으나, 斷腸의 능선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Young소장에 의하여 交替되었다』라고 만 밝혔으며, 더 이상의 記錄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This Kind of War」를 보면, 이 「斷腸의 稜線」전투는 당시 副사단장인 Haydon L. Boatner준장 (de Shazo준장과는 1924년 美陸士 졸업 同期生임)이 사단을 지휘한 것으로 推斷할 수 있으며, 이는 여기에서 de Shazo준장을 사단 포병사령관이라고 한 까닭이다. (그러나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는 이 당시의 포병사령관을 Edwin A. Walker대령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를 詳考할 수 없어, 本文에는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의 資料를 따르기로 하였다.

◇ 稜線의 名稱문제

△894—△931—△851에 연하는 능선을 어떤 緣由로 하여 「斷腸의 稜線」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分明히 알 수가 없다.

위의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와 「This Kind of War」에는 모두 이 능선 전투를 取材한 外國記者가 이같은 이름을 붙혔다고 밝혔다.

그런데 「Revue Historique De Lármée」에 의하면, 『제2차전이 終半에 들어선 10월10일 아침에 France대대의 Le mire소령이 △931와 △851사이(Ⓐ高地인 듯)에서 美제23연대 제1대대의 補充병력으로 도착한 Gilbert라는 기관총射手로부터 "보십시요! 이 능선을, 이 戰鬪를! 이야말로 Crèvecoeur(Heart Breaking)입니다"라는 感歎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 △931일대를 Crèvecoeur라 부르게 된 緣由가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士兵의 이 같은 부르짖음이 곧 記事化되어, 널리 人口에 膾炙케 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11. 海軍의 活動 (1951년 9월 1일부터 1951년 9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9호
상 황 도 제22호

要 旨

高城—金化—鐵原—漣川—汶山을 잇는 地上戰線이 거의 膠着되었을 무렵, 海軍은 UN海軍과 합동으로 東海岸에서, 北緯 42°5′ 以南의 海域과 西海岸에서 北緯 39°37′ 以南의 海岸線을 여전히 封鎖하는 가운데 制海權을 완전히 掌握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에서 我軍이 이미 확보中인 島嶼에서의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敵의 海岸砲火를 무릅쓰면서 敵陣地를 猛擊하여 敵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특히 黃海道 椒島를 거점으로 遊擊활동을 전개中인 通稱『水月部隊』와 협동하여 기습상륙전을 수행하는 한편 東海岸에서는 元山灣 일대의 敵 陣地와 江原道 通川地區의 北傀 海軍 부대본부에 대하여 砲擊을 가하였다.

또 美 海軍으로부터 Frigate型 艦艇 2척을, 그리고 交通部로부터 LST 2척과 FS 3척을 인수함으로써 戰備를 더욱 강화하였다.

가. YMS—510艇의 松禾地區 戰鬪 (9.3~9.8)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YMS—510艇	장 중위	金 泰 錫	YMS—505艇	장 중위	姜 基 憲
YMS—513艇	장 대위	劉 寬 植	YMS—503艇	장 대위	金 炯 培

(2) 전투 전의 개황

西部戰線의 제1사단(장, 朴林恒준장)이 臨津江畔에서 中共 第19兵團 및 北傀 第1軍團과 대결하고 있을 무렵 黃海道 海岸 일대에 산재한 大小 島嶼는 海軍의 확보아래 인근 육지로 부터 탈출한 수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피난한 애국청년들은 陸地正面에 대하여 기습적인 상륙을 감행함으로써 敵의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다.

특히『水月部隊』는 愛國青年들이 식량과 탄약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同島를 死守하는 한편, 白翎島에 駐在하는 美第8軍에 소속한 情報將校의 지휘아래 奇襲상륙을 감행하기도 하고 또는 15~20명의 소부대로써 敵中 깊이 파고들어 정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는 提報에 의하면 黃海道 松禾郡 海岸 일대에는 同 郡의 豐海面 月谷里와 同郡 眞風面에 있는 △199에 각각 대대본부를 두고 있는 제320부대와 內務署 警備隊의 병력 800명이 82mm 迫擊砲 10문과 輕機關銃 15정 등으로 武裝하고 있었으며 정규부대와는 달리 1개대대가 200명으로, 中隊는 70명, 小隊는 2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주력부대는 海岸線으로부터 4~6Km 후방高地에 있는 堅壘에 잠복하고 있으며 松禾郡 眞風面 內安里—鴛溪里—月沙里 그리고 上里面 臥龍里와 雲遊面 沙器里의 각 沿岸에 초소를 세우고 또한 海岸線 일대에는 對人지뢰를 매설하여 경비를 강화中에 있었다.

이러한 敵은 我軍이 확보중인 椒島 및 席島에 위협적인 존재인 까닭으로 이를 擊破하는 동시에 後方에 대한 교란効果를 거두기 위하여 9월 2일에 在 白翎島의 美 정보장교는 水月부대의 奇襲상륙을 계획하고 이곳 海域을 경비중인 YMS—510정과 YMS—513정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다.

(3) 전투경과의 개요

9월 3일 : YMS—510艇(장, 金泰錫 중위)과 YMS—513艇(장, 劉寬植 대위)은 이날 01.30에 水月부대 300명을 兩艇에 分乘시키는 한편 상륙용 帆船 10척을 繫索하고 椒島 蘇沙里를 出航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03.00에 YMS—510艇은 松禾郡 眞風面 鶴溪里의 前洋(北緯 38°32′39″ 東經 125°01′24″)에 그리고 YMS—513艇은 그 부근 海上(北緯 38°32′34″ 東經 125°01′42″)에 到着하자 곧 이어 상륙용 帆船 10척으로 上陸運航을 단행케 하였으며 YMS—513艇은 白翎島 海域을 경비하기 위하여 이곳을 出航하였다.

이리하여 08.00에 松禾郡 眞風面 內安里 海岸 상륙에 성공한 水月부대는 敵情을 살피면서 공격 명령을 대기하던 중 YMS—510艇이 SCR(小型 無電機)로 연락을 받자 곧 △199를 목표로 砲擊을 加하면서 이것을 信號로 하듯이 水月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10.00에 水月부대는 진격을 계속한 끝에 內安里에 있는 敵의 중대본부를 점령하고 敗走하는 敵을 급히 추격하면서 △199 대대본부로 直行하였다.

그러나 13.30에 △199의 敵은 토치카로부터 重화기로써 발악적으로 射擊을 시작하였으며 △199 左側에 있는 石灘里와 鶴溪里 그리고 月谷里로부터 증원된 兵力 400명으로써 反擊을 敢行한 결과 水月부대는 兵力과 彈藥부족으로 말미암아 漸次로 狀況이 不利하게 되었다.

이에 YMS—510艇은 艇內의 全 화력으로 △199에 대하여 집중적인 함포사격을 加하면서 水月부대에 要旨 다음과 같은 격려문을 보냈다.

『최선을 다하여 싸워라.

水月부대의 勇名을 길이길이 빛내라. 水月부대의 勇戰은 지금 3,000만 同胞가 보고 있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조국통일에 빛내라.』

이러한 격려를 받게 된 水月부대의 全隊員은 敵과 70~100m 거리를 두고 치열한 火力을 集中하여 공격을 加한 다음 이날 18.30에는 YMS—510艇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椒島로 귀환하고 YMS—510艇은 次期 작전에 필요한 탄약과 기타 보급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仁川으로 出航하였다.

9월 8일 : 仁川으로부터 다시 椒島로 돌아온 YMS—510艇과 YMS—505艇(장, 姜基燾 중위)은 이날 01.00에 水月부대 250명을 兩艇에 分乘시키는 한편 상륙용 帆船 10척을 曳引하면서 椒島 蘇沙里를 출항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02.30에 YMS—510艇은 松禾郡 眞風面 內安里 前洋(北緯 38°25′06″ 東

經 124°56′)에 그리고 YMS—505艇은 그 부근의 海上 (北緯 38°27′21″ 東經 124°57′22″)에 假泊하는 즉시 帆船 10척의 運航으로 水月부대의 上陸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06.00에 眞風面 內安里 海岸에 상륙한 다음 전투태세에 돌입한 부대는 M1 曳光彈 3발을 신호로하여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YMS—510艇과 YMS—505艇 그리고 인근 海岸에 있던 Canada驅逐艦 215號는 月谷里에 있는 敵의 대대본부에 艦砲射擊을 加하였으며 이 지원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 水月부대는 敵의 본부를 점령하였으니 그 威勢가 마치 突風과도 같았다.

이리하여 이날 08.30에 진격을 계속한 부대는 敵 1개소대를 포위하고 가능한 한 捕獲하려고 포위망을 압축하던 차 Canada驅逐艦 215號의 목표물 誤認으로 我軍 5명이 輕傷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대는 일단 100m 뒤로 급속히 후퇴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포위망속에 있던 敵은 脫出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부대의 重화기는 退却하는 敵에게 射擊을 집중하여 대부분 射殺하였다. 그러나 이날 10.00에 지난 3일의 狀況과 같이 다시 敵 200명의 증원부대가 반격하므로 YMS—510艇長 金泰錫 중위는 상륙부대의 戰勢가 불리할 것을 예측하고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때에 YMS—503艇(장, 金炯培 대위)이 YMS—510艇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현지에 도착하였으므로 이 3개 艇과 그리고 Canada驅逐艦 215號 도합 4척으로부터 엄호사격下에 부대는 철수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9월 8일 17.00에 YMS—503艇은 YMS—510艇으로부터 임무를 引受하여 YMS—505艇과 합동으로 椒島 일대海域을 경비하였으며, 水月部隊도 산발적이나마 敵中에 잠입하여 情報蒐集과 遊擊활동을 전개함으로써 敵의 후방을 계속 교란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거둔 전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戰 果		小銃 11정
射殺	102명	損 失
捕虜	1명	戰死 2명
鹵獲		負傷 9명
輕機	1정	

나. 其他 海上作戰 (9.1～10.31)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해군총참모장	소장 孫 元 一	P C—703艦 장	소령 鄭 昊 謀
P F—61艦 장	대령 李 龍 雲	P C—704艦 장	소령 李 泰 永
P C—701艦장	소령 白 雲 企	JMS—301艇 장	대위 朴 基 政
P C—702艦장	소령 印 亮 煥	JMS—302艇 장	중위 朴 春 道

JMS—303艇장 대위 金 元 錫
JMS—304艇장 대위 韓 承 錫
JMS—307艇장 대위 辛 光 永
JMS—308艇장 대위 金 千 鎰
JMS—309艇장 중위 柳 來 赫
JMS—310艇장 대위 蔡 在 錫
JMS—315艇장 대위 洪 元 杓
YMS—503艇장 대위 金 烱 培
YMS—505艇장 중위 姜 基 憲
YMS—506艇장 대위 金 禎 浩
YMS—510艇장 중위 金 泰 錫
YMS—512艇장 대위 林 斗 成
YMS—513艇장 대위 劉 寬 植
YMS—514艇장 대위 崔 京 道
YMS—515艇장 대위 鄭 一 燦
YMS—518艇장 대위 高 景 榮
LST—801艦장 중령 尹 英 遠

(2) 작전 경과의 개요

海軍은 UN海軍과 협동으로 東·西 兩 海域을 封鎖하면서 掃海와 輸送작전을 담당하는 한편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애국청년부대에 대한 지원도 併行하였다.

東海岸에서는 이미 점령중인 永興灣 일대의 島嶼에 대하여 CTE 95.21(永興灣 封鎖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협동하여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또 注文津과 39°사이의 海域에서는 CTE 95.28(東海岸 封鎖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함께 封鎖활동을 늦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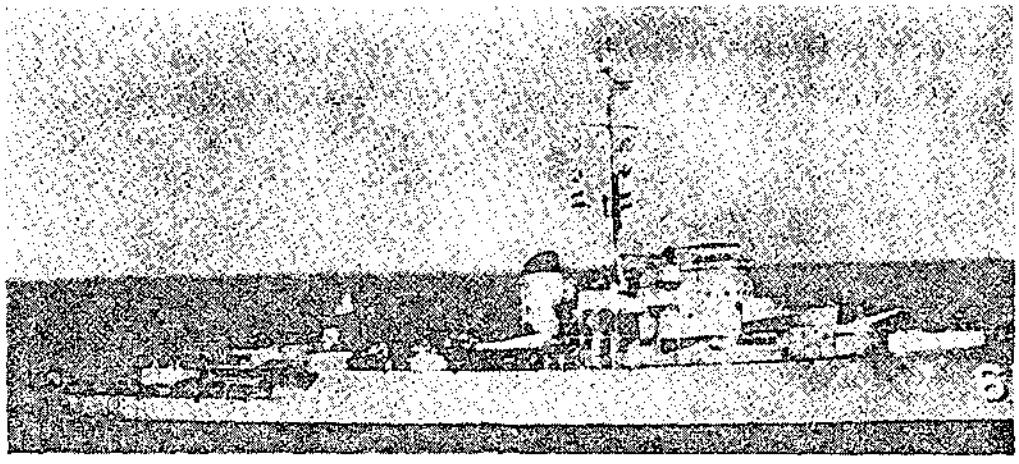
敵은 我軍의 對岸作戰을 阻止하려는 企圖아래 北傀의 元山地區司令部에 소속된 3개대대를 江原道 通川과 庫底 그리고 金蘭里에 配置하고 그 勢力圈을 점차로 강화하자, 이곳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집중적으로 加함으로써 敵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한편 西海岸에 있어서도 敵은 黃海道 海岸線 일대에 海岸砲臺를 증설하고 我軍이 장악하고 있는 島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끈질기게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海軍은 CTG 95.1(西海艦隊司令官)의 UN艦艇과 협동으로 島嶼를 中心으로 경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중의 작전 경과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9월 1일 : PC—702艦(장, 印亮煥 소령)은 元山灣 앞 바다에서 CTE 95.22에 소속된 UN海軍의 艦艇과 협동으로 봉쇄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미 확보중인 麗島 및 기타 島嶼에 대한 警備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注文津 前洋에서는 PC—703艦(장, 鄭昊謀 소령)과 YMS—518艇(장, 高景榮 대위)이 38° 以南으로 항해하는 船舶에 대한 統制를 加하였다.

한편 이날 喬洞島의 前洋에서 PF—61艦(장, 李龍雲 대령)이 지휘하는 JMS—301艇(장, 朴基政 대위)과 JMS—308艇(장, 金千鎰 대위) 그리고 JMS—309艇(장, 柳來赫 중위)은 CTG 95.1(UN 西海艦隊司令官)에 소속된 艦艇과 함께 경비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白翎島 앞바다에서는 JMS—304艇(장, 韓承錫 대위)이 그리고 椵島 앞바다에서는 YMS—510艇(장, 金泰錫 중위)과 YMS—513艇(장, 劉寬植 중위)이 各各 경비에 임하였다.

9월 2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담당지역의 변동없이 東·西 兩 海域에서의 海上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喬洞島 앞 海上을 경비하던 PF—61艦은 延安地區의 敵 陣地에 艦砲사



<西海岸을 봉쇄중인 旗艦 PF-61艦>

격을 加하였다.

9월 3일 : YMS—506艇(장, 金禎浩 대위)과 YMS—515艇(장, 鄭一燦 대위)은 PC—702艦의 지휘아래 元山灣 일대에서 掃海와 警備任務를 수행하였으며, 한편 YMS—505艇(장, 姜基憲 중위)은 JMS—304艇으로부터 임무를 引受하고 白翎島 앞 바다에서 경비에 임하였다.

9월 4일 : PF—61艦은 英國의 艦艇과 합동으로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 海岸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여 敵 50명을 사살하였다.

9월 5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18.50에 PF—61艦은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 海岸에 艦砲사격을 加하여 敵 陣地와 건물을 擾滅하였으며 白翎島 前洋에서 대기중이던 JMS—304艇은 白翎島와 巡威島間의 海域을 경비하였다.

9월 6일 : JMS—307艇(장, 辛光永 대위)은 JMS—301艇으로부터 任務를 인수받은 다음 江華島와 喬洞島間의 海域에서 PF—61艦의 지휘아래 경비에 임하였으며, PC—704艦(장, 李泰永 소령)은 YMS—518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注文津과 巨津사이의 海域에서 封鎖활동에 임하였다.

9월 7일 : PC—703艦은 이날 00.00에 高城郡 高城邑 부근에 있는 △203(北緯 38°35′ 東經 128°21′05″)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토치카를 파괴하였으며 또한 이날 16.30에는 高城 앞 海上(北緯 38°30′, 東經 128°28′30″)에 美 海軍戰鬪機 1대가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조종사 1명을 구출한 다음 美海軍 DD—683艦에 인계하였다.

9월 8일 : 永興灣 入口에서 掃海作業中이던 YMS—506艇과 YMS—515艇은 이날 12.45에 虎島半島의 敵 海岸砲臺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損失없이 다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PC—702艦은 이날 16.35에 같은 半島에 있는 敵 陣地에 艦砲사격을 加하였다.

한편 YMS—503艇(장, 金炯培 대위)은 YMS—510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椒島 一帶 海域에서, 또한 JMS—310艇(장, 蔡在錫 대위)은 JMS—304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아 白翎島와 巡威島間의 海域에서 PF—61艦의 지휘아래 경비에 임하였다.

9월 9일 : YMS—505艇과 YMS—503艇은 이날 08.00에 Canada 驅逐艦 218號와 협동하여 椒島에 있는 水月부대의 黃海道 豊山지구 奇襲상륙전을 지원砲擊하여 敵에게 적지않은 損傷을 주었다.

9월 10일 : 西海岸 昌麟島 앞 海上을 경비중이던 PF—61艦은 이날 08.45에 甕津郡 龍川面 邑底里 海岸線 一帶에서 敵 砲臺 및 敵兵을 발견하자 즉시 砲擊을 加하여 砲臺 3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YMS—514艇(장, 崔京道 대위)은 PC—702艦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永興灣 일대의 경비에 임하였으며 또 JMS—303艇(장, 金元錫 대위)은 JMS—308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鴉洞島 앞 海上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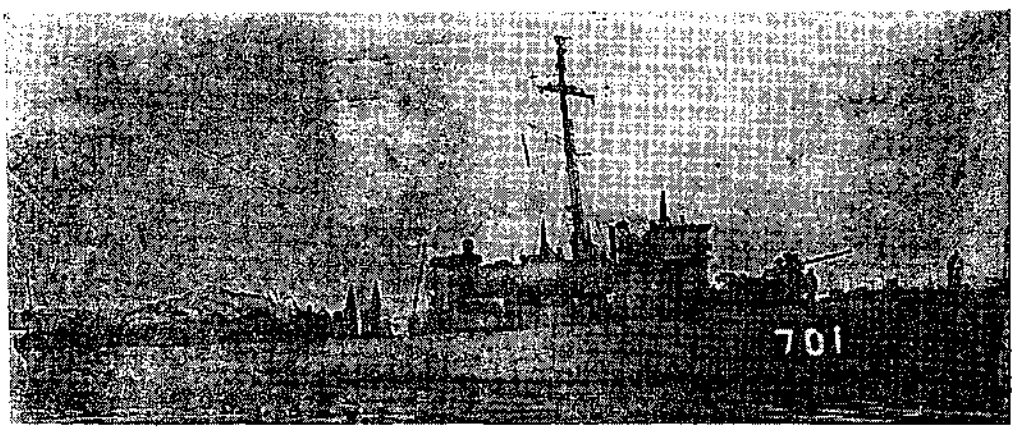
9월 11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東西 兩 海域에서 담당 海域의 변동없이 전개되는 海上활동으로 말미암아 敵은 계속 위축되었는데 PF—61艦은 이날 09.00에 黃海道 夢金浦의 敵陣地에 艦砲사격을 집중하였다.

9월 12일 : 鎭海 統制府(司令長官, 鄭泳模 준장)는 巨濟島에 수용중인 捕虜 90명이 탈출하고, 남은 포로들도 계속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情報에 接하자 곧 巨濟島 北部 海岸을 封鎖하고 小舟艇으로 경비에 임하였다.

9월 13일 : PC—701艦(장, 白雲企 소령)은 東海岸 巨津앞바다에서 PC—703艦으로 부터 임무를 인수하여 PC—704艦과 합동으로 注文津에서 39°에 이르는 海域을 경비하였다.

9월 14일 : PF—61艦은 이날 08.40에 甕津地區 일대의 海岸에 있는 敵의 監視所와 塹壕에 艦砲사격을 加하여 敵 20명을 사살하고 또한 帆船 1척을 격침하였다.

9월 15일 : YMS—514艇은 이날 01.10에 永興灣內에 있는 黃土島 駐屯隊의 연락에 따라



<東海岸봉쇄 전대의 旗艦 PC701艦>

木船 1척을 격침하였으며, 또 JMS—302艇(장, 朴春道 중위)은 JMS—307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아 PF—61艦의 지휘아래 江華島와 喬洞島 사이의 海域에서 경비에 임하였다.

9월 16일 : PC—704艦은 通川郡 通川面 金蘭里에 北傀 海軍 1개대대가 駐屯하고 있다는 情報를 입수하자 이날 11.50에 同 지역 海岸 2,000yds까지 접근한 다음 敵 陣地에 艦砲사격을 집중하였으나 敵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主砲의 射角이 뜻대로 되지않아 완전한 殲滅을 보지 못하고 토치카 6個所와 兵舍 5棟을 파괴한 다음 이날 12.20에 巨津으로 향하였다.

9월 17일 : YMS—512艇과 YMS—514艇은 永興灣內에 있는 茅島駐屯隊로부터 敵이 인근 해상에 발동선을 이용하여 機雷를 부설중이라는 情報를 입수하자 곧 UN艦隊와 긴밀한 협조아래 海上경비에 임하면서 掃海작업을 실시하였다.

9월 18일 : JMS—302艇은 西海岸 禮成江 입구에서 水深測量중, 이날 14.31에 海岸線부근에 잠복한 敵으로부터 不意의 砲擊을 받는 즉시로 14.52까지 砲擊을 집중하여 强打하였으며 한편 LST—801艦(장, 尹英遠 중령)은 西海岸에 출동중인 각 艦艇에 보급품을 追送하였다.

9월 19일 : JMS—315艇(장, 洪元杓 대위)은 JMS—310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巡威島부근 海域에서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03艇과 YMS—505艇은 椒島 南端의 海域에서 掃海작업을 계속 실시하였다.

9월 20일 : PF—61艦은 甕津地區 일대의 高地에 敵 2개대대 병력이 海岸砲臺와 塹壕등 대규모의 海岸 방비시설을 구축하므로 말미암아 我軍이 확보중인 昌麟島를 비롯한 주변의 島嶼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이날 昌麟島 遊擊隊 1개중대 兵力을 甕津郡 巳底里와 大輸里 사이의 海岸에 奇襲상륙케 한 다음 이 상륙부대에 지원砲擊을 加함으로써 62명을 사살하였다.

9월 21일 : PC—702艦은 大靑島 앞 바다에서 PF—61艦으로부터 旗艦임무를 인수받고 이곳 海域에서 海上 活動을 전개하였으며 JMS—307艇은 機關故障을 일으킨 JMS—303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아 江華島 주변의 海域에 대한 경비에 임하였다.

9월 22일 : JMS—315艇은 이날 10.00에 巡威島를 出航한 다음 申島 앞 海上(北緯 37°49′30″, 東經 125°22′04″)에 이르자 甕津郡 東南面 仁坪里의 敵 迫擊砲陣地(北緯 37° 51′, 東經 125°21′55″)에 艦砲사격을 加하고 이날 11.30에 다시 巡威島로 歸港하였다.

9월 23일 : JMS—304艇은 喬洞島 앞 바다에서 JMS—303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PC—702艦의 지휘아래 경비에 임하였다.

9월 24일 : 通川郡 通川面 金蘭里를 중심으로 한 海岸 일대에는 北傀 海軍이 我軍의 對岸활동을 저지코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120mm野砲와 8″重砲陣地를 構築하는 등 그 勢力을 점차로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PF—62艦은 이날 13.30에 金蘭里 海岸 1,500yds까지 깊숙히 進入한다음 敵

陣地에 砲擊을 집중한 결과 推算 敵 150명을 사살하고 토치카 5개소와 兵舍 3棟을 파괴하였다.

9월 25일 : 甕津郡 龍湖島 앞 海上을 경비중이던 JMS—315艇은 이날 16.00에 同郡 東南面 沙串里와 新村里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9월 26일 : JMS—304艇과 JMS—302艇은 이날 05.30에 甕津郡 湖南面 石浦里와 白石里 海岸의 敵 집결소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JMS—315艇은 이날 14.30에 甕津郡 鳳鳴面 일대의 敵情을 수집하기 위하여 龍湖島를 出航하였다.

한편 LST—加平號(선장, 朴興水)는 西海岸 각 基地 및 출동중인 각 艦艇에 보급할 물자를 적재하고 이날 釜山港을 出航하였다.

9월 27일 : JMS—308艇은 JMS—302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PC—702艦의 지시에 따라 巡威島와 喬洞島사이의 海域에 대한 경비에 임하였다.

9월 28일 : 永興灣內에 있는 麗島일대 海域에서 경비중이던 PC—703艦은 이날 01.30에 葛麻半島에 있는 敵 陣地에서 元山市를 향하여 發光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곧이에 砲擊을 加하였다.

9월 29일 : 喬洞島와 巡威島間의 海域을 경비중이던 JMS—308艇은 甕津郡 興嶺半島 일대의 中共軍 집결소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집중하였다.

9월 30일 : 각 艦艇들은 東·西 兩 海域에서 계속하여 警備作戰에 임하고 있는 바 이날 현재 각 海上의 작전現況은 다음과 같다.

東海岸의 永興灣일대 海域에서는 PC—703艦과 YMS—518艇이, 그리고 注文津 앞 海上에서는 PC—701艦과 PC—704艦이 각각 경비중이었으며, 西海岸에서는 PC—702艦의 지휘아래 JMS—308艇과 JMS—315艇, 그리고 JMS—304艇 등이 仁川 앞바다에서, 그리고 YMS—510艇과 YMS—502艇은 白翎島 앞 海上에서 각각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0월 1일 : JMS—301艇(장, 金鍾植 대위)은 海本作命乙 第426號에 따라 喬洞島 近海를 경비하기 위하여 이날 17.00부터 出航하였으며 PC—702艦(장, 印亮煥 소령)은 甕津郡 東南面 上洞과 中洞에 있는 中共軍의 집결地에 砲火를 집중하여 큰 손실을 주었다.

한편 永興灣의 黃土島 派遣隊는 元山의 城北里에 있던 敵이 浪城里로 向하여 發光신호를 교환하는 것을 目擊하자 즉시 我艦에 연락하여 UN艦隊와 합동으로 이를 격파하였다.

10월 2일 : JMS—310艇(장, 蔡在錫 중위)은 江華島 近海에서 경비중인 JMS—304艇과 임무를 교대하라는 海本作命乙 第427號에 의거하여 이날 12.00에 임지로 향하였으며 PC—702艦은 龍湖島 對岸의 高地(37°44′00″N, 125°20′20″E)의 敵에 대하여 이날 06.27부터 한시간에 걸쳐 艦砲사격하였다.

한편 PC—703艦(장, 崔東華 소령)은 東海岸 長箭 北쪽에 위치한 △91의 敵 迫擊砲중대를 강타하였다.

10월 3일 : JMS—308艇(장, 金千鎰 중위)은 西海岸 昌麟島 對岸인 37°48′08″N, 125°11′25″E 지점에 위협사격을 加하면서 我遊擊隊를 同地點에 奇襲상륙토록 엄호하였다.

10월 4일 : 東海岸 黃土島 派遣隊는 元山市 城北里 뒷쪽 高地에서 敵이 信號彈을 發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UN艦艇과 합동하여 砲擊하였다.

10월 5일 : PC—702艦은 大靑島 近海에서 경비임무를 PC—704艦에 인계하고 鎭海로 향하였다.

10월 6일 : PF—61艦(장, 李龍雲 대령)은 東海岸의 長箭 金蘭里에 있는 敵의 집결지를 砲擊하였다.

10월 9일 : PF—61艦은 海本作命 第430號에 의거하여 東海岸의 庫底—水源端 間에서 주로 敵이 機雷敷設에 사용하는 Junk船을 擊破할 목적으로 10.00에 東海로 향하였으며 PC—703艦은 元山市 浪城里 敵陣에 이날 20.00부터 30분간에 걸쳐 艦砲사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JMS—310艇은 이날 10.00에 猊洞島의 仁士里 海岸에서 水深測量작업에 임하고 있던중 갑자기 4Km 北쪽 對岸인 烽火里에 있는 敵陣에서 機關銃 사격을 받았으나 손실없이 전투태세에 突入하여 英艦 Ceylon號(함장, C.F.J.L. Davies 대령)와 합세하여 이를 격멸하였다.

10월 10일 : 이날 海軍은 美海軍 당국으로부터 PF—63艦과 PF—65艦을 引受하여 더욱 海上勢力을 補强하였다. PF—61艦은 이날 11.45에 東海警備區域으로 航進하자 곧 PC—703艦과 YMS—514艇을 지휘하면서 水源端—注文津間의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PC—704艦은 이날 10.10부터 30분간에 걸쳐 海州地區의 敵陣地를 강타하였으며 JMS—310艇도 甕津郡 東南面 烽火里의 敵陣에 대하여 22.15부터 2시간에 걸쳐 艦砲사격을 실시하였다.

또 YMS—506艇(장, 吳龍吉 중위)과 YMS—515艇(장, 鄭一燦 대위)은 黃海道 松禾郡 豊川邑을 目標로 奇襲상륙한 我遊擊隊를 위하여 엄호사격을 실시하였다.

10월 11일 : PC—701艦은 海本作命 第430號에 의거하여 東海岸 경비임무를 수행코자 東海로 出港하였으며 永興灣의 黃土島 派遣隊는 이날 14.10에 元山의 星羅里에 위치한 敵砲臺로부터 120mm 迫擊砲 사격을 받는 즉시로 이를 美艦에 연락하여 擊碎하고 말았다.

10월 12일 : YMS—504艇(장, 張君翼 중위)은 이날 19.00에 元山前洋에 이르러 YMS—514艇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였으며 PF—61艦은 이날 10.35에 東海岸 通川의 敵砲臺를 猛打하였다.

10월 13일 : 이날 UN韓國委員團 一行은 PB—2號艇을 이용하여 釜山에서 鎭海로 向하여 海軍사관학교를 시찰하였다. 한편 JMS—310艇과 JMS—309艇은 延安郡의 靈峴里—白城里—烽火里를 沿하는 海岸에 奇襲상륙한 我遊擊隊(Donkey部隊)에 대한 艦砲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10월 14일 : PC—704艦은 甕津半島에 있는 敵陣을 砲擊하였으며 JMS—303艇은 이날 11.00부터 1시간 동안 甕津郡 沙串里에 있는 敵의 집결지를 강타하여 Truck 1대와 兵舍 數個棟을 파괴하였다.

10월 17일 : 元山앞바다의 大島에 거주하고 있는 難患者 160여명이 軍作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高興郡에 있는 小鹿島收容所로 이송하기 위하여 輸送船 住幸號는 海本作命 第437號에 의거하여 이날17.00에 釜山을 出港하여 大島로 向하였다.

한편 PF—61艦은 高城 南쪽 月比山에서 敵陣中인 제11사단(장, 吳德俊 준장)을 지원하여 敵陣을 猛擊하였다.

10월 18일 : PF—61艦은 東海岸을 警備하던 中에 颱風으로 인하여 No.2 Boiler Bottom Blow Pipe의 破損으로 침수되어 CGE 95.28(UN東海封鎖艦隊)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1.00에 美軍技術陣이 급파되어 應急措置 하였으나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上架 修理次 鎭海로 回船하였다.

10월 19일 : PC—702艦(장, 印亮煥 소령)은 13.50에 大靑島 近海에 이르러 PC—704艦으로부터 경비임무를 引受받아 경비에 임하였다.

10월 20일 : PC—702艦은 椒島近海에 이르러 海岸을 封鎖하고 月沙里의 敵 砲臺를 강타하였다.

한편 PF—61艦은 이날 17.03에 釜山에 入港하여 수리를 실시하였다.

10월 21일 : PF—61艦은 上架修理를 완료하는 즉시로 東海岸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날 出港하였다.

10월22일 : PC—702艦은 西海岸에서 椒島—大靑島間을 封鎖하고 敵陣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JMS—315艇(장, 奉錫文 중위)은 이날 06.00부터 12.00까지 甕津郡 溫井面의 海岸에 奇襲상륙한 我遊擊隊를 지원하여 일대의 敵陣에 砲火를 集中하였다.

또 PF—61艦은 이날 17.00에 東海岸의 水源端에 도착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10월 23일 : JMS—302艇은 本項作命 第1號에 따라 南海岸 일대에 往來가 심한 密輸船을 단속하기 위하여 이날 09.00에 南海로 향하였다.

또 PF—61艦은 東海岸 卵島에 이르러 同島 駐屯隊의 정보에 의하여 對岸의 敵 陣地 3개소에 艦砲사격을 단행하였다.

10월 24일 : PF—61艦은 이날 東海岸 通川近海에서 敵의 海岸砲臺의 공격을 받고 즉시 應射하여 이를 침묵시켰다.

10월 25일 : PC—702艦은 이날 16.05부터 40분간에 걸쳐서 西海岸 巡威島의 對岸에 있는 敵 高地를 砲擊하여 敵을 潰滅토록 하였다. 또 이날부터 掃海艇隊 司令部는 海本編命 第58號에 의거하여 釜山에서 鎭海로 이동하여 소속된 艦艇을 지휘하였다.

10월 26일 : PC—702艦은 西海岸의 巡威島의 對岸에 있는 敵砲臺에, 그리고 JMS—303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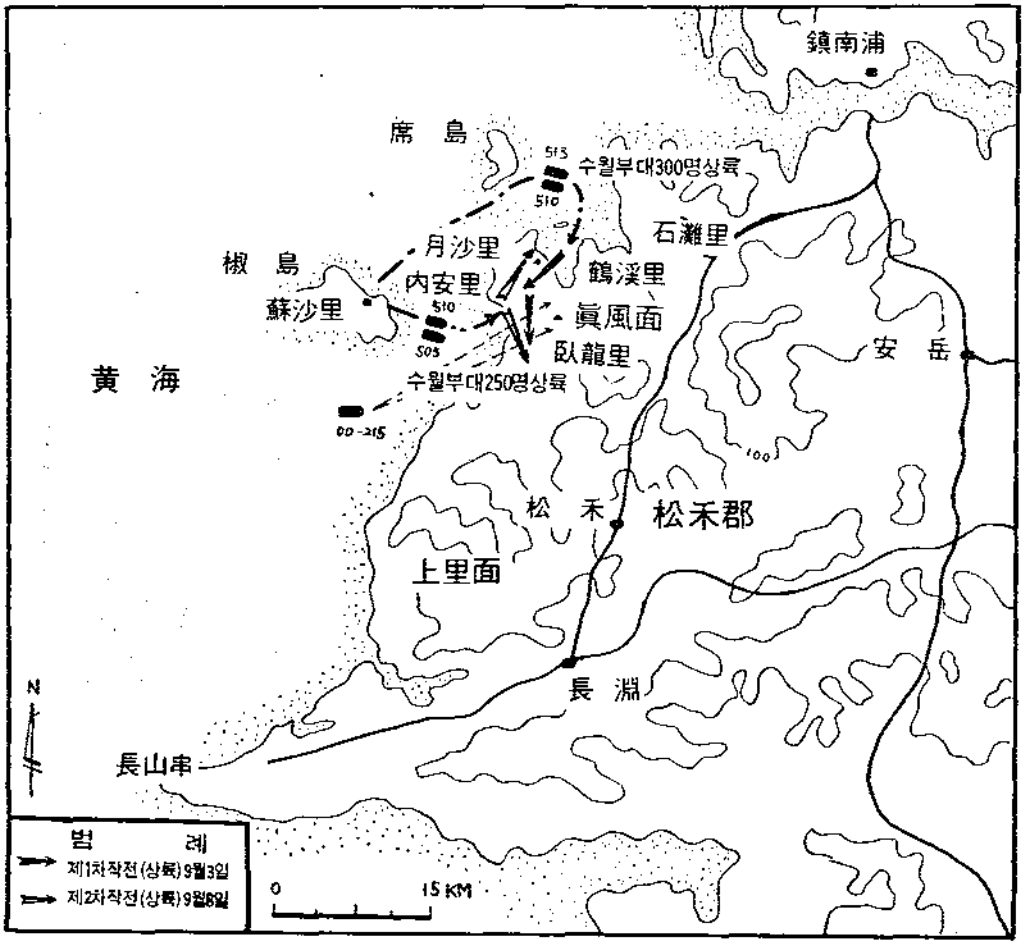
은 申嶋對岸의 敵陣地를 각각 砲擊하였다.

10월 28일 : 西海岸에 출동하여 경비중인 각 艦艇의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海本作命 第447號로써 仁川에 輸送船을 배치토록 한 結果 海上活動은 한층 활기를 띄었는데 이날 PC—702艦은 海州灣 花仙里의 敵陣을 강타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10월 30일 : 徵發船 LST—加平號는 이날 浦項에 있는 陸軍병력 3,500명을 濟州道로 수송하였으며 PC—702艦은 이날 17.55부터 20분간에 걸쳐서 延坪島 西北쪽에 위치한 黑島對岸의 敵陣을 砲擊하였다. 또 東海岸에서 PF—61艦은 洋島駐屯隊의 정보에 의하여 06.00부터 17.00까지 洋島對岸인 東湖洞과 龍浦洞 그리고 屯地洞에 砲火를 집중하여 機動路와 교량 및 철로를 파괴하여 敵의 수송에 甚大한 지장을 주었다.

10월 31일 : PC—702艦은 延坪島 西北쪽 海岸인 茂秋地의 敵陣에 이날 04.15부터 한시간 동안 砲擊을 단행하였다.

◇ 상황도 제21호 松禾地區戰鬪



12. UN 海軍의 活動 (1951년 9월 1일부터 1951년 10월 31일까지)

要 旨

UN海軍은 秋季攻勢가 시작되자 9, 10 兩월에 계속하여 東西 海岸에서 封鎖작전을 펴는 동시에 掃海와 수송작전을 敢行하는 한편 熾烈한 艦砲射擊으로써 北傀의 주요 보급로와 軍事要衝地를 연일 強打하였다. 이리하여 UN海軍은 北傀의 南下를 적극 阻止하는 한편, 끊임없이 哨戒와 정찰활동으로 우세한 海上勢力을 구축하였다.

西海封鎖戰隊(CTG 95.1) 麾下의 航空母艦과 巡洋艦및 護衛艦은 黃海道 沿岸에서 西韓灣에 이르는 海域일대에서, 그리고 東海封鎖戰隊(CTG 95.2) 麾下의 美驅艦을 主輔으로 한 UN艦隊는 元山灣에서 淸津과 羅津에 이르는 海域 일대에 걸쳐 각각 敵의 보급基地및 수송망과 海岸砲臺를 강타하였다.

특히 10월 29일에는 東海岸의 第77機動部隊 소속인 2개 編隊機들이 敵의 首腦會談이 열리고 있는 甲山에 電擊的인 空襲을 加하여 北傀軍 高位 幹部들을 殺傷케하여 同會談을 挫折케도 하였다는 것이다.

가. 秋季攻勢에 對한 UN海軍의 活動(9.1~10.31)

(1) 참가부대및 주요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C. T. Joy
第7艦隊 사령관 중장 H. M. Martin

第77機動部隊(高速航空母艦部隊) 사령관 소장 J. Perry
第95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G. C. Dyer

(2) 작전 경과의 개요

기간중 地上戰線은 동해안의 南江於口에서 시작하여 西海岸의 臨津江 河口에 이르는 戰線에서 雙方간의 攻防으로 一進一退를 거듭하였다.

따라서 험준한 산악지대인 東海岸의 戰鬪에서는 地上火力의 効力을 期待하기 어려웠으므로 海上에서의 艦砲지원의 威力으로써 많은 전과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9월 5일 第7艦隊 사령관(H. M. Martin 중장)은 第95機動部隊(사령관, G. C. Dyer 소장)에 命令하여 元山과 興南의 兩海域에 掃海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艦砲의 화력지원을 증대토록 하였다.

이 掃海작전에 대하여 北傀側에서는 또다른 上陸작전의 前兆라고 예상한 결과 砲陣地를 강화하는 한편 豫想되는 上陸海岸의 居住民들을 대피시키고 일부병력을 再配置하였다고 후에 밝혀지기도 하였으니 이 作戰이 敵에게 준 바 心理上의 위협이 적지 않은것으로 推測되었다.

이 作戰은 1개월 뒤인 10월 5일에 끝나게 되었는데 重巡洋艦 New Jersey號 및 Helena號를 비롯한 驅逐艦 수척이 합세하여 興南일대의 精油工場과 彈藥庫를 爆破시켰다.

또한 9월 24, 25의 兩일 그리고 10월 2, 3 兩일의 두차례에 걸쳐 동해에서 New Jersey號는 南江 계

곡을 건너 韓國軍 제1군단(장, 白善燁 소장)의 정면에 있는 敵의 指揮部와 보급基地를 16″ 艦砲로써 집중강타 하였다.

이와같은 UN海軍의 다각적인 砲擊과 空襲에도 불구하고 北傀의 보급이 계속되자 UN의 海軍과 空軍은 戰略會議를 열고 熟議한 끝에 陸路와 철로에 대한 同時 차단을 위한 強硬策을 병행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일부터 3일까지 連日에 걸쳐 艦載機를 동원하여 도합 131개소의 機動路와 군용시설을 破壞하는 전과를 보였는데 이미 制海權을 확보한 UN海軍의 이러한 활동은 敵 地上軍의 戰力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我軍의 士氣를 昂揚시키는 効果가 至大하였다. 그밖의 期間中의 주요활동 狀況은 다음과 같다.

9월 1일 : 東海岸에서는 極東艦隊의 旗艦인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를 비롯한 大艦艇은 이날도 여전히 敵陣에 砲擊을 加함으로써 敵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이날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63,024名에 달하는 敵을 사살하였다.

9월 3일 : 巡洋艦 Los Angeles號(함장, R.N. McFarlane 대령)는 이날 庫底 一帶에 8″砲 197發과 5″砲 123發을 集中的으로 퍼부어 敵砲臺 3개소를 破壞하였다.

9월 7일 : 第77機動部隊의 航空母艦 Essex號(함장, A.W. Wheelock 대령) 소속 艦載機인 VF—54 編隊長 Paul. N. Gray 중령은 麻田里 부근의 교량을 爆破하고 歸路에 敵의 對空砲火를 받았으나 연료가 떨어질때까지 50mile을 침착하게 비행한 끝에 元山港 앞바다에 着水한 다음 순찰 Boat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9월 12일 : 이날 掃海艇 Red Start號(함장, C.W. Coe 대위)는 元山灣의 Muffler 海域에서 掃海活動을 실시중 敵의 海岸砲의 공격을 받았으나 第77機動부대의 艦載機와 艦艇들의 砲擊지원아래 임무를 다하였으며 오히려 前記 艦艇들과 함께 敵의 砲臺를 擊碎하였다.

9월 16일 : New Jersey 號를 비롯한 CTG 95.6의 機動戰隊艦艇들은 이날 高城 北쪽의 敵陣地를 강타하였으며, 한편 輕巡洋艦 Glory號(함장, O.C. Gregg 중령)는 鎭南浦 西南쪽에 있는 敵 집결지에 砲擊을 집중하였다.

9월 18일 : 重巡洋艦 Toledo號(함장, Richard F. Stout 대령)에 搭乘한 第95機動部隊 사령관 G. C. Dyer 소장의 지휘아래 驅逐艦 Orleck 號와 Craig 號 그리고 Moore 號등은 元山港에 艦砲사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때 第77機動부대의 艦載機들도 동시에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敵의 海岸砲臺를 大破하였다.

9월 19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第95機動부대의 重巡洋艦 Toledo號를 비롯하여 Rocket艦 409號와 412號는 永興灣의 葛麻半島의 敵 陣地에 艦砲사격을 단행하였다.

9월 21일 : 이날 第77機動부대는 明川에서 元山에 이르는 보급로에 집중공격을 加하였다.

9월 23일 : 第95機動부대의 艦艇들은 城津과 元山港 일대의 砲臺와 港灣施設에 艦砲사격을 加하였으며 또한 第77機動부대의 艦載機들은 明川—元山의 보급로를 재차 폭격함으로써 교량 25개소를 破壞하였다.

9월 24일 : 이날 New Jersey號는 高城 北쪽에 있는 △1,190와 △951의 堡壘를 모조리 破

碎하고 山形을 一變케 하였다.

한편 英國의 Comus號(함장, R.A.N. Hennssy 중령)는 이날 西海岸의 席島를 근거지로 활동중인 Leopard 遊擊隊가 松禾郡海岸에 奇襲상륙하는 것을 직접 지원하였다.

9월 25일 : 이날 極東艦隊의 旗艦 New Jersey號는 계속해서 東海岸에 위치한 한국군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 예하의 首都師團(장, 宋堯讚준장)을 지원하여 高城南쪽에 있는 敵 진지에 16inch 砲擊을 加하였다.

9월 27일 :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함장, C.B. Gill 대령)의 F9F機와 F4U機 編隊는 斷腸의 능선(△894—△931—△851)에서 감투중인 美제2사단(장, Robert N. Young 소장)에 대한 엄호사격을 실시하였다.

9월 28일 : 이날 護衛艦 Murchison號(함장, A.N. Dollard 소령)는 漢江 상류 일대를 정찰중 16.00에 적의 50mm砲와 75mm砲 및 박격포 공격을 받는 즉시로 4inch 艦砲를 퍼부어 敵火를 침묵시켰다.

9월 29일 : UN軍 艦隊는 이날도 東西 양해안에서 海岸砲臺 및 보급로에 砲擊을 감행하였는데 東海岸에서는 주로 元山—淮陽—金城에 이르는 보급로에 砲擊목표를 指向하였다.

10월 2일 : 戰艦 New Jersey號는 이날 高城 西南쪽에 있는 △802—△951에 16inch砲 138발을 집중함으로써 참호 25개소를 完破하고 45개소를 半破하였으며 敵軍 600여名을 殺傷하였다.

10월 3일 : 旗艦 New Jersey號는 이날 高城南쪽에 있는 △796와 △802에 대한 砲擊을 집중하였다.

한편 英國의 護衛艦 Black Swan號(함장, A.D.H. Jay 대령)를 비롯한 小型驅逐艦들은 漢江上流의 堤堰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이때 Rendova號의 F4U機 13대도 合勢하여 공격함으로써 敵의 砲臺를 격파하고 兵員들을 殺傷하였다.

10월 5일 : 第95機動部隊의 艦艇들은 巨砲로써 興南일대의 海岸砲臺에 대대적인 砲擊을 加하였다.

10월 6일 : 旗艦 New Jersey號를 비롯한 巡洋艦 Helena號(함장, J.R. Clark 대령)와 그밖의 여러 驅逐艦들은 이날 長箭 西南쪽의 敵陣地를 강타함으로써 操車場과 砲臺를 粉碎하였다.

10월 8일 : 이날 元山灣에서 砲擊中인 驅逐艦 Small號(함장, F.C. Snow중령)가 觸雷되었다. 이로써 參戰以來로 機雷 또는 海岸砲臺의 공격을 받아 沈沒되거나 파손된 UN海軍의 艦艇은 도합 32隻을 算하게 되고 그중 침몰된 艦艇은 掃海艇 4척과 曳引船 1척이었다.

10월 10일 : 이날 輕航空母艦 Sydney號(함장, D.H. Harries 대령)와 巡洋艦 Balfast號(함장, Aubrey Clair 대령)를 비롯하여 驅逐艦 Concord號와 Colaham號 그리고 Cayuga號(함장, J.V. Brock 대령)및 Comus號(함장, R·A.N. Hennessy 소령)는 敵의 大병력이 집결중인 東底 北쪽에 砲火를 집중하였다. 한편 元山港 일대에서는 수척의 掃海艦이 掃海작

업을 계속하였다.

10월 12일 : 旗艦 New Jersey號와 巡洋艦 Helena號(함장, J.R. Clark 대령)는 이날 高城 서남쪽 10km에 있는 月飛山(△459)에 16inch의 艦砲火를 집중하여 首都師團(장, 宋堯讚 준장)을 직접 支援하였다.

10월 14일 : 이날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함장, C.B.Gill 대령)의 F9F와 F4U機들은 城津港 北西쪽에 있는 敵의 집결지를 强襲함으로써 300名을 殺傷하고 군사 시설물의 대부분을 破壞하는 전과를 올렸다.

10월 16일 : 第77機動部隊의 VC—3 編隊長(Callis 소령)은 이날 興南부근의 鐵路上에서 기관차 1대와 15개의 有蓋貨車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爆破하였다.

10월 18일 : 航空母艦 B.H. Richard號(함장, C. B. Gill 대령)를 비롯하여 Essex號(함장, A.W. Wheelock 대령)와 Antietam號(함장, G. J. Dufek 대령)의 艦載機들은 이날 東北海岸 쪽의 철로를 主목표로 하여 집중 강타하였다.

10월 21일 : UN海軍의 艦載機隊는 이날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을 지원하여 敵의 主 보급로線인 元山—淮陽—金城 일대를 擊破한 결과 그들의 수송을 중단케 하였다.

10 월22일 : 巡洋艦 Helena號(함장, J.R.Clark 대령)는 이날 長箭 일대의 敵 陣地에 砲擊을 계속하였으며 航空母艦 Essex號(함장, A.W. Wheelock 대령)의 艦載機들은 동북쪽의 海岸線에 있는 수송로를 계속 爆擊하였다.

10월 23일 : 第77機動부대의 艦艇들은 이날 城津—元山間의 港灣施設과 砲臺를 강타하는 동시에 艦載機들은 교량 25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하였다.

10월 25일 : 第77機動부대의 Cayuga號(함장, J.V. Brock 대령)는 이날 鴨綠灣於口에 있는 大和島 沿海를 경비중이던 바 同島가 北傀의 小型 爆擊機 2대로 부터 10여개의 爆彈이 집중되어 守備隊員 11명이 戰死傷하였다는 급보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同艦은 즉시 小舟艇으로써 의무반을 보내 부상자를 치료토록 한 다음 同島 東北쪽에 있는 小加次島에 150여발의 4″ 砲火를 퍼부었고 다시 16.50에는 同島 西北쪽에 있는 水運島의 敵을 艦砲로써 擊破하였다.

이때에 水運島 5km 前方에서 砲擊을 개시하자 敵의 機關砲의 반격이 있었으나 1km까지 접근하면서 계속 포격을 집중함으로써 敵의 砲臺를 覆滅하여 버리고 敵 500명을 殺傷케 하는 동시에 정박중이던 수척의 Junk船을 擊破하였다.

10월 26일 : 第95機動部隊의 艦艇들은 鎭南浦의 海岸砲臺와 보급貯藏庫를 강타하였다.

10월 27일 : AMS—28號(정장, D.T. Wieland, Jr. 대위)는 元山海域에서 敵의 海岸砲火로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계속 掃海작업을 수행하였다.

10월 29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東海岸의 각 要地를 공격하였으며 특히 淮陽—金城에 이르는 보급로를 강타하여 機動路 35개소와 차량 35대를 大破하였다. 그리고 艦隊는 이날 甲山에 대하여 기습을 감행하였는데 그 細部狀況은 別項 (나)에서 따로 취급한다

10월 31일 : 航空母艦 B.H. Richard號(함장, C.B. Gill 대령)를 비롯하여 Essex號(함장 A.W. Wheelock 대령)와 Antietam號(함장, G.T. Dufek 대령)의 艦載機들은 지난 18일부터 계속하여 東北海岸의 철로에 폭격을 감행하여 이날까지 도합 1,000개소의 鐵路要點을 破壞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들의 철도이용은 상당히 감소된 듯 하였으며 航空寫眞의 分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철로가 제거되고 교량 경계포대가 줄어드는 반면에 대공포대를 요지에 증가시킨 흔적이 현저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北傀는 위축된 戰況속에서도 계속 발악하려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나. 甲山에 對한 奇襲(10.29)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7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John Perry
航空母艦 Essex號 함장
대령 A.W. Wheelock

航空母艦 B.H. Richard號 함장
대령 C.B. Gill

(2) 전투 전의 개황

UN海軍의 作戰方針은 적의 보급基地와 수송로를 강타하고 그 후방을 교란하는 한편 輸送力量을 剝奪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이러한 차단작전의 주임무는 艦載機들이 수행하였으며 특히 鐵橋와 機動路上의 主要橋梁에 그 목표를 指向하였다.

이러한 爆擊을 위한 情報는 敵地로부터 빠져나온 難民들이나 敵海域에서 잡힌 어부들의 提報와 그리고 敵陣에 침투한 Guerrilla부대가 特定海域에서 작전을 遂行하여 敵의 동향을 파악, 打電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情報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많은 주요 군사시설물이 破壞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海空兩軍의 活動이 눈부신 바 있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U.S.S.R技術陣의 지휘아래 銀과 亞鉛을 생산하는 金德里 광산을 爆擊하여 技術者를 포함한 116名을 殺傷하고 많은 건물을 破壞하는 전과를 올린 예도 있었다.

또한 北淸에 대대적인 空襲을 감행하여 자동차공장과 彈藥공장을 爆破하고 100여명의 北傀軍을 사살하였다.

이러한 차단작전은 모두 北韓에 침투한 Guerilla부대의 정보에 따라 즉시 단행된 것이고 그중 최대의 성공적인 것은 甲山에서의 共産黨 代表者들의 회담장소에 대한 奇襲이었다.

제77機動부대는 美제8군을 통하여 10월 29일 09.00에 甲山에서 北傀와 中共의 양측 高位者들의 會議가 있다는 情報를 入手한 결과 이 奇襲작전을 은밀히 계획하게 된 것이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10월 27일에 제77機動部隊 사령관 John Perry 소장은 美제8군으로부터 甲山에 대한 奇襲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極秘裡에 정찰기의 高空비행으로 촬영한 사진정보에 의하면 城津에서 서북쪽으로 60mile 떨어진 同 地域은 심한 山嶽地帶로서 회담장소와 警察본부 및 주요 文書보관소 그리고 기

타의 중요건물은 同 시가지로 부터 東側에 있는 한정된 지역이었다.

이리하여 10월 29 일 07.30부터 奇襲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이날 안성맞춤으로 맑은 날씨에 元山 동쪽 100mile 떨어진 海上의 航空母艦 Essex號(함장, A.W. Wheelock 대령)와 B.H. Richard號(함장, C.B. Gill 대령)로 부터 艦載機의 2개편대는 甲山을 향하여 離艦하였다.

제1편대는 P.N. Gray 중령이 편대長이 되어 Shugart대위와 Aillaud소위 그리고 Masson 소위로, 또 제2편대는 Evans대위가 편대장으로서 Gollner 중위와 Strickland 소위 그리고 Kelly소위로 편성되었으며 최대한의 기습효과를 얻기 위하여 戰鬪機의 호위는 없었다.

各機는 1개의 Napalm彈과 250 LBS의 근접爆發信管彈 8개를 積載하였으며 兩편대에 각각 2개의 1,000 LBS 중량의 근접爆發信管彈을 적재하고 敵의 Radar 탐지를 피하여 계곡 및 산악을 이용하며 低空으로 進入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09.13에 甲山 東쪽에 인접한 標高 1,800m의 天鳳山에 다다라 高度를 8,000 feet로 높여 산의 뒤쪽에서 頂上을 넘어 즉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먼저 8개의 근접 爆發信管彈이 상공에서 폭발하였으며 곧이어 1,000LBS의 信管彈을 투하하였다.

09.20에 Napalm彈을 投下하며 동시에 機銃을 掃射함으로써 목표물 일대를 휩쓸었다.

당시 제1 편대장으로 활약한 P.N. Gray중령은 그당시 狀況을 證言하기를 『우리가 목표물에서 이탈할 때에 이 구역은 연기와 殘骸만이 남아 있었고 황폐된 건물의 한쪽 壁만을 볼수 있었다. 확실히 이곳에 對空砲가 있는것이 분명한데 처음에 투하한 근접爆發信管彈이 명중하였기 때문에 전혀 저항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날 09.40에 성공적으로 爆擊을 마친 戰鬪機들은 약간의 연료부족을 극복하면서 母艦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4) 전투 후의 개황

甲山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이틀뒤인 10월 31일 甲山 市街地를 내려다 볼수 있는 高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을 주시한 友軍 Guerilla부대가 美제8군 사령부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北傀 高位幹部級 509명이 死傷되었으며 중요 서류가 불타고 특히 공격의 목표물이 甲山 시가지로부터 東側으로 떨어진 까닭으로 市內의 民家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北傀는 Radio방송을 통하여 동 空襲에 참가한 戰鬪機 操縱士들에 현상금을 걸고 조종사들을 가리켜 『甲山의 屠殺者』라고 할만큼 敵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13. 空軍의 單獨出擊 作戰 (1951년 10월 1일부터 1951년 11월 28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2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1 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 德 昌

江陵전진부대 사령관겸
제10전진전투비행전대장
대령 金 英 煥
대령 金 信
(51. 11. 10부)

제11전투비행대대장 대위 丁 永 鎭
대위 金 斗 萬
(51. 11. 10부)

제11정비중대 장 대위 白 春 得

제12전투비행대대장 소령 姜 鎬 倫
(대리) 대위 尹 應 烈
(51. 11. 10부)

제12정비중대 장 대위 李 慶 春

제101전진기지전대 장 대령 金 信
중령 申 攸 俠
(51. 11. 10부)

통신대 장 대위 金 秉 鐸

시설대 장 대위 崔 海 仁

기상반 장 대위 徐 廷 恩

제201전진의무전대 장 소령 桂 元 喆

지원부대

美공군제6146기지부대 장
중령 Joy E. Earl

美제12해병비행전대 장
대령 Richard C. Mangrum

육군제 7 경비대대 장 소령 姜 永 薰

나. 작전 전의 개황

空軍은 開戰初期에 도입된 F—51戰爆機 10대로 美 空軍과 협동작전을 遂行하면서 空軍力의 증강을 위한 戰鬪機 확보와 조종사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리하여 1951년 6월末에는 戰爆機 20대를 保有하게 되고 전투조종사 확보를 위한 훈련을 통하여 조종사들의 戰技가 성숙될 무렵인 同年 8월 17일부터 1개월간의 智異山 지구와 海州지구의 空中作戰으로써 UN空軍으로부터 하나의 전투단위로 認定을 받았고 드디어 戰鬪序列上 독립된 單位出擊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空軍의 전투능력을 過少評價하던 美 空軍에서도 韓國 空軍이 후방 遮斷作戰에 출격할 것에 찬성하고 이로부터 UN空軍의 전투단위로 認定하여 적극적인 장비와 각종 物資의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51년 9월末, 江陵비행장을 前哨기지로한 前進부대 사령부의 위치와 함께 단독 출격작전을 위한 만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무렵 共産軍은 51년 7월 10일부터 시작한 休戰會談과 兩期를 이용하여 戰力을 정비하고 再侵의 기회를 엿보면서 大量의 軍需物資와 병력을 前線地區로 追送하고 있었다.

특히 共産軍은 UN空軍의 制空權의 장악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자 이에 對應할 戰力으로 空軍

力 증강에 血眼이 되어 51년 5월에 保有航空機가 500대로 推算되던 것이 同年 9월初에는 1,255대로 증가되었으며 그중 MIG Jet機를 525대로 推算하게 되었다.

또 敵의 空軍은 平安北道의 南市와 泰川부근에서 2개의 비행장을 新設하여 活潑한 공중활동을 展開하는 한편 前線으로 軍需品을 集積하기 위하여 輸送用 車輛의 행렬이 敵의 보급로를 매일 1,000내지 2,000대가 이동하는 것을 空中偵察로 確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敵은 UN空軍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와 도로등 보급로 일대에 高射砲를 集中配置하는 한편 戰略物資의 수송을 위한 僞裝手段으로 軍需物資수송 열차는 晝間에는 터널속에서 숨어 있고 야간에만 運行하였으며 파괴된 철교나 橋梁補修用 자재는 물속에 위장 하기도 하였다.

이에 UN空軍은 敵의 보급지원을 阻止하기 위하여 후방차단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계속 하면서 51년 8월부터는 「Strangle 작전(窒息作戰)」을 展開하여 晝間에는 철도와 기동로 그리고 操車場等의 교통수단을 파괴하고 야간에는 敵의 復舊工事를 방해하면서 야간운행을 阻止하고 있었다.

한편 地上軍은 UN空軍의 援護아래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때에 韓國 空軍은 前進기지로서 江陵 비행장에 戰鬪部隊를 전개하고 1951년 10월 1일을 D—Day로하여 陸軍第1軍團 正面에 대한 근접지원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독립된 작전을 遂行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韓國空軍은 開戰以來 1년 3개월간에 걸쳐 練磨한 戰技를 발휘할 수 있는 독립출격의 好機를 맞게된 것이다.

이때에 前進部隊에는 총 병력 289명중 전투조종사 20명으로서 12대의 F—51 戰爆機(Mustang)와 1대의 AT—6를 비롯하여 支援裝備 도합 1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江陵비행장의 支援施設은 滑走路 길이가 5,400ft에 P. S. P로 포장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데 反하여 格納庫등 附備施設은 未備되었으나 이를 克服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고 작전에 소요되는 航空油類와 彈藥은 注文津港에서 揚陸하여 수송하였는데 이 수송업무는 江陵기지에서 작전을 遂行中인 美 第12海兵飛行戰隊(F—4U Corsair機 2개대대 배속)가 그리고 江陵기지내와 外廓의 경비를 陸軍 제7경비대대의 2개중대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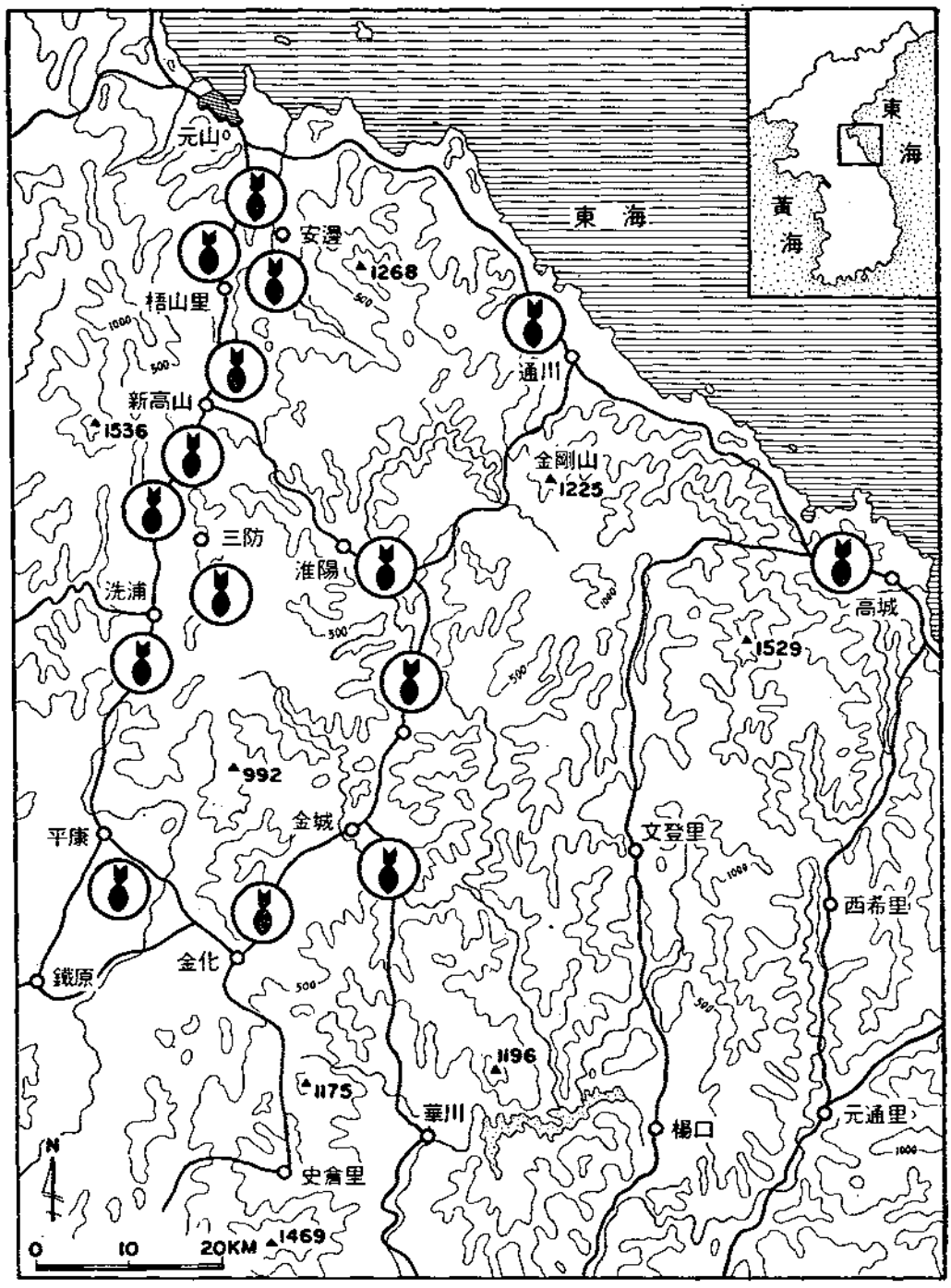
다. 작전 경과의 개요

美 極東 空軍에서는 戰略爆擊과 戰術爆擊을 併行하는 一方, 補給輸送의 遮斷을 위하여 이미 말한 바와 같이 『Strangle 작전(窒息作戰)』을 전개중이었는데 이 때에 美 第5空軍은 中部地域을 담당하고 西部지역은 美 海軍의 艦載機들이 그리고 東部地域은 海兵隊戰鬪機들이 각각 分擔키로 되어 있었고 韓國 空軍은 元山—新高山—洗浦—平康間의 中西部 戰線에 이르는 京元線 철도와 그 沿線, 그리고 新高山—淮陽—金城의 中東部 戰線에 이르는 機動路를 비롯하여 淮陽—化川里—通川間의 機動路등 敵의 주요보급로에 대한 차단 임무를 담당하기로 합의 되었다.

이리하여 空軍에서는 UN空軍의 『Strangle 작전』에 보조를 맞추어 1951년 10월 11일부터 F—51戰爆機로써 元山 南쪽 일대의 機動路와 교량을 비롯하여 철도와 철교 그리고 操車場과 각종 차량등을 공격목표로 삼아 敵의 보급수송을 阻止코자 단독출격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10월 11일에는 元山 南쪽의 安遊驛 일대의 機動路와 철도등의 보급로 및 高射砲陣地를 爆擊하고 이어 11월 28일까지 후방 보급로에 대한 차단임무를 띠고 출격을 감행

◇ 상황도 제22호 元山南方 出擊作戰(1951. 10. 1~11. 28)



하였는데 空軍의 F—51 戰爆機들은 공중공격의 제1목표를 元山 南쪽 9km 떨어진 於隱里까지의 京元線 철도와 철교를 反復 爆擊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新高山—洗浦—平康까지의 京元線과 機動路를 비롯하여 新高山—淮陽—金城間과 淮陽—化川里—通川間의 機動路와 보급품 集積所 및 高射砲陣地를 連日 猛打하였다.

그리하여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新高山 南쪽에 있는 鐵嶺을 中心으로 하는 보급로와 수송차량등을 폭격하였고 10월 23일~11월 3일에는 京元線의 釋王寺驛 일대와 三方里—洗浦里間과 新高山—鐵嶺—淮陽 일대에서 철도와 機動路 그리고 高射砲陣地와 보급품 집적소 등 목표를 爆擊하였다.

또 11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淮陽과 通川間의 보급로와 보급품 집적소등을 그리고 또 11월 13일부터 5일간에 이어 19일~21일과 27일에는 前線補給所가 있는 金城 北쪽의 昌道里 일대를 强打하여 보급품 집적소를 爆擊하고 이들을 破壞 또는 灰燼化하였다.

그 밖에도 11월 18일에는 元山 西쪽 20km에 있는 馬息嶺 골짜기, 同月 22일에는 高城을, 同월 24일~26일에는 金剛山 南쪽의 國士峯 等地의 보급품 집적소를 探索 强打하였다.

이 공격에는 F—51戰爆機 16대가 4개편대로 連日 출격하였는데 목표를 공격할 때에는 敵의 執拗하고도 熾烈한 對空砲火를 뚫고 공중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期間中에는 戰鬪操縱士들의 전후방 교류가 실시되었는데 當初 江陵기지로 前進時에 숙련된 操縱士 20명을 前進시킴으로써 後續補充될 조종사의 양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하여 10월 17일부로 玉滿鎬 중위가, 同月 25일부로는 丁永鎭 대위, 尹應烈 대위, 周永福 대위, 張星太 중위등 5명의 조종사가 교관요원으로 泗川기지에 원대복귀하였는데 이의 交替要員으로서는 10월 17일부로 鄭周良 중위가, 10월 25일부로는 辛鐵洙 중위와 羅昌俊 중위 그리고 李日泳 소위와 徐商純 소위를 비롯하여 孫興俊 소위등 도합 6명이 보충되어 조종사의 인원은 21명으로 증가 되었다.

또 11월 10일부로는 美 空軍당국과의 합의하에 空軍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美 空軍大學에 제1차 留學要員으로 金英煥 대령(前進부대사령관)을 비롯하여 張志良 중령(作戰處長) 李康和 대위(10전대부관)등 3명이 선발되었던 까닭에 제101기지전대장인 金 信 대령을 司令官으로 하는 인사개편이 있었고 교관요원으로 尹應烈 대위와 玉滿鎬 중위가 發令됨으로써 조종사는 다시 20명으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이 期間中 10월의 氣象은 大體로 晴明한 날씨가 계속되고 日照도 양호하였으며 11월은 晩秋에서 初冬으로 들어가는 換節期로 朝夕으로 寒冷한 날씨가 많았으나 비교적 晴明한 날씨가 계속되어 航空作戰에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 期間中의 주요 작전상황을 月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10月中의 活動狀況

10월11일 : 日出직전에 江陵 전진기지에서 출동 준비의 비상벨이 울리자 조종사들은 즉시 상황실에서 作戰參謀 張志良 중령으로부터 美 第5空軍 JOC(合同作戰本部)에서 전달된 출격명령(Flag order)에 따르는 공격목표를 비롯한 세부적인 작전지시와 출격편조등의 Briefing을 받았다. 이어 전진부대 사령관 金英煥 대령은 조종사들에게 强調하되 『各官의 책임이 重且大하니 조국의 명예와 우리 空軍의 앞날을 위하여 奮鬪할 것이며 愛機와 더불어 살고 愛機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고 하였다. 훈시를 아로새긴 조종사 들은 홈라인(Home Line)에서 출격준비를 마친 다음 08.55에 그 제1편대는 勇躍기지를 이륙하였는데 제1편대기는 전대장인 金英煥 대령이 陣頭指揮하여(2번機 李基陝 중위, 3번機 尹應烈 대위, 4번機 美空軍 Lagro 대위) F—51戰爆機 4대가 元山 南쪽 5km에 있는 於隱里에서 2個所의 補給路를 차단하고 계속하여 戰線으로 향하는 敵軍트럭 隊列을 捕捉한 다음 이를 追擊하여 2대를 폭파함으로써 緖戰을 장식하였다.



<愛機앞에선 周永禧대위와 戰友들>

이어서 09.20에 기지를 이륙한 제2편대의 F—51戰爆機 4機(1번기 金斗滿 대위, 2번기 玉滿鎬 중위, 3번機 朴完圭 소위, 4번기 孫在權 소위)는 於隱里에서 文峯里로 향하는 牛馬車 隊列을 機銃공격하여 그중 1대를 격파하고 그 근처의 보급품 隱匿所로 看做되는 가옥 1棟을 소각하였다.

또 이날 13.45에 기지를 이륙한 제3편대(1번機 姜錦倫 소령, 2번機 李康和 대위, 3번機 張昱太 중위, 4번機 美空軍 Adams 소령)와 13.55에 기지를 이륙한 제4편대(1번機 丁永鎭 대위, 2번機 權成根 대위, 3번機 朴在浩 중위, 4번機 俞致坤 소위)는 제1편대가 공격한 於隱里에서 敵 機動路 6개소와 철도 1개소를 폭파하여 이 지역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전 편대가 무사히 귀착함으로써 이날의 작전을 끝마쳤다.

그런데 12일부터는 下層雲에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14일까지 3일간은 부득이 출격을 中止하고 전일의 공중공격에 대한 檢討와 次期 작전계획을 討議하였다.

10월15일 :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이날 오후부터 점차 氣象이 好調되어 이날 13.00

에 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1번機 張志良 중령, 2번機 姜鎭倫 소령, 3번機 周永福 대위, 4번機 金錦成 중위)와 제2편대(1번機 金斗滿 대위, 2번機 權成根 대위, 3번機 孫在權 소위, 4번機 美 空軍 Lagro 대위)의 F—51戰爆機 8대를 비롯하여 15.00에 기지를 이륙한 제3편대(1번機 丁永鎭 대위, 2번機 玉滿鎬 중위, 3번機 俞致坤 소위)와 제4편대(1번機 尹應烈 대위, 2번機 李基陝 중위, 3번機 張星太 중위, 4번機 美 空軍 Lagro 대위)의 F—51戰爆機 7대는 安邊驛 일대의 철도와 기동로등 보급로를 강타하고 16.35에 全機가 基地로 귀착하였다(以下 조종사 성명 省略).

10월16일 : 이날도 基地上空에는 低層雲 때문에 출동에는 큰 장애가 되었으나 이에 불구하고 09.50에 基地를 이륙한 제1, 제2편대(F—51전폭기 7대)와 그리고 13.30에 기지를 이륙한 제3, 제4편대(F—51전폭機 8대)는 安邊의 京元線과 東海 北部線의 交叉지점을 강타하여 철로 5개소를 遮斷하고 이 일대에 배치된 高射砲陣地에 집중폭격을 감행하여 砲陣地 1개소를 全破하니 天氣不順을 믿고 안심하고 있던 敵陣은 크게 당황한듯 하였다.

10월17일 : 이날 폭격 목표를 淮陽지구로 정하고 출격한 F—51戰爆機 18대는 4개編隊로 나누어 補給路線의 교량을 공격하였는데 F—51戰爆機編隊가 목표상공에 到達하자 敵의 對空砲火때문에 폭격에 많은 支障을 주었으나 교묘히 이 공격을 벗어나며 교량을 폭파하였다.

그리하여 09.00에 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는 通川과 淮陽에서 東部戰線으로 연결되는 機動路 交叉點에 있는 化川里에서 교량 1개소를 遮斷하고 이어서 제2편대는 化川里 北쪽 9km 떨어진 中嘉里의 교량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오후에도 14.10에 제3,, 제4편대가 기지를 離陸하여 淮陽 西北쪽 1km에 있는 初一里의 교량을 각각 1개소씩 全破함으로써 敵의 地上機動을 阻止하였다.

10월18일 : 이날도 元山지구의 철도 차단을 위한 출격이 續開되었는데 이 出擊에서 제1편대는 安邊 北쪽 2km에 있는 塔里의 교량 1개소를, 제2편대는 元山 南쪽 3km 떨어진 地境里 철교를 폭파하였다. 이들 편대는 歸路에 新高山 東南쪽 1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불태웠으며 鐵嶺에서 數臺의 軍用車輛 行列을 발견하는 즉시로 Rocket彈과 機銃射擊으로 그중 1대를 擊破하였다.

계속하여 元山지구에 출격한 제3편대는 元山 南쪽 1km에 있는 見山里의 철교 1개소와 劍拂浪 西南쪽 7km에 있는 凡北山(△724)中腹에서 對空砲陣地 1개소를 각각 폭파하였다.

제4편대는 元山 南쪽의 於隱里 철교 1개소를 半破한 다음 다시 鐵嶺근처에 있는 봉대골에 掩蔽한 보급품 집적소 1개소에 急降下하여 集中打를 加함으로써 이를 燃燒시켰는데 이 편대의 4번기인 李康和 대위가 조종하는 41號機는 機關不調로 도중에서 귀환하였다.

이날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은 連日 敵陣出擊으로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江陵前進基地를 돌아본 다음 가진 記者會見에서 말하기를 『東海岸에 배치된 우리 戰鬪飛行團은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였다.

종전의 작전과 다른점은 ① 美空軍부대의 일부가 아닌 自主的인 위치에서 독립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② 일정한 空域을 韓國 空軍의 작전지역으로 割當받아 우리 固有의 편제와 독립된 作戰基地에서 地上軍을 掩護케 되었다. ③ 우리의 전과는 他國 空軍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 ④ 이는 操縱士와 整備士를 비롯하여 전장병이 未備한 諸般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不徹晝夜 총역량을 발휘한 所致라고 본다. 이리하여 韓國 空軍의 名聲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10월19일 : 기지 상공의 低層雲은 作戰上에 장애가 되었으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출격을 계속하였다.

이날 09.00에 기지를 離陸한 제1편대기는 白岩山(△1,229, 元山 西南쪽 20km) 西南쪽 1.5km에서 補給路 1개소를 차단하고 그 근처에서 隱蔽된 보급품집적소 1개소와 天幕 5棟을 燒却하였다.

이어서 09.25에 기지를 이륙한 제2편대는 新高山 南쪽 12km의 鐵嶺을 넘는 敵의 보급로에 爆彈을 집중하여 1개소를 파괴하고 귀환 도중 江陵기지 상공의 低層雲으로 말미암아 연료가 다하도록 기지상공을 선회하다가 12.00가 넘어서야 겨우 着陸하였다.

이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까지 계속되므로 출격은 중단되었다.

10월22일 : 전날까지 고르지 않던 氣象이 漸次 回復되자 다시 후방 遮斷을 위하여 元山지구로 출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날 09.00에 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와 이어서 09.25에 출격한 제2편대는 元山 南쪽 1km에 있는 工場지대의 철도에 爆彈을 집중하여 3개소를 폭격하였다. 계속하여 오후에도 2개편대가 元山지구에 출격하였는데 14.00에 기지를 이륙한 제3편대는 元山 南쪽의 2km에 있는 現洞里에서 軍用建物 2棟을 擊破한 다음 京元線 釋王寺驛 南쪽 3km에 있는 俊昌里에서 철도 2개소를 爆破하였다.

또 14.20에 출동한 제4편대는 安邊驛 南쪽 1km에 있는 철교의 徑間(Span) 1개를 遮斷한 다음 機首를 南쪽으로 돌려서 鐵嶺의 보급로를 따라 戰線으로 軍需品을 수송하는 車輛隊列을 捕捉하자 곧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Rocket탄이 命中 發火되면서 그중 2대가 불덩이가 되어 벼랑으로 굴러 北漢江에 沈沒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며 다시 南쪽 5km에서 車輛 2대를 半破하고 掩壕 1개소를 爆破하였다.

10월23일 : 이날 09.30에 출격한 제1편대는 元山 南쪽 4km에 있는 地境里에서 철도 1개소를 爆破하고 이어 劍拂浪 東쪽 1km에 있는 長岩山(△1,052)下麓에서 보급품집적소를 燃燒시켰는데 이 공격중 3번기인 權成根 대위가 조종하는 F—51戰爆機 24호機가 對空砲火로 위기에 빠졌으나 4번기를 조종하는 孫在權 소위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 다음 이 편대는 偵察任務로 轉換하여 土城 南쪽 3km에 있는 食開에서 對空砲火가 집중배치된 것과 병력과 보급품 집적소가 散在한 것을 捕捉하고 이를 粉碎하려 하였으나

폭탄과 Rocket彈의 不足으로 機銃 공격만을 加한 다음 귀착하였다.

이어 10.10에 기지를 이륙한 제2편대는 元山 南쪽의 工場지대인 見山里에서 철도 1개소를 遮斷하고 다시 釋王寺驛 北方 5km에 있는 九嶺里에서 보급품집적소로 看做되는 건물 近傍에서 군용차량 3대와 건물 3棟을 불태우니 그 일대는 煙煙이 沖天하였다.

또 오후에 출격한 제3, 제4편대는 제1, 제2편대가 공격한 地境里와 見山里에서 철도와 철교 각 1개소 그리고 貨車 3輛을 完破 또는 半破하고 釋王寺驛 西쪽 1km의 陵化里에서 砲陣地 1개소를 爆破하였다.

10월24일 : 오전에 2개편대가 元山지구에 출격하였으나 목표 상공에 짙은 구름이 깔리어 목표물을 捕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어 오후에도 2개편대가 출격하였는데 제3편대는 15.00에 기지를 이륙하여 元山 南方의 安邊驛 부근의 於隱里와 南山驛 1km에서 철도3개소를 爆破하고 다시 南山驛 西쪽 2.5km에 있는 九嶺里에서 牛馬車 行列이 山間小路로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捕捉하자 곧 機銃사격으로 牛馬車 1대를 擊破하였다.

또 15.20에 출격한 제4편대는 釋王寺驛 北쪽 4km에 있는 新清里에서 철도 1개소를, 新高山 東北쪽 2km 떨어진 安邊貯水池 근방에서 牛馬車 1대를 각각 파괴하고 귀로에는 淮陽 西北쪽 0.5km에서 군용건물 1棟을 爆破하였다.

10월 25일 : 이날 08.50기지를 離陸한 제1편대는 安邊驛 부근의 於隱里에서 전날 파괴한 철도가 야간을 이용하여 復舊된 것을 捕捉하자 다시 爆彈을 集中投下하여 철도 2개소를 파괴한 다음 京元線의 洗浦里 北쪽 5km에 있는 터널을 Rocket彈으로 공격한 결과 支柱 1개소를 半破하였다.

이어서 09.50에 출격한 제2편대는 元山 南쪽 1km에 있는 見山里의 공장지대에서 철도교량 4개소와 철도 2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한 다음 京元線을 따라 南下하다가 釋王寺驛 南쪽 2km에 있는 蘆福里에서 차량 1대와 洗浦 東南方 6km에 있는 白峰(△1,095)의 중턱에 구축된 砲陣地 1개소를 각각 擊破하였는데 이 때에 白峰주위에서는 敵의 對空砲火가 熾烈하였다.

또 12.25에는 제3편대가 元山 南方 3km에 있는 新里에서 철도 1개소를 遮斷하고 京元線을 따라 機首를 南쪽으로 향하다가 釋王寺驛 근처에서 牛馬車 1대와 三防里 北쪽 3km에서 터널속으로 들어가는 列車를 捕捉하여 각각 全破하였다.

다시 15.30에 출동한 제4편대는 安邊驛 南쪽 1km에서 철도 2개소와 교량 1개소를 각각 격파하였는데 이날은 특히 교관요원과 交替되어 보충된 4명의 조종사(羅昌俊 중위, 李日泳 소위, 孫興俊 소위, 徐商純 소위)가 처음으로 敵陣 出擊에 참가하였다.

10월 26일 : 이날 아침 일찌기 元山지구에 출격한 제1, 제2편대는 地境里(元山 南쪽 2.5km)와 安邊 南쪽 4km에 있는 下花山里와 泉陽里에서 도로와 철도 그리고 철교 각 2개소를 爆破하고 계속하여 新高山 東南쪽의 鐵嶺과 淮陽間의 山間小路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牛馬車

隊列을 捕捉하여 爆擊한 결과 그중 10대를 擊破하였다.

이어서 10.10에 출격한 제3편대는 元山 南쪽 1.5km에 있는 現洞里와 地境里에서 철도 1개소를 격파하고 또 新高山 東南쪽 2km 下舟川里에서 馬車 1대를 폭파한 다음 鐵嶺의 보급로상에서 車輛隊列에 Rocket彈과 機銃彈을 퍼부어 그중 2대를 完破 또는 半破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敵은 이날 鐵嶺일대의 地上機動이 좌절된 채로 山間으로 潛入하였다.

10월 27일 : 이날은 曇天을 무릅쓰고 아침 일찍부터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제1편대는 安邊驛 부근의 於隱里에서 철도 3개소를 폭파하고 歸路에는 上坪里(淮陽 北쪽 4km)의 砲陣地 1개소와 차량 1대를 격파하였다. 이 때 차량에 실고 있던 油類가 폭발하면서 일기 시작한 불길이 인근 보급품집적소에 번짐으로써 이 일대를 火焰과 煙氣로 뒤덮게 하였다.

이어서 08.05에 출격한 제2편대는 梧山里(釋王寺驛 南쪽 1km)에 爆彈을 집중 投下여 철도 4개소와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격파하는 한편 차량 1대를 半破하고 또 淮陽 北쪽 7km의 가치재(佳峙峴)와 淮陽 南쪽 10km의 泥浦里間에서 차량 1대가 각기 山峽으로 들어가는 것을 爆擊하여 차량 1대와 食糧倉庫 1棟을 불태우고 다시 砲陣地 1개소를 격파하였다.

또 이날 15.05에 출격한 제3편대는 安邊 南쪽 2km에 있는 水麗里에서 철도와 교량 각 1개소를 完破하는 한편 京元線의 新浦里에서 화차 2輛을 半破하였다.

이어서 15.10에는 제4편대가 釋王寺驛 北쪽 1.8km의 沙器里에서 철도 1개소를 파괴하고 南進中에 淮陽 北쪽의 秀巖峰(△831)과 범구산(△722) 골짜기에서 牛馬車 2대를 完破하였다.

10월 28일 : 이날도 日出과 同時에 제1, 제2편대가 元山지구에 출격하여 水麗里와 於隱里에서 각각 鐵道 1개소씩 격파하고 京元線을 따라 南進하여 釋王寺驛의 南·北에 있는 新情里와 梧山里에서 牛馬車 5대를 격파하였다.

또 下住浦里(新高山 北쪽 3km)에서 차량 2대를 격파하는 한편 洗浦里와 鐵嶺里 부근의 봉대골에서 軍用建物 1棟과 馬車 1대를 完破하였다. 이어서 오후에는 2개편대가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들은 오전에 공격한 於隱里를 反復공격하여 철도 4개소를 遮斷하고 新高山 北쪽의 屯北里와 衛南里에서 차량 2대와 馬車 1대를 각각 격파하였다.

한편 鐵嶺(淮陽 西北쪽 10km) 東쪽 3km에 있는 只吞里 골짜기에 巧妙히 위장한 中共軍 보급품집결지를 강타하고 車輛 1대와 馬車 1대를 全破하였으며 油類貯藏所 1개소에서는 火焰이 冲天하고 只吞里 골짜기에 있는 군용건물이 延燒되었다.

10월 29일 : 이날도 敵 上空의 對空砲火의 위험을 무릅쓰고 元山지구에 출격을 단행하였는데 共產軍은 10월 중순 이후 元山에 이르는 보급로와 보급품집결지를 중심으로 對空火力을 增强하여 그 위험率이 漸次로 加增되었다.

그러나 F—51戰爆機의 4개편대는 元山 南쪽 1.5km의 現洞里와 於隱里에서 철도 12개소를 차단함으로써 이 지역의 철도의 수송기능을 痲痺시키고 濱湖(南山驛 東北쪽 1km) 부

근에서도 차량 1대와 馬車 2대를 격파하였다.

한편 鐵嶺 南쪽의 골짜기에 대한 정찰비행으로 차량과 牛馬車 대열을 捕捉하자 차량 4대와 馬車 3대를 完破 또는 半破하는 한편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完破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4편대의 俞致坤 소위가 조종하는 4번機가 被彈되었으나 무사히 귀착하였다.

10월 30일 : 이날도 4個의 F—51戰爆機편대가 元山지구의 於隱里와 水龍里間의 철도 11개소를 遮斷하는 한편 上舟川里(新高山 南쪽 2km)와 그 東南쪽 5.5km의 高山里에서 각각 차량대열을 捕捉하자 곧 Rocket와 機銃으로 그중 9대를 擊破하였다.

또 이 일대의 골짜기에 있는 山間 小路에서 牛馬車 6대를 完破하고 또 보급품집적소와 油類貯藏所 각 1개소를 집중공격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일대는 갑자기 불 바다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元山 南쪽의 철로와 도로망을 따라 連日 奇襲공격과 反復爆擊을 加하였기 때문에 敵은 비행기 소리만 나도 隱身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對空砲만은 督戰에서인지 계속 熾烈하였다.

이 때문에 이날 제2편대를 지휘하던 姜鎬倫 소령이 조종하는 31호機가 被彈되어 洩油하게 되고 이를 발견한 僚機들의 적절한 조치로 간신히 기지까지는 도착할 수 있었으나 착륙 순간 機體가 연소하기 시작하여 겨우 인명만을 구출하였다.

10월 31일 : 아침부터 흐리기 시작한 날씨는 雨天으로 변하였으나 이에 不屈하고 전투기들은 敵의 攻擊企圖를 封鎖하기 위한 목적을 斷行코자 오전과 오후에 걸쳐 元山지구 상공의 氣像偵察을 실시한 결과 목표를 분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출격은 中止되었다. 이 中止기간은 11월 2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동안 공군기들은 10월중의 작전내용 검토와 次期 作戰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11月中의 活動狀況

10월 3일 : 雨天 관계로 지난 3일間은 출격이 中斷되었으나 漸次로 날씨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날 08.55에 제1편대는 見山里(元山 南쪽 1km)에서 보급로 2개소를 遮斷하였는데 편대장 權成根 대위가 조종하는 27호機가 機關故障을 이르켜 敵地에 不時着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權대위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기지에 歸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09.10에 출동한 제2편대는 現洞里(元山 南쪽 3km)와 龍坪里(元山 東南쪽 2km)에서 보급로와 砲陣地 1개소를 각각 격파한 다음 계속하여 13.25에 출격한 제3편대는 於隱里에서 철도 1개소를 遮斷하고 京元線을 따라 南下하다가 三防驛과 洗浦里驛間의 터널지역에서 峽谷을 지나는 보급수송차량 대열을 捕捉하고 이를 공격키 위해 機首를 급강하 進入하려 할 때 터널 左右에서 對空砲火가 집중되었으나 空中妙技로서 공격을 감행하여 차량 2대와 砲陣地 2개소를 爆破하였다.

또 13.55에 기지를 이륙한 제4편대는 元山 南쪽 8km의 水麗里에서 철도 1개소를, 泉陽里에서 보급로 1개소를 각각 遮斷한 다음 다시 淮陽 東쪽 1km의 上萬里와 西쪽 11km의 山間小路에서 차량 2대를 격파하고 이날의 作戰을 완료하였는데 敵은 공중공격이 없는 3일간의 雨天日을 이용하여 철도와 도로등의 보급로를 復舊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11월 4일 : 오전에 출격한 2개편대는 元山 操車場에 集中打를 감행하여 철도 2개소를 遮斷한 다음 淮陽과 通川間의 機動路上에 있는 化川里와 本里에서 군용건물 5棟을 폭파하였다.

또 이날 오후 출격한 2개편대도 現洞里(元山 南方 3km)—水麗里(元山 南쪽 6km)間의 京元線 철도 9개소를 遮斷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급수송을 中斷케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5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어 출격이 中止되었고 이 비는 7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작전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氣象偵察은 계속하여 목표상공의 기상을 살폈으나 역시 視界不良으로 출격을 保留하게 되었다.

11월 8일 : 이날부터 날씨가 다시 回復되었으므로 F—51戰爆機 4개편대는 元山지구의 보급로를 遮斷할 목적으로 출격을 再開하였는데 여기는 10월중에 數次에 걸친 연속 공격으로 사용이 不能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敵은 이달 初旬의 惡天候로 공중활동이 제한되는 好機를 틈타서 다시 復舊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出擊한 결과로 元山과 安邊驛間의 京元線 철도와 철교 12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하는 한편 각 編隊는 化川里(淮陽과 通川間의 交通要衝地) 일대에 Rocket彈과 機銃사격을 加하여 군용건물 12棟과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비롯하여 차량 1대를 完破 또는 半破함으로써 이날 이 일대의 中共軍 陣地에는 온종일 煙煙이 그치지 않았다.

11월 9일 : 전날에 이어 元山지구에 출격한 F—51戰爆機 4개편대는 元山 南쪽의 見山里—現洞里—地境里—水麗里 일대의 철도에 再攻擊을 加하여 9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하고 계속 각 편대는 淮陽과 通川間의 機動路上의 交通要衝地인 化川里 일대에서 군용건물 14棟을 全破하는 한편 군용차량 4대를 불태우거나 또는 半破하였다.

또 이 지역의 彈藥集積所에 Rocket탄이 명중되면서 연쇄적인 폭발을 誘發케 하여 化川里 일대를 火焰에 휩싸이게 하고 中共軍들의 退却을 目擊한 F—51戰爆機 조종사들은 이들에게 機銃공격을 다시 감행하였기 때문에 그 附近의 中共軍 陣地는 一瞬 修羅場으로 化하였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의 敵의 熾烈한 對空砲火로 이날 마지막 공격에 들어갔던 28호機(辛鐵洙 중위조종)가 左翼燃料 Tank부근에 피탄되었으나 無事히 歸還하였다.

11월 10일 : 이날부터 전진부대 사령관 外 3명의 조종사가 美空軍大學에 留學要員으로 선발됨에 따라 金 信 대령을 司令官兼 第10戰鬪飛行戰隊長으로 하는 前進部隊의 재편성과 교관요원으로 差出된 2명의 조종사(尹應烈 대위, 玉滿鎬 중위)가 보충되어 戰鬪操縱士는 다시 20명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날 元山지구에 출격한 F—51戰爆機 3개편대는 現洞里—水麗里—於隱里 일대에서 철도 4개소를 完破하고 3개소를 半破하였으며 이어서 淮陽 東南쪽 12km에 있는 廣石里 부근의 中共軍陣地와 이 지역에 집중된 高射砲陣地를 목표로 공격을 반복하였다.

제1편대는 廣石里 三巨里와 豆田洞里 일대에 Rocket와 機銃공격으로 군용건물 2棟과 砲陣地 6개소를 폭파 또는 半破하였는데 이때에 辛鐵洙 중위가 조종하는 26호機는 水平安定板에 損傷을 입었다.

이어서 제2편대는 廣石里 東쪽 3km에 있는 蓬峴里와 二東里의 三巨里間에서 다시 군용건물 2棟과 砲陣地 4개소를 完破하는 한편 제3편대도 이 지역에서 건물 5棟과 砲陣地 4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하였다. 이때에 3편대장인 金斗萬 대위의 29호機와 다른 한대가 損傷을 입었으나 僚機의 助力으로 무사히 기지까지 귀환하였다. 이날 목표일대는 中共軍의 보급소를 설치한 곳으로 알려졌다.

11월 11일 : 이날 공격목표를 元山지구로 指向하고 출격한 F—51戰爆機 4개의 편대는 철도 10개소와 機動路 1개소를 遮斷한 다음 다시 中共의 보급소가 있는 廣石里일대에 爆撃을 加하였다.

즉, 이날 오전에 廣石里에서 건물 2棟과 砲陣地 2개소를 공격한 다음 그 밖에도 보급품 集積所가 散在하여 있는 것을 捕捉하였으나 搭載 武裝의 不充足으로 부득이 다음 편대에게 공격임무를 미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후에도 오전에 출격한 조종사를 포함한 2개편대로써 廣石里와 二東里간의 보급품 집결소와 砲陣地에 爆彈과 Rocket 및 機銃으로 집중공격하여 보급품집적소 4개소와 건물5棟을 完破 또는 半破하고 계속 砲陣地 2개소와 차량 2대를 격파하였다.

이와 같이 中部戰線 후방의 中共軍 보급소를 강타함으로써 敵의 再侵攻의 企圖를 粉碎하기에 노력하였다.

11월 13일 : 12일은 雨天관계로 출격이 中止되었다가 이날 10.40부터 작전을 開始하였는데 F—51戰爆機 2개편대는 元山지구의 見山里와 地境里에서 철도 3개소를 完破 또는 半破하고 中共軍의 前線보급소가 昌道里 西쪽 1km와 南쪽 3.5km에 있는 屈坡嶺間에 散在된 것을 捕捉하자 그중 2개소와 對空砲陣地 4개소를 격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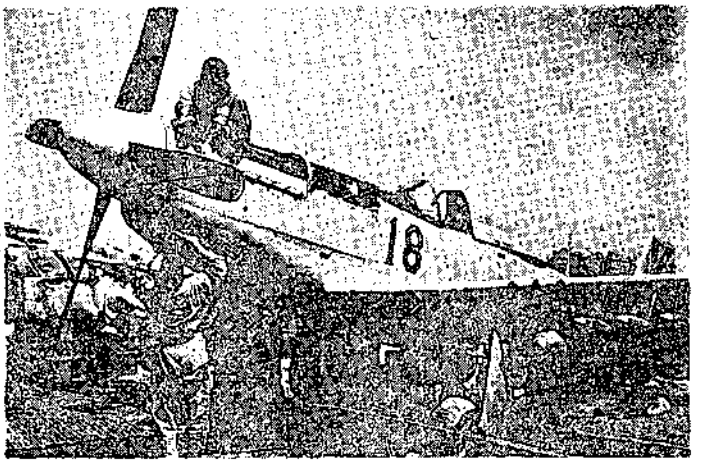
또 13.50에 기지를 이륙한 2개 편대도 元山지구 地境里와 水麗里間에서 철도 4個所를 遮斷한 다음 昌道里 北쪽 0.7km와 南쪽의 屈坡嶺에서 군용건물 4棟과 砲陣地 3개소를 격파하였다. 이 공격에서 我軍機 1대가 피탄되었으나 조종사와 통신사의 機智로 무사히 귀착하였다.

11월 14일 : 이날은 아침부터 흐리기 시작하여 구름이 낮게 깔리었으나 제 1 전투비행단 전진부대에서는 이에 拘碍됨이 없이 출격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오전과 오후에 連續的으로 F—51戰爆機 4개 편대가 출격하여 元山지구의 철

도망과 金城 北쪽을 爆擊하였는데 元山 南쪽의 現洞里—地境里—水麗里 於隱里에서 철도와 철교 8개소를 遮斷하였다.

이어서 F—51편대는 昌道里 北쪽 1.7km에 있는 得寺里와 東쪽 4km에 있는 尙學山(△823)골짜기와 그리고 屈坡嶺 일대에서 군용건물 10개소와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다.



<출격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整備士들>

그리고 계속하여 昌道里 일대의 中共軍 前方보급소를 폭파하였으나 이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16일까지 계속되어 출격을 不得已 中斷하였다.

11월 17일 : 이날 공군기들은 12.00부터 날씨가 回復됨에 따라 元山지구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고자 12.50에 敵陣 上空에 F—51戰爆機 1대를 出擊케 하여 氣象偵察을 實施한 結果 漸次好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14.30에 기지를 이륙한 F—51戰爆機 2개편대는 元山 南쪽의 見山里의 공장지대와 地境里에서 철도 5개소와 철교 1개소 그리고 도로 1개소를 遮斷하여 敵의 地上機動을 막았다.

11월 18일 : 이날도 元山지구에 4개편대가 출격을 하여 元山 南쪽의 地境里—水麗里—於隱里에서 철도망을 강타하여 철도와 철교 9개소를 爆破하였다.

그뒤에 제1편대는 京元線 洗浦里에서 敵의 보급품집결소에 急降下로 進入하여 Rocket와 機銃사격으로 군용건물 2棟과 燃料집적소 1개소를 불태우고 또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서 출격한 3개 편대는 元山—平壤間 도로를 따라 西進하다가 馬息嶺(△788) 西南쪽 3km에 있는 伏回里 일대의 보급품집결소에 爆擊을 감행하여 10개소를 폭파 또는 연소시키는 한편 燃料貯藏所에 Rocket彈을 命中시켜 爆發케 하였으므로 그 일대는 終日 火焰과 黑煙이 冲天하였다.

11월 19일 : 이날도 元山지구의 철도를 遮斷할 목적으로 출격한 F—51戰爆機의 4개편대는 內元山里—現洞里—地境里—下花山里에서 철도와 철교 13개소를 全破하고 1개소를 半破하여 敵으로 하여금 元山지구의 地上機動을 困難케 하였다.

그리고 機首를 南쪽으로 돌린 제1편대는 白牙山(△933 淮陽 南쪽 9km) 西쪽 2km의 泥浦里에서 군용건물 3棟을 全破 또는 半破하였다. 또 제2, 제3편대는 下里洞(昌道里 西

北쪽 6km에서 보급품집적소 6개소와 군용건물 3棟과 그리고 砲陣地 1개소를 全破 또는 半破하였다.

한편 제4편대는 洗浦 東南쪽 10km에 있는 兩雙嶺(△913—△821)의 골짜기를 急襲하여 건물 2棟과 보급품집적소 2개소 그리고 砲陣地 1개소를 파괴함으로써 天然의 地形을 巧妙히 이용한 敵陣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11월 20일 : 이날도 계속하여 元山지구의 철도망을 遮斷코자 출격한 F—51戰爆機 4個 편대는 元山 南쪽의 地境里와 水麗里間 京元線 철도를 강타하여 10개소를 차단하고 2개소를 半破 하는한편 보급로 1개소를 차단하였다.

계속하여 南進한 각 편대는 편대별로 昌道里 西北쪽 6.5km의 大白里 일대의 보급품집적소에 대하여 連續的인 공격을 加하였는데 F—51戰爆機 편대가 목표 상공에 到達하자 이 일대의 山 中腹에서 發射하는 對空砲火가 熾烈하였으나 이에 屈함이 없이 먼저 이들을 강타하여 12개소를 폭파하고 敵勢를 制壓한 다음 목표물을 攻擊하여 군용건물 8棟과 보급품집적소 8개소를 爆破하였다.

11월 21일 : 이날도 F—51戰爆機 16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개편대씩 元山지구에 출격하였는데 이들은 元山 南쪽의 內元山里—現洞里—地境里에서 철도 9개소와 철교 1개소를 爆破한 다음 다시 각 편대는 淮陽과 昌道里間의 敵 보급품집결지를 强襲하였다.

그리하여 淮陽 東南쪽 11km의 補給路上의 支石里와 蓬峴里 그리고 梧桐里등에서 보급품집적소 10개소를 爆破하고 또 군용건물 7棟과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梧桐里에서 戰線으로 향하는 수송 차량대열을 捕捉하자 그중 2대를 擊破하였다.

이어 귀로에는 昌道里에서 보급품집적소 4개소와 砲陣地 2개소를 擊破하였다.

11월 22일 : 이날은 공격목표를 花雨里(高城 西쪽 5km)일대에 指向하여 敵의 집결지로 사용하는 建物 9棟을 燒却하고 散兵壕 10개소를 파괴하였다.

이 花雨里는 第1軍團 正面에서 10km 거리에 있는 목표인데 제1전투비행단 전진부대에서 이와 같이 근거리를 목표로 출격하기는 처음이었으며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어 23일까지 출격은 중지되었다.

11월 24일 : 이날부터 元山지구에 대한 제2공격 목표를 內金剛지구로 指向하여 4개편대가 오전과 오후에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날 元山지구의 地境里와 於隱里에서 철도 8개소를 遮斷하는 한편 철교 徑間 2개소를 爆破하였다.

계속하여 內金剛지구로 南進한 각 편대는 金剛山 줄기의 國士峰(△1,385) 南쪽 3km에 있는 眞木亭(참나무정)에서 오전에 출격한 2개편대가 군용건물 3棟과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고 오후에 출격한 2개편대도 이곳 南쪽에 있는 군용건물 6棟을 全破하고 2棟을 半破하였으며 또 敵의 散兵壕 4개소와 砲陣地 2개소를 爆破하였다.

그런데 이날 地境里를 공격하던 제2편대의 4번기인 辛鐵洙 중위는 세번째로 被彈되었으

나 이에 屈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完遂하였다. 이날 밤부터 흐리기 시작한 날씨는 25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25일 야간에는 江陵기지에 첫 눈이 내리는 등 日氣는 不順하였다.

이날 오후에 이르러 출격을 감행하고자 元山지구에 氣象偵察을 실시하였으나 敵 上空도 天氣가 不良하므로 출격이 中止되었다.

11월 26일 : 이날도 24일에 이어 元山지구 공격이후 內金剛지구를 제2공격목표로 하여 3개편대가 출격하였다.

10.00에 기지를 이륙한 F—51戰爆機의 2개편대는 地境里—水麗里—於隱里에서 철도 7개소를 遮斷하고 계속 南進하여 眞木亭 南쪽 2km에 있는 無名高地(△1,067)부근에서 敵의 陣地가 散在되어 있는 것을 捕捉하자 곧 이에 Rocket彈과 機銃사격을 퍼부어 건물 7棟과 砲陣地 2개소를 爆破 또는 불태우는 한편 散兵壕 6개소를 全破하였다.

이어서 오후에 출격한 F—51戰爆機편대는 元山 南쪽의 공장지대에서 철도 1개소를 폭파하고 다시 眞木亭까지 南下한 다음 眞木亭 南쪽 2km에서 砲陣地 3개소를 폭파하고 계속하여 보급품집적소 4개소를 불태우는 한편 推定 100명의 敵을 殺傷하였다.

이리하여 24일과 26일 兩日間의 공중공격으로 이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我 第1軍團 前面의 敵에게 致命打를 加하였다.

11월 27일 : 이날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1개편대씩 출격하였는데 09.20에 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는 元山 南쪽의 水麗里에서 京元線 철도 2개소를 遮斷하고 다시 松亭里(昌道里 北쪽7km) 근처에 숨겨 놓은 차량 2대를 完破하고 1대를 半破하는 한편 공격을 계속하여 군용건물 1棟을 불태웠다.

또 13.00에 기지를 이륙한 제2편대도 內元山里에서 철도 2개소를 차단하고 昌道 北쪽 9km에 있는 延逸浦里의 반덕마을에서 보급품집적소 3개소를 全破하였으며 귀로에 松亭里 西쪽 1km에 있는 내외현에서 砲陣地 2개소를 다시 爆破하였다.

그런데 이날 羅昌俊 중위가 조종하는 40號機가 機關故障을 일으켜 出擊도중 귀환하게 되었는데 수리 後 오후에 이르러 辛鐵洙 중위가 이를 조종하고 다시 출격하여 임무는 完遂하였으나 亦是 공중에서의 機關狀態의 不調로 말미암아 작전에 支障을 주었다.

11월 28일 : 이날 09.20에 출동한 2개편대가 元山 南쪽의 철도를 강타하여 地境里와 於隱里에서 7개소를 遮斷하였는데 이날도 제1편대의 2번機인 40호機가 다시 공중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부득이 도중에서 귀환하였으므로 이날의 공중공격은 F—51戰爆機 7대만이 元山지구의 후방 遮斷作戰에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空軍의 單獨出擊 작전을 展開한 10월 11일부터 약 2개월간 江陵 前進基地에서의 元山지구 출격을 마쳤는데 이 작전에 참가한 操縱士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金 英 煥 대령	金 信 대령	鄭 周 良 중위	羅 昌 俊 중위
張 志 良 중령	姜 鎬 倫 소령	朴 在 浩 중위	金 錦 成 중위
丁 英 鎭 대위	金 斗 萬 대위	張 星 太 중위	辛 鐵 洙 중위
尹 應 烈 대위	李 康 和 대위	俞 致 坤 소위	孫 在 權 소위
權 成 根 대위	周 永 福 대위	孫 興 俊 소위	朴 完 圭 소위
玉 滿 鎬 중위	李 基 陜 중위	李 日 泳 소위	徐 商 純 소위

라. 작전 후의 개황

이 작전은 韓國空軍이 하나의 독립된 전투단위로서 UN空軍의 一部 戰域을 담당하여 처음으로 공중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空軍은 이 단독작전 作戰區域內인 元山에서 中部 및 東部戰線에 이르는 敵의 작전 및 보급로를 對空砲火의 위협을 敢然排除하면서 공격목표를 徹頭徹尾하게 粉碎하여 예상외의 전과를 올림으로써 韓國 空軍을 더 한층 增強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敵은 空軍의 후방차단 작전으로 糧道를 斷切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冬期를 앞두고 困難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敵은 파괴된 도로와 철도등의 主補給路를 수리하고 주로 야간의 수송에만 의존하게 되니 그 시간이 2~3倍로 延長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급로의 수리와 엄호를 위한 對空火器의 배치로 막대한 병력을 후방에까지 分散配置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重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리하여 共產軍의 攻勢企圖는 좌절되었고 UN軍側은 休戰會談을 조속히 妥結시키고자 제한된 攻勢만을 취하던中 同年 11월 27일부로 당시 接觸線에서 제한된 軍事分界線(現休戰線 부근)을 1개월간 時限部로 設定할 것에 쌍방이 합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空軍의 손실은 航空機 1대가 파괴되었을 뿐이며 출격回數는 후방차단 작전에 489회이고 氣象偵察 10회로서 도합 499회(Sorties)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에 500Lb GP 폭탄 940발(240 ton)과 2.5" Rocket彈 1,650발 그리고 Cal 50 實彈 350 000만발 등의 彈藥을 消耗하여 얻은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 綜 合 戰 果

구 분	전 과	구 분	전 과
射殺 또는 爆殺	130名	道路 破壞	22個
建物 破壞 및 煙燒	122棟	橋梁 破壞	15〃
天幕 破壞	5〃	操車場 破壞	1〃
散兵壕 破壞	21個	一般車輛 破壞	56台
補給品集積所 破壞	67〃	貨車 破壞	7輛
燃料貯藏所 煙燒	4〃	牛馬車 破壞	36臺
彈藥集積所 破壞	1〃	터널 破壞	1個
鐵道 破壞	174〃	砲陣地 破壞	66〃
鐵橋 破壞	18〃		

§ 參戰者의 證言

◇ 제11전투비행 대대장 金斗萬 대위

(1973. 5. 31 大韓綜合食品社長, 예 대장)

江陵비행장에 前進하여 보니까 활주로는 P.S.P가 깔렸고 길이가 약 5,000ft에 폭이 120~150ft 정도로 작전에는 支障이 없었다.

그리고 51년 10월 1일 전진부대 主力인 조종사들이 江陵기지에 도착함으로써 전진이 완료되었다.

10월 10일까지는 이 지역과 元山지방의 地形에 익숙하기 위하여 事前研究와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11일부터 우리 空軍으로서는 처음이고 역사적인 단독작전을 하게 되었는데 후방차단(Interdiction) 임무를 띠고 元山부터 시작하여 新高山과 昌道里지역의 敵의 교통망과 보급품집적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 공중작전에서 1차목표는 元山과 新高山間 京元線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였고 歸路에는 中部戰線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군용차량과 보급품집적소 그리고 砲陣地等을 捕捉하는 대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敵陣에 출격할때 상공에서 보면 我軍과 敵軍이 陣地가 확실히 구분되어 肉眼으로도 알 수 있었다.

我軍陣地는 전부 노출되데 비하여 敵軍은 露出된 것이 거의 없어 陰蔽 또는 위장되어 공중에서 목표를 捕捉하기 힘들었다.

또 共產軍의 高射砲는 주로 도로와 철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특히 심한 곳이 新高山과 昌道里 일대였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가 출격할 때 美 空軍으로부터 출격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敵情과 공격목표 武裝, 공격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初期부터 元山 南쪽의 교통망을 차단하였다.

◇ 제11전투비행대대장 丁承鎭 대위

(1973. 5. 23 초석항공 부사장, 예 중령)

智異山지구 작전을 통하여 美 空軍으로부터 전투능력을 인정 받은 후 51년 9월 末에 江陵基地로 前進하였다.

이때 부대명을 제1투비행단 前進部隊 사령부라 칭하고 司令官은 副團長이며 제10戰隊長인 金英煥 대령이었다.

첫날(10월 11일)부터 元山 南쪽과 新高山 昌道里지구에서 작전을 하였는데 主로 철도와 도로등 후방차단 임무를 띠고 공격하고 귀로에는 武裝偵察을 겸하여 敵이 발견되는 대로 공격하여 粉碎하였다.

그리고 출격명령은 야간(출격전일 23.00~당일 01.00間)에 美 空軍에서 C-47便에 전달되면 이를 근거로 세부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所持한 航空地圖와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공격하였다.

이러한 출격을 매일 하다가 途中에 泗川基地에 원대복귀하여 교육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江陵基地로 전진時 一流級에 속하는 전투조종사들이 거의 가고 泗川에서 後續部隊로 보충될 조종사 양성이 문제가 되어 나와 함께 몇명의 조종사가 훈련을 담당하였다.

◇ 제12전투비행대대장 대리 尹應烈 대위

(1973. 6. 1 예 소장)

泗川에서 美 空軍의 엄격한 檢閱을 통과한 후 江陵으로 올라 갔는데 이때부대 명칭을 제1전투비행단 전진부대 사령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단독출격은 51년 10월 11일이고 첫출격에 제1편대장으로 사령관인 金英煥 장군(당시 대령)이, 2번기에 李基陝 중위 그리고 내가 3번기이고 4번기가 美空軍 Lagro 대위인데 이제 두분 故人이 되었고 나와 Lagro 대위만 살아 있지만 첫날 江陵기지를 이륙하여 東海岸을 따라 北上하다가 元山에서 機首를 돌리면서 元山 南쪽의 京元線 철도와 도로를 폭격하였다.

이 작전기간중에 敵軍의 對空砲火가 심히 올라왔는데 주로 新高山과 昌道里일대가 가장 치열하였다.

우리가 목표를 찾아 공격하여 들어가면 搭載한 武裝으로 목표에 投下하고 나꾸어 채서 올라와야지 離脫時 回轉(Rolling)을 하였다가는 틀림없이 被彈되기 때문에 공격에는 요령이 필요하였고 그때 이 요령은 실제 체험과 많은 연구로 被彈率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출격도중 泗川에 내려가 교관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江陵으로 올라와 출격을 계속하였다.

◇ 前進部隊司令部 부관 兼 비행편대장 辛康和 대위(1966. 3. 21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예 준장)

우리가 江陵에 전진하여 보니까 비행장은 허허 벌판이고 앞에는 모래벌인데 P'S.P가 깔려 있었다. 이때 美 해병항공대가 "콜세어"機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西쪽 모래밭에 天幕을 치고 起居하면서 主로 東海岸을 따라 北上하다가 元山 南쪽에서 공격하였다.

이때 우리 空軍은 하루에 12~20회의 배당을 받아 美海兵隊와 경쟁하다 싶이 출격을 하면서 이때부터 職衛空軍의 작전형태를 따랐는데 주로 후방 차단임무를 띄고 元山에서 中部戰線에 이르는 新高山의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였다.

이 新高山 일대에는 對空砲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200門 정도의 砲를 2重 3重으로 배치하고 우리 비행기에 대항하였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공격하여 들어가면 그 일대는 彈幕을 구성하여 꽃이 핀 것 같이 보였다.

이러한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폭탄과 Rocket탄을 먼저 投下하고 機關砲로 쏘는데 한번 출격하면 10회정도의 Pass를 하고 돌아왔다.

◇ 제10전투비행전대 부관 겸 편대장 權成根 대위(1973. 5. 18 民生구룹社長, 예 소장)

江陵基地에 전진하여 主로 元山 南쪽에서 中部戰線에 이르는 新高山과 昌道里 일대와 철도와 도로 그리고 교량등을 遮斷하는 임무를 遂行하였다.

특히 新高山은 中部戰線에 이르는 敵의 交通要衝地로써 보급품집적소가 많았고 전략적으로도 中東部戰線의 楊口 北쪽 文登里와 金城과 平康에 이르는 交通要衝地(分岐點)이다.

이 지역의 機動路를 따라서 高射砲를 많이 배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격을 하고 이탈할 때는 高射砲를 일제히 쏴대어 비행기와 같은 방향으로 砲彈이 따라오므로 비행기가 上昇하면서 離脫방향을 변경하려고 回轉(Rolling)을 하면 반드시 피탄하게 되어 있다.

한번은 내 편대원으로 出擊을 한 俞致坤 소위가 공격후 離脫時 Rolling을 하여 被彈으로 죽을 뻔 했는데 귀대후 혼을 내준적도 있었 듯이 이와 같은 被彈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썼다.

◇ 제11정비중대장 白春得 대위(1973. 6. 21. G.M Korea(株) 出庫事務所長, 예 대령)

江陵기지에서의 정비지원은 우리 整備士들이 1년 이상을 整備한 경험이 있어서 工具나 附屬品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可動率을 維持하였다.

江陵 작전중에 보통 8대지 10대가 하루에 2회씩 출격에 나갔는데 우리 정비사들은 何時라도 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03.00 내지 04.00 起床하여 출격시간 이전에는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또 武裝도 출격명령(Flag order)에 明示된대로 수량과 시간을 지켜 裝着하여야 하므로 그 당시 彈藥운반 차량이나 工具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와 무장사들은 목도로 운반하여 비행기에 裝置를 하여야 하므로 인력은 2重 3重으로 소요되니 1人 3~4役을 하여야만 출격준비를 시간내에 마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도 可動率을 100% 가깝게 維持한 것은 整備士들도 操縱士 이상의 정신력으로 支撑할 수 있었고 이렇게 2개월간을 지내다 보니 11월 말경에는 정비사들도 몹씨 피로하여 수면부족과 不眠증 환자까지 생길 정도이었다. 그리고 이때 空軍의 耳目이 江陵에 집중되었고 특히 韓國戰에 참전한 UN空軍들과 비교되는 처음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항공기가 출격하여 임무를 完遂하고 돌아올 때까지 몹씨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마치 자식을 밖에 내보내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 心情과 같은 것이며 우선 지휘탑과 항공기間에는 무전으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알지만 우리 정비사들은 착륙할 때까지 기다릴 때의 心情은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이다.

§ 手 記

◇ 死線의 自然

前進部隊司令官 金英煥 대령(故 준장)

우리는 「홈 라인」을 넘어서 敵陣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高貴한 몸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 感觸은 操縱士로서만 지닐 수 있는 또 조종사에게만 賦與된 영광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感觸과 榮光裡에 조국의 하늘을 날아 敵 共産軍에 대한 공격목표물을 捕捉하여 그들을 粉碎하고야 마는 강력한 격멸의식에 불타고 무수히 炸裂하는 敵의 對空砲火에도 秋毫의 恐怖도 없이 戰鬪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휴라인」을 넘기전까지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며 나도 모르게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오싹하는 感觸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예 죽음의 공포 같은데서 오는 類의 그러한 감정이 아닌 것이다. 물론 우리 操縱士들의 생각에는 敵을 粉碎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출격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도 金剛山의 비단 결 같은 단풍이 보인다. 그리고 錦繡江山의 고운 단풍을 볼적마다 지극히 優雅한 詩情을 가지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江山이 아닌 어느 異域이라도 또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였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만 美에서만이 아니라 조국과 鄕土愛에서 우러난 美感일지도 모른다.

敵의 악착스러운 對空砲火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敵 砲火에 맞을 憂慮없이 그러한 金剛山의 단풍의 美를 느낀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高貴한 것일 것이며 또한 鄕土愛에서 우러나오는 유독 우리 韓國 조종사만이 가질 수 있는 精神일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敵의 보급품 집적소와 敵의 차량, 敵의 砲陣地 격파와 敵의 병력살상과 교량 건물에 대한 정확한 捕捉 命中에 있는 것이다. 敵의 對空砲火가 熾烈하다는 말만으로는 실로 부족하리만큼 執拗하다. 나는 출격에 編隊의 지휘자로서 항상 僚機를 無電으로 不斷히 연락하여 狙擊에 대한 지시와 안부와 실수없기를 통고한다. 우리 操縱士들의 최대의 優秀性은 그 과감 강력한 공격정신에 있으며 그들의 놀랄만한 沈着性으로 敵의 어떠한 僞裝戰術에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아예 敵의 對空射擊 따위는 眼中에 두지 않고 또 無謀하거나 盲目的인 것이 아니라 모든 注意와 砲火에서의 謀略과 강력 과감한 공격정신의 微妙한 調和에서 발휘되는 전투행위라고 믿는다.

한번은 敵 목표물을 捕捉하여 이것을 집중 공격할 때 僚機들이 짓궂을만큼 거듭한 困境에 나는 指揮者로서 위험지역에 대한 無謀를 牽制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僚機들이 그와 같은 無謀를 收拾하여 가지고 元山 방면 해상에서 再編成하여 겨우 임무를 완수한 일이 있다.

大槪는 상당수의 敵 對空砲火를 무릅쓰고 거듭 날아들어 敵陣에 對地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은 훌륭하고 親愛하는 장병, 操縱士들로 된 우리 空軍의 역사적인 발전을 본 江陵 前進司令部의 司令官으로서 더욱 더 허다한 애로와 辛酸을 克服하면서 大成할 것을 믿는다.

◇ 내 故鄕을 爆擊하고

出擊操縱士 徐商純 소위(예 중령)

1951년 11월 21일 08.00 전우들은「부리핑」실에서 作戰參謀(姜錡倫 소령)의 指示棒을 따라 상황판 지도상의 공격목표에 視線이 집중하고 있었다.

指示棒은 어제 공격목표(淮陽)始點에서 東北으로 70度 방향 太白山脈을 넘어 옆으로 뻗어 化川里에서 동글게 원을 그리며 힘차게 찍었다. 거듭 항공사진을 가르키며 이날의 작전에 대한 細部計劃이 설명되었다.

항공지도상의 좌표를 짚어보는 내손은 떨려왔고 나의 눈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그 것은 내 잔뼈가 굵어온 꿈에도 잊을 수없는 나의 故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부모형제가 살고 있으리라고 믿어왔던 故鄕을 그리는 해묵은 나의 가슴…… 그 故鄕 하늘에 怨讐를 무찌르기 위하여 이제 바야흐로 날으려 한다.

출격준비를 마친 편대원들은 편대장 李基陝 중위로부터 거듭 공격지시를 받은 끝에 승리의 결의를 굳히는 대원들의 視線이 몇 차례 교차되어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의 가슴은 끓어 오르는 무거운 사명감에 가벼운 痙攣마저 일어났고 걷잡을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려고 목에 건 "레시버"를 어루만져 그 激衝을 가다듬으니 곧 엔진소리도 우렁찬 愛機의 부름에 착잡한 마음으로 발걸을 돌린다.

13.55 愛機(F—51 Mustang 33號機)에 몸을 싣고 操縱桿을 잡으니 곧 전개될 痛快한 장면이 눈앞에 떠오르고 나와 더불어 싸우고 나와 더불어 散華하는 愛機는 어서 가자고 내 마음을 재촉한다.

愛機는 가슴에 안은 폭탄과 로켓트탄 그리고 機銃의 위용을 자랑하며 얼대 風塵을 일으키며 疾走離陸하여 隊長機를 중심으로 두날개를 번쩍이며 빈틈없는 전투대형으로 一路 목표를 향하여 北쪽으로 날았다.

淸明한 날씨다.

銀翼에 燦爛히 빛나는 太極의 편대機들은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나의 故鄕을 향하여 날으고 있는 것이다.

東쪽 視界에 떠오르는 검푸른 바다 위에는 UN軍의 艦載機들이 벌떼처럼 北쪽 하늘을 향하여 날으고 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방의 使徒들은 내나라 이 겨레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싸우고 죽고 있지 않은가!

愛機야 어서 내 故鄕 하늘에 날개를 뻗어 내 삶터에서 敵寇들을 粉碎하자.

낯 익은 山川과 마을이 서서히 太極의 銀翼 아래로 흐르고 목표가 視野에 들어 온다.

아—! 여기가 바로 내 뼈가 굵은 검붉은 흙 내 故鄕이로다.

「爆擊準備!」 편대장으로부터 준비명령이 힘차게 귓전을 뒤흔들어 놓자 곧 편대장機를 先頭로 2번기(筆者 徐商純 소위), 3번기(孫在權 소위) 그리고 4번기(俞致坤 소위)가 화살 같이 내리꽂으니 콩알같은 목표가 점점 커지면서 敵이 쏘는 對空砲彈이 四面에 炸裂하여 붉은 불길이 「윈—도」를 스치고 지나간다.

순간 나의 집이 爆擊照準鏡 중앙에 나타났다.

어렸을 때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님이 반겨 맞아 주시던 대문이 버림받은 듯이 비스듬히 달려있고 그 주변에는 내 부모형제를 비롯하여 양민들은 모두 어디론지 가버리고 敵의 검은 人影이 周徨하여 右往左往한다.

그토록 그리던 내 집이 敵이 득실거리는 군사시설로 變貌하여 이제 나의 공격목표가 될줄이야?

남몰래 故鄕을 떠나던 그 어느날 새벽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어서 떠나거라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 所謂 선거 사전으로 놈들에게 끌려간지 이틀이 지났구나, 네가 하루라도 집에 더 있다가는 무슨 變을 당할라. 너 하나라도 살아야지, 어서! 우리 늙은 것들이야 그런대로 살다 죽드라도 얘야 어서 누가볼라, 앞집 泳浩네석이 눈이 빨개서 날뛰드라」.

이렇게 부모님과 헤어진지 5년동안 生死조차 모르고 怨讐를 무찌르려고 찾아온 내 故鄕 내 집 내 부모형제가 살던 곳에 내가 폭격할 알궂은 운명! 표현할 길 없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 살던 집이 이미 敵의 巢窟이된 다음에야 어떠랴? 떨리는 손으로 폭탄투하의 "보턴"을 누르고야 말았다.

정의의 폭탄은 번개 같이 목표를 향하여 떨어지고 또 로켓트탄은 쌩! 불을 뿜고 나간다. 쿵쿵 震天動地의 轟音이 機體를 뒤 흔든다.

機首를 높여 보니 敵의 탄약고와 함께 내집은 검은 연기에 휘감기어 타오르고 있다.

우리편대는 急上昇하여 제2공격 목표를 捕捉하였다.

여진 겨레를 欺瞞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자유의 가치를 말살하려는 不法集團의 하등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공산당의 保衛部였다.

오늘날 인류의 모든 불행한 禍根의 원인이 여기에서 조작되는 것이다.

편대장機의 機關砲彈이 목표위에 반짝반짝 명중하고 있다.

나도 復讐의 砲火를 맹렬이 퍼부었다. 쌩—쌩 번개 같이 튀어나가는 로켓트탄이 魔의 기둥뿌리를 파헤쳤다.

이는 오직 전투조종사만이 맛볼 수 있는 痛快한 맛이다.

「편대장 9時방향 고사포탄」 어느 僚機가 「래디오」로 급히 알리는 경고였다. 앗! 敵의 무수한 고사포탄이 隊長機의 주변에 불꽃 같이 炸裂한다.

「알았다」「砲陣地를 갈겨라」 연달아 편대장의 沈着한 명령과 함께 淸明한 蒼空의 高射砲彈의 연막을 뚫고 急反轉 降下 뒤를 이어 2번기, 3번기, 4번기가 날뛰는 敵의 砲陣地에 기관포와 로켓트탄을 퍼부었다.

敵의 砲陣地는 검은 연기 속에 자취를 감추며 조용해지고야 말았다.

機首를 돌리니 斷髮嶺이 눈 앞에 나타나고 市街에서는 볼 수 없는 양민들이 이 山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다시 斷髮嶺을 되돌아 들어갔다.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분명 우리에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자신감 환희 영광에 상기되어 자신에게 외쳤다.

「故鄕의 부모형제들이여, 조국통일의 환희를 맞이하는 날까지 기다려 주십시요 기필코 승리의 영광을 안겨 드리오리다」 「공격 끝」 ○○지점에서 "랑데뷰"(會合) 편대장의 快活하고 명랑한 음성, 공격은 끝났다.

全機 無事하다.

검은 煙氣에 휩싸인 내 고향을 뒤로 아득하게 멀어지는 斷髮嶺을 말 없이 흐르는 물결이 구비친다.

夕陽에 빗기운 紅雲이 흘러 우리들의 무사함을 반기는 듯 하였고 煙霧의 저편에는 基地의 앞山이 버티를 들어 우리들을 맞아준다.

잇달아 작전임무를 부여받은 제4편대機들이 滑走路上에 일대의 風塵을 일으키며 離陸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의 출격의 결의도 굳게 基地上空을 悠悠히 旋回하면서 한대 두대 着陸을 시작하였다.

§ 研 究

初期 作戰地域

1951년 10월 11일부터 江陵 前進기지에서 空軍의 단독 출격 작전이 개시되었는데 이 작전중의 初期 作戰지역이 空軍史 제1집 153P와 372P에 10월 11일은 麟蹄 東北쪽의 「堂亭谷」에서, 同月 15일은 麟蹄 東北쪽의 「鷹峰山」에서, 그리고 同月 16일은 漣川 北쪽의 六光里 지역에서, 각각 작전한 것으로 敍述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根據로 元山 南쪽 지역으로 수정하였다.

첫째 : 10월 11일 현재의 戰線은 現 休戰線이 었으며 同月 11일과 15일의 작전지역인 堂亭谷과 鷹峰山은 戰線後方 22~28km에 있고 16일 작전지역인 漣川 北쪽의 六光里도 前線에서 11~13km 후방에 있다.

(陸軍 定期作戰報告, 定期情報報告, 美8軍 定期作戰報告 參照)

둘째 : 11일과 15일의 전과 중 철도와 高射砲陣地 牛馬車등을 파괴한 것으로 收錄하고 있으나 이 麟蹄지구에는 철도가 敷設되어 있지도 않으며 北傀軍 陣地도 없었다. 또 16일에는 中共軍 보급로를 공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도 中共軍은 없었다.

세째 : 10월과 11월의 작전기간중의 임무는 後方遮斷 작전임무를 띠고 敵 후방의 철도와 도보등 작전 및 보급로의 차단으로 敵의 보급지원을 阻止하였고 近接支援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參戰한 출격조종사(丁永鎭 대위, 金斗萬 대위, 尹應烈 대위, 李康和 대위, 權成根 대위, (계급은 당시 계급))들의 證言에서도 밝혀졌다.

14. UN 空軍의 活動 (1951년 9월 1일부터 1951년 10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1 호

要 旨

UN空軍은 8월중 敵의 후방전력의 증강을 抑制하기 위하여 北韓內에 있는 철로에 대한 공격목표를 결정한 다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加하는 한편 敵의 주요 비행장과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면서 地上에서의 彼我接戰이 치열한 戰線에 과감한 근접지원을 敢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南侵을 위한 敵의 戰力이 粉碎되어 士氣가 低下되었을 것이나 敵은 오히려 보급품을 前線으로 輸送하기 위하여 全破되지 않은 複線 軌道中 그 한쪽 軌道를 거두어 복구작업이 必要한 곳으로 急送하여 應急補修하는 등 끈질긴 對策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UN空軍에서는 9월에도 敵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철로는 물론 철교와 其他의 主要 교량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폭격에서는 爆擊軸을 가능한 限 90°로 하여 목표로 접근토록 하는 爆擊術을 適用하였다.

이 爆擊術은 徑間(Span)마다 同時에 폭탄을 集中할 수 있고 훈련이 미숙한 爆擊手들도 徑間의 軸을 조준점으로 사용함으로써 視界가 확대되어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에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대개 在來式 폭탄(Demolition Bomb)과 2,000 Lb의 일반용 폭탄을 사용하고 이 밖에 各種 지연信管 장치가 되어있는 폭탄을 投下함으로써 敵은 폭파된 교량 복구공사에 많은 장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極東空軍 폭격司令部의 제3폭격비행단과 美 제5공군의 제452폭격비행단에서는 보다 效果的인 차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F—51(Mustang)과 B—26輕爆擊機의 야간작전 지역을 넓혔는데 즉 北韓을 兩分하여 東側은 제452폭격비행단이 맡고 西側은 제3폭격비행단이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兩 비행단은 출격에 앞서 敵의 주요 보급로를 色彩로써 표시하고 담당 지역을 다시 細分하여 각 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리하여 每日 밤 同一 보급로에 계속 출격하여 폭격을 反復하게 되니 승무원들은 漸次的으로 지형에 익숙하여지고 이에 따라서 야간 폭격기들은 日沒에서 日出까지 30분 간격으로 指定된 목표에 계속 猛爆을 敢行하게 된 것이다.

기간중 兩 비행단의 출격 보고에 따른 전과는 대부분 機關車 파괴였는데 그 최고의 기록은 제3폭격비행단의 9월 報告書로서 機關車 全破 4輛과 半破 60輛에 達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작전이 가능한 B—26輕爆擊機로서 야간을 利用하는 機動路 차단을 위하여 全戰力을 投入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軍트럭 2,362대를 全破하고 4,959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9월 중순에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北韓內의 보급로 차단작전에서 B—26輕爆擊機가 거둔 전과를 美 空軍本部에 注意를 환기시키면서 報告하기를 『보다 多數의 B—26輕爆擊機가 있다면 敵의 보급輸送을 더욱 效果的으로 強打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極東空軍에서는 美 空軍 당국으로부터의 B—26輕爆擊機를 增配받도록 意見을 具申하였으나 이 해 8월과 9월에 改造生産된 B—26輕爆擊機들은 이미 歐洲 방위임무를 맡은 제126비행단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戰術空軍司令部(TAC)에서는 이 비행단을 歐洲에 進駐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제126비행단을 極東空軍에 증편할 것을 美 空軍 당국에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하던중 점차로 韓國戰이 好轉되자 同비행단의 歐洲駐屯을 默認하는 한편 계속 制空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F—86 Jet전투邀擊機의 증편을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美 空軍 當局에서는 답변하기를 『現在 極東空軍에 배속되어 있는 F—86 Jet전투邀擊機 1개 전대에 대한 지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더욱 2개 전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極東空軍에서는 판단하기를 『敵의 各種 비행기가 지난 6월 10일에는 1,050대였는데 9월 1일에는 1,255대로 증가 되었으며 이 증가된 비행기들은 MIG—15 Jet전투기로서 Jet機가 도합 525대에 達한다』라고 추산한 결과 드디어 9월 26일 Otto P. Weyland중장은 美 空軍本部에 建議하되 『本人은 현재의 F—86 Jet 전투邀擊機의 戰力으로서는 앞으로의 狀況을 豫測하여 볼때에 絶對的으로 부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까닭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同 邀擊機 비행단을 韓國戰場에 급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空軍力을 격퇴할 수 있는 UN空軍의 戰力 증강을 위한 極東空軍의 노력은 10월에 美 空軍本部에서 B—26輕爆擊機지원 요청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게 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美國內의 기지에서 지휘 연락 및 비행훈련용으로 사용하던 B—26輕爆擊機들을 개조하였는데 極東空軍에서 원하는 목수성에 全的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內部翼砲(Internal Wing Gun)를 폭격조준 Gun(Package Gun)으로 代置하고 AN/ARC—3 Radio를 Dual(二元) SCR—552 Radio로 代置하였다.

그리하여 10월 27일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berg대장은 指示하되 『極東空軍의 2개 B—26輕爆擊機 비행단에 144대를 保有토록 증강하고 다시 戰鬪豫備로 50%에 達하는 爆擊機를 증가토록 즉각적인 措置를 取하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은 戰力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敵 보급품 집적소를 爆破하는 한편 보급로에 대한 遮斷폭격을 斷行하여 9월중 도합 19,311회에 達하는 출격을 하였는데 이 중 근접지원은 862회였고 차단爆擊은 8,686회를 記錄하여 도합 10,593 ton의 폭탄과 769 ton의 Napalm탄을 集中投下하는 한편 공수지원은 도합 4,445회에 達하였다.

또한 10월에도 UN空軍에서는 새로운 爆擊術로 敵 후방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특히 제315비행단은 C—119輸送機로써 Napalm탄이 가득찬 55 gal의 연료탱크(Fuel Tank)를 Tadpole(목표指示)管制에 의하여 야간 空中投下케 하여 뛰어난 능력을 과시 하였다.

이 爆擊術을 『Snow Ball』이라고 하는데 Napalm탄 30드럼을 搭載한 C—119輸送機 편대가 목표 상공 10,000~11,000 ft에서 150~170 knot로 비행하면서 Napalm탄의 드럼을 投下하는 方式이었다.

이 폭격의 성과에 對하여 友軍의 地下軍에서 美 제5공군에 보고 하기를 『72대의 C—119輸送機는 敵의 對空砲 공격도 받지않고 各機 마다 30드럼의 Napalm탄을 投下하여 목표지역을 火焰의 바다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大量의 Napalm탄을 집중投下함으로써 그 急襲과 破壞威力을 發揮하였을 뿐 아니라 기간중 美 제5공군에서는 도합 6,761대의 軍트럭을 全破 또는 半破 하였는데 이 戰果는 韓國戰 이래 月 최고의 기록인 것이었다.

10월중 UN空軍은 도합 21,887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근접지원은 1,000회였고 차단爆擊은 9,753회의 출격으로 11,290 ton의 폭탄과 758ton의 Napalm탄을 投下하고 공수지원은 도합 4,655회의 出擊을 기록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極東空軍司令官
중장 Otto P. Weyland

美 제5공군司令官
소장 Frank F. Everest

美 極東空軍 爆擊司令官 代理
준장 Robert H. Terrill

美 極東空軍 爆擊司令官
준장 Joe W. Kelly
(1951. 9. 30 이후)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空輸司令官
준장 John P. Henebry

나. 9월중의 秋季 攻防戰에 있어서의 UN空軍의 활동

UN空軍은 계속 制空權을 장악하고 敵의 보급품 집적소와 보급로에 대한 航空爆擊作戰의 强化로 敵의 戰勢는 점차로 衰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UN空軍의 활동으로 위축된 敵이 다시 戰力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활동 空域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空中戰을 전개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大要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北韓 西北部에서 空中勢力을 확장하여 地域的인 制空權을 완전히 恢復한다.

② 지역적인 制空權의 掌握으로써 一面 비행장을 신설하고 一面 복구한다.

③ Jet전투기들을 새로운 작전기지에 進駐시켜 지역적으로 制空權을 확장한다.

④ 在來式 전투기와 輕爆擊機들도 신설 비행장으로 이동시켜 작전에 參加하도록 한다.

⑤ 前方 基地에 있는 Jet전투기들을 동원하여 戰線地域 상공에서의 UN空軍의 制空權을 혼란 시키고 在來式전투기를 동원하여 UN地上軍과 空軍시설을 공격한다.』

이와같은 敵의 계획은 中共 특수항공 조사단(Communist China Special Inspection Group)의 報告書의 入手로 確證되고 이 조사단은 이미 北韓의 각 비행장 복구공사에 협력하고 있었는데 敵의 이러한 노력은 滿洲의 安東基地에 있는 MIG—15 Jet전투기의 戰鬪機動 半徑이 南쪽 80mile 以內로 局限되어 이 空域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敵機가 38°線 以南으로 侵空하려면 38°線과 인접한 지역에 비행장을 확보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속셈으로 敵機가 開城의 中立地域을 빈번히 侵空한 까닭으로 UN 空軍에서는 야간 비행 통제수단을 강구한 결과 各 작전 기지로부터 北緯 38°30′線까지 制限하여 그 以南에서 夜間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들은 金浦와 驪州에 있는 戰術空軍 指示本部(TADC)의 管制下에서 비행토록 함으로써 彼我機를 識別하게 되었다.

또한 美 제5공군에서는 邀擊管制 空域을 확장하고 감시 Radar를 설치하여 책임 空域을

배정한 다음 地域別로 그 空域을 방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策定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제608항공관제 및 警報大隊의 戰術空軍 指示本部는 大邱(K—2)로부터 江陵(K—18)비행장으로 前進하였는데 이 기지는 9월 23일을 작전 展開日로 定하여 Site (邀擊管制基地)가 독립되어 항공기에 C(Charlie) Beacon과 同一 Channel로 항공기 管制를 하게 됨으로써 원하던바의 90° 가까운 공격목표角度(Beam Attack)를 획득하고 『Shoran 작전』의 전투半徑은 250mile의 空域을 비롯하여 29,000 ft에 이르는 공격목표 고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UN空軍에서는 敵의 MIG—15 Jet전투기 활동이 활발하여지자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의 哨戒비행을 강화 하였는데 이 哨戒는 Sabre Jet전투 邀擊機 조종사들이 敵 MIG—15 Jet 전투기 조종사들의 戰術에 따라 對應할 수 있는 空中戰術로 通用되었다.

그런데 敵의 MIG—15 Jet 전투기는 항상 유리한 고도를 取하고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보다 그 機動力이 월등하게 優秀한 까닭으로 敵機가 空中戰을 回避할 때에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의 一方的인 戰鬪遂行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敵機가 數量面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에 友軍機의 編隊를 언제든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F—86 Sabre Jet 전투 邀擊機들의 哨戒 비행 목적은 敵機를 탐색하여 UN戰鬪爆擊機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데 있었기 때문에 友軍機 조종사들의 공격력과 비행 기술로 능히 이를 격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每日같이 평균 2회의 Jet氣流(Stream)가 鴨綠江 상공에 포물선을 그렸고 그 以南 空域에서의 UN戰爆機 활동에 대한 엄호에 全力하였으나 戰鬪機型 Jet 偵察機가 敵의 MIG—15 Jet 전투기의 활동 空域內의 偵察목표로 進入할 때에는 12 乃至 18대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가 RF—80偵察爆擊機를 엄호하기 때문에 그 戰力의 消耗率이 많았다.

이와같은 엄호 비행은 일반적으로 1개편대가 4대로 된 3개 편대로 하고 각 編隊는 偵察機의 상공 500에서부터 2,000 乃至 5,000 ft까지 飛行하면서 RF—80偵察機를 偵察 목표로 엄호한 다음 偵察機가 임무 수행을 끝내면 敵의 비행활동이 심한 空域을 벗어난 다음 2개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 編隊는 곧 엄호 隊列을 이탈하여 敵의 MIG—15 Jet전투기 활동이 심한 다른 空域에 대한 哨戒 비행으로 전환하고 1개편대는 偵察機와 함께 기지로 귀환 하였다.

뿐만 아니라 RB—45偵察爆擊機 1대에 대한 엄호에도 12대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가 3개 편대로 나누어 2개 편대는 RB—45 偵察爆擊機의 左右 1,500 乃至 2,000 ft상공에서, 그리고 1개편대는 背後 6,000 乃至 8,000 ft 상공에서 각각 엄호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에서는 敵의 MIG—15 Jet 전투기의 활동 空域에서도 能히 制空權을 장악하고 철저한 偵察로 폭격목표를 선정한 다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단행 하였는데

특히 9월 12일 밤 美 제5공군의 제8전폭전대의 戰爆機들은 探照燈을 사용하여 黃州 근처에서 40대의 軍트럭 縱隊를 捕捉하자 즉각 急降下 進入으로 500 Lb의 燒夷彈을 行列 前後에 投下하였다. 이리하여 10回에 걸친 목표에 대한 반복 폭격으로 그 중 16대의 트럭을 全破하고 24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探照燈에 의한 夜間출격 회수는 매일밤 평균 30회에 達하였는데 그 결과 敵의 軍트럭 縱隊를 捕捉하고 이를 강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反面 機動力과 항속거리가 감소되고 敵의 對空砲에 破壞될 公算도 많았을 뿐 아니라 정비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9월 26일 밤 美 제5공군의 제3폭격전대 야간 전폭기들은 敵의 前線을 따라 기동하는 軍트럭 3,782대를 捕捉하고 도합 2,588대를 全破하여 기간중 최고의 戰果를 기록 하였다.

또한 9월 27일 極東空軍 전투물자空輸司令部의 C—124 輸送機는 日本으로부터 최고로 20,300 Lb의 비행기 부속품을 金浦(K—14)에 공수 함으로써 美 제5공군의 戰力을 보강하게 되었다.

기간중 美 戰術機는 1日 평균 370회를 출격하고 이 가운데 근접지원은 1日 平均 29회에 이르렀으며 차단 爆擊은 232회에 達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장정찰은 1일 평균 55회를 출격 하였으며 엄호 출격은 平均 5회, 敵機를 격퇴한 空中반격 출격은 平均 49회로 出擊回數는 도합 11,110회에 達하였다.

9월중의 秋季 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작전 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9월 1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中部 및 中東部 戰線에서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한 地上軍에 對하여 戰線 山岳지대에 구축한 敵陣에 근접지원 포격을 加하였다.

한편 이날 休戰會談에서 敵側이 비난하기를 『오늘 01.00에 UN空軍은 開城 中立지역을 폭격 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UN軍 연락장교단은 현장을 조사한 다음 『전혀 事實無根이다』라고 통고하는 등 辛辣한 舌戰을 交換하기도 하였다.

9월 2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 21대는 平壤—新義州間의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전투기 4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MIG기 4대를 격추하였다.

9월 3일 :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함으로써 삽시간에 目標一帶를 火焰으로 휘감는 修羅場으로 만들었다.

9월 4일 : 이날 오전에는 비가 내리고 低層雲으로 비행활동에 많은 장애가 있었으나 오후부터는 漸次로 회복되어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前線으로 출격하였다. 이들은 敵과 攻防戰을 전개중인 地上軍을 掩護하는 한편 東部 前線의 敵陣에 폭격을 加하였다.

또 이날 밤 美 제5공군의 夜間 전투 폭격기 編隊들은 順川—新安州의 敵 操車場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고 目標物을 大破하였다.

9월 5일 : 極東空軍의 B—29 爆擊機編隊들은 北韓內의 주요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投下하여 使用不能토록 하였으며 이날 밤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들은 新溪—陽德—成川—

順川에서 軍트럭 縱隊를 捕捉하자 곧 이를 강타하여. 많은 損害를 주었다.

9월 6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敵과의 接戰이 甚한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敵 前線에 대한 폭격으로써 그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또 이날 美 海兵隊 소속 함재 전투폭격기 編隊는 漣川 西쪽 機動路에서 敵의 戰車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강타하여 1대를 全破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9월 7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敵의 보급로상에서 前線으로 機動하는 軍트럭부대를 捕捉하고 곧 이에 폭탄을 집중하여 그중 800대를 全破하였다.

또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定州의 操車場을 폭격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어 新安州 철교의 徑間(Span)을 폭파함으로써 敵의 보급수송을 中斷토록 하였다.

9월 8일 : 이날 氣象이 고르지 않고 심한 暴雨로 비행활동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順安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9월 9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전투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고 이어 이날 밤 戰鬪爆擊機는 前線으로 機動하는 敵의 軍트럭 縱隊를 捕捉하자 즉시 강타하여 50대를 全破하였다.

또한 이날 英國의 雙發 流星 Jet기들이 최초로 야간 武裝偵察戰에 참가하여 UN空軍에 새로운 威力을 加하게 되었다.

9월 10일 : UN空軍의 F— 86 Sabre Jet전투 邀擊機 80대는 平壤—安州間의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80대와 空中戰을 벌여 2대를 全破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에서 發表하기를 『大規模의 敵의 트럭縱隊가 야간에 韓·滿國境으로부터 中部 및 西部戰線을 向하여 機動하고 있다』고 한 다음 곧 緊急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를 强襲하기 위한 方策을 수립하였다.

9월 11일 : 美 제5공군에서는 전투폭격기들을 敵의 前線에 가까운 各 보급로로 출격시켜 韓·滿國境을 넘어 中部 및 南部 前線으로 機動하는 軍트럭에 대한 집중 폭격을 斷行케 하고 한편으로는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상의 主要橋梁을 破壞하도록 하였다.

9월 12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鎭南浦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하여 完燒케 하였으며 또 이날 밤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들은 칠흑같은 夜暗을 이용하여 敵의 前線으로 向하는 철도貨物車輛 100輛과 機關車 5輛을 全破하였으므로 이로써 敵은 前線에서 補給難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士氣를 크게 低下시키는 要因이 되었을 것이다.

9월 13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漣川 西쪽 機動路上에서 敵의 戰車部隊를 捕捉하자 즉시 Napalm탄으로 이를 攻擊하였으며 이로써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중인 地上軍을 掩護하는 한편 철도와 機動路에 대한 遮斷폭격을 단행하여 철교의 徑間(Span)을 폭파 하여

敵을 抑留하는데 寄與하는 바가 많았다.

이 遮斷작전에서 전투폭격기를 엄호하던 Jet 전투邀擊機 1대가 27,000 ft 상공에서 engine고장을 일으켜 추락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종사는 낙하산 脫出에 앞서 탐색임무를 띠고 비행중인 SA—16 Aldatross 水陸兩用機 조종사에게 脫出지점을 알려 주었다.

이리하여 조종사가 낙하하였을 때에는 이미 SA—16機가 그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즉각 엄호사격으로 敵의 접근을 차단하고 落下조종사를 SA—16기에 탑승 시키는데 불과 3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 기민한 구조 활동을 보여주었으니 당시의 空軍들의 士氣가 冲天하였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壯하도다 하늘의 猛士들이여!

9월 14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 편대들은 西部前線에서 敵과 接戰中인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 全面을 폭격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北쪽 14km 機動路上에서 敵의 戰車 8대를 捕捉하자 곧 강타하여 그 중 3대를 全破하고 5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 편대들은 敵의 철도 시설을 폭파하고 이날 밤 B—29重爆擊機들은 新安州의 操車場 3개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집중投下하여 擊碎하였다.

9월 15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는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상에 있는 主要철교와 교량의 徑間(Span)을 폭파하는 한편 이날 밤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는 敵의 철도시설과 보급품 집적소에 對하여 Napalm탄 攻擊을 加한 끝에 목표 일대를 火焰으로 뒤덮게 하



<UN空軍의 SA—16機가 조종사(원내)를 구조하고 있다.>

였다.

9월 16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는 이날 敵과 攻防戰을 전개중인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敵의 前線 全面에 걸쳐 폭격하고 이어 敵陣의 보급품 집적소에 집중적인 폭격을 加하였으니 敵으로서는 敢히 制空을 우러러보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極東空軍 爆擊司令部의 B—29重爆擊機 편대들은 敵의 보급로를 遮斷하기 위하여 각 철로를 大破하고 한편으로는 철교와 교량의 徑間(Span)을 폭파하였다.

9월 17일 : UN空軍에서는 전날과 같이 前線에서 敵과 접전하고 있는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계속 敵의 주요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에서 發表하기를 『韓國戰개시이래 200,000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끊임없는 敵의 南侵 야욕을 挫折시켰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制空權下의 이러한 猛活躍이 없었더라면 地上戰의 進展이 果然 어찌 되었을까? 이들 猛鷲들의 奮戰은 全自由民으로부터 높이 讚揚되고 길이記憶되어야 할 것이다.

9월 18일 : 이날 極東空軍에서는 700회 以上에 達하는 전투邀擊機 및 爆擊機의 출격으로 군용 건물과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집중하고 이어 大同江 교량의 徑間(Span)을 폭파하니 敵의 機動과 보급수송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9월 19일 : UN空軍의 폭격기들은 淸川江 상공으로 출격하여 木造의 補助교량에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삽시간에 그 橋梁을 燒却하여 버리고 이어 주요 철도 시설과 機動路를 폭파하였다.

특히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 전투 邀擊機와 敵의 MIG—15 Jet전투기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112대간의 彼我 Jet 전투기의 치열한 空中戰을 전개하였는데 攻防에서 UN空軍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 조종사들의 뛰어난 조종술로 敵機를 공략하여 1대를 全破하고 5대를 半破하여 격추시키는 전과를 거두고 무사히 귀착하였다.

9월 20일 : 美 제5공군의 戰鬪爆擊機 編隊는 철도시설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機動路上에서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강타하였다.

또한 UN空軍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는 新安州 西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半破 하였는데 이날 極東空軍에서는 發表하기를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이의 空中戰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도합 56대를 격파하고 기간중 敵의 地上砲로 墜落된 UN空軍機는 55대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날 UN空軍의 "헬리콥터" 21대는 美 海兵 1개대대를 東部戰線 山岳地帶로 공수함으로써 地上軍의 병력을 急速히 증강시켰다.

9월 21일 : UN空軍의 F—86 Jet 전투기는 敵의 前線에서 戰車部隊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을 집중하여 5대를 全破하고 3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極東空軍의 B—26과 B—29폭격기는 주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하여 燒却

하였는데 특히 탄약집적소를 강타하였을 때에는 연쇄적인 폭발로 焰煙이 冲天하였다.

9월 22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전투邀擊機 34대는 北韓의 西北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85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이중 3대를 半破하여 격추시켰다.

또 이날 밤 UN空軍의 夜間爆擊機들은 보급로를 따라 前線으로 機動하는 敵의 軍트럭 隊列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집중하였다.

9월 23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順川의 補助철교를 폭파하여 사용 불능토록 만들었으며 이날 밤 UN空軍의 야간 전투邀擊機는 延安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1대를 격추하였다.

그러나 이날 敵機 3대가 金浦(K—14)비행장을 攻擊하여 44 Lb의 폭탄 2發을 投下함으로써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 2대가 경미한 破損을 입었다.

9월 24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 編隊는 UN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東部—西部戰線을 連하는 敵 前線 全面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敵의 士氣는 크게 떠러졌을 것이다.

또 이날 밤 야간 폭격기는 順安과 蕭川의 兩 操車場을 폭파하는 한편 敵의 機動路를 따라 前線으로 機動하는 敵의 軍트럭 수송부대를 捕捉하여 강타하니 그 일대는 삽시간에 火焰으로 휩싸여 修羅場이 되었다.

9월 25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전날에 이어 敵의 前線으로 連한 각 機動路와 보급로에 대한 遮斷폭격을 加하고 또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MIG Alley)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35분간에 걸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5대를 격추하고 15대를 大破하였다.

9월 26일 : 美 英 兩空軍의 Jet전투 邀擊機 101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155대와 4회에 걸쳐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2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는데 이는 韓國戰 開戰以來 최대의 空中戰이었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 編隊들은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상에서 軍트럭 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 함으로써 그중 900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9월 27일 : 이날도 彼我 Jet기 간에 3일째 계속하여 空中戰이 있었는데 UN空軍의 Jet 전투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5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와 F—51(Mustang)戰爆機는 各 보급로를 폭파하여 切斷함으로써 補給品 輸送車輛의 通行을 不能케 하였다.

또한 이날 UN空軍의 전폭기와 UN海軍의 함재 전폭기는「斷腸의 稜線」에 구축한 敵의 野砲와 迫擊砲 진지를 擊破하여 擊碎함으로써 敵勢를 크게 衰盡케 하였다.

9월 28일 :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와 F—51(Mustang)戰爆機는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중인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 前線의 全面에 걸쳐 폭격을 加함으로써 敵陣을 震動시켰으며 敵의 機先을 制壓하였고 이어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하여 焰煙으로 하늘을 덮게 하였다.

9월 29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撃機 編隊들은 北韓內의 各 철도 시설과 操車場을 폭파하고 다시 機動路와 보급로상의 철교와 교량의 徑間(Span)에 폭탄을 집중 投下하였다.

9월 30일 : 美 제5공군의 야간 爆撃機는 平康—元山—平壤—新義州에서 軍트럭, 縱隊를 捕捉하자 그중 430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날 美 제811 공병대대는 橫城(K—46)과 春川(K—47) 兩비행장의 Asphalt 滑走路 포장공사를 完工하여 이로서 F—51(Mustang)戰爆機와 C—119輸送機가 兩비행장을 使用하여 空中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綜合戰果

MIG機 全破 또는 半破—101대	機關車 大破 또는 半破—65량
野砲 大破—2문	鐵道車輛—100량
橋梁 爆破—11개소	軍트럭 全破—3,868대
戰車 大破—13대	操車場 全燒—7개소

다. 10월중의 秋季 攻防戰에 있어서 UN空軍의 활동

UN空軍의 美 제5공군 司令部와 各 비행단을 日本으로부터 韓國으로 9월까지 進駐를 완료하고 효율적인 戰場배치로써 보다 활발한 작전을 전개하여 敵의 地上勢力을 분쇄하는 한편 계속 制空權을 장악하고 敵의 空中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10월에도 極東空軍은 철도와 機動路및 보급로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는데 合同 作戰本部(JOC)에서는 戰爆機 戰隊의 戰力 20%를 敵의 對空砲 분쇄에 指向토록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戰爆機들은 對空砲에 대한 폭파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各 戰爆大隊에서는 5분마다 편대를 離陸케 하여 전투 編隊가 목표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를 탐색하자 그 후속 編隊들에게 목표를 選定 분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폭격 實績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0월 11일 美 제1군단 正面의 敵 後方에서 敵의 對空砲 공격으로 말미암아 Mosquito機 3대가 被撃되는 등 對空砲의 威脅이 排除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積極策이 더욱 緊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每日 敵의 對空砲를 탐색하여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敵의 空中활동 증가를 阻止하기 위하여 UN地上軍에 대하여 各 戰線 砲兵大隊의 火力을 증강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地上軍에서는 5個 砲兵大隊에 자동화기 砲臺 25개소

를 前線에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美 제5공군 제67무장 偵察戰隊의 무장 偵察출격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는 平壤 以南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10월부터는 敵의 MIG—15 Jet 전투기의 활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무장 偵察機들의 활동지역이 더욱 縮少되어 RB—45 偵察 爆擊機만이 敵의 MIG—15 Jet 전투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을 Jet전투 邀擊機의 엄호를 받으면서 偵察 비행을 감행 하였을 뿐이며 RB—29偵察爆擊機도 엄호 여하를 막론하고 北緯 38° 30′南쪽과 東經 127° 東쪽 지역내로 그 作戰 範圍가 制限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空중활동이 증가되자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敵의 空軍力을 분쇄하기 위하여 10월 18일을 D—Day로 하여 B—29重爆擊機를 南市—泰川 兩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비롯하여 7일간에 걸쳐 敵의 주요비행장에 猛爆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友空軍은 55명의 승무원(戰死者 失綜 포함) 손실을 보았고 敵의 MIG—15 Jet 전투기 공격으로 B—29重爆擊機 5대가 격추되는 등 상당한 打擊을 받았다.

이에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 verg대장은 말하기를 『中共은 하룻밤 사이에 世界 주요 空軍力 保有國의 一員이 되었다』라고 慨嘆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주간 폭격을 夜間으로 전환하는 한편 UN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위하여 MPQ—2 Radar를 이용하여 敵陣 깊숙히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命令하기를 『美 제5공군은 야간爆擊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AN/APN—3 Radar를 폭격 司令部로부터 引受하라』고 하였고 이에 美 제5공군에서는 즉시 이 裝備를 引受한 다음 야간 폭격의 만전을 期하였다.

이와같이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이 美 제5공군의 전폭기와 더불어 야간폭격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極東空軍 爆擊 司令部의 다음과 같은 임무 순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① 北韓의 敵 비행장 폭격을 계속 한다.
② 敵의 주요 철교와 기타 各種 교량을 폭파한다.
③ 北韓의 주요 操車場을 폭격한다.』

爆擊司令部의 以上과 같은 正規활동 規模로써 B—29重爆擊機 1/3을 MPQ—2 Radar를 이용하여 목표에 폭격을 실시하는 한편 敵의 비행장 복구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계속된 一連의 폭격을 감행 하였다. 즉 10월 18일 제19 및 제98폭격전대의 B—29重爆擊機 18대는 泰川 비행장을 폭격하도록 계획 되었으나 이날 Jet 전투邀擊機의 엄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2목표인 新幕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하였다.

또한 10월 22일 제19폭격전대의 B—29重爆擊機 9대가 泰川 비행장으로 출격하여 폭격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B—29重爆擊機를 엄호하던 F—84 Jet 전투기들은 敵의 MIG—15 Jet 전투

기 30대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틈을 탄 敵의 MIG—15 Jet 전투기 12대의 다른 編隊들은 低層雲을 뚫고 急降下 하여 B—29重爆擊機를 공격 함으로써 B—29重爆擊機 1대가 피탄되어 火焰에 휩싸였으나 승무원들은 낙하산으로 脫出하여 무사히 구조 되었다.

10월 23일 제307 비행단의 B—29重爆擊機 8대가 南市 비행장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50대로부터 邀擊을 받았는데 이때에도 敵機는 B—29重爆擊機를 엄호하는 F-84 Jet전투기와 空中戰을 전개하면서 一面 B—29重爆擊機 편대를 向하여 急降下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날까지 도합 3일간에 걸쳐 敵의 비행장을 폭격하던 차에 空中戰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3대를 격추하였으나 B—29重爆擊機 3대가 격추되고 5대가 半破되는 등의 被害를 입게되자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敵의 비행장에 대한 주간 폭격을 夜間폭격으로 전환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의 猛爆에도 不拘하고 敵은 北韓內의 비행장을 건설하려는 意圖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10월 24일 偵察 비행결과로 판명되었다.

즉 이날 偵察 비행에서 泰川 南쪽과 南市 北쪽 3mile에 각각 새로이 비행장을 건설중에 있었으며 이 비행장들은 MIG通路(MIG Alley)지역의 南端인 淸川江 北쪽 20mile의 半徑內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주위에 對空砲 시설을 하는등, 敵은 이 兩비행장을 固守하려는 것이 분명 하였다.

그리하여 爆擊司令部에서는 夜間에 B—29重爆擊機를 출격시켜 兩 비행장은 물론 泰川 비행장 주위에 설치한 重砲 35문을 비롯하여 南市 비행장의 자동화기 砲台에 폭격을 連加하였다.

그러나 이 地域이 敵의 MIG—15 Jet 전투기 通路(MIG Alley)이므로 B—29重爆擊機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엄호가 要求되었으나 F—84 Jet 전투기가 아무리 多數일지라도 비행機動이 느린 B—29重爆擊機에 대한 成攻的인 엄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明確히 증명되었다. 즉 敵의 MIG—15 Jet 전투기는 急降下 機動을 자유로히 할 뿐 아니라 Mach 95 (0.95) 以上의 빠른 機動力으로 F—84 Jet 전투기의 엄호 網을 뚫고 B—29重爆擊機를 邀擊하기 때문에 F—84 Jet 전투기로서는 敵 MIG機를 공격할 機會가 극히 순간적일 뿐 아니라 B—29重爆擊機의 射擊手들도 追跡 조준하여 發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10월末에 不過 1주일도 못되어 B—29重爆擊機 5대가 격추되고 8대가 一部 破損되는 등 敵 MIG—15 Jet 전투기들의 決死的인 邀擊을 받음으로써 美 제5공군에서는 엄호비행에 關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F—84 Thunder Jet 전투기는 20,000 ft상공에서 엄호 임무를 遂行할 때 Mach의 機動力으로 근접하여 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重視하고 B—29重爆擊機의 고도를 15,000 ft로 낮추어 F—84와 F—86 Jet 전투邀擊機들이 最適고도에서 접근하여 上

部 엄호를 맡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楕圓形 엄호(Oval Escort)도 이 계획에 附隨되었는데 근접엄호(Close Escort)는 B—29重爆擊機와 수직 上部에서 2대 乃至 4대의 戰鬪 邀擊機가 長方形으로 비행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中央 및 上部에서의 엄호도 같은 형태를 取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韓國의 空中戰 狀況에서는 識別의 困難性(Complexity of Identification) 때문에 F—84 Thunder와 F—86 Sabre Jet 전투邀擊機를 同一 엄호 編隊에 출격하는 것도 別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F—86 Sabre Jet 전투邀擊機가 가장 효과적인 작전을 展開할 수 있는 최상의 方式은 敵의 MIG—15 Jet전투 邀擊機가 UN爆擊機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되도록 많은 敵의 MIG機들을 격퇴할 수 있도록 계획된 阻止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美 제5공군의 노력은 계속 되었는데 제4비행단장 Benjamin S. Preston대령은 報告하기를 『제4전투 邀擊戰隊의 조종사들은 機動力이 우수한 F—86 Jet전투 邀擊機의 機體성능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아직도 敵의 MIG—15 Jet 전투기 보다 좀더 機動力이 우수한 戰鬪機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Benjamin S. Presten대령은 F—86A와 F—86E Sabre Jet 전투邀擊機에 장치되어 있는 J—47과 GE—13 Engine에 關하여 공식적으로 不滿이 가득찬 보고를 하는 한편 F—86機體에 최소한 6,500 乃至 7,000 Lb의 推進力을 발휘할 수 있는 Engine으로 대치할 것을 建議하였다.

이와같이 美 제5공군에서 敵의 MIG機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防空司令部(Air Defence Command)에서도 전투 邀擊機 증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막대한 병력을 投入하여 복구공사중인 北韓의 各 비행장에 대하여 사용 불능토록 폭격을 계속함으로써 敵空軍의 活動을 阻止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철교와 교량에 대한 폭격을 併行하여 平壤—順川—新安州—宣川의 교량등을 폭파하여 地上機動을 抑制하였다.

또 10월 25일 이후에는 肅川—新安州間의 철로와 철교를 폭파하였으나 敵은 平壤—新義州間과 陽德—順川—軍偶里—熙川間에서 各戰線으로 통하는 철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폭격 司令部에서는 敵이 사용중인 철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폭격을 加하였는데 특히 順川—軍偶里間의 철로는 敵의 끈질긴 복구작업으로 이를 폭파하는데 苦心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드디어 軍偶里 南쪽에서 機關車 3대을 全破함으로써 이 철로를 완전히 遮斷할 수가 있었다.

기간중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411회의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근접지원은 32회 차단 출격은 284회에 이르렀다.

또한 1일 武裝偵察출격은 31회에 達하였으며 엄호출격은 11회 敵機를 격퇴한 空中반격은 35회로 도합 12,738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0월중 秋季 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작전 狀況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전투邀擊機 27대는 新安州 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40대와 空中戰끝에 1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成川의 補助철교의 徑間(Span)을 폭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鎭南浦의 船渠地域에 폭탄을 집중하여 港灣施設과 敵의 船舶들을 破壞하였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接戰中인 美 제1, 제10兩군단에 도합 32회에 걸친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爆破하였다.

10월 2일 : 이날 UN空軍機들은 彼我 Jet 전투기 193대가 參加한 가운데 MIG通路(MIG Alley)上에서 2회에 걸친 空中戰끝에 7機를 격추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 제10兩군단에 도합 12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실시 하였으며 B—29重爆擊機 編隊는 順川附近의 교량을 폭파하였다.

한편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沙里院—平壤間의 철도를 폭격한 것을 비롯하여 平壤—軍偶里—新安州와 軍偶里—宣川—熙川의 철도를 계속 폭파하였다.

10월 3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전투기 12臺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의 空中戰끝에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이날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68회 美 제9, 제10兩군단에 65회의 출격을 제속하는 등 도합 133회에 達하는 포격으로써 敵陣을 뒤흔들어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는 淸川江을 目標로 출격하여 補助교량에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敵의 機動에 致命打를 주었다.

10월 4일 : UN空軍의 戰爆機 編隊들은 「斷腸의 능선」의 敵 보급품 집적소와 敵의 집결지에 포격을 단행하는 한편 敵과 接戰中인 UN地上軍에 대한 엄호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3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 全面에 폭격 洗禮를 加하였다.

10월 5일 : 美 제5공군의 Jet전투 邀擊機 38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98대와 2회에 걸친 空中戰을 벌여 敵機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 編隊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도합 14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敢行하여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大同江 철교의 各 徑間(Span)을 폭파하였다.

10월 6일 : UN空軍의 Jet 전투邀擊機 100대는 北韓의 西北部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3회에 걸쳐 감행된 空中戰에서 敵機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이날 戰爆機들은 地上軍의 엄호와 敵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합 1,000대가 출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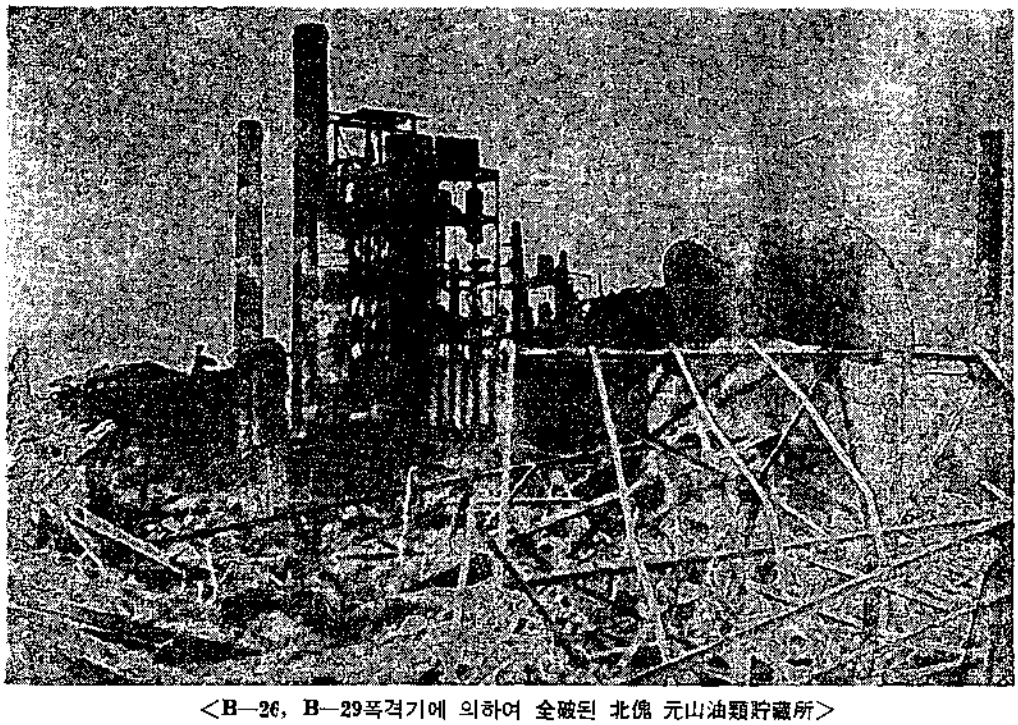
여 그 일대 상공을 爆煙으로 뒤덮었으며 敵과 격전중인 美 제1, 제10 兩군단에 도합 106회의 근접지원을 實施하여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10월 7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도합 89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全面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前線背後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하였다.

또한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는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날에 이어 교량폭파에 全力하였다.

10월 8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美 제1, 제10兩군단에 도합 11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地上軍과의 立體작전으로 敵 430명을 射殺 하였으며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成川 상공으로 출격하여 成川철교의 徑間(Span)을 폭파 함으로써 이를 利用한 敵의 機動과 보급수송을 阻止 하였다.

10월 9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93회의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폭격하였다.



<B—26, B—29폭격기에 의하여 全破된 北傀 元山油類貯藏所>

특히 이날 極東空軍의 B—26과 B—29爆擊機는 元山 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油類 貯藏所를 강타하였는데 이때 검붉은 火焰은 그 일대를 삼킬듯 치솟았다.

10월 10일 : 美 제5공군의 戰鬪機들은 敵과 激戰을 전개중인 美 제1, 제10兩군단에 도합 67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기 위해 出擊하고 全戰線에 계속 爆擊을 加하였다.

또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는 平壤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하여 이곳에서 敵의 비행활동을 阻止하기에 努力하였다.

10월 11일 :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 제10 兩군단에 56회의 근접지원으로 敵의 全戰線을 震動케 하였으며 極東空軍에서는 B—26과 B—29爆擊機의 遮斷작전을 비롯하여 각 戰爆機들과 도합 1,045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 하였는데 이는 지난 6월 25일 이래 최고의 기록이었다.

10월 12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전투 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 MIG通路 (MIG Alley)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100대와 空中戰을 演出하여 1대를 격추하고 6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 戰爆機 編隊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도합 11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全戰線을 强打하였다.

10월 13일 : 이날은 低層雲과 不規則한 風向으로 비행활동에 많은 障碍가 있었으나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격전중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8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여 敵의 前線과 병력 집결지를 비롯한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다.

10월 14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 36대는 敵의 MIG—15 Jet 전투기 30대와 新安州 상공에서 空中戰 끝에 3대를 격추하는 한편 B—29重爆擊機는 敵의 機關車 5대을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激戰을 전개중인 前線에 도합 68회에 걸친 출격을 감행하여 敵陣을 크게 震動케 하였다.

10월 15일 : 이날은 低層雲과 심한 風速으로 氣象이 고르지 않아 釜山西部(K—1)—大邱(K—2)—浦項(K—3)—江陵(K—18)비행장에서의 작전을 中止하였으나 그 外의 각 비행장에서는 예정계획대로 작전을 강행하였는데 美 제5공군의 戰爆機 編隊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도합 39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여 敵의 全線에 폭탄洗禮를 퍼부었으니 天氣不順을 믿고 安心하고 있던 敵陣은 크게 唐慌하였을 것이다.

10월 1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는 敵의 MIG—15 Jet 전투기와 MIG 通路(MIG Alley)지역에서 空中戰을 전개하여 敵機 8대를 격추하고 5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UN空軍機 1대도 일부 破損되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2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敵과 激戰中인 韓國軍 제1군단 前線에 4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敵 前線의 抵抗力을 분쇄하였다.

10월 17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激戰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5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地上軍의 士氣를 昂揚시켰다.

이날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韓國戰 開戰以來 UN空軍의 총 피해와 敵機를 격추 또는 半破시킨 종합전과를 발표하였다. 즉 기간중 UN空軍의 피해는 전투기 260대를 비롯하여 폭격기 40대 그리고 수송기 6대와 기타 29대로써 도합 335대이고 敵空軍機는 326대가 격추되고 264대가 半破되어 도합 690대이었다는 것이다.

10월 18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熾熱한 接戰을 展開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대하여 도합 14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과 韓國軍 제1군단에 대한 엄호사격을 실시하고 敵의 前線 全面에 4회에 걸친 반복폭격으로 敵勢를 制壓하였다.

10월 19일 : UN空軍의 B—26과 B—29爆擊機들은 沙里院—平壤間의 철도중에서 敵이 복구한 部分에 대하여 爆擊을 反復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激烈한 攻防戰을 展開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32회, 韓國軍 제1군단에는 4회의 근접지원을 各各 提供하였으며 敵의 正面과 側背面에 대한 同時 폭격을 집중하였다.

10월 20일 : UN空軍에서는 敵의 空軍力이 증강되고 그 활동 領域이 확장되자 이를 위축시키기 위하여 주요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계속 加하였는데 이날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重爆擊機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平壤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投下 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 編隊들은 敵과 接戰을 展開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2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에 폭격을 단행하여 삽시간에 敵陣을 焰煙으로 뒤덮게 하였다.

10월 2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전투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 상공에서 MIG—15 Jet 전투기와 空中戰 끝에 6대를 半破하고 또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는 敵의 戰略的 中心地인 咸興을 폭격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各戰線의 氣象이 고르지 못하여 美 제1, 제10 兩군단에 3회의 근접지원만을 실시하였다.

10월 22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敵이 新設한 泰川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하여 大破하고 美 제5空軍의 戰爆機 編隊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48회의 근접지원으로 敵勢를 위축 시켰다

이날 美 空軍本部에서 發表하기를 『UN空軍機는 6월 30일 이후 敵의 Jet機 30대를 全破하고 240대를 半破하였으나 그들은 滿洲에 1,200대 以上에 達하는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0대 以上은 MIG—15 Jet 전투기로 判明되었다』라고 하였다.

10월 23일 : UN空軍의 Jet전투 邀擊機 96대는 敵의 MIG—15 Jet 전투기 150대와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MIG Alley)에서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여 9대를 全破하고 10대를 半破하였으나 UN空軍은 F—86 Jet 전투기 1대가 擊墜되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UN地上軍에 대한 엄호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09회에 達하는 出擊으로 근접지원을 提供하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4회의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을 강타하여 그 일대의 敵 勢力을 擊碎하였다.

10월 24일 : 美·濠 兩 Jet 전투기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B—29重爆擊機를 엄호하던 중 敵의 MIG—15 Jet 전투기 155대와 치열한 空中戰을 전개하는 한편 B—29重爆擊機들은 宣川의 補助철교의 徑間(Span)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폭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 編隊들은 敵과 攻防戰을 전개중인 地上軍에 대한 엄호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0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韓國軍 제1군단에는 4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는등 敵의 각前線을 강타하였다.

10월 25일 : UN空軍의 Jet전투 邀擊機 3개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8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撃破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75회의 근접지원으로 敵의 前線과 그 背後 敵陣에 폭탄을 집중하여 敵勢를 크게 위축시켰다.

10월 26일 : 이날 UN空軍의 Jet전투 邀擊機 68대는 MIG通路(MIG Alley) 및 平壤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121대와 3次에 걸쳐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撃破 함으로써 10월 21일 以來 계속된 6일간의 空中戰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14대를 全破 또는 撃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戰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24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강타하는 한편 이날밤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泰川—南市 兩비행장에 폭탄을 집중 投下하였다.

10월 27일 : UN空軍의 Jet전투 邀擊機 112대는 新安州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105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8대를 撃破하였는데 이때 B—29重爆擊機 1대가 피탄되어 위태로웠으나 韓國軍基地에 不時着 할 수 있었다.

한편 美 제5空軍의 戰爆機는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도합 124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10월 28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敵과 激戰을 전개중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합 124회, 그리고 韓國 제1군단에 8회의 근접지원을 각각 단행하여 敵 前線의 勢力을 분쇄하였다.

또한 이날 밤 B—26輕爆擊機는 敵의 機動路上에서 軍트럭 機動縱隊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을 集中投下하였다.

10월 29일 : 極東空軍의 B—26과 B—29爆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일대의 敵 비행장을 비롯하여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에 폭격을 加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戰爆機와 美 제77기동함대의 함재기들은 東海岸의 敵陣地를 폭격한 다음 敵의 보급로를 폭파하고 軍트럭 35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戰線을 따라 敵陣에 폭격을 단행하여 敵勢를 크게 약화시켰는데 이날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는 도합 149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10월 30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編隊들은 敵의 機動路와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猛爆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敵의 前線으로부터 沙里院—平壤間의 철도 폭파에 全力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는 149회의 出擊을 기록하였으며 韓國軍 제1군단에는 8회의 出擊으로 地上軍의 作戰에 크게 寄與하였다.

10월 31일 : UN空軍의 F—84 Jet 邀擊機 20대는 MIG通路(MIG Alley)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전투기 5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大破하고 B—29重爆擊機는 平壤을 비롯한 주요 보급물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投下하여 이들을 全燒시켰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과 激戰을 전개중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도합 122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민활한 空地協同작전을 展開하였을 뿐 아니라 韓國軍 제1군단에 12회에 걸친 항공 근접지원을 提供하여 地上部隊의 士氣를 크게 昂揚시켰다.

綜 合 戰 果

MIG機 擊墜…25대
MIG機 大破 또는 半破…54대
鐵橋 爆破…6개소
軍트럭 全破…35대
油類 貯藏所…1개소

§ 研 究

① UN空軍의 活動 文獻으로는 美 空軍 Historical Division의 Robert Fank Futrell과 美 空軍 大學校의 Lawson S. Moseley 공군 준장과의 共著인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韓國에서의 美 空軍』 (1950—1953)에 敍述된 內容("1"史料라 칭함)과

② 美 空軍 Combat Operation에서의 Statistical Summary 『통계일람』 ("2" 史料라 칭함)과

③ 國防部 政訓局에서 刊行한 韓國戰亂 제1, 제2年誌 ((1950. 5. 1~1952. 6. 30) ("3" 史料라 칭함)등

"1" "2" "3"의 史料를 土台로 UN空軍의 활동에 대한 本文을 다루었는데 그 比重과 順位를 "1" "2" "3"으로 하였다.

그러나 "1"에서는 주요 戰況에만 作戰名이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戰略的인 作戰命令의 근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本文 수록에 완벽을 期하지 못하였다.

또한 每日같이 戰略爆擊과 근접지원등 기타 작전을 수행한 것이 分明하나 "1"에서의 그 作戰日이 一目瞭然하지 않아 月別활동 概要는 "1" "2"를 綜合分析하여 敍述하고 日日작전 狀況 概要는 "1"을 主軸으로 "3"의 史料로써 補完하였다.

특히 UN空軍의 종합전과는 "1"에 있어서 旬別 또는 期別등의 重複으로 말미암아 月別 종합전과와 "1"에 記述된 日日전과와 "3"에 明記된 전과를 종합分析하여 수록하였다.

第48章

秋 季 作 戰

要 旨

1. 第1次 月比山 戰鬪
2. 第2次 加七峰附近 戰鬪
3. 魚隱山 南側地區 戰鬪
4. 金城川附近 戰鬪
5. 金化—金城 進擊戰
6. 九化里附近 戰鬪
7. 美 제1군단의 Commando 作戰
8. 美 제9군단의 金城附近 戰鬪
9. 空軍의 第2次 共匪擊滅 支援作戰
10. UN 空軍의 活動

第48章 秋季作戰

要 旨

本章에는 休戰會談이 시작된 以來 進軍을 멈추었던 美 제8군이 3個月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새로운 攻勢作戰을 단행한 끝에 全戰線에서 5~15Km까지 北上케 되는 乘勝長驅의 局面을 收錄하였다.

즉, 51년 봄에 彼我의 主力이 대결케 된 이른바 春季攻防戰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軍은 同年 6월 中旬에 Kansas—Wyoming線까지 破竹의 勢로 躍進케 되었으나 7월 10일에 開幕된 休戰會談과 더불어 一旦 추격을 멈추고, 대체로 杆城—寒溪里—楊口—白岩山—臨津江을 連하는 선에서 守勢를 취한 가운데 政治協商의 動向을 지켜보면서 確保陣地의 보강과 主진지 전방의 주요고지에 대한 打擊戰만으로서 一貫하여 오던 바, 會談내용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40여일간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이 期間이 오히려 敵에게는 戰力增強의 好機가 되었으며 及其也는 不振한 회담마저 8월 24일에 決裂되기에 이르자 本作戰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UN軍 당국은 名譽로운 終戰과 安全한 戰線의 確保를 위하여 8월 下旬부터 威力搜索을 강화하면서 硬化된 戰局의 타개책을 모색하던 바, 一線지휘관들이 한결같이 強化되는 敵陣에 대한 制限공격을 건의하고, 또한 會談이 타결될 경우,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고려할 때에 現戰線의 確保策을 위하여서는 5Km 이상의 진격이 必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여기에 政戰兩略의 利點까지 감안하여 本作戰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이것이 곧 51년의 秋季攻勢이니, 10월 初에 發陣의 大數를 올려 同月 下旬까지 敵線을 칩은 끝에 대체로 현재의 休戰線 부근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케 되는데, 以後에는 韓國戰爭이 休戰으로 종결될 때까지 이와같은 全面攻勢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壯快無比한 局面을 보이게 된다.

이 작전의 결과로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首都사단과 제11사단으로써 北傀 제6군단을 무찔러 南江以南의 金城을 완전히 장악할 뿐 아니라 특히 首都사단은 戰線 東端의 요충인 月比山을 탈취하고, 美 제10군단(장, Clovis E.Byers 소장)은 제3, 제2 및 美 제2사단으로써 加七峰—斷腸의 後線—白石山을 攻略하였으며,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은 제2, 제6, 美 제24사단으로써 金城盆地를 制壓하는가 하면 美 제1군단(장, J.W.O'daniel중장)은 Commando작전을 전개하여 Jamestown線까지 躍進하는 등 地上戰에 있어서 劃期的인 一新을 期하는 동시에 海·空軍의 協同작전이 그 妙를 보이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美 제10군단의 沙汰里 一文登里부근전투 (一名, 斷腸의 後線전투)는 秋季공세의 白眉編이라 할 수 있으며, 金城盆地의 攻略과 美기갑사단의 勇戰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壯擧이다.

本作戰의 성공으로 要地確保와 아울러 休戰會談의 繼開를 보게 되는데 以下 各節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記述키로 하거니와 다만 美 제10군단의 沙汰里一文登里 부근전투는 夏季作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만큼 章節의 編成上 前章에서 이를 취급하였다.

1. 第1次 月比山 戰鬪 (1951년 10월 12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제1군단	장 소장 白 善 燁	지원부대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美 제7함대
제1기갑연대	장 대령 李 龍	美 제196포병대대
제1대대	장 대위 李 鵬 植	인접부대
제2대대	장 소령 朴 翊 均	左인접 제11사단 장 준장 吳 德 俊
제3대대	장 대위 朴 明 景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연대 T/O 및 T/E를 유지함.
특공중대	장 중위 羅 昌 云	
제10포병대대	장 중령 房 景 源	

敵軍		敵軍
北傀	제6군단	제9사단 정찰대대
	제19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我軍이 8월 18일부터 전개한 夏季攻勢에서 수도사단은 攻守兩面의 據點인 △924—△751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固守중인 北傀 제2군단 예하 제13사단을 擊破하고 同月 23일에는 이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장차 北進을 위한 要線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군단의 左翼으로서 香爐峯—圓峯—山頭谷山을 연하는 線에 主陣地를 형성한 다음 前方에 搜索據點을 확보하면서 威力수색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의 北傀軍은 Punch bowl에서 當 군단과 美 제10군단에 의하여 決定的인 타격을 입자 東部地域에서 戰線整理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즉, 지금까지 東海岸一圓에서 當 군단과 對峙하던 北傀 제3군단으로 하여금 美 제10군단 正面의 北傀 제2군단 地區를 引受케 하고 제2군단은 再編成을 위한 예비대로 轉換케 한 다음 開城北方에서 새로이 편성한 北傀 제6군단으로써 當군단 正面을 擔當케 하였다.

따라서 當 군단은 新編부대인 제6군단과 對決케 되었는데 이때에 군단의 戰線은 東海岸의 松峴里—土器店(杆城西 北쪽 10Km)—乾鳳山—香爐峰—山頭谷山을 연하는 主抵抗線上에 제3사단을 右翼으로, 제11사단을 中央第一線으로, 그리고 수도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防禦線을 형성하고 있었다.

敵線의 變動에 따른 美 제8군 當局의 계획에 依據하여 9월 6일에 군단은 現戰線西域에서 2Km 東쪽으로 전투 정면을 縮少하게 되고 반면에 3개 사단은 군단正面을 2개 사단으로 擔當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군단은 美 제10군단과의 전투地境線을 새로이 劃定하게 됨으로써 군단은 右翼인 제3사단을 一線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도 및 제11兩사단으로써 戰線을 擔當하는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서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우선 北傀 제6군단의 戰力을 評價한 결과 4月 中旬에 再編成한 부대로서 그 예하에 2개 사단, 1개 砲兵대대 및 直轄의 偵察대대로써 편성되었고 編制上의 장비를 거의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充實된 戰力을 保有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군단의 戰線은 南江에 沿하여 杆城 北方 20Km까지 연결된 까닭에 그 모양은 마치 S字形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敵이 공격한다면 南江의 障壁을 피하고 脆弱點을 갖고 있는 海岸의 突出部를 목표로 택할 公算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단장은 戰鬪경험이 풍부한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이에 對處키로 결심하고 다음 날인 9월 7일에 戰線정리를 斷行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은 제11사단과 俗稱 작은까치峯—乾鳳嶺—新坪을 연하는 線을 전투地境線으로 하여 戰線이동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1기갑 및 제26 兩연대는 占有中인 陣地를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에, 제1연대陣地는 제11사단 제13연대(장, 崔錫鎬대령)에 각각 引繼하고 다음날 貢浦(杆城 東南쪽 8Km)부근에 집결하여 戰力을 정비한 다음 9월 13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제3사단의 陣地를 引受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군단 右翼으로서 東海岸일대에서 戰線을 형성케 되었으며 한편 제3사단은 襄陽으로 이동하여 군단豫備로서 FTC訓練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北傀 제6군단은 그 主力을 南江 西岸을 따라 高城 南쪽 5Km를 연하는 線上에서 축성공사에 全力을 다하고 있었다.

이 中에서 當사단과 對峙하게 된 敵은 그 CP를 侍郎里(月比山 西쪽 3Km)에 둔 北傀 제19사단으로써 그 主力을 高城부근으로 부터 月比山—까지峯 西北쪽을 연하여 配置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東海岸의 유일한 要衝인 月比山부근에 강력한 防禦據點을 마련하면서 我軍의 前進을 阻止코자 하는 한편 장차는 南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듯이 보였으며 또한 다음의 두가지 狀況을 把握하게 되었다.

첫째 : 그들은 偵察대대를 赤壁山—△161—高峰里 (高城 南쪽 2~3Km)線에 배치하고 月比山을 중심으로 한 接近路부근에 搜索據點을 마련하면서 我軍의 동향을 탐색케 하는 동시에 때를 보아 유격전법으로 사단 側背에 대한 攪亂을 꾀할 것이다.

둘째 : 그들의 增援부대로 推斷되는 北傀 제9사단의 수색대대는 그 CP를 全城里(月比山 西北쪽 5Km)에 두고 소대 또는 2개 소대單位로 중요지형에서의 경계활동을 강화하면서 月比山 側背에 대한 牽制와 함께 일부 兵力으로서는 補給수송을 擔當케 하는 듯 하였다.

위와 같은 狀況判斷下에 10월에 접어든 戰線에는 이미 戰雲이 감돌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美 제8군이 지난 夏季攻勢(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에 대한 評價 결과 攻擊의 담당正面이나 使用병력을 限定한 所謂 制限공격으로 그쳤으므로 我軍이 지불한 代價에 比하여서는 기대한 바와 같은 成果를 거두지 못한 까닭으로 全戰線에서의 同時攻勢에 따른 새로운 계획이 擡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동향을 銳意 注視한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月比山을 비롯한 그 부근의 高地群에 대한 攻略을 이미 계획하던中이므로 곧 이를 奪取키로 決心하고 수도사단에 공격준비를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李 龍대령이 지휘하는 제1기갑연대로써 一戰을 決하기로 작정하고 10월 9일에 月比山 攻略을 위한 사전 布石으로서 △148(高城 東南쪽 3.5Km)—△351(月比山 東쪽 2Km)線을 확보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제1기갑연대는 10월 10일을 期하여 제10포병대대를 비롯한 美 제7艦隊와 군단을 지원하는 美 제196포병대대의 1개포대의 火力지원 아래 明湖里(高城 南쪽 10Km)—佳境地峠(明湖里 西南쪽 3Km)線으로 부터 怒濤와 같이 突進한 끝에 다음날인 11일에는 7Km進出한 △148—△351를 奪取함으로써 이를 공격개시線으로 決定한 다음 月比山 공격을 위한 모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 月比山은 標高 459m로서 高城 西南쪽 5Km에 있으며, 南江 東岸邊에 突出하기 때문에 東北쪽으로는 高城市街를, 西南쪽으로는 南江西岸의 敵線을 비롯하여 北傀軍 主力의 背後로 通하는 7番道路(高城—長箭—元山에 이르는 道路)를 한눈에 瞰制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北으로는 北進을 위한 橋頭堡이자 南으로는 防守를 위한 要扼地로서 浮刻된 까닭에 기필코 이를 奪取하여야만 하였다.

作戰기간중의 氣象은 東海의 海上강풍이 驟雨를 동반함으로써 視界 및 砲觀測을 제한하여 작전수행상 많은 영향이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月比山을 奪取하려는 군단장 白善燁소장의 결심에 따라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당면의 敵을 일거에 壓碎하여 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46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써 10월 12일 06.00를 期하여 月比山을 攻擊하여 이를 奪取하려 한다.

② 제1기갑연대(工兵 1개중대 배속)는 現陣地에서 躍進하여 △350—月比山을 奪取하라.

③ 제1연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1기갑연대의 進出을 엄호하라.

④ 제26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側後方에 대한 경계를 擔當하되 제1기갑연대가 목표를 奪取함과 동시에 제1기갑연대의 최초 陣地까지 進出하라.

⑤ 제10포병대대는 攻擊間 제1기갑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수도야전공병대대(1개중대 欠)는 敵의 豫想접근路上에 可用한 모든 障碍物을 설치하라.

⑦ 요청에 따라 艦砲 및 空中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⑧ 작전기간중 美 제10군단의 155mm砲 1개 포대가 화력지원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命令을 수령한 연대장 李龍대령은 敵이 이 일대에 견고한 陣地를 구축하여 據點化하고 더우기 △350(月比山 北쪽 1Km)—△261(月比山 東北쪽 500m)을 연하는 線에 각종 장애물까지 設置한 다음 이를 前進據點으로 삼아 防守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정적인 공격을 위하여서는 우선 敵의 前進據點을 확보함과 동시에 증강된 대대규모의 兵力으로써 단숨에 목표를 奪取키로 決心하였다.

즉, 비교적 敵勢가 미약한 △261에 대한 공격은 助攻대대로 공격케 하여 이를 점령함과

동시에 목표 正面으로 突進케 하여 敵으로 하여금 主攻부대로 誤認케 함으로써 그들의 화력을 分散케 하고 그 사이에 主攻인 1개대대는 △350東側背로 迂回케 하여 敵을 急襲하여 이를 점령하는 즉시로 목표의 兩翼을 포위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장의 腹案은 곧 作命化되어 예하 부대에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10월 12일 08.00부터 月比山을 목표로 攻擊하여 그 부근의 高地群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現 陣地에서 躍進하여 △350의 敵을 擊滅하고 이를 확보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목표를 점령하라.

③ 제1대대(一)는 現 陣地에서 출발하는 즉시 △261부근의 敵을 격파하여 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목표 正面으로 進擊하여 제2대대의 진출을 엄호하라.

④ 제3대대는 최초 연대豫備隊로서 △95—△148線을 확보하면서 연대 側後方경계에 임하라.

⑤ 工兵 제3중대는 목표占領과 동시에 陣地주변에 鐵條網 및 地雷를 敷設하라.

⑥ 攻擊間 각 대대는 요청에 따라 砲兵과 航空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연대 CP는 최초 △187에 位置하였다가 공격 개시와 동시에 △148로 추진 開設할 예정이다.』

(2) 작전실시

10월 12일 :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主攻인 제2대대와 助攻인 제1대대(一)가 進擊태세를 갖추자 06.00에 목표 月比山을 向하여 일제히 공격을 命令하였다.

이로부터 兩대대는 사단포병과 美 제7합대의 지원사격을 받는 가운데 일제히 躍進하였다.

이때에 당면의 北傀 제19사단 예하 제36연대는 82mm迫擊砲 15문을 비롯하여 76mm 4문과 重기관총 16정, 그리고 경기관총과 다발총등으로 裝備하고 月比山을 중심으로 防禦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1 제2대대(장, 朴弼均소령)는 이날 연대作命에 의거하여 主攻대대로서 △350—月比山을 奪取할 목적으로 06.00에 攻擊개시線을 박차고 突進하였는데 이 때에 대대는 제7중대를 右一線으로, 제6중대를 左一線으로 전개하고 제5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後續토록 하였다.

2시간 30분 뒤인 08.30에 兩중대가 △350앞 300m까지 進出하자 대대장은 突擊대형으로 轉換하도록 한 다음, 高地의 左, 右 兩쪽으로 分進케 하여 包圍網을 형성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兩중대는 가용한 全화력으로 敵陣을 강타한 다음 포위망을 壓縮하면서 △350頂上을 向하여 육박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대대의 進出을 阻止코자 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重火器의 火力을 集中하여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彼我間에는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

었다.

1시간餘의 激戰속에서도 突破口를 打開치 못하고 血戰만을 거듭하게 되자 대대장은 뒤따르던 제5중대로 하여금 右側으로 깊숙히 迂回케 하여 急進과 急射로써 敵의 腹背를 강타토록 命令하고 兩중대는 이와 呼應하여 左右 兩面에서 突進토록 하니 이에 當惑하게 된 敵의 銳鋒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일부는 月比山 後斜面에 있는 溪谷을 타고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 好機를 看破한 장병은 일제히 敵陣속으로 突入함으로써 최후까지 발악하던 敵을 覆滅하고 드디어 同 高地를 점령하니 이 때가 16.00였다.

이와 같은 激戰 끝에 敵이 月比山을 固守하는데 前進據點이던 同高地를 장악함으로써 月比山 攻略에 한 걸음 다가서자, 대대장은 제5중대를 이곳에 殘置하여 四周경계로써 敵의 逆襲에 대비토록 措置하고 제6, 제7 兩중대는 목표에 對한 공격을 계속케 하였다.

이에 따라 快勝의 여세를 몰아 突進한 제7중대는 月比山 後斜面능선으로 迂回하고 제6중대는 直衝突破를 감행하였는데 이때에 先鋒으로 치닫던 제7중대의 제2소대는 1개중대규모의 敵이 砲火를 집중하면서 正面對決을 시도하므로 그 進出이 鈍化된 채로 血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점차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1개대대 규모로 증강된 敵勢는 汀月里(月比山 西쪽 1Km)와 松灘里(月比山 西北쪽 3Km)에 布陣한 122mm野砲와 82mm迫擊砲의 지원사격 아래 逆襲을 감행함으로써 彼我間에 더욱 紛戰을 惹起하게 되었다.

이렇듯 狂氣서린 敵의 저항속에 전투가 苛烈化하고 戰況이 불리하게 되자 대대장은 곧 연대에 急報하여 敵의 砲陣地에 대한 制壓사격을 요청함과 동시에 제5중대로 하여금 占有中인 △350 右端으로 부터 敵勢가 가장 완강한 月比山 中腹 左側능선의 敵을 急襲토록 하여 敵陣을 교란함으로써 膠着된 戰況을 타개코자 하였다.

이에 곧 誘導된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의 집중砲擊과 地境里(月比山 東南쪽 5Km)에 있는 美 제196포병대대의 155mm포에 의한 정확한 支援포격이 끝나는 즉시, 제5중대는 신속한 突進으로 敵陣 至近거리까지 肉迫하여 全 화력을 집중한 결과 不意의 側面공격을 받아 敵이 混亂속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중대는 進路를 헤치면서 때마침 進出한 제6중대와 合勢하여 全面突破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敵은 흩어진 隊伍를 수습하더니 또 다시 발악을 계속함으로써 전투는 激化一路를 치닫게 되었다.

이렇듯, 집요한 敵의 저항속에 대대는 불굴의 鬪魂으로 奮戰을 다 하였으나 日沒時까지 끝내 同高地를 점령하지 못한채로 다만 血戰만을 거듭하게 되자, 대대장은 다음날에 공격을 再開키로 결심하고 연대장의 승인을 얻는 즉시, 대대 주력을 △350부근으로 轉進케 한 다음 四周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2대대가 온종일 奮戰끝에 얻은 확인된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177명	戰 死	15명
捕 虜	15명	負 傷	42명(장교 2명)
機關銃	8정		
多發銃	28정		
小 銃	65정		
手榴彈	2,500발		

2. 한편 제1대대(장, 李鵬植대위)는 月比山 東쪽 1Km에 있는 △261를 점령하는 동시에 제2대대의 공격에 呼應하면서 목표인 月比山을 正面으로 突破코자, 제1중대를 第一線으로 제2중대(一)를 後續케 하여 이날 06.00에 進擊을 감행하였다.



<月比山을 공격중인 기갑연대장병들>

07.00에 主攻인 제1중대가 △261 東側背 능선上에 進出하자 2개소대 규모의 敵에 대하여 機先을 制하는 사격을 加하였으나 敵은 地下에 마련한 掩體壕속에서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대대의 進出을 阻止하므로 말미암아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를 일거에 破碎코자 제2중대(一)로 하여금 敵의 화력거점을 擊破하고 側背로부터 迂回하여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 敵의 퇴로를 차단토록 하는 한편 제1중대로써 正面突擊을 敢行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가 挾擊하니 마침내 敵陣의 一角이 무너지면서 敵은 繼戰意志를 상실하여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敵陣의 혼란을 看破한 兩중대는 焰煙이 자욱한 敵陣속으로 뛰어들어 白兵戰을 演出한 끝에 28명을 射殺하고 소총 6정을 비롯하여 다발총 3정과 수류탄 15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얻었으며 전사 1명과 부상 7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같이 단숨에 同 高地를 점령한 대대는 敗走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면서 전과를 확대한 다음 最終 목표인 月比山正面을 突破코자 하였는데 이 때에 대대는 正面에서 일제히 進擊함으로써 敵의 화력을 誘引하여 제2대대의 迂回공격을 容易케 하고자 꾀하였다.

이리하여 敵陣을 向한 대대는 우렁찬 함성속에 突進을 감행하였는데 이와 거의 同時에 敵은 砲火를 집중함으로써 그 進路가 차단되어 一次 進擊을 멈춘채로 다만 側方에서 進出하는 제2대대를 掩護하였다.

그 뒤에도 대대는 攻擊의 轉機를 捕捉하는대로 突進을 감행하였으나 執拗한 敵의 抵抗으로 말미암아 熱戰을 反復하다가 日沒과 더불어 공격을 중지하고 △261 前斜面에 陣地를 확보한 다음 急編방어태세로 移行하였다.

3. 제3대대(장, 朴明景대위)는 연대의 作命에 따라 鑑月里(高地 東南쪽 5Km)에 그 CP를 두고, 主力을 戀鎭岩(高城 東南쪽 4Km)—九仙峯(△148 : 月比山 東北쪽 3.5Km)線에 전개하여 연대 側後方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敵의 豫想접근路 부근에 進出시켜 敵情을 探索하였다.

4. 한편 연대는 一線대대가 激戰끝에 敵의 前進거점을 장악하자 그 CP를 △187(高城 東南쪽 5Km)에서 1Km 前方인 △148로 推進 開設하는 동시에 연대 수색중대와 특공대를 高城南쪽 2Km 부근까지 進出케 하여 敵의 동향을 살피면서 一線 대대의 進出을 掩護케 하였다.

10월 13일 : 전날 子正부터 일기 시작한 東海의 强風은 이날 새벽에는 驟雨마저 휘몰아쳐서 작전수행에 支障을 주었으나 당면의 北傀 제36연대는 전날의 戰鬪에서 前進據點인 △350—△261를 奪取當하고 병력과 裝備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頹勢를 만회코자 전날밤부터 全 主力을 月比山부근에 投入하여 陣地를 보강하는 듯 하더니 이날 새벽에는 砲火를 集中 발휘하면서 侵透를 企圖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모든 難關을 무릅쓰고 敵의 威勢를 先制로 粉碎하고 목표를 奪取코자 제2, 제1 兩대대로 하여금 攻擊을 再開토록 하였다.

1.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전날 確保한 △350西斜面 陣地에서 躍進하여 09.00에 月比山 北麓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에 先鋒인 제6중대가 暴雨와 안개로 因하여 視野가 制限된 까닭에 잠시 進出속도가 遲滯하게 되자 이 때를 틈탄 敵은 그 左右능선에서 集中사격을 加하면서 殺到하였다.

이로써 彼我間에 紛戰亂鬪가 전개되었고 대대장은 곧 제5중대로 하여금 敵線 뒤로 進擊케 하여 側背에서 敵을 急襲토록 하였으나 계속 증원된 敵勢의 狂暴은 절정에 達하여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血戰을 지켜 보던 대대장 朴翊均소령은 곧 병력을 突擊대형으로 집결사용하는 즉시로 自身이 직접 제5중대로 달려가 그 陣頭에 서서 白兵을 휘몰아 血戰의 반복끝에 活路를 헤치고 突擊을 命令하였다.

이로부터 대대 돌격隊는 일제히 近接戰으로 맞서니 敵은 銳氣가 꺾인채로 潰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에 先頭에 나선 제5중대는 제6, 제7 兩중대의 掩護아래 月比山 中腹까지 단숨에 追擊하여 차례로 敵의 기관총陣地를 殲滅하면서 頂上을 向하여 突擊掩護射擊을 加하였다.

14.25에 8部능선까지 進出한 중대는 여기로 부터 또 다시 큰 障碍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山이 8部능선으로부터 頂上에 이를수록 깎아세운 듯한 絶壁으로 둘러싸여 敵이 難攻不落이라 豪言하리만큼 防守에 堅固하였는데 이때에 暴風과 冷雨가 山谷을 震動하니 天時와 地利를 모두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逆境을 뚫고 頂上을 强占하려는 중대는 오직 必勝을 다짐하면서 一步 또 一步로서 個匐進攻하였으나 山頂의 敵은 수류탄을 連續 投下하면서 固守를 決함으로써 중대는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一時 공격을 中止키로 하고 그 西北쪽 無名高地로 反轉하였다.

2. 한편 제1대대(장, 李鵬植대위)는 이날 연대장으로 부터 口頭로 命令받기를 『제1대대는 月比山 西側背로 進擊하여 그 中腹에 있는 敵의 據點을 奪取한 다음 제2대대와 協同하여 목표를 점령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날의 激戰地인 △261陣地에서 일제히 攻擊을 시작하였다.

이 때에 제1중대는 月比山 左側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迂回한 다음 그 南端에서 抵抗中인 1개소대 규모의 敵을 側射와 斜射로써 撃滅한 다음 助攻으로 進擊中인 제2중대(一)와 合勢하여 그 中腹 곳곳에 있는 敵의 견고한 特火點을 粉碎코자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正面으로 부터 砲火를 집중하면서 出擊하는 敵 1개중대 규모와 激突하였다.

이로부터 彼我間에는 砲兵火力과 小火器의 射彈이 雨注하는 가운데 무려 3시간 동안에 걸쳐 불꽃 튀는 血戰을 계속하였으나 그 사이에 증강된 敵勢로 말미암아 苦戰을 免치 못하게 되자 중대장은 우선 强力한 敵의 火力을 分散시키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제2소대를 직접 指揮하여 陣頭에서 彈雨속을 재빨리 포복, 前進한 끝에 敵陣 70m까지 進出하고 병력을 分隊단위로 分進케 하면서 敵陣으로 은밀히 接近하였다. 이들은 수류탄 投擲거리내에 이르자 중대장의 號令과 함께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집중사격을 加하니 敵의 화력은 마침내 分散되고 唐慌하는 氣色이 짙어지자 이 瞬間을 捕捉한 兩중대 將兵은 일제히 함성속에 突擊을 감행하니 드디어 敵의 先頭가 무너지며 흩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突破口를 擴大한 兩중대는 堅固한 據點을 하나 하나 覆滅한 끝에 15.00에는 頂上 東側部의 一角을 손에 넣는 感激의 瞬間을 맞았으나, 이 瞬間에 掩體壕속으로 부터 躍出한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또 다시 狂亂함으로써 전투는 더욱 激化되었다.

彼我間에 血戰의 반복속에서 대대는 左衝右突로 敵陣을 擾亂하며 肉彈對決끝에 敵에게 많은 損失을 주었으나 月比山을 固守키 위한 敵의 최후의 저항이 極烈하여 더 이상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대대장은 다음날에 공격을 再開키로 결심하고 연대장의 承認을 얻자 19.30에 △261부근으로 主力을 옮기고 다음날의 戰鬪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제3중대가 대대의 警戒중대로 △261一德武峯 前斜面에 陣地를 占領하고 있을 때 警戒組로부터 夜暗을 틈탄 2개소대 규모의 敵이 △261西麓 左側溪谷을 따라 侵透

하고 있다는 急報가 있자 중대장은 이 敵을 主動的으로 陣前까지 誘引한 다음 일거에 擊碎키로 決心하고 그들이 小銃 有効 射程內까지 接近하는 때를 타서 일시에 화력을 집중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그 뜻을 全員에 周知시킨 다음 敵이 陣內로 近迫하기를 기다렸다가 突入하려는 刹那에 집중사격을 加한 결과 이 敵을 陣前에서 모조리 捕捉 擊碎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제1, 제2 兩개대대가 온종일 血戰끝에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捕虜	小銃	多發銃	機關銃	砲彈	迫彈	戰死	負傷
355	14	162	44	18	500	1,860	18	97

3. 연대장은 이날 제3대대(장, 朴明景대위)에 口頭命令하기를 『대대는 연대 수색중대와 協同하여 △161(高城 南쪽 2Km)—高峰里(△161 西쪽 1Km)線을 확보한 다음 高城으로부터 증원되는 敵을 牽制하여 이를 抑留하라』하니 이에 따라 즉시 △149부근에서 경계중인 제9중대를 09.30에 躍進케 하였는데, 10.10에 중대가 △161의 100m전방까지 進擊하자 그 高地 前斜面의 左右능선上의 有蓋陣地속에서 중대의 進出을 阻止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즉각 兵力을 包圍대형으로 轉換케 하는 한편 제1소대를 敵陣 左側으로 진출케 하여 그 退路를 차단토록 하고 중대 主力으로써 可用한 모든 화력을 일제히 집중하면서 果敢하게 正面을 突破하였다.

敵은 중대의 急擊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四分五裂로 潰散하기에 이르렀는데 중대는 이를 좇아 11명을 射殺하고 다발총 2정과 소총 3정을 노획하면서 同 高地 頂上까지 突進하였다.

이때에 그 北쪽 赤壁山 左側능선을 따라 潛入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어 다시 一進一退의 치열한 激戰이 전개되었는데 이 무렵 敵陣배후로 迂回진출한 연대 수색중대의 側方지원이 奏効하여 敵의 銳鋒이 무너짐에 따라 殘餘병력도 끝내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그뒤 중대는 敵의 逆襲에 대비한 警戒를 강화하면서 수색중대와 連繫하는 방어선을 確保하였다.

10월 14일 : 이날도 계속되는 突風과 寒冷한 暴雨로 말미암아 작전을 수행하는데 不利하였으나 연대는 이날 새벽에 入受한 敵情을 分析한 결과 當面의 敵은 月比山을 固守하는 手段으로 北傀 제9사단소속의 偵察대대를 증원받아 同山 東側背에 連한 無名高地에 그 主力을 배치한 다음 연대의 공격을 牽制하면서 側背에서 挾擊을 企圖할 것으로 判斷하였는데, 이에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이 敵을 奇襲공격으로 擊破토록 하는 한편 제2대대

는 계속 목표에 대한 공격을 재개토록 命令하였다.

1. 이에 따라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제6, 제7 兩중대를 左右로 전개하여 08.00에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兩중대는 暴雨와 안개속을 뚫고 진흙으로 덮인 險地를 踏破한 끝에 10.30에는 전날의 血戰地인 목표東斜面의 8部능선까지 進出하였다. 이때 새로이 增援된 2개중대 규모의 敵은 자동화기를 비롯한 小火器와 수류탄으로 집요하게 抗戰함으로써 彼我間에 치열한 전투를 또다시 演出하게 되었다.

이에 제6중대장은 과감한 突擊力과 화력을 집중하면서 直衝하고 突破한 끝에 敵의 銳氣를 꺾고 突進을 감행하였으나 잠시 뒤에 새로운 增援을 얻은 敵은 오히려 중대의 兩翼을 包圍하면서 一步一步 侵襲함으로써 舊戰亂擊을 再現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集注하는 火網을 뚫고 뒤따른 제7중대의 掩護아래 모든 화력을 집중 발휘하며 前後 5回에 걸친 白兵戰을 反復한 끝에 이 敵을 무찌르면서 追擊하였으나 이 때에 敵의 82mm 砲火力이 進出정면에 집중할 뿐 아니라 增强一路의 敵勢로 말미암아 進出이 鈍化되기에 이르자 이를 지켜본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무려 6시간 동안에 걸친 血戰을 마치고 16.00에 陣地로 復歸한 다음 戰力을 정비하였다.

2. 제1대대(장, 李鵬植대위)는 이날 月比山 東側背부근에 집결중인 北傀 제9사단 소속의 偵察대대를 擊滅하라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08.00부터 다시 進擊을 감행하였다.

이 때에 대대의 主攻인 제2중대는 月比山 東斜面능선을 따라 突進한 끝에 10.00에는 敵陣 100m전방까지 진출 하였으므로 중대장은 제2소대로 하여금 東側으로 迂回하여 敵의 腹背를 奇襲토록 하고 중대장 자신은 제1 및 제3소대를 직접 지휘한 다음 敵陣의 突出部에 대한 正面突擊을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20분뒤에 特攻隊인 제2소대가 일제히 함성을 올리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急速突進으로 敵線을 소란케 하는 刹那에 중대장은 『突擊앞으로!』라는 號令과 함께 白兵을 휘몰아 敵陣속으로 突入하니 敵은 앞을 다투어 潰散하기 시작하였으며 미처 進路를 찾지 못한 殘餘兵은 중대의 銃劍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뒤 중대는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제2중대와 함께 同 高地에서 陣地를 강화하면서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밤 子正 가까이에 대대의 前進중대인 제3중대가 △245(月比山 東南쪽 2Km : 左인접 제1연대와 戰鬪地境線 부근) 陣地에서 대대 側後方 경계에 임하고 있을 때 左인접 제1연대와의 전투지경선의 虛隙을 뚫고 侵透한 것으로 推斷되는 2개 소대규모의 敵으로부터 不時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때에 敵은 暴雨와 夜暗을 이용하여 陣前 50m까지 접근하자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며 奇襲함으로써 중대는 일시 分散상태에 까지 이르렀으나 陣地를 굳게 지키려는 중대는 곧 戰力을 정돈하는 즉시 빗발치는 彈雨속을 헤치면서 左衝右突로 肉彈으로 맞서자 發惡을 서슴치 않던 敵도 드디어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무려 5시간 동안

에 걸쳐, 밤의 寂寞을 깨친 銃聲이 멎고 어느덧 暴風雨가 一過하자 陣地周邊에 數없이 흩어진 敵의 遺棄屍體 위에 붉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3. 한편 이날밤 △350 頂上에 있는 연대 OP에서는 연대장 李 龍대령을 비롯한 관계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期間中의 戰況을 分析한 결과 當面의 敵은 이날까지의 전투에서 병력과 裝備면에서 30% 내외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敵의 戰力은 더 이상의 새로운 증원이 없는 限 이미 그 限界點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었으므로 이에 연대장은 敵에게 戰力補强의 時間的인 여유를 주지않고 그 虛를 찔러 一擊에 撃砕키로 하는 한편 目標 占領後에 擴張될 戰鬪正面에 따른 戰線調整을 斷行할 自身의 所信을 밝히기를

『① 연대는 明 15일 10.00를 期하여 月比山을 期必코 奪取키 위하여 決戰을 强要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現占中인 陣地를 제3대대에 引繼하고 △161—高峯里 線上에 主陣地를 형성하는 동시에 연대의 右一線으로 목표 東側背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제2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연대의 中央第一線으로 進撃하여 목표 正面을 突破하라.

④ 제1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進撃하여 목표 西側背를 점령하고 左인접 제1연대와 連繫를 유지하라.』

이상과 같은 연대장의 腹案은 곧 예하부대에 하달되고 이에 따라 제2 및 제3대대는 전투정면을 새로이 引受引繼한 다음 一戰을 決할 제반태세를 갖추었다.

10월 15일 : 1.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期必코 목표를 奪取코자 전날에 하달한 계획에 따른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대대는 전날 확보한 陣地를 박차고 怒濤와 같은 기세로 進撃하였다.

이 때에 사단 砲兵을 비롯한 美 第7艦隊와 美 제196支援포병은 일제히 砲門을 열어 가을 天地를 진동시켰다.

2. 제3대대(장, 朴明景대위)는 이날 연대의 계획에 따라 목표 正面을 突破하여 그 頂上을 奪取할 목적으로 제9중대를 先鋒으로 하여 공격케 하였다.

이에 제9중대는 右인접 제7중대와 左인접 제2중대의 공격과 呼應하면서 突進하였는데 30분 뒤에는 목표 100m 前까지 近迫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는 敵의 强力한 火網에 부딪쳐 苦戰하게 되었는데 敵陣의 兩便에서 重기관총 3정과 輕기관총 5정의 側射 및 縱射 화력이 亂舞할 뿐 아니라 彈幕사격과 각종 小火器사격이 집중하여 3명이 전사하고 12명이 負傷하였으며 戰勢는 不振하여 膠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激戰이 한 동안 계속되다가 중대장이 요청한 제3포대의 105mm砲와 대대의 重火器중대의 迫撃砲등이 敵線을 강타하여 이를 制壓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이 때를 놓칠새

라 일제히 突擊으로 맞서니 결국 敵은 중대의 威勢앞에 壓倒되어 右往左往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이에 敵陣으로 突入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일시에 强襲하니 敵의 기관총陣地는 崩壞되기에 이르렀고 敵兵은 四散潰退하였다.

이로부터 士氣衝天한 장병은 頂上을 指向하여 突進을 감행하려는 때에 敵의 據點을 爆擊키 위해 출격한 友軍機의 誤認폭격으로 중대는 死傷者가 續出하는 등 한 때 混亂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敵은 이를 奇貨로 화력을 집중하며 反擊을 노림으로써 중대는 공격기세가 挫折되면서 점차로 惡戰苦鬪하게 되었다.

이러한 危急한 狀況에 직면한 중대장은 생각하기를『指揮者는 어떠한 狀況에서도 沈着大膽하게 行動하여 部下에게 率先垂範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士氣昂揚에 注力하여야 한다』라고 깨닫자 곧 先頭에 나서서 突擊을 부르짖으니 이를 지켜본 중대는 士氣를 되찾고 血路를 打開하면서 肉彈突擊하니 마침내 敵은 드디어 戰意를 잃은채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목표 東側背를 장악한 제7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戰果를 확대하고 頂上으로 突進하였다.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의 제7중대는 목표 東側背를 奪取하라는 대대장의 命令을 받고 이날 10.0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중대는 3개 소대를 모두 一線에 전개하여 △350 西斜面 陣地를 떠나자 月比山 北斜面 능선을 타고 突進한 끝에 그 左側의 突出部에 있는 敵의 화력거점을 일시에 强打하였다.

이 때 敵은 이에 對備할 겨를도 없이 支離滅裂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捕捉한 중대는 直衝突破를 加한 끝에 敵 사살 35名을 비롯하여 3名을 사로 잡았으며 기관총 2정, 그리고 소총 12정과 多數의 실탄을 노획하였다.

이리하여 快勝을 거둔 중대는 더욱 氣勢를 높이면서 頂上 70m까지 단숨에 치달았는데, 頂上의 敵은 마치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듯 全 화력으로써 발광 하였다.

이로부터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는 가운데 재빠르게 右側으로 迂回한 제3소대는 側背에서 急進과 仰射로써 敵陣을 擾亂하고 전투가 極烈한 一角을 突破하는 轉機를 마련하자 중대는 火焰이 치솟고 硝煙이 자욱한 敵陣으로 뛰어들어 白兵戰을 강요한 끝에 최후까지 발악하던 敵을 모조리 擊碎하고 마침내 그 頂上을 점령하였다.

3. 제1대대(장, 李鵬植대위)도 이날 연대의 계획에 따라 목표 西側背를 장악할 目的으로 제2중대를 제1선으로 하여 右인접 제3대대의 제9중대와 併進토록 하였는데 이로부터 중대는 右側方에서 지원하는 제1중대의 掩護사격을 받으면서 1개소대 규모의 敵을 一蹴한 다음 10.20에는 突擊 개시線까지 進出하였다.

그런데 이곳으로 부터 목표까지 이르는 進出線 곳곳에는 敵이 急傾斜의 地勢를 이용하

여 강력한 화력거점을 확보하고 1개분대 또는 2개분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다음 이를 최후阻止線으로 삼고 있었다.

이렇듯 완강한 敵勢를 무릅쓰고 突擊대형으로 轉換토록 지시한 중대장은 제1, 제2소대를 左右로 分進케 하고 자신은 제1소대와 화기소대를 지휘하여 白兵戰과 火力戰을 併用하면서 전출을 阻止하려는 3개의 掩體壕를 돌파한 다음, 그 前方에 있는 또 다른 數個의 散兵壕와 3개의 기관총陣地에 대한 攻擊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敵도 또한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수류탄으로 맞섬으로써 彼我間에 紛戰이 惹起되는 가운데 중대의 進出이 鈍化되었는데, 이때 뒤따르던 제1중대의 강력한 側方사격으로 중대는 氣勢를 높이고 一躍又一躍으로 3回에 걸친 突擊의 반복끝에 드디어 敵의 기관총陣地를 破碎하였다.

이리하여 進路를 타개한 중대는 右인접 제9중대의 공격과 呼應하면서 頂上 左側背로 突入한 결과 완강히 對戰하던 敵은 마침내 銳氣가 꺾인채로 血路를 찾아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血戰끝에 목표를 장악하자 곧 再編成을 마침과 동시에 急編진지를 점령하고 제9중대와 連繫하였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精密을 요하는 集中砲火의 유도로써 効力射擊을 일시에 발휘하였으며, 야간에는 敵 後方 깊숙한 곳까지 擾亂사격을 실시하였다.

5 수도야전공병대대의 제3중대(장, 李鍾烈대위)는 이날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月比山一圓에 걸쳐 鐵條網架設과 地雷埋設을 實施하는 한편 築城工事에 着手하였다.

이무렵 연대 OP에서 작전을 직접 지휘한 연대장 李龍대령은 3개대대主力 모두가 計劃된 목표를 占領하자 상호 連繫하는 防禦陣을 형성토록 하는 한편 敵의 예상 접근로上에 可用화력을 總집중케 하면서 警戒組 운용을 强化케 하였다.

이날 前後 8시간 동안에 걸친 血戰에서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捕虜	小銃	多發銃	機關銃	82mm 迫擊砲	砲彈	手榴彈	實彈	戰死	負傷
321	8	126	26	17	2	345	525	397	15	48

(我軍誤爆으로 因한 損失은 제외)

6 한편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제1기갑연대가 勇戰奮鬪끝에 高城의 關門인 月比山을 奪取하자 연대의 勞苦를 慰勞하고 激讚辭를 주었으며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月比山 頂上에 직접 나와서 이날의 戰功을 致賀하고 激勵하면서 有功장병에게는 武功勳章을 수여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수도사단이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10월 12일부터 同月 15일까지 敵의 據點인 月比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固守하려는 北傀 제6군단의 제19사단 主力을 破碎하고 이를 占領 확보함으로써 彼我 攻守兩面의 要衝을 장악하고 따라서 6Km 北上한 戰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戰線이 추진되자 사단은 그동안 珍富嶺부근에서 사단예비대로서 敎育 訓練에 임하던 제26연대로 하여금 다음날인 16일에 제1기갑연대가 占據中이던 東海岸의 江亭(高城 南쪽 6Km)—水嶺(月比山 南쪽 5Km)을 연하는 線의 陣地를 인수케 하여 사단 右一線으로서 左一線인 제1연대와 상호 連繫하는 主抵抗線을 형성토록 하였다.

한편 月比山일대를 장악한 제1기갑연대는 다음날에 逆襲을 시도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潰退시키고 快勝의 威勢를 몰아 19일까지는 赤壁山(高城 東南쪽 1Km)—△201—汀月里線까지 진출하여 이를 차례로 장악한 다음 이 線을 前進陣地線으로 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3개 연대 모두를 一線에 配備하고 海岸線을 끼고 南江 東岸을 沿하여 戰線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陣地보강에 專力하는 한편 捜索거점을 확보하면서 계속 부단한 威力捜索을 감행하였는데 이 무렵의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도 主抵抗線 前方에서 威力捜索을 감행하면서 土器店을 制壓點으로 하여 當사단과 連繫하는 戰線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과 對峙하던 北傀 제19사단은 기간중의 전투에서 그 예하의 제36연대가 결정적인 打擊을 입게 되자 사단 直轄부대인 偵察대대와 勤務대대를 보충시키고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한편 北傀 제9사단의 偵察대대 역시 심한 打擊을 입은 까닭으로 同 사단의 제83연대 제3대대와 교대한 다음 高城 北方으로 撤退하여 이미 그곳까지 敗走하여 收容된 일부병력을 再收拾하면서 戰力보강에 全力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戰力을 정비한 당면의 敵은 10월 末에 이르기까지 月比山부근에 대한 反擊을 수차에 걸쳐 企圖하였으나 그때마다 所期의 目的을 이루지 못하자 드디어 공격을 斷念하고 捜索戰으로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이 當時 사단 CP는 大堡里에 설치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는 麻汝津里에, 제1연대는 杆城에 그 CP를 각각 開設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사단은 西部 戰線보다 80Km 北進한 全戰線 最先端에 陣地를 점령하여 제1군단의 右一線부대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果									損失	
射殺	捕虜	小銃	多發銃	機關銃	82mm 迫擊砲	砲彈	手榴彈	實彈	戰死	負傷
891	37	369	91	43	3	953	3,255	5,705	70	250

2. 第2次 加七峯 附近 戰鬪 (1951년 10월 27일부터 1951년 10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23, 2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22연대의 1,052 高地 爭奪戰>

我 軍			敵 軍	
제3사단	장 군장 白 南 權		제2대대	장 소령 洪 淳 丁
제22연대	장 대령 張 春 權		제3대대	장 소령 李 寬 熙
제1대대	장 소령 崔 章 學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金 燦 福
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제13사단	장 소장 鄭 炳 甲

<제23연대의 1,211 高地 攻擊戰>

我 軍			敵 軍	
제23연대	장 대령 金 淙 舜		제1대대	장 소령 孫榮鎭(10.29부)
제1대대	장 소령 安 永 善		지원부대	
제3대대	장 소령 金 斗 業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金 燦 福
배속부대			공병대대	장 소령 金 在 植
제18연대 제2대대	장 소령 金上玉(10.27부)			
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제2사단	장 소장 李 喆 用

나. 전투 전의 개황

9월 이래로 襄陽에서 부대를 整備한 제3사단(장, 白南權준장)은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의 中央右翼으로 轉進하여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加七峯戰線을 引受하고 同사단이 지나간 40여일동안 爭奪戰을 벌인 △1,211 일대를 계속하여 攻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1,211는 東으로 萬垈里를 포함하는 昭陽江邊의 作戰路를 瞰制하고, 西로는 멀리 水入川邊의 文登里계곡까지 牽制할 수 있으며, 그 分水嶺은 西쪽으로 뻗어 攻防兩面에 모두 버릴 수 없는 要衝을 이루었다. 또 敵으로서는 만일 이 高地를 奪取당하게 되면 城內川을 건너 매봉(△1,290)—看雲峯을 連하는 線으로 兩配置하여야 하는 反面에 사단으로서는 城內川 南쪽 일대를 掌握케 됨으로써 戰

曲을 이룬 戰線을 整齊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단은 새로운 사단을 轉進시켜 敵에게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이를 攻略코자 企圖하였으니 堅陣을 앞에 두고 시간을 끌면서 逡巡하는 것은 古來로 兵家가 삼가는 바이기 때문이리라.

敵軍의 상황 : 사단正面의 北傀 제2군단(장, 중장 崔賢)은 2개 사단을 一線, 1개 사단을 예비로 하여 △1,211를 中心으로 한 固守態勢를 갖추고 여기를 「英雄高地」라는 呼稱까지 붙여 「英雄的인 鬪爭」이라는 美名 아래 自殺的인 抵抗을 強要키 위한 督戰에 血眼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즉, 그 西翼인 제13사단(장, 소장 鄭炳甲)의 제19연대는 △796(沙汰里 北쪽 2Km)—△811(沙汰里 東北쪽 1.5Km)—△1,052(△1,211 西南쪽 2Km)를 連한 線을 점거하고 △1,211의 西쪽을 담당하였으며 東翼인 제2사단(장, 소장 李喆用)은 제6연대를 右一線, 제17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1,052—△1,211—西希里를 連하는 線에 主陣地를 형성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제27사단은 군단예비로서 △1,297(上青松 西쪽 3Km)—△1,284(上青松 東北쪽 3Km)를 連한 일대에 집결하였는데 戰況의 변동에 따라서 一線사단을 隨時로 증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所謂 5月攻勢이래로 계속적인 打擊을 받게 된 제2군단으로서는 全面攻勢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만 △1,211 일대의 防守에만 급급할 것으로 내다 보여졌다.

我軍의 상황 : 사단은 敵의 5月攻勢 당시에 제3군단(장, 劉載興 소장)의 右翼으로 縣里부근에서 敵의 重圍를 돌파하고 下珍富里에 집결한 다음,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6월 14일에 松溪里에서 杆城으로 躍進하여 主力으로서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의 작전임무를 引受한 다음 군단右翼으로서 東海岸의 Kansas線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9월 13일에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에 다시 陣地를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襄陽부근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 하다가 10월 20일 08.00附로 美 제10군단에 그 배속이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단은 20일에 골발(楊口 東北쪽 11Km)로 轉進하여 다음 날부터 제5사단의 陣地를 인수하였다. 즉,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는 右一線으로서 西希嶺 일대의 제36연대陣地를,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中央一線으로서 加七峯의 제27연대陣地를 각각 인수하는 동시에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左一線으로 제35연대(제27연대의 一部包含)의 陣地를 引受함으로써 加七峯 西南쪽 稜線—△841에 이르는 主陣地를 확보케 한 것이다. 이로써 제1단계로 제22연대는 우선 그 正面에 있는 △1,025를 攻略키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22연대의 1,052 高地 爭奪戰(10.27~28)

(가) 작전계획

군단장 Byers소장은 22일에 『제3사단은 主抵抗線을 확보하면서 1개 연대를 超過하지 않는 병력으로 △1,052—△1,211를 奪取하여 彎曲部를 이룬 戰線을 整齊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地形判斷과 아울러 當面의 敵情을 分析한 결과, △1,211에 대한 공격에 앞서 △1,052를 먼저 탈취하여 敵의 氣勢를 꺾어 地之利를 얻기로 決心하고 24일 1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123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主抵抗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일부병력으로 △1,052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2연대는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1,052를 奪取하고 前進陣地를

편성하라.

③ 제18, 제23 兩연대는 △1,211에 대한 공격준비를 갖추고 제22연대의 공격間 1개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威力搜索을 敢行하라.

④ 제11포병대대는 제22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⑤ D일 H시는 후달한다.

⑥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⑦ 지휘소는 골말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게 된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은 當面의 目標에 대한 攻略方案을 검토한 결과 제1대대로써 △1,052를 直衝케 하면서, △841를 점령한 제2대대로써 그 東北쪽 능선을 따라 挾擊키로 하고 大要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① 연대는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일부 병력으로 △1,052를 奪取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必要한 병력으로써 △1,052를 奪取하라.

③ 제2대대는 연대 특공대가 無名高地를 탈취하는 즉시 필요한 병력으로 이를 超越하여 B—C를 奪取한 다음 △1,052 西側方을 공격하여 제1대대의 攻略을 容易케 하라.

④ 제3대대는 △885를 계속 확보하면서 別命을 기다리라.

⑤ 연대 특공대는 無名高地 A를 奪取한 다음 超越하는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11포병대대는 연대를 직접지원할 것이다.

⑦ D일 H시는 各隊別로 후달한다.

⑧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⑨ 지휘소는 比雅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10월 27일 : 전날 前半夜부터 계속된 포병의 교란사격은 03.30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轉換, △1,052一圓에 대하여 집중되었으며 어둠에 싸인 高地와 그 西南쪽 능선 일대는 砲聲과 함께 솟아 오르는 火焰에 뒤 덮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연대 특공대는 無名高地 A의 北斜面을 目標로 奇襲키로 하였는데 地雷源을 踏破한 탓으로 企圖가 綻露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은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제2대대로 하여금 無名高地 A를 挾擊케 하는 동시에 제1대대는 06.00를 期하여 예정대로 △1,052를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1.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은 연대 特攻隊와 제2대대가 無名高地 A에서 一進一退의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인 06.00에 제3중대로 하여금 △1,052를 直衝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LD인 陣前의 溪谷을 일제 躍進으로 횡단한 다음, △1,052 南쪽능선으로 올라 붙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要所마다 형성된 據點에서 기관총 火力이 집중하는 가운데 躍進을 거듭하면서 特攻組로 하여금 이 據點을 격파케 하고 敵陣 70m앞까지

육박하였다.

이에 敵은 발악적으로 最後沮止의 射擊을 집중할 뿐 아니라 수류탄으로 死角을 消滅토록 하였다. 중대장은 불리한 地勢에서의 수류탄 대결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進擊이 固着되기에 이르자 이 危機에서의 躊躇는 곧 全滅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소대를 右로, 제3소대를 左로 迂回시켜 脆弱點을 노려 공격케 하고 제2소대는 自身이 직접 지휘하여 正面으로 돌격을 감행키로 하였다.

이때 마침 제11포병대대(장, 金燦福소령)와 군단 155mm포병대대의 사격이 奏効한 탓인지 敵의 砲火力이 잦아드는 틈을 타서 중대는 즉시 敵陣을 돌파하면서 수류탄으로 據點의 기관총을 침묵시키고 散兵壕로 뛰어 들어 白兵으로써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에 敵도 斷末魔의 督戰에 못이긴 탓인지 頑强하게 저항하였으나 중대의 계속 突進으로 하나 하나 쓰러지고 混戰裡에 일부는 無名高地 C로 潰走함으로써 중대는 11.50에 드디어 △1,052頂上을 奪取하고 말았다. 이 때에 쓰러져 있는 敵兵 가운데에는 不過 17~18세의 소년병이 있었으니 그들의 非人道的인 督戰相을 可히 짐작할만 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再編 즉시로 제3소대로 하여금 西南쪽 능선을 따라 無名高地 C를 공격하여 제 2 대대를 지원케 하고 主力은 急編態勢를 갖추었는데 제3소대의 공격은 敵의 포격과 측방화력으로 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18.00에 이르러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野砲와 박격포의 熾烈한 지원밑에 逆襲하였다. 이에 중대는 即刻 유도된 포병의 엄호사격아래 敵의 銳鋒을 꺾고 散發的으로 侵透하는 敵을 수류탄과 육박전으로 격퇴하였으나 어둠을 타고 계속되는 敵의 波狀공세로 실탄과 수류탄이 不足하게 되어 20.00에는 그 南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에 대대 主力은 加七峯 西南쪽 능선上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3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는데 중대가 △1,052南쪽 능선으로 물러서자, 대대 수색대로 하여금 실탄을 推進보급케 하는 동시에 戰傷者를 후송토록 하였다.

2. 제2대대(장, 洪淳丁소령)는 연대 특공대가 無名高地 A를 奇襲 탈취하는 즉시로 이를 超越하여 無名高地 B—C를 逐次로 탈취하고 △1,052공격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연대특공대의 공격이 진전을 보지 못한 탓으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5.30에 제6중대의 1개소대로 增强된 제5중대로 하여금 無名高地 A를 공격케 하였다. 중대는 대대主力의 엄호사격下에 △841의 配置線을 LD로 하여 일제히 躍進하여 主力은 東北쪽 능선으로 돌진하고 1개소대는 南쪽 능선으로 迂回 공격하였는데 敵의 포화는 彈幕을 이루고 기관총의 화망은 중대의 進路를 가로 막았다. 그러나 先頭에서 大號하는 중대장의 과감한 전투지휘로 彈幕지대를 돌파하자 곧 돌격을 감행하여 10.40에는 연대 특공대와의 挾攻으로 頂上을 탈취 하는데 成功하였다. 중대는 1개소대를 여기에 殘置하고 無名高地 B를 目標로 공격을 계속 하였는데 2개소대규모의 敵은 자동화기를 집중하고 수류탄을 굴러 떨어뜨리면서 執拗하게 맞섰다. 이

리하여 중대는 또 한 차례의 紛戰을 전개한 바 있으나 81mm박격포의 돌격지원사격下에 각 소대장을 先頭로 일제히 躍進하여 白兵戰 끝에 11.30에는 頂上을 탈취하고 즉시 無名高地 C로 육박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1,052에서 一擊을 받게 된 敵이 이곳으로 潰退하여 合勢함으로써 그 血戰의 度는 점차로 極烈化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20.30에 이르기까지 연대 특공대의 지원下에 세차례의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그 진전을 보지 못하고 無名高地 A로 逐次로 철수하여 逆襲에 대비하였다. 이때에 대대 主力은 △841의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제8중대의 81mm 박격포는 △841西南쪽 계곡에 陣地를 점령하고, 제5중대(+)를 근접지원하였다.

3. 연대 특공대(暫定編成 1개중대)는 無名高地 A를 奇襲 탈취코자 03.50에 △841西南쪽 계곡에서 隱密하게 기동하여 500m를 진격한 다음, 東쪽으로 迂回하면서 無名高地 A의 後斜面으로 돌진하였다. 그런데 美 제7사단이 沙汰里일대를 掌握하게 되어 西側背에 위협을 받게 된 敵이 접근路마다 埋設한 지뢰지대에 빠져, 계속 誘發하는 지뢰로 死傷者가 續出하게 되었으며 敵은 자기背面에 대한 奇襲을 눈치 채고 박격포의 지원사격下에 경계진지의 기관총을 일제히 집중하였다. 특공대는 進退兩難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으나 이때에 정확하게 유도된 81mm박격포의 엄호사격과 野砲의 對 박격포사격으로 敵火를 制壓하는 순간에 지뢰지대를 통과하여 다시 벼랑을 타고 기어 오르면서 공격을 재개하여 頂上으로 육박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據點에서의 敵의집요한 저항으로 一進一退의 격전을 폈는데 제5중대(+)의 挾擊으로 敵火가 분산되기에 이르자 일제히 頂上으로 돌진하면서 백병전으로 敵을 驅逐하고 이 高地를 탈취한 다음, 제5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나 그 진전을 보지 못하자 無名高地 A로 물러서게 되었다.

4. 제3대대(장, 李寬熙소령)는 전날에 이어 △885일대를 점령하였는데, 이날 연대장의 명령으로 2개중대는 기동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手榴彈으로 敵陣을 攻擊)

이상과 같은 一進一退의 격전을 거듭하는 동안에 연대는 181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多發銃 14정과 小銃 52정 및 기관총 7정 등을 鹵獲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손실은 戰死 39명, 戰傷 33名이었다.

10월 28일 : 연대장 張春權

대령은 전날 제1대대의 제3중대가 △1,052를 일단 탈취하였다가 敵의 逆襲을 받아 그 南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자 이날중으로 期必코 同高地를 奪還할 것을 대대장에게 엄명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개중대로써 제2대대와의 협동공격으로 無名高地를 奪取케 한 다음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고 또 1개중대로써 제1대대가 高地 奪取에 成功하는 즉시로 그 陣地를 引受하여 無名高地 C를 점령한 중대와 더불어 前進陣地를 편성 확보토록 措置하였다.

1. 제1대대(장, 崔章學소령)의 제3중대는 △1,052 南쪽능선에서 돌격의 好機만을 노리면서 차가운 一夜를 지새고 早曉 05.30부터 시작된 공격준비사격의 延伸에 密接하여 06.00에 目標의 頂上을 向하여 일제히 躍進하였다. 硝煙이 자욱하고 짙은 안개에 뒤덮인 敵線 50m앞까지 近迫하는데 커다란 저항이 없었으나 緩傾斜인 頂上부근에 이르러 企圖가 露出되자 敵의 기관총 據點에서는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고 野砲와 박격포사격을 一時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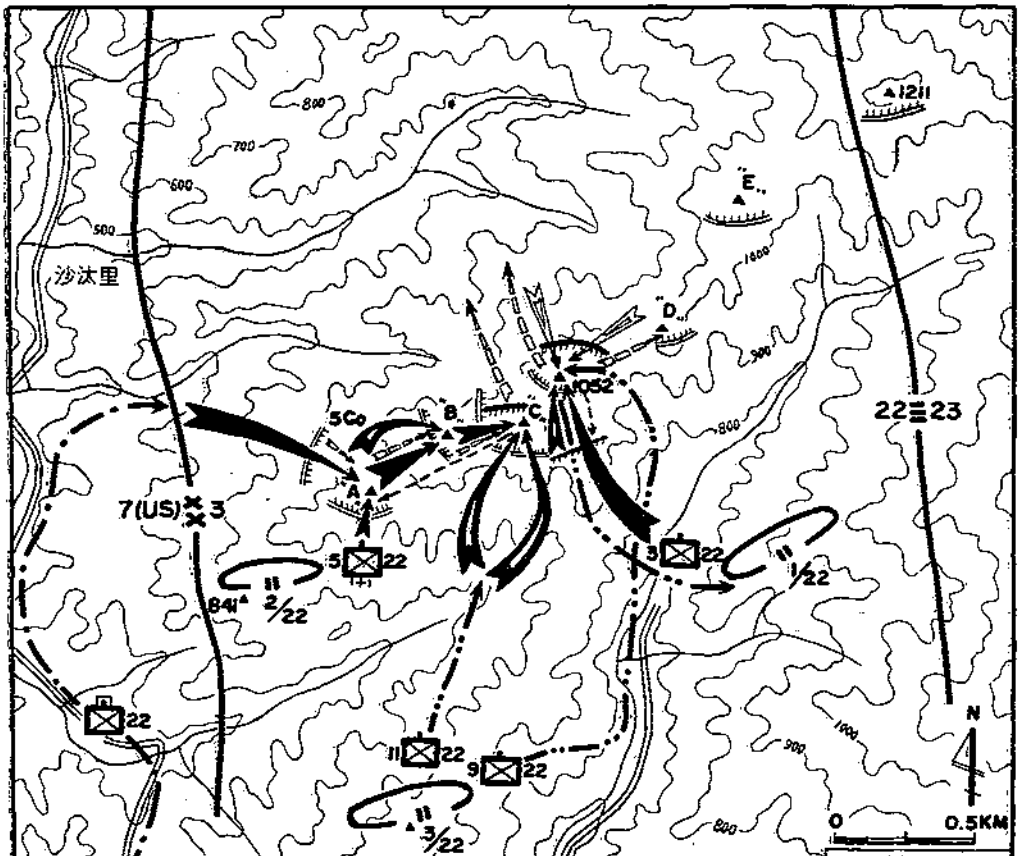
이에 중대장은 포병의 사격延伸에 따라 곧 最先頭에 나서 突擊을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彼我의 砲火가 雨注하는 敵陣內로 수류탄의 爆風과 함께 突入하였으나, 地形의 불리로 그 돌격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대는 다시 銳氣를 되찾고 제11포병대대(장, 金燦福소령)와 연대 全 81mm박격포의 사격에 뒤이어 제3소대를 右로, 제1소대를 正面으로, 제2소대를 左로 하면서 再次 敵陣內로 殺到하였다. 兩쪽에서 서로 呼應한 제2, 제3 兩소대는 敵陣의 一角을 무너뜨리고 壕속으로 직접 突入하면서 白兵으로 敵을 무찔러 나갔는데, 必守無退를 强要 當한 듯한 敵은 전날 보다 더욱 執拗하게 버티었으나 중대의 左衝右突 앞에 그들의 指揮體系가 이미 무너진 듯 견디지 못하고 北쪽으로 潰退하기 시작하니 이때가 08.50이었다. 이로써 중대는 전날에 이어 두번째로 △1,052를 탈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중대는 南斜面에 형성한 敵據點을 파괴하고 전날의 敵의 逆襲을 교훈삼아 포병과 박격포의 계속적인 차단사격下에 陣地를 편성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는데 17.00에는 高地로 진출한 제9중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轉進하여 대대主力과 合勢한 다음, 대대예비로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2. 제3대대(장, 李寬熙소령)는 △885일대를 확보중, 연대장의 명령으로 2개중대가 출동준비를 갖추고 待機하였는데 새로운 명령에 따라 제11중대로 하여금 제5중대와 협동하여 無名高地 C를 탈취하는 즉시로 △1,052에 대한 공격을 지원케 하는 한편 제9중대는 제1대대가 △1,052를 奪取하자 곧 이를 인수하여 제11중대와 連繫한 다음 前進陣地로서 △1,052—無名高地 C를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金珍河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를 無名高地C 南쪽능선으로 正面공격케 하고 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는 無名高地 A로 進出하여 제5중대(+)와의 협동으로 西南쪽에서 無名高地 C를 공격키로 작정하고 06.00부터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

여 중대主力은 散發的인 敵의 사격을 받으면서 07.45에 無名高地 A로 전격하여 제5중대(+) 및 연대특공대와 合勢한 다음, 最先頭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無名高地 B를 점령하고 81mm 박격포의 熾烈한 지원사격下에 無名高地 C로 돌진하였다. 이때에 敵은 野砲와 박격포의 엄호下에 능선의 要所마다 構築된 거점에서 기관총의 화망을 펴고 수류탄으로써 進路를 가로막았으나 중대장은 制壓사격을 요청하고 後續하는 제5중대의 엄호下에 躍進을 계속한 끝에 砲兵火力의 延伸 즉시로 돌격을 시작하였다. 堅固한 據點속의 기관총이 동시에 불을 뿜고 수류탄이 계속 炸裂하여 死傷者가 續出하였으나 後斜面으로 迂回공격하는 제5중대와 서로 連繫하면서 接敵을 계속하였다. 이때에 金珍河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는 南쪽의 벼랑을 기어 오르면서 敵의 거점을 迂回하여 同高地의 50m앞까지 돌진하였으나 地形의 不利로 공

○ 상황도 제23호 1052高地 爭奪戰



격행동이 露呈되자 敵은 기관총사격을 일제히 집중하였다. 소대는 先頭에서 怒號하는 소대장의 뒤를 따라 躍進하면서 수류탄으로 기관총을 침묵시키고 敵陣으로 突入하였는데 이때 敵은 이미 △1,052가 제3중대에 탈취됨으로써 東側背가 遮斷되고 西쪽능선으로 중대主力이, 그리고 後斜面으로는 제5중대가 挾擊하게 된 탓인지 北쪽으로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중대主力과 合勢하여 제5중대의 지원下에 潰走하는 敵을 격멸하고 無名高地 C一帶를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이날의 戰功으로 金珍河소위에게는 뒷날에 美 銀星勳章이 授與되었다. 한편 제9중대는 17.00에 △1,052로 進出하여 제3중대와 陣地를 교대하였으며 제10, 제12 兩중대는 계속 △885를 확보중에 있었다.

3. 제2대대(장, 洪淳丁소령)主力은 연대 左一線으로서 △841의 主抵抗線 陣地를 확보하고 제6중대의 1개소대로 증강된 제5중대는 高地 A에서 高地 C를 공격하는 제11중대를 지원하였는데 제11중대가 高地 C를 탈취하자 高地 B로 轉進하였다.

4. 연대특공대는 제5중대(+)와 더불어 제11중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高地 A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 작전명령 제123호에 의거한 △1,052에 대한 공격임무를 완수하고 △1,052一無名高地 C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1,211의 敵의 西翼을 차단하였는데 이날의 전투에서 敵 75명을 사살하고 11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重機關銃 2정 多發銃 12정, 小銃 12정, 自動小銃 1정을 鹵獲하였는데 損失은 戰死 15명, 戰傷 23명이었다.

(2) 제23연대의 1,211 高地 攻擊戰(10.28~31)

(가) 작전계획

27일에 제22연대가 △1,052를 탈취한지 8시간만에 敵의 逆襲으로 그 南쪽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자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제2단계 작전으로 제18연대의 1개대대로 증강된 제23연대로 하여금 敵의 東側背를 차단하면서 △1,211를 迂回 공격토록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124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병력으로 △1,211를 탈취하고 Y線(西希嶺 北쪽능선一△1,211一△1,052一沙汰里)를 확보하려 한다.

②제23연대는 제18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1,211를 탈취하라.

但, 山前一△930一西希里에 이르는 연대의 戰鬪地境線을 공격間에 있어서 제23연대의 戰鬪地境線으로 臨時 擴張한다.

③ 제18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되 1개대대를 공격間에 제23연대에 배속하라.

但, 제23연대 戰鬪地境線으로 擴張된 正面은 命令에 따라서 제18연대 戰鬪地境으로 還元한다.

④ 제22연대는 △1,052를 재탈취한 다음 1개중대로써 無名高地 D(△1,211 西南쪽 1.3Km)—E(△1,211 西南쪽 0.7Km)를 계속 공격하여 當面의 敵을 牽制하라.

⑤ 제11포병대대의 2개포대는 제23연대를 직접지원하라. 요청에 따라서 군단포병의 화력증원을 받을 것이다.

⑥ 지휘소는 계속 골말에 위치한다.

⑦ D일 H시는 후달한다』.

⑧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이에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은 연대예비인 제3대대를 공격 第一線으로 삼아 배속되는 제18연대 제2대대의 지원下에 △1,211 東北쪽으로 迂回공격키로 하였는데 제1대대는 제3대대의 공격 進展에 따라 高地 F(△1,211 東南쪽 0.9Km)를 탈취한 다음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기로 構想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49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제18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1,211를 탈취하고 Y線을 확보 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山前으로 轉進하여 D일 H시를 期하여 △1,211를 탈취하라.

③ 제1대대는 제3대대가 △1,211 東北쪽 능선으로 迂回하는 즉시로 高地 F를 탈취 한 다음 곧 △1,211의 敵을 공격하라.

④ 제18연대 제2대대는 西希里 일대를 탈취하고 제23연대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제2대대는 사단예비대로서 現任務를 계속하라.

⑥ 제11포병대대의 2개포대가 연대를 직접지원 할 것이다. 또 요청에 따라서 군단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을 것이다.

⑦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⑧ 연대지휘소는 縣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10월 28일 : 1. 제3대대(장, 金斗業소령)는 山前(萬垈里 西北쪽 5.5Km)으로 진출한 다음 이날 05.00에 제18연대 제1대대의 陣地線을 LD로 하여 △1,211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企圖를 秘匿하기 위하여 포병의 지원없이 짙은 안개속을 躍進한 대대는 敵의 집요한 저항을 누르고 高地 G—H일대를 탈취하였다. 여기서 대대는 치열한 포병사격下에 제10중대를 右第一線, 제11중대를 左第一線으로 전개하여 △1,211 東北쪽 능선으로 迂回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接近路마다 형성한 敵의 거점에서는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써 대대의 공격을 頑强하게 阻止코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斗業소령은 81mm박격포와 제9중대의 엄호下에 主力을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포병지원을 요청하고 배속중인 75mm無反動銃과 3.5"Rocket砲를 挺進시켜 敵거점에 집중한 다음, 공격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력집중에도 不拘하고 敵은 저항을 계속하므로 9시간의 紛戰도 別進展

을 보지 못하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다음날에 공격을 재개키로 하고 대대의 轉進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9중대의 엄호下에 逐次로 철수하여 다음 날 02.00에 △1,006(加七峯 東쪽 1Km)에 집결하였다.

2. 제1대대(장, 安永善소령)는 이날 제3대대의 △1,211에 대한 공격이 進展을 보지 못하고 그 一部가 無名高地 F 東쪽으로 공격方向을 變更함에 따라 이에 呼應하여 제2중대로 하여금 高地의 南쪽을 向하여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중대 역시 敵의 집요한 저항으로 격전을 거듭하다가 제3대대의 撤收와 때를 같이하여 加七峯陣地에서 主力에 合勢하였다.

3. 제18연대의 제2대대장 金上玉소령은 제6중대를 공격 第一線으로 하여 西希里를 탈취케 하고 제7중대는 제6중대의 공격進展에 따라 雙頭洞을 直衝케 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토록 하면서 제23연대 제3대대의 △1,211공격에 呼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02.00부터 집결지인 山前에서 △930北端으로 進擊한 다음, 제6중대로서 城內川을 敵前渡涉케 하면서 공격을 시작 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는 後續하는 제5, 제7 兩중대와 81mm박격포의 엄호下에 일제躍進으로 城內川을 건너 선 다음 1개소대는 △691(西希里 北쪽)를, 主力은 高地 I(西希里 東쪽)를 목표로 돌진하였다.

△691를 공격한 1개소대는 제7중대의 지원사격下에 一路 躍進을 거듭하면서 수류탄과 白兵의 互用으로 1개소대규모의 敵을 격멸하고 그 頂上을 탈취 하였으나 主力은 목표고지의 南쪽능선에 올라 붙었을 때 敵火網의 集中洗禮를 받게 되었다. 이에 중대(一)는 81mm박격포의 엄호아래 특공組의 수류탄공격으로 간신히 突擊路를 헤치면서 步一步 前進하여 2개의 據點을 同時에 공격하여 이를 沈默시켰다. 이 刹那에 중대장이 最先頭에 挺身하면서 돌격을 號令하니 중대는 喊聲도 우렁차게 敵陣으로 殺到하면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白刃을 휘둘러 敵을 무찔러 나아갔다. 이때에 2개 소대규모의 敵도 無慈悲한 督戰밑에서 銃劍을 치켜 들고 맞서다가 마침내 그 東北쪽으로 潰退함으로써 중대는 이 高地를 掌中에 넣고 西希里일대를 확보 하였는데 이때에 짙은 안개가 걷히면서 晩秋의 찬란한 햇빛이 勝戰을 謳歌하는 듯 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제6중대가 西希里를 확보하자 곧 雙頭洞을 공격하여 1개 소대규모의 敵을 驅逐하였으나 명령에 따라 △785東北으로 反轉하면서 제23연대 제3대대의 공격에 策應키로 하였으나 시원한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淙舜대령은 現 戰況밑에서는 대대가 西希里일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18.00에 예비인 제5중대의 엄호밑에 逐次로 轉進하여 西希嶺부근에 집결하였다.

10월 29일 : 이날 연대장 金淙舜대령은 공격 第一線인 제3대대로써 제1대대의 加七峯陣

地를 말게하고 제1대대(장, 安永善소령)를 抽出하여 새로이 공격 第一線으로 삼아 高地 F (△1,211 東南쪽 0.7Km)를 탈취한 다음 그 西쪽능선을 따라 △1,211를 공격케 하였다. 또한 그는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과의 協調로 從來의 배속대대를 交替케 하여 새로이 배속케 된 同연대 제1대대(장, 孫榮鎭소령)로 하여금 高地 G—H를 탈취케 하여, 여기에서 敵을 牽制하면서 일부병력은 高地 F의 東北쪽능선을 目標로 공격케 하여 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1. 연대의 공격 第一線인 제1대대는 05.00에 제3대대에 加七峯의 主陣地를 인계하고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제1중대를 右第一線, 제2중대를 左第一線으로 전개하여 제3중대의 엄호下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장 安永善소령은 배속된 75mm無反動銃과 3.5″ Rocket砲로써 敵의 화력據點을 제압케 하고, 81mm박격포로써 공격梯隊를 계속 엄호케 하였는데 대대는 09.30까지 敵의 執拗한 抵抗을 물리치고 前進據點을 점령하는데 成功하였다. 여기서 兩중대는 다시 高地 F를 목표로 집중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이미 한달 이상이나 攻防戰 (제5사단)을 치르는 동안에 鐵壁으로 굳어진 敵陣으로 부터는 불을 吐하는 자동화기의 집중 사격이 兩중대의 공격을 가로막아 손실만 累積될 뿐으로 뜻과 같은 進陟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兩중대를 東斜面으로 前進케 하고 後續하는 제3중대를 東쪽으로 迂回시켜 挾擊토록 하였다.

이때에 대대 右側에서 高地 G—H를 탈취한 제18연대의 제1대대가 高地 F의 東北쪽능선으로부터 挾攻함에 따라 敵은 三面包圍속에 빠지게 된지라 그 화력도 마침내 분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제1, 제2 兩중대는 즉시 돌격을 감행하여 수류탄으로써 敵의 자동화기를 침묵시키면서 白兵으로써 저항을 制壓한 결과 마침내 이 高地의 主人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14.30이었다.

대대는 餘勢를 몰아 제3중대를 先頭로 하여 西쪽 능선을 따라 돌진하면서 최종목표인 △1,211攻略에 나섰다. 그러나 이 능선에 교묘하게 배치된 敵의 화력據點에서의 치열한 사격으로 말미암아 一進一退의 격전만을 전개 한 끝에 18.00에 日沒과 더불어 高地 F로 撤收한 다음 제18연대 제1대대와 連繫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斗業소령)는 이날 05.00에 제10, 제11 兩중대로써 加七峯의 제1대대 陣地를 인수하여 同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제9, 제12 兩중대는 예비로서 계속 △1,006에 控置하였다.

3. 제18연대 제1대대(장, 孫榮鎭소령)는 제2대대와 交替하여 이날附로 제23연대에 배속되었다. 그리하여 高地 G—H를 탈취한 다음, 高地 F를 東北쪽으로 挾擊케 되었는데, 대대장은 공격에 앞서 제3중대를 先頭에 내세워 高地 G—H를 탈취함으로써 敵을 牽制케 하고 제

2중대는 제3중대의 공격의 진전에 따라 高地 F의 東北쪽 능선으로 迂回하여 제23연대 제1대대와 더불어 高地 F를 공격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03.00부터 躍進을 시작하여 △930北麓에 이른 다음 06.00를 期하여 공격준비 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공격목표인 高地 H를 指向코 일제히 進擊하였다. 중대는 제3소대를 右로, 제2소대를 左로 전개하여 목표의 左右로부터 공격케 하고 중대장은 제1소대를 직접지휘 하면서 正面에서 突破키로 하였는데 敵은 전날의 공격으로 雙頭洞一西希里에 크게 위협을 느꼈음인지 高地 G—H를 連한 능선일대에 防禦力을 증강한 듯, 그 저항이 전날보다도 한층 頑强하여 10.00 現在로 8부능선에서 공격이 停滯된채 치열한 사격만을 交換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81mm 박격포로써 화력을 집중하여 엄호케 하는 한편 공격을 대기중인 제2중대로 하여금 高地 G를 공격케 하여 제3중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10.30부터 機動을 시작한 제2중대는 高地 H의 東南쪽능선을 따라 白兵을 휘몰아 친 끝에 一擧에 그 頂上을 손에 넣고 그 東北쪽 능선을 따라 高地 H 공격에 合勢하였다. 이렇듯 兩面으로 挾擊을 당하게 된 敵은 급기야 그 西北쪽의 △785로 潰退함으로써 제2,제3 兩중대는 高地 G—H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는데 제3중대는 곧 급편 방어태세를 갖추고 △785에 火力을 집중하는 한편 高地 F를 공격중인 제2중대의 東側背를 엄호하였다.

또 제2중대는 이때 증원된 제1중대 1개소대의 지원下에 高地 F의 東北쪽 능선으로 反轉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여기의 敵은 北斜面에도 火力據點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나 중대는 白兵의 위력을 발휘하여 13.30에는 東北斜面의 主要據點을 탈취한 다음 南斜面에서 돌진하는 제23연대 제1대대와 서로 呼應하면서 一齊히 돌격하여 그 頂上을 탈취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이때에 제1중대는 제2대대 主力에 西希嶺 西南쪽의 主陣地를 인계하고 高地 F 東北쪽능선으로 진출하여 대대中央으로서 급편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高地 H—G—F를 連하는 능선을 확보하고 공병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지뢰를 埋設한 다음 포병의 차단사격下에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敵은 이날 밤에 세차례에 걸쳐 제3중대 正面으로 夜襲을 감행 하였으나 近接戰으로써 이를 격퇴하고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10월 30일 : 이날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군단에 공중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제23연대는 이날 중으로 期必코 △1,211를 탈취토록 督勵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金淙舜대령은 高地 F를 확보중인 제1대대로 하여금 그 西쪽능선을 따라 △1,211를 直衝케 하고 배속중인 제18연대 제1대대는 砲兵과 공중지원下에 同高地의 東北쪽으로 迂回토록 措置하였다.

1. 제1대대(장, 安永善소령)는 이날 未明에 敵의 奇襲으로 말미암아 한때 高地頂上에서 물러선 바 있으나 과감한 逆襲으로써 敵을 격퇴하고 陣地를 回復하는 즉시로 연대 수색중대의 지원下에 △1,211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미리 마련된 화력據點에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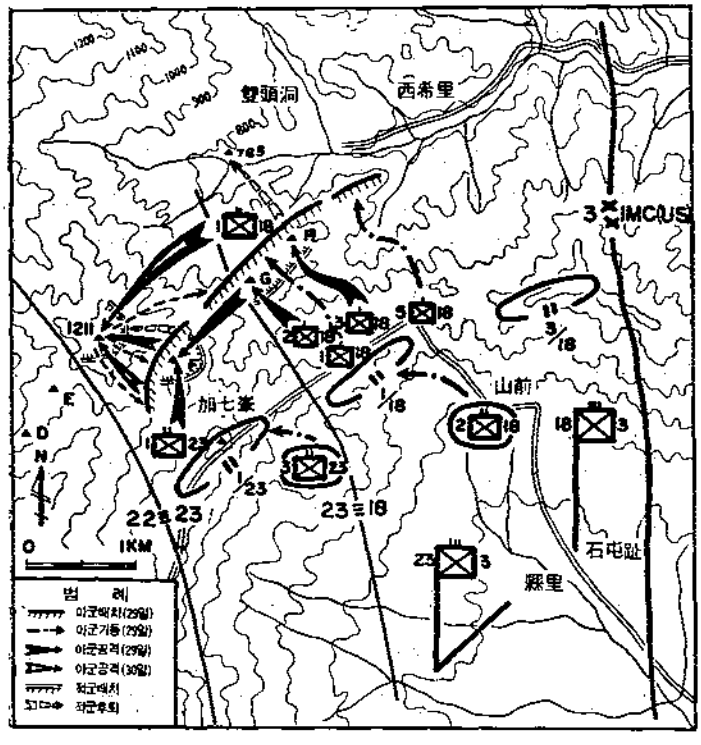
동화기의 斜射와 側射 그리고 수류탄의 集中使用으로 집요하게 대대의 進路을 가로 막고 野砲와 박격포화로써 크게 위협하였으며 이 틈을 노리고 1개대대규모의 敵이 陣前출격으로써 오히려 高地 F의 奪還을 노리는 듯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포병엄호사격을 요청하는 가운데 高地 F를 確保하면서 敵의 銳鋒을 碎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는 一方으로 △1,211攻略을 재개하였는데 또 한번 頑强한 저항에 부딪쳐 그 進展이 如意치 않았다. 이렇듯 高地 F와 △1,211사이의 稜線에서 進退가 無常한 攻防戰이 반복되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이날도 종내 △1,211에 대한 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00에 다시 高地 F에서 야간방어로 轉換하였다.

敵은 夜暗을 이용하여 1개 중대규모로 逆襲하였으나 대대는 至近距離까지 이 敵을 誘引하여 놓고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고 말았는데 도합 16具의 遺棄 屍體에 哭鬼가 啾啾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斗業소령)는 전날에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加七峯의 主陣地帶를 계속 확보하면서 제1대대의 △1,211공격을 지원하였다.

3. 제18연대 제1대대(장, 孫榮鎭소령)는 無名高地 H—G—F에 이르는 일대를 확보 하였는데 이날 제23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준비사격에 뒤 이어 美 空軍의 전폭기 1개편대가 △1,211—△785—雙頭洞—매봉(鷹峯 △1,290) 일대를 强打하는 가운데 목표인 △1,211를 東北쪽에서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敵의 저항을 制壓하면서 △1,211 東北쪽 능선으로 迂回한 대대는 09.00를 期하여 대대 81mm박격포의 엄호사격下에 强襲을 斷行하나 敵은 기관총과 박격포의 지원下에 頑强하게 버티었으나 대대는 포복과 躍進을 거듭하면서 敵陣으로 近迫하였다. 그러나 공격의 進展에 따라 西北쪽의 敵은 대대의 側方을 위협하므로 대대장은 포병엄호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제11포병대대는 군단 砲兵의 화력증원下에 △1,042

◇ 상황도 제24호 1211高地 攻防戰



(△1,211 西北쪽 1Km)—雙頭洞—매봉에 集中打를 加하고 8″砲 1개중대는 對砲兵사격으로 敵砲를 制壓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 입게 된 대대는 특공組의 수류탄공격으로 敵의 기관총을 침묵시킨 다음 16.00를 期하여 突進키로 하였다. 그러나 高地 F의 西쪽능선에서 直衝키로 된 제23연대 제1대대의 공격이 진전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1,211 일대의 敵이 그 防禦力을 대대正面으로 증강하고 화력을 집중하게 되어 끝내는 頂上에 올라서지 못하고 17.30에 高地 H—G를 連한 線으로 反轉하였는데 이때에 雙頭洞일대의 敵은 대대를 兩翼으로 포위하려는 듯 하였다. 이에 대대는 즉각 誘導된 81mm박격포에 뒤 이은 포병의 엄호사격과 전날에 高地 H 東쪽능선에 前進陣地를 확보한 제18연대 제5중대의 엄호下에 敵을 阻止하는 一方, 포위망을 다시 逆包圍하고 突進部隊를 또한 突破하는 亂擊을 거듭하면서 전날의 陣地로 撤收하였다. 그런데 敵은 밤사이에 계속 夜襲을 試圖하였으나 과감한 接近戰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10월 31일 : 전날부터 일부의 攻勢移轉을 서슴치 않던 敵은 이날 未明에 北傀 제2사단의 예비인 제4연대의 증원下에 高地 H—G—F線을 목표로 出擊함으로써 雙方間에 熾烈한 攻防戰을 보이게 되었다.

1. 제1대대(장, 安永善소령)는 終夜토록 거듭된 敵의 逆襲을 격퇴하고 高地 F를 확보하였는데 右隣接인 제18연대 제1대대가 敵襲을 받아서 紛戰하기에 이르자 이를 지원하고 그 隨意撤收를 엄호하였다.

2. 한편 제3대대(장, 金斗業소령)는 전날에 이어 加七峯의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제18연대 제1대대正面을 뚫게 된 敵이 高地 F의 東쪽까지 노리고자 하는 氣勢를 보이자, 81mm 박격포는 차단사격을 계속 하였으며 예비로 있는 제9중대는 逆襲態勢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3. 제18연대 제1대대(장, 孫榮鎭소령)는 高地 H—G—F線을 점령하고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격퇴하였다. 이날 04.00에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의 黎明을 利用한 出擊을 물리친 바 있었는데 15.00부터 1개 대대규모의 敵이 左第一線인 제2중대 正面을 突破코자 집중공격을 敢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대는 포병의 엄호사격과 수류탄의 集中으로 이 敵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나 이때 無名高地 H의 東쪽능선을 占有中인 제5중대를 迂回한 일부의 敵이 대대를 右側背에서 위협하고 또 正面에서의 梯波공격으로 戰況이 漸次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은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고, 대대는 제1중대의 엄호下에 19.00까지 逐次로 山前에 집결한 다음, 제23연대로부터의 배속이 解除되었다.

한편 제1중대는 敵의 侵襲을 阻止하면서 대대主力의 撤收를 엄호하였는데 제2대대로 배속과 동시에 高地 H—G에 대한 逆襲을 준비하였다.

한편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戰況이 이에 이르자 일부의 部署를 변경키로 하고 이날 21.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125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1월 2일 10.00을 期하여 각 연대를 재배치하려 한다.

② 제18연대는 主抵抗線의 陣地와 前進陣地를 제23연대에 引繼하고 縣里부근에 집결하라.

但, 연대특공대와 수색중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라.

③ 제22연대는 제23연대의 加七峯陣地의 일부를 인수하고 1개대대를 同日 14.00까지 △885부근에 집결시켜 공격을 준비토록 하라.

④ 제23연대는 加七峯의 일부陣地를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제18연대의 主陣地와 前進陣地를 인수 확보하라.

但, 사단 수색중대 및 제18연대의 일부병력(특공대 수색중대)을 배속한다.

⑤ 제11포병대대는 現位置에서 사단을 일반지원하라.

⑥ 공병대대는 同日 12.00附로 1개중대를 제18연대에 배속하라.

⑦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 한다.

⑧ 사단 CP는 제속 골말에 위치한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사단作命 제125호(51.10.31 21.00)로써 △1,211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11월 2일에 제23연대를 右一線, 제22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New Minnesota線上의 主陣地를 調整하고 高地 H—G—F와 △1,052—高地C의 前進陣地를 강화하였다. 한편 제18연대는 사단예비로서 縣里(萬岱里 西北쪽 3Km) 부근에서 새로운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무렵 敵은 主要前進據點을 잃었으나 主據點인 △1,211에 대한 威脅을 排除하기 위한 方便으로 北傀 제2사단의 예비인 제4연대의 增援下에 高地 H—G—F에 逆襲을 계속 試圖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11월 16일에 하달된 육본 作指 제108호에 따라, 美 제10군단으로 부터 육본直轄로 됨으로써 탈취의 뜻을 펴지 못한 채로 美 제7사단 제17연대에 작전임무를 인계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사단은 22일에 사단지휘소를 竹里로, 제18연대는 水仁里로, 제22연대는 松亭里로, 그리고 제23연대는 楸谷里로 각각 轉進하였는데 25일에는 北進 당시부터 제23연대를 지휘하여 赫赫한 武功을 세운 바 있는 金崇舜대령이 李南浩중령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고 離任하였다.

10월 27일이래 △1,052와 △1,211에 대한 공격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502명	戰死	132명
捕虜	19명	負傷	182명
鹵獲			
機關銃	9정		
多發銃	47정		
小銃	81정		
自動小銃	2정		
手榴彈	160발		

§ 參戰者의 證言

◇ 제23연대 作戰主任將校 姜成熙소령

(1973, 12, 22, 한영주식회사에서, 예 대령)

제23연대는 제5사단의 제27, 제 36兩연대의 일부 陣地를 引受하여 사단中央으로서 加七峯(△1,242)의 主陣地를 담당하고 威力搜索과 埋伏戰을 계속 하였다. 10월下旬에 접어 들면서 제1대대가 제3대대의 뒤를 이어 △1,211에 못지 않은 堅固한 據點을 형성한 △1,211 東南쪽의 無名高地를 공격하여 凄絶한 激戰끝에 이를 奪取하자 다음날에는 그 西쪽 稜線으로 공격하여 △1,211를 奪取토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에 연대 OP인 加七峯頂上에서 觀測하였더니 제1대대가 공격을 開始하지 않기에 연대장 金淙舜대령에게 보고하고 나는 無名高地로 직접 나가 보았다. 제1대대는 이날 未明에 敵의 奇襲으로 無名高地頂上을 상실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채 이를 再奪還코자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로 이 狀況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수색중대의 增援을 건의하였다. 그 後에 나는 無名高地에서 제1대대의 △1,211공격狀況을 把握中 敵彈으로 負傷을 입고 후송되었다.

◇ 제23연대 제3중대 제3소대장 金致局소위

(1973, 12, 20, 육군연구발전사령부에서, 대령)

나는 소대장으로서 △1,211의 敵의 主要前進據點인 無名高地공격에 參加하였다.

내가 지휘하는 소대는 명령수령중에 분대장 2명이 負傷하여 예비소대로서 主力을 後續하다가 敵의 치열한 사격으로 대대의 공격이 停滯하자 우리소대도 第一線으로 突進하면서 迂回공격 하였다. 대대는 混戰亂鬪끝에 無名高地를 奪還하였는데 다음날 새벽에 1개대대규모의 敵이 四方으로 逆襲하여 血戰의 보람 없이 頂上을 失陷하였으나 날이 밝자 다시 공격하여 이를 再奪還하였다. 대대는 계속하여 金日成高地로 불리어지는 △1,211를 공격하였으나 敵의 치열한 砲擊과 逆襲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격을 中止하였다. 이때 우리 소대는 33명에서 13명으로 兵員이 줄고 있었다.

§ 戰　訓

◇ 병력의 집중運用과 과감한 전투지휘

△1,211(金日成高地)는 敵이 休戰會談을 전후하여 戰線이 小康狀態에 빠진 틈을 타서 砲擊과 爆擊에도 능히 지탱할수 있는 據點을 형성한 要衝으로서, 北傀 제2군단 主力이 이를 중심으로 固守코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40여일간에 걸친 제5사단의 紛戰으로서도 능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데도 군단은 轉進 數日에 불과한 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함으로써 無理를 초래한 바 없지 않다.

또 사단은 敵情과 地形에 부합된 用兵을 하지 못하고 瞬發的인 用兵에 치우친 바 있으니 "攻必取"의 信念없이 局部的인 戰況에 眩惑된 바 없지 않다.

싸움은 戰爭놀이가 아니오, 死生之地 存亡之道이니 周到綿密한 준비로써 夜暗을 이용하는 接敵運動과 天明을 이용하는 砲火의 집중으로 期於코 一擊으로 敵陣을 奪取토록 하여야 할 것인데 白晝에 敵陣앞에 攻擊線을 노출한채 공격목표만을 指向케 한다는 것은 百害가 있을 뿐이고 一利도 없을 것이다.

또 싸움에 臨하는 지휘관은 一旦 결심하고 奪取를 명령한 이상, 全戰力을 傾注하는 措置와 此事不成이면 死不還이라는 臨戰無退의 정신으로 전투지휘에 臨하여야 할 것인데 번번히 撤收케 한다는 것은 장병의 士氣에 미치는 바 영향은 물론 戰勝을 期待키 어려울 것이다.

3. 魚隱山 南側地區 戰鬪 (1951년 10월 6일부터 1951년 10월 2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1호
상 황 도 제2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8사단 장 준장 崔 榮 喜	제50포병대대 장 중령 韓 光 先
제10연대 장 대령 鄭 剛	(10.16부로 제16포병대대와 교체)
제1대대 장 소령 車 萬 石	제110重박격포중대
제2대대 장 소령 金 光	지원부대
제3대대 장 대위 金 斗 星	제27포병대대
제16연대 장 대령 李 存 一	美 제196포병대대
제1대대 장 소령 朴 海 軾	美 제300포병대대
제2대대 장 소령 韓 丙 甲	美 제780포병대대
제3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美 제5공군
제2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右인접부대
제1대대 장 소령 金 光 哲	美 제2사단 장
제2대대 장 소령 金 同 會	소장 Robert N. Young
제3대대 장 소령 崔 孝 三	(10.23부로 美 제7사단과 교체)
배속부대	左인접부대
제16포병대대장 중령 文 在 駿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敵 軍	
北傀 제5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제204사단 主力
제12, 제32사단 主力	(10.10부로 北傀 제5군단과 교체)
中共 제68군	

나. 전투 전의 개황

제8사단은 1951년 10월 1일 白石山(△1,142)을 결령확보하고 中東部戰線 Punch bowl 西壁일대의 主보급로(楊口—松峴里—文登里)에 대한 北傀 제5군단의 反擊에 대한 機先을 제압하는 동시에 사단정

면 11Km에 걸쳐 敵軍장악下에 있는 縱深깊게 중첩된 高地群을 계속 공격하게 되었다.

이 高地群은 사단右翼의 白石山(△1,142)—△1,050—△1,120—△1,220—魚隱山(△1,277)으로 北上하는 능선과 사단左翼의 北漢江上流 東岸에서 東北쪽으로 北走하는 △892—△922—△1,065—△977—△1,090—△1,220의 능선이 主脈을 이루어 美 제10군단의 左翼진출을 阻害하는 바 된 天然의 障壁이었다.

1951년 10월 상순(5일 이전) 현재 사단의 右인접 美 제2사단은 「피의 稜線」(제5사단이 1951. 8. 22에 점령)을 초월하여 文登里 東南쪽 5Km 일대의 「斷腸의 稜線」(△666, △894, △728, △750, △931)을 공격중이었다.

따라서 사단의 次期作戰은 美 제2사단이 수행중인 이 군단主攻을 左翼面에서 엄호하는 군단助攻인 동시에 左인접 제6사단의 Nomad線(金城의 南쪽)진출에 호응하여 文登里—魚隱山(△1,277)線을 목표로 하는 制限공격의 進出線을 일거에 北上시키는 戰略上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 사단정면의 北傀 제5군단 예하 제12, 제32 兩사단은 6개월전 現戰線에 투입된 아래 我軍 제7, 제8 兩사단의 攻勢로 막심한 出血을 강요당하여 전투능력이 크게 저하된 듯 하였으며 특히 白石山에 배치되었던 제12사단(1951. 9. 28부 제32사단의 방어 임무를 인수)은 我軍 제8사단의 猛攻(제2차 白石山戰鬪)으로 1개 연대병력이 潰退하게 되자 10월 5일 현재 我軍 제10연대정면인 白石山—△1,050—△1,220일대와 △1,005—西南능선일대에 새로운 防禦線을 急編하였으며 한편 同 군단右翼으로 전환한 제32사단은 我軍 제16연대정면인 △743와 △650에 主力을 배치하여 六谷溪谷을 防禦제1선으로 急編하고 我軍 제21연대정면인 △922—△891에 제2연대 主力을 배치하였으며 제3연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제12사단 제3연대와 더불어 魚隱山(△1,277)방어의 최종要部인 △1,220—△1,090능선을 主抵抗線으로 急編한 듯 하였다.

그러나 我軍 各연대의 捜索中隊와 各대대의 捜索小隊 및 諜報隊의 수색정찰 결과 北傀 제5군단은 9월 중순 현재 江原道 淮陽(新高山 東南쪽 25Km)에 집결중이던 中共 제20兵團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10월 10일부로 교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中共 제204사단(推定兵力 8,000)은 방어임무를 인수하는 즉시로 사단 OP를 魚隱山(△1,277)에 설치하고 右一線 제612연대를 我 제16, 제21 兩연대의 정면(연대 OP는 △1,090)에, 中央一線 제611연대를 我 제10연대의 정면(연대 OP는 △1,220)에, 左一線 제610연대를 美 제2사단의 左翼일부정면(연대 OP는 魚隱山 南쪽 2Km의 △1,090)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主裝備는 迫擊砲 75문(82mm 20문, 60mm 55문, 120mm 및 105mm는 數未詳), AA 12문, 重機 46정, 輕機 120정, 數未詳의 直射砲(92년式 70mm)와 蘇式野砲 및 로켓트砲등이고 分隊長級이상은 多發銃, 병사는 蘇式小銃으로 무장하였으며 병력은 5,000명으로 추정되었다.

捕虜진술에 의하면 이 부대는 1949년 中共본토 河北省에서 遊擊隊를 기간으로 편성하여 華北地區衛戍部隊로서 京漢線沿邊에 주둔하다가 1950년 12월 天津 倉縣에서 2개월간의 野戰훈련을 마친 다음 1951년 5월 21일 鴨綠江을 넘어 韓國戰線에 투입된 後부터는 徒步行軍으로 定州—博川—安州—雲山—陽德—馬轉里를 거쳐 元山에 도착하자 我軍의 元山上陸作戰에 대비한 海岸警備를 맡고 있던 次에 通川—化川里—淮陽(9월 16일에 도착)으로 급거 이동하여 現戰線에 투입되었다고 하며, 처음으로 正規作戰에 참가하는 부대인만큼 출동직전에 每人當 10일분의 식량(미수가루)과 冬服을 비롯한 각종피복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운 부대를 급거 투입한 敵의 作戰計劃은 戰略的要部인 △1,220—△1,090—△1,065線을 끝까지 확보하고 我 제8사단에 점령당한 白石山(△1,142)—△1,024線을 재탈환하여 文登里로 北上하는 主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我 제10군단의 전면적인 진출을 저지하려는 企圖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敵이 점령중인 現防禦線에는 평균 700~1,000m의 高山峻嶺이 중첩되어 있으며 各高地마다 45°~70°

의 急斜面에 울창한 山林과 험준한 岩石이 깔려있기 때문에 攻者에게는 극히 불리한 반면에 防者에게는 유리한 地勢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文登里溪谷과 北漢江上流의 東西양면으로 分水嶺을 이루고 있는 白石山—魚隱山능선상의 連峰과 水於口—大谷間의 溪谷일대를 扼하고 있는 高地群은 迷路의 장벽인 듯 하였다.

我軍의 상황 : 사단은 10월 1일 06.00 현재 접령확보한 白石山—△894—△521—△621—△892—△602線에서 次期공격작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右一線인 제10연대는 연대 OP를 △1,024로 추진설치하고 白石山의 右側峰(△1,040)에 右제1선인 제2대대를, 主峰에 中央제1선인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背斜面上의 공격開始線에 左제1선인 제3대대를 집결시켰다. 또 中央1선인 제16연대는 연대 OP를 △940(白石山 西南쪽 1.2Km)로 전진시키고 △894(△940 南쪽 0.8Km)에 右제1선인 제2대대를, △780(△894 西南쪽 0.5Km)에 中央제1선인 제3대대를, 大谷溪谷을 瞰制하는 △521(△894의 西南쪽 要部)에 左제1선인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白石山공격 기간중 △772—△917線에서 사단의 左側面을 방어하고 있던 左一線 제21연대는 연대 OP를 △602(水於口 北쪽 3Km)로 추진설치하고 △621(大谷溪谷을 끼고 △521 西쪽에 인접)에 右제1선 제2대대를, △892(△621 西南쪽 1.8Km)에 中央제1선 제1대대를, 그리고 △602에 左제1선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의 공격전진을 엄호하게 되는 支援砲兵인 제16포병대대(105mm)는 縣里에, 美 제780포병대대(8″)는 陽地村에 각각 위치하여 正面火網을 구성하였으며 美 제196(155mm), 美 제300(105mm) 兩포병대대는 祠堂洞(白石山 東쪽 3.7Km)으로 전진하여 右側方으로부터의 側方火網을 구성하였다.

사단 工兵대대는 각연대에 1개 소대씩 배속시켜 前進路上의 지뢰를 제거케 하는 한편 楊口—下牛里—於斗員里—文登里의 主보급로와 高地推進보급을 위한 각 小路(於斗員里—頂嶺, 於斗員里—△883—仙儀垈, 縣里—述元里, 五味里—述元里, 水於口—長財垈)를 계속 보수하며 楊口—華川貯水池—水於口間의 水上보급로를 개척하였다. 특히 華川저수지를 이용하는 이 水上보급로는 1회 왕복으로 능히 大隊單位 1일 보급량(식량 및 탄약)의 수송이 가능한 利點을 안고 있었다.

기간중의 氣象은 청명한 가을날씨가 계속되어 항공 근접지원이 용이하였으며 拂曉무렵에 濃霧가 자주 끼는 까닭으로 接敵행동에는 유리한 편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0월 초순 현재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은 Punch bowl西壁의 進出線을 급거 北上시키기 위하여 美 제2사단(장, Robert N. Young 소장)으로 하여금 文登里를 指向하는 군단主攻을 담당케 하는 한편 白石山—△894—△892線을 접령확보중인 제8사단에 대하여서는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240호(1951. 10. 3부)를 하달함으로써 군단의 助攻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제8사단은 △1,050를 접령확보하라. 공격은 1951년 10월 6일 06.00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922, △726에 강력한 偵察隊를 파견하여 이 지역에 정찰기지를 설치하라.

③ 군단명령이 있을 時, 谷內—△1,220—△1,065의 高地일대를 점령확보할 준비를 갖추라.』

이 作戰指示는 「피의 稜線」을 초월하여 文登里 東南쪽(斷腸의 稜線)으로 진출중인 군단 主攻을 左側方에서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敵의 反擊企圖를 미연에 배제하는 동시에 제8사단으로 하여금 白石山을 거점으로 하는 공격정면의 高地群을 魚隱山(△1,277)線까지 공략하여 北漢江上流를 사이에 둔 左인접 美 제9군단의 金城進出에 호응케 하려는 군단작전계획의 一環이었다.

군단作戰命令을 수령한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우선 다음과 같은 6개 諜報基本要素를 分析키로 하였다.

① 敵은 △1,050—△1,220 일대의 防禦線에 예비대(제12사단 제2연대)를 증원할 것인가?

② △1,005—西南능선 일대의 제12사단 제3연대는 어느 정면을 주로 방어할 것인가? 만일 사단정면에 主力을 둔다면 攻勢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할 것인가?

③ 제32사단의 主力은 제12사단과 연결하여 제10연대의 左側方으로 공격을 加할 것인가?

④ 敵은 어느 線까지 후퇴할 것인가? 또는 계속 방어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병력으로 反擊을 취할 것인가?

⑤ 제6군단 제18사단이 文登里 西南쪽 1.7Km지점에 집결中이라는 바 이는 增援部隊인가? 交代部隊인가? 또는 先發部隊인가?

⑥ 捕虜진술에 의하면 中共軍이 사단정면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 바 그 徵候는 어떠한가?

이 결과 敵의 主抵抗線으로 지목되는 △1,220—△1,090—△977線까지의 진출이 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全 作戰을 3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공격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1단계 : 敵의 主抵抗線을 攻略하는 前進據點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연대는 목표 A(△1,50)를, 제16연대는 목표 C(△620)—D(△650)—E(△730)—F(△743)—G(△752)를, 제21연대는 목표H(△922)—I(△891)—J(△726)를 점령한다.

제2단계 : 제1단계의 進出線에서 공격을 속행하여 제10연대는 목표 B(△730)—K(△1,120)—L(△1,090)을, 제16연대는 목표 M(△977)—N(△1,054)을, 제21연대는 목표 O(△1,065)—Q(△920)—R(△748)을 점령한다.

제3단계 : 제2단계로 점령확보한 △1,090—△977—△1,054—△1,065의 능선과 △920—△748의 능선에 前哨縱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6연대는 목표 P(△931)를, 제21연대는 목표 S(△680)—T(△319)를 점령한다.

이와같은 作戰構想下에 제1단계 공격開始시간을 10월 6일 06.00로 확정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전명령 제137호(10. 3. 20.00부)를 하달하였다.

『① 左인접 제6사단은 現防禦線을 확보중이며 右인접 美 제2사단은 10월 5일부터 △1,005—△867—文登里일대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② 사단은 現 防禦線전방이 있는 主要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次期攻勢에 유리한 前進基地를 확보하려 한다. 美 제300포병대대는 사단공격을 일반지원할 것이다.

③ 제10연대는 목표 A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라.

④ 제16연대는 목표 C—D—E—F—G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실시하면서 別命이 있을 때에 이 高地를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⑤ 제21연대는 목표 H—I—J에 대한 威力搜索을 실시하면서 別命이 있을 때에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준비하라.

⑥ 제16포병대대는 제10연대의 공격을 직접지원하라.

⑦ 공병대대는 10월 4일 12.00까지 各연대에 1개 중대(—1개 소대)씩 배속시켜 공격기간중 지뢰제거, 前進路개척, 목표확보에 긴요한 工事에 任하도록 하라.』

각 연대장은 사단행정명령 제21호(1951. 10. 4. 16.00부)에 의거 非常用식량(白米) 3일분을 10월 5일 20.00까지 대대단위로 확보하고 迫擊砲彈(81mm, 60mm) 및 無反動銃彈(75mm, 57mm)을 각 一門當 500발씩을 확보하였다.

(2) 작전실시

(가) 제1단계(10.6~10.12)

제1단계의 主攻目標인 △1,050는 △1,220에서 白石山으로 뻗어내린 능선上의 중간에 솟아 있으며 東西兩面으로는 험준한 急斜面을 이루고 正南쪽으로는 白石山까지 곧 바른 능선을 이루고 있는 敵制高地로서 그 前面에는 두개의 無名高地(△1,020, △1,088)가 험한 起伏을 형성하고 있다.

연대정면의 北傀 제12사단은 △1,220에 사단 CP를 두고 제1연대를 △1,050—△1,020稜線上에, 제2연대를 △1,005(白石山 東北쪽 2Km)의 西斜面上에 각각 배치하고 白石山戰鬪(제2차)에서 潰退한 대대규모의 병력을 無名高地에 집결시켜 我軍의 공격前進을 극력 阻止하면서 戰機의 一轉에 따라 白石山을 再奪還코자 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 같은 敵의 企圖를 看破한 연대장 鄭 剛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35호(10. 5. 07.00부)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목표 A(△1,050)를 공격하여 점령하려 한다.

② 제2대대(無反動銃 2정 配屬)는 10. 6.05.00까지 LD에 主力을 집결완료하고 同日 06.00를 期하여 공격개시하여 목표 A를 점령확보하라.

③ 제1대대는 現陣地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제2대대의 공격을 필요한 화력으로써 支

援하라.

④ 제2대대는 現陣地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右隣接 對戰車공격대대와 긴밀한 連繫를 유지하면서 제3대대의 공격을 필요한 화력으로써 지원하라.

⑤ 75mm無反動銃 2門을 作戰期間중 제3대대에 배속시킨다.

⑥ 捜索中隊의 배속은 從前과 같다.

⑦ 對戰車공격대대는 10.6.00.30까지 主力을 △1,024일대에 배치완료하고 右隣接 美 제2사단과의 連繫를 유지하라.

⑧ 연대 OP는 최초 △1,024에 위치하고 목표점령後 △1,142로 추진한다.』

10월 6일 :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作戰初日인 이날 목표 A(△1,050)를 향하여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다.

가) 제3대대(장 대리, 金斗星대위)는 03.00에 △1,024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05.00까지 白石山으로 이동하는 즉시로 대대주력을 공격開始線에 진출시켜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를 主攻梯隊로 하여 右제1선에, 제9, 제11 兩중대를 中央과 左제1선에 각각 전개시켰다.

사단에 배속된 제16포병대대(장, 文在駿중령)는 05.30에 일제히 砲門을 열어 30분간에 걸친 공격準備射擊(105mm砲彈 2,567發)을 실시하고 06.00를 기하여 射程을 연신함에 따라 대대는 일제히 공격開始線을 통과하였다.

대대는 공격초반부터 白石山背斜面에 進出한 제12중대와 重砲中隊의 지원射擊下에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10.00에 제1차로 無名高地(白石山 北쪽 0.5Km의 連峯)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1,088(無名高地 北쪽 300m의 連峯)와 △1,005(無名高地의 右側方)의 敵陣에서 집중되는 치열한 火網으로 계속전진이 어려워지게 되자 대대장은 곧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결과 美 제5공군소속 F—51戰鬪機의 2개編隊가 2회에 걸쳐(延 8臺) 敵陣을 제압하는 동안(1,000Lb 爆彈 1발, 100Lb 爆彈 32발, 5″ 로켓트彈 24발, 네이팜彈 8발, 22mm 및 50mm 機關銃彈 7,200발) 30~40m 거리를 약진하였으나 아직도 敵의 側方火力이 排除되지 않으므로 18.30 현재 점령확보중인 無名高地에 대대主力을 수습하여 야간逆襲에 대비한 四周 방어陣地를 急編하였다.

나) 제1, 제2 兩대대는 白石山의 現방어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제3대대의 主攻을 화력지원 중 제7중대의 정면으로 수삼차 奇襲을 꾀한 敵 1개소대 병력을 여유있게 격퇴하였다

연대는 이날 射殺 47명, 捕虜 1명, 投降 1명, 多發銃 3정, 小銃 1정의 戰果를 올렸으며 戰死 14명, 負傷 49명의 손실을 보았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現방어陣地를 계속 확보하는 한편 次期作戰에 대비하여 연대정면에 있는 공격 목표 C(△620)—D(△650)—E(△730)—F(△743)—G(△752)의 高地群일대에 걸쳐 威力捜索을 실시하면서 공격명령을 待機하였다.

3. 사단 左一線인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도 공격목표 H(△922)—I(△891)—J(△726)의 高地일대를 威力搜索하는 한편 現방어陣地를 계속 강화하면서 追後의 공격명령을 대기하였다.

10월 7일 : 사단은 전날에 이에 제10연대로 하여금 목표A(△1,050)를 계속 공격케 하는 동시에 제16, 제21 兩연대 정면의 목표 高地群일대에 대한 威力搜索을 반복하였다.

1. 제10연대의 제3대대는 전날에 점령확보한 無名高地의 四周방어 陣地에서 06.00를 기하여 공격전진을 再開하였다. 대대장(대리) 金斗星대위는 제10중대의 主攻임무를 해제하여 右제1선에 배치하고 제9중대(장, 高仁淑중위)에 主攻임무를 부여하여 中央 제1선에, 제11중대(장, 閔昌植중위)를 左제1선에 전개시켰으며 제12중대를 左제1선으로 후속 시켰다.

당면한 공격목표인 △1,088는 東쪽과 東南쪽으로 緩斜面을 이루면서 △1,005와의 사이에 峽谷을 끼고 있으나 이 공격前進路는 완전히 賦制당하여 敵의 집중火網이 稠密하므로 대대의 공격전진이 不振하게 되었다.

대대의 苦戰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 鄭剛대령은 즉각 항공근접지원 및 砲兵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제16(105mm), 제27(105mm), 美 제300(105mm), 美 제196(155mm) 4개 포병대대는 일제히 砲門을 열어 △1,088를 軸으로 하는 △1,050 능선일대에 105mm 砲彈 2,047발과 155mm 砲彈 75발을 집중시켜 대대의 공격을 엄호하였다. 이와 동시에 美 제5공군소속 F—51 戰鬪機의 4개 編隊(延 10臺)는 13.45부터 15.40까지의 공격기간중 △1,088—△1,050 능선과 △1,005의 敵陣地일대에 對地攻擊으로 로켓트彈 30발, 100Lb 爆彈44발 4Lb 爆彈 10발, 50mm 機關砲彈 640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1,050의 前面要部인 △1,088를 固守하려는 敵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므로 대대는 各중대에 水冷式重機를 배속하여 火力을 증강토록 하였으나 攻擊前進이 如意치 못하여 18.00 현재 日沒과 더불어 전날의 進出線을 再確保하면서 야간四周방어陣地를 急編하였다.

한편 白石山의 現방어陣地를 占有중인 제1, 제2 兩대대는 제3대대의 攻擊을 화력으로써 지원하였으며 對戰車攻擊대대는 △1,024—△901線에서 自隊방어에 임하면서 右隣接美 제2사단과의 連繫를 유지하였다.

이날의 전과는 射殺 30명, 捕虜 6명이며 損失은 戰死 2명, 負傷 40명(장교2명)이었다.

2. 제16연대는 연대정면의 高地群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반복한 결과 北傀 제5군단 제32사단 예하 제1연대가 △743에 제1대대를, △650에 제2대대를, △730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長財垈를 중심으로 하는 大谷溪谷의 要部를 扼守中임을 확인하였다.

3. 제21연대도 연대정면의 각 공격목표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계속한 결과 北傀 제32사단 예하 제2연대가 목표 H(△922)에 제1대대를, 목표 I(△891)에 제3대대를, 목표J(△726)

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警戒部隊의 일부병력이 연대 左제1선인 제3대대의 전방 松亭子부근에서 出沒하고 있음을 探知하였다.

10월 8일 : 北傀 제5군단이 中共部隊와 교체될 것이라는 諜報가 이날 入手되는 동시에 敵情이 갑자기 활발해지자 사단은 정확한 情報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6, 제21 兩연대로 하여금 威力搜索을 강화케 하는 한편 제10연대의 공격전진을 가일층 촉구하게 되었다.

1. 제10연대 제3대대는 전날의 공격隊形을 유지하면서 05.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主攻인 제9중대는 전날 20.00 현재 점령하고 있던 四周陣地의 一角에서 勇躍 進出하여 이날 09.00 현재 △1,088의 中腹까지 彈雨를 무릅쓰면서 일거에 육박하였다. 그 동안 右一線의 제10중대와 左一線의 제11중대는 제9중대의 육박前進을 側方에서 엄호하였으며 左一線을 후속하는 제12중대와 白石山의 背斜面에 위치한 重砲中隊는 화력지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088의 中腹까지 진출한 제9중대는 그 곳에서 1개 중대규모의 敵과 激突하여 치열한 接戰끝에 이를 擊破하고 09.30에 頂上을 점령하였다. 중대는 곧 능선上의 1Km 前方에 있는 목표 A(△1,050)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공격전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 中間地點에 無名高地(△1,088 北쪽의 連峯)가 막아 서듯이 堅固한 방어據點을 이루고 있었다.

地利를 이용하여 掩體壕를 구축한 敵은 능선을 완전히 壓制하면서 接近路上에 치열한 火網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중대는 공격前進을 일단 멈추고 항공근접지원과 砲兵지원사격을 기다리게 되었다.

2. 美 제7함대소속 F—44 艦載戰鬪機 1개 編隊 4대는 14.30에 출동하여 15분간에 걸쳐 接近路 右側方인 △1,005일대의 陣地에 對地공격으로 1,000Lb 爆彈 8발과 100Lb 爆彈 24발, 그리고 5″ 로켓트彈 24발과 20mm 및 50mm의 機銃掃射를 加하였다.

한편 제16, 美 제300, 美 제78, 美 제196의 4개 포병대대도 일제히 砲門을 열어 無名高地 및 △1,050일대의 陣地에 집중砲擊으로 105mm 砲彈 2,512발과 8″ 砲彈 58발 및 155mm 砲彈 500발을 加함으로써 대대의 공격을 엄호하였다.

3. 이와같이 치열한 지원화력이 敵陣地를 제압하는 동안 제10연대 제3대대는 100m거리를 압축하였으나 또 다시 강력한 敵火網으로 因하여 16.30 현재 △1,088 正斜面으로 각 중대를 일단 後退시켜 제11중대를 前進陣地로 하는 四周방어를 急編케 하였다.

기간중 연대의 제1, 제2 兩대대는 白石山의 現방어陣地를 계속 확보강화하면서 제3대대의 主攻을 화력지원하였다.

4. 제16, 제21 兩연대는 威力搜索을 계속하는 동안 목표 F(△743)—D(△650)부근과 목표 J(△726)—H(△922)부근에서 각각 中共 일부兵力과 接敵 輕戰하였다.

10월 9일 : 사단은 戰鬪偵察 및 威力搜索을 더욱 강화하면서 △1,050에 대한 攻略을 계속키로 하였다.

1. 제10연대는 전날에 확보한 進出線에서 06.00를 기하여 連 4일째의 공격을 계속하였다.

가) 제3대대는 전날과 동일하게 右제1선에 제10중대를, 中央제1선에 제9중대를, 左제1선에 제11중대를 전개하였으며 同日附로 배속받은 75mm無反動銃 (제2대대 OP에 위치) 2정과 4.2〃 重迫擊砲(白石山 南斜面의 溪谷에 위치) 4문, 그리고 제12중대 및 重砲中隊의 全화력을 동시에 집중하여 無名高地의 敵陣地를 강타하면서 突擊을 거듭 하였으나 그 進路가 敵射界에 노출된 탓으로 戰死 2명, 負傷 41명(장교 1명)의 병력손실을 보게 되었다.

대대는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소속 F4U 戰鬪機의 2개 編隊 延7대의 근접지원을 받았는데 △1,220 및 △1,050에 대하여 네이팜彈 20발, 100Lb 爆彈 28발, 20mm 및 50mm의 機銃掃射와 제16, 美 제300, 美 제196 등 3개 포병대대의 2,773발에 達하는 지원砲擊下에 血路中의 躍進을 거듭하여 18.00 현재 突擊線까지 육박하였으나 끝내 敵의 阻止線을 돌파하지는 못하였다.

나) 제1, 제2 兩대대는 現방어陣地를 계속 강화하면서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다) 연대장 鄭 剛대령은 24.00附로 重砲中隊를 제1대대로 배속변경 하였는데 연대의 戰果는 射殺 25명, 投降 2명이었다.

2. 제16, 제21 兩연대는 계속하여 戰鬪偵察 및 威力搜索을 실시한 결과 사단정면의 北傀 제5군단(제12, 제32 兩사단)이 14.00~16.00를 기하여 中共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교체중임을 확인하였다.

제21연대의 전과는 射殺 4명, 捕虜 2명, 多發銃 1정, 수류탄 4발이었다.

10월 10일 : 사단정면의 北傀 제5군단 예하 제12, 제32 兩사단이 中共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陣地를 교대중이라는 情報에 접한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이 好機를 타고 사단의 全正面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목표高地를 점령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결과 이미 공격待機中인 제16, 제21 兩연대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38호(10.10. 08.00附)를 하달하였다.

「① 제16연대는 10월 11일 04.00를 기하여 공격목표 C(△621)—D(△650)—F(△743)—G(△752)를 점령확보하라.

② 제21연대는 10월 11일 04.00를 기하여 공격목표H(△922)—I(△891)—J(△726)를 점령확보하라. 對戰車공격대대를 10월 10일 17.00부터 配屬한다.

③ 제10연대는 목표A(△1,050)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④ 사단 교육대대는 10월 10일 15.00까지 제16연대 및 제21연대에 대하여 75mm 無反

動銃 각 2정을 배속하라.

⑤ 對戰車공격대대는 10월 10일 17.00를 기하여 제21연대장의 지휘下에 들어가는 동시에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라.』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은 6일이후 連 4일간 苦戰을 거듭한 제3대대를 中央예비로 控置하고 제2대대를 右제1선에, 제1대대를 左제1선에 전개시킨 새로운 공격隊形을 갖추어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敵은 北傀 제12사단 제3연대를 中共 제204사단 제611연대와 교체시켜 더욱 增强된 화력으로써 對戰하였다.

가) 右제1선에 전개한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右側方 △1,005로부터 威脅하는 敵의 側射화력을 견제하면서 제1대대의 공격전진에 호응하여 19.40 현재 제1대대가 점령확보중인 無名高地 東쪽 斜面으로 진출하였다.

나) 左제1선인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대대 OP를 白石山(△1,142)으로 추진하고 제3중대(장, 崔鎭玉중위)를 主攻제1선으로 하여 제16, 美 제300, 美 제196 3개 포병대대의 지원사격(105mm 砲彈 1,710발, 155mm 砲彈 542발)과 美 제5공군소속 F4U 戰鬪機 4개 編隊 延 20대의 근접지원下에(로켓트彈 24발, 네이팜彈 8발, 50mm 機銃掃射)에 제4중대 및 重砲中隊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제3대대의 進出線을 초월하였다.

09.00현재 1개 대대규모의 敵이 左側方으로부터 반격을 꾀하였으나 대대는 이를 무난히 격파하고 14.40 현재 목표 A(△1,050)의 前進據點인 無名高地의 최후 阻止線에서 수류탄戰을 감행하였다.

제1선의 제3중대는 중대장 崔鎭玉중위의 과감한 陣頭지휘下에 2시간반에 걸친 勇戰寸進끝에 17.00 현재 목표 A를 蹴制하는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다.

다) 공격임무를 제1대대에 인계한 제3대대는 10.40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16.00까지 白石山의 방어陣地로 이동하는 즉시로 戰列을 재정비하면서 自隊경계에 임하고 重砲中隊는 이날부터 제1대대에 배속되어 공격을 지원하였다.

라) 對戰車공격대대(장, 朴瑞權소령)도 17.00附로 제21연대에 배속이 변경되었는데(사단作命 제138호에 의거) 01.00에 제7중대정면을 奇襲하려던 1개 분대의 敵을 20분간에 걸친 交戰끝에 擊退하였다.

연대는 이날 戰鬪에서 射殺 22명, 捕虜 14명에 LMG 3정, HMG 1정, SMG 2정, 小銃 1정, 수류탄 330발, 實彈 550발을 鹵獲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한편으로는 戰死 6명, 負傷 60명의 손실을 보았다.

2. 제16, 제21 兩연대는 이날도 現방어陣地를 강화하는 한편 사단作命 제138호에 의한 공격 開始前의 戰列을 가다듬었다.

10월 11일 : 사단作命 제138호(10. 10. 08.00附로) 全面공격을 실시하게 된 사단은 右一

線인 제10연대로 하여금 목표 A(△1,050)를 계속 공격케 하고 中央一線인 제16연대로 하여금 목표C(△620)—D(△650)—F(△743)—G(△752)를, 그리고 左一線인 제21연대로 하여금 목표H(△922)—I(△891)—J(△726)를 각각 공격케 하였다.

이날 사단공격을 全面的으로 지원하게 된 美 제5공군소속 F4U 및 F—51 戰鬪機의 5개 編隊 延 19臺는 사단 右側에 있는 △ 1,220에 1회, 목표 A(△1,050)에 2회, 그리고 사단 左側에 있는 목표J(△726)에 2회에 걸쳐 근접지원 하였는데 로켓트彈 76발과 1,000Lb 爆彈을 비롯한 56발의 각종爆彈을 투하하는 동시에 50mm의 機銃掃射를 가하였다.

한편 제16, 美 제300, 美 제196의 3개포병대대는 도합 3,162발을 제10, 제16 兩연대 정면의 각 목표高地에 집중시켜 敵의 火器陣地를 擊破하였다.

1. 제10연대는 06.00부터 제1대대를 선두로 하고 제2대대를 後續으로 하여 6일째 되는 공격을 감행키로 하였다.

가) 제1대대의 제1, 제2, 제3의 3개 중대는 重火器中隊의 支援下에 山腹까지 진출하여 敵 1개 대대규모의 저항을 擊破하고 11.00에 突擊線까지 진출하였다.

나) 한편 後續중이던 제2대대는 제7중대를 右側으로 迂回진출시켜 高地의 東麓을 지나 無名高地를 확보케 하고 제1대대의 공격을 側面에서 지원케 하였다.

敵은 中共 제611연대 예하 1개 중대와 北傀 제12사단 제3연대의 主力이 合流한 1,000여명으로 推算되는 병력으로 高地의 要地要部에 陣地를 구축하고 자동화기와 迫擊砲의 집중화력으로써 끝까지 固守하려고 하였다.

연대장 鄭 剛대령은 △1,024에 위치중이던 연대 OP를 12.00까지 白石山(△1,142)의 南斜面 9部능선으로 추진하여 공격梯隊의 勇戰을 鼓舞하였다.

제1대대의 中央제1선에서 突擊前進中이던 제2중대장 李琴永중위는 지원砲擊의 집중彈幕이 敵陣을 制壓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중대를 일거에 敵前 20m까지 突進시켜 朴戶鉉 이등중사 외 7명의 突擊組를 직접지휘하면서 敵 자동화기 陣地를 수류탄으로 파괴하였다.

연대예비인 제3대대의 左제1선에서 방어陣地를 강화중이던 제9중대의 제1소대 제2분대장 金秉勳 이등중사는 10.00에 분대정면으로 敵 2개 분대가 逆襲하자 침착하게 陣前까지 誘引하여 一發必中의 일제사격으로 敵襲을 분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潰走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射殺 12명, 捕虜 4명의 전과를 올림으로써 分隊員(戰鬪經驗이 부족한 補充新兵)들의 士氣를 振作하였다. 이와같이 연대 전장병은 士氣衝天하여 오늘이야말로 기어코 목표를 점령하고야 말겠다는 鬪魂을 불태우고 있었다.

主攻제1선 제1대대는 항공 근접지원과 砲兵지원사격下에 줄기찬 돌격전진을 거듭하여 목표A(△1,050)의 頂上이 指呼之間에 있는 敵의 主陣地에서 처절한 肉迫血鬪와 수류탄戰을 감행한 끝에 17.20 高地頂上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날의 전과는 射殺 42명, 捕虜 4명, HMG 1정, 손실은 戰死 3명, 負傷 26명이었으며

6일간에 걸친 攻略戰의 종합전과 및 종합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種別 / 隊別	射殺	負傷	捕虜	投降	鹵獲 手榴彈	小銃	多發銃	機關銃
제1대대	62	100	17		330	12	1	16
	215(推定)							
제2대대	2		10	1			1	
제3대대	126	50	5		300	26	11	1
	28(推定)							
對戰車攻擊大隊			1	3			1	
捜索中隊			1					
計	190	150	34	4	630	38	14	17
	243(推定)							

<제10연대 戰鬪詳報에서>

損　　失

種別 / 隊別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戰攻大隊	捜索中隊	計
戰死	/9	/5	/34			/48
負傷	/65	/31	2/118	/3	1/	3/217

<제10연대 戰鬪詳報에서>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사단作命에 따라 04.00에 제1, 제3 兩대대를 攻擊一線으로 하여 목표C(△621)—D(△650)—F(△743)—G(△752)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정면의 敵은 中共 제204사단 제612연대가 北傀 제32사단 제1연대의 陣地를 인수중이었는데 그 裝備는 대체로 완비되어 대부분이 機關短銃과 수류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陣地에는 1개 분대를 수용하는 有蓋壕를 구축하고 己型의 連絡壕로 散兵壕와 연결하는 한편 大谷(△650 北쪽 1.6Km)에 82mm 迫擊砲 4문을, 목표 D(△650)에 60mm 迫擊砲 2문을 배치하고 있었다.

각 목표高地는 江原道 산악지대의 特有한 岩石과 急斜面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목표 G(△752)는 △743일대 능선의 主峰을 이루어 四周를 瞰制하고 있었다.

연대장 李存一대령은 攻擊에 앞서 이러한 狀況을 분석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28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대대는 現방어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제3대대와 併進하여 목표 F(△743)를 탈취한 다음 계속하여 목표 G(△752)를 점령확보하라.

②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제1대대 담당임무를 인수하고 계속 陣地를 확보하면서 別命에 따라 목표E(△730)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③ 제3대대는 제1대대와 連繫下에 목표 D(△650)를 탈취한 다음 계속 목표 C(△620)를 점령하라.』

가) 이에 따라 제1대대(장, 朴海軾소령)는 제3, 제1, 제2 중대를 一線으로 내세워 △521(△743 東南쪽 1.3Km)의 공격開始線을 통과하였다.

제3중대(장, 吳壽宗중위)는 右側에 제1소대(장, 劉明鉉일등상사)를, 中央에 제2소대(장, 金東洙이등상사)를, 그리고 左側에 제3소대(장, 金萬俊이등상사)를 내세워 迫擊砲와 로켙트砲의 지원射擊下에 공격을 감행한 결과 05.00에 北漢江으로 흐르는 大谷溪谷을 넘어 敵의 輕微한 저항을 물리치고 06.00에 목표 F(△741)를 점령하였다.

제2중대(장, 金燦起중위)는 제3중대가 점령확보한 △743를 초월하여 계속전진한 다음 09.00에 無名高地(△743의 西北쪽)를 점령하였으며 제1중대(장, 吳世福중위)는 제2, 제3兩중대의 지원下에 14.00 현재 △752의 150m전방까지 돌진하였으나 敵 82mm 迫擊砲의 집중彈幕으로 因하여 16.00 현재의 進出線에서 防禦陣地를 急編하였다.

나)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대대 OP를 仙儀堡로 이동하여 제11중대(장, 徐甫錫중위)를 右제1선에, 제9중대(장, 鄭雲福중위)를 左제1선에 각각 전개하고 제10중대(장, 金學鳳중위)를 예비로 하여 04.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梯隊는 목표D(△650)의 東麓을 끼고도는 峽谷지대를 단숨에 초월하여 高地中腹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되었다.

제11중대는 高地 東쪽의 6部능선上에서 제1(장, 李康鳳소위), 제2(장, 申鉉模 일등상사) 兩소대를 高地右側方으로 迂回케 하였으나 불리한 地勢와 敵의 집중화력으로 因하여 突擊이 如意치 못하였다.

제9중대는 13.00부터 3~5명의 突擊組를 편성하여 高地中腹의 進出線에서 3회에 걸친 突進을 반복하였으나 敵의 집중화력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12중대(장, 朴在東중위)는 제2대대로부터 배속된 81mm 迫擊砲 3문과 中隊迫擊砲 4문을 長財堡 東쪽 능선에 배치하여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연대는 이날 射殺 124명, 捕虜 4명, 投降 1명, LMG 1정, SMG 1정, 60mm迫擊砲 1문, 手榴彈 420발의 戰果를 올렸으나, 戰死 2명, 負傷 82명(장교 2명)의 손실을 보았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제1, 제3 兩대대를 공격梯隊로,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04.00에 목표 H(△922)—I△(891)—J(△726)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목표高地群은 △1,055의 西南능선을 掩蔽하는 峻嶺으로서 그 험준한 四周斜面과 岩石

및 森林은 攻者에게 불리한 與件이 되었다.

敵(北傀 제12사단 제32연대와 교대한 中共 제204사단 제612연대)은 이 防者에 유리한 地勢를 이용하여 1개 분대를 수용하는 橫穴壕를 L형의 連絡壕로 연결하였으며 每人當 小銃實彈 300~400발, 多發銃彈 250~350발씩 지급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또한 △1,035 西北쪽 능선에 82mm 迫擊砲 3문을 배치하고 北傀軍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直射火網을 구성한 것으로 보였다.

연대장 全富一대령은 이와같은 敵情을 분석한 결과 각 대대의 공격部署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연대作命 제19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대대는 無名高地(△922 東南쪽)를 점령한 다음 계속 전진하여 목표 H(△922)를 확보하라.

② 제2대대는 제1, 제3 兩대대의 공격間 연대예비로서 공격梯隊를 화력지원하되 제1대대가 △922를 점령하면 △922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I(△891)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목표 J(△725)를 점령한 다음 제1대대와 협동하여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연대의 공격前進을 직접지원하게 될 81mm 迫擊砲는 水於口 北쪽 1.2Km 地點에 2문, △602의 西南쪽 斜面에 4문, △892의 背斜面上에 10문이 배치되었다.

가)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는 右一線에 제2중대(장, 廉昌守중위)를, 中央一線에 제3중대(장, 林鳳泰중위)를, 그리고 左一線에 제1중대(장, 呂甫淵중위)를 전개하여 05.00에 사단교육대대로부터 배속받은 無反動銃과 重火器中隊의 지원射擊下에 集結地의 西北쪽 능선을 따라 前進하였다.

목표 F(△922)의 接近路上에 불규칙하게 깔려있는 지뢰群을 제거하면서 11.00에 敵陣地前 1Km까지 躍進한 대대는 1개 중대규모의 敵과 20분간에 걸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고 계속 전진하였으나 敵의 側方화력에 당면하여 18.00 현재 無名高地의 中腹에서 방어陣地를 급편하였다.

나) 제3대대(장, 崔孝三대위)는 04.00에 제10중대(장, 鄭逸浩중위)를 右一線에, 제11중대(장, 金仁燊중위)를 左제一線에 내세우고 제9중대(장, 金明河중위)를 예비로 하여 前進을 시작하였다.

목표 J(△726)는 北漢江으로 흘러내리는 急斜面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敵은 이 地勢를 이용하여 수류탄을 무수히 투척하면서 저항하였다.

그러나 제10중대는 重火器中隊의 직접掩護下에 突進을 거듭하여 11.00에 高地頂上의 東쪽 600m의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치열한 射擊戰으로 左제1선 제11중대의 進出을 엄호하였다.

제11중대는 머리위로 부터의 수류탄의 彈幕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린 步步寸進을 거듭하여 목표高地의 西쪽 능선으로 육박하였다.

대대장 崔孝三대위는 15.00에 예비인 제9중대를 공격梯隊와 合勢케 하여 제11중대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高地의 東쪽 능선上에서 사격을 집중하고 있는 제10중대로 하여금 現進出線을 固守케 하여 제11중대로 하여금 2~3회에 걸친 短兵急戰을 감행케 하였으나 敵의 阻止線을 돌파하지는 못하였다.

다) 연대예비인 제2대대는 攻擊梯隊를 火力으로 支援하면서 이날 17.00附로 연대에 배속된 對戰車공격대대와 함께 공격間 主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6명, 生捕 1명, LMG 1정, SMG 1정, 小銃 4정이며, 손실은 戰死 14명, 負傷 75명(장교 2명)로서 전과에 비해 손실이 컸음은 공격進路가 험준하고 敵의 화력이 치열한 탓이었는데 이에 불구하고 연대 全장병이 끝까지 奮鬪한데에 基因하기도 하는 것이다.

10월 12일 : 사단은 군단命令에 의하여 右隣接 美 제2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의 일부가 변경된 가운데 전날에 이어 제16연대로써 목표 C(△620)—D(△650)—G(△752)를, 제21연대로써 목표 H(△922)—I(△891)—J(△726)를 攻略케 하였다.

이날 사단의 공격正面에 출동한 美 제5공군소속 F4U, F-51 戰鬪機 4개 編隊 延16대는 목표 J(△726)의 능선일대와 △1,220의 東쪽 능선一帶, 그리고 △1,050의 西쪽 능선일대에 대하여 前後 4차에 걸친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1,000Lb 爆彈을 비롯한 각종 爆彈 24발과 네이팜彈 26발, 로켓트彈 76발을 투하하고 50mm의 機銃掃射를 가하였다.

한편 제16, 美 제300, 美 제196의 3개 포병대대는 105mm 砲彈 5,794발, 155mm 砲彈 1,350발을 제16, 제21 兩연대의 공격목표에 집중하였다.

1. 제10연대는 右隣接 美 제2사단의 제9연대와의 戰鬪地境線이 변경됨에 따라 제7중대로 하여금 17.30附로 △1,005(美 제9연대가 10.16.10에 점령확보)를 인수케 하는 한편 제1대대를 △1,050에, 제2대대를 白石山의 主陣地에, 제3대대를 白石山 西南쪽 능선上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제1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에 계속되는 공격임무에 대비하였다.

2. 제16연대는 전날의 隊形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C(△620)—D(△650)—G(△752)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가) 제1대대의 제1중대는 04.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별다른 저항을 받지않는 가운데 10.00에는 목표 G의 8部능선까지 진출하고 12.00 현재 9部능선으로 육박하여 그 15분후인 12.15에 高地頂上을 일거에 점령하였다. 그러나 敵의 강력한 逆襲을 받게되어 20분간에 걸친 激戰을 치루면서 東쪽 8部능선의 遮蔽地點으로 병력을 일단 수습하여 13.00에 다시 돌격을 감행하였다. 敵의 완강한 저항을 한발 한발 배제하며 主陣地의 直前까지 육박한 중대는 수류탄으로 2시간동안 一進一退하였으나 대대命令으로 공격임무를 제2중대에 인계하게 되었다.

제2중대는 즉시 로켓트砲의 집중지원下에 제1중대의 進出線을 초월하여 18.30 현재 高

地頂上의 불과 100m까지 육박한 끝에 凄絶한 白兵戰을 감행하였다.

時刻은 日沒후의 薄暮무렵임에도 불구하고 高地능선위로 無心히 떠오르고 있는 月齡十二夜의 밝은 달빛은 이 激戰場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중대는 月明속에 떠오르는 목표高地의 頂上을 향해 阿修羅와 같은 鬪魂을 불태워 勇戰하였으나 24.00 현재 南쪽 8部능선으로 병력을 수습하여 다음 날의 拂曉공격을 決行키로 하였다.

한편 제3중대는 △743의 四周방어를 계속 강화하면서 제1, 제2 兩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제4중대는 전날에 이어 제1, 제2 兩중대에 1개 소대씩을 배속하고 81mm 迫擊砲 2문을 △521 東쪽 高地에 배치하여 화력지원하였다.

나)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은 목표 D(△650)의 점령을 굳게 결심하고 08.00까지 공격梯隊에 대한 彈藥補給을 추진한 다음 09.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右一線 제11중대와 左一線 제9중대는 重火器의 지원下에 공격間의 連繫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제9중대가 14.10에 목표 D(△650)를 점령하고 16.30에는 그 東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다. 중대는 日沒前에 無名高地를 제11중대의 제1, 제2 兩소대에 인계하고 △650로 철수하여 四周방어에 들어갔다.

한편 제10중대는 대대예비로 집결중이던 長財坐부근의 溪谷에서 09.20에 槍谷을 경유하여 東北쪽으로 올려다 보이는 목표 C(△620)의 西南斜面으로 육박하였다. 敵의 砲火는 비교적 輕微하나(제9, 제11 兩중대의 △650 공격正面에 집중) 벼랑에 가까운 急傾斜의 불리한 地勢로 인하여 공격前進이 용이하지 않았다. 15.00~16.00 사이에 3차의 突擊을 거듭하고 17.40에 최종적인 短兵戰을 決行한 끝에 마침내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 高地는 北쪽으로 △730(제10연대의 공격正面인 목표 B)로 거슬러 올라가는 능선上의 連峰이며 西쪽으로는 大谷溪谷을 瞰制하는 要部이다.

제12중대는 전날에 이어 長財坐 東南쪽 능선上에 배치한 81mm 迫擊砲 7문과 Cal 50 重機 3정으로 공격梯隊를 화력지원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106명, 捕虜 8명, HMG 1정, LMG 2정, SMG 4정, 小銃 13정, 迫擊砲(82mm) 1문, 手榴彈 570발이며, 손실은 戰死 4명, 戰傷 26명이었다.

3. 제21연대의 각 대대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04.00에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다.

가) 제1대대의 右一線인 제2중대는 때마침 자욱하게 낀 새벽안개속으로 隱密행동을 개시하여 無名高地의 東쪽 斜面을 전진하던 차에 敵의 집중射擊을 받았으나 이를 뚫고 07.30에 高地頂上을 점령하여 中央一線인 제3중대의 進出을 지원하였다.

이 支援射擊下에 목표高地의 正南쪽 斜面을 공격중인 中央一線인 제3중대는 09.00에 高地頂上 300m 앞까지 육박하여 敵의 방어陣地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 交戰이 벌어지는 동안 左一線에서 공격중인 제1중대와 無名高地를 점령한 右一線인

제2중대는 左右兩側에서 제3중대의 進出線으로 공격正面을 압축하여 突擊준비를 갖추었다

그 동안 兩중대를 엄호하던 제3중대는 15.00에 砲兵의 돌격준비射擊이 연신됨에 따라 화력을 집중하여 兩중대의 돌격을 지원하였다.

제1, 제2 兩중대는 併立하여 突進을 거듭한 끝에 15.30에 高地突出線을 돌파한 餘勢를 몰아 목표頂上을 완전점령하였다.

나) 한편 연대예비로서 전날부터 △917에서 공격명령을 대기중이던 제2대대는 06.00에 목표 I(△891)를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였다.

右一線인 제7중대와 在一線인 제5중대는 07.00에 △892北쪽 1.4km의 峽谷까지 接敵없이 진출하여 15.30에 제1대대가 △922를 점령확보하자, 16.00부터 이를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兩중대는 △967(△922 北쪽 200m)에서 敵 1개 중대규모의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단숨에 擊破하고 계속하여 17.15에는 敵前 100m에 있는 進出線에서 제5중대의 엄호下에 제7중대가 돌격을 거듭한 끝에 17.30에 목표高地의 頂上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다) 사단 最左端목표인 △726을 향하여 전진중인 左제1선 제3대대는 이날 04.00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重砲中隊의 화력지원下에 대대의 左一線인 제9중대는 北漢江에 面한 急斜面上의 據點을 확보하고 右一線인 제10중대는 목표전면에 가로놓인 無名高地를 탈취하여 進路를 타개한 다음 제9, 제11 兩중대를 엄호하였다.

이 掩護射擊下에 제9, 제11 兩중대는 09.30에 敵主陣地를 수류탄과 白兵戰으로 격파한 끝에 목표 J(△726)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10월 12일 24.00 현재로 △891—△922—△726을 連하는 능선을 확보하여 각 중대간의 陣地를 서로 連繫하면서 次期作戰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106명, 捕虜 8명, HMG 1정, LMG 2정, SMG 4정, 小銃 13정, 迫擊砲 (82mm)1문, 手榴彈 570발이었으며 2일간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種別 / 隊別	射殺	捕虜	鹵獲				
			小銃	機關短銃	手榴彈	82mm 迫擊砲	機關銃
제1대대	54	8	13	2	900	1	3
	108(推定)						
제2대대	74(推定)			1			
제3대대	47(推定)	1			70		
計	54	9	13	4	970	1	3
	229(推定)						

(제27연대 戰鬪詳報에서)

損　　失

種別 \ 隊別	第1대대	第2대대	第3대대	重砲中隊	捜索中隊	計
戰　死	13			1		14
負　傷	1/61	/1	1/21	/2	/1	2/86

(第21연대 戰鬪詳報에서)

(나) 제2단계(10. 13~15)

제1단계에서 全面공격으로 敵에게 막심한 打擊을 주고 △1,050—△620—△650—△743—牛黃谷—△819—甘雨里溪谷—△726線으로 공격據點을 전진시킨 사단은 지체없이 계속 機先을 制하면서 제2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中共 제204사단의 제611, 제612 兩연대가 北傀 제12, 제32 兩사단의 陣地를 인수하는 동안 防禦面의 虛點이 들어난 時利를 포착할 수 있었던 이 제1단계 전과는 作戰面에서나 士氣面에서 彼我間에 주는 影響이 컸다.

中共 제204사단은 최초로 참가한 첫 實戰에서 打擊을 입고 밤어 제1선의 主陣地를 상실하게 되자 그 主力을 △1,220—△1,090—△977—△1,065를 連하는 능선일대에 미리 구축해 놓은 主抵抗線으로 再配置하여 이 線에서 사단의 공격전진을 극력 阻止하려는 듯이 보였다.

이와 같은 敵의 企圖를 看破한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계속 機先을 制하면서 敵에게 시간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10월 13일부터 제2단계 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39호(10.12. 21.00附)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090—△977—△1,065를 一擧에 攻略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목표 B(△730)—K(△1,120)—L(△1,090)을 점령하면서 敵의 退路를 차단하는 동시에 增援을 阻止 擊破하라.

③ 제16연대는 목표 E(△730)—M(△977)—N(△1,054)을 점령하라.

④ 제21연대는 목표 O(△1,065)—Q(△920)를 점령하라.

⑤ 각 연대는 공격間 최소한 1개 대대로써 지시된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함을 要한다.

⑥ 공격開始 日時는 1951. 6. 13. 06.00이다.』

또한 군단 作戰指示(10. 11. 15.15附)에 의거하여 사단 右隣接 美 제2사단과의 전투地境線이 12일 12.00附로 일부 변경되어 △1,005—△1,090의 地境線이 △1,005—△1,220로 이전됨으로써 사단의 공격목표인 △1,220는 美 제2사단이 공격점령한 다음 別命에 의하여 사단에 인계키로 하였다.

한편 美 제2사단이 점령확보중인(10일에 점령) △1,005는 12일 15.00附로 사단에 인계되었다.

10월 13일 : 이날 현재 사단정면의 中共 제204사단은 魚隱山(△1,277)에 사단 CP를, △1,090에 제612연대 CP를, 그리고 △1,220에 제611연대 CP를, △1,090(魚隱山 南쪽 2.1Km의 連峯)에 제610연대 CP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그 兵力區分은 제10연대 정면의 △1,120(목표 K)—△1.220일대에 2개 대대를, △730(목표 B)—△1,030間에 2개 중대를, 그리고 제16연대 정면의 △730(목표 E)—△977(목표M)—△1,054(목표 N)일대에 3개 중대를, 또 제21연대 정면의 △1,065(목표 O)에 2개 중대를, 그리고 △565(甘雨里 北쪽)에 1개 중대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로써 推斷한다면 敵은 그 主抵抗線의 縱深軸을 제10연대 정면에 置重한듯 하였다.

이날 사단의 제2단계 突入을 지원하게 된 제16, 美 제300, 美 제780, 美 제196의 4개 포병대대는 각 목표에 대하여 도합 105mm 砲彈 4,102발, 8" 砲彈 107발, 155mm 砲彈 91발을 大量 집중하였다.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연대作命 제36호(10. 12. 20.00附)로 제2대대를 공격 제1선에, 제3대대를 掩護部隊로 하여 제2대대에 後續케 하고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하여, △1,050의 主陣地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연대 제1차 목표인 K(△1,120)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05.00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공격開始線에서 제6중대(장, 尹根世중위)를 右一線에, 제5중대(장, 朴斗璨중위)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7중대(장, 權寧寅중위)를 대대예비로 控置하여 07.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梯隊는 瞰制下에 있는 능선上을 돌진하여 09.30 현재 300m 進出한 無名高地에서 치열한 집중화력으로 인하여 일단 阻止되었으나 제5, 제6 兩중대는 상호 엄호하면서 제8중대(장, 崔鳳基중위)의 重火器지원下에 거듭 돌진한 끝에 10.30 현재 목표 K(△1,120)의 前進陣地인 △1,025를 直衝하기에 유리한 高峯을 확보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25의 敵陣을 强打하는 美 제300포병대대의 지원砲擊이 계속되는 동안 兩중대는 士氣百倍하여 直衝距離를 일거에 단축시켜 高地의 外廓陣地를 돌파하면서 短兵戰으로 1개 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12.00 현재로 목표 K(△1,120)의 前進陣地를 장악하여 대대규모의 敵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推定되는 목표 K에 대한 공격대열을 가다듬게 되었다.

나) 제3대대(장대리, 金斗星대위)는 △1,050의 前哨陣地를 제11중대(장, 閔昌植중위)로 하여금 계속 확보케 하고,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現陣地를 제9중대(장, 高仁淑중위)에 인계한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로 하여금 △1,050의 東北쪽 側面으로 진출케 하여 제2대대의 공격前進을 側方掩護토록 하였다.

다)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1,050의 主陣地에서 接敵없이 계속 방어에 임하였으며 연대 OP는 공격梯隊의 前進에 따라 18.00에 白石山(△1,142)으로 추진설치 되었다.

이날 연대의 戰果는 射殺 23명, 捕虜 1명, 實彈 15상자이며, 損失은 戰死 4명, 負傷 16명이었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은 연대作命 제29호(10. 13. 01.00附)로 제2대대에 목표 M(△9779)을, 제1대대에 목표 G(△752)—N(△1,054)을, 제3대대에 목표 E(△730)를 각각 부여하여 이날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목표 G(△752)는 제1단계에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要部이기 때문에 제2단계에 돌입한 이날을 기하여 기어코 점령하리라는 결심밑에 제3대대의 일부병력으로써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케 하였다.

가) 제1대대(장, 朴海斌소령)는 제1중대(장, 吳世福중위)를 右一線에, 제2중대(장, 金燦起중위)를 中央一線에, 제3중대(장, 吳喜宗중위)를 左제1선에 각각 내세워 공격시초부터 과감한 突擊戰을 감행토록 하였다.

제2중대장 金燦起중위는 때마침 大谷溪谷에서 피져오르는 새벽안개속에서 중대를 陣頭지휘하며 전날의 激戰터로 直進하였다. 제4, 제12 兩중대와 重砲中隊의 지원사격이 山嶺과 谷間에 은은한 가운데 肉迫突入으로 수류탄戰을 감행한 중대는 차례로 敵의 掩體壕를 파괴한 끝에 공격개시후 불과 1시간만인 07.15에 高地頂上을 이미 점령하고 말았다.

左右 一線에서의 제1, 제3 兩중대는 제2중대가 목표를 점령하자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여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19.00 현재 西域谷(△752의 東北쪽)의 無名高地까지 進出하였으나 側射화력에 무딪치게 되어 日沒後의 月明下에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이날 제4중대장 李龍海중위는 81mm 迫擊砲 4문을 牛黃谷(△752의 西南쪽)에 배치하여 適時射擊으로 지원하였다.

나) 제1단계에서는 연대예비로 控置되어 △894(長財峙의 東南쪽)의 主陣地를 확보중이던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는 제2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연대作命으로 목표 M(△977)을 공격하는 제1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 목표 M은 제2대대의 現위치로부터 5Km 西北쪽에 있는 要部로서 中共 제204사단은 △1,220—△1,090—△977를 連하는 능선에 主抵抗線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推斷되기 때문에 대대의 공격은 사단全面의 中央進出을 촉진하는 關鍵이 되었다.

대대장 韓炳甲소령은 공격거리에 비추어 檜谷(長財峙 北쪽 1.3Km)까지 대대를 이동하기로 하고 제7중대를 右一線에, 제6중대를 左一線에, 제5중대를 예비로 하여 06.00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 大谷溪谷은 敵의 主抵抗線을 南正面으로 直衝할 수 있는 주요한 接近路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공격間에 敵의 집중화력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溪谷線을 扼止하는 前方 瞰制高地로 因하여 공격梯隊의 행동은 크게 제약받게 되었다.

예상한대로 敵의 치열한 집중포화가 谷間을 진동하며 炸裂하는 가운데 右一線인 제7중대(장, 洪鍾憲중위)는 11.30에 공격을 개시하여 大谷高地일대에 배치된 敵 1개 중대와 交戰을 거듭하면서 15.47 현재 六德谷의 山麓으로 진출하였으나, 西쪽으로 노출당한 지점이었으므로 △730(목표 E)로부터 집중되는 側射火力이 치열하였다. 중대는 左一線인 제6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突進을 거듭하여 22.00에 大谷高地의 西端까지 進出하여 西北쪽으로 목표M(△977)에 이르는 接近路의 어귀에서 공격隊形을 再整備하였다.

左一線인 제6중대(장, 金英鎭중위)는 槍谷을 瞰制하는 西쪽 高地의 敵화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急斜面을 따라 진출하면서 右인접인 제7중대의 攻擊을 엄호하고 제3대대의 제10, 제11 兩중대가 12.30 현재 점령확보한 목표 E(△730)를 초월하여 (제3대대의 戰鬪經過를 참조) 22.00 현재 皎皎한 月明下의 無名高地에서 四周방어에 들어갔다.

대대예비인 제5중대(장, 金孝得중위)는 공격梯隊의 진출에 맞추어 11.00에 長財垈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右一線인 제7중대를 후속하면서 13.47 현재 槍谷東쪽의 高地로 공격을 加함으로써 右側方의 側射威脅을 견제하였다.

한편 제8중대(장, 朴勝璟중위)는 仙儀垈의 南쪽 지점에 81mm 迫擊砲 4門을 배치하여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다) 제3대대의 공격목표인 E(△730)는 東쪽으로 槍谷—六德谷—大谷間의 溪谷일대를 瞰制하고 南쪽으로는 西域谷일대를 扼하기 때문에 △977(목표 M) 및 △1,054(목표 N)를 향하여 공격전진하는 연대의 全面的인 진출을 阻害하는 敵 방어선上의 "혹"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대대장 鄭順基소령은 대대의 공격임무가 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勘考하고 제1, 제2 兩대대의 진출에 앞서 該목표를 점령하려는 決意아래 제10중대를 右一線에, 제11중대를 左一線에 전개하여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목표高地의 東쪽 斜面으로 突進한 제10중대(장, 金學鳳중위)는 側射의 위협을 받았으나 중대장의 陣頭지휘下에 과감한 前進으로 高地의 前端 一角까지 육박하였다.

제10중대와 併進하는 左一線인 제11중대(장, 徐甫錫중위)는 제1(장, 李康鳳소위), 제2(장, 申鉉模일등상사) 兩소대를 突擊隊로 내세워 高地南正面의 急斜面을 따라 直突하였다.

그동안 △650(△730의 東南쪽)에 대대예비로 控置된 제9중대(장, 鄭雲福중위)는 자동화기로써 敵의 側射화력을 견제하였으며 또 06.00에 仙儀垈 東北쪽 陣地를 출발하여 長財垈

로 이동한 제12중대(장, 朴在東중위)는 81mm 迫擊砲 3門으로 高地 北쪽 능선상의 敵陣을 강타하였다.

이리하여 제10, 제11 兩중대는 10.00에 목표 E의 主峰을 점령하고 그 連峰을 계속 격파한 끝에 12.30에 頂上일대의 主人이 되었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23명, 捕虜 1명, 鹵彈 15상자이며, 손실은 戰死 4명, 負傷 16명이었다.

3. 사단 左一線인 제26연대의 공격正面에서 北傀 제32연대(제12사단)의 방어陣地를 인수한 中共 제612연대(제204사단)는 △922(목표 H)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제1선에서 연대의 全面攻擊으로 말미암아 濱退하게 되자 그 殘兵을 △1,065(목표 O)—△977(△1,065 北쪽 1.2Km)線에 糾合시켜 縱深陣地를 급편중인 것으로 보였다.

이날 현재 연대 OP를 廣石橋(俗稱 노루골) 東쪽 高地에 설치한 中共 제612연대는 右一線에 제1대대(△680에 CP)를, 左一線에 제2대대(△977에 CP)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목표 O(△1,065)에 2개 중대, 목표 Q(△920)에 1개 중대, 그리고 목표 R(△748)에 1개 소대, 廣石橋의 南쪽 高地일대에 2개 중대에 이어 △620(목표 T의 東쪽)에 1개 소대, 목표 T(△319)에 1개 소대를 배치하고 105mm 野砲(4門), 92mm 步兵砲(3門), 蘇式 野砲(5門), 82mm 迫擊砲(8門), 日式 山砲(4門)등의 重火器를 장비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捕虜의 진술에 의하면 中共 제204사단의 高位者는 △922의 방어 제1선에서 濱退하게 되자 "前輕後重"의 誘引作戰으로 연대를 포위하여 戰術的 優位를 노려보려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연대장 金富一대령은 現陣地를 계속 강화하여 敵의 反擊을 봉쇄하는 동시에 목표 O(△1,065)—Q(△920)線을 신속하게 점령할 것을 결심한 결과 연대作命 제20호(10. 12. 13.00附)로 제2대대에 主攻임무를, 제1, 제3 兩대대에 現陣地의 防禦임무를 부여하였다.

가)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04.50에 행동하기 시작하여 제5중대(장, 崔漢奎중위)를 右一線에, 제7중대(장, 趙昌默중위)를 左一線에, 그리고 제6중대(장, 許尙圻중위)를 예비로 전개하여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의 목표인 이 △1,065는 △1,220(제10연대의 正面)에서 西南쪽으로 흐르는 △1,090—△977—△1,054—△1,065—△891의 능선上에 우뚝 솟은 峻峰으로서 森林이 우거진 急斜面에 奇岩絶壁이 層疊한 天然要害이며 中共 2개 중대는 이 地利를 이용하여 射界가 양호한 突出部마다 橫穴壕를 구축하고 四角形의 鐵板으로 銃眼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때에 深山幽谷에 특유한 새벽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지원포격의 彈着을 정확히 해아릴 수 없는 가운데 제5, 제7 兩중대는 가파른 急斜面으로 登破하여 나갔다.

牛黃谷에 있는 4.2″ 重迫擊砲(4문) 및 81mm 迫擊砲(10문)와 △922에 위치한 81mm 迫擊砲(6문)의 집중 射擊이 濃霧속에서 炸裂하는 轟音은 공격하는 장병들의 戰意를 鼓舞

하였다.

兩중대는 공격개시 1시간만에 500m를 跳進하면서 前進陣地를 一蹴하고 10.00에는 200m를 거듭 突進한 線에서 彈幕射擊을 비롯한 敵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一進一退의 激戰이 3시간 전개되는 동안 兩중대는 계속하여 猛攻을 加한 끝에 17.00 현재 敵 主陣地의 50m 앞까지 육박하였다.

兩중대는 서로 先進을 다투듯이 突戰組를 急編하여 과감한 突入을 감행하였으나 至近距離에서 미친 듯이 불을 吐하는 자동화기와 비 퍼붓듯 하는 수류탄의 炸裂로 제1차 突入에 성공하지 못하고 제2의 突擊組를 다시 急編하였다.

이 急迫한 狀況에 부딪치자 제5중대 화기소대의 輕機射手 方潮雲하사는 70m 앞에 있는 突出部에서 가장 완강하게 射擊하는 敵의 掩體壕를 제압할 목적으로 單身포복을 감행하여 直突한 다음 1발의 수류탄을 투척함과 동시에 輕機로써 猛射한 결과 敵陣의 一角을 침묵시켰다. 제2, 제3의 突擊組는 方潮雲하사의 奮戰에 크게 鼓舞되어 또한 뒤질세라 肉彈突入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새로 증강된 敵의 側射화력으로 因하여 최후의 突破口를 咫尺에 둔채로 日沒과 더불어 戰況이 交綏狀態로 빠지고 말았다.

나)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는 △891—△922사이에서 제3중대(장, 許 培중위)를 右一線에, 제2중대(장, 康昌甲중위)를 中央一線에, 그리고 제1중대(장, 呂甫淵중위)를 左一線에 각각 배치하여 現主陣地를 接敵없이 확보강화하였다.

다) 제3대대(장, 崔孝三대위)는 △726을 중심으로 하는 東西間의 高地일대에 제9중대(장, 金明河중위)를 右一線에, 제10중대(장, 鄭逸浩중위)를 中央一線에, 제11중대(장, 金仁榮중위)를 左一線에 각각 배치하여 사단左翼의 現主陣地를 계속 확보강화하는 한편 제11중대의 1개 소대로써 甘雨里 南쪽의 無名高地를 확보케 하였다.

라) 이날 제16포병대대(장, 文在駿중령)는 연대정면에 대한 지원사격에 치중하여 7회에 걸쳐 목표 O(△1,065)일대에 도합 1,025발을 집중하고 △1,065西南쪽의 高地일대에 2회에 걸쳐 64발의 擾亂射擊을 加하였다.

10월 14일 : 제2단계 作戰의 이틀째가 되는 이날, 사단은 △1,025—△620—大谷—△1,065(목표 O)의 8部능선—甘雨里溪谷을 連하는 進出線에서 계속 全面攻勢를 취하게 되었다.

紅葉이 滿山하여 秋色이 무르익은 10월 중순의 하늘은 드높기만 하였으나 高山특유의 濃霧가 山嶺을 덮기 때문에 오전중에는 항공근접지원이 어려웠으나(사단의 종합전투詳報에도 13일~16일間의 항공 근접지원에 관한 記錄이 缺如되어 있음) 제16, 美 제300, 美제780, 美 제196의 각 포병대대는 사단의 공격正面에 도합 105mm 砲彈 1,370발, 8″ 砲彈 30발, 그리고 155mm 砲彈 100발의 지원사격을 집중하였다.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전날에 이어 목표 K(△1,120)에 대한 공격임무를 계속

제2대대에 부여하고 제1대대를 △1,025에서 연대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제3대대로 하여금 목표 B(△730)를 점령토록 하였다.

가) 제2대대(장, 金光소령)는 목표 K(△1,120)의 敵勢가 대대규모로 推定되는 만큼 장병들의 勇戰敢鬪를 가일층 촉구하면서 07.00부터 △1,025에서의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은 예상외로 輕微하여 공격梯隊는 제4, 제12 兩중대 重火器의 支援 아래 高地中腹까지 큰 接戰없이 진출하였다.

11.00 현재 제5중대(장, 朴斗贊중위)는 다시 右側으로 迂回하여 西南쪽 능선上의 要部를 점령하였으며 中央一線인 제6중대(장, 尹根世중위)와 右一線인 제7중대(장, 權寧寅중위)는 現進出線에서 18.00 현재 陣地를 급편하였다.

대대가 이와 같이 短兵戰을 決行하지 않고 공격의 신중을 기하게 된 까닭은 첫째, 高地中腹까지 敵의 抵抗이 예상외로 輕微하기 때문에 그 意圖를 偵知할 目的이었으며 둘째, 목표 고지의 西南쪽에 殘置된 연대공격목표 B(△730)로부터 背面逆襲을 당하게 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3대대의 공격임무는 연대 진출을 위하여 時急한 것이었다.

나) 제3대대(장 대리, 金斗星대위)의 공격목표 B(△730)는 △1,220의 正南능선上에서 西쪽으로는 大谷溪谷을 瞰制하고 北쪽으로는 연대의 主攻方向을 威脅하는 要部로서 敵의 1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날 현재로는 제2대대의 △1,120 공격을 背後에서 위협하는 據點으로 殘置되어 있었다.

대대는 연대命令으로 11.00에 △1,050—△1,025間의 능선으로 轉進移動하여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를 右一線에, 제9중대(장, 高仁淑중위)를 中央에, 제11중대(장, 閔昌植중위)를 左一線에 각각 전개한 다음 목표 B(△730)의 東쪽 溪谷으로 내려갔다.

溪谷에는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므로 대대는 隱密裡에 溪流를 넘어 高地의 右側面을 일거에 直衝하였다. 전날 제21연대 제5중대의 攻擊에 대비하여 南正面의 능선上에 방어를 置重한 듯한 敵 1개 중대는 이 側背에서의 奇襲에 束手無策으로 瓦解潰走하였다.

대대는 15.30에 高地를 점령하고 大谷 東쪽 능선으로 전과를 확대하였다.

다)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1,025의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였으며 연대 OP는 16.30에 白石山(△1,142)으로부터 △1,088로 이동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117명, 捕虜 6명, LMG 3정, SMG 6정, HMG 1정, 小銃 10정, 수류탄 80발이며, 손실은 戰死 6명, 戰傷18명(장교 1명)이었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제1, 제3 兩대대까지 공격제1선에 참가케 하여 도합 3개 대대로써 일거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4, 제8, 제12의 3개 重火器 중대의 지원下에 제1, 제3 兩대대는 목표 N(△1,054)을, 제2대대는 목표 M(△977)을 향하여 각각 進擊하였다.

가) 제1대대(장, 朴海載소령)는 西北쪽 △1,065(제21연대의 공격목표 O)로 進擊하여 13.00 현재 제21연대 제2대대의 공격을 側方에서 지원하다가 15.00에 제21연대가 該高地를 점령하자 여기를 경유하여 東北쪽의 능선을 계속 北上하면서 공격하였다.

대대는 17.00에 高地頂上의 西南쪽 능선上에서 敵과 激突하여 치열한 戰鬪를 계속하였는데 日沒과 더불어 皎皎한 月明下에 방어의 利點을 안고 있는 敵의 增援병력이 점차로 나타남에 따라 戰況이 불리하게 되어 일단 東南쪽 능선에 병력을 수습하였다.

나)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목표 M(△977)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5중대(장, 金孝得중위)는 檜谷의 北쪽 능선에서 03.00에 행동을 개시하여 10.00에 전날 제7중대가 점령확보한 無名高地까지 진출한 다음 제6중대(장, 金英鎭중위)와 合勢하였다.

한편 제7중대(장, 洪鍾窓중위)는 03.00에 無名高地로부터 공격을 開始하여 08.00에 목표 M(△977)의 100m 앞까지 진출한 다음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血戰을 거듭하면서 後續部隊의 진출을 대기하였다.

15.30에 제5, 제6 兩중대가 진출하게 되자 3개 중대는 일거에 直突하여 血雨가 霏霏한 白兵戰을 감행한 끝에 高地頂上을 强占하고 勝戰鼓를 울렸으나 이 때가 18.00의 日沒무렵이었다.

다)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제9중대(장, 鄭雲福중위)를 △650에 대대예비로 控置하고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제1선에 내세웠다.

右一線인 제11중대장 徐甫錫중위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시종 陣頭指揮로 중대의 鬪魂을 鼓舞하면서 과감한 突進을 거듭하여 10.30에 목표 N(△1,054)의 正南 800m인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계속 急斜面을 돌진하던 차에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敵의 집중사격으로 壯烈하게 散華하였다.

左一線인 제10중대(장, 金學鳳중위)는 제11중대가 점령한 無名高地를 초월하여 西쪽으로 迂回하면서 목표 N(1△,054)의 頂上을 향하였으나 8部능선上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 이 進出線에서 四周방어를 급편하였다.

제12중대는 제10, 제11 兩중대에 重機 各 3挺을 배속하고 長財坪에 81mm 迫擊砲 4문을 배치하여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전날에 이어 계속 제2대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목표 O(△1,065)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07.00에 決意도 새롭게 전날의 공격隊形을 계속 유지하면서 돌진하여 나갔다.

右一線인 제5중대장 崔漢奎중위는 右側方에서 완강하게 側射화력을 집중하는 敵의 掩體壕를 우선 파괴할 決意下에 10명의 決死突擊組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參加한 勇士들의

官等 姓名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등중사 辛擧善, 일등중사 趙成鳳, 金三澤의 3명과, 하사 申吉得, 李龍浩, 李慶承, 洪在福, 崔海南, 辛蔣明, 金泰永의 7名이며 이 突擊組를 直接指揮한 中隊長이 先頭에서 육박突入한 끝에 수류탄으로 2개의 掩體壕를 파괴함으로써 공격梯隊의 突入을 용이케 하였다.

이 阿修羅의 勇戰에 鼓舞된 全 중대원과 左一線인 제7중대(장, 趙昌默중위)는 한덩어리의 鐵火가 되어 수류탄과 肉彈으로 敵陣을 유린한 끝에 13.20에 高地頂上을 점령하였으며 예비로 후속중이던 제6중대(장, 許尙坤중위)는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전과를 확대하여 高地 西北쪽 능선으로 진출하였다.

나)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는 전날에 이어 △922의 主抵抗線을 확보하던 차에 연대장 命令으로 14.00에 행동을 開始하여 제2대대가 점령중인 △1,065를 15.00에 경유초월한 다음 △1,065 東北쪽 능선上에 제1중대(장, 呂甫淵중위)를, 北쪽의 無名高地(목표 Q의 南쪽 800m)에 제3중대(장, 許 培중위)를 각각 진출케 하고 西쪽의 無名高地에 제2중대(장, 廉昌甲중위)를 배치하였다.

다) 제3대대(장, 崔孝三소령)는 △726의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강화하면서 제10중대(장, 鄭逸浩중위)의 1개 소대를 이날 18.10 현재 제1대대 제2중대의 進出線 西쪽에 있는 無名高地까지 진출시켰다.

라) 이날 제16포병대대는 05.00~14.00 사이에 前後 12회의 지원砲擊을 △1,065일대에 집중하였으며 △1,054에 대하여 6회에 걸친 搖亂射擊을 加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439명, 捕虜 5명, LMG 1정, HMG 7정, SMG 2정, 60mm 迫擊砲 4문, 로켓砲 3문, 小銃 43정, 手榴彈 20箱子이며 損失은 戰死 2명, 戰傷 51명(장교 1명)이었다.

10월 15일 : 제2단계의 3일째에 접어든 이날 사단은 △1,120(8部능선)—△730—大谷—△977—△1,054(8部능선)—△1,065—△527(甘雨里 西北쪽 1.6Km)의 進出線에서 제10연대의 공격목표인 K(△1,120)—L(△1,090)을, 제16연대의 N(△1,054)을, 그리고 제21연대 正面의 Q(△920)—R(△748)을 향하여 全面攻勢를 계속 하였다.

날씨는 如前히 淸明하였으나 濃霧로 因하여 오전중의 항공근접지원이 힘들었으며 제16, 美 제300, 美 제780, 美 제196의 각 포병대대의 지원포격도 전날에 비하여 散發的이었다.

1. 제10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2대대로 하여금 목표 K(△1,120)를 점령케 하고 △730을 확보중인 제3대대로 하여금 長驅北上시켜 목표 L(△1,090)을 공격케 하였다.

가) 제2대대장 金 光소령은 敵 방어配置의 脆弱點이 主로 東쪽 斜面上에 露呈되어 있음을 看破하고 이미 迂回待機中인 제5중대로 하여금 側面에서 直衝케 하는 한편 제6, 제7兩중대로써 南正面으로 突進케 하였다.

07.00에 돌격을 개시하자 敵의 치열한 집중火網에 부딪쳐 出血이 淋淋한 가운데 一進一

止를 거듭하던 차에 제5중대가 手榴彈으로 자동화기陣地의 一角을 파괴하는 刹那에 白兵으로 突入을 감행하여 潰走하는 敵을 屠戮한 끝에 高地頂上을 점령하니 이때가 공격開始 1시간만인 08.00였고, 안개가 아직도 짙었다.

나) 목표 L(△1,090)을 향하여 02.00에 △730을 출발한 제3대대는 大谷의 北쪽 능선으로 北上 機動하여 高地 南正面의 6部능선상에서 제9중대를 右一線에, 제11중대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10중대를 예비로 하여 13.00에 突擊前進하였다. 60°~70°의 急傾斜에 數없이 炸裂하는 수류탄幕을 헤치면서 肉迫 登破한 공격梯隊는 血戰에 이은 血戰을 반복한 끝에 17.50에 高地를 制壓하고 말았다. 대대는 계속 △977를 확보중인 左隣接 제16연대 제2대대와 서로 호응하면서 西南쪽 능선상의 無名高地를 다시 强占함으로써 中共 제204사단이 魚隱山(△1,277)방어의 主抵抗線으로 再編강화한 △1,220—△1,090—△977線의 主軸을 손에 넣게 되었다.

다)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 △1,050의 主抵抗線을 강화하던 차에 제2, 제3 兩대대의 진출에 따라 각 중대를 西北쪽 능선상으로 推進시켜 새로운 主陣地를 확보케 하였으며 연대는 이날로 제2단계의 작전임무를 완수하였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射殺 26명, 捕虜 15명, LMG 2정, 小銃 1정, 손실은 戰死 10명, 戰傷 21명(장교~1명)이었다.

2. 제16연대는 전날에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목표 N(△1,054)을 제1대대로 하여금 공격케 하는 한편 △977를 점령중인 제2대대로 하여금 右隣接 제10연대의 제3대대와 긴밀한 連繫을 유지토록 하고 제3대대를 목표 P(△931)에 대한 次期作戰에 待機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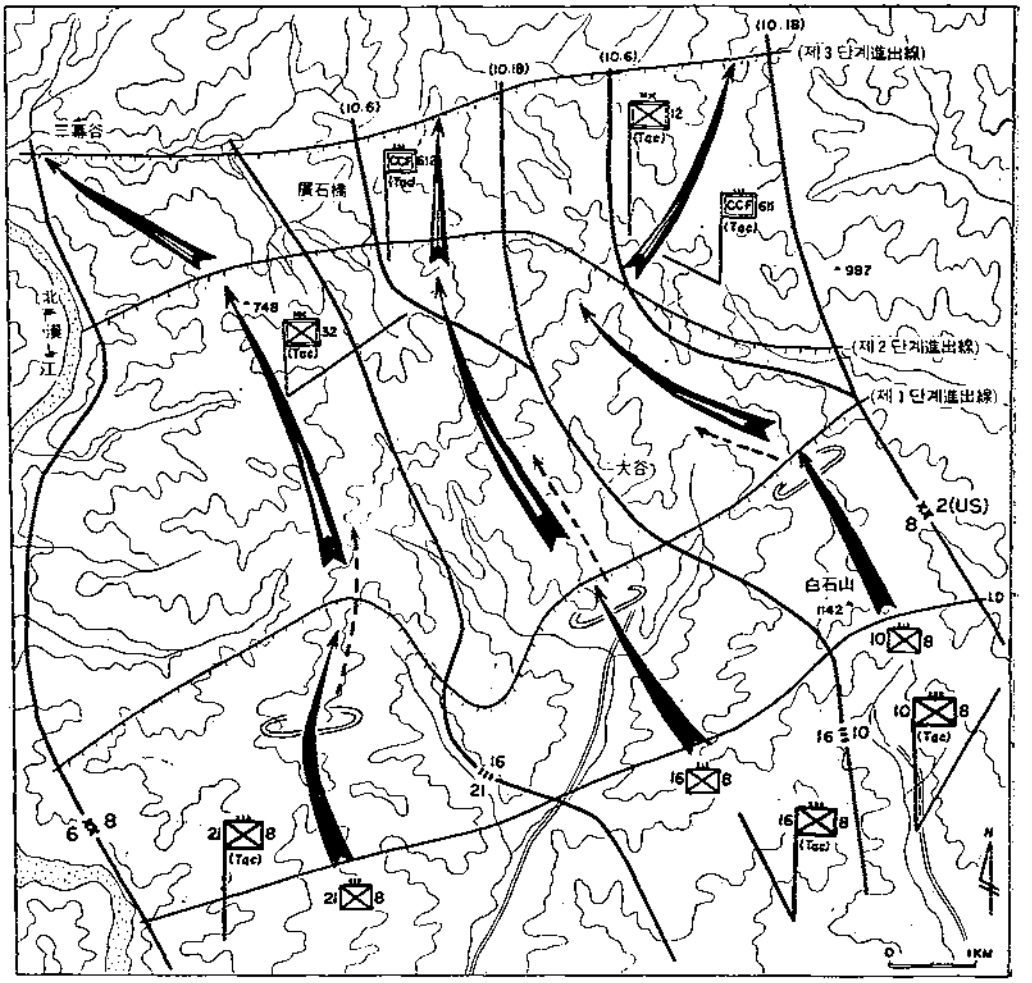
가) 제1대대는 △754에 위치중인 대대 OP를 11.30까지 △723(西域谷 北쪽)으로 추진설치하고 이날을 期하여 제2단계 작전임무를 완수키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1, 제3 兩중대는 02.40에 목표 N(△1,054)의 東南쪽 능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9월 보름달(月曆)이 대낮과 같이 皎皎한 急斜面을 따라 突進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은 극히 輕微하여 1개 소대로 推定되는 散發的인 射擊을 받았을 뿐 05.30에 高地頂上을 무난히 점령하였다. 이는 同一능선上의 兩側高地(△1,065—△977)를 이미 점령당하였기 때문에 作戰上, 사전에 병력을 후퇴시킨 결과로 단정한 대대장 朴海載 소령은 兩중대에 계속 前進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이 兩중대는 08.00부터 다시 행동을 개시하여 △920(제21연대정면의 공격목표 Q)의 東쪽 능선을 거쳐 12.00에 廣石橋(俗稱 노루골) 東쪽 500m의 능선까지 일거에 北上하였다.

이 進出線은 목표 P(△931)를 東北쪽으로 찌르게 되는 要部로서 13.00에 敵의 반격을 받았으나 兩중대는 乘勝長驅로 이를 격파하고 14.40에는 俗稱 도파막까지 轉進하여 △931의 正南斜面에서 突擊據點을 점령하였다. 한편 대대예비인 제2중대는 10.00까지 △1,054의

◇ 상황도 제25호 各聯隊의 攻擊方向



主陣地로 進入하여 四周방어를 강화하였으며 제4중대는 西域谷에 81mm 迫擊砲 4문을 배치하여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나) 제2대대는 대대 OP를 六德谷(檜谷의 北쪽)으로 추진하고 전날에 이어 검령확보중인 △977 능선上에 主力을 배치 강화하였으며 제8중대를 08.00에 檜谷으로 이동케 하였다.

다) 제3대대는 공격목표 P(△931)에 대한 연대의 命令을 待機하기 위하여 △1,054—△977의 東北쪽으로 迂回하여 제9, 제11 兩중대를 △977의 東쪽 및 東北쪽 능선에 轉進시킴과 아울러 제10중대로 하여금 △1,090을 경유하여 俗稱 도피막(△931의 南쪽)의 東쪽 능선까지 진출케 함으로써 左隣接 제1대대의 제1, 제3 兩중대의 進出에 呼應케 하였다. 한편 제12중대도 △1,024의 東쪽 능선으로 81mm 迫擊砲 4문을 前進시켜 지원준비를 완료하였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은 전날까지 연대예비로 △726의 主陣地를 확보중이던 제3대대를 제1선에 내세워 목표 Q(△920)—R(△748)을 공격케 하는 한편 제1, 제2 兩대대로 하여금 現主抵抗線을 계속 확보케 하였다.

가) 제3대대는 05.00부터 행동하기 시작하여 07.30에 △1,065를 초월하면서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梯隊로 전개하고 제9중대를 예비로 後續케 하였다.

목표 Q(△920)는 △1,035—三幕谷(俗稱 삼막골이며 文登里에서 西行하는 橫隔 峽谷地帶의 西端)間의 西北쪽 능선에 있는 첫 要部이자 목표 P(△931)에 대한 제16연대의 공격을 背面威脅하게 될 瞰制高地이기 때문에 △1,054—△1,035線에서 潰退한 敵병력이 집결되어 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제10, 제11 兩중대는 09.30 현재 1.2Km 進擊한 노출된 능선에서 敵의 저항을 받았으나 제8, 제12 兩중대의 重火器지원下에 突擊直衝한 다음 20분간에 걸친 白兵戰과 수류탄戰을 감행한 끝에 10.20 현재 高地頂上을 점령하였다.

제10중대장 鄭逸烙중위와 제11중대장 金仁榮중위는 각기 중대의 陣頭에서 大號하며 落葉 쓸듯이 敵을 急追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兩중대는 수류탄 投擲距離에서 30분간에 걸친 肉戰을 반복하면 차에 제10중대 제2소대의 제1분대장인 金鳳洙이등중사와 제9중대 제1소대원인 金榮沮하사의 先頭突進으로 일거에 敵主陣地를 유린하고 高地頂上을 점령하였는데 이때의 喊聲은 國軍의 滅共鬪志를 晩秋의 碧空에 誇示함에 足하였으며 때는 11.30의 한낮이었다.

나) 제1대대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1,035—△527間의 능선일대로 轉進하여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右一線에 제3중대, 中央에 제1중대, 左一線에 제2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다) 제2대대는 전날에 점령확보한 △1,035에서 右一線에 제6중대, 中央에 제7중대, 左一線에 제5중대를 배치하여 高地頂上을 중심으로 陣地를 강화하였다.

(다) 제3단계(10·16~28)

10월 15일에 凱歌를 올린 제10연대의 △1,030 점령과 제21연대의 △748 점령을 교비로 하여 제2단계 (10·13~15)를 끝마친 사단은 16일 현재 右翼接 美 제2사단의 진출과 호응하여 谷內—△1,220(美 제38연대가 10.15.10에 점령)—토피막(俗稱, △931의 南쪽)—△748에 이르는 線까지 北上함으로써 美 제10군단의 緊急作指(10·11附)로 부여된 공격목표(△1,030—△977—△1,054—△1,035線)를 훨씬 초월하여 魚潛山(△1,277)線을 指向하는 次期作戰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의 貔猊같은 慴伏과 潰走를 서슴치 않게 된 中共 제20사단은 主抵抗線(△1,220—△977—△1,035)을 喪失한 다음 文登里—三幕谷間의 橫隔보급路까지 위협받게 되자 △1,030—△931—△880—△319線에서 방어 제2선을 급편하려는 듯이 보였다.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은 美 제2사단이 13일에 「新昌의 陵線」을 점령함으

로써 군단의 中央進出이 安定되자 左隣接 美 제9군단의 金城進出과 호응키 위하여 사단의 계속적이면서도 신속한 北上進出을 촉구하게 되어 군단 作戰指示 제246호(10. 16. 22.00附)로 10월 18일 12.00 이후의 전투地境線을 부여하고 그 최전방지역을 점령확보토록 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1,024(그 東쪽의 無名高地)—△1,005(그 西쪽의 △900능선)—谷內—魚隱山에 이르는 새로 擴張된 전투地境線上에서 △1,220(美 제2사단이 15일에 점령확보하여 18일에 인계)—△1,090—△1,277의 능선으로 主攻을 指向하면서 全面的인 攻勢를 斷行하게 되었다.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제10연대와 제16연대의 전투地境線의 일부를 변경하여 △931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16연대에 부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50호(10. 15. 12.00附)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090—△931—△680—△319의 敵을 격멸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목표 U(△1,090)를 공격 점령하라.

③ 제16연대는 목표 P(△931)를 공격 점령하라.

④ 제21연대는 목표 S(△680)—T(△319)를 공격 점령하라.

⑤ 제16포병대대를 10월 16일 16.00附로 配屬해제하고 제50포병대대를 사단에 배속한다.

⑥ 對戰車공격대대는 10월 16일 17.00까지 長財峰에 이동하여 追後命令을 대기하라.

⑦ 工兵大隊는 新防禦線의 陣地를 강화하라.』

10월 16일 : 이날 현재 中共 제204사단은 防禦 제2선을 급편하여 사단의 攻擊正面인 각 要部일대에 중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82mm 및 105mm 迫擊砲火網을 구성한 듯 하였다.

사단은 제10연대로 하여금 제2단계로 占有한 現進出線에서 陣地강화 및 威力搜索을 실시케 하는 한편 제16, 제21 兩연대로써 공격前進케 하였다.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전날에 확보한 進出線(△1,120—토피막)에서 陣地를 강화하고 제2단계 作戰기간중 사단에서 배속된 4.2″ 迫擊砲 1개 소대를 12.00附로 배속해제하였다.

가)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1,050—△1,120間에 대대主力을 縱深으로 배치하고 接敵없이 陣地를 강화하면서 次期 命令을 待機하였다.

나)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1,120에 대대 OP를 설치하고 대대主力을 高地頂上중심으로 배치하였는데 右隣接인 美제2사단의 제38연대가 15일에 △1,220를 확보하였으므로 相互連繫하여 敵의 反擊에 대비하였다.

다) 제3대대(장, 金斗星대위)는 △944(△1,120의 正南쪽 1.1Km)에 대대 OP를 설치하고 대대主力을 △1,090의 稜線에 배치하는 한편 제12중대를 △944 南斜面 溪谷으로 이동

하였다.

라) 捜索中隊는 △1,005일대의 전투地境線上에서 接敵없이 命令을 待機중이며 重砲中隊는 △1,005—△1,088間에 위치하였다. 한편 제3대대에 배속된 工兵小隊는 △1,090의 방어前面에 지뢰를 배설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목표 P(△931)를 700m 北쪽으로 바라보는 俗稱 도피막일대의 進出線에서 06.00에 제3대대를 右제1선에, 제1대대를 左제1선에 전개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977에 控置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 右제1선인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전날에 이어 제10중대(장, 金學鳳중위)를 공격梯隊로 내세우고 제9, 제11 兩중대를 예비로 하여 목표 P(△931)의 東南쪽 斜面으로 進擊하였다.

高地의 西南쪽 斜面에 비하면 비교적 완만한 傾斜度이기는 하지만 東南쪽의 岩谷(俗稱 바우골)과 △1,090로부터 완전히 壓制당하기 때문에 제10중대는 敵의 重火器彈幕에 부딪쳐 突進이 용이하지 않으나 중대장 金學鳳중위의 과감한 陣頭지휘下에 中隊全員이 一丸이 되어 돌격을 거듭한 끝에 11.00에 高地頂上으로 殺到하여 敵主陣地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高地 東北쪽 岩谷능선으로 부터 敵의 逆襲을 받아 중대는 步兵火器와 수류탄으로 20분간에 걸쳐 이를 擊退하던 차에 敵의 집중砲彈이 陣內에 무수히 落下되므로 8部능선까지 일단 철수하게 되었다.

대대장 鄭順基소령은 즉각 제16포병대대에 직접지원을 요청하여 敵의 重火器陣地를 강타케 하는 한편 연대 左제1선 제1대대의 진출과 호응하여 再突擊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나) 제1대대(장, 朴海軾소령)는 右一線에 제1중대(장, 吳世福중위)를 左一線에 제3중대(장, 吳壽宗중위)를 각각 전개하고 08.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11.00 현재 제3대대의 제10중대가 敵의 逆襲으로 激戰을 전개하는 동안 高地의 西北쪽 急傾斜를 直突한 兩중대는 砲兵의 지원사격下에 敵主陣地의 一角을 돌파하였으나 重疊되는 火力據點에 부딪쳐 一進又一退의 血鬪를 거듭하면서 20.00까지 2회에 걸친 肉彈突入을 감행하였다가 때마침 구름이 끼기 시작하여 月明이 가리우게 되었으므로 7部능선으로 병력을 수습하여 四周防禦陣地를 급편하였다.

다)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는 △977를 중심으로 하는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제4중대의 81mm 迫擊砲 4문으로 제1, 제3 兩대대의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이날 20.00 현재 연대의 전과는 射殺 126명, 捕虜 5명, LMG 1정, 小銃 2정, 手榴彈 150발, 實彈1,000발이었다.

3.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제1, 제2 兩段階의 作戰期間을 통하여 4~5Km에 걸친 사단左翼의 廣正面을 담당하였으나 사단의 猛攻으로 潰退만을 거듭한 中共 제204사단은 그 主抵抗線을 魚隱山(△1,277)쪽으로 移動함에 따라 제3단계에 돌입하면서 부터는 一氣

呵成의 快進擊으로 공격목표 S(△680)—T(△315)를 攻略하게 되었다.

연대장 全富一대령은 敵의 저항이 輕微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날에 △930—△748 攻略의 激戰을 거듭한 제3대대를 계속 공격梯隊로 내세웠다.

가) 제3대대(장, 崔孝三소령)는 제9중대(장, 金明河중위)를 공격제1선에 내세우고 제10중대(장, 鄭逸浩중위)를 이에 後續시켜 07.00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9중대는 勇名 높은 중대장 金明河중위의 지휘下에 一騎當千의 鬪魂을 불태우면서 목표 S(△680)로 前進하였다. 直線으로 北上하는 이 1.1Km에 걸친 稜線은 東北쪽 廣石橋(俗稱 노루골)일대의 高地로부터 완전히 瞰制당하고 있으나 연대장이 판단한대로 敵의 側射威脅이 輕微하여 중대는 無人之境을 快走하 듯이 09.00 현재 목표高地 S(△680)를 일거에 손에 넣고 말았다.

중대는 9.30에 다시 西쪽으로 트인 능선으로 계속 2Km를 突進하여 12.00에 2개 중대의 저항을 받았으나 이에 猛攻을 加하여 30분간의 熱戰끝에 12.30에 △650를 점령하였다.

나) 한편 14일 현재 △517(甘雨里 南쪽)를 점령중인 연대 搜索中隊(장, 金鳳棲대위)는 北漢江 東岸邊을 北上하던 차에 제9중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목표 T(△319)를 輕微한 接戰끝에 점령함으로써 三幕谷의 河邊일대를 掌握하게 되었다.

다) 제2, 제1 兩대대는 △1,065—△895—△671(△1,065의 西쪽 능선)間의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중이었다.

이로써 제21연대는 3단계에 걸친 공격임무를 완수하고 제10, 제16 兩연대가 각기 제3단계를 수행하는 期間中 10월 16일 현재 점령확보한 進出線 및 主抵抗線에서 補修工事, 지뢰매설, 鐵條網架設등 陣地를 강화하면서 敵의 反擊에 대비하였다.

이날 20.00 현재 연대의 전과는 射殺 35명, 捕虜 9명, 小銃 5정, 손실은 戰死 2명, 戰傷 3명이었으며 기간중(10. 13~16)의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제21연대 戰鬪詳報에서).

種別 / 隊別	射殺	捕虜	鹵獲		
			小銃	60mm 迫擊砲	로켓트砲
제1대대		10	5		
제2대대	175	13	30	3	3
제3대대	45	1			
搜索中隊	11		4		
計	231	24	39	3	3

10월 17일 : 사단은 제21연대의 △680—△319 점령확보를 교비로 하여 左翼正面에 대한 制限攻勢를 一段落 짓고 이날 현재 中央 제16연대 정면의 △931 공략에 重點을 두게 되

었다.

1. 제10연대의 각 대대는 전날과 동일한 現進出線에서 接敵없이 陣地를 계속 강화하면서 前方에 대한 威力搜索을 실시하였다.

연대의 공격正面인 △1,090까지의 稜線일대에 敵의 강력한 방어 陣地가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같이 2일간에 걸친 威力搜索을 거듭한 연대는 기간중에 충분한 休息을 취하는 한편 彈藥 및 장비를 보충하였다.

2. 제16연대는 제16포병대대(美 제10군단의 作指 및 사단의 作命으로 10월 16일에 제50포병대대와 교대하였으나 20일에 배속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지원사격을 수행함)의 직접지원下에 전날의 공격隊形으로 계속 목표 P(△931)를 공격하였다.

가) 右제1선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07.40에 제10중대(장, 金鳳學중위)를 내세워 제12중대(장, 朴在東중위)의 重火器지원下에 13.00까지 東쪽 斜面上의 突擊準備線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의 발악적인 집중火網으로 인하여 遮蔽陣地를 急編하면서 최후突入의 機會를 포착하기로 하였다.

나) 左제1선 제1대대(장, 朴海載소령)의 제1중대(장, 吳世福중위)는 10.00에 高地 西南端에 진출하여 두차례의 突擊을 감행하던차에 美 제5공군소속 F—51戰爆機 5機編隊의 10분간에 걸친 機銃掃射의 지원을 얻는 가운데 13.00에 제3차 突擊을 감행하였다. 수류탄과 白兵이 교차하는 一進一退의 血鬪가 3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동안 중대장 吳世福중위를 비롯하여 제1소대장인 孫英鎬일등상사와 제2소대장인 姜相祚이등상사 그리고 제3소대장 李完燮이등상사와 제4소대장 孫熙燮일등상사는 시종 陣頭에서 挺身지휘하여 敵陣의 一角을 유린한 다음 日沒과 더불어 다시 高地 西南端으로 병력을 수습하여 敵逆襲에 대비하였다.

이날 23.00 현재 대대의 전과는 射殺 70명, 捕虜 3명, LMG 1정, HMG 2정이었으며 손실은 戰死 7명, 戰傷 24명이였다.

3. 제21연대는 16일 현재 제3단계 作戰의 공격임무를 완수함과 아울러 進出확보한 現陣地를 계속 강화하면서 戰列을 재정비하였다.

이날 12.00附로 연대에 배속한 對戰車공격대대는 15.00에 長財坫를 출발하여 新陣地인 △895로 移動中이었다.

10월 18일 :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제16연대의 목표 P(△931) 공략을 激勵하는 한편 제10연대로 하여금 △1,090에 대한 공격을 개시케 하였다.

1. 제10연대(장, 鄭 剛대령)은 2일간의 威力搜索결과를 분석하여 魚隱山(△1,277)의 南쪽 要部인 △1,090공략이 큰 難關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中共 제204사단은 濱退를 거듭하던 끝에 文登里—△1,090—岩洞(俗稱 바우골)—△931線에 최후阻止線을 확보하여 美 제10군단의 左翼進出을 抑制하려는 듯 하였으며 이 △1,090 일대에 대대이상의

兵力을 배치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따라서 △1,220—△1,090間의 능선은 敵의 稠密한 火網構成으로 因하여 공격이 容易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가) 제3대대(장, 金斗星대위)는 09.00에 △1,220로 진출하여 美 제2사단 제38연대로부터 該高地를 인수한 다음(美 제10군단 作命에 의거) 제9중대(장, 高仁淑중위)를 右一線에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를 左一線에 각각 전개하여 13.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2중대의 重火器의 지원과 제16포병대대의 직접지원(105mm 砲彈 409발)下에 300m 突進한 兩중대는 집중火網과 西北쪽 △869일대에서 위협하는 側方화력으로 因하여 그 이상의 進擊이 如意치 못하였다.

나)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이날에 새로 附與된 전투地境線內의 新陣地(△987—△1,220間)를 美 제2사단 제38연대로부터 인수하여 대대兵力을 배치 하였다.

다)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는 연대예비로 △1,220—△1,090(△1,220의 西南쪽)에 대대主力을 배치하여 陣地를 강화하였다.

2.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은 목표 P(△931)을 기어코 공략하리라는 굳은 決意下에 전날까지 연대예비로 控置하였던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까지 공격梯隊에 참가시켜 최후의 一擊을 加하기로 決心하였다.

가) 高地의 東쪽 斜面으로 突進中인 右一線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제10중대(장, 金學鳳중위)를 제9중대와 교체한 다음 09.1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때마침 上空에 출현한 美 제5공군소속 F4U 戰爆機 2개 編隊 (8機)의 壯快한 근접지원(네이팜彈 8발, 100Lb 爆彈 12발, 로켓트彈 8발, 15,000발의 機銃掃射)을 받으면서 11.30 현재 高地頂上 60yds까지 일거에 肉迫하였으나 두터운 彈幕에 부딪치게 되었다.

중대장 金學鳳중위는 즉각 각 소대에서 2~3명의 決死突擊組를 급편케 하여 17.00까지 무려 5차에 걸친 육탄突入을 감행한 결과 敵主陣地의 左端一角을 점령확보하였다. 제9중대(장, 鄭雲福중위)는 제10중대의 후방 100m거리를 밀접히 유지하면서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나) 中央제1선에서 正面突破를 감행중인 제1대대(장, 朴海軾소령)는 제2중대(장, 金燦起중위)로써 13.30에 돌격을 감행케 하여 高地頂上의 南斜面 70m까지 육박하였으나 빗발치는 彈雨로 인하여 日沒까지 遮蔽陣地를 급편하던차에 薄暮가 山頂일대를 덮기 시작하자 이 刹那를 이용하여 再次 突入하여 陣地의 一角을 奪取하였으니 虛隙을 노리는 猛虎의 一搏과도 같은 솜씨였다.

다) 전날까지 연대예비로 △977를 확보중이던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의 제5중대(장, 金孝得중위)는 여기를 제21연대의 제1중대(장, 呂甫淵중위)에 인계하는 즉시로 공격 左제1선으로 勇躍 돌진하였다.

△931는 砲煙속에서 血雨가 霏霏한 屠戮場으로 化하여 연대 각 공격梯隊는 「오람캐」의 붉은 醜虜에 民族正氣의 鐵槌를 내리 치게 된 것이다.

15.30에 高地 西南쪽 7部능선에 돌진한 제5중대는 중대장 金孝得중위의 陣頭指揮下에 제1소대장인 申副伊일등상사와 제2소대장 李德貴이등상사 그리고 제3소대장인 鄭東勳일등상사가 先陣을 서로 뒤질세라 突進에 이은 突進을 거듭한 끝에 19.00正刻에 점령한 主陣地의 一角에서 야간공격의 好機를 노리게 되었다.

한편 金英鎭중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는 기간중 제5중대를 지원하면서 敵前 260m 前方까지 진출하여 제5중대와 突擊線을 連繫한 다음 21.50에 수류탄과 白兵으로써 일거에 敵陣內의 交通壕를 장악하였다.

敵은 陣入의 一隅에 壓縮되어 斷末魔의 최후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月曆 十八夜의 기우는 달빛이 구름에 가리워 으스름한 高地일대에는 累累하게 山積한 屍體의 哭鬼가 啾啾하였다.

이날 23.00 현재 연대의 전과는 確認射殺 87명이며, 손실은 戰死 4명, 戰傷 53명이었다

3. 제21연대는 16일 현재의 進出線에서 각 대대의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09.00에 제1대대 제1중대로 하여금 △977를 제26연대의 제2대대 제5중대로부터 인수케하여 (사단作命 제140호에 의거) 제10, 제16 兩연대의 제3단계 기간중 사단 左翼의 방어廣正面을 담당하게 되었다.

10월 19일 :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공격목표 P(△931)에 대하여 連 사흘째의 紛戰과 亂鬪를 거듭하고 있는 제16연대를 鼓舞激勵하는 한편 제10연대로 하여금 △1,090를 계속 공격케 하였다.

1. 제10연대의 공격梯隊인 제3대대(장, 金斗星대위)는 08.00에 전날의 공격隊形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2중대 重火器의 지원下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제16포병대대는 목표高地 후방의 重火器陣地에 30분간에 걸친 制壓射擊(105 mm 砲彈 655발)을 加하였으며 공격개시 시간에 출동한 美 제5공군소속 F—51戰爆機 2개 編隊 8機는 △869일대에 Napalm彈과 機銃掃射를 퍼부어 側方火力을 제압하였다.

이 지원下에 공격開始線을 통과한 공격梯隊는 전날의 彈幕지대를 일거에 돌파하고 12.30에 無名高地(△1,090의 西南쪽 1Km)에서 1개 중대 규모의 抵抗을 받았으나 左제1선의 急斜面을 進擊중인 제10중대가 신속과감하게 敵陣의 背面을 直突하여 右一線인 제9중대의 진출을 容易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는 계속 공격하여 목표高地의 南쪽 連峯인 △1,090의 敵陣을 奪取코자 하였으나 여기에서 또다시 집중砲火와 側射화력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連峯은 목표高地와 指呼之間에 솟아 있는 유리한 據點이기 때문에 兩중대는 四周방어陣地를 急編하고 2개 소대로 야간奇襲을 감행키로 하였으나 夜半부터 갑자기 먹구름이 하

늘을 덮고 强風이 불었으므로 이 好機를 이용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매우 可惜한 일이었다.

나) 제1, 제2 兩대대는 전날에 이어 △1,220을 중심으로 하는 主抵抗線에서 接敵없이 계속 陣地를 補强케 하면서 각 重火器中隊로 하여금 제3대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2. 제16연대의 각 공격梯隊는 전날에 强占한 敵主陣地의 一角에서 하룻밤 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분대규모의 敵 逆襲을 모조리 擊退하면서 점령陣地를 固守한 다음 이날을 期하여 기필코 高地頂上을 점령하고야 마리라는 不退轉의 決意下에 계속 紛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가) 敵 主陣地의 左端一角을 점령중인 右제1선 제3대대의 제9, 제10 兩중대는 拂曉무렵에 1개 소대규모의 敵의 逆襲을 擊退하고 다시 제2파의 逆襲을 粉碎하던 차에 08.30에 대대명령으로 200yds 철수하였다. 이 철수와 동시에 제16포병대대의 制壓射擊이 일시에 집중하여 敵의 逆襲部隊를 屠戮하는 가운데 突擊隊形을 재정비한 兩중대는 지원사격의 延伸과 더불어 再突入을 감행하였다.

適時에 출동한 美 제5공군소속 F—51 戰爆機 1개 編隊 4機가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로 焦熱의 屠戮場을 이루는 가운데 再次 돌진한 兩중대는 黑煙과 惡臭가 미처 사라지지도 않은 敵陣地의 一角을 15.00에 다시 점령하였다.

나) 中央正面의 敵 主陣地 一角을 점령중이던 제1대대 제2중대(장, 金燦起중위)는 2개 決死搜索組(3명)를 급편하여 敵 主陣地에 대한 直衝接近路를 偵察케 하였다. 때마침 月曆十九夜의 달빛이 먹구름으로 흐리게 되자 決死搜索組는 夜陰속에서 敵陣을 수색하여 01.00에 그 제2선 交通壕를 확인하였다.

金重泰소위가 陣頭指揮하는 제1소대는 불아부치는 强風을 逆利用하여 03.20에 奇襲을 감행하였다. 제2선 交通壕의 虛點을 直衝하여 암호를 相呼하면서 短兵戰을 결행한 소대는 縱橫無盡으로 敵을 유린한 다음 拂曉무렵에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07.00를 전후하여 左右隣接의 공격梯隊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자 중대는 高地 南正面의 이 一角에서 지원射擊을 加하던차에 10.00 현재 진출한 제2대대의 제6, 제7 兩중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西南쪽 능선 500m 線까지 철수한 다음 다시 사단命令으로 21.00에 제21연대 제2대대 제5중대의 陣地를 인계하고 楡谷으로 移動집결 하였다.

다) 高地 西南쪽 斜面上의 敵主陣地一角을 점령중인 제3대대의 제6, 제7 兩중대는 07.50에 공격을 개시하여 10.00 현재 제1대대의 제2중대가 점령확보중인 南正面에서 임무를 인수한 다음 제16보병대대의 직접지원과 항공근접지원下에 突擊至近距離를 일거에 突破한 끝에 제2중대가 전날 夜半에 奇襲을 加한 바 있는 제2선 交通壕를 완전장악하고 15.00에 右제1선인 제3대대의 제6, 제10 兩중대의 突擊에 호응하면서 敵 主陣地의 南正面으로 直衝突入하였으니 지난 3일간 頑强히 버티고 있던 敵은 마침내 秋風落葉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2, 제3 兩대대의 4개중대는 그 일부 병력으로써 敵을 계속 追擊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931의 頂上에 太極旗를 휘날리며 勝戰鼓를 높이 울렸으니 때는 16.20이었다.

이날 연대의 전과는 確認射殺 150명, 捕虜 1명, SMG 2정, 迫擊砲(60mm) 4문이며 손실은 戰死 18명, 戰傷107명(장교2)이었다.

10월 20일 : 사단은 전날에 점령한 △931을 補强하면서 제3단계의 최종목표인 △1,090에 대한 攻略에 全力을 傾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날 夜半부터 强風을 수반하여 흐려지기 시작한 날씨는 마침내 暴雨로 일변하여 山腹到處에 濁流가 氾濫하므로 제10연대는 공격前進에 심한 障害를 받는 동시에 砲兵지원과 항공근접지원이 중단되는 惡條件下에서 더 이상의 공격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한편 3일간의 血戰끝에 △931을 점령한 제16연대는 이날 사단 作戰指示로 陣地를 제21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坪里로 이동집결 하였다.

10월 21일 : △1,090를 공격중인 제10연대는 暴雨가 멎기를 기다리던 차에 正午무렵부터 날이 개이기 시작하자 즉각 제3대대로 하여금 공격을 계속토록 하였다. 12.20에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제1선으로 하여 전날의 進出線에서 행동을 개시한 대대는 雨後의 미끄러운 急斜面을 한발한발 밀고 올라갔으나 10m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雲霧로 因하여 공격隊形의 유지가 至難할 뿐 아니라 砲지원과 航空근접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m 前進한 線에서 四周방어진지를 급편하고 日氣회복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편 제1, 제2 兩대대는 전날에 이어 △1,220의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였다.

10월 22일 : 山峽을 뒤덮고 있는 짙은 雲霧는 여전히 視界를 제한하였으나 10.20에 제16포병대대의 임무를 완전 인수한 제50포병대대는 08.30부터 최초의 지원사격의 火門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제10연대 제3대대는 09.00에 砲지원밑에 전날의 공격隊形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지난 2일간 日氣不順으로 因하여 我軍의 攻擊이 中斷되었던 間隙를 이용한 敵은 이날현재 △1,090의 7部능선까지 要地要部의 방어陣地를 補修强化하여 固守態勢를 굳힌 것으로 推定되었다.

공격제1선인 제11중대(장, 閔昌植중위)는 無名高地(△1,090의 南쪽 능선상의 連峰)의 南西쪽 峽谷에서 溪流를 넘어 中腹까지 진출한 線에서 敵 1개 중대규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나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의 掩護下에 30여분간의 공격을 加한 끝에 11.40에 高地를 점령확보 하였다.

기간중 美 제5공군소속 F4U 및 F—51 戰爆機 3개 編隊 12機는 雲霧로 因하여 視界가 不良함에도 불구하고 △1,090—魚隱山(△1,277) 능선상의 敵防禦線에 각종爆彈 22발과 機銃掃射를 加하여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10월 23일 : 日氣는 여전히 不順하여 霧雨가 山腰를 축축히 적시는 가운데 10.30에 無名高地로부터 공격을 계속한 제10연대의 제3대대는 전날과 동일하게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1,090를 목표로 進擊하였다.

이날 제5공군소속 F4U 戰爆機 2개 編隊 8機가 연대 上空에 출동하였으나 낮은 雲海가 連峰을 덮었기 때문에 공격목표를 변경하여 視界가 비교적 良好한 三幕谷(제21연대 正面의 左端)일대의 敵陣에 制壓공격을 加하였다.

한편 제50, 美 제300, 美 제780 3개 포병대대는 전날에 이어 連 이틀째 猛砲擊으로 105mm 砲彈 4,443발, 8″砲彈 30발을 집중하여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雨後濕潤한 接近路上의 步行前進이 自由롭지 못하고 敵의 집중火網이 완강하므로 공격梯隊는 16.20분 현재 敵前 200m 線에서 左右 突出部一角에 猛攻을 加한 다음 그 이상의 突進을 할 수 없었다.

이 이틀간의 공격에서 거둔 연대의 전과는 射殺 47명, LMG 4정, 迫擊砲 2문(82mm 1, 60mm 1)이며, 戰死 4명, 戰傷 15명의 손실을 보았다.

10월 24일~26일 : 24일 未明에 强風을 동반한 驟雨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 본격적인 暴雨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까지의 사흘동안 제10연대는 不得已 공격을 일단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제10연대(장, 鄭剛대령)은 敵陣前에서 四周방어중인 제3대대 主力을 일단 無名高地까지 철수시켜 日氣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한편 敵情파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제3대대(장, 金斗星대위)는 대대예비인 제9중대로 하여금 수개 組의 威力搜索隊를 前方에 투입하여 3일간에 걸친 敵情파악에 注力하였다.

威力搜索隊는 暴風雨속으로 敵陣一角의 直前까지 침투하여 打擊과 搜索을 强行한 결과 24일에 射殺 7명, LMG 1정, 小銃 2정, 25일에는 射殺 29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2. 한편 제21연대는 16일 현재의 現主陣地를 계속 확보강화하면서 廣石橋(俗稱 노루골) 北쪽의 溪谷너머로 威力搜索隊를 連日 투입하여 敵情을 偵察하던 차에 25일에는 △931 西北쪽의 능선일대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前後 4차에 걸쳐 交戰하였으며 26일에는 제1, 제2 兩대대의 일부正面으로 반격을 試圖한 敵 2개 중대규모를 鎧袖一觸格으로 擊退하고 다시 進擊으로써 전과를 확대하였다.

10월 27일 : 連 3일간의 暴風雨가 비로소 걷히고 快晴한 날씨로 회복되자 제10연대장 鄭剛대령은 제3대대에 대신하여 제2대대로써 △1,090에 대한 공격을 再開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07.00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11.00 현재 제3대대의 進出線에서 공격임무를 인수하고 제5, 제6 兩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14.00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兩중대는 제8중대(장, 崔鳳基중위)의 重火器지원下에 先陣을 서로 다투는 勇戰을 보였다.

한편 제50, 美 제300, 美 제780, 美 제196의 4개 포병대대는 主로 △1,090 背斜面과 敵의 重火器陣地를 강타하여 105mm 砲彈 4,131발과 8″ 砲彈 28발, 그리고 155mm 砲彈 26발로써 공격梯隊를 지원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15.40에 無名高地(△1,090 南쪽 300m 능선상의 連峯)에 대한 短兵戰을 決行한 끝에 1개 중대를 擊砕함으로써 16.00에 高地頂上에 太極旗를 휘날리고 指呼之間에 있는 최후 목표인 △1,090을 향하여 鬪魂을 겨누게 되었다. (이날의 전과는 不明할 것으로 추측되나 資料上의 정확한 統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밝히지 못함.)

10월 28일 : 士氣가 衝天한 제10연대의 제2대대는 오늘이야말로 期於이 목표高地를 점령하고 말겠다는 굳은 決意下에 07.00에 제6중대를 右一線에, 제7중대를 左一線에 전개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50, 美 제300의 2개 포병대대는 25분간에 걸친 制壓사격에 이어 突擊開始 5분전부터 突擊지원사격을 집중하여 (105mm 砲彈 748발) 敵의 火力을 제압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소속 F4U 戰爆機 1개 編隊는 10분간에 걸친 근접지원을 집중하였으니 공격梯隊는 공격開始 4시간 40분만인 11.40 현재 高地頂上 50m 前方까지 突擊肉迫하여 수류탄화력을 집중하면서 돌입하였다.

敵은 최후發惡으로 陣內彈幕을 깔고 저항하였으나 必勝의 一念에 불타는 공격梯隊는 육탄에 이은 육탄으로 敵의 掩體壕와 散兵壕를 擊砕하면서 혹은 銃劍으로 혹은 수류탄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이 阿修羅와 같은 猛攻앞에 鐵壁인들 막아낼 길이 없는 터에 「붉은 醜敵」들은 마침내 潰走하기 시작하였으니 12.00 현재 △1,090의 高地頂上에는 太極旗가 펄럭이게 되었다.

이로써 제10연대는 만 12일만에 제3단계의 공격임무를 완수하고 敵의 牙城인 魚隱山(△1,277)을 2.4Km 北方으로 노려보면서 四周방어陣地에서 次期作戰에 대비하게 되었다.

제10연대의 △1,090 攻略은 또한 사단의 3단계에 걸친 全作戰의 終了를 뜻하는 것이며 이날 현재 사단은 △1,090—△931—△岩洞—△319線의 進出線에서 右隣接인 美 제2사단과 左隣接인 제6사단의 진출에 호응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2차 白石山戰鬪(9. 30~10. 1) 이후 本戰鬪 제1단계 作戰(10. 6~10. 12)의 초반에서 我軍의 猛攻으로 潰滅的인 打擊을 입은 北傀 제12, 제32 兩사단은 潰退를 거듭하던 중 10월 10일에 中共 제68군 제204사단에 방어陣地를 인계한 다음 元山方面으로 철수하여 部隊를 再編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中共 제204사단은 侵略後 최초로 참가한 이 一戰에서 厚顔無恥하게도 潰走에만 汲汲하면서 △1,220—△977—△1,065의 主抵抗線에 이어 방어제2선인 △1,090—△931—△680線마저 상실하게 되자 敗殘主力을 魚隱山(△1,277)과 △949로 兩分하여 退却시켜 병력(末詳)을 증강받으면서 △1,277—△960—△949

線에 새로운 방어陣地를 急編중인 것으로 推斷되었으나 이는 中共捕虜의 陳述을 종합판단한 結果이다.

사단은 白石山을 점령확보함으로써 次期作戰의 공격據點을 굳힌 다음 23일간에 걸친 3단계 作戰期間을 통하여 乘勝長驅로 각 목표고지마다 鐵柚一觸의 快勝을 거듭한 끝에 28일 12.00에 최종목표인 △1,090를 점령함으로써 △1,090—△931—△680間에 前進據點을 확보하여 敵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10월 25일) 板門店의 休戰協商이 再開되어 軍事分界線 策定이 主議題로 등장하게 되자 中部 및 中東部戰線의 進出制限線이 北上됨에 따라 左隣接인 美 제9군단에 Duluth線(金城—平康—五聖山) 진출이 명령되었다.

이에 이어 左隣接 제6사단과의 전투地境線이 변경되어 사단 예하 제21연대는 제7사단 예하 제5연대에 作戰地域을 인계하고 美 제9군단에 배속과 동시에 제6사단에 배속되면서 계속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에 사단은 11월 20일 08.00附로 作戰地域을 제7사단에 인계하고 일단 春川에 집결한 다음 27일에 陸本直轄로서 다시 全州로 이동하여 白野戰戰鬪司令部에 배속됨으로써 西南地區에 있어서의 共匪擊滅作戰의 中心戰力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단의 本作戰의 성과는 休戰協商의 軍事分界線 책정(11월 27일 暫定的 分界線이 확정됨)을 앞두고 我軍에게 유리한 次期作戰의 據點을 형성하였던 것이며 3단계(10.6~28)의 기간중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種別 / 隊別	射殺	生捕	鹵				獲		
			로켈砲	迫擊砲	重機	輕機	多發銃	小銃	手榴彈
제10연대	576	56			6	17	14	78	960
제16연대	609	17		2	4	5	2	20	2,450
제21연대	286	33	3	4	3			56	9,7 0
계	1,472	106	3	6	13	22	16	154	13,110

<제8사단 戰鬪詳報에서>

損　　失

隊別 / 種別	戰死	負傷	失踪	亡失			
				BAR	M1 小銃	칼빈小銃	銃劍
제10연대	1/111	7/397	/3	2	10	49	168
제16연대	3/93	7/466	/3				
제21연대	/37	5/285	/8				
계	4/241	19/1,148	/14	2	10	49	168

<제8사단 戰鬪詳報에서>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

(1973. 8. 30, 在鄕軍人會事務總長室에서, 예 중장)

이 전투에서 우리 연대는 제7사단 제5연대의 陣地를 인수하여 北漢江邊에서 北上진격하였다.

그 무렵 北傀捕虜를 잡았던 바 北傀 제32사단이 中共部隊와 交替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므로 사단에 건의하여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즉각 공격토록 하였는데 이 電擊작전이 적중하였다.

연대는 하루평균 6Km나 進擊하면서 △922, △1,065등의 공격목표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我軍의 電擊작전이 너무나 迅雷疾風같았기 때문에 中共部隊는 地形조차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로 支離滅裂의 潰走를 거듭하였을 뿐이었다.

◇ 제16연대 제1대대 부대대장 具麗會대위

(1973. 8. 30, 准將)

우리 대대는 사단 中央인 제16연대의 右제1선으로서 △938을 목표로 進擊하여 이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正面의 敵은 中共部隊였는데 예상외로 弱하여 무너지기 시작하자 한없이 退却하기만 하였으므로 목표지역을 용이하게 점령할 수 있었다.

많은 노획물을 획득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冬服, 牛馬, 제란가루, 옥수수가루 등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中共部隊는 北傀 제12사단과 교체하면서 이 지역을 겨울동안 방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 제21연대 戰史將校 李康仁증위

(1973. 8. 30, 대령)

이 戰鬪에서 特記할 만한 일은 當時 처음으로 중대에 보급된 57mm 無反動銃이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에 士兵들이 유심히 구경하다가 뒤에 서 있던 두명이 後爆風으로 인하여 1명이 죽고 1명이 重傷입은 不祥事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隔世之感이 간절하다.

이 戰鬪가 끝난뒤에 사단은 후방으로 이동하여 湖南地區 共匪殲滅작전에 참가하였다.

§ 戰 訓

◇ 指揮官의 決心

이 戰鬪에서 乘勝長驅한 사단의 攻略過程을 보건데 그 성공의 가장 큰 要因의 하나는 사단장을 비롯한 각 연대장의 결심이 適時適切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본다.

즉, 北傀 제12, 제32 兩사단이 2차에 걸친 白石山전투에서 치명적인 戰力消耗를 보게되자 中共 제204사단과 交替중이라는 諜報에 입각하여 그 허점을 과감하게 直衝하면서 숨돌릴 사이도 없이 공격에 이은 공격으로 敵에게 次線방어의 시간적여유를 許容하지 않았기 때문에 高山峻嶺이 重疊한 천연의 要害지대를 一瀉千里로 攻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 白石山 占據의 利點

사단 제10연대가 9.30~10.1의 단시일내에 이 作戰正面의 최대 要地要部인 白石山을 완전장악함으로써 全작전상에 결대유리한 공격據點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능선 또는 溪谷으로 이어지는 高山지대의 공격작전에 있어서는 우선 유리한 瞰制據點과 공격據點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戰訓의 본보기를 남겨 놓았다.

◇ 同一한 攻擊壓力

사단은 3개 연대를 동시에 攻擊一線에 내세움으로써 全戰線에 걸쳐 동일한 壓力을 加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미처 점령하지 못하였던 高地는 次段階의 벽두에서 兩翼포위로써 無力化하는 迅速進擊으로 단계별 進出線을 균등하게 유지해 나갔다.

◇ 夜間攻擊의 奏効

侵略醜敵들의 專賣特許로만 간주되던 야간공격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敵에게 陣地보강과 병력증강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특히 제2단계 작전에 있어서는 때마침 月曆보름달을 전후하여 淸明한 가을밤을 皎皎하게 비쳐주는 月明은 感傷에 앞서 醜敵擊滅의 一念에 불타는 장병들을 더욱 鼓舞하였던 것으로 본다.

◇ 士氣衝天

「時利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古兵家의 箴言 그대로 사단은 작전초부터 衝天하는 士氣와 百戰必勝의 鬪魂으로써 능히 공격과 점령 그리고 躍進과 前進의 妙를 발휘할 수 있었다.

3차에 걸친 盤田坪地區전투(本戰史 제6권 參照)에서 그리고 제2차 白石山전투에서 臨戰必勝의 赫赫한 戰歷을 자랑한 사단장병들은 攻者에게 주는 모든 地形的 불리점을 이 士氣와 鬪魂으로서 극복했던 것이니 無形의 精神力이 有形의 戰鬪力의 母胎가 된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緊密한 航空近接支援 및 砲兵의 直接支援射擊

全作戰期間을 통하여 항공근접지원 및 砲지원 사격이 긴밀하게 수행되어 공격梯隊의 進擊을 용이케 하였다.

敵은 地形地勢의 유리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突出部등 要地要部에 堅固한 掩體壕를 구축하여 我軍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보병화기만으로는 도저히 擊破할 수 없는 이 防者의 저항을 擊碎함에 있어서는 砲·爆彈 및 Napalm彈이 優先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병의 과감한 突入으로 최후의 一擊을 加해야 한다는 高地戰의 戰訓을 남기는 것이다.

◇ 新兵의 士氣振作

작전기간중 보충된 新兵이 不拘하였으나 이들은 實戰경험이 없고 훈련이 未及함에도 불구하고 古參兵에 뒤지지 않는 勇戰敢鬪로써 많은 激讚을 받았다.

이는 첫째 중대장이 항시 陣頭지휘하며 捨身垂範의 공격精神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古參兵들이 그 익숙한 高地戰鬪에서 先陣을 다투는 勇戰과 敢鬪를 不辭하였기 때문에 新兵 스스로 그 뒤를 따르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완전한 敵情파악

공격梯隊인 각 중대는 공격개시에 앞서 각 분대별로 士兵에 이르기까지 敵의 配備상황, 陣地구축상황, 공격목표에 관한 일반상황을 충분히 인식시켰으며 특히 공격간에 있어서도 지뢰지대, 側方火器, 敵의 出現豫想地點등을 新兵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켰으므로 豫期이상의 전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반면에 손실을 적게 내는데에 그칠 수가 있었다.

◇ 是正을 要한 事項

本전투에서 經驗的으로 是正하지 않으면 안되는 두가지의 큰 短點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高地推進補給이 勞務者들의 헌신노력에도 불구하고 進擊速度에 때를 맞추지 못한 事例가 간혹 있었으니 이는 지휘관의 不察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對空布板이 잘못 사용되어 항공근접지원時에 我軍에게 損害를 내는 事例가 간혹 있었으니 이 또한 지휘관의 失手가 아닐 수 없었다.

§ 硏 究

◇ 本戰鬪名에 관하여

文登里가 戰略上으로 차지하는 地理的與件이 크기 때문에 本戰鬪名을 「文登里 西南側 地區戰鬪」로 생각하였으나 여기가 사단 右隣接의 美제2사단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사단 작전지역내에서 특출한 地名을 고른다면 白石山 以北으로는 魚隱山(△1,277)이 最適인 것으로 보아 「魚隱山 南側地區 戰鬪」로 함이 可하다는 見解이다.

◇ 高地標高에 관하여

사단 및 각 연대의 전투詳報와 地圖上의 高地標高에 차이가 있었으나 地圖의 標高에 準하기로 하였다.

例컨데 목표 J(△728)—△726, 목표 R(△728)—△726, 목표 P(△938)—△931.

◇ 地名俗稱에 관하여

△931 南쪽의 「도피막」의 行政區域名이 不明하므로 俗稱 그대로 인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 戰鬪狀況에 관하여

10월 24일~26일 3일간의 戰鬪狀況중 제21연대의 정면에 敵 2개중대가 反擊하였다는 사실이 陸本定期作戰報告에 記載되어 있으므로 전투經過에 收錄하기는 하였으나 24~26일이면 제21연대의 진출선이 岩洞(俗稱—바우골)—三幕谷線까지 北上하였을 뿐만 아니라 潰退한 敵은 이미 文登里—三幕谷間 溪谷地帶 以北에서 防禦제2선을 급편중인 全般狀況에 비추어 본다면 그 5~6Km 南쪽에 있는 제21연대의 主抵抗線까지 2개중대의 敵이 침투하였다고 함은 參戰者의 證言으로 그 正誤를 가릴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4. 金城川 附近 戰鬪 (1951년 10월 13일부터 1951년 10월 2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2 호
상 황 도 제 2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美9제군단	장	중장	William M. Hoge	中共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67군	장	馬	襲
제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199사단	장	齊	武
제1대대	장	소령	洪 載 翊	(제595, 제596, 제597연대)			
제2대대	장	대위	宋 奇 德				
제3대대	장	소령	金 斗 逸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제2대대	장	소령	柳 承 源				
제3대대	장	소령	崔 熙 大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1대대	장	소령	林 完 植				
제2대대	장	소령	朴 哲 遠				
제3대대	장	대위	金 明 益	제201사단	장	馬	輝
지원부대				(제601, 제602, 제603연대)			
포병 제27대대	장	소령	朴 晶 浩	병력 : 14,000명			
사단 工兵대대	장	중령	朴 正 采	(團隊號 未詳의 砲兵부대가 지원함.)			
인접부대							
右인접							
제8사단 제2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左인접							
美제24사단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병력과 장비 : 대체로 편제상의 85%水準을 維持.							

나. 전투 전의 개황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은 51년 6월 중순에 중부전선으로 진출하여, 白岩山(△1,179)—赤根山(△1,073)—金化를 連하여 설정된 이른바 Ermine線上에서 진지를 選定한 이래 4개월이 지나도록 守勢를 취하다가 日氣가 淸明한 10월 중순을 택하여 다시 金城盆地를 制할수 있는 Nomad線(金城川 江口—汝文里—竹洞—△434—下所의 線)으로 指向한 제한공격을 計劃하였다.

이는 政戰兩略의 多目的 意義를 지닌 작전으로서 그 정치적 배경이나 전술적 策略에 대하여는 이미 概說에서 論한 바 있거니와, 어떻든 이 작전의 一環으로 군단의 右翼을 擔當한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10월 13일에 白岩山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同月 21일까지 9일동안에 걸쳐서 金城川 부근에서 中共 제67군(장, 馬 襲) 예하의 제199, 제201 兩사단을 大破하고 鶴岩山(金城 東南쪽 6Km)까지 進出케 된다.

그런데 이 전투의 특징은, 彼我가 對陣한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敵은 半 永久的인 陣地를 구축하고 각종 보급품을 비축하였다가 頑強히 저항함으로써 開戰이래 初有의 堅陣에 대한 공격전을 전개케 된 것이 그 第一이며, 더우기 사단의 공격 軸線은 白岩山으로부터 鶴岩山에 이르기까지 600 乃至 700高地의 山岳이 重疊하는데다 차량 기동로가 殆無할 뿐만아니라 北漢江과 金城川이 縱貫하여 大機動作戰이나 화력지원 및 보급推進등에 많은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克服하면서 逐次로 突出分斷하여 敵의 企圖를 擊碎한 것이 그 第二이다.

진격 당시에 군단의 正面에는 中共제67군이 金城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산하의 제199사단(장, 齊 武)을 白岩山 北쪽에, 제200사단(장, 李 靜)을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要線인 赤根山 北麓에 각각 配陣하는 한편 제201사단을 金城 北쪽에 예비로 保有하면서 전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51년 6월 末에 新義州로 潛入하여 7월에는 陽德에서 산악훈련까지 마친 부대로서 9월 10일을 전후하여 金城地區에서 中共 제27군(장, 彭德淸)의 전투地域을 인수한 뒤에 戰線의 沈滯期를 契機로 하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과 장비를 계속적으로 증강할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반격을 기도하는 등 자못 固守態勢를 굳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에 사단과 對決케 된 제199사단은 主陣地를 金城川 北岸의 △529—汝文里—△541—△585를 連하는 線에 構築하는 한편 연대규모의 병력을 그 南岸에 있는 △462—汝乃谷—△565 線에 配置한 가운데 사단의 動靜을 살피면서 固守態勢를 取하고 공격의 好機를 노리는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이와같이 그들이 우선 방어 一邊倒로 轉換한 것은 지난 9월 22일에 登大里 부근의 △780—水串地—△819에서 宋大厚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 제1, 제2 兩대대의 強打로 말미암아 거이 대대규모의 병력 손실을 입고 물러선 뒤로 同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逆襲을 試圖하다가 도리어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에 依하여 壓滅的인 打擊을 받아 이번에는 연대규모의 死傷者를 내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공격을 단념하고 守勢로 轉換한 듯 하였으며 더우기 사단이 威力搜索을 강화하자 그들은 連日 진지를 보강하고 損耗병력을 보충하면서 우선 保守一念으로 汲汲한 듯이 推斷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공격初動에 이를 一擊하고 金城川을 건넜으나 17일 이후부터는 제67군의 豫備인 제201사단이 當面戰線으로 投入됨으로써 사단은 사실상 中共 2개사단과 對決케 되었으니, 이들의 兵力은 도합 14,000명에 達하고 보급이나 장비도 비교적 充足된 편이었으며 또한 團隊號 未詳의 포병부대가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사단은 제2, 제7 兩연대를 Ermine線上의 右翼陣地인 水上里—△782—△1,057를 連하는 일대에 展開하는 한편 제19연대를 白岩山 北麓의 前進陣地인 △780—水串地—△819의 線으로 진출시킨 가운데 敵情을 探索하면서 次期作戰에 대비하고 있다가 10월 9일에 군단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게되자 곧 사단 作戰指示 제56호를 하달하여 進攻態勢를 갖추었다.

즉, 前進陣地를 堅守하고 있는 제19연대는 現 接觸線에서 右一線으로서, 주저항선의 左半部를 담당하고 있는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12일 07.00에 △782의 後麓으로 집결하여 白岩山을 넘어서 內城洞里(△819 西쪽)까지 전진시킨 다음 左一線으로서, 각각 공격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제2연대는 제19연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여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12일 20.00까지 攻擊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때에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編制上의 85%線을 유지하였으나 龍門山 勝捷의 精兵이고 또한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가 일반지원 하였으며 그 밖에도 군단의 제218, 제92, 제987, 제937 砲兵대대의 지원이 可能하였다.

특히 사단은 9월 하순에 登六里 부근에서 敵의 鋭鋒을 꺾은 뒤인지라 장병 모두의 戰意가 勃勃하였으며 人力과 騾馬로써 보급推進에 노력한 結果 작전상 큰 支障이 없었다.

사단 右翼에서는 北漢江을 건너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의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가 △938(白石山 西北쪽 4Km)를 攻擊하고, 左翼에서는 美제24사단의 제19연대(장, Ned D.Moore 대령)가 Nomad線을 목표로 併進공격 中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장 Hoge 중장은 D일 H시를 13일 06.00로 決定하고 군단 작전명령 제50호를 하달하였는데 사단에 指示된 임무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군단은 현 접촉선(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에서 공격을 再開하여 Nomad線으로 進出하려 한다.

② 제6사단은 現 進出線(△780—水串地—△819의線)에서 군단의 右翼地區를 貫通하여 當面의 Nomad線을 目標로 군단 右翼을 掩護하면서 突進攻擊하라.

③ 목표를 奪取하면 繼續하여 進攻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와같은 命令을 받은 사단장 張都映준장은 當面의 Nomad線인 金城川江口—汝文里—竹洞을 連하는 線을 목표로 突進키 위한 部隊의 機動과 화력의 運用에 대한 모든 計劃을 檢討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隨伴되었다.

첫째 : 사단의 공격軸線은 山岳이 험준하고 機動路가 狹隘할 뿐만 아니라 金城川 流域의 障碍가 있기 때문에 迅速한 機動과 보급에 많은 制限을 받을 것이며,

둘째 : 右翼에는 제8사단 隷下의 제21연대가 北漢江 東畔에서 △938를 공격중에 있으나 東南쪽으로 9Km나 떠러진 까닭으로 東側의 敵勢를 自力으로 牽制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 金城川을 敵前 渡河하여야 할 對備策이 必要할 것이며,

네째 : 主力이 金城川을 넘어서 射程이 延伸되면(砲陣地와 20Km의 距離) 砲兵의 직접지원이 中絶될 것이므로 「挺進砲兵」등의 對應策이 講求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 長期間에 걸쳐 築城된 敵의 堅陣을 攻陷하는 데에는 特攻隊등의 特殊配慮가 必要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隘路의 打開策을 摸索한 결과 사단장은 제19, 제7 兩연대를 左·右梯隊로 하여 우선 金城川 南岸의 敵을 驅逐키로 하되, 비교적 渡河가 용이한 左一線 地域을 擔當한 제7연대로 하여금 △565를 탈취하는 즉시로 金城川 對岸에 橋頭堡를 확보케 하였으며 제2연대와 捜索중대는 현진지와 北漢江 西岸을 경비하면서 출동대기케 하고, 포병대대는 一線 兩연대를 일반 지원하다가 主力으로써 金城川을 超越하면 東幕洞(白岩山 西쪽 5Km)으로 移動하여 강차 新村(白岩山 西北쪽 7Km)으로 轉進할 수 있도록 準備케 하는 동시에 군단에 항공지원을 要請하고 美제24사단과는 砲兵대대의 機動路 使用上의 優

先策을 協調하였다. 또한 一線연대에 工兵 각 1개중대를 分割支援케 하여 장애물 제거와 機動路의 改修를 專擔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動員 可能한 모든 인원과 騾馬로써 보급지원에 全力을 傾注키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指導方針을 마련한 사단장은 12일 15.00에 前方 指揮所를 大利里(九萬里發電所부근)에서 堂巨里로 推進하는 동시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73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780—水串地—△819를 連하는 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當面의 Nomad線을 목표로 突進하려 한다.

② 제19연대는 △780와 水串地 間에서 右一線으로 약진하여 △462 및 목표"B"(CT 910 419의 無名高地)를 탈취한 다음 계속하여 當面의 Nomad線으로 進擊하라.

③ 제7연대는 △819에서 左一線으로 躍進하여 △565를 탈취하는 즉시로 金城川 北岸에 橋頭堡를 확보하고 主力의 渡河를 掩護하라.

④ 제2연대는 1個대대를 △780 東北쪽으로 突進케 하여 北漢江 西岸을 掌握토록 하고 主力은 現 陣地에서 警戒를 强化하면서 別命에 即應토록 待機하라.

⑤포병대대는 主로 일반지원에서 任하되 화력의 優先權을 제7연대에 指向하라.

躍進할 진지는 東幕洞으로 豫定하되 그 選定에 關하여서는 美제19연대와 現地에서 相互協調하라.

⑥ 捜索중대는 後洞 —△780 線을 確保하면서 北漢江 西岸을 警備하라.

⑦ 工兵대대는 제19, 제7兩 연대에 각 1개 중대를 分割 配屬하고 殘餘병력으로 長財洞과 舊堡間의 道路의 開設과 補修作業을 專擔하라.

⑧ 通信중대는 堂巨里와 △819間에 通信軸線을 유지하고 각 연대의 OP가 進出하는 즉시로 有線을 延伸하라. 有無線의 使用은 사단 SOI를 運用하되 特例事項은 別途指示키로 한다

⑨ 醫務중대는 長財洞에 前方救護所를 設置하라.

⑩ 協調指示

㉮ 規定에 準한 對空布板을 標識하되 특히 敵眼에 暴露되지 않도록 하라.

㉯ 攻擊間에는 必要에 따라 特攻隊를 편성하여 敵의 據點을 覆滅토록 하라.

㉰ 橋頭堡의 설정後 渡江작전은 되도록 黎明期를 이용하라.

㉱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진지를 構築하고 障碍物을 敷設할 것이며 戰況이 膠着되면 攻擊築城法을 適用하라.

⑪ 공격 開始시간은 13일 06.00이다.

⑫ 사단 前方 指揮所는 최초 堂巨里에 위치하며, 主力이 金城川을 超越하면 長財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작전실시

10월 13일 : 사단은 드디어 4個月 동안이나 堅持한 진지를 박차고 이날 06.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右一線인 제19연대는 登大里 부근에 있는 敵의 據點을 一蹴하자 곧 金城川 江口로 進擊하고 左一線인 제7연대는 外城洞里 附近에서 △565를 탈취한 다음 金城川을 건너 廣大洞으로 진격하였으며 제2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공격의 進展에 따라 Nomad線을 목표로 躍進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은 우선 金城川 南쪽의 敵을 驅逐키로 하였는데, 當面의 敵은 中共 제199사단(장, 齊 武)隷下의 제597연대로 알려진 병력으로서 高地마다 堅固한 陣地를 占據하면서 집요하게 저항한 까닭으로 激戰을 보게 되었으나 兩연대는 이를 逐次로 공격하면서 無退의 巨步를 내디뎠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 04.40부터 攻擊을 시작하여 舊堡와 水串地 부근까지 躍進한 다음 여기에서 제1, 제3 兩대대를 左右梯隊로 전개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하여 砲兵火力의 支援下에 06.00부터 일제히 接敵前進하였는데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北漢江 西岸의 △462를 목표로 進擊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明盈대위)는 水串地 西쪽의 無名高地를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윽고 08.00에 제1대대는 舊堡 西北쪽에서 北漢江으로 흐르는 溪谷을 건너 △462로 進出하다가 그 南쪽 1Km의 無名능선에서 先鋒인 제3중대가 중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되었으나 左 第一線인 제2중대의 協力을 얻어 1시간 半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擊破한 다음 계속 追擊하여 10.00에는 同 高地의 中腹까지 掌握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高地에서는 대대규모의 敵이 金城川과 北漢江과의 合流點 부근에서 背水의 진지를 마련하고 있다가 최후阻止사격의 집중으로 頑强히 發惡한 결과 熾烈한 火力이 交叉되었다.

이 무렵 제3대대도 前記한 無名高地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對決케 되었는데 너무 전지가 견고한 탓으로 强襲과 直衝의 互用에도 不拘하고 11.00에 이르기까지 볼 만한 進展이 없게 되자 연대장은 예비대대인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를 汝乃谷쪽으로 迂回시켜 敵陣의 西側背를 不時에 挾攻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가 △819에서 汝乃谷으로 急遽突進하는 즉시로 제1, 제3 兩대대는 同時에 포위망을 壓縮하면서 兩面에서 合擊하니 그토록 집요하게 저항하던 敵도 側背에서의 强襲에 唐慌하여 動搖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好機를 看破한 제3대대의 正面突破로 敵陣을 震動케 하였다.

그러나 血路를 헤치면서 물러선 일부의 敵이 △462로 潰退하여 金城川 南쪽에 있는 마지막 據點인 이 無名高地에서 合勢함으로써 제1대대는 끝내 이를 擊破하지 못하고 日沒과 함께 守勢로 轉換하였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1, 제2 兩대대를 공격 梯隊로 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後續케하여 △565(外城洞里 北쪽 500m)를 집중공격 하였는데, 06.45에 右一線인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가 同高地의 南쪽 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자 2시간 동안에 걸친 交戰끝에 이를 擊破한 다음 隊伍를 再整備하여 09.10부터 다시 進擊을 계속하였다.

이무렵 左一線인 제2대대(장, 柳承源소령)는 小城洞里 부근에 다다라 제6중대는 該高地의 西側 腹背를 공격하고 제5중대는 △362에서 增援하려는 중대규모의 敵에 대하여 牽制攻勢를 펴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1대대는 제2중대를 右 第一線으로 하고 제1중대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3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전개하여 동시에 육박한 끝에 8部능선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가 10.00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敵의 砲擊이 격증하게 되고 대대규모의 병력이 최후阻止사격을 集中함으로써 一時 공세를 늦추었다가 11.00에 一擧突破를 加한 끝에 수류탄과 白兵의 近接對決로 屠戮戰을 전개중 제2대대의 제6중대가 背後를 强襲하고 敵火力을 制壓한 결과 敵 72명을 射殺한 다음 3명을 사로잡고 11.20에 同 高地를 奪取하고 말았다.

그뒤에 연대는 小城洞里 부근까지 追擊하면서 敗敵을 剿滅하다가 日沒과 더불어 다음 戰鬪에 對備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一線 兩연대가 예정대로 進出하자 △780—△819를 連하는 線으로 主力을 前進시켜 제2선에서 진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를 △780 東北쪽으로 前進케 하여 北漢江 西岸을 경비토록 하였으며, 사단 搜索중대는 연대와 連繫를 維持하면서 搜索警戒에 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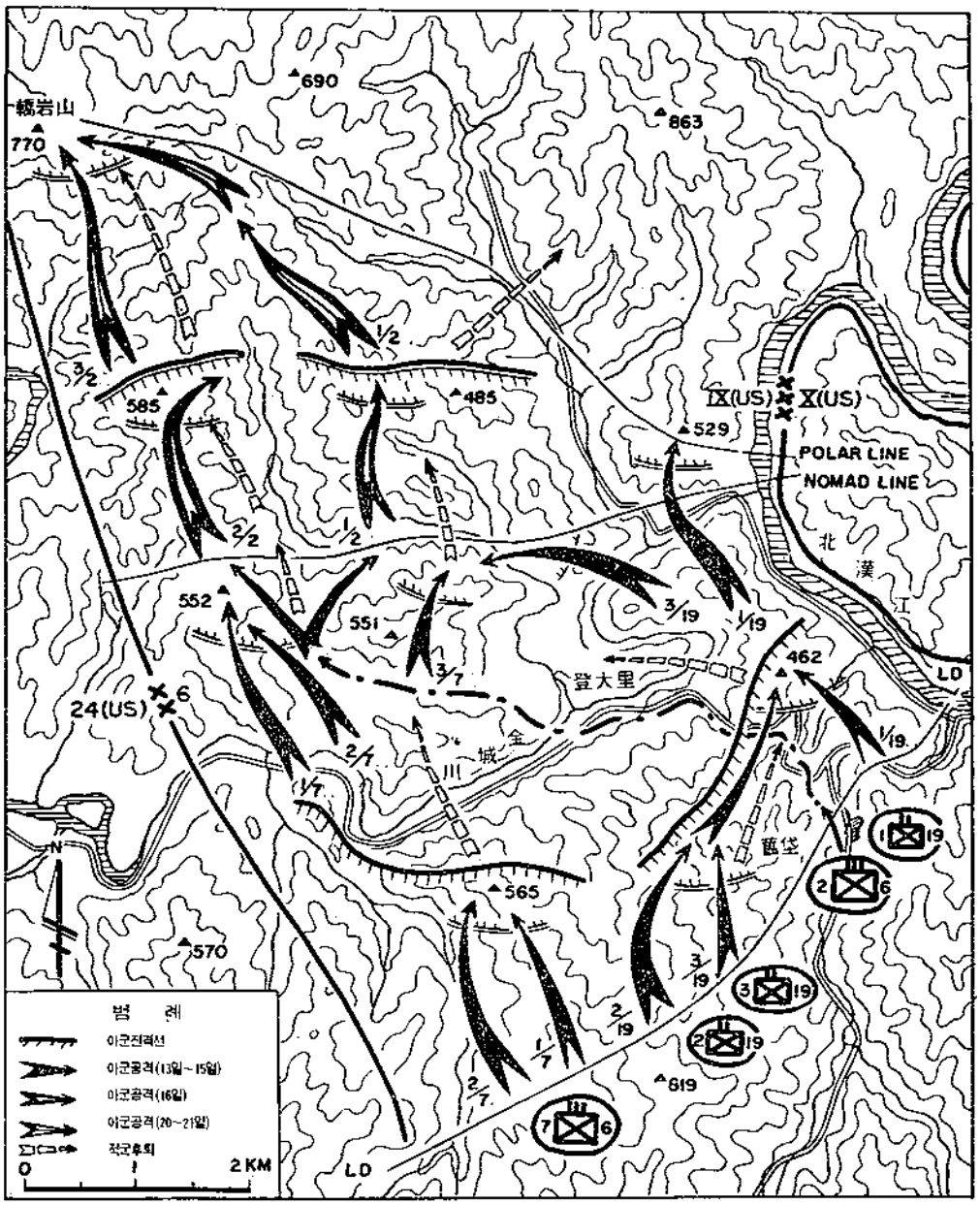
10월 14일 : 사단은 이날도 進擊을 계속하여 金城川 南岸의 敵을 완전히 驅逐한 다음 그 北岸에 橋頭堡陣地를 占領키로 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전날에 이어 다시 △462를 공격하였는데 敵은 增强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背水陣을 치고 발악적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砲兵의 地域射擊을 집중함으로써 激戰을 惹起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대대는 07.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0.40까지 同高地(△462) 中腹에서 2個소대 규모의 敵을 一擊한 다음 11.00에는 3個중대가 同時에 全面突擊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呼應하여 전날 無名高地에서 勇猛을 떨친 바 있는 제2대대가 金城川 南岸을 搜索하다가 不時에 방향을 돌려 그 左肩部를 강타하니 兩 대대의 集中攻勢로 退路를 잃은 敵陣은 督戰과 怒號 그리고 呻吟과 絶叫의 修羅場속에서 死鬪하다가 마침내 四分五裂로 潰散하게 되었다

이에 兩대대는 攻破의 威勢를 늦추지 않고 江岸까지 急히 추격하면서 殲滅的인 痛擊을 加하니 여기에서 無慮 404명의 敵을 사살하고 13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 밖에도 機關銃 5정과 각종 小銃 19정에 砲彈 10발 및 수류탄 1,955발 등을 노획하고 11.40에는 이 高地를 掌中에 넣게 되었으며 한편 兩대대는 砲擊으로 말미암아 9명의 戰死者와 140명의 負傷者를 내게 되었다. 이로써 이 一戰의 熾烈性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황도 제26호 金城川 附近 戰闘



이와같이 激戰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제3대대는 陽地村으로부터 汝乃谷에 이르는 江岸을 搜索하여 殘敵을 撲滅하고 20.00에 汝乃谷 부근에서 陣地를 選定하였으니 이로써 연대는 金城川 南쪽의 擔當 全域을 완전히 확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右一線인 제1대대는 사실상 Nomad 線까지 突出한 셈이 되었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1, 제2 兩대대로써 金城川 南岸의 擔當地域을 搜索케

하는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는 金城川을 건너 그 北岸의 △472를 공격케 되었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565 後麓으로 부터 小城洞里 부근까지 搜索하였으나 敵의 隻影조차 보지 못하면서 17.30에 警戒陣地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新村부근의 △362에서 소대규모의 殘敵을 一蹴하고 다음 戰鬪에 對備하였다.

그 동안 제3대대는 09.00에 內城洞里를 출발하여 12.00에 廣大洞으로 金城川을 건넜는데 예상외로 敵의 저항이 輕微한 가운데 渡江하자 곧 △472(金城川 北쪽 700m)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同 高地는 江岸에 沿하여 急傾斜를 이룬 까닭으로 그 西北쪽 능선을 따라 背斜面에서 强襲한 바, 중대규모의 敵이 1時間에 걸쳐 맞서다가 强壓에 밀리는 바 되어 그 東北쪽에 있는 △551로 退散함으로써 대대는 15.00에 이 高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江 北岸 가까이 橋頭堡를 확보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제19연대가 △462를 공격하는 동안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를 無名高地로 진출시켜 이를 掩護케 하였으며, 主力은 北漢江 西岸으로 轉進하여 사단의 東側을 掩護하였다.

10월 15일 : 공격개시 3일째 되는 이날 사단은 제2연대로 하여금 北漢江 西岸과 金城川 南岸의 要域에서 경계陣地를 확보케 하는 한편 제19, 제7 兩연대의 主力을 渡江하는 데로 곧 Nomad 線을 목표로 進擊케 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전날 Nomad線上의 陣地를 確保한 제1대대를 金城川 江口로부터 △324를 連하는 線에 전개하여 主力의 渡江을 掩護케 한 다음 이날 02.50에 제2, 제3 兩대대가 커다란 敵의 妨害없이 江을 건넜다.

그런데 당면의 金城川은 그 兩岸이 모두 奇岩絶壁으로 斷崖를 형성하기 때문에 많은 制限이 있었으나 마침 天上과 江中의 月明星稀(陰 9월 15일 晴明) 속에서 豫定한 時間대로 渡江을 끝내게 되었으니, 右一線인 제2대대(장, 朴哲遠소령)는 陽地村에서 登大谷으로 江을 건느자 곧 그 東北쪽의 △529로 進攻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는 汝乃谷에서 江을 뛰어 △541(金城川 北쪽 1.5Km)를 목표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10.00現在로 제2대대는 △529의 西斜面에서 격전을 전개하였는데, 本是 이 高地는 江岸으로 突出하여 急傾斜를 이룬데다 2個중대 규모의 敵이 미리 堅固한 진지를 마련하고 집요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射程의 延伸으로 말미암아(射程 20Km) 사단의 포병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대는 前後 5次에 걸친 突擊을 감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명의 負傷者만 내었을 뿐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日沒과 함께 △541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3대대는 06.00에 △541의 南麓에 다다라 제11중대를 右 第一線으로 하고 제10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하는 한편 제9중대를 예비로 보유하면서 一時에 同 高地를 포위공

격하였다.

이리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과 그 中腹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케 되었는데, 一進 一退를 거듭하면서 8시간 동안이나 공방격전을 전개하다가 20.30에 이르러 제7연대의 제3대대가 該高地의 左肩部에 나타나 挾攻을 加하니 敵陣은 左衝右突을 당한 끝에 混亂相을 露呈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兩중대는 협동공격으로 鐵火를 퍼부어 35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수류탄 70발과 소총탄 500발을 노획하고 22.30에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左一線 대대는 Nomad線까지 進出하였으나 右一線의 戰勢가 不振하게 되자 이날밤 19.30에 橋頭堡陣地를 확보하고 있던 제1대대로써 △529를 夜襲케 하였으나 역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對岸上에서 橋頭堡 陣地를 확보하고 있던 제3대대의 엄호아래 主力으로써 이날 03.20에 金城川을 건너 廣大洞 부근에서 隊伍를 整備한 다음,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제2대대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06.00에 일제히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崔熙大소령)는 廣大谷 東北쪽의 △551를 공격하였는데 08.30에 同高地의 八部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衝突케 되었으나 2시간 동안의 교전끝에 이를 擊退하고 계속 진출하여 20.00에는 그 東北쪽의 △541 西斜面까지 돌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19연대의 제3대대가 2개중대 규모의 敵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는 20.30부터 左側에서 이를 挾攻하여 무찌른 다음 22.30에 兩대대는 戰線을 連繫하고 次後戰鬪에 對備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柳承源소령)는 △552 (金城川 北쪽 1.8Km)를 공격하였는데, 제5, 제7 兩중대를 左·右梯隊로 삼고 제6중대를 예비로 後續시키면서 계속 진출하다가 07.00에 同 高地의 南쪽 능선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대결케 되었다.

이에 대대는 左 第一線인 제5중대를 先鋒으로 집중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집요한 저항으로 敵線을 뚫지 못하였으며, 여기에서 폭발하는 수류탄의 對決에 이어 육박혈투가 下午까지 계속되다가 16.00에 이르러서 제1대대가 同 高地의 左側능선으로 突出하자 兩대대가 協同하여 擊滅戰을 전개한 끝에 많은 전과를 거두고 17.00에는 이 高地를 탈취하고야 말았다.

그 뒤로 대대는 다시 戰列을 가다듬어 該 高地 北쪽 1Km의 속칭 "철십리 고개"에서 다시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汝文里를 굽어보게 되었으니 이로써 Nomad 線上의 주요據點을 완전히 확보한 셈이었다.

이 무렵 左一線인 제1대대는 △552의 左側능선을 넘어서 19.00에 그 西北쪽 1Km의 無名高地까지 나아가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제2대대와 戰線을 連繫하였다.

이와같이 연대는 이날 勇躍進出하여 醜敵 374명을 사살하고 44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

에도 重박격포 2문과 60mm 박격포 2문 및 기관총 6정등을 노획하는 동시에 Nomad線까지 進出하였다.

反面에 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25명이 戰死하고 장교 2명을 包含한 15명이 負傷하였다.

3.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第一線 兩개연대가 金城川을 넘어서자 主力을 金城川 南岸으로 轉進하여 南岸上에 陣地를 形成하는 동시에 일부의 병력으로 사단 戰術地域의 東側을 掩護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主力이 Nomad線까지 進出한 이날 現在로, 右翼에는 제8사단의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가 東南쪽으로 9Km나 떠러진 轉石부근에서 △748를 공격중이었으며 左翼에는 美제24사단의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가 Nomad 線까지 併行進出하여 그 공격 梯隊의 右端이 竹洞부근에서 제7연대 제1대대의 左端陣地와 金城川을 사이에 두고 隣接하였다.

10월 16일 : 전날 목표를 탈취한 사단은 제19, 제7 兩연대를 Nomad線上에 전개하여 진지작업에 着手하는 한편 예비연대인 제2연대를 超越케 하여 主陣地 前方에서 彷徨하는 敵을 보는대로 驅逐케 하였다.

즉, 제19연대는 金城川 江口로부터 △541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作業을 進行하는 가운데 제2대대를 汝文里 부근으로 進出시켜 敵情을 탐색케 하였던 바, △400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18.40에 本陣으로 復歸하였다. 또한 제7연대는 △552를 中心으로 하여 東北능선에는 제3대대를 北斜面에는 제2대대, 그리고 西北능선에는 제1대대의 順으로 配置한 가운데 진지작업을 마치고 敵情을 監視하였던 바, 이날밤 22.00에 중대규모의 敵이 제1, 제2 兩대대間의 전투지경선 부근에서 攝動하자 1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痛擊을 加한 다음 계속 陣地를 堅守하였다.

한편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金斗逸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에 제1대대의 1個중대를 增强하여 金城川 南岸을 경비케 하고 제1, 제2 兩개대대를 急遽躍進케 하였다.

이윽고 제1대대(-)는 13.00에 제19연대의 陣地를 超越하여 汝文里 東北쪽으로 나아가 △485에서 小隊規模의 搜索隊를 一蹴하였으며, 제2대대는 14.00에 제7연대의 陣地를 넘어서 계속 진출하다가 主陣地 北쪽 1.5Km에 있는 △585에서 數未詳의 敵軍과 激突케 되었다.

그런데 이 高地는 뒤로는 溪谷을 끼고 左·右에는 急峻한 능선을 이루면서 突出屹立한 地形이기 때문에 彼我의 爭奪點이 되었으며, 더우기 이 高地를 넘어서면 金城의 關門格인 鶴岩山(△770)과 連結되는 要地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집중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를 탈취하지 못하고 24.00까지 격전이 계속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이 戰線을 보강하는 동안에 군단 사령부에서는 主力이 목표선까지 진

출함을 제기로 하여 다음 작전을 熟議한 끝에 군단의 現進出線을 3~5Km 더 北上시켜서 金城을 완전히 制壓할 수 있는 制高陣地를 확보키로 결정하고 이날 11.50에 大要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攻擊을 再開하여 Polar線(金城川 江口—松洞里—輜岩山—烽火山—外也洞—下所里를 連하는線)으로 突進하려 한다.

② 제6사단은 現接觸線으로부터 松洞里—輜岩山을 連하는 線으로 突進한 다음 當面의 敵을 擊破하라.

③ D일 H시는 17일 06.00이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 攻擊의 指導方案을 檢討하였는데, 새로이 設定된 목표선은 金城川 江口를 起點으로 하여 西北쪽으로 戰鬪正面이 擴開됨으로써 사실상 右一線인 제19연대는 목표線을 掌握한 셈이었으며, 이렇게 되고보니 공격軸線은 △585와 輜岩山을 잇는 縱軸으로 限定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제19, 제7 兩연대로써 主陣地線을 그대로 掌握하는 가운데 제2연대로써 이를 공격키로 결심하고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에게 △585와 輜岩山을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10월 17일 : 제2연대(一)는 이날 06.00에 △585를 목표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미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同 高地에서 徹夜 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터이라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로 하여금 汝文里에서 該 高地의 東쪽능선으로 突進하여 敵陣의 腹背를 急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汝文里를 출발한 뒤로 右 第一線인 제2중대를 △400 능선을 따라 西北進케 하고 제3중대는 "칩실리 고개를" 넘어 △482로 突進케 하였는데, 11.00에 이르러 △482 부근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되었다.



<輜岩山을 強打하는 砲擊>

이에 대대는 一擧에 이를 擊破한 다음 △585로 突進코자 하였으나 이때부터 시작된 攻防의 激戰은 예상 밖으로 22.00까지 계속되어 아무리 壓殺하여도 敵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여기에서 사로잡은 2명의 中共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그들은 金城 北쪽에 있던 예비대를 전날밤에 一線

에 투입하여 當面으로는 馬 輝가 지휘하는 제201사단 傘下 제602연대의 主力이 鵝岩山과 △585 및 △482로 증원되어 새로운 阻止線을 형성하였다고 하는 바, 이로 말미암아 膠着된 戰線은 進展을 보지 못하고 격전만이 계속되었다.

이무렵 제2대대는 전날 밤에 이어 △585(鵝岩山 東南쪽 2.5Km)에서 종일토록 치열한 血戰을 계속하였는데, 육박突擊과 白兵格鬪를 거듭하는 동안에 12명이 戰死하고 장교 3명을 包含한 105명이 負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0現在까지 別다른 進陟을 보지 못한채로 다만 混戰만을 反復하였다.

이날 兩대대는 戰線을 北쪽으로 擴大하지는 못하였으나 敵 725명을 사살하고 9명을 俘虜로 잡았으며 機關銃 7정을 노획하였다.

한편 主陣地에서는 제19, 제7 兩연대가 陣地를 堅守하는 가운데 각각 담당正面에 대한 威力搜索을 계속하고 있던 바, 13.00에 제7연대의 제3대대 陣前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도발하자 곧 이를 격파하였으며 14.00에도 역시 소대규모의 敵이 侵襲하려하자 제19연대의 제3대대가 곧 이를 一蹴한 다음 계속 陣地를 보강하였다.

10월 18일 : 사단은 이날 제2연대(一)로 하여금 △585를 집중 공격케 하는 한편 제19연대의 1個대대를 汝文里 東北쪽으로 進出시켜 右前方에서 出沒하는 敵을 驅逐하면서 主攻方面을 掩護케 하였다.

1. 제2연대 (장, 宋大厚대령)는 05.00에 黎明공격을 시작하여 제1, 제2 兩대대가 집중적으로 △585를 포위공격 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는 전날 격전을 보인 바 있던 △482에서 다시 2個중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자 이번에는 三面에서 包圍網을 壓縮하는 동시에 特攻隊를 敵陣의 右側背로 突入시켜 同時에 壓殺戰을 편 끝에 75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60mm박격포 1문과 機關銃 1정 및 각종小銃 18정을 노획하고 이 高地를 略取하였다. 이에 대대는 공격勢威를 늦추지 않고 隊伍를 再整備하는 즉시로 △585의 東側능선으로 突進하였는데 600m쯤 前進하다가 急傾斜를 이룬 無名능선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敵陣에 부딪쳐 13.50부터 여기에서 紛戰을 일으켜 亂鬪를 계속하였다.

이무렵 제2대대는 △585의 中麓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敵과 육박血戰을 재연케 되었는데 아무리 打擊하여도 계속 殺到하는 敵勢로 말미암아 18.00의 日沒初頭 現在까지 撲滅과 刺殺의 白兵對決을 反復하는 동안에 24명이 戰死하고 35명이 負傷하였으며 11명이 失踪되는 苦戰을 치루었으나 敵屍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夜暗과 더불어 哭鬼가 啾啾하였다.

2. 제19연대의 제2대대 (장, 朴哲遠소령)는 이날 04.00에 공격을 시작하여 汝文里 東北쪽으로 進出하다가 05.50에 △485의 東斜面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攻破하고 계속 躍進하여 龍虎洞과 汝文里間의 兩翼능선을 掌握한 다음 敵의 逆襲에 대비할 據點陣地를 確保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23.00에 數未詳의 敵이 龍虎洞 계곡에 沿하여 侵襲하였으나 곧 이를 격퇴한 다음 계속 진지를 堅守하였다.

3. 한편 제7, 제19 兩연대의 主力은 主陣地를 如前히 확보하고 있던바, 제2연대의 제1대대가 △482를 탈취하자 제7연대의 제3대대가 躍進하여 同 高地를 引受하고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10월 19일 : 이를 동안에 걸친 强打에도 不拘하고 끝내 △585를 점령하지 못하자 사단장은 제2연대장에게 예비대의 사용을 承認하는 동시에 이날 안으로 목표를 탈취토록 명령하였으며, 제19연대장에게는 전날과 같이 1개대대를 공격梯隊의 右翼으로 進出시켜 이를 掩護케 하고 金城川 南岸의 경계陣地는 사단의 搜索중대로 하여금 引受케 하여 攻略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1.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은 金城川 南岸을 경비중인 제3대대로 하여금 07.00까지 "칩실리" 에 急進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제1, 제2 兩대대는 05.00를 期하여 △585 에 대한 공격을 계속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는 전날의 進出線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제1중대를 右 第一線으로 하고, 제3중대를 左第 一線으로 하는 한편 제2중대를 예비로 控置하면서 同 高地의 東側능선을 包圍壓縮하였으나 地形이 嶮峻하고 敵勢가 强盛하여 5시간에 걸친 激戰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進展을 보지 못하자 11.30부터서는 각 중대별로 수류탄을 主用하는 特攻隊를 편성하여 敵의 화력據點을 각개로 爆破토록 하는 동시에 제1중대의 일부 병력을 △488의 東北쪽으로 迂回시켜 그 東側背를 直衝케 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이 완강하여 제1중대만이 약간 進出하였을 뿐으로 14.20現在까지 攻防의 混戰만이 계속되었는데 15.00에 이르러 "칩실리"에서 赴援을 시작한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가 △585와 △482의 중간 계곡으로 突進하여 △488의 左肩部를 강타하자 마침내 敵陣의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虛隙으로부터 分斷의 鐵槌를 加하기 시작한 兩대대의 協同으로 이를 蹴破하여 18.00까지 完全히 奪取한 다음 제3대대는 계속 △585를 東側에서 포위공격하고 제1대대는 △488의 北쪽으로 殘敵을 追擊하였다.

이무렵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전날과는 달리 △585의 西側으로 迂回하여 그 腹背를 공격하다가 제3대대의 進出로 戰機를 捕捉하자 제2, 제3의 兩대대로써 同 高地의 左에 右서 육박突擊으로 同時 擊滅戰을 편 끝에 그토록 집요하게 저항하던 대대규모의 敵陣을 大破하고 20.30에 該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難攻의 要地를 탈취하는 동안 연대는 장교 2명을 포함한 53명이 戰死하고 179명이 負傷하였으며 3명이 失踪되는 손실을 보았으나, 反面에 梟悍한 敵 132명을 射殺하고 11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60mm박격포 1문과 기관총 2정 및 각종 소총 39정, 그리고 포탄 130발과 수류탄 180발 및 각종 소총탄 1,600발을 노획하였다.

2. 한편 제19연대의 제2대대(장, 朴哲遠소령)는 이날 03.00에 龍虎洞 南쪽 1Km에 있는 계곡에서 拂曉의 奇襲을 노린 대대규모의 敵을 격퇴한 다음 東天이 밝으면서 부터 다시

威力搜索을 펴게 되었다.

즉, 龍虎洞을 지나 汝文里 東北쪽의 △485까지 搜索을 마친 대대는 11.00에 松洞里 西端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數未詳의 一群과 부딪쳐 18.00까지 交戰하다가 日沒과 함께 전날의 진지로 복귀하여 龍虎洞과 汝文里 사이에서 敵의 反擊에 대비하였다.

10월 20일 : 드디어 사단은 最終目標에 對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제7연대로 하여금 Nomad 線上의 陣地를 堅守케 하는 가운데 제2연대를 主攻으로, 제19연대를 助攻으로 하여 이날 05.00부터 白露를 밟으면서 進擊하였다.

1.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제1, 제3 兩대대를 攻擊梯隊로 하고 제3대대를 △585에 남겨 예비로 保有한 가운데 轎岩山(△770)을 목표로 突進키로 하였는데 △488 北쪽 1Km의 無名高地에서 대대규모의 敵이 최후 발악으로 저항하므로 다시 激戰의 幕을 열게 되었다.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敍翊소령)는 △488를 출발하자 곧 前記 無名高地로 直進하여 06.30부터 이를 포위 壓縮하기 시작 하였는데 예상외로 敵의 戰勢가 熾盛하고 또 07.10부터서는 敵 砲兵의 지원화력이 激增하여 左 一線인 제2중대의 進出이 一時 停滯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戰勢를 다시 가다듬는 동시에 제1중대를 敵陣의 東側으로 迂回시켜 三面에서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 다시 과감하게 合擊한 끝에 10.20에는 그 8部능선까지 육박하였으나 여기에서 敵의 최후阻止 火網에 부딪쳐 突擊線을 넘지못하고 싸움은 바야흐로 龍鬪虎搏의 白熱樣相을 띄게 되었고 敵은 一具의 屍體를 數名이 끌고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제2대대(장, 宋奇德대위)는 △585에서 躍進하여 그 西北쪽 일대의 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한 다음 商山洞 계곡을 넘어서다가 연대장의 命에 의하여 공격方向을 前記 無名高地로 돌렸다.

이윽고 15.00에 該 高地의 西斜面으로 進出한 제2대대는 敵의 退路를 차단하면서 一步又一步로 肉迫하였으며 이에 呼應하여 제1대대가 正面에서의 突擊을 감행하니 四面에서의 攻勢속에 몰리게 된 敵은 오직 救命圖生에만 汲汲한 나머지 四散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兩대대는 17.30까지 擊滅戰을 펀끝에 87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밖에도 60mm박격포 5문과 重기관총 4정에 각종소총 18정 및 수류탄 5,026발을 노획하고 이 高地를 完全히 점령한 다음 여기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제2, 제3 兩대대를 左·右 공격梯隊로 하여 전날 제2대대가 交戰한 바 있는 松洞里 일대를 목표로 05.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敵情이 경미하여 左一線인 제3대대가 汝文里 北쪽에서 소대규모의 殘敵을 一蹴한 外에는 커다란 저항없이 목표 線까지 突進하였다.

여기에서 연대는 △529로부터 △485의 北麓에 이르는 새로운 陣地를 選定한 다음 防守態勢를 갖추게 되니 이로써 사단의 進出 목표인 Polar線上의 右一線陣地를 확보한 셈이 되

었다.

10월 21일 : 이날 사단은 本전투의 최종목표인 輜岩山에 대한 攻略을 단행하였는데 제2연대로 하여금 이를 집중공격케 하는 동시에 Nomad線上의 陣地를 확보중인 제7연대의 主力을 그 右翼으로 躍進시켜 主攻의 進出을 掩護케 하였다.

1.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전날 快擊를 올린 無名高地에 제2대대를 待機시킨채로 제1, 제3 兩대대를 左·右梯隊로 하여 05.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는 공격 軸線이 急傾斜를 이룬 截斷壁으로 막혀 直進이 困難하게 되자 이를 東側으로 迂回하여 輜岩山의 東쪽능선을 멀리서 包圍壓縮 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는 商山洞 계곡을 넘어 同 高地의 正面을 목표로 突進하였다.

이와같이 分進合擊의 態勢로 敵의 兩翼을 攻圍한 연대(一)는 08.00에 이르러서 제3대대가 어느 덧 그 中腹까지 進出하여 陣前가까이 육박하자 대대규모의 敵이 狙擊手의 火力을 집중하고 機關銃의 側射와 斜射를 集注할 뿐만 아니라 지원砲兵의 遮斷砲擊으로 突進正面이 彈幕으로 뒤덮혀 대대는 一瞬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斗逸소령은 각 중대장을 大號一喝하면서 계속 突進을 督勵하는 동시에 重火器중대의 지원화력을 同時에 집중토록 하여 敵의 最後據點을 震撼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9, 제11 兩중대는 敵의 彈幕을 뚫고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집요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이를 擊破하지 못하고 激戰만을 반복하다가 11.30에 左 第一線인 제9중대의 奮戰으로 西側一角을 爭取하자 전과를 더욱 擴大하여 육박 대결끝에 13.00에는 一躍 500m로 近迫하여 頂上의 突擊 始發點까지 掌握하였다.

그런데 이 輜岩山은 頂上에 가까울수록 岩壁이 重疊하여 突擊에 많은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奇貨로 便乘한 敵의 발악으로 말미암아 15.00에 이르기까지 彼我가 서로 血戰만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무렵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가 그 東部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一擊한 다음 踊躍跳上하여 그 背後를 强襲하니 싸움은 紛戰을 이루고 敵陣은 混亂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 好機를 看破한 兩대대는 계속하여 火力과 白兵力을 휘몰아 8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았으며 또한 6정의 기관총과 12정의 각종小銃 및 830발의 수류탄을 노획하고 北쪽 일대의 殘敵을 撲滅한 연후에 Polar 線上의 진지를 확보하였으니, 이때가 16.40이었고 西쪽 天空이 眞紅一色으로 찬란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戰死 17명과 負傷 106명 및 失踪 9명의 손실을 보았으니 攻者도 精强하고 守者도 頑强한 一戰이라 할 것이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제1대대를 △541의 경계陣地에 남긴채로 이날 04.00에 主力이 Nomad 線上의 陣地에서 踏出하여 제19, 제2 兩연대間의 Polar線을 목표로 약진하였다.

이리하여 06.00에 △482를 넘은 제2, 제3 兩대대는 계속 진출하다가 汝文里 北쪽 1.5Km

의 無名능선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하여 24명을 사살하고 9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 밖에도 60mm 박격포 1문 및 각종 小銃 39정을 노획하고 목표地域에 다다라 Polar線上의 陣地를 점령하니 이때가 12.00正刻이었고 陣內에는 炊事준비의 흔적도 歷歷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공격을 시작한지 9일째 되는 이날 최종목표인 Polar線上의 진지를 확보하자 곧 工事에 着手하였으니, 그동안 高貴한 손실을 본 것도 事實이지만 4개월餘에 걸쳐서 견고하게 구축된 敵의 陣地도 능히 攻破하고 과감히 진출 함으로써 六角高星의 矜持를 드높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本 作戰의 終了와 함께 當사단과 左翼인 美제24사단이 金城 南쪽 3Km의 線까지 진출하여 中部戰線을 制壓하자 敵陣에서는 戰線을 급편 調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當初부터 군단 正面에서 抗拒하던 中共 제67군(장, 馬 襲)은 金城 北쪽에서 分散병력을 다시 규합하면서 金城과 昌道間의 要線에 重點的으로 병력을 配置하여 美제24사단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사단 正面에서는 제67군이 물러가고 陳坊仁이 지휘하는 제68군 예하의 제203사단이 나타나 北漢江(華川貯水地 北쪽 北漢江上流) 沿邊에 솟은 山岳지대에서 새로운 阻止線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淮陽부근에는 그들의 예비集團이 蝟集하는 것으로 보아 中東部 戰線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이 당시의 사단當面의 中共 제203사단(장, 劉 志)은 51년 5월 중순에 新義州로 潛入하여 元山으로 移動한 다음 9월 23일까지 그곳에서 훈련을 마치고 待機하다가 10월 10일을 전후하여 白石山(△1,142) 부근에서 北傀 제5군단의 전투正面을 引受한 新銳사단으로서 최초에는 美제10군단의 左翼을 擔當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對峙하다가 군단의 진출로 말미암아 背後의 威脅을 느끼게 되자 防禦正面을 北漢江 上流로 轉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다시 中共의 梟群과 對決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사단의 主陣地 北쪽 2~3Km의 線인 漁雲里—科湖里—△663—栗沙里를 連하는 일대에 主力을 배치하면서 衝擊과 攪亂을 恣行할 뿐만 아니라 反擊을 노리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더우기 사단 正面에는 戰線을 劃定지을 수 있는 顯著한 地形地物이 없고 600 乃至 700高地로서 綿綿히 이어지는 까닭으로 거의 每日같이 소규모의 爭奪衝突이 그치지 않았다.

한편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난 뒤로 主戰연대이던 제2연대를 예비로 돌려 廣大洞에서 부대를 整備케 하는 동시에 主陣地의 右一線에는 제19연대를, 左一線에는 제7연대를 各各 Polar線上에 전개하여 陣地工事에 着手하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敵의 挑發이 그치지 않자 제2연대의 1개대대를 交代로 陣前에 진출시켜 威力搜索케 하는 가운데 다음 作戰에 對備하였다.

그 뒤로 10월 末에 이르러 군단에서는 일부 전투地境線의 調整과 同時에 搜索線을 설정하여 하달하였는데, 새로 調整된 사단의 전투正面은 北漢江 上流를 中央에 끼고 東北쪽으로 擴張됨으로써 사단은 現戰線의 左端인 橋岩山을 美제24사단에 引繼하고 北漢江 東便에는 右一線으로 제19연대를, 그 西便에는 左一線으로 제7연대를 配置하여 戰線을 固守하는 한편 新設된 搜索線 즉 Gary線(△949—科湖里—△533—松室里—栗沙里를 連하는 線)上의 敵情을 探索하다가 11월 중순에 다시 Gary線을 목표로 새로운 一戰을 펴게 된다.

§ 參戰者의 證言

◇제6사단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

(1974. 8. 25. 자택에서, 예 준장)

우리연대는 白岩山 北쪽의 △819를 탈취한 다음, 그 2주일 뒤인 10월 중순에 다시 金城 東南쪽의 鶴岩山을 공격하였다.

이때에 나는 宋奇德대대(제2대대)를 主攻으로 하여 直路로 이를 탈취케 하였던 바, 그 南쪽의 △585에서 頓挫되어 밤새도록 激戰을 전개하다가 새벽녘에는 通信마저 杜絶되고,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그 자리에서 紛戰中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내가 직접 예비인 제3대대를 이끌고 現地에 나가 보았더니, 웬걸 이건 보통 사실이 아니었다.

물론 처음부터 敵의 陣地가 強靱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敵은 여기에 重點的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온통 岩盤을 뚫고(穿鑿) 要地를 占據한 가운데 최후의 발악을 하니, 제2대대는 거의 半兵力을 잃고 血戰을 계속 하였으며 또한 捕虜들의 진술에 따르면 敵은 전날 밤에 예비대가 증원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제3대대로 하여금 敵의 東側背를 挾攻케 하는 한편 연대의 主力으로써 집중공격을 加하였는데, 특히 57mm 無反動銃과 火焰放射器 및 60mm 迫擊砲등으로 敵火를 制壓하면서 特攻隊로써 力攻을 加한 끝에 3일만에 이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 高地를 탈취함으로써 사실상 이 戰鬪는 勝機를 굳혔으며, 그 뒤로는 鶴岩山까지 一路 突進하였던 것이다.

이 戰鬪가 끝난 다음 鶴岩山을 포함한 이 地域을 左隣接인 美제24사단에 인계하고 11월에 접어들어 다시 △949를 공격하였다.

◇ 제6사단 제19연대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

(1973. 2. 26, 재향군인회에서, 예 대령)

이 전투의 특징은 開戰이래 처음으로 敵의 堅陣에 대하여 全面공격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에도 高地爭奪戰에 있어서는 특수한 공격형태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軍團의 主力이 4個月 동안에 걸쳐서 강화된 敵陣을 同時공격 하는데에는 화력과 병력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즉, 通例와는 달리 보다많은 物量이 所要되기 때문이다.

공격 初頭에 金城川까지는 그래도 예정대로 진출하였는데, 金城川을 넘으면서부터는 그 堅強度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무리 砲擊을 加하여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부대가 突擊직전에 임할 때마다 石窟속에 숨었던 무리들이 一時에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발악하여 死傷者만이 累增되고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 때에 등장한 것이 火焰放射器이다. 우리대대에서도 처음으로 이 화염방사기를 지원받아 敵의 銃眼을 제압하면서 돌격한 끝에 공격개시 3일만에 그들의 주저항선을 擊破하였는데, 이 처럼 力攻을 거듭하는 사이에 아군의 손실도 많았지만 敵을 사살한 것이 1개대대 병력이상으로 추측 되었으며 60명의 捕虜를 사로잡은 바 있었다.

특히 이 전투에서 포로를 잡고보니, 婦女子를 포함한 老弱者가 30여명이나 洞窟안에서 掘鑿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강제동원 되었다고 하며 먹지를 못하여 얼굴이 부은 자가 대부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다음 전부 포로와 함께 후송하였다.

5. 金化一金城 進擊戰 (1951년 10월 13일 부터 / 1951년 10월 18일 까지)

(一名, 제2사단의 Nomad線 進擊戰)

참조 : 별책부도 제13호
상 황 도 제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美 제9군단 장 중장	William M. Hoge	
제2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제17연대 장 중령	殷 碩 杓	
제1대대 장 소령	金 熙 濟	
제2대대 장 소령	全 成 珏	
제3대대 장 소령	梁 成 超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제1대대 장 소령	高 日 燮	
제2대대 장 대위	安 專 源	
제3대대 장 소령	金 元 澤	
제32연대 장 대령	金 容 珣	
제1대대 장 소령	禹 鉉	
제2대대 장 소령	朴 東 錫	

敵軍		
中共 제67군 장	馬	襲
제200사단 장	李	靜
(제598, 제599, 제600연대)		

제3대대 장 소령 權 正 龍

지원부대

제18포병대대 장 소령 張 圭 栢

제1302공병대대장 소령 鄭 極 徐

戰車 1個중대(美제25사단에서 지원)

美제92, 제213, 제48 野砲대대

인접부대

(右인접) 美제24사단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左인접) 美제25사단 장

소장 Ira P. Swift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編制上의 90%

제201사단 장 馬 輝

(제601, 제602, 제603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은 51년 6월 중순에 中部戰線으로 진출하여 Ermine 線(白

岩山—赤根山—金化) 上에서 진지를 選定한 이래 4개월 동안 守勢를 취하다가, 淸明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10월 중순을 期하여 다시 金城盆地를 制할수 있는 Nomad線(金城川 江口—汝文里—竹洞—楓洞里—下所)을 목표로 指向한 제한공격을 단행키로 하였다.

이 작전은 休戰會談을 계기로 하여 날로 증강되는 敵의 一線勢力을 擊碎하는 동시에 現戰線을 5~12Km幅으로 확대시켜 그들의 金城領有의 뜻을 抹消케 하려는 것으로서, 최초에 계획되기는 開城會談이 決裂된 직후인 8월 하순이었다. 그러나 現戰線에서 終局을 매듭지어 보려는 UN당국의 留保조치로 말미암아 지연되다가 9월 하순에 군단의 Cleaver작전(敵의 前進據點 粉碎작전 : 제6사단의 登大里 부근 전투 및 사2단의 榛峴里—芳洞부근전투 참조)이 성공裡에 끝난 뒤에 비로소 다시 擧論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무렵 마침 美제8군 사령관 Van Fleet 대장이 戰線 巡訪次 10월 9일에 春川 下文廷里에 있는 제9군단 지휘소에 들리게 되자, 이 자리에서 군단장 Hoge 중장과 그 麾下의 사단장들이 敢戰兩路의 이점을 들어 진지하게 건의한 결과 그의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실현을 보게된 것이다.

어떻든 이 작전의 一環으로 咸炳善준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은 그 左翼을 맡아 赤根山 北麓에서 10월 13일에 공격을 개시하여 18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金城 西南쪽으로 突進공격한 끝에 直木洞까지 진출케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제2사단의 「Nomad선 진격전」이다.

當時에 金城地區에는 中共 제67군(장, 馬 襲)이 그 隷下의 제199사단을 白岩山 北쪽에, 제200사단은 赤根山 北쪽에 각각 전개하는 한편 제201사단은 金城 부근에 예비로 保有한 가운데 防守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 6월 중순에 新義州로 潛入하여 陽德에서 山岳訓練까지 마친 다음 9월 10일을 前後하여 戰線에 새로이 투입된 부대로서, 제27군의 戰鬪區域을 인수한 직후에는 旣設진지를 보강하고 威力搜索을 감행하는 등 자못 氣勢롭게 挑發하였으나 진지를 교대한지 10여일만에 군단의 「Cleaver 작전」에 의하여 그 警戒據點을 상실한 뒤로는 한걸음 물러서서 오직 金城固守의 一邊倒로 기운듯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전투력을 包藏하고 보급이 充足할 뿐 아니라 守勢를 취한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병력을 增強하면서 반격의 好機를 노리는 것으로 내다 보였다.

이때에 사단의 正面에는 金城地區의 西半部를 담당한 中共 제200사단(장, 李 靜)이 △633—聞榛峴—北亭嶺—橋田里 일대에 主力을 배치하고 그 경계부대를 △600—回隅 부근까지 내보내어 사단의 動靜을 살피는 가운데, 日夜로 진지구축에 餘念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는데, 특히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要線上에는 병력과 화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한 듯 하였다.

그 병력규모는 도합 7,000~8,000명을 헤아렸으며 또한 外也洞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진 團隊號 未詳의 野砲隊가 이들을 지원 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한편 사단은 赤根山과 金化 사이에 主力을 배치하여 金容珣대령이 지휘하는 제32연대를 杜木—△734—△785선에서 右一線으로, 趙原英대령 지휘下의 제31연대는 芳洞—松洞—△457를 連하는 線에서 左一線으로 하여 서로 有機的인 진지와 火網의 구성으로 主抵抗線을 형성하는 동시에 제17연대(장, 殷碩杓 중령)는 말고개(馬峴)와 高飛木 부근에 예비로 控置되는 가운데 진지의 보강과 戰技向上에 힘을 기우렸는데, 특히 지난 몇차례의 高地爭奪戰에서 얻은 체험을 토대로 하여 火焰放射器와 무반동총등의 특수장비에 대한 巡廻교육을 실시하고 소부대 전술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었다.

더우기 사단은 여기에서 4個月 동안이나 進軍을 멈춘채로 內實을 期함으로써 現地의 地形에 精通하고 보급이 圓滑할 뿐 아니라 당면의 敵情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때에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編制上의 90%線을 유지하였으나, △734전투와 芳洞 進擊戰을 승리로 이끈 精兵인데다 포병 제18대대(장, 張圭栢소령)의 직접지원을 비롯한 군단의 제48, 제92, 野砲대대의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그 밖에도 UN空軍과 戰車중대의 協同공격으로 優勢한 화력을 保有하였다.

다만 이 전투가 開戰이래 初有의 堅陣공격 일뿐 아니라 地形이 險한 岩石지대인 까닭으로 그에 對한 配慮가 필요하다는 特色이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장 Hoge 중장은 10월 10일 15.00부로 군단 작전명령 제50호를 하달 하였는데 사단에 附與된 임무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군단은 10월 13일 06.00를 期하여 現 接觸線(白岩山—赤根山—金化)에서 공격을 再開하여 Nomad線으로 進出하려 한다.

② 제2사단은 現 戰線(杜木—△734—芳洞—松洞)에서 군단의 左翼地區를 貫通하여 당면의 Nomad線을 목표로 突進공격하라.

③ 목표를 탈취하면 左側方을 엄호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진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장 咸炳善 준장은 당면의 Nomad線인 月峯山—上楓洞—橋田里—下所를 連하는 일대의 高地群을 一擧에 攻略키 위한 부대의 機動과 화력 運用등의 모든 계획을 검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介在되었다.

첫째 : 사단의 공격正面은 대체로 5Km를 넘지 않는데 반하여, Nomad線까지이르는 軸線上에는 聳岩峻峯이 7Km에 뻗쳤고, 高地와 능선마다 蜂巢蟻穴을 방불케 하는 堅陣으로 덮혀있기 때문에 强大한 화력지원과 突破方式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 지난 전투(芳洞進擊戰)에서 榛峴里 以西의 要域을 확보한 바 있으나 그 以東의△600—△633—△492 부근에는 아직도 餘衆이 도사리고 있으니만큼 우선 이에 대한 掛念을 拂拭한 다음에라야 戰術전개가 順調로울 것이며,

세째 : 左隣接인 美제25사단 正面의 五聖山(△1,026)은 Nomad線 西北쪽에 있는 痲的存在일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美제1군의 Commando 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까닭으로 사단의 左側方이 노출되어 그 掩護策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네째 : 敵의 主陣地를 공격함에 있어서는 병력과 화력의 동시집중 위력을 발휘 하여야만 할 것이로되 狹隘한 지역에서의 병력의 重疊使用의 過失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부대의 機動과 梯隊編成의 妙가 期待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特異性을 감안한 사단장은 목표지대를 東西로 가로 지른 下榛峴—新村 사이의 기동路를 따라 敵陣을 南北으로 兩斷한 다음 主力으로써 北쪽의 Nomad線을 목표로 돌진케 하고, 一部로써 그 南쪽 포위권내에 든 敵을 撲滅토록 하는 한편 나머지 1개연대는 現 抵抗線을 맡고 있다가 사단 主力의 진출과 함께 南大川 東側으로 약진하여 主攻方面을 엄호하면서 別命待機토록 조치키로 腹案을 세웠다.

그리하여 現在까지 豫備隊로 있는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에 主攻임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美제25사단에서 지원된 戰車중대와 제1302공병대대의 1개 중대를 이에 追加로 배속하고 포병 제18대대(장, 張圭栢소령)의 2개포대를 직접지원토록 보강하였으며, 右一線인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로 하여금 助攻임무를 專擔케 하는 한편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예비로 轉用키로 하였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企圖를 秘匿함과 아울러 敵의 注意力을 牽制하고 화력을 分散키 위한 陽攻策을 併用하여 助攻의 發起를 군단에서 결정한 H시보다 1시간 먼저 앞당기고자 하는 腹案을 군단에 건의 하였던바 군단장의 快諾을 얻게 되자 곧 지원부대 및 인접부대와 협조한 다음 11일 11.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86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現 接觸線에서 金城 西南쪽을 목표로 돌진하여 당면의 Nomad線을 점령한 다음 D선(南屯里—三南里—橋田里)上에 경계진지를 구축하려 한다.

② 제32연대(공병 1개중대 배속)

㉮ 13일 05.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600 및 그 西北능선)와 "B"(榛峴里 東쪽 高地와 △492)를 탈취하라.

㉯ 목표를 탈취하면 現地에서 待機하다가 제17연대가 Nomad線上의 진지를 점령하는 즉시로 別命에 의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17연대(戰車중대 및 공병 1個중대 배속)

㉮ 13일 06.00에 松洞에서 北亭嶺으로 突進하여 敵陣을 돌파 分斷한 다음 Nomad線을 목표로 계속 진격하라.

㉯ 목표를 탈취하면 최소 2個대대로써 "D" 線上에 경계진지를 확보하라.

④ 제32, 제17 연대의 戰鬪地境線은 다음과 같으며 線上은 제17연대에 屬한다.

松洞 東北 三叉路—芳洞北쪽 橋梁—北亭洞南쪽 合流點—上榛峴 三叉路

⑤ 제31연대

㉮ 공격개시 10시간 前에 제17, 제32 兩연대의 現점령진지를 각 1개 대대로써 引受하라.

㉯ 제17연대가 A線을 突破分斷하면 1個대대를 回隅(金化 東北쪽 6Km)로 躍進시켜 左側方을 엄호케 하라.

㉰ 제17연대가 Nomad線上의 목표를 탈취하면, 主力으로써 橋田里—回隅—三光里線을 점령하여 左側方을 防護하는 동시에 1個대대로써 別命이 있을때 까지 사단 지휘소를 경비케 하라.

⑥ 포병 제18대대(重砲中隊 배속)

㉮ 최초 2個 중대로써 제17연대를, 1個 중대로써 제32연대를 각각 직접지원하다가 제32연대가 목표를 탈취하면 主力으로써 제17연대를 지원하라.

㉯ 사단의 主力이 Nomad線上의 목표를 탈취하면 즉각 방어正面에 彈幕을 구성하라.

㉮ 공병대대는 제17, 제32 兩연대에 각 1개 중대를 分割배속하고 殘餘로써 齊宮洞—松洞 사이의 도로 補修작업을 專擔케 하라.

협조지시

㉮ 최초 협조지점은 芳洞으로 豫定한다.

㉯ 사격금지선은 협조지점에서 조절한다.

㉰ 규정에 準한 對空布板을 표시하되 특히 敵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 관계부대간에 연락 要員을 상호 직접 파견하는 것을 인정한다.

㉲ 步戰協同에 있어서 步兵이 戰車경비에 任하라.

㉳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로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당면의 敵情을 隨時 보고하라.

⑧ 行政事項

㉮ 落伍者 收容線은 承岩里—三巨里를 連하는 線이다.

㉯ 醫務중대장은 芳洞에 救護所를 설치하라.

㉰ 기타사항은 행정부록을 참조하라.

⑨ 通信事項

㉮ 通信軸線은 齊宮洞—芳洞을 連하는 線이다.

㉯ 공격개시전의 無線 사용을 금한다.

㉰ 기타사항은 現行 SOI에 依한다.

⑩ 사단 前方 지휘소는 계속 鳳洞(金化 東쪽 6Km)에 위치한다.』

(2) 작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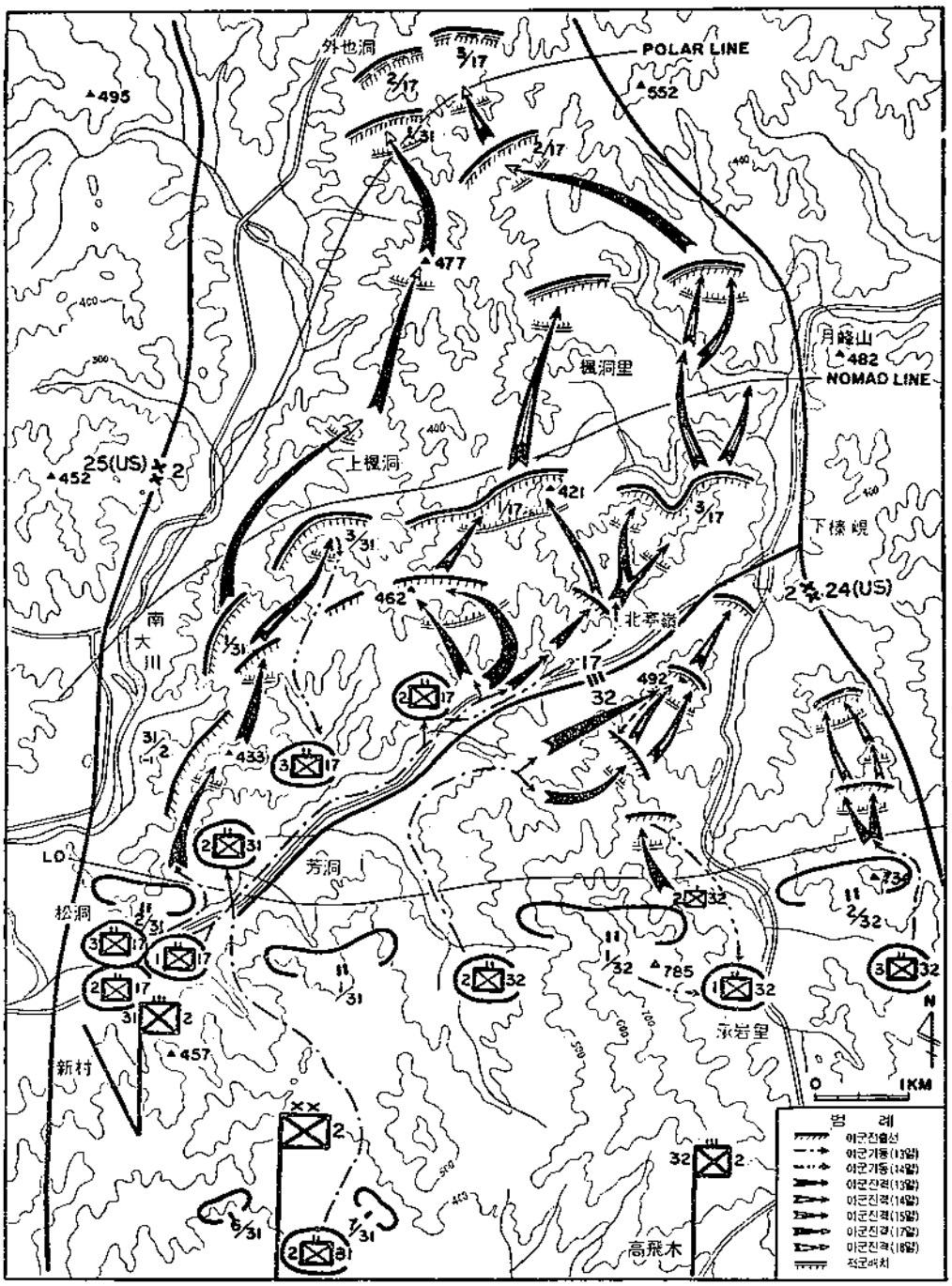
10월 13일 : 拂曉의 靜寂을 깨뜨리고 이날 04.30에 드디어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었는데 포병 제18대대(장, 張聖桓소령)는 군단의 제48, 제92, 野砲대대와 합동하여 동시집중으로 △633—下楼峴—北亭嶺 일대의 敵陣에 鐵槌를 加하였다.

이때에 사단은 先攻부대인 제32연대의 主力이 △734—△555—立石村을 잇는 공격待機線에서 이미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主攻인 제17연대는 그 西쪽 2Km의 松洞 부근에서 대대별로 집결하였으며, 예비인 제31연대는 現 主抵抗線上의 진지를 인수하여 防備태세를 갖추는등, 대체로 04.00부터 04.40사이에 戰術展開를 마친 다음 硝煙에 싸인 敵陣을 노렸으니 곧 天崩地壞의 한 場面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 이윽고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는 砲擊의 延伸과 더불어 05.00에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제2, 제3 兩대대가 左右一線을 말아 梨實谷 以東의 담당 正面으로 突進하고, 제1대대는 △555(承岩里 西北쪽 1.5Km)에서 예비로 대기하는 가운데 1個중대로써 左一線대대를 지원 하였으며 수색중대는 △496(立石村 南쪽)에서 연대 OP를 專擔하였다.

가) 제3대대(장, 權正龍 소령)는 右一線으로서 △734에서 東北쪽으로 1.5Km를 躍進한 끝에 06.30부터 △600를 집중공격 하였는데, 雨注하는 彈幕을 뚫고 그 中腹까지진출한 대

◇상황도 제27호 金化一金城 進擊상황



대는 07.00에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線에서 激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야기된 공방격전이 2시간반 동안 반복되는 사이에 敵의 집중砲火로 말미암아 10여명의 死傷者를 내기도 하였으나 대대는 突破의 好機를 노려 力攻을 加하고 있을 무렵 右第一線인 제9중대가 敵陣 東端으로 육박하여 火焰放射器의 噴射와 수류탄의 연발로써 敵火를 제압, 戰意를 鼓吹하자 이에 呼應하여 左第一線인 제11중대도 또한 그 西側背에 대한 강습으로 東西양면에서 挾攻을 가한 끝에 09.30에 그 兩端을 돌파한 다음 頂上을 목표로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한 걸을 뒤로 물러선 敵은 최후저지선에서 固着된채로 발악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한동안 紛戰亂鬪가 전개되다가 12.40에 이르러 다시 제9중대의 先鋒이 東斜面에서 頂上의 20m 直前까지 突入함을 계기로 하여 대대는 主力으로써 正面돌격을 감행한 끝에 이 高地를 탈취함과 아울러 사살 72명과 포로 9명 그리고 기관총 2정을 비롯한 각종소총 15정등을 노획하니 이때가 13.00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곧 戰列의 再整備와 戰場정리에 착수하는 한편 수색대로 하여금 西北능선으로 潰走한 殘敵을 撲滅키로 하였다.

나)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는 左一線을 맡아 立石村에서 △492(承岩里 北쪽 3Km)를 목표로 약진하였는데, 그 중간 목표인 △532에서 2個소대 규모의 敵이 進路를 막고 버티었으므로 우선 이를 驅逐키 위하여 右第一線인 제6중대로 하여금 이 敵을 覆滅한 다음 목표의 東南쪽으로 攻圍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主力은 그 西쪽으로 迂回하여 계속 東北進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는 09.30부터 △532를 공격하였는데 一擧突擊으로 이를 掌中에 넣고자 하였으나 두곳에서 不時 出現한 敵 자동화기의 側射화력으로 말미암아 一時 공격이 중지되었다가, 10.15에 다시 시작한 重火器중대의 지원으로 敵火를 침묵시킨 다음 主力으로써 敵陣에 돌입하여 盛殺한 끝에 醜敵 30여명을 죽이고 投降者 13명을 사로잡음과 아울러 10.30에는 그 頂上을 넘어섰다. 여기에서 중대는 隊伍를 整備하는 즉시로 周圍의 殘敵을 剔抉하면서 다시 공격방향을 △492로 겨냥 하였는데, 이 때에 대대의 左第一線인 제7중대도 또한 北亭嶺 南쪽 능선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一蹴한 다음 목표의 150m 西側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11.00부터 兩중대의 進出線에 敵의 野砲彈 200여발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同 高地를 중심으로 하여 四周陣으로 배치된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동시에 발악 함으로써 龍虎의 대결을 보게 되었으니, 아마도 敵은 여기에서 물러서면 멀리 月峯山(樑峴里 北쪽 3Km)까지 撤退를 강요 당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 이곳에 塹穴을 파게된 것으로 추단되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시작된 공방전은 14.00를 넘어서도 優劣의 가름이 나지않고 彼我의 화

력대결속에 死傷者만이 累增되어 연대 左一線의 전황은 好調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 때에 연대장 金容珣대령은 이와같은 戰況을 銳意 注視하고 있다가 14.10에 대대장을 電話로 불러서 『兩중대를 現 進出線으로부터 300m쯤 물러서도록 하라』고 급히 명령 하였으니, 이는 火力으로써 敵陣을 破碎한 연후에 急速突破를 감행키 위한 조치였다. 과연 14.40부터 시작된 砲擊이 20분 동안에 걸쳐서 敵陣에 집중鐵火를 퍼붓는가 하면 그 뒤를 이어 F—51 戰爆機 6臺가 Napalm彈의 熱焰과 폭풍으로써 地上과 地中을 震動케 하였다.

이렇듯 불길에 싸인 敵陣을 노려 대대는 이윽고 15.00에 공격을 再擊하였는데, 이번에는 前記 兩중대가 東·西 兩쪽의 側方을 노리고 예비인 제5중대는 △532에서 그 西南쪽 능선으로 突入하여 동시에 집중공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敵은 그토록 苛烈한 砲爆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이를 피하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집요하게 버틸 뿐 아니라 日暮가 將迫하여서는 下椵峴 계곡에서 증원부대를 投入 함으로써 대대는 끝내 이날의 목표를 탈취하지 못한채로, 25명을 잃고 34명의 負傷者를 보면서 隨意 撤收하기에 이르니 곧 17.30에 연대장으로부터 공격중지 명령을 받게 된 까닭이며 △532로 한걸음 물러서게 된것이다.

다) 한편 제1대대(장, 馬 鉉소령)는 △785에서 예비로 待機하는 가운데 제2중대로 하여금 △532를 공격중인 제2대대를 지원케 하였다. 이리하여 06.00에 待機線을 떠난 중대는 北쪽으로 1Km를 躍進하여 △595를 掩襲하였으나 뜻밖에도 2個소대 규모의 敵이 進路를 막았으므로 여기에서 一戰을 보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07.50부터 수류탄의 應酬로 紛戰을 전개하다가 제4중대의 砲擊아래 돌격을 감행하여 09.15까지 이를 완전히 무찌른 다음 일부의 병력을 남겨서 이 목을 지키게 하고 主力으로써 계속 △532 東쪽으로 追擊하였다.

이리하여 椵峴里 溪谷을 끼고 위력수색을 전개, 一線 兩대대의 중간지대에서 敵의 증원세력을 견제하다가 제2대대가 △532를 탈취함에 따라 취하여진 대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16.00에 △595로 復歸하였다.

2.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는 Nomad線을 直衝하려는 사단의 主攻으로서 松洞부근에서 進攻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제32연대보다 1시간 뒤인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날의 공격 重點은 北亭嶺과 △462를 탈취하여 敵陣 中央部를 突破分斷하는데 있으므로 戰車와 砲兵화력의 우선권을 右一線에 두어 제1대대로 하여금 이를 略取케 하는 동시에 제3대대는 그 西쪽에서 併行공격케 하고 제2대대는 예비로 松洞에서 待機토록 조치한 가운데 間嶝峴—松洞 사이의 道路 北쪽에 있는 敵線을 목표로 東北進 하였다.

가) 이리하여 제1대대(장, 金熙濟소령)는 芳洞里의 개활지를 急히 橫斷하자 곧 梨實洞으로 접어들어 06.40부터 北亭嶺—△462線의 南端으로 돌입하였거니와, 07.00에는 美제25사단에서 지원하는 戰車중대(一)가 梨實洞으로 後續하여 北亭嶺 마루에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協同공격하게 되었다.

즉, 右第一線인 제1중대는 △364(梨實洞 東쪽)에서 數未詳의 경미한 敵을 一蹴한 다음 08.30에 벌써 北亭嶺 西南쪽 150m前方까지 육박하였으며, 左第一線인 제2중대도 또한 △462南쪽에서 세갈래 능선으로 병력을 전개하여 敵陣을 壓縮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兩據點은 金城盆地를 西南쪽으로 에워싼 把守嶺일 뿐만 아니라 南쪽으로 梨實洞—立石村—芳洞 일대를 臨制하는 要地인 까닭으로 敵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堅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要所마다 彈幕의 구성으로 把守抗拒하려 하니 처음부터 決戰場의 樣相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예상한 대대는 미리 갖추었던 火焰放射器와 3.5″ Rocket砲 등의 특수장비로써 敵의 重火器진지를 집중강타 하는 한편 特攻組를 선두로 한 돌격으로 3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끝에 먼저 右第一線 중대가 步戰協同으로 50여발의 敵彈이 炸裂하는 北亭嶺을 넘어서 敵陣을 南北으로 크게 兩斷하는 동시에 중대규모의 敵에게 鐵槌를 가하여 사살 50명과 포로 7명의 전과를 거둠과 아울러 이 必取의 要線을 掌握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잠시 隊伍를 가다듬은 다음 12.10부터 다시 공격방향을 그 北쪽으로 겨냥하여 追擊戰을 펴고 있을 무렵 △462를 공격한 제2중대는 아직도 그 中腹에서 화력대결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12.40현재 6명이 전사하고 장교 2명을 포함한 30여명이 부상을 입는등 苦戰을 치르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화력 증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예비인 제3중대로 하여금 同高地의 東側으로 약진케 하여 이를 지원토록 한 결과 13.30에 梨實洞에서 약진한 중대는 목표의 東쪽 500m에 있는 無名高地위로 突入하여 협동공격을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4.10에 나타난 F—51戰爆機 1個편대가 또한 10분 동안이나 敵陣에 Napalm탄과 기총소사를 선사하니 敵陣에는 山불까지 일어나 가을의 殘葉을 태워 온통 焰煙으로 뒤덮혔다.

이를 계기로 하여 兩중대가 다시 急速공격을 감행하게 되자 馬蹄型 능선에서 그토록 발악하던 敵陣에 一大 混亂이 일어났음인지 그 西端의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銳氣로써 전과를 擴大한 兩중대는 103명을 사살하고 12명의 投降者를 얻었으며 기관총 5정을 비롯한 각종소총 21정과 수류탄 130발등을 노획함과 아울러 16.50에는 드디어 이 高地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와같은 痛擊을 받은 敵은 그 일부가 殘命을 保全코자 楓洞里쪽으로 정신없이 달아나고 있을 무렵 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追擊을 멈추고 여기에서 北亭嶺 北쪽의 無名高地까지 진출한 제1중대와 戰線을 連繫하여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나) 제3대대(장, 梁成植소령)는 左一線을 담당하여 光三里—△433(三巨里 北쪽 1Km)橋田里의 軸線으로 공격 하였다. 이 地帶는 비교적 敵情이 경미하여 南大川에 沿한 低地帶는 敵影이 보이지 않고 다만 △433에서 2個소대 규모가 進路를 막으려 하자 제11중대가 先頭에 나서서 10.30까지 이를 覆滅한 다음 계속하여 그 東北쪽의 橋田里로 追擊한 끝에 12.00

현재 대대의 主力이 △ 395—△404線까지 진출하여 △462를 공격중인 제1대대를 지원하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橋田里 부근에서 敵情 探索戰을 전개하였다.

다) 한편 예비인 제2대대(장, 全成珏소령)는 主力의 진출에 따라 松洞에서 14.00부터 서서히 機動하여 17.30에 楊谷에 이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예비로 대기하는 가운데 제6중대를 △462 西쪽으로 진출시켜 一線 兩대대 사이의 間隙을 補塡케 하였다.

이와같이 연대는 이날 공격에서 Nomad線에 이르는 중간 목표인 北亭嶺—△462—橋田里線까지 진출한 가운데 18.00부터 경계태세를 취하였는데, 이는 敵의 根據를 빼앗아 그 陣容을 南北으로 크게 兩斷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2연대의 戰勢를 더욱 好轉케 하는 契機가 되었으니, 이날 戰況의 好轉은 本 전투 全般의 승리를 굳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一線 兩연대가 공격 하는 동안 제1, 제3 兩대대로써 Ermine線上의 旣設陣地를 확보하고 있다가 主力의 진출에 따라 12.00부터 機動하기 시작하여 光三里—下所부근으로 약진한 다음 南大川 東側에서 14.20까지 사단 左側方의 엄호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는 사단의 主力이 金城 西南쪽으로 逐次 진출하는데 反하여 左隣接인 美제25사단은 金化에 머물게 됨으로써, 南大川을 사이에 두고 敵이 장악하고 있는 五聖山과 接하게 되니 이 敵勢를 牽制키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

한편 연대의 제2대대(장, 安專源대위)는 鳳洞(金化 東쪽 6Km)에서 사단 지휘소를 경비하였다.

10월 14일 : 緖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中共 제200사단(장, 李 靜)은 主陣地의 대부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陣容이 南北으로 兩斷되어 存亡의 渦中에 휩쓸리면서도 전술적인 要地만은 되찾고자 이날 새벽 02.00부터 반격을 企圖하였다. 즉, 증강된 대대규모로 推算되는 병력으로 전날 제17연대의 제1대대가 탈취한 △462 北쪽에서 攻勢를 취하여 집중적으로 제2중대의 戰線을 뚫고자 夜襲을 감행한 것이다.



<金城쪽으로 突進하는 제17연대 장병들>

그러나 敵侵보고를 받은 사단에서는 즉각 照明彈으로써 山野를 밝히는 동시에

間斷없는 砲擊으로 맞이 하였으며, △462와 그 東쪽의 無名高地에서 이 敵과 대결케 된 중대도 또한 2시간 동안의 混戰속에서 장교 2명을 포함한 31명의 死傷者를 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堅守코자 血鬪를 반복한 끝에 300여명을 盡殺함과 아울러 이를 격퇴 하고야 말았다.

一陣狂風이 지난뒤 黎明과 더불어 다시 戰勢를 가다듬은 사단은 이날 안으로 Nomad線上의 頑敵을 驅逐키로 하였거니와, 이 공격 正面은 金城에 가까울수록 機動공간이 축소되어 4.5Km를 넘지 않으므로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당초의 계획대로 제17연대로 하여금 이를 專擔케 하는 동시에 제32연대는 北亭嶺 以南의 殘敵을 剔抉케 하고 제31연대는 主攻의 左側方을 엄호토록 하는 한편 포병 제18대대는 主力으로써 제17연대를 직접지원토록 조치한 다음 공격개시 시간을 06.00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장 張圭栢소령은 05.30부터 射程을 延伸케하여 楓洞里—橋田里 일대의 敵陣을 목표로 지원사격의 砲門을 열었다.

1.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는 이와 같은 지원아래 06.00부터 공격에 들어갔는데 이날은 3個대대로써 總攻勢로 移行한 것이다. 즉 전날의 예비인 제2대대는 제1대대의 右第一線 正面을 인수하여 北亭嶺 東北쪽으로, 그리고 제1대대는 전투정면을 축소하여 △462에서 上楓洞쪽으로, 또 나머지 제3대대는 △433—橋田里의 軸線을 따라 각각 進攻함으로써 當面의 Nomad線을 掌握키로 한 것이다.

가) 새로이 右一線이된 제2대대(장, 全成珏 소령)는 05.40에 梨資洞을 출발하여 06.10까지 北亭嶺 東北능선에서 전투正面을 인수하자 곧 제 5, 제7 兩중대를 左右로 展開하여 間榛峴 道路를 따라 並進中인 전차중대와 協調를 하면서 威勢도 당당히 東北進하였다

이리하여 先鋒인 제7중대는 08.30부터 步戰協同으로 △400(北亭嶺 東北쪽 1Km)를 공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중대규모의 敵이 兩능선에서 土窟속에 의지하여 완강히 버팀으로써 4시간 동안이나 熾烈한 交戰이 전개되다가 12.40에 이르러서 戰車의 衝擊力에 의한 敵陣東側背의 강타를 계기로 하여 이를 무찌른 끝에 13.00까지 同高地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다시 그 東北쪽의 △434를 목표로 追擊戰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제5중대도 또한 北亭嶺 北쪽으로 突進하여 △424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殲滅한 다음 계속 追擊戰을 펴다가 Nomad線 南쪽 1Km에서 제7중대와 서로 戰線을 연결 하였다, 대대는 여기에서 이날의 공격을 멈추고 右隣接인 美제24사단과 戰線을 連繫하는 가운데 20.00부터 夜戰태세로 들어갔다.

나) 拂曉의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1대대(장, 金熙濟소령)는 中央一線을 맡아 06.35에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집중포격으로 말미암아 벌거숭이가 되다시피한 丘稜에는 敵의 저항이 비교적 경미하여 一路 躍進하다가 11.25에 右第一線인 제3중대가 △421(芳洞 東北쪽 3.5Km) 南麓에 이르자 증강된 중대규모와 不時에 激突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一線 兩 중대로 하여금 이를 協同공격케 하였던 바, 그 東西에서 집중突

破를 감행한 兩중대는 여기에서 彷徨하는 무리 100여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82mm 박격포 3문을 비롯한 기관총 4정과 각종소총 42정 등을 노획함과 아울러 12.00까지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當面의 Nomad線의 主要高地를 모두 장악하게 되고 12.30부터 陣地構築에 着手하는 한편 대대 수색대를 山路 北쪽의 間楓洞 부근까지 진출시켜 敵情을 탐색하였다.

다) 한편 제3대대(장, 梁成植소령)는 △433에서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당면의 Nomad線(橋田里) 부근을 목표로 突進하였는데, 대대 前面의 공격軸線은 목표까지 1.5Km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敵勢가 또한 微弱하여 거의 無人之境을 휩쓸 듯이 진출하다가 07.10에 △428(松洞 東北쪽 4Km)에서 散發的으로 저항하는 소대규모의 敵을 蹴破한 다음 계속 약진 끝에 10.10에는 主力으로써 목표를 점령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陣地를 구축하면서 다음 명령을 대기하고 있던 바, 15.00에 연대장으로부터 『現 진지를 제31연대에 引繼하고 芳洞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서, 縱深이 얕은 사단의 左一線은 南大川을 사이에 두고 五聖山(△1,062)과 接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敵情이 경미한데 反하여 右一線은 金城에 가까울수록 敵勢가 尤甚하기 때문에 차후 작전에 對備키 위한 配慮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대는 이 명령에 따라 16.30까지 진지를 引繼한 다음 芳洞으로 집결하여 부대를 再整備하였다.

이상과 같아 연대는 이날 공격에서 戰必勝 攻必取의 연속으로 Nomad 線上의 목표를 탈취하여 대체로 間楓峴—△421—橋田里 線에서 陣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는데, 다만 右隣接인 美제24사단의 進出遲延으로 말미암아 下楓峴—下楓洞 사이에 突出한 △382를 아직 敵中에 둔 셈이었다.

2.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는 主攻이 Nomad線으로 진격하는 동안 北亭嶺 以南의 殘敵 撲滅戰을 전개 하였는데, 이 지대에는 전날 공격에 未盡한 △492와 △600 西北능선에 數未詳의 敵이 아직도 不動의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右隣接인 美제5연대의 正面에서 50여명의 증원병력이 投入되는 등 一連의 動靜으로 볼때 이들은 兩사단의 接境지대에서 後續병력의 진출을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속히 이를 驅逐코자 전날의 공격梯隊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3, 제2 兩대대로써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3대대(장, 權正龍소령)는 右一線 포위권을 압축하면서 △600 西北능선으로 突進하여 08.40에 △517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휩쓸어 버린 다음 계속 그 北쪽의 △491를 목표로 급속공격 하였다.

그런데 이 高地에서는 美제5연대 正面의 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대규모가 掩體壕속

에서 銃砲를 亂射하면서 집요하게 버팀으로써 한동안 치열한 交戰을 전개하다가 10.20에 右第一線인 제9중대가 4.2″ 重迫擊砲의 지원아래 火焰放射器로써 敵陣을 燒夷하는 刹那에 그 右一角을 무너뜨린 것을 信號로 하여 제10중대가 또한 그 左側背를 强襲하니 敵陣은 드디어 支離滅裂케 되었으며, 다만 그 一部병력이 榛峴里 北쪽 계곡을 넘어서 美제5연대 正面의 敵陣으로 潰走하자 대대는 急히 追擊戰을 편 끝에 여기에서 射殺 85명과 捕虜 7명의 전과를 올리고 이 高地를 완전히 奪還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지난 전투 (榛峴里—芳洞 부근 전투 참조)에서 爭奪의 초점이 되었던 △600의 西北능선을 완전히 掌中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擔當 全域을 석권하였으며, 13.00부터 제2의 據點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수색대로써 索敵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나) 한편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는 3개중대가 동서에 △492를 목표로 집중공격 하였는데, 마지막 堡壘格인 이 高地에서는 退路마저 잃어버린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아직도 堅陣속에서 발악하므로 11.00 現在 그 中腹에서 固着된채 화력으로써 對峙中이었다.

이와같은 攻防이 3시간 동안 반복되는 사이에 불리한 地勢에 直面하게 된 대대는 84명의 死傷者를 내는 苦戰을 겪기도 하였으나, 力攻에 力攻을 거듭한 끝에 14.10에 이르러 드디어 제7중대를 선두로 三面에서 白兵돌입하여 左顧右眄의 겨를도 없이 이를 무찔러 여기에서만도 무려 141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사로잡는 外에도 60mm박격포 2문과 Rocket포 1문을 포함한 각종소총 51정등을 노획함과 아울러 이 難攻의 要地를 탈취하고보니 이때가 15.00에 가까울 무렵이었다.

그 뒤로 대대는 부근의 殘敵을 쓸어버린 다음 △491로 진출한 제3대대와 서로 提携하게 되니, 이로써 연대는 北亭嶺 南쪽을 완전히 席捲한 셈이 되었다.

다) 그동안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785 北麓에서 예비로 대기하다가 14.40에 연대장으로부터 『承岩里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게된 바, 이는 장차 左一線인 제17연대가 占有하고 있는 Nomad線上의 진지를 인수키 위하여 先發케하려는 事前조치였으며 이에 따라 대대는 16.00까지 承岩里로 집결을 완료하였다.

3.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如前히 下所里—光三里 線에서 제1, 제3兩대대로써 사단 左側方을 엄호하고 있다가 이날 13.00에 하달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3대대로 하여금 제17연대의 제3대대가 점령한 橋田里부근의 진지를 引受케 하는 한편, 그 동안 鳳洞에서 사단 지휘소를 경비하던 제1대대를 躍進시켜 光三里에서 사단 機動예비대로 대기케 하였다.

이와같이 연대는 東北쪽으로 擴開된 새로운 전투正面에서 대체로 17.00까지 진지편성을 마친 다음 수색중대를 香亭까지 진출시켜 敵情을 탐색케 하였다.

10월 15일 : 撤退를 강요당한 사단 正面의 敵은 극심한 損傷에도 不拘하고 金城盆地만은 固守 하려는듯, Nomad線 北쪽 300~700m인 月峰山—△419—楓洞里—香亭 부근으로 물러

서서 간병을 규합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推斷 되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이 指呼之間의 敵勢를 驅逐하여 現占陣地를 굳히는 동시에 오히려 이 부근에 前進진지를 확보키 위하여 當初의 계획대로 제17연대로 하여금 여세를 몰아 △419와 楓洞里 일대의 敵을 적어도 三南里 北쪽까지 격퇴케 하는 한편, 최초임무를 완수한 제32연대를 Nomad線으로 약진시켜 現陣地를 引受보강케하고 제31연대와 포병대대는 이를 지원토록 조치한 다음 이날 안으로 戰線정리를 마치기로 다짐하였다.

1. 이에 따라 다시 主攻이 된 제17연대(장, 殷碩杓 중령)는 제3대대를 現陣地에 남겨 제32연대가 당도할때까지 확보케 하는 한편 제2, 제1兩대대로써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2대대(장, 全成珏소령)는 여전히 右一線을 맡아 △419를 목표로 突進하였는데, 右隣接인 美제5연대의 진출지연으로 말미암아 東側方에서 敵의 위협이 뒤따랐으므로 제7중대로 하여금 전날 공격을 멈추었던 △382를 탈취한 다음 그 東側으로 迂回하여 隣接사단 正面의 敵勢를 牽制하면서 목표의 東南쪽으로 突入케 하고 主力은 下楓洞 고개를 넘어서 直路로 목표를 指向한 것이다.

이리하여 主力이 09.00에 속칭 이청골 계곡으로 들어서자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419 西斜面에서 一時에 저항하므로 대대(一)는 여기에서 일단 隊五를 調整한 다음 목표의 東西 兩側面으로 分進공격키로 하였다.

이로부터 惹起된 戰端은 서로 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 15.30까지 무려 6시간 半동안이나 계속 되었는데, 그 동안에 地之利를 잃은 대대(一)는 34명의 死傷者를 내는 苦戰을 겪기도 하였으나 左第一線인 제6중대가 敵陣 背後로 깊숙히 突入하여 그 西側背를 掩襲함으로써 一角을 무너뜨리고 이 効果를 타게 된 各중대는 17.30까지 堅陣을 무찌르고보니, 砲擊에 무너진 山麓에는 50餘具의 遺屍가 腥血에 덮이고 失神상태로 방황하는 者 16명을 사로잡아 押送하는 一方, 곧 급편 陣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7중대도 또한 步戰協同으로 △382를 공격하여 14.00에 이를 탈취하자 계속하여 月峰山 西쪽을 견제 하면서 진출한 끝에 16.30에는 下楓洞 東쪽에서 主力과 戰線을 連繫하니 이로써 대대는 목표를 완전히 탈취하여 前進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경계태세로 들어간 것이다.

나) 제1대대(장, 金熙濱 소령)는 左一線을 擔當하여 07.45에 △495(梨實洞 北쪽 1.5 Km)에 대대 OP를 선정하는 즉시로 제1, 제3兩중대를 左右로 전개하여 楓洞里 일대의 主要高地를 누비면서 突進하였는데, 當面한 敵情이 비교적 가벼워서 큰 接戰없이 계속 진출하다가 10.10에 제3중대가 間楓洞 부근에서 2個소대 규모의 敵을 撲滅한 뒤로 속도를 더하여 躍進한 끝에 12.40에 목표선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대대는 楓洞里—△428線에 主力을 전개하여 前進陣地를 확보한 가운데 수색대를 三南里 北쪽까지 진출시켜 敵情을 탐색하면서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다) 한편 제3대대(장, 梁成植소령)는 Nomad 線上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이날 09.20에 제30연대가 主力으로써 進出하자 陣地를 인계하고 다시 芳洞으로 집결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2.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는 전날 北亭嶺 南쪽을 장악한 뒤로 대기하고 있다가 사단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날 04.00부터 Nomad線을 목표로 機動하였는데, 右翼사단의 不進으로 말미암아 사단 東側方의 위협이 尙存하기 때문에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로 하여금 전날의 激戰場인 △492에서 목을 지키게 하는 한편 제1, 제3兩대대의 主力으로써 Nomad線을 점령 하였다.

이리하여 先頭인 제1대대(장, 馮 鉉소령)는 08.00에 목표선에 다다라 右一線진지를 점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제3대대(장, 權正龍소령)는 09.20까지 進入하여 左一線진지를 점령한 다음 이를 補强 하였다.

3.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主力을 橋田里—下所—光三里선에 배치하여 사단의 左側方을 엄호케 하고, 제1대대도 또한 변함없이 光三里에서 機動예비대로 대기케하는 가운데 수색중대로써 南大川을 따라 敵情을 탐색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위력수색으로 香亭부근까지 나아가던中 15.30에 △533(五聖山 東쪽 高地)에서 外也洞 쪽으로 機動中인 중대규모의 敵과 不時에 遭遇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대는 4시간에 걸친 遭遇戰끝에 이 敵을 격퇴함과 아울러 사살 56명과 자동소총 2정을 비롯한 각종소총 11정을 노획하고 4명의 戰死者와 장교 1명을 포함한 11명의 戰傷者를 보았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이날 공격에서 Nomad線을 완전히 확보하는 동시에 그 北쪽에 前進陣地까지 마련 하였으니 군단에서 설정한 목표를 공격개시 3일만에 확보하게 된 것이다

10월 16일 : 목표를 탈취한 사단은 이날 특별한 接敵이 없는 가운데 Nomad 線上의 主陣地는 제32연대가, 그리고 그 西端으로부터 金化에 이르는 南大川 東便의 진지는 제31연대가 또한 主抵抗線 北쪽의 前進陣地는 제17연대가 각각 專擔하였다.

특히 이날 戰線에서 달라진 것은 前進陣地를 제17연대의 제2대대로 하여금 專擔케 하는 동시에 그동안 계속 一線에 섰던 同연대의 제1대대를 梨賢洞으로 집결시켜 부대를 정비케 한 것과 同연대의 제3대대를 芳洞에서 橋田里로 前進시켜 機動예비대로 保有한 것, 그리고 제32연대의 제2대대를 △492에서 北亭嶺 東北능선까지 병력을 배치토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下午에 사단사령부 에서는 突然 새로운 進攻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는 11.50에 하달된 군단의 臨機的인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군단장 Hoge 중장은 麾下사단의 主力이 대체로 Nomad線까지 진출함을 계기로하여 現戰線을 3~5Km를 더욱 北上시켜서 사실상 金城을 制壓할수 있는 瞰制線을 탈취키로 결심하고 제2단계 목표로 Polar線(金城川江口—鵲岩山—烽火山—灰古介—外也洞—下所)을 설정하는 동시에 D일 H시를 17일

06.00로 定함으로써 이에 따라 當面의 進攻방안을 熟議하게 된 것이다.

이 작전회의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된 끝에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목표지대의 기동공간이 협소한 點과 現부대배치등을 감안하여, 제32연대를 主軸으로 한 사단의 主力으로써 現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17, 제31 兩연대에서 각각 1個대대씩 抽出케 하여 當面의 Polar線을 攻略키로 결심한 결과 要旨 아래와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88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主力으로써 Nomad線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내의 敵을 계속 공격하여 當面의 Polar線(△522—外也洞—橋田里)까지 진출하려 한다.

② 제17연대

㉮ 1個대대로써 목표 "S"(522△)를 탈취하라.

㉯ 제31연대가 "K" 목표를 탈취하면 1個대대로써 인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31연대

㉮ 1個대대로써 "K"목표(外也洞부근)를 탈취하라.

㉯ 목표를 탈취하면 제17연대에 인계하고 橋田里—香亭間의 진지를 더욱 强化하라.

㉰ 공격間 사단 左側方을 엄호하라.

④ 제32연대

㉮ 別途 명령이 있을 때 까지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공격개시 3시간 전까지 1個대대를 上楓洞에 집결 시키되, 장차 機動예비로써 活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⑤ 포병제18대대는 "S"목표 공격에 있어서 최소 2個포대규모로써 직접지원하라.』

10월 17일 : 드디어 이날 06.00를 期하여 사단은 Polar線을 목표로 한 제2단계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때에 敵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金城川과 南大川을 東西로 끼고 △552—△522—外也洞부근에서 阻止線을 급편한 듯 하였으며, 그 重點을 △522에 指向하는 것으로 보아 金城盆地만은 끝까지 固守코자 하는 것으로 내다 보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旣定한 部署에 따라 進攻하되 화력의 중점을 △522에 두면서 右一線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1.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는 이 공격에 앞서 연대 작전명령 제86호(51.10.16.23.00)를 하달하여 "S"목표의 공격임무를 현재 前進陣地를 占有中인 제2대대로 하여금 專擔케하는 동시에 現陣地는 예비인 제1대대가 인수토록 하고 제3대대는 계속 上楓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31연대가 "K"목표를 탈취하면 이를 인수토록 조치한 다음, 이와 같은 모든 준비를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마치게 하여 예정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단의 最右一線이 된 제2대대(장, 全成珏소령)는 △522를 목표로 西北進 하였는데, 08.30에는 벌써 同高地의 南쪽 200m까지 이르러 그 東南쪽 稜線中央에 우뚝

솟은 無名高地를 敵의 큰 저항없이 先占한 다음 여기에서 3個 중대를 동시에 전개하여 최종목표로 指向한 집중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지대에서는 2個중대 규모의 敵이 最後 阻止線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頑强한 저항을 보일 뿐만 아니라 100여발에 達하는 砲彈이 대대에 집중하는 탓으로 10.00以後부터 戰線이 차츰 膠着되었으며 15.00에 이르기까지 다만 彼我의 화력 應酬만이 반복되는 사이에 대대에서는 5명이 戰死하고 31명이 戰傷을 입는등 좀처럼 戰況의 好轉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듯 激戰이 계속되다가 포병 제18대대의 지원화력이 증강된 직후인 15.40에 대대는 다시 三面으로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敵線을 돌파하지 못하고 日沒과 함께 前記 무명고지로 물러서서 진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공격에서 捕虜 5명을 사로잡아 압송하였는데 敵陣에 腥血이 물들고 傷兵의 後送조차 不振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2. 한편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제2, 제3 兩대대로써 橋田里—香亭線의 진지를 確保케 하면서 제1대대(장, 高日燮소령)로 하여금 목표"K"를 탈취케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橋田里에서 東北쪽으로 2.5Km를 躍進하면서 敵의 경계선을 휩쓸어버린 다음 07.30에 △477(外也洞 東南쪽 1Km)에 이르러 2個소대 규모를 一擊에 다시 무찌르고 계속하여 外也洞을 목표로 餘勢를 휘몰았는데, 그 正南쪽에 있는 無名高地에서 새로이 중대규모의 敵이 버티므로 一戰을 決한 바 있었다. 이때에 제3중대 主力은 그 高地 西쪽의 低地帶로 迂回하여 敵의 背後를 强襲함으로써 强醜擊破의 功을 세웠으며 14.00에 이르러 이 高地를 奪取하고야 말았다.

대대는 여기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17.35까지 追擊끝에 목표"K" 일대를 장악한 결과 南大川 北쪽의 白楊里를 굽어 보면서 Polar線上에 새로운 陣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즉, 計劃上으로는 "K"목표를 탈취하면 제17연대에 引繼토록 되어 있으나 日暮가 將迫한데 제17연대는 아직도 △522를 攻陷치 못한 까닭으로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防守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3. 제32연대(장, 金容弼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主力으로써 Nomad 線上의 진지를 堅守하였으며, 연대의 제2대대는 아직도 △492와 北亭嶺 부근에서 要路를 扼守中이었다.

工兵중대는 月峰山과 下楓洞 사이에 철조망을 架設하여 金城川으로부터 사단 東側으로 통하는 侵透源을 阻塞하는 作業을 遂行中이었다.

10월 18일 : 공격개시 6일째 되는 이날 사단은 최종목표 "S"의 탈취를 다짐하면서 우선 확보한 陣地를 보강하였다. 즉, 제17연대로 하여금 Polar線上의 △522를 공격케 하는 한편 主力으로써 戰線강화를 꾀한 것이다.

1. 공격임무를 맡은 제17연대장 殷碩杓중령은 進攻에 앞서 전날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제

2대대를 예비로 돌리고, 現 예비인 제3대대로 하여금 그 任務를 擔當케 한 다음 이날 오전중으로 목표를 탈취토록 박차를 加하였다.

이에 따라 上楓洞에서 躍進한 대대는 07.00에 제2대대의 전투區域을 인수하자 곧 제9, 제11 兩중대를 제1선으로 전개하여 同 高地의 正面突破를 강행케 하는 한편 제10중대를 제31연대 지역으로 迂回케 하여 목표의 西側背를 急襲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08.00부터 불꽃튀는 격전이 전개 되었는데, 中共 제603단(연대) 소속으로 알려진 2個중대 규모의 敵이 전날과 다름없이 완강히 버티어 一時 優劣을 가리기 어려운 紛戰이 야기된 바 있었으나, 10.00를 전후하여 그 背後로 돌입한 제10중대의 强壓으로 말미암아 차츰 孤立에 빠진 듯한 敵은 11.20부터 戰線의 破綻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勢衆力强을 믿던 敵의 一群도 이제 그 바닥을 보이게 되자 다만 圖生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이에 銳氣를 더하여 전과를 확대한 대대는 드디어 11.50에 △522를 탈취한 다음 直木洞과 白楊里 쪽으로 四散潰走하는 騷醜를 몰아 15.00까지 追擊을 加한 끝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이 일대에서 도합 射殺 229명과 捕虜 15명을 얻었으며 無反動銃 15정을 비롯한 기관총 4정과 각종 소총 492정을 鹵獲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는 07.00에 전투임무를 交代하자 間楓洞에 집결하였다가 연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제31연대가 占有中인 外也洞의 "K" 陣地를 13.00까지 인수하여 右側 제3대대와 戰線을 連繫하는 가운데 진지를 强化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Polar 線上의 △522와 "S" 兩 목표를 掌握하는 가운데 防守태세로 들어갔다.

2.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전날 점령한 "K"陣地를 제17연대에 인계 하는 즉시로 제1대대를 香亭에 집결시켜 예비로 控置한 다음 主力을 Polar線의 西半部인 △477—香亭—橋田里—下所의 線에 배치하여 南大川 東쪽 要線上에 진지를 구축하였는데, 그 동안 수색중대는 五聖山 東北쪽의 속칭 "점자말"부근까지 挺進하여 위력수색을 반복하였다.

3. 한편 제32연대(장, 金容珣대령)는 변함없이 Nomad線上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일부로써 사단 東側의 下榛峴—月峰山 일대를 搜索케 하였으나 敵影이 없었다.

그 동안 연대 지휘소는 主力이 머문 곳을 따라 高飛木에서 芳洞 北쪽의 無名능선으로 前進 개설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赤根山 北麓에서 金城 西南쪽으로 進擊하여 6일 동안에 걸쳐 敵陣을 차례로 踏破하는 동안 때로는 寸尺의 땅을 다투는 血戰을 펴기도 하였으나 優勢한 화력으로써 이를 제압하면서 제2단계 목표인 Polar線까지 進出하여 敵의 金城 領有를 無力化하는 동시에 장차 北進基地를 굳히기에 이르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군단의 이번 작전은 대체로 13일부터 21일 사이에 성공적으로 그 終結을 맺었다. 즉, 비교적 공격 軸線이 짧았던 當사단은 18일에 목표를 탈취 하였으며, 군단의 右翼인 제6사단과 中央右翼인 美제24사단은 21일까지 金城 正南쪽으로 진격하여 제2단계 작전의 매듭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사단이 Polar線上에서 戰線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에도 右翼에서는 아직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사단은 現陣地를 확보하면서 군단 左側 특히 五聖山 부근의 敵陣에 대한 경계에 중점을 두고 매일 중대 또는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위력수색을 감행하여 이를 엄호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의 全主力이 Polar線을 점령한 21일에는 제6사단이 鞨岩山을 略取하고, 美제24사단에서 協同작전을 펴던 제6戰車대대의 2개중대가 15.40에 金城에 突入하여 敵의 집결장소를 격파하는 등, 사실상 金城을 掌中에 넣은 다음 바로 그 南쪽에서 진지를 선정 함으로써 左右隣接사단이 서로 提携하면서 陣容을 一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사단 正面의 中共 제200사단은 金化—金城 사이의 道路 北쪽으로 불러서서 殘兵을 규합하여 白楊里一帶를 부근에 根據를 두면서 새로운 阻止線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사단이 그 以上의 追擊을 멈추고 진지를 강화하자 19일 04.30에 중대규모로써 直木洞을 넘어 제17연대 제3대대의 陣前까지 侵襲한 것을 비롯하여 20일 새벽에도 중대 규모의 병력이 역시 제3대대 正面에서 반격을 試圖하는 등 22일까지 거의 매일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挑發하였으나 그때마다 死傷者를 내할 뿐으로 부질없이 戰線속을 馳驅하다가 물러서고야 말았다.

그 뒤로 이들은 26일부터 接觸을 끊고 守勢에 專念 하는 듯 하더니, 11월 11일에 中共 제12군(장, 曾紹山) 예하의 제31사단(장, 趙藍田)과 陣地를 교대한 다음 淮陽으로 撤退하였다고 알려졌는데, 11월 中旬부터 陣前挑發이 잦은 點으로 미루어보아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 것이 거의 確實視되었다.

한편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나자 제17연대를 Polar 線上의 東半部에, 제31연대를 그 西半部에 각각 배치하여 主抵抗線을 형성케하는 한편 제32연대를 Nomad 線上에서 제2선 진지를 확보토록 하는 가운데 防守陣을 강화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위력수색으로 군단 左側에 대한 敵의 動向을 탐지하면서 19일부터 歸順을 권고하는 對敵放送으로 心理戰도 병행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1일에 거행된 式典에서 제17연대 제6중대를 비롯한 有功부대의 표창과, 제32연대 제5중대의 金銀章 일등상사 外 63명의 殊勳者를 표창하여 부대의 士氣를 높이는 동시에 인원과 장비를 補充하여 부대를 강화하였다.

그뒤로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敵의 陣前 挑發이 頻發하자 군단의 계획에 따라 17일부터 다시 敵의 前進部隊에 대한 擊破를 위한 一戰을 펴게 되는 것이다.

本 전투 기간중의 종합 전과와 손실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부대	戰果								損失	
	射殺	捕虜	82mm 迫擊砲	60mm 迫擊砲	機關銃	無反動銃	各種小銃	手榴彈	戰死	負傷
제 17 연 대	912명	160명	3문	8문	13정	1정	316정	9,500	2/92명	5/373명
제 31 연 대	65명						13정		4명	11명
제 32 연 대	328명	46명		1문	8정		74정	2,544	38명	9/176명
계	1,305명	206명	3문	9문	21정	1정	403정	12,044	2/134명	14/560명

§. 參戰者의 證言

◇ 제2사단 제17연대 제1중대 제3소대장
宋基善 소위(1966. 7. 13, 제1군사령부 정훈과장, 소령)

이 전투는 말고개 부근에서 金城 앞까지 공격한 進擊戰인데, 당시에 나는 제1중대 제3소대장으로서 參戰했으며, 특히 任官후에 최초로 싸운 전투라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내가 체험한 바로는,

첫째로 소대장이 전투지휘 하는데 있어서의 融通性의 限界點이다.

이 때에 우리 소대장들은 50,000分之1 지도를 가지고 목표지대를 볼 수 있는데까지 나가서 중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중대장은 口頭로 제1소대는 이 목표, 제2소대는 저 목표,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敵情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소대가 北亭嶺 부근의 △400 능선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받고 梨貫洞에서 공격을 시작하여보니 地圖上에 나타나지 않은 개울이 있고 거기에 木橋가 있어서 막 여기를 넘어서자 목표에 다다르기도 전에 右側方으로 부터 不時에 사격을 받았다.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려하니 시간과 방법이 窮하고, 단독으로 이 敵을 공격하려 하니 명령위반이 되어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더우기 우리 소대는 東北쪽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右側에 敵火가 뒤따라서 可否間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에 나는 "소대장은 최초전투에 용감해야 부하를 장악하기 쉽다"는 선배들의 助言이 생각났다.

이리하여 먼저 이 敵을 공격하자고 단독으로 결정짓고, 내가 선두에 서서 수류탄을 펴어들고 돌격을 감행하여 용감히 이를 무찔렀는데, 뒤의 일이지만 이 공격에서 목표에 빨리 올라가지 않았다고 중대장으로부터 問責을 받았을 뿐아니라 목표를 탈취하면 예비로 돌릴것이라는 약속도 취소 당하여 괴로웠던 일이 있었다. 아무리 융통성이 없는 最前方 지휘관이라지만 과연 중간에 敵을 놓아 두고 어떻게 목표로 돌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당시의 소대장들 간에 議論이 많았던 일이 생각난다.

둘째로는 전투간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소대가 △400를 공격할 무렵의 사건인데, 뽕나무 밭을 橫斷하여 敵陣에 막 붙었을 때 소대 선임하사가 敵의 交通壕에 방치된 外製籠球靴를 한켤레 주어 가지고 신으려다가 폭발로 橫死한 일이 있다. 戰場터에 방치된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당시의 병사들이 참으로 용감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敵의 陣地가 견고하고 총탄이 빗발 치는 대도 불구하고 고참병들이 특공대로 自願하여 敵陣에 突入하는 것을 보고 初任장교인 나는 마음속으로 경탄해 마지 않았다. 이러한 勇戰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용감한 공격으로 목표를 탈취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이 전투가 끝나고 보니 우리 소대도 전사자는 5명이었으나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완전한 병력은 1개분대 정도였다. 실로 치열하게 싸운 전투이다.

◇ 제2사단 작전처 보좌관 李錫俊소령
(1973. 11. 22, 대한시멘트西氷庫支店에서, 예 대령)

이 전투는 군단의 계획에 의하여 右隣接인 美 제24사단과 병행으로 金城 南端까지 진격한 것이다.

이 때에 사단은 제17연대를 主攻으로 하여 공격개시 2일만에 電擊的으로 목표를 탈취 하였는데, 공격이 빨라서 많은 전과를 거둔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전투는 오랫동안 서로 對陣하고 있다가 進攻케 됨으로써 陣地가 견고하여 첫날 전투에 승패를 가름하다시피 하였는데, 制空權을 장악한 UN 空軍의 지원과 군단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처음부터 작전의 主導權을 잡고 밀고 올라갔다.

목표를 점령한 뒤로 또 군단에서 더 올라가라는 명령이 내려 와서 공격을 再開했을 때에는 隣接사단의 진출이 며칠 늦어져서 苦戰한 일이 있었으나 제2단계 목표도 우리 사단이 맨 먼저 탈취하였으며, 전투 직후에 군단장이 직접 사단에까지 와서 이를 致賀한 일이 있었다.

6. 九化里 附近 戰鬪(1951년 10월 5일부터 1951년 10월 9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28, 2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사단	장	준장	朴	林	恒	제7중대	장	중위	王	日	浩
제15연대	장	대령	金	振	暐	제8중대	장	대위	申	炳	官
제2대대	장	소령	張	時	雨	유격중대	장	중위	安	秉	塵
제5중대	장	대위	姜	東	遠	제17포병대대	장	중령	梁	正	吉
제6중대	장	대위	池	澤	淵						

敵 軍

中共 제194사단	장		劉	秉	彦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사단(장, 朴林恒준장)은 9월 9일에 臨津江 南岸을 沿한 Wyoming線上의 주진지를 확보한 뒤로 이 線에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인 제15연대의 일부병력으로써 江北의 △84—△169 일대에 전진진지를 점령케 하여 제한된 수색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무렵 당면의 中共軍은 9월 5일에 제65군의 제19사단이 새로이 제64군의 부대들과 교대하여 △207—非智山—六德山을 연하는 선상에 진지를 점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의 첫 움직임은 야간을 이용한 정찰활동으로 사단의 배치상황을 탐색코자 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에 사단은 그들의 수색활동을 阻害코자 9월 10일에 제15연대 수색대로 하여금 六德山의 敵陣을 기습하여 그 일대의 정찰거점을 撲滅케 하였는데 11일에는 첩보부대 1개 분대가 京義線 철로변의 △34 부근에서 敵의 정찰대를 急襲하여 中共軍 6명을 사로잡고 소총 6정을 노획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10월초순에 들어서자 美제1군단이 Commando작전을 개시함으로써 西部전선이 북진케 됨에 따라 군단의 좌익을 맡은 사단은 예비인 제15연대(장, 金振暐대령)로 하여금 10월 3일에 이 작전에 참가케 하여 이날 18.00에 Jamestown線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同線을 확보케 된 연대는 이날로 金谷里의 CP를 餘萬里로 推進한 다음 그 주력을 沙尾川(△146)—△130사이에 配備하였다.

즉,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146—△91線을 맡게 하고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샛터—△130間을 담당케 함으로써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여기에 주저항선을 편성케 하는 동시에 제2대대로써 元堂洞부근 高地에 控置하여 방어 縱深을 깊게 하였다.

연대는 이와 같이 陣容을 갖추어 敵의 수색대가 陣前에 출몰하는 것을 제압하면서 주진지 공사에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되니 당면의 中共 제194사단 제577연대는 主力을 △207와 非智山일대에 배치한 가운데 그들의 예비로 하여금 연대의 추진지 공사를 阻害하려는 듯이 보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1차 奇襲戰(10. 5)

(가) 작전계획

사단은 10월 3일에 Jamestown線을 점령하자 곧 주저항선 방어진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면의 中共 제577연대는 △207를 중심으로 추진지를 준비하고 前面 左右 능선일대에 경계부대를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교수하는 일방 수시로 사단의 추진지를 夜襲하면서 진지공사를 妨害하였다.

이와같은 敵情을 검토한 사단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끝에 전진진지 정면의 △207 일대를 탈취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敵의 策動을 根絶키로 결심하였는데, 당시 △207는

첫째 : 沙尾川 左岸의 瞰制要衝으로서 四面이 험준한 경사를 이루어 자체방어진지의 편성이 용이한 독립고지이고

둘째 : 사단이 이를 확보하면 沙尾川 右岸의 美제1기갑사단과의 戰線整齊와 아울러 西側의 望海山의 敵진지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당면의 戰線을 九化里—南山洞(지고川 南岸線)까지 北上시킬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4일 12.00에 제15연대장에게 △207를 기습하여 一擧에 이를 탈취 확보토록 명령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207와 非智山 일대를 점령하여, 次後作戰의 발판을 확보하고 Jamestown 線上의 추진지 공사를 엄호하려 한다.

② 제15연대는 목표 △207를 기습하여 이를 점령 확보함과 동시에 가능한限 多數의 포로를 획득하라.

③ 제15연대 공격간에 제17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할 것이다.

④ 공격간 전차 2개 소대를 배속한다.

⑤ 기타 각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라.

⑥ 공격개시 일시는 10월 5일 08.00이다.

⑧ 사단 지휘소는 계속 梧山里에 위치한다』

사단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15연대장 金振暎대령은 제2대대(—1)와 연대유격대를 左右공격梯隊로 하여 一擧에 기습을 가하여 목표를 攻奪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일부 병력으로써 목표 △207를 공격하여 점령하

려 한다.

② 제2대대는

㉮ 목표 △207의 敵陣을 急襲하여 이를 탈취 확보하라.

㉯ 가능한 限 多數의 포로를 획득하라.

③ 유격중대는 非智山 西쪽 高地를 공격하여 敵陣을 교란하라.

④ 공격간 포병 제17대대가 직접지원 할 것이다.

⑤ 공격간 전차 2개 소대를 제2대대에 배속한다.

⑥ 공격개시 일시는 10월 5일 08.00이다.

⑦ 공격간 연대장은 제1대대 OP에 위치할 것이다.』

(나) 작전실시

10월 5일에 제15연대(장, 金振暐대령)는 제17포병대대(장, 梁正吉중령)와 美제73전차대대 C중대의 지원아래 예정대로 08.00부터 공격機動을 시작하였는데, 제1, 제3 兩대대가 主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예비인 제2대대(-1)로 하여금 △207를 집중공격케 하는 한편 연대 유격대로써 非智山일대(△207 西쪽 2Km)를 공격케 하였다.

1.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08.00에 LD를 통과할 예정으로 05.00에 元堂洞 부근의 現진지(LD 南쪽 4Km)를 출발하였는데 이때 대대는 제5중대를 南쪽 능선을 따라 △157를 擊破한 다음 △207를 直衝케 하고 제6중대는 전차 2개 소대와 협동으로 제5중대의 左右側方을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각 중대(제7중대 제외)는 예정시간에 일제히 LD(제1대대의 現 배치선)를 넘어 목표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런데 △207일대는 우거진 森林과 두텁게 덮인 濃霧로 말미암아 기습에는 다시 없는 好機를 보였으나 반면에 부대지휘와 敵情파악이 곤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5중대(장, 姜東遠대위)는 濃霧가 걷히기 전에 목표 △207를 탈취코자 3개소대를 동시에 공격일선에 전개하여 沙尾川—상고밀洞 사이에 横으로 가로 놓인 넓은 개활지를 횡단한 다음, 약진끝에 08.00에 이르러 △157(△207에서 南쪽으로 뻗은 3부능선 上의 高地) 頂上 30m앞까지 진출하였는데, 이때에 그들의 경계組로 보여지는 수효를 알 수 없는 敵으로부터 小火器의 急射를 받아 전진이 一時 정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姜東遠대위는 右측의 제1소대로 하여금 그 西斜面으로 신속히 迂回토록 하여 △157의 후방 능선을 차단케 하는 한편, 중대주력을 지휘하여 정면과 東斜面으로 일제히 뛰어들어 수류탄 들격과 백병전의 互用으로 09.00에 2명의 敵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은 다음 △207쪽으로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때 중대의 공격을 지원코자 제6중대 엄호아래 중대의 左右側方으로 진공하던 兩 전차소대가 파괴된 교량을 통과하다가 교량위에서 擱坐됨으로써 이의 지원이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목표 △207로 直衝키로 한 최초의 계획을 바꾸어 △185를 먼저 탈취한 다음에 步戰協同으로 △207를 攻略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제3소대를 △185 東斜面으로 迂回시켜 敵陣左側背를 挾擊케 하고 주력으로써 정면과 西斜面에서 포복과 약진으로 敵線 30~40m 앞까지 肉迫하여 突擊態勢를 갖춘 다음 09.20에 全중대원이 일제히 敵陣으로 突入코자 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頓挫寸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뒤 늦게 沙尾川쪽으로 迂回하여 이 △185 능선을 따라 진출한 右側方의 전차소대가 敵陣에 불을 吐하자 이에 힘 입은 제3소대가 敵陣 左側背를 수류탄으로 急襲하여 敵陣의 一角을 무너뜨렸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 주력이 敵陣으로 뛰어 들어 20분 동안 백병전을 벌인 끝에 敵 6명을 죽이고 同 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때가 10.00 정각이었다.

이리하여 △157와 △185를 차례로 격파한 중대는 여기에서 戰列을 정비한 다음 제1소대로 하여금 최종목표인 △207西斜面으로 迂回시켜 敵陣 右側背를 一擊케 하고 중대 주력으로써 전차포 지원아래 正面과 東側을 强壓하면서 步一步로 10.40에 高地 頂上까지 肉迫하였는데 이때에 敵이 銃砲 彈幕으로 중대의 진로를 가로막고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중대는 그 자리에서 膠着되는 가운데 死傷者의 속출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敵主陣地의 심장부로 알려진 △207의 8部능선부터는 三面이 45°이상의 急傾斜를 이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는 중대의 企圖를 숨겨주던 濃霧마저 개이기 시작하여 공격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당면의 敵이 地勢의 利를 살린 堅陣을 확보하고 자동화기를 亂射하는 까닭에 突破口를 뚫기가 용이치 않았다.

이에 중대는 포병사격과 전차포로써 敵火를 제압한 다음 三面에서 일제히 突進을 감행한 끝에 東側方의 제3소대의 일부가 敵陣 50m앞의 능선高地를 탈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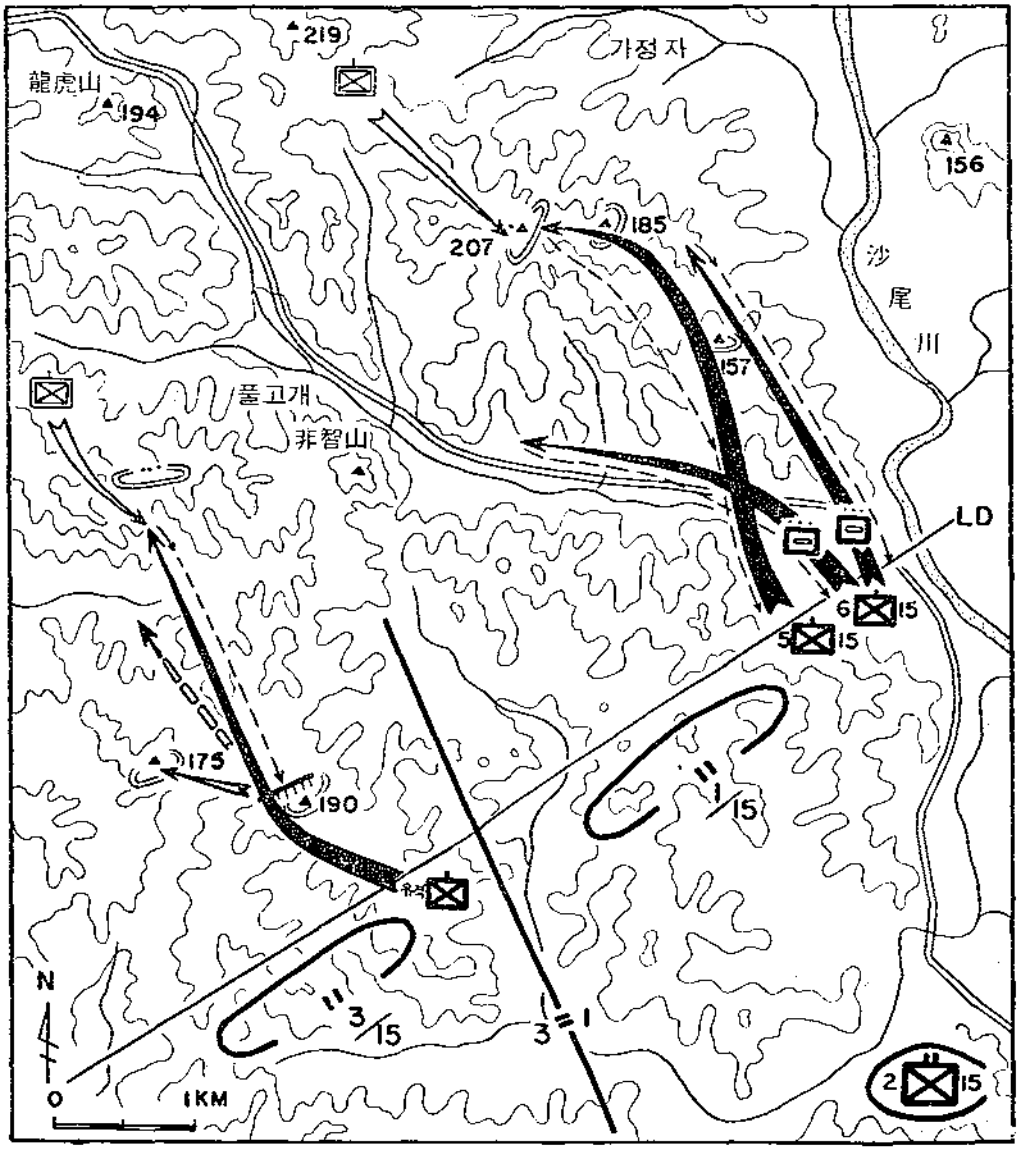
중대는 이를 발판으로 돌격을 계속하였으나 敵火가 熾盛하여 쉽사리 敵의 火網을 뚫지 못하고 손실만 累增케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일단 敵線으로부터 200m쯤 이탈하여 병력을 수습한 다음 포격과 전차포 지원을 받아 세차례에 걸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一進一退의 격전만을 되풀이 할뿐 戰況에는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다.

이와같이 4시간 동안이나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219 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증원되어 목표高地의 敵과 合流함으로써 이날의 전투는 더욱 混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2. 한편 左第一線의 유격중대는 △190의 8部능선까지 접근하여 兩面에서 掩擊하자 敵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속칭 "풀고개"쪽으로 潰走하였는데 必是 그들의 주력부대와 合流하는 것으로 보였다.

상황도 제28호 제1차 奇襲戰(10.5)



중대는 제1소대로 하여금 西쪽 △175를 탈취 확보케 하고, 중대主力으로써 石柱院里 南쪽능선을 따라서 풀고개—盤龍골로 連하는 도로를 횡단하여 나아 갔는데, 非智山 西쪽 無名高地의 3部능선에 이르자 그곳에 경계진지를 마련한 소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 여기서 진로가 막힌채 寸步를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격전을 벌이는 사이에 西쪽 望海山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증원 되더니 오히려 반격의 氣勢까지 보이게 됨으로써 전황이 더욱 錯雜하게 얽혀 들었다.

제1대대 OP에서 이와 같은 전황을 지켜 보던 연대장 金振暐대령은 彼我間에 격전을 되

풀이하는 사이에 敵勢가 계속 증강되는 반면에 지형에 未熟한데다 日沒까지 겹쳐 지원사격이 어렵게 된 까닭에 보병부대만으로서는 攻略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具申한 다음 공격 一線을 뒤로 빼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19.00에 현 진출선에서 元堂洞부근의 原陣地로 反轉하고 유격중대는 △174—△190의 현 진출선에서 防守態勢로 轉換하여 여기를 고수케 되었다.

한편 이 一戰에서 연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輕機	1정
射殺			17명	損失	
捕虜			1명	戰死	4명
鹵獲	小銃	2정	SMG 2정	負傷	11명

(2) 제2차 奇襲戰(10. 9)

(가) 작전계획

사단은 10월 5일 △207와 非智山 西쪽 高地 일대를 奇襲하였으나, 그 뜻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주진지와 前進진지를 강화하면서 수색전을 폈는데 그 뒤로 敵은 사단의 주진지 가까이에 경계진지를 확장하는 한편 화력과 병력을 계속 증강함으로써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와 같은 敵의 企圖가 Jamestown線上의 主陣地帶 편성을 阻害하는 한편 공격의 好機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5연대로 하여금 다시 공격을 감행케 하여 이를 탈취함과 아울러 포로를 획득하여 敵情을 탐지코자 새로운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병력으로 △207 일대의 敵陣을 탈취하려 한다.

② 제15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일부병력으로 △207의 敵陣을 奇襲하여 점령 확보하고 가능한 限 많은 포로를 획득하라.

③ 공격간 제17포병대대가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④ 제73전차대대 C중대가 공격을 지원할 것이다.

⑤ 기타 各隊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⑥ 공격일시 10월 9일 08.00이다.

⑦ 사단지휘소는 계속 梧山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사단장으로부터 새로운 공격명령을 받은 제15연대(장, 金振暎대령)는 10월 9일에 제1, 제3 兩대대가 주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앞서와 같이 豫備인 제2대대로써 공격一線으로 삼아 △207일대의 敵陣을 奇襲케 하였다.

1. 이에 따라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은 전날 밤 사이에 현재의 진지(高浪浦 西쪽 4Km)

로부터 躍出하여 LD(제1대대 配置線)까지 진출한 다음 예정대로 이날 08.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즉, 대대는 연대장의 奇襲企圖에 따라 一擧에 敵陣을 격파코자 右第一線인 제6중대(장, 池澤淵 대위)로 하여금 전차 1개 소대와의 協同으로 제7중대 일부의 지원아래 沙尾川을 따라서 △207 東側方 깊숙히 迂回토록 하여 敵의 背後를 急襲케 하는 한편, 左第一線인 제5중대(장, 姜東遠대위)로써 목표 △207의 정면을 直衝케 하였는데 제7중대의 제1,제2 兩소대에 각각 전차 5대씩을 隨伴케 하여 제5중대의 兩側을 掩護케 하였다.

가) 그리하여 제5중대는 沙尾川左岸을 따라 우근里 앞 개활지를 일제히 통과한 다음 △207 후방 깊숙히 迂回하여 △185 東北쪽 능선의 無名高地에 다다라, 분대규모의 敵으로 부터 자동화기의 亂射를 받고 여기에서 應酬 一戰을 보게 되었다.

즉, 중대장 池澤淵대위는 敵의 數爻로 미루어 捕獲의 호기라고 판단하고 선두의 제1소대로써 이 敵의 움직임을 견제케 하고, 西측의 제3소대로 하여금 敵의 右側으로 급속히 迂回케 하면서 敵의 背後를 둘이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등 뒤로 급히 迂回한 제3소대는 포복으로 企圖를 秘匿하면서 敵陣 20m 앞까지 육박한 다음 全화력을 집중하고 일제히 白刃을 휘몰아 敵陣에 뛰어들어 左衝右突한 끝에 09.40에 4명을 刺殺하고 6명을 포로로 잡게 되었다.

중대장은 餘勢를 몰아 일부병력으로 △185를 탈취 함으로써 제5중대의 진로를 開拓토록 하고 중대主力을 직접 지휘하여 △207의 東斜面을 따라 敵陣 背斜面으로 迂回한 다음 步一步로 敵線 30m앞까지 육박하자 敵의 銃砲 彈幕은 중대의 기동로를 가로막고 수류탄이 到處에서 폭발하는 까닭으로 중대는 그 자리에서 膠着된채 死傷者의 續出을 보게 되었다.

나) 한편 제5중대는 제1소대를 선봉으로 삼고 그 뒤에 左右로 제2,제3 兩소대를 전개하여 △157 南쪽 능선을 따라 목표 △207를 向하여 약진하였는데 先頭에 선 제1소대가 同高地 중복에서 徘徊하는 中共軍 3명을 포로로 하여 대대로 押送하였다.

중대는 이와같이 공격初動에 勝機를 잡게 되었는데 선두에서 치 닫던 제1소대가 한 달음에 △157頂上으로 훨씬 올라가니 그들의 경계組로 보여지는 분대규모의 敵이 이 氣勢에 눌린 듯 저항없이 황황히 △185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일부병력을 최종 목표인 △207 西斜面을 따라 迂回하여 敵의 右側을 一擊케 하고 주력은 同 高地 南쪽 능선을 따라 頂上으로 登攻케 하였는데 중대가 同高地 7部 능선까지 진출하자 右側方의 △185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側方射擊을 받고 一時 隊伍가 흩어지는 가운데 수명의 死傷者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主力을 능선 西斜面으로 돌려 左側능선을 따라 공격을 계속케 하되 제3소대를 뽑아 전차포 지원아래 △185를 攻略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소대는 南斜面의 死角을 이용하여 步一步로 頂上으로 육박하였는데 이때에

敵이 수류탄을 계속 投下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한 탓으로 敵線을 突破치 못한채로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제6중대의 일부가 전차포 지원아래 敵의 背後로 달려들어 백병전을 벌이자 敵陣이 동요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同소대가 劍閃을 휘몰아쳐서 敵陣을 席捲하고 醜敵을 보는대로 覆滅하니 이때가 12.10이었다.

다) 이 무렵에 대대 OP를 △157 頂上으로 推進한 대대장은 攻略一線으로 하여금 敵勢가 증강되기 前에 최종목표를 탈취토록 促求하고, 전차소대와 함께 제6중대를 지원중에 있는 제7중대 일부로써 속칭 가정자 앞 三叉路(△207 北쪽 2Km)附近을 차단케 하여 敵의 증원을 妨害토록 하는 한편 제7중대의 제3소대 엄호下에 제5중대의 西側方을 지원하던 전차소대로써 △207 西쪽 계곡으로 進攻시켜 非智山의 敵을 위협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목표高地 正面과 敵의 右側方에서 一躍又一躍으로 敵陣 50m 앞까지 육박하였으나, 敵은 여기서 死生을 決斷하려는 듯이 全 화력을 집중발휘하여 진로를 가로막고 나서는 까닭으로 前線이 釘着되는 가운데 6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三面이 45°이상의 급경사를 이룬 이 高地의 地利에 힘입고 진지공사를 강화한 위에 要線마다 障碍物을 설치하고 각 突出部에는 자동화기거점을 마련하여 이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라) 이에 대대장은 공격梯隊를 高地중복으로 일단 물러 서게 하는 한편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高地頂上의 敵陣과 後斜面에 放列되어 있는 박격포진지를 강타케 하고 전차 15대로써 화력진지를 파괴하면서 『지체없이 공격을 계속하라!』고 怒號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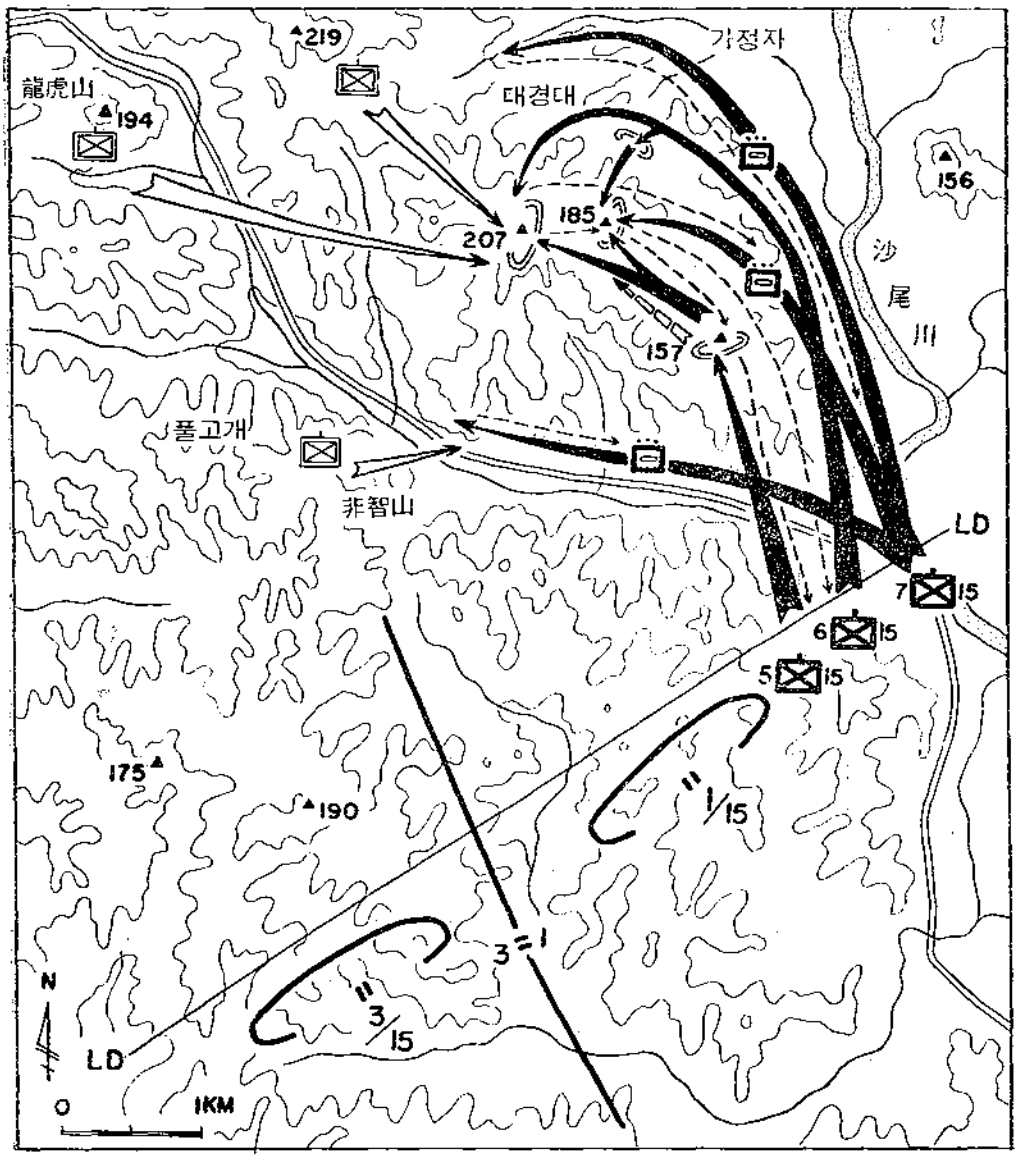


<공격을 지원하는 戰車부대>

그러나 敵勢는 여전히 완강하여 또 다시 血戰을 반복케 되었는데 이때 北쪽의 △219와 西便 龍虎山(△194)쪽에서 2개중대규모의 敵이 증원되어 防禦線을 한층 더 강화한 탓으로 이의 점령을 期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무렵 전차를 앞세워 非智山 東側계곡으로 進攻하던 제7중대 제3소대는 그 수효를 알수 없는 敵과 격전을 벌인 끝에 4명을 사살하고 이를 격퇴하였으나 또 다시 非智山쪽에서 소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됨으로써 격전을 계속케 되었다.

◇ 상황도 제29호 제2차 奇襲戰(10.9)



마) 이때 제1대대 OP에서 이와 같은 전황을 지켜보던 연대장 金振暻대령은 이날 비록 최종목표인 △207를 탈취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공격梯隊는 敵의 경계진지를 모조리 파괴하고 포로와 장비를 노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데다 일몰과 더불어 敵勢가 증강되어 야간공격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한 결과 대대로 하여금 공격을 중지하고 原陣地로 復歸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대대장은 제5중대를 △185에 배치하여 철수를 엄호케 하는 가운데 17.00부터 19.20사이에 隨意철수를 끝마쳤다.

그런데 이날 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78명	戰死	10명
捕虜	9명	負傷	38명
鹵獲	小銃 4정, 多發銃 1정		
	SMG 3정, 輕機 3정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이 전투 이후에도 3개연대를 비롯하여 當師團에 배속되어 金浦半島의 경계를 맡은 海兵 제5대대로써 敵陣에 對한 수색과 소규모의 기습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敵도 역시 사단의 動靜을 살피면서 진지 공사를 방해하는 한편 그들의 前進陣地를 계속 擴張하여 공격의 호기를 노리는 듯 하더니 드디어 10월 20일 夜暗을 이용하여 2개중대규모로써 제15연대 제1대대 前進據點을 奇襲하였다.

이에 대대는 敵을 警戒鐵條網 地帶까지 유인한 다음 全화력을 일제히 집중하여 2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외 경기관총 1정을 비롯하여 소총 4정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美제1군단은 이 무렵 Commando作戰을 終了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단은 臨津江 南岸에 沿하는 主陣地를 確保中인 제11,제12 兩연대를 江北으로 推進하여 Jamestown線上의 새로운 主抵抗線을 강화케 하는 한편 제15연대의 주력은 江南으로 옮기어 사단예비로 金谷里 부근에 控置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5연대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

(1973. 2. 19. 육신고속에서, 예 대령)

當時 사단의 主力은 臨津江 南岸에 배치되고 제15연대만이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있을 때인데 10월 초순에 연대장이 명령하기를 『九化里 南方의 △207를 기습하여 포로를 획득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5중대로 하여금 △207를 공격케 하고 제6중대는 △207後方으로 깊숙히 侵攻시켰는데 그때 마침 敵이 역습을 試圖하여 제6중대의 退路를 차단하므로 중대는 南쪽으로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여 복귀하게 되었다.

7. 美 제 1 군단의 Commando作戰 (1951년 10월 3일부터 1951년 10월 9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30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8군 사령관 대장 James A. Van Fleet
美 제1군단 장 중장 John W. O' Daniel
제1기갑사단 장 소장 Thomas L. Harrold
제5기갑연대 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기갑연대 장 대령 Dan Gilmer
제8기갑연대 장 대령 Eugean J. Field
제 3 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제 7 연대 장 대령 James Boswell
제15연대 장
대령 Richard G. Stilwel
제65연대 장
대령 James K. Woolnough
英 제1연방사단 장 소장
A.J.H. Cassels, C.B., C.B.E., D.S.O.
英 제28여단 장 준장 G. Taylor, D.S.O.
준장 J.F.M. Macdonald, O.B.E.
(51. 10. 交代)
King's Own Scottish Borders Regiment 제1대대(略稱 : KOSB대대)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 Regiment 제1대대(KSLI대대)
Royal Australian Regiment 제1대대 (RAR대대)
英 제29여단 장 준장 T. Brodie, D.S.O.
준장 A.H.G. Ricketts, D.S.O., O.B.E.
(51. 10交代)
Rayal Northamberland Fusiliers Regiment 제1대대(RNF대대)
Glocestershire Regiment 제1대대 (Gloster대대)
Royal Ulster Rifles Regiment 제1대대(RUR대대)
Royal Norfolk Regiment 제1대대 (RNR대대)
Canada 제25여단 장 준장
J.M. Rockingham, C.B., C.B.E., D.S.O., E.D.
Royal Canadian Regiment 제1대대 (RCR대대)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Rigiment 제1대대 (PPCLI대대)
Royal 22e Regiment 제1대대 (R22eR대대)
韓 제 1 사단 장 준장 朴 林 恒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12연대 장 대령 鄭 永 洪

제15연대 장 대령 金 振 暐
배속 부대
Greece대대
Thailand대대 장
중령 Kriengkrai Attananta
(제1기갑사단 배속)
Belgium대대 장 중령 B.E.M., Crahay
Phlippines 제20대대 장
중령 Salvador Abcede(제3사단 배속)
韓 제5海兵대대 장 소령 吳 命 福
(제1사단 배속)

인접 부대
右인접
美 제9군단 장 중장 William M. Hoge
제25사단 장 소장 Ira P. Swift
Turkey여단 장 준장 Sirri Acar

敵 軍

中共 제42군 장 吳 瑞 林
제124사단 장 蘇 克 之
제125사단 장 王 道 川
제126사단
제47군 장 曹 里 懷
제139사단 장 顔 德 明
제140사단 장 黎 原
제141사단 장 鄭 波
제64군 장 曾 思 玉
제190사단 장 唐 子 安
제191사단 장 陳 新 中
제192사단 장 何 友 發
제65군 장 蕭 應 棠
제193사단 장 張 雲 龍
제194사단 장 劉 秉 彦
제195사단 장 阮 平

나. 전투 전의 개황

9月中 군단은 계속 Kansas—Wyoming線에 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그 北쪽에 前進陣地를 설정하여 對陣狀態에 있었으니, 이는 6月 中旬 以來의 전격제한에 따른 것으로 7月 末에 Wyoming線을 主抵抗線으로 변경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간의 작전은 정찰, 위력수색 또는 소규모의 제한된 공격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데 9월 18일에 군단은 美 제3사단의 제65연대와 제64戰車대대(—)로 편성된 "Cut throat"TF로써 鐵原 北쪽 10Km에 이르는 일대의 敵을 剔抉하는 하루동안의 Clean up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敵도 또한 주로 중대규모의 前進陣地에 대하여 대대~연대규모의 시험적인 공격만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月餘間 중단되었던 休戰會談 再開의 접촉이 本格化됨에 즈음하여 제8군은 東海岸 上陸을 포함한 공격계획을 세운 바도 있으나, UN군사령관 Ridgway대장은 전쟁의 全面확대에 대한 우려와 회담에서의 군사분계선 劃定에 대한 겨냥으로써 결국 敵의 경제진지線으로 前進하는 군단 계획인 Commando작전을 결행키로 단안을 내렸다.

이에 군단은 사령부를 鐵原附近에서 臨津江河口—金浦半島에 이르는 地域에서 4개 사단으로, 右隣接 제9군단의 支援下에 공격에 나서니 10월 3일 현재 그 배치상황은 상황도 제29호와 같다.

그런데 右翼 제3사단은 지휘소를 長坪里에 둔 채, 2일 午後에 戰列을 다시 가다듬었다. 즉, 鶴貯水池

南쪽 △275의 Philippines대대를 제7연대 제3대대와 교대하여 그 北쪽 觀雨里 △279일대의 진지를 점령케 하면서 12.00附로 제65연대에 배속하였는데, 이에 同 연대는 四要里—△362일대의 제2대대와 鳳岩洞 △265 일대의 제1대대로써 主陣地를 확보하였으며, 한편 제7연대는 △275로 移動한 제3대대가 上細洞 △266로, 제1대대가 그 西北 1Km일대의 高地로 각각 躍出하여 目標線上 △395의 제2대대를 先頭로 이미 목표를 殆半이나 점령하고 있었다. 또 제15연대도 17.00附로 배속된 夜月山 北麓 △292 일대의 제65연대 제3대대 및 제3중대와 그 西南 2Km인 △487일대의 연대 제2대대, 그 左側에서 天德山의 奪取를 企圖한 제3대대가 목표 寸前에 육박하는 상태였다.

그 밖에 中央右翼인 제1기갑사단은 지휘소를 東幕里에 두고 계속 제8기갑연대(제3대대 缺)로써 亘灘川 西岸 및 臨津江 南岸의 主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7기갑연대와 제5기갑연대의 일부 및 Greece 대대로써 俗稱 선창말 西쪽—馬巨里—赤巨里線에 前進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中央左翼인 英 제1연방사단도 지휘소를 文岩里에 둔 가운데 계속 右—線 Canada 제25여단으로써 江西里—石橋里—百鶴貯水池 北쪽일대, 左—線 英 제29여단으로써 斗日里—箭洞里—元堂洞線의 진지를 확보하며 수색을 되풀이하였다. 또 左翼인 韓 제1사단은 지휘소를 下古谷에 두고 右—線 제12연대, 左—線 제11연대로써 高浪浦—汶山 西北 堂洞里의 臨津江 南岸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紫芝浦부근의 제15연대 제2대대 등 일부로써 江北岸 石柱院里—大德山—長湍일대에 前進陣地를 추진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8月 末에 Talons계획이 취소된 다음, 단계별 작전으로 제10군단에 의한 공격을 계속하던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9월 25일에 Wrangler 및 그에 先行하는 Cudgel계획의 실행을 UN군사령관 Ridgway대장에게 上申하였으나, 결국 이것도 포기되고 9月末에 제1군단장 O'Daniel중장의 구상인 Commando계획의 단행이 결정되었다.

이 작전계획은 군단이 목표 Jamestown線으로 10Km를 前進함으로써 몇가지의 利點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 되었으니, 즉

① Wyoming線의 방어를 확고히 하고, 주저항선을 보다 前方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② 鐵原—漣川계곡의 교통망을 防護하고 서울—鐵原의 京元線일부와 鐵原—金化鐵路를 발전시켜 서울철 자동차에 의한 보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단 補給線을 강화할 수 있고,

③ 敵의 前線부대를 격멸하고 혼란시켜 세력균형을 잃게 하는 反面에 제8군의 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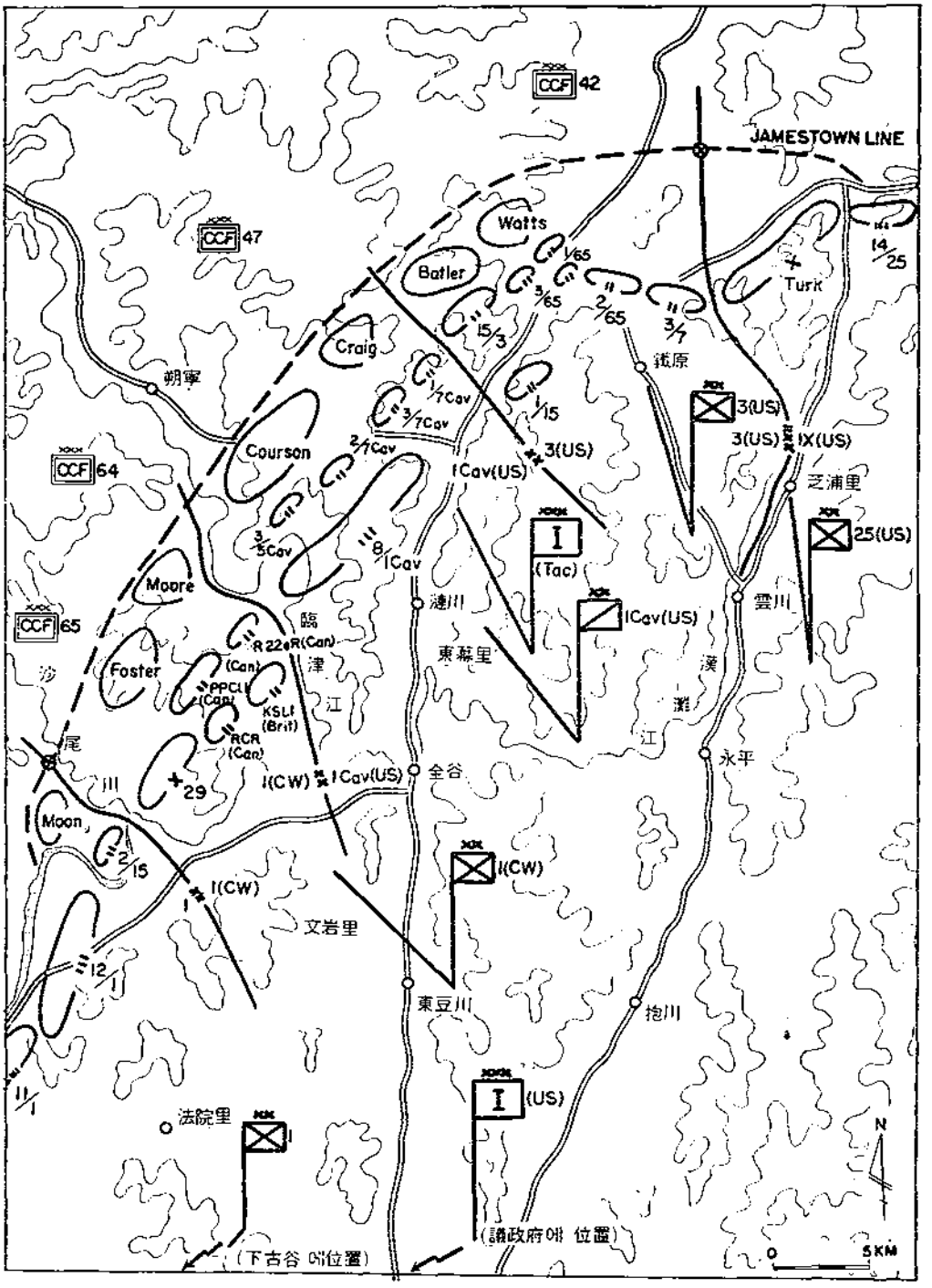
한편 군단의 전진은 제9군단과의 사이에 戰線不均衡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보완을 위하여 제9군단 左翼의 군단 右翼과 連携한 전진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10월 1일에 要旨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1군단은 10월 3일에 Commando작전을 시작하고, 제9군단은 左翼 제25사단으로써 공격하여 제1군단 右翼 제3사단의 전진에 連携하라.』

이에 따라 제1군단장 O'Daniel중장은 10월 2일 각 사단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 상황도 제30호 美 제1군단의 Commando 作戰計劃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10월 3일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중요 地域을 탈취 확보하고 Jamestown線에 沿하여 진지를 편성 방어하려 한다.

Jamestown線은 다음과 같은 線이다.

亭淵里東쪽 漢灘川과 南大川의 合流點 東岸—上珍里—△438—군단 戰鬪地境線上의 中佳山—浦里—△284 北쪽—△395—大馬里 △281—薪峴里 釜谷—魚積山里—楡峴—臨津江 西岸의 伍炭里—馬粮山 北麓—羅浮里와 北倉間 沙尾川 支流를 따라 靑廷里—梧陰里 東쪽—高浪浦 南西쪽.

② 韓 제1사단은 地域內 공격목표 Moon(板浮里 西쪽 △146—△91일대)을 탈취하고 Jamestown線에 沿하여 진지를 점령 방어하라.

③ 英 제1연방사단은 목표 Foster(釜谷 北쪽—鵲洞里—△187일대)와 Moore(臨津江 西岸 馬粮山—高棧里일대)를 탈취하고 목표선에 따라 진지를 점령 방어하라.

④ 제1기갑사단은

㉠ 2개 연대로써 西北쪽으로 공격하여 목표 Courson(驛谷川 南岸 德隱洞—楡峴일대)과 Craig(葛峴里—△347일대)를 탈취하고 진지를 편성 방어하라.

㉡ 목표 Craig를 탈취한 다음 右隣接 제3사단의 목표 Butler에 대한 西側面 우회공격을 지원토록 준비하라. 공격부대의 北面에 대한 側面警戒를 담당하라.

㉢ 장갑부대로 증강된 제3사단의 1개 연대가 Butler의 탈취를 위하여 사단地境을 통과 하는데 대비하고, 제3사단장과 협조하라.

⑤ 제3사단은

㉠ 2개 연대로써 목표 Butler(中土洞—道密里 △324—德山里일대)와 Watts(大馬里 △281—中細里—△266—中於城일대)를 탈취하고 진지를 편성 방어하라.

㉡ 군단으로부터 別命이 있을 경우, 장갑부대로 증강된 1개 연대로써 제1기갑사단 地境을 통과하여 西側으로부터 목표 Butler를 공격하도록 준비하라. 이 계획은 목표에 대한 北 및 東側으로부터의 포위가 敵의 저항으로 阻害될 경우에만 遂行될 것이다.

㉢ 제1기갑사단의 지원에 대비하고 기갑사단장과 협조하라.』

이와 아울러 제9군단도 左翼 제25사단을 亭淵里—中佳山線으로 前進케 하였는데 사단은 지휘소를 芝浦里에 두고 右一線 제35연대, 中央一線 제14연대, 左一線 Turkey여단으로써 金化 北쪽一鶴 貯水池 東岸일대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地域內의 목표선은 漢灘川과 南大川 合流點의 西南岸으로부터 △292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Turkey여단의 正面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작전실시

10월 3일 : 오래간만에 대규모 공격에 나선 군단은 05.00부터 1시간에 걸친 포병의 공격



<Commando 作戰計劃을 檢討中인 軍指揮部>
右로부터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 **UN**군사령관 **Ridgway** 대장,
英聯邦사단장 **Cassls**소장, 美 제1군단장 **O'Daniel** 중장

준비사격이 끝나자 밝아오는 가을 아침의 햇살을 받으며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1. 제3사단의 공격은 목표 Watts가 거의 점령단계에 있는 만큼 Butler를 향하여 그 촛점이 모아졌다.

즉, 右一線인 제7연대는 △395 및 △266일대를 계속 확보하는 한편 사단수색중대가 中於城 南쪽 도로교차점일대를 점령함으로써 목표의 南端一角을 더 확보하였고, 左一線 제15연대는 배속 제65연대 제3대대가 △292를, 연대 제1대대가 新炭里 南쪽의 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2, 제3兩대대로써 天德山(△477)공격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2대대가 △487로부터 西쪽으로 天德山의 敵을 공격하고 主攻인 제3대대는 06.30에 일단 俗稱 갈마골 南쪽으로 轉進하여 준비를 갖춘 다음 天德山 南麓으로 공격하여 16.00에는 山頂 100m거리까지 진출하였으나 견고하게 構築된 참호에서 저항하는 敵과 接戰을 되풀이 할 뿐, 高地를 탈취하지 못하였다. 또 제65연대는 제1, 제2대대가 각각 △362 및 △271일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觀雨里의 Philippines대대가 연대 제3대대와 교대하여 공격일선에 참가케 되어 午後에 △272일대로 집결함에 따라 제2대대의 1개 중대가 △395 東쪽 2Km인 △284의

Philippines대대 1개 중대와 11.00에 교대한 다음 目標線上의 中佳山 西南쪽일대까지 진출키도 하였다.

2. 제1기갑사단은 공격을 시작하자 마자 雨注하는 敵의 포격과 寸土도 물러나지 않을 듯이 버티는 敵의 저항으로 부진한 진격상을 보였다.

右一線인 제7기갑연대는 右제1선인 제3대대가 목표 Craig의 南端으로 西進하여 左제1선이 되고, 제2대대가 馬巨里 北쪽으로부터 Greece대대 右側으로 北進하여 右제1선이 되었는데, 제2대대는 △337 北西麓의 Greece대대와 병행하여 △418—△313일대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午前에 △418를, Greece대대는 13.00에 △313를 각각 탈취하였으나 뒤이은 敵의 역습으로 死傷者가 續出하게 됨으로써 일단 高地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대대는 12.00에 다시 반격하여 高地를 탈환하였는데 14.15에 또 물러나서 南쪽 △306일대에 진지를 확보하였으며, 14.30에 백병전끝에 철수한 Greece대대는 그 左側에 진지를 확보하여 夜間에 대비하였다.

左一線인 제5기갑연대는 더욱 집요한 敵의 저항에 부딪쳤다. 전날밤 子正 가까이되어 臨津江 沿岸으로부터 馬巨里일대로 전진한 제2대대가 右제1선, 역시 전날 밤 늦게 新浦洞 北쪽으로 전진한 제1대대가 中央제1선, 그리고 赤巨里일대의 제3대대가 左제1선이 되어 목표 Courson 東南쪽의 △346를 중심한 △272—△222일대로 공격을 병행하였는데, 敵은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고 野砲 및 박격포 사격을 加하다가 군단 지원포격의 射程이 延伸되면 곧 高地 背斜面의 진지로부터 뛰어나와 前斜面의 진지로 옮겨 사격을 集注하고 수류탄을 퍼부었다. 따라서 연대는 몇차례 高地를 뺏고 뺏기는 白兵戰을 거듭한 끝에 △222만을 탈취하였을 뿐이다.

한편 Carroll Macfalls, Jr.소령 指揮下의 Mac TF(제70戰車대대 본부 및 B중대 1개소대, 제16수색중대, 제8기갑연대의 공병 1개소대, 교사포소대)는 臨津江 東岸을 따라 제5기갑연대의 左側方을 엄호하면서 敵의 朔寧쪽으로의 탈출을 차단하는 임무를 띄었는데 역시 敵의 맹렬한 야포 및 박격포사격과 稠密한 지뢰지대에 부딪쳐 中沙里부근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날 집요한 저항으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敵은 中共 제139사단으로써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충분한 탄약과 보급품을 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뒤에 판명되었으며, 특히 戰爭中 처음으로 中共 제2포병사단이 투입되어 대담하게 對砲兵戰까지 감행하면서 이날 하루동안에 15,000발의 포탄을 퍼부은 기갑사단의 포병과 맞서려 한 바 있다. 물론 敵 포병은 그 위치가 노출됨에 따라 군단 포병과 공군 戰爆機의 목표가 되었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이날 英 제28여단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목표 Moore와 Foster의 一角을 점령하였다.

즉 馬智里 西北쪽의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RAR대대는 臨津江을 건너 午後에는 Moore

의 南端인 △199—高棧下里 새말일대에 진출하였는데 19.00에는 夜間에 대비하여 △199—中高棧일대의 진지를 확보하였으며, 斗日里일대로부터 전진한 KOSB대대는 도중에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목표 高旺山(△355)東麓까지 진출하여 13.00에는 敵의 반격을 격퇴한 다음 19.00에 그 南쪽 1Km의 上高旺山일대에 진지를 확보하였다. 또 △183—栢石里일대의 KSLI대대는 戰車隊와 협동으로 道路를 따라 鵲洞里 새말을 거쳐 목표 Foster의 東端인 釜谷일대에 진출하여 저항하는 數未詳의 敵을 공격하다가 夜間에 대비코자 19.00에 東쪽 鵲洞里 새말에 이르는 일대의 진지를 확보하였다.

4. 韓 제1사단은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제15연대로써 목표를 점령하니, 이날 17.30에 제1대대가 板浮里 西쪽의 목표 Moon을 接敵없이 점령하였다.

5. 그리고 군단 右隣接인 제9군단의 제25사단은 中央一線인 제14연대의 제2대대가 08.30에 Jamestown線의 東端인 亭淵里 北쪽 △430를 接敵없이 점령하고, 左一線 Turkey여단의 제1, 제3 兩대대가 일부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목표선을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제2대대는 10.00에 二吉里 △372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10월 4일 : 군단은 공격 제2일인 이날로 이미 左翼이 목표선을 확보하고 右翼도 일부는 목표에 진출하는 등 제1기갑사단 正面을 제외하고는 敵의 별로 큰 저항없이 계속 전진하였다.

1. 右翼 제3사단은 이날로서 군단 境界線上의 中佳山일대로부터 목표 Watts까지를 확보하여 목표 Butler만을 남기고 있었다.

즉, 제65연대는 제1대대가 四要里—△362일대의 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2대대가 전날에 이어 中佳山 南쪽, 中江里 南쪽의 道路 및 鐵路의 東西, △284일대에 일부를 躍出케 하여 Jamestown線上 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philippines대대는 夜月山 北쪽 △292의 연대 제3대대와 交代하기 위하여 15.00에 鶴 貯水池 北岸의 集結地로부터 機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표 Watts를 殆半이나 점령한 제7연대는 이날 제1대대가 중대규모의 敵을 剔抉하고 中於城 北쪽의 △281를 탈취한 다음 그곳에 四周警戒陣地를 設定함으로써 목표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395의 제2대대는 1개중대를 1Km 西쪽으로 진출케 하여 08.30에 중대는 그곳에서 數未詳의 敵을 격파하였고, △266의 제3대대는 보병 및 戰車각 1개중대로 驛谷川 東岸의 中於城 西南쪽 도로를 18.00까지 遮斷하였다.

그런데 목표 Butler를 攻擊中인 제15연대는 아직 天德山을 확보하지 못하여 新炭里의 제1대대 主力을 前線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격력을 증강하였다. 즉, 제2대대가 夜月山—△487 일대의 진지를 接敵없이 확보하는 가운데, 전날에 이어 제3대대는 09.00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가벼운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10.30에 天德山(△477)頂上까지 진출한 다음 200명으로 推算되는 敵의 반격을 격퇴하였다. 대대는 12.30부터 數未詳인 敵의 반격으로 3시간에 걸친 격전을 벌인 끝에 500m를 물러서서 그 곳에서 夜間에 대비한 진지를 편

성하였는데, 이때 제1대대는 夜月山 南麓에 진지를 점령하고 다음날 공격에 참가할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2. 中央右翼 제1기갑사단은 계속되는 敵의 집요한 저항으로 이날도 공격이 별로 전전되지 않았다.

제7기갑연대는 제8기갑연대 제1대대를 배속받아 공격을 계속하였다. 연대의 제2대대는 06.00에 공격을 再開하여 航空支援에 뒤 이어 12.00까지는 △418 頂上 100m 以內로 진출하였으며, 전날 오후에 선창말 北쪽으로 진출한 제8기갑연대 제1대대가 뒤 이어 增援하였으나 敵은 조금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그 左側의 Greece대대는 10.20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14.45에 △313 東쪽으로 진출하였는데, △347 東南麓을 공격한 제3대대와 △287를 공격한 제1대대는 모두 敵의 집요한 저항으로 격전을 거듭할 뿐이었다.

또한 제5기갑연대도 전날에 이어 제2대대가 △272를, 제1대대가 △346일대를, 그리고 제3대대가 그 西南쪽 △230부근을 공격하였으나, 계속되는 敵의 저항으로 저녁에는 다시 전날의 진지부근에서 머물어야 했다. Mac TF도 敵의 포격과 地雷源에 부딪쳐 계속 전날의 진지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金谷의 Thailand대대는 14.25에 主陣地부근의 齊宮洞 南쪽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날도 高地를 뺏기지 않으려고 人命을 아끼지 않는 저항과 반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의 각 중대마다 10~12정의 기관총과 많은 수류탄을 사용함으로써 사단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敵도 2일동안의 거듭된 전투로 兵力의 消耗가 커, 이 以上의 저항이 어려운 형편으로 그 제139사단에 대신하여 제140사단이 교대코자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이날로써 목표 Moore의 점령만을 남기게 되었다.

즉, 각 여단이 모두 공격에 나섬으로써 右一線이 된 英 제28여단은 RAR대대가 △199일대의 진지를 확보하고, 배속된 RNF대대가 午前에 高旺山 東北麓에서 일부의 敵을 격퇴하고 19.30에 中高棧일대까지 진출함으로써 목표 Moore의 南端一角을 차지하는 한편, KOSB대대는 高旺山(△355)山頂을 포함한 일대를 확보하였으며 KSLI대대는 그 西쪽에서 數未詳의 敵을 격퇴시키고 △227일대를 탈취하였다.

中央一線인 Canada 제25여단은 R22eR대대가 江西里일대의 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2개대대로써 공격을 계속하여 PPCLI대대는 釜谷 西쪽 高地일대를, RCR대대는 △187일대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英 제29여단의 RUR대대는 19.30에 △187 西南의 靑廷里 西쪽 일대에 집결하니, 사단은 이제 목표 Foster를 掌中에 넣게 되었다.

4. 이미 목표선을 확보한 韓 제1사단은 일부 수색대가 분대규모의 敵을 격파하였을 뿐이었다.

5. 제25사단은 일부로써 Jamestown線에 진출하여 이를 확보함으로써 이번 작전에 대한 지원을 完遂하였다.

즉, 제14연대는 제2대대로써 계속 △430에 진지를 設定하고, Turkey여단은 일부로서 二吉里 △372일대를, A중대로써 中佳山 南쪽일대를 확보한 가운데 目標線上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10월 5일 : 이날부터 제1기갑사단 正面의 집요하던 敵 防禦陣도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의 각 사단은 계속 별다른 阻害없이 공격을 진행하였다.

1. 제3사단은 左一線 攻擊梯隊가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부의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제65연대는 Philippines대대와 交代한 제3대대가 이날 10.00附로 原隊復歸하여 14.00에 鶴 貯水池 西北일대에 집결함에 따라 제1대대를 前線으로 추진하여 제2대대에 이어 左側으로 楡井里 南쪽一△284일대의 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제7연대는 계속 Watts일대를 확보하는 한편 배속된 Philippines대대로써 夜月山 △292로부터 목표 Butler의 일부인 道密里 北東일대 高地에 진출하였다.

한편 天德山일대에서 진출이 遲滯되었던 제15연대는 전날 새로이 공격대열에 참가한 제1대대가 10.2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전날과는 달리 가벼운 敵의 저항을 격퇴하고 11.40에는 山頂을 확보하였으며 午後에는 西南麓에서 제8기갑연대 제1대대의 일부와 連繫하였다.

2. 제1기갑사단의 공격은 이날 일부의 진전이 있었다.

즉, 전날에 이어 제8기갑연대 제1대대는 △418공격을 계속하여 07.30에 예상보다 수월하게 高地를 탈취하였는데, 高地의 敵은 계속되는 전투에 거의 전멸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대대는 午前中 일대의 敵을 剔抉한 다음 天德山을 공격하는 제3사단 제15연대를 지원하였다. 다음 제7기갑연대 제2대대는 Greece대대와 협동으로 △313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5기갑연대는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수색대가 일부의 敵을 격퇴하였을 뿐이며



<焦土化된 高地를 占領한 제1기갑사단 제7기갑연대 장병>

Mac TF는 계속 臨津江 東岸에서 敵의 退路遮斷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공격 3일째인 이날, 목표 Moore도 마저 확보하였다.

英 제28여단의 RAR대대는 05.45에 공격을 시작하여 10.00부터 數未詳의 敵과 백병전을 벌인 끝에 17.00에 이르러 馬粮山(△317)을 탈취하였는데 高地上에는 25具의 敵屍가 방치되어 있었다. 배속 RNF대대는 馬粮山 西南의 △217를 공격하였는데 17.05부터 시작된 敵의 반격으로 18.30에는 高棧上里 北쪽인 高地 南쪽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Canada 제25여단은 계속 목표 Foster를 확보하는 한편 江西里일대의 R22eR대대를 石墻里 西쪽으로 집결케 하고, 英 제29여단은 靑廷里 西側의 RUR대대로 하여금 작은 斗日 北쪽의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4. 韓 제1사단은 이날도 계속 Jamestown線을 확보하면서 제15연대의 步戰協同수색대가 △169와 △207일대에서 각각 소대 및 중대규모의 敵과 부딪쳤을 뿐이었다.

5. 제25사단은 제14연대의 일부 및 Turkey여단이 接敵없는 가운데 Jamestown線上 진지를 유지하였다.

10월 6일 : 공격 4일째인 이날, 군단 左右翼은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1.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제15연대의 제2대대가 △487일대로부터 전진하여 道密里 北쪽 △324를 점령하여 東側의 Philippines대대와 함께 Butler를 확보함으로써 2개의 사단목표를 모두 手中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天德山의 제1대대는 진지를 西쪽으로 擴大하여 제8기갑연대 제2대대의 西進으로 생긴 間隙을 메꾸었다.

2. 제1기갑사단(장, Thomas L. Harrold소장)은 이날도 목표공격을 계속하였다.

전날 △418 東側으로 躍出한 제8기갑연대 제2대대는 3Km를 西進하여 소대규모의 敵을 격퇴한 다음 △334를 점령하니, 이로써 사단은 목표 Craig를 확보하였다.

한편 그 西南쪽에서 △287를 공격한 제7기갑연대 제1대대는 각종 砲火를 집중한 끝에 17.45에 高地를 탈취하였으며, 제5기갑연대 제1대대의 수색대는 赤巨里 北쪽 △346—△250일대로 진출하였으나 대대규모인 敵의 공격으로 20.00에는 主陣地로 물러났다.

그런데 포로진술에 따르면 敵은 첫공격으로 이미 潰滅되다시피 하였고, 이날까지는 北西 5~7Km의 새로이 구축된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3. 英 제1연방사단(장, A.J.H. Cassels, C.B., C.B.E., D.S.O.소장)은 RNF대대가 △217를 탈취함으로써 모든 목표를 점령한 다음 右一線인 英 제28여단과 左一線의 Canada 제25여단, 그리고 斗日里一箭洞里일대의 英 제29여단으로써 主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英 제28여단은 RNF대대가 15.30에 △217를 탈취하여 목표 Moore를 확보하고, 그 東쪽에서 RAR대대가 馬粮山의 진지를 점령한 가운데 KOSB대대가 高旺山일대, KSLI대대가 △277일대의 진지를 확보하였으며, Canada 제25여단은 목표 Foster일대를 右제1선인 PPCLI대대와 中央 제1선인 RCR대대 그리고 左제1선 R22eR대대로써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馬粮山一△217일대는 계속되는 敵의 반격으로 高地를 圍繞한 쟁탈전이 되풀이 되기 시작하였다.

4. 韓 제1사단(장, 朴林恒준장)은 변함없이 主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15연대의 일부가 午前中에 水輪里—沙是里일대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격퇴한 바 있다.

또 배속 제5海兵대대는 계속 金浦半島를 경계하면서 漢江 北岸을 수색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5. 군단 右隣接인 제25사단(장, Ira Swift소장)의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0월 7일 : 이날로서 공격 5일째를 맞는 군단은 제1기갑사단을 제외한 각 사단이 모두 Jamestown線을 확보한 가운데 일부 敵의 반격으로 약간의 接戰을 치를 뿐이었다.

1. 전날 모든 목표를 점령한 제3사단은 右一線 제65연대로써 제3대대의 鶴 貯水池 北岸 및 主力의 中桂山—△284線上 진지를 확보하고, 中央一線 제7연대로써 △395—△281 및 夜月山 北쪽 △292—△324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左一線 제15연대로써는 △324—天德山 西北일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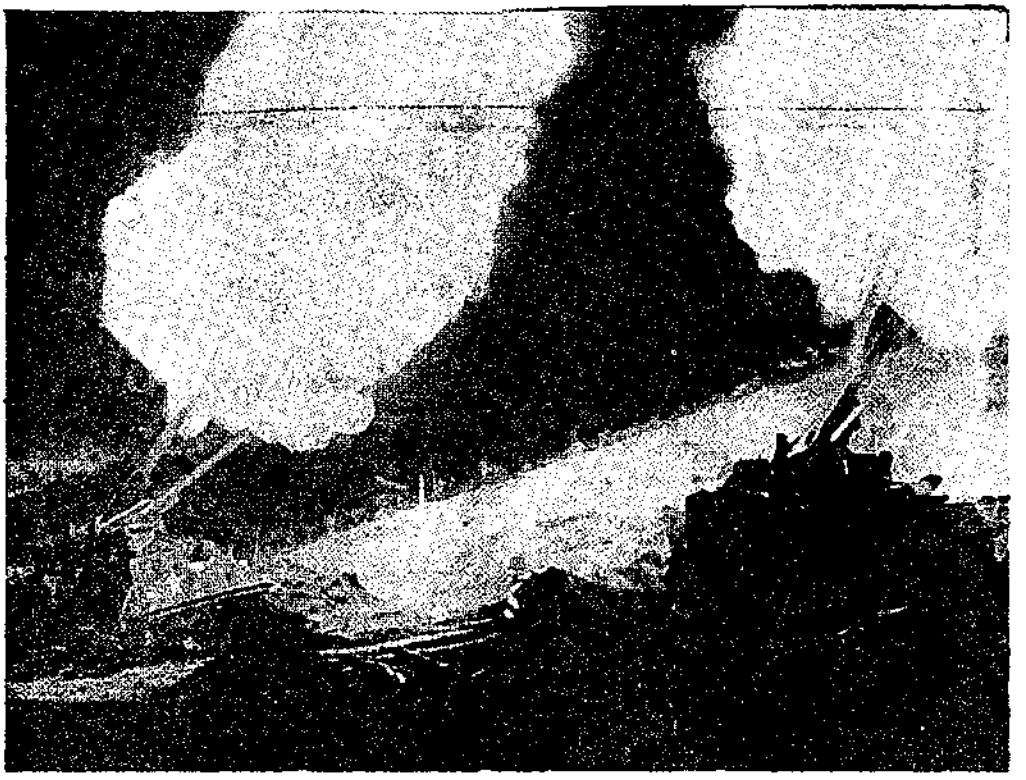
2. 제1기갑사단은 이날 北東部의 목표는 완전히 장악하였으나, 西南部의 목표 Courson에 대한 공격은 依然 별 진전이 없었다.

제7기갑연대는 제2대대를 △287 南쪽으로, Greece대대를 그 北麓으로 진출시켜 △287 西쪽으로 진출한 제1대대와 아울러 高地를 挾攻한 끝에 이를 手中에 넣었고, 제3대대는 △347를 공격하여 14.35에 敵의 저항을 격퇴하고 이를 탈취함으로써 목표 Craig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 △347의 점령은 기갑사단이 사단 戰區內 北東部分의 高地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意味하나 제5기갑연대 正面 △346일대의 敵에게는 即效가 없었다. 敵은 포격 및 폭격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견고한 Bunker와 교통호를 構築하고 人命을 아끼지 않는 頑固한 방어 태세로 나왔기 때문에 사단은 많은 손실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끝에 목표를 점령하면 뒤 이은 敵의 역습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날도 △346—△250일대를 공격하던 제5기갑연대 제1대대는 집요한 敵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끝내 주저항선으로 물러서고 말았으며 제3대대가 △230를 일단 탈취하였을 뿐이었다.

한편 제8기갑연대는 이날 Thailand대대를 배속받아 이로 하여금 연대 제2대대와 교대하여 △334의 진지를 점령케 하였으며, 군단 指揮下에 汶山일대에서 경계임무를 遂行中 10.30附로 原隊復歸한 제3대대는 新浦洞北쪽 1.5Km일대의 高地에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이날 10.00에 지휘소를 三和里로 추진하고 午後에는 RNR대대를 15.00附로 배속받았는데, 탈취한 목표의 일부에서는 계속되는 敵의 반격으로 激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군단 155mm自走砲의 夜間砲擊>

즉, RAR대대는 △317에서 거듭되는 敵의 반격을 격퇴하느라 奮鬪中이었으니, 敵의 △317에 대한 반격은 이날 3회나 되풀이 되었다. 또 그 西쪽 △217일대에는 每分 20~30發에 달하는 敵의 포격이 加하여져, 하루동안에 사단 지역에 떨어진 敵의 포탄이 2,300發에 달하는 것으로 推算되었다.

4. 한편 左翼 韓 제1사단은 이날도 제12, 제15 兩연대의 수색대가 前方搜索을 감행하다가 각각 소대~분대규모의 敵과 부딪쳤을 뿐이었다.

10월 8일 : 이미 제1기갑사단의 일부를 제외하고 작전은 실질적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각 사단은 일부의 가벼운 接敵狀況이 있었을 뿐이다.

1. 제3사단은 계속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수색하였으나 接敵은 가벼웠다.

제65, 제7 兩연대는 진지의 변동도 없었고, 제15연대는 제2대대를 高臺山 東麓에 殘留시키고 배속 Belgium대대를 鵝 貯水池 西北 △362 南쪽일대로 추진하였다.

2. 제1기갑사단은 목표 Courson공격을 위하여 일부 戰列의 재정비를 단행하였다.

즉, △346 東側의 제5기갑연대 主力을 馬巨里—將軍里線의 陣地로 물러서게 하고 전날 原隊復歸한 제8기갑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이 일대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케 한 것이다. 이제 제5기갑연대는 제3대대만이 △230일대에서 雨注하는 砲火속에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제8기갑연대는 목표 Craig의 北面, 즉 葛峴里 南쪽 △418—△347일대에 東쪽으로부터 제1, Thailand, 제2대대가 진지를 확보하고, 제7기갑연대는 그 西側 德隱洞 부근의 Jamestown線上에 Greece, 제1 兩대대가 진지를 점령한 가운데 제2대대는 13.40에 제8기갑연대 제3대대의 北쪽 1Km일대로 진출하여 數未詳의 敵과 격전을 벌였다. 또 제7기갑연대의 제3대대는 18.00에 선창말 西南 2Km인 △227일대의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변함없이 主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接敵報告도 없었다.

사단안의 변동은 英 제29여단에 새로이 예속된 RNR대대가 12.00에 馬粮山일대로 진출한 것 뿐이었다.

4. 韓 제1사단은 주진지를 확보하면서 搜索中 일부의 가벼운 接敵狀況이 있을 뿐이었다.

즉, 제12연대 제3대대의 일부와 제15연대 수색대가 前方搜索을 감행하였던 바 제15연대의 수색대만이 水輪里 △190부근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부딪쳐 10分間 交戰하였다.

10월 9일 : 이날로서 군단의 Commando작전은 終結되었다. 아직 제1기갑사단의 목표 Courson은 점령하지 못하였으나 그 밖의 모든 목표가 확보된 만큼, 同 사단의 공격은 지속되면서 일단 작전을 마무리짓게 된 것이다.

1. 右翼 제3사단은 接敵報告없는 가운데 일부의 진지이동을 단행하였다.

즉, △284의 제65연대 제1대대를 12.00附로 제7연대에 배속하고, △266의 제7연대 제3대대가 △395로 진출하여 연대 제2대대와 교대하는 한편, 제2대대는 上土洞부근으로 옮겨 진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右一線 제65연대, 中央一線 제7연대, 左一線 제15연대로써 Jamestown線上의 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

2. 제1기갑사단의 계속된 목표 Courson공격은 이날도 별 진전이 없었다.

제8기갑연대 제1대대는 △418부근 진지를 확보하면서 수색하였으나 接敵狀況이 없었고, Thailand대대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제2대대는 07.30에 △334로 공격한 중대규모의 敵을 포격으로 격퇴하였는데 敵은 그 뒤에도 산발적인 사격을 계속하였다.

그 밖의 각 연대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으나, 다만 △346일대에서 제8기갑연대 제3대대의 공격이 거듭되었다.

대대는 진지를 확보하면서 일부로써 △346를 우회하여 그 北쪽 1Km의 稜線을 공격하여 12.00에는 가벼운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를 탈취하였는데, 15.50에 이르자 敵의 銃砲火가 이곳으로 集注한 까닭으로 결국 다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3. 英 제1연방사단은 계속 Jamestown線上 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前方搜索을 감행하였으나 이날중 接敵報告는 없었다.

4. 韓 제1사단은 이날 제11, 제15 兩연대의 각 일부가 主陣地前方으로 躍出하여 敵과 격전을 벌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는 戰車와 協同하여 09.00에 非智山과 △207의 東北쪽 1Km일대로 진출하였는데 이곳에서 2개 소대의 敵과 교전끝에 11.20에 이를 격파한 다음 14.00에는 △207일대로 진출하였다가 그 곳에서 대대규모인 敵의 사격으로 17.40에 主陣地로 복귀하였다. 또 제11연대의 수색대는 大德山일대로 진출하여 數未詳의 敵과 부딪쳤으나 11.20에 戰鬪를 그만두고 500m 東쪽으로 물러났던 바 여기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敵과 부딪쳐 16.40에는 진지로 복귀하였다.

이제 군단 전반의 목표는 일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346를 중심한 △272—△230일대에서는 많은 손실을 무릅쓰고 목표탈취를 위한 격전을 계속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군단의 작전이 終結된 뒤에도 제1기갑사단은 목표 Courson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포병사단까지 동원하여 기갑사단 정면에 집중적으로 대항하던 敵도 그칠 줄 모르는 강한 打擊에 兵員의 不足과 탄약의 고갈이라는 限界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2일 밤에 敵은 △272로부터 물러나, 제8기갑연대가 다음 날 전투를 치르지 않고 이를 점령하니, 이로써 사단은 △346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10월 15일에는 Polecharge계획이 發効되어, 제5기갑연대는 Belgium대대를 증원받아 △346를 점령하고 Jamestown線으로 돌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제8기갑연대는 이를 지원하도록 되었다. 16, 17 兩日間에 제8기갑연대는 △346 東北쪽으로 약간의 전진을 하였으나 역시 목표는 탈취하지 못한 채 계속 공격하다가, 18일에 이르러 제5기갑연대 제1대대가 敵이 퇴각하고 없는 고지를 점령 하였고 연대 제3대대도 △230를 탈취하니 이로써 사단도 Jamestown線의 最終목표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군단이 Jamestown線을 확보하자 右隣接 제9군단도 뒤 이어 Nomad—Polar線으로 진격하여 계속 敵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런데 Commando작전에 대한 敵의 반응은 특히 제1기갑사단 정면에서 민감하게 나타났으니, 이는 그들의 보급기지인 朔寧의 확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거니와 실제 敵은 人命과 탄약의 소모에 구애받지 않고 결사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사단도 예상 이상의 손실을 보고 敵이 물러난 다음에야 목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0월 3일에서 19일에 이르는 사이에 군단이 거둔 전과는 포로 500명을 포함하여 총 2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제1기갑사단이 中共 제47군을 強打하여 그 병력을 半減시켜 얻은 死傷 16,000명의 戰果가 포함되었다. 반면 군단의 손실은 제1기갑사단의 戰死傷者 2,900名을 포함하여 4,000名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換言하면 敵은 Jamestown線, 특히 기갑사단 정면의 목표 Courson을 내놓지 않으려고 死力을 다 하였고 군단은 豫期以外의 거듭된 血鬪끝에 목표를 확보하였다고 하겠다.

여하튼 군단은 Jamestown線을 점령함으로써 보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차지 하였고 再開된 休戰會談에서도 군사분계선의 확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듯 하다.

그러나 그 뒤에도 敵은 제1기갑사단 및 英 제1연방사단 정면 등에 공격을 되풀이 하여 1개 高地의 주인이 數回나 바뀌는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다음 해 봄까지는 커다란 接戰은 없었다.

한편 군단은 月末에 韓 제9사단을 다시 배속받았으며, 12월에는 제1기갑사단이 점차적으로 철수하고 대신 제45사단이 군단에 배속되었다.

8. 美 제9군단의 金城附近 戰鬪 (1951년 10월 13일부터 1951년 10월 20일까지)

(一名 : Nomad—Polar線 進擊戰)

참조 : 별책부도 제1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敵軍	
美 제9군단 장 중장	William M. Hoge	배속 부대	
제24사단 장		Colombia대대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중령	Jaime Polania Puyo
제5연대 장		인접 부대	
대령	John L. Throckmorton	右인접 韓 제6사단 장 준장	張都暎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左인접 韓 제2사단 장 준장	咸炳善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中共 제67군 장	馬 襲	제200사단 장	李 靜 (韓 제2사단 정면)
제119사단 장	李水清 (韓 제6사단 정면)	제201사단 장	馬 輝 (金城附近, 豫備)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작전은 군단이 右翼인 韓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과 中央右翼인 美 제24사단 및 中央左翼인 韓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의 3개 사단으로써 Nomad—Polar線을 目標로 進擊한 것을 主眼으로한 것이다. 그런데 韓 제2, 제6사단의 전투상황은 각각 節을 달리하여 記述된 만큼 여기에서는 주로 제24사단의 상황을 다루게 되었다. (韓 제2, 6사단의 金化—金城 進擊戰 및 金城川附近 戰鬪 참조).

이 작전 以前의 주요 사항을 보면, 군단은 9월 21일 하루 동안에 Byorun TF(美 제21연대 제2대대 제6전차대대의 主力, 제5연대 전차중대와 공병소대 및 고사포대로 구성된 步戰協同部隊)에 依한 Cleaver작전으로 金化—金城과 金化—平康路일대의 敵 前進據點을 격파하고 射殺 1,000餘名의 전과를 거둔 바 있다. 그리고 10월 初에는 左翼인 제25사단(장, Ira P. Swift소장)이 左隣接 美 제1군단와

Commando작전을 지원하여 金化—鐵原의 漢灘江 南岸 陣地로부터 亭淵里(平康)—△438—△358線으로 前進하였다.

이때 제24사단은 군단예비로 華川貯水池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다가 10월 3일 14.00에 사령부를 新浦里(華川 西南 8Km)에서 巴浦里(華川 西北 7Km)로 推進한 다음, 10월 5일~7일에 군단의 中央右翼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과 陣地를 교대함으로써 戰線에 참가케 되었다. 그리하여 제21연대(—)는 △895부근에 제1대대로써 主陣地를 점령하고 배속된 Colombia대대와 제3대대로써 黑雲吐嶺부근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는 아직 Byorun TF의 一員으로 齊宮洞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19연대는 제2, 제3 兩대대로써 注坡嶺—長古峯線에 주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제1대대로서는 後洞里 南쪽에 전진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는 제1, 제3 兩대대로써 赤根山 부근에 주진지를, 제2대대로써 제19연대 제1대대 西側에 連繫하여 전진진지를 각각 점령하였다.

이때 당면의 敵情은 中共 제67군이 9월 10일 전후로 그 제27군 전선을 인수하여, 隷下 제119사단을 白岩山 北쪽에, 제200사단을 赤根山 北쪽에 전개하고, 제201사단을 金城부근에 예비로 控置함으로써 戰線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8군은 휴전회담을 계기로 증강된 敵勢의 驅逐과 아울러 현 전선을 5~12Km 北上키 위하여 8월上旬에 진격계획을 세웠으나 보류된 바 있고, 군단은 9월上旬에 Cleaver 작전으로 敵의 前進據點을 분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0월 9일 제8군사령관의 戰線巡訪時 군단장 Hoge중장이 下文廷里의 군단사령부에서 군사령관 Van Fleet대장에게, 美 제1군단의 Commando작전에 策應하여 제9군단도 北進을 단행할 것을 건의하니 이때의 군단장의 복안은 대개 이러하다.

『左翼인 제25사단 정면을 제외한 北漢江 西岸과 南大川 東岸의 군단전선을 金城川 河口線으로 4~5Km추진, 同線에서 전선을 整齊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 南大川 東岸으로 전선을 추진함으로써 군단정면에 있는 敵의 제1요충인 五聖山의 東側背를 威脅함과 동시에 장차 작전에 유리한 터전을 확보한다.

둘째 : 金城 以南의 金城川下流와 南大川 上流일대를 장악함으로써 金城의 無力化를 도모한다.

이 계획이 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자 군단장은 10월 10일 15.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군단 작전명령 제50호를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현접촉선(白岩山—赤根山—金化)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Nomad線을 점령하려 한다.

② 韓 제6, 제24, 韓 제2사단은 10월 13일 06.00를 期하여 당면의 敵을 격멸하고 Nomad

線을 점령하라.

③ Nomad線은 金城川 河口—汝文里—竹洞—楓洞里—下所里를 연하는 線이다.』

이와 아울러 군단은 10월 12일 19.00附로 각 사단의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종래 東北쪽으로 향하던 進路를 正北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21연대를 右一線으로써 廣大谷—다리동間 金城川支流의 南岸을 剔抉케 하고, 中央一線인 제19연대와 左一線인 제5연대를 前線에 並列하여 제19연대는 金城川 西岸을 따라 목표 △401—△434線으로, 제5연대는 목표 後洞—月峯山線으로 진격케 하였다. 그리고 Cleaver작전의 발동과 함께 편성되었던 Byorun TF가 解體됨에 따라 그 一員이었던 제21연대 제2대대를 제5연대에 배속하였다.

(2) 작전실시

10월 13일 : 사단은 左右隣接인 韓 제2, 제6사단과 함께 Nomad線으로의 진격을 시작하였다.

1. 右一線인 제21연대 제2대대를 제외한 제1, 제3대대와 배속중인 Colombia대대로써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이날중으로 金城川 南岸을 모두 장악하였다.

먼저 제1대대는 전날밤에 白岩山 西南쪽 4.5Km의 △895부근 진지로부터 Colombia대대가 확보하고 있는 黑雲吐嶺(△851)으로 全主力을 추진하여 밤새 공격준비를 마친 다음, 이날 05.00에 右接境線上의 內城洞里부근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482—△569線을 확보하였다. 다음 제3대대도 역시 전날밤에 白岩山 西쪽 진지로부터 黑雲吐嶺으로 전진하여 준비를 마치고 05.2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東北쪽 능선을 따라 500m를 전진하자 標高 600m의 無名高地에서 敵과 부딪쳐 1시간 가까이 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手中에 넣고 계속 진격하여 △625(黑雲吐嶺 東北쪽 1.7Km)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Colombia대대는 05.30에 黑雲吐嶺진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北쪽 稜線을 따라 1Km를 약진한 끝에 08.45에 無名高地(標高 700m정도)에서 덤비는 敵을 격파하고 16.15까지 △570(△625 西北 1.2Km)를 점령한 다음 同고지에 야간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2. 中央一線인 제19연대는 전날밤에 제2, 제3 兩대대를 공격개시선으로 추진하였는데, 제3대대는 △475(추동 北쪽)에서 공격을 준비케 하고 제2대대는 추동 南쪽 1Km의 注坡嶺—추동 道路邊에 집결토록하여 예비로 控置한 다음, 제3대대를 공격제1선으로 삼아 橋洞 부근 진지를 占有中인 제1대대의 화력지원아래 後洞里—△425로 진격케 하였다.

즉, 전날밤 20.45에 △475부근으로 진출한 제3대대는 이날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06.00에 後洞里로 躍出하고 07.00에는 그 北쪽 無名高地(標高 450m정도)에서 數未詳인 일단의 敵과 격돌하였는데 15.00에 이르러 이를 격파하고 전진을 계속한 끝에 목표 △425를 점령한 다음 20.30에 진지를 再編하였다. 제1대대는 제3대대가 後洞里를 점령하고 △425

로 진격하자, 뒤이어 後洞里에 진출한 다음, 오후에 제3대대의 右側으로 전개하여 金城川 左岸의 목표 △406를 점령하였다. 이때 전날밤 23.00에 추동 南쪽에 집결한 제2대대는 공격준비를 갖추고 前線 兩대대의 전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

3. 한편 左一線 제5연대는 제3대대로써 계속 赤根山 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1, 제3 兩대대와 제21연대 제2대대로써 Nomad線上의 月峯山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右제1선인 제2대대는 04.45에 추동 西쪽의 공격개시선을 躍出하여 北쪽 稜線을 따라 전진하였는데 06.55부터는 敵의 저항에 부딪쳤으나 이를 누르고 계속 전진하였다.

대대는 11.00에 無名高地(標高 700m)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격멸하고 목표인 △602로 진격하여 이를 掌中에 넣었다. 17.00에는 한차례 敵의 역습이 있었으나 30분만에 이를 격퇴한 다음 同 高地에서 야간방어태세에 들어 갔다. 제1대대는 赤根山 南쪽 長古峯—大谷里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연대 左제1선을 담당케 됨에 따라 전날밤 22.50에 鳳堂德里로 진출하였다가 이날 04.45에 이곳으로부터 목표 △633—月峯山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08.00에 △518(△633 東南 1.3Km)로 전진한 대대는 執拗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09.30에 이를 점령한 다음 11.00에는 △633下麓으로 전진하여 高地의 중대규모인 敵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13.30에 이르자 敵은 2개 중대규모로 증강되었으나 대대는 이를 누르며 步一步 頂上으로 肉迫, 14.00부터는 頂上을 目睫之間에 두고 4시간에 걸쳐 一進一退를 반복하다가 18.00에 기어코 頂上을 奪取하였다. 또한 高飛木에서 鳳堂德里로 躍進한 배속 제21연대 제2대대는 09.50에 △518에 집결한 다음 예비가 되었다.

10월 14일 : 공격의 主力인 제19, 제5 兩연대가 전날의 목표선인 △406—△425—△602—△633線을 점령하고 제21연대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뿐만 아니라 右隣接인 韓 제6사단 역시 好調를 보여 金城川 南岸을 모두 장악하게 되므로, 사단은 右接境線上에 대한 後慮를 一掃하고 부대전개를 새로이 단행하여 右一線 제21연대를 左一線으로 추진함으로써 목표 Nomad線 공격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그 事前措置로서 사단은 우선 제21연대의 右제1선으로 內城洞里부근에 있는 진지를 점령중인 제1대대를 △633부근으로 집결하여 제5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였다.

1. 그리하여 제21연대는 黑雲吐嶺부근의 金城川 南岸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左一線으로 轉進할 준비를 하였다.

즉, △625의 제3대대는 01.35에 2개 중대규모인 敵의 공격을 격퇴하고 계속 △625의 진지를 확보하면서 金城川부근을 수색하고, 제1대대는 사단명령에 따라 이날 아침 內城洞里부근 진지를 출발하여 14.15에 豆聞洞(△633 北쪽 2Km)東南쪽에 집결과 동시에 제5연대에 배속되었다. 또 Colombia대대는 계속 △570 진지를 확보하면서 金城川부근을 수색하였는데, 10.10에 수색대가 새말부근에서 소대 규모의 敵과 부딪쳐 11.20에는 △570진지로 反轉하였으며 이에 앞서 01.00~01.30에 敵의 박격포탄 170발이 △570에 집중된 바 있다.

2. 제19연대는 이날부터 공격 右一線이 되어 金城川을 따라 진격하였다.

제3대대는 02.10에 △425 西쪽 高地에서 數未詳인 敵의 공격을 격퇴한 다음 05.30에 공격을 再開하여, 西에서 東으로 대대를 가로막고 흐르는 金城川 支流와 더불어 횡격실로 錯綜된 丘壑을 踏破하고 △522(△425 北쪽2Km)를 목표로 진격하여 14.40에 그곳의 敵과 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점령한 다음 日沒무렵까지는 진지를 再編하였다. 한편 전날 △406로 진출한 제1대대는 05.30에 공격을 시작하여 09.30에는 蘆洞里 南쪽의 金城川支流를 건너서 金城川 左岸의 敵을 剔抉하고 13.20에 △522 東南쪽 1Km의 無名高地 (標高 400m정도)를 점령함으로써 金城川 左岸을 장악케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2대대를 前線으로 추진하여 다음 날의 金城川 越便 △439에 대한 공격을 준비토록 하니, 13.00에 추동 南쪽을 떠난 대대는 18.40에 △406 東北쪽 金城川 西岸에 진출하여 대기케 되었다.

3. 이날 제5연대는 공격부대를 바꾸어 제1대대가 △633의 左肩部를 확보하는 가운데, 전날 예비대로 △518에 집결한 제21연대 제2대대를 새로이 공격1선으로 삼아 豆聞洞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602의 제2대대로써 그 東쪽에서 병행하여 △729—△547線으로 진격케 하였다. 그리고 14.00에 赤根山부근의 제3대대를 △633로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Nomad線上의 月峯山(△482)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602의 제2대대는 05.00에 北쪽 稜線을 따라 공격을 繼開하였는데, 10.30까지 800m를 전진하여 △602에서 △729와 △547로 나누어지는 稜線의 分岐點에 해당하는 無名高地(標高 800m정도)점령하였으나 15.00부터 시작된 敵의 執拗한 역습으로 17.30에는 △602로 反轉케 되었다. 한편 새로이 공격1선이 된 제21연대 제2대대는 이날 새벽에 △518를 출발하여 07.15에 △ 633있는 제1대대를 超越한 다음 一路 豆聞洞 北쪽의 △419를 목표로 躍進하였다. 대대는 08.10에 △471(△633 北쪽 1.2Km)에서 저항하는 중대 규모의 敵과 격전끝에 10.25까지 이를 격멸한 다음 진격을 계속하여 오후에 목표 △419를 점령하고 敵의 박격포 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지를 再編하였다.

그런데 이날 △633에는 05.00에 敵의 82mm, 60mm박격포탄 200여발이 집중되었는가 하면, 09.00에는 정찰기가 烽火山(月峯山 東北 3.5Km)부근에서 南向中인 敵 2,000餘名을 목격하였다고 보고됨으로써 敵이 이 정면에서 火力과 兵力을 증강하여 決死固守코자 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10월 15일 : 사단은 黑雲吐嶺부근의 右一線인 제21연대를 左一線 地域으로 모두 投入하여 공격전용의 정비를 마쳤다. 즉 이날 저녁 18.00에 제5연대의 左제1선인 제3대대가 Nomad線의 목표 月峯山을 점령하자 18.30을 기하여 同 대대를 제21연대에 배속함과 아울러 제5연대에 배속된 제21연대의 제1, 제2 兩대대를 原復措置함으로써 豆聞洞 以西지역을 제21연대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제5연대는 △602—△633線을 예비진지로 점령케 하는 한편 右一線이 된 제19연대에 金城川 南岸인 △434—△343로의 진격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제5연대로 △602—△633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제19, 제21 兩연대의 左右溢出을 企圖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 듯 하다. 즉, △602 정면의 제5연대 제2대대가 전날 그 北쪽 無名高地에서 격전을 벌인 결과 敵勢가 완강하고 △729일대의 敵 陣形이 險固하였는데, 敵이 金城川으로 背水陣을 삼고 決死固守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攻略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頑敵의 左右에서 兩翼包圍태세를 갖춤으로써 增援과 後退를 모두 차단하여 일거에 섬멸한다는 것이다.

1. 右一線이 된 제19연대는 제2, 제3 兩대대로써 金城川 兩岸을 따라 진격하였으니, △406 東北쪽 집결지에서 待機中이던 제2대대는 이날 右제1선으로 공격에 참가하여 Nomad線上의 △479를 목표로 細峴里 南쪽의 金城川을 건넌 다음 08.00에 △479 南쪽 1Km인 △439공격을 시작하여 15.30에 대대 규모의 敵을 격멸하고 이를 奪取한 결과 金城川 東岸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06.00에 공격을 再開한 제3대대는 西岸을 따라 △522에서 3개 중대로 併列하여 △371—△476—△629線을 목표로 진격한 다음 대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고 12.15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전날의 無名高地에서 제2대대의 金城川 徒涉을 엄호한 다음 그곳에서 계속 예비대로 남아 있었다.

2. 이날 中央一線인 제5연대는 일부병력으로 Nomad線에 진출하였다.

즉, 제2대대가 전날 공격한 바 있는 無名高地일대를 수색하면서 △602를 계속 확보한 가운데, 제3대대는 △633로부터 제1대대를 초월하여 06.25에 月峯山을 향한 진격을 시작하여 08.30에는 △462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격파한 다음 18.00에 月峯山에서 대대규모의 敵을 격멸하고 이를 점령함으로써 Nomad線에 진출한 것이다. 이에 대대는 사단명령에 따라 18.30附로 現地에서 제21연대에 배속되고, 제1대대는 계속 △633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3. 제21연대는 이날부터 左一線이 되었으니, 전날 오후에 豆聞洞 東南쪽에 집결한 제1대대와 △419를 확보하고 있는 제2대대가 함께 제5연대 배속으로부터 18.30附로 原隊復歸되고, 제3대대는 13.00에 黑雲吐嶺부근의 △625를 떠나 北亭嶺(榛峴里 西쪽 1.5Km)으로 集結中이었다. 다만 Colombia대대는 계속 △570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공군 전폭기가 金城川 東岸인 △479부근의 敵을 공격하였으며, 14.40에 地上觀測所는 月峯山 北쪽 3Km인 河古介부근에서 南向中인 500餘名의 敵을 포착하는 즉시로 포격을 유도한 결과 이를 撲滅케 하였다.

10월 16일 : 이날 오전에 제19, 제21연대가 Nomad線을 점령케 되고 군단 右翼인 韓 제6사단과 中央左翼인 韓 제2사단도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군단장 Hoge중장은 次期 단계로 11.50에 要旨 다음과 같은 Polar線공격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10월 17일 16.00를 期하여 공격을 再開하여 Polar線으로 진격하려 한다.

② 제24사단은 韓 제2, 제6사단과 협조하여 當面의 敵을 격멸하고 목표인 Polar線을 점

령하라.

목표를 점령하면 同 線上에 방어진지를 構築하고, 위력수색으로 接敵을 유지하라.

③ Polar線은 제10군단과의 接境線上인 金城川 河口에서 西北向하여 松洞里—鷄岩山 西쪽을 거쳐 烽火山에서 西南向하여 外野洞—下所里를 연결하는 線이다.』

아울러 군단은 11.55附로 사단과 中央 左翼인 韓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現 地境線上의 楓洞里에서 西北으로 直木洞까지 伸張하면서 現 地境線보다 2Km 西쪽으로 擴開하였다.

이에 사단장 Bryan소장은 제19, 제21 兩연대로 Polar線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제5연대로 △729부근의 敵을 격멸하는 한편 黑雲吐嶺부근의 Colombia대대를 뽑아 前線投入키로 하였다.

1. 제19연대는 이날 當面의 Nomad線을 점령한 다음 제2단계로 Polar線으로의 진격을 준비하였다.

연대 右 제1선인 △439의 제2대대는 이날 04.00부터 박격포사격을 앞세우고 공격을 시작한 일단의 敵을 05.15까지 격퇴한 다음, 그 餘勢를 몰아 06.00에 목표 △479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09.30에 대대규모인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를 점령하여 진지를 再編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蘆洞里 北쪽 無名高地로부터 △371—△476—△629線을 확보 中인 제3대대를 초월하여 06.00에 Nomad線上의 목표 △401—△434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07.25부터 △476 西南쪽 稜線에서 대대규모의 敵과 격전을 벌인 끝에 12.30에는 이를 격파하고 오후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 제1대대의 초월공격을 지원하다가 11.00부터 제1대대를 따라 진격하여 △434—△476間의 稜線을 점령함으로써 제1대대의 縱深을 강화하고 있었다.

2. 제5연대는 이날 제2, 제1 兩대대로써 △602—△633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부근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3. 제21연대는 Nomad線上의 月峯山을 넘어 역시 Polar線 공격을 준비하였다.

즉, 제2대대는 06.00에 △419의 진지에서 月峯山 東쪽의 △371로 진격하여 09.45대대 규모인 敵과 격돌한 끝에 午前中으로 이를 격파하였는데, 敵은 月峯里쪽으로 후퇴하였으며 대대는 다시 진격을 계속하여 14.50에 月峯山을 초월한 다음 그 西北쪽의 △398를 점령하고 18.00까지는 그곳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豆聞洞 南쪽 집결지에서 부근을 수색하고, 전날 黑吐雲嶺 北쪽의 △625를 떠난 제3대대는 이날 14.30에 北亭嶺 東北쪽에 집결하였으며, 역시 사단 右一線의 △570진지를 떠난 Colombia대대는 18.00에 竹洞南쪽 橋洞부근에 집결하였다. 또 배속 제5연대 제3대대는 月峯山진지에서 東北 3.2Km인 목표 △384를 향하여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18.00에는 南屯里부근에 진출하였다.

10월 17일 : 사단은 Polar線으로의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07.30附로 Colombia대대를 제21연대로부터 제19연대로 배속변경하였다.

1. 右一線 제19연대는 제2대대로써 金城川 東岸의 △479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西岸의 제1, 제3 兩대대로 연대 정면 Nomad線과 平行하는 金城川을 건너 공격케 하고, 배속된 Colombia대대도 前線으로 躍進토록 하였다.

따라서 제1대대는 05.00에 △434 西北 1.6Km인 金城川 北岸의 △366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는데, 08.45에는 △434 西쪽의 △343에서 대대규모인 敵과 격전을 벌였으나 14.00까지 이를 격퇴한 다음 餘勢를 몰아 단숨에 그 西北쪽으로 金城川을 건너 17.45에 목표를 奪取하였다. 대대의 진격을 지원한 제3대대는 確保中인 △371—△476—△629 가운데 △476에서 10.15과 14.40 두차례에 걸쳐 一個의 敵을 격퇴하였으며 제1대대가 金城川을 건너자 △401—△434線으로 달려가 이를 확보함으로써 金城川 南岸의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어 13.00에 躍進을 시작한 Colombia대대는 18.00에 竹洞 西南쪽 金城川 左岸에 진출하였다가 20.00에 다시 제3대대의 西南쪽에 連繫하여 △629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2. 中央一線 제5연대는 2개대대 가운데 左 제1선인 제1대대로써 △633를 계속 확보하면서 右 제1선인 제2대대로써 △729—△547로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07.50에 △602 北쪽 無名高地부근을 수색하다가 數未詳의 敵과 부딪쳐 7명을 射殺한 다음 곧 공격을 시작하여 08.15에는 無名高地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는데 부근에는 敵의 屍體 15具가 遺棄되어 있었다. 이어 11.30에 목표 △729로 공격을 계속한 대대는 14.40에 가벼운 저항을 누르고 △729—△547를 점령하여 진지를 再編하였다.

3. 左一線 제21연대는 配屬中인 제5연대 제3대대로써 月峯山진지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戰車 2개중대의 지원을 받아 隷下 3개 대대로써 05.30에 Polar線으로의 공격을 시작하였다.

전날 北亭嶺 東北쪽에 집결한 제3대대는 07.30에 南屯里부근으로 진출한 다음 開野里—月峯里의 金城川支流 沿岸을 따라 東쪽으로 공격하여 14.40에 △729 北쪽 2.3Km인 金城川 南岸의 △383를 점령함으로써 연대 右 제1선이 되어 金城川 渡河에 대한 엄호진지를 편성하였다. 05.30에 豆聞洞 東南쪽으로부터 躍進을 시작한 제1대대는 南屯里 北쪽 稜線을 따라 中央 제1선이 되어 진격한 끝에 12.30~14.40에 月峯山 東北쪽 2.5Km의 목표 △468에서 대대규모인 敵을 격파하고 이를 점령하였으며, 그 北쪽에 前進線을 占領中이던 C중대는 23.30에 기습한 50여명의 敵과 격전끝에 18일 00.05에는 △468의 主陣地로 철수하면서 포격을 유도하여 敵을 撲滅하였다. 左 제1선인 제2대대는 전날 점령한 月峯山 北쪽 △398의 진지로부터 그 西北쪽 1Km인 △448로 진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前線이 北上함에 따라 연대에 배속되어 月峯山진지를 확보하던 제5연대 제3대대는 18.00에 다시 原隊로 復歸하게 되었다.

10월 18일 : 이날 사단은 전날의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군단 中央左翼과 右翼의 韓 제2, 제6사단은 거의 목표선에 진출하여 작전을 마무리짓고 있었으나, 사단 정면에서는 아직 敵의 저항이 완강하였으니 敵이 金城의 확보에 안간힘을 다 하는 까닭인것으로 판단되었다

1. 右一線인 제19연대는 主力이 金城川을 건너 목표선에 한걸음 더 前進하였다.

즉 제2대대가 전날에 이어 △479의 右 제1선 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1대대는 △366에서 北쪽 稜線으로 전진하여 13.30에 數未詳인 일단의 敵을 격멸하고 九隱里 南쪽 高地(標高 400m정도)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401—△434의 제3대대는 09.40에 金城川 南岸을 따라 西쪽으로 전진하여 △383를 제21연대 제3대대로부터 인수하고 제1대대의 西南쪽을 엄호하였는데, 10.05에는 여기를 공격하는 일단의 敵을 격멸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또 前線으로 躍進中인 Colombia대대는 △629로부터 09.30에 金城川 南岸으로 진출하여 △343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2. 가장 뒤쳐진 中央一線인 제5연대는 이날 全 主力을 Nomad線으로 推進한 다음 목표선으로의 진격에 나섰다.

전날 18.00에 月峯山 진지에서 연대로 복귀한 제3대대는 金城川 南岸의 △384(△383 西北 1.2Km)를 목표로 06.3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07.50에 開野里부근에 진출한 다음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12.50까지는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敵을 격멸, 射殺 150여명의 전과를 거두면서 목표 △384를 점령하였다. 또한 △729 —△547진지를 떠난 제2대대는 16.40 南屯里부근에, △633 진지를 떠난 제1대대는 11.30 Nomad線上의 이청동(月峯山 西쪽 1Km) 부근에 각각 집결하였다.

3. 左一線인 제21연대는 계속 Polar線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즉 右 제1선인 제1대대는 전날의 △468로부터 西北쪽의 河古介로 전진하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고, 左 제1선인 제2대대는 △448진지에서 09.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3.35에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한 다음 목표인 河古介 西쪽의 △480를 점령하였다. 한편 △383의 진지를 제19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제3대대는 제1대대를 뒤따라 △468로 躍進하여 河古介를 공격하는 제1대대를 지원하면서 진지를 확보하였다.

10월 19일 : 사단은 Colombia대대를 06.00附로 제19연대에서 다시 제21연대로 배속변경하는 한편 中央一線인 제5연대의 진격을 재촉하면서 Polar線으로 치달았다.

1. 즉, 사단 右一線인 제19연대는 右 제1선인 제2대대가 鵲岩山 南쪽에 이르고, 제1대대가 灘巨里부근으로 나가 연대 左 제1선이 됨으로써 이날 목표에 거의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06.30에 △479로부터 金城川 東岸을 따라 진격하여 11.00에 商山里 北쪽 鵲岩山 南쪽 稜線인 △602의 대대규모인 敵과 격돌하였는데 18.00에 이르러 敵을 격퇴하고 高地를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격을 유도하여 퇴각하는 敵을 亂打케 하였다. 역시 06.30에 九隱里부근 無名高地에서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는 東北쪽 灘巨里부근으로 진격

하여 14.10에는 대대규모인 敵의 出擊으로 격전을 벌인 끝에 17.10에 이를 격퇴하고 19.30에 灘巨里일대에 야간방어진지를 急編함으로써 Polar線에 진출하였다. 연대 西端 △383 진지의 제3대대는 午前中 제5연대 主力의 金城川 渡河를 지원하다가 제2대대가 점령한 △602 西쪽 金城川 北岸의 △369—△467線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새로이 연대의 中央 제1선이 되었다.

2. 제5연대는 제3대대가 △384를 확보하면서 右側 제19연대 제3대대와 함께 엄호하는 가운데 主力이 金城川을 건너 Polar線으로 육박하였다.

제1대대는 이날 새벽에 南屯里부근으로 躍進한 다음 07.15에 공격을 시작하여 金城川을 건너 08.30에는 九隱里 東北쪽의 標高 400m인 高地에서 2개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고 嘉鶴里(龍淵里 北쪽)부근의 △447로 진격하였으며, 南屯里부근에서 07.15에 공격을 시작한 제2대대는 경미한 敵의 저항을 누르고 16.30에 嘉鶴里를 점령하고 이어 퇴각하는 敵을 추격하여 19.00에는 俗稱 치미교개부근에 야간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3. 左一線 제21연대는 이날 Colombia대대를 다시 배속받아 공격력을 증강하고 목표선에 이르고 있었다.

즉, 제1대대는 06.00에 河古介부근의 진지에서 소대규모인 敵의 공격을 받은 바 있으나 06.20에 이를 격퇴하고 곧 이어 河古介 北쪽 1.2Km의 △475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13.00前後에 이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06.30에 △480 西쪽의 △552를 목표로 공격하여 14.10~15.30사이에 적 1개 대대규모의 저항을 격파하고 高地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를 뒤따라 河古介 南쪽인 △468의 진지를 확보中이던 제3대대는 河古介 東쪽의 烽火山(△447)을 목표로 진격한 끝에 12.40에 대대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이를 점령한 다음 연대 右 제1선이 되니, 이로써 연대는 3개 대대가 모두 Polar線에 진출한 셈이 되었다.

한편 Colombia대대는 04.00부터 제19연대 지역의 △343에서 기동을 시작하여 南屯里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10월 20일 : 이날로서 사단은 Polar線上의 要地를 모두 奪取하여 목표를 達成하였다.

1. 右一線 제19연대는 이날 군단 右翼인 右隣接 韓 제6사단과 협동하여 最終목표인 鶴岩山(△770)을 공격하였다.

즉, △369—△467에서 灘巨里로 躍出한 제3대대가 연대 左肩을 확보하면서 공격을 지원하는 가운데 제1, 제2 兩대대가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灘巨里에서 東쪽으로 鶴岩山 西쪽을 挾擊하였는데 13.00~16.45에 數未詳의 敵을 격퇴하고 高地를 일단 점령하였으나 敵의 逆襲으로 17.20에 다시 西麓으로 물러났으며, 제2대대는 △602에서 鶴岩山 南쪽을 直衝하여 14.10~16.45에 이르는 격전끝에 高地 西南麓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2. 中央一線인 제5연대는 전날의 제2대대에 이어 각 대대가 모두 Polar線을 넘어서서 전선을 정비하였다.

연대 右 제1선인 제1대대는 06.00에 △447에서 그 東北 1.4Km의 △363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여 11.20~17.40에 敵의 저항을 누르고 목표에 진출한 다음 △363—능동線에 진지를 점령하고, 中央 제1선인 제2대대는 다시 치미고개부근의 진지로부터 전진하여 17.00에 △363 西北 1.5Km의 목표 △418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이 확보한 目標線上 最北端에 나섰다. 그 西쪽 金城川 南岸인 △384의 제3대대는 06.00에 金城川 北쪽으로 躍進하여 제2대대의 西쪽인 金城川 東岸에 전개한 다음 終日 산발적인 敵의 저항을 배제하고 △418 西南 1Km의 △395를 점령하였다.

3. 이미 목표선에 진출한 左一線인 제21연대는 제1, 제2 兩대대로써 烽火山(△477)—△552線에 진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날 烽火山을 점령한 제3대대로써 그 北쪽 金城川 西岸의 烽火洞일대를 장악하고 Colombia대대는 左 제1선으로 추진하여 灰古介부근을 석권토록 하였는데, 제3대대는 06.00에 烽火山에서 北쪽으로 공격을 續開하여 10.00에 烽火洞에 진출하였으며 11.20에는 포병지원을 받아 일대의 敵을 剔抉한 다음 17.40까지 진지편성을 마치었다. Colombia대대는 전날밤 △552부근으로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이날 06.00에 △552의 제2대대를 초월하여 그 西北 1.7Km의 △467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07.00부터 敵의 執拗한 저항에 부딪쳐 종일 격전을 치르다가 17.40에 일단 △552로 反轉하여 徹夜로 繼戰方策을 모색케 되었다.

그러나 작전 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이날 16.15에는 戰車部隊가 金城으로 돌진하여 그 威容을 誇示한 바 있는데 敵의 對戰車공격으로 다시 Polar 線에 反轉키는 하였으나 이로써 金城은 이미 無力化된 것이나 다름 없게 된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목표를 달성한 다음 21일에 Colombia대대가 灰古介부근에서 射殺 80여명의 戰果를 올리면서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함으로써 군단은 金城川河口—鵲岩山—金城 南쪽 3km의 線과 여기에 이어 金城—金化間의 鐵路以南을 확보한 가운데 작전을 終結지었다.

그뒤 25일에 제8군 명령에 따라 美 제7사단과 제10군단의 美 제2사단이 교대됨에 따라 군단은 美 제2사단을 淸平부근에 예비로 控置하고 現 陣容으로써 계속 Polar線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Polar線의 점령이 左側 美 제1군단과의 전선은 균형을 이루나, 이로 말미암아 右側 제10군단과의 전선이 불균형하게 되니, 제8군은 이를 수정하여 제10군단과의 전선을 整齊코자 11월에 다시 東쪽으로 Polar線에 연장하여 Gary線을 설정하고 이를 공격케 하였다. 새로운 목표 Gary線은 魚隱山 西南쪽 石彛里부근에서 北漢江과 金城川의 合流點, 加羅峙부근을 연결하는 線으로 군단 右接境線이 北漢江 전너 東쪽으로 擴開된 것이다. 군단은 11월 17일에 右翼인 韓 제6사단으로써 제10군단의 韓 제8사단 1개 연대를 배속받아 이를 공격하여 다음 날인 18일까지 목표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北漢江 西岸을 따라 진격하던 군단은 北漢江 東岸일대의 魚隱山 西南麓을 새로이 담당한 가운데 겨울동안 최소한의 작전으로 敵과 대치하게 되었다.

9. 空軍의 第2次 共匪擊滅 支援作戰 (1951년12월 3일부터 1951년12월2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참모장	소장 金貞烈	제11전투비행대대 장	소령 金斗萬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德昌	제12전투비행대대 장	대리
제10전투비행전대 장	대령 金信		대위 尹應烈

나. 작전 전의 개황

1950년 9월 28일 UN軍의 서울 奪還當時에 潰滅敗走한 殘敵과 各地에서 入山한 共産分子들 및 南派된 諜者들로써 조직된 共匪들이 全羅南北道 小白山脈一帶를 根據地로 하여 後方의 治安攪亂과 수송妨害와 軍需物資의 掠奪등을 恣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투부대에서는 1951년 5월 1일부터 이 敵을 擊滅하게 되었고 韓國空軍은 이해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智異山地區 제1차 지원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殘敵의 跳梁은 계속되었는데 특히 智異山(△1,915)—白雲山(△1,279)—德裕山(△1,508)—일대와 華嚴山(△614)—白鷄山(△804)—回文山(△775)—雲長山(△1,126)을 비롯하여 釜山—大邱間의 神佛山(△1,209)등에서의 출몰이 빈번하였다.

이에 韓國정부는 休戰會談과 더불어 각 戰線의 戰況이 안정된 對陣상태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하여 殘敵 격멸을 계획하고 韓國軍 2개사단 (白野戰司)과 전투경찰 5개 연대가 이해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3일까지 敵 擊滅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는데 空軍에서는 이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智異山(△1,915)에 대한 포위작전과 이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全羅北道의 聖壽山(△1,059)—長安山(△1,239)—雲長山(△1,126) 일대에서 출몰하는 殘敵에 對한 軍警合同作戰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空軍(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美 제5공군의 合同作戰本部(JOC)와 협의하여 지난 달까지 東海岸地區의 敵 보급로 차단 작전을 일단 중단하고 空本 作戰命令 제38호를 下達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준장)은 제10전투비행전대(장, 金 信대령)를 江陵(K—18)에서 泗川(K—4)基地로 이동시킨 다음 이 基地에서 智異山(△1,915) 포위작전을 지원케 하고 다음에 있을 全羅北道 일대의 敵 격멸 지원작전이 전개할 때까지 元山地區에 대한 敵 보급로 차단폭격을 斷行키로하였다.

이리하여 空本 作戰命令 제39호에 의거하여 다시 江陵(K—18)基地로 復歸한 다음 작전을 수행케 하였다. 그뒤에 空本 作戰命令 제40호에 의거하여 鎭海(K—10)基地로 이동해서 殘敵격멸 작전을 지원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少數병력으로 最大限의 전과를 거두어 보려는 끈질긴 執念 그것이었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1951년 12월 2일 未明을 期하여 智異山地區를 포위하고 殘敵격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白野戰司와 전투경찰에 대한 제2차 智異山地區의 공중지원을 수행코자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金斗萬소령 외 13명의 조종사와 이에 합세한 美 空軍 조종사 Adams소령 外 2명이 출격에 만전을 期하면서 軍警部隊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인 3일 13.40에 드디어 泗川(K—4)基地를 離陸한 첫 F—51(Mustang)전폭기 편대는 智異山(△1,915)일대에 流動하면서 출몰하는 敵에 대하여 14.15까지 폭탄과 Rocket彈의 洗禮로 위협하는 동시에 機銃掃射로써 포위권을 압축하고 있는 지상 軍警부대를 掩護하였을 뿐 아니라 4일과 5일 양일에도 각각 1개 편대가 전날과 같이 이 일대에 출격하여 敵陣에 폭격을 단행하면서 軍警부대를 掩護하였는데 그 掩護率이 평균 95%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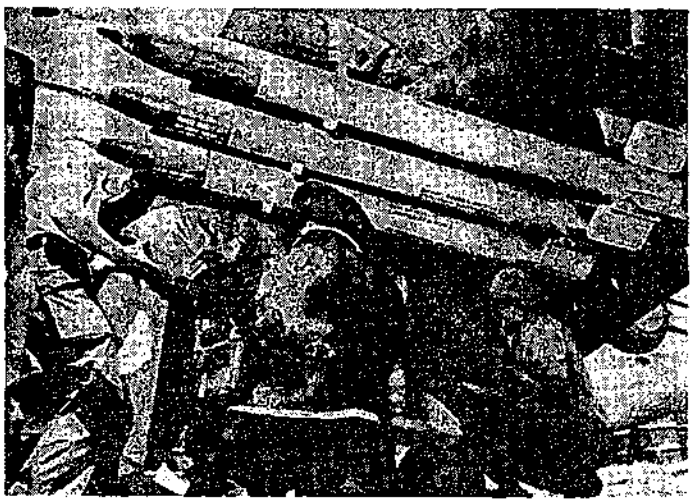
이어 6일에는 盤若峯(△1,751)을 포위하고 殘敵을 격멸중인 軍警의 합동작전을 지원하여 80%의 掩護率을 記錄하고 다시 茂朱지방에 출몰하는 敵을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과 Rocket彈을 집중하였다.

또한 이달 19일부터 長安山(△1,237)—聖嶺山(△1,059)—雲長山(△1,059)일대의 殘敵격멸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軍警부대에 對한 제3차지원작전으로 鎭海(K—10)基地에서 출격하여 이달 25일까지 도합 13개 편대가 敵陣과 敵의 前線正面에 폭격을 집중하였다. 12월중의 西南地區의 氣象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던 까닭에 목표를 全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每 출격시마다 掩護率 80 내지 9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간중 智異山地區의 제2, 제3차 지원작전의 日日 狀況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 智異山地區의 제2차 지원작전을 수행코자 지난 달 28일 12.00에 泗川(K—4)基地로 이동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이날 오전까지 機體점검을 받고 武裝士들의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하여 機銃裝着이 끝나자 홈라인(Home Line)에서 출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13.40에 基地를 離陸한 5대의 F—51전폭기 (編隊長 玉滿鎬대위, 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辛鐵洙대위, 5번기 美空軍의 Adams소령)는 智異山地區 일대의 포위권을 압축하는 軍警부대를 掩護하면서 智異山(△1,915) 西南쪽 6km에있는 岩山(△923)의 敵陣地로 판단되는 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20발을 집중하니 삽시간에 그 일대가 火焰으로 衝天하였을 뿐 아니라 戰意를 잃고 앞을 다투어 溪谷으로 흩어지는 敵을 향하여 도합 5,000발의 機銃洗禮를 加한 다음 14.30에 基地로 귀착하였다.

12월 4일 : 전날에 이어 智異山地區 일대의 殘敵격멸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날 09.45에 泗川(K—4)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編隊長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孫在權중위)의 지휘로 敵과 接戰을 전개하면서 포위권을 압



<폭탄과 Rocket彈을 장착하는 武裝士들>

축하고있는 軍警부대를 掩護하는 한편 智異山 西南쪽 5km에 있는 △1,688의 敵陣地를 포착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 8발과 Rocket彈 16발을 집중하여 敵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이 편대는 軍警과 접전을 전개중인 敵의 正面에 機銃掃射로써 敵 10명을 사살하였다.

12월 5일 : 이날 09.40부터 基地를 離陸한 5대의 F—51 전폭기는 編隊長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羅昌俊대위, 5번기 美 空軍의 Adams 소령)를 先頭로 敵과 접전중인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智異山 西南쪽 3km의 溪谷에 출몰하는 敵과 그들의 陣地로 판단되는 건물을 포착하자 이에 폭탄 10발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이 편대는 戰意를 잃고 溪谷으로 흩어지는 敵에 대하여 Rocket彈 10발을 각 溪谷要所에 집중해서 退路를 차단하고 軍警부대와 산발적으로 접전중인 敵線에 1,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2월 6일 : 지난 3일부터 전개한 警軍부대의 智異山地區 포위작전은 이날로 絶頂에 이르렀는데 11.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編隊長 辛鐵洙대위 (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朴完圭중위)를 先頭로 접전중인 敵의 前線에 도합 5,0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으면서 軍警부대를 엄호하는 한편 盤若峯(△1,751) 일대의 敵陣地와 敵의 집결지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6발을 집중하여 그 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12.30에 귀환하였다.

이날 오전에 이어 16.25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는 編隊長 鄭周良대위(2번기 羅昌俊대위, 3번기金鎔成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白雲山(△1,218)으로 출격하여 敵의 陣地와 집결지를 포착하자 이에 폭탄 8발을 投下하는 한편 Rocket彈 14발을 집중하여 敵의 건물 2棟을 全破하고 3,000발의 機銃掃射로써 敵 2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어 그 勢力을 分散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敵과 접전을 전개하는 軍警부대가 殘敵을 격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泗川(K—4)基地에서 智異山地區의 제2차 지원작전을 끝내고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元山地區의 敵 보급로에 대한 遮斷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날 江

陵(K—18) 基地로의 前進 준비를 완료하였다.

12월 7일 : 이날 12.00에 泗川(K—4)으로부터 江陵(K—18)基地로 前進을 완료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지난 달에 이은 元山地區의 敵 보급로 遮斷 작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작전계획을 세우고 自體 정비요원들로 부터 F—51 전폭기 整備점검을 받아 출격에 만전을 期하였다.

12월 10일 : 이날부터 18일까지 9일동안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매일같이 元山地區의 敵 보급로에 대한 폭격을 단행 함으로써 敵의 東部戰線으로의 보급수송망을 切斷시켜 輸送力에 쐐기를 박아 놓고 (참조 敵의 보급로 차단작전) 智異山地區의 제3차 지원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달 18일 鎭海(K—10)基地로의 이동 준비를 완료하였다.

12월 19일 : 제10전투비행전대(장, 金 信대령)는 이날 14.00까지 江陵(K—18)에서 鎭海基地로 이동을 완료하고 15.25에 智異山地區의 제3차 지원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가 基地를 離陸하였는데 編隊長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鄭周良대위)의 지휘로 全羅北道의 雲長山(△1,126)에서 敵과 接戰中인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敵陣地를 포착하여 이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5발을 집중하여 敵의 건물 7棟을 全破하였으며 도합 6,000발의 機銃掃射로 4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제1편대에 이어 15.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編隊長 玉滿鎬대위(2번기 羅昌俊대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在權중위)의 지휘로 回文山(△775)의 殘敵을 격멸중인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敵陣地에 폭탄 8발과 Rocket彈 15발을 집중하고 도합 4,000발의 機銃掃射를 加함으로써 삽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았으며 17.05에 제 1,제2 兩편대가 각각 귀착하였다.

12월 20일 : 이날 07.00에 鎭海(K—10)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편대는 編隊長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의 지휘로 回文山(△775) 일대에서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溪谷에 散在한 敵의 陣地를 포착하고 이에 爆彈 6발과 Rocket彈 12발을 집중하여 건물 3棟을 全破하는 한편 機銃掃射로써 2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출격에서 도합 5,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은 다음 09.00에 귀착하였다.

그러나 첫 출격의 임무 수행을 끝내고 귀환할 때 포착한 敵의 陣地를 폭격하기 위하여 09.40에 金斗萬소령(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美空軍의 Bordley 중위)을 編隊長으로 4대의 F—51전폭기는 다시 基地를 離陸하여 回文山 溪谷 일대에 있는 敵의 陣地에 폭탄 8발과 Rocket彈 11발을 비롯하여 도합 6,000발의 機銃掃射를 집중함으로써 건물 8棟을 全破하였는데 이때 이 일대는 山이 무너지는 듯한 爆音이 천지를 진동시켰고 火焰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올랐다.

또 이날 13.1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玉滿鎬대의 (2번기 朴在浩대위, 3번기 羅昌俊대위, 4번기 孫在權중위)의 지휘로 白雲山(△1,218)에서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는 軍警부대를 엄호하는 한편 그 일대의 敵陣地를 포착하고 폭탄 8발과 Rocket彈 12발을 비롯하여 도합 4,500발의 機銃洗禮를 집중함으로써 건물 8棟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둔 다음 15.55 基地에 귀착하였다.

12월 21일 : 이날 09.5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編隊長 李基陝대위 (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孫興俊중위)가 陣頭에 나서 回文山(△775)으로 출격하여 이 일대의 포위권을 압축하는 軍警부대를 엄호하는 한편 敵의 陣地로 판단되는 목표를 포착하자 이에 폭탄 8발과 Rocket彈 16발을 집중함으로써 연쇄폭발로 그 일대에 石片들이 우박처럼 쏟아지게 하였다.

또한 이날 13.3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編隊長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俞致坤중위)의 지휘로 回文山(△775) 일대에서 接戰中인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敵의 陣地로 판단되는 목표에 進入하여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3발과 도합 6,000발의 機銃掃射 洗禮를 퍼부었다.

12월 23일 : 이날 13.15에 基地에서 出擊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玉滿鎬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白雲山(△1,218)에서 敵에게 機銃掃射를 加하여 그 抵抗力을 위축시키면서 敵陣地와 집결지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4발과 機銃掃射로써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2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날의 機銃掃射는 도합 6,500발에 달하였다.

12월 24일 : 지난 19일부터 전개한 제3차 智異山地區의 殘敵 격멸작전은 이날 그 絶頂에 달하였다. 즉, 이날 10.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는 編隊長 李基陝대위(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를 先頭로 하여 掛冠山(△1,252)에서 軍警부대를 엄호하는 한편 敵이 출몰하는 일대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6발과 도합 3,000발의 機銃掃射를 집중하여 그 溪谷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은 결과 10명을 사살하고 12.15 基地에 귀착하였다.

한편 12.35에 出擊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俞致坤중위)의 지휘로 雲長山(△1,126)으로 直向하여 軍警부대를 엄호하면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彈 18발과 도합 6,0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어 13.10에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白雲山(△1,218)을 장악하고 마지막 殘敵을 격멸하는 軍警부대의 요청에 따라 敵陣에 폭탄 8발과 Rocket彈 5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그 뿐 아니라 15.30에는 編隊長 李基陝대위(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가 이끄는 4대의 F—51전폭기 제3편대가 雲長山(△1,126)으로 출격하여 敵陣地에 폭탄 8발과 Rocket彈 15발을 비롯하여 도합 5,000발의 機銃掃射로 이를 完破하고 17.10 基地에 귀착하였다.

12월 25일 : 이날 아침 軍醫부대로부터 『교묘한 防備를 한 雲長山(△1,126) 溪谷의 根據地에서 殘敵이 최후 발악하여 이의 격멸이 지연되니 空軍의 근접지원이 時急하다』는 요청을 받고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이에 즉각 출격하게 되었다. 즉, 이날 09.55 基地를 떠난 4대의 F—51전폭기는 編隊長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俞致坤중위)의 지휘로 그 목표에 폭탄 8발을 집중하여 全破하고 11.05에 基地로 귀착하였다.

이로써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泗川(K—4)基地에서의 제2차 智異山 地區의 지원작전(12월 3일부터 6일까지)과 鎭海(K—10)基地에서의 제3차 智異山地區의 지원 작전을 끝내고 敵의 보급로 차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江陵(K—18)基地로 前進하게 되었다.

라. 작전 후의 개황

軍醫부대가 합동으로 전개하는 殘敵 격멸작전에 대한 空軍의 제2,제3차 智異山地區의 근접지원 작전은 軍醫부대가 敵이 출몰하는 地域일대의 포위권을 압축하는 작전을 容易케하는 엄호 출격과 아울러 敵이 험준한 溪谷이나 要衝地에 구축한 陣地를 폭파함으로써 敵의 戰意를 상실케하는 것이 었는데,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전투 조종사들은 그동안 출격에서 연마한 조종술을 바탕으로 軍醫부대의 요청에 의한 지원작전은 물론 情報入手에 따라 계획된 출격으로 敵의 根據地를 여지없이 폭파 하였다.

이와같은 空軍의 근접지원으로 軍醫부대가 敵 격멸작전 계획에 따라 전개한 제1기 (1951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와 제2기(1951년 12월 19일부터 1952년 1월 3일까지)작전에서 敵이 根據地를 잃게되자 智異山(△1,915)에 對한 포위작전과 雲長山(△1,126)을 비롯하여 全羅北道 일대에 출몰하는 敵을 격멸하면서 그들의 根據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流動的으로 출몰하는 殘敵 격멸작전을 위한 軍醫부대의 제3기(1952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제4기(1952년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작전에 拍車를 加할 수 있도록 그 活路를 열어 주었다.

이 기간중 空軍에서는 폭탄 146발과 Rocket彈 236발, 그리고 Cal 50彈 72,500발을 使用하여 軍醫부대에 대한 援護率 90%의 實績을 올렸는데 그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陣地 全破	18개소
建物 全破	32棟
射殺	122명

10. UN 空軍의 活動 (1951년 11월 1일부터 1952년 1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31 호

要 旨

UN空軍에서는 10월중 敵의 空軍力 增強을 妨害하기 위하여 制空權을 장악하고 北韓內의 각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加하는 한편 敵의 후방戰力을 鈍化시키기 위하여 모든 군시설과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고 敵의 戰線으로의 보급품 수송을 차단할 목적으로 철도에 대한 폭격을 斷行하면서 아울러 철교와 각종 교량 폭파에 注力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에서는 彼我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地上軍에 대하여 근접지원을 敢行함으로써 敵의 戰線戰力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같이 敵은 UN空軍의 활동으로 戰力 증강이 좌절되자 11월에 敵은 MIG-15 Jet機의 작전기지를 滿洲로부터 北韓內의 비행장으로 前進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즉, 敵은 이달에 MIG通路(MIG Alley) 지역에 있는 義州 비행장을 복구하고 對空砲를 배치한 다음 이 비행장에 MIG-15 Jet機를 着陸시킴으로써 北韓內의 비행장에서 MIG機가 작전하는 최초의 基地가 되었다.

이리하여 MIG-15 Jet機 出沒은 지난 달에 비하여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敵은 MIG機 掩護아래 北韓 西北쪽에 있는 각 비행장에 대한 복구공사를 비롯하여 폭파된 敵의 주요 철로 수리복구와 보급路 및 機動路를 따라 對空砲를 배치함으로써 UN空軍의 차단폭격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極東空軍 폭격사령부와 美 제5공군의 B-26과 B-29 兩爆擊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의 掩護로 制空權을 장악하면서 MIG通路(MIG Alley) 지역내에 신설 또는 복구한 각 비행장에 폭격을 집중하여 작전불능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철로와 操車場 폭격을 비롯하여 철교와 교량폭파에 拍車를 加하였다.

그리고 이달에 UN空軍에서는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敵의 軍트럭에 폭격을 단행하면서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의 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 제6150 戰術統制大隊에서는 前方航空統制(FAC) 관측교육에 참가한 美 地上軍 장교 12명에게 3일간에 걸쳐 空地合同 교육훈련을 履修시킴으로써 근접지원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期하였다.

또 極東空軍에서는 이달 初에 美 제5공군 제51전투邀擊비행단의 전투기 2개대대가 F-86E Sabre Jet 邀擊機로 전환되자 이 邀擊機들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기지를 日本의 Suike에서 Itazuke로 移動하고 이달 10일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美 공군 참모총장 Vandenberg대장에게 요청하기를 『極東空軍에 배속되어 있는 7개 항공정비대대 외에 5개의 정비대대와 其他 공병대대를 더 增派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美 공군 當局에서는 그 요청을 즉각 승인하여 人事와 보급 순위에 우선권을 주어 제366, 제841, 제843, 제866의 4개 항공정비대대를 極東空軍에 배속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措置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도 他國內에 駐屯한 美 항공정비부대들로부터 주요 品目 장비를 대폭 차출하고 신장비를 획득한 제903 항공정비대대를 배속받는 등 UN空軍은 加一層 空軍力을 증강하면서 11월중 도합 19,166회에 達하는 출격을 斷行하여 空地立體作戰의 實效를 거두었으며 근접지원이 1,136회였고 차단폭격은 8,735회를 기록하여 도합 10,180 ton의 폭탄과 573 ton의 Napalm탄을 집중投下하는 한편 공수지원은 도합 4,655회에 達하였다.

12월에도 UN空軍에서는 敵의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는데 MIG-15 Jet機 出沒은 東南쪽으로 元山상공에 이르렀고 西南쪽에서는 鎭南浦와 椒島 空域까지 확대되었고 敵의 PO-2 폭격機가 서울上空에 來襲하는 것으로 보아 敵 空軍力의 증강은 顯著하여진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리하여 UN空軍에서는 매일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이 制空權을 장악하고 전폭機들을 援護하여 泰川—南市—新義州—義州등의 주요 비행장에 대하여 목표에 急降下로 보다 치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철로와 보급로를 비롯하여 각종 교량에 폭탄을 集中하고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는 軍트럭 4,290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면서 敵機의 來襲警報에 출동할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을 朝夕으로 待機시켰다. 12月中 UN空軍은 도합 19,326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은 302회였고 차단폭은 8,347회의 출격으로 10,557 ton의 폭탄과 408 ton의 Napalm탄을 投下하고 공수지원은 도합 4,846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1952년 1월에는 MIG-15 Jet기가 60대 내지 80대로써 出沒하던 지난달의 방식을 버리고 2대 내지 4대의 小編隊로 UN軍의 前線상공까지 高空으로 출현하는가 하면 敵의 PO-2 폭격機는 金浦(K-14)까지의 奇襲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UN空軍에서는 지난 달에 美 제5공군 제51전투 邀擊비행단에 배속된 F-86E Sabre Jet邀擊機로 하여금 MIG-15 Jet機가 MIG通路(MIG-Alley) 空域 以南으로 出沒하지 못하도록 北韓 西南쪽 상공에서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여 이를 격퇴하고 MIG機들의 威勢를 크게 萎縮시키는 한편 전폭機는 각 비행장을 비롯하여 주요 철로를 따라 배치하여 놓은 對空砲臺에 猛爆을 감행하였으며, 敵의 끈질긴 복구공사에 對應하여 철로는 물론 보급로와 機動路에 이어지는 철교와 각종 교량에 보다 과감한 접근폭파로 敵의 士氣를 低下시켰을 뿐 아니라 美 제5공군의 전폭機들은 보급품 집적소와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에 폭탄을 집중하여 이달에 2,489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면서 1월중 UN空軍은 도합 18,581회에 達하는 출격을 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이 394회였고 차단폭격은 6,805회를 기록하여 도합 11,685 ton의 폭탄과 196 ton의 Napalm탄을 集中 投下하는 한편 공수지원은 도합 4,920회에 達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極東空軍 사령관
중장 Otto P. Weyland

美 제5공군 사령관
소장 Frank F. Everest
(1951.12.20 중장 진급)

美 極東空軍 폭격 사령관
준장 Joe W. Kelly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 사령관
준장 John P. Henebry

나. 51년 11월중 UN空軍의 활동

(1) 對空戰鬪

1951년 늦은 여름과 가을동안에 敵의 空軍은 UN空軍을 압도하여 보려는 듯이 정기적으로 平壤 상공에 출현하는 한편 元山—鎭南浦—新義州를 연결하는 三角지대에 계속 出沒하였다.

또한 11월 以前에는 敵의 야간전투機들이 가끔 이 상공에 出沒하는 정도였으나 이달에 UN空軍의 B-29重爆擊機를 야간 『Shoran작전』으로 전환시키자 敵은 야간 공중작전의 중

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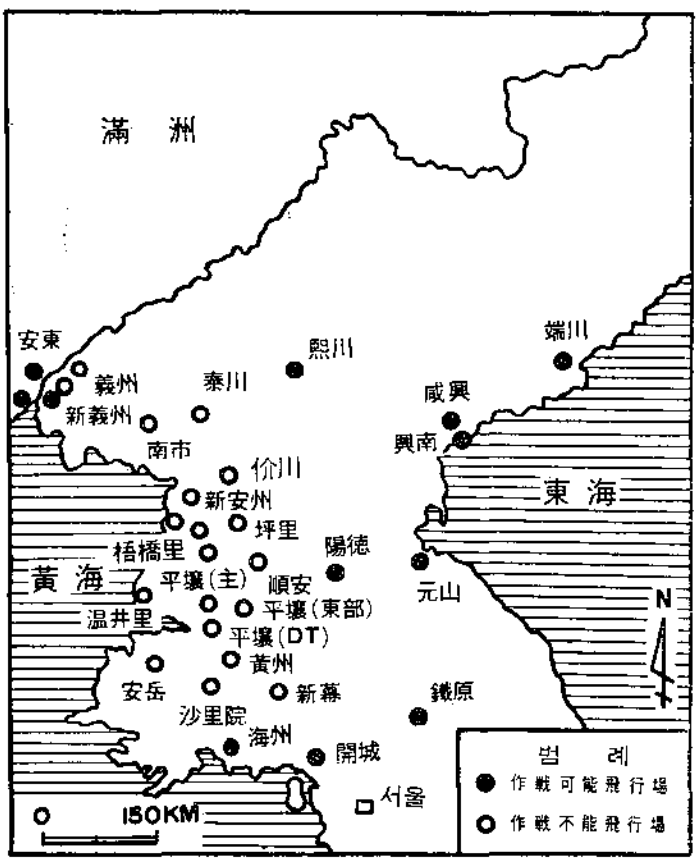
이와같이 敵機의 출동이 頻繁한 까닭에 11월 9일 護衛없이 출격하던 UN空軍의 RB-45 偵察爆擊機 1대가 海州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 9대의 邀擊을 받고 한때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이 일어 나기도 하였는데 이에 極東空軍에서는 즉시 RB-45 偵察爆擊機의 출동에 제한을 두어 晝間에는 敵機들이 出沒하는 상공의 활동을 抑制토록 하였다.

또 이달 16일과 17일 밤에 美 제5공군 제3폭격 전대의 B-26 야간 輕爆機 1대가 順川 상공에서 敵의 전투기 2대에게 20mm 機銃攻擊을 받고 한쪽 날개(Wing)에 10 inch정도의 구멍이 뚫린채 위태로운 비행으로 本基地에 귀착하였는데 이것이 야간에 敵 전투기로부터 받은 최초의 被襲이었다.

뿐만 아니라 敵의 空軍은 MIG通路 지역내에 비행장 건설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11월 9일 MIG-15 Jet機 26대를 義州 비행장에 着陸시키고 있는것을 UN空軍의 偵察機가 포착하였는데 이로써 北韓 비행장에 敵의 Jet機가 최초로 駐屯하게 된 것이다.

이토록 敵이 MIG通路 지역인 義州 비행장에 MIG機를 駐屯시키고 价川—泰川—南市 3개 비행장을 건설한 다음 이를 확보하게 되면 敵은 여태까지 鴨綠江 상공에서만 유지하던 비행활동을 100 Mile이나 前進하게 되고 이 3개 비행장에서 MIG機가 작전하게되면 UN空軍에서 展開하는 平壤—淸川江 일원에 대한 『Strangle(窒息) 작전』에 크나큰 阻害를 받을뿐 아니라 敵은 MIG機의 掩護아래 對空砲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UN空軍도 쉽사리 3개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상황도 제31호 北韓의 비행장 현황(51. 11. 27 현재)



그리하여 極東空軍 폭격 사령부(사령관, Joe W. Kelly 준장)는 价川—泰川—南市 3개 비행장으로 B-29 重

爆擊機들을 출격시켜 視覺과 電子포착에 依한 폭격을 감행토록 하였는데 계절적으로 이 지역 일대에는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것을 考慮하여 다시 晝夜間 폭격에 『Shoran』 照準을 사용토록 하였다.

極東空軍 폭격 사령부의 『Shoran』誘導에 의한 야간 폭격에 대하여 敵은 高射砲와 照明燈을 集中하며 夜間전투기로써 반격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B-29 重爆擊機는 1명의 전상자도 없이 11월동안 价川 비행장에 85 ton의 폭탄과 泰川 비행장에 160 ton 그리고 南市 비행장에 170 ton의 폭탄을 각각 집중 投下하여 비행장 사용을 不能토록 하였다.

또한 UN空軍에서는 南鮮의 空中防衛를 위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美 제5공군의 地上管制 邀擊 범위를 확장하고 좁더 지리적인 조건과 더불어 容易하게 방어할 수 있는 한계에 따라 책임구역을 再設定토록 계획된 監視 Radar 전환에 전반적인 企劃設定을 완성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제63 항공 管制大隊의 戰術空軍 指示本部(TADC)는 大邱에서 江陵으로 進駐하고 11월부터 작전을 遂行하게 되었는데 이달 2일에 이 대대는 제6123 항공管制 및 警報大隊로 改稱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에서는 白翎島의 적합한 장소에 戰術空軍 指示本部(TADC)를 설치코자 熱望하였는데 이곳에 대한 군수지원이 困難하여 輕量 Radar를 설치토록 하고 이달 15일에는 새로운 空中防禦體系를 설정하였다.

이 방어체계는 韓國을 南北 즉, 2개 空中 防衛區로 나누어 南쪽은 美 海兵 비행단에서 관할하고 北쪽은 美5해공군 제502전대가 관할토록 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각 2개의 空中防衛 小區로 나누었는데 東南과 西南小區는 美 海兵 地上 管制邀擊 제1, 제3 兩大隊가 맡고 東北과 西北小區는 美 제5공군의 제6123과 제63 兩大隊가 각각 분담하여 監視와 展開 및 識別機能을 비롯하여 이웃 空中防衛小區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통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極東空軍에서는 MARK Ⅲ IFF (識別裝置)의 사용을 인가하여 항공기들이 이 장비를 保有함으로써 彼我機의 識別이 간편하게 되었다.

11월 30일 오후에는 美 제5공군 제314비행단의 F-86E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이 新義州 상공에서 機首를 南쪽으로 向하는 TU-2쌍발 폭격機 12대를 掩護하던 MIG-15 Jet機 50대와 공중전을 展開하여 TU-2 폭격기 8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였으며 MIG機 1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와같이 UN空軍은 敵의 空軍力 증강에 쐐기를 박으면서 계속 制空權을 장악하고 對空戰鬪를 전개하여 敵의 空軍 戰略을 萎縮시켰다.

(2) 敵의 후방에 대한 차단爆擊

UN空軍에서는 지난 8월 18일을 D일로 전개한 철도차단 폭격『Strangle 작전』을 계속한 결과 11월 中旬에 이르러서는 滿洲로 연결된 敵의 모든 철도망에 極甚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敵은 철도 수송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즉, 敵의 中部철도 起着地인 三登과 陽德을 향하여 順川—軍隅里—新安州—新義州와 順川—江界로 연결된 兩철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極東空軍 爆擊사령부에서는 敵이 막대한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여 再建中인 각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계속해서 사용불능토록 하는 것을 폭격 순위 제1로 定한 다음 보급로 차단 폭격을 제2의 順位로 策하여 平壤—順川—新安州—宣川間의 각 교량과 철도차단 폭격에 注力하였다.

또한 爆擊사령부에서는 小規模이기는 하나, 操車場 폭격으로 敵의 機關車들을 폭파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擊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Shoran작전』으로 역시 敵의 操車場 시설에 폭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차단된 철도를 따라 주요 보급路상에는 아직도 야간에 많은 敵의 軍트럭이 前線으로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것을 UN空軍의 戰爆擊機들이 포착하였는데 이것은 철도에 의한 보급지원의 減少로 말미암아 트럭 수송으로 보급품을 보충하려는 劃策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에 UN空軍에서는 이들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기 위하여 각 戰爆機들로 하여금 철도차단 폭격을 수행한 다음 귀환할 때에는 주요 보급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武裝偵察 활동을 아울러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美 제5공군 제51戰爆戰隊에서는 敵 地上砲火에 대비하여 4대의 偵察 편대를 2대씩 分離시켜 2대는 3,000 ft에서 地上砲火와 보급로를 偵察케 하고 나머지 2대는 6,000 ft상공에서 敵機 출현을 경계토록 하였다.

이러한 探索 高度는 이제까지 韓國戰에서 適用한 高度보다는 多少 높은 것이기는 하였으나 武裝偵察 비행의 성과는 풍성하여 敵의 軍트럭 폭파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敵은 窮餘之策으로 더욱 철도수리 공사에 專力하게 되었는데 結氷期에 접어들게 되자 그들은 수리 공사에 많은 得을 보아 폭파된 철도는 24시간이 못되어 복구된 것이 寫眞偵察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敵의 欺瞞術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順川의 주요 기동로에 架設하여 놓은 迂回 교량의 경우인데 이 교량은 晝間偵察 寫眞에는 언제나 2개의 徑間(Spa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에 촬영한 寫眞에는 철도重裝備(Rail Way Crane)가 이 徑間(Span)을 옮겨다 놓아 밤마다 이 교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UN空軍에서는 11월 中에 철도차단 폭격을 감행하여 北韓內의 각 교량을 폭파하면서 보급로를 따라 前線으로 南下하는 敵의 軍트럭 4,571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기간중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367회의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근접지원은 38회, 차단출격은 284회이었다.

또한 1일 武裝偵察 출격이 7회, 掩護 출격이 10회, 敵機를 격퇴시킨 空中반격이 28회로써 도합 10,991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UN空軍의 日日作戰 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11월 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전투 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 6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였는데 彼我間의 피해는 없었다.

이날은 惡天候로 말미암아 美 極東空軍은 敵의 후방차단을 비롯하여 美 제1군단에 24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67회의 근접지원으로서 도합 61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2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투기들은 北韓의 西北部 상공에서 9차에 걸친 공중전을 계속한 끝에 敵의 MIG-15 Jet機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14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9회의 근접지원으로써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1월 3일 : 美 제5공군의 Jet 전투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4次에 걸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敵의 MIG-15 Jet機 3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新安州 상공에서 美 F-84 Thunder Jet 전투機 1대를 喪失하였다.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24회와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0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4일 : 이날 UN空軍의 Jet 전투機 92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 145대와 3次에 걸친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47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68회에 걸치는 출격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119회의 반복 출격으로써 敵의 士氣를 크게 低下시켰다.

11월 5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의 포병대와 호응하여 漣川 西쪽 진지에 폭격을 加하는 한편 그 西北쪽에서 敵이 掌握下에 있는 2개 高地에 猛爆을 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43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32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8회의 근접지원을 감행하였는데 東擊에 이은 西擊으로 山野는 焰煙에 휩싸이고 敵 戰線에 격심한 衝擊을 加하였다.

11월 6일 : 전날에 이어 UN空軍의 F-51(Mustang)과 F-84 Thunder Jet 전투機들은 漣川 西北쪽 高地上의 敵陣에 폭격을 加하는 동시에 塹壕에 대하여도 機銃 및 Napalm탄으로 13회에 걸친 반복 集中打를 감행하니 이 일대의 敵 진지는 완전히 焦土化 되었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9 兩군단에 도합 7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1월 7일 : 이날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美 제1군단에 4회의 근접지원 출격을 하였을 뿐 UN空軍의 활동이 中止되었다.

11월 8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와 UN空軍의 戰爆機 100대는 北韓內의 敵 군사시설과 보급품 집적소에 爆擊을 加하였는데 이날 후방 차단출격만도 도합 1,080회에 達하는 大出擊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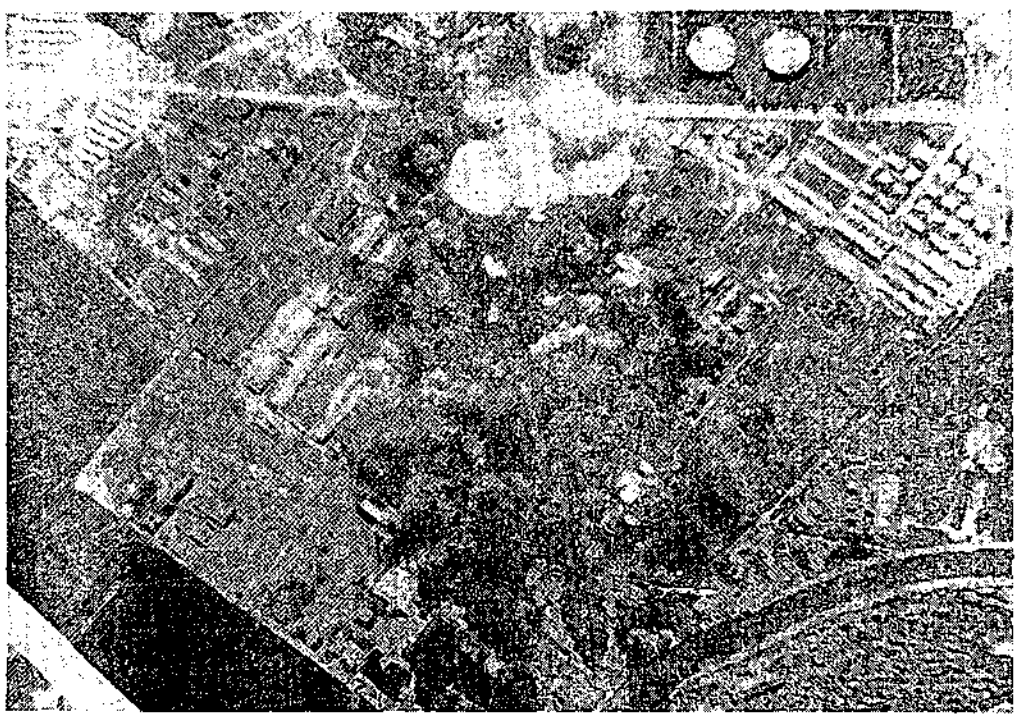
그리고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60대는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 190대와 3次에 걸쳐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敵機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군단에 46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23회의 근접지원을 遂行하였다.

11월 9일 : 美 제5공군의 Jet 전투機 52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 51대와 2次에 걸친 熾烈한 空中戰 끝에 MIG-15 Jet機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UN空軍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5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92회 그리고 韓國 제1군단에 4회 도합 14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1월 10일 : UN空軍의 Jet 전투機들은 新安州 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대를 격파하였다.

한편 이날 밤 UN空軍의 야간 輕爆擊機는 北韓 各地에서 보급품을 만재하고 前線으로 向하는 보급열차를 포착하자 곧 이를 공격하여 기관차 3대를 全破하고 화물차량 17輛을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UN空軍의 B-26, B-29 폭격기에 의하여 폭파되는 北傀 軍事施設>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32회, 제9, 제10 兩군단에 100회, 그리고 韓國 제1군단에 4회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11월 11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중인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반복하였는데 이날 美 제1군단에 30회, 그리고 美 제 9, 제10 兩군단에 112회 도합 142회의 출격으로 敵陣을 강타하고 空地一如의 협동작전을 위한 精粹를 發揮하였다.

11월 12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비행활동이 低調하였으나 오후에는 多少 회복되어 美 제1군단에 18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7회 도합 105회의 근접지원 출격을 단행하였다.

11월 13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보급路 및 戰線의 敵陣地를 폭격하였으며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新安州 北쪽의 泰川—南市—宣川에 건설중인 3개 비행장에 대한 夜間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9군단에 12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187공수 여단에서는 美 제316공수 부대의 協力下에 大邱 東南쪽에서 降下 연습으로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11월 14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戰을 展開하고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26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1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111회의 출격을 단행하여 敵陣을 震動시켰다.

11월 15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전날에 이어 美 제1군단에 24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94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6회 도합 134회의 근접지원을 단행하니 敵陣은 화염으로 휘감겼다.

11월 16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北韓 깊숙히 출동하여 각 철도에 대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도 이에 합세하여 各 철도시설을 폭격하고 기관차 1대를 完破하였으며 1대를 半破하였을 뿐 아니라 화물차량 11輛을 全破하였다.

이날의 각 戰線 狀況은 한두차례의 소규모接戰이 있었을 뿐이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8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11월 17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夜間에 보급품을 만재하고 前線으로 南下하는 軍트럭부대를 捕捉하자 즉시 이를 강타함으로써 117대를 全破하고 나머지 軍트럭도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3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32회 근접지원 출격을 단행하여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1월 18일 : 이날 敵의 Jet機가 최초로 義州 비행장에 着陸하였는데 이때에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2대가 이를 포착 공격함으로써 MIG-15 Jet機 2대를 全破하고 5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敵과 치열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我 地上軍에 대하여 밤낮을 가리지않고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는 바 곧 美 제1군단에 16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32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152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19일 : 美 제5공군의 輕爆機들은 야간에 敵의 철도 시설과 軍트럭 부대를 폭격하였는데 특히 이날에는 伊川—麻田里—陽德—三登—平壤—新安州間에서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 1,500대를 포착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을 大量 집중투하하여 140대를 全破하였으며 나머지 軍트럭도 Napalm탄의 洗禮를 加한 결과 화염속에 휘감겨 그 일대가 生地獄을 탕불케 하였다.

이날 UN空軍의 근접지원을 美 제1군단에 28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11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 8에 도합 147회에 達하였다.

11월 20일 : 極東空軍에서는 MIG機들이 北韓 비행장에서의 작전遂行을 阻止시키기 위하여 각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斷行키로 하고 B-29重爆擊機들은 명폭을 감행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戰을 전개중인 美 제1군단에 38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75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5회 도합 12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 출격으로 敵의 士氣를 低下시켰다.

11월 21일 :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戰線으로 보급품 수송에 牛馬車 사용이 漸增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戰爆機들을 출동시켜 敵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注力하였다.

뿐만 아니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15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22회 도합 22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士氣를 크게 萎縮시켰다.

11월 22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치열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2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6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24회, 도합 132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23일 : UN空軍의 Jet 邀擊機들은 敵의 MIG-15 Jet機와 新安州 상공에서 空中戰을 전개하여 MIG機 2대를 격추하였으며 義州 비행장에 着陸中인 敵 MIG-15 Jet機를 捕捉하자 즉시 急降下, 低高度에서 이를 공격하여 半破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1제군단에 8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5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6회로써 도합 82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24일 : 極東空軍에서는 MIG-15 Jet機가 義州 비행장에서 그 활동이 頻繁하여지자 義州 비행장으로 출격하여 폭탄을 집중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17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27회, 도합 44회에 걸쳐 근접지원을 하였는데 이중 40회가 야간출격이었다.

11월 25일 : UN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泰川—南市 兩비행장 시설을 폭파하고 Jet 邀擊

機들은 北韓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 중 4대를 전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치열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我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4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44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20회, 도합 106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1월 2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17대는 MIG通路(MIG Alley)에서 MIG-15 Jet機 6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2대를 半破하였다.

11월 27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19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8대와 치열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4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UN空軍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11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25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141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可恐할 火攻으로 敵을 痛擊하였다.

11월 28일 : 전날에 이어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3대를 격추하고 또 나머지 3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10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4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98회의 출격 으로 敵陣을 진동케 하니 敵의 戰線은 흩어지게 되었다.

11월 29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22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75대와 30分間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 중 1대를 全破하였으나 UN空軍機 3대가 경미한 破損을 입기도 하였다.

이날 이 空中戰에 참전한 UN空軍의 操縱士가 『北韓 상공에 300대의 敵 MIG機를 목격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美 제5공군에서는 敵 空軍의 증강을 阻止키 위한 작전을 수립하여 各 비행단에 하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9, 제10 兩군단에 67회, 韓國軍 제1군단에 8회로 도합 75회에 達하는 空地立體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我地上軍에 대한 士氣를 昂揚시켰다.

11월 30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31대는 鴨綠江 河口 南쪽에서 MIG-15 Jet機 16대에 護衛된 蘇聯製 爆擊機 30대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폭격機 9대와 MIG機 1대를 각각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야간에 敵의 戰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을 포착하는 즉시로 猛爆을 단행하였는데 한 操縱士는 『韓國戰 이래 최대의 敵 보급품 수송이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의 각 戰線은 대체로 평온하여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 제10 兩군단에 16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戰 果	損 失(美 空軍機)
MIG機 격추 또는 半破—75대	B-26 輕爆擊機—2대
敵의 爆擊機 격추—9대	B-29 重爆擊機—3대
機關車 全破 또는 半破—5대	F-51 戰爆機—6대
貨物車輛 全破—28량	F-80 戰爆機—6대
敵의 軍트럭 全破—4,571대	F-82 戰鬪機—1대
	F-84 戰鬪機—10대
	F-86 戰鬪機—3대

다. 51년 12월중 UN空軍의 활동

(1) 對空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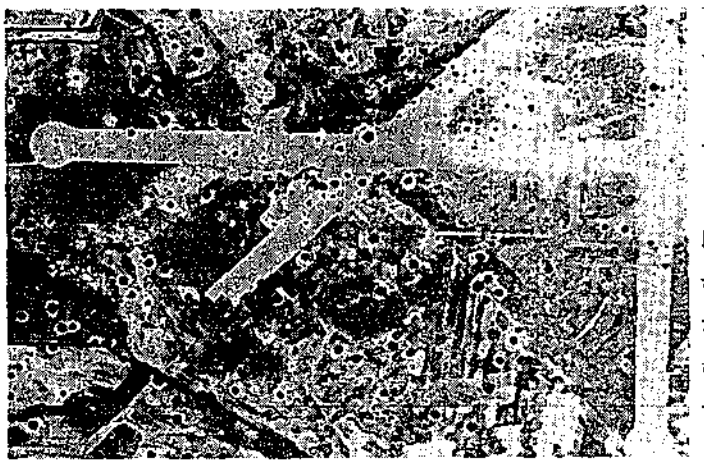
12월에도 UN空軍의 戰爆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 비행장에 대하여 계속 폭탄을 집중투하 하였는데 敵은 특히 야간에는 探照燈(Seach Light)으로 UN空軍機들을 포착하자 곧 MIG-15 Jet機로서 邀擊을 감행하였으며 이달 3일에는 MIG-15 Jet機로 推定되는 4대의 戰鬪機가 서울 南쪽 상공을 通過한 것으로 보아 날이 갈수록 敵機의 출격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單一 출격에 100대이상이 투입된 것을 알수 있었다.

또 이달 23일에서 24일 밤사이에 MIG機들이 義州 상공에서 UN空軍의 戰爆機들을 探照燈부대와의 協同공격(Seach Light Coorperation Attack)으로 50 ft 以內까지 壓迫하였으며 이달 29일에는 360대의 MIG機가 單一 출격을 遂行함으로써 그들의 空軍力을 誇示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빈번히 出沒하는 敵機들을 격퇴하고 있는 美 제5공군 제4전투 邀擊 비행단의 戰鬪機들은 그 基數가 貧弱한 반면에 敵은 數的으로 월등한 이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挾擊(Pincer)과 포위작전으로 60 乃至 80대의 MIG機들이 2群으로 나누어 水豊湖쪽에서 東西쪽으로 비행하여 1群은 淸川江 北쪽에서 哨戒활동을 하는 少數의 UN空軍의 F-86E Sabre Jet 邀擊機와 空中戰을 전개하고 다른 1群은 계속 南쪽으로 탐색활동을 실시하면서 元山 상공을 橫行할 뿐 아니라 滿洲로부터 南下하는 60 내지 80대의 敵 MIG機들은 北韓의 西海岸쪽에서 鎭南浦와 椒島까지 출현하였다.

이와같이 敵機들은 南쪽으로 비행할 때는 항상 35,000 ft의 고도를 取하다가 平壤 상공에 이르러서는 그 機首를 뒤로 돌려서 15,000내지 20,000 ft로 降下하여 주요 보급로를 따라 北上하며 UN戰爆機와 귀환하는 F-86 Sabre Jet 邀擊機들을 탐색 공격하곤 하였다.

그러나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비행활동을 妨害코자 新義州와 義州 비행장을 비롯



<UN爆擊機에 의하여 폭파된 敵의 비행장>

하여 北韓內의 각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투하 함으로써 이달 11일 敵의 MIG-15 Jet機들은 滿洲로 撤收케 하였다.

그러나 敵은 계속하여 北韓內의 비행장을 건설하고 복구하려는 노력을 拋棄하지 않고 沙里院—平壤— 新義州—義州 비행장 등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ayland중장은 命令하기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北韓內의 각 비행장들을 계속 작전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치밀한 폭격은 물론 철저한 武裝偵察로 빈틈없는 監視를 하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同 중장은 美 空軍 당국에 경고하기를 『현재 韓國內에 있는 야간 전투機는 F-82 戰鬪機 6대와 이미 過激한 출격으로 그 성능이 減退된 美 海兵 비행단의 F7F전투機 뿐이다』라 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 사령관 Frank F. Everest 소장은 麾下 全지휘관들에게 命令하기를 『이달 3일과 8일 서울 상공에 비록 高空이기는 하나 MIG機가 出沒하였다는 바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인 防禦수단을 강구하라』고 强調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5공군의 각 戰鬪 邀擊機들은 南韓 각 基地에서 空中 반격을 위한 緊急出動用으로 평균 45대가, 그리고 저녁 警報에 30대가 각각 待機토록 하였다.

한편 敵의 PO-2폭격기의 奇襲이 지난 9월 27일 이후부터 一時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12월 28일 밤 다시 서울 上空에 나타나 재한된 奇襲작전을 再開함으로써 UN空軍의 空中防禦狀況에 加一層 긴박감을 주었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 사령관 Frank F. Everest 중장은(51. 12. 20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水原 基地(K-13)에 駐屯하기로 예정된 極東空軍 제68전투 邀擊大隊로부터 F-94 全天候邀擊機 2대를 引受하여 이 敵機를 隨時로 擊退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은 伸縮性 있는 대응 조치와 뛰어난 조종사들의 능력에 힘입어 MIG-15 Jet機와는 그 數的인 同等勢力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F-86E Sabre Jet 邀擊 비행단 5개만을 보유하면서 如前히 制空權을 장악하고 차츰 增强할 것으로 豫想되는 敵의 空中活動力에 대응하게 되었다.

(2) 敵의 후방에 대한 차단爆擊

12월 UN空軍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敵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철도복구작업을

開始하여 1個의 철로 切斷부분을 8시간 안에 假修理하여 놓고 다음 날 새벽까지 화물차량을 通行시키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또 그들은 교량 수리와 심하게 破損된 軌道 復舊面에서도 삽시간에 공사를 끝낼 뿐 아니라 이미 平壤—新安州—宣川을 連하는 本線上의 迂回교량(By pass Bridge)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B-29 重爆擊機들은 계속 이에 폭탄을 집중하여 격파하는데 注力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 제3전폭 戰隊에서는 沙里院—平壤間의 機動路에 대한 야간 차단폭격에서 照明탄을 投下한 다음 폭격하는 이른바 協同폭격을 再開하고 있었는데 이때 야간 戰爆機와 승무원들의 부족으로 美 海兵 VMF(N)-513대대의 戰爆機들이 이에 合同함으로써 그 기동로 일대를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뿐 아니라 北韓의 西北쪽에서 前線으로 연결된 보급로와 기동로는 비교적 험준하지 않은 까닭에 敵은 夜間에 달빛을 이용하여 微燈火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確認되었는데 이를 포착한 제3전폭전대의 야간 폭격機들은 照明탄 또는 月明期를 이용하여 急降下進入으로 小型폭탄을 목표에 集中投下시켜 全燒케 하는 전과도 거두었다.

또 UN空軍은 이달에 義州 비행장에 대하여 前後 2次에 걸쳐 『야간 Shoran작전』을 전개하였는데 그 첫번째는 水豊湖 근처에 있는 Radar 調整 探照燈으로서 B-29重爆擊機 편대를 포착하자 B-29가 義州 상공에 進入할 때까지 계속 照明하였으며 이어 敵機가 나타나 B—29를 邀擊한 결과 그중 3대가 일부被害를 입었다.

두번째는 美 제5공군 제3폭격대대의 B—26輕爆機 1대와 B—29重爆擊機들이 協同 출격하여 8개의 敵 探照燈 폭파에 全力하는 동안 敵機와 探照燈에 의한 協同방어로 말미암아 熾烈한 반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의 戰爆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機들의 邀擊과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敵의 후방 깊숙히 進入하여 곳곳에 散在하고 있는 여러 비행장에 폭탄을 집중투하함으로써 그들의 작전이 至難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철도를 비롯하여 보급路와 機動路에 차단폭격을加함으로써 敵의 背後戰力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기간중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353회의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근접지원이 10회, 차단 출격이 263회에 達하였다.

또한 1일 武裝偵察 출격은 6회, 掩護출격은 10회, 敵機를 격퇴한 空中반격은 69회로 도합 10,940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12월 中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日日作戰狀況은 概要 다음과 같다.

12월 1일 : UN空軍의 Jet 전투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 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UN側에서도 4대를 喪失하였다.

한편 UN 戰爆機들은 야간에 前線으로 向하는 敵軍 트럭부대를 포착하고 폭탄 洗禮를 퍼부어 그중 300대를 全破하였으며,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도합 91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여 我地上軍과의 空地 協同作戰의 실효를 거두었다.

12월 2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16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50대와 空中戰끝에 그중 5대를 격추 하였다.

이날 오후부터는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 戰爆機들은 美 제10군단에 8회만 근접지원 하였을 뿐이었다.

12월 3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邀擊機들은 平壤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 끝에 敵機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 機種을 알수 없는 敵機 3대가 漣川 西쪽 UN軍 前線으로 來襲하자 곧 銃擊을 加하였으나 我軍의 피해는 없었다.

이날 美 제5공군의 근접지원은 美 제10군단에 6회, 韓國軍 제1군단에 5회를 실시하였으며 韓國의 西南地區 (全羅南北道)에서 出沒하는 殘敵을 擊滅하는 白野戰 사령부 (사령관 白善燁 소장)에 8회에 걸쳐 지원함으로써 殘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12월 4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44대는 北韓 西北 상공에서 前後 2次에 걸쳐 MIG—15 Jet機 100대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1대를 半破하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義州 비행장에 폭탄을 大量집중 投下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MIG-15 Jet機들의 東海岸 出沒이 빈번하더니 이윽고 13대가 元山 상공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4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4회의 근접지원을 供與하였으며 韓國軍 제1군단에 8회 그리고 이 밖에도 白野戰司에 16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5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5대를 격추하고 또 5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夜間 폭격機들은 前線으로 向하는 敵軍 트럭부대를 포착하자 즉시 이에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도합 220대를 全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 제9兩군단에 8회 그리고 白野戰司에 10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2월 6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11대는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機 40대와 空中戰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으며 B-29 야간 爆擊機들은 平壤 操車場을 爆擊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28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32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및 白野戰司에 8회, 도합 78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7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淸川江 교량에 多量의 폭탄을 집중投下하여

經間(Span)을 切斷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31회, 그리고 白野戰司에 8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12월 8일 : 美 極東空軍에서는 이날 週末 전과를 발표하였는데 MIG-15 Jet機 13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墜落케 하였으며 17대를 半破하였을 뿐 아니라 軍트럭 1,819대를 全破하는 반면 UN空軍은 戰鬪機 7대를 喪失하였다.

12월 9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軍隅里와 定州의 철도 시설에 폭격을 加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29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면서 空地立體作戰을 계속 하였다.

12월 10일 : 이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을 掩護하던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機를 탐색하였으나 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번의 接戰도 없었다.

그러나 美 제5공군에서는 美 제1, 제9 兩군단에 21회, 그리고 美 제10군단에 8회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12월 11일 : UN軍空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3대를 격추하였다.

또한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이 戰線 일대의 敵 陣地에 대하여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그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8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12월 12일 : UN戰爆機들은 전날에 이어 敵의 各 보급로에 대한 차단 폭격을 감행하고 美 제1, 제9 兩군단에 도합 25회, 美 제10군단에 16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MIG-19 Jet機로 觀測된 新型 Jet 夜間戰鬪機가 韓國 상공에 出沒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2월 13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邀擊機 64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 Jet機 100대와 2次에 걸쳐 전개된 大空中戰에서 13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고 이어서 UN戰爆擊機들은 이날 밤 順川과 軍隅里의 戰略要衝地를 集中 폭격하여 敵의 후방戰力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각 戰線이 대체로 평온하였기 때문에 美 제1, 제10 兩군단에 12회의 근접지원만을 提供하였다.

12월 14일 : 이날 UN Jet 전투기들은 北韓 西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또다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1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UN機도 2대를 喪失하는 바 되었다.

한편 각 戰線은 전날에 이어 대체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美 제 5공군의 戰

爆機들은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2回에 걸쳐 근접지원 하였다.

12월 15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南쪽 상공에서 2次에 걸친 空中戰을 전개하여 MIG機 1대를 격추하고 6대를 半破하였으며 戰爆機들은 美 제1, 제9 兩군단에 12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ayland중장은 『F-86 Sabre Jet 邀擊機 3개대대가 極東空軍에 增配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12월 16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平壤 東쪽에 자리 잡은 기관차 수리공장을 爆擊하여 全燒시키는 한편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9, 제10 兩군단에 8회에 걸친 근접지원으로 敵의 陣地를 격파하는데 寄與하였다.

12월 17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機와의 空中戰을 또 전개하여 그중 2대를 半破격추하고 美 제5공군의 야간 爆擊機는 보급품을 만재하고 前線으로 南下하는 軍트럭 100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戰中인 美 제1, 제10 兩군단에 도합 16회에 걸친 근접지원 출격으로 地上軍의 士氣를 昂揚시켰다.

12월 18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15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16회의 근접지원 출격과 병행하여 敵 前線에 散在한 陣地를 폭격 하였다.

12월 19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戰線으로 通하는 보급로와 機動路에 차단 폭격을 실시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美 제1, 제10 兩군단에 24회의 근접지원에 參加하였다.

12월 20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들은 新安州 비행장에 60ton의 폭탄을 投下하여 多大한 손실을 주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白野戰司에 12회의 근접지원으로 西南地區의 殘敵을 擊滅하는데 協力함으로써 我軍의 士氣를 昂揚시켰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관 Frank F · Everest 소장이 중장으로 승진되었다.

12월 21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敵과 接戰中인 美 제10군단에 16회 근접지원 출격과 병행하여 敵의 前線 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많은 보급품을 喪失케 하고 後方에서 殘敵을 擊滅하는 白野戰司에는 16회에 達하는 근접지원도 아울러 단행하였다.

12월 22일 : UN空軍의 輕爆擊機들은 이날 北韓의 각 비행장과 보급 中心地로 출격하여 폭탄을 집중 投下하니 그 일대에서 솟아 오르는 연기가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12월 23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야간에 北韓 일대에서 前線으로 向하는 敵軍 트럭 부대를 포착하자 곧 이를 강타함으로써 軍트럭 125대를 全破하고 接戰中인 美 제10군단에 19회에 걸쳐 근접지원하는 동시에 후방에서 殘敵을 擊滅하고 있는 白野戰司에도 4회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는 韓國戰 이래 이날까지의 종합전과 와 손실을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다.

戰 果	損 失
敵機 撃墜—1,051대	UN空軍機 損失—423대
敵 爆殺—184,880명	兵力 損失(戰死와 부상 및 行方不明포 함)—1,158명
軍트럭 爆破—51,970대	
機關車全破—1,585대	
戰車 全破—1,838대	
軍用建物 全破—165,830동	

12월 24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撃機들은 新安州—泰川 비행장과 新安州의 교량을 强打하여 사용 불능토록 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29회, 그리고 白野戰司에 8회의 근접지원에 출격하였다.

12월 25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撃機 편대들은 黃州 비행장과 淸川江 철교에 대하여 Radar를 이용해서 맹폭을 단행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氣象이 고르지 않아 美 제10군단에 8회의 근접지원과 白野戰司에 16회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12월 26일 : 이날은 전날에 이어 심한 눈보라로 因하여 美 제5공군에서는 7회의 출격을 하였을 뿐 비행활동이 중지되었는데 이날의 출격은 지난 2월 9일 이래 가장 低調한 것이었다.

12월 27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北韓의 주요 철로 197개소를 차단 폭격 하는 한편 근접지원으로 美 제1군단에 2회, 美 제9, 제10 兩군단에 3회로써 低調한 출격이었으나, UN 戰爆機들은 이날 밤에 敵의 前線으로 南下하는 軍트럭 2,000대를 포착하자 즉시 폭탄을 집중하여 그중 200대를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중장은 이해 8월 이래 이날까지 다음과 같은 極東空軍의 主要戰果을 발표하였다.

(1) 北韓의 敵 보급로를 폭파.

(2) 敵의 軍트럭 40,000대를 全破 또는 半破.

(3) 敵의 次期攻勢를 위한 보급물 집적소를 全破.

12월 28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激撃機 24대는 新安州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 機 77대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敵機 1대를 격추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군단에 16회, 그리고 후방에서 殘敵을 격멸하고 있는 白野戰司에 10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2월 29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통하는 보급로에 대한 차단폭격과 병행하여 美 제1, 제10 兩군단에 5회, 그리고 白野戰司에는 12회의 근접지원을 실시

하여 空地協同作戰을 계속하였다.

12월 30일 : UN空軍의 F-51(Musta g)戰爆機 편대들은 市邊里 南쪽 機動路에서 敵의 戰車 3대를 포착하자 곧 急襲하여 1대를 全破하고 2대를 半破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10 兩군단에 22회 韓國軍 제1군단에는 8회의 근접지원에 출격하였다.

12월 31일 :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는 敵의 前線에 散在한 진지에 폭격을 단행하는 동시에 美 제1, 제10 兩군단에 12회 그리고 白野戰司에 4회의 근접지원 출격도 아울러 병행하는등 12월중의 근접지원 출격은 도합 8,028회에 達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果	損失 (美 空軍機)
MIG機 격추 또는 半破 37대	B—26 輕爆擊機 2대
철도遮斷 2,451개소	B—29 重爆擊機 1대
野砲 全破 488문	F—51 戰爆機 9대
戰車 全破 15대	F—80 戰爆機 6대
機關車 全破 또는 半破 69대	F—84 戰鬪機 12대
軍트럭 全破 4,290대	F—86 戰鬪機 7대

라. 51년 1월중 UN空軍의 활동

(1) 對空戰鬪

이해 1월 中에도 北韓 西北쪽 상공에 MIG-15 Jet機들의 出沒은 계속되어 敵의 후방戰力을 抹殺하려는 UN空軍을 牽制하는 바 되었는데 이에 UN空軍의 F-86E Sabre Jet邀擊機들은 이달부터 哨戒비행 고도를 40,000 ft로 취하자 MIG-15 Jet機들은 곧 이에 지지 않으려는 듯이 53,000 ft의 고도로써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F-86E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은 飛行雲 高度 이하에서 MIG-15機들에 대한 邀擊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UN戰爆機에 대한 MIG機의 위협에 對備하여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은 敵機에게 좀더 접근해서 掩護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월 1일 새벽에 敵의 PO-2機 1대가 金浦(K-14) 상공에 나타나 폭탄 8개(1개는 不發彈이었음)를 投下함으로써 補助 연료탱크 數個가 폭파되고 基地에 불길이 번져 한때 소란을 빚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MIG-15 Jet機들은 지난 12월에 이어 滿洲로부터 大量의 출격편대로써 南侵하는 戰法을 계속 慣用하였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달 末부터는 大量出擊型에서 脫皮하고 2대에서 4대 乃至 6대의 小編隊로써 출격하는 방식을 取하게 되었다.

敵의 大量編隊方式에 있어서는 果敢한 邀擊行動에 미숙한 조종사가 存在할 수 있을 것이

지만 이에 反하여 定則대로 우수한 戰術을 適用하는 少數의 編隊는 가장 높은 고도를 취할 수 있는 MIG-15 Jet機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敵의 속셈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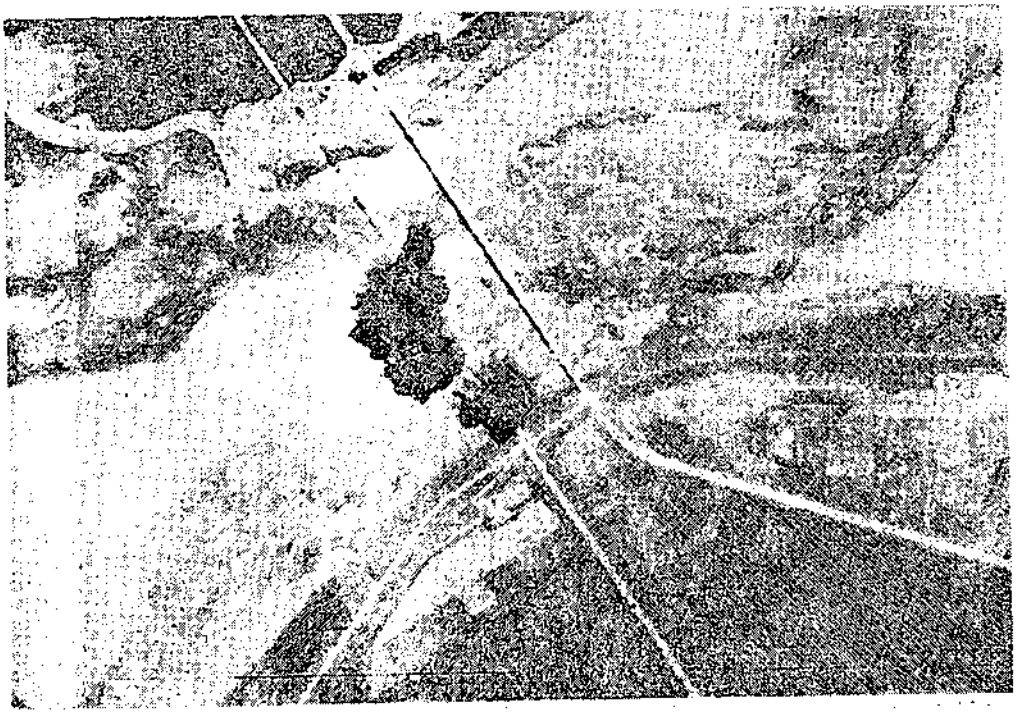
즉, MIG-15 Jet機는 F-86E Sabre Jet 邀擊機보다 높은 고도에서의 回轉과 上昇 그리고 推進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그동안 그들 조종사들의 射擊技術도 향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少數의 MIG機 편대들은 高空과 低空에 걸친 上下 兩空域을 비행하면서 지난 12월에 증강되어 활약중인 F-86E Sabre Jet 邀擊機와 空中戰을 遂行하는 한편 多數의 MIG機 편대들은 차단 폭격 임무를 가진 UN戰爆機까지 공격하려고 企圖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51년 12월에 美 제5공군 제51전투 비행단의 2개대대가 F-86E Sabre Jet機로 轉換되었던 것이다.

또 이 邀擊機 편대들은 MIG-15 Jet機가 滿洲로부터 MIG通路 공역을 넘어 더 이상 南쪽으로 來侵하지 못하도록 制空機를 장악하고 敵 후방에 對한 차단 폭격을 계속하고 있는 UN戰爆機의 掩護任務에 專力하였다.

(2) 敵의 후방에 대한 차단爆擊

UN空軍은 지난 해에 이어 1월에도 철도 차단폭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폭격이 아무런 戰術的인 변화없이 그대로 硬直하게 계속 되었으므로 戰爆機들은 점점 어려운 곤경에 處하게 되었다.



<UN戰爆機에 의하여 폭파된 敵의 鐵橋>

왜냐하면 敵은 淸川江 南쪽 철도에 沿하여 4mile 간격으로 對空砲를 배치하였으므로 그 對空火力이 매우 熾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에서는 F-86戰爆機들을 淸川江 南쪽에 重點的으로 출격시키는 한편 宣川까지 사이의 對空砲陣地와 철도를 폭파토록 하는 한편 F-80 戰爆機들은 滿浦線上의 熙川까지를 目標로 삼아 凍結期인 탓으로 폭탄을 집중 投下하였으나 超飛하여 폭탄이 地表에서 空間 폭발을 誘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때로는 破片이 低空 비행하던 戰爆機를 오히려 破損시키는 事例까지 있었으나 UN空軍은 이에 拘碍하지 않고 차단 폭격을 계속하였다.

이달 4일에 이르러 Ridgway 대장은 聯合 참모본부에 報告하기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보급로를 강타함으로써 敵의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所要되도록 만들었으며 敵이 그들의 보급로를 防衛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병력과 多量의 물자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만들었고, 數 千台의 軍트럭과 기관차를 비롯하여 많은 量의 보급품을 폭파하였기 때문에 敵은 각종의 보급품 饑饉에 直面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極東空軍에서는 차단작전만으로는 對陣狀態에 있는 敵의 각 前線으로의 보급수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또한 敵의 부대 이동을 완전히 막지 못할 것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敵이 계속 對陣狀態를 유지하는限 長期戰에 걸쳐 大大的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보급품을 충분히 蓄積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였다.

그리하여 極東空軍에서는 聯合참모본부에 提議하기를 『休戰會談에서 UN軍사령부가 유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강력한 空中 壓力을 加하는 것이 UN空軍의 작전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極東空軍에서는 이달 26일 이후에 B-26輕爆擊機와 B-29重爆擊機로 하여금 敵의 機動路와 軍트럭 집결지에 폭격을 집중토록 하였는데 極東空軍은 다시 이에 대하여 結論하되 『敵의 交通을 遮斷하기 위하여 지역 목표를 설정하고 폭격하는 것은 敵의 야간 機動을 考慮치 않는 까닭에 效率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 결과 機動路와 철로를 비롯하여 기관차와 교량에 대한 폭격에 더욱 注力하게 되었다.

기간중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311회에 達하는 出擊率을 보이고 이 가운데 근접지원은 1일 평균 13회에 이르렀으며 遮斷 폭격은 216회를 記錄하였다.

뿐만 아니라 武裝偵察은 1일 평균 3회, 掩護출격은 7회, 그리고 敵機를 격퇴한 空中반격은 72회로 도합 9,650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1월중 활약한 UN空軍의 日日作戰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1월 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31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60대와 空中戰을 演出하여 그중 2대를 半破하였으며 또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보급路와 機動路의 要點에 대한 遮斷 폭격을 감행하였다.

1월 2일 : 이날은 全戰線에 걸쳐 接敵은 경미하였으나 야간에 敵은 文登里 西쪽에서 UN

地上軍의 前哨陣地를 공격함으로써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는데 美 제5공군에서는 즉시 야간 戰爆機를 出擊시켜 敵陣에 폭탄을 집중 投下하니 화염에 휘감긴 敵은 戰意를 喪失한 채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1월 3일 : UN空軍의 Jet 戰爆機들은 平壤—新安州間의 主要철도 및 操車場과 각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하였으나 F-84 Thunder Jet 戰鬪機와 F-80 Jet 戰爆機 각 1대가 敵의 對空砲火로 격추되기도 하였다.

1월 4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新義州 비행장으로 출격하여 비행장 시설과 滑走路에 폭탄을 집중 投下함으로써 사용불능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前線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는 한편 我地上軍과 激戰中인 敵陣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寸斷 潰滅의 脅威를 주었다.

1월 5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을 北韓철도의 要部와 보급 중심지 폭파에 集注하고 F-86 Sabre Jet 邀擊機대는 新安州 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4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였으나 彼我間의 손실은 없었다.

1월 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75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90대와 3次에 걸쳐 전개한 空中戰끝에 敵機 5대를 격추하고 10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월 7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전날에 이어 敵의 보급기지를 폭격하였으며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淸川江 철교의 徑間을 폭파하여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20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50대와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墜落케 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월 8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는 軍隅里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 投下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과 接近中인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써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는 軍트럭과 牛馬車 부대에 폭탄과 Napalm탄 洗禮를 퍼부어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1월 9일 : UN空軍의 重爆擊機 편대는 肅川의 철도와 操車場에 多重의 폭탄을 投下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F-51(Mustang)戰爆機들은 敵과 接戰中인 一線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智異山地區에서 殘敵을 擊滅하고 있는 我軍 및 경찰을 지원키 위하여 出擊해서 敵陣을 Napalm탄의 火攻으로 강타하였다.

1월 10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는 成川 西쪽의 철교 徑間들을 폭파하였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UN空軍이 지난해 12월 6일 開始된 "救命" 작전에서 이날까지 敵의 野砲 334문을 全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월 11일 : UN空軍의 F- 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4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을 뿐 아니라 板門店 北쪽 12km 상공에서도 空中戰을 전개하였는데 彼我間의 손실은 없었다.

한편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들은 新安州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탄을 집중 投下하여 全燒시켰다.

1월 12일 : 이날의 全戰線 狀況은 탐색전에 局限되어 대체로 평온하였기 때문에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후방차단에 注力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에서 發表하되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7일간의 我空軍의 손실은 F-86 Sabre Jet 邀擊機 3대를 비롯하여 기타 戰爆機 13대 도합 16대로써 최고의 週間 피해를 입었다』하고 하였다.

1월 13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戰線 후방의 敵 보급품 집적소와 敵의 포진지를 폭격하는 한편 다른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通하는 機動路와 보급로의 차단을 위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1월 14일 : UN空軍의 B-26輕爆擊機들은 이날 밤 敵의 全前線으로 通하는 보급로에 대한 차단 폭격을 단행하였는데 전날에 이어 暴雪과 激烈한 朔風으로 비행활동이 多少의 低調를 보였으나 도합 575회에 達하는 出擊을 보았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UN空軍機가 13일 오후 瀋陽—撫順과 그밖의 滿洲 각 도시의 상공으로 侵襲하였다』라는 共產側 代表의 非難을 正式으로 否認하였다.

1월 15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36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40대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2대를 격추하였으며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 철도의 要地와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에 대하여 猛爆을 단행하고 F-80 Thunder Jet機 편대들은 平壤의 수류탄 공장에 폭탄을 집중 投下하여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UN空軍機가 14일 밤 江東 제8포로 수용소를 폭격하여 UN軍 포로 10명이 死亡하고 60명이 부상하였다』고 주장하는 敵의 通告를 正式으로 否認하였다.

1월 1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공중전을 전개한 끝에 그中 2대를 半破 격추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接戰中인 地上軍을 위한 근접지원 출격과 戰線 후방의 敵 陣地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1월 17일··UN空軍의 Jet 戰爆機들은 線前으로 南下中인 敵의 T-34戰車부대를 포착하자 즉시 이를 急襲하여 3대를 完破하였으며 또 이날 밤에는 B-26 輕爆擊機들이 北韓의 주요 보급路上에서 軍트럭 부대를 포착하자 곧 이를 강타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휩감아 놓았다.

1월 18일 : 美 제5공군의 F- 84 Thunder Jet 戰鬪機와 戰爆機들은 新安州 지역에서 기관차 3대를 全破하고 1대를 半破하였으며 화물차량 9輛을 完破하고 12輛을 半破하는 전과

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투하하였다.

1월 19일 : UN空軍의 F- 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 상공에서 MIG- 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墜落케 하는 한편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6대는 大同江 철교를 폭파하여 經間에 대한 效率性 높은 폭파 실적을 보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 發表하기를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UN空軍機의 損失은 10대로써 그중 F-86 Sabre Jet 邀擊機가 2대이었다』라고 하였다.

1월 20일 : 美 제5공군과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戰機 80대는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機 60대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그중 2대를 격추하였으며, 또한 戰爆機 편대들은 敵 前線의 새로운 陣地와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하는 한편 敵의 철도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 폭격도 하였다.

1월 2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는 北韓의 西北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또다시 전개한 끝에 그중 2대를 격추하고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철도 시설과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였다.

이날 極東空軍에서는 『北韓 상공의 심한 눈보라 때문에 580회 출격에 그쳤다』라고 발표하였다.

1월 22일 : 美 제5공군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戰線 일대로 출격하여 敵의 집적소를 폭격하면서 敵과 接戰中인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도 아울러 병행하였다.

1월 23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19대는 北韓 상공에서 MIG-15 Jet機 22대와의 空中戰 끝에 그중 2대를 격추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敵 前線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하여 敵 勢力을 萎縮시켰다.

1월 24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北韓의 주요 철도와 一般 교량등에 대한 遮斷 폭격을 실시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線戰 일대로 출동하여 敵陣을 비롯해서 보급로와 機動路에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이날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중장은 談話를 발표하기를 『MIG-15 Jet機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言語로 살펴보아 蘇聯人 대신에 中共軍이 조종하고 있는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였다.

1월 25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상공에서 MIG-15 Jet機들과 前後 4次에 걸쳐 空中戰을 反復한 끝에 그중 10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고 戰爆機들은 漣川 東北쪽에 있는 敵의 후방 戰線에서 2,000명 규모의 敵을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 洗禮를 加하여 潰滅케 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對空砲 및 地上 野砲台가 강화되고 我空軍의 全損失은 이 화력에 의한 것이 85%에 達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1월 23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7대는 MIG-15 Jet機가 작전중인 義州 비행장으로 출격하여 이에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거의 작전불능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또한 美 제5공군 F-51(Mustang) 戰爆機와 F-80 戰爆機들은 接戰中인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병행하여 敵의 前線 背後의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1월 27일 : UN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들은 新安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보급로와 교량을 폭파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戰線 일대의 敵陣地를 강타하니 그 일대는 삽시간에 修羅場이 되었다.

1월 28일 : 전날에 이어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北韓의 주요 機動路와 보급로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는 杆城 西北쪽과 文登里 溪谷 南쪽에서 各 激戰中인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계속하였다.

1월 29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南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1대를 半破 墜落케 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의 前線에 通하는 機動路와 보급로에 대한 차단폭격을 감행하여 敵의 戰線 增强을 방해하였다.

1월 30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敵機 1대를 격추하고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前線일대로 출격하여 敵의 진지와 보급품 집적소를 강타하였다.

또한 이날 UN空軍에서는 『UN空軍機들이 지난 25일 이래 17회에 걸쳐 休戰線의 中立地帶를 侵犯하였다』라고 주장하는 北京放送은 事實無根이라고 正式으로 聲明하였다.

1월 31일 : UN空軍의 B-26 輕爆擊機는 敵 戰線의 후방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비롯하여 敵의 집결지에 폭탄을 집중 投下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은 電波探知機 장치가 있는 高射砲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極東空軍 사령부에서는 1월의 전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敵의 MIG-15 Jet機 83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였으며 我空軍은 52대를 喪失하였는데 그중 44대가 敵의 對空砲火에 의한 손실이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美空軍)
MIG機 격추 또는 半破—86대	B—26 輕爆擊機—5대
野砲 全破—334문	B—29 重爆擊機—4대
戰車 全破—3대	F—51 戰爆機—9대
機關車 全破(美空軍機에限함) 半破—3대	F—80 戰爆機—9대
貨物車輛 全破—21량	F—84 戰鬪機—16대
軍트럭 全破—2,489대	F—86 戰鬪機—11대

第49章

冬季作戰

要　旨

1. 第2次 月比山 戰鬪
2. 949高地 戰鬪
3. 281高地 및 395高地附近 戰鬪
4. 395高地附近 戰鬪
5. 岩洞(바우골)附近 戰鬪
6. 1,090高地附近 戰鬪
7. 662高地 爭奪戰
8. 杜梅里附近 戰鬪
9. 海兵隊의 黃土島 戰鬪
10. 海兵隊의 洋島 戰鬪
11. 海兵隊의 胡島 戰鬪
12. 海軍의 活動
13. UN 海軍의 活動
14. 空軍의 補給路 遮斷作戰
15. UN 空軍의 活動

第49章 冬季作戰

要 旨

本章에는 1951년 11월初부터 다음해 3월末에 이르는 冬季期間의 전투를 收錄하였다.

9월과 10월에 걸쳐 敢行한 一連의 制限作戰으로 月比山(高城 南쪽)—Hays線—Gary線—Polar線—Jamestown線을 차례로 占領하고, 보다 有利한 地形에 따라 戰線을 整齊할 수 있었던 我軍은 10월 25일에 休戰會談의 再開와 더불어 UN 當局과 美國이 더 이상 戰線을 擴大하지 않으려는 方針에 따라 不得已 進擊을 멈추고 戰線을 스스로 限定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地上戰은 我軍이 作戰의 主導權을 포기한 一方的인 措置에 의하여 새로운 對陣의 局面으로 접어 들었고 이 後의 我軍作戰은 陣地를 強化하고 그 前進陣地를 確保하기 위한 이른바 「攻勢防禦」를 取하게 되었다.

한편 我軍의 進擊이 이렇듯 停滯하자, 敵은 되도록 休戰協商의 期間을 끌면서 戰力의 劣勢를 만회하고자 血眼이 되었고 그들 陣地는 날이 갈수록 強化되는 趨勢에 있었다.

따라서 戰線은 彼我가 팽팽하게 對陣하면서 連日 수색戰과 前進진지의 쟁탈戰이 展開되었는데 그 양상도 점차 熾烈해졌다.

期間中 제11사단(제1군단)이 치른 제2차 月比山전투와 제6사단(美제9군단 右翼)의 △949전투는 我軍이 戰線을 整理하다가 敵의 執拗한 抵抗에 부딪친 전투였으며, 제9사단(美제1군단 右翼)의 △281, △395부근전투, 제7사단(美제10군단 左翼)의 岩洞, △1,090 兩개 전투와 제3사단(美제10군단 中央右翼)의 △662전투, 그리고 제1사단(美제1군단 左翼)이 치른 杜梅里 부근전투들은 모두 前進陣地에 있어서의 攻防戰이었다.

敵과의 交綏상태가 深化되어 地上戰이 踏步하게 되자 我軍의 優勢한 海·空軍은 이러한 敵을 계속 強打하고 교란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눈부신 活動을 전개하였다.

海軍은 東·西海域을 鐵桶같이 封鎖하는 한편 敵後方시설에 대한 砲擊을 強化하였으며, 空軍은 敵 兵站線에 모든 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前線 增援을 最大限 방해하였다.

海兵隊의 貢土島·胡島·洋島의 3개 전투는 이와같은 我軍作戰에 대한 敵의 報復으로 일어난 전투 였으나 敵은 끝내 成功치 못하고 분쇄되었으며 奸計로 시도하였던 것으로 믿어진 戰線에서의 優位도 결코 達成할 수 없었음으로써 我軍의 作戰上의 主導權은 견재하였다.

특히 期間中에 西南地區에서 跳梁中인 共匪를 격멸하기 위하여 首都 및 제8 兩사단을 抽出, 後方作戰에 轉用하고 短時日內에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冬季作戰에 있어서 我軍의 貴重한 收穫이었다.

1. 第2次 月比山 戰鬪 (1951년 11월 18일부터 / 1951년 11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1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1사단 장 준장 吳 德 俊
제9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제1대대 장 소령 金 用 琳
제2대대 장 소령 林 永 鎬
제3대대 장 소령 全 月 奉
소령 全 禹 榮
(11.20부터)
대전차공격대대
사단 수색중대 장 대위 梁 昶 植
제20포병대대 장 소령 金 一 瀚

배속부대
제5사단 제36연대 장 대령 崔 在 鴻
제10포병대대 장 중령 金 진 도

지원부대
군단 제99포병대대 장 중령 盧 敬 鉉
美 극동함대
제77기동부대사령관 소장 John Parry
병력 : 1,100명
장비 : T/E에 90%유지

敵 軍

北傀 제9사단
제86연대 } 基幹
제87연대 }
제36연대
병력 : 3,622명

장비 :

76mm 직사포	16문
120mm박격포	10문
82mm 박격포	55문
重 기 관 총	76정
輕 기 관 총	145정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은 11월 초 현재로 군단의 左翼으로서 제13연대(장, 崔錫鎬대령)를 右제1선으로, 제1연대(장, 朴元根대령)를 左제1선으로 삼아 主抵抗線을 형성하여 右側의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과 土器店을 制限點으로 相互 連繫하였다.

그리고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를 豫備로서, 光山里부근에 控置한 가운데 美 제10군단의 主보급로

경비와 아울러 사단 側후방에 대한 경계에 임하게 하였는데 그 중 제3대대(장, 金月泰소령)는 제20연대에 배속되어 主陣地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은 戰線의 小康狀態속에 陣地를 보강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不斷한 위력수색을 감행하던 中, 11월 16일부로 白野戰사령부가 創設됨으로써 東海岸戰線을 맡고있던 수도사단이 그 예하의 一員이 되어 戰線을 떠나게 되었다.

이와같은 戰線變動에 따라 사단은 군단으로 부터 『제11사단은 11월 16,17 兩일간에 걸쳐 수도사단의 戰線을 引受하라』는 군단 作指 제154호가 하달됨으로써 수도사단의 戰區까지 병합하여 引受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이 형성하게 될 主抵抗線은 南江 東岸을 沿하여 東海의 海岸線까지를 擔當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새로이 引受하게 된 戰線內에는 全 戰線에서 最北端에 尖端을 형성하는 要衝인 月比山이 있는데, 이는 金日成이가 『金剛山을 빼앗겨도 月比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시사한 바 있었다고하니 그 重要性을 짐작할 수 있다.

본시 이 高地는 北傀 제6군단 예하인 제9사단의 제36연대와 偵察대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것인데 10월 15일에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가 勇戰奮鬪끝에 이를 빼앗은 것이다.(제1차 月比山戰鬪 참조)

그뒤 여기를 빼앗긴 敵은 이것을 再奪還코자 반격을 되풀이 하였으나 그때마다 기갑연대의 頑強한 방어앞에 실패를 거듭하기만 하였다.

즉, 北傀 제9사단의 제87연대는 11월 12일에 △202(月比山 北쪽 4Km)에 반격을 加하였으나 겉반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이어서 同 사단의 제86연대가 이른바 복수전을 감행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큰 타격을 받기만 하고 물러섰다.

이와같이 當面의 北傀가 月比山의 攻奪을 집요하게 꾀는 가운데, 이제 當 사단이 이를 引受하게 되었으니, 敵은 이 새로운 사단이 地形에 익숙하지 못할뿐 아니라 수도사단 보다 戰鬪力이 약한 新編이라는 점과 2개사단이 擔當하던 戰線을 1개 사단兵力으로써 全擔하게 되었다는 취약점을 看破하였을진대 이 好機를 타고 반드시 반격으로써 이 月比山을 奪取하여 그들이 願하는 高城方面의 安定性을 보장받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무렵에 敵은 이미 防寒服을 비롯하여 防寒靴와 防寒帽, 그리고 厚木內衣와 발싸개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장구를 지급 함으로써 越冬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량은 非常用으로 5日分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長安寺와 通川부근에 보급소를 設置한 다음, 중간보급소까지는 자동차 또는 牛馬車로 수송하고 一線까지는 主로 人力으로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士氣는 비교적 良好한 듯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吳德俊준장은 11월 14일 하달된 군단作指 제154호에 따라, 곧 관계참모들을 소집한 다음, 수도사단의 戰區를 引受키 위한 작전회의를 主宰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단장은 제13, 제20 兩연대로 하여금 現 主陣地를 堅守확보토록 한 가운데 豫備인 제9연대로써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引受케 하고, 대전차공격대대(一)와 사단수색중대로 하여금 수도사단 기갑연대가 前進陣地로 확보중인 △36—△187—△149—△261—△月比

山線을 擔當시키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81호(51.11.15부)를 내렸다.

『① 사단은 11월 16,17 兩日동안에 수도사단의 戰區를 引受하려 한다.

② 제9연대는 수도사단의 主陣地를 引受하라.

③ 제13,제20 兩연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전투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라.

④ 대전차공격대대는 11월 16일 09.00부로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여 △37—△187—△149—△261—月比山線의 陣地를 引受하라.

⑤ 수색중대는 11월 16일 09.00부로 대전차공격대대에 배속한다.

⑥ 協調指示

㉮ 각대는 11월 16일 09.00부터 행동개시하여 17일 12.00까지 陣地를 引受하라.

㉯ 각대는 계획된 陣地를 引受함과 동시에 敵情파악에 注力하는 한편 陣地를 보강하라.

㉰ 각대는 교대間 企圖秘匿에 유의할 것이며 相互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⑦ 사단 CP는 계속 光山里에 位置한다.』

이와같은 사단 命令에 따라 各隊는 11월 16일 09.30부터 일제히 躍進하여 각각 계획된 戰區를 引受하기에 이르렀는데,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제26연대의 陣地를, 제2대대로서는 제1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함으로써 다음날인 17일 11.00에는 左인접 제13연대와 連繫하는 戰線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제20연대에 배속중이던 제3대대가 이날附로 原復됨에 따라 이를 豫備로 하여 연대 CP부근에 控置하였다.

이무렵, 대전차공격대대는 배속중인 수색중대로써 高城 3Km南쪽의 △37—△149線의 陣地를 확보케 하여 右제1선으로 삼고 대대의 제2, 제4 兩중대로 하여금 △261—月比山일대에 병력을 전개토록하여 左제1선으로 되게 하였다.

이와같이 各隊가 계획대로 全 지역을 引受하자, 사단은 단독으로 東部戰線을 全擔하는데에 따르는 防守태세의 만전을 期하기에 힘썼다.

그런데 2개사단이 맡았던 戰線을 當사단만으로써 擔當하여야만 하는 까닭으로 사단에서는 수도사단의 기갑연대가 占領중인 最北方線인 月比山일대를 사단 경계부대의 陣地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彼我의 爭奪要點인 月比山일대는 여기에 배치된 대전차공격대대의 제2,제4 兩중대와 사단수색중대의 도합 3개중대로써 1개연대가 맡았던 이곳을 固守하여야 하였으며 더우기 이곳으로 부터 제9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主抵抗線까지는 3~4km의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대전차공격대대와 수색중대로써 堅守不動의 決意아래 見敵必滅을 다짐하는 한편, 四周방어에 전념하면서 月比山일대를 掌中에 넣어 보려는 敵의 主力을 粉碎토록 嚴命

하였다. 그리고 사단 포병과 제10포병대대(17일 17.00부로 배속)로 하여금 火集點 구성을 재검토케 하여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즉각 敵을 殲滅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군단은 육본직할로서 襄陽부근에서 FTC에 임하던 제5사단의 제36연대(장, 崔在鴻 대령)를 16일 12.00에 배속받아 이 연대로 하여금 장차 사단을 增援키로 하였는데, 이때 北傀 제9사단은 11월 18일 日暮와 더불어 月比山일대에 대한 攻勢를 取함으로써 여기에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2) 작전실시

11월 18일 : 전날에 九仙峯(月比山 東北쪽 3.5Km 감湖 北岸)일대의 右제1선진지를 점령한 수색중대와 月比山 일대의 左제1선을 담당케 된 대전차공격대대는 이날 각자의 陣地를 改修하면서 당면의 敵情을 수집하였는데, 敵은 진지공사를 방해하려는 듯 종일 直射砲사격을 집중하였다.

15.00에 月比山頂의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원은 敵兵 20여명이 南江 西岸의 松灘里(月比山 西北쪽 3Km)南쪽에서 下汀月(月比山 西쪽)쪽으로 江을 건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중대원은 이들 敵을 歸順兵으로 誤認한 탓으로 사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歡聲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당시에 歸順兵이 아니고서는 白晝에 유유히 南江을 건넌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江을 건넌 다음에는 그 行方이 묘연하게 되었으므로, 必是 歸順兵이 아니라 偵察兵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를 더욱 엄중히 하였다.

이때 대대는 月比山頂에만 據點防禦에 置重한 까닭으로 南江 沿岸에는 경계線을 펴지않았으므로 山頂과 江岸사이에는 사실상 전혀 無防備상태였던 것이다.

날이 어두어 질 무렵, 중대의 陣前에 架設한 철조망을 切斷하는 듯한 둔탁한 金屬音을 들을 수 있어, 비로소 敵이 攻擊개시에 앞서 突擊路를 개척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敵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直感할 수 있었다.

어둠이 짙어, 스무날의 半月이 中天에 떠오르는 22.20에 드디어 敵의 공격이 시작 되었는데, 이때 敵은 이날 낮에 南江을 먼저 건넌 偵察隊의 誘導로 그들 主力의 일부가 중대의 陣前 가까이에 접근하여 待機한 듯, 그들의 砲兵사격과 동시에 短兵 急히 陣前에 들이닥쳤다

이에 제10포병대대의 105mm와 제96포병대대의 155mm砲門이 일제히 烈火를 吐하여 陣前의 철조망지대의 敵의 豫想 접근路를 차단하니, 이와같은 砲兵의 상호 應戰으로 夜空에 爆炎이 交錯하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중대는 陣前으로 육박한 1개대대 규모의 敵에게 수류탄 洗禮를 加하여 1시간만에 이를 물리치고 말았는데, 이는 敵이 月比山의 방어편성에 대한 探索공격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11월 19일 : 전날밤에 이어 이날도 새벽부터 敵의 공격이 계속되어 九仙峯—月比山의 前

進진지線에서는 進退가 무상한 攻防戰이 반복되었다.

1. 右제1선인 수색중대에서는 00.15에 △149의 제1소대가 敵 1개 소대 규모의 攻擊을 15분간 交戰끝에 물리쳤는데, 04.10에는 △187의 제2소대 正面에 敵 2개소대규모가 나타나 이 高地를 奪取코자 하여 05.00까지 이들 敵과 激戰을 벌인 끝에 이도 擊退하고 말았다.

날이 밝은 다음에는 西쪽의 月比山부근 曉霧속에서 요란한 銃砲聲을 들으며 계속 陣地를 固守하였다.

낮 동안에도 彼我砲火의 聲威가 계속되었는데 18.50이 되자, △149의 제1소대 정면에 1개대대규모의 敵이 殺到하여 陣地를 攻襲하였다.

이에 소대는 渾身의 力鬪로 奮戰하였으나 워낙 寡兵인 탓으로 陣地를 支撐하기 어렵게 되어 19.50에 高地에서 물러나 대전차공격대대 제4중대가 이날 낮에 陣地를 점령한 △208(△149 南쪽 2Km)부근으로 隨意 철수하였다.

이 무렵 그 東쪽 △187의 제2소대와 東海沿道를 확보중인 제3소대도 敵의 强壓으로 말미암아 감湖 南岸으로 轉進케 되어 22.40에 △37(△208 東쪽 1.5Km)—△208間에 새로운 陣地를 점령하였다.

2. 한편 左제1선인 대전차공격대대(—)는 전날밤 한 차례의 狂風을 制壓한 바 있으나 이날 새벽 또 한번 敵의 强襲을 받아 血戰을 치르게 되었다.

즉, 대대규모의 敵이 月比山頂의 제2중대를 공격하는가 하면 수효를 알 수 없는 다른 一團은 △261(月比山 東쪽 1Km)의 제4중대를 壓迫하였는데, 대대는 砲兵지원아래 수류탄 투척으로 이들을 擊退하였으나 東天이 밝을때 까지 전후 다섯 차례나 敵의 공격이 波狀的으로 반복되어 마침내 제2중대원은 탄약이 바닥나고 말았으며 이에 雪上加霜으로 有無通信線이 杜絶되어 砲兵지원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밀려드는 敵勢를 감당키 어렵게 된 중대는 06.00에 高地에서 물러나 09.50에 △351(月比山 東南쪽 2Km)부근으로 철수케 되었다.

이 餘波가 △261의 제4중대에 파급되어 同 중대도 敵의 壓力에 陣地를 支撐치 못하고 11.50에 △208로 철수케 되었다.

그런데 △351로 轉進한 제2중대는 여기에서 미쳐 陣地도 急編하기 전에, 月比山을 手中에 넣은 敵이 그 후속부대로써 兵力을 증강하여 月比山에서의 勝戰여세를 몰아 다시 △351마저 奪取코자 1개대대 규모로 여기를 强襲한 까닭으로, 이것마저 내놓고 11.50에 다시 △339(△351南쪽 1Km)로 한걸음 더 물러서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의 제2, 제4 兩중대가 △261—月比山線에서 △208—△339線으로 물러나 새로이 축차진지를 占領케 되었는데, 이때 전날에 군단指揮所 경계임무에서 해제된 제3중대가 光山里로 부터 03.00에 △37부근으로 급히 달려, 戰線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로써 △351奪還공격을 감행키로 하고, 13.30에 同 중대로 하여금 △

208西麓으로 추진하여 목표高地의 東南쪽 능선을 따라 頂上을 直衝케 하였다.

중대는 때마침 出動한 艦載機 편대의 航空지원과 사단 砲兵의 지원下에 躍一躍으로 능선을 突破하고 頂上을 목표로 急衝과 强襲을 반복한 끝에 15.10에 이를 다시 手中에 넣게 되었다.

3. 이날 前進線에서 이와같이 激突이 벌어지게 되자,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는 △269—△294線에 예비진지를 확보중인 제3대대를 뽑아 前線으로 급히 進出하여 대전차공격대대를 지원토록 措置하였는데, 同 대대(장, 金月峯소령)는 18.30에 △339로 躍出하였다.

11월 20일 : 이날도 前進線에서의 激突相이 전날과 같이 반복되었다.

사단은 19일 15.30附로 배속받은 제5사단 제36연대를 집결지인 光山里로 부터 急히 Cat線으로 推進하여 主抵抗線의 防壁을 증강하였다.

1. 수색중대는 이날밤 21.10과 다음날 새벽 03.20 두차례에 걸쳐 2개소대규모의 敵으로 부터 散發的인 공격을 받았으나 각각 1시간의 交戰끝에 이를 모두 擊退하고 계속 감湖南岸의 陣地를 확보하였다.

2. 대전차공격대대는 奪還한 △351에서 전날 子正부터 敵의 공격을 받아, 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날의 戰況에 대한 記錄이 없어 당시 제2중대장 李寧華중위의 證言을 여기에 옮겨 싣기로 한다.

『이날 제2중대는 △339에 陣地를 계속 占領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351의 제3중대가 敵의 急襲을 받아 激戰을 벌이던 중에, 중대본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同 중대의 제1선에 배치된 제1소대에서 소대장 尹소위가 부상을 입게 되자, 소대본부 요원들이 소대장을 後送하기 위하여 下山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에게 이 事實을 보고치 않았으므로 중대장은 이를 全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소대원들도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소대원들이 한참 싸우다가 소대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그대로 한사람씩 진지를 이탈하여 無斷철수를 하고 말았다.

이때는 負傷者가 한 사람 생기면 2~3名씩이 이를 後送한다고 따라 내려가는 事例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자연히 소대 正面에 虛隙이 생기게 되어 이곳으로 敵이 侵透하여 중대본부를 急襲하게 되었다.

이때 제3중대장 李鍾德중위가 중대본부 요원을 지휘하여 이들 敵과 血戰을 벌이다가, 戰死하게 되어 다음날 01.00에 △351가 敵手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대대장의 逆襲命令에 따라 우리 중대가 그 이튿날 05.00에 同 高地에 대한 逆襲을 감행하여 부상 4명으로 이 高地를 다시 奪還하였는데 이 때에 敵은 그들 시체를 그대로 유기한채 月比山쪽으로 潰退하였다.

08.30에 우리 중대는 이 高地를 다시 再編한 제3중대에 인계하고 다시 △339의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이날 대대가 △351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41명		戰死	9명
鹵獲			負傷	45명
	HMG	1정	失踪	1명
	LMG	2정		
	多發銃	4정		
	小銃	18정		

3. 한편 前進線으로 躍進중인 제3대대는 이날 대대장 全月峯소령이 全禹榮소령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07.00에 △339로 進出하였다가, 09.00에 다시 △351로 전진하였다.

여기서 대대는 대전차공격대대의 제3중대를 배속받아 陣地를 再編케 되었는데, 대대장은 제9, 제11 兩중대를 △351頂上으로 推進하여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와 함께 이를 擔當케 하고, 제10중대를 △339에 控置하여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와 더불어 여기에 豫備진지를 확보케 하여 중심을 강화토록 하였다.

4. 이날 사단은 새로이 戰線에 참가케 된 제36연대(장, 崔在鴻대령)로 하여금 Cat線上에 있는 제9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케 함으로써 사단 主抵抗線의 일부를 擔當케 하였다.

이에따라 제9연대 제1대대는 東海岸의 右제1선陣地를 인계하고, 그 西쪽으로 옮겨 담당正面의 防禦力을 强化하게 되었다.

11월 21일 : 이날 군단장 李亨根소장이 東海岸을 봉쇄중인 美극동함대의 제77기동부대 (사령관, John Perry소장)에 艦砲지원을 요청하여 사단의 前進線에 대한 聲威를 돕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77기동부대의 主力인 구축함의 5" 主砲가 射程미달로 月比山일대에 대한 效力射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巡洋艦의 8"砲의 지원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同기동부대에는 巡洋艦으로서 Los Angeles號(함장, R. N. McFarlane대령) 1척뿐인데, 이것마저 航空母艦을 호위중이므로 이에 轉用이 어려웠다.

사령관 Perry소장은 참모진과 더불어 군단에 대한 이 艦砲支援 문제를 숙의한 결과 이 Los Angeles號를 파견키로 決心하고 이날 즉시 同艦에 高城海域으로의 出動을 命令함으로써 이제 Los Angeles號의 8"巨砲의 威力이 또 한번 南江河口를 뒤흔들게 되었다.

1. 감湖 南岸의 수색중대는 이날 別다른 接敵없이 初冬의 한나절을 보냈으나 23.50부터 敵의 공격이 시작되어 다음날 00.55까지 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무렵에 △351에도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351공격에 대한 陽攻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2. 한편 △351의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는 이날 06.00 未明에 高地를 奪取코자 한 數未詳의 敵과 激戰을 벌여 07.30에 이를 擊退하였는데, 09.30에 高地의 地上觀測所는 月比山에 敵 2개중대규모가 집결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砲兵사격을 요청하여 이들을 殲滅하는 한편 陣地를 강화하면서 戰力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대장 金安一대령은 敵이 月比山에 立脚地를 굳히기 전에 이를 奪還키로 決心하고 먼저 △351의 제3대대로 하여금 이날 밤 18일에 대전차공격대대 제4중대가 잃은 △261(月比山 東쪽 1Km)를 奪還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대대는 19.00에 제11중대(장, 蔡昊柄 중위)로써 목표 △261에 대한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暗夜血鬪를 벌인 끝에, 이를 手中에 넣게 되었다.

그런데 중대가 여기서 미처 陣地를 再編하기 전인 22.25에 2개 중대규모의 敵이 逆襲을 企圖하여 날이 밝도록 激戰을 계속케 되었다.

한편 △351의 제9중대와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도 22.30에 한 차례의 夜襲이 있었으나 이를 擊退하였다.

3. 감湖 南岸의 수색중대陣地의 左軸心이 되는 △208를 확보중인 대전차공격대대 제4중대는 19.45에 敵 2개분대규모의 공격을 받은 바 있으나 5分 뒤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한편 제2, 제10 兩중대가 확보중인 △339에도 子正을 지나면서 그 數爻를 알 수 없는 一團의 敵이 月比山으로 부터 同高地의 西側方으로 迂回하여 急襲코자 한 바 있어 이들과의 수류탄戰을 전개한 끝에 다음날 01.30에 이를 물리쳤으며, 이것은 각각 △261逆襲에 聲勢를 돕기 위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11월 22일 : 이날 종일 雨雪이 霏霏한 가운데 02.30에 高城海域으로 급거 出動한 Los Angeles號의 8"砲로부터 도합 91발에 達하는 制壓射擊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1. 右제1선의 수색중대는 겨울을 재촉하는 진눈개비와 감湖上에 激浪을 일게 하는 세찬 朔風속에서 이날도 계속 陣地를 확보하였는데, 01.50에 陣前을 徘徊중인 1개소대규모의 敵 偵察隊에 鐵火를 퍼부어 02.40에 이를 擊退하였다.

19.00에 1개소대규모와 다시 接戰케 되어 10분간 交戰끝에 물리쳤는데, 20.10에 다시 1개소대규모와 激突하여 20분間 수류탄을 주고 받은 끝에 이들도 擊退하였다.

2. 전날밤에 △261를 奪取한 제3대대(장, 全禹榮소령) 제11중대는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血戰을 전개하던 중 00.10에 다시 증강된 2개중대규모의 强壓으로 01.00부터는 白兵으로써 접전하여 激突케 되었다.

이리하여 07.30까지 彼我 서로 渾身의 力鬪로 공방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나, 중대가 끝내 陣地를 固守함으로써 赴火如蛾格인 이 敵을 모조리 屠戮하고 말았는데, 아침햇살 속에 血火가 더욱 붉게 피어난 戰場에는 敵屍가 累累하고 冬天에는 哭鬼가 啾啾하였다.

여기서 사살 46명과 포로 2명을 사로잡은 중대는 敵 2개중대 규모를 潰滅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당시의 중대장 蔡昊柄중위는 이 激戰相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대대장이 전날 우리 중대로 하여금 △261를 야간공격으로 奪取케 하였는데 나는 중대를 지휘하여 敵 1개 중대규모를 擊退하고 마침내 이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자 뒤이어 敵의 逆襲이 들이닥쳐 밤새도록 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수류탄을 주고 받았으나 새벽이 되니 중대원의 수류탄이 바닥났다.

그래서 나중에는 投石과 銃劍만으로써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도 敵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끝내 이들을 대부분 擊滅하고 나머지는 △149쪽으로 潰走시키고 말았는데, 전투가 끝난 뒤에 병력을 수습하여 보니, 우리 중대도 제1소대 제1분대장 金下士(이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센 까닭으로 「白頭山 분대장」이라고 불렀다) 외 30여명만이 건재할 뿐, 제1소대장 高泰昊소위를 비롯하여 전사 16명에, 중대장인 나와 先任장교, 그리고 제2소대장 金東珍소위 및 제3소대장 金成澤소위를 위시하여 나머지는 전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의 대부분이 敵의 수류탄에 의한 것이었는데 뒷날 중대는 이 戰功으로 花郎훈장 20여개와 美 銀星훈장 3개를 수여받은 바 있다.』

대대는 이날 낮 △351—△261間에 戰線을 再編하였는데, 배속중인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로써 계속 △351을 擔當케 하고, 예하 제9중대를 △351西쪽 능선으로 推進하여 無名高地(△261 東쪽 500m)에 전개하고, 제11중대로써 △261을 확보케 하였다.

그리고 제10중대는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와 함께 △339의 예비陣地를 확보하여 종심을 강화토록 하였다.

11월 23일 : 이날도 東海上의 Los Angeles號의 8″艦砲지원 아래, 수색중대는 감湖 南岸陣地를, 제3대대는 △351—△261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수색중대는 이날 새벽부터 종일에 걸쳐 敵의 偵察隊와 산발적인 交戰을 벌여 이들을 모두 擊退하고, 사살 10명과 다발총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敵의 공격시간별 區分은 다음과 같다.

제1차 : 01.50~02.50
제2차 : 02.00~03.00
제3차 : 20.30~20.40
제4차 : 22.45~23.00

한편 제3대대는 08.00에 제11중대가 확보중인 △261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이를 奪取코자 공격한 바 있으나, 즉각 誘導된 사단 砲兵의 지원 아래 수류탄으로써 4시간 반 동안에 걸쳐 攻防戰을 전개한 끝에 이를 물리쳤는데, 14.50에는 △351北麓에 1개 중대규모가 나타나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 陣地를 노리다가 때마침 지원된 艦砲의 効力射로 그 隻影마저 남기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339의 예비陣地를 확보중이던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는 이날 正午무렵에 捜索組를 月比山으로 보내 敵情을 탐색한 결과, 그 일대에 새로이 集結한 듯한 1개중대규모의 敵으로 부터 완강한 抵抗을 받고 陣地로 反轉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敵이 △351—△261에 대한 奪取企圖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推斷할 수 있었다.

이에 대전차공격대대는 17.10에 사단 지휘소 경계임무에서 해제된 제1중대를 제4중대의 1개소대가 확보중인 △208로 추진하여, 여기의 防禦力을 증강하였다.

11월 24일 : 전날의 冷雨를 얼어 붙게 하는 세찬 北風과 함께 △351—△261를 휩쓴 敵의 强襲으로 말미암아, 前進線에는 또 한차례의 血風이 소용돌이 치게 되었다.

1. 감湖 南岸의 수색중대는 전날밤에 이어 산발적인 敵의 侵襲을 물리치면서 陣地를 계속 固守하였는데, 敵의 企圖는 △351와 △261를 手中에 넣으려는 듯 하여 중대正面의 공격은 이에 대한 견제의 一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대전차공격대대 제2, 제1 兩중대가 확보중인 △208에 敵 1개 중대규모가 奇襲하였는데, 03.00를 前後하여서는 彼我間에 치열한 激突相을 惹起하게 되었다.

敵은 감湖 西北쪽의 △149부근에서 夜暗을 타서 陣前으로 접근한 다음,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중대의 제1선陣地를 突破하였는데 이와같은 急襲으로 창졸간에 陣地의 突破口가 확대됨에 따라 이의 支撐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兩중대는 03.15에 陣地를 물러나 △339의 예비陣地로 隨意철수케 되었는데 이 渦中에서 兩중대는 전사 2명과 부상 2명, 그리고 실종 4명에 경기관총 1정과 SCR—536무전기 1대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이 △208陣地는 07.00에 △339의 제2중대가 여명공격을 감행하여 50분간에 걸친 激戰끝에 07.50에 이를 다시 손에 넣게 되었다.

3. 이리하여 敵의 △208 占有企圖가 無爲로 돌아간채 날이 밝자, 이번에는 敵이 그 공격목표를 △261로 指向한 듯, 同 高地에 敵의 直射砲사격이 집중되었다.

敵은 月比山으로 부터 西北斜面에 마련된 제3대대(장, 全禹榮소령) 제11중대 陣地에 76mm直射砲 1,000餘발을 퍼부어 이를 無力化한 다음 1개 중대규모로써 高地를 奪取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는 사단 砲兵의 集中支援아래 수류탄 攻擊으로 맞서면서 이 敵을 拒守하였는

데 중대는 彼我의 砲火가 高地에 집중하여 爆片이 紛飛하는 가운데 銃劍이 부닥치는 白兵戰을 벌이게 되었다.

전날의 一戰에서 이미 戰力에 많은 減退를 본 바 있는 중대는 敵火의 威力과 數的인 열세를 만회치 못한 까닭으로, 끝내 이를 支撐치 못하여 正午에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가 확보중인 △315로 隨意 철수하였다.

이 餘波로 말미암아 △261東쪽 無名高地의 제9중대도 △351로 철수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병력을 收拾한 대대는 연대에서 급거 지원된 特攻隊와 이날 새벽 △208에서 △339로 集結한 대전차공격대대 제1중대의 增援아래 14.00에 航空지원을 받아 △261에 대한 奪還攻擊을 감행하여 16.10에 이를 다시 手中에 넣게 되었다.

대대는 여기에 곧 陣地를 再編하여 이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날이 저물면서 또 한번 直射砲사격을 앞세운 敵의 攻擊을 받게 되어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敵은 이미 그들이 晝間에 확보한 諸元에 따라, 그들의 全 화력을 집중한 다음 2개대대 규모로써 物量手法을 써서 일거에 이를 略取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261일대는 悲鳴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한 차례의 鐵火가 쏟아지는 決戰場으로 化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대대는 20.20까지 熾烈한 血戰을 계속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끝내 △351로 물러서는 바 되었으니, 두 차례나 主人이 바뀌니 △261는 이날 밤으로 敵의 手中에 다시 넘어가고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사단은 수도사단이 奪取확보한 月比山 일대를 인수한지 8일만에 이를 固守하지 못한채로 敵手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듯 물러나게 된 것을 戰力面에서 볼 때에 수도사단은 당시 한국군중에서 제1급에 속하는 傳統이 있었을 뿐 아니라 1개 연대가 月比山에서 그 北쪽에 이르는 戰線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反하여 사단은 新編인데다가 3개 중대 병력으로 이곳을 인수하는 不利點을 안고 있었던 탓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月比山—△261를 상실하게 되자, 恢復공격을 시도하지도 못한 가운데, 제9연대의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대, 그리고 사단 수색중대를 再정비하기 위하여 부대交代를 실시키로 하였는데, 이는 지난 戰鬪에서 피로한 이들로 하여금 現 陣地를 계속 防守케 한다는 것이 容易치 않은 탓으로 병력부족에 비추어 배속된 제36연대의 제1대대로 하여금 △351일대를 확보토록 하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 그리고 수색중대는 27일 15.00 현재, △37—△208—△339—△351線의 陣地를 인계하고 Tiger線의 豫備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 당시 사단은 可用한 兵力사용이 허용된다면 月比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것은 我軍이 敵에게 比하여 일방적으로 航空力을 保有하고 있고, 地上砲 외에 東海上의 美艦砲를

支援 받을 수 있어 火力面에서 敵을 壓倒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休戰成立때 까지 月比山의 奪還작전은 계획되지 않은채 △351의 攻防戰만이 계속되었다.

이 作戰기간중에 있어서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區分 / 部隊別	戰果								損失		
	射殺	捕虜	歸順	鹵獲					戰死	負傷	失踪
				重機	輕機	多發銃	小銃	手榴彈			
대전차공격대대	707		2			4	12	200	19	53	11
제 3 대 대	341			2	5	6	2	211	26	111	17
수색중대	16	2	3			5	2	8	4	3	
계	1,064	2	5	2	5	15	16	419	49	167	28

(제11사단 전투상보에서)

§參戰者의 證言

◇대전차공격대대 제1중대장 李宰華중위

(1973. 7. 25, 제16연대에서, 대령)

이 전투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首都師團 1개연대가 점령 방어하던 陣地에 정상적인 대대도 아닌 2개중대의 수색중대로써 방어한 것에 처음부터 실패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敵이 侵攻하려는 징후가 보이는데도 사단에서 對備策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실패의 要因이라고 본다.

◇제9연대 제11중대장 蔡昊炳중위

(1973. 7. 27, 제3사단 사령부에서, 대령)

月比山과 △351 중간에 있는 無名高地(△261)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사단에서 보내 준 돼지고기를 먹고 하루를 충분히 휴식하였다. 그리고 야간공격으로써 목표를 탈취 확보하였는데, 全중대사병에게 一階級特進의 榮譽가 주어 질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다.

내가 전투기간을 통하여 느낀 것은 勇猛한 장병이나 부대는 重要전투나 위급시에 꼭 참가시켜 결국에는 戰死하거나 負傷을 입어 빛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 公平하게 參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당시 大隊長 全禹榮소령은 통솔력이 특이하여 부대파악을 철저히 하고 危險地域에는 陣頭지휘하여 부대통솔을 잘 하였다.

◇대전차공격대대 제4중대 제1소대 분대장 金昌福下士

(1966. 4. 6,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에서, 소령)

月比山을 빼앗기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단장 吳德俊將軍이 전원을 집합시켜 일장 훈시를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였다.

그러면서 乾빵을 한봉지씩 주었다.

그 후 △261로 올라 갔는데 敵이 直射砲를 쏘게 되면 우리병사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負傷을 당하였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부상자를 후송한다고 내려가 병력이 모자랐다.

敵은 매일 밤에 공격해 왔는데 우리 대원들은 바스락 소리만 내도 놀래가지고 銃을 마구 쏘아댔다. 이와같이 밤새 銃을 쏘니까 대대본부에서는 왜 銃을 쏘느냐고 야단이였다. 즉, 責任을 추궁하는 것인데 銃을 쏘았으면 죽은 敵의 屍體라도 있어 전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나는 輕機分隊長인데 敵이 공격해 오면 대원들은 싸우지 않고 나한테로 몰려왔다. 물론 新兵들이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敵이 사방에서 신호용 擧銃을 쏘아대니 거기에 질린 것이다. 모두 엎드려 있는데 소대장과 연락병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高地를 또 빼앗기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반격해서 빼앗고 말았지만 올라가 보니까 敵은 죽은 자가 2명뿐이었다.

§ 硏　究

師敎訓 제6호(1951. 11. 29)로 사단장 吳德俊准

將이 지적한 月比山作戰講評의 내용은 要旨 다음과 같다.

1. 初戰인 11월 18일 師團警戒部隊인 戰攻大隊 제2중대는 소수병력과 중화기 없는 소총화기만으로 月比山陣地를 방어하였으며 敵이 대대이상 병력으로써 5차에 걸쳐 치열한 사격下에 내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勇戰감투하여 격퇴하였으나 未明에 이르러 後退命令도 없이 각개후퇴하였음은 금번 작전기간을 통하여 다대한 被害와 惡戰苦鬪를 초래케 하고 작전수행上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

2. 제9연대의 豫備인 제3대대가 戰鬪投入을 위하여 機動한 것은 그 經過가 지극히 遲遲하였으므로 전반작전수행이 지연되고 전투력이 감소되었음. 즉, 19일 제3대대에 일선투입 명령이 내린 다음 대대장 命令수령과 계획 기타로 출발시간이 상당히 늦었고 집결지 도착이 다음날인 20일 03.30, 공격態勢완료시간이 07.00였음.

그간 제3대대 전장병은 야간에 一睡도 못하고 극도로 피로하게 되었으므로 공격력을 喪失하였고 병력손실이 많았음.

3. 제9연대 제3대대 및 戰攻大隊 1개 중대는 11월 24일 無名高地(△261)점령에 있어 14.00에 공격開始, 16.00에 점령하였으나, 再編成 및 陣內편성도중 敵의 逆襲을 받아 간단히 兵力이 붕괴되어 후퇴하였음. 이는 攻擊시간이 지극히 지연되어 병력 再編成과 진지 配備를 實施할 시간적 여유를 得하지 못하였던 것임.

4. 作戰間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지휘의 建制가 문란하였음은 인정하는 바이나 戰攻大隊長이 제3대대병력을, 제3대대장이 戰攻隊병력을 상호 混合지휘하였으므로 통합지휘에 다대한 支障을 초래하였음. 이는 지극히 부당함.

5. 208高地를 점령중이던 戰攻大隊 제4중대(小隊병력)는 11월 24일 03.00 敵 2개분대 來襲에 분산 붕괴 되었음. 여사한 사실은 警戒를 소홀히 한 證左임.

6. 작전간 각급지휘관의 兵力把握이 지극히 不良하였음. 정확한 병력파악을 하지 못함으로써 上級部隊로 하여금 후방지원 및 戰鬪力評價를 불가능케 하였음.

7. 작전간 각종보고 역시 지극히 不良하였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후 早速히 報告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5~6시간이상 지연되는 때가 許多하였음. 이는 상급부대로 하여금 상황판단을 不可能케 한 原因이라고 할 것임.

8. 配屬된 전차소대는 11월 25일 15.00경 敵砲彈 약 50발 落下時 철수하였음은 一線 步兵士氣를 저하시키는 처사임.

9. 戰攻大隊 제3중대는 불리한 戰勢挽回에 중대장 이하 전투하였으며 다대한 犧牲을 무릅쓰고 351高地를 고수하고 침입하려는 敵을 진전에서 강타하였음. 지휘중 영예의 散華를 한 중대장의 전두지휘에 따라 全將兵이 지휘관을 핵심으로 일치단결 勇戰敢鬪하여 我方 차기작전에 多大한 영향을 초래케 함은 散華한 중대장 이하 전장병의 공적은 널리 찬양하는 바임.

제9연대 제3대대 제1중대장이하 전 중대원도 용전분투하였으며 격렬한 수류탄전은 모범적이었음.

10. 사단수색대의 裝備가 미비한 것은 首肯할 수 있지만 중대장 이하 全將兵의 희생적인 勇敢性이 지극히 요구됨.

수색중대라 할지라도 師團警戒部隊의 임무를 가질때는 일반 小銃中隊와 같이 강력히 敵을 저지하여야 함.

11. 금번 月比山攻防戰을 통하여 전투참가부대중 戰攻大隊 제2중대의 無斷後退와 제4중대(1개소대)의 피습으로 인한 후퇴는 臨陣無退의 전통을 가진 우리 花郎師團의 一大汚點임.

그러나 惡天候와 여의치 못한 補給및 不眠不休에도 불구하고 악전고투 敵의 進攻을 완전히 저지하여 敵과 접촉을 항시 유지하였음.

負傷將兵의 약 70%가 수류탄에 의한 破片傷이었으며 貫通傷이 거이 없었음은 왕성한 공격정신과 숭고한 희랑정신의 發露이었음.

2. 949高地 戰鬪 (1951년 11월 17일 부터 / 1951년 11월 18일 까지)

(一名, Gary線 進擊戰)

참조 : 별책부도 제 16 호
상 황 도 제 32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美제9군단	장 중장	William M.Hoge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1대대장	소령	洪 載 翊
제2대대장	소령	宋 奇 德
제3대대장	소령	金 斗 逸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대대장	소령	印 聖 勳
제2대대장	소령	柳 承 源
제3대대장	소령	崔 熙 大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1대대장	소령	林 完 植
제2대대장	소령	朴 哲 遠
제3대대장	대위	金 明 益
배속부대		
제2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제1대대장	소령	金 光 哲

敵軍		
中共		
제68군	장	邱 蔚
제2대대	장 소령	金 同 曾
제3대대	장 대위	崔 孝 三
지원부대		
포병 제27대대	장	
	소령	朴 晶 浩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朴 正 采
美제6戰車대대의 2個중대(美제24사단소속)		
군단의 제38, 제92, 제213 野砲대대		
인접부대		
右인접		
제8사단(一)	장	
	준장	崔 榮 喜
左인접		
美제24사단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敵軍		
제202사단(제605연대 基幹)	장	陳 坊 仁

제204사단(제612연대 基幹) 장 曹 玉 淸

제12군 장 曾 紹 山

제35사단(제104연대 基幹) 장 李 德 生

나. 전투 전의 개황

제6사단(장, 張都暎군장)은 51년 10월에 단행된 秋季작전기간(13일부터 21일까지)중에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의 右翼을 맡아 金城 東南쪽으로 突進한 끝에 任南面 일대의 高地群과 鞠岩山을 略取한 다음, 이른바 Polar線(金城川 江口—松洞里—△645—鞠岩山)上에서 진지를 선정하여 守勢를 취한 가운데 冬季作戰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 2週일 뒤인 11월 초순에 접어 들면서 戰局은 現 戰線을 分界로 하여 終局으로 매듭지워 지려는 趨勢를 보이게 되었다. 즉, 軍에서 秋季攻勢를 계기로 하여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白石山(△1,142)과 斷腸의 능선을 빼앗고, 美제9군단은 鞠岩山—金城—金化의 線까지 擴張하는가 하면 美제1군단(장, J.W. O'daniel 중장)은 Jamestown線(鐵原東北쪽의 中於城—驛谷川—五炭里—高浪浦 北쪽 3Km)까지 躍進하는등 全戰線에서 3~15Km의 敵陣을 휩쓸게 되자, 敵은 에비隊까지 투입하여 戰線을 彌縫하는 동시에 政治協商으로 시간을 얻고자 兩手策을 써서 마침내 10월 25일에 休戰會談의 續開를 보게 되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軍에서 다시 中部戰線의 要域인 五聖山(△1,062)을 略取할 企圖아래 Duluth線(대체로 金城—平康의 線) 進攻計劃의 促進으로 加一擊한 태세를 취하자 守勢에 몰린 그들은 從來의 고집을 굽혀(38°선의 군사분계선주장) 現 接觸線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軍은 11월 2일을 期해 Duluth線 진공계획을 일단 留保하는 한편 政局의 動向을 지켜 보면서 서서히 戰線정리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內在하고 있었다. 곧, 美제9군단의 戰線은 金城을 制壓한데 反하여 제10군단은 아직 文登里—魚隱山(△1,277)線 南쪽에 머물게 되고 보니, 兩군단간의 접경지대인 北漢江上流에 심한 彎曲部를 이루어 필요이상으로 전면이 擴開될 뿐만 아니라 突出한 군단 右翼의 露出로 자연히 脆弱部가 생긴 것이다.

이에 美제8군 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이 彎曲部를 整齊키로 결심하고 兩군단장을 불러 협의한 끝에, 현재 美제10군단의 左翼 先端인 △1,220에서 西北向하여 石葬洞—△903—△949—龍虎里를 거쳐서 鞠岩山으로 이어지는 線까지 새로운 목표를 設定하여 "Gary"線이라 命名함과 아울러 이를 제한 공격키로 결정하였다. 그는 또한 이에 따른 조치로서 15일 12.00附로 兩군단간의 現 전투지경선(北漢江上流에 沿함)을 後洞—石葬洞—遊岩洞—松亭—蘆坪의 線으로 조정하여 이 목표지대를 美제9군단에 編入하는 동시에 美제10군단의 左翼인 제8사단(장, 崔榮喜 준장)에서 제21연대(장, 金富一 대령)를 뽑아 同군단에 배속시켜 주면서 군단장에게 명령하되 『19일 12.00 이전에 공격을 개시하라』고 하였다(註: 육군정기 작전보고 명령문에서).

이에 따라 군단장 Hoge 중장은 當사단으로 하여금 현재 擔當지역의 左端인 汝文里 以西의 접령진지를 美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에 인계하고 새로이 擴張된 右一線으로 主力을 이동하여 제21연대까지 統轄한 4개 연대로서 이 목표를 專擔 공격케 함으로써, 사단은 17일 05.00를 期하여 Gary線 공격을 斷行케 된다.

당시의 敵情을 살펴 보면 이 목표지대에는 中共 제68군(장, 邱蔚) 예하의 제204사단(장, 曹玉淸)이 그 지휘소를 魚隱山에 두고, 제202사단(장, 陳坊仁) 소속의 제605 연대를 증원받아, 대체로 △903—△973—△949—△793—△548를 連하는 Gary線 부근에 主力을 전개하는 한편 北漢江 東畔의 주요高地

에 경계부대를 배치하여 급편방어 태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部隊는 同年 5월 下旬에 新義州로 잠입하여 元山부근에서 東海岸을 경비하다가 10월 10일을 전후하여 中東部戰線에서 北傀 제5군단(장, 중장 方虎山)의 전투地域을 인수한 것인데 一線에 투입된 직후인 10월 중순에 白石山에서 제8사단과의 緖戰에서 一擊을 받고 撤退를 강요당하였다고 하니, 그들 예비대가 보강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들은 여기에서 급편 阻止線을 형성하는 가운데 戰勢의 만회를 꾀해 보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목표지대의 左翼인 北漢江 西岸에는 中共 제35사단(장, 李德生) 예하의 제104연대 소속으로 알려진 대대규모의 병력이 科湖里와 松洞里 일대에 배치되어 江 東쪽의 제204사단과 서로 連繫한 가운데 Gary선상의 一角을 막아선 듯 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兵勢는 도합 8,000명에 達하고, 松亭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진(군단의 航空寫眞 분석에 의하여) 野砲隊가 이들을 지원하는 듯 하였으며, 특히 本전투는 사단 단독으로 진격하는 만큼 左右側方에서 壓力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였다.

한편, 사단은 10월攻勢 직후에 轎岩山을 美제24사단에 인계하고 露出된 군단의 東側方으로 主力을 이동하여,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를 北漢江 西쪽의 登大里 부근에,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를 薦堡와 金城川 於口에, 그리고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를 龍虎洞과 汝文里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던 바, 전술한 바와 같이 15일 12.00附로 제21연대가 배속 됨으로써 現 接觸線에서 4個 연대의 병력으로 공세로 移行케 된다.

당시의 병력현황은 15일 현재 기준하여 編制上으로 보아 장교가 82%에, 사병이 87%선을 유지하고 장비는 銃砲가 100%에, 차량은 80%였다.

또한 지원부대로서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의 직접지원을 비롯하여 군단의 제38, 제92, 제213 野砲대대가 일반지원하고 美제6戰車대대(美제24사단 소속)의 2個 중대 및 군단의 浮橋중대가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UN 空軍의 근접지원을 期待할 수 있었다.

기간중의 기상은 淸明하였으나 13일부터 15일까지 진눈깨비가 내려 山麓에는 약간의 눈이 덮이고 朝夕으로는 안개가 짙어 部隊機動 및 화력지원등에 多少의 지장이 있을 것이다.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장 Hoge 중장은 D일 H시를 17일 05.00로 결정한 다음 大要 아래와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제6사단(제21연대 배속)은 現 접촉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松洞里 東北쪽 1Km의 無名高地一帶), "B"(△629 및 그 西北쪽의 무명고지), "C"(△949), "D"(△903 및 △973)를 탈취한 다음 Gary 線上의 有利한 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② 美제24사단은 戰車 2個중대로써 제6사단을 지원하라.

③ 군단 浮橋중대는 주력으로써 渡河작전을 지원하라.

④ Gary線은 △903(石葬洞 北쪽 1Km)—△973(邊岩洞 西쪽 2Km)—△949—龍虎洞을 連하는 一般線이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東幕洞에 있는 사단 지휘소에서 곧 작

전회의를 개최하여 목표지대의 地形과 敵情을 분석하고 또한 이를 攻略키 위한 부대의 機動과 화력운용등의 諸般計劃을 검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 기동공간이 14Km에 달하는 이 목표지대는 700m내지 900m의 嶮峻한 高地들이 白石山으로 부터 金剛川 江口까지 疊疊할 뿐 아니라, 그 간에 내린 진눈깨비로 고지마다 雪嶺과 滑麓으로 化하여 기동과 보급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둘째 : 江幅이 150m~200m를 헤아리는 北漢江 上流가 목표지대를 南北으로 가로 막음으로 渡河에 대한 사전 對備策이 필요할 것이며,

세째 : 機動路의 제한으로 砲兵運用이 容易하지 않아 主力이 목표선에 다다르게되면 射程이 13~16Km까지 延伸될 것이므로 挺進砲兵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네째 : 제21연대는 主力으로 江 東쪽에 分離되어 있음으로 그 효과적인 運用과 지원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다섯째 : 本전투는 사단 단독작전인 만큼 左右兩側에서의 敵의 威脅이 예상 됨으로 自力으로써 그 掩護策을 강구해야 하는 점등, 몇가지 隘路가 豫見되었다.

이리하여 이와 같은 隘路의 打開策을 모색한 결과, 突破의 强行策을 취하여 主力으로써 敵陣의 核心部를 공격, 작전의 主導權을 잡고 단시일내에 敵의 급편阻止線을 격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즉, 江 以東의 목표 "B" "C" "D"를 9個의 목표로 分割區分하여 3개 연대를 집중시켜 이를 공격키로 하되, 敵陣의 鎖鑰인 △949는 現地의 敵情과 地形에 밝은 제19연대에 포병화력의 優先지원으로 이로 專擔 공격케 하고 그 左右에서 각 1個연대씩 並進하는 동시에 여기에 戰車 1個중대를 分割배속시켜 攻擊力을 강화하고 제21연대에는 重砲중대를 지원, 보강키로 하였다. 또한 渡江연대에는 工兵 1個중대씩 배속시켜 군단 浮橋중대와 협동으로 渡河를 지원한 다음 목표를 탈취하면 障碍物 設置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砲兵대대는 現陣地(外城洞里부근)에서 지원하다가 渡河부대의 進出에 따라 舊垈부근으로 推進키로 하였다.

그리고 江 西쪽에 있는 목표 "A"에 대하여는 現 주저항선을 장악한 예비연대의 일부로써 공격키로 하되 여기에 戰車 1個소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戰車는 江 西畔의 要路에 배치하여 主力의 渡河를 掩護한 다음 계속 목을 지키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단에 重砲와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打擊力을 增强케 하는 등 一連의 腹案을 세운 다음 要旨 아래와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70호를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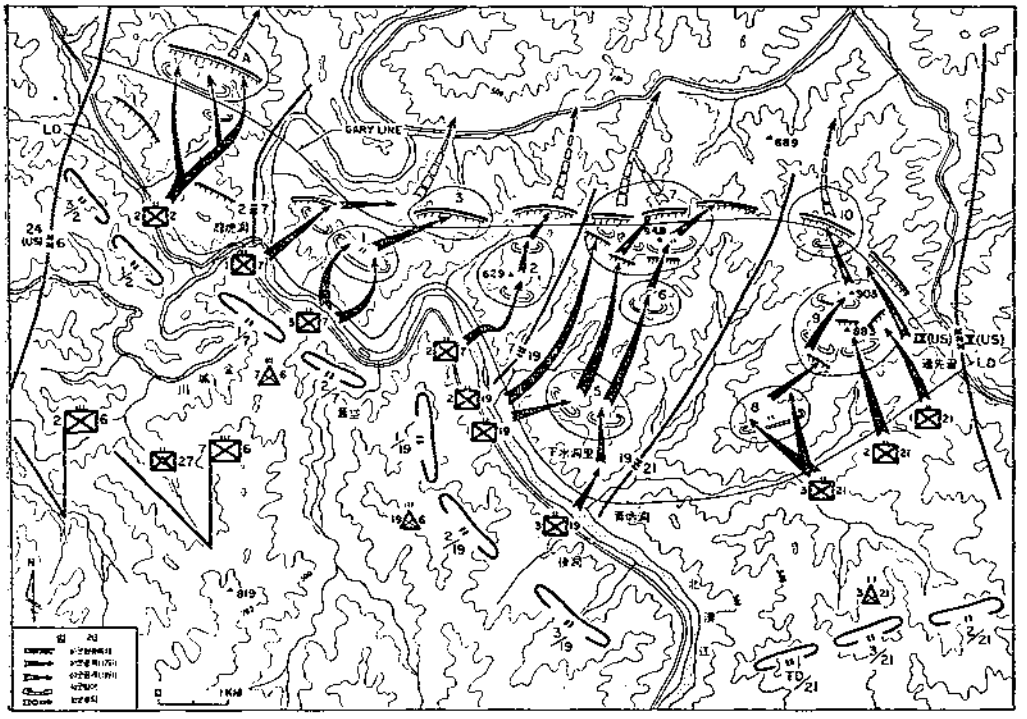
『① 사단은 Gary선상의 목표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1연대(重砲중대 배속)

㉮ 現 接觸線에서 右翼地區를 專擔하여 목표 "8" "9"에 이어 目標 "10"를 탈취하라.

㉯ 공격간 최소 1個 중대로써 東側方을 掩護하라.

◇ 상황도 제32호 Gary線 進擊狀況



③ 제19연대(戰車 2個소대 및 工兵 1個중대 배속)

㉮ 後洞—舊笠間에서 渡河하는 즉시로 목표 "5"—"6"—"7"을 탈취하라.

㉯ 공격간 戰車는 △632를 넘지 않도록 하라.

④ 제7연대(戰車 2個소대 및 工兵 1個 중대 배속)

㉮ 舊笠—金城川間에서 渡河하는 즉시로 목표 "1"—"2"—"3"을 탈취하라.

㉯ 공격間 戰車는 △629를 넘지 않도록 하라.

⑤ 제2연대(戰車 1個중대 배속)

㉮ 主力으로써 現 主抵抗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소 2個중대의 병력으로 목표 "A"를 탈취하라.

㉯ 공격間 사단의 左側方을 엄호하라.

⑥ 제18포병대대

㉮ 공격 全面을 일반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19연대로 指向케 하라.

㉯ 主力으로써 渡河작전을 완료하면 최소 2개포대를 舊笠부근으로 推進토록 하라.

㉰ 공격준비사격 개시는 04.00로 예정한다.

⑦ 공병대대(浮橋중대 배속)

㉮ 제7, 제19 兩연대에 各 1個중대씩 分割配屬하여 渡河작전을 지원케 하라.

㈏ 浮橋警備를 철저히 하라.

⑧ 協調指示

㉮ 戰車의 前進 통제선을 엄수하라.

㈏ 제7, 제19 兩연대는 공격개시 30분전까지 橋頭堡를 확보하라.

㈐ 規定에 준한 對空布板을 標識하되 특히 敵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 步戰協同에 있어서 隨伴 步兵으로써 戰車경비에 任하도록 하라.

㈒ 목표로 탈취하는 즉시로 진지를 구축하되 자동화기 위치는 砂囊을 이용하라.

⑨ 行政事項

㉮ 落伍者 收容線은 黃炳洞—後洞—茜垈를 連하는 線이다.

㈏ 醫務중대장은 後洞에 前方救護所를 설치하라.

㈐ 기타사항은 행정부록을 참조하라.

⑩ 通信事項

㉮ 通信軸線은 東幕洞—外城洞里—後洞을 連하는 線이다.

㈏ 제21연대와는 二回線의 有線을 유지하라.

㈐ 제21, 제19 兩연대間의 有無線의 直接通信을 허가한다.

㈑ 공격개시 전에 無線 사용을 금한다.

㈒ 一切의 火光과 煙焰의 노출을 禁한다.

㈓ 기타 사항은 現行 SOI에 依한다.

⑪ 공격개시 시간은 17일 05.00이다.

⑫ 사단 前方 지휘소는 東幕洞에 위치하며, 사단장은 공격의 進陟에 따라 △949 方向의 陣頭에 설 것이다』

(3) 작전실시

攻擊第一日 (11월 17일) : 전날까지 공격준비를 마친 사단은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로써 現 主抵抗線을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의 3개 梯隊로써 Gary線을 목표로 하는 進擊의 號令을 내려 拂曉機動을 시작하였다. 즉, 05.00에 공격개시선에서 일제히 躍進할 예정으로 대체로 04.00에서 04.30 사이에 각각 집결지를 출발하였는데 東天에는 아직도 曉星이 빛나고 13일부터 계속되던 진눈깨비도 개여서 雪上에 月光이 돼서(月曆 10월 19일 淸明) 기동과 渡河 준비에 지장이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밤을 새워 攪亂사격을 계속한 砲兵 제27대대(장, 朴晶浩 소령)는 04.00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환하여 목표지대에 집중포격을 加하자 군단의 제38, 제92, 제213 野砲대대에서도 이에 協力하여 敵線要部를 風靡하는 가운데 第一線 各부대는 一路 目標를 向하니 殺氣가 이미 秋野를 덮었다.

1. 제21연대의 戰況

사단의 右一線을 맡은 연대는 都皮幕과 廣石橋부근의 집결지에서 04.00부터 대대별로

徒步이동을 시작 하였는데 제1대대는 △938(都皮幕 北쪽 500m)—△903의 軸線을 따라 突進하여 목표 "9"를 탈취키로 하고, 제3대대는 廣石橋—△586의 線을 指向하여 목표 "8"을 손에 넣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 제2대대는 예비로서 현진지를 堅守하는 가운데 別命을 대기케 하는 한편 수색대는 通先골 부근에서 사단의 東側方을 掩護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左·右第一線의 兩대대는 40여분 동안의 도보끝에 목표선에 이르러 進攻태세를 갖추는 즉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는 石葬洞부근에서 제1, 제3 兩중대를 左右梯隊로 전개하고 제2중대는 예비로 後續케 하여 05.00에 △903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山谷에는 夜暗이 짙고 능선은 험하여 조심스럽게 漸進 육박하였다.

이리하여 06.00현재 主力이 石葬洞 北쪽의 無名高地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바로 이 무렵 左一線인 제3중대의 先頭가 지뢰지대에 接觸하여 爆發과 함께 몇 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자 雙方間의 집중사격을 신호로 戰端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야기된 攻防의 대결은 한동안 激突을 보이다가, 날이 밝으면서부터 중화기중대의 81mm 砲擊으로 敵火를 제압하고 지뢰를 제거하면서 근접 突入한 대대는 力攻 끝에 중대규모의 敵을 무찌르고 09.15에 同 無名高地를 탈취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화력을 分配한 대대는 여전히 제1, 제3 兩중대로써 △903를 목표로 怒濤와 같이 쳐올라 갔는데, 이 목표지대는 急峻한 斷崖部가 三面을 에워싼데다 2個중대 규모의 敵이 全面방어 태세로 완강히 버티어 처음부터 치열한 決戰場으로 化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화력증원을 요청함과 아울러, 可用한 銃砲화력의 집중으로 敵線을 강타하면서 무려 6차에 걸친 돌격을 감행하여 한때 그 前方 60m의 거리에까지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한없이 쏟아지는 수류탄 爆發로 말미암아 끝내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日沒과 함께 現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나) 제3대대(장, 崔孝三 대위)는 左第一線을 맡아 제 "8" 목표인 △586를 공격케 되었는데, 04.50에 LD부근에서 제 9, 제11 兩중대를 左右로 전개하고 제10중대는 예비로써 대대 OP(廣石橋 西쪽 1Km의 無名高地) 前方의 標高 400 능선일대에 대기시킨 가운데 05.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右一線인 제9중대가 목표의 東斜面에서 突出된 능선을 오를 무렵인 05.30에 敵의 砲擊이 중대의 진출 先端에 집중되더니 이어서 同능선에서 소규모의 敵이 進路를 가로막아 최초의 一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敵手가 되지않는 警戒組 정도의 것으로 20분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殲滅한 다음 목표의 東南쪽으로 突入하였는데, 이 무렵 左一線인 제11중대는 목표의 西南쪽 능선에서 치열한 激戰을 펴고 있었다. 이에 중대는 敵陣의 東側部를 掩襲코자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2個 소대규모의 敵이 발악하여 指呼之間에서 수류탄 대결로 번

져갔다.

이와같이 兩중대가 06.30부터 집중공격을 加하였는데 敵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2시간 동안의 力攻에도 不拘하고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이 高地는 사단과 接한 戰線中에서 最南端에 있는 까닭으로 이를 확보치 않으면 戰術전개에 있어서 側面陸地에 대하여는 不利點이 있으므로 優先 탈취가 要望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대로써 중강키로 결심하고 연대에 이를 보고함과 동시에 제10중대로 하여금 急遽 黃炳洞 쪽으로 迂回하여 敵陣의 西側背를 강습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포격의 증원과 더불어 공격隊列에 加擔한 同중대는 09.20에 敵陣의 腹背를 急襲하고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前記 兩중대가 正面에서 돌파를 강행하니, 그토록 집요하던 敵線에 混亂이 야기되어 10.10부터 戰線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놓칠세라 대대는 主力으로써 돌격을 감행하여 10.40까지 擊滅戰을 편 끝에 많은 전과를 거둠과 아울러 이 高地를 완전히 掌中에 넣었다.

여기에서 대대는 11.00부터 추격전을 폈는데, 제10중대를 다시 예비로 돌려 이 高地를 掌握케 하고 제9, 제11 兩중대로써 聲勢를 높여 △883를 목표로 東北進 하였다.

이리하여 伏至洞 東쪽능선을 따라 돌진한 兩중대는 彷徨하는 敵을 剔抉하면서 계속 진출한 끝에 15.00현재 목표西쪽 700m에 이르러서 제9중대는 그 南쪽으로, 제11중대는 그 西斜面으로 각각 突入하여 집중공격을 加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대규모의 敵이 東西로 陣을 치고 완강히 버틸뿐만 아니라, 제1대대의 不振으로 말미암아 △903의 무리들과 서로 連繫하는 가운데 固守태세를 취함으로써, 尺進寸退도 없이 몇 차례의 激戰을 거듭하다가 날이 저물자 現地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四周경계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예비로서 都皮幕부근에서 주저항線을 장악하고 있던 바, 이날 10.20에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의 제5연대(장, 蔡命新 대령)가 陣地를 引受次로 進入하여 진지를 인계하였는데 이는 제8, 제7兩사단이 11월 20일附로 부대交代 명령을 받고 그 선발대인 제5연대가 16일부로 제8사단에 배속되어 진지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當연대가 먼저 現주저항線을 인계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는 13.00까지 陣地交代를 마치고 15.00에 石葬洞으로 前進하여 다시 예비로 대기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23.00에 연대장으로 부터 『明日 △903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要旨의 준비명령이 하달됨에 따라, 대대는 여기에서 右一線의 공격隊列에 加擔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라) 다른 한편, 연대의 수색중대(장, 金鳳棲 대위)는 △983에서 通先골에 이르는 東側方의 진지를 堅守하는 가운데 岩洞부근까지 위력수색을 전개하여 사단의 右翼을 掩護하였

는데, 특별한 敵情이 없이 15.00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15.40에 主力을 通先골 北쪽의 無名高地로 前進시킨 다음 다시 여기에서 병력을 배치하여 계속 側方경계에 任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이날 공격에서 제"8"목표를 탈취한 다음 21.00부터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는데, 浪龜尾(長坪里 西南쪽 4Km)에 있는 연대 지휘소에서 집계한 이날의 종합 전과와 손실을 보면, 敵 射殺 111명과 捕虜 8명을 비롯하여 82mm박격포 2문과 60mm 박격포 2문 및 LMG 4정에 小銃 27정등을 노획하였으며 연대에서도 장교 1명을 포함한 15명이 戰死하고 78명이 戰傷을 입었다.

2. 제19연대의 戰況

中央一線을 맡은 연대는 後洞과 △641(舊垈 東쪽 1.5Km) 부근에서 北漢江을 건너 목표 "5"(△632 및 △615 부근), "6"(△949 南쪽 1.5Km의 高地群), "7"(△949 및 그 西쪽능선일대)을 공격키로 하였는데, 특히 제7목표의 △949는 敵의 核心部로 판단되었으므로 여기에 공격의 중점을 두었으나, 이 목표까지는 東北쪽으로 5Km의 敵陣을 뚫는 山岳機動을 要할 뿐만 아니라 당장 渡河작전이 先行되어야 하는만큼, 우선 前進基地를 확보하는데 主眼하여 主力으로써 제5목표를 先取키로 결정한 다음 이날 拂曉에 渡河작전을 시작하였다.

즉, 전날 17.00에 연대 OP를 △780(水串地 東쪽 1.5Km)에 開設하는 즉시로 제2대대를 北漢江 西畔으로 20.00까지 推進하여 掩護陣地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제3, 제1 兩대대를 後洞과 舊垈부근으로 각각 집결시켜 渡江태세를 갖추게 한 다음, 深夜를 도와 對岸上에 교두보를 확보케 하여 이날 04.00에 渡河작전을 시작한것이다.

가) 제3대대(장, 金明益대위)는 이날 02.00를 전후하여 대대 수색대로써 江 東쪽의 三幕골 부근에 橋頭堡를 확보한 다음 04.00부터 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특별한 敵情이 없이 제10, 제11, 제9중대 順으로 건너자 곧 제9중대를 △319(黃炳洞 뒷산)에 남겨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主力으로써 △632(제5목표의 南쪽 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右一線인 제10중대는 黃炳洞 계곡을 따라 東南쪽으로 躍進하고 제11중대는 바로 水洞里 뒷산으로 뛰어 올라서 그 西南쪽 능선으로 急攻하였는데 09.30 현재 兩중대가 그 中腹을 넘어서려 할때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一時에 발악하여 彼此間 서로 격돌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北漢江 西畔(後洞부근)에서 지원하는 戰車砲의 掩護下에 집중공격을 加하였으나 집요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激戰이 전개되다가, 10.40에 UN空軍의 F-51 戰爆機 1個 편대가 나타나 10分동안에 걸친 機銃掃射로써 敵陣을 강타함에 呼應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마침 左第一線인 제1대대의 先鋒이 그 背後로 돌입하여 退路를 막으려 하자 敵陣이 비로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포착한 대대는 제11중대를 선두로 敵線을 强襲하여 50여분동안에 걸친 격멸

戰을 편 끝에 11.40에 이 목표를 탈취함과 아울러 그 일대의 鮮血에 뒤덮인 敵陣을 누비면서 80명을 사살하고 投降하는 者 52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60mm 박격포 3문을 비롯한 기관총 4정과 소총 22정등을 노획하였으니, 再起不能하리만큼 殲滅的인 痛擊을 加한 것이다.



<최종목표 공격을 준비하는 제19연대>

이렇듯 緖戰에서 氣焰을 높인 대대는 제5목표 일대를 완전히 掌中에 넣은 다음 13.00부터 다시 제6목표를 노려 공격을 再起하였는데, 이번에는 제11중대를 現地에 남겨 예비로 控置하고 제9, 제10 兩중대로써 疾風을 따라 東北쪽으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가 伏至洞 北쪽에 無名高地(제6목표의 南쪽 高地)를 오르려 할 때 소대규모의 敵이 진로를 막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지연전을 펴려는 경계병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一擧에 이를 撲滅한 다음 제6목표의 兩능선을 누벼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상외로 敵勢가 경미하여 손쉽게 이 목표를 掌握하게 되자, 이를 연대에 보고 하였던 바, 연대장으로부터 『제3대대는 계속하여 △949의 東側으로 공격하라』는 要旨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는 연대의 主力이 이미 同高地의 西南쪽 능선일대에서 격전을 펴고 있는 터이라 대대를 이와 협동케 하여 이날 안으로 최종목표(제7목표)를 탈취하려는 연대장의 강력한 조치였던 것이다.

어떻든,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여기에서 다시 主力으로써 △949의 東南쪽으로 躍進하였는데, 장병 모두가 疲勞를 잊고 용약진출하여 목표 東南方 800m까지 이르자 2개중대 규모의 敵이 가파른 능선을 끼고 銃砲화력을 同時에 집중하면서 발악하여, 이로부터 彼我의 主力이 서로 正面으로 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力攻을 거듭하였으나, 全面방어태세로 집요하게 버티는 敵勢도 완강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突擊에도 불구하고 24.00에 이르기까지 戰況의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에 장교 1명을 포함한 42명의 死傷者를 내는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短兵戰을 계속하여 다음날 02.00에는 그 8部능선에서 수류탄의 競合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끝내 이 線을 突破하지 못한채로 本陣으로 물러서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산발적인 사격만을 계속하였다.

나) 제1대대(장, 林完植소령)는 이날 04.00에 舊堡 東쪽에서 제2중대를 선두로 하여 제1, 제3중대의 順으로 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대대의 최초목표는 제5목표의 主峯에서 西北쪽으로 700m 떠러진 無名高地이다. 즉, 제5목표를 우선 탈취하여 前進의 발판을 확보하려는 연대에서, 이 高地를 대대의 최초목표로 지정 함으로써 대대는 이를 점령한 다음 主峯(제5목표)의 西側背를 공격키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主力이 江을 건너자 제3중대를 江畔陣地에 남겨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제1, 제2 兩중대로써 05.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夜暗을 도와 左右側方에서 포위권을 좁히면서 점차 진출하다가 그 中腹에서 數米詳의 敵과 부딪쳐 一戰하게 되었으나 07.15에 이를 一蹴한 다음 계속 突進하여 08.00에는 목표의 兩側方에서 대체로 100내지 150m의 거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서 突然 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격돌을 보게 되었으니, 攻者와 防者는 至近거리에서 승패를 決하게 되고 특히 대대는 지형상의 불리함을 안고 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渡江지점 西畔에서 지원하는 戰車砲의 위력과 誘導된 81mm박격포의 効力射에 의하여 敵火를 제압하면서 2시간餘에 걸친 力攻끝에 드디어 이를 陷取함과 아울러 敵의 銳氣를 꺾고야 말았으니 이 때가 10.20 이었다.

이렇듯 최초목표를 탈취한 대대는 곧 제5목표의 北쪽 溪谷으로 潛入한 敗敵을 쫓아 추격전을 폈는데, 여기에서는 敵勢가 微弱하여 거의 無人之境으로 진출하던 바, 이무렵 右第一線인 제3대대가 목표를 완전히 掌握함에 따라 연대에서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즉시 △949로 躍進하여 그 西南쪽 능선을 공격하라』는 內容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12.30에 主力으로써 △949를 목표로 일제히 약진하였는데, 15.00 현재 제1중대는 목표의 西南쪽 700m에, 제2, 제3 兩중대는 그 西쪽 1Km線에 각각 진출하여 3個중대가 동시에 목표의 西斜面을 찌르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대는 決戰태세로 들어가 可用한 모든 화력과 白兵力을 다하여 雄雄을 다투었으나, 증강된 중대규모가 堅固한 진지에 의지하여 완강히 버틸뿐만 아니라 敵의 砲撃이 또한 集注하여 突破의 好機를 얻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急峻한 岩壁에 어둠이 덮이면서부터는 發惡이 더욱 심하여 진전없는 火力戰만이 咆哮하였다.

이러한 難境속에서도 야간 전투를 强行하여 深夜를 도와 夜襲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敵線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다음날 새벽까지 交戰이 계속되었다.

다) 제2대대(장, 朴哲遠소령)는 이날 새벽에 北漢江 西쪽에서 연대 主力의 渡河를 엄호하다가 渡河작전이 끝나자 △641(水串地 東北쪽 1.5Km) 부근에 집결하여 서서히 江을

건너서 後續태세를 취하였다.

즉, 제1대대의 渡江線을 따라 08.20부터 제7중대를 선두로 하여 제6, 제8중대의 順으로 11.00까지 江을 건넌 다음, 제1대대의 展開線인 溪谷 於口에서 다시 집결 대기하였다.

그런데 12.30에 연대장으로부터 『左一線으로 突進하여 △949의 西北능선을 공격하라』는 要旨의 명령이 하달됨에 따라 곧 陣容을 거두어 13.00부터 제1대대의 뒤를 이어서 공격一線에 參加하였다.

이리하여 16.00 현재 제5, 제6 兩중대로써 제1대대의 공격線 西側에서 △949의 西쪽 능선을 공격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또한 2個중대 규모의 敵이 완강히 버티어 戰線이 固着된채로 격전을 거듭하고 있던 바, 21.00에 다시 연대장으로부터 『側方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제7중대를 △629의 東北능선으로 推進배치하여 敵의 역습에 대비하는 가운데 主力은 밤이 깊도록 接戰을 계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최초목표를 손쉽게 탈취함에 따라 최종목표인 △949를 노려 야간공격을 단행하였으나 특별한 情勢의 變動이 없는 가운데 子正을 넘고 새벽이 되어도 戰線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문채로 交錄만이 계속되었다.

3. 제7연대의 戰況

연대는 薔垈와 金城川 江口 사이에서 北漢江을 건너 목표 "1" "2" "3"을 탈취키로 하였는데, 이 목표지대는 三面이 江으로 에워싸인 突出部인데다 江岸의 地勢가 또한 斷崖와 絶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進路가 한정되어 부대기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격 軸線은 대체로 2Km를 넘지 않아 敵으로서도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西側의 突出部는 背水陣을 치고 있는 形勢여서 결코 攻者에게만 불리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여기를 攻略함에 있어서는 최초목표의 탈취 如何가 곧 승패의 關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우선 목표 "1"과 "2"를 중점적으로 공격하여 前進基地를 확보한 다음 戰況의 進展에 따라 제3목표를 圖謀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제2, 제3 兩대대에 戰車 1개소대씩을 分割배속시켜 前記 兩목표를 탈취토록 하는 한편 제1대대는 主力을 掩護하다가 適時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도록 待機케 하고 可用한 모든 火力을 여기에 집중지원토록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대대에서 수색대를 선발하여 渡河開始 한 시간 전까지 橋頭堡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대에서는 대체로 02.00에서 04.00사이에 각각 중대규모의 수색대로써 接敵없이 교두보전지를 점령하고, 戰車중대(一)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戰術配置를 마친다음 드디어 04.20 부터 强行渡河를 시작하였다.

가) 제2대대(장, 柳承源 소령)는 薔垈 東쪽의 집결지에서 제7중대를 선두로 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當面의 목표는 江岸이 거의 岩壁으로 가로 막혀서 東側의 단일 기동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渡江하는 즉시 逐次 진출하여 전투전개토록 하였던 바, 순조롭게 進陟을 보여 主力이 LD 부근에 이르게 되자, 제6중대를 現地에 남겨 江岸陣地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 5, 제7 兩중대로써 △629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夜暗을 도와 목표의 東側 溪谷으로 올라갔는데, 先頭인 제7중대가 목표 東南쪽 600m에 있는 無名高地를 지날 무렵인 05.40에 20여발의 敵의 박격포탄이 진출線 일대에 집중되고 또한 西側方에서 자동화기를 비롯한 一團의 小銃 側射화력이 불을 뿜어 進出先端을 위협하였다.

이에 중대는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곧 進路를 바꾸어 同 無名고지의 南斜面으로 쳐 올라 갔는데, 아직 山麓에는 어둠이 짙어서 炸裂하는 砲火속에 敵勢를 확인키 어려웠으므로 彈着點을 좇아 敵陣 가까이 포복 전진한 다음, 黎明과 더불어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頂上에 뛰어올라 敵陣을 휩쓸고 보니 예상외로 이들은 소대규모의 경계병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즉시 △629의 正南方을 向하여 突進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제5중대도 또한 제7중대의 공격선을 超越하여 계속 東北進하다가 07.10에 同高地의 東南쪽 능선으로 돌입하여 협동공격을 시작하였으니, 이로부터 兩중대는 목표 제2를 겨누어 突進케 되었다.

그러나 이 목표지대는 제19연대 正面의 △949와 함께 東西로 連한 敵의 主抵抗線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기에서 물러 선다면 松亭—漁雲里 사이의 道路 北쪽으로 撤退를 면치 못할 지형상의 要衝인 까닭으로, 敵도 또한 여기에 화력과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固守태세를 취함으로써 彼我間에 主力으로써 生死를 결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시간 동안의 力攻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8部능선에서 교착된 戰線은 아무런 進展없이 劫火에 휩싸였으며, 攻防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하여지기만 하였다.

이렇듯 끝없는 激突속에서 死傷者만이 늘어가자, 대대장은 戰力을 더욱 증강키로 결심하고 예비인 제6중대로 하여금 목표의 西斜面으로 急進하여 그 腹背를 挾攻토록 大號一番하는 동시에 戰車砲를 비롯한 可用한 모든 화력을 여기에 집중토록 조치하여 決戰態勢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10.10에 제6중대가 공격대열에 加擔함을 계기로 하여 대대는 主力으로써 戰車砲의 지원下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로부터 20여分이 지난 10.35에 UN 空軍의 F-51 戰爆機 4대가 나타나 10분 동안에 걸쳐서 對地공격을 加하자 장병들은 銳氣를 더하여 步戰砲空의 협동으로 10.50에 돌격을 감행한 끝에 드디어 敵線을 돌파함과 아울러 많은 전과를 거두고 제2목표를 탈취하였다.

그 뒤로 대대는 11.15부터 추격전을 전개하여, △629의 嶺峰을 넘어선 제7중대는 東北쪽으로 전과를 확대하고 제5, 제6 兩중대는 그 北쪽 능선으로 휘몰아 부근 일대를 휩쓸었다.

그런데 바로 이무렵 연대장으로부터 『대대의 進出先端에 赤色煙幕으로 신호하라』는 지

시가 떨어졌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각 중대에 지시하였던 바, 12.10에 신호가 올랐는데, 右一線인 제7중대는 △949 西쪽 1.5Km 부근(제19연대와의 接境線)에 이르렀으며 제5, 제6 兩중대는 △629 北쪽 1.3Km의 線까지 진출하였으니, 대대는 사실상 當面의 Gary線과 그 北쪽의 要域을 모두 확보한 셈이었다.

여기에서 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追擊을 멈추고, 15.00부터 제5, 제7 兩중대로써 Gary 線上에서 陣地工事에 착수하는 한편 제6중대로써 陣前의 敵情을 탐색하다가 17.00에 수색대를 복귀시키고 防守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나) 제3대대(장, 崔熙大 소령)는 △462(연대 OP) 東쪽에서 江을 건너 제1목표(△548 일대)를 공격케 되었는데, 이 渡江線 역시 對岸이 절벽으로 가로 막혀 直路로는 진출키 어려웠으므로 제10, 제11 兩중대를 먼저 渡河시켜 목표의 兩側方으로 分進공격케 하는 한편 제9중대는 예비로써 右一線중대를 後續토록 조치하였던 바, 接敵없이 渡河작전을 마친 다음 예정시간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06.30현재 대대는 목표의 東西 兩側方에서 대체로 500m의 거리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 敵影이 보이지 않더니, 右一線인 제10중대의 선두가 그 南쪽 溪谷으로 돌입함과 때를 같이하여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추산되는 敵이 南쪽으로 뻗어내린 두 능선에서 一時에 기관총을 집중하면서 側背를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한때 指揮系統이 마비되기도 하였으나 중대장은 곧 이를 수습한 다음 西쪽 능선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하면서 쳐 올라갔다.

이와는 달리 左一線인 제11중대 正面에서는 地勢가 험한 때문인지 비교적 敵情이 경미하여, 金城川 於口에서 지원하는 戰車소대의 掩護下에 계속 약진한 끝에 07.00을 전후하여 그 中腹을 넘어선 다음 全力으로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증강된 소대규모의 敵이 발악하여 40여분 동안에 걸친 紛戰을 벌인 바 있었으나, 07.50에는 마침내 이를 覆滅함과 아울러 △548를 掌握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背後에 대한 急襲으로 말미암아 敵線에는 混亂相이 야기되어 제10중대 正面의 敵이 戰線을 이탈하기 시작하자, 이로부터 兩중대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급히 追擊하여 곳곳에서 抗拒하는 무리를 盛殺하면서 東北쪽으로 돌진한 끝에 09.00에는 제3목표(△629 西南쪽 1.5Km의 無名高地一帶)의 西南쪽으로 접어 들었다.

바로 이때에 연대에서 다시 『제3목표를 탈취하라』는 要旨의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대대는 여기에서 일단 追擊을 멈추어, 이번에는 제10중대를 예비로 돌려서 제1목표를 확보케 하고, 지금까지 예비이던 제9중대를 右一線으로 急進시켜 목표의 南쪽 능선에 전개한 다음 09.30에 공격개시 신호를 올렸다.

그런데 이 목표지대에서는 대대규모의 醜敵이 橫軸으로 뻗어내린 急峻한 地勢를 이용하

여 陣容을 형성한 가운데 分散병력을 收容하면서 완강히 버티어 좀처럼 突破의 好機를 얻지 못한채로 11.00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交戰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연대의 主力이 戰線을 장악하여 작전을 主導하는 터이라 모든 지원화력이 여기에 집중하고 또한 제1대대가 공격대열에 가담하여 목표의 西南쪽 능선으로 突入하였으며, 특히 제3대대의 急速진출로 말미암아 退路가 차단되기에 이르자 敵은 正午에 가까우면서 부터 退路를 모색코자 血眼이 되었으나, 이 好機를 놓칠세라 제3, 제1 兩대대는 主力으로써 제3목표를 탈취함과 아울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대대는 당면의 Gary線上의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나 13.20부터 제9, 제11 兩중대로써 陣地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10중대에서 일부병력을 차출하여 陣前의 敵情을 살피게 하였다.

다) 한편 제1대대(장, 印聖勳 소령)는 연대의 예비로서 金城川 於口에서 待機하고 있던 바, 08.30에 연대장으로부터 『즉시 渡河하여 江岸을 수색하면서 제3목표의 西側으로 공격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고 急遽 공격대열에 가담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3 兩중대로써 江 東쪽의 無名高地(△548 西北쪽 1.2Km)로 指向하여 위력수색을 펴면서 약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소대규모의 敵이 산발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이들은 退路를 잃은 듯 하였으므로 一擊으로 殲滅한 다음 11.20에 목표의 西側능선으로 突入하였다.

특히 제1중대는 선두에서 溪谷을 넘어 敵陣으로 육박하자 敵의 박격포탄 10여발이 진출 先端에 집중되고 수류탄이 빗발쳐서 몇명의 死傷者를 내기도 하였으나 이에 굽히지 않고 계속 突進하여 목표의 西北능선을 탈취하는데 殊勳을 세웠다.

여기에서 대대는 다시 東北쪽으로 進攻하려 하였는데, 이미 제3대대가 목표의 主峰을 攻陷함에 따라 연대장의 지시로 공격을 멈추고, 主力을 反轉하여 제3, 제2 兩중대로써 江岸에서 陣地工事에 착수하였으며, 그 동안 제1중대는 부근에서 방황하는 殘敵을 撲滅하면서 前記 無名高地로 돌아와 대대의 예비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공격 첫날에 Gary線上의 목표를 모두 탈취하는 가운데 防禦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 종합된 전과와 손실을 보면, 141명의 敵을 사살하고 13명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82mm 박격포 2문을 비롯하여 60mm 박격포 3문과 Cal 50 기관총 1정 및 LMG 5정에 소총 21정등을 노획 하였으며, 연대에서도 19명이 전사하고 86명이 부상을 입었다.

4. 제2연대의 戰況

연대는 現 主抵抗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목표 "A"를 공격케 되었는데, 사단의 主陣地는 北漢江 西쪽의 遲財谷에서 金城川 北쪽의 汝文里에 이르기까지 거의 14Km에 達함으로 主力으로써 이를 掌握하면서 일부의 병력을 뽑아 "A"목표를 탈취키로 하였다. 즉, 責任戰

術지역의 3分之 2가 넘는 江畔陣地는 제1대대(장, 洪載翊소령)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여기에 제2대대의 일부를 증원시켜서 戰車중대와 협동하여 要所에서 據點防禦태세를 취하게 하고, 金城川 北쪽의 高地群은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가 맡도록 하는 동시에 목표 "A"에 대한 공격임무는 제2대대(—)로 하여금 專擔케 하여 여기에 戰車 1個소대를 배속시켜 협동공격토록 조치하였다(연대作命 제176호로써 後達).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지원병력(제5중대의 1個소대 및 제6중대의 1個소대)까지 統轄한 대대의 主力으로써 전날 12.00까지 △833—△780—舊垈—△462線에서 陣地編成을 완료하였으며 제3대대는 거의 같은 時刻에 汝文里—執室里 부근의 진지를 제7연대로부터 인수하였다. 제2대대(—)는 宋奇德대위의 지휘아래 그동안 龍虎洞으로 집결하여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이날 05.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윽고 戰車소대의 掩護下에 一路 목표 "A"를 向하여 躍進하였다. 이때에 右一線인 제7중대는 龍虎洞 東北쪽으로 돌아서 목표의 東斜面을 공격키로 하고 제6중대(—)는 松洞里 뒷산의 중간목표를 탈취한 다음 그 西南쪽 능선을 圖謀키로 하였으며 제5중대(—)는 그 西斜面에 따라 공격키로 하였다.

07.00 현재 左·右一線은 목표線에 거의 이르렀으나 제6중대(—)는 중간목표 지대에서 소대규모의 敵과 부딪쳐 一戰을 보게 되자, 09.10부터 이들이 撤退하려는 徵候를 보이므로 중대(—)는 强襲돌격으로 이를 覆滅한 다음 聲勢를 더욱 높이면서 지시된 공격軸線을 따라 목표"A"의 西南쪽으로 突入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主力으로써 목표 "A"를 집중적으로 공격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완강히 버티어 勝負를 걸고 彼我간 對決케 되었으니, 正午가 넘도록 판가름이 나지 않고 서로의 銃砲화력이 치열하기만 하였다.

이렇듯 3시간이 넘도록 激戰이 계속되다가 戰車소대가 松洞里 고개를 넘어서 근접지원을 시작한 12.40부터 戰況이 急轉하여 敵의 화력 據點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를 틈타서 右一線인 제7중대가 13.10에 敵陣의 左肩部를 돌파함을 계기로 하여 主力으로써 正面돌격을 강행한 끝에 14.00까지 158명을 사살하고 24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60mm박격포 4문과 기관총 5정 및 각종 小銃 38정등을 노획하고 목표"A"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렇게 猛戰力攻을 하는 동안에 대대에서도 장교 1명을 포함한 19명이 戰死하고 46명이 戰傷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Gary 線上의 목표를 모두 장악하게 됨에 따라 곧 主力으로써 江岸에서 △663를 거쳐서 松洞里 北쪽 계곡에 이르기까지 부근 일대에서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제7중대의 일부로써 △472 및 科湖里 부근까지 敵陣 깊숙히 위력수색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陣前에는 敵影이 보이지 않고 수색隊도 18.00에 복귀하여 특별한 敵情이 없는 가운데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무렵 연대의 主力도 또한 특별한 변동이 없이 최초의 배치선에서 야간경계에 任하였

으니, 이로써 연대는 現陣地를 확보한 가운데 Gary 線上의 "A"목표를 탈취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掩護하게 되었다.

攻擊第二日(11월 18일) : 사단은 左一線의 戰況이 크게 進展됨에 따라 可用한 모든 화력을 △949를 비롯한 右一線으로 집중케 하여 이날 안으로 목표선을 攻略키로 하였다. 그러나 徹夜격전을 펴고 있는 △949의 戰況이 如意치 못하고 제21연대의 正面에서는 敵의 반격이 試圖되는 등, 그 저항양상이 또한 만만치 않자, 사단장은 군단 砲의 화력지원과 空軍의 근접지원등으로 敵陣의 破壞 및 예상되는 敵의 增援을 牽制토록 措置하는 한편 제19, 제21 兩연대로써 공격을 펴서 기필코 계획대로 Gary 線上의 목표를 탈취토록 박차를 가하였다.

1. 제21연대의 戰況

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전날 進出線(△903 南쪽 300m—△883 南쪽 500m—伏至洞)에서 제1, 제3 兩대대로써 급편 陣地를 점령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 이날 拂曉에 數未詳의 敵이 夜襲을 감행하였다.

즉, △903에서 떼를 지은 敵이 03.30에 제1대대의 陣前으로 침공하여 특히 左一線인 제3중대의 陣地를 집중적으로 突破코자 奇襲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903의 敵과 指呼之間에서 對峙하고 있던 同중대는 局地경계組로부터 敵侵보고에 接하자 곧 砲擊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敵이 陣前에 近接하면서부터 한시간 餘에 걸친 격멸戰을 편 끝에 이를 격퇴하고야 말았다.

이와같이 敵의 반격을 물리친 뒤로, 연대는 △903 및 △883의 敵陣을 擊破하는데 力點을 두고 예정대로 예비인 제3대대를 공격에 參加시켜 3個대대로써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제1대대는 右第一線으로 △903에, 제2대대는 中央第一線으로 △883의 南斜面에, 그리고 제3대대는 左第一線으로 兩高地의 西斜面을 각각 分進合擊키로 결정한 다음 06.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1대대(장, 金光哲 소령)는 拂曉의 狂風을 제압한 뒤로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제3중대를 예비로 돌리고 예비인 제2중대를 起用하여 제1중대와 呼應하여 △903의 東斜面을 포위공격케 하였는데, 07.30에 主力이 同高地의 8部능선에 육박하자 전날과 다름없이 2개중대 규모의 敵이 완강히 버티어 다시 戰線이 固着되고 수류탄의 應酬만이 되풀이 되었다.

이에 대대에서는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 소령)의 화력을 誘導하면서 力攻을 加하였으나 四周방어태세를 취하는 敵의 저항도 또한 强靭하여 좀처럼 突破의 好機를 얻지 못한 채로 화력대결만이 거듭되더니 14.00를 넘으면서 돌연 敵은 戰線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으로부터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이를 擊滅하라』는 要旨의 嚴命이 떨어졌으니, 이는 左第一線인 제3대대가 伏至洞 계곡을 넘어서 敵陣의 腹背를 강타함에 따라 이들이 隨意撤收하려 함으로써 退路를 막고 이를 撲滅키 위한 조치였거니와, 이와같은 명령

을 받은 대대장은 곧 제3중대를 邊岩洞쪽으로 急進시켜 東北方의 退却路를 차단케 하는 동시에 主力으로써 정면돌격을 감행하여 14.50에는 同高地의 東北능선을 掌中에 넣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르고 보니 이미 △903의 主峯은 제3대대에 의하여 攻陷되었으므로, 대대는 이에 뒤질세라 곧 追擊을 전개하여 그 北쪽능선을 따라 突進공격하였는데, 15.40에는 邊岩洞으로 迂回한 제3중대와 合勢하여 계속 追擊하고 있던 바, 17.00에 연대장으로부터 다시 명령이 하달 되기를 『제1대대는 즉시 추격을 멈추고 △903로 反轉하여 방어태세를 갖추라』는 要旨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903에서 20.00까지 陣地工事를 마친 다음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나) 제2대대(장, 金同曾소령)는 전날까지 예비로써 通先골 부근에서 待機하다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 攻擊에 加擔하여 △883를 탈취키로 하였는데, 새로 設定된 LD가 목표 南쪽 500m의 거리에 있을뿐 아니라 바로 그 東쪽에서 敵의 夜襲이 감행된 탓으로 예정시간을 앞당겨 04.00에 通先골을 躍出하여 목표선에 이르렀던 바, 이때는 이미 敵을 驅逐한 뒤였으므로 여기에서 進攻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지대는 前斜面이 傾斜가 심할 뿐 아니라 東西로 뻗어내린 兩능선이 또한 急峻하여 기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으므로 제5, 제7 兩중대로써 左右 능선을 따라 漸進하였던 바, 主力이 목표의 兩側方에서 400m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중기관총을 포함한 자동소총등의 側射화력이 나타나 進路를 가로 막았으며 또한 敵의 砲擊이 집중하여 더 이상 進出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은 側方화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81mm 박격포를 집중케 하고 날이 밝으면서 부터는 57mm 無反動銃에 의한 鐵火를 加하는 등 집중공세를 폈으나 岩壁에 마고든 敵의 화력據點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아 10.00가 넘도록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자, 이윽고 그는 挺進돌격을 결심하고 각 중대로 하여금 特攻組를 抽出하여 각개격파토록 조치하였다.

이로부터 匍匐前進한 特攻組들은 빗발치는 彈網을 뚫고 敵陣으로 육박하여 화력 據點을 하나 둘 擊碎해 나가고 主力은 이를 엄호하면서 近接戰을 강행하였는데, 이무렵 戰勢가 돌변하여 11.10을 넘으면서 부터 敵陣은 어이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제3대대의 先鋒이 同高地의 西北능선 일대를 휩쓴 다음 △903의 西斜面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戰況을 看破한 대대장은 제5중대로 하여금 短兵 급히 목표의 東側으로 뛰어올라 敵의 退路를 차단케 하는 동시에 제6, 제7 兩중대로써 殲滅戰을 편 끝에 正午를 기하여 이 목표를 탈취함과 아울러 67명을 사살하고 5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 밖에도 기관총 4정을 비롯한 소총과 탄약등을 노획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예비가 되어 主力을 △883에 배치하는 한

편 제6중대의 일부의 병력으로 부근 일대를 수색한 다음 18.00부터 現地에서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다) 제3대대(장, 崔孝三 대위)는 전날 △586(제8목표)를 탈취한 뒤로 △883의 西南쪽 능선에서 露夜를 지새고 이날 06.00를 기하여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날은 제2대대가 △883를 공격함에 따라 바로 △903를 노려 제9, 제11 兩중대를 左·右梯隊로 삼아 一路 東北進하였다.

그런데 先鋒인 제11중대가 △883의 西北능선을 넘으려 할때 중대규모의 敵이 進路를 막고 一時에 挑戰하자 대대는 主力으로써 一擊에 이를 격파한 다음 銳氣를 더하여 계속 突進한 끝에 11.00에는 목표의 西斜面으로 突入하여 敵陣의 腹背를 掩襲하였다.

이때에 敵은 제1대대의 正面공격으로 말미암아 邊岩洞一通先골 사이에 主力을 배치하고 그 西斜面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陣을 치고 있다가 不時에 高地帶의 背面에서 急襲을 받게 되니 混亂으로 亂調의 빛을 보였다.

이 好機를 포착한 대대는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敵의 抗拒도 최후의 발악상을 보여 한동안 紛戰과 亂鬪가 전개되다가 드디어 13.30에 제11중대가 頂上을 掌握함을 계기로 하여 敵線이 四散하기에 이르니, 대대는 75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잡았으며 LMG 3정을 비롯한 각종 小銃 14정과 수류탄 300여발을 노획함과 아울러 이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一戰에서 대대에서도 13명이 戰死하고 장교 2명을 포함한 34명이 負傷을 입은 바 있으나 곧 追擊에 나섰는데, 이무렵 제1대대가 이 高地의 東斜面에서 突入하고 있었으므로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점령陣地를 同대대에 인계하고 이번에는 제10목표인 △973를 노려 衝鋒을 北쪽으로 指向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단 全戰勢가 勝局으로 굳어, 제19연대 정면의 △949는 물론이려니와 Gary 線上의 목표지대에서 抗拒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목숨을 救하기에 정신이 없는 듯하므로 대대는 거의 無人之境을 휩쓸듯이 突進한 끝에 17.00에는 △973를 無血점령하고 그 부근 일대를 수색한 다음, 여기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當面의 Gary線을 완전히 장악하여 主力으로써 陣地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通先골 부근에 있던 수색중대를 邊岩洞으로 推進시켜 東側方의 敵情을 살피는 가운데 새로운 陣容을 갖추게 되었다.

2. 제19연대의 戰況

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전날 16.00 부터 제7목표(△949 및 그 西쪽 능선일대)를 노려 徹夜로 격전을 전개하다가 이날 새벽에 小康을 틈타서 戰列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였다.

즉, 敵이 △949를 중심으로 하여 전면방어태세를 취하는 듯 하자, 이를 集中的으로 공격키 위하여 左第一線인 제2대대에서 제6중대를 뽑아 제3대대에 배속시킴과 아울러 同高地의

東半部를 공격케 하고 제1대대는 그 西半部를 圖謀케 하는 한편 제2대대(一)는 現 進出線에서 左側方을 엄호하면서 언제라도 공격에 加擔할 수 있는 即應태세를 갖추게 하여 이날을 期해서 全力으로 攻擊키로 하였다.

가) 제3대대(장, 金明益 대위)는 연대의 右第一線을 맡아, 목표 東南쪽 800m에서 砲擊증원과 더불어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공격개시 1시간 前에 제6중대가 증원되자 제11, 제9, 제6중대를 공격梯隊로 삼아 東南斜面에서 포위권을 형성하고 제10중대는 예비로써 現陣地에서 待機토록 조치한 가운데 06.00부터 약진하였다.

이리하여 목표前方 300m에 이르자 역시 전날과 다름없이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이 수류탄을 집중投下하면서 완강히 버티어 3시간여에 걸친 격돌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은 제11중대로 하여금 목표 東北쪽의 無名高地(△949 東北쪽 700m)를 掩擊케 하고 제9, 제6 兩중대로써 正面突破를 강행하였던 바, 이상과 같이 主力이 對峙하고 있는 사이에 제11중대의 先鋒이 09.40에 右一角을 돌파하여 敵陣背後를 掩襲하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兩중대가 突擊을 감행한 끝에 이 敵線을 擊碎하는 同時에 東南쪽 능선 일대를 장악하고 보니, 이때는 이미 제1대대의 主力이 主峰을 넘어서고 있는지라, 대대는 여기에서 곧 공격방향을 東北능선으로 指向하여 △805(△949 東北쪽 1.5Km)를 목표로 銳鋒을 휘몰았다.

이와같이 短兵 급히 추격에 나선 대대는 단숨에 이 高地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東北능선 일대의 殘敵을 撲滅한 다음 當面의 Gary線을 완전히 掌握하기에 이르렀는데, 14.30현재 右一線인 제11중대는 △805 東北쪽 700m의 거리에, 제9, 제6 兩중대는 그 西北쪽 능선의 突角部를 각각 점령하였으니, 이는 Gary線으로부터 대체로 1Km를 北上한 셈이었다.

바로 이무렵 연대장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즉시 追擊을 멈추고 Gary線上의 有利한 지대를 선정하여 진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當面의 敵情을 보고하라』는 要旨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지금까지 入手한 敵情을 보고하는 즉시로, 主力을 反轉시켜 △805를 中心으로 右로부터 제11, 제9, 제6중대 순으로 배치한 다음 15.00부터 陣地工事에 착수하는 한편 예비인 제10중대로 하여금 未踏地域인 東쪽능선 일대를 위력수색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수색대는 接敵없이 목표지역을 돌아서 17.00까지 復歸하고 戰線정리를 우선 마무리 지은 다음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나) 제1대대(장, 林完植 소령)는 △949 西斜面에서 3개 소총중대를 동시에 전개하여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重點的으로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漸次 진출하여 목표 前方 150m의 거리에 이르자 2개 중대규모의 敵이 마지막 毒血을 내뿜어 또 한 차례의 激突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決戰태세로 突入한 대대는 雨注하는 彈幕을 뚫고 포복전진하고 있을 무렵인 07.10에 UN 空軍의 戰爆機 6台가 나타나 曉霧를 헤치고 敵陣에 集中공격을 가하자 이를

틈타서 수류탄 投擲거리까지 바싹 다가섰다가 돌격신호와 함께 喊聲을 높이면서 一時에 敵陣에 突入하니 그 토록 발악하던 敵陣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한시간 동안에 걸친 混戰과 亂鬪 끝에 드디어 08.20에 敵陣의 核心部를 略取함과 아울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대대는 곧 戰線정리에 착수하여 제2, 제3 兩중대로써 △949 北斜面에서 급편 陣地를 점령케 하는 한편 제1중대는 그 北쪽 능선으로 潰走한 일부의 敵을 좇아 追擊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13.00 현재 제1중대는 同高地 北쪽 1Km의 능선일대를 누비면서 潰敵을 剔抉한 다음 경계진지를 점령 하였으며 그 동안에 主力은 병력배치를 마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대대는 本전투의 主목표인 △949를 攻略하는데 殊勳을 세운 것이다.

다) 제2대대(장, 朴哲遠 소령)는 이날 새벽에 제6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시키고 主力은 연대 공격선의 西側에서 側方警戒에 任하고 있던 바, 08.20에 제1대대의 △949 탈취에 따라 그에 連한 西側에서 陣地를 구축키 위하여 서서히 指示된 목표線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949 西쪽능선 死角지대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抗拒하였으니, 이는 退路를 잃어버린 敗敵이 窮鼠囓猫 格으로 발악하는 것이었으므로 대대(一)는 이를 包圍하여 殲滅的 痛擊으로 鏖殺한 다음 11.40에 목표선에 다다라 진지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공격개시 2일만에 Gary線 攻略의 主役을 치르고 戰線정리에 착수하여 主力으로써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抽出하여 松亭부근까지 깊이 進出시켜 敵情을 탐색하는 가운데 부대를 整備하였는데, 이날의 종합전과와 손실을 보면 사살 220명과 포로 17명 그리고 60mm 박격포 1문을 비롯한 기관총 9정 및 소총 43정등을 노획하였으며, 연대에서도 장교 1명을 포함한 14명이 전사하고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3. 제7연대의 戰況

연대(장, 梁仲鎬 대령)는 전날 목표선을 확보함에 따라 要旨命令 제57호(51.11.17.21.00부)를 하달하여 戰線을 整理하였는데, 이 명령의 概要를 보면 대체로 現在의 점령 진지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다만 右第一線대대의 責任 地域을 축소하여 縱深을 깊게 하고 左第一線은 江畔陣地에 경계의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특히 협조지시로서 이날 10.00까지 調整된 陣地線에 병력배치를 완료할 것과 隣接부대와의 接境지대 및 敵의 예상접근로에 지뢰를 매설할 것, 그리고 一線중대까지 2회선의 有線通信망을 확보토록 강조한 것 등이었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各대대는 天明과 더불어 再配置에 착수하여, 제2대대는 대대 OP가 있는 △629에서 北쪽으로 1Km에 主力을, 그리고 그 北斜面 능선 下端部에 2개 소대 규모로써 경계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는 그에 連한 西側에서 △548 北쪽 계곡에 이

르는 사이의 主要능선上에 병력을 重點的으로 配置하는가 하면 제1대대는 △548에 대대 OP를 두고 北漢江 東쪽의 要線을 따라 陣地를 구축하는 등 지시된 명령에 따라 대체로 09.30에서 10.00 사이에 모든 새로운 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각대대마다 일부의 병력으로써 松亭—漁雲里 사이의 北쪽 敵陣에 대한 威力搜索을 실시하다가 15.00를 前後하여 복귀한 다음, 연대 主力으로써 陣地를 더욱 堅固히 굳히기에 이르렀다.

4. 제2연대의 戰況

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이미 탈취한 松洞里 北쪽의 高地群을 확보하면서 北漢江 西쪽 線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이날 새벽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이 빼앗긴 失地를 되찾고자 반격을 試圖함으로써 또 한차례의 激突을 보게 되었다. 즉, 이날 03.00에 제2대대(장, 宋奇德소령)의 陣地 西北쪽 溪谷에서 赤色 신호彈 3발이 오르더니 곧 뒤를 이어서 중대규모의 敵이 제6중대의 陣前으로 집중 殺到하는가 하면 또한 제5중대의 陣地 右端으로도 2個소대 규모가 侵襲하여 대대 左一線을 온통 뒤흔들었다.

이에 대대장은 敵情을 보고하는 즉시로 81mm 박격포에 의한 照明과 砲擊으로써 一線중대를 지원하고 제6, 제5 兩중대는 모든 화력을 同時에 집중하면서 이를 맞아 싸웠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의 對決로 말미암아 한때 제6중대의 일부 陣地에서는 混戰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兩중대는 끝까지 진지를 堅守하면서 2시간 동안에 걸친 陣內戰 끝에 마침내 격퇴하고야 말았다.

一陣 狂風이 지난 뒤로 대대는 黎明과 더불어 진지를 再整備 하는 한편 제7중대로 하여금 科湖里까지 위력수색케 하여 부근 일대의 殘敵을 완전히 驅逐하였는데, 이 一戰에서 빚어진 彼我間의 전과는 사살 103명과 포로 2명 외에도 60mm 박격포 1문을 비롯하여 기관총 2정 및 소총 8정등을 노획하였으며 대대 損失로서는 8명이 戰死하고 장교 1명을 포함한 33명이 戰傷을 입었다.

그 뒤로도 대대는 계속하여 陣地를 보강하던 바, 연대에서는 14.00부로 大幅的인 戰線정리를 단행하여 이 접령陣地를 연대의 警戒陣地로 設定함과 동시에 제1대대(장, 洪載翊 소령)로 하여금 이를 專擔케 함으로써 대대는 16.00까지 이 陣地를 同대대에 인계하고 새로운 擔當지역인 龍虎洞으로 轉進하였다. 즉, 사단에서는 이날 主力이 Gary線上 목표를 모두 장악하여 새로운 主陣地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그 一環으로 當연대로 하여금 제7연대 陣地의 左端에 連하여 龍虎洞과 汝文里를 잇는 線上에 主陣地를 構築케 하는 동시에 이번 전투에서 탈취한 地域에도 警戒陣地를 확보토록 조치함으로써 연대는 이에 따라 北漢江 西畔의 제1대대를 一線으로 推進하여 경계진지를 專擔케 하는 한편 지금까지 공격임무를 맡았던 제2대대를 右第一線으로 龍虎洞 부근에, 제3대대를 左第一線으로 汝文里 부근에 각각 배치하여 責任地域의 調整과 아울러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措置한 연대는 특별한 敵情이 없는 가운데 대체로 18.00까지 陣容을 完備하고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공격개시 2일만에 예하 全연대가 목표선을 모두 掌握하여 本전투를 勝利로 매듭 지웠으니, 이는 美제10, 제9兩군단간의 變曲部를 整齊하여 지난 6月 중순 이래의 숙제를 해결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戰爭이 종결될 때까지 이와 比肩할만한 大規模의 작전은 그 類例가 드물이만큼 有機的인 戰線維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이 主力으로써 Gary線을 장악하자 당면의 中共 제68군(장, 邱蔚)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예비인 제202사단(장, 陳坊仁)을 一線에 投入하여 대체로 松亭—△674—△679△—472—科湖里線에서 새로이 급편 방어태세를 취하는 한편 이번 전투에서 壞滅的인 타격을 받은 제204사단(장, 曹玉清)을 멀리 뒤로 뽑아 大井里(金剛川 入口) 부근에서 殘兵을 收拾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捕虜들의 진술에 의하면 17일 밤부터 예비병력이 투입되었으나 陣容을 갖출 겨를도 없이 戰線이 무너지자 主力은 松亭—漁雲里 線 北쪽으로 후퇴하여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흩어진 병력은 大井里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2연대 正面에서 물러선 제35사단 소속의 제104연대도 이와 歩調를 같이하여 科湖里—佐佩里 부근에서 새로운 阻止陣地를 구축하는듯 하였다.

이와같이 이들은 陣地強化에 餘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우선 방어태세를 취하면서 戰勢의 挽回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사단은 목표를 탈취하자, 19일 上午에 군단장 Hoge중장과 사단장 張都暎준장이 Helicopter편으로 직접 水洞里(北漢江 東쪽의 黃炳洞부근)까지 찾아 와서 장병들의 勞苦를 致賀하는 동시에 이자리에서 사단장은 작전명령 제177호를 하달하여 戰線정리를 단행하였다. 즉, 지금까지 右一線을 맡았던 제21연대(장, 全富一 대령)를 예비로 돌려 장차 隸屬된 제8사단을 따라 南原으로 내려갈수 있도록 미리 對備케 하는 한편(주 : 25일부 배속해제와 동시에 春川집결, 28일 南原으로 出發) 自隊의 3個연대를 主抵抗線에 배치하여, 제19연대는 石莽洞—△903—△949선에, 제7연대는 그 左側에서 漁雲里까지의 線에, 그리고 제2연대는 江 西쪽의 擔當全域을 각각 보강케 하여 陣地편성을 새롭게 한것이다.

또한 20일 05.00를 期하여 각연대로 하여금 擔當 正面에 警戒陣地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던바, 當日 中으로 主抵抗線 北쪽 2내지 3Km內의 지역을 席捲하여 경계진지를 確保토록 하였는데 특히 제7연대는 漁雲里 東쪽의 △572까지 탈취하였다.

그뒤로 11月 27日에 休戰協定 제2項인 軍事分界線 문제가 30일 時限附로 假調印을 보게 됨으로써 戰線은 다시 小康상태로 들어가 현접촉선에서 그대로 拮抗타가 52년 1월 10일 08.00附로 하달된 陸本作指 제119호에 의하여 사단은 美제9군단에서 배속 해제와 동시에 陸本直轄로 되었다.

그리하여 現 占領地를 제3사단(장, 白南檍 준장)에 引繼하고 主力을 楊口 南쪽으로 이동하여 사단지휘소를 竹里(楊口 南쪽 4Km)에 개설하는 한편 제2연대는 恭里(사단지휘소부근)에, 제7연대는 楸谷里(楸陰里 東南쪽 7Km)에, 그리고 제19연대는 水仁里(楊口 西南쪽 10Km)에 각각 집결하여 교육훈련에 任하게 된다.

이로써 사단은 50년 12월에 美제9군단에 배속된 이래 줄곧 一線에만 섰다가 戰線이 조용해지자 바로소 軍의 예비로서 戰力을 증강하게 되는 것이다.

本전투 기간중의 종합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부대	戰果							損失	
	射殺	捕虜	鹵獲					戰死	負傷
			82㎜迫擊砲	60㎜迫擊砲	機關銃	小銃	手榴彈		
제 21 연 대	153	16	2	2	11	41	300	1/28	2/110
제 19 연 대	329	69		4	9	65	5,000	4/18	3/99
제 7 연 대	141	13	2	3	6	21		10	2/86
제 2 연 대	261	26		5	7	46	400	27	1/79
계	884	124	4	14	33	173	5,700	5/97	8/374

§ 參戰者의 證言

◇ 제19연대 제2대대 교육관 裵漢圭대위
(1967년 4월 12일, 軍基司에서, 중령)

이 전투는 51년 11월에 제6사단과 제8사단이 협동으로 白岩山 北쪽의 高地群을 攻略하여 敵을 金剛川 於口까지 驅逐하고 특히 敵의 어금니라고 불리우던 △949를 탈취한 壯快한 進擊戰이다.

당시에 나는 제19연대 제2대대의 S—3를 맡아 대대장 朴哲遠소령을 모시고 이전투에 참가 했는데 마침 우리 연대가 사단의 主攻으로서 △949를 공격하게 됨에 따라 그 左一線에서 야간공격을 했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공격初頭에는 우리대대가 예비로 있다가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공격 첫날 오후에 一線에 加擔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연대의 主力이 중간목표를 탈취하고 攻擊力을 △949에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直路로 이 목표의 西北능선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進攻속도가 빨라서 15.00에 목표의 8部능선까지 진출하게 되자 대대장은 나에게 『곧 목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통신장교와 함께 가서 OP를 선정하라. 그러면 나도 戰況을 조금더 지켜보다가 올라 가겠다』고 지시하기에 우리는 伏至洞 溪谷으로 들아서 有線을 깔아가면서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험한 산비탈에 서로 뺑뺑히 맞서서 激戰中이었으며 고개만 들어도 수류탄이 집중하여 실로 進退維谷이라, 더구나 연대에서는 야간공격을 強行해서라도 빨리 목표를 따라고 명령이 至嚴하고 날씨마저 저무니 現地에서 머무를 수도 없고 병력을 뺄수도 없는 형세였다.

그리하여 총력을 기우려 야간공격을 강행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처럼 과감한 直衝이 敵의 出血을 강요하고 그 氣勢를 꺾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와같이 밤새도록 力攻을 거듭하는 사이에 우리편에서도 상당한 損失을 보게 되었으나 끝까지 現地에서 敵을 抑留하다가 그 다음날 항공지원과 더불어 敵陣을 大破하고 이 高地를 탈취하였다.

이 전투에서 있었던 교훈을 하나 소개하면, 최종목표에 올라섰을 때에 先頭에서 頂上에 뛰어오른 제5중대 제1소대장(姓名未詳)이 좋아서 춤을 추다가 敵의 狙擊彈으로 戰死한 일이 있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空際線上에서는 더욱 주의 해야 할것이다.

나는 이 전투가 끝난뒤로 중대장으로 나가서

金城 南쪽에서 근무하다가 후에 指型능선 전투에 참가하였다.

◇ 제19연대 제1중대 소대장 林炳晃소위
(1966. 5. 13, 육군본부에서, 소령)

우리 중대는 17일 이른 새벽에 舊堡 東쪽에서 공격 短艇으로 奇襲渡河하여 橋頭堡작전을 마친 다음 이날 午後에 △949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 고지는 橫隔室을 이룬 難攻지대로서 山이 어찌 험한지 地圖上으로도 능선이 비슷하여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바로 敵陣앞에 다가서게 되었다.

이때부터 本格的인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不過 50m의 거리를 두고 攻防戰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砲로 때려도 敵陣은 끄떡하지 않지만 57mm 무반동총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標的이 되기쉬운 脆弱性은 있으나 공격선 直後方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直射砲로 때리면 敵陣은 박살이나고 우리는 여기에 기관총과 수류탄을 집중하면서 突破口를 내려고 온힘을 기우렸다.

그러나 敵의 저항도 집요하여 그자리에서 날이 저물고 야간공격으로 이행하게되자 彼我의 砲擊이 집중하고 地勢가 험하여 苦戰을 치루었다.

여기에서 우리소대도 2分之1 정도의 병력손실을 보았으나 結局 그날밤에는 이 敵線을 突破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BMNT를 期하여 돌격한 끝에 우리대대가 △949의 主峰을 탈취하였다.

整峰에 올라가보니 전방의 山勢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要路를 制하여 초급장교인 내가 판단하기에도 과연 要地인것 같았다.

그뒤로 우리는 큰 전투가 없어 여기에서 방어하다가 다음해 1월에 昭陽江부근으로 이동하여 부대교육으로 들어갔다.

§ 戰　訓

◇ 병력의 重點的사용에 대하여

本作戰이 성공한 큰 原因의 하나는 모든 戰力을 아낌없이 重點的으로 사용한 점이라고 指摘코자한다. 兵戰의 要諦는 1 : 9로서 5 : 5의 敵을 치는데 있나니 1로서 5를 막고 9로서 5를 친다음 나머지 5를 併呑하는데 있다. 各大隊가 第一線에 많은 병력을 同時에 投入하고 空地兩面에서 지원화력을 집중하였다는 사실이 戰勝을 約束하게 된 것으로 본다.

◇ 敵情判斷과 用兵策에 대하여

敵의 陣地編成上에 있어서 強點이 무엇이며 弱點이 어디 있는가를 투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敵의 가장 強點은 北漢江의 自然障碍物을 앞에 두고 東西로 달리는 補給路를 뒤에 두면서 河川으로 兩翼을 掩護받는 능선상에서 縱深으로 配置할 수 있는데 있다. 그러나 敵은 北漢江渡河를 全혀 妨害하지 못하고 制高地點들을 孤立的으로 拒守하는 失策을 犯하였다.

敵의 가장 弱點은 ①③ 陣地가 漢江流域을 따라 後方에 突出한 것이 가장 큰 것이오, 南北으로 縱流하는 河川線이 東西相互間의 有機的인 兵力運用을 阻止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師團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方策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가) ①② 陣地에 第一段階의 重點을 指向하여 可能하면 ③까지 確保토록 할것.

(나) 제19연대 正面에서는 第二段階로 渡河하여 一旦 병력을 再分配한 다음 ⑤陣地만을 먼저 奪取할 것.

(다) 제21연대의 弱點이자 強點은 漢江線이 없는 것이니 敵의 大擧出擊에 對備하여 當初에는 陽動으로 敵을 牽制토록할 것. 本件은 交通線을 勘案할 때에 東側方에서 敵이 出擊할 公算이 큰 것을 考慮할 것이다.

(라) ②陣地를 공격한 제7연대 제2대대는 獨立的으로 任務를 附與함이 可할 것이다.

(마) 陣地라면 모조리 攻擊하는 思考方式은 戒愼을 要하니 孫子는 말하기를 「城에도 有所不攻이오, 敵에도 有所不攻이오, 地에도 有所不爭이라」고 하였다. 그대로 두고 스스로 물러 날수 있다면 鮮血의 一滴이라도 節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本戰에서의 戰果도 크거니와 損失도 決코 작은 것이 아니니 大勝이라고 自慰할 수는 없다.

土地는 本來 死物이어늘 高貴한 人命의 損傷價値를 十分 따지는 것이 有爲한 將德의 本色이기 때문이다.

3. 281高地 및 395高地 戰鬪 (1951년 11월 3일부터 1951년 11월 6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33, 34, 35, 3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29연대의 281高地 戰鬪〉

我 軍

제9사단	장 준장 朴 炳 權	병력 : 장교—93% 사병—98%
제29연대	장 대령 朴 應 奎	장비 : 銃砲—108% 車輛—78%
제1대대	장 소령 張 奭 均	인접부대
제2대대	장 소령 孫 德 均	右인접 美제25사단 장 소장 Iar P. Swift
제3대대	장 소령 李 大 哲	左인접 美제1기갑사단 장
제30포병대대	장 소령 徐 廷 善	소장 Thomas L. Harrold

敵 軍

中共 제42군	장 吳 瑞 林	장비 : 82mm 박격포 4문
제126사단	장 王 採 生	60mm 박격포 6문
제376연대		57mm 무반동총 2문
병력 : 600명		기관총 6정

〈제28연대의 395高地 戰鬪〉

我 軍

제9사단	장 준장 朴 炳 權	제3대대 장 소령 趙 誠 七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禎	제30포병대대 장 소령 徐 廷 善
제1대대	장 소령 金 祚 鈺	병력 : 장교—91% 사병—97%
제2대대	장 소령 金 寅 文	장비 : 銃砲—101% 車輛—80%

敵 軍

中共 제126사단	장 王 採 生	60mm 박격포 1문
제376연대 제2대대	장 周 建 國	57mm무반동총 2문
병력 : 700명		重기관총 6정
장비 : 82mm 박격포	4문	輕기관총 24정

나. 전투 전의 개황

제9사단(장, 朴炳權준장)은 51년 6월下旬에 猊蓋山—高臺山 전투에서 快勝을 거둔 뒤, 美제25사단에 戰線을 인계하고 8월 2일부로 육본직할부대가 되어 倉洞부근으로 轉進한 다음, FTC에서 戰力을 정비하던 바, 10월 5일 06.00附의 美제8군 命令으로 美 제1군단(장, J.W. O'Daniel중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는데, 군단 作旨는 다음과 같다.

『제9사단은 10월 17일 08.00를 期하여 현위치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同월 20일까지 제3사단의 담당 正面을 인수하라』

이리하여 戰線으로 복귀하게 된 사단은 豫定대로 새로운 正面을 인수하였는데, 이때에 사단에서는 제30연대(장, 崔英圭대령)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29연대(장, 朴應圭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中江里—楡井里—△284—△395—△281를 連하는 線에서 主抵抗線을 確保하였다.

그리고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를 豫備로써 樂天里(鐵原 西南쪽 2Km)부근에 控置하는 한편 사단 前方 CP를 二長足(鐵原 南쪽 2Km)에 開設하였다.

또한 사단의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소령)로 하여금 10월 21일附로 華田(鐵原 西北쪽 3.5Km)으로 推進케 하여 어떠한 狀況에서도 즉각 전투태세에 突入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군단의 右翼이 되어 中部전선의 要衝인 鐵原北方에서 그 一翼을 擔當하게 되었으며, 右側으로는 美제25사단과 左側으로는 美제1기갑사단과 상호 連繫하는 戰線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형성한 主抵抗線內에는 기필코 固守하여야만 될 두개의 高地가 있으니 이는 左一線인 제29연대의 主陣地내에 있는 △395(鐵原 西北쪽 10Km)와 △281(鐵原 西北쪽 14km)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유는 右一線인 제30연대의 전투정면은 3~4Km에 達한 높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驛谷川의 支流가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我의 瞰制下에 있는 까닭으로, 敵은 攻擊에 있어서 機動이 不便하고 노출된 地帶를 피하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制高點(△459—△596(曉星山)—△505—△431)의 利를 살릴수 있는 제29연대 正面으로 그 공격 방향을 돌릴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兩高地는 사단이 現 방어선을 지키는데 있어서 防波堤의 역할을 하게될 뿐 아니라 그 背後로 통하는 3번 道路(高臺山과 猊蓋山嶺의 西面을 연하여 漣川—全谷—서울로 이르는 道路)와 43번 道路(鐵原平野를 끼고 楸川—서울로 이르는 道路)에 대한 施設를 위하여서도 그타하려니와 더우기 한눈에 瞰制當하는 鐵原일대를 防守하는데 있어서 그 關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敵이 여기를 장악한다면 사단의 左側背가 크게 威脅을 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보급 및 교통의 중심지인 鐵原을 잃어버리는 경우마저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제29연대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기에 대한 防守태세에 만전을 期할 것을 促求하였거니와 연대장 朴應圭대령도 이와같은 與件을 감안하여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284(右인접 제30대대와의 제한점 : △395 東쪽 3Km)—△395일대에,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하여 芳石洞—△281 일대에서의 攻守兩面에 適應태세를 강화케하는 한편 豫備인 제3대대로 하여금 主陣地 3~4Km후방에서 阻止진지를 확보케 하여 主보급로에 대한 보호와 아울러 연대 側후방을 경계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이 當時 전선의 動向은 지난 7月 초순에 休戰會談을 개최한 이래 美제8군당국의 作戰槪念에 따라 병력이나 화력을 防守태세로 轉換하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小康狀態를 보였으며, 사단도 이러한 가운데 陣地를 보강하는 한편 전방에 수색거점을 마련하여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위력수색을 감행케 하는 중이었다.

여기에서 사단이 입수한 敵情과 기간중에 敵의 움직임을 觀察한 결과 다음의 세가지 狀況을 파악하게 되었다.

첫째, 당면의 敵은 中共 제42軍 예하 제126사단(장, 王探生)으로서 그 主力을 △396—△459—△596—△501—△431線에 배치하였으며 이미 陣地는 완전 據點化하고 陣前에는 각종 장애물까지 설치하였을 뿐아니라 많은 보급품과 戰鬪用장비를 집적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므로 따라서 그들은 攻守兩面의 戰力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敵은 소대 내지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써 △396—△227—無名高地(主抵抗線 1.5Km 前方)를 연하는 線에 前進 방어거점을 형성하고 분대 내지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我 陣前 가까이까지 진출시켜 사단의 배치狀況을 탐지케 하는 한편 산발적인 挑戰을 피하는 것으로 分析되었으며, 특히 △395와 △281 부근에 대한 偵察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세째, 敵의 전투병력은 8,000명 내외로 推斷되고 이들의 장비는 각 연대에 82mm박격포 12문과 60mm박격포 18문을 비롯하여 75mm직사포 12문과 중기관총 18정, 그리고 경기관총 24정과 다발총 및 소총등을 保有하고 122mm野砲 1개대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敵情에 비추어 볼때 그들은 全面攻勢라도 能히 取할 수 있는 능력을 保有하였다고 是認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中共 제126사단은 그 예하의 제136연대로 하여금 11월 3일 23.00를 期하여 △218에 대한 집중攻勢를 取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激戰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281高地 戰鬪(11. 3~11. 4)

(가) 작전계획

11月 3日 21.30에 △281 東北쪽 無名高地 頂上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3발의 백색 조명탄과 1발의 청색신호탄을 신호로 제2대대 主陣地 일대에 敵砲擊이 시작되더니 30분뒤부터는 △281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同高地는 삽시간에 火焰이 치솟고 砲煙으로 휩싸이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狂風이 流血을 휘몰아 닥친 것이었다.

이윽고 22.30부터 敵의 공격企圖가 急報되었는데 △281의 主峰을 맡은 제6중대 正面으로는 그 前方의 無名高地(△281 西北쪽 1Km)쪽에서 대대규모의 병력이 殺到하였으며, 대대 右一線인 제5중대의 陣前으로는 △395 北斜面 능선을 따라 2개소대 규모의 敵이 西進하면서 그들의 主力에 대한 陽攻牽制를 꾀하는 듯 △281 東側背를 急襲하였다.

이와같이 中共 제376연대가 그들의 예비대를 투입하여 △281를 奪還코자 波狀으로 나오게되자, 연대장 朴應奎대령은 즉각 彈幕사격과 併用한 對砲兵 사격을 誘導하기에 힘쓰는 한편, 전투태세에 突入하는 동시에 豹變한 狀況을 檢討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긴급 命令을 내렸다.

『① 연대당면의 敵은 △281를 목표로 공격중이다.
② 연대는 現陣地를 固守하여 이 敵을 陣前에서 격멸하려 한다.
③ 제2대대는 現 主抵抗線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281를 固守하는데 全力을 다 하라.
④ 제1대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특히 △395 일대를 確保토록 注力하라.
⑤ 제3대대는 側후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命에 따라 즉각 機動할 태세를 갖추라.
⑥ 각 대대는 所定의 야간 標識과 暗號 및 陰語를 사용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⑦ 연대 CP는 △266(△281 東南쪽 2Km)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11월 3일 : 1. 제2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이날도 제5중대를 右一線으로, 제7중대를 中央에, 제6중대를 左一線으로 전개한 가운데 日暮와 더불어 야간 경계를 强化하던 중, 敵이 △281를 위시한 대대 主陣地 일대에 집중 砲擊을 加하자, 대대장은 敵의 急襲을 예상하고 즉각 각 중대로 하여금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可用한 모든 화력의 집결사용을 指示하였다.

특히 △281의 主峰을 擔當하고 있는 제6중대장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어려운 狀況이 전개 되더라도 기어코 △281를 固守하라』고 命令하였다.

한편 제6중대장 金容振중위가 이와같은 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중대는 이미 四周방어 태세로 轉換하여 現陣地의 固守를 다짐하면서 決戰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드디어 中共 제376연대의 제1대대는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소령)의 치열한 制壓사격에도 불구하고 人海의 힘을 앞세우고 △281 北斜面을 타고 일제히 陣前으로 殺到하더니 正面突破를 꾀하는 일방, 일부 병력으로는 左인접 美 제1기갑사단과의 接境의 虛를 찌르게하는 한편 △281 東側背로 각각 分進케 하여 迂回와 包圍의 兩面作戰까지 꾀하였다.

이렇듯 敵은 三面으로부터 동시에 壓迫을 加하면서 밀려들었는데, 중대는 동요 없이 陣地를 지키고 있다가 敵이 小銃의 有效射程 안으로 들어닥치는 때를 타서 全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機先을 制하니, 敵의 先頭가 혼란을 惹起하게 되었으며 狂氣서린 敵의 威勢도 주춤거리게 되었다.

이 때를 포착한 중대는 계속 화력을 집중 발휘하는 한편 다가서려는 敵에게는 수류탄을 投擲함으로써 많은 死傷者를 내게 하였으나 우세한 敵은 곧 隊伍를 수습하더니 또 다시 突進과 迂回로써 强行手法을 쓰게 되었다.

이 때에 △281 東側으로 迂回侵攻하던 1개중대규모와 제5중대 正面에서 陽攻하던 2개소대규모의 敵이 서로 合流하더니 右一線인 제1소대의 側背를 兩面에서 挾擊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는 全 戰力을 발휘하여 이 敵을 邀擊코자 挺身하였으나 敵은 희생을 무릅쓰고 波狀으로 육박함으로써 점차 壓迫속에서 苦戰하게 되고 끝내는 그 一角이 突破되기에 이르

렀다.

이때 소대장 金소위는 이러한 危急 속에서도 병력을 수습하여 突破口를 봉쇄코자 수류탄과 帶劍을 뽑아들고 陣頭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소대원들도 끝까지 陣地를 지킬 것을 각오하고 그 뒤를 따라 銃劍을 휘두르며 肉彈으로 대결하니, 陣內는 彼我가 한데 엉켜 混戰亂鬪속에 屠戮相殘을 빚고 말았다.

이 무렵에 중대의 中央을 맡고 있는 제3소대도 집중적으로 突破分斷을 시도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격돌하여 渾身의 力戰을 다하였으나 또한 이 敵을 물리치지 못한채로 時時刻刻 危機에 直面하였으며, 左一線의 제2소대 또한 美 제1기갑사단과의 接境의 虛隙으로 侵透한 1개중대 규모의 急襲으로 말미암아 分散直前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듯 戰況이 일시에 急變하여 중대의 陷沒이 寸刻에 達하였음을 직감한 중대장은 『최후의 一刻까지 陣地를 지키라』라고 외치면서 화기소대장으로 하여금 예비로 확보하는 2개 分隊를 지휘하여 제3소대를 증원토록 命令하고 自身은 중대의 행정요원과 화기소대의 일부 兵力을 직접 지휘하여 위기에 처한 제1소대를 지원코자 集注하는 火網을 헤치면서 포복과 약진으로써 醜敵을 向하여 육박하였다.

여기에서 제1소대의 右側背를 突破한 敵의 先端과 衝突하였는데, 중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수류탄 돌격과 白兵戰의 互用으로 이 敵을 擊碎함과 동시에 재빨리 進出路 左側으로 突進하여 陣內로 밀어닥치는 敵의 背後에 鐵火를 퍼부으니 敵은 혼란을 빚은 나머지 分散되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을 포착한 兵士들은 제1소대의 決戰場으로 뛰어 들어 陣地를 끝까지 지키던 소대의 殘餘병력과 합세하여 左衝右突로 마지막 一擊을 加하자, 敵은 마침내 屍體와 裝備등을 遺棄한채로 山麓을 向하여 물려나고 말았다.

중대장은 곧 제1소대의 殘餘병력을 수습하여 화기소대의 일부와 합께 敵의 再攻에 대비하였다.

이제 중대는 침공한 무리의 일부를 驅逐하였으나 정면과 西側背에서는 敵의 主力이 더욱 기승을 부림으로써 제2, 제3 兩소대는 惡戰苦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으니, 赴援의 來到만을 고대하게 되었다.

2 이 무렵 제6중대에 위급이 닥쳐오고 있음을 看破한 연대장 朴應奎대령은 연대의 예비대를 投入키로 결심하고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3대대장에게 緊急命令하되 『증강된 1개중대를 03.30까지 △281로 급파하여 당면의 敵을 擊滅하라』고 하였다.

제3대대(장, 李大哲소령)는 연대장의 命令을 받는 즉시 三峰洞(△281 東南쪽 5Km)부근에서 연대 側후방 경계에 임하던 제11중대와 제10중대의 제1소대에게 『모든 緊急出擊의 태세를 갖추고 대대 OP에 집결하라』고 命令하였다.

11월 4일 : 子正을 넘어서면서부터 人海의 힘을 발판으로 한 敵의 攻勢가 더욱 加重됨으

로써 △281에서의 血戰은 激化一路를 치닫게 되었다.

즉, 00.15에 敵은 100여발의 砲彈을 또 다시 頂上에 집중하더니,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狂瀾과도 같이 밀려들었다.

1. 이리하여 제2대대의 제6중대(장, 金容振중위)는 赴援이 없는 가운데 寡兵으로 能히 支撐하고 있었으나 급기야는 正面에서 突破分斷을 꾀하던 敵이 제3소대의 一角을 뚫고 陣內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전날밤 제1소대의 東側背로 侵攻하다가 쓴잔을 마신 敵이 새로운 증원아래 집중 殺到함으로써 소대는 肉彈대결로 陣地를 지키기에 死力을 다 하였으나 01.00에 이것마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渦中에 중대의 有線網이 敵의 砲擊으로 杜絶되고 01.05에는 중대와 대대간에 유일한 연락수단인 SCR—609마저 파괴됨으로써 狀況의 推移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一波又一波로 밀어닥치는 敵勢로 말미암아 중대는 亂中孤立속에 危急이 頃刻에 다다르게 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金 중대원은 死生을 決斷키로 각오하고 수류탄과 帶劍을 兩손에 쥐고 달려드는 무리에게 뛰어 들어 敵을 爆殺시키고 自身도 장열한 戰死를 하는가 하면 이곳 저곳에서는 敢然히 肉彈으로 대결하니 △281一圓은 비명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한차례의 血雨가 쏟아지는 決戰場으로 化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熾烈無比한 血戰이 전개되는 동안 중대의 병력도 반이하로 줄었으며 수류탄과 실탄도 거의 떨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믿는 것은 오직 불굴의 鬪魂뿐이었다.

이에 이르러 중대장 金容振중위는 생각하기를 『重圍孤立下에서 이 이상의 死鬪는 自滅만을 招來할 뿐이다』라고 판단하자 『모두 敵中에서 血路를 뚫고 脫出의 길을 찾아라』는 피맺힌 號令을 내리었다.

여기에서 중대의 殘餘병력은 분노의 눈물을 삼키면서 血路 찾아 각개별 격파 끝에 △281 東端으로 집결하였는데 03.00까지 死線을 뚫고 收容된 병력은 중대장외 소대장 2명과 兵士 50명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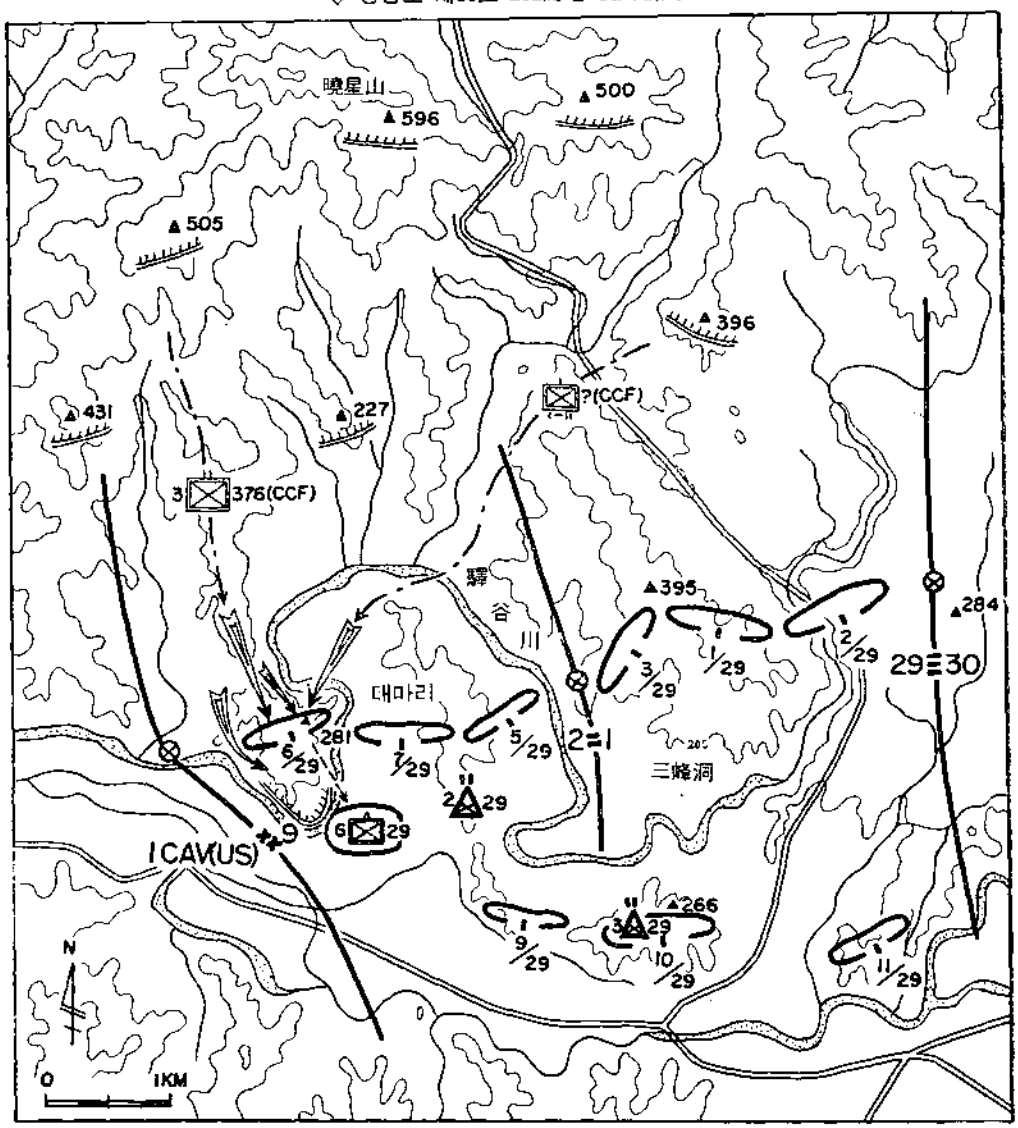
중대장은 곧 이 收容병력으로써 掩護陣地를 구축케 하면서 증원부대의 來到를 기다렸다.

2. 한편 제3대대장 李大哲소령은 제11중대와 제10중대의 제1소대에 命令하되 『△281의 戰況은 현재 通信杜絶로 파악할 수 없으니 04.00까지 공격대기지점에 進出하는 즉시 現地狀況을 보고 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출격중대는 00.45에 대대 OP를 떠나자 △281를 向하여 急進 끝에 04.00에 계획대로 △281 南端의 공격待機地點까지 進出하였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제6중대와 連繫함으로써 그동안의 戰況을 파악하여 대대에 急報하는 동시에 逆襲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격에 나선 제11중대와 제10중대의 제1소대는 04.30에 공격開始線을 박차고 일제히 출격하였는데 이때에 중대(+)는 대대장의 作戰指導에 따라 제1소대가 △281 正面

◇ 상황도 제33호 281高地 夜間戰鬪



에서 敵火를 分散케 하는 사이에 제11중대는 同高地 東北쪽으로 깊숙히 迂回하여 敵陣背後를 일시에 강타함으로써 一擧에 무찌르기로 作定하였다.

가) 제11중대(장, 崔蘭成중위)는 제10중대 제1소대가 敵을 抑留하는 사이에 東斜面으로 迂回하여 2개분대 규모의 敵의 埋伏組를 覆滅하고 단숨에 中腹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에 60mm박격포를 비롯하여 기관총과 다발총을 亂射하면서 逆襲을 시도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과 격돌함으로써 불꽃튀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중대는 1시간에 걸쳐 紛戰亂鬪속에 渾身의 力攻을 다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敵은 자동화기의 亂射로 進路를 막고 집요하게 저항함으로써 좀처럼 突破口를 뚫지 못한 채

로 攻勢威力이 鈍化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은 戰勢의 逆轉을 꾀하고자 右側의 제3소대로 하여금 급습으로 敵의 側背를 강타토록 命令하였다. 이때 소대장 閔惠東소위는 소대원을 지휘하여 集注하는 火網을 뚫고 과감한 돌격력과 화력의 집중으로 直衝하니 敵의 銳鋒도 動搖의 氣色을 보이게 되었다.

이 순간을 포착한 중대장은 白兵을 휘몰아 敵陣으로 직접 돌입하여 23명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重輕기관총 각 1정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리하여 全面 돌격의 轉機를 마련한 중대는 頂上으로의 突進을 감행하였는데, 頂上부근의 掩體壕속으로부터 躍出한 2개소대 규모의 敵이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鐵火를 집중함으로써, 중대는 또 다시 激戰을 再演케 되었으며 더우기 西北斜面 8부 능선에서 敵의 重기관총이 進出을 위협하기에 이르러서는 일시 공격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敵은 頂上의 固守를 決함으로써 중대장은 곧 이에 대한 制壓射擊을 대대에 요청하는 동시에 自身은 예비인 제2소대를 지휘하여 膠着된 戰況을 타개키로 결심하였다.

이때 誘導된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소령)의 집중포격이 頂山일대를 메우고 敵火를 制壓하자, 곧 先頭에 나선 중대장은 병력을 분대 단위로 分進케 하면서 급속 突進으로 敵의 화력거점에 육박하는 동시에 수류탄을 집중한 결과, 강력히 불을 吐하던 3개의 기관총이 수류탄의 炸裂속에 파괴되면서 敵陣은 混亂狀을 露呈하기에 이르렀다.

이 찰나에 소대는 擊滅戰을 편 끝에 7명을 사살하고 5명을 사로잡으면서 頂上으로 다가섰는데 그 부근의 地勢를 이용한 敵은 수류탄을 연속 投下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다함으로써 소대는 돌격의 반복속에 死傷者가 속출하여 또 다시 전진을 보지 못한 가운데 07.00까지 進出線 부근에서 好機를 포착코자 온 힘을 기우렸다.

나) 한편 제10중대의 제1소대는 『제11중대가 △281를 공격하는 동안 陽攻牽制 하라』는 대대장의 指示에 따라 이날 04.30에 공격대기지점을 떠나자 正面으로부터 直衝하였는데 이때에 敵의 砲擊으로 進路가 차단되고 5명의 負傷者를 냈으나 계속 전진끝에 05.00에는 同高地의 中腹에까지 진출하여 지원사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제11중대가 頂上부근에서 진격이 膠着되어 激戰을 反復하자, 보다 더 지원의 효과를 期하기 위하여 중대는 西北쪽 능선을 따라 포복進攻 끝에 突擊線 가까이까지 육박한 다음 全 화력을 집중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제11중대의 돌격을 容易케 하던 중 교통호속에 숨어 있던 2개 소대 규모의 敵이 逆襲을 加함으로써, 소대는 紛戰속에서 점차로 苦鬪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敵은 치열한 사격으로 兩面에서 包圍하고 挾擊하기 시작함으로써 소대의 死傷者가 累增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分散直前의 병력을 애써 수습하면서 7명의 突擊組를 편성한 다음, 위기가 將迫하려는 右側으로 달려가 左衝右突로 血路를 헤친 끝에 일단 西斜面 계곡으로 反轉하

였다.

이와같이 중대(+)가 한밤의 寂寞을 깨뜨리고 血戰을 되풀이 하는 동안, 어느덧 먼동이 트는 듯 東天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는데 山谷을 메운 火焰과 硝煙속에 敵의 遺屍가 四散되어 있었다.

3. 그동안의 戰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朴應奎대령은 敵이 집요하게 버티면서 끝까지 抗戰을 서슴치 않으므로 목표의 奪取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의 타개책으로 제3대대의 殘餘병력 마저 投入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08.00에 제3대대장에게 『10.00까지 △281로 急進하여 同 高地에 侵透한 敵을 격멸하고 이를 奪還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가) 제3대대(장, 李大哲소령)는 이와같은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待機中인 제9 및 제10(一) 兩중대를 지휘하여 急據 △281로 向發하였다.

10.00에 공격待機地點까지 진출한 兩중대는 △281 西斜面 능선을 타고 併進끝에 그 中腹에 다다르자, 제10중대는 正面에 있는 2개의 화력거점을 覆滅한 다음 頂上으로 돌진하였으며, 제9중대도 중대의 進路를 阻止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면서 突擊線까지 躍進하였다.

이와같이 兩중대가 氣勢를 높이면서 일시에 敵陣으로 달려드니, 敵은 그래도 奮戰의 銃부리 밑에 최후까지 固守하려는 듯이 1개중대 규모가 최후阻止射擊을 加함으로써, 先頭에서 치닫던 제9중대의 제2소대에서 3명이 戰死하고 7名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뒤따르던 제1소대를 投入하는 동시에 직접 先頭에 나서 계속적인 突進을 命令하였다.

이때 마침 右側으로 진출한 제10중대가 側射와 斜射로써 敵陣을 교란케 하는 刹那, 대대장은 직접 육박으로써 一決코자 敵陣안으로 白兵을 휘몰아 치면서 突入하여 1시간 동안에 걸친 擊滅戰끝에 마침내 △281의 西半部를 奪還하였으니, 이때가 11.35이었다.

나) 한편 △東斜面 中腹에서 완강한 敵의 저항으로 그곳에 膠着되었던 제11중대와 西斜面 溪谷으로 反轉하였던 제10중대의 제1소대는 07.30에 다시 砲門을 연 제30포병대대의 집중砲擊에 이어 08.00부터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頂上을 向하여 突進을 감행하여 2시간 동안에 걸쳐 숨막히는 血戰을 되풀이하는 중에 대대장으로 부터 『대대장이 제9 및 제10중대를 지휘하여 직접 전투에 참가하니 더욱 奮戰하기 바란다』는 無電을 받았다.

이에 士氣가 한층 고무된 중대(+)는 鐵火가 紛飛하는 치열한 激戰의 소용돌이 속에 필승의 길을 헤쳤는데 이윽고 10.00에 대대의 殘餘병력이 현장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이제 바야흐로 九死에서 一生을 찾기 위한 마지막 血戰의 장면이 전개되려 하였다.

중대(+)는 渾身의 力攻끝에 頂上의 寸前에서 敵의 火網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때에

朴基錫이등중사는 憤然히 5명의 突擊隊員을 이끌고 깎아 세운 듯한 斷崖를 기어오르는 아슬아슬한 曲藝를 보이면서 敵陣으로 육박하였다.

이 刹那에 崔在孝하사가 수류탄을 까들고 기관총을 목표로 一擲하자 곧 白兵으로써 突入한 대원들이 刺殺과 打殺, 그리고 撲滅과 掩擊으로 殊勳一等을 다투게 되니, 敵은 드디어 四分五裂로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노칠세라 중대(+)는 喊聲속에 銃劍과 수류탄으로 白兵戰을 강요하면서 頂上으로 뛰어올랐는데 여기에서 東進하는 대대 主力과 합세하여 殘敵을 剔抉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무렵 △281 東南端에서 戰力을 재정비한 제6중대(장, 金容振중위)는 西北쪽으로 뻗은 능선을 타고 側射와 仰射로써 敵을 制壓하면서 頂上으로 突進하였는데, 이때에 중대는 전날의 울분을 풀고자 하는 一念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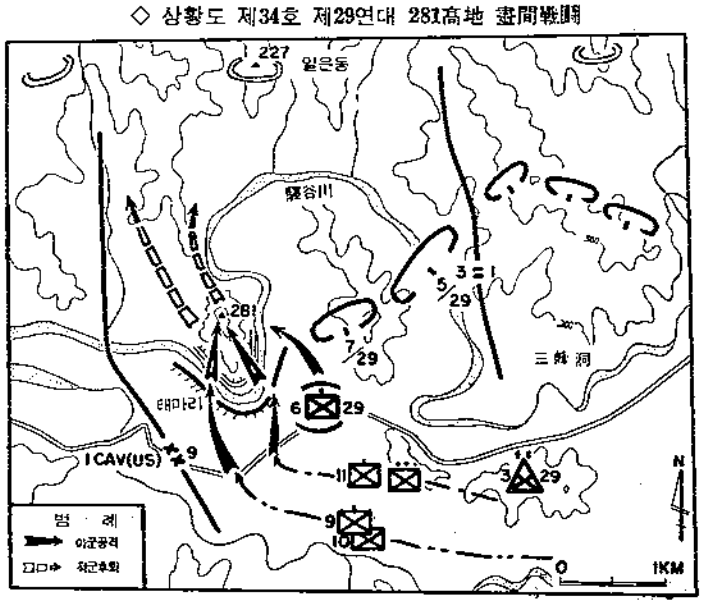
그리하여 怒濤와 같은 기세로 중대가 11.10에 頂上 50m까지 진출하였을때, 마지막 瞬間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듯한 敵의 화력이 빗발침으로써 또 한차례의 血戰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先頭에 나선 金東洙일등병과 蔡賓善 일등병 그리고 金泰慶 일등병은 수류탄 2개씩을 뽑아들고 재빨리 敵陣으로 달려들어 발악하던 6명을 죽이고 기관총 1정을 노획하니, 이를 지켜보던 중대도 火焰이 치솟고 硝煙이 자욱한 敵陣의 一角에서 一隅를 휩쓸면서 支離滅裂상태에 놓인 敵을 모조리 覆滅하고, 11.50에 東側背 頂上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대대장으로부터 △281를 奪還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즉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제3대대는 △281일대에 四周진지를 점령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한편, 陣地보강에 專力하라.

◇ 상황도 제34호 제29연대 281高地 晝間戰鬪



1개중대로써 △281 前方 無名高地쪽으로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라.

② 제6중대는 15.00附로 연대의 豫備隊가 되라』

이어서 연대장은 敵의 예상 접근로상에 가용한 화력을 집중토록 하고 警戒組 운용을 강화할 것을 아울러 지시하였다.

4.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이날의 戰功을 치하하고 특히

陣頭에서 勇戰한 제3대대장 李大哲소령을 비롯한 有功將兵에게 勳章을 수여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前後 12시간 동안에 걸친 血戰에서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부대별	戰果							損失		
	射殺	捕虜	鹵獲					戰死	負傷	失踪
			重機關銃	輕機關銃	無反動銃	多發銃	小銃			
제2대대	35	2		2				17	51	9
제3대대	101	50	8	16	3	18	36	8	22	
계	136	52	8	18	3	18	36	25	73	9

(2) 395高地 戰鬪(11. 5~11. 6)

(가) 작전계획

제29연대가 △281을 奪還하자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敵의 再侵에 대비하여 방어密度를 증강하기로 결심하고, 연대장으로 하여금 연대의 戰線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제2대대가 擔當하던 戰鬪正面을 兩分하여 그 한편인 △281일대를 제3대대가 맡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右一線에 제1대대, 中央에 제2대대, 그리고 左一線에 제3대대를 전개하여 방어력을 증강하였다.

동시에 사단은 연대에 豫備隊가 없음을 勘考하여 사단 豫備인 제28연대의 제3대대(장, 趙誠七소령)로 하여금 陣地 4~5Km 뒤에 阻止陣地를 점령케 하여 戰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리하여 3개 대대 모두를 一線에 배치한 연대는 진지를 改修하고 陣前에 철조망과 지뢰로 더욱 보강하는 한편, 前方에 수색거점을 確保토록 하였는데 이제 당면의 中共 제126사단은 △281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또 다시 그 예하의 제376연대로 하여금 이번에는 △395(後日에 白馬高地라고 命名됨)를 奪取케 함으로써 △281 전투가 끝난지 만 25시간만에 이 高地에서 激戰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中共 제126사단은 △281에 대한 奪還企圖가 많은 손실만을 보는 가운데 無爲로 돌아가자, 연대가 △281전투로 말미암아 戰線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고, 이에 對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는 急襲으로써 다시 한번 決戰을 강요코자 하였으니 要衝인 △395를 物量手法으로 奪取하여 손상된 「面子」를 세워보려는 심산인 듯 하였다.

그런데 第1波로 侵攻한 敵은 中共 제376연대의 제2대대(장, 周建國)로서, 이들의 병력은 600명 내외로 推算되었으며, 裝備로서는 82mm박격포 4문과 60mm박격포 8문을 위시하여 57mm무반동총 2정과 HMG 6정, 그리고 LMG 24정과 다발총 48정 및 소총등을 保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격開始 3시전에 이미 △395 北斜面부근까지 侵透하여 매복대기하다가 공격開始와 동시에 각종 砲火의 지원아래 戰車 1개 중대를 앞세우고 △395를 重點的으로 攻略하는 手法으로 밝혀졌다.

(나) 작전 실시

11월 5일 : 이날 21.00에 △395西北斜面에 매복한 제2대대의 警戒組로부터 1개 중대규모의 敵이 陣前에 나타났다는 急報가 있은지 5분 뒤에 대대 OP에 30여발의 105mm砲彈이 集中되더니 곧 이어 △395와 그 一圓에도 100여발로써 震動케 하니 山野는 炸裂音속에 硝煙으로 뒤덮였다.

이윽고 砲聲이 멈추어지자, 어느덧 同高地 北斜面에 潛伏하던 3개중대 규모의 中共이 高地 頂上을 목표로 殺到하였다.

敵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主力으로써 高地의 主峯을 담당한 左一線인 제3중대의 陣前으로 밀어 닥쳐서, 집중적으로 正面을 突破分斷코자 하였는데, 그 일부 병력은 방향을 돌려 同 高地 右端으로 먼저 침투한 1개중대 규모와 合流하여 中央인 제1중대의 東側背를 急襲코자 하였다.

이렇듯 敵의 兩面挾攻에 直面하게 된 兩중대는 固守를 다짐하면서 모든 화력을 동시에 집중하였으나 敵은 상투적인 물량전법으로 波狀的인 壓力을 加함으로써 23.00부터는 陣內에서 白兵의 亂戰格鬪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右一線인 제2중대의 正面으로도 새로이 增援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突進으로 밀려들었는데, 이에 중대는 全 戰力을 집결 발휘하면서 醜虜를 擊退코자 치열한 激戰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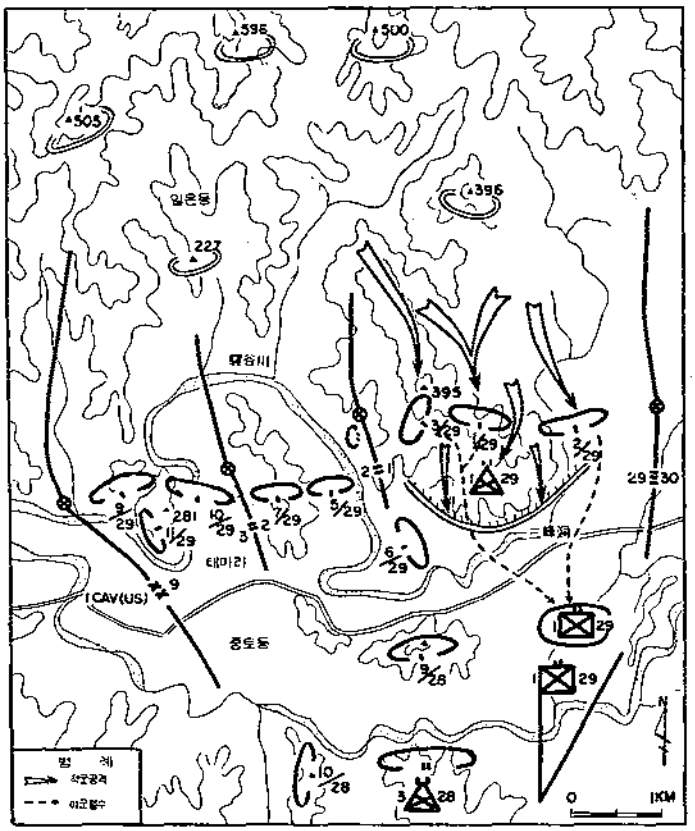
이와같이 대대 主力이 渾身의 力戰을 펴는 동안 느닷없이 대대 OP(△395頂上으로부터 東南쪽 700m)가 2개소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미처 대항할 경황도 없이 敵에게 물러준채로 23.20에 △255(△395 東南쪽 3Km : 대대 CP가 위치한 곳) 부근으로 철수하는 바 되었다. 이와같이 지휘소가 襲擊을 받게 됨으로써 有線網마저 杜絶된 상태에 놓였던 一線 각 중대는 지휘체제가 마비되는 혼란을 露呈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중대는 이에 동요치 않고 四周방어로써 高地를 堅守하였는데 敵이 △395 東麓을 따라 進攻한 戰車 1개 소대의 지원아래 狂波와 같이 밀려 들어 중대의 위기가 百尺竿頭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런데 대대 OP가 敵의 急襲으로 무너지게 된데 對하여 당시의 제4중대장인 高光玟대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뒷날, 포로 진술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敵은 우리 수색대가 드나드는 通路를 알아 내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정찰대로 하여금 며칠을 두고 陣前에 잠복 대기시키고 있던 중, 이날 마침 敵情탐색차 출동한 我 수색대원이 잡히게 된 바,

◇ 상황도 제35호 제29연대 395高地 戰鬪



敵은 이들에게서 안전 通路를 알아낸 다음, 대대를 일제히 기습공격 하였다고 한다.』

이 무렵 一線의 戰況을 파악코자 연대에 나오게 된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戰況이 急轉直下로 악화되는 것을 깨닫고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게 되었는데, 우선 豫兵으로서 包圍에 빠지게된 제1대대 主力의 隨意 철수를 命令하는 동시에 이미 阻止진지를 점거중인 제28연대의 제3대대로 하여금 즉각 △255(△395 東南쪽 3km)—△266(△395 南쪽 3Km)를 연하는 線에 차단진지를 점령케 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敵의 侵攻을 견제 抑留토록 긴급 조치하는 한편, 同 연대의 제1대대를 △266로 출동 대기케 하였다.

그리고 곧 대동한 작전참모 李義珩중령으로 하여금 逆襲 命令(사단 作命 제79호)을 하달케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써 現 방어선에 侵透한 敵을 역습하여 이를 포착격멸하려 한다.

攻擊間 美 제64戰車중대의 1개소대가 지원할 것이다.

② 제28연대는 2개 대대로써 목표 "A" "B"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속 進擊하여 최종목표 "李"(△395)를 점령 확보하라.

③ 제29연대는 제28연대가 공격대기선에 進出하면 제28연대장과 協議下에 透明圖의 전투정면을 인계하라.

④ 제30연대는 現 陣地를 확보하면서 위력수색을 강화하라.

⑤ 제30포병대대는 제28연대를 직접지원하고 공격개시 20분전에 공격준비 射擊을 실시하라.

⑥ 공격개시 日時는 11월 6일 07.00이다.』

이리 하여 李昌禎대령이 지휘하는 제28연대는 새로운 一線 부대가 되어 만반의 決戰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11월 6일 : 새로운 공격命令을 받은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은 곧 관계 참모를 소집하여 狀況을 檢討끝에 단숨에 敵線을 突破 分斷하여 목표를 탈취키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연대장은 이미 이날 새벽에 △255—△266에 進出하여 차단진지를 占據中인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하고, 이 무렵 △266로 躍進하여 출동 대기中인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공격개시 1시간前에 공격待機線을 점령케 하였다가 공격개시와 더불어 중간 목표("A" "B")의 左右 兩側面으로 分進케 하면서 直衝突破로 이를 奪取한 다음, 최종 목표 "李"(△395)를 一擧에 攻破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現 陣地에서 躍進하여 목표 "A" "B"를 탈취한 다음 敵을 驅逐하면서 계속 進擊하여 목표 "李"(△395)를 奪還하려 한다.

㉮ 공격개시 日時는 6일 07.00이다.

㉯ 공격間 포병 제30대대가 직접지원할 것이다.

㉰ 공격間 美 제64戰車중대의 1개소대가 지원할 것이다.

② 제3대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395 東側背를 急襲하여 목표 "B"를 점령하라.

점령이 끝나면 목표 "李"를 계속 공격하여 그 東半部를 탈취하라.

③ 제1대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395西斜面 능선으로 直衝하여 목표 "A"를 점령하라.

점령이 끝나면 즉시 목표 "李"를 계속 공격하여 그 西半部를 奪取하라.

④ 제2대대는 現陣地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제1대대가 공격대기지점으로 躍進함과 동시에 그 진지를 引受하라.

⑤ 協調指示

㉮ 各隊는 6일 06.30이전에 공격개시선까지 進出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하라.

㉯ 최종목표를 奪取하면 進出線에 즉시 陣地를 구축하라.

⑥ 연대 전방 CP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봉향동(△395 南쪽 4km)으로 推進 開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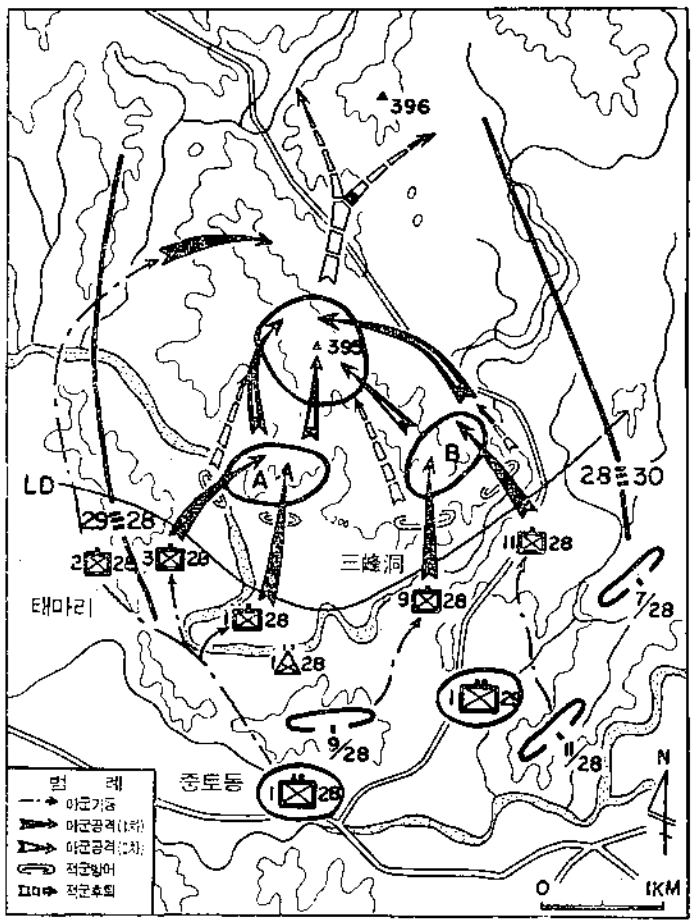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命令을 받은 제1, 제3 兩대대는 04.30부터 黎明속을 뚫고 각각 擔當地域을 向하여 徒步로 機動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소령)의 공격 준비사격이 끝나자, 연대는 07.00를 期하여 목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1. 右一線을 擔當한 제3대대(장, 趙誠七소령)는 07.00에 LD를 통과할 豫定으로 05.30에 陣地를 출발하였는데, 제11중대를 右一線으로, 제9중대를 左一線으로 전개하여 豫定 시간에 LD를 넘어서자, 곧 목표 "B"를 指向하여 △395 東斜面으로 진공하였다.

이날따라 濃霧가 山野를 메워 視界가 不良한데 初冬의 冷雨까지 겹쳐 機動에 제한을 주

◇ 상황도 제36호 제28연대의 395高地 戰鬪



었으나, △395 東南麓의 溪谷을 넘어선 대대는 08.00에 이미 목표 100m앞까지 進出하여 兩面에서 包圍網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當面의 敵은 地의 利를 타고 밤 사이에 곳곳에 화력 거점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突出部마다 자동화기를 배치하여 완강히 抵抗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병력을 突擊대형으로 전개시킨 다음, 모든 화력을 일제히 집중하여 이를 突破코자 하였으나, 敵은 계속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수류탄으로 집요하게 버팀으로써 1시간 30분동안에 걸친 激戰에도 불구하고 進出線에서 더 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치열한 화력전을 되풀이 하였다.

09.00에 대대는 隊伍를 정비하고 突進을 감행케 하는 동시에 砲擊지원을 요청하여 敵火를 制壓하였다.

이로부터 일제히 進擊을 감행하였는데, 이 때에 先鋒으로 나선 右一線인 제11중대의 제2소대는 낮은 포복으로 死角을 이용하여 목표의 50m前方까지 접근한 다음, 일제히 喊聲을 지르면서 東側背로 달려 들어 수류탄을 投擲하고 白兵戰을 감행하였다. 이에 중대의 主力은 後續 突擊으로 敵의 거점을 차례로 강타하였으며, 곧 이어서 제9중대가 左側背로부터 挾擊하자, 敵은 마침내 潰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때가 09.30이었다.

이와같이 목표 "B"를 奪取한 대대는 그 餘勢를 몰아 敵을 剔抉하면서 목표 "李"를 向하여 계속 突進하였는데 대대가 목표에 접근할수록 山勢는 急峻하여지고 敵勢는 증강되므로 8部능선에서 또 다시 치열한 激突을 맞게 되었다.

이 때에 급편방어 태세를 갖춘 敵은 수류탄을 연속 투하하면서 발악하므로 좀 처럼 敵

陣을 突破하지 못한채로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戰況을 타개키 위하여 대대장은 『계속 突進』을 반복하여 下命하였다.

이에 兩 중대는 仰射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頂上 30m 前方까지 육박한 다음, 白兵으로써 敵陣에 突入하니 마침내 그 一角이 무너지게 되고 混亂에 빠지게 된 敵의 무리가 右往左往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포착한 대대는 擊滅戰을 편 끝에, 도합 5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 3정의 기관총과 18정의 소총 그리고 수류탄등을 노획하고 10.50에 최종 목표 "李"의 東北部를 탈취하였다.

2. 한편 제1대대(장, 金祥鈺소령)도 이날 새벽에 △266 집결지를 떠나자 그 西北쪽의 無名高地를 단숨에 뛰어 넘어 06.30에는 예정대로 공격待機지점에 進出하여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었다.

07.00에 豫定대로 進擊을 개시한 대대는 제1중대를 右一線으로, 제3중대를 左一線으로 전개하고 제2중대는 대대 OP에서 次後 命令을 대기토록 하는 가운데, 驛谷川의 支流를 橫斷躍進하자 목표 "A"를 向하여 진공하였는데, 08.10에는 목표 下端까지 一擧에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병력을 包圍대형으로 移行케하는 동시에 兩面에서 압축토록하였는데, 本是 이 高地의 西斜面은 急峻하여 攻者의 機動이 노출되는 반면에 敵陣은 상호 지원이 容易한 까닭으로 1시간 동안에 걸쳐 화력을 집중 발휘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激戰만을 反復하였을 뿐 戰況의 進陟이 不振하였다.

이러한 激戰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09.30에 대대장은 승패를 一戰으로 판가름하고자 결심하고 全面돌격을 감행 하였다. 이로부터 主力은 과감한 돌진으로 집요하게 버티던 2개 소대 규모의 敵을 驅逐하고 이를 추격한 끝에 그 中腹에 이르렀는데, 이곳으로부터 重火器를 집중하면서 反擊에 나서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또 다시 激突하여 鐵火가 紛飛하고 血肉이 亂舞하는 공방의 激戰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左一線인 제3중대는 포복과 躍進을 연결하면서 목표 左側으로 迂回하여 敵의 右側背로 육박한 다음, 可用한 모든 火力을 집중하여 일시에 急襲하자, 敵陣은 마침내 四散崩壞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이에 東側 능선으로 突進한 제1중대도 합세하였으나, 그토록 발광하던 敵도 이제 勢窮力盡하여 그들의 主力이 있는 頂上쪽으로 潰走하면서 합류하는 듯 하였다.

이 무렵 戰況의 進展을 지보켜던 연대장은 목표의 탈취가 目睫之間에 있음을 看破하자, 대대 OP부근에서 命令을 대기중이던 제2중대장에게 命令하여 10.30까지 △395 北斜面으로 急進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背後를 急襲케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당시 연대장은 敵의 가장 脆弱한 背後에 대한 急襲과 正面에서의

突破로써 일거에 殲滅을 期必코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10.00에 목표 "A"를 奪取한 제1, 제3 兩중대는 계속 돌진하여 潰走하는 敵에게 一擊又一擊을 加하면서 頂上으로 육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최후 阻止火網에 부딪쳐 苦戰케 되었으니, 敵陣의 兩側面에서 重기관총 2정의 側射화력이 雨注할 뿐 아니라, △395 北쪽으로 推測되는 陣地에서 82mm박격포彈이 진출 정면으로 집중하여 한동안 戰況의 不振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09.50부터 중대는 방석洞의 無名高地를 踏破 끝에 10.20에는 목표 後斜面의 西端까지 進出함으로써, 공격부대로 하여금 다시 戰勢에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하였다.

어느덧 敵陣背後에 攻圈대형을 갖춘 중대는 우렁찬 喊聲도 드높이 敵 背後를 교란하고, 화력의 집중으로 敵을 制壓하니, 그들의 戰勢가 逆轉되는 듯이 보였다.

이 순간을 포착한 主力은 全面 突擊으로 頂上에 뛰어 올라 白兵戰을 벌이니, 드디어 敵은 무릎을 꿇고야 말았는데, 대대는 20分동안 激突끝에 41名을 사살하고 1名을 사로잡았으며 그밖에 약간의 각종 장비품을 노획하는 전과를 세우고 11.00에 頂上 西半部를 탈환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나자, 곧 戰線을 정리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0연대(장, 崔英圭대령)로 하여금 鐵原 北쪽의 現陣地를 계속 堅守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28연대로 하여금 11월 6일 15.00附로 제29연대가 擔當하던 戰線을 引受케 함으로써 사단의 右一線부대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29연대의 左一線으로 사단의 最西端 陣地(△281일대)를 占有中인 제3대대를 同 時間附로 제28연대에 배속토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제28연대는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제1대대를 中央一線으로, 배속된 제29연대의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삼아 △266일대의 阻止陣地를 점령케 하였다.

이로써 同 연대는 사단장의 作戰方針에 따른 방어密度를 증강하고, 종심을 깊게하는 방어편성을 끝마치게 되었다.

한편 제29연대(장, 朴應奎대령)는 이날 陣地 引繼와 동시에 사단 예비가 되어 藥天洞(鐵原 西南쪽 2km)부근으로 轉進하여 戰力을 정비하면서 사단 側後方 경계에 임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을 재조정한 사단은 陣地를 보강하면서 不斷한 위력수색으로써 그 正面의 敵情수집에 힘쓰게 되었다.

한편 中共 제126사단은 기간중에 많은 損傷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소대乃至 중대규모의 정찰대로써 △395—△281부근에 출몰케 함으로써 彼我間에 衝突이 계속 되었다.

이와같은 敵情을 大觀하여 볼때 당면의 敵은 아직도 防守一邊倒에만 그치지 않고 好機를 타서 攻勢의 再起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이날 연대가 血戰끝에 거둔 名大隊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부대별	戰果						損失		
	射殺	捕虜	鹵獲				戰死	負傷	失踪
			迫擊砲	重機關銃	輕機關銃	小銃			
28R 1, 3Bn	101	3		1	3	18		1	
29R 1Bn	9	2		1	2	11	6	42	9
계	110	5		2	5	29	6	43	9

§ 參戰者의 證言

◇ 제29연대 제2대대 S—3 崔命洙중위

(1973. 7. 10 제3군단 군수참모실에서, 대령)

當時에 제2대대는 연대 左一線으로서 △281일대를 담당케 되었는데, 이에 우리 대대장 孫德均소령은 右로부터 제5, 제7, 제6중대의 順으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281의 主峰을 제6중대(장, 金容振중위)가 擔當하게 되었는데, 11월 3일밤에 中共 제126사단으로 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惡戰苦鬪속에 力戰을 다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말미암아 一旦 이 高地를 敵에게 물려주고 철수하였으며, 다음날 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장, 李文哲소령)가 逆襲을 감행하여 이를 다시 奪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대대 S—3이던 내가 再三 體驗한 것은, 通信의 중요성이다.

敵이 攻勢를 取한지 얼마되지 않아 砲擊으로 因하여 有無線網이 파괴되어 지휘체계가 일시에 마비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戰況을 全혀 파악치 못한 탓으로 作戰수행에 많은 混雜相을 惹起하였다.

이런 까닭에 평소에 지휘관은 通信수단을 강화하는데 힘써야만 할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敵이 한번 侵攻하여 突破한 곳은 다음에도 다시 그 侵路를 이용하는 것이 恒例이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다 강력한 화력 集中點을 設定하고 주도면밀하고 彈力性 있는 방어계획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 戰 訓

본문중의 11월 5일자 記事를 보면, 수색대의 통로가 敵에게 폭로된 까닭으로 敵의 侵攻과 동시에 제29연 제1대대 OP가 奇襲을 받다, 지휘체계가 마비되는 상태를 露呈하고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一線 각 중대에 적지않은 衝擊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을 살펴보건대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첫째 : 同一한 통로를 往復케 하는 방식의 姑息的인 수색활동을 반복하였다는 點.

둘째 : 수색대원이 豫定시간에 복귀치 않으면 (특히 生死가 불명확할 때) 當該 지휘관은 마땅히 그 통로의 暴露를 예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당시의 통로에 대하여 閉鎖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點.

세째 : 누구보다 더 使命感에 투철하여야 할 수색대원이 通路誘導를 하였다는 點.

따라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① 지휘관은 최초의 命令 指示만으로써 그 責務를 다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不斷한 확인점검은 물론 사후대책을 사전에 講究하여 예상외의 狀況에 즉응하여야 할 것이다.

② 「我軍의 要衝은 敵에게도 要衝이 된다」는 點을 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對陣상태에서의 陣前 접근로의 폭로는 곧 陣地의 正體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百方으로 통로에 대한 管制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어떠한 위기에 處하여서도 一身의 安逸이 곧 모든 戰友에게 致命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事實을 銘記하여야 할 것이다.

4. 395高地 附近 戰鬪 (1951년 11월 16일 부터 1951년 11월 17일 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37, 3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9사단	장 준장	朴 炳 權	제30포병대대 장 소령 徐 廷 善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禎	병력 : 장교—93%
제1대대	장 소령	金 祥 鈺	사병—96%
제2대대	장 소령	金 寅 文	장비 : 총포—99%
제3대대	장 소령	趙 誠 七	차량—78%
제29연대 제1대대	장 소령	張 顚 均	
		敵	軍
中共 제42군	장	吳 瑞 林	병력 : 800명
제126사단	장	王 採 生	

나. 전투 전의 개황

제9사단(장, 朴炳權준장)은 10월 하순에 美제3사단과 戰線을 교대하여 제29, 제30 兩 연대로써 左右一線으로 삼아 鐵原 北쪽의 中江里—檢井里—△284—△395—△281 線에서 主抵抗線을 점령한 以來로 11월에 들어서면서 中共 제126사단(장, 王採生)의 제376연대를 상대로 △281 및 △395에서 치열한 激戰을 치르고, 같은 달 6일에 左一線인 제29연대(장, 朴應奎대령)로 하여금 예비대인 제28연대와 서로 陣地를 교대토록 하였다(△281 및 △395 전투, 전투 후의 개황 참조).

이리하여 새로이 左一線을 擔當케 된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사단장의 方針에 따라, △395—△281를 연하는 主陣地를 강화하면서 捕虜획득에 注力하였는데, 사단 中央에서 突出部를 형성한 △395 일대에 대하여 當面의 中共 제126사단이 前述한 전투(△281 및 △395전투)를 挑發한 결과 많은 出血을 보았음에도 不拘하고, 소대 내지 중대규모의 奇襲으로 계속 不斷히 전선의 교란을 策하면서 전면 攻勢의 好機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같은 판단을 더욱 굳히게 된 根據는 이 敵이 △395 北쪽에서 이를 瞰制하는 △396(△395 北쪽 2km)—△500(△396 北쪽 2km) 부근에 병력과 砲화력을 急增하는 사실이 기간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395에 대한 再攻을 企圖하는 것으로 내다 보였다.

이러한 그들의 計策을 看破한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그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制高部位를 先制로써 奪取하고 그 결과 그들의 공격 企圖를 미리 水泡로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11월 10일에 제28, 제30 兩연대의 일부로써 공격을 發起케 한 바 있으나 그들의 強靭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사단의 △396공격이 挫折된 뒤에도 敵은 여전히 曉星山을 中心으로 東西로 연하는 主抵抗線(△396—△459—△596—△505)을 形成하는 가운데 戰力의 재정비와 陣地의 복구공사를 서둘러 끝마친 듯하더니, 그 예하의 제376연대로 하여금 문제의 爭奪要點인 이 △395일대를 끝내 掌中에 넣어보려는 속셈으로 16일 20.00에 攻勢를 取함으로써 지난 6일에 血戰을 치른 바 있는 이 高地에서 다시 紛戰을 惹起케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1월 10일에 전개한 △396공격이 中折되자,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敵의 攻勢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곧 戰線을 조정하여 陣容을 강화하였는데, 一線 兩연대(제28 및 제30연대)로 하여금 예비대 없이 3개대대 모두를 戰線에 배치하여 방어密度를 증강케 하였으며, 12일 06.00附로 예비인 제29연대에서 2개대대를 抽出하여 1개대대씩을 一線연대에 각각 배속케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主陣地 4km 후방에 阻止陣地를 확보케 함으로써 방어의 종심을 깊게 하였다.

그리고 華田(鐵原 西北쪽 2km) 부근에 放列한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 소령)로 하여금 火集點의 구성을 再檢討케 하여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즉각 敵을 覆滅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으며, 또한 鳳岩洞에 위치한 사단의 제101重迫擊砲중대를 △266(△395 南쪽 3km) 南麓으로 推進케 하여 敵이 공격의 목표로 삼는 △395 일대에 對하여 중점적으로 火力支援토록 措置하였다.

아울러 사단장은 堅守不動의 決意아래 見敵必滅을 다짐하였는데, 특히 △395일대를 擔當한 제28연대에 대하여서는 四周방어에 專念하면서 이를 掠取코자 노리는 敵의 奸計를 끝까지 粉碎토록 嚴達하였다.

이때에 연대장 李昌禎대령은 연대 CP를 △266에 두고,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395일대를 확보케 하고 제1대대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281일대를 각각 담당케 하였으며 배속중인 제29연대의 제1대대는 △266부근에 阻止陣地를 점령토록 하여 一線부대를 掩護케 하면서 側후방 경계에 임하도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395의 主峰을 중심으로 담당한 右地區인 제3대대에 대하여서는 어떠

한 경우에라도 이 高地만은 기어코 固守토록 要求하면서 제2대대의 제5중대를 배속하는 한편 연대의 수색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同 高地 北斜面의 突出部를 확보케 함으로써 대대 경계組와 함께 경계要線을 設定키로 하였다.

또한 연대의 각종 지원화기로써 제3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대장 趙誠七 소령은 제10중대를 右一線으로, 제11중대를 中央 右一線에, 그리고 배속된 제5중대를 中央 左一線으로 하여 △395主峰의 東半部를 맡게 하고, 제9중대로써 그 西半部를 占領케 하여 左一線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4개 중대로써 東西의 능선을 따라 防禦陣地를 점령케 하였는데, 이로써 固守의 態勢를 확고히 형성케 한 것이다.

(2) 작전실시

11월 16일 : 이날 사단의 각급 수색대가 敵陣 至近거리까지 진출하여 敵情을 수집하는 가운데, 오후에는 사단 砲兵대대(장, 徐廷善 소령)가 磁星山 東北쪽에 있는 敵의 포병진지에 대한 파괴사격을 시작하여 敵陣을 강타하였다.

20.00에 이르러 夜暗이 짙어가자, 敵의 砲陣地에서도 제28연대 主陣地일대에 대한 砲擊이 시작되더니, 122mm 및 82mm 포탄 250여발이 △395와 그 일대에 雨注한지 40分 뒤에는 2개대대 규모의 敵이 △395를 비롯한 全 戰線을 노리면서 突進하기 시작하였다.

20.40에 제3대대의 右一線인 제10중대 正面으로는 △396 東側에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肉迫中이었으며 △395의 主峰을 맡은 中央의 제5, 제9 兩중대의 陣前으로는 1개대대규모가 包圍와 突破를 노리고, 中央地區인 제1대대의 右側正面으로는 1개중대 규모가 地境線을 뚫고 迂回를 꾀하였으며, 그리고 左地區인 제2대대 陣前으로도 2개중대 규모가 △281를 指向하면서 壓縮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敵이 物量을 앞세우고 攻勢를 取하자, 연대장 李昌禎대령은 敵의 侵攻形勢를 輕視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彈幕사격을 유도하여 遲滯없이 전투태세에 突入하는 동시에 이를 擊滅키 위한 要旨 다음과 같은 긴급命令을 내렸다.

『① 당면의 敵은 △395를 목표로 공격력을 집중하여 이를 掠取하려 꾀할 것이다.

제1, 제2 兩대대 正面의 敵은 攻擊으로써 牽制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主攻은 제3대대 正面인 △395를 목표로 指向할 것이다.

② 연대는 現陣地를 固守하면서 이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려 한다.

③ 右地區隊인 제3대대는 現陣地를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395를 固守하는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

④ 中央地區隊인 제1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陣前에서 敵을 격멸하라.

특히 전투지경선의 間隙으로 침투를 꾀하는 敵을 포착하여 이를 殲滅하라.

⑤ 左地區隊인 제2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특히 △281일대를 확보토록 注力하

라.

⑥ 배속중인 제29연대의 제1대대는 23.00까지 △266로 躍進하여 側方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언제라도 즉각 機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⑦ 통신대장은 現 通信輔線을 계속 유지하되, 有線網의 杜絶에 대한 복구책에 任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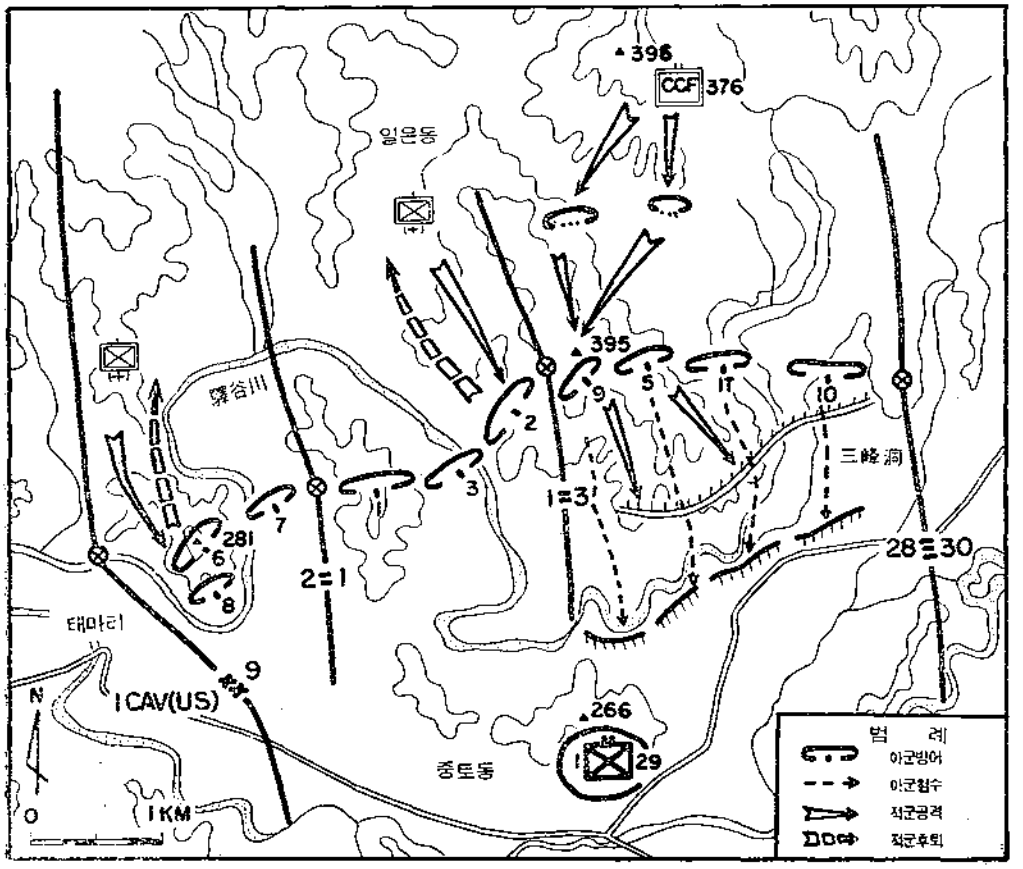
⑧ 각 대대는 소정의 야간標識와 암호 및 음어를 사용하고 相互 긴밀하게 협조하라.

⑨ 연대 전방지휘소는 △266에 設置한다』

그런데 연대가 21.00에 이와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을 때에는, 제3대대의 先遣隊를 비롯하여 全 警戒線에서는 이미 侵襲한 敵과 激突하여 치열한 攻防戰을 벌이고 있었는데, 각급 수색대는 이를 阻止코자 30分동안에 걸쳐 渾身의 勇을 다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밀리게 됨으로써 21.30에 이르러서는 각기 本隊로 復歸하기 시작하였다.

1. 右地區隊인 제3대대(장, 趙誠七소령)는 이날 20.40에 △395 北斜面에 잠복중이던 경계소대로부터 中共 1개대대 규모가 그 北쪽의 兩側능선을 타고, 侵攻中이라는 急報에 接하자, 대대장은 경계소대로 하여금 敵을 견제케 하면서 主陣地로 復歸토록 命令하였다.

◇ 상황도 제37호 395高地 夜間戰鬪(11.16)



이와 동시에 각 중대에는 연대 命令의 要旨를 傳達하는 동시에 決戰방어 태세로 轉換케 한 다음, 대대의 모든 可用화력을 집결사용하여 이 敵을 陣前에서 일거에 무찌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敵의 主攻이 △395를 목표로 指向하는 만큼 이 高地의 主峰을 專擔한 제5, 제9 兩중대로 하여금 現 陣地의 固守를 다시금 다짐케 하면서 重火器중대의 81mm와 60mm박격포의 火力을 敵의 접근로에 집중케 하였다.

이에 兩 중대는 一戰을 決하고자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21.30에 마침 △395 北斜面에 잠복중이던 연대의 수색소대가 미쳐 철수하지 못한 가운데 激戰을 전개하면서 제9중대와 陣地로 轉進중이었다.

이때에 수색 소대를 뒤쫓아 急進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소대가 陣內로 들어서는 것과 거의 같은 때에 한데 휩쓸려서 뛰어 들었는데, 중대는 彼我의 식별이 困難하여 혼선을 빚는 가운데 어느듯 陣內에서는 白兵의 混戰亂鬪 장면을 演出케 되었다.

이로부터 彼我가 서로 엉켜 屠戮相殘의 慘景을 빚는 동안에 밀어닥친 제2波는 急遽 頂上 가까이 까지 直衝하더니, 수류탄을 던지면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순식간에 敵의 거센 물결에 휘말리게 된 중대는이에 屈하지 않고 중대장의 陣頭 지휘아래 수류탄공격과 육탄對決의 반복으로 敵에게 打擊을 加하였으나, 23.30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頂上 右側背의 一角이 突破되면서 敵의 掌中에 들게 되었으니, 줄어든 병력으로서는 육박으로 이를 支撐하기 힘들게 되었다.

한편 頂上의 東半部를 점령중인 제5중대도 21.40에 同高地의 東斜面능선을 타고 迂回와 包圍를 꾀하면서 侵攻한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중대는 敵이 小銃 有効射程내로 들이닥치는 때를 기다렸다가 모든 화력을 동시에 집중하여 鐵火를 集注하자, 다만 그들의 손실만이 累增할 뿐, 감히 陣前까지의 接近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잠시뒤에 새로운 증원을 얻은 이들은 高地를 에워싸고 몇 차례에 걸친 猪突을 강행함으로써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激戰이 한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중대는 점차로 밀리는 바 되어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砲擊을 요청하였으나, 觀測이 不意如할 뿐 아니라 敵이 지나치게 근접한 탓으로 砲火의 적절한 効力射를 얻지 못한 채로 다만 自隊의 화력과 육탄만으로써 대결하기에 이르렀다.

22.20에 西側背로 迂回침투한 1개소대 규모와 右인접 제11중대와의 地境을 뚫고 進出한 소대규모의 敵이 서로 합류하여 중대의 右一線인 제1소대를 挾攻하기 시작하였다.

이 瞬間 소대장 朴소위는 선두에서 이 醜敵을 격멸하라고 號令하면서 左衝右突로 白兵戰을 벌이니, 그들은 이 기세에 눌렸음인지 당황하는 기색이 짙어졌다.

이 刹那에 소대는 『突擊앞으로!』라는 소대장의 號令과 함께 敵前으로 뛰어들어 一擊에 18名을 射殺하니 敵은 支離滅裂이 되어 四散潰退하고야 말았다.

이 무렵 중대의 左一線인 제3소대도 그 側背에서 急襲을 꾀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맞아, 20분간에 걸쳐 奮戰끝에 陣地를 끝까지 지켰다.

이렇듯 중대가 渾身의 力鬪로써 敵을 일단 물리쳤는데, 23.30에 이르러 제9중대의 防守陣을 突破한 무리들이 중대의 背後를 찌름으로써 이때부터 重圍에 빠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대는 이 危局에서 陣地를 支撐하기에 挺身奮鬪하였으나 23.40에 이르자 及其也 진지의 一角에 龜裂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듯 戰況이 일시에 豹變하여 제5중대마저 難境에 빠지게 된 것을 直感한 대대장은 판단하기를 계속 狂瀾과도 같이 밀려드는 敵勢를 꺾어 내기엔 이미 대대의 戰力이 그 限界點에 다달았다고 내다보고 연대장에 대하여 철수허가를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연대장의 命令으로 23.50부터 轉進키로 하였는데, 다음날 00.30에는 △395 南端(△284—牛味洞 線)에 掩護陣地를 점령한 다음 반격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395일대는 또 한번 敵의 手中으로 넘어갔고, 이날 대대가 血戰끝에 거둔 전과와 暗中모색으로 敵中을 돌파하여 收容되기 까지의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小銃	18정
射殺	107명	手榴彈	1,200발
捕虜	2명	損失	
鹵獲		戰死	18명
82mm 迫擊砲	1문	負傷	57명
機關銃	1정	失踪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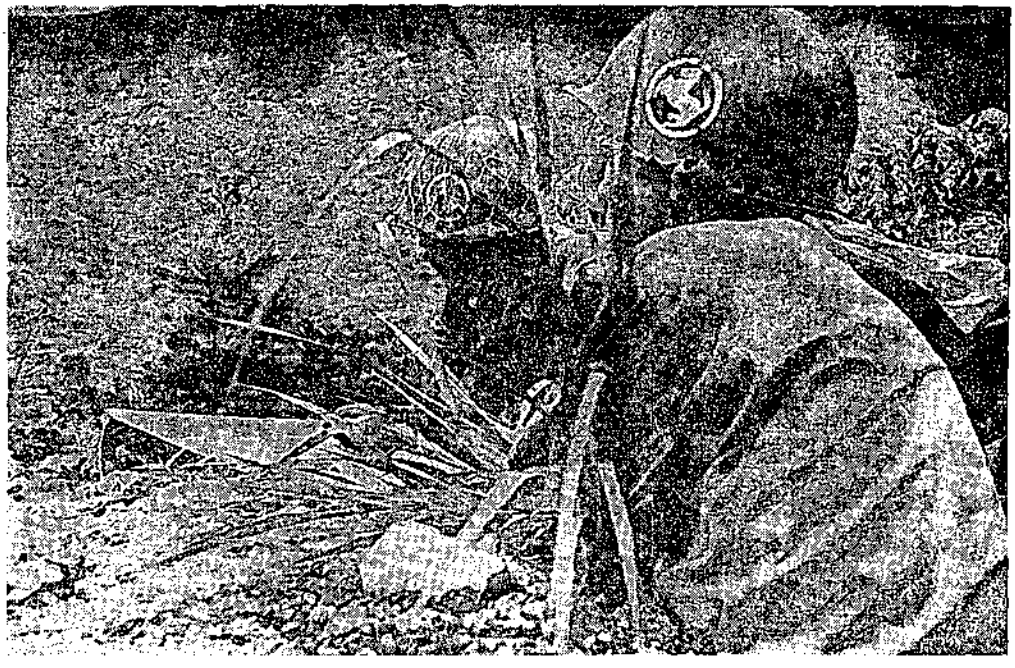
2. 연대의 中央地區隊인 제1대대(장, 金祥鈺소령)는 이날도 제2중대를 右一線으로, 제3중대를 중앙에, 그리고 제1중대를 左一線으로 배치한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중, 21.40에 이르러 2개중대 규모의 中共의 무리가 그들의 主力이 右地區隊인 제3대대의 正面으로 侵攻하는데 호응하듯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395 西北쪽 능선을 타고 陣前으로 나타나더니, 그 銳鋒을 집중적으로 右一線인 제2중대 정면에 지향하면서 突進하였다.

이러한 속셈은 △395 西南쪽으로 뻗은 突出部에 배치된 중대를 物量으로 일거에 突破分斷하여 이를 奪取하는 동시에 그 側背에서 △395의 背後를 急襲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敵의 企圖를 이와같이 分析한 대대장 金祥鈺소령은 대대의 可用화력으로써 제2중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한편 同 중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堅守 확보토록 嚴命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陣前으로 다가서는 이 來敵을 맞아 一戰을 決하게 되었는데, 22.15에



<敵陣을 노려보는 白馬>

敵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左右兩面으로 分進하더니, 하나는 右一線인 제3소대의 正面으로 침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西北쪽으로 迂回하면서 左一線인 제1소대의 東側背를 찌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兩 소대는 동요하지 않고 一絲不亂하게 堅守하니 그들은 다만 出血만을 强要當할뿐 감히 달려들지 못하였다.

이렇듯 死傷者만이 속출될 뿐으로 중대의 陣容에는 추호도 동요의 빛이 보이지 않자, 이에 當惑한 듯한 敵은 이번에는 상투적인 人海手法으로 그들의 屍山을 넘고 또 넘으면서 돌진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22.35부터는 중대의 陣前에서 紛戰케 되고 到處에서 비명소리가 요란하고 劒光이 亂舞하는 白兵戰으로 化하였다.

이와같은 血戰의 소용돌이속에서 決死固守를 외치는 제1소대는 白兵突破로 한때 敵을 擊退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체념치 않고 物量의 힘으로써 계속 밀어 닥쳤는데, 여기에서 소대장은 敵陣에 뛰어들어 左衝右突로 屠戮을 반복하다가 壯烈하게 戰歿하였다.

이로부터 劣勢를 만회치 못한 소대는 23.20에 이르러 드디어 陣地의 右側背를 敵手에 넘겨주는 바 되었다.

이때 소대의 危機가 寸刻에 다다랐음을 看破한 중대장은 예비로 확보중인 2개분대와 화기소대의 일부 병력을 지휘하여 彈雨속을 포복전진한 끝에, 敵前에 육박하자 肉彈으로 突破口를 뚫고, 일제사격과 동시에 『敵을 모조리 격멸하라!』고 大號 하면서 白兵을 휘몰아

敵陣으로 뛰어 들었다.

중대장을 비롯한 全 대원은 銃劍무진으로 敵陣을 휩쓸면서 叱咤와 비명이 交叉하는 白兵亂鬪를 30분동안 벌인 끝에 마침내 殆半의 敵을 覆滅하고 殘敵의 일부를 △396 北쪽으로 驅逐하였는데, 이로써 중대는 喪失된 땅을 되찾았으나 이 순간 중대장은 潰兵의 兇彈으로 장열하게 戰死하였다.

이어 대원들은 중대장을 비롯한 소대장과 먼저 간 戰友를 잃은 激憤에 넘치면서 血雨로 물들은 戰場을 정리하였는데, 이 血戰에서 중대가 거둔 전과로서는 敵이 遺棄한 屍體 62具를 확인하고 약간의 전쟁물자를 노획하였으나 손실은 戰死 12名과 부상 32名, 그리고 실종 7名이었다.

3. 右地區인 제3, 中央地區인 제1 兩대대의 激戰이 絶頂에 달할 무렵인 23.30에 연대의 左地區를 擔當한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의 正面으로도 짙은 戰雲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23.30에 △281 北麓에 잠복대기중인 대대 경계組로 부터 그 東北쪽 능선을 타고 2개중대 규모가 侵襲하고 있다는 急報가 있자, 대대장 金寅文 소령은 이 敵은 必是 △281를 略取코자 企圖한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을 陣前 앞까지 끌어들여 一擊코자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281 北麓의 前遣隊를 主陣地에 收容토록 하는 한편, 同 高地를 맡은 제6중대(장, 張之乙중위)에게 『敵이 小銃 有効사정내에 近迫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집중사격으로써 격멸하라』고 號令함과 동시에 重火器 중대장에게도 이 뜻을 알리고 박격포의 彈幕사격을 준비키로 하였다.

이와같은 대대장의 指示에 따라 중대장 張之乙중위는 一發의 사격마저 斷不許하면서 대원들로 하여금 不動如山으로 기다리게 하였는데, 이윽고 子正을 넘어설 무렵 群敵은 虛張聲勢로써 胡笛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281를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를 기다리던 중대는 이들이 陣內에 돌입하려는 一刹那에 대대의 支援火力과의 協同으로 機先을 制하여 섬멸적 사격을 집중발휘한 결과 白燐의 閃光속에 第一波의 敵 32명이 潰滅하고 요행으로 목숨을 건진 일부는 四分五裂이 되어 허둥거렸는데, 중대의 銃火는 이를 놓칠세라 모조리 殲殺하고 말았다.

이동안 제7중대(장, 李炳雲중위)는 특별한 접촉없이 陣地를 확보중이었다.

4. 한편 연대 OP에서 戰況의 推移를 지켜보던 연대장 李昌馥대령은 이미 23.00에 鳳岩洞부근에 阻止陣地를 占據中인 豫備隊인 제29연대 제1대대(장, 張奭均소령)로 하여금 △266로 躍進케 하여 逆襲에 필요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한 바 있었는데, △395일대가 끝내 敵手에 넘어가자, 곧 이를 奪還키 위한 要旨 다음과 같은 逆襲命令을 내렸다.

『① 제29연대 제1대대는 17일 01.00를 期하여 △395에 대한 逆襲을 감행하여 이를 즉각 奪還하라.

공격間, 제3대대의 1개중대를 배속한다.

② 제3대대는 16일 24.00附로 現戰線을 제29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연대의 豫備隊가 되라.

戰線인계와 동시에 1개 중대를 제29연대 제1대대에 배속하라』

이리하여 張奭均소령이 지휘하는 제29연대의 제1대대는 새로운 一線부대가 되어 침습한 中共을 粉碎키 위한 決戰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11월 17일 : 연대장으로 부터 새로운 逆襲命令을 받은 제29연대 제1대대장 張奭均소령은 各 중대장을 소집하여 狀況을 검토한 끝에 『당면의 敵은 전날밤의 전투에서 병력과 裝備面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대대는 이 敵에게 戰力보강에 필요한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急襲으로써 그 虛를 찔러 一擧에 粉碎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각 중대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제1중대는 右一線으로 △395 東南쪽 능선을 따라 直衝하여 敵을 격멸하고 목표 頂山의 東側背를 탈취하라.

③ 제3중대는 左一線이 되어 △395 西斜面 능선을 따라 進擊하면서 그 側背를 강타한 다음 頂上을 向하여 挾擊하라.

② 제1중대는 主力을 후속하면서 화력으로써 主力의 전진을 掩護하라.

④ 배속된 제28연대 제10중대는 공격 개시와 동시에 △395 東側으로 進出하여 側方에서 敵을 직접 牽制하라』

이상과 같은 命令에 이어 대대장은 말하기를 『當面의 敵은 지난날 우리와 一戰을 決한 바 있는 中共 제376연대의 主力이다. 이제 그때의 非運을 雪辱할 기회가 도래하였으니 期必코 목표를 탈취하자』고 怒號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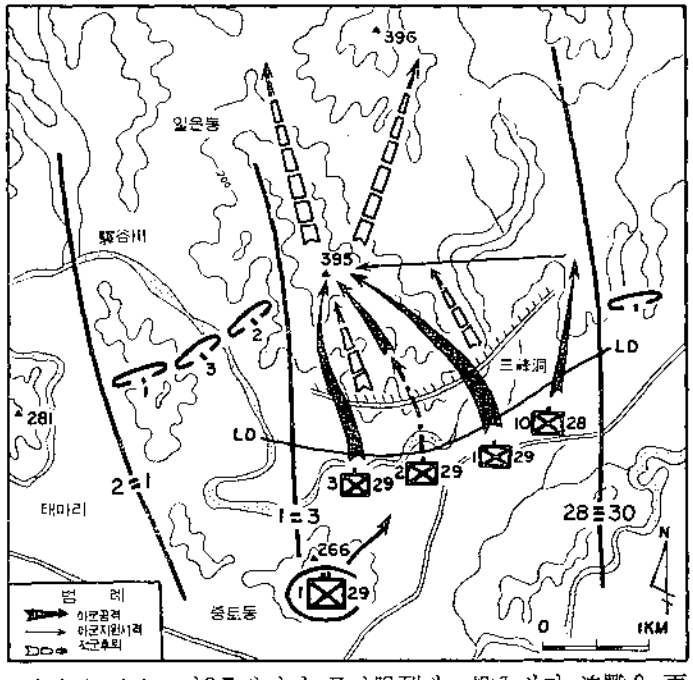
이리하여 攻必取의 決意를 새롭게 하고, 이날 子正부터 逆襲에 나선 대대는 LD 南쪽으로 공격 機動을 재촉하여 00.30에 병력을 전개하자 01.00에는 포병의 화력지원사격에 肩接하여 일제히 驛谷川의 계곡을 횡단 躍進하였는데, 01.30에는 목표 南麓까지 단숨에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병력을 包圍隊形으로 移行케 하는 동시에 頂上을 向하여 兩面에서 압축키로 하였는데, 02.00에 右一線인 제1중대가 소대규모의 敵과 충돌함으로써 紛戰이 일어났다.

이에 중대는 과감하게 敵前으로 躍進하여 수류탄을 同時에 炸裂시키는 瞬間에 일제히 突擊한 다음 白兵과 突擊射擊의 互用으로 닥치는 대로 敵을 殺傷하고 東側背 頂上으로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이 무렵 左一線인 제3중대도 2개 분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최후저지線 50m앞 까지 近迫하였다.

이로부터 兩 중대는 후속한 제2중대의 掩護사격과 그 사이에 東斜面 中腹까지 進出한 제10중대의 중원아래 硝煙을 헤치고 岩壁을 기어 넘으면서 步一步로 03.00에 頂上까지 육

◇ 상황도 제38호 395高地 逆襲(11. 17)



박하였으나 이때에 中共은 死生을 決하려는 듯이 銃砲彈幕으로 進路를 가로막고 자동화기를 亂射하면서 저항함으로써 대대는 그 자리에 膠着된 가운데, 2名이 戰死하였을뿐 만 아니라 12名이 負傷當함으로써 더 이상의 前進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대대장은 각 중대로 하여금 일단 高地中腹에 물러서게 하는 한편 사단 砲兵의 射程延伸을 요청하여 同 高地 北斜面부근에 있는 敵의 지원박격포를 파괴하는 동시에 高地頂上의 敵陣을 강타한 다음, 제2중대까지 공격隊列에 投入시켜 決戰을 再開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3. 30에 대대는 反復突擊을 감행하였는데 砲擊으로 말미암아 砲煙과 粉塵이 자욱한 속을 헤친 끝에 突擊線에 육박하자, 대대장의 『突擊앞으로!』의 號令一下 수류탄을 던지면서 突擊을 감행하였다.

각 중대가 敵陣內로 뛰어드는 즉시로 銃劍을 휘둘러 刺殺과 撲殺로 敵을 屠戮하고 一角에서 一隅를 휩쓸면서 敵陣을 석권함으로써 마침내 다시 이 高地의 主人이 되었으니, 이때가 04. 30이었다.

이렇게 하여 대대는 血戰 3시간 30분만에 이 △395일대를 다시 손에 넣고, 여기에 陣地를 재편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여기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35명	戰死		2명
捕虜		1명	負傷		17명
鹵獲			失踪		1명
	3.5로켓트砲	1문		小銃	5정
	機關銃	2정			

라. 전투 후의 개황

제29연대 제1대대가 제28연대에 배속되자 初動의 銳氣一途로써 △395에 대한 逆襲을 감행하여 일시 敵의 掌中에 들었던 이 高地를 되찾은 뒤로, 연대장 李昌禎 대령은 다음날인 11월 18일 11.10附로 그동안 △266부근에서 戰力을 보강한 제3대대로 하여금 제29연대 제1대대가 확보중인 主陣地를 다시 引受토록 命令함으로써, 이날 오후에 兩 대대는 상호 陣地를 교대하였다.

이리하여 제29연대 제1대대는 다시금 △266부근으로 轉進하여 阻止陣地를 점령한 다음, 연대의 예비가 되어 側후방에 대한 警戒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대는 이와같이 戰線을 일단 정리하자,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右인접인 제30연대(장, 崔英圭대령)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陣地보강에 專力하는 하편 敵情수집에 注力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면의 中共 제126사단은 두번에 걸쳐 그들이 企圖한 △395에 대한 奪取戰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끝내 無爲로 돌아가자 소규모의 수색전만을 반복하면서 戰力보강에 급급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같은 中共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사단장 朴炳權준장은 火力으로써 敵陣을 震動키로 하고 사단의 제30포병대대(장, 徐廷善소령)로 하여금 군단의 지원포병과 合同으로 敵陣 깊숙한 곳까지 파괴위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리만큼 痛擊을 加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예하 각급 부대로 하여금 堅守不動의 태세를 더욱 굳히도록 강조하고, 교육 훈련에 가일층 박차를 加하게 함으로써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다.

§ 戰 訓

◇ 捜索隊의 철수계획문제

本文中의 11월 16일字 記事를 보면 연대의 수색소대가 命에 의거 제9중대의 진지로 轉進할때 交戰中이던 敵과 한데 엉켜 陣內로 뛰어들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제9중대는 彼我의 식별을 하지 못한 가운데 混戰亂鬪相을 露呈하고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마침내 撤收하였음을 알수 있다.

如何間 敵의 壓迫에 의하여 計劃的이든 偶發的이든 現진지를 포기하고 撤收하는 경우에는 모름지기 사전에 마련된 주도면밀한 計劃아래, 一絲不亂한 隨意撤收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니 이 대목으로 미루어보면, 여기서는 이 撤收계획을 一線지휘관이 숙지하고 있었는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 △395의 방어계획문제

당시 이 △395가 彼我 爭奪의 焦點이 될만큼 중요성을 지녔다고 볼때, 확보중인 側에서는 마땅히 방어계획을 면밀히 樹立하여 이를 失守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高地를 확보중인 我軍은 11월 5일(△281 및 △395戰鬪 참조)에 전개한 전투에서도 그러 하려니와, 이번에도 어이없게 깨어지고 마는데 여기에서 이 高地에 대한 화력계획, 陣地공사, 병력배비등 전반적인 방어계획이 장병들의 『固守意志』를 뒤따르지 못한 것으로 思料된다.

◇ 配屬部隊 優先原則의 확립

張奭均소령이 指揮하는 제29연대 제1대대가 敵手에 들어간 △395를 다시 奪還하는데 큰 功을 세웠는데, 그 뒤에 다시 豫備로 控置한 것은 당시 事情이 어쩌된 것인지 明白하지 않으나 奪還의 功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第一線에서 勇戰케 하는 것이 武將의 人情이라고 하겠으며 隷屬部隊보다도 配屬部隊를 더욱 優先取扱하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5. 岩洞(바우골)附近 戰鬪(1951년 11월 23일 부터 / 1951년 11월 29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7 호
상 황 도 제 39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7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16포병대대	장
제5연대	장	대령	蔡 命 新		중령 文 在 駿
제1대대	장	소령	羅 燾 日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金 晶 煥	제50포병대대	장
제3대대	장	소령	盧 沈 根		소령 金 永 澤
대전차공격대대	장				
		중령	朴 周 用	병력 및 장비 : T/E, T/O 充足	

敵 軍

中共 제68군 제204사단(장, 曹玉淸) 제612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9월 하순,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8사단에 白石山일대의 戰線을 인계하고, 竹里(楊口 南쪽 3Km) 부근으로 轉進하여 8주간의 교육훈련(F T C)을 실시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던 바 11월 중순에 다시 魚隱山(△1277 : 白石山 北쪽 9Km) 正面의 전선으로 복귀하여 中共제204사단(장, 曹玉淸)과 對陣케 되었다.

사단은 9월 30일 13.00부로 美제10군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陸本직할로 예속되면서, 6월이래 4개월 동안이나 東衝西突하였던 北漢江 東岸의 白石山부근 戰線을 잠시 떠나 華川저수지 南쪽에서 戰塵을 씻고 戰力을 보강 중, 11월 16일에 陸本명령에 따라 제5연대(장, 蔡命新 대령)를 다시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에 배속케 되었는데, 同 군단은 이를 군단작전지시 제256호(11.16.17.00부)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에 배속하였다.

이에 앞서 美제8군에서는 종래에 北漢江을 따라 北上한 美제10군단과 美제9군단과의 전투地境線을 11월 15일 12.00부로 鴨石(甘雨里 北쪽 2Km) 西北쪽 1.5Km인 北漢江 東岸의 渡船場을 基點으로 廣石橋(속칭 널우골 : 鴨石 東北쪽 3.5Km)—속칭 통선골(廣石橋 東北쪽 2Km)—占方里(통선골 北쪽 10Km의 東金剛川邊)線으로 변경함으로써, 美제9군단의 전투지역을 北漢江 건너 東쪽으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美제10군단의 左翼인 제8사단 제21연대를 美제9군단의 右翼인 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에 배속토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一聯의 部署의 변동에 따라 제5연대는 11월 16일에 연대 집결지인 松亭里(竹里 南쪽 2Km)에서 檜谷(白石山 西쪽 2.5Km)으로 躍進하여, 제8사단장의 작전지휘아래 同사단 제21연대의 진지를 인수케 되고, 제7사단은 또한 이와같은 제5연대의 戰線참가를 계기로 사단 主力의 第一線담당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은 18일 12.00부로 陸本직할을 떠나 美제10군단에 배속되어, 20일 08.00부로 제8사단의 戰線과 함께 同사단의 제50포병대대(장, 金永澤소령)의 작전지휘권을 인수케 되었는데, 이와 아울러 同日時부로 제5연대가 사단에 복귀하였으며, 사단의 右接境線이 文登里 계곡까지 4Km 정도나 東으로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白石山에서 北漢江 東岸을 따라 指向하였던 당초의 사단進路가 이제 正北인 白石山—魚隱山線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단은 곧 제5연대로 하여금 새로이 제8사단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의 진지(△1,090—△1,220—△1,100—△931—통선골)를 인수토록 하여 左一線이 되게하고, 제8연대를 檜谷里로부터 古方山里(長坪里 東北쪽 4Km)로 急遽 추진하여 右隣接인 美제7사단(10월 25일에 美제2사단과 진지교대)의 左一線인 美제32연대(장, John M. Hightower Ⅱ대령)의 진지(內洞 西南쪽 1Km 無名高地—△905—△974—△1,000—△1,120)를 인수케 하여 사단의 右一線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盆谷里의 제3연대와 대전차공격대대로 하여금 각각 金岳里와 長坪里로 사단 主力을 追隨케 하여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17일에 竹里의 사단前方지휘소를 驪里(長坪里 西北쪽 1Km)로 추진하였다.

또한 사단의 제16포병대대를 18일 18.00부로 間乾培(古方山里 北쪽 5Km)로 추진함으로써 대대의 全砲隊로 하여금 사단장의 掌握下에 상황에 따라 火力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속중인 제50포병대대는 계속 현진지에서 화력 計劃을 修正하여 일반지원에 任하도록 하였는데, 各포대의 陣地는 다음과 같다.

A포대—登梅洞 北쪽 1.5Km인 점말

B포대—檜谷北쪽 1.5Km인 大谷

C포대—鳴石 西쪽 1Km의 北漢江邊

이리하여 사단은 20일 08.00을 期하여, 右側으로는 美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중인 Ethiopia대대(장, Teshome Irgetu 중령)와 左側으로는 제6사단에 배속중인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 제1대대와 각각 連繫하여, 魚隱山 南쪽 4.5Km에 東西로 가로 지른 능선을 따라 內洞—통선골 間에 主陣地帶를 편성케 되었으니, 이로써 사단의 戰線은 9월 하순보다 6Km를 더 北上케 된 것이다.

한편, 당면의 中共 제68군 예하 제204사단(장, 曹玉淸)은 10월 중순에 元山에서 淮陽을 거쳐 새로이 戰線에 투입되어, 北傀제5군단의 제12, 제32 兩사단으로부터 白石山일대의 진지를 인수하였으나, 1개월동안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격전을 치른 끝에 白石山과 그 北쪽의 要衝을 모두 빼앗기는 바 되어, 마침내는 魚隱山부근으로 潰退케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戰線의 확보에 급급하게 된 中共제204사단은 제612연대로 하여금 이 魚隱山을 主軸으로, 그 南쪽의 △890—△1,218—△984를 연하는 능선上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마련케 하여 이의 決死固守를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제8사단 魚隱山 南側地區 戰鬪참조).

그런데 당시 敵으로서는 이 魚隱山이 버릴수 없는 要衝地로 확보되어야 하였을 것이니 그 理由로서는 첫째 東金剛川을 연한 末輝里—古方里間의 보급로를 扼守하면서 正面으로 제7사단의 北進을 가로막는 障壁이 될 것이고, 둘째는 南으로 당면한 戰線의 橫軸이라 할 수 있는 文登里—水洞里間의 계곡의 횡단도로와 東으로 文登里—末輝里間의 水入川 沿邊道路 그리고 西로 통선골—古方里道路를 동시에 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은 여기에서 文登里 계곡과 北漢江 東岸으로 溢出하려 美제7사단과 제6사단의 衝鋒을 끝까지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敵이 이곳을 잃는다면 東金剛川 北쪽으로의 潰走가 불가피하게 되는만큼 이 일대의 高地를

지하시설로 永久陣地化함으로써 堅守不動을 피하는 一方, 소규모의 奇襲으로 부단히 사단 戰線의 교란을 책동할 것이 豫見되었다.

이리하여 內洞—岩洞間의 계곡을 중심으로 彼我의 수색대間에는 필연적으로 相互 激突이 그칠 사이 없게 되었는데 이때에 사단으로서는 집결지로부터 거침없이 30Km나 北進함으로써 急變한 입지조건, 특히 初冬의 高山지대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변화무쌍한 日氣에 즉응하기까지 상당한 苦楚를 극복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니, 이와같은 自然條件은 당시 「現戰線의 유지」라는 소극적인 방어개념에 따른 제8군의 제한方針과 더불어 사단의 銳鋒을 크게 萎縮케 하는 要因이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890 攻擊戰(11. 23~24)

(가) 작전계획

사단이 제8사단과 진지를 교대한 20일에 군단으로부터 첫 공격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명령의 要旨에 이르기를 『제7사단은 일부병력으로 △890(魚隱山 西南쪽 2.7Km)를 공격하여 이를 사단前進진지로 확보하라. 공격간 主抵抗線에는 현 수준의 병력을 恒常 유지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縣里의 前方지휘소에서 參謀陣과 더불어 戰列을 點檢하고 제8군의 전투병력 制限指示를 감안하면서 작전계획을 樹立한 결과, 22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 제95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主陣地 前方의 △890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5연대(대전차공격대대 배속)는 11.23.06.00를 期하여 △890를 공격 점령하라. 사용병력은 1개대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8연대는 현임무(사단 右一線)를 계속 수행하되, 수색대로 하여금 敵과의 접촉을 유지케 하라.

④ 제3연대는 현임무(사단 예비대)를 계속 遂行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11.23.06.00부로 제5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제16포병대대의 화력지원의 優先權은 제5연대에 부여한다.

⑦ 제50포병대대는 계속 一般支援에 任하라.

⑧ 공병대대는 공격부대가 목표를 점령하면, 陣地를 강화하고 陣前에 장애물을 설치하라.

⑨ 통신중대는 통신軸線을 △890까지 연장하라. 現行 SOI를 적용한다.

⑨ 前方지휘소는 계속 縣里에 위치한다. 後方지휘소와 보급소는 20일 이후부터 竹里에서 下牛望(楊口 北쪽 2.8Km)으로 推進할 豫定이다』

그런데 이 △890는 魚隱山에서 西쪽으로 뻗은 連峯中의 하나로서, 敵의 主陣地의 中樞이

며 사단과는 岩洞계곡을 사이에 두고 제5연대 제2대대의 △938(봉선골 東南쪽 1Km)와 南北으로 對峙하는 形勢에 있었다. 이 高地를 占有中인 敵은 東쪽의 능선을 이용하여 進退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 또한 병력의 증원과 화력의 지원이 容易할 것이므로, 사용 병력에 대한 제한과 地形上의 不利한 여건을 안고 있는 사단으로서는 이를 점령하는 것도 容易치 않거니와 점령 後의 확보 策에는 特段의 配慮가 필요할 것이었다.

이와같은 局面下에서 美제10군단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 高地에 대한 攻略을 감행토록 한 까닭은 당시의 情勢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되었다.

즉, 군단은 10월 한달동안 肝腦塗地의 苦戰결과로 군단 戰線의 彎曲部를 어느 정도 수정하여 東西로 균형있게 戰線을 整齊하였는데, 마침 10월 25일에 板門店에서 휴전회담이 再開되어 11월 중순에 들어서서는 軍事分界線의 협정문제가 거의 妥結의 단계에까지 무르익었으므로 現戰線에서 곧 휴전이 成立될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現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전환한다는 假定아래, 사단戰線을 살펴보면 中央部에서는 제5연대 제3대대가 主陣地인 △1,220에서 그 北쪽으로 突出한 능선상의 △1,090에 경계진지를 확보중이었으므로 여기를 접촉선으로 한다면 그 南쪽에 있는 主抵抗線은 계속 占有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1월 17일에 Gary線을 확보함으로써 사단 전선보다 西北으로 進出케 된 美제9군단 右翼인 제6사단의 경우와(제6사단의 949高地 전투 參照) 이에 連繫한 사단 左一線인 제5연대는 그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의 설정에 따르는 地域空間인 敵과의 접촉선의 확보가 緊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890는 사단 左正面의 北쪽 2Km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사단 左一線과 Gary線 右端을 掩護하는 前進陣地로서의 意義를 지닐 뿐만 아니라, 장차 敵과의 접촉선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에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은 이날(22일) 연대前方지휘소를 △1,220(魚隱山 南쪽 4.5Km)로 추진하고, 부여된 임무와 敵情全般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 △890를 확보중인 敵은 1개중대규모로 推算되나 그 東北쪽으로 連한 능선을 이용하여 隨時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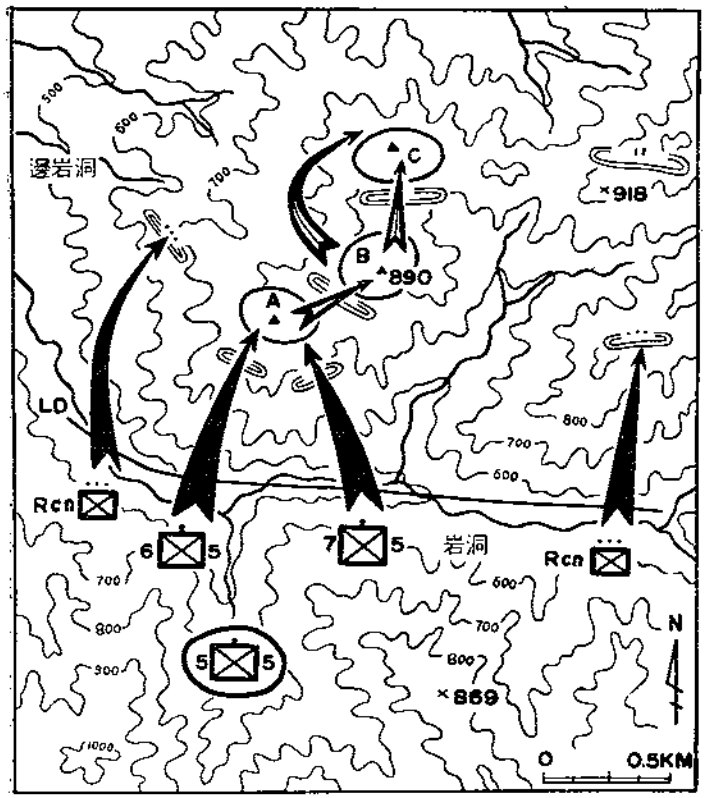
둘째 : △890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魚隱山일대를 모두 장악치 않고서는 그 확보가 어려울 것이니, 보다 北쪽의 敵制高地의 확보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믿어지고,

세째 : 공격간 요청에 따라 포병화력이 지원될 것이지만 氣象조건에 따라서는 이것을 반드시 期待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構想을 前提로 하고 하달한 要旨命令은 다음과 같다.

『① 제2대대는 목표 無名高地(△890 北쪽 300m)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但 공격간에 있어서도 △890에 重點을 指向하면서 확보를 要한다.

◇ 상황도 제39호 제5연대 제2대대 공격계획(11.23)



② 대전차공격대대는 제2대대 공격개시와 동시에 同대대의 전지를 인수 확보하라.

③ 수색중대는 1개 소대를 抽出하여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공격개시시간은 11.23 06.00이며, 공격개시線은 岩洞—술구비미를 連하는 線이다』

(나) 작전실시

11월 23일 : 이날 06.00에 공격일선인 제5연대(장, 蔡命新 대령)제2대대는 △890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대대장 金晶煥소령은 연대의 최종목표가 無名高地(△890 北쪽 300m : 標高 950m정도)임에 비추어, 대대의 공격목표를 A.B.C로 다시 細分하였는데, △890 西南쪽 300m에 있는 無名高地(標高 830m 정도)를 목표 A로 정하고, △890를 목표 B, 그 北쪽의 연대목표를 대대공격목표 C로 指稱하였다.'

그리고 제7중대(장, 丁海寬중위)를 右제1선으로 하여 목표 B(△890)의 東南쪽 능선을 따라 B를 直衝하게 하고, 제6중대(장, 高秉善중위)를 左제1선으로 삼아 그 西南쪽 능선을 따라 목표 A를 먼저 격파한 다음 B를 挾攻케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B를 奪取하면, 제7중대(右제1선)는 곧 그 北쪽 능선을 따라 목표 C를 正面에서 攻略케 하고, 제6중대(左제1선)는 C의 西北쪽으로 迂回하여 그 西側背를 挾攻토록 하였다.

이때에 제5중대는 예비대로 운용키로 하는 한편 이에 병행하여, 연대에서 지원된 수색중대의 1개소대를 遼岩洞으로 迂回케 하여 敵의 背後를 찔러 제6중대의 목표 C 공격에 合勢토록 하고, 대대수색소대로 하여금 제7중대의 右側능선의 敵을 공격케 함으로써 同중대의 前進을 엄호하면서 △890의 敵에 대한 側方機能을 견제토록 하였으니, 이는 兩수색소대로써

공격主力의 左右로 溢出토록 하면서 陽攻케 한 것이다(상황도 제2대대의 공격계획 참조).

이와 같은 대대장의 결심에 따라, 대대는 LD(岩洞계곡) 南쪽으로 공격機動을 재촉하여 △931(LD 南쪽 1Km:연대수색중대가 확보중) 北麓에 집결한 다음, 兩수색소대가 먼저 LD를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제5중대가 그곳에 控置되어 狀況에 즉응키로 하는 가운데, 07.00에 제7, 제6 兩중대는 일제히 岩洞계곡의 살얼음을 踏破하였다.

兩중대는 별다른 接敵없이 목표 高地의 南麓까지 접근하여, 07.50에 左第一線인 제6중대가 목표의 中腹에서 敵과 衝突함으로써 紛戰이 일었는데, 이때 마침 늦가을의 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이에 개의치 않고 敵前으로 驀進하여 소대규모의 경계부대인 듯한 敵의 가벼운 저항을 一蹴하고 목표 A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右제1선인 제7중대는 목표 B의 東南쪽 山腹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頓挫寸前에 빠지는 바 되어, 그 成敗如何를 料量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晶煥소령은 08.00에 제6중대로 하여금 단독으로 목표 B를 直衝케 하여, 제7중대의 突進威勢를 促進토록 臨機措置하였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山間특유의 雲霧가 朝霧와 같이 地面을 덮어 20m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冷雨는 계속 霏霏하였다.

중대는 勿失好機라는 듯이 雲霧가 低迷하는 속에 企圖를 秘匿하면서 목표 B高地 頂上의 敵前 30m까지 육박하여 돌격태세를 갖춘 다음, 08.20에 全중대원이 일제히 敵陣으로 突入하여 20여분동안 白兵戰을 벌인 끝에 陣內外의 中共兵을 남김없이 覆滅하고 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으니, 이때가 08.40이었다.

한편 이즈음, 邊岩洞으로 멀리 迂回하여 제6중대의 목표 C 공격에 協力키로 된 연대의 수색소대는 C高地 西麓에서 敵의 警戒線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苦戰中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당초에 대대장이 企圖한 제6중대의 迂回路에 대하여 그 확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제6중대로 하여금 목표 B를 奪還한 그 여세를 몰아 목표 C를 正面으로 急襲케 하는 한편, 제5중대를 急遽 추진하여 목표 B를 확보토록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장, 高秉善중위)는 08.50에 중대의 목표 B 점령에 힘입어 血路를 열고 急進한 제7중대에 우선 高地를 인계하고, 전과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최종목표 C에 대한 攻略에 들어갔다.

따라서 제7중대(장, 丁海寬중위)는 △890에 남아 있다가 곧 이어 來到한 제5중대가 진지를 再編하는 동안 이를 엄호하면서 제6중대의 공격을 協力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공격을 계속케 된 제6중대는 敵의 視界가 불량한 틈을 타서 泥濘을 헤치고 岩壁을 기어넘으면서 步一步로 13.30에 목표 C高地의 頂上까지 육박하였는데, 이때에 비가 멎고 雲霧가 개

이면서 중대의 企圖가 暴露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敵의 銃砲彈幕이 중대의 進路를 가로막고 지뢰와 수류탄이 到處에서 폭발함으로써 중대는 그 자리에 膠着되는 가운데 死傷者의 속출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곧 중대로 하여금 잠시 高地中腹까지 물러서게 한 다음, 포병의 지원을 요청하여 頂上의 敵의 덜미를 누르게 한 然後에, 제7중대를 공격에 참가시켜 15.00에 兩중대로 하여금 목표 C에 대한 決戰을 再開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는 △890(목표 B)에서 無名高地(목표 C)로 連하는 능선의 東側으로, 제6중대는 그 西側으로 併進하여 총포탄이 雨注하는 가운데 수류탄을 던지면서 연속 突進함으로써 16.50에 白兵의 喊聲도 드높이 이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兩중대는 곧 敵의 역습에 대비하였는데, 해가 지면서부터 진눈개비가 휘몰아 치면서 기온이 急降下하였다.

夜暗이 짙어지자 敵은 豫期한대로 진지를 도로 탈취코자 마치 赴火如蛾의 형세로 대대를 攻襲하였는데, 대대는 雨雪이 霏霏한 가운데 이 高地를 堅守하였으나, 23.50에 이르러 2개 대대규모의 敵이 그 背斜面으로부터 밀어닥쳐 사단의 포병지원이 如意치 못한 虛際을 타고, 兩중대의 接際部를 강압함으로써 대대의 방어 제1선에 龜裂이 생겨 그 一角을 失守하고 말았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敵이 陣內로 殺到하자 창졸간에 彼我의 白兵戰으로 亂鬪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子正을 넘어서면서 끝내 衆寡不敵하여 대대가 高地에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890의 東南쪽에 陽攻을 試圖한 대대수색소대는 09.30에 岩洞 東北쪽 1Km에 경계진지를 마련하여 △890의 敵을 엄호하고 있던 1개소대규모의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종일토록 山腹에서 固着되어, 對峙한 채로 그 敵을 견제함으로써 대대主力의 前進을 엄호하는 一役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邊岩洞으로 迂回한 연대의 수색소대는 역시 그 企圖한 바 대로 進展되지 못하여 최종목표(C高地)의 공격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11월 24일 : 대대의 제6, 제7 兩중대는 전날 子正에 無名高地(목표C)에서 물러나 暗中摸索으로 제5중대가 확보中인 △890를 向하여 隨意撤收하였는데, 여기서 일부 分散된 병력을 再收拾한 다음, 敵으로 하여금 無名高地에 立脚地를 굳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날 03.10에 同高地에 대한 反擊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敵은 이미 전날 밤에 대대로부터 많은 出血을 강요당한 까닭으로 그 缺員을 보충코자 그들은 예비대의 투입을 試圖하는 一方, 진지를 재편 중인 듯 하였는데, 대대는 이름을 포착하여 急衝하되, 제7중대를 先頭로 진지 工事中인 敵陣속에 怒濤의 氣勢로 뛰어들어 총검으로 敵을 盛殺하니 漆黑暗夜의 공중에는 다만 爆聲과 劍閃만이 가득하였다.

이리하여 高地의 交通壕를 따라 流血이 淋漓하고 屍臭가 紛紛한 가운데 제6, 제7 兩중

대의 主力으로 이를 다시 奪還하였는데, 이때가 03.50으로서 아직도 東天은 캄캄하고 哭鬼가 啾啾하였으니, 꼭 4시간만의 再奪還이었다.

이때에 대대는 雨雪中에서의 徹夜 전투로 말미암아 젖었던 戰衣마저 얼어 붙고 寒氣가 겹치는 가운데 믿는 것은 오직 敵愾心과 鬪志만이었다.

敵은 이것을 노리기나 한 듯이 다시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새로이 投入하여 재차 逆襲을 시도하였으므로 대대장은 곧 이러한 狀況을 연대장에게 急報하면서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연대장 蔡命新대령은 04.30에 제1대대의 左제1선인 제1중대로 하여금 急遽 대대를 赴援토록 긴급조치 하였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제1중대가 火急히 기동하여 岩洞계곡을 건널 무렵인 05.00에 無名高地의 제6, 제7 兩중대는 敵의 逆襲으로 끝내 陣地를 支撐치 못하고, △890의 제5중대 진지까지 물러서게 되었으니, 「遠水는 不救近火」라고 自歎할 수 밖에는 없었으리라.

따라서 △890에 집결한 全대대병력은 여기에 방어력을 증강하여 固守를 다짐하였으나, 敵의 계속적인 突破氣勢로 보아 이 高地 또한 支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의 건의에 따라 연대장은 대대를 △1,100(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가 확보中)로 撤收토록 명령하는 한편 지원차 출격중인 제1중대로 하여금 △890 南麓에 엄호진지를 급편케 하여, 대대의 隨意철수를 엄호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가 제1중대의 엄호아래 당초 △890를 공격하기 前의 진지로 복귀함으로써 一晝夜에 걸친 激突은 마침내 無爲로 化하게 되고, 東天이 밝을 무렵에는 硝煙마저 얼어붙은 듯한 彼我의 流血場에 荒涼一色이 감돌기만 하였다.

이 동안에 연대의 나머지 대대는 主抵抗線을 확보중이었는데, 다만 사단의 右一線인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의 수색대가 03.00에 內洞 西南쪽 1.5Km에서 敵의 수색대와 20분 동안에 걸쳐 충돌하였을 뿐, 사단의 全戰線도 전날과 變動이 없었다.

이 △890 전투에서 제2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負傷	75명
射殺	154명	凍傷	3명
捕虜	4명	失踪	54명
鹵獲	60mm 迫擊砲 1문, 鉊式小銃 3정, 多發銃 1정, M1 1정	亡失	LMG 3정, BAR 6정, M1 53정, CAR 8정, M7 榴彈發射機 15정
損失			
戰死	14명		

(2) △1,090부근 防禦戰(11, 28~29)

(가) 작전계획

사단 當面의 要衝地인 △890를 점령확보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제5연대 제2대대는 11

월 24일 낮에 澤波原(△1,100 西南쪽 1Km) 부근으로 집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단이 左一線에서의 攻勢를 거두어 들이자, 이번에는 敵이 中央正面에서 병력의 優勢를 믿고 挑戰으로써 紛亂을 自招하였다.

즉, 25일 19.50에 제5연대 제10중대의 1개소대가 확보중인 無名高地(標高 1,150m정도) 上의 경계진지에 대하여 50여발의 82mm 박격포탄을 퍼부은 다음, 2개소대규모의 敵으로써 이를 공격하였다가 10분간의 격돌 끝에 격퇴되었다. 그러자 그 이튿날인 26일 04.00에 다시 同高地에 100여발의 박격포탄으로 集中打擊을 加한 다음, 10분뒤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이를 공격함으로써, 同高地의 제10중대병력과 치열한 激戰이 벌어졌으나, 이도 또한 08.40에 격퇴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中共이 이 無名高地를 탈취코자 집요하게 공격을 반복한 것은, 그 南쪽 700m에 있는 △1,090를 掌中에 넣으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저, 이 △1,090는 사단의 主陣地인 △1,220와 敵의 主據點인 魚隱山(△1,277)을 南北으로 잇는 능선상의 鞍部에 해당하여 彼我間에 內洞—岩洞계곡을 건너지 않고 敵方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接近路인 동시에 여기로부터 西北과 東南으로 나누어지는 東金剛川 및 水入川 支流의 分水嶺으로서 瞰制의 利를 얻을수 있는 要地인 까닭으로 여기가 곧 彼我間에 爭奪點이 된 것은 理所當然하였다.

그러므로 敵은 이를 手中에 넣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北쪽에 있는 이 無名高地에 대한 攻略이 先行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대는 제8사단 제16연대로부터 陣地를 引受하는 즉시로 제3대대(장, 盧沈根 소령)로 하여금 △1,220에서 그 北쪽으로 △1,090에 이르기까지 觸角과 같이 突出한 능선을 확보토록 하되, 특히 이 △1,090에 방어의 重點을 두고 여하한 경우에라도 이 高地만을 堅守不動토록 하였다.

이에 제3대대는 대대 OP를 △1,090에 추진하면서, 제10중대를 제1선으로 하여 우선 여기를 확보케 하고 제9중대로 하여금 제10중대의 南쪽에 連繫하여 그 제2선으로서 鱗形으로 縱深진지를 편성케 하는 한편, 제11중대를 예비로 삼아 제9중대 진지와 △1,220사이에 控置하여 대대 前線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090를 담당케 한 제10중대는 1개소대로써 그 北쪽의 無名地高 (1,150m정도)에 경계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나머지 2개 소대로써 △1,090에 馬蹄形의 진지를 점령하면서 끝까지 이를 固守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 작전실시

11월 28일 : 이날 사단의 左右一線의 수색대가 內洞과 岩洞계곡을 넘어 敵情을 수집하는 가운데 오후에 사단 포병이 △1,218(魚隱山 南쪽 1Km) 부근의 敵의 박격포에 대한 破壞

射擊을 한차례 실시하였다.

20.00에 이르러 夜暗이 짙어지자, 敵의 82mm 박격포탄 50여발이 △1,090와 그 北쪽의 無名高地에 集注한지 15분뒤에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이 경계진지인 이 無名高地를 指向하여 突進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盧沈根소령은 敵의 공격양상이 공격준비사격까지 앞세운 點으로 보아 결코 輕視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 예비대인 제11중대로부터 1개소대를 뽑아 제1선의 제10중대를 지원케 하여 △1,090의 방어력을 증강하였는데, 제10중대장 車咸九중위도 △1,090의 중대병력中에서 2개분대를 抽出하여 無名高地의 경계소대에 증원토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見敵必滅을 다짐하였다.

敵은 哮囉와 胡笛의 交響樂으로 盛張聲勢하면서,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은 뒤를 따르게 하고 먼저 2개소대규모로써 無名高地의 北쪽 능선을 따라 高地 頂上으로 直衝케 한 듯 하였다.

同高地를 방어中인 제3중대의 경계소대는 사단의 砲兵화력을 집중발휘 할 수 없는 협소한 능선위에서 오직 수류탄과 銃劍만으로써 제1파에 이어 제2파, 그리고 제3파의 波狀공격을 모두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中共은 끝내 斷念치 않은 듯이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증강하여 손실을 돌보지 않는 物量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마침내 白兵으로서의 接戰格鬪가 전개 되었는데 防守소대가 병력의 劣勢를 挽回치 못한 까닭으로, 22.40에 이르러 드디어 高地를 敵手에 넘겨주는 바 되었다.

소대는 결국 無名高地에서 물러서서 △1,090의 중대主力에 收容케 되었는데, 대대장은 대대수색소대로써 急遽 제10중대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제10중대장으로 하여금 이미 △1,090에 赴援된 제11중대 1개소대와 수색소대를 통합지휘하여 이 敵을 逆襲토록 勵聲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子正이 가까워서야 겨우 증원된 수색소대와 함께 無名高地에 대한 逆襲을 決意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이 중대만이 홀로 이와같은 激戰을 치렀을 뿐이고 다른 戰線은 平穩을 유지하기만 하였다.

11월 29일 : 전날밤에 대대장으로부터 無名高地의 탈환명령을 받은 제10중대장 車咸九중위는 이날 00.15에 중대의 主力 2개소대와 제11중대의 1개소대 및 대대수색소대를 지휘하여 無名高地를 목표로 逆襲을 단행하였다.

4개소대가 동시에 躍出하여 一擧에 그 頂上까지 急突하자, 高地의 敵은 이 기세에 눌렸음인지 별다른 저항없이 潰散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01.45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意外로 손쉽게 高地를 다시 장악하게 되었으나 05.00에 1개소대규모의 敵이 다시 중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중대는 곧 火力을 집중발휘함으로써 그들이



<눈 덮힌 稜線으로 躍進 또 躍進>

陣前에 이르기 전에 모두 潰滅하고 말았는데, 잠시 後에 다시 2개중대규모로 병력을 증강한 敵이 數梯波로 집요하게 逆襲을 반복하므로 말미암아 중대의 진지 一角이 무너지는 바 되어, 05.35에 이르러 중대는 더 이상 그 敵을 拒支치 못하고 △1,090로 다시 反轉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1,090에서 철수병력을 再수습하여 중대의 1개소대와 제11중대의 지원소대에 缺員을 보충한 다음, 대대의 81mm 박격포와 사단포병의 화력지원사격에 緊接하여 06.30에 두번째로 無名高地의 탈환에 着手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이 陣頭에서 2개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一躍 又一躍으로 敵陣속을 突破한 결과, 日出무렵인 07.25에는 高地 頂上의 敵의 최후 阻止線 30m앞에 까지 近迫하였으나, 敵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말미암아 중대의 손실만 累增할 뿐 더 이상의 前進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대대장 盧沈根소령은 중대로 하여금 일단 그 南斜面 100m정도 물러서게 하는 한편, 사단포병의 射程 延伸을 요청하여 △1,214 (無名高地 北쪽 1Km) 부근에 위치한 敵의 支援박격포를 破壞하는 동시에 高地頂上의 敵陣을 강타한 다음, 공격을 再開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11.20에 즉시 再突擊을 加하였는데, 砲擊으로 말미암아 黑煙과 黃塵이 濛濛한 가운데 포복으로 突擊線에 육박하자, 중대장의 『突擊앞으로!』의 號令一下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감행하였다. 兩個 중대가 敵陣內에 뛰어드는 즉시로 총검을 휘

물러 刺擊과 撲殺로 敵을 屠戮하고 종횡무진으로 敵陣을 席捲함으로써 마침내 다시 高地의 主人이 되었으니, 이때 中天에 높은 陽光이 바야흐로 正午를 알리려 하였다.

이에 대대는 곧 제11중대로 하여금 제10중대로부터 無名高地의 진지를 인수토록 하여 이를 확보케 하고, 제10중대는 제11중대의 예비진지로 轉進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루 밤과 한나절 동안에 네차례나 主人이 뒤바뀐 이 無名高地가 끝내 대대의 손에 들게 된 뒤로는 敵이 敢히 여기를 奪還하지 못하였으며 戰線의 小康狀態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이 無名高地 전투에서 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52명	戰死	9명
鹵獲	機關短銃 5정, 騎兵小銃 4정, 手榴彈 400발	負傷	49명
		失踪	5명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가 끝난 뒤로, 사단과 그 左右 인접부대의 戰線에서 彼我의 陣容은 변함없는 채 11월을 넘기게 되었다.

12월에 들어서서도 板門店에서 呉越同舟格으로 진행중인 휴전회담의 進展과 함께 戰線 역시 현상대로 固着되리라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을 상 싶었다.

이런 가운데 점차로 氣溫이 下降하여 수색대의 활동 제한을 받게 되니, 前線에서의 당면한 敵의 企圖가 점점 감추어져서 그 動向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각급 수색대로 하여금 捕虜의 획득에 重點을 두고, 수색활동을 강화토록 하였다.

12월 3일에 通信기술하사관을 養成하기 위하여 사단의 통신중대에 통신하사관 교육대를 창설하였는가 하면, 그동안 예비로 金岳里에 控置中인 제3연대(장, 李召東 중령 : 11월 24일부로 鄭展대령과 交代)를 谷內(白石山 北쪽 3Km)로 추진하여 공병대대와 함께 長坪里—谷內間의 보급로를 보수케 하였다.

9일에 보급로 整備작업이 완료되자, 그 이튿날에 사단장은 작전지시 제98호를 하달하여, 左一線인 제5연대의 임무를 제3연대와 交代케 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이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케 된 제3연대는 10일 18.00부로 前方 CP를 △1,220로 추진하고 우선 제1대대로 하여금 20.00부터 제5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그리고 12일에는 제2대대로써 제5연대의 제1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의 진지를, 제3대대로써 제5연대의 제2대대와 수색중대의 진지를 각각 인수토록 하였다.

한편 제5연대는 △1,220의 前方 CP를 於斗員里로 移轉하였는데, 제1대대는 11일 23.00부로 제8연대에 배속되어 谷內에 집결하였으며, 제2대대는 於斗員里의 연대 前方 CP부근에, 제3대대는 長坪里에 그리고 대전차공격대대는 楡谷(白石山 西쪽 2.5Km) 부근에 각각 집결하였다.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는 제5연대 제1대대를 배속하여 계속 사단 右一線진지를 확보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제5연대의 11월분 종합)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332명	戰死 32명
捕虜 6명	負傷 118명
鹵獲 60mm 迫擊砲 1문, 小銃 9정, SMG 5정, 手榴彈 536발(部隊歷史報告 종합)	失踪 66명 亡失 LMG 3정, BAR 6정, M1 66정 CAR 8정, M7 榴彈發射器 15정 (定期 作戰報告 종합)

§ 參戰者의 證言

◇ 제5연대 제7중대장 丁海寬 중위

(1966.6.15, 陸士에서, 증령)

나는 50.12.7부터 休戰될때까지 제5연대에 있었는데, 任官하니 군번이 빠르다고 제7중대 副官을 시켰다. 그래서 중대 부관을 하다가 소대장으로 나갔다. 51.8 중순에 중위로 진급하였는데 마침 양갈래 高地전투로 중대장이 負傷을 입었으므로 내가 중대장이 되었다.

11월 하순에 우리 대대가 魚隱山부근에서 △890인가 하는 것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敵은 그 高地뿐만 아니라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高地는 거의 四通八達로 땅굴을 파서 우리 쪽에서 砲나 비행기로 냅다 갈기면 게 눈 감추 듯 땅굴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는 하였으므로 이러한 포병이나 항공공격으로도 別無道理였다.

우리 중대도 공격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그 高地위에 보이는 敵을 제압하고 어렵지 않게 占領하였으나 막상 진지를 편성하려하니까 敵이 박격포로 陣內사격을 퍼부어, 벌거벗은 바위뿐인 高地에 掩蔽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당황하였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 땅굴의 入口를 잘 몰랐는데,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금새 敵의 逆襲이 들이닥쳐 다시 高地를 내려오고 말았다.

그 뒤로는 休戰할 때까지 우리쪽에서 다시는 그 高地에 못 올라간 것으로 안다.

◇ 제5연대 제10중대장 車成九중위

(1966.10.19, 제21연대에서, 중령)

50년 11월에 任官되어 제7사단 제5연대 제9중대 제2소대장으로서 德川戰鬪를 치루었다.

그 후에 제10중대장이 되어 白石山지구 전투에서 제8사단과 교대 인계하였다가, 魚隱山지역을 제8사단으로부터 다시 인수하였다.

우리 중대는 대대前哨로서 제1선에서 △1,090을 점령하였는데, 對峙中인 敵과는 낮에는 250~300m 정도 相間으로 對峙하였고, 밤에는 100m 정도로 좁혀져서 指呼之間에서 마주보게 되었으며 彼我의 聽音哨가 咫尺에 접근하여 서로의 動靜을 손아귀에 쥔 듯이 낱낱이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개 소대를 내 보냈던 前哨진지에 敵이 來襲하여 나중에는 우리 全중대가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능선이 좁아서 과다에 많은 병력을 投入할 수 없어 소대 乃至 중대규모로써 밀리고 밀고, 빼앗기고 뺏고하다가 날이 샌 다음에 끝내 우리가 그 高地를 확보하였다.

6. 1,090 高地 附近 戰鬪

(一名, Christmas 高地 戰鬪)

第一次戰(1951년 12월 25일 부터 / 1951년 12월 28일 까지)

第二次戰(1952년 2월 11일 부터 / 1952년 2월 13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40, 41, 4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제7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2중대	장 중위	李 孝 烈
제3연대	장 대령	李 召 東	제3중대	장 중위	李 萬 植
제1대대	장 소령	高 學 龍	제4중대	장 중위	吳 在 現
		(51. 12. 31 까지)	대전차공격대대	장 중령	朴 周 用
	소령	金 業	제16포병대대	장 중령	文 在 暾
제1중대	장 중위	李 錫 喆	병력 및 장비 : T/O 및 T/E充足		

敵軍		
中共제204사단	장	曹 玉 清
제614연대	主	力

나. 전투 전의 개황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은 11월 중순에 제8사단과 戰線을 교대하여 제5, 제8 兩연대로써 左右一線으로 삼아, 魚隱山 南쪽의 Minnesota線(內洞 南쪽 1Km에 있는 標高 610m정도의 無名高地—△905—△987—△1,220—△1,090—△938—통선골)에서 主抵抗線을 점령한 뒤로, 그 하순에 中共 제204사단 제612연대와 맞서 △1,090 및 △890부근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치르고, 12월 10일에 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로 하여금 예비대인 제3연대와 진지를 교대토록 하였다(岩洞부근 戰鬪 참조).

새로이 左一線을 담당케 된 제3연대(장, 李召東대령 : 51. 12. 22 진급)는, 戰線의 小康상태속에서 敵과의 接觸線인 內洞—岩洞계곡을 連하는 Duke線을 강화하면서 捕虜의 獲得에 主力하던 중, 25일 Christmas날에도 不拘하고 연대의 右제1선으로 사단中央의 突出部를 形成한 △1,090부근의 無名高地(標高1,150m정도 : △1,090 北쪽700m)에 대하여 當面의 中共제204사단이 略取를 企圖하게 되었는데, 이 高地는 이미 지난 11월에 한차례 激突한 바 있기도한 문제의 爭奪要點이었으니, 이리하여 歲暮의 雪寒山谷에 또 한번 紛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당시 연대는 11월 한달동안에 연대장 이하 全대대장이 모두 교체되어 부대의 體質向上에 힘쓰는

중이었다. 즉, 연대가 아직 坪谷里(楊口 西南쪽 12Km)에서 교육훈련중이던 11월 1일에 제3대대장 曺元哉소령이 前대전차공격대대장인 高學龍소령과 교체되었으며(사단특갑 제151호), 사단이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으로 부터 Minnesota線을 인수한 20일에 연대장 鄭震대령과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가 步兵學校로 轉出하였다. 이날 부로 咸聖熙소령이 제2대대장으로 (사단특갑 제166호), 그리고 그 이튿날인 21일에 李召東중령이 연대장으로 赴任하였으며 (육본특갑 제643호), 23일에는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의 入院으로 말미암아 제3대대장인 高學龍소령이 다시 제1대대장으로 轉補되고 (사단특갑 제168호), 제3대대장에는 趙陽律소령이 새로이 任命된 것이다.

연대는 이와같이 지휘관의 교체가 있는 가운데, 金岳里에 예비로 控置되어 長坪里—谷內間의 보급로를 補修하다가, 12월 11,12 兩日間에 제5연대로부터 사단의 左一線진지를 인수하였는데, 이때 當面의 敵은 역시 中共제204사단 제612연대로써 如前히 魚隱山을 主軸으로 하여 그 南쪽의 △890—△918—△1,218—△984를 連하는 線에 主抵抗線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무렵, 內洞—岩洞계곡은 이미 △1,090사단의 掌握下에 있었는데, 그것은 △1,090를 占有함으로써 眼制의 利를 얻은 까닭이었으며 이에 연한 東西山麓에는 계곡의 北쪽 500m線까지 지뢰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사단이 점차 계곡 北麓에 警戒線을 擴張하는 중이었다.

연대가 새로이 左一線을 맡은 뒤로는 中共의 偵察隊가 岩洞계곡을 넘어보기 어렵게 된 탓으로, 그들의 정찰활동 범위가 萎縮됨에 따라 계곡 北쪽 敵의 主抵抗線근방에서 彼我의 수색대 사이의 衝突이 갖아지게 되니, 그들은 必是 主陣地에 대한 위협이 漸高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敵으로서는 이와같은 수색활동의 逆調現象을 뒤엎어 主抵抗線에 대한 위협을 排除하는 喫緊의 방편으로서 △1,090의 장악을 노렸을것인데 이러한 觀點에서 先必攻과 攻必取가 요구되는 이 無名高地야말로 그들의 主抵抗線上의 核心인 △1,218의 南쪽 500m까지 가까이 있는 까닭으로 마치 눈의 가시와도 같이 느껴졌으리라.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第一次戰(51. 12. 25~12. 28)

(가) 작전계획

11월 末에, 사단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가 △1,090부근에서 中共의 공격 企圖를 분쇄하여 Duke線에 대한 堅守不動의 태세를 굳히게 되자, 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제3연대의 일부병력으로 長坪里—谷內間의 보급로를 改修토록 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98호를 下達하였다.

『①사단은 일부병력으로 진지를 교대하여 主抵抗線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 한다.

②제3연대(대전차공격대대 배속)는 12. 10. 08. 00에 행동을 개시하여, 12. 12. 06. 00까지 제5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左一線의 地區를 담당하라.

③ 제5연대는 12. 12. 06. 00까지 現진지를 제3연대에 인계하고 五味里에 집결하여 사단예비에 任하되, 1개대대를 제8연대에 배속하라.

④ 제8연대는 現임무(右一線)를 계속 遂行하되, 제5연대의 1개대대를 12. 12. 06. 00부로

직접지휘하여 진지를 補强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12.12.06.00부로 제5연대로부터 제3연대로 배속을 변경한다.

⑥ 제16포병대대는 제3연대를, 제50포병대대는 제8연대를 각각 직접지원하라.

⑦ 사단 正面에 대한 일반지원은 군단지원포병이 이를 담당할 것이다.

⑧ 공병대대는 一線연대에 각1개 중대씩 배속하여 陣地工事를 强化토록 하라.

⑨ 통신중대는 현 통신軸線을 계속 유지하라.

⑩ 진지교대間의 협조지시

㉮ 陣地交代는 夜暗을 이용하여 은밀히 실시하되, 東側으로부터 1개대대씩 逐次로 區分실시함을 原則으로 한다.

㉯ 제5연대장은 진지교대가 完了될 때까지 陣地일부를 인수한 제3연대의 일부병력을 통합지휘하라.

㉰ 제5연대는 장애물 地帶의 標識와 그 範圍를 확실하게 인계하라.

㉱ 敵의 砲彈집중지역내에서의 부대집결을 禁한다. 該지역내에서 行動할 때에는 疎開隊形을 유지하라.

㉲ 제5연대는 M1 및 Car 탄약 一基數를 제외한 保有탄약 全量을 제3연대에 인계하라.

㉳ 제5연대는 通信시설을 現狀대로 제3연대에 인계하라.

⑩ 지휘소는 縣里에 위치한다.』

이에 제3연대는 10일에 CP를 金岳里에서 △1,220로 推進開設하고, 이날과 그 이튿날 밤을 타서 제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는데, 제1대대(장, 高學龍소령)를 右제1선으로 삼아 △1,090부근의 突角진지를 확보케 하고, 제2대대(장, 咸聖熙소령)로써 中央제1선을, 그리고 제3대대(장, 趙陽律소령)로써 左제1선을 각각 담당케 하였으며, 배속중인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중령)는 六德谷(白石山 西쪽 2.5Km)부근에 집결토록 하여 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각종 지원화기로써 제1대대를 重點的으로 지원토록 하였는데, 이때 대대장 高學龍소령은 대대 OP를 △1,090에 두고,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로써 同高地의 대대主陣地를 점령케 하고, 제3중대(장, 李萬植중위)로써 그 北쪽 300m에 있는 無名高地 Ⓐ (標高 1,130m정도)를 확보케 하되, 1개소대로 하여금 爭奪의 焦點이 될 公算이 짙은 無名高地Ⓑ(標高 1,150m정도 : 無名高地Ⓐ 北쪽 400m)에 경계진지를 점령케 하는 한편, 대대수색소대를 그 西쪽에 배치함으로써 無名高地Ⓑ와 함께 一連의 警戒要線을 設定키로 하였다.

그리고 제1중대(장, 李錫喆중위)를 △1,090(北)南쪽 1Km에 있는 △1,090(南)에 대대예비로 控置하여 3개 중대로써 南北의 능선을 따라 縱深陣地를 편성하였는데, 화력지원의 重點을 제3중대의 無名高地Ⓐ에 두었다.

이와같은 진지편성을 完了하자, 연대장 李召東대령은 晝間에는 제2, 제3 兩대대에서 각 1개소대를 抽出케 하여 Duke線 正面에 대한 威力수색을 담당토록 하고, 야간에는 대대별로 數個組에 潛伏斥候組를 파견토록 하여 捕虜의 획득에 注力케 하였는데, 이는 이달 하순에 접어들면서, Christmas와 年末의 虛隙을 틈타서 必然 敵의 小部隊 跳梁이 豫測되는 까닭이며 이러한 虛에 대하여 正으로써 先手를 쓰자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連日 제16포병대대와 美제300포병대대의 TOT사격으로 敵陣을 강타토록 事前에 協調하여 포병의 威力을 발휘하는 한편, 23일 子正을 期하여 全연대에 「特別非常警戒態勢」를 갖추도록 嚴命함으로써 見敵必滅의 결의를 貫徹코자 하였다.

(나) 작전실시

12월 25일 : Christmas Eve인 전날 밤에, 제3연대는 제7중대의 제3소대와 제3대대의 수색소대로 하여금 敵의 侵攻企圖를 분쇄하기 위하여 先制로 야간奇襲을 감행토록 하였는데 각각 18.00에 岩洞계곡을 건너 △918(魚隱山 西南쪽 1.8Km)와 △890(△918 西南쪽1.2Km)의 南麓에서 敵의 경계선을 攪亂하다가 子正이 넘어서야 진지로 反轉하였다.

이날 낮에는 종일 朔風이 눈보라를 몰아치고, 짙은 戰雲이 冬天을 뒤덮었다.

日沒무렵에는 積雪量이 15cm나 되었는데, 蹊徑에는 濃霧가 짙게 깔리고 山頂에는 寒雪風이 더욱 세차, 10m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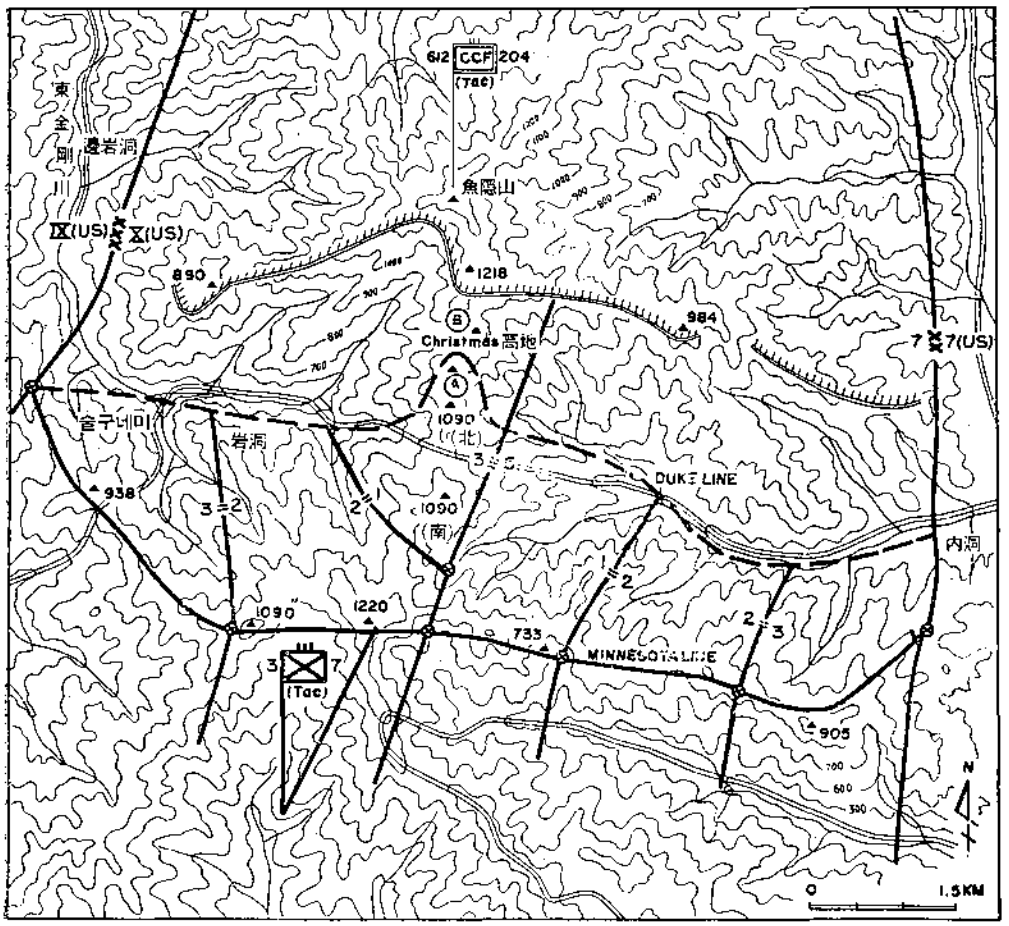
17.40에 제1대대의 제3중대 제1소대가 占有中인 無名高地Ⓑ에 中共의 정찰대인 듯한 20여명이 나타나 한동안 陣前을 徘徊하다가 소대의 제1선 경계組와 衝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5분 뒤에 곧 격퇴되었는데 이들이 물러간 다음, 18.00에 敵의 120mm 및 82mm 박격포탄 400여발이 同高地와 제3중대의 主陣地인 無名高地Ⓑ에 雨注되는 가운데 1개대대규모의 中共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그 衝鋒을 두 갈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無名高地Ⓑ의 東쪽으로 迂回하여 이 高地를 포위하려는 태세로 제3중대 본부가 있는 無名高地Ⓐ를 목표로 指向하면서 그 東側方을 공격하고, 다른 하나는 無名高地Ⓑ의 西쪽에 위치한 대대수색소대와의 地隙을 돌파함으로써 대대의 警戒線을 兩斷한 다음 그 공격방향을 또 둘로 나누어, 일부는 東쪽 迂回병력과 함께 無名高地Ⓐ를 挾擊하고, 일부는 수색소대의 東側背를 찔러 退路를 차단하려 하였다. 中共은 이와같이 物量을 믿고, 상투적인 「一點兩面」戰法으로써 일거에 無名高地Ⓐ를 掠取하고, 아울러 無名高地Ⓑ에 대한 포위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그 餘勢를 몰아 대대의 主陣地인 △1,090까지 急襲하려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1,090에 있는 대대 OP에서 敵의 企圖를 이와같이 分析한 대대장 高學龍소령은 前線의 兩個경계소대를 △1,090로 收容토록 하고, 예비인 제1중대를 △1,090(南)에서 제2중대가 있는 △1,090(北)로 급거 추진하여 여기의 縱深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自隊화력만으로써 제3중대를 지원케 하여 同중대로 하여금 날이 밝기까지 無名高地Ⓐ를 끝까지 堅守토록 嚴

◇ 상황도 제40호 1090高地부근 戰鬪前의 일반상황



命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대대장이 포병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능선이 협소한데다가 야간이라 觀測이 여의치 못할 것이므로 자칫하면 兩個경계소대의 通路를 화력閉鎖 할 수도 있다고 본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제3중대(장, 李萬植중위)는 제1선의 경계소대가 미처 철수하지 못한 가운데, 左右에서 挾攻하는 衆敵을 맞아 主陣地인 無名高地Ⓐ에서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

敵은 物量의 힘으로 高地를 에워싸고 몇차례나 猪突的인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중대장의 陣頭지휘아래 중대가 조금도 빈 틈이 없이 一絲不亂하게 抗拒하니, 다만 그들의 손실만이 累增할 뿐 陣前에로의 接近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激戰이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으나, 중대의 陣容에는 추호도 動搖의 빛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 高地를 쉽사리 奪取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인지 스스로 無名高地Ⓑ쪽으로 물러가고 말았다.

한편 철수명령을 받은 제1선의 兩個경계소대는 이러한 渦中에서 敵의 重圍를 各個 突破하여 19.20에 △1,090(北)의 예비진지에 收容되었는데, 兩個소대가 暗中摸索으로 敵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15명의 失踪者를 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가 敵을 격퇴하자, 대대장은 중대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逆襲을 단행하여 제3소대가 잃은 無名高地Ⓑ를 탈환토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 戰線의 觸角이나 다름없는 要衝인 여기에 敵이 만일 立脚地를 굳힌다면 이를 다시 手中에 넣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었다.

이에 중대는 △1,090(北)에 收拾된 제3소대를 無名高地Ⓐ의 중대主力에 合勢토록 하여 逆襲을 준비하였다. 이때 제1중대(장, 李錫喆중위)는 △1,090(南)로부터 기동을 시작하여 밤을 도와 제2중대의 △1,090(北) 南麓에 連繫하여 同중대의 예비진지를 점령한 다음, 제3중대의 戰況의 推移를 지켜 보았다.

그런데 이날 밤의 전투에서 대대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戰死 6명과 負傷21명에 失踪 15명의 손실을 입었다.

12월 23일 : 전날 밤에 대대장의 逆襲명령에 따라 子正까지 이를 준비한 제3중대(장, 李萬植중위)는 이날 새벽에 全중대를 지휘하여 無名高地Ⓑ의 탈환에 着手하였는데, 네차례에 걸친 突擊戰을 반복하였으나 敵의 저항이 완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날이 밝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高學龍소령은 제1중대로써 超越공격케 하기로 결심하고, 07.30에 同중대를 無名高地Ⓐ 西麓의 공격待機線으로 推進하는 한편, 제1중대로 하여금 一旦 無名高地Ⓐ에서 진지를 再編토록 하고,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無名高地Ⓑ에 화력세례를 加하였으나, 깊은 曉霧로 말미암아 視界가 불량한 탓으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대대장은 視界가 밝아지기를 기다려, 09.00에 포병의 15분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에 隨接하여 제1중대로 하여금 제3중대를 초월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無名高地Ⓐ를 목표로 稜線 西麓의 積雪을 헤치면서 躍出한 중대는 포병화력지원 아래 同高地의 敵과 종일토록 進退가 無常한 攻防戰을 반복한 끝에, 戰死 8명과 負傷 17명의 손실로써 射殺 28명과 捕虜 3명의 전과를 거두고, 15.30에 高地를 掌中에 넣게 되었는데, 6시간동안이나 끈질기게 계속된 중대의 連續 衝擊에 견디다 못한 高地의 殘敵 80여명은 魚隱山쪽으로 멀리 潰走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보면 전날밤과 이날 낮에 걸친 전투로 말미암은 敵의 손실은 殺傷 도합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推斷되었다.

중대는 곧 敵의 역습이 必至할 것으로 내다보고 同高地에 진지를 급편하였는데, 18.50부터 夜暗이 짙어지자, 哨囉와 胡笛 그리고 북소리가 山谷에 어지럽게 울려 퍼지더니 이것을 信號로 하듯이 敵의 夜襲이 시작되었다,

2개중대규모의 敵이 高地를 攻奪하려 하였는데, 19.35에는 그들의 지원박격포탄 370여

발이 高地에 집중됨으로써, 중대의 有線이 杜絶되고, 被圍裡에 孤立하게 되었다.

중대는 이 危局에서 2시간이나 惡戰苦鬪하면서 진지를 支撑하였으나, 21.30에 이르게 되자 급기야 陣地一角에 龜裂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李萬植중위는 敵이 必是 중대 진지의 中心部를 꿰뚫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 중대가 먼저 敵線의 突破를 감행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3명의 決死隊를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敵의 包圍網의 虛弱點을 作爲케 하여 이들이 타개한 血路를 따라 중대의 全力을 投入함으로써 突破口를 확대하여 22.15에 제3중대의 無名高地Ⓐ로 隨意撤收하여 이를 확보하면서 反擊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無名高地Ⓑ는 또 한번 敵의 手中으로 넘어갔는데, 이날 중대가 無名高地Ⓐ까지 철수하는 동안에 戰死 1명과 負傷 18명, 그리고 失踪 32명의 손실을 보았으나, 失踪者의 대부분은 그 이튿날 다시 收容하게 되었다.

12월 27일 : 이날 새벽에 제1중대가 無名高地Ⓐ에서 인원을 點檢한 결과 수습된 병력이 2개소대분이므로, 대대장 高擧龍소령은 제1, 제3 兩個중대로 하여금 合同공격을 준비케 하였다.

兩중대는 이 高地에서 缺員을 보충하여 戰列을 가다듬었는데, 대대OP 〔△1090(南)〕에서는 09.40에 無名高地Ⓑ로 指向中인 增員병력인 듯한 100여명의 敵을 포착하자 곧 여기에 可用의 砲화력을 誘導하여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의 105mm砲와 군단에서 지원되는 155mm砲가 一時에 砲門을 열어 △1,218와 無名高地Ⓑ와의 鞍部를 强打하니, 稜線은 순식간에 震動하고 爆煙속에 肉片과 骨塊가 紛飛하는 阿修羅의 一場으로 돌변하였다.

잠시 뒤에 砲擊이 그치자, 白雪은 碧血로 물들고 군데군데에 地殼은 벗겨져 屍丘로 쌓였으며 요행히 살아남은 敵은 호속에서 屛息한 채로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한차례의 問罪로 敵의 戰意가 萎縮되었을 것으로 내다본 대대장은 11.00에 다시 목표高地에 대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요청하여 10분간에 걸쳐 또 한번 그 頂上에 破壞力을 加한 다음, 11.10에 제1, 제3 兩중대로써 공격을 再開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無名高地Ⓐ로부터 北으로 뻗은 능선의 東西로 併進하여 정오무렵에는 頂上의 突擊線까지 육박하였으나, 敵은 여기의 決死固守를 다짐한 듯 200여발에 달하는 박격포의 지원 화력아래 수류탄의 投擲과 자동화기의 側斜射로써 발악한 까닭으로, 兩중대는 敵前의 至近거리에서 掩蔽없이 釘着되는 가운데 30여명의 부상자를 보게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兩중대를 다시 無名高地Ⓐ로 잠시 물러서게 한 다음, 포병의 射程 延伸으로 △1,218부근의 敵박격포를 制壓함으로써 목표 高地의 火網을 제거한 연후에, 一齊 공격을 再起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가 다시금 無名高地Ⓑ의 頂上을 목표로 一步又一步로 前進하는 중인 14.20에 200여명의 敵이 떼를 지어 △1,218로부터 능선을 따라 南進하였는데, 이때 마침 上空을 旋回하던 美空軍정찰기가 이를 肉眼으로 포착하는 즉시 포격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은 空地의 協調로 곧 美제300포병대대의 8″巨砲가 咆哮하니, 또 한번 震天動地의 轟音속에 그 敵影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前後 두차례에 걸친 敵의 증원企圖가 모두 烏有로 化하게 되자, 高地當面의 敵은 마침내 그 抵抗力의 激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看破한 兩중대는 일제히 喊聲을 지르면서 동시에 돌격하여 敵陣속 깊이 白刃을 휘둘러 닥치는대로 모조리 屠戮과 席捲을 반복하였는데, 이때가 17.50 前後로서 凄慘한 一場面에 黃昏이 지기 시작하였다.

兩중대는 곧 진지를 再編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한 바, 18.30에 이르러 前例없이 輕砲火 100여발의 지원아래 2개중대 규모의 敵이 夜襲을 企圖하였는데, 이들은 새로이 투입된 新銳인 듯 그 기세가 자못 騰騰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兩중대가 이날중 7시간에 걸친 激戰으로 保有 彈藥이 거의 바닥이 났으므로 終夜 계속하여 진지를 支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연대장의 命令으로 無名高地Ⓐ까지 철수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19.10에 無名高地 Ⓑ에서 隨意撤收하여 無名高地Ⓐ의 진지에 다시 收容되었는데, 이날 兩중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57명	戰死	3명
		負傷	36명
		失踪	3명

12월 28일 : 전날 밤에 無名高地Ⓑ에서 隨意撤收한 제1대대장 高學龍소령은 이날 黎明을 期하여 高地를 다시 탈환키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제1중대장으로 하여금 제3중대의 2개 소대를 통합지휘하고 06.00부터 공격을 시작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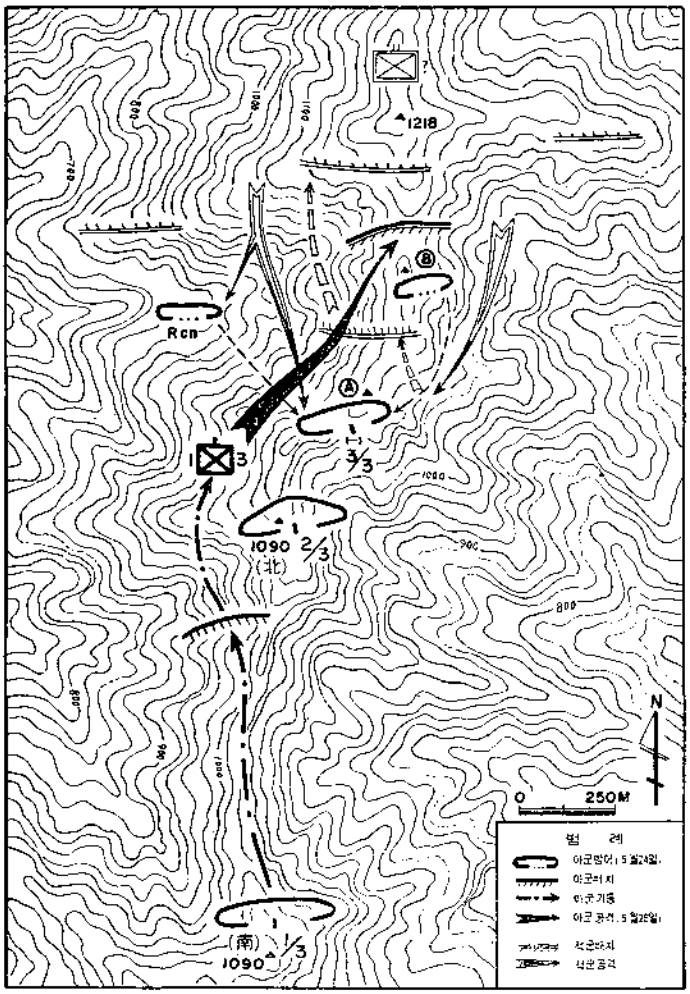
제1중대장 李錫喆중위는 砲兵화력의 지원없이 白兵으로서만 奇襲키로 하고 陣頭에서 중대를 지휘하되, 敵前 50m까지 肉迫한 다음, 『突擊 앞으로 !』라고 大號하였다.

이에 全 중대원이 일시에 돌격개시선을 박차고 내달아 怒濤決堤의 기세로 敵陣에 突入하니, 敵은 白兵의 急衝으로 창졸간에 지휘체계가 瓦解된 듯이 首鼠兩端의 상태에 빠져 右往左往하였다.

이리하여 劍光이 亂舞하고 叱咤와 悲鳴이 교차하는 白兵亂鬪를 30여분동안이나 벌인 끝에, 중대는 마침내 殆半의 敵을 鏖滅하고 滿身瘡痍가 된 殘敵의 一部를 △1,218쪽으로 驅逐함으로써 高地의 頂上을 奪還하였는데, 이때가 09.50이었다.

이어 血花가 滿山한 戰場을 정리한 결과, 중대가 거둔 전과로서는 敵이 遺棄한 屍體 87

◇ 상황도 제41호 1090高地부근 第1次戰



具를 확인하고 俘虜 2명을 얻었으며 손실은 戰死 4명과 負傷 17명, 그리고 失踪 1명이었다.

이리하여 중대가 계속 진지를 확보하는 중인 11.40에 군단장 Williston B. Palmer 중장(12.5에 Clovis E.Byers 소장과 交代)이 사단장 李成佳준장을 帶同하고 △1,220의 연대 지휘소를 방문하여 대대의 戰況을 시찰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군단장은 대대의 戰功을 치하하면서 戰意를 鼓舞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인 11.45에 魚隱山부근으로부터 敵의 重박격포탄이 無名高地Ⓑ에 雨注하더니, 그 數爻를 알수 없는 一團의 中共兵力이 다시 高地를 奪取코자 企圖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단의 제16포병대와 제50포병대대, 그리고 군단지원포병인 美제300포병대대의 화력의 동시집중으로 말미암아 陣前에 접근하기도 전에 모조리 壞滅되고 말았다.

正午가 지난 뒤로는, 敵이 晝間에 공격을 企圖한다는 것은 다만 砲兵의 好餌가 될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았음인지, 낮 동안의 挑發은 없었으므로 중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破壞된 塹壕를 補修하였다.

그러나 敵은 끝내 이 高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이, 15.20부터 1개소대 규모로서 다시 跳梁하였는데, 때마침 出擊한 美제5공군의 戰爆機 1개 編隊가 근접공격으로 napalm彈의 세례를 加한 결과 그 爆焰속에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敵은 여기에 대한 企圖達成을 단념한 듯 하여 이날 밤 비로소 3일만에 이 高地에서

의 小康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이날 연대는 나흘동안이나 一進一退를 반복한 대대의 그 戰力 減退를 勘案하여 右제1선의 진지교대를 단행하였는데, 우선 06.00를 期하여 예비인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중령)를 집결지인 六德谷으로부터 Minnesota線으로 推進케 하여, 中央 제1선의 제2대대(장, 咸聖熙소령)의 진지를 인수토록 하고, 제1중대가 無名高地Ⓑ에서 血戰을 벌이는 동안에, 제2대대의 일부로써 당초 同중대의 예비진지였던 △1,090(南)를 確保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제1중대 缺)는 20.15에 진지를 인계한 다음, △1,220의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하였으며, 제1중대는 이날 밤을 無名高地Ⓑ에서 徹夜하고 그 이튿날인 29일 08.15에 제2대대 제6중대에 진지를 인계하는 즉시로 대대主力에 合勢하였다.

대대가 이 전투기간중에 거둔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72명	戰死	22명
捕虜	5명	負傷	109명
鹵獲	LMG 2정, SMG 8정, 蘇式小銃 3정, 多發銃 1정	失踪	21名
		亡失	LMG 1정, BAR 1정, M1 50정, CAR 18정, 拳銃 4정

(2) 第二次戰(52. 2.11~2.13)

(가) 작전계획

東海岸의 南江 河口에서 西海岸의 臨津江 河口에 이르는 雪寒山野의 戰線은 51년 12월, Christmas를 맞아 대체로 平穩을 유지하였으나, 中東部戰線 一隅에 있는 前項의 無名高地만이 홀로 激戰을 치른 까닭으로 이 전투 이후로 이것을 「Christmas高地」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29일 오전에 Duke線에서 Minnesota線의 예비진지에 집결한 제1대대에서는 이날字 사단特甲 제187호에 의거하여 31일에 대대장 高學龍소령이 연대 S—3인 金 業대위와 交替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의 左右一線의 陣容은 커다란 변동이 없는 채로 이 해를 넘기고, 5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해에 들어서서도 사단戰線에서의 紛爭은 主로 이 Christmas高地를 중심으로 惹起되었는데, 新年 劈頭인 3일에 中共 1개소대규모가 이것을 劫略코자 하다가 여기를 지키던 제2대대 제6중대(장, 尹大鉉중위)의 鐵槌에 의하여 격퇴를 당하였으며, 9일과 15일에도 각각 한차례씩의 奪取企圖를 보이다가 또 다시 出血만을 보았을 뿐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이 高地에서의 爭奪이 계속되는 동안, 사단 右一線에서는 부대교대가 있었으니 즉, 예비인 제5연대가 새로이 右一線이 되어 8일과 9일 兩日間에 제8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였으며, 제8연대는 예비로 전환하여 金岳里에 집결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3연대에서도 이 무렵인 11일 밤에 中央제1선을 교대하였는데, 대전차 공격대대를 다시 예비로 돌리고, △1,220에 집결중인 제1대대로 하여금 中央제1선을 담당케 하였다.

이무렵 사단左隣接에서도 제6사단과 제3사단間에 陣地交代가 있었는데, 11~12일 사이에 제3사단(장, 白南權준장) 제18연대가 제6사단 제21연대의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새로이 사단의 左隣接부대가 되어 Gary線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陣容을 새롭게하게 된 사단은 現접촉선인 Duke線의 확보에 主抵抗線인 Minnesota線 못지않는 比重을 두고, 이를 강화코자 16일 05.00를 期하여 작전지시 제104호를 하달하여 占有中인 內洞—岩洞 계곡의 南北麓에 새로이 鱗形으로 진지工事를 실시하니, 1월 末에는 이 線 또한 그 强度面에 있어서 Minnesota線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 Duke線마저 犯하기 어렵게 된 敵은 아예 출격을 단념한 듯, 다만 그들의 진지속에 蟄伏中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에 사단은 수색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야간기습조를 편성하여 敵陣의 中樞部를 교란하는 등 接敵維持에 힘쓰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金戰線에 걸쳐 大同小異한 情況이었다.

2월에 들어서자, 戰線의 이러한 沈滯現狀을 克服하려는 제8군의 企圖에 따라, 「Clam up」이라고 命名된 군단작전계획을 內示하였으니,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군단은 2.10.18.00를 期하여 「Clam up 作戰」을 실시하려 한다.

② 本 작전의 主目的은 敵으로 하여금 陣地를 벗어나서 我陣前에서 彷徨토록 誘引한 다음, 준비된 我軍의 潛伏組로써 포로를 획득함에 있다.

③ 각 사단은 本作戰의 성과를 擧揚할 수 있도록 自隊계획을 수립하라.

④ 本 작전기간동안에는 항공지원이나 기타 군단의 화력지원은 一時 中止될 것이다.

⑤ 本 작전은 別名이 없는 한, 2.16.06.00에 종료한다』

이와같은 군단의 작전槪念에 입각하여 그 細部실천계획을 수립한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2.6.11.00에 이를 작전지시 제7호(3.16.06.00부 作指 第115號에 의거, 作指號數가 제108호로 修正)로 하달하였는데, 그 實踐事項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敵으로 하여금 現 占有線에서 이미 撤收한 것으로 誤認케 하도록 陽動함으로써, 敵의 偵察隊를 陣前으로 유인하여 이를 捕獲하려 한다.

② 各級부대는 2.10.18.00부터 2.16.06.00까지 다음 事項을 엄수하라.

㉮ 晝間의 정기전투偵察과 야간의 威力搜索, 그리고 이에 準하는 모든 수색활동을 中

止하라.

㉮ 병력과 장비를 철저히 隱蔽하라.

㉯ 敵의 공격威脅에 直面하거나, 포로를 획득하기 위하여 不可避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射擊이라도 이를 중지하라.

㉰ 晝間에 있어서 敵에게 觀測되는 지역내에 있는 도로나 능선에서는 徒步나 車輛運行을 금지한다.

㉱ 一線陣地內에서의 防寒用 煖爐와 이에 類似한 火氣의 사용을 一切 금한다.

각급지휘관은 火氣에 의하지 않는 保溫手段을 강구하여 凍傷예방에 만전을 期하라.

採溫을 위한 兵力의 移動은 各中隊單位로 計劃하고 中隊長이 이를 統制하라.

㉲ 燈火管制(車輛의 微燈光運行 포함)의 철저를 期하라.

不要不急한 야간의 차량운행을 금한다.

㉳ 장애물 설치작업을 一時 중지하라.

㉴ 陣前 要地要部에 대한 各級 지원화기의 基點射擊을 ×日×時까지 完了하고 그 諸元을 確保하라.

㉵ 부대間의 無線通信을 금한다.

③ 本 작전은 「Clam up 作戰」이라 命名한다.

④ 지휘소는 縣里에 위치한다』

이에 제3연대장 李召東대령은 이 작전기간에 右제1선인 제2대대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Christmas高地(제1차戰 당시의 無名高地Ⓑ)에서의 奇正과 虛實의 妙를 살려 작전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는데, 同대대가 그 이튿날인 7일에 작전준비를 마무리 하던 중, 대대장 咸聖熙소령이 陣歿하였으므로 연대장은 다음날 8일에 右제1선을 제1대대와 교대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3.00에 中央제1선인 제1대대(장, 金 業소령 : 2.2 진급)가 다시 右제1선의 突角진지를 제2대대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중앙제1선은 예비인 대전차공격대대가 맡게 되었는데, 제2대대는 新任대대장 張用男대위(사단特甲 제25호에 의거 2.9부임명)의 指揮下에 長坪里에 집결하였다.

다시금 右제1선을 담당하게 된 제1대대는 제1중대로써 △1,090(北)를, 제2중대로써 그 北쪽의 無名高地Ⓐ를 각각 占領케 하고, 제3중대를 예비로 하여 △1,090(南)(△1,090 南쪽 1Km)에 控置하였는데, 대대의 北쪽 尖端에 있는 Christmas 高地에는 제2중대의 1개소대로 하여금 이를 확보토록 하였다.

그러나 작전기간중에 이 경계소대에 부여된 임무는 여기를 固守하는 것이 아니라, 敵으로 하여금 오히려 占有토록 誘引하는 것이니, 이 香餌로써 장차 大魚를 낚아보자는 것이리라.

(나) 작전실시

2월 11일 : 전날 낮 동안, 여늬 날과 다름없이 內洞—岩洞계곡을 사이에 두고 彼我의 砲擊이 그 猛威를 다투는 가운데, 사단의 수색대가 三三五五로 계곡 北麓을 누볐는데, 18.00에 日沒과 더불어 홀연히 수색대를 진지에 收容하고 포화의 입을 다물게 하니, 문득 怪奇한 靜寂이 戰線을 엄습하였다.

전날 10일은 陰曆으로 正月 보름으로서 西山에 日落하자 東山에 月出하니, 皎皎한 月光 아래 雪月夜의 風光만이 그윽한 가운데 밤이 깊어만 갔다.

이날 01.15이 되자, 30여명의 敵이 제2중대의 경계소대가 占有中인 Christmas 高地의 北쪽 능선에 나타나, 陣前으로 접근하려는 氣色을 보였다.

이에 同高地의 소대는 그 제1선의 警戒組를 頂上에 收容하고 敵의 動靜만을 살폈는데, 그들은 高地를 占領하려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소대는 날이 밝은 다음에도 계속 同高地에 남아, 指呼之間에서 그 正面의 敵의 움직임을 지켜 보았는데, 高地가 이미 비어 있는 양으로 假裝하기 위하여 麾下의 塹壕 속에서 微動도 하지 않았다.

15.00에 2개분대규모의 中共이 同高地에 다시 나타나, 東쪽으로 迂回하여 右隣接인 제5연대와의 地隙을 뚫고 高地의 東側背로부터 탐색공격을 試圖하였다.

이에 소대는 高地에서 물러나 企圖를 秘匿하면서 중대의 主陣地인 無名高地Ⓐ로 철수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여기를 無血로 점령토록 放置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無名高地Ⓐ에서 침묵만 지킨채로, 더 많은 敵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만을 扼腕待機하는 중에 날이 저물었다.

그러나 이날 밤에 中共은 그들이 이 高地를 점령토록 許與한 異變에 대하여, 이 뒤에 必是 某種의 計巧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一抹의 의혹을 느꼈음인지 20.55과 21.35에 無名高地Ⓐ 부근과 岩洞계곡의 연대 左제1선 正面에서의 反應를 打診하려는 듯이 다만 박격포 사격만을 퍼부었다.

子正이 가까워서, 사단의 右一線인 제5연대의 중앙正面인 內面계곡(△984 南쪽 1.5Km)에 2개분대규모의 敵이 교란사격을 加하면서 同연대 제2대대의 경계진지에 접근하였으나 대대 역시 침묵을 지킨채 應戰하지 않자, 그 敵은 곧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날 彼我間에는 이와같은 神經戰으로 始終하였는데, 敵은 Christmas 高地를 점령하여 사단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未久에 氣高萬丈한 가운데 출격이 必至할 것으로도 豫見되었다.

2월 12일 : 敵이 Christmas 高地를 손에 넣은 뒤로도 계속 사단에서 逆襲의 징후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날 01.35에 이르러 이번에는 2개 대대규모로써 岩洞계곡(△890 南쪽 1.2km)의 연대 左제1선인 제3대대(장, 趙陽律소령)의 警戒線을 넘어다 보았다.

이에 同 경계組는 진지를 비워놓고 그 南쪽의 主陣地로 철수하면서 미리 준비한 引繼式 지뢰를 觸發케 하니, 敵은 지뢰지대에 잘못 進入한 것으로 錯覺한 듯 遑忙히 撤退하고 말았다.

구름이 끼어 月光조차 흐린 가운데 Christmas 高地의 敵에 대한 動態를 탐지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金 業 소령)에서 斥候組를 보낸 결과, 여기에도 이미 敵이 물러가고 主人없이 비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당초 여기를 맡았던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의 경계소대가 밤을 도와 挺進하여 東天이 밝아지는 06.25에는 이 高地를 다시 掌中에 넣었다.

이런 다음, 雪寒風이 살을 에이는 가운데 종일을 보내고 17.00가 되어 해가 기울자, 2개소대규모의 敵이 △1,218로부터 능선의 東西麓으로 전개하여 南進하였는데, 이들은 Christmas 高地부근에 이르러서 그 중에 1개소대규모는 곧 바로 高地를 指向하고, 다른 1개소대규모는 西쪽의 岩洞쪽으로 그 衝鋒을 바꾸었다.

이에 대대장 金 業 소령은 이 敵을 제2중대의 主陣地인 無名高地Ⓐ 앞까지 끌어 들여 一戰코자 결심하고, Christmas 高地의 경계소대를 同高地의 중대 主陣地에 收容토록 하는 한편, 예비인 제3중대로부터 1개소대를 뽑아 이 高地의 西麓으로 급히 推進하여 제2중대의 방어력을 증강하였다.

18.30에 Christmas 高地를 다시 손에 넣은 敵 30여명이 無名高地Ⓐ로 접근한 다음, 胡笛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虛張聲勢하여 陣前을 徘徊하였는데, 이는 必是 그들의 증원을 기다리는 듯 하였다.

이에 제2중대장 李孝烈중위는 敵이 陣前에 蟻集하기를 기다려 대대의 지원화력과 協同으로 중대의 全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일거에 盡滅키로 하고, 대대장에게 박격포지원을 요청한 다음, 중대의 일제사격을 준비하였다.

중대의 이같은 計策을 알 까닭이 없는 敵은 20.30에 1개중대규모의 병력을 증강하여 21.15에 數的인 優勢만을 믿고 중대진지(無名高地Ⓐ)를 攻奪하려 하였다.

이를 기다리던 중대는, 이 敵이 陣前의 수류탄投擲거리내에 육박 하였을 무렵인 21.30에 중대장의 『사격개시!』라는 號令一下에 중대의 全화력과 대대의81mm 박격포를 동시에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의 모든 銃砲가 敵의 心臟部를 향하여 일제히 烈火를 吐하고 수류탄이 그 頭上에 炸裂하니, 白燐의 閃光이 한번 明滅하는 사이에 第一波의 敵 30여명이 潰滅되었으며 僥倖으로 목숨을 붙인 일부의 殘敵마저 지뢰를 밟아 自滅하거나 혹은 그들의 박격포 誤着彈에 희생되어, 驀骨로써 능선을 덮게되었다.

2월 13일 : 전날 밤에 제2중대의 無名高地Ⓐ를 공격하다가 一敗塗地한 中共은 期必코 雪恥하려는 듯, 이날 02.25에 300여발의 박격포 지원아래 1개중대규모로써 공격을 재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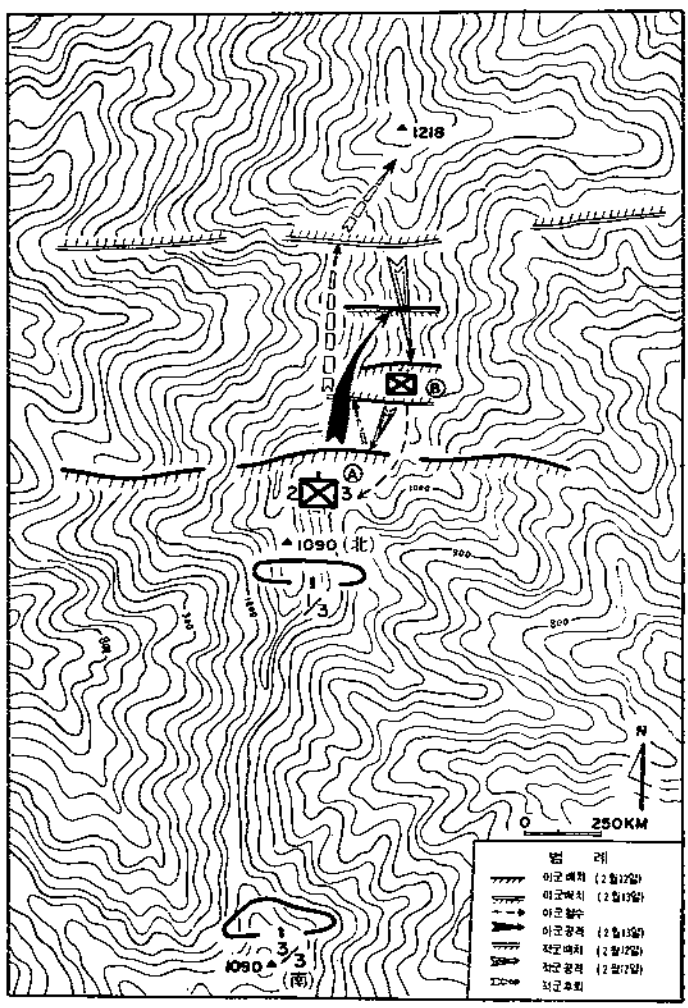
였다.

이리하여 이 高地에서 紛戰亂鬪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으나, 중대가 終夜토록 여기를 固守한 까닭으로 敵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날이 밝고 말았다.

勢窮力盡한 敵은 마침내 撤退企圖를 단념함인지 07.30에 그들 同僚의 시체를 거두면서 물러갔는데, 그들은 Christmas高地 만을 堅守하려는 듯이 보였다.

이에 대대장 金 業소령은 판단하기를 『이제 敵을 유인하려는 企圖가 폭로된 이상, 지체하면 그들이 Christmas高地에 새로운 병력을 投入하고 진지를 강화할 公算이 크다』 고 내다보고, 만일 그렇게 되면 敵에게는 그다지 큰 타격을 加하지 못한 채, 要衝인 前進진지 하나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 아래, 제2중대로 하여금 즉각 이 Christmas高地를 탈환토록 명령하였다.

◇ 상황도 제42호 1090高地부근 第2次戰



대대장의 이러한 命令에 따라, 중대장 李孝烈중위는 제3소대에서 精兵 18명을 선발하여 特攻隊를 편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奇襲을 감행하여 목표 高地를 탈환케 하였다.

이리하여 特攻隊는 防寒服을 뒤집어 입음으로써 白色으로 僞裝하고, 09.00에 無名高地Ⓐ를 떠나서 눈이 쌓인 골짜기를 따라 步一步로 전진하여 목표고지 頂上의 20m앞 까지 육박한 다음 18명이 一列横隊로 전개하여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突擊을 감행하여, 突入하는 즉시로 左衝右突로 敵 12명을 刺殺하고 敵의 제1선 一角을 교란하니, 이 衝擊에 그들의 지휘부가 흔들리어 순식간에 戰列이 흩어지고

말았다.

당시에 이 高地에는 1개소대 규모이상의 敵이 있었으나, 그들의 지휘부가 먼저 四散함에 따라 烏合之卒로 化하여 서로 돌 볼 겨를도 없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潰散하는 바 되었다.

이에 特攻隊는 이들을 追殺하면서 高地의 頂上에 올라, 점령의 信號彈을 높이 올렸는데 이때가 11.00正刻이었다.

대대장은 이를 신호로 삼아 사단砲兵으로 하여금 △1,218와의 鞍部를 강타토록 조치하였으니, 이는 화력으로 그 敵의 退路를 차단하여 전과를 확대코자 함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그곳에는 △1,218로부터 敵의 증원 제1파인 듯한 80여명의 敵이 Christmas 高地로 향하다가 潰走하는 敵과 휩쓸려 엉겁결에 발길을 北으로 돌리는 中이고, 또 그 제2파인 120여명이 그 뒤에서 능선을 따라 南行 중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곧 간단없는 砲彈의 세례를 받아, 爆風속에서 空中曲藝를 演出하였는데 잠시 後에 砲煙이 걷힌 능선에는 散亂한 手足과 臟腑만이 啾啾하고, 많은 銃器와 兵伏은 계곡의 堆雪속에 파묻혀 있었다.

이 砲擊으로 敵 80여명이 爆死하고, 같은 수효가 負傷을 입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11.50에 제3소대의 主力이 Christmas高地에 推進되어 戰場을 정리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는데, 이 전투기간중에 제2중대가 거둔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40명	戰死	9명
鹵獲	SMG 4정, 多發銃 3정, 蘇式小銃 5정	負傷	9명

다. 전투 후의 개황

제3연대(장, 李召東대령) 제1대대가 「Clam up」 作戰계획대로 敵에게 내어 놓았던 Christmas 高地를 되찾은 뒤로, 사실상 이 작전企圖는 無爲로 되고 말았으니, 敵의 挑戰에 저항없이 袖手傍觀만으로 一貫할 수는 없었던 까닭이다.

즉, 敵이 我軍의 誘引策略을 看破한 듯, 큰 규모의 建制부대로써 出擊을 圖謀하지도 않았거니와, 捕虜로 획득할 수 있으리만큼 작은 규모의 偵察활동도 하지 않고, 소대 내지 중대규모로써 경계진지에 대한 急襲만을 반복하니, 이를 언제까지나 座視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4일 01.30에, 前例없이 無反動銃과 Rocket砲등을 장비한 1개소대규모의 敵이 岩洞에 있는 연대中央제1선의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의 경계진지를 공격하여 3시간 가까이 격전을 치른 끝에 04.40에 격퇴되었는데, 이날 21.40에는 Christmas 高地에 다시 1개소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이를 탈취하려 하였다.

이 敵은 박격포탄 130여발의 지원을 받아 마치 여기서 死生을 決判하려는 듯이 執拗한 돌격을 반복

하였으므로, 高地의 제3소대(제1대대 제2중대)는 이같은 衝鋒을 잠시 피하여 이날 밤에 無名高地Ⓐ의 중대主陣地로 물러섰다가, 그 이튿날 15일 06.00에 黎明공격으로써 그 敵을 強襲하여 06.40에 同高地를 다시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Christmas 高地에서 爭奪戰이 계속되는 동안, 全 戰線에 걸쳐 그간의 Clam up 작전 성과를 면밀히 分析한 제8군은 이 작전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大局的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군단장 Palmer 중장은 각 사단에 命令하기를 12.15.14.00를 期하여 Clam up 作戰을 종료한다. 本 작전의 종료와 동시에 全 화력으로써 당면의 敵陣에 痛擊을 加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15일 08.00부로 작전지시 제109호를 하달하여 이날 14.00를 期하여 작전을 종료하고, 작전기간중에 備蓄된 포탄으로써 正面의 敵陣에 破壞威力을 발휘하는 火力戰으로 移行케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의 제16, 제50 兩 포병대대(제50포병대대는 51.11.20 以來 제8사단으로부터 配屬中임)가 군단砲兵과 合同하여 다시금 敵陣을 뒤흔들게 하니, 敵은 다시 그들 진지의 地下待避壕 깊숙히 그 驍鋒을 감추고 말았다.

이에 사단은 16일에 작전명령 제123호로써 左一線인 제3연대를 예비인 제8연대(장, 金基東대령)와 교대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18일 아침에 제8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사단 예비가 되어, 이날 낮에 CP와 제1대대는 金岳里에, 제2대대는 長坪里에 집결케 하고 제3대대는 谷內에 殘置하여 一線의 제5, 제8 兩연대에 대한 보급품운반과 진지보강작업을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연대에 배속중이던 대전차공격대대는 18일 06.00부로 配屬이 해제되어 제8연대로부터 縣里에 위치한 사단사령부의 경계 임무를 인수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연대장 李召東대령

(1973.7.30 제6군단에서, 증장)

당시에 Christmas 高地는 戰術上의 중요성보다도 戰略的인 차원에서 그 확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彼我間에 爭奪戰을 벌이게 된 곳이다.

이 일대를 확보하여야만이 休戰이 성립되었을 때, 그 2Km 南北方의 雙方의 主抵抗線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高地는 돌산이라 線를 구축하기도 힘들었고, 많은 병력도 投入할 수가 없어서 1개소대로써 이를 확보토록 하였다.

51년 Christmas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그야말로 朝得暮失로 爭奪을 반복하였다.

밤에는 敵이, 낮에는 우리가 장악하였는데, 板門店에서는 雙方이 서로 자기편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나중에는 언젠가 비행기로 확인까지 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는 낮이라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그때 敵이 공격하면 그곳을 일단 철수한 다음, TOT사격으로 먼저 타격을 加하면서 탈환하는 방식의 전투를 반복하였는데, 그곳은 屍山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彼我의 시체가 많았다. 그러나 서로 너무나 至近거리에 있어 시체조차 처리하기가 곤란하였다.

◇ 제3연대 제1중대장 李錫喆 중위

(1970.8.30 大田市 自宅에서, 예 중령)

Christmas 高地는 내가 지금 가 보아도 어느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흔히 있는 高地다.

별달리 특색이 있는 곳도 아닌데 이곳을 Christmas 高地라고 부르게 된 것은 51년 Christmas에 敵이 공격해 와서 전투가 벌어진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인 줄 안다.

여하튼 이 高地는 당시에 內外에 꽤 알려진 激戰地였는데, 51.12.25 밤에 여기를 지키던 제1대대 제3중대의 1개소대가 敵의 強襲을 받

아 부득이 내려왔다.

나는 그때 대대 예비인 제1중대장이었는데, 그 날밤에 제1선에서 요란하게 싸우더니 대대장이 나보고 초월공격하여 그 高地를 탈환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튿날인가 아침에 逆襲으로 그 高地를 도로 찾았는데, 그 날밤에 또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몇번인가 그 高地를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마지막 날에 제3중대의 일부병력을 지원받아 밀고 올라가서 점령했는데, 그 뒤로는 我軍이 계속 확보하였다.

보잘 것 없이 작은 高地치고는 쟁탈戰도 잦았고, 彼我의 손실도 많았다.

§ 硏 究

◇ 高地의 명칭문제

이 전투가 취급된 典據上에 高地나 전투명칭에 있어서 각각 약간의 見解差가 있다.

例컨대, 「戰鬪詳報」에는 제1차전을「△1,090戰鬪」로, 제2차전을 「楊口北方 無名高地戰鬪」로 取扱되고, 「陸軍戰史(陸軍本部 發行)」에는 前者를「△1,090戰鬪」로, 後者를「楊口北方 앙골 크리스마스高地戰鬪」(여기에서 "앙골"이라 함은 안골 즉, 內洞을 일컫는 듯함)로 各各 別個의 전투로 分離취급되었으며, 「七星略史(제7사단 발행)」에는 前者 亦是「△1,090戰鬪」로, 그리고 後者는 「크리스마스高地 戰鬪」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제2차전인 52.2.11~13 까지의 戰鬪만을 「크리스마스高地戰鬪」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1차전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은 高地 명칭이 붙게 된데에 基因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同一한 지역이고 彼我의 전투序列이 또한 같은만큼, 同一地域의 제1, 제2차戰으로 나눔이 妥當하다고 보고, 本節에서는 이 兩次전투를 一束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1,090에서는 戰鬪가 없었으며, 굳이 이 △1,090를 든다면 「△1,090 부근戰鬪」라고 하여야 옳을 듯 하여, 本文의 戰鬪名을 「△1,090부근 戰鬪」라 하였다.

◇ 1090高地의 標高문제

당시의 軍事地圖上에는 사단左一線 正面에 세개의 △1,090가 있은 듯하다.(現用地圖에는 두개 뿐임)

즉, 「Christmas 高地」 南쪽 700m에 있는 것이 그 하나요, 이 △1,090의 南쪽 1Km에 있는 것이 그 둘이요, Minnesota 線上의 △1,220 西쪽 1.3Km에 있는 것이 그 셋이다.

이를 각각 識別에 편리하도록, 제일 처음 것을 △1,090(北)라 하면, 둘째 것은 △1,090(南)로, 또 세째 것은 다만 △1,090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인데, 本文에서는 실제로 이와같이 表記하였다. 다만 後者의 △1,090는 言及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은 현 지도상에 △1,100으로 나타나 있기도하다.

그런데, 「七星略史」에 보면, 그 經過要圖에 있어서, 「△1,090戰鬪」가 이 △1,100에서 있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戰鬪는 제3연대 제1내대가 치른 것이 分明한데 당시 여기는 제3연대 제2대대의 전투지역內에 속하며, 더우기 이곳은 主抵抗線上으로서 이 高地에서 敵과 接戰한 바도 없으니, 아마 要圖作成上의 錯誤가 아닌가 思料된다.

따라서 固有한 명칭이 없이 高地의 標高가 같은 까닭으로, 그 위치를 혼동한 경우가 있는 듯 하여 이를 여기에서 밝힌다.

7. 662高地 爭奪戰 (1952년 2월 15일)

참조 : 상 황 도 제4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3사단	장 준장	白南權	연대 수색중대	장 중위	姜大有
제23연대	장 대령	李寬植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馬德暻	사단 수색중대	장 중위	李玉鎔
제9중대	장 소위	崔奎哲	지원부대		
제10중대	장 중위	朴官永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金燦福

敵 軍

中共 제12군	장	曾紹山	제203사단(607, 608, 609연대)	
제35사단(제104연대)	장	李德生	장 楊棟樑	
제68군	장	邱 蔚		

나. 전투 전의 개황

51년 11월 하순이래로 楊口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제3사단(장, 白南權준장)은 육본 작전지시 제119호에 따라 52년 1월 7일부터 登大里—東幕洞부근으로 轉進하여 12일에는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의 작전임무를 인수하고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의 右翼으로서 Gary線上의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위력수색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敵은 漸次로 치열하여지는 포격과 폭격에 크게 萎縮되었음인지 접촉을 忌避하는 조짐을 보였는데 이러한 狀況의 沈滯는 사단正面에서 뿐만이 아니라 全戰線에 걸친 現象이었으며 2월로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이에 군단장 Hoge중장은 「沈滯로 부터의 脫殼」을 企圖하는 美 제8군의 지도에 따라 「Clam up」이라는 작전계획을 하달함으로써 사단은 2월 10일 18.00부터 敵을 陣前으로 誘引하여 타격을 주고 捕虜를 획득하는데 主목적을 둔 이 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상황 : 이 당시 當面의 敵은 中共 제12군 제35사단 소속 제104연대와 제68군 제203사단소속 제607, 제609 兩연대 도합 6,000명으로서 佐佩里—北漢江둘레부—△679—△674—松亭—岩里를 連하는

일대에 據點을 형성하였으며 數未詳의 迫擊砲(60mm, 82mm, 120mm)와 直射砲(57mm, 76mm) 그리고 野砲(105mm, 122mm)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主力인 제68군은 51년 10월초순에 北傀 제5군단과 교대한 이래로 그 일부는 白石山에서 제7,제8 兩사단에 의하여 계속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제203사단은 비교적 좋은 전투력을 갖추고 局部的인 攻勢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敵伏을 계속하는 敵과 접촉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企圖를 판단키 어려웠다.

我軍의 상황 : 제23연대(장, 李寬植대령)는 사단이 제6사단의 작전임무를 引受하게 됨에 따라 1월 7일에 水洞里附近으로 轉進하여 제7연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사단中央一線으로서 제1대대(장, 姜啓三소령)를 右一線, 제2대대(장, 印禮根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949—△739를 連한 要線을 확보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禹德昭소령)는 연대예비로서 伏至洞에 控置되었는데 제9,제10 兩중대는 사단 戰鬪地境內에서 敵線에 가장 근접한 △662(△949 北쪽 2.5Km)—△748 西北쪽능선에 前進陣地를 편성하여 △679—△674일대의 敵 제609연대를 견제하고 泉里 溪谷을 瞰制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을 정비한 연대는 위력수색과 야간매복 그리고 黎明奇襲으로 敵의 挑發을 유도코자 하였으나 활발한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던중 「Clam up作戰」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성과를 擧揚코자 준비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때 右隣接인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는 CP를 貢柄洞에 두고 石葬里—△949東쪽능선에 이르는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左隣接인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548—龍湖洞—座首洞에 이르는 線을 담당하고 敵 제607,제104연대와 각각 對峙하였다.

한편 제11포병대대(장, 金燦福소령)는 登大里에서 지원태세를 갖추었으며 대전차공격대대(장, 姜弘模소령)는 사단예비로서 東幕洞에 위치한 사단 CP와 후방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군단계획에 의거하여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 6일 09.00에 작전지시 제7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2.10.18.00를 期하여 「Clam up作戰」을 실시하려 한다.

② 이 作戰은 陽動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我軍이 現戰線에서 撤收한 것으로 誤認케 하여 敵을 陣前으로 유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각연대 및 直轄隊는 작전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성과를 擧揚하라.

㉮ 전투偵察 및 위력수색을 중지하라.

㉯ 일부병력으로 陽動하라.

㉰ 병력과 장비는 徹底하게 위장하라.

㉱ 防音과 防光에 유의하라.

㉲ 敵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捕虜를 잡기 위하여 必須不可避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을 일절 금한다.

㉳ 敵에게 관측되는 도로 및 능선에서의 步行과 차량운행을 禁한다.

④ 기간중, 포병 및 공중지원은 一時 中止한다.

⑤ 本作戰은 別命이 없는 限 2.16.06.00까지로 豫定한다.

⑥ 지휘소는 東幕洞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게 된 제23연대장 李寬植대령은 제1, 제2 兩대대는 계속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局地경계를 강화하여 潛侵하는 敵을 捕獲토록 하는 한편 前進陣地의 일부병력을 交替하여 이를 증강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作命 제2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敵을 陣前으로 유인하여 타격을 주고 捕虜를 획득하려 한다.

② 제1, 제2 兩대대는 주저항선을 계속확보 하면서 국지경계를 강화하라.

③ 제3대대는

㉮ △662의 前進陣地를 대대의 1개 중대와 연대수색중대에 각각 인계토록 하라.

㉯ 前項의 1개 중대로 하여금 2.10.04.00까지 無名高地(△748 北쪽)의 前進陣地를 인수케 하라.

④ 연대수색중대는 사단수색중대의 一部병력을 통합지휘하여 2.10.04.00까지 △662의 前進陣地를 인수하라.

⑤ 사단수색중대(一)는 연대수색중대 및 제3대대의 1개 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을 再배속 한다.

⑥ 작전 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전성과를 擧揚토록 하라. (以下 省略, 사단 作指 제7호 參照)』

이에 따라 제9중대는 연대수색중대(+) 및 제10중대(+)에 △662—無名高地의 前進陣地를 10일 04.00에 인계하고 欺瞞電波의 發射와 完全撤收를 假裝하면서 砲兵의 차단사격하에 07.40까지 연대 CP부근에 집결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前進陣地에 은밀하게 재배치를 끝낸 수색중대와 제10중대는 徹底한 침묵과 위장으로 敵의 정찰대를 유인코자 하였으나 2~3명의 斥候가 高地주변을 遊動할 뿐, 陣前으로 근접하지 않으므로 작전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作戰 5일째인 14일 밤이 깊어 가면서 부터는 敵의 活潑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2) 작전 실시

1. 2월 15일에 수색중대(장, 姜大有중위)는 전날에 이어 △662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徹底한 위장과 침묵으로 마치 이 高地가 비어 있는 것과 같이 假裝하여 敵의 정찰대를 유인코자 하였는데 前半夜부터 三三五五로 遊動하기 시작한 敵은 01.50에 이르러 1개소대규모로 규합하여 중대右側을 담당한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장, 徐洪善소위)正面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처음 발견한 金鐘洙하사는 信號줄을 세번 당겨 敵의 侵襲을 알리자 소대장은 곧 分哨를 철수시키고 敵을 至近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지뢰를 爆發시키면서 일제사격을 명령하였다.

리습사격과 지뢰爆發에 唐慌한 敵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3具의 시체를 遺棄한채로 退却하였다. 이에 소대는 계획에 따라 敵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추격하여, 捕虜를 획득코자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 高地의 西北쪽과 北쪽 그리고 東쪽능선과 後方에까지 이미 迂回侵襲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이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여 소대의 추격을 견제하는 한편 胡笛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병사들의 戰意를 교란코자 하였다.

陰曆 正月 20일의 밝은 달빛아래 白雪에 뒤덮인 이 高地에는 血雨를 몰고 올 戰雲이 바야흐로 急迫하였으나 지난 다섯 밤과 낮을 酷寒에 떨며 이 순간 있기만을 苦待하던 병사들은 이제야 포로획득의 기회가 到來하였다고 勇躍하였다.

중대장은 이러한 戰況을 연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SCR—536으로 각 소대장을 불러 命令하되 『중대는 △662를 固守한다. 각 소대는 早急한 사격으로 陣地를 노출시키지 말고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기습사격으로 포로획득에 과감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각 소대장은 散兵壕를 찾아 병사들을 일일이 격려 하였다.

02.05에 이르러 1발의 白燐彈이 高地頂上에서 炸裂하자, 四方으로 중대를 포위한 敵은 또 다시 사격을 집중하였으나 攻勢의 徵候를 보이지 않으므로 중대는 이에 유인되지 않고 침묵을 계속 하였는데 이때 이미 후방으로 侵透한 敵은 연대 OP 및 隣接 제10중대와의 통신선을 切斷함으로써 통신은 無電에만 의존케 되었다.

그런데 02.25에 이르러 3발의 青色信號彈이 오르자 敵의 기관총과 소총사격은 一時에 중지되면서 60mm와 82mm박격포 그리고 76mm直射砲射擊이 집중되어 02.50까지 300발이 集注하였다.

陣地는 과괴되거나 노출되고 많은 死傷者를 내게 되었는데 敵은 포격의 延伸과 동시에 일제히 공세를 取하였다.

즉, 포격간에 계속 侵透한 1개소대규모의 敵은 제10중대와의 間隙을 뚫고 我方의 상호지원을 견제하는 한편 수색중대의 左側方을 威脅하였으며 또 증강된 2개소대 규모의 敵은 正面으로 侵襲하면서 中央突破를 꾀하였을 뿐아니라 2개소대 규모는 東北쪽과 東쪽능선으로 强襲하여 右第一線인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를 挾攻하였다.

중대는 중대장 姜大有중위의 怒號아래 무너진 壕의 一角에 遮蔽하면서 급사격과 수류탄투척 그리고 白兵戰으로 敵의 强襲을 阻止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03.25이었다.

이때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는 東北쪽과 東쪽능선을 타고 挾擊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맞아 경기관총을 主軸으로 全화력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계속 투척하면서 敵을 阻止하였는데 그들은 57mm直射砲의 지원아래 집요하게 近迫하였다.

소대장 徐洪善소위는 散兵線중앙에서 適時에 지뢰를 폭발시켜 병사들의 용기를 돋우며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는데 이때 轟音과 함께 砲彈 2發이 폭발되고 이에 따라 소대의 기관

총사격이 중단되자, 敵은 一時에 肉迫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急히 기관총진지로 달려나가 방아쇠를 힘껏 거머 쥔채로 戰死한 射手와 副射手의 屍體를 비켜놓고 급사격을 시작하였다. 不過 30m앞까지 육박한 敵은 모진 바람에 落葉이 지듯 순식간에 그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나 후속하는 2개분대규모의 敵과 東쪽능선으로 侵攻하는 敵이 기관총진지를 목표로 수류탄을 집중함으로써 徐洪善소위는 壯烈하게 戰死하고 그 옆에서 병사들을 激勵하며 용전분투하던 선임하사관도 重傷을 입고 쓰러졌다.

밀어 닥치는 敵에게 밀려 散兵線의 一角이 무너지게된 소대는 一瞬 動搖의 빛을 띠기 시작 하였다. 이때 小隊嚮導 李炟憲中士는 특공조를 지휘하여 사로잡은 3名의 포로가 급박한 戰況을 틈타 도주하자, 이를 사살하고 앞서 달려 나가면서 수류탄을 계속 던져 陣內로 侵透하는 一團의 敵을 폭살한 다음, 肉迫戰을 전개하였다. 이에 힘 입은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敵의 무리속으로 뛰어 들어 白刃을 휘두르니 병사들의 喊聲과 敵의 悲鳴이 새벽의 山野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소대가 陣地를 박차고 白兵戰을 전개하기에 이르자 중대의 勇戰으로 중앙突破가 阻止된 敵의 일부가 그 間隙으로 迂回하여 소대와 중대主力間을 차단하는 가운데 중대中央인 제2소대의 右側背를 위협하였다.

이에 중대장 姜大有중위는 예비인 제3소대로 하여금 이 敵을 驅逐케 하고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를 증원토록 명령 하였다. 제3소대장 朴소위는 2개분대를 지휘하여 제2소대의 掩護下에 돌격을 감행한 끝에 鞍部로 侵襲한 1개분대 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를 증원코자 하였으나 소대는 敵과 한 덩어리가 되어 混戰亂鬪를 전개하므로 彼我間의 識別이 곤난하였다. 이때 마침 △662東쪽능선을 强占한 敵이 탈취한 경기관총과 Rocket砲로 西南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한 제10중대를 威脅하므로 제3소대(一)는 이를 제압키로 하고 돌진하면서 수류탄을 퍼 부어 1개분대규모의 敵을 撲滅한 다음 이를 침묵시켰다.

그러나 이때 東쪽능선을 타고 새로운 敵이 증원하며 白兵戰에 加勢하므로 소대는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를 掩護하면서 逐次로 철수하여 主力과 합세하였다.

敵이 西側方을 차단한 가운데 西北쪽과 正面으로의 侵勢를 늦추지 않고 그 主力이 東쪽으로 强襲하므로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急迫하여 갔으며, SCR—609無電器가 敵彈으로 故障을 일으켜 연대 OP와의 통신마저 杜絶된 상황에서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는 配置線을 遞縮하여 四周방어 陣地를 급편하고 수류탄의 투척과 白兵戰으로써 최후의 一戰을 決하고자 하였으나 四方에서 强襲하는 敵에 밀려 戰況의 好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대장 姜大有중위는 눈물을 머금고 △748로 轉進할것을 명령하였으며 달도 기운

어둠을 타고 05.30을 期하여 敵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撤退하기에 이르렀다.

제10중대의 熾烈한 掩護射擊下에 撤收를 계속한 중대는 △748에서 병력을 收拾한 다음, 연대 CP附近에 집결하여 재편성에 착수함으로써, 敵의 정찰대를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코자 한 이번 작전은 豫想을 뒤 엎은 敵의 攻勢로 主要前進陣地인 △662를 잠시나마 敵의 手中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한편 제10중대(장, 朴官永중위)는 △662 西南쪽의 無名高地(△748 北쪽)에 前進陣地를 편성하고 △679와 西쪽 溪谷으로부터의 敵의 潛侵에 대비하였는데 01.50에 西北쪽능선을 타고 1개분대규모의 敵이 陣前으로 접근함을 알게 되었다.

중대장은 이들을 사로 잡고자 2개조의 특공조를 隱密하게 출동시켰는데 이때 右隣接인 수색중대에서 銃聲이 일어나자 敵은 溪谷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도주하므로 이들을 잡을 기회를 노쳤다.

그런데 敵은 熾烈한 포격에 뒤이어 右隣接인 수색중대를 포위공격하는 一方 1개 소대규모는 間隙으로 侵襲하여 兩중대의 상호지원을 차단하면서 左右側方을 위협하였으며 2개 소대규모는 西北쪽능선을 따라 중대正面으로 攻襲하였다.

중대는 右第一線인 사단수색중대 제3소대를 재배치하여 間隙으로 침투한 敵을 阻止케 하는 한편 西北쪽으로 殺到하는 敵을 陣前 50m까지 유인한 다음 3발의 지뢰를 계속 폭발시키면서 화력을 집중하였다.

敵이 분산하여 退却하기에 이르자 중대장은 예비소대와 각소대의 특공조를 출격시켰는데 後續하는 일부의 敵의 熾烈한 사격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지로 轉進하였다.

陣前에서 퇴각한 敵은 박격포와 榴彈砲의 지원사격하에 일부를 迂回시켜 左側背를 위협하면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즉각 화망을 펴고 과감한 근접戰으로 또 다시 敵을 격퇴하였으나 그들은 三面으로 포위한채로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敵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중대를 포위 견제하는 가운데 수색중대를 孤立시키고 主力을 집중하여 △662를 탈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대장은 연대장에게 戰況의 推移를 보고하고 예비인 제2소대에 右側方으로 侵透한 敵에 대한 逆襲을 명령하였다

소대는 사단수색중대 제3소대의 掩護下에 一齊히 躍進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正面과 北쪽 그리고 南쪽으로 부터의 三面射擊과 즉각 지향된 直射砲의 威力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激戰만을 전개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一線 각소대의 특공조를 抽出하여 南쪽으로 迂回시켜 제2소대를 증원토록 하였으나 후방으로 침투한 敵의 熾烈한 견제사격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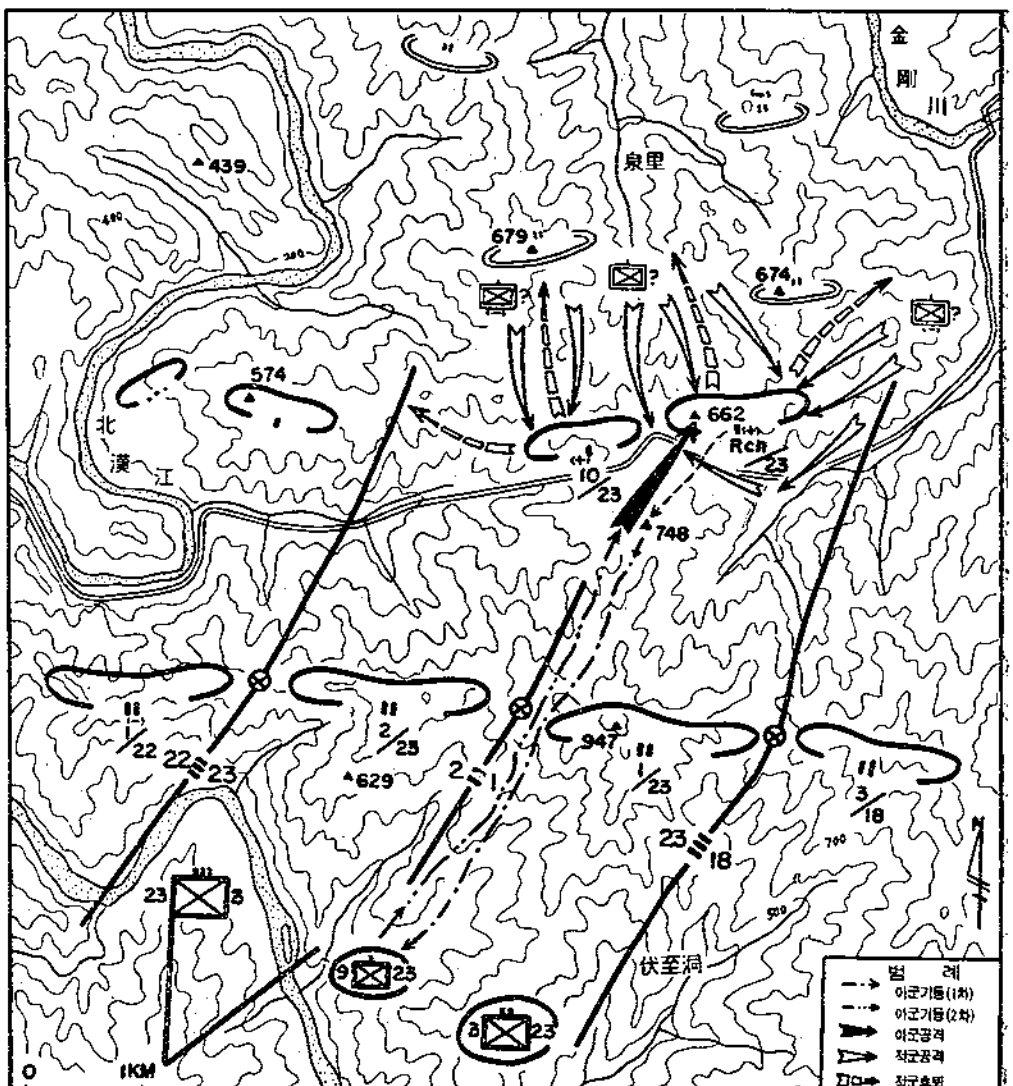
이와같이 중대가 逆襲의 기세를 보이자 敵의 포격과 공세는 漸次로 치열하여져서 중대의 機動을 制御하므로 彼我間에는 사격전만이 계속되었는데 수색중대의 상황은 惡化一路로 보였다.

05. 30에 이르러 수색중대가 西南쪽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撤收하기 시작하자 중대는 60mm迫擊砲의 照明彈을 △662上空에 계속 발사하여 狂波를 견제하는 한편 全火力을 집중하여 수색중대를 掩護하였다.

△662頂上을 강점한 敵이 黃色信號彈 4發을 올리자 포격은 갖아들기 시작하고 執拗하게 공세를 계속하던 敵도 또한 撤退하기 시작 하였다.

중대는 天明을 期하여 △662에 대한 逆襲을 감행코자 하였으나 『現陣地를 계속 확보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진지를 보강하면서 △662에 全火力을 집중하였다.

◇ 상황도 제43호 662高地 爭奪戰



한편 연대장 李寬植대령은 수색중대가 △662를 喪失한채로 제10중대의 掩護下에 轉進하기에 이르자 포병지원下에 逆襲을 감행하여 이 高地를 再탈취할 것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Clam up」作戰 기간중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잠시 보류토록 하였으나 이 작전이 이날 14.00까지로 短縮됨에 따라 08.00에 작전지시 제10호로서 △662에 대한 逆襲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는 이날 17.00까지 △662를 탈취, 확보하라』고 명령 하였다 3. 이에 따라 제3대대장 禹德駿소령은 陣頭指揮下에 △662를 탈취키로 하고 대대 OP를 伏至洞에서 無名高地(△748北쪽)로 躍進케 하는 한편 제9중대에 진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09.30에 전날의 陣地인 연대 CP부근을 출발한 제9중대는 제10중대 陣地부근으로 진출한 다음, 「Clam up」作戰이 종료되는 14.00를 期하여 불을 吐하기 시작한 포병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제10중대의 치열한 掩護射擊下에 제1소대를 東쪽으로 迂回케 하는 한편 主力은 無名高地의 東北쪽능선을 따라서 硝煙이 자욱하고 곳곳에서는 아직도 불꽃이 타오르는 △662로 돌진하였다.

이때 2개소대규모의 敵은 57mm 直射砲의 지원下에 5挺의 기관총을 亂射하고 방망이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執拗하게 저항을 試圖하였으나 제11포병대대(장, 金燦福소령)의 猛打로써 지원화력은 제압되고 增援이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들의 戰力도 바닥을 드러 내놓고야 말았다.

이 好機를 포착한 중대는 중대장을 先頭로 喊聲도 우렁차게 일제히 躍進하면서 돌격사격을 加하고 수류탄을 던져 기관총을 침묵시키는 한편 白刃은 휘둘러 닥치는대로 屠戮하여 高地를 席捲하였는데 이때가 17.05이며 凄絶한 死鬪로 白雪을 鮮血로 물들인 山봉우라에도 黃昏이 지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곧 陣地를 재편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 하였는데 敵은 달이 뜨기전의 夜暗을 틈타 또 다시 夜襲을 試圖하는 듯 하였으나 즉각 유도된 砲兵火力으로 격퇴하고 이 高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날 연대는 다음과 같은 전과를 올리고 손실을 보았다.

戰果			損失		
射殺	34명		戰死	28명	
捕虜	2명		失傷	34명	
鹵獲			負踪	8명	
	輕機關銃	2정	亡失		
	機關短銃	2정		輕機關銃	2정
	手榴彈	48발		2.3″Rocket砲	1문
				M 1 小銃	9정

라. 전투 후의 개황

제23연대(장, 李寬植대령)는 △662를 재탈취하여 △662—無名高地(△748 北쪽)에 이르는 일대에 제9, 제10 兩중대로써 前進陣地를 계속 확보케 하였는데, 이 要線을 눈위의 가시같이 여긴 듯한 敵은 계속 夜襲을 반복하여 2월 17일 20.30에는 無名高地를 확보한 제10중대가 잠시 물러 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중대가 즉각 역습을 감행하여 陣地를 回復하고 공병 1개중대의 지원하에 3重의 철조망과 500개의 지뢰를 매설하여 敵의 侵襲에 對處하자 敵은 이 前進陣地에 대한 奪取를 斷念하였는지 소극적인 정찰전만으로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은 계속 3개연대를 一線展開한채로 제11포병대대로 하여금 제97포병대대와 제109중포중대의 화력증원下에 敵線要域에 화력을 집중케 하고, 배속된 美전차 1개중대를 陣前으로 출격시켜 제22, 제23 兩연대의 前進陣地를 위협하는 敵陣을 강타하였으며 위력수색대와 奇襲組를 敵線 깊숙히 潛入시켜 攪亂을 피하면서 捕虜를 얻는데 힘썼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중 金承基소위가 지휘하는 제18연대 제2중대의 1개소대(一)가 3월 22일 03.00에 前進陣地에서 機動하여 연대의 수색활동을 견제하고 前進陣地를 위협하는 △890西北쪽 稜線上의 敵의 주요거점을 一擧에 奇襲하여 7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함으로써 분대규모의 敵과의 사격전만을 되풀이 하던 사단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黎明奇襲의 중요성을 새삼 認識케 하였다.

또한 사단은 Rat Killer作戰을 끝낸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李龍대령)가 登文里로 진출하여 3월 14일附로 배속됨에 따라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사단 左一線으로서 △548—龍湖洞—△663—座首洞에 이르는 일대를 담당케 하였다. 그런데 동월 23일에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이 기갑연대가 담당한 사단전투 地境의 일부와 美 제40사단의 전투地域일부를 引受케 됨으로써 기갑연대는 原隊에 復歸하고 사단도 이날 附로 수도, 제6 兩사단과 더불어 白전투사령부(사령관, 白善燁중장)의 作戰指揮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단은 白野戰司의 右翼으로서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을 右一線, 제23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石峰里—△973—△949—739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제22연대는 사단예비로서 登文里에 控置하는 가운데 위력수색과 埋伏 그리고 奇襲戰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3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장 金致局소위
(1973. 12. 30. 육군연구발전사령부, 대령)

제23연대 제3중대 소대장으로 △1,211에 대한 공격戰을 끝내고 北漢江邊으로 轉進하여 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장으로서 △662戰鬪에 참가하였다.

우리 중대는 제9중대로 부터 △662의 前進陣地를 인수하고 Clam up作戰에 臨하였는데 4일이 경과하도록 2~3명의 敵 斥候가 △662주변을 遊動할 뿐으로 陣前에 접근하지 않아 포로획득을 목적으로한 作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200명 규모의 敵이 치열한 포격에 뒤이어 중대를 포위공격 하였다.

1개소대 규모의 敵은 우리소대와 제10중대가 점령한 無名高地의 間隙으로 侵襲하여 상호지원을 차단하면서 우리소대 左側背를 위협하였으며 1개소대 규모의 敵은 소대 正面으로 挾攻하였다.

우리소대는 예비인 제3소대일부의 증원하에 수류탄을 던지고 과감한 肉迫戰을 전개하여 敵의 侵透을 阻止하였으나 右側을 담당한 사단수색중대 제2소대가 소대장이 戰死하면서 一角이 무너져 戰勢는 急迫하여 갔다.

중대는 姜六有중위의 과감한 전투지휘하에 四周방어태세를 갖추고 奮戰하였으나 四方으로 밀려드는 敵으로 말미암아 제10중대의 掩護下에 轉進하였는데 이 高地는 제9중대가 逆襲하여 再奪取하였다.

8. 杜梅里 附近 戰鬪(1951년 12월 28부터 1952년 1월 8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8호
상 황 도 제 44, 45, 46, 47, 4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제1사단	장 군장	朴 林	恒
제12연대	장 대령	鄭 永	洪
제1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제1중대	장 중위	孫 東	俊
제2중대	장 대위	金 仕	經
제3중대	장 중위	張 永	敎
제2대대	장 소령	張 得	守
제5중대	장 대위	金 永	俊
제6중대	장 대위	韓 子	平
제7중대	장 대위	崔 春	影
제8중대	장 대위	鄭 嚴	守
제3대대	장 소령	康 永	傑
제9중대	장 중위	朴 世	植
제10중대	장 대위	嚴 秉	吉
제11중대	장 중위	金 正	珉
제12중대	장 중위	梁 昌	煥
제15연대	장 대령	金 振	暻
제1대대	장 소령	金 明	中

제1중대	장(대리) 소위	崔	明俊
제2중대	장 대위	田	炳瑞
제3중대	장 대위	鄭	亨澤
제4중대	장(대리) 중위	崔	奎鶴
제2대대	장 소령	朴	春雄
제3대대	장 소령	金	國柱
제9중대	장 중위	朴	鍾淳
제10중대	장 대위	崔	文榮
제11중대	장 대위	金	麗珍
제12중대	장 대위	安	哲元
제17포병대대	장 중령	梁	正吉

병력 : 장교— 94%
사병— 93%
장비 : 총포—102%
차량— 83%

敵軍

中共 제63군	장	傅 鍾	壁
제188사단	장	鄧	岳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사단(장, 朴林恒준장)은 休戰會談으로 말미암아 전선이 小康狀態를 이룬 가운데, 臨津江 南岸을 沿한 주진지를 강화하면서 江北 일대에서 제한된 수색戰을 벌이다가 10월 초순에 美제1군단의 Commando

작전개시를 契機로 서부전선에서 北進을 단행함에 따라 군단左翼으로써 10월 3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케 되었다.

그런데 이에 사단이 담당케 된 지역은 이미 수색과 정찰을 반복하여 이를 사실상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까닭으로 이날 18.00에 接敵없이 Jamestown線(高浪浦里 北쪽 4Km)을 확보 함으로써 臨津江 南岸의 사단 주력을 江北으로 추진하여 주저항線의 균형을 유지케 되었다.

敵軍의 상황 : 당시 사단 정면에는 中共 제63군 예하 제188사단이 CP를 馬山洞에 둔 가운데, 龍虎山一望海山一盤龍山을 連하는 선상에 주력을 배치하고 경계부대를 非智山一大德山 前面으로 내보내어 사단의 動靜을 살피면서 日夜로 진지 축성에 餘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다가 사단이 主力을 江北으로 추진하자 中共은 수색전으로 도발을 획책하여 사단의 주진지 구축을 방해하는 한편 그들의 前進線을 계속 확장하면서 공격의 好機를 노리는 것으로 추단되었다.

이때 中共은 병력과 화력을 大德山一盤龍山 일대에 重點的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병력 규모는 총 7,200—7,500명 內外로 예상되었으며 또한 122mm 야포 1개대대와 105mm 야포 1개중대 그리고 전차 1개소대가 龍虎山一盤龍山一望海山의 前後方 일대에 分散 配陣하여 이들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상황 : 제1사단은 10월 하순에 CP를 下古里에서 梧山里로 移動開設한 다음 사단 주력을 江北에 추진하여 沙尾川—白鶴山—泗川 사이에 配備하였다.

그리하여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에 제15연대 제2대대(장, 朴春雄소령)를 배속하여 高浪浦里—△104線의 右一線을 맡게하고, 제11연대(장, 金永錫대령)는 白鶴山—△38—泗川河口를 連하는 左一線으로 삼아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주저항선을 형성케 하는 동시에 제15연대(—)(장, 金振暐 대령)를 金谷里와 法院里 부근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이런 가운데 진지를 강화하면서 戰技向上에 힘을 기우렸는데 이때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상의 90%線 水準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제17포병대대의 직접지원을 비롯한 美1군단 포병부대와 전차중대, 그리고 要請에 따라 美 공군지원이 가능하여 火力은 대체로 敵보다 優勢한 편이었다.

그리고 本 戰鬪期間(51년 12월 28일~52년 1월 8일)은 年中에서 가장 酷寒의 季節로서 北風으로 個人動作에는 障碍도 되었으나 날씨는 계속 快晴하여 작전에 크게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2) 第一次戰(1951. 12. 28~12. 30)

(가) 작전계획

제12연대(장, 鄭永洪 대령)는 10월 29일 주저항선을 Jamestown線上으로 추진함과 同時에 제3대대의 제11중대로 하여금 前進據點을 확보케 하는 한편 右一線에 배속받은 제15연대 제2대대(장, 朴春雄 소령)를, 中央에 제1대대(장, 柳文鎬 소령)를, 그리고 左一線에 제2대대(장, 張得守 소령)를 配備하고 제3대대(장, 康永傑소령)를,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주진지와 杜梅里高地 일대의 前進진지를 강화하면서 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당면의 中共 제523연대는 사단주력을 江北으로 추진하자 이를 注視하더니 그들의 前哨兵力을 漸次로 증강시켜 執拗하게 연대의 진지축성을 阻害하는 한편 수차에 걸쳐서 연대 주진지에 위력수색을 加하는등 敵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강되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鄭永洪대령은 敵의 企圖를 탐지코자 포로획득에 主眼을 두고 11월 9일 夜半에 제1대대로 하여금 沙是里高地를 奇襲케 하였던 바 中共軍 13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하는 戰果를 얻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이 포로의 진술과 敵의 움직임에 비추어 보아 『未久에 敵의 攻襲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진지공사를 더욱 강화하여 방어태세를 공고히하는 한편 12월 14일에 예비인 제3대대를 주진지로 추진케 하여 제2대대와 교대토록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돌렸는데 다만 同 대대의 제5중대를 뽑아 제1대대의 전진前進(杜梅里高地 일대)를 전담케 하였다.

(나) 작전실시

12월 28일 : 이날 夕陽이 가까와지면서 그 동안에 연대와 대치하고 있던 中共 제188사단 예하 제523연대가 그들의 예비대를 投入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사단 前線에 紛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날 16.00 정각에 제12연대 제1대대의 前進진지인 鐵帽高地를 확보중인 제5중대의 분견대 300m 앞에서 2발의 신호탄이 오르자 곧 敵의 포격이 시작되더니 △104와 杜梅里高地(△140정도) 부근에 敵의 야포와 박격포탄 600 餘發이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16.10부터 各隊에서 敵의 出現狀況이 速報되었는데 平村쪽에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제5중대의 右第一線인 제2소대(杜梅里高地)의 陣前으로, 그리고 박골쪽에서 역시 중대규모가 左第一線인 제1소대(杜梅里高地 西쪽 1Km) 정면으로 각각 戰車를 앞세우고 侵攻하였으며 중대 OP 西쪽의 수색대 前方과 제3대대의 제9중대 정면에도 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陣前까지 近接하였다.

이에 제17포병대대(장, 梁正吉중령)는 美제999제포병대대의 협조 밑에 즉각 砲門을 열어 敵의 예상포진지에 대한 對砲兵射擊과 殺到하는 敵에 對한 탄막사격을 집중하였다.

한편 연대장 鄭永洪대령은 예하 각대대장에게 非常警戒를 命하는 동시에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敵은 연대 前進陣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② 제3대대 정면에 대한 敵의 跳梁은 陽攻으로 판단되며 그 主攻은 제1대대 정면의 前進據點으로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대는 이 敵을 陣前에서 阻止 격멸하려 한다.

④ 예비인 제2대대는 何時라도 출동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이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각 중대가 決戰태세를 갖추고 있던 터이라 대대에 배속되어 前進진지를 맡은 제5중대장에게 嚴命하되 『여하한 困境에 있어서도 진지를 고수하면서 敵에게 最大限의 出血을 강요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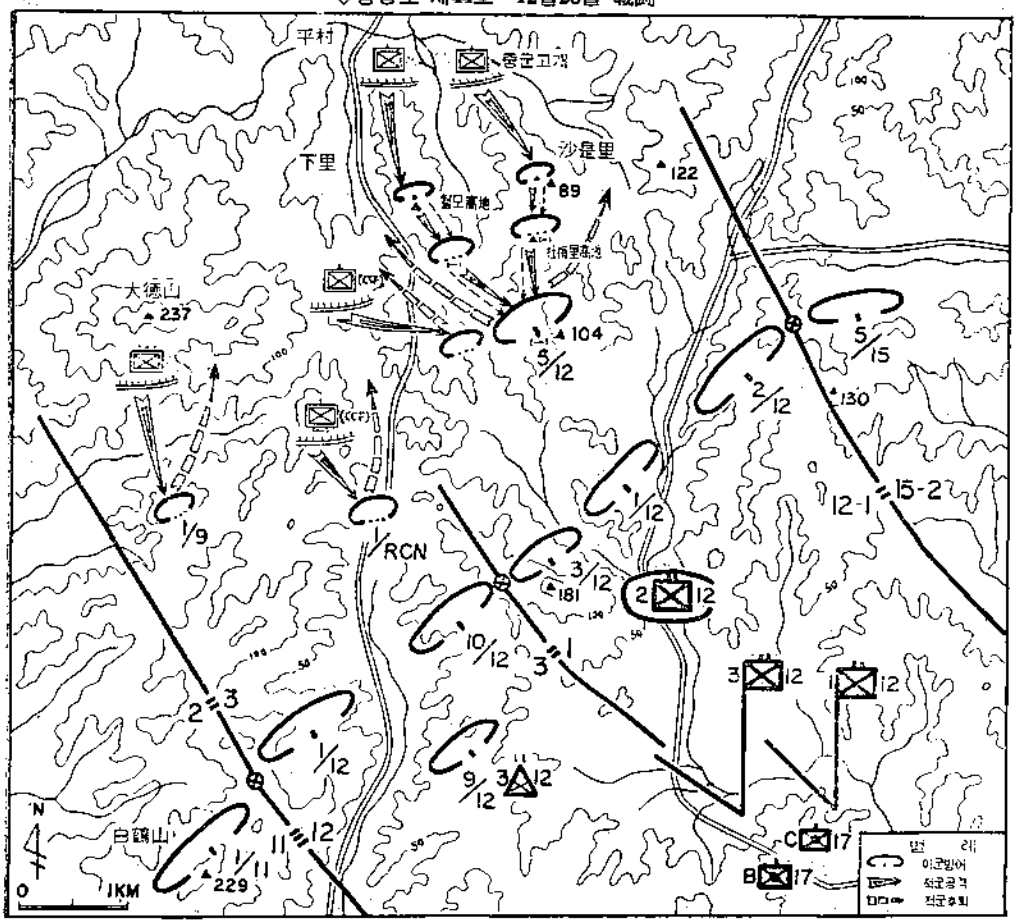
이에 제5중대장 金永俊대위는 16.15에 각소대장에게 命令하기를 『敵을 陣前으로 유인한

다음 집중화력으로 이를 격멸하라. 만약 敵이 陣地를 突破하면 백병전으로써 이를 殲滅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상황이 急轉되는 동안 鐵帽高地(杜梅里高地 西北쪽 1.5Km)와 △89의 分遣隊 陣前에서는 2개중대 규모의 敵과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鐵帽高地의 경계조는 20분 동안의 교전으로 敵의 第一波에 一擊을 加한 다음 無名高地(鐵帽高地 南쪽 300m)로 한 걸음 물러서고 그 뒤를 이어서 △89의 분견대도 杜梅里高地의 제2소대의 本陣으로 合勢하여 결전태세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敵이 主力으로써 全面攻擊을 시작한 16.40부터 격전이 전개되었는데 左右側兩 소대는 驍敵의 狂波 속에서도 진지를 堅守하면서 至近거리에서의 銃砲火力의 동시 집중으로 打擊을 加하였으나 波狀攻擊으로써 執拗하게 덤비는 敵勢로 말미암아 白兵의 威力도 人海에 밀리는 바 되어 마침내 陣容이 흩어지게 되었으므로 중대가 있는 △104로 철수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상황도 제44호 12월28일 戰闘



그런데 이때에 연대에서 요청한 F—51 전폭기 4대가 夕陽하늘에 나타나 敵陣을 불바다로 만들고 또한 지원 포병의 集中 火力이 侵攻의 무리를 모조리 制壓하자, 그들은 일단 萎縮된 듯 하더니 12.20에 이르러 전차포의 지원아래 다시 △104의 左右側 능선을 따라 중대 OP로 侵攻하였다.

이때에 중대장 金永俊대위는 크게 외치기를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되더라도 期必코 진지를 고수하라』고 하면서 陣頭에서 직접 지휘 하였는데 어느덧 敵이 陣前으로 밀려 들어 正面突破를 꾀하는가 하면 그 일부는 방향을 돌려 중대의 東側背를 急襲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의 全장병들은 渾然一體가 되어 挺身力鬪하였으니, 그 동안에 左측 제1소대에서는 한때 陣內에서 白兵의 亂戰格鬪가 벌어져 소대장이 전사하는 등 苦戰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중대는 끝까지 동요치 않고 격멸전을 편 끝에 이 醜敵의 무리를 격퇴하고야 말았다.

이와같은 狂波를 물리 친 중대는 △104를 중심으로 야간 경계태세로 들어 갔는데 이날 전투에서 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 射殺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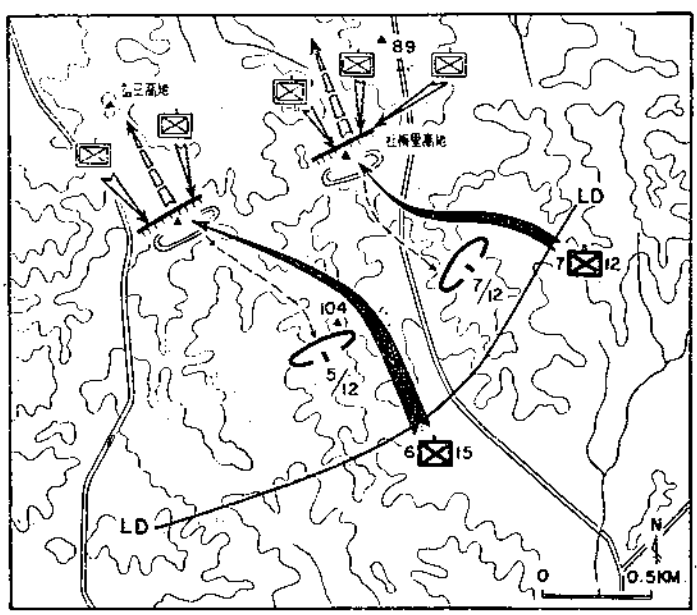
損失 : 戰死 4명　　負傷 10명

12월 29일 : 연대장 鄭永洪대령은 前날 敵의 企圖가 全面攻擊에 있는 것이 아니라 次期作戰에 유리한 敢制高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탈취된 전진진지를 再 탈환키로 결심하고 作指 제72호(12월 29일 22.00)를 하달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일부 병력으로써 전진진지를 탈환하려한다. 제17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공격개시 30분전에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상황도 제45도 12월 29일戰鬪



② 제2대대는 목표 A(△140), B(무명고지)를 탈취 확보하라.

③ 제1대대는 수색대로 하여금 西쪽에서 牽制에 任하도록 하라.

④ 제15연대 제2대대장은 유격소대로 하여금 東측에서 牽制에 任하도록 하라.

⑤ 攻擊開時 日時는 12월 29일 06.30이다.

⑥ 연대 OP는 △131에 위치한다.』

1. 이상과 같은 命令을 받은 제2대대(장, 張得守소령)는 제17포병대대(장, 梁正吉중령)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곧 목표를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대대는 제5중대가 前날부터 △104를 堅守하는 가운데 제6, 제7 兩 중대를 攻擊一線에 전개하여 06.30에 LD를 통과하였다.

가) 右一線인 제7중대(장, 崔春影대위)는 △104 最先端 無名高地에서 右側능선을 따라 突進끝에 09.20에는 목표 "A" 100m앞까지 진출하여 兩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지형의 利를 살려 밤 사이에 곳곳에 화력거점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突出部마다 자동화기를 배치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중대장 崔대위는 곧 兵力을 突擊隊形으로 전개시킨 다음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强打하였으나 敵은 계속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수류탄으로 버팀으로써 7명의 死傷者를 낸채로 사격戰만으로 始終하였다.

이에 중대는 隊伍를 정비하고 돌진을 감행하는 동시에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敵火를 制壓키로 하였다.

이때에 선두에 나선 右측의 제2소대는 낮은 포복으로 死角을 이용하여 목표 50m전방까지 接近한 다음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東背로 달려들어 수류탄을 던지면서 白兵戰을 감행하였다.

이어 중대의 主力이 後續하면서 敵의 화기진지를 차례로 격파하고 목표 "A"를 점령하니 이때가 10.10이었다.

그런데 11.00에 敵彈이 杜梅里高地일대에 집중하더니 △89 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역습을 始作하였다.

이에 중대는 陣前 30m까지 유인한 다음 全 화력을 집중하자 敵은 △89쪽으로 潰走하였다.

이무렵 東쪽 △148와 속칭 중군고개쪽에서 다른 2개중대 규모의 敵이 再攻擊을 시작하여 同 高地 左右측 능선을 따라 殺到하였다.

이에 중대는 진지의 堅守를 다짐 하면서 결전태세를 갖추는 한편 砲兵射擊을 요청하여 이를 制壓토록 하였다.

그런데 中共은 常套的인 人海戰法으로 極甚한 打擊에도 불구하고 狂波와도 같이 밀려들어 14.30부터는 진내에서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敵勢에 밀려 失守하자 이에 중대는 다시 兵力을 수습하여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나) 한편 제6중대(장, 韓子平 대위)는 06.30에 예정대로 LD를 넘어서자 곧 목표"B"(無名高地) 중복까지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중대장 韓대위는 일부 병력을 右측으로 迂回시켜 東側背를 奇襲케 하는 동시에 정면에서 敵陣을 突破토록 하였는데, 본시 이 高地의 8部능선 부터는 急傾斜를 이루어 攻者의 機動이 어려운데다가 瞰制高地에 占據한 敵이 鐵火를 집중하면서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격전만을 반복하였을뿐 전황은 不振을 면치못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81mm 박격포 사격을 요청하여 敵을 制壓케 한 다음 全面攻擊을 敢行키로 하였다.

이로 부터 중대 主力은 果敢한 돌격으로 소대규모의 敵을 覆滅하고 돌격선까지 육박하였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2개소대규모의 敵과 격돌하여 鐵火가 亂飛하는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血戰을 펴는 동안 예비인 제3소대가 포복과 약진을 연결하면서 목표 右측으로 迂回하여 敵의 左側背로 육박한 다음 可用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敵陣에 突入하여 수류탄으로 치열하게 맞서게 되니 마침내 敵陣이 動搖하기에 이르렀다.

이 瞬間 중대의 주력이 정면으로 突擊을 감행하니 그토록 發狂하던 敵은 100m후방에 있는 無名高地로 潰走하였는데 必是 그들의 주력과 合流한 듯 하였다.

이 무렵 전황의 진전을 지켜보던 대대장 張得守소령은 現 進出線에서 즉시 防守태세로 轉換하고 敵의 역습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에 중대는 현진지를 고수키로 다시 한번 결의를 굳게하였다.

그런데 11.00에 敵은 또 다시 反擊을 개시하여 그들 포병의 射程延伸과 동시에 鐵帽高地 쪽에서 중대규모가 陣前으로 다가섰는데 그 후속부대로 보이는 2개중대규모의 敵이 大德山 東쪽능선과 下里 南쪽의 小路 左右능선을 따라 攻襲하였다.

이에 중대는 포병지원아래 全 화력을 발휘하였으나 敵은 희생을 무릅쓰고 波狀突擊을 반복함으로써 끝내 右측 제3소대의 據點에 龜裂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대장 韓대위가 이 突破口를 봉쇄코자 중대본부 요원과 화기소대의 일부를 직접 지휘하여 백병으로 對決하니 陣內는 彼我가 서로 엉켜 混戰亂鬪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계속 증강되는 敵勢를 중대의 獨力으로 能히 支撐키 어렵게 되자 중대장은 곧 이를 대대에 보고하고 高地下端으로 隨意 철수하여 병력을 수습키로 하였다.

한편 △181의 OP에서 이러한 전황을 報告 받은 연대장 鄭永洪대령은 이날도 목표 탈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戰列의 再編을 決心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대장 張소령은 제6중대로 △104를 확보케하고 그 右측에 제7중대를 배치하여 야간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104의 제5중대를 주진지로 복귀시켜 다음날 계속될 공격을 준비케 하였다.

이날 대대가 격전끝에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 射殺 75명

損失 : 戰死 4명, 負傷 17명

12월 30일 : 제2대대장 張得守 소령은 전날의 積勢를 挽回코자 제17포병대대(장, 梁正吉 중령)의 火力 지원아래 이날 공격을 再開하였다.

즉, 대대는 이미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제6, 제7 兩중대로써 경계진지인 △104를 계속 확보케 하는 동시에 제5중대를 攻擊一線에 내세워 07.00에 兩 중대의 配置線을 超越하였다.

제5중대장 金永俊대위는 07.00에 LD(제6, 제7 兩중대의 配置線)를 통과 할 豫定으로 06.00에 집결지를 출발하였는데, LD에 進入하자 곧 右측에 제2소대를, 左측에 제1소대를 전개하고 豫備로 제3소대를 控置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에 杜梅里高地를 指向하여 躍出하였다.

△104의 東麓을 넘어선 중대는 09.00에 목표 100m앞까지 接近하여 兩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그런데 목표에 배치된 중대규모의 敵은 大德山과 △89, 그리고 △148로 부터의 熾烈한 화력지원아래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全力을 집중하여 敵線 突破키로 하였으나 수류탄을 연속 投下하는 敵의 發惡으로 치열한 공방전만을 거듭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이와같은 混迷한 전황을 打開코자 81mm 박격포의 집중화력을 加하면서 『지체없이 돌격을 감행하라』고 怒號하였다.

중대는 13.00에 敵의 거점 20m—30m 앞까지 육박하여 수류탄의 투척과 急射擊으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火力앞에 그 氣勢가 鈍化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屈하지 않고 중대장은 즉시 전차포로써 敵을 制壓케 하는 한편 右側의 제3소대로 하여금 敵의 側背를 一擊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4.00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바, 左右併立으로 敵陣에 突入하여 수류탄과 重火器射擊의 同時發揮로 敵兵을 擊破하고 白刃을 塹壕속에 휘둘러 最後決戰을 强要하게 되니 生死의 關頭에 서게 된 敗殘兵들은 간신히 목숨을 붙혀 潰走한 者가 10여명이었고 마침내 陣地를 奪取하고야 말았는데 중대도 이 전투에서 17명의 전사자와 41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므로 곧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진지를 再編하였다. 그러나 增援을 얻기도 前에 敵이 다시 전차포탄 100여발을 집중하면서 △89 兩돌출부에 있는 기관총이 불을 뿜더니 左右능선으로 부터 수효를 알 수 없는 무리의 역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제17포병대대의 지원下에 또 한차례 격전을 벌였으나 병력이 激減되고 탄약도 不足하게 된 탓으로 끝내 이를 阻止 못한채 대대장 命에 의하여 △104 後面으로 철수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날 중대가 血戰끝에 거둔 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 射殺 300명

損失 : 戰死 23명, 負傷 51명

한편 이와같은 전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現 진지에서 持久방어를 할수 있는 강력한 전진거점을 구성하라』고 명령〔作指127호(12.30.15.00)〕 하였는데, 이는 그간 연대의 紛戰樣相으로 미루어 보아 단시간안에 이[敵을 擊碎키는 容易치 않을 것이므로 보다 適切한 方策을 강구하기 위한 措置로 推測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104를 中心으로 하는 前進據點을 굳게 구축하면서 次後 對應策을 마련키로 하였다.

(2) 제2차전(1952. 1. 3~1. 8)

(가) 작전계획

사단은 12월 28일에 敵의 攻襲으로 말미암아 제12연대의 前進據點을 상실한 以來 이를 奪還코자 同 연대의 제2대대가 連 2일 동안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는데 당시 이 高地는 彼我間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 사단이 이를 확보하면 敵陣 後方에 대한 깊숙한 監制와 觀測이 가능하고 九化里—鬪城間의 主 補給路를 위협할 수 있다.

둘째 : 地帶內의 敵의 監制高地인 大德山의 東側과 後方을 고립화시킬 수 있다.

셋째 : 次後 공격의 전진 발판이 된다.

넷째 : 사단의 주진지 전방에 대한 敵의 수색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高地의 이와같은 중요성을 認定하게 된 朴林恒준장은 여기를 期必코 탈취할 것을 결심하고 12월 31일 13.00에 작전지시 제128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前方要點을 탈취하려 한다.

② 제12연대는 목표 A, B를 攻擊하여 이를 확보하라.

③ 제15연대는 현진지에서 공격태세로써 別命을 기다리라.

④ 前項 兩 연대를 除外한 각 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공격개시 일시는 1월 3일 10.00이다.

⑥ 사단 전방 지휘소는 △181에 위치한다』

이와같은 공격명령을 받은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은 곧 관계참모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한 끝에 連 3일 동안 격전을 치른 제2대대를 12월 31일 밤 사이에 左一線의 제3대대와 교대케 한 다음 제3대대로써 당면의 敵을 一擧에 擊碎키로 방안을 굳히고 12월 31일 1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 제78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杜梅里高地와 無名高地를 공격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목표 A, B를 攻擊하여 이를 탈취하라.

③ 유격중대는 右측방에서 제3대대에 대한 敵을 牽制하라.

④ 수색중대는 左측에서 공격부대를 엄호하라.

⑤ 공격개시 시간은 10.00이다.

⑥ 연대 OP는 △181에 위치한다』

1월 3일 : 이날 08.00부터 105mm 야포(18문)와 155mm 야포(6문) 그리고 4.2″박격포(8문)가 일제히 火門을 열어 杜梅里高地 일대에 집중포격을 加하고 뒤를 이어 UN군 전폭기 4臺가 공격부대의 側方을 掩護하기 爲하여 大德山 東側面을 연막으로 遮障하는 가운데, 제3대대는 敵線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대대장 康永傑소령은 攻擊一線인 제10, 제11 兩중대에 전차소대를 各各 배속하여 戰力을 강화케 하고 제9중대와 전차 1개소대를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攻擊一線이 LD를 넘어 △104 최선단의 無名高地에 이르러서는 左右능선을 따라 나누어 分進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전날 제2대대가 공격하다가 두번 실패한 능선 접근로로 前轍을 밟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능선의 東쪽은 개활지로서 企圖를 露出하게 되며 西쪽은 敵의 火力據點으로 알려진 大德山에 瞰制되기 때문이었다.

1. 이런 가운데 右一線인 제11중대는 躍進끝에 목표의 중복까지 진출하여 敵의 치열한 사격을 받고 仰射로써 應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高地의 敵은 지난 3일간의 격전 끝에 많은 손실을 입은 바 있으나 高地 곳곳에 堅固한 진지를 준비하는 한편 兩 突出部에 기관총을 배치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중대장 金正珉대위는 11.20에 3개소대를 동시에 돌격대형으로 전개시킨 다음 모든 火力을 일제히 집중하여 이를 擊破코자 하였으나 敵은 기관총의 亂射와 수류탄의 連打로 執拗하게 버팀으로써 50분 동안에 걸친 격전에도 不拘하고 戰勢의 進展을 보지 못한채 치열한 화력전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전차포로 敵火를 제압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東斜面으로 迂回한 제3소대가 東側背로 달려들어 수류탄으로 敵壕를 격파하고 敵勢를 꺾자 중대주력이 敵陣에 突進하니, 마침내 敵은 많은 시체와 장비를 유기한채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대가 여기에서 진지를 재 정비하기도 前에 집중포격과 함께 △89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역습을 試圖하였는데 2개중대규모의 敵이 그 뒤를 후속하는 중이었다.

이와같은 전황을 지켜보던 대대장 康永傑소령은 예비인 제9중대로 하여금 급히 제11중대를 증원케 하는 한편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制壓케 하였다.

그런데 △89까지 진출한 敵은 일부 병력을 東쪽으로 그 方向을 돌려 兩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이를 격퇴코자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로부터 40분간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후속하던 敵의 主力이 左側의 제2소대 正面을 돌파하여 동시에 三面으로 육박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진내에서 백병전을 감행하였으나 끝내 敵勢에 밀리는 가운데 14.00에 高地중복으로 이탈하여 병력을 수습한 다음 再反擊을 준비하였다.

이무렵 제9중대가 高地중복에 이르러 二次에 걸쳐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계속 증강되는 敵勢로 말미암아 敵陣을 돌파하지 못한채 격전만을 되풀이 하였다.

2. 한편 左一線인 제10중대는 △104 左측 능선을 넘어서자 곧 목표 "B"의 8部능선까지 진출하여 포복과 약진으로 敵의 자동화기의 火網을 뚫고 敵前 30m까지 육박하였다.

이와같이 중대가 敵陣으로 달려들자 敵이 모든 火力을 발휘하여 버팀으로써 선두에서 육박하던 제2소대는 7명의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뒤 따르던 제3소대를 迂回시켜 側背를 强打케 하는 동시에 左측 제1소대로 하여금 계속 돌격토록 하였으나 高地頂上 兩突出部에서 불을 吐하는 敵의 기관총 사격과 간단없이 쏟아지는 수류탄 때문에 사상자만 續出할뿐으로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雪上加霜으로 제1소대장이 부상마저 입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敵陣 20m앞까지 육박한 제1소대의 金學明 中士외 5명이 敵의 화기진지를 擊破하여 4명의 敵을 죽이고 계속 수류탄으로 敵陣의 一角을 攪亂하였다.

이에 중대 주력이 일제히 달려들어 백병전 끝에 敵3명을 포로로 잡고 47명을 사살한 다음 마침내 목표를 점령하니 이때가 13.10이었다.

대대장 康소령은 命令하기를 『대대는 현재 예비가 없으니 중대의 獨力만으로 陣地를 고수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13.40에 포문을 열어 또 다시 역습을 시작한 敵은 제17포병대대(장, 梁正吉중령)의 치열한 制壓사격에도 불구하고 大德山 東쪽으로 부터 2개중대 규모가 陣前으로 다가섰으며 중대규모의 敵이 下里 西南쪽 능선을 따라 그 뒤를 後續하였다.

중대는 소총의 射程內로 近接하는 敵에게 기관총소대(배속)의 側射와 斜射로써 鐵火를 집중하자 一時 주춤 하더니 다시 포복으로 近接하므로 수류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와같이 두차례나 陣前에서 이를 격퇴하였으나 끝내 중대는 波狀的으로 밀려드는 敵勢를 감당치 못하여 高地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이와같이 이날의 공격도 高地中腹에서 一進一退의 치열한 공방전 만을 반복할 뿐 戰勢가 不振한채 병사들은 일몰과 더불어 寒波와 피로가 겹치게 되자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現進出線에서 防守태세를 강화하고 다음날 작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戰果		損失	
射殺	445명	戰死	26명
捕虜	3명	負傷	111명
鹵獲	重機 1정, 60mm 迫擊砲 1문		

1월 4일 : 사단장의 공격명령을 받은 제15연대장 金振暐대령은 金谷里의 연대 CP에서 작전회의를 開催하고 지난 12월 28일 以來 제12연대 예하부대의 반격작전이 不振한 원인과 敵情의 推移를 검토分析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攻防 第一線의 兵力비율이 1 : 1이지만 豫備兵力은 1 : 3의 비율로서 攻者는 火力의 優勢로써 目標의 탈취에는 일단 成功할수 있었으나 곧 敵의 예비대의 投入에 밀려 苦戰하게 되었다.

둘째, 목표(斗梅里高地)와 左측의 大德山(△237), 그리고 右측의 △148로부터 三面이 露出되는 가운데 始終 同一한 方向으로 공격을 반복함으로써 敵은 計劃에 따르는 火網 구성이 용이하였다.

이와같은 要件을 檢討한 연대장은 敵陣을 一擊에 突破하여 이를 탈취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목표 "A", "B"를 탈취한 다음 목표"C"(속칭 중군고개)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목표"B"(無名高地)를 탈취한 다음 依命 목표 "C"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斗梅里高地의 東側背를 急襲하여 목표"A"를 탈취한 다음 공격을 계속하여 목표"C"를 확보하라.

④ 제2대대는 前임무를 계속하라

⑤ 공격개시 일시는 1월 5일 05.00이다.

⑥ 공격간 연대 지휘소는 △130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은 연대 명령을 받은 各隊(제2대대는 제12연대에 배속중임)는 다음날 05.00부터 시작될 공격에 대비코자 연대계획에 따라 부대이동을 개시하였는데, 연대 주력은 EENT를 前後하여 臨津江(高浪浦 附近)을 渡河한 다음 각각 계획된 위치로 機動을 完了하였다.

즉, 연대 지휘소는 金谷里를 떠나 18.40에 △130(高浪浦 西쪽 2Km)에 추진 되었으며 제1, 제3 兩대대는 法院里附近을 출발하여 19.00에 舍內洞(高浪浦 西쪽 1Km)과 高浪浦里 附近에 집결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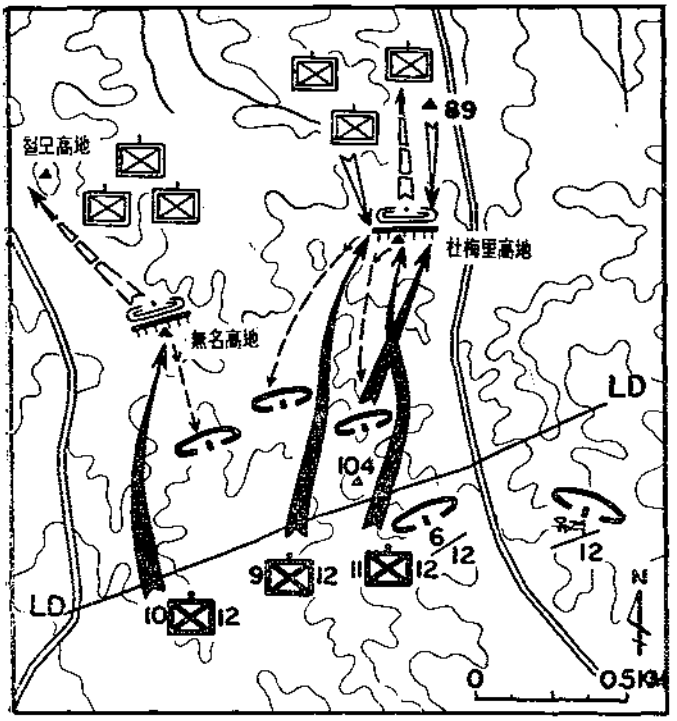
1월 5일 : 제15연대는 이날 黎明에 제3대대를 선봉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데 敵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여 斗梅里高地에서는 또 다시 처절한 爭奪戰을 演出하였다.

즉, 연대장 金振暐대령은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이날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목표"A"를 先取한 다음 목표"C"를 점령하고 左一線인 제1대대는 1時間 뒤에 제3대대가 확보한 목표"A"의 南쪽으로 뻗은 능선을 넘게 하여 목표"B"를 攻略토록 하였다.

1.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제11, 제9 兩중대를 一線에 전개하여 목표 "A"를 집중 공격케 하고 제10중대는 예비로 控置하여 제9중대의 뒤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새벽 寒波속에서의 企圖秘匿으로 初動에는 順調로운 進展을 보았다.

그런데 본시 이 高地의 중복부터는 급경사인데다 地面이 얼어서 攻者의 機動에 制限을 주었고 또한 목표에 接近할수록 敵勢가 증가되어 左一線인 제9중대는 05.40에 高地중복의 南斜面에 이르러 진출이 저지되었으며, 이무렵 右一線인 제11중대는 목표頂上의 東斜面과 △89 그리고 東쪽 △122등 三面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아 頓挫寸前에 直面하게 되었다

◇상황도 제46호 1월3일 戰鬪



이에 대대장 金國杜소령은 즉시 야포와 4.2″ 박격포의 사격을 요청하여 敵火를 制壓한 다음 예비인 제10중대로 하여금 東쪽△122와 그 北쪽의 △148를 탈취하여 側方을 엄호토록 措置하였으며 제11중대는 목표 "A" 100m 北쪽의 △89를 탈취한 뒤에 杜梅里高地의 背後를 强壓토록 하였다.

가) 右一線인 제11중대는 격전끝에 △89를 탈취하여 제3소대로 하여금 이 高地를 계속 확보케 한 다음 중대의 주력은 北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敵彈의 彈幕地帶를 뚫고 12.20에 속칭 중군고개의 東半部를 점령 확보하였다.

나) 左一線인 제9중대에는 07.00에 正面에 있는 敵의 火力據點을 覆滅한 다음 突擊線에 이르러 敵陣으로 달려 들었으나 雨注하는 화력속에서 많은 死傷者를 내고 高地중복으로 이탈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2소대의 安炳燮 中士등 4명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突擊路를 開拓케 한 바 이 특공대가 세차례나 돌격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敵壘속 깊이 突入하는데 奏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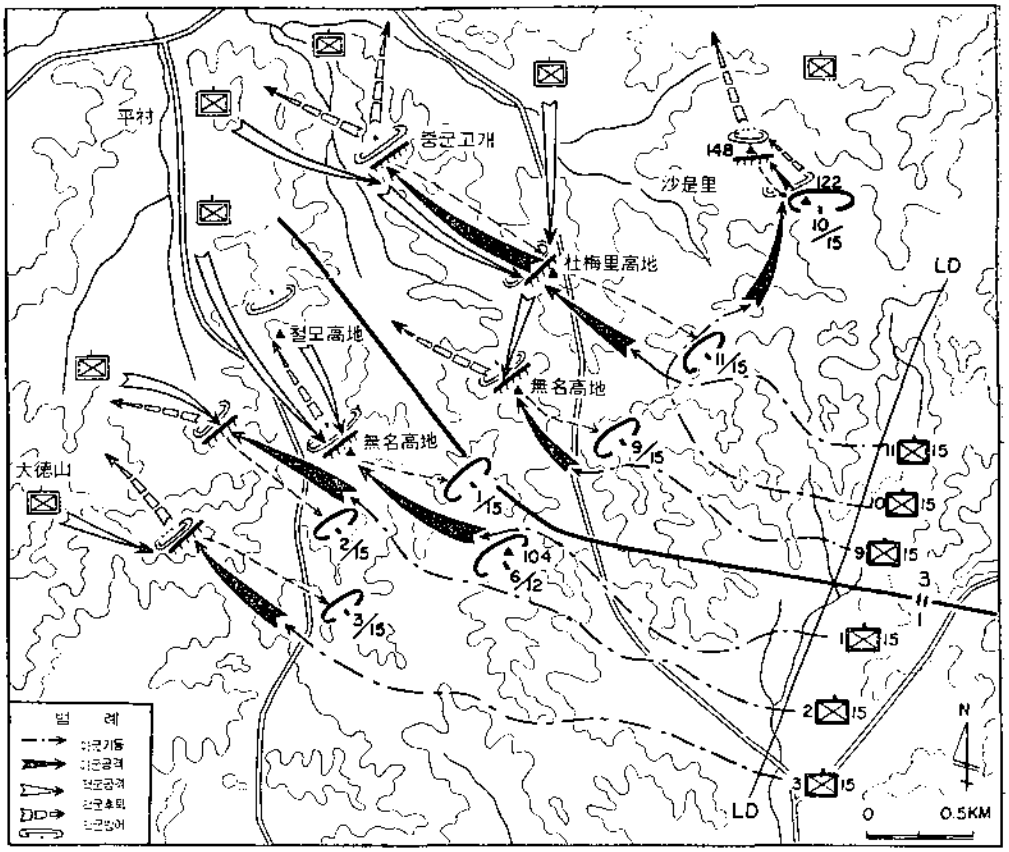
이를 따라 중대主力이 뛰어들어 총검을 휘두르고 이와 때를 마추어 △89를 탈취한 제11중대의 일부 병력이 背後에서 달려드니 高地의 敵은 더 以上 견디지 못하고 潰走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11.20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연대장 명에 따라 점령한 杜梅里 高地를 제1중대에 인계하고 주진지로 反轉하였다.

다. 이에 앞서 豫備인 제10중대는 신속히 方向을 無名高地(고장동 南쪽) 南斜面으로 돌려 소대규모의 敵을 覆滅하고 07.50에 △122를 탈취하였다.

이때에 중대는 공격을 계속하여 △148의 敵을 擊破하고 이를 점령확보하라는 대대장 命令에 따라 여기에서 제1소대를 예비로 措置하여 射擊으로써 攻擊을 支援케 한 다음 △148의

◇상황도 제47호 1월5일 戰鬪



頂上으로 向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10.00에 빗발치는 敵火를 무릅쓰고 突擊線까지 肉迫하자 곧 수류탄 투척과 急射擊을 加하면서 敵陣으로 突入하여 이를 손에 넣고 敵을 栗木洞쪽으로 驅逐하였다.

2. 한편 左一線인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는 06.00에 LD를 넘어서자 곧 △104 先端 無名高地까지 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제1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목표 "A"와 "B" 사이의 계곡을 엄호케 한 가운데 제2, 제3 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併攻케하여 목표"B"의 兩面에서 壓迫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약진끝에 高地중복까지 진출하였는데 제3중대는정면에서 突進하다가 西쪽 大德山으로부터 직사포의 집중사격을 받고 차페지점에서 공격이 停滯되었으며, 제2중대는 東斜面으로 仰射의 不利를 克服하면서 전진하다가 東斜面에 있는 兩突出部로부터 敵의 자동화기의 사격과 수류탄의 連打로 말미암아 전진이 교착된채로 화력전만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明中소령은 전차포와 81mm 박격포 사격으로 이를 制壓케하고 『계속 돌

진 !』 하고 叱咤하였다.

그리하여 左一線인 제3중대가 敵火때문에 전진이 저지당하는 가운데 右一線인 제2중대는 一步一步 약진하여 敵陣 20m 앞까지 육박한 다음 수류탄전을 전개한 끝에 敵壕을 擊破하고 12.00에 목표 "B"를 탈취하였다.

3. 敵은 13.30에 이르러 속칭 중군고개와 杜梅里高地 그리고 △148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한 다음 2개중대 규모로써 반격을 개시하였는데 그 일부는 중군고개를 확보중인 제11중대를 攻襲하고 다른 일부는 제10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148를 强壓하였다.

이때에 杜梅里高地만은 끝까지 堅守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으로 연대장 金振暲대령은 可用한 모든 포병사격을 집중토록 하고 전차중대로 하여금 大德山 東側의 직사포 진지를 격파케 하는 한편 속칭 중군고개를 堅守中인 제11중대를 △89로 收容하여 杜梅里高地의 제1중대와 같이 防守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런데 敵은 제17포병대대와 美제1군단포병대대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杜梅里高地로 戰力을 집중하였다.

이에 제1, 제11 兩중대는 全火力을 모조리 집중하여 이 敵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狂波와 같이 밀려드는 그들은 △89를 탈취한 다음 그 餘勢를 몰아 杜梅里高地를 유린하니 끝내 兩중대는 다음 능선으로 이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18.40였다.

이날의 격전에서 연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殺	350명	戰死	31명
鹵獲	小銃 2정	失踪	1명

1월 6일 : 연대장 金振暲대령은 제3대대가 전날에 확보한 線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제1대대로 하여금 목표(杜梅里 高地)를 탈취토록 하였는데 이날도 終日토록 치열한 격전을 되풀이 하였다.

1.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은 전날의 실패의 원인과 敵情 및 지형을 분석한 결과 정면 공격만으로서는 突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제3중대로 하여금 △104 최선단에 있는 無名高地에 예비로 措置하면서 다만 사격으로써 第一線의 攻擊을 지원케하고 右一線인 제1중대로써 △89를 탈취토록 하는 한편 左一線인 제2중대로 하여금 杜梅里高地를 직접 점령케 하였다.

그리하여 05.00에 LD를 넘어선 대대主力은 곧 高地중복까지 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敵의 저항을 받아 一進一退의 격전을 전개하였다.

가) 제1중대는 이날 黎明속에 LD를 通過하자 곧 沙是里 西南쪽 능선까지 躍進하였는데 중대장(대리) 崔明俊소위는 여기에서 제3소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제1, 제2 兩소대를 一線으로 展開하여 고장동 西쪽능선을 따라 08.00에 東背의 중복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중

대는 敵의 81mm박격포의 포격과 △89 東端에 있는 兩突出部로부터 자동화기의 集中射擊을 받으면서 躍進과 포복으로 敵陣 50m앞까지 육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敵의 저지화망에 부딪혀 進退兩難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89 東斜面의 8部능선 兩쪽에서 중기관총정과 경기관총 2정의 側射와 斜射火力이 있을 뿐 아니라 82mm 및 60mm의 박격포 탄막사격까지 形成된 것이었다.

이때에 또 중대는 不時에 소대규모 以上의 집중사격을 받고 一時 隊伍가 흩어지는 가운데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대대장의 지시로 10.00에 杜梅里高地 東斜面의 下端까지 철수하여 병력을 수습한 다음 공격방향을 杜梅里高地 東쪽으로 轉換하고 곧 공격을 再開하였다.

나) 제2중대(장, 田炳瑞 대위)는 △104를 넘어서자 곧 杜梅里高地 南麓까지 진출한 다음 3개소대를 동시에 一線에 전개하여 정면으로 躍進끝에 高地중복에 이르니 敵의 박격포 탄막이 앞을 가로막았다.

중대는 集注하는 敵火를 뚫고 07.40에 高地의 8部능선까지 육박하자 곧 수류탄을 일제히 投擲하면서 突擊을 감행하였는데 밤사이에 敵의 자동자기가 증강되고 82mm와 60mm 박격포의 탄막사격이 더욱 치열하여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특공대로써 突進路를 開拓키로하고 李文揆上士등 7명으로써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이 특공대가 2次에 걸친 육박끝에 敵의 화기진지 2個所를 擊破하고 17명의 敵을 사살하는 등 勇躍相을 보였으나 중대는 종내 敵前에 고착되어 더 이상 전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이 무렵 東斜面으로 突進하던 제1중대 역시 2次에 걸쳐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89와 목표頂上으로부터의 집중 사격과 수류탄(破片)의 雨下로 전황이 不振한채로 차폐 진지에서 突擊의 好機만을 엿보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전황을 살펴보던 연대장 金振暻대령은 怒聲一喝하되 『즉시 예비인 제3중대를 投入하여 期必코 이를 탈취하라』고 하였다.

이에 奮發하게 된 대대장 金明中 소령은 제3중대를 직접지휘하고 제2중대를 초월한 다음 雨注하는 敵火 속을 뚫고 정면 공격으로 敵陣 20~30m앞까지 단숨에 육박하였다.

그리하여 제17, 제999의 兩포병대대와 전차중대의 射程延伸에 隔接하여 일제히 敵陣속으로 뛰어들자 이때 마침 東斜面에서 제1중대의 일부가 東背를 一躍하여 무너뜨리는 刹那를 捕捉하자 14.00까지 목표를 爭取하는데 成功한 다음 곧 진지를 강화하고 역습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敵은 14.45에 각종 포병의 지원사격에 이어 그들의 戰法인 人海로써 반격을 개시함에 따라 또 다시 처절한 血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일단 手中에 넣은 瞰制高地를 끝까지 固守하는 한편 이 전투를 長期間 끌면서 地의 利를 살려 사단의 戰力을 消耗코자 하는 企圖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이날의 전투 역시 목표 150m 南쪽 無名高地로 이탈한채로 다만 火力의 應酬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날의 격전에서 대대가 거둔 전과는 사살 120명이고 손실은 전사 15명, 전상 62명이었다.

1월 7일 : 제15연대(장, 金振暐대령)가 連이틀간에 걸쳐 杜梅里高地 일대에 對한 반격을 감행하여 세 차례나 이를 탈취하는 동안에 敵에게 많은 打擊을 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끝내 成功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그 主要原因을 分析한 결과 敵의 역습부대의 大量投入과 火力의 증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可用한 全 포병화력으로써 敵의 역습을 저지하는 한편 對砲兵威力을 강화토록 하고 제3대대로 하여금 목표를 急襲으로써 一擧에 탈취한 다음 이를 고수하도록 嚴命하였다.

1.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이와같은 명령에 따라 占有中인 진지를 전날에 격전을 치른바 있는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에 인계하고 밤 사이에 杜梅里高地 200~300m 앞까지 진출한 다음, 제9중대를 예비로 措置한 가운데 제10, 제11 兩중대를 攻擊一線으로 전개하여 05.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一躍又一躍끝에 30분뒤에는 이미 高地중복까지 登破하였는데 이때에 敵의 박격포 탄막이 進路를 가로 막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격전지로 浮刻된 이 杜梅里高地(△140)는 三面이 敵으로부터 掩護되었으며 또 여기에 이르는 접근로는 30°의 경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능선의 폭이 30m 정도로서 2개 중대가 동시에 전개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여 攻者의 기동을 더욱 제한하였다.

가) 이런 가운데 高地중복까지 진출한 兩중대가 목표頂上을 향하여 兩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자 東斜面의 突出部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右一線인 제10중대의 進路를 가로 막았다.

이에 중대는 60mm 박격포 사격으로 이를 制壓하고 중대장 崔文榮대위를 선두로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끝에 敵 12명을 사살한 다음 07.10에 이를 물리치고 진출을 계속하였다.

나) 한편 左一線의 제11중대는 예비인 제9중대가 △104高地 先端의 無名高地에서 左側方을 掩護하는 가운데 정면으로 진출하여 07.00에 그들의 경계組로 보이는 분대규모를 격멸하고 더욱 躍進을 계속 하였다.

다) 이와같이 兩중대가 雨注하는 敵火를 뚫고 포복과 약진으로 07.50에 돌격선까지 진출하자 곧 敵陣으로 突進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敵의 最後阻止線에 부딪쳐 또 다시 전황이 교착되기에 이르렀으니, 敵

은 兩突出部에 배치한 6정의 기관총으로 側射와 斜射로써 亂射하고 수류탄을 連發하는 등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와같은 격전이 1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東天이 밝아오자 主力의 兩側方이 露出되어 西쪽 無名高地와 △89에서 敵火가 더욱 빗발치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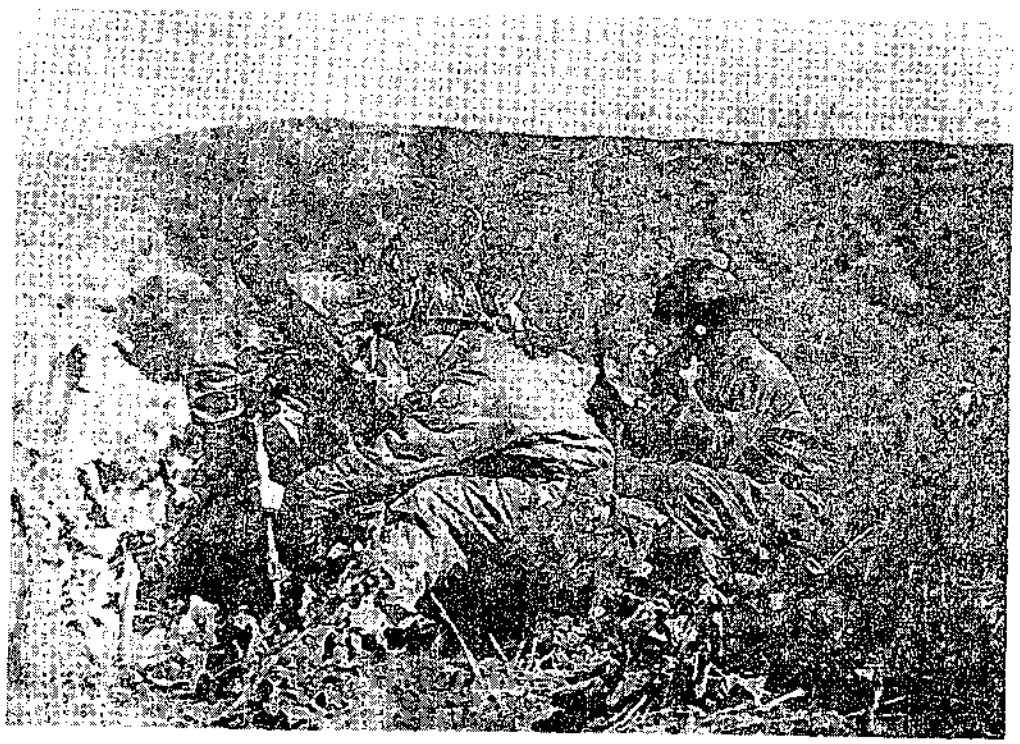
이에 대대장 金國柱소령은 兩중대를 즉시 高地중복으로 이탈케 한 다음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大德山과 杜梅里高地의 敵火를 制壓하고 09.00에 공격을 再開키로 하였다.

라) 제11중대는 정면으로 육박하면서 예비인 제3소대를 左側 斜面으로 迂回케 하였는데 이때 西쪽 無名高地로부터 치열한 기관총 사격을 받고 차폐지점으로 이탈하였다.

이 무렵 제10중대는 전차포의 지원아래 포복과 약진으로 敵陣으로 近迫하였는데 이때 선두에서 死角을 이용하여 낮은 포복으로 接近하던 제2소대의 崔孝淳下士등 7명이 과감하게 突入하여 수류탄의 連投끝에 敵壕를 격파하자 敵陣의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瞬間 兩중대의 주력이 일제히 敵陣으로 突入하여 백병전끝에 52명의 敵을 죽이고 11.00에 마침내 목표를 점령한 다음 防守태세를 갖추었다.

마) 그런데 대대가 확보하게 된 杜梅里高地는 彼我의 포격으로 積塵이 30cm나 되고 三面이 敵陣에 둘려 싸여 행동의 제한을 받는데다 △89의 敵은 기관총 사격으로 대대의 個人壕의 築造作業을 방해하였다.



<攻擊을 지원하는 迫擊砲班>

이런 가운데 敵은 西쪽의 大德山(△237)과 北쪽의 속칭 중군고개, 그리고 東便의 △148에서 무반동총과 박격포 그리고 2대의 전차포로써 화력을 집중한 다음 2개중대 규모로써 西側능선과 정면개활지를 약진하면서 陣前으로 接近하였는데 그 뒤에는 또 3개중대 규모의 병력이 後續하였다.

바) 이와 같은 전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可用한 全화력을 집중케하는 한편 끝까지 진지를 固守하라고 叱號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대는 계속 個人壕를 구축하면서 決戰態勢를 갖추었다.

그러나 敵은 포격의 집중으로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限없이 계속 밀려 들어 1시간 동안의 熾戰 끝에 13.20에 대대는 또 다시 高地중복으로 이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金國柱소령은 예비인 제9중대로 하여금 제10, 제11 兩중대를 초월케 하여 2차에 걸쳐 돌격을 감행케 하였으나 계속 증강되는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突破에 成功하지 못한채로 高地중복에서 격전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때에 △181의 사단 전방지휘소에서 이와 같은 情況을 지켜보던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제15연대의 제3대대가 敵에게 많은 出血을 强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취한 高地를 維持치 못하는 까닭은 西쪽 無名高地로부터의 側方射擊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먼저 탈취키로 결심하여 이날 13.5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제12연대는 1개대대로써 目標 "B"를 탈취하라.

② 제15연대는 現 進出線에서 敵을 견제하라.

③ 제17포병대대는 大德山과 杜梅里高地 일대를 연막으로 遮障하라』

2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은 제3연대(장, 康永傑소령)에 이날 중으로 목표 "B"를 탈취 확보하라고 엄명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10중대를 목표 "A", "B"로 이르는 分進點인 無名高地에 예비로 控置하여 목표 "A", "B"의 전투지경선인 계곡과 兩斜面을 사격으로 엄호토록 措置한 다음, 제9, 제11 兩중대를 공격一線으로 전개하여 예정대로 15.00에 LD선을 넘어서자 약진끝에 곧 高地중복까지 진출하였는데 대대는 여기에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고 격전을 펴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지난 28일이래 月明을 利用하여 陣地를 强化하고 火力을 增加한 듯 하여 그 氣勢가 銳利하였다.

이에 대대는 集注하는 敵火를 헤치고 突進끝에 15.50에 30m앞까지 육박하였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敵의 組織的인 火網에 저지되어 돌격직전에 戰勢가 교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康永傑 소령은 兩중대에 돌격대를 편성하여 進路를 開拓케 하고 돌격을 계속하라고 號令하였다.

이에 따라 兩側背로 迂回한 兩특공대가 火力을 一時에 집중발휘함으로써 敵을 당황케 하였다.

이때에 이 好機를 간파한 兩중대의 主力이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한 동안 白兵戰을 벌인 끝에 敵 52명을 刺殺하고 마침내 목표를 탈취하였으니 이때가 16.20이었다.

그런데 30분뒤에는 敵의 각종포격이 집중되더니 이어 大德山 東쪽능선에 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나는가 하면 잔골 西쪽능선과 下里에서 南北으로 連한 小路에도 각각 중대규모가 대대의 陣地를 向하여 攻襲하는 듯이 보였다.

이와같은 情況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즉시 제17포병대대를 비롯하여 美제999포병대대와 4.2″ 박격포, 그리고 각대대의 81mm 박격포의 火力으로써 이를 制壓케 하는 한편 끝까지 陣地를 堅守하라고 强調하였다.

이리하여 敵은 정면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兩중대는 동요함이 없이 敵을 至近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모든 火力을 동시에 발휘하여 鐵火를 集注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甚한 打擊에도 不拘하고 계속 밀려들어 마침내 진지 도처에서는 悲鳴소리와 총검이 부딪치는 紛戰亂鬪가 벌어졌는데 이때 제9중대장 朴鍾淳중위는 부상한 팔다리에 붕대를 감은채로 중대원들의 용전을 鼓舞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陣地를 고수하였으나 그 實效도 없이 17.30에는 끝내 100m 南쪽 無名高地로 隨意철수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편 이전투에서 兩연대는 射殺 400명의 戰果를 거두고 戰死 19명과 負傷 113명의 손실을 입었다.

1월 8일 : 이와같이 敵이 많은 손실에도 不拘하고 끝까지 抗拒함에 따라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마지막 一戰을 强要키로 결심하고 제15연대의 제3대대로 하여금 목표 "A"를, 제12연대의 제3대대는 목표 "B"를 一擧에 탈취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兩연대는 黎明이 가기前에 목표를 탈취키로 決意를 굳게하고 04.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1. 제15연대는 제1대대를 現 進出線에서 敵을 견제케 하고 제3대대로 하여금 전날에 이어 공격을 계속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3대대는 제9, 제10 兩중대를 예비로 控置한가운데 제11중대를 攻擊一線으로 하여 기습을 목적으로 高地중복까지 진출하자 兩突出部에 배치된 기관총탄이 雨注하고 西北쪽 無名高地에서는 6정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을 선두로 彈雨를 헤치면서 포복끝에 敵陣 20m앞까지 進出한 중대는 수류탄을 投擲하고 一齊히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敵線을 突破하지 못한채 高地중복으로 이탈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隊伍를 정비한 다음 06.00에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때에 선두에서 치달리던 제3소대의 任馥奎中士등 5명이 정면으로 突入하여 수류탄을 連打하면서 陣內戰을 擴大하자 이 瞬間 주력이 육박하여 10분간에 걸친 亂鬪를 벌인 끝에 47명의 敵을 죽이고

06.00에 마침내 一名『피의 高地』로 불리어지는 이 斗梅里高地의 頂上을 탈취하였다.

이 무렵 대대장은 예비인 제9중대로 하여금 제11중대를 赴援케 하였다.

그런데 밤사이에 高地 後斜面에다 교묘하게 구축한 참호속에 잠복하고 있던 敵이 수류탄을 亂投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치열한 陣內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중대는 수류탄 부족때문에 銃劍으로 육박하자 또 한 차례 亂鬪劇을 再演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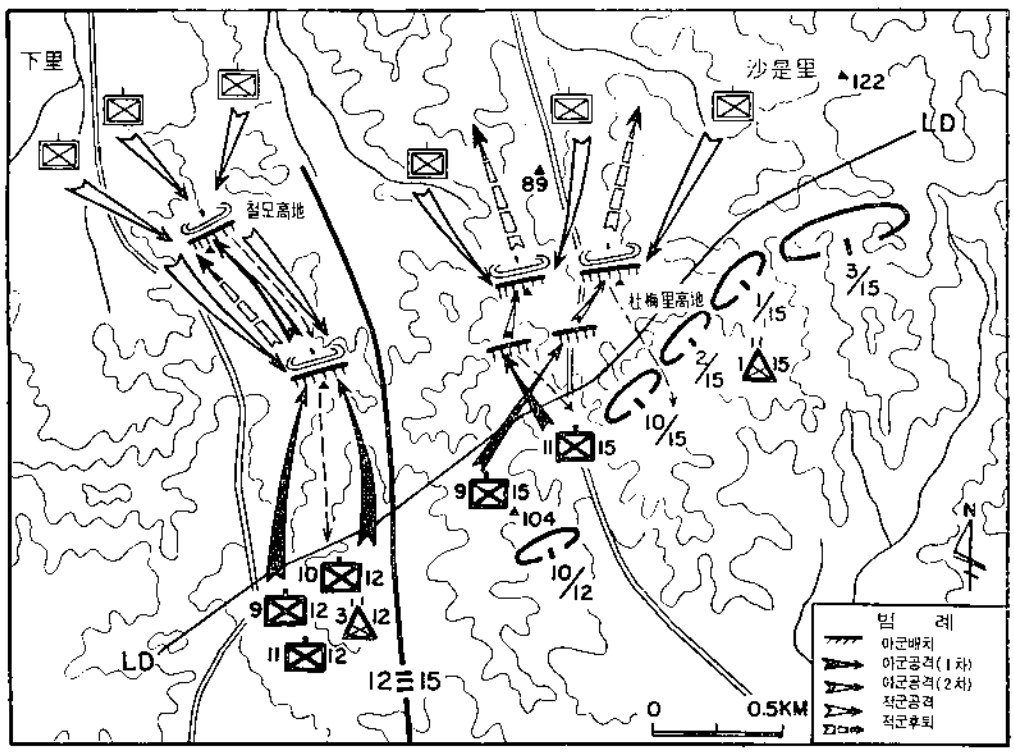
이 사이에 잔골 東쪽과 △89, 그리고 고장동 西쪽에서 各各 중대규모의 敵이 역습하여 중대를 三面으로 强壓함으로써 중대는 08.00에 마침내 高地下端으로 隨意철수하기에 이르렀다.

2. 한편 제12연대 제3대대는 제9, 제10 兩중대를 攻擊一線에 전개하고 제11중대를 예비로 공격부대를 뒤따르게 하여 LD를 突破하자 곧 목표 B의 중복까지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兩중대는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으면서 약진끝에 敵陣 20~30m 앞까지 육박하여 일제히 突擊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제10중대의 右측 제2소대의 일부가 敵陣에 突入하여 수류탄전 끝에 敵陣의 一角을 점령케 되었다.

이 瞬間을 놓치지 않고 중대주력이 뛰어들어 左衝右突로 敵陣을 席捲하였는데 左一線인 제9중대가 이에 合勢하여 52명의 敵을 屠戮하고 06.00에 목표를 탈취하는데 成功하고야 말았다.

◇상황도 제48호 1월8일 戰鬪◇



제12연대장은 △181의 OP에서 情況을 지켜보다가 제11중대로 하여금 鐵帽高地쪽으로 潛走하는 敵을 追擊토록 하는 한편 연대유격대를 제3대대에 配屬하여 목표 "B"를 補强토록 하였다.

그런데 敵은 08.00에 大德山과 平村쪽에서 75mm 무반동총과 122mm 야포탄 600여발을 집중한 다음 2개중대규모로써 大德山 東쪽능선과 갈현동 東南쪽 능선을 따라 出擊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포병지원아래 모든 화력을 집중발휘하여 前後 두차례에 걸쳐 이를 擊退하였으나 大德山쪽에서 後續部隊가 계속 증강되어 40분 동안의 치열한 白兵對決끝에 命에 의하여 08.40에 高地중복으로 이탈하였다.

한편 이 격전에서 兩 연대는 射殺 362명과 捕虜 1명의 전과를 거두고, 戰死 1명과 負傷 121명의 손실을 입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美 제1군단(장, J.W. O'Daniel 중장) 命에 의하여 8일로서 전투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 작전은 비록 勝戰으로 終結 짓지는 못하였지만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준 바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9일 제15연대의 主力을 臨津江 南岸의 原陣地로 복귀토록 하고 제12연대는 △104를 中心으로 한 새로운 전진진지에 對하여 堅固한 축성工事를 實施토록 하는 한편 위력수색을 전개케 하였다.

한편 敵은 大德山을 中心으로 한 主陣地를 계속 보강하면서 새로 入手한 杜梅里高地 全面에 對하여 地雷지대를 설치하면서 攻擊의 機會를 노리는 듯 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단은 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제15연대로 하여금 杜梅里高地에 對하여 夜間 奇襲을 감행케 하여 敵을 殲滅하고 이를 탈취하였으나 다음날 命에 의하여 다시 철수하였다.

이로부터 彼我는 제한된 小規模의 전투만 전개하였을 뿐으로 전선은 또 다시 交綏상태로 접어 들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간중 사단이 거둔 綜合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부대별	戰果					損失		
	射殺	捕虜	鹵獲			戰死	負傷	失踪
			小銃	機關銃	60mm 迫擊砲			
제 12 연 대	757	4	4	1	1	67	243	
제 15 연 대	854		2			62	342	2
계	1,611	4	6	1	1	129	585	2

§ 參戰者의 證言

◇ 제12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金永俊대위

(1973. 7. 31. 제26사단 에서, 대령)

제5중대는 △104에 OP를 두고 그 前方에 있는 杜梅里高地 일대의 前進據點을 堅守하다가 이 高地가 敵의 手中에 들어감으로써 야기된 전투였다.

중대가 이 高地를 堅守치 못한 중요 원인은 敵情을 報告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었다.

이날 중대는 敵의 集中射擊을 받으면서 치열한 攻防戰을 계속하였으나 끝내 力不足으로 △104로 철수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였는데이날 奪取된바 있는 杜梅里高地는 彼我間 서로 主陣地를 위협할 수 있는 戰制高地였다.

사단은 이와같은 重要性때문에 連 8일간이나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종내 큰 성과없이 전투가 終熄되고 말았다.

◇ 제15연대장 金振暐대령

(1973. 3. 13 韓水物産에서,예 소장)

제12연대가 공격에 失敗하자 사단에비로 臨津江南岸에 있던 나의 연대가 그뒤를 이어 攻擊을 계속하였는데, 이 高地는 비교적 평탄지역에 唯一하게 우뚝 솟은 要地로서 敵의 주저항선의 심장부로 알려진 六德山의 東側과 後方을 고립化할수 있는 戰制高地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最初 제1,제3 兩대대를 投入하여 目標를 탈취하였으나 頑強한 敵의 抵抗으로 밀려 났는데 그 뒤에 攻擊을 계속하였으나 종내 이 戰鬪를 勝利로 이끌지 못하였다.

§ 戰　訓

◇ 對砲兵戰

전투 初日인 28일 敵은 공격준비사격때에 600여발을 포격한 이후 連日 치열한 포격을 계속하다가 작전 마지막날인 1월 8일에도 포격은 감소됨이 없이 오히려 1,400여발이나 집중되었는데 이는 師團砲兵부대가 積極的인 對 砲兵戰을 펴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 戰車小隊의 事前措置

戰車는 攻擊에 있어서 직접사격으로 보병부대가 要求하는 목표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사격을 하여야 하나 30일 步兵部隊는 06.00에 정면공격을 시작하였는데도 전차는 사전에 偵察도 하지 않고 1.5km나 右側으로 迂回하다가 파괴된 교량 때문에 그 進出이 막혀 지원사격이 不振하였고 다음날 攻擊때에도 LD 近方에서 露出된 채로 지원사격을 하다가 敵彈으로 파괴되는 등 作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 예비대의 運用

敵은 目標에서 밀려나면 적절한 時機에 充分한 예비대를 投入하여 이를 회복하는데 反하여 사단은 豫備도 두지 않고 全 부대를 投入하거나 또는 일부를 豫備로 확보하였을 때에도 決定的 時機를 놓침으로써 戰鬪를 勝利로 이끌지 못하였다.

◇ 攻擊計劃上의 問題點

指揮官은 한번 失敗한 공격방향으로는 두번다시 投入치 말고 새로운 接近路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제12연대는 連 3일간이나 계속 같은 方向으로 攻擊하여 敵의 조직적인 화망에 陷入되는 愚를 犯한 것으로 본다.

또한 敵진지를 탈취한 다음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恒常 後退를 강요 당한 것은 工事를 敵의 視界와 射界속에서 充分히 하지 못한 까닭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薄暮를 利用하여 돌격한 다음 夜暗을 利用하여 공사를 강화하는 방책이 필요할 것이다. 不得已하여 주간에 돌격을 決行할 때에는 工事急造砂囊등을 보급하든가 연막을 차장하는 등의 措置가 필요할 것이다.

특공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돌격과 그에 따르는 戰果를 擴大하지 못한 것은 매우 可惜한 일이었다. 單純한 戰法만을 同一하게 반복하여 人命의 尊重을 無視한다면 이는 지휘의 무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敵陣形에 따르는 攻擊方策의 決定

杜梅里高地는 兩側面에서 敵의 火力支援을 充分히 받을 수 있는 要地이므로 여기를 攻破하려면 우선 그 兩側火力의 據點을 沈默시키거나 또는 可能하면 破滅하는 措置가 必要할 것인데 이러한 何等의 配慮없이 막연하게 같은 手法의 突擊과 離脫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同意할 수 없다.

9. 海兵隊의 黃土島 戰鬪 (1951년 11월 29일)

참조 : 상황도 제4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독립 제42중대 장 중위 沈 熙 澤 | 黃土島파견소대 장 소위 李 將 遠

敵 軍

北傀 내무성직속 제25여단 1개대대(—)

나. 전투 전의 개황

해병대는 51년 2월 5일에 東西海에서 敵 後方교란과 해안봉쇄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의 활동을 적극 엄호할 목적으로 독립 제41, 제42 兩중대를 新編하게 되었다. 그 中에서 독립 제42중대는 同월 14일에 東海 虎島(元山港 東쪽 14Km)로 急進하여 3월 初까지 차례로 5개島嶼 (虎島, 薪島, 小島, 大島, 黃土島)를 占領하는 한편 독립 제41중대는 4월 2일에 西海 喬洞島에 상륙하고 이어서 5월 7일에는 白翎島 경유(4.23) 席島로 躍進하였다(제5권 참조).

東海에 있어서 독립 제42중대가 永興灣봉쇄上의 要衝인 5개 島嶼를 제압하고 이 거점에서 활동을 적극화하자 敵은 이에 당황하여 急遽 黃土島 對岸과 葛麻半島(大島 西쪽 2.4Km), 虎島半島 (虎島 北쪽 8Km)等地에 82mm, 120mm등 박격포를 配置하고 近海를 遊弋하는 我軍함정과 중대가 점령한 島嶼에 대한 砲擊力을 強化하여 해상으로 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倍加하다가 끝내 先制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5월 23일에 北傀軍 20명이 1次로 黃土島를 침습하려고 기도한데 이어서 다음날에는 또 傳馬船 5척으로 100명이 2次로 同島奇襲을 획책한 것이 그것인데, 이들이 前後 2次에 걸쳐 시도한 기습은 여기룬 경계中이던 해병 1개분대의 邀擊과 이를 增援한 砲兵사격으로 慘敗를 모면할 수가 없었다.

그 後 그들은 거듭된 敗北에 自信을 잃었음인지 大島—薪島—黃土島 대안에 火力을 증강하고 포격만을 계속하다가 6월이후부터 점차 戰線이 교착되기에 이르자 더욱 해안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我軍을 견제하기에 狂奔하는 기색이 歷然하였다.

이러한 敵情判斷에 독립 제42중대는 10월 初부터 증원된 병력으로 1개소대를 별도로 편성하는 즉시로 점령한 永興灣 島嶼中에서 계속 敵의 침공목표로 지목되는 黃土島에 이를 急派하여 종전의 1개분대 증강 兵力과 代置함으로써 경비力을 강화케 하였다.

黃土島에 대한 敵의 3次 침공이 있던 11월 29일 當夜는 풍랑이 심하고 咫尺을 分別키 어려운 暗夜이었으며 당시 이곳에는 陸·海軍에서 파견된 30~40명의 諜報隊員이 主로 對岸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전개 中이었고 一般住民은 모두 撤去하고 없었다.

라.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독립 제42중대장 沈熙澤중위는 8월 初에 後方으로부터 兵力의 증원을 받게되자 敵의 再侵이 예상되는 黃土島 경비부터 우선 强化키로 결심하고 海軍側과 협의한 다음 제1, 제3 兩개소대를 麗島에 계속 駐留케 하는 한편 제2소대를 薪島에, 그리고 1개소대를 黃土島에 증원하여 경비를 강화 하였다.

이에 중대는 美해군 기동함대사령관(CTU 95.2)의 작전통제밑에 元山灣에 산재하는 前記 점령 島嶼경비를 계속 전담케 됨에 따라 중대장 沈중위는 10월에 각 소대장들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敵은 對岸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我軍의 해상활동을 적극 저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島嶼에 대하여 공격도 不辭할 것이라 한다.

韓·美해군 합정은 함포로써 계속 近海에서 敵해안에 있는 砲진지와 보급품 저장소 및 기타 목표를 강타하고 있으며 중대를 엄호中이다.

② 중대는 麗島—薪島—大島—黃土島를 확보하면서 해군작전과 我軍의 첩보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려 한다.

③ 제1, 제3 兩소대는 合同으로 계속 麗島를 고수하고 薪島—小島—大島—黃土島에 대한 긴급출동을 준비하라.

④ 제2소대는 薪島—小島—大島를 확보하고 이를 방어하라.

⑤ 黃土島 파견소대는 黃土島 경비를 강화하여 이를 고수하는 한편 대안으로 發進하는 첩보대의 활동을 지원하라.

⑥ 중대와 소대, 소대와 소대간의 통신은 SCR—300에 의하되 敵의 夜間 기습에 있어서는 赤色 신호탄 3발로 급보하라.

⑦ 중대장은 麗島에서 제1, 제3 兩소대를 직접지휘 할 것이다.』

(2) 작전실시

敵은 5월中에 前後 2次에 걸친 夜間침습에 이어 11월 29일에 이르러 또 다시 제3차의 侵攻을 획책함으로써 이곳을 경비하는 黃土島파견소대와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01.30에 安邊郡 浪城里에서 發進한 것으로 추측되는 北傀 제25여단 소속 일부병력(150명)은 木船 5척에 분승하여 黃土島 東南 100m 沿海까지 은밀히 潛航하고 이때를 期하여 이들이 發射한 曳光 信號로 浪城里—葛麻半島—城北里로 부터는 120mm, 75mm, 重機등 사격을 黃土島의 我陣地에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엄호된 그들은 暗夜를 好機삼아 黃土島 東南端 일각에 기습상륙하고 一擧에 同島점령을 노리게 되었다.

이때에 이곳에 배비된 黃土島파견소대(장, 李將遠소위) 제1분대는 어둠으로 가려진 視界때문에 이러한 敵의 企圖를 早期에 간파하지 못하고 다만 非常경계中이었으나 敵의 돌격상륙 신호로 판단되는 靑色신호탄이 50m해상에서 발사됨을 發見하고서야 비로소 敵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대는 即刻 분대장 지시로 그들 예상 상륙해안에 소총사격을 집중하여 接岸을 牽制하고 뒤이어 소대장에게 이러한 事實을 急報하였다.

이때에 소대장 李將遠소위는 前半夜에 실시한 1차의 진지 巡察에 이어 01.00~03.00까지 도합 2차의 순찰을 실시코자 傳令을 帶同하고 제1, 제2 兩분대 中間지점에서 소대의 야간 배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제1분대로 부터의 急報에 接하자 곧 이를 黃土島를 침습하려는 계획적인 기습으로 단정하고 선임하사 白南山 이등병조와 같이 제1분대 진지로 急行하였다.

이윽고 01.50에 제1분대진지에 도착한 그는 우선 紛戰中인 분대원을 격려하고 敵情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夜暗에 은폐된 敵의 兵力數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敵은 이때에 이미 상륙을 완료하고 지원포화의 延伸을 기다리면서 戰列을 정비中이었음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當時 소대의 黃土島 배비상황은 제1분대가 東南지역해안 방어를 담당하고 제2분대가 그 西南端지역에, 제3분대가 葛麻半島를 直視할 수 있는 西北端지역에 각기 분산되어 진지를 점령中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진지와 진지 사이의 間隙은 火力으로 엄호된 據點방어의 方式을 取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대는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채로 어느분대를 增援할 수도 없었는데 특히 夜間방어에 脆弱點을 보이게 되었다.

소대장 李將遠소위는 잠시 後에 敵의 포격이 진지에 집중하고 이와 同時에 一團의 敵이 일제사격으로 陣前에 殺到하자 분대원들에게 사격으로 이들을 阻止케 하고 진지의 固守를 嚴命하였으며 곧 이어 중대장에게 無電으로 긴급보고 하였다.

이렇듯 소수의 兵力으로 敵과 교전케 된 제1분대가 소대장 직접지휘下에 紛戰하는 동안 또 다른 一團의 敵은 木船 2隻으로 제2분대 진지 東쪽해안에 接岸하는 즉시로 상륙을 시도함에 이르러 제2분대도 또한 接戰에 들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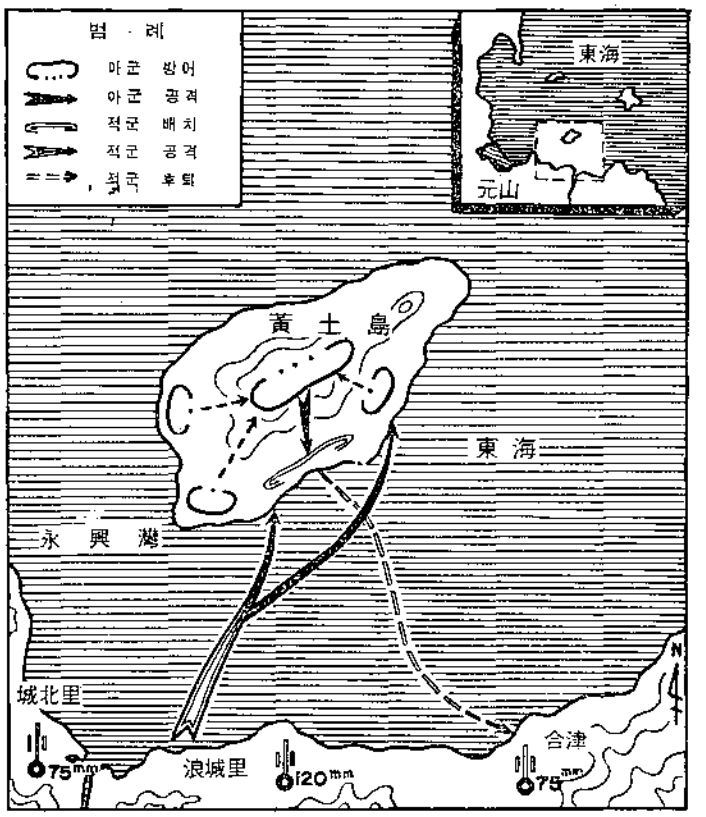
제2분대가 急派한 연락병으로 부터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李소위는 선임하사 白南山 이등병조를 제2분대 진지로 轉進케 하여 전투를 직접지휘케 하고 그는 계속 제1분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이곳에 殘留함으로써 소대는 兩分된 指揮밑에서 敵과 激突하게 되었다.

浪城里와 城北里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敵의 지원 포화는 제2분대 진지에도 집중되어 兩개진지에는 敵彈이 사정없이 灼烈하게 되었다.

한편 麗島(黃土島 北쪽 9.2Km) CP에서 黃土島의 敵侵보고에 接한 중대장 沈熙澤중위는 即刻 美함대에 상황을 통보하고 함포지원과 LCVP(上陸舟艇)의 支援을 요청하여 艦砲

로써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牽制하는 동안 時間을 稼得하여 제1, 제3兩 소대에서 抽出된 兵力으로 하여금 黃土島 北岸에 上陸케하고 敵을 섬멸키로 決心하였다.

◇ 상황도 제49호 黃土島戰鬪



그러나 機雷가 浮遊하고 風浪이 甚한 관계로 LCVP의 運行이 困難하였으므로 美해군側은 이에 많은 檢討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即刻 動員이 어렵게 되어 黃土島의 戰況을 근심하는 중대장 이하 麗島장병들을 切齒扼腕케 하였다.

이와같이 我軍상황이 黃土島과견소대에 不利하게 전개되는 동안 제1, 제2兩 분대는 敵과의 苦鬪가 계속되었으며 唯一한 交信手段인 無電器는 敵彈에 파괴되어 本隊와의 교신마저 杜絶되고 同島 西岸에 있는 幕舍 또한 敵彈의 命中으로 火焰이 瞬息間에 건물전체에 번졌다.

이때에 제2분대 진지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白南山이등병조는 추후 규명된 바에 의하면 戰鬪가 加熱하자 亂舞하는 敵彈으로 敵의 배비를 推斷하고, 이들을 擊滅하기 위하여서는 現진지의 固守방어 보다 소대 合同에 의한 제2선 배비가 有利할 것이라는 점을 소대장에게 進言하기 위하여 轉進하려다 敵彈으로 散華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분대지휘는 다시 분대장에게 歸屬케 되었다.

敵侵이 시작된지 30분이 경과한 02.00에 제1분대진지에서 敵과의 공방전을 지휘하던 소대장은 제2분대가 急派한 傳令으로부터 그 곳 戰況을 알게되자 兵力集中으로 最後의 打擊을 加하기로 決心하고 제1, 제2兩분대에는 即席에서 口頭로, 제3분대에는 通話가 가능한 有線으로 준비된 제2선으로의 一齊轉進을 命令하였다.

本隊와의 交信不能과 敵의 侵襲에 대비한 陣內합포사격 등 火力協調가 결여한 탓으로 敵을 해안에서 擊滅하지 못한채 소대는 얼마후 高地 8部 능선을 따라 준비된 예비진지에 東

쪽으로 부터 제1, 제2, 제3분대를 散開하고 곧 敵을 反擊키 위한 사격을 集中하였으며, 이 동안에 敵도 또한 兩개 상륙지점으로부터 高地南麓으로 점차 合勢한 다음 그들 지원포화에 힘입어 더욱 發惡하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最後의 거점인 제2선을 점령하고 優勢한 敵을 擊破키로 하였으나 暗夜에서의 誤射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안의 허다한 死角 때문에 戰況은 계속 混迷를 거듭하였다.

이와같이 紛戰이 계속되는 동안 李소위는 외치기를 『敵의 全滅은 곧 눈앞에 있다. 해병은 常勝 無敵임을 명심하라.』고 대원들을 叱咤하면서 沈滯된 士氣을 회복하기에 專念하였는데, 제3분대에서 제2분대로 巡回하려던 刹那에 그는 砂囊을 뚫고 진내에서 炸裂한 75mm포탄으로 추측되는 敵彈에 제2분대장 趙永根일등수병 등 3명과 더불어 壯烈히 戰死하고 말았다.

이에 憤然히 궐기한 대원들은 제1, 제3 兩분대장의 共同지휘밑에 團結하고 해병의 명예를 건 死鬪를 持續하였다.

02.40에 敵의 포화가 弱化되기에 이르자 先任인 제1분대장은 제3분대장과 協議하여 이를 好機삼아 敵에게 死活을 건 反擊을 敢行키로 하고, 먼저 모든 火力을 集中하여 制壓하는 瞬間을 타서 함성도 드높이 敵陣을 향해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에 이르러 黃土島를 기습으로 점령하려던 敵은 해안線上에 膠着되어 寸步도 前進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反擊이 시작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敵은 제1상륙지점을 目標로 앞을 다투어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敵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소대는 一時에 士氣를 回復하고 각개 약진으로 死角 해안을 急襲하여 어둠속에 彼我를 分別치 못하는 敵 5명을 사살하고 계속 해안선을 따라 索敵하면서 追擊하였다.

敵은 마침내 해상 退路가 차단될 것을 겁먹었음인지 또는 소대의 反擊을 막아낼 수가 없었음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일부병력으로써 主力을 엄호하면서 東쪽 해안으로 退却한 끝에 03.15에는 미리 배치하였던 木船을 타고 해상 멀리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어둠 때문에 敵情을 正確히 판단할 수 없는 소대는 敵의 해안이동 方向이 제1분대 진지 東쪽일 것이라는 추측밑에 그들 엄호부대를 사격으로써 逐次로 制壓하면서 東進하였다.

그러나 소대에서 抽出된 경계병이 그들 侵攻 해안에 進出하였을 때에는 敵이 撤退에 초조한 나머지 木船 2척을 遺棄하고 潰走한 後였으므로 소대는 결국 이들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써 敵은 黎明前에 黃土島를 간신히 脫出하는데 成功하였으나 用意周到한 계획밑에 3回째로 試圖한 同島기습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以後에 있어서 敵의 침습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敵은 끝내 이를 斷念한 것으로 추단되었다.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소대는 계속 거센風浪으로 중대와의 連絡이 끊겼고 만 3일 後인 12월 3일에야 중대가 派遣한 LCVP에 依하여 連繫가 가능케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소대는

敵 15명을 사살하고 敵船 2척을 拿捕하였으며 損失로는 戰死 7명, 부상 4명(중상 2명, 경상 2명) 소총파손 14정 幕舍소실 3동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은 3次의 침공에 失敗한 다음부터 黃土島에는 병력 投入에 의한 직접 跳梁은 없었으나 점차 永興灣일대 해안방어에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砲臺를 증설하고 島嶼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즉, 해병대의 元山港 봉쇄線上의 要衝인 黃土島등 島嶼점령에 자극되어 51년 末부터 對 上陸戰의 一環策으로 高原—文坪을 경계로 南쪽은 北傀 제2군단 예하 3개사단(제2, 제13, 제27)과 이에 배속된 제25여단이, 그리고 北쪽은 端川까지를 경계구역으로 北傀 제5군단 예하 3개사단(제6, 제12, 제46)과 제20, 제22 兩개포병여단 및 1개포병여단이 이에 배속되어 中共軍과 合同하여 해안경비를 강화하면서 我軍의 합정을 공격하고 해안 봉쇄를 극력 妨害하였다.

한편 독립 제42중대는 52년 1월 5일에 東西海 점령도서의 경비강화를 목적으로 新編케 된 해병도서부대가 발족함에 이르러 城津앞 洋島를 점령한 독립 제43중대와 같이 해병제8대대에 編入되어 계속 麗島를 중심으로 島嶼경비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8대대는 元山앞 島嶼 가운데 新編 이전에 배비가 없었던 熊島(麗島 北쪽), 砂島(虎島半島 南쪽), 毛島(虎島半島 南쪽 砂島인접도서)의 3개 島嶼를 追加로 점령하게 되어 그 점령도서는 洋島까지 합쳐 모두 9개에 達하였다.

그 後 제8대대는 52년 10월 1일에 東海부대로 改編됨에 따라 그 隷下의 부대 呼稱 또한 麗島부대, 大島부대, 新島부대, 毛島부대, 砂島부대, 黃土島부대, 洋島부대로 改稱케되었으며 이들은 休戰까지 敵 해상 보급로의 차단과 도서경비를 계속 수행하고 아울러 對岸인 敵地侵透활동을 전개하여 해병의 勇名을 誇示하다가 53년 7월 27일 모든 진지를 破壞하고 斷腸의 철수를 보기에 이르렀다.

§ 戰 訓

◇ 화력협조의 중요성

제3차 黃土島 방어전에서 我軍은 優勢한 함포를 이용하지 못하여 敵을 섬멸하지 못하였다.

이는 風浪이 심한 暗夜로서 敵情을 파악할 수가 없고 소대와 중대의 交通杜絶에 緣由하겠으나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함대와의 連絡방법을 사전에 강구하여 탄막사격을 계획하였더라면 敵을 能히 섬멸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10. 海兵隊의 洋島 戰鬪 (1952년 2월 20일부터 1952년 2월 2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5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8대대 제43중대 장 중위 崔 靑 松

敵 軍

北傀 독립 제63연대 특별대대 장 중좌 池 英 武

나. 전투 전의 개황

독립 제41, 제42兩중대가 東·西海 島嶼로 발진하게 되자 이의 補完策으로 新編된 부대가 곧 독립 제43중대였다.

중대는 52년 8월 29일에 東海에 있어서 해안 봉쇄선의 연장을 위한 해군측 요청으로 吉州와 明川의 兩郡에 接한 2개의 同名 洋島(吉州洋島, 明川洋島)에 상륙하고 주력으로써 吉州洋島를 점령하는 同時에 일부 병력으로 明川洋島를 장악하고 그 南쪽 江厚耳島는 암석으로 형성된 無人島인 까닭으로 병력의 절약상 다만 수시로 경찰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洋島 對岸인 明川郡 上加面 일대는 처음 北傀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대가 洋島에 상륙한 다음부터는 越北한 表武源(前 대대장)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北傀 독립 제63보병연대가 城津—淸津 해안의 경계를 전담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특히 洋島를 據點으로 我軍의 해군 활동이 점차로 강화되자 그들은 이에 대한 조치로 대안에 120mm, 75mm, 105mm등 포진지를 구축하고 중대 진지에 대한 포격을 일삼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戰線 最北端에 挺進한 선봉으로서의 긍지와 왕성한 사기를 堅持하고 敵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포진지를 우군 함정에 통보하여 함포로써 強打케 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對應하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情況 속에서 중대는 中東部 전선에서 싸우는 해병 제1연대의 兵力 充員을 優先하기로 한 사령부 方針에 따라 중대장과 선임장교를 제외한 全장교가 後任없이 이에 轉補되어 그 職을 임시로 下士官들이 代理하게 되었는데, 52년 1월 5일에는 東西海 島嶼 경비의 강화를 위해 증편된 제8대대에 편입되었으나 麗島(元山 東쪽)에 본부를 둔 대대와 遠隔된 탓으로 사실상 독립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敵의 침공이 있었던 當日 前半夜는 漆黑의 暗夜에 눈이 가려서 一步 앞도 바로 헤아릴 수 없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해병 독립 제43중대는 2개의 洋島를 同時에 점령하자 敵 침공에 대비하여 地形과 예상

侵襲路 등을 고려한 결과 제2, 제3 兩 소대를 吉州洋島에, 그리고 제1소대를 明川洋島에 배치하고 각기 해안선에 따라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의 배비는 洋島가 對岸으로부터 3,650m 거리에 있어 敵이 기습을 시도한다면 그 성공여부는 姑捨하고 언제든지 그 실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인데, 중대장 崔중위는 이와 같은 까닭으로 不斷히 이에 對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戰線의 교착을 틈타서 대안의 敵情이 점차로 증원되기에 이르자 그는 12월 初에 각 소대장 대리 하사관을 소집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美 해군은 중대의 島嶼 방어를 직접 지원할 것이며 함포지원 사격은 요청에 따라 즉각 제공될 것이다.

② 중대는 吉州·明川의 2개 洋島를 계속 점령하고 이를 固守하려 한다.

③ 제1소대는 明川洋島 西岸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에 沿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同島를 堅守하라.

④ 제2소대는 吉州洋島의 西北쪽 해안에 진지를 점령하라.

⑤ 제3소대는 吉州洋島 西·北岸을 점령하여 제2소대와 협조된 진지를 편성하라.

⑥ 화기소대는 각 소대에 1개班씩을 배속하라.

⑦ 박격포반은 중대를 일반지원 하라.

⑧ 각 소대는 敵 상륙 예상 해안에 鐵條網 및 海中 장애물을 設置하라.

⑨ 탄약 및 식량은 중대에서 추진 보급 될 것이다. 축성 자재는 청구에 따라 직접 美 함대에서 지급될 것이다.

⑩ 중대본부 및 제2, 제3소대間의 통신은 有線을, 중대와 제1소대간의 통신은 無線을 사용하라.』

(2) 작전실시

2월 20일 前半夜에 洋島對岸에 있는 北傀 독립 제63보병연대(장, 대좌 表武源)의 특별대대(장, 중좌 池英武)는 해병 독립 제43중대(장, 崔靑松 중위)가 경비중인 2개의 洋島에 대하여 木船(漁船) 52척과 發動船 2척으로 침습함으로써 이 전투가 開始되었다.

21일 01.00에 敵은 대안 진지로부터 105mm와 120mm(各 3문 推定) 砲 사격을 一齊히 吉州洋島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엄호된 2개조의 침공부대는 吉州 및 明川洋島의 동시 상륙을 試圖하였다.

중대장 崔靑松 중위는 敵의 포격이 시작되자 즉시 각 소대에 전원 非常 배치로써 臨戰태세를 갖출 것을 下命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은 눈이 나리고 흐린 날씨였기 때문에 1m 앞의 物體마저 分別키 곤란할 形便이었다.

01.40에 一團의 敵은 그들 計劃에 따라 편승한 선박으로 吉州洋島 北쪽에 침습하는 즉시

動哨 1명을 刺殺하였는데 그는 제3소대 소속이었다. 이 보다 앞서 敵은 2척의 발동선을 明川洋島 北岸에서 陽攻 上陸을 기도하였으므로 이곳 배비 제1소대一는 潛入하는 敵船의 氣動소리로 거리를 測定하고 집중 火力으로 마침내 船底를 破碎하였으나 또 다른 一團의 敵이 同島 東쪽 무방비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를 看破하지 못하였다.

吉州洋島에 上陸하고 해안 橋頭堡를 確保하게 된 敵의 제1조(장교 11명, 사병 78명)는 我軍의 主力이 △70에 있을 것으로 속단하였음인지 全力으로 이를 공격하였으며 한편 같은 시간에 我軍 배비를 기만하고 明川洋島 東쪽 해안을 겨냥하여 我軍 저항없이 上陸에 成功한 제2조(장교 6명, 사병 60명) 역시 곧 △47의 頂上을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 하여 兩 도서의 高地는 接戰없이 敵 手中에 들어 갔는데 이들은 만세를 高唱하는 등 떠들어대면서 그 威勢를 誇示하였다.

당시에 중대의 배비 狀況을 一瞥하면 限定된 兵力으로 全 해안線을 따라 要地 要部에만 陣地를 構築하고 陣地 相互間은 참호로써 연결하여 全面 방어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水深이 얕아 소형선박이 寄着하기에 용이한 해안에는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架設하여 이를 봉쇄하고 거점과 거점사이에는 동초로써 경계하였다.

當時 이 洋島에는 陸, 海軍에서 파견된 첩보부대가 중대의 경호밑에 활동중이었는데 그 수는 도합 30~50명이고 주민수는 100명 內外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老弱者와 부녀자들로 영세 어업을 營爲하였는데, 해병들이 進駐한 以後 이들 주민은 전적으로 구호 양곡과 구호물자에 依存하고 있었다.

1. **吉州洋島 戰鬪** : 부대가 해안 四周진지를 堅守하면서도 敵에게 吉州洋島 중앙지역에 있는 △70를 敵手에 넘기게 된 것은 暗夜로 말미암아 경계상의 허점이 많았던 관계로, 敵은 사전에 이를 察知하고 그 虛를 찌른 것으로 判斷되었다. 커다란 교전없이 순식간에 △70를 점령한 敵은 02.20에 高地 東南쪽 능선에 가설된 통신선을 절단하고 이어서 그 東쪽 8부능선에 있는 통신교환壕를 기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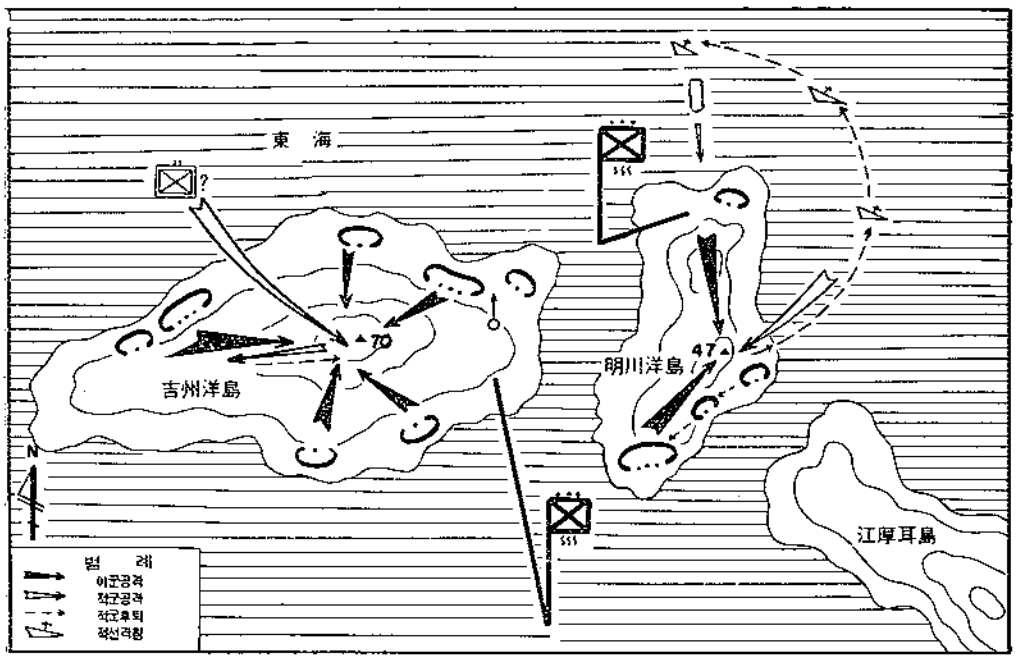
이 壕에는 2人 一組가 되어 근무중인 崔洪九 일병외 1명의 통신병이 있었으나, 이들은 敵의 기습이 시작되자 준된비 燈火管制와 防音장치를 실시한 다음 계속 輻輳하는 교환업무 처리에 專念하고 있었다.

敵은 壕를 발견하자 먼저 주위에 威脅사격을 加하고 창문을 더듬어 수류탄 2발을 연속 投入하였는데, 이 때에 非番인 崔洪九 일병은 敵의 수류탄을 毛布로 재빨리 감싸 폭발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 減少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敵의 수류탄은 崔일병을 强打하고 교환대를 大破하였으며 당번마저 重傷을 입혀 통신교환을 마비케 하였다.

當時 60mm 박격포 사수였던 黃秀演 2등수병은 이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상황도 제50호 洋島 戰鬪



『敵이 △70에 올라와 만세를 高唱할 때 우리들은 敵 포격에 놀란 주민들이 高地로 피난하여 떠들고 있는줄만 알았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를 위하여 高地에 4명의 대원이 進入하다가 통신線이 絶斷된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敵襲을 알게 되었다. 나중 포로 심문에서야 안 일이지만 敵은 △70고지를 점령하고도 我軍 진지의 탐지가 暗夜로 말미암아 곤란하여 성과없이 시간만을 소비하다가 高地上에서 05.20~05.40에 明川洋島를 기습한 제2조의 敵들이 撤退하다가 我軍 砲火에 섬멸됨을 目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明川洋島 철수에 사용한 선박들을 吉州洋島 철수에도 이용키로 계획하였으며 이와같이 격침으로 因한 선박의 吉州洋島로의 回航 不能은 吉州洋島를 침습한 敵을 극도로 불안케 하였으며 對岸에 있는 本陣에 황급히 別途의 선박을 急派토록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장 崔靑松 중위는 상황을 분석 검토한 끝에 暗夜로 敵 역시 기습 상륙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後의 행동이 如意치 못 할것으로 판단하고 拂曉까지 진지를 固守한 敵의 격멸은 시간문제라고 판단 하고 각 소대장들에게 次後의 작전을 알리는 한편 기도비익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케 하였다.

드디어 拂曉에 이르러 관측이 가능케 되자 그는 07.00에 제2, 제3 兩소대장에게 △70를 점거中인 敵을 공격토록 命令하였다. 이윽고 兩소대는 一齊히 同時 四周진지에서 反轉하여 急進으로 敵을 合擊하는 同時에 81mm, 60mm 박격포와 8″함포의 제압 및 지원사격을

高地一帶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我軍의 砲火가 敵을 强打하는 동안 이에 엄호된 중대(一)는 제2소대가 東半部에서, 제3소대가 西半部에서 各 △70 8부능선에 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대장은 포사격의 중지를 命한 다음 一線에 挺身하자 곧 敵을 一擊에 擊滅키로 決心하고 突擊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의 銃砲火로 진격度가 不振하게 되자 중대장은 突擊의 好機가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 先頭分隊의 早期 진출을 억제케 하여 8부 능선에서 다시 整備토록 한 다음 박격포 반장대리 鄭鎭暎 이등병조에게 制壓射擊을 號令하였다. 敵陣과의 거리 650m에 있던 박격포반은 號令一下에 불을 뿜어 砲彈은 연속 敵陣에 적중하고 그 硝煙은 山頂을 휘감았다.

敵陣이 침묵에 빠지자 중대(一)는 포격을 중지하는 즉시로 10.00에 待機線에서 一齊히 躍進한 다음 一擧에 突擊으로 移行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敵陣을 擊破하여 6명을 사로 잡았는데 高地에는 流血이 낭자한 83具의 敵시체가 딩굴고 있었다.

10.40에 △70는 마침내 중대의 手中에 돌게 됨으로써 9시간에 걸친 이 전투는 종료되었다. 포로가 된 敵 군사부대대장 池英武는 洋島를 기습함에 있어서 그들은 富寧郡에서 1개월 동안 상륙 작전의 특수 훈련을 받았고, 다시 羅津해안에서 9日間 模擬훈련과 사격훈련을 받은 다음 52년 2월 18일 洋島對岸인 明川郡 下加面 龍浦洞에서 夜間 기습전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예비선박의 지원이 없어 퇴로가 차단되자 吉州洋島 침습에 참가하였던 정치 장교는 선박이 없어도 수영으로 철퇴가 가능하다고 혼자만이 해안으로 탈주하다가 我軍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2. **明川洋島 戰鬪**: 吉川洋島와 거이 같은 시각에 明川洋島를 점령한 敵은 이곳 出身으로 地理에 밝은 諜報員의 案內를 받아 南쪽 해안 마을에 잠입하여 주민들로부터 해병들의 성명을 探知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陣地주위를 徘徊하였다.

이들은 我軍 진지의 탐지를 위하여 戰友인척 가장하고 誘引하려는 것이었는데 해병들은 陣地의 所在를 끝까지 隱蔽하였기 때문에 敵은 我軍陣地의 파악과 配備 상황에 어두어 적극 행동을 取하지 못하였다.

이 사이에 마을에서 10m 거리에 있는 제2분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狀況이 不利하게 됨을 깨닫고 소대장 대리에게 건의하여 제3분대와 合勢하고 反擊에 대비키 위한 陣地 이동을 斷行키로 하였다.

敵에게 察知됨이 없도록 西쪽으로 옮긴 분대는 곧 제3분대와 合勢하여 소대 탄약고가 있는 東쪽 50m 까지 진입하여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1분대 역시 소대본부와 같이 東쪽

해안 陣地에서 反轉하여 새로이 소대본부 南쪽 高地에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明川洋島에 침공한 敵을 南北에서 협격키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敵은 我軍 陣地의 探索이 힘든 까닭인지 △47와 그 주위 지역에 膠着되었으며 단지 少數 병력으로 南北쪽에서 搜索에 狂奔하는 듯 하였다.

이때에 제1소대의 각 분대는 敵의 搜索兵이 陣前에 나타나자 一發必中의 사격으로 이를 射殺하였다.

그리하여 侵攻 後 3시간만에 모든 攻擊이 失敗로 돌아간 것을 알게되자 敵은 △47 北쪽 해안 의무실에서 入室加療中인 환자 2명을 拉致한 다음 05.20에 마침내 退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일부 병력의 엄호를 받아 當初 상륙하였던 海岸에 집결하여 앞을 다투어 本船(帆船)에 乘船하는 즉시로 明川洋島에서 脫走하기에 바빴다.

소대(장, 李永德 병조장)는 敵의 撤收 徵候가 보이자 시간을 앞당겨 中隊에 상황을 報告하는 한편 05.30에 제1, 제2, 제3분대로 하여금 南北에서 일제히 △47를 공격키로 하였다.

소대가 同高地에 들입할 때에 敵은 이미 東쪽 해안에 移動하여 海上으로 退却中이었으므로 일부 병력으로 同高地 일대를 탐색케 한 다음 主力은 즉시 同島 100m 近海를 따라 北上하는 敵船團에 全火力을 집중하였다. 이 집중사격으로 소대는 05.40에 13척의 帆船을 擊沈하였으며 나머지 船舶도 뒤 따라 出動한 友軍구축함에 포착되어 全沒을 당하였다.

이리 하여 吉川洋島을 기습한 敵은 1명도 生還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06.00에는 同 高地도 다시 소대가 確保하게 되었다.

3. 2개組로 나누어 吉州 및 明川洋島를 侵攻한 敵은 중대의 善戰으로 모두 전멸로써 一戰을 끝마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중대가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83명(장교 10명 包含 시체확인)
沈沒溺死 73명
捕虜 14명(船員 6명包含)
發動船 擊沈 2척
帆船擊沈 13척
鹵 獲
60mm迫擊砲 3문
輕 機 7정
多發銃 21정
俄式小銃 41정
拳 銃 5정
通信機 1대

損 失

戰死 8명
負傷 2명
MI 小銃 破損 7정
通信交換臺 破損 1대
電話機 破損 4대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가 있게되자 對岸의 北傀 독립 제63보병연대는 제22포여단의 증원을 받으면서 연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2개 洋島를 비롯한 근해를 巡航하는 友軍 함정을 포격하는 消極태세를 取하였다.

이 後 중대는 洋島 방어를 위한 진지의 재편과 정리를 거듭하였는데,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소장은 이 전투에서 殊勳을 세운 崔靑松 중위에게 銀星乙支武功勳章을, 戰功者 40명 가운데 10명에게는 忠武무공훈장을, 그리고 그밖에 30명에게 花郎무공훈장을 上申, 수여하고 美 太平洋艦隊 사령관 C.T. Joy 중장은 즉시 美 政府에 전공을 報告하여 중대장과 李永德 병조장, 그리고 박격포 班長 대리 鄭鎭暎 이등병조에게 銀星훈장을, 先任장교 黃炳鎬 소위에게는 銅星훈장을 내신하여 이들이 세운 功을 높이 치하하였다.

중대는 도서부대 개편 명령 제43호(52년 10월 1일)로 『東海部隊』로 改稱됨에 따라 『洋島部隊』로 改稱되어 休戰까지 계속 美 해군과의 協調下에 同 임무를 수행 하였다.

§參戰者의 證言

◇ 독립제43중대 先任將校 黃炳鎬 소위

(1966. 3. 18. 해병대 사령부에서, 대령)

우리 중대는 洋島전투가 있기 전에 兜率山 전투를 치른 해병 제1연대의 不足 人員을 우선 補充하는 해병사령부 方針에 따라 모든 장교가 差出되었기 때문에 장교라고는 중대장과 나 2명 밖에는 없었으므로 각 소대장은 下士官이 代理하고 있었다.

중대장 崔靑松 중위도 이 때에 後方으로 전속명령을 받아 선편을 기다리다가 敵의 기습 침공을 맞이하였다. 敵은 一步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골라 계획적으로 침공하였으나 我軍 狀況에 어두어 高地만을 점령하고 아무성취를 못한 아무런 行動도 取할 수 없었고 우리들도 敵情을 몰라,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대장은 全 중대에 연락하여 陣地를 끝까지 지키고 이탈하지 말라고 하였다.

敵의 수는 450명의 北傀軍 完全 대대 편성이었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吉州洋島로 침공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해병대를 全滅시킨 다음 住民들을 전부 拉致하려는 것이었다.

나중에 사로잡힌 대대장은 전투가 있기 前, 北傀軍總司令部로 榮轉발령을 받고 있던 者로 그의 직속상관인 제63연대장 表武源의 指示에 따라 연대 精銳分子만을 골라 대대를 편성하고 이 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는데 이 者는 50년 南侵時 大邱 공격에 참가하고 中共이 침략한 뒤에는 다시 서울 침공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咸南出身의 北傀軍古參이었다.

洋島의 승리의 原因은 기습 侵攻한 敵이 我軍 상황에 어두었다는데도 있으나 중대全員이 당황함이 없이 一絲不亂한 지휘계통을 通하여 命令을 준수하고 防禦陣地를 고수한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戰 訓

◇ 指揮官의 침착과 상황 판단

이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중대장이 敵의 불의의 습격을 받고도 당황함이 없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敵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데 있다.

萬一에 중대가 敵의 침입에 놀라 경솔하게 즉각 反擊을 加하였더라면 중대 또한 敵과 같은 곤경에 빠지게 되어 勝敗는 彼我同率이었을 것이지만 崔중위는 한 때의 戰勢에 동요하지 않는 침착성을 堅持하고 냉철한 狀況 판단으로 마침내 敵을 섬멸할 수가 있었다.

11. 海兵隊의 胡島 戰鬪 (1952년 3월 25일부터 1952년 3월 29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51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島嶼부대 제7대대 장 소령 閔容植　　胡島파견소대 장 소위 鄭炯模

敵 軍

北傀제6군단 소속 1개중대(團隊號未詳)

나. 전투 전의 개황

해병대는 1951년 1월 14일 독립제42중대를 東海 鹿島로 北進케 하는데 이어 同년 4월 2일에는 독립제41중대를 西海 喬洞島(江華島 西쪽 0.5Km)에 急派하고 逐次로 白翎島—席島(鎭南浦 西쪽 30Km)로 躍進케하여 西海에 있어서의 도서작전에 先鞭을 加하였는데(제5권 참조) 當時의 彼我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敵軍의 상황 : 독립 제41중대가 51년 5월 7일 席島를 점령하고 이를 거점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敵은 北傀제6군단과 中共병력으로 西海岸 경비를 강화하는 정후가 현저하였고 특히 席島와 인접한 長淵—殷栗—松禾—龍岡일대 해안지역에는 사단규모의 병력을 배비하고 지뢰를 각처에 매설하는 등 그들의 활동이 자못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敵의 動向은 예상되는 我軍의 大規模 상륙작전과 중대의 해안기습 활동을 극력 저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51년 末 彼我의 전선이 我軍의 제한 전진명령으로 완전 교착상태에 이르자 敵은 그들 예비병력을 해안방어에 증원 하고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席島 對岸인 西浦里半島—月沙里半島에는 2개 연대 병력을 投入하여 점차 공세적방어를 取하려는 기색이 농후하였다.

我軍의 상황 : 前記 敵情에 비추어 敵해안 봉쇄를 위한 도서작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점령도서의 경비강화가 要望됨에 따라 해병대는 독립 제41, 제42 兩개중대에 이어 8월 29일 洋島를 先占한 제43중대의 3개 도서작전부대를 모체로 52년 1월 15일 도서부대를 編成하게 되었다.

이 編成 내용은 독립 제42, 제43 兩개 중대를 제8대대로, 席島에 진주한 독립 제41중대를 제7대대로 각기 현지에서 增編하고 제9대대와 부대본부 및 직할근무지원중대를 신규 編成하는 것을 骨子로 하였다.

이리하여 鎭海 신병훈련소에서 제9대대와 본부및 근무중대, 그리고 75mm 무반동총소대, 의무중대와 보급 및 수송중대의 編成을 완료하자 제7,제8대대를 제외한 이들 1,250명은 「도서이동명령 제1호」(1월 15일) 및 「도서작명 제1호」(1월 15일)에 의거 1월 16일 LST 803호에 搭乘하여 18일에는 延坪島를 占領하게 되었는데 제9대대(장, 閔容植대위)의 제91,제94 양개중대와 대대본부를 이곳에 배비하고 20일에는 白翎島로 跳躍하여 부대본부를 鎭村里에 開設하고 제9대대의 제92중대로써 警備토록 하였다.

또한 22일에는 椒島(白翎島 北쪽 60Km)에 躍進하여 最終的으로 제9대대의 제93중대를 이곳에 배비하고 席島주둔 제7대대(장, 金東俊소령)에 배속하였는데 當時 延坪島에는 金浦에서 작전中인 제5대대의 1개소대가 경비하고 있었으며 白翎島에는 제6대대의 일부병력이 我軍 유격대와 합동으로 경비하였고 椒島에는 席島의 제7대대에서 抽出한 제71중대가 배비되어 있었다.

胡島전투와 관련이 있는 席島에는 제7대대의 3개중대(제72,제73,제74중대)가 四周에 진지를 점령하고 소수병력을 胡島(席島 南쪽 2Km)에 潛伏시켜 대안인 月沙里 半島의 敵情을 살피고 있었으나 1월 30일 이후 胡島에 대한 敵의 跳梁이 날로 격증함으로써 대대 역시 이에 對應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敵의 침습으로 전투가 벌어진 胡島는 450m²의 작은 섬으로 2개의 高地帶로 形成된 무인도이며 식수가 없어서 用水는 전량 席島로부터 공급되었고 대안 月沙里半島와는 450m의 거리에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도서부대장 金弘燦 대령은 제7대대장으로부터『胡島에 敵의 포격이 1월 30일을 기하여 연일 실시되고 더구나 다음날과 2월 3일에는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추단되는 敵船이 出現하였으나 함포지원으로 이를 격퇴하였다』라는 要旨의 報告에 접하자 西海기동함대사령관(CTE 95) G.C. Dyer소장과 협의끝에 胡島경비를 강화키로 결심하고 2월 13일에 다음과 같은 요지명령 제4호를 제7대대장에게 하달하였다.

『① 부대는 계속 北傀에 대한 해안봉쇄와 해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胡島에 병력을 증파하고 경비를 강화하려한다.

② 대대장은 증강된 1개소대를 胡島에 파견하고 이를 堅守하는 동시에 대안의 敵情을 감시하라.

③ 胡島에 병력을 파견하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라.』

대대장 金東俊소령은 명령을 수령하자 當日 야간을 이용하여 胡島에 병력을 진입시키기로 決心하고 席島에 배비中인 3개중대에서 3개소대병력을 抽出하여 이날 22.00에 美 Rocket 艦의 화력 엄호로 帆船 2척에 의한 胡島상륙을 감행하였다.

그 뒤 대대는 이들로 하여금 胡島를 계속 경비케하다가 3월 12일에는 鄭炯模 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를 다시 편성하고 1차로 파견된소대와 경비임무를 교체하였다.

이들은 다음날 부대본부에서 파견된 공병소대장이 지휘하는 공병 1개분대의 赴援으로 敵예상 상륙해안에 72개의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한편 철조망 30권으로 장애물공사를 실시하였는데 有事時에 대비하여 胡島파견소대의 대기선으로 帆船 2척이 배비되었으나 23일 심한 비바람으로 因하여 破損됨에 이르러 24일 席島부대에서 代替 待機船으로 1척의 帆船을 배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대는 當面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지역(상황도참조)을 2개분대병력으로 집

령케하고 Rocket砲 1문과 중기 1정 및 경기 2정을 대안인 月沙里반도를 겨냥하는 南岸에 据置한 다음 60mm박격포 1문은 (1)지역 중앙에 진지를 점령케하여 對岸에 대한 요란과 제압사격을 준비토록 하였으며 (2)지역에는 1개 분대병력을 배비하였다.

(2) 작전실시

3월 25일 : 이날 敵은 10.30에 西海里 반도(殷栗 北쪽 17Km일대)에서 도서부대(장, 金斗燦대령)의 제7대대(-1)가 경비하는 席島에 대하여 도합 30발의 포격에 이어 20.10~20.30에는 또한 月沙里반도 및 西海里반도로 부터 席島와 胡島 양 도서에 105mm, 76mm, 82mm등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加하였으며 다시 22.50부터는 胡島 단일목표에 대하여 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60명으로 추산되는 北傀군은 4척의 木船에 分乘하여 胡島를 기습하기 시작하였다.

1. 胡島상황 : 22.55에 胡島파견소대장 鄭炯模소위는 胡島 西쪽 해상 50m 前方에서 접근하는 敵船 4척을 발견하자 全소대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즉시 敵船침습방향에 배비된 1개분대로 하여금 사격으로서 이를 阻止케 하였다. 그러나 (1)지역 전체를 엄습한 敵포화로 말미암아 소대의 邀擊태세에는 신속을 기하지 못하였다.

彼我간에 전투가 이렇듯 突發하게 되자 소대장은 SCR—300을 통하여 席島대대 본부에 紛戰中임을 急報하고 상황파악을 위하여 제일선에 挺身하였는데 이때 소대 무전기는 敵彈으로 교신不能이 되고 OK부대(유격대)에서 지원한 GRC 무전기 역시 파괴되어 대대와의 통신이 中斷 됨으로써 대대본부는 이 後에 있어서 胡島파견소대의 전황을 알수가 없게 되었다.

23.00에 어둠속에 胡島에 접근하던 敵船은 彼我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들 進路을 음폐하고 기만하기 위함인지 船首 전면에 연막을 치고 소대의 射界를 차단하기 시작하였으며 敵포화는 더욱 苛烈化 하였다.

잠시후 (가)(상황도 참조)에서 分進하여 소대 배비가 全無한 (나)지점에 상륙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의 敵은 소대 배후인 △60에 반등하여 만세를 부르며 擾亂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敵船은 지뢰지대를 避하여 (다)지점에 돌격상륙하고 소대를 南北에서 挾攻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에 처하여 소대는 전투경험이 없는 제12기 新兵이 그 구성원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던관계로 끝내 진지를 支撐하지못하고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소대장 鄭炯模소위는 이에 危機를 直感하고 (1)지역에서 (2)지역으로 철수를 決行하여 (2)지역에서의 반격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23.15에 (2)지역에 집결된 인원은 이곳 배비 8명의 인원을 합쳐 모두 20명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인원들은 敵의 포위를 뚫치 못하고 격투하다가 散華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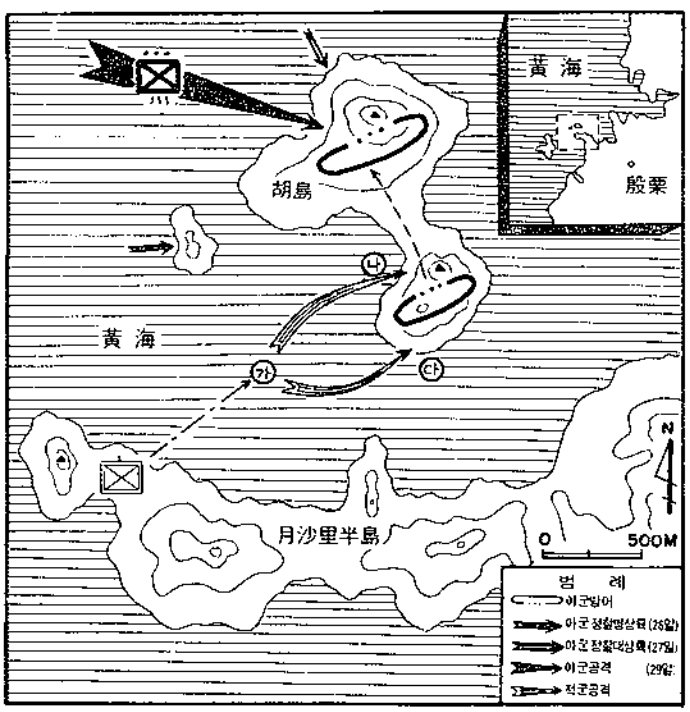
소대가 (1)지역에서 (2)지역으로 각개 전진하고 새로이 진지를 준비하는 동안 (1)지역을 침습한 敵은 포사격의 延伸과 더불어 다시 (2)지역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1)지역은 완전히 敵手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소대장 鄭 소위는

많은 대원을 잃은 무거운 책임감과 분노를 이기지못해 (1)지역에서 철수가 가능하였던 1정의 重機로써 (1)지역에서 (2)지역으로 침습하려는 敵을 3차에 걸쳐 사격으로 저지하는 한편 대대에 救援을 요청하기 위하여 2명의 대원을 지명, 대기선편으로 急派하려 하였다. 그런데 (2)지역 北岸에 공치하였던 待機船은 敵彈에 이미 대파되어 침수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잠시 뒤 소대진지에는 敵포화가 집중되어 重機가 대파되고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敵은 狂的으로 진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박하였는데 소대장 이하 생존자 8명은 敵에게 사로잡혀 辱되느니 보다 본대로부터 반격이 있을때 까지 持久키로 다짐하고 각개분산하여 (2)지역 北쪽 岩石사이에 潛伏함으로써 이들의 救出은 오직 대대(席島)로부터의 救援에 의존케 되었다.

2. **席島상황** : 이날 주간에 대대(-1)는 前任대대장 金東俊소령과 新任대대장 閔容植소령과의 任務교대가 있었는데 야간상황은 閔소령 책임下에 처리되어야 하였다. 閔소령은 胡島파견소대장 鄭소위로부터 22.55에 敵 침습보고에 접하자 긴급 관계참모를 소집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우선 조명탄(81mm박격포) 수발을 胡島 南岸지대 상공에 발사하여 전투를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 胡島의 連路두절로 상황을 알 수 없게되자 조명사격을 중지하였다. 왜냐하면 교신의 단절은 파견소대가 敵의 기습공격으로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거나 敵이 이미 我軍진내에 돌입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조명은 敵에게 利로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 상황도 제51호 胡島戰鬪



대대는 곧 胡島파견소대를 지원하고 침습한 敵을 역습으로 격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개소대로 하여금 출동태세를 갖추게하는 동시에 부대장 金斗燦대령에게 胡島상황을 急報하고 아울러 역습에 필요한 선박과 함포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당시 대대(-1)가 보유하는 선박이 帆船 1척 뿐이었으므로

기동력은 거의 全無한 상태하에 있었고 근해에서 활동 中인 해군함정 또한 他해역에서 작전하고 있어서 상급부대의 도움없이는 실행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이었다.

席島로부터의 긴급連絡에 접한 金대령은 이에 胡島파견소대를 구원하고 敵을 역습으로 격쇄하려는 대대장의 決意를 승인하고 즉시 美해병대 西海사령관 Pen Ford대령에게 상륙주정 및 함포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그는 友軍해군사정을 감안,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함정의 동원이 가능하고 더구나 야간역습은 위험성이 많으므로 不可하다는 의견을 添言하였는데 이에는 金대령 역시 束手無策이었다.

24.00를 期하는 역습이 如意치 않게 되자 金대령은 席島대대에 打電하여 후일을 기약키로 약속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席島부대(제7대대)장병들은 胡島장병들의 善戰과 무운만을 기원하며 26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3월 26일 : 대대(一)는 계속 胡島와의 연락이 杜絶되어 상황이 불명하고 즉각적인 구원책을 강구하지 못한채 이날을 맞이하자 胡島는 이미 敵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은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閔소령은 09.00에 헬리콥터편으로 白翎島에서 急遽來着한 도서부대장 金대령을 맞아 胡島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자리에서 金대령은 敵情파악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야음을 이용하여 胡島상황을 정찰토록 지시하였다.

이에따라 대대는 1개의 정찰組를 조직하여 20.30에 범선 1척으로 胡島 (2)지역 西쪽에 있는 무인도에 進入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들은 1명을 이곳에 잠복케 하여 胡島에 대한 敵情을 수집케 하고 잔여대원은 범선과 더불어 해상 100m거리에서 계속 대기하였다.

이날 我 해군의 상황은 703艦(CTE 95.71)이 麒麟島(白翎島 東南쪽 30Km)近海에서 313함이 白翎島근해에서, 302艇이 椒島근해서, 그리고 309艇이 喬洞島 근해에서 각기 CTE의 작전지휘밑에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309艇은 전날 해병대가 月沙里 반도와 敵과 교전中이라는 電文에 접하는 즉시 席島근해에 이르렀으나 敵으로부터 야포 및 기타 중화기의 집중공격을 받아 이에 응전하려다 CTE 95.12의 命으로 美艦401호와 繫留하게 됨으로써 赴援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월 27일 : 전날胡島에 潛伏하여 敵情을 수집한 정찰조는 이날 05.00에 席島로 무사히 귀대하였는데 이들이 수집한 敵情으로는 60명으로 추산되는 敵兵이 胡島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대는 이와같은 첩보에 입각하여 다시 敵情을 확인키로 하고 20.00에 3명을 一組로한 정찰組를 胡島 (2)지역 北岸에 은밀히 진입시켜 敵情을 탐지토록 하였는데 23.30에 胡島 (2)지역 北쪽 일각에 상륙한 이들 정찰조는 곧 敵情파악에 착수하여 추산 60명의 敵兵이 경기 4정과 다발총 및 아식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24.30에 소수의 敵과 조우함으로써 교전끝에 그 기도가 폭로되기에 이르러 대기중인 帆船으로 즉각 철수하여 席

島로 귀환하였다.

이날 我 해군함정 中 6척(703, 313, 315, 309, 505, 510艇)이 西海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315艇은 椒島근해를 경비하다가 夢金浦 西쪽 高地에 구축한 敵의 진지를 발견하여 11.00에 함포사격으로 2개진지를 파괴하였고 喬洞島에서 활동中인 309艇은 301艇과 임무를 교대중에 있었다.

3월 28일 : 이날 대대는 2회에 걸친 정찰로 판명된 敵情을 분석 검토한 끝에 반격으로 敵을 격멸하고 胡島를 탈취키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11.00에 白翎島로부터 3척의 發動船이 赴援하자 대대장 閔소령은 이에 탑승 가능한 1개소대규모의 병력으로 항공지원下에 능히 敵을 격파하고 胡島를 再탈환할 것으로 판단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성안하고 요구되는 시간에 항공지원을 CTE 95에 要請하여 그의 확답을 얻게 되었다.

『① 대대는 29일 09.00를 기하여 胡島를 공격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작전장교는 1개소대규모의 전투정찰대를 공격개시 12시간 前까지 편성완료하고 韓永雲중위 지휘下에 胡島공격을 준비한다.

③ 전투정찰대장은 29일 03.00까지 發動船 3척에 병력을 분할탑승시켜 공격 30분전에 席島를 발진하여 胡島에 급진하고 (2)지역에 상륙한다. 胡島점령과 동시에 전장을 수습하고 依命 철수케 한다.

④ 제72중대장은 席島에서 전투정찰대가 胡島에 급진하는 동안 배속된 75mm무반동총 및 81mm박격포, 그리고 重기관총사격으로 이를 엄호한다.

⑤ 항공폭격은 공격개시 30분전부터 月沙里반도와 胡島(1)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공격개시 10분 이후에는 목표지역을 月沙里 반도 일대와 대안 지역으로 확대한다.』

3월 29일 : 이날 韓永雲중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 병력은 계획대로 08.00에 3척의 發動船에 分乘하고 船首에는 각기 1정의 重機로써 裝備하여 07.30에 席島 笑荷洞해안을 발진하였다. 이 때에 출격한 美전폭기 4대는 月沙里반도와 胡島(1)지역 敵陣을 강타하였는데 발진부대는 席島 南岸진지로부터 75mm무반동총과 81mm박격포 그리고 重機사격의 엄호下에 09.00에 胡島 北岸 100m해상에 進入하여 돌격상륙을 감행하였다.

이윽고 敵의 저항없이 상륙에 성공한 소대는 友軍항공기의 엄호下에 09.10에 胡島(1)지역에서 (2)까지 躍進하였는바 敵은 이미 胡島로부터 撤收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접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공격에서 소대는 이때까지 (2)지역 岩石틈 사이에 潛伏하여 4일간을 支撐한 朴蒼林 2等水兵 이하 6명의 胡島파견소대원을 救出하였다.

소대는 또 이들로부터 파견소대장 鄭炯模소위와 분대장 金昌鉉 3等兵曹가 26일席島에서 出動한 1척의 범선이 胡島정찰을 위하여 이곳에 접근하였을 때 이와 水泳으로 연계하려다 急流에 휩쓸려간 사실을 비로소 청취하게 됨으로써 이를 즉각 대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전장 수습에서 판명된 사실은 25일 침습時에 敵은 我軍이 埋設한 지뢰에 1발도 폭

발되지 않고 상륙한 흔적을 발견케 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敵은 침습전에 여러차례의 관찰을 통하여 장애물지대를 소상히 파악하였던 것을 알수 있었다.

12.00에 소대는 依命 수용한 6명(1명중상)과 같이 1개분대병력을 1척의 發動船으로 席島로 귀환케 하고 소대장이하 잔여 대원들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0에 『전원 귀환하라』는 대대장명령으로 야음을 이용하여 2척의 발동선에 분승하여 席島로 21.10에 復歸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胡島전투가 있는 다음 해병 제7대대는 계속 소수병력을 胡島에 潛伏케 하고 대안의 敵情을 수집케 되었으나 對岸일대에 敵勢가 점차로 커지고 포격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월초에 병력을 모두 철수하였다

이는 胡島가 너무나 敵地와 근접하여 간조시에는 水泳으로도 침습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地理的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와같은 판단은 胡島점령으로 얻어지는 성과보다 이에 따른 부담과 손실이 많을 것이 예상되고 敵역시 我軍의 우세한 포화력 下에서는 胡島점령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敵은 4월이후 席島와 椒島에 포격을 강화하고 我軍활동을 극력 견제하기에 血眼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서부대는 延坪島—白翎島(大靑島, 小靑島포함)—椒島—席島경비를 강화하여 그들 침습에 대비하는 한편 수차의 상륙전 훈련을 통하여 전기연마에 精進하면서 休戰成立시까지 西海안 봉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도서부대는 休戰協定에 따라 椒島와 席島 양개도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게 되어 延坪島—白翎島만을 장악케 되었는데 이 胡島전투에서의 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3.5″Rocket	1문(〃)
射 殺	6명	60mm박격포	1문(〃)
損 失		小銃(M1, CAR)	38정
戰 死	39명(OK유격대 2명)	SCR-300通信機	1대(〃)
重 機	1정(대파)	GRC 〃	1대(〃)
輕 機	2정(수중투하)	CE 〃	1대(〃)

§ 參戰者의 證言

◇ 胡島전투정찰대장 韓 永 雲

(1972년 3월 25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대령)

나는 처음 도서부대 편성시 제9대대, 제4중대장에 임명되어 延坪島로 出陣하였으나 그 後에 席島로 다시 轉任되어 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3월 25일 敵侵으로 胡島와의 교신이 끊어지자 席島에서는 火力으로 이를 赴援하려 하였으나 我軍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더구나 함포사격으로도 이를 지원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 우리는 이미 胡島가 敵手中에 들어가 胡島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가 전멸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살아남은 我軍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때문에 胡島를 포격하지 못하였다.

반격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나를 지명하여

1 개소대병력을 지휘하여 胡島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항공 및 중화기 지원下에 胡島를 공격하고 계획된 시간에 상륙하니 敵兵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이때까지 해안岩石사이에 숨어 연명한 대원 6명을 구출하게 되었는데 이들중 1명은 중상이었고 5명은 건재하였다.

§ 戰 訓

◇ 敵情경시와 경계소홀에 대하여

胡島전투는 대안에 대한 敵情을 경시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데서 敵의 침습을 자초한 전투였다. 胡島과견소대는 敵地와 불과 450m로 소총유효사거리내에 있으면서도 敵을 의식하는 度가 얕아 해산물 채취등으로 敵에게 同島 화기진지와 장애물지대를 스스로 노정하였다.

따라서 敵은 我軍이 배설한 장애물지대를 통과함이 없이 침습하였고 이것에 의지하려던 我軍은 경계를 소홀히 한 원천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 戰鬪員 배비에 대하여

胡島에 병력을 배치함에 있어 席島부대는 각 중대에서 병력을 抽出하여 소대를 編成하고 新任소위로하여금 이를 지휘케하고 더구나 각 중대에서 抽出한 병력 대부분이 신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최전방에 파견하는 부대로는 適格이 못되었다. 이와같은 소대원의 구성으로 말미암은 여러가지 결함이 예측되므로 지휘관은 항상 부대원의 구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 火力 협조에 대하여

이 전투를 통하여 敵侵時에 대비한 화력협조 계획이 거의 없음이 발견되었다.

夜暗으로 조기에 敵을 발견치 못한다 하더라도 함포의 지원으로 탄막사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밑에 아군의 해군함정을 항시 席島와 胡島근해에 대기시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하였으나 그렇치 못한 것으로 본다.

§ 硏 究

◇ 地名表記에 대하여

해병전투사 제1집 增補版(1962년 6월 10일 발행)에 따르면 胡島전투를 虎島전투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해병西海부대 전투상보(1952年 1月1日~1952年 9月 30日)에는 호도로 전투지명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62年 10月 20日 발행 大韓地理學會監修 辭書出版社刊行 大韓民國地圖에 明記한대로 虎島를 胡島로 하였다.

◇ 전투정찰대 인원과 상륙시간에 대하여

해병전투사 제1집 增補版(1962년 6월 10일발행)에 의하면 전투정찰대의 병력규모를 2개중대 규모인 280명으로 그리고 胡島상륙시간을 08.00로 記錄되어 있으나 이는 西海부대 전투상보(1952年 1月 1日—1952年 9月 30日)에서 밝히기를 『1개소대의전투정찰대는』과 『29일 09.00경에 장교가 지휘하는…』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12. 海軍의 活動(1951년 11월 1일부터 1952년 3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52호

要 旨

地上軍이 戰線에서 특별한 變動없이 小康狀態를 이룰무렵 東西 兩海岸에서는 彼我의 熾烈한 島嶼確保戰이 전개되었는데 我軍은 西海에서 席島와 椒島 그리고 白翎島, 昌麟島, 麒麟島, 巡威島等을 占有하고 東海에서는 洋島와 永興灣의 薪島를 비롯한 小島嶼를 確保함으로써 海上活動에 가일층 활기를 띄었으며 連日 UN艦隊와 協同으로 敵의 要部인 元山灣 一帶와 鎭南浦 海域을 중점적으로 掃海함으로써 海岸線을 自由로 出入하여 艦砲射擊으로 敵의 後方을 계속 攪亂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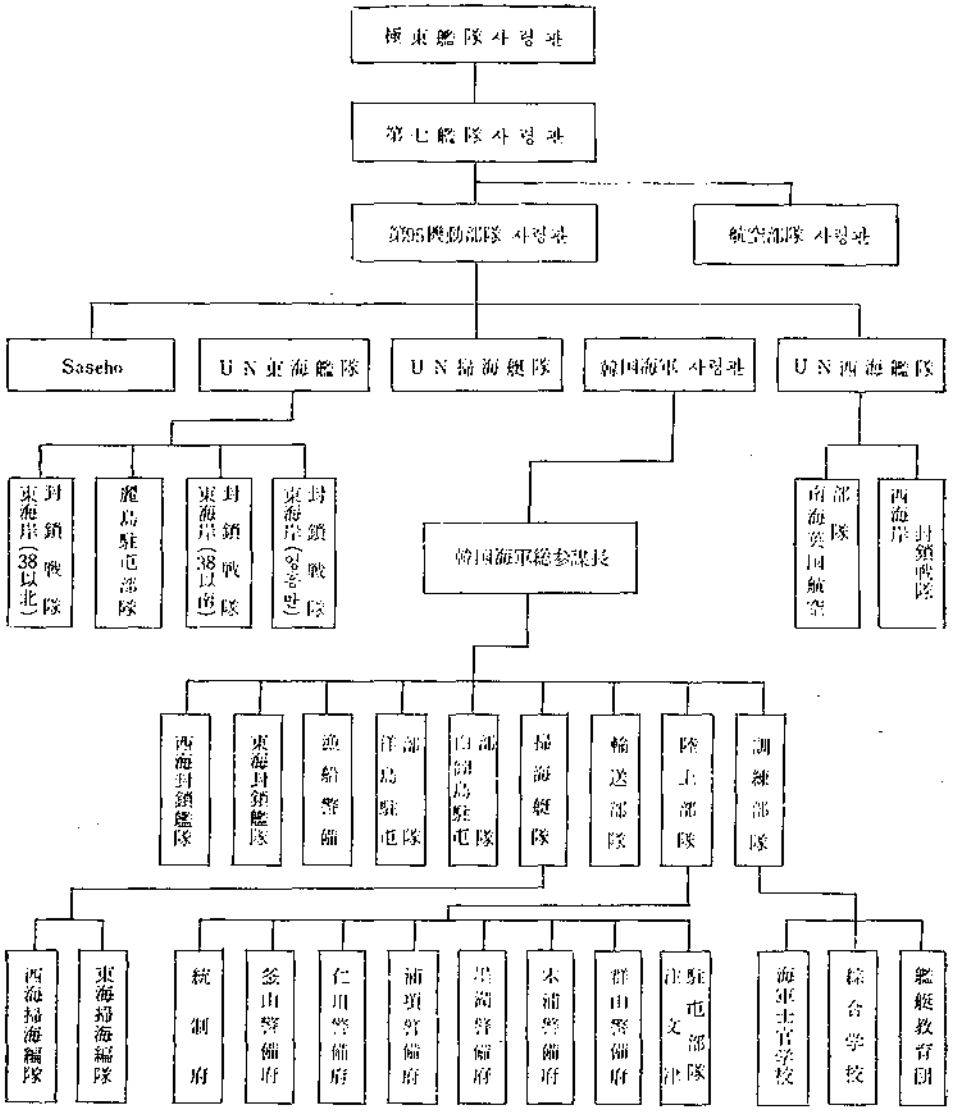
또 輸送船 FS 및 LST 7척을 동원하여 東西 兩海岸의 島嶼駐屯隊와 出動艦艇에 대한 軍需支援으로 원활한 海上作戰을 圖謀하였으며 61艦을 비롯한 4隻의 PF가 美輸送船 호송에 참가하는등 海軍은 封鎖, 警備作戰과 掃海, 輸送 作戰, 그리고 我遊擊隊를 支援하는 諸般活動에서 優位를 떨치면서 敵의 士氣를 低下시켰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소장 孫 元 一
PF—61艦 장 대령 李 龍 雲
PF—62艦 장 중령 申 宗 燮
PF—63艦 장 대령 崔 孝 鏞
중령 李 熙 晶('52.1.10부터)
PF—65艦 장 중령 李 哉 松
PC—701艦 장 소령 白 雲 企
소령 吳 禎 元('52.2.25부터)
PC—702艦 장 소령 印 亮 燦
소령 韓 文 植('52.1.10부터)
PC—703艦 장 소령 崔 東 華
소령 孫 炳 一('52.1.14부터)
PC—704艦 장 소령 李 泰 榮
JMS—301艇 장 대위 金 鍾 植
JMS—302艇 장 대위 朴 春 道
JMS—303艇 장 대위 李 澄 撥
중위 金 鍾 求('51.12.29부터)
JMS—304艇 장 대위 韓 承 錫
JMS—307艇 장 대위 林 龍 雨
JMS—308艇 장 중위 金 千 鎰
JMS—309艇 장 중위 柳 來 赫
JMS—310艇 장 중위 蔡 在 錫
JMS—313艇 장 중위 李 永 春
JMS—315艇 장 중위 秦 錫 文
YMS—501艇 장 대위 朴 水 玉
중위 頉 宣 道('51.12.8부터)
YMS—502艇 장 대위 劉 龍 彬
YMS—503艇 장 대위 金 炯 培
중위 金 光 植('52.1.4부터)
YMS—504艇 장 중위 張 君 翼
중위 金 泰 錫('51.12.18부터)
YMS—505艇 장 중위 姜 基 盛

YMS—506艇 장 중위 吳 龍 吉
YMS—507艇 장 대위 金 明 煥
중위 李 勇 男('51.12.30부터)
YMS—510艇 장 중위 金 泰 錫
대위 張 君 翼('51.12.26부터)
YMS—512艇 장 대위 林 斗 成
YMS—513艇 장 대위 劉 寬 植
YMS—514艇 장 대위 丁 漢 哲
YMS—515艇 장 대위 鄭 一 燦
중위 李 應 基('52.1.9부터)
YMS—518艇 장 대위 高 景 榮
LST—801艦 장 중령 尹 英 遠
LST—802艦 장 소령 李 孟 基

UN艦隊 指揮系統 一覽表



나. 작전 경과의 개요

東西 兩海岸에서의 韓國海軍의 活動은 UN海軍과 協同하여 艦砲射擊과 輸送 및 掃海作戰을 遂行함으로써 敵의 士氣를 크게 저하시켰다.

즉, 東海에서는 永興灣 一帶의 島嶼를 계속 확보하고 敵의 主力인 제37사단의 예하부대가 구축하고 있는 葛麻半島를 비롯한 虎島半島, 松田半島와 海岸線 一帶의 砲兵 陣地를 擊滅하기 위하여 CTE 95.21(永興灣 封鎖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協力하여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元山一巨津間에는 경비함 2척을 고정배치하여 CTE 95.22(東海岸 封鎖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긴밀한 연락下에 同海域을 항해하는 船舶에 대하여 統制를 가하였다.

그리고 西海岸에서 我軍은 白翎島와 喬洞島를 비롯한 諸島嶼를 근거로 하여 遊擊活動을 전개하였는데 敵은 海州一延安에 主力을 둔 北傀 제47사단의 兵力이 甕津半島와 延白地區의 海岸으로 集結하여 我軍이 駐屯한 諸島嶼를 위협하였다. 特히 海州의 龍塘里에서 敵은 發動船을 건조하여 機雷敷設과 我艦의 行動을 탐지하여 수시로 我軍이 確保中인 島嶼侵攻을 劃策하였는데 海軍은 이를 制壓하기 위하여 CTE 95.1(西海艦隊司令官)의 UN艦艇과 함께 砲擊을 계속하였으며 이 作戰을 遂行키 위해 輸送船 11척을 동원하여 여러 惡條件속에서도 輸送業務를 계속하였다.

또한 東西 兩海岸의 到處에 散在한 敵의 機雷로 말미암아 PC-704艦(장, 李泰榮소령)이 沈沒하는 등 적지않은 손실을 보기도 하였으나 CTG 95.6(UN掃海艇隊)의 艦艇과 合勢하여 永興灣一帶와 鎭南浦 近海 및 我軍의 遊擊活動의 근거지인 椵島一席島를 중점적으로 掃海하여 制海權을 장악하였는데 기간중 월별 작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11월中의 概況

11월 1일 : 東海에서는 PF-61艦(장, 李龍雲대령)을 旗艦으로 하여 城津一元山間에서 YMS-502艇(장, 劉龍彬대위)과 YMS-510艇(장, 金泰錫중위)을 지휘하여 경비 및 麗島의 我遊擊隊를 支援하였으며 元山一庫底間에는 YMS-514艇(장, 丁漢哲대위)과 YMS-518艇(장, 高景榮대위)이 담당하여 掃海作業과 海岸의 敵砲臺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 또 甕津半島 一帶에서는 PC—704艦(장, 李泰榮소령)이 JMS—303艇(장, 李澄撥대위)과 JMS—301艇(장, 金鍾植대위)을 지휘하여 경비에 임하는 한편 YMS—506艇(장, 吳龍吉중위)과 YMS-507艇(장, 金明煥대위)은 鎭南浦 近海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22號艇(장, 李炳哲소위)은 南海의 密輸船을 방지하기 위하여 木項作命 제4호에 따라 木浦一浦項間 경비임무 수행차 이날 09.00에 鎭海를 出港하였다.

11월 2일 : PF—61艦은 이날 16.00부터 2시간에 걸친 砲擊으로 城津地區의 鐵道 및 橋梁 數個所를 破壞하였다.

11월 3일 : PC—704艦은 西海岸 申島에 敵 50여명이 上陸하여 放火와 虐殺등을 恣行하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자 즉시 JMS—303艇과 協同砲擊으로 敵을 擊退시켰으며 JMS—301艇은 江華島 對岸인 延安地區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또 PF—61艦은 계속하여 城津地區에 대한 艦砲射擊을 敢行하였다.

11월 4일 : JMS—308艇은 巡威島 近海에서 JMS—301艇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PC—704艦과 JMS—303艇은 龍湖島 近海를 封鎖하면서 그 對岸인 甕津半島의 敵陣을 砲擊하였다.

11월 5일 : PF—61艦은 城津앞바다에서 敵의 輸送路에 대한 砲擊을 계속하였다.

11월 6일 : JMS—309艇은 白翎島 近海에서 JMS—303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UN艦艇과 合勢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또 JMS—308艇은 巡威島 對岸의 敵陣地에 砲擊을 실시하였다.

11월 8일 : YMS—513艇, YMS—505艇은 元山前洋에서 YMS—502艇, YMS—510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던중 薪島駐屯隊가 文川郡 明龍面 교암里 南쪽에 있는 敵陣으로부터 砲擊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로 CTE 95.21의 UN艦艇과 合勢하여 이를 殲滅하였다.

11월 9일 : JMS—309艇은 JMS—303艇과 22.30에 임무를 교대하고 龍湖島 近海를 경비하였으며 PC—704艦과 JMS—308艇은 甕津半島의 敵陣에 대한 砲擊을 계속하였다.

東海岸 麗島駐屯隊의 薪島派遣隊는 葛麻半島의 敵陣으로부터 迫擊砲 攻擊을 받고 이를 PF—61艦에 연락하였으며 同艦은 즉시 CTE 95.21에 보고한 결과 YMS—518艇과 YMS—514艇을 지휘하여 敵陣을 砲擊하여 이를 擊滅하였다.

11월 10일 : 本項作命 第5號에 의거하여 JMS—304艇(장, 韓承錫대위)은 이날 17.00부터 南海를 경비하기 위하여 鎭海를 出港하였다. PC—702艦(장, 印亮煥소령)은 28作命 第6號에 따라 東海封鎖作戰에 참가중인 YMS—514艇과 경비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19.00에 釜山港을 출항하였으며 JMS—309艇은 龍湖島 對岸인 敵陣地((37°51′31″N, 125°22′30″E)에 대거 砲火를 집중하였다.

11월 11일 : 西海岸 封鎖作戰에 참가중인 各艦艇의 補給品을 輸送하기 위하여 徵發船 LST—加平號는 補給物資를 積載하고 13.00에 釜山港을 출항하여 西海로 향하였다. 또 PC—702艦은 YMS—514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東海岸 封鎖作戰을 수행하였으며 麗島駐屯隊를 支援하여 對岸인 敵陣을 기습함으로써 敵의 發動船 1척을 擊沈하고 射殺 4명, 捕虜 1명의 戰果를 올렸다.

11월 12일 : PC—704艦은 甕津郡 沙串里에 防禦陣을 구축하고 龍湖島 北端에 砲擊을 加하는 敵陣에 대하여 JMS—309艇과 協同으로 30분에 걸치는 大砲擊戰을 전개하여 이를 擊破하였다.

11월 13일 : PC—703艦(장, 崔東華소령)은 巡威島—白翎島間을 경비중인 PC—704艦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甕津半島의 堂嶺里에 敵 450여명이 集結하여 迫擊砲 및 重火器로 무장하고 龍湖島에 奇襲上陸을 企圖中이라는 情報에 따라 堂嶺里 및 백석洞의 中共軍 陣地와 松峴里 송구洞의 敵陣과 그리고 양명洞의 敵 大隊本部에 集中的인 砲擊을 가하였다.

11월 14일 : PC—703艦은 龍湖島 近海를 경비하였는데 이날 16.00부터 JMS—309艇을 지휘하여 舟島의 敵 150여명과 연근산 부근에 集結한 敵兵 200여명에 대하여 각각 砲擊을 실시하자 敵은 많은 損失을 입고 潰走하였다. 또 JMS—307艇(장, 辛光永대위)은 喬洞島 前洋에 到着하여 JMS—308艇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여 對岸인 甕津郡 東南面에 위치한 敵砲臺를 强打하였다.

11월 15일 : 輸送船 FS—901艇(장, 金淳一소령)은 東海岸의 麗島와 洋島駐屯隊에 補給次 08.00에 釜山港을 출항하여 任地로 향하였다.

11월 17일 : YMS—504艇(장, 張碧翼중위)은 28作命 제7號에 의하여 元山近海에서 封鎖作戰에 參加中인 YMS—518艇과 교대코자 이날 05.00 鎭海港을 出航하여 東海로 向하였다. 또 JMS—304艇(장, 韓承錫대위)은 南海에서 22號艇과 合同으로 密輸船색출을 계속하였으며 JMS—309艇은 龍湖島 近海에서, PC—703艦은 白翎島 近海에서 각각 경비에 임하였다.

11월 18일 : JMS—313艇(장, 李永春중위)은 龍湖島 近海에서 JMS—309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15艇은 鎭南浦 前洋에서 YMS—506艇과 교대하고 掃海作業에 임하였다.

PC—702艦과 YMS—518艇은 東海岸 注文津—元山間을 담당하여 海岸에 있는 敵陣에 대한 砲擊을 계속하였다.

11월 19일 : YMS—504艇은 元山近海에 이르러 YMS—518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敵陣砲擊을 실시하였으며 YMS—505艇과 YMS—513艇은 元山海域에서 掃海作業中이며 PC—702艦은 注文津—元山間의 경비를 계속하였다. 또 YMS—501艇, YMS—515艇 編隊는 鎭南浦近海에서 掃海作業에 임하였으며 PC—703艦과 JMS—313艇, JMS—307艇은 甕津半島 一帶를 경비하였다.

11월 20일 : JMS—301艇 및 22號艇은 木項作命 第7號에 의거하여 南海岸 경비에 임하고 있으며 元山近海를 경비중인 YMS—504艇은 敵 海岸砲火를 받았으나 損失없이 임무를 계속하였다.

11월 21일 : FS—257號는 西海에서 活動中인 각 艦艇과 島嶼에 補給次 軍需品을 積載하고 10.00에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또 JMS—315艇은 濁水作命 제15호에 의거하여 西海封鎖作戰中인 JMS—307艇과 임무 교대코자 이날 06.00鎭海를 出港하였다.

11월 22일 : JMS—304艇은 南海岸에서 경비임무를 완료하고 JMS—301艇에 인계한 뒤 修理次 鎭海로 歸港하였다.

또 JMS—315艇은 喬洞島 前洋에서 JMS—307艇과 20.00에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면서 對岸인 鹽津郡 東南面 海岸一帶의 敵陣을 砲擊하였다.

11월23일 : YMS—514艇(장, 丁漢哲대위)은 28作命 第8號에 의거하여 CTE 95.28의 PC—702艦과 임무 교대하고 元山—注文津間 경비를 담당코자 이날 17.00에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또 YMS—505, YMS—513의 兩艇은 元山에서, 그리고 YMS—501과 YMS—515의 兩艇은 鎭南浦 近海에서 각각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다.

11월 24일 : JMS—315艇은 西海岸의 席毛島 近海警備에 임하면서 105艇의 測量業務를 지원하였다. 또 YMS—514艇은 이날 15.00 注文津 近海에 이르러 PC—702艦과 임무교대를 完了하고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04艦(장, 張君翼중위)은 元山近海에서 敵砲臺와 심한 砲擊戰을 전개하여 상당한 打擊을 加하였다.

11월 25일 : JMS—303艇(장, 李瀅撥대위)을 CTE 95.71에 編入하여 椒島 近海를 경비하기 위하여 16.00에 釜山港을 출항하였으며 PC—703艦과 JMS—313艇은 龍湖島 近海에서 惡天候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계속하던 중 이날 暴風으로 인하여 投錨警備에 임하였다.

11월 27일 : JMS—315艇(장, 奏錫文중위)은 英艦 F—627號의 水深調査團과 合勢하여 喬洞島 近海에서 水深測量作業을 실시하였다.

11월 28일 : JMS—315艇은 英艦 F—627號의 情報將校를 新島로 輸送하고 喬洞島 近海에서 경비에 임하였으며 PC—704艦은 麒麟島 앞바다에서 PC—703艦과 임무를 교대하고 同島警備에 임하였다. 또 東海岸 黃土島 駐屯隊는 元山市 浪城里 부근의 敵으로부터 122mm 野砲攻擊을 받고 UN艦艇과 협조하여 合同으로 이를 擊攘하였다.

11월 29일 : PF—63艦(장, 崔孝鏞대령)은 CTG 95.5의 指示에 따라 美輸送船을 호송하기 위하여 12.00에 Saseho를 出港하여 元山으로 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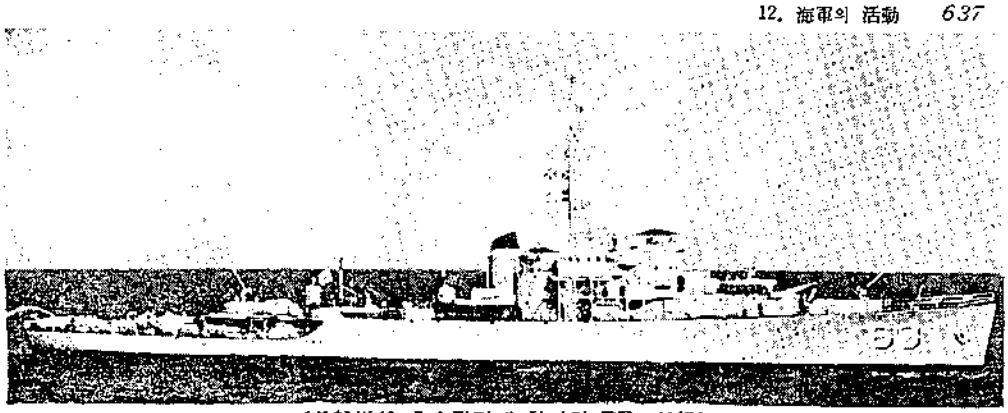
또 永興灣 黃土島 駐屯隊는 浪城里에 있던 150여명의 敵이 木船 5척에 分乘하여 攻襲하는 것을 맞아 1시간동안 反擊戰끝에 15명을 射殺하고 木船 2척을 鹵獲하였다.

11월 30일 : PF—63艦은 美輸送船을 護送中이며 PC—704艦은 椒島海域을, 그리고 JMS—315艇은 喬洞島 海域을 각각 경비하였으며 元山—注文津間의 경비는 YMS—504艇과 YMS—514艇이 각각 담당하였다.

(2) 12월中의 概況

12월 1일 : 西海岸에서 活動中인 JMS—315艇(장, 洪元杓대위)은 喬洞島 近海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對岸인 延白郡 海城面 海南里에 집결한 中共軍 300여명에 대하여 砲擊을 실시하였으며 金浦半島 西北쪽의 敵陣에는 砲擊을 감행하여 이를 각각 擊破하였다.

또 椒島海域에서 경비중인 PC—704艦(장, 李泰榮소령)과 JMS—303艇은 我軍이 확보중인 諸島嶼에 대하여 長距離砲 射擊을 企圖하는 한편 고무 보트로써 島嶼에 직접 上陸을 꾀하려는 敵에 機先을 制하여 이를 制壓하였으며 鹽津半島를 警備中인 JMS—302艇(장,



<美輸送船 호송작전에 참가한 PF—63艦>

朴春道대위)은 開坪里—보말洞—은근里—安山里—양담里—新安里를 連하는 敵陣을 强打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 作戰中인 YMS —504艇(장, 張君翼중위)은 元山 附近 浪城里의 敵陣을 砲擊하였으며 PF—63艦(장, 崔孝鏞대령)도 元山一帶를 航海하는 船舶에 엄중한 統制를 가하였다. 掃海作戰에 參加하고 있는 YMS—502艇(장, 劉龍彬대위)과 YMS—515艇(장, 鄭一燮대위)의 編隊는 鎭南浦 近海를, 그리고 YMS—507艇(장, 金明煥대위)및 YMS—510艇(장, 金泰錫중위)의 編隊는 元山以北 海域을 각각 담당하였다.

12월 2일 : 西海岸 封鎖作戰中인 CTE 95.71 編隊의 勢力을 증강하기 위하여 濁水作命 第19號에 依據 JMS—308艇(장, 金千鎰대위)을 이날 06.00에 鎭海港으로부터 西海로 出動시켰으며 JMS—302艇은 19.07에 我遊擊隊(Donkey部隊) 1개大隊를 蝟島에 上陸하도록 仁坪里—저강洞—병일洞에 砲擊으로 支援케 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는 YMS—518艇이 元山近海에 이르러 YMS—504艇(장, 高景榮대위)과 任務를 交代하고 同海域 警備에 任하였으며 PF—63艦은 元山—城津間을 遮斷하면서 敵陣에 대한 砲擊을 계속하였다.

12월 3일 : JMS—304艇(장, 韓淵錫대위)은 喬洞島 近海에서 JMS—315艇과 任務를 交代하여 同海域 경비에 임하고, JMS—302艇은 我遊擊隊를 支援하였으며 PC—704艦과 JMS—303艇은 椒島近海에서 對岸의 敵陣攻擊을 계속하였다. 또 東海岸에서는 PF—63艦과 YMS—518艇이 元山—城津間을, 그리고 YMS—514艇(장, 丁漢哲대위)이 注文津—元山間을 각각 담당하고 경비하면서 敵陣을 포격하였다.

12월 4일 : JMS—309艇(장, 柳來赫중위)은 濁水作命 第20號에 의하여 西海에서 作戰中인 CTE 95.71의 JMS—303艇과 경비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이날 06.00 鎭海港을 출항하였다.

또 JMS—302艇은 甕津半島 近海를 계속 封鎖하면서 我 遊擊隊인 Donkey部隊의 敵陣奇襲을 支援하여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東海에서는 PF—63艦과 YMS—518艇이 葛麻半島의 敵砲臺를 强襲하였다.

12월 5일 : YMS—503艇(장, 金炯培대위), YMS—512艇의 編隊는 西海의 鎭南浦 近海에

서 掃海中인 YMS—502艇, YMS—515艇의 編隊와 임무를 교대하고 同海域 掃海作業에 임하였으며 JMS—302艇과 JMS—304艇은 Donkey部隊의 行動支援次 仁坪里, 전강里 敵陣을 강타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 作戰中인 PF—63艦과 YMS—518艇은 元山—注文津間 海域을 警備하면서 元山의 虎島半島와 葛麻半島에 극심한 打擊을 가하였다. 또 PC—703艦(장, 崔東華소령)은 28作命 제10호에 의거하여 注文津 海域을 경비중인 YMS—514艇과 경비임무 교대차 18.00에 釜山에서 出港하였다.

12월 6일 : JMS—302艇(장, 朴春道대위)은 龍湖島 近海에서 對岸의 敵陣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또 JMS—304艦은 喬洞島對岸의 敵陣과 輸送路를 强打하였다.

한편 YMS—514艇은 PC—703艦과 교대하고 東海岸 封鎖作戰에 참가하였으며 YMS—518艇(장. 高景榮대위)은 16.00은 麗島駐屯隊를 支援하기 위하여 葛麻半島를 强打하였으며 PF—63艦은 城津近海에서 地上의 敵陣地와 橋梁 및 Tunnel등에 계속적인 砲擊을 실시하였다.

12월 7일 : PC—702艦은 濁水作命 제21號에 의거하여 西海에서 활약중인 CTE 95.71의 旗艦 PC—704艦과 경비임무 교대차 06.00 鎭海를 出港하였으며 YMS—505艇은 YMS—507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YMS—510艇(장, 姜基憲중위)과 合勢하여 元山近海에서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다.

12월 8일 : 西海岸 椒島海域을 경비중인 YMS—503艇과 YMS—512艇은 이날 04.22에 同島 北西쪽으로부터 侵空한 敵機의 奇襲을 받았으나 損失없이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椒島의 蘇沙里에 있는 民家 數棟이 파손되었다.

12월 9일 : JMS—301艇(장, 金鍾植대위)은 濁水作命 제23호에 의하여 西海에서 作戰中인 JMS—302艇과 경비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이날 05.00 鎭海를 出港하여 北上中에 있으며 JMS—309艇은 椒島앞바다에 이르러 JMS—303艇과 경비임무를 교대하고 CTE—95.71의 지시를 받아 封鎖作戰을 계속하였다. 또 PC—702艦은 JMS—302艇과 JMS—304艇을 지휘하여 白翎島—龍湖島—喬洞島間을 담당하여 我遊擊隊를 支援하였으며 東海岸에서 활약중인 PF—63艦은 PC—703艦과 YMS—518艇을 지휘하여 元山 부근의 敵輸送路를 强打하였다.

12월 10일 : PC—702艦은 近間에 敵이 甕津半島의 海岸으로 이동 集結하여 이미 확보중인 各 島嶼에 奇襲上陸을 企圖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JMS—309艇과 JMS—302艇을 지휘하여 椒島近海에서 對岸에 連日 위협사격을 가하였으며 JMS—304對은 喬洞島 近海를 중점적으로 경비하면서 對岸인 甕津郡 東南面 一帶의 海岸을 强打하였다. 또 PF—63艦은 PC—703艦과 YMS—518艇을 指휘하여 元山—城津間을 담당하여 경비하였다.

12월 11일 : JMS—304艇은 喬洞島의 近海를 警備中인 我遊擊隊가 同島對岸인 溫井面 昌東里 海岸에 奇襲上陸토록 支援射擊을 가하여 中共軍 150여명을 殺傷하였으며 PC—702艦

은 JMS—302艇과 309艇을 지휘하여 鎭南浦—椵島間을 統制하면서 海岸의 敵陣을 砲擊하였다. 또 PF—63艦과 PC—703艦, YMS—518艇의 編隊는 계속하여 東海의 元山 以北 海域을 경비하였다.

12월 12일 : JMS—313艇(장, 李永春중위)은 濁水作命 第24號에 依據하여 西海岸 喬洞島 近海警備 및 延白地區의 中共軍陣地에 砲擊中인 JMS—304艇과 교대코자 이날 05.00에 鎭海出港으로 西海로 向하였으며 JMS—310艇은 巡威島의 近海에서 警備하던중 北傀軍의 集結中心인 옹진반도의 安山里—正當里—石橋里 등지에 砲擊을 가하고 YMS—506艇(장, 吳龍吉중위)은 YMS—503艇과 경비임무를 교대한 다음 鎭南浦의 近海를 掃海하였다.

또 JMS—301艇은 椵島近海에서 JMS—302艇과 교대하고 CTE—95.71의 PC—702艦과 JMS—309艇과 合勢하여 椵島對岸의 敵陣砲擊에 參加하였으며 東海에서는 YMS—505艇과 YMS—513艇(장, 劉寬植대위)이 元山 近海에서 掃海作業을 계속중이며 PF—63艦은 PC—703艦과 YMS—518艇을 지휘하여 元山—城津間을 封鎖하였다.

12월 13일 : PC—702艦과 JMS—309, 301의 兩艇은 英艦과 合勢하여 西海岸 椵島近海를 警備하면서 對岸인 眞風面 一帶의 敵陣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JMS—310艇은 400여명의 敵이 我軍이 이미 確保中인 巡威島와 龍湖島에 奇襲할 것이라는 아군 유격대의 정보에 따라 甕津郡 東南面 부근의 敵진지를 계속 포격하였다.

12월 14일 : 이날도 警備區域의 變動없이 계속하여 東西 兩海岸에서 封鎖作戰을 敢行하였다.

12월 15일 : JMS—304艇은 喬洞島 앞바다(37°48′10″N, 126° 14′00″E)에서 同島 遊擊隊의 情報에 따라 北傀軍 집결장소인 延白郡 湖東面 留亭里에 대하여 이날 08.28부터 猛砲擊을 실시하였으며 JMS—310艇은 巡威島 近海에서 我遊擊隊의 敵陣奇襲을 支援하였다. 또 JMS—315艇은 濁水作命 제25호에 의하여 鎭南浦 및 椵島海域에서 경비중인 JMS—309艇과 교대하기 위하여 04.00에 鎭海에서 出港하여 西海로 向하였으며 同海域에는 PC—702艦과 JMS—301, 309의 兩艇이 信川, 安岳等地區로부터 北傀軍이 海岸線으로 이동 집결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海岸警戒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는 PC—703艦이 元山近海의 警備에 임하면서 葛麻半島의 敵陣을 砲擊하였으며 PF—63艦은 封鎖任務를 마치고 日本基地 Saseho로 向하였다.

12월 16일 : PC—702艦, JMS—301艇 309艇의 編隊는 大同江 입구의 靑洋島를 탈환하기 위하여 我遊擊隊와 海兵隊를 席島로부터 靑洋島에 上陸시키고 支援砲擊을 實施하는 한편 數隻의 帆船을 이용하여 逃走하는 敵을 擊滅하였다. 또 PC—703艦은 元山의 虎島半島와 葛麻半島의 敵陣을 계속하여 强打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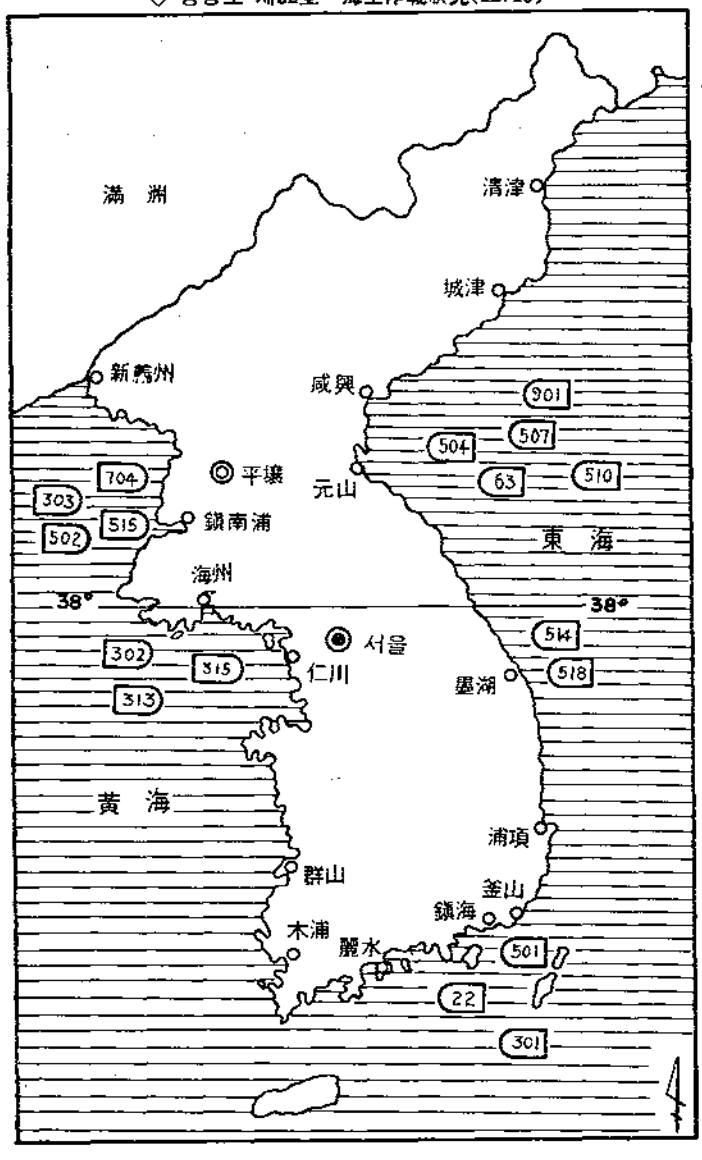
12월 17일 : JMS—312艇은 延白郡 虎德面 率化里에 집결중인 中共軍의 陣地를 砲擊하였으며 PC—702艦, JMS—301艇 309艇의 編隊는 계속하여 椵島—白翎島間의 海岸을 경계하

였으며 東海岸에서는 PC—704艦, YMS—518艇이 元山—注文津間 海域을 封鎖하고 이날 PF—65艦(장, 李哉松중령)이 元山 앞바다에 도착하여 同海域警備에 任하였다.

12월 18일 : PC—702艦, JMS—301艇, 310艇, 309艇은 계속하여 鎭南浦 및 椒島近海를 警備하면서 對岸의 敵陣을 砲擊하고, YMS—501艇은 鎭南浦 前洋에서 YMS—512艇과 임무를 교대하자 YMS—506艇과 合勢하여 掃海作業에 입하였으며 東海岸에서는 PF—65艦, PC—703艦, YMS—518艇이 元山—注文津間 海域을 경비하면서 葛麻半島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12월 19일 : PC—702艦, JMS—301艇, 310艇은 椒島近海에서 警備中 11.30부터 15.00까지 靑洋島와 陵金島의 敵陣을 砲擊하여 火力據點 5개소와 건물 1동을 破壞하였다. 또 JMS—315艇은 椒島前洋에서 JMS—309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警備에 임하였으며 東海岸을 封鎖中인 PF-65艦, PC—703艦, YMS—518艇의 編隊는 浪城里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 상황도 제52호 海上作戰狀況(12.19)



12월 20일 : YMS—502艇은 東海岸의 元山前洋에서 YMS—505艇과 所要의 任務交代를 하고 YMS—513艇과 合勢하여 掃海作業을 계속하고 東海岸을 警備中인 PF—65艦, PC—703艦, YMS—518艇은 元山의 葛麻半島를 攻擊하였다.

12월 21일 : PC-701艦(장, 白雲企소령)은 燭水作命 第27號에 의거하여 西海岸 CTE 95.71의 旗艦인 PC—702艦과 任務 交代次 14.00 鎭海를 出發하여 西海로 向하였다. 또 JMS—303艇은 椒

島앞바다에서 JMS—310艇과 교대하고 CTE 95.71의 指示에 依據하여 同海域에 대한 警備에 임하였으며 최근 海州附近에서 北傀가 暗暗裡에 發動船을 建造中이며 甕津半島의 海岸一帶에 大隊級의 兵力을 集結中이라는 情報를 입수한 PC—702艦과 JMS—301艇, 315艇의 編隊는 同海域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敵陣에 砲擊을 敢行하였다. 한편 東海岸의 麗島駐屯隊는 葛麻半島의 敵陣으로부터 120mm 迫擊砲의 射擊을 받자 PC—703艦과 合同으로 이 敵陣을 擊碎하였다.

12월 22일 : 西海岸의 席島近海에 北傀의 帆船이 나타나서 我艦艇의 動態를 把握함과 동시에 機雷의 敷設을 기도한다는 情報를 입수한 PC—702艦, JMS—303艇, 301艇, 315艇의 編隊는 즉각 鎭南浦와 椒島海域을 鎖封하였다. 또 東海岸을 封鎖中인 PF—65艦, PC—703艦, YMS—518艇은 元山의 葛麻半島에 있는 敵陣地를 砲擊하여 火力據點 수개소를 破壞하였다.

12월 23일 : JMS—302艇은 濁水作命 第28號에 依據하여 鎭南浦및 席島海域을 警備中인 JMS—301艇과 교대코자 05.00에 鎭海를 떠나 西海로 向하였다. 또 YMS—507艇은 鎭南浦 앞바다에서 YMS—506艇과 任務를 교대하고 YMS—501(장, 黃宣道중위)艇과 協同하여 鎭南浦 海域을 掃海하였으며 JSM—313艇은 甕津半島의 海岸一帶에 北傀의 兵力이 이동集結하는 것을 발견하자 喬洞島 近海에 統制를 강화하고 我遊擊隊의 敵陣奇襲을 지원하였다. 한편 東海의 高城 앞바다에서는 YMS—518艇이 警備에 임하였다.

12월 24일 : PC—704艦은 28作命 제11호에 의거하여 東海岸 封鎖作戰中인 CTE 95.28의 PC—703艦과 임무를 교대코자 이날 10.00에 釜山港을 떠났으며 또 PF—65艦은 PC—703艦과 YMS—518艇을 지휘하여 麗島近海에서 敵船 2척을 擊沈시켰다. 또 西海의 椒島近海에는 JMS—315, 301, 303艇編隊가 경비항해를 실시하였다.

12월 25일 : JMS—315艇은 CTE 95.12의 지시에 의거하여 椒島앞바다에서 遭難당한 我輸送船 구조작업에 임하였다. 또 東海岸 元山近海를 警備中인 PF—65艦은 美輸送船을 호송중이며 PC—704艦은 PC—703艦과 임무를 교대하고 元山海域을 警備하였다.

12월 26일 : PC—704艦은 元山 城南里의 敵陣을 砲擊중 짙은 안개로 인하여 敵의 機雷에 接觸되어 沈沒함으로써 艦長 李泰榮소령이하 승조원 56명전원이 戰死하였다. 또 PF—65艦은 元山 近海에서 美輸送船을 護送中이며 YMS—518艇은 계속하여 庫底의 沿岸경비에 임하였다. JMS—315艇은 美驅逐艦 789號와 協同하여 席島—鎭南浦間의 海岸을 封鎖하였으며 PC—701艦, JMS—321艇, JMS—303艇은 席島—椒島間을, 그리고 JMS—313艇은 喬洞島 近海를 각각 경비하였다.

12월 27일 : JMS—315艇은 F—633號와 協力하여 席島對岸의 敵이 機雷를 敷設하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敵陣을 砲擊하고 PC—701艦은 JMS—302艇, 303艇을 지휘하여 2척의 帆船에 分乘한 我遊擊隊를 靑洋島에 奇襲上陸토록 支援砲擊을 실시하였다.

12월 28일 : 年末年始를 맞이하여 敵의 海上跳梁을 未然에 粉碎코자 全軍에 내려진 非常警戒令에 따라 東西 兩海岸에서 作戰中인 各艦艇들은 我軍이 확보하고 있는 島嶼를 중점적으로 경비하는 동시에 敵陣에 대한 砲擊戰을 强化하였다.

12월 29일 : JMS—304艇은 濁水作命 第29號에 의거하여 喬洞島 近海에 出動中인 CTE 95.71編隊의 JMS—313艇과 임무교대차 06.00에 任地로 向하였다.

12월 30일 : PC—701艦, JMS—302艇, 303艇編隊는 西海岸 椒島—席島間의 경비를 强化하고 YMS—514艇은 東海岸의 庫底里 부근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12월 31일 : JMS—315艇은 西海岸 鎭南浦 앞바다에서 水深測量을 실시하였으며 英艦과 合勢하여 對岸의 敵砲臺를 粉碎하였다. PC—701艦, JMS—302艇, 303艇의 編隊는 전날에 이어 椒島海域을 警備하였으며 또 JMS—304艇은 喬洞島 前洋에서 JMS—313艇과 교대하고 同海域 경비에 임하였는데 한편 YMS—507艇, 512艇의 編隊는 鎭南浦 海域에서, 그리고 YMS—502, 515艇의 編隊는 元山 近海를 각각 掃海하였다.

(3) 1952년 1월中의 概況

1월 1일 : 西海岸 席島 東北쪽에 위치한 靑洋島에 北傀軍 200여명이 堡壘를 구축하고 迫擊砲와 重輕機 및 기타 무장으로 席島와 椒島에 대한 侵攻을 企圖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PC—701艦, JMS—302艇, 303艇, 315艇, YMS—512艇, 507艇의 編隊는 UN艦隊와 合勢하여 同島에 大擧 砲擊을 集中하였다.

1월 2일 : LST—801艦(장, 尹英遠중령)은 補給品 및 油類를 積載하고 이날 11.00 白翎島에 입항하여 同島 駐屯隊에 供給하였다.

1월 3일 : LST—801艦은 西海岸 魚化島의 피난민 2,500명을 白翎島로 수송하고 JMS—304艇은 延白郡 峯化里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1월 4일 : LST—801艦은 南海岸 巡威島의 피난민 840명을 白翎島로 수송하고 JMS—304艇은 喬洞島 海域을 警備하면서 我遊擊隊를 지원하였다.

1월 5일 : PF—63艦(장, 崔孝鏞대령)은 이날 15.50에 CTE 95.5의 命令에 따라 美輸送船을 護送하기 위하여 Saseho를 出港하여 東海로 向하였다.

1월 6일 : JMS—302艇은 西海岸에 있는 胡島 對岸의 敵陣을 砲擊하고 椒島海域을 경비하였다. 또 中共軍이 喬洞島 上陸을 도모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한 JMS—304艇은 同島 앞바다에서 철야경비를 실시하면서 對岸인 湖東面 一帶를 砲擊하였다.

1월 7일 : JMS—304艇은 이날 英艦과 協同으로 延白郡 溫井面 峰火里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1월 8일 : JMS—302艇은 美 DD—746艦과 合勢하여 椒島對岸을 强打한 다음 同島—席島間을 경비하였으며 JMS—304艇은 계속하여 喬洞島 前洋에서 경비임무를 遂行하였다.

1월 9일 : CTG 95.2(UN東海艦隊司令官)의 指揮下에 元山近海를 掃海하고 있는 CTE 95.76.2(韓國, 東海掃海編隊)의 YMS—513, 505艇은 下記 4개地點을 연결하는 선의 양측

200 YDS를 掃海하였다.

a. 39°15′40″N, 127°41′00″E

b. 39°14′47″N, 127°41′00″E

c. 39°18′00″N, 128°01′19″E

d. 39°16′39″N, 128°01′45″E

또 CTE 95.71의 지시에 의거하여 PC—702艦은 巡威島와 甕津地區의 海域을, 그리고 JMS—310, 308艇을 椒島—鎭南浦間 海域을, 또 JMS—304艇은 葛洞島 前洋을 각각 封鎖하였으며 YMS—512艇, 506艇은 椒島—鎭南浦間을 掃海하였다.

1월 10일 : YMS—514艇은 巨津—麗島間을 封鎖하였으며 YMS—505艇은 麗島—興南間 海域에서 주로 夜間에 있어서의 敵의 機雷敷設에 대비하여 경비하였다.

한편 敵은 西海岸에서 이날 04.00에 野砲支援을 받으며 海巖島를 거쳐 昌麟島에 150여명이 攻襲하였다. 同島의 Donkey部隊는 敵을 맞아 奮戰하였으나 火力不足으로 蓬串島로 후퇴하여 PC—702艦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昌麟島를 상실하고 말았다.

1월 11일 : YMS—513艇, 505艇은 계속하여 元山海域의 掃海作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YMS—513艇은 야간에 麗島—咸興間의 기뢰부설을 막기 위한 경계에 임하였다. 그리고 西海의 鎭南浦 海域에서는 YMS—506艇, 510艇이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다.

1월 12일 : 東海岸 元山 앞바다를 掃海中인 YMS—513艇, 505艇은 이날 24.00까지 下記 地點을 연결하는 線의 左右 각각 150 YDS를 掃海하였다.

a. 39°14′24″N, 127°36′00″E

b. 39°18′12″N, 128°00′36″E

1월 13일 : YMS—518艇(장, 高景榮대위)은 28作命 제1號에 의거하여 CTE 95.72의 YMS—514艇과 임무교대차 12.00 鎭海를 出港하여 現地로 向하였으며 麒麟島 近海를 警備中인 CTE 95.71의 PC—702艦은 昌麟島의 北端에 北傀軍 100여명이 집결하여 小舟艇 6척으로 麒麟島에 대한 奇襲을 敢行하리라는 정보를 Donkey부대로 부터 입수하자 긴급기동하여 이를 粉碎하였다.

1월 14일 : YMS—514艇은 巨津앞바다에서 YMS—518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巨津—麗島間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01艇 및 YMS—513艇은 元山近海에서 下記 各點을 연결하는 線에서 각각 142 YDS를 掃海하였다.

a. 39°15′17″N, 127°39′15″E

b. 39°17′45″N, 127°56′00″E

c. 39°18′00″N, 128°00′00″E

d. 39°18′45″N, 128°00′58″E

e. 39°19′20″N, 128°02′45″E

f. 37°15′58″N, 127°39′03″E

한편 PC—702艦은 麒麟島 近海에서, JMS—301艇은 喬洞島海域을, 그리고 JMS—308艇과 310艇은 椒島海域을 각각 경비하였다. 또 CTE 95.71은 美艦 LST—742號의 지원으로 麒麟島의 피난민 300명과 Donkey부대원 100여명을 구출하였다.

1월 15일 : PF—63艦은 이날 07.15에 Saseho를 出港하여 美輸送船을 호송하고 元山으로 向하였다. 또 PC—702艦은 美艦 L.S.M.R—404號(함장, Georgy M. Wrocklage 대위)와 協力하여 昌麟島 近海를, JMS—301艇은 喬洞島海域을 그리고 JMS—308艇과 310艇은 椒島近海를 각각 경비하였다. 또 FS—905號는 西海의 各艦艇에 補給品을 供給次 08.00부터 仁川을 出港하여 白翎島로 向하였다.

1월 16일 : YMS—513艇및 501艇은 이날 元山近海에서 下記區域을 掃海하고 야간에 麗島—咸興間을 경비하였다.

a. 39°15′07″N, 127°39′15″E

b. 39°17′35″N, 127°56′15″E

c. 39°17′50″N, 128°00′00″E

d. 39°18′35″N, 128°02′58″E

e. 39°19′10″N, 128°02′45″E

f. 39°15′48″N, 127°39′03″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280 YDS의 海域임.

또 JMS—301艇은 이날 03.00부터 12.00까지 喬洞島 對岸인 延白郡 溫井面 峯火里의 敵陣을 砲擊하여 敵의 火力據點을 粉碎하고 退却하면서 반격을 가하려는 中共軍 一個中隊를 强打함으로써 同地에서 作戰中인 我遊擊隊를 지원하였다. 한편 LST—803艦은 海兵 1,330명과 車輛 10대 및 兵器 其他를 적재하고 13.30에 鎭海를 出港하여 西海로 向하였다.

1월 17일 : PC—703艦은 CTE 95.71의 PC—702艦과 임무교대하고 UN艦隊의 LSMR—401號(함장, Melvin E. Bustard, Jr. 소령)와 協調하여 昌麟島에 있는 敵陣을 强打하고 同海域 경비에 임하였다.

1월 18일 : LST—803艦은 이날 15.30에 延坪島에 接岸하여 海兵隊兵力을 輸送하는 한편 補給品을 供給하였으며 CTE 95.71은 19.00에 Donkey部隊로 부터 昌麟島 西北쪽 海岸인 후진洞에서 敵이 帆船 3척과 고무 Boat 4척을 이용하여 麒麟島를 侵攻하리라는 情報를 입수하고 PC—703艦과 美艦의 合同砲擊으로 이를 粉碎하였다.

1월 19일 : YMS—513艇 및 YMS—501艇은 계속 元山海域을 掃海중이며 야간에는 元山—咸興間에서 敵의 機雷敷設을 방지하고 있었는데 이날에도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4′38″N, 127°36′45″E

b. 39°15′05″N, 128°04′30″E

c. 39°18′45″N, 128°03′20″E

d. 39°16′30″N, 127°43′46″E를 연결하는 線의 좌우 280 YDS의 海域임.

또 PC—703艦은 昌麟島 近海에서, 그리고 JMS—301艇은 喬洞島海域에서, JMS—310艇과 308艇은 椒島 近海를 각각 경비하였으며 YMS—506艇과 510艇編隊는 大同江 下流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1월 20일 : CTE 95.72는 계속하여 巨津—麗島間을 경비하였다.

1월 21일 : CTE 95.5의 指揮下에 Sasebo에서 待機中인 PF—62艦은 이날 12.30에 美輸送船을 호송하고 東海로 向하였으며 JMS—309艇은 椒島海域에서 JMS—308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CTE 95.71에 편입하고 경비에 임하였다.

또 昌麟島 近海에서 CTE 95.71은 피난선 1척을 발견하였는데 昌麟島에는 100여명의 敵兵이 82mm 迫擊砲 二門과 重輕機二挺과 小銃등으로 무장하여 同島 東쪽 해안에 집결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CTE 95.12(UN西海封鎖戰隊)의 美艦 LRMR—401號와 協同하여 이를 砲擊하였다. 또 YMS—507艇은 鎭南浦 앞바다에서 YMS—506艇과 08.00에 임무를 교대하고 掃海作業에 임하였으며 JMS—302艇은 濁水作命 第8號에 의거하여 CTE—95.71의 JMS—301艇과 임무교대차 15.10 鎭海를 出港하여 任地로 向하였다.

1월 22일 : YMS—513艇과 501艇編隊는 이날 다음 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4′45″N, 127°37′45″E

b. 39°16′23″N, 127°56′13″E

c. 39°17′02″N, 127°54′30″E

d. 39°15′33″N, 127°37′46″E를 연결하는 中央線의 左右 213 YDS

또 PF—62艦(장, 申宗燮중령)은 계속 美輸送船을 호송중에 있으며 JMS—307艇은 14.00 椒島 前洋에서 CTE 95.71의 JMS—310艇과 所要任務를 交代하고 경비에 임하였다.

1월 23일 : YMS—518艇의 巨津—麗島間 경비를 비롯하여 東西 兩海域에서는 경비구역의 변동없이 封鎖 및 掃海作戰을 계속하였다.

1월 24일 : 鎭南浦一帶의 海域에서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YMS—507艇, 510艇編隊가 掃海作業에 참가하였는데 이날 09.10에 심한 降雪과 濃霧로 인하여 掃海作業을 중단하고 投錨경비에 임하였다.

1월 25일 : 元山海域에서는 YMS—515艇이 이날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4′42″N, 127°38′45″E

b. 39°17′23″N, 128°00′37″E

c. 39°18′30″N, 128°00′00″E

d. 39°16′39″N, 127°38′46″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280 YDS

또 CTU 95.76.1의 YMS—507, 510艇은 CTE—95.12의 지시에 의하여 13.00부터 鎭南

浦近海의 掃海를 중단하고 敵의 機雷敷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椒島의 南北水路를 엄중경비하였으며 또한 JMS—302艇은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의 海岸에 暗夜를 이용하여 敵의 部隊가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25부터 1시간에 걸친 砲擊으로 이를 擊滅하였다.

한편 이날 軍은 美國으로부터 水雷艇 4척을 인수받아 戰力을 强化하게 하였다.

1월 27일 : YMS—514艇은 이날 24.00 YMS—518艇과 소요임무를 교대하고 巨津—麗島間 경비에 임하였으며 Saseho에서 待機中이던 PF—63艦은 13.00에 美輸送船을 호송하고 東海로 向하였다.

또 YMS—512艇은 19.00에 YMS—510艇과 교대하고 椒島近海에서 敵의 機雷敷設을 防止하면서 敵陣砲擊을 계속하였다.

1월 28일 : FS—905艇(장, 李仁錫소령)은 東海에 出動中인 各艦艇에 軍需品을 輸送코자 이날 19.10에 釜山을 出港하였으며 西海岸 麒麟島 近海를 경비중이던 PC—703艦은 荒天으로 말미암아 艦首錨가 切斷되어 임무를 수행치 못하게 되므로 CTE 95.71의 지시에 의거하여 大靑島에서 錨泊中인 JMS—303號와 그임무를 교대하고 修理整備次 鎭海로 歸港하였으며 JMS—303艇은 22.00부터 麒麟島 경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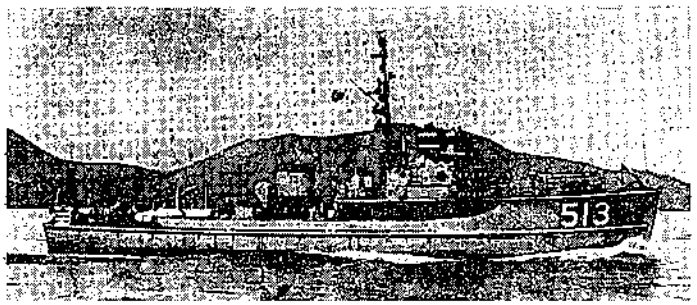
1월 29일 : 喬洞島의 前洋을 경비중인 JMS—302艇은 敵이 延安地區로 부터 烽火里에 속속 이동하고 있으며 帆船 및 고무Boat 등으로 喬洞島를 奇襲上陸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17.00에 烽火里 海岸에 接近하여 敵의 砲臺(82mm迫擊砲)와 집결지로 예상되는 창추동을 强打하였으며 22.00 및 23.00에는 계속 두차례에 걸친 砲擊을 집중함으로써 敵의 奸計를 粉碎하였다.

1월 30일 : JMS—304艇은 燭水作命 第10호에 의거하여 椒島近海를 경비중인 JMS—309艇과 임무를 교대코자 06.00에 임지로 향하였으며 東西 兩海域에서는 경비 및 掃海作戰을 如前히 계속되었다.

(4) 2月中의 概況

2월 1일 : 敵은 永興灣一帶 海岸에 兵力을 집결하고 直射砲와 迫擊砲로 砲臺를 지키는 한편 고무 Boat와 木船을 이용하여 麗島侵攻을 企圖하였다. 이에 CTE 95.72는 YMS—514艇을 麗島 近海에서 경비토록 하고 FS—902艇(장, 金光玉소령)을 麗島에 非常待機토록 하였다.

또 YMS—515艇과 YMS—502艇은 元山前洋에서 敵의 機雷敷設을 방지하고 我艦艇의 安全航海를 위하여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다. 한편 西海岸의 麒麟島—昌麟島間을 경비중인 PC—701艦(장, 白雲企소령)과 JMS—303艇(장, 李瀅撥중위)은 UN 艦艇과 合勢하여 昌麟島의 敵陣을 連日 强打하자 敵은 我艦의 砲火에 견디지 못하고 被殺된 시체 30여구와 帆船 2척을 버린채 甕津郡 東南面 葛項里로 退却하였으며 昌麟島를 再奪還한 我軍은 Donkey部隊를 同島에 駐屯케하여 防禦力을 强化케하고 海岸警備에 注力토록 하였다. 또 CTU



<元山近海에서 掃海作戰중인 YMS-513艇>

95. 76. 1의 YMS—503艇과 YMS—512艇(장, 林斗成대위)은 長山串 海岸에 敵이 집결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同海岸線 一帶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喬洞島 近海를 경비중인 JMS—302艇(장, 朴春道대위)은 이날 09. 30에 行動을 시작하여 延白郡 海月面 海月里 海岸의 敵陣에 砲擊을 斷行하여 그들의 喬洞島 侵攻을 事前에 粉碎하였다.

2월 2일 : PC—701艦과 JMS—303艇은 CTE 95. 12의 UN艦艇과 協助하여 龍湖島와 巡威島에 侵入한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砲火를 집중하자 敵은 輸送이 중단된 채로 饑餓狀態에 이르러 야간을 이용하여 東南面 松江里와 興陽面으로 각각 分散潛走하였다.

2월 4일 : CTE 95. 71의 JMS—307艇(장, 林龍雨대위)은 椒島近海에서 機關故障으로 말미암아 경비를 중단하고 JMS—309艇에 曳引되어 修理次 鎭海로 向하였다.

또 JMS—302艦은 喬洞島 및 江華島를 奇襲하려고 集結한 延白郡 湖南面과 溫井面 一帶의 敵에 대하여 이날 20. 00부터 砲門을 열기 시작하여 한 시간의 간격으로 다음날 06. 00까지 무려 여섯차례의 砲擊으로 이들을 모두 擊滅하였다.

한편 PC—701艦은 CTE 95. 12의 美艦 LST—742號와 協力하여 13. 00부터 龍湖島—巡威島—昌麟島等地의 피난민 구조에 임하였다.

2월 5일 : PF—61艦은 Sasebo에서 美海軍으로부터 PT급 경비정 4척을 인수한 다음 이날 07. 35에 釜山에 入港하였다.

2월 7일 : 麗島에서 非常待機中이던 FS—902艇은 이날 12. 00에 FS—905艇(장, 李仁錫소령)에 所要任務를 인계하고 墨湖를 경유하여 鎭海로 歸港하였다.

한편 이날 14. 00에 釜山 L.C.I부두에서는 새로 引受한 魚雷艇 4척에 대한 命名式이 거행되었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PT—23號艇 : 갈매기, PT—25號艇 : 기러기, PT—26號艇 : 올빼미, PT—27號艇 : 제비.

2월 8일 : PF—61艦(장, 申宗燮중령)은 美艦 Piedmount號를 護送하고 이날 11. 15 Sasebo에 入港하였다.

또 CTE 95. 72는 계속하여 CTE 95. 21이 UN艦艇과 協同作戰을 遂行하였는데 PC—702艦은 元山—咸興間에서, YMS—514艇은 巨津—麗島間을 각각 경비하였다.

2월 9일~15일 : 東西 兩海域에서 警備 및 掃海活動이 계속되었는데 YMS—503艇 및 YMS—506艇은 鎭南浦 海域에서 掃海作業을 完了하고 敵이 椒島—長山串間에서 機雷敷設을 기도

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同海域에서 沿岸을 항해하는 船舶에 統制를 加하여 敵船의 索出에 注力하게 되었으며 JMS—304艇은 10일 18.00부터 11일 06.00까지 CTE 95.12의 HMS—225號와 合同作戰으로 黃海道 殷栗郡 眞風面一帶의 敵陣을 强打하였다.

또 元山—咸興間을 封鎖中이던 PC—702艦은 14일 08.15에 YMS—518艇에 作戰任務를 인계하고 鎭海로 歸港하였다.

2월 16일~20일 : YMS—518艇은 元山—咸興間에서, 그리고 YMS—504艇은 巨津—麗島間을 각각 경비중이며 元山近海에서 作戰中인 YMS—501艇과 YM—505艇은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9′03″N, 127°56′28″E

B. 39°15′42″N, 127°16′27″E를 연결하는 좌우 500 YDS의 해역.

또 PC—703艦(장, 孫炳一소령)은 西海岸의 昌麟島 近海에서, JMS—310艇은 巡威島 海域에서, JMS—308艇은 猪洞島 앞바다에서 각각 警備活動 및 敵陣砲擊을 계속하였으며 FS—903艇(장, 金東燮소령)은 東海에서 活動中인 各艦艇의 軍需品을 積載하고 18일 05.00에 鎭海로 出港하였다.

2월 21일 : 甕津半島의 敵은 甕津郡 東南面 沙串里에 集結하고 興嚮面의 敵과 合流하여 巡威島를 위협하고 있다는 Donkey部隊의 情報를 入手한 CTE 95.71의 PC—703艦은 14.00에 沙串里와 龍湖島 北端의 무파里등지의 敵集結地를 連打하고 18.30에는 CTE 95.12의 美艦 LSMR—404號(함장, George M. Wrocklage대위)와 協同하여 재차 목표물을 砲擊함으로써 敵의 巡威島 侵攻의 企圖를 挫折케 하였다.

또 JMS—309艇은 계속하여 昌麟島 경비에 임하면서 10.00에 甕津郡 東南面 新安里를 强打하여 敵의 砲臺와 火力據點 數個所를 撲滅하였다.

2월 22일 : YMS—501艇과 YMS—505艇은 元山近海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5′36″N, 127°38′00″E

B. 39°19′00″N, 127°59′24″E의 左右 240 YDS의 海域.

또 PF—62艦은 美輸送船의 護送任務를 완료하고 高城近海의 경비에 임하였다.

2월 23일 : YMS—501, 505艇編隊는 元山近海를 掃海하였는데 이날도 계속하여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5′06″N, 127°39′42″E

B. 39°17′07″N, 127°58′12″E를 연결하는 中央線의 左右 1,200YDS임.

2월 24일 : YMS—507艇은 16.00에 東海岸에 있는 麗島前洋에서 YMS—505艇과 任務를 交代하고 YMS—501艇과 合勢하여 元山海域에서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6′36″N, 127°38′48″E

B. 39°19′00″N, 127°59′24″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1,200 YDS.

2월 25일 : FS—903艇은 東海岸 洋島駐屯隊에 軍需品을 補給次 07.50에 洋島에 入港하였다. 또 PF—63艦과 65艦은 美輸送船을 호송하고 08.00에 Saseho를 出港하였다. 한편 24일 20.00 大型木船 8척에 分乘하여 洋島에 奇襲한 敵은 이날 同島駐屯隊의 奮戰으로 損失만을 입고 潰走하였다.

2월 27일 : FS—903艇은 輸送을 완료하고 08.35에 洋島對岸의 敵陣을 强打하여 敵의 洋島侵攻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한편 JMS—301艇은 麒麟島 前洋에서 16.00에 JMS—315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였으며 PC—703艦은 昌麟島 近海에서, JMS—309艇은 椒島海域에서, JMS—313艇은 喬洞島 近海를 각각 경비하였다.

2월 28일 : 전날에 이어 東西 兩海岸에서는 封鎖作戰을 계속하였으며 PC—703艦은 濁水作命 第23號에 의거하여 龍湖島와 興嘴島의 敵이 巡威島를 侵攻할 것이라는 敵情에 따라 昌麟島로부터 巡威島에 이르러 同海域에 대한 一切의 船舶에 統制를 加하였다.

(5) 3월中의 概況

3월 1일 : YMS—507艇과 514艇은 元山近海에서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2′40″N, 127°44′05″E

B. 39°12′40″N, 124°39′25″E

C. 39°11′40″N, 127°45′05″E

D. 39°11′40″N, 127°39′25″E의 4점을 연결하는 內部海域

또 PC—701艦은 05.00에 PC—703艦과 임무를 교대하고 麒麟島 近海에서 경비에 임하고 JMS—313艇은 喬洞島 前洋에서 JMS—309艇과 11.00임무를 교대한 JMS—307艇은 椒島一帶를 각각 경비하였으며 JMS—301艇은 이날 12.00부터 1시간에 걸쳐 龍湖島의 敵陣을 强打하여 射殺 7명, 建物破壞 10棟, 帆船擊沈 1척, 帆船破壞 2척 등의 戰果를 올렸으며 我側도 戰死 1명, 負傷 2명의 損失을 입었다.

3월 2일 : PF—62艦은 이날 17.20 美油槽船 AO—24號를 호송하고 Saseho를 떠나 東海로 向하였다.

3월 5일 : YMS—515艇 및 507艇은 이날 08.30부터 15.40까지 元山近海에서 繫留機雷 1개를 擊沈시켰으며 下記海域에 대한 掃海를 완료하였다.

A. 39°15′20″N, 127°37′42″E

A. 39°28′07″N, 128°30′25″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1,700YDS임.

또 YMS—503艇은 08.00부터 YMS—510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YMS—502艇과 合勢하여 西海岸에 있는 長山串 以北 海岸을 경비하였다.

3월 6일 : YMS—506艇은 YMS—507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YMS—515艇과 合勢하여 元山近海에서 海掃作業을 계속하였으며 FS—901艇은 東海를, FS—902艇은 西海의 各島嶼 및 出動艦艇에 補給物 輸送次 각각 航海中이며 昌麟島 近海를 封鎖中이던 PC—701艦은 甕津

郡 東南面 葛項里의 敵砲臺를 强打하였다.

3월 7일 : CTU 95.76.2의 YMS—515艇 및 YMS—505艇은 元山近海에서 이날 18.00까지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5′20″N, 127°37′00″E

B. 39°18′20″N, 128°01′00″E를 연결하는 폭 420YDS.

한편 西海에 補給品을 輸送하기 위하여 航海中인 FS—902艇(장, 金光玉소령)은 이날 05.30에 33°31′45″N, 126°50′50″E 地點에서 坐礁하였다.

3월 9일 : CTU 95.76.2의 YMS—505, 515艇 編隊는 이날 18.00까지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4′50″N, 127°37′20″E

B. 39°19′30″N, 127°01′18″E를 연결하는 폭 620YDS의 海域

또 FS—901艇은 18.00 麗島에 入港하여 補給物資를 下陸中이었으며 PF—63艦은 美輸送船 호송임무를 완료하고 14.00에 鎭海에 入港하였다.

3월 10일 : 西海岸 麒麟島 앞바다에서 封鎖活動中이던 PC—701艦은 機關故障으로 JMS—301艇에 소요임무를 인계하고 修理整備次 13.00에 鎭海로 向하였다.

3월 11일~15일 : CTE 95.72는 계속하여 CTG 95.2의 UN艦艇과 協同作戰中이었으며 YMS—518艇은 巨津前洋에서 11일 19.00 YMS—514艇과 소요임무를 교대하고 巨津—麗島間을 경비하였다. CTU 95.76.2의 YMS—505, 515艇編隊는 11일 18.00에 元山近海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5′18″N, 127°37′35″E

B. 39°14′24″N, 127°34′42″E

C. 39°13′18″N, 127°33′00″E

D. 39°12′00″N, 127°32′46″E

E. 39°14′00″N, 127°30′30″E를 연결하는 線의 폭 620YDS의 海域.

또 FS—901艇은 11일 18.00 洋島에 入港하여 補給物資를 下陸하였으며 PF—65艦은 美輸送船을 호송도중 10일 11.23 葛麻半島의 敵 野砲陣地를 砲擊하였다. 한편 西海의 長山串 海域에서는 YMS—502, 503艇이 敵의 機雷敷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鎭南浦 一帶에까지 海岸을 統制하였으며 JMS—301艇은 麒麟島 近海에서 JMS—307艇은 椒島 一帶를, JMS—310艇은 喬洞島 前洋을 각각 封鎖하였다. 또한 巨津前洋에서 YMS—518艇은 14일 船體浸水로 警備를 중단하고 美艦 ATF—71號에 曳引되어 修理次 15일에 20.40에 鎭海에 入港하였다.

3월 16일 : YMS—513艇은 YMS—515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YMS—505艇과 協力하여 元山近海에서 19.00까지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7′13″N, 127°57′00″E

B. 39°15′00″ N, 127°37′45″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폭 380 YDS의 海域.

또 巨津近海를 警備中인 22號艇은 이날 18.30 巨津附近의 敵海岸砲臺를 强打하였으며 YMS—506艇은 椒島앞바다에서 YMS—503艇과 교대하고 CTU 95.76.1의 YMS—502와 合勢하여 長山串 以北 海域을 경비하였다.

3월 17일 : CTU 95.76.2의 YMS—505艇은 元山海域의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는데 이날은 18.00까지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5′07″N, 127°37′05″E

B. 39°12′55″N, 127°32′37″E

C. 39°14′58″N, 127°37′20″E

D. 39°17′36″N, 127°17′12″E

E. 39°15′18″N, 127°15′50″E

F. 39°14′58″N, 127°00′30″E를 잇는 線의 左右 380 YDS.

또 CTE 95.71의 JMS—310艇은 薪洞島 앞바다에서 11.36에 JMS—309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海兵隊患者를 輸送키 위하여 18.00에 仁川에 入港하였다.

3월 18일 : CTU 95.76.2의 YMS—505艇은 이날 18.00現在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8′12″N, 127°57′00″E

B. 39°15′00″N, 127°37′25″E를 잇는 폭 380YDS의 海域.

또 第1掃海艇隊의 YMS—515, 507艇隊는 CTG 95.6의 UN艦隊 AMS 2척과 協同하여 麗水近海를 掃海하기 위하여 13.00에 鎭海를 出港하여 임지로 향하였다.

3월 19일 : CTE 95.72의 22艇은 CTE 95.28의 指示에 의하여 巨津近海를 그리고 P—11艇은 束草近海를 각각 封鎖하였다.

3월 20일 : YMS—505艇은 이날 18.00까지 元山海域에서 다음 구역을 掃海하였다.

A. 39°15′00″N, 127°37′00″E

B. 39°18′00″N, 127°01′00″E를 잇는 폭 420 YDS海域.

또 西海岸을 封鎖中인 CTE 95.71은 계속하여 CTE 95.12의 UN艦隊와 긴밀한 協同作戰下에 PC—703艦은 麒麟島 近海에서, JMS—308艇은 大靑島 海域을, JMS—302艇은 椒島前洋에서 JMS—309艇은 薪洞島 近海를 각각 경비중이며 長山串—鎭南浦間의 海岸에서 敵의 機雷敷設의 방지순찰을 담당하던 YMS—502艇은 서승里 뒷高地에서 移動하는 敵에게 砲擊을 집중하여 이를 殲滅하였다. 또 YMS—515艇 및 YMS—507艇은 麗水前洋에서 CTE95.63의 AMS—22艇 및 AMS—34艇과 合勢하여 다음 구역은 掃海하였다.

A. YMS—515, 507艇編隊는 麗水灣에서 突山島 東南쪽 8리의 海域

B. AMS—22, 34艇編隊는 34°25′00″N, 128°03′00″E와 34°45′03″N, 127°47′09″E를 연결한 부분의 해역.

3월 21일 : 西海岸의 延白郡 溫井面 峯火里에 敵이 강력한 防禦陣을 구축하고 兵力을 집결하여 猊洞島를 위협하고 있다는 情報를 입수한 JMS—309艇(장, 柳來赫중위)은 이를 事前에 粉碎하기 위하여 이날 09.00에 峯火里 海岸에 상륙토록 하였다. 我駐屯隊는 我 309艇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進擊하였는데 11.00에 敵의 增援兵力이 增加되고 309艇의 主砲가 故障을 일으킨 탓으로 13.30에 모두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戰鬪에서 25명을 射殺하고 火力據點 2개소와 木船 10여척을 破壞하였다.

3월 22일 : YMS—507艇은 계속하여 CTE 95.63의 UN艦艇 AMS 22, 34艇과 協同作戰中이며 이날 다음구역을 掃海하였다.

A. 34°45′18″N, 127°47′54″E

B. 34°25′00″N, 128°03′00″E의 左右 2,000YDS

C. 34°47′18″N, 127°48′42″E

D. 34°45′24″N, 127°44′42″E

E. 34°45′24″N, 127°46′06″E의 內部海域

3월 24일 : CTE 95.72의 22號艇은 巨津近海에서 경비에 임하던중 日氣不順으로 避航하다가 束草港內에서(38°11′48″N, 128°35′36″E) 坐礁하여 이날 13.00 束草港의 大型發動船 2척에 의해 구조되어 整備作業을 하였으며 P—11號艇은 束草近海를 계속 경비하였다. 또 元山近海의 YMS—505艇은 이날 18.00현재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6′25″N, 127°37′45″E

B. 39°18′00″N, 127°59′00″E의 폭 420YDS.

3월 25일 : JMS—313艇은 西海岸 大靑島 앞바다에서 JMS—308艇과 소요임무 교대하고 CTE—95.71의 指示에 依據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또 CTE 95.72의 22號艇은 계속 束草港에서 整備作業에 임하고 YMS—505艇은 麗島 近海에서 YMS—515艇과 合勢하여 18.00현재 다음 두점을 연결한 폭 42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00″N, 127°37′50″

B. 39°18′10″N, 128°02′00″

3월 26일 : CTE 95.71의 302艇(장, 朴春道대위)은 西海岸 月沙里의 敵이 22.20 我軍의 海兵隊가 駐屯하고 있는 胡島를 砲擊하고 있다는 電文를 받고 즉시 胡島 前洋에 이르러 이를 制壓하였으며 CTE 95.12의 美艦 LSMR—401號(함장, Melvin E. Bustard, Jr.소령)에 인계하고 椒島近海 경비에 임하였다.

3월 27일 : YMS—514艇은 28作命 第10號에 의거하여 巨津近海를 경비하기 위하여 이날 18.30에 釜山을 出港한 다음 任地로 向하였으며 西海岸의 椒島近海에서 JMS—315艇은 21.00 JMS—302艇으로부터 소요임무를 인계받고 同海域 警備에 임하였고 PC—703艦은 昌麟島近海를 封鎖하였다. 한편 麗水近海에서 YMS—507艇이 계속 美艦 AMS—22, 34

號艇과 協同하여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4°44′57″N, 127°47′08″E

B. 34°37′03″N, 127°53′09″E

C. 34°36′58″N, 127°53′02″E

D. 34°24′34″N, 128°02′17″E

E. 34°25′26″N, 128°03′43″E

F. 34°57′50″N, 127°54′28″E

G. 34°37′45″N, 127°54′21″E

H. 34°45′18″N, 127°48′30″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1,920YDS의 海域

3월 28일 : CTE 95.71의 JMS—315艇(장, 秦錫文중위)은 椒島近海를 경비중에 있었으며 이날 11.00 夢金浦 西쪽 高地에 구축한 敵의 火力據點을 發見하자 즉시 砲門을 열어 2개소를 炎上시켰다.

3월 29일 : YMS—505, 515艇編隊는 이날 元山海域에서 18.00현재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4′40″N, 127°38′35″E

B. 39°17′00″N, 128°01″00″E

C. 39°18′40″N, 128°01′00″E

D. 39°15′12″N, 127°38′24″E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420YDS.

3월 30일 : LST—801艦(장, 尹英遠중령)은 東海에 出動中인 各艦艇과 島嶼에 補給物 輸送次 07.00에 鎭海를 出港하여 임지로 向하였으며 PF—62艦과 PF—63艦은 계속 美輸送船을 호송하였다.

3월 31일 : 西海岸 麒麟島를 경비중이던 PC—703艦(장, 金相吉소령)은 20.00에 對岸인 甕津半島 一帶의 敵陣을 强打하였으며 JMS—313艇은 夢金浦 近海를, 그리고 JMS—315艇은 椒島—長山串間을 각각 경비하였다.

한편 PF—62, 63, 65艦은 東海에서 美輸送艇 호송임무를 遂行中에 있으며 CTE 95.72의 YMS—514艇은 계속하여 UN艦隊(CTE 95.2)와 協同으로 巨津近海를 封鎖하였다.

또 YMS—515艇(장, 李應基중위)과 YMS—512艇(장, 林斗成대위)은 계속하여 元山海域에서 掃海作業에 임하는 한편 敵의 機雷敷設船 색출에 全力하였다.

13. UN 海軍의 活動 (1951년 11월 1일부터 1952년 3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53호

要 旨

1951년 11월 27일의 휴전회담에서 現接觸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는 잠정적인 休戰線이 설정됨에 따라 地上戰은 자연히 小康狀態로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期間中에 UN海軍은 地上軍에 대한 支援作戰에서 島嶼의 확보와 敵 後方에서의 攪亂을 중시하는 方向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東西 兩海岸의 島嶼는 我軍의 遊擊과 諜報活動의 근거지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島嶼遊擊隊員의 정보에 따라 艦砲와 艦載機로써 감행하는 공격은 制空과 制海에 힘입어 威力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北傀는 UN海軍의 上陸作戰을 저지하고 艦砲射擊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機雷敷設作業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入手된 정보에 의하면 敵은 全海域에 부설할 量의 機雷를 鎭南浦, 城津, 淸津, 興南 等地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위하여 三板船과 Junk船 그리고 BTB (機雷敷設船)等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UN海軍은 掃海作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各艦艇의 短艇을 해안에 침투시켜 敵의 機雷敷設에 사용되는 小船舶을 격침 또는 拿捕하는 새로운 방안을 策하는 한편 艦載機를 集中 활용하여 敵의 補給路를 차단하는 동시에 艦砲로써 연일 敵陣에 대한 가차없는 砲擊을 계속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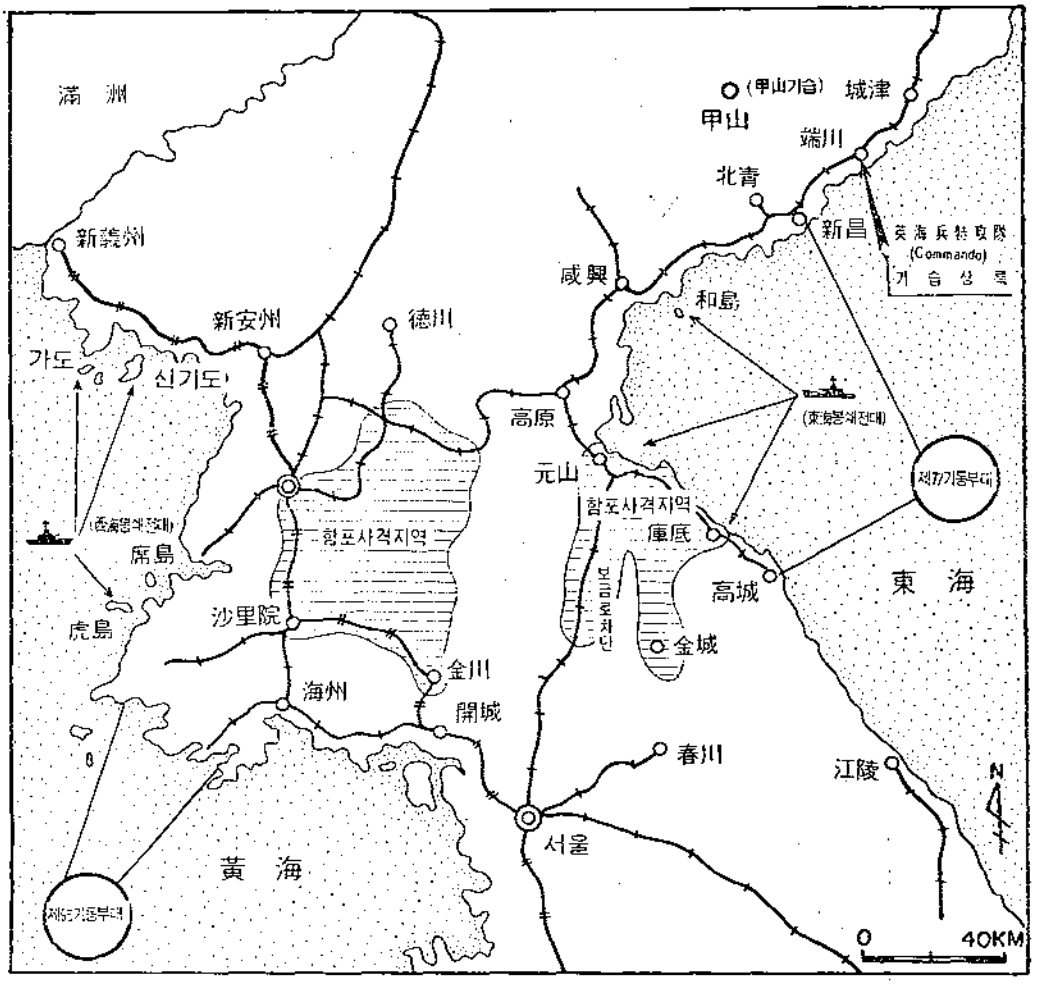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C. T. Joy
第7艦隊 사령관 중장 H. M. Martin
第77機動部隊(高速航空母艦部隊) 사령관 소장 John Perry
第95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G. C. Dyer

나. 작전 경과의 개요

UN艦隊는 連日 艦砲射擊과 航空母艦艦載機의 공격으로 敵의 軍事要衝地 및 교통로를 강타하면서 해안에서의 掃海作戰도 竝行하였다. 北傀 輸送手段의 근간이 되는 鐵路의 爆破에는 艦載機의 활약이 奏效하였으며 특히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는 고성능의 기동력을 구사하여 1951. 12. 28에서 1952. 2. 1에 이르는 사이에 무려 2,782개소의 철도와 141개소의 교량을 爆破하는등 하루 평균 116개소를 파괴하여 敵後方의 수송을 크게 마비시켰다.

이리하여 다음해 2월이후에는 北傀의 수송활동도 주로 야간을 이용하게 된 듯 하였는데 이에 UN의 艦載機隊도 夜間空襲을 敢行하여 이러한 敵 수송수단을 분쇄하였다. 특히 西

◇상황도 제53호 UN海軍의 主要作戰



海岸에서는 敵의 機雷敷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全海域을 封鎖함으로써 敵의 繼戰意志를 크게 위축시켰던 바 기간중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1월中의 概況

11월2일 : 極東艦隊의 旗艦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는 이날 元山港에 있는 海岸砲臺에 대대적인 포격을 감행하였다. 한편 美海軍 당국이 이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쟁개시 이후 UN海軍의 人命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死 : 102명

負傷 : 182명

失踪 : 31명

11월3일 : 東海의 城津海域에서는 掃海驅逐艦 Endicott號(함장, John C. Jolly 대령)를 비롯하여 Doyle號(함장. Charles H. Morrison, Jr. 중령)와 LSD—Comstock號(함장, Emmanuel T. Goyette 중령) 그리고 AMS—Herron號(함장, Dixan Lademan 중위)가 掃海作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海域은 機雷의 부설량이 많을뿐 아니라 敵의 高速巡察 Boat의 Radar 探知圈에 들어있고 同市街에 위치한 北傀의 空軍基地에서의 邀擊과 逆襲의 위험이 뒤따랐으며 더우기 기상은 바람이 센 겨울이라 航海에는 매우 불리하여 그해 일년중 가장 힘든 作戰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주일에 걸친 작업에서 23개의 機雷를 제거하였다.

한편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는 계속하여 興南港을 砲擊하였다.

11월5일 : 西海岸의 椒島를 경비중이던 Canada 驅逐艦 Athabaskan號(함장, D. G. King 중령)는 同島 맞은편인 月沙里 海岸砲臺에 40여발의 砲彈을 집중강타하였다.

11월6일 : 淸津海域에서는 계속해서 Endicott號, Doyle號, Comstock號, Herron號의 編隊가 掃海作業에 참가하여 하룻동안에 8개의 機雷를 제거하였다.

이날 Herron號의 音探機에 새로운 機雷가 捕捉되었는데 이로써 지난 3일에 掃海를 완료한 이 海域에 北傀가 계속하여 機雷를 敷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UN艦隊는 北傀의 후방 補給路 遮斷에 주력하였는데 New Jersey號 및 Toledo號(함장, Richard F. Stout 대령)는 각각 淸津港과 高城一帶의 敵陣을 强打하여 도합 75명을 殺傷하였다.

11월7일 : 이날 美海軍 當局의 발표에 의하면 戰爭開始 이래로 UN海軍의 航空隊가 敵艦船을 공격하여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다.

破壞 : 603척

損傷 : 1,492척

人命殺傷 : 48,762명

11월10일 : Toledo號(함장, Richard F. Stout대령)는 이날 淸津地區에 砲擊을 加하고 Los Angeles號(함장, R.N. Mc Farlane 대령)는 高城一帶의 敵軍事施設에 48시간 동안에 걸쳐 계속하여 砲擊의 威力을 발휘하였다. 이날 空中偵察隊의 보고에 의하면 Los Angeles號의 8″ 砲는 정확하게 敵陣을 강타하여 150여명을 殺傷하였다.

11월11일 : 東海岸 興南港을 砲擊中인 驅逐艦 Gloucester號(함장, Thomas C. Clay 소령)가 興南에 있는 海岸砲臺의 火力으로 12명의 負傷者를 내게되었다.

11월14일 : 第95機動部隊의 艦艇들은 계속하여 元山—淸津을 强打하여 敵 380여명을 殺傷하였다.

11월18일 : 第77機動部隊 艦載機隊는 이날부터 橋梁 및 鐵道破壞를 重點的으로 실시하였다. B—26 경폭격기는 야간에 主補給路를 폭격하였으며 B—29 重爆撃機는 咸興, 元山

等地의 비행장을 공격하였는데 偵察用 Jet機는 鐵道遮斷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11월19일 : 東海岸 興南海域에서 掃海作業중이던 Ptarmigan號(함장, Harrold Durhan 소령)가 이날 2개의 接觸機雷를 제거하였다.

11월20일 : 西海岸 鴨綠灣의 大和島를 경비중이던 Cayuga號(함장, Jeffry V. Brock 중령)와 Athabaskan號(함장, R.T. Welland 중령)는 同島 東北쪽 7mile에 있는 牛里島를 砲擊하여 정박중인 6척의 Junk船을 擊沈시켰다.

11월21일 : 韓國軍 제1군단장 李亨根소장은 第77機動部隊 사령관 John Perry 소장에게 高城南쪽의 月比山에서 苦戰中인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의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에 대한 艦砲支援을 요청하였다. 당시 제9연대는 11월 초순이래 野砲 및 自動火器를 증가한 北傀 제9사단의 공격을 받아 彈藥不足으로 血戰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11월22일 : 지원목표인 月比山은 구축함의 5inch砲로서는 射程距離가 미달하기 때문에 8″砲를 보유한 巡洋艦級 이상의 艦艇이 파견되어야 하였으나 당시 第77機動部隊에는 Los Angeles號(함장, R.N. McFarlane 대령) 1척 밖에 없었으며 이 한척도 航空母艦의 호위와 Vladivostok에 집결한 U.S.S.R.艦隊의 南下를 우려하여 派遣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第77機動部隊 사령관 John Perry 소장은 參謀陣과 더불어 이 대책을 熟議한 끝에 Los Angeles號를 高城海域에 파견키로 결심하였다. 이날 02.30에 현지에 도착한 同艦은 8″砲 91발을 月比山의 敵陣에 집중하여 戰勢를 一變토록 하였다.

11월24일 : Los Angeles號는 이날도 계속하여 月比山의 敵陣에 포격을 가하였다.

11월25일 : 第77機動部隊 소속의 艦載機隊는 高城地區 및 元山港 주위의 海岸砲臺를 强打하였다.

11월27일 : 小型구축함(Frigate) Taupo號는 禮成江의 하류까지 접근하여 開城—延安間의 敵陣에 砲擊을 加하고 또 鐵路와 橋梁을 파괴하였다.

(2) 12월中의 概況

12월2일 : 高速輸送艦 Bass號(함장, Alan Ray 소령)는 구축함 Leenge號의 엄호를 받으면서 英國軍 海兵特攻隊인 Commando 部隊를 端川(城津南쪽 28km)海岸에 奇襲上陸시켰다. 同特攻隊는 敵의 방어진을 돌파하여 鐵路와 tunnel등 교통시설물을 파괴하였으며 Bass號와 Leenge號의 艦砲도 城津—興南間의 要地要點에 大大的인 砲擊을 加하였다.

12월3일 : 城津海域에서 掃海作業中이던 Pelecan號(함장, William 대령)는 이날 同海域에서 接觸機雷 1개를 제거하였다.

12월6일 :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들인 제5航空隊(장, H.P. Larham 중령) 소속 VF—54機長 Paul Pugh 소령은 元山海域 상공에서 MIG—15機 1대를 擊墜하였다.

12월7일 : 第95機動部隊의 艦艇들은 元山—城津間의 交通路를 강타하였으며 西海岸의 殷栗앞 바다에 있는 席島와 椒島 近海를 警備中이던 Athabaskan號(함장, R.T. Welland 중

령)와 White Sand Bay號(함장, J. V. Brothers 소령)는 殷栗西北海岸 一帶를 砲擊하여 數個所의 砲兵陣地를 파괴하였다.

12월9일 : UN의 驅逐艦 6척은 城津—淸津의 군사시설 및 補給路를 强打하였다.

12월11일 : 제 77機動 部隊의 Valley Forge號(함장, Oscar Pederson 대령)는 興南港을 砲擊하였다.

12월13일 : 航空母艦 Sydney號의 (함장, D. H. Harries 대령) 艦載機隊는 鎭南浦地區의 敵軍事施設을 爆擊하였다.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폐허가된 淸津의 공업지대>

12월16일 : 西海岸 廣梁灣에 위치한 我軍 遊擊隊의 거점인 靑洋島에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北傀軍이 기습상륙을 하였으므로 Cossack號(함장, R.T. White대령)와 Ceylon號(함장, C.F.J.L. Davies 대령)가 支援次로 急遽 출동하였으나 時宜를 얻지 못한탓으로 同島를 喪失하게 되었다.

12월17일 : 驅逐艦 Lyman Swenson號(함장, Robert A. Schelling 중령)는 淸津地域의 補給路를 强打하였다.

12월24일 : 驅逐艦 Beauty號(함장, Means Johnson, Jr.소령)는 興南 北쪽의 海域을 경비중 海岸線의 敵情을 정찰하기 위하여 同艦의 구조용 短艇을 침투시켰다. 同短艇(장, Hugh H. Mc Creery 소위)이 탐지한 바에 의하면 해안에는 上陸阻止用 障碍物을 설치하고 해안포대를 증가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同短艇이 귀함할 무렵 敵砲臺에서 공격을 개시하므로 母艦의 5″砲를 유도하여 敵의 이 砲臺를 擊碎하고 말았다. 이뒤로부터 UN 艦艇들은 短艇을 무장시켜 海岸 깊숙히 침투케 함으로써 敵情을 파악하고 艦砲의 火力을 유도하여 目標物을 擊破하는 이른바 『Chicken Stealer 作戰』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英國 巡洋艦 Triumph號(함장, A.D. Torlesse 대령) 및 驅逐艦 Athabaskan號(함장, R.T. Welland 중령)는 鎭南浦 南쪽의 海岸砲臺 및 軍事시설을 砲擊 하였다.

12월26일 : Rocket艦 401號(함장, Melvin E. Bustard, Jr.소령)는 城津市街地에 대하여 5″砲 24발을 集中하였다.

12월28일 : 驅逐艦 Marshall號는 高城地域의 海軍砲臺를 强打하였다.

(3) 1952년 1월中의 槪況

1월1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北靑과 高原 및 元山地域의 重要補給集結所를 爆擊하였다. 한편 Australia 航空母艦 Sydney號(함장, D.H. Harries대령)의 艦載機隊는 海州와 載寧地域에 대한 空襲을 감행하였다.

1월4일 : 巡洋艦 Toledo號(함장, Richard F. Stout대령)를 비롯하여 수척의 驅逐艦들은 이날도 元山港에 砲火를 집중함으로써 敵의 補給源을 烏有로 化하게 하였다.

1월7일 : 美 重巡洋艦인 Rochester號(함장, Edward L. Woodyard대령)는 이날 高城부근의 敵陣에 9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砲擊을 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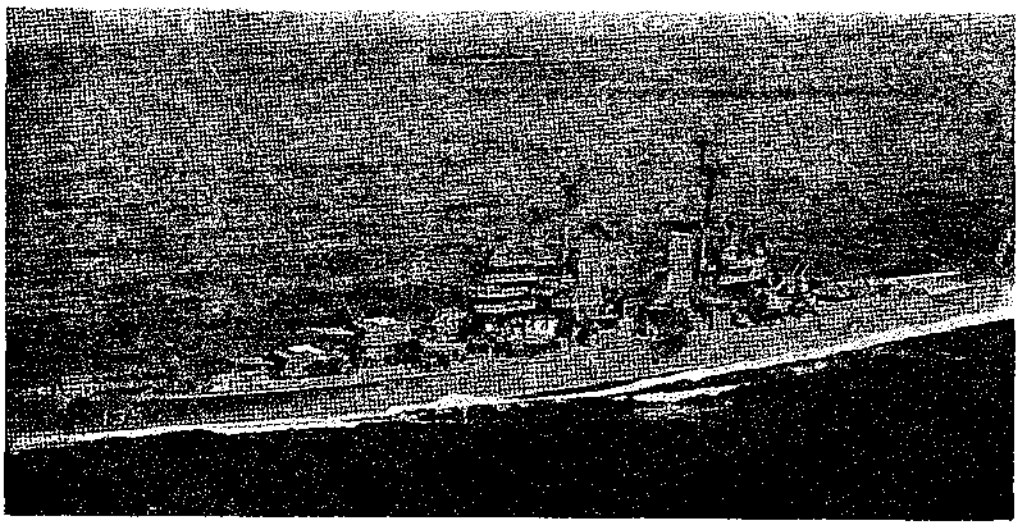
1월8일 : 제95機動部隊 사령관 G.C.Dyer소장은 同部隊의 驅逐艦 Halsey Powell號(함장, Francesco Costayliola 대령)를 CTE 95.24로써 興南海域을 경비토록 하고 同艦의 短艇을 이용한 海岸侵透를 기도하는 『Chicken Stealer』作戰을 指示하였다.

1월9일 : 第95機動部隊의 驅逐艦 Wisconsin號의 艦上에서는 UN의 陸海空 三軍代表者들이 合同하여 島嶼防禦會議를 열고 美海兵隊를 主軸으로 하는 島嶼防禦部隊를 편성함으로써 白翎島 주변의 島嶼에는 韓國海兵 2개大隊를 배치하게 되었다.

1월10일 : Netherland 驅逐艦 Van Gallen號와 美驅逐艦 Brinkley Bass號(함장, Aaron F. Beyer, Jr.중령)는 城津地區의 輸送路에 집중적인 砲火를 加하고 元山海域에서는 美驅逐艦 2척이 敵의 海岸砲臺와 熾烈한 砲擊戰을 전개하여 砲臺 1개소를 完破하였다.

1월11일 : UN艦隊는 계속하여 元山과 咸興 및 城津地區의 北傀軍事施設에 艦砲射擊을 斷行하였는데 元山港을 砲擊中이던 AM—Dextrous號가 海岸砲火로 3名이 負傷을 입기도 하였다.

한편 西海岸에서는 Cayuga號(함장. Jeffry V. Brock 대령)가 延坪島 對岸인 甕津 康翎



<東海岸에서 활동중인 巡洋艦 Los Angeles號>

里의 敵陣地에 4″砲 34發을 집중하였다.

1월13일 : 美戰艦 Wisconsin號는 高城地區의 海岸砲臺를 强打하고 驅逐艦 Holsey Powell號 (함장, Francesco Costayliola 대령)는 2척의 短艇長 Theodore Curtis 대위와 Tames Winnefeld 소위의 활약으로 興南海岸을 30分間에 걸쳐 砲擊한 결과 同海岸의 堤堰을 破壞하고 정박중인 Boat를 擊沈시켰다.

1월14일 : 英國의 輕巡洋艦 Ceylon號(함장, C.F.J.L.Davies 대령)는 黃海道 鎭南浦 부근의 敵砲臺를 砲擊하고 Canada驅逐艦 Athabaskan號(함장, R.T. Welland 중령)는 東海岸 城津地區 鐵道 交叉點을 파괴하였다.

1월15일 : UN艦隊는 이날도 元山—興南—城津의 3개 지역을 砲擊하여 수송로와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敵의 후방을 강타하였다.

1월16일 : 驅逐艦 Cayuga號(함장, Jeffry V. Brock 대령)는 城津海城을 封鎖하고 敵砲臺에 대한 集中攻擊을 계속하였다.

1월19일 : Canada 驅逐艦 Athabaskan號(함장, R.T. Welland 중령)는 12일부터 이날까지 興南—城津間의 交通路에 4″砲 1,292발의 集中洗禮를 加하였다.

또한 Halsey Powell號(함장, Francesco Costayliola 대령)는 興南近海를 警備중 花島의 동굴입구에서 탄약운반 작업중이던 敵 10여명을 발견하자 곧 艦砲 2發을 集中하여 모두 射殺하였으며 興南港에서 花島로 武器 및 식량을 수송중인 대형 木船 1척을 발견 즉시로 擊沈시켰다.

1월20일 : UN艦隊는 계속해서 元山과 興南 및 城津港의 敵 軍事 목표물에 艦砲射擊을 단행 하였다. 한편 興南과 花島海域을 封鎖中인 驅逐艦 Holsey Powell號는 西湖津의 4개 해안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즉시 5″포로 應射하여 30분 뒤에는 이포대를 擊破하였다.

이날 西湖津 해안에 침투한 同艦의 短艇보고에 의하면 西湖津의 가옥이 全破되고 정박중이던 소형선박 1척이 沈沒하고 1척이 破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월22일 : UN艦隊는 이날도 계속하여 東海岸의 여러 港灣과 輸送路를 강타하였으며 Holsay Powell號는 CTE 95.24의 임무를 완료하고 修理 및 整備次 日本의 Saseho 港으로 回航 하였다.

1월27일 : UN 艦隊는 高城北쪽의 敵陣과 鎭南浦 附近의 軍事上의 要衝點을 强打하였다.

1월30일 : UN艦隊는 東海岸의 城津港과 西海岸의 海州地域에 각각 砲擊을 實施하였으며 第95機動部隊의 驅逐艦 Holsey Powell號는 修理를 完了하고 同艦의 短艇 2隻에 3.5″바주카砲와 75mm 무반동총을 각각 보강하고 이날 오후에 興南海域에 진출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4) 2월중의 概況

2월1일 : 西海封鎖戰隊의 艦艇들은 甕津半島에 砲火를 집중하였다.

2월2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興南의 敵 비행장을 공습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滑走路 3개소를 폭파하였다.

2월3일 : 美驅逐艦 Porterfield號는 西海岸의 椵島近海를 경비중 對岸에 있는 月沙里의 敵 砲臺에서의 火力으로 輕微한 損傷을 입었으나 계속 同海域을 遮斷하면서 경비에 임하였다.

2월6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鎭南浦에 대규모의 空襲을 감행하였으며 興南海域을 경비중인 Halsey Powell號는 同艦의 短艇을 海岸에 接近시켜 偵察중 敵海岸砲에서의 火力으로 승조원 1명이 負傷을 입었다. 이 負傷兵은 이날 22.00에 東海封鎖戰隊(사령관, C.F. Crombe 대령)의 Twining號(함장, M.C. Osborne 중령)에 의하여 後送되고 同艦은 계속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2월10일 : UN艦隊는 元山海域을 强打하고 西海에서는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가 甕津半島를 爆擊하였다.

2월15일 : 호주 驅逐艦 Bataan號(함장, W.B.M. Marks 중령)는 西海岸 豊川의 敵海岸砲臺를 强襲하였다.

2월16일 : 驅逐艦 Rowan號(함장, Alan R. Josephson 중령)와 Twining號(함장, M.C. Osborne 중령) 및 Gregory號는 이날도 계속하여 元山海域에 대한 遮斷과 경비에 任하고 同海岸의 補給路를 포격하였다.

2월17일 : 掃海艦 Murrelet號는 興南—遮湖間의 해역경비에 임하면서 주로 北傀의 機雷敷設을 저지하였다. 遮湖 南쪽 9km 海上에서 敵의 武裝 三板船을 발견하자 즉시 20mm 砲로 위협사격을 加하여 승조원 6명을 捕虜로 하고 三板船은 曳引하였다. 이것으로 추측컨대 敵은 海岸에 가까운 水路를 통하여 소규모 수송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였다. 이에 同艦의 短艇에 중위 W.F.Gillen외 8명을 武裝시켜 활동케함으로써 이날 午後에 洪原에서 西北쪽으로 3.5 mile 떨어진 해상에서 6척의 三板船을 鹵獲하고 擊沈 1척, 捕虜 26명, 射殺 5명의 戰果를 거두었으나 我軍도 戰死 1명, 負傷 2명의 損失을 보았다.

2월19일 : 이날 13.30 洋島(城津近海)에 敵 250여명이 36척의 三板船에 分乘하여 기습하였다. 이때에 同島 近海를 경비중이던 Shelton號(함장, Stephen W. Carpenter 중령)와 Taupo號(함장, K.A. Cradock Hartoff 소령) 및 Endicott號(함장, L.W. Barnard 대령)가 北傀 上陸軍을 砲擊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쳐 86명이 해안線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洋島 수비대인 한국 해병이 이를 맞아 싸워서 射殺80명 負傷6명의 戰果를 거둠으로써 이 敵을 무난히 격퇴하였다. 한편 明川海域의 小島嶼에도 15척의 敵 三板船이 上陸을 企圖하였으나 Taupo號와 Shelton號에 의하여 그중 10척이 擊沈되고 5척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戰鬪로 말미암아 Taupo號의 機關室이 敵彈에 被擊되기도 하였으며 Shelton號는 負傷 15명의 損失을 보았다.

(5) 3월中의 概況

3월2일 : 航空母艦 Glomer號의 艦載機隊는 平壤 西南쪽의 海岸砲臺에 공습을 加하여 이를 擊滅하였다.

3월3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元山 南쪽의 敵陣을 掩襲하여 건물 29棟을 파괴하였으며 야간공습으로 도합 10棟의 건물을 炎上케 하였다.

3월5일 : 元山海域에서 掃海作戰을 수행중이던 掃海艦 Pelican號와 Curlew號는 이날 葛麻半島의 敵砲臺로 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兩艦은 煙幕機를 사용하여 回避機動을 실시하면서 損失없이 作戰을 계속하였다.

3월10일 : 美海軍 驅逐艦隊는 이날도 鎭南浦 海域一帶를 차단경비하면서 對岸의 여러 要衝地를 强打하였다.

3월13일 : 巡洋艦 Manchester號(함장, Lewis S. Parks 대령)를 비롯하여 驅逐艦 James E. Keys號(함장, Fran M. Christiansen 중령)와 Douglas H. Fox號 및 Mac Ginty號는 城津海域에서 封鎖작전중 敵 海岸砲로부터 攻擊을 받았으나 즉시 第77機動部隊와 합세하여 이를 擊滅하였다.

3월16일 : 美海軍 當局의 發表에 의하면 戰艦 Wisconsin號가 端川海岸에서 敵砲火에 被擊되어 輕微한 損傷을 입고 3명의 승조원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곧 修理하고 경비를 계속하였다고 밝혔다.

3월17일 : Wisconsin號는 계속하여 端川近海의 敵陣을 砲擊하였으며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東北海岸의 重要地點을 强襲하여 141개소의 철도를 절단하였다.

3월20일 : UN艦隊는 계속하여 東西 兩海域에서 封鎖作戰을 감행하였는데 이날 驅逐艦 Brinkley Bass號(함장. Aron F. Beyer, Jr.)와 Wiltsie (DD--716)號가 敵火로 말미암아 가벼운 損傷을 입기도 하였다.

3월21일 : 이날도 東西兩海岸에서 UN艦載機隊가 눈부시게 활약하는 가운데 掃海艦 Osprey 號는 약간의 損傷을 입었다.

3월24일 : 이날 西海를 封鎖中인 UN艦艇들은 暴風雨를 무릅쓰고 鎭南浦一帶의 敵陣을 攻擊하였으며 元山海域에서는 Brinkley Bass號가 敵과 砲擊戰을 전개한끝에 타격을 加했으나, 同艦도 中央部에 직격탄이 명중되어 重傷 1명과 輕傷 4명의 손실을 보았다.

3월25일 : 이날 UN艦隊는 西海岸의 定州—新安州間의 輸送路에 대대적인 空襲을 加하였다 同空襲에는 161대의 戰鬪機 호위아래 307대의 戰爆機가 참가하여 同地域의 補給路를 수리 불능토록 擊破하였으나 北傀는 6일후에 다시 이를 補修하여 輸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3월26일 : UN의 艦載機隊는 西海岸의 延安 西南쪽 北傀軍 집결지를 强襲하여 潰滅的인 打擊을 加하였다.

14. 空軍의 補給路 遮斷作戰 (1951년 12월 10일부터 1952년 3월 2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0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총참모장		소장	金貞烈	제12전투비행대대 장 대리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德昌		대위	尹應烈	
제10전투비행전대	장	대령	金信		(소령	52.3.1)	
제11전투비행대대	장	소령	金斗萬	제14전투비행대대 장	소령	田鳳熙	

나. 작전 전의 개황

1951년 敵의 春季 제2차공세를 粉碎한 UN軍은 이해 8월부터 夏季 및 秋季공방전에서 東部前線 일대를 확보하였으며 이해 11월 26일에는 沙飛里—薪炭里—松亭—金城—德山里—板門店—臨津江口線에서 敵과 對陣中이었다.

그러나 敵은 前線으로의 보급품 수송을 不斷히 계속하므로 韓國空軍과 UN空軍은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의 보급로를 강타하고 있었는데,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준장)의 제10전투비행전대(장, 金信대령)는 智異山地區의 제2차 지원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東海岸地區의 보급로 遮斷작전을 중단하고 江陵(K—18) 基地로부터 泗川基地로 이동해서 후방에서 殘敵을 격멸하는 軍營 합동작전을 지원타가 空本作命 제39호에 의거하여 이해 12월 7일 12.00까지 다시 江陵基地로 復歸하는 즉시로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元山地區의 보급로 遮斷 작전을 担擔하였다.

또한 전투비행전대는 空本作命 제40호에 의거하여 이달 19일 14.00까지 江陵에서 鎭海(K—10) 基地로 이동하여 智異山地區의 제3차 지원작전을 끝내고 空本作命 제41호에 따라 이달 27일 16.00까지 다시 江陵基地로 前進하여 이달 30일부터 다음해인 1952년 3월 26일까지 元山—黃州地區의 차단작전에 參加하게 되었다.

다. 작전 경과의 개요

1951년 12월 10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金斗萬소령 외 14명의 조종사와 美空軍 조종사 Lagro대위는 元山地區의 보급로 차단에 대한 작전 Briefing을 받은 다음 출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이날 14.45에 江陵(K—18) 基地를 離陸한 F—51

(Mustang)전폭기 8대가 雲天을 무릅쓰고 淮陽 일대로 출격하여, 敵의 철도와 砲陣地를 비롯해서 군용건물 및 防空壕에 폭탄과 Rocket탄을 집중하고 機銃洗禮로 爆破口를 열어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놓은 첫 편대의 뒤를 이어 元山—淮陽—安邊—縣里—昌道등 元山地區 일대에 계속 출격한 결과 이달 18일까지 도합 130機로서 철도와 砲陣地를 폭파하고 보급품 集積所와 군용건물 및 牛馬車등을 燒夷하는 한편 敵을 爆殺함으로써 그 前線勢力을 위축시켰다.

이와같은 보급로 遮斷 작전에 이어 출격基地를 옮기면서 후방의 殘敵격멸 지원작전(참조 : 智異山地區의 殘敵격멸 지원작전)을 끝마치게 된 전투비행전대는 이해 12월 30일부터 본격적인 보급로 遮斷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출격지역이 확대되어 元山地區를 비롯하여 東部前線에 이르는 보급로 뿐만 아니라 中西部前線의 黃州地區까지 보급로에 遮斷폭격을 단행하면서 陣地 폭파도 아울러 병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투비행전대장 金 信대령外 26명의 조종사와 美 空軍 조종사 Lagro대위와 1명은 출격 준비를 완료하고 12월 30일 09.55에 江陵(K—18)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Mustang) 전폭기 첫 편대의 뒤를 이어 3개 편대가 市邊里—黃州 일대에 출격하여 폭격을 단행하고 다음해인 1952년 1월 7일까지 市邊里—伊川—沙里院—黃州의 보급품 集積所와 군용건물을 燒夷하는 동시에 철도와 砲陣地를 폭파하였다. 뒤 이어 다음 날인 8일부터 12일까지는 下里洞—伊川—元山—平壤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 및 機銃 洗禮를 퍼부어 그 대일를 뒤흔들어 놓았고,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는 金城—淮陽—伊川—平壤 東南쪽 勝湖里 일대에 출격하여 철도와 貨物車輛을 비롯한 철교와 砲陣地를 폭파하고 보급품 集積所와 군용건물을 燒却시켰다.

또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는 목표지역의 날씨가 고르지 않아 전투비행전대는 출격을 中止하고 泗川基地에서 加一層의 전투기술을 연마한 다음, 江陵(K—18) 基地로 복귀하여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東部前線의 元山地區를 비롯하여 中部前線의 市邊里 일대와 西部前線의 黃州地區에 對한 보급로 遮斷폭격을 계속 하였다.

1952년 1월 11일 金斗萬 소령은 韓國空軍의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100회 출격을 記錄하였고 이달 15일에는 UN空軍이 끝내 폭파하지 못한 勝湖里 鐵橋를 玉萬鎬대위와 俞致坤중위가 이끄는 2개의 F—51 전폭기 편대로 이에 爆彈과 Rocket彈을 집중하여 完破함으로써 사용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2월 2일 美 제5공군 사령관 Frank F. Everest중장은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에게 보낸 公翰에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52년 1월 14일까지 도합 819회의 유효 출격과 이에 따른 多大한 전과에 대한 讚揚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反面에 가슴 아픈 事緣도 있었으니, 즉 지난해 12월 15일 辛鐵洙대위가 金城北쪽 下里洞 상공에서 敵의 砲陣地를 爆擊中 對空砲火로 말미암아 그 목표에 돌입하여 장렬한 자폭으로써 최후를 마쳤으며 1952년 1월 3일에는 李日泳소위가 金城 北쪽 昌道里 상

공에서 敵의 陣地에 爆彈을 집중타가 對空砲火로 散華하였을 뿐 아니라 3월 12일에는 鄭重岩소위가 敵의 보급로를 遮斷코자 基地를 離陸하여 출격중 예기치 못한 機體의 고장으로 江陵 北쪽 상공에서 전사하는 不祥事를 맞기도 하였다.

期間中의 출격에 있어서의 목표지역의 氣象은 大體로 양호하여 작전 수행에 支障이 없었다.

(1) 元山地區의 敵 보급로 遮斷作戰

12월 10일 : 이날 09. 40부터 元山地區의 敵 보급로를 차단코자 江陵(K—18)基地를 離陸한 8대의 F—51전폭기는 편대장 金斗萬 소령(2번기 朴完圭 중위, 3번기 金錦成 대위, 4번기 朴在浩 대위, 5번기 辛鐵洙 대위, 6번기 孫興俊 중위, 7번기 鄭周良 대위, 8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元山 東南쪽 6km인 松岡里—蟹川里 상공으로 출격한 다음 철로에 폭탄 16발과 Rocket탄 26발의 집중으로 이를 사용不能토록 만들어 놓는 한편 敵의 集結地로 판단되는 목표에 機銃 洗禮 3,000발을 퍼부어 군용건물 2棟을 全破하는 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어 이날 14. 45에 金斗萬 소령이 이끄는 8대의 F—51 전폭기 편대는 오전에 출격하였던 元山 東南쪽의 蟹川里—松山里 부근의 목표에 대하여 폭탄 16발과 Rocket탄 30발을 集中함으로써 철로 6개소를 폭파하고 橋梁 1개소를 完破하였을 뿐 아니라 敵陣에 도합 4,000발의 機銃 洗禮를 加하였다.

12월 11일 : 이날 09. 3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 (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辛鐵洙대위)는 편대장 姜鎬倫소령의 지휘로 元山 東南쪽 9km에 있는 泉陽里로 출격하여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을 집중하여 철로 4개소를 폭파하였으며 平地洞 西北쪽 9km에 있는군용건물에 도합 4,000발의 機銃掃射를 加한결과 그중 3棟을 사용不能토록 하였다.

한편 제1편대의 뒤를 이어 4臺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金斗萬소령 (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을 先頭로 安邊 東北쪽 6km의 梧溪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군용건물 12棟을 全破하고 元山 東南쪽 8㎞의 蟹川里 철로에 폭탄을 집중한 결과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機首를 南西쪽으로 돌려 平地洞 西北쪽 8km에 있는 敵의 陣地에 폭탄과 機銃으로 건물 1棟을 全破하고 1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출격에서 폭탄 8발과 Rocket 탄 15발을 비롯하여 機銃 5,000발을 使用하였다.

또한 이날 15. 00에는 오전과 같이 姜鎬倫소령이 이끄는 4대의 F—51 제1편대가 元山 東南쪽 3km에 있는 見山里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投下해서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平地洞 西北쪽 8km에 있는 敵의 陣地에 도합 4,000여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건물 2棟을 全破하고 5명을 사살 하였다.

또 15. 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金斗萬소령의 지휘로 元山 東

南쪽의 6km 松山里와 平地洞 西北쪽 8km에 있는 敵陣地의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비롯하여 도합 5,000발의 機銃掃射로써 見山里의 철로 3개소를 차단하고 敵의 건물 3棟을 完破하였으며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全燒시키는 등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16.20과 16.45에 각각 귀착하였다.

12월 12일 : 이날 10.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편대장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朴完圭중위)를 先頭로 金城 일대와 元山 東南쪽 4km의 新里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비롯해서 3,000발의 機銃洗禮로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敵의 건물 3棟을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 10.15에 출격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辛鐵洙대위(2번기 朴在浩대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羅昌俊 대위)의 지휘로 金城과 元山 西南쪽 7km인 南坪里에 있는 敵陣地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3,000 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砲陣地 1개소를 完破하고 군용건물 3棟을 全燒케 하였다.

또한 이날 14.15에 基地를 離陸한 4臺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의 지휘로 元山 상공으로 출격하여 松山里—蟹川里—水項里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5,000발의 機銃掃射로써 그 일대의 철로와 敵의 陣地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제2편대의 F—51 전폭기 4대도 辛鐵洙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徐商純소위)를 先頭로 元山 東南쪽 7km인 松岡里—新里 부근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4,0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킨 다음 15.40과 15.45에 각각 基地에 귀착하였다

12월 13일 : 이날 09.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의 지휘로 淮陽 西南쪽 4km인 下里洞에 있는 敵陣地로 출격하여 폭탄 4발과 Rocket탄 8발을 비롯 40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군용건물 1棟과 트럭 1대를 全破하였을 뿐 아니라 元山 東南쪽 4km에 있는 地境里 철로에 폭탄 4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여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05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辛鐵洙대위 (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羅昌俊대위)를 先頭로 淮陽 西南쪽 4Km인 下里洞에서 敵의 陣地와 元山 東南쪽의 蟹川里 철로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3,000발의 機銃을 집중하여 건물 2棟을 全破하고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3.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朴完圭중위)의 지휘로 淮陽 西南쪽 4km인 新里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2,5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건물 2棟을 全燒하는 한편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이어 13.05에 출격한 제2편대의 F—51 전폭기 4대도 辛鐵洙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先頭

로 敵의 對空砲火가 飛飛하는 下里洞—新里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5,000발의 機銃 洗禮를 집중하여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는 동시에 건물 2棟을 燒却시키는 한편 철로 3개소를 폭파하니 그 일대는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는 修羅場으로 변모하였다.

12월 14일 : 이날 09.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鄭周良대위(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金城—淮陽—元山上空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4발과 機銃掃射 2,500발을 퍼부어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시키는 한편 철로 2개소를 절단하여 보급수송을 不能케 하였다.

또 제1편대의 뒤를 이은 4대의 F—51 전폭기 편대장 李基陝대위 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朴完圭중위는 淮陽—元山 상공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비롯하여 機銃掃射 2,500발로써 下里洞에 있는 砲陣地 2개소와 군용건물 2棟을 完破하고 元山에 있는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40에 辛鐵洙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羅昌俊대위)가 지휘하는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淮陽 西南쪽 4km인 下里洞과 元山 東南쪽 9km인 泉陽里 상공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投下하고 機銃 3,000발을 퍼부어 下里洞의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군용건물 2棟을 全燒시키는 한편 泉陽里의 철로 2개소를 절단하여 사용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이어 14.05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의 先頭 지휘로 淮陽 西南쪽 4km인 下里洞과 元山 東南쪽 7km인 蟹川里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1발과 3,000발의 機銃掃射로 下里洞의 砲陣地 1개소와 防空壕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과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시켰을 뿐 아니라 蟹川里의 철교 1개소를 폭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2월 15일 : 전날에 이어 이날 09.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朴在浩대위,)를 先頭로 淮陽 西南쪽 4km의 下里洞과 元山 南쪽의 新里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1,000발의 洗禮를 퍼부어 下里洞의 군용건물 2棟을 燒却시타고 新里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0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孫興俊중위,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下里洞—蟹川里 상공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投下하고 3.000발의 機銃掃射로써 下里洞의 敵 건물 3棟을 全燒하는 한편 15명을 사살하고 蟹川里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여 사용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3.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편대장 辛鐵洙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羅昌俊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元山 東南쪽 6km의 松

山里 상공에서 철로에 폭탄 4발과 Rocket탄 8발의 집중으로 철로 1개소를 폭파한 다음 機首를 南쪽으로 돌려 淮陽 西南 4km인 下里洞에 있는 敵 陣地를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해서 機銃洗禮를 加하고 있을 때 1번기 辛鐵洙 대위가 애석하게도 敵의 對空砲火를 목표로 돌입한채로 장열하게 戰死하자 편대장을 잃은 3대는 砲火가 飛散하는 목표에 急降下하면서 폭탄 4발과 Rocket탄 8발을 投下하고 2,000발의 機銃掃射로써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말았다.

또한 13.50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를 先頭로 下里洞—松山里 공상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4발과 機銃 5,000發로 下里洞의 敵 건물 5棟을 全燒시키고 松山里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12월 16일 : 이날 05.4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장 鄭周良대위(2번기 朴在浩대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金 信대령)를 先頭로 淮陽 西南쪽 4km의 下里洞과 元山 東南쪽 3km의 地境里 上空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2,000발을 퍼부어 下里洞의 敵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군용건물 1棟을 全燒시키는 한편 地境里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여 수송不能케 하였다.

이어 11.45에 출격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2번기 金錦成대위, 3번기 羅昌俊대위)의 지휘로 淮陽—化川里—元山 상공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3,000 발의 機銃掃射로 淮陽의 敵 건물 4棟을 全燒하고 10명을 사살하였으며 化川里의 砲陣地 1個所를 폭파하고 元山地區의 철로 3개소를 절단 시켰다.

한편 이날 14.2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先頭指揮로 下里洞—松山里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4,500발의 機銃을 집중해서 下里洞의 砲陣地 1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1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全燒시키는 한편 松山里의 철로를 강타하여 사용不能케 하였다.

이어 이날 15.05에 출격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姜鎬倫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李基陝대위)의 지휘로 下里洞—新里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고 2,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下里洞의 砲陣地 2개소를 完破하고 군용건물 1棟을 燒却시키는 한편 新里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2월 17일 : 이날 09.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의 지휘로 金谷里와 新高山 東南쪽 12km에 있는 敵 陣地를 비롯 蟹川里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5,000발을 퍼부어 金谷里의 군용건물 2棟을 燒却시키고 新高山 일

대에 있는 보급물품 집적소 1개소를 全燒시키는 한편 機川里의 철로 2개소를 단절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 09.0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孫在穗중위)를 선두로 元山 東南쪽 4km 떠러진 春山里 철로와 敵의 陣地로 출격하여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機銃 2000발로써 목표를 强打하니 철로 1개소와 군용건물 1棟이 폭파되고 그일대는 삽시간에 불 바다로 변모하였다.

한편 이날 13.10에는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가 基地를 離陸하여 편대장 玉滿鎬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의 지휘로 安邊—元山의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掃射 4,500발을 퍼부어 安邊 西北쪽 3km에 있는 砲陣地와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한편 元山의 松山里 철로 4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3.25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金斗萬소령 (2번기 金錦成대위, 3번기 李日泳소위, 4번기 朴完圭중위)의 先頭 지휘로 元山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5,000발을 목표에 집중해서 蟹川里의 砲陣地 7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6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全燒시키는 한편 松山里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2월 18일 : 이날 09.0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3번기 朴在浩대위)를 先頭로 金城 北쪽과 元山 東南쪽 6km의 松山里 상공에서 各目標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3,500발을 집중해서 金化地區의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고 군용건물 7棟을 全燒시키는 한편 松山里의 砲陣地 1개소와 철로 2개소를 각각 폭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 09.05에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의 지휘로 淮陽—元山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 淮陽 西南쪽 4km의 下里洞에 있는 군용건물 4棟을 完破하고 18명을 사살하는 한편 元山 東南쪽 6km의 松山里 철로4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20에 출격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孫在穗중위)의 지휘로 淮陽—元山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000발로써 下里洞의 敵건물 2棟을 全破한 다음 新里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여다.

또 13.25에 離陸한 4대의 F—51(Mustang) 전폭기는 편대장 玉滿鎬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羅昌俊대위)의 先頭지휘로 安邊—元山 상공에서 목표에 急降下폭격으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4,000발의 집중으로써 安邊의 永春里—飛雲里—新基里에 구축한 砲陣地 6개소를 全破하는 한편 元山 東南쪽 蟹川里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元山地區의 敵보급로 遮斷작전을 이날로써 매듭지었다. (참조

智異山地區의 제3차 지원작전)

(2) 元山—黃州地區의 敵 보급로 遮斷作戰

(가) 12월중의 活動狀況

12월 30일 :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智異山地區의 지원작전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元山—黃州에 이르는 敵의 보급로 遮斷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이날 09.55에 江陵(K—18)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폭격기 제1편대가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기번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市邊里—黃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가 난비하는 목표에 進入하여 폭탄 8발을 투하하고 Rocket탄 14발과 500발의 機銃을 집중하여 市邊里 東쪽의 건물 2棟을 完破하고 黃州 北쪽 7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00에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朴在浩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俞致坤중위)를 선두로 市邊里—黃州 상공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목표에 집중하고 機銃 7,000발로 市邊里의 敵 건물 1棟을 폭파하고 黃州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한 다음 귀환하였다.

한편 14.05에 출격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陜대위(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孫在權중위)를 先頭로 敵의 對空砲가 咆哮하는 市邊里—黃州 상공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1,500발로써 市邊里 東쪽에 있는 敵의 건물 4棟을 全燒케하고 黃州 北쪽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4.05에 출격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 대위)지휘로 市邊里—黃州 상공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고 機銃 2,100발을 퍼부어 市邊에 있는 건물 3棟을 完破하고 나머지 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을 뿐 아니라 黃州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나) 1月中의 活動狀況

1952년 1월 1일 : 지난해 12월 31일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中止하였다가 새해 첫날 10.00에 基地를 離陸한 6대의 F—51(Mustang)전폭기 편대는 金斗萬소령 (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李日泳소위, 5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6번기 朴在浩대위)의 지휘로 新高山—市邊 상공으로 출격하였는데 이때 朴在浩대위가 조종하는 6번기의 Engine고장으로 말미암아 中途에서 基地로 귀환하고 나머지 5機가 목표에 폭탄 10발과 Rocket탄 19발을 집중하는 한편 機銃掃射 3,000발로 新高山 西南쪽 19km인 檜田里의 敵 건물 3棟을 完破하고 市里 西南쪽 8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4.20에 출격한 5대의 F—51 전폭기는 玉滿鎬대위(2번기 羅昌俊대위, 3번기 李基陜대위, 4번기 俞致坤중위, 5번기 孫在權중위)의 指揮로 金城—黃州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20발과 도합 5,500발의 機銃 洗禮를 퍼부어 金城의 敵 건물 8棟을 完破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은 다음 黃州 北쪽 12km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여 敵의 보급수송을 지연시켰다.

1월 2일 : 이날 09.45에 基地를 離陸한 7대의 F—51(Mustang) 전폭기는 玉滿鎬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李基陜대위, 5번기 羅昌俊대위, 6번기 孫在權중위, 7번기 俞致坤중위)의 선두지휘로 金城—市邊里—黃州 상공에 이르렀을 무렵 俞致坤중위가 조종하는 7번기가 Engine고장으로 임무 수행을 斷念하고 귀환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6대는 계속 活動을 展開하여 폭탄 11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9발과 機銃 5,500발의 집중으로써 金城—市邊里 南쪽의 건물 8棟을 全破하는 한편 黃州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3.33에 離陸한 4대는 F—51전폭기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俞致坤중위)의 지휘로 金城—黃州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가 亂飛하는 목표에 進入하자 곧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3,000발의 機銃掃射로 金城의 敵 건물 1棟을 完破하고 3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을 뿐 아니라 黃州 北쪽 3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1월 3일 : 이날 09.55에 基地를 離陸한 5대의 F—51전폭기는 편대장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5번기 羅昌俊대위)의 지휘로 金城—黃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9발과 6,000발에 달하는 機銃 洗禮로써 金城의 철로 砲陣地 1개소를 完破하고 黃州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黃州 北쪽 12km에 있는 敵의 건물 6棟을 完破하였다.

또 이날 14.20에 출격한 5대의 F—51전폭기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孫在權중위, 5번기 孫興俊중위)의 선두지휘로 金城—黃州 상공에서 폭탄 10발과 Rocket탄 20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4,000발로써 金城의 砲陣地 3개소를 燒却시켰을 뿐아니라 黃州地區의 敵 建物 6棟을 完破하고 철로 1개소를 强打하여 수송 不能토록 하였다.

1월 4일 : 이날 제10전투비행전대(장, 金 信대령)所屬인 F—51(Mustang) 전폭기들은 自體 정비요원들로 부터 作戰 遂行에 만전을 期하기 위하여 機體의 정비와 점검을 받았다.

1월 5일 : 이날 09.10에 基地를 離陸한 5대의 F—51전폭기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5번기 俞致坤중위, 5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伊川—黃州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4,000발을 퍼부어 伊川에 있는 敵砲陣地와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完破하고 黃州 北쪽 6km의 철로 5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敵의 군용건물 5棟을 燒却시켰다.

또 이날 13.20에 출격한 6대의 F—51 전폭기 편대는 玉滿鎬대위 (2번기 田鳳熙대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尹應烈대위, 5번기 周永福대위)를 先頭로 淮陽—黃州 상공에서

폭탄 12발과 Rocket탄 21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6,000발로써 淮陽의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黃州로부터 北쪽 6km에 이르는 철로 4개소를 强打하여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1월 6일 : 전날에 이어 이날 09.50에 基地를 離陸한 6대의 F—51전폭기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張星太대위, 5번기 李基陝대위, 6번기 田鳳熙대위)의 선두지휘로 淮陽—黃州에서 폭탄 12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23발과 機銃 5,000발을 퍼부어 淮陽 東北쪽 8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3개소를 全破하고 건물 5棟을 燒却시키는 한편 黃州 北쪽 2km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50에 離陸한 5대의 F—51 전폭기 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周永福대위, 5번기 尹應烈대위)를 선두로 敵의 對空砲가 亂飛하는 淮陽—黃州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10발과 Rocket탄 18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6,000발로써 淮陽의 敵砲陣地를 폭파하는 한편 군용건물 6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으며 黃州 西南쪽 14km의 철로 3개소를 遮斷하여 敵의 前線보급을 妨害하였다.

1월 7일 : 이날 08.4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金斗滿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3번기 周永福대위)의 지휘로 淮陽—沙里院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가 熾烈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 16발과 機銃 3,000발을 퍼부어 건물 7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燒却시키는 한편 20명을 射殺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 제1편대의 뒤를 이어 출격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의 선두지휘로 淮陽—黃州상공에서 폭탄 8발과 Rocket 砲 및 機銃掃射 4,000발로써 淮陽부근의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6棟을 全燒하는 한편 黃州 北쪽 8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0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Mustang)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田鳳熙대위)를 선두로 淮陽—黃州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2,000발을 퍼부어 淮陽의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3棟을 全燒시켰으며 黃州 北쪽 3km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의 뒤를 이어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尹應烈대위(2번기 張星太대위, 3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淮陽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 그리고 機銃 3,800발을 집중해서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3棟을 全破하는 한편 Bunker 1개소를 폭파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월 8일 : 이날 09.10에 基地를 離陸한 5대의 F—51 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田鳳熙대위, 4번기 尹應烈대위, 5번기 張星太대위)의 지휘로 淮陽—黃州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가 비래하는 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20발과 機銃 4,000발

을 집중해서 淮陽 부근의 敵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完破하고 Bunker 2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黃州로부터 北쪽 5km에 이르는 철로 3개소를 强打하였을 뿐 아니라 군용건물 5棟을 全燒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 이날 13.55에 출격한 5대의 F—51 전폭기 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周永福대위, 5번기 李基陜대위)가 선두로 淮陽—沙里院 線에서 폭탄 10발과 Rocket탄 19발을 집중하고 機銃 도합 8,000발을 퍼부어 철로 遮斷 3개소를 비롯하여 砲陣地 8개소를 完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3개소를 全燒시키는 한편 건물 3棟을 全破하였다.

1월 9일 : 이날 09.5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俞致坤대위, 3번기 張星太대위)를 선두로 淮陽—元山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4,500발로써 淮陽의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3棟을 全破하였으며, 元山 南쪽 6km의 철로 1개소를 强打하고 Bunker 4개소를 全破하였다.

이어 09.55에 출격한 3대의 F—51(Mustang) 전폭기 제2편대는 金斗滿소령(2번기 李日泳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의 지휘로 淮陽—元山線에서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5,000발을 집중해서 淮陽 南쪽 4km인 下里洞에 있는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군용건물 5棟을 全燒시켰으며 元山 南쪽 6km의 철로 1개소와 아울러 Bunker 1개소를 폭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날 이 공격중에 2번기 李日泳소위가 下里洞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彈으로 장열한 最後를 마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불멸의 수호신이 되었으며 3번기인 金錦成대위의 愛機도 尾部에 被彈된 채 生死를 함께 맹세하였던 한 戰友를 잃고 울분을 참으며 2機만이 나란히 귀착하였다.

한편 이날 13.20에 출격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玉滿鎬대위(2번기 周永福대위 3번기 李基陜대위, 4번기 田鳳熙대위)를 선두로 元山 南쪽 6km의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2,500발의 機銃掃射로써 砲陣地 3개소를 폭파하고 철로 3개소를 强打하였다.

1월 10일 : 이날 아침부터 세찬 눈보라 때문에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출격을 일단 중지하고 連日 계속된 出動에서의 自體정비를 强化하였다.

1월 11일 : 이날 10.25에 基地에서 출격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金斗滿소령(2번기 張星太대위, 3번기 金錦成대위)의 지휘로 淮陽—元山으로 출격하여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3,500발을 집중해서 淮陽 부근에있는 보급품 集積所를 燒夷하고 砲陣地 1개소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元山 南쪽 6km의 철로 3개소를 强打하는 한편 敵의 군용건물 3棟을 完破하고 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0.30에 출격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를 선두로 淮陽—元山으로 출동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고

3,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켰으며 철로 3개소를 폭파하여 보급수송에 쐐기를 박아 놓았다.

한편 이날 13.50에 출동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田鳳熙대위, 3번기 鄭周良대위)를 선두로 淮陽—元山으로 출격하여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1발과 機銃掃射 1,700발로써 淮陽부근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시키고 건물 3棟을 完破하는 한편 元山 南쪽 5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여 수송 不能토록 하였다.

이어 이날 13.50에 출격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편대장 尹應烈대위(2번기 周永福대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淮陽에서 敵의 對空砲火가 熾烈한 일대에 폭탄 6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고 機銃 3,000발을 퍼부어 砲陣地 2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3棟을 燒却시켰다.

1월 12일 : 이날 07.40에 基地를 離陸한 6대의 F—51(Mustang)전폭기는 편대장 金斗萬소령(2번기 張星太대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李基陝대위, 5번기 田鳳熙대위, 6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선두지휘로 平壤 南쪽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가 일시에 불을 吐하는 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23발과 機銃 5,000발을 집중하여 平壤 東쪽 16km의 勝湖里 철교의 徑間 3개소를 폭파하고 철로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그 일대의 砲陣地 1개소와 건물 3棟을 完破하였다.

한편 이날 14.00에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周永福대위, 3번기 鄭周良대위)를 선두로 勝湖里 상공에서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고 機銃 2,000발로 强打하였다.

또한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朴在浩대위, 3번기 俞致坤중위)의 지휘로 勝湖里 上空에서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1,000발로써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 바다를 만들었다.

1월 13일 : 이날 09.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張星太대위, 4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平壤 西南쪽 25km인 大井里부근에 있는 陣地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集中하고 機銃掃射 4,500발로써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는 동시에 敵 15명을 射殺하였을뿐 아니라 橋梁 2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15에 離陸한 6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金斗萬소령(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田鳳熙대위, 4번기 周永福대위, 5번기 尹應烈대위, 6번기 鄭周良대위)의 지휘로 金城—伊川 상공에서 그 일대에 폭탄 12발과 Rocket탄 24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6,500발을 퍼부어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고 군용건물 一棟을 燒却시키는 한편 교량 1개소를 强打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날 金斗萬소령은 韓國空軍 조종사로서는 最初로 100회의 출격을 記錄하여 空軍의 눈부신 활동을 自由友邦國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1월 14일 : 이날 13.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

기 俞致坤중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張星太대위)의 지휘로 金城—淮陽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1,000발을 집중해서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燒却시켰으며 교량 1개소를 完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田鳳熙대위(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李基陝대위) 선두로 金城 北쪽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가 난비하는 목표로 進入해서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1,000발로써 砲陣地 2개소를 全破하고 건물 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월 15일 : 이날 08.25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편대장 玉滿鎬대위(2번기 兪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의 선두 지휘로 平壤 東쪽 상공에서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2,500발로써 그 일대에 있는 砲陣地와 보급품 集積所 3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平壤東쪽 16km에 있는 勝湖里 철교 2개의 徑間을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張星太대위)의 지휘로 勝湖里 상공에 출격하여 폭탄 6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200발로써 그 일대에있는 砲陣地 3個所를 폭파하고 建物 1棟을 燒却시켰을 뿐 아니라 Bunker 3個所를 폭파 하였으며 勝湖里 철교 2개의 徑間을 完破하여 사용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이 철교는 UN空軍의 戰爆機들이 延 500회 以上이나 출격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폭파하지못한 것인데 이날 玉滿鎬대위가 지휘한 제1편와 尹應烈대위가 지휘하는 제2편대 6대의 F—51전폭기로 이 철교에 폭탄과 Rocket탄을 집중하여 爆破한 것이다. 이날 13.00에 李基陝대위를 선두로 (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田鳳熙대위, 5번기 周永福대위) 勝湖里에 출격하여 폭탄 10발과 Rocket彈을 비롯하여 기총 2000發을 집중하니 勝湖里 철교는 完破되었다.

1월 16일~31일 :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Mustang) 전폭기를 16일부터 遮斷作戰을 일단 중지하고 加一層의 戰鬪技術을 鍊磨하기 위하여 泗川(K—4) 基地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비행 훈련을 끝내고 다시 이달 31일 元山—黃州地區의 敵 보급로 遮斷



<金斗萬소령의 100회 出擊 祝賀>

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江陵(K—18) 基地로 轉進을 완료하였다.

(다) 2月中의 活動狀況

2월 1일 : 이날 09.25에 江陵(K—18)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兪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安邊—元山 상공에서 16발의 Rocket탄과 2,000발의 機銃掃射를 퍼부어 安邊 東쪽 3km의 下花山里에 있는 철로 2개소와 貨物車輛 2輛을 폭파하였으며 元山 西南쪽 7km인 龍溪里의 敵 陣地를 强打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 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金錦成대위)를 선두로 安邊—元山으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가 紛飛하는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 탄16발과 機銃 4,000發을 집중해서 元山 南쪽 5km에 있는 新里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하고 보급품을 滿載한 貨物車輛 8輛을 全破하였다.

2월 2일 : 이날 07.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金錦成대위)의 선두지휘로 黃州 北쪽 상공으로 출격하여 平壤 東쪽 16km의 勝湖里 일대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400발을 집중하여 철로 1개소를 폭파하고 敵이 복구하고 있는 勝湖里 철교를 다시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兪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勝湖里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3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5,000발로써 철로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그 일대의 敵陣地를 火焰으로 휘감아 삽시간에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4.10 基地를 離陸한



<勝湖里 철교 폭파, 51. 1. 15>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李基陝대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鄭周良대위)의 지휘로 오전에 출격하였던 勝湖里 상공에 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1,500발로써 철로 2개 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4편대의 뒤를 이어 출동한 5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 (2번기 孫興俊중위, 3번기 金致坤중위, 4번기 金成龍소령)를 선두로 勝湖里 상공에서 제1편대와 合勢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1,500발로써 철로 2개 소를 폭파하고 16.05에 각각 귀착하였다.

2월 3일 : 이날 07.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朴完圭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의 선두지휘로 伊川—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2,500발을 퍼부어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敵陣地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는 한편 沙里院 南쪽 13km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07.15에 출격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白晶鉉 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金錦成대위)의 선두지휘로 谷山—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3발을 集中하고 機銃掃射 3,000발로써 谷山 東南쪽 15km에 있는 Bunker 4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4棟을 全燒시키는 한편 沙里院 西南쪽 10km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破하였다.

또한 이날 12.5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 (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沙里院 南쪽 상공에서 載寧 西쪽 4km에 있는 陣地에 폭탄 4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4발과 機銃掃射 2,000발로써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12.15에 출동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吳春睦대위)의 선두지휘로 鳳寧 상공에서 그 일대의 敵陣地를 捕捉하자 곧 폭탄 8발과 Rocket탄 12발을 비롯해서 機銃 1,500발을 퍼부어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폭파하였다.

2월 4일 : 이날 09.4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載寧상공에서 폭탄 4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8발과 3,500발의 機銃掃射로써 載寧 東北쪽 6km의 철로 1개소를 폭파하고 貨物車輛 4輛을 完破하는 한편 보급품 集積所 5개소도 燒却시켰다.

이어 09.50에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朴在浩대위(2번기 林淳鎭소위, 3번기 吳春睦대위)를 先頭로 伊川—沙里院 상공에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가 난비하는 목표에 폭탄 4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機銃 1,000발로써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으며 沙里院 南쪽 5km의 철로 4개소를 폭파하여 보급 수송을 妨害하였다.

한편 이날 14.2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伊川—沙里院 상공에서 폭탄 4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8발과 機銃掃射 1,200발로써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3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삽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고 沙里院 西南쪽 6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俞致坤중위, 4번기 鄭重岩소위)의 지휘로 載寧 상공으로 直行하여 敵의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는 貨物車輛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 4발과 Rocket탄 18발을 집중하는 한편 도합 5,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載寧 東南쪽 4km에서 貨物車輛 4輛을 全破하고 철로 4개소를 폭파한 다음 16.20에 귀착하였다.

2월 5일 : 이날 07.0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鄭重岩소위, 4번기 林淳嶽소위)의 선두 지휘로 開城—勝湖里 상공으로 急向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7발을 집중하고 5,000발의 機銃掃射로 開城 北쪽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으며 勝湖里의 철교 徑間(Span)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07.03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陝대위 (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先頭로 伊川—勝湖里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8발과 機銃 2,000發로써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건물의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2棟을 燒却시켰으며 勝湖里의 철교 徑間를 2개 强打하였다.

한편 이날 13.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伊川—勝湖里로 直向하여 폭탄 8發과 Rooket탄 8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600발로써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Bunker 1개소를 각각 폭파하고 勝湖里의 철교 1개 徑間(Span)을 强打하는 한편 철로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3.0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朴在浩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吳春陸대위)를 선두로 伊川—勝湖里 상공으로 출격하여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폭탄 6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는 한편 2,500발의 機銃掃射로써 伊川 南쪽 10km에 있는 Bunker 1개소를 폭파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 1대를 完破하였으며 勝湖里의 철로 1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각각 폭파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2월 6일 : 이날 08.0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新溪—載寧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고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는 한편 3,0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溪 東南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6개소를 全燒시켰으며 載寧 西南쪽 4km의 철로 1개소를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朴用萬소위, 4번기 裵相昊대위)의 선두지휘로 谷山—載寧—沙里院 상공으로 出動하여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3,500발을 집중해서 谷山 北쪽 10km의 군용건물 3棟을 燒却시키고 載寧 西南쪽 15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完破하는 한편 沙里院 西南쪽 10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여 敵의 보급수송을 지연시켰다.

한편 이날 12.2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朴在浩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俞致坤중위, 4번기 林淳爀소위)의 선두지휘로 新溪—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2,000발을 집중해서 新溪 東南쪽 7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4棟을 全燒시켰으며, 沙里院 南쪽 3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强打하고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李基陜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新溪—沙里院에서 敵의 對空砲가 狂飛하는 목표로 進入해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 1,500발로써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4棟을 全破하였으며 철로 2개소를 폭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이날 이 폭격에서 4번기 (白晶鉉소위)가 敵의 對空砲에 右翼이 被彈되어 한때 위태로운 비행에 당황하였으나 침착한 조정으로써 14,10에 무사히 귀착하였다.

2월 7일 : 이날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목표 상공의 氣象이 고르지 않은 탓으로 출격을 중지하고 連日 不斷하게 空中任務를 遂行한 F—51전폭기들의 機體를 점검하면서 次期 출격에 만전을 期하였다.

2월 8일 : 이날 09.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陜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谷山—沙里院 상공으로 출격하여 목표를 捕捉하고 폭탄 8발을 投下하는 한편 Rocket탄 16발과 機銃 1,200발을 퍼부어 谷山 西北쪽 5km에 있는 敵 건물 3棟을 全燒시키고 彈藥庫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彈藥庫의 爆音과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환이 그 일대를 뒤 흔들었을 뿐 아니라 沙里院 西南 10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俞致坤중위, 4번기 林淳爀소위)의 指揮로 新溪—載寧—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발로써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6棟을 全燒시키는 한편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5.0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新溪—海州에서 敵의 陣地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700발을 집중해서 新溪 東南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건물 3棟을 全破하고 海州 西南쪽 20km에 있는 철로 3개소를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吳春睦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가 이끌고 市邊里—安岳으로 直行하여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3,000발로써 市邊里南쪽 10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破하고 安岳 東北쪽 6km에 마련된 敵의 陣地를 强打하였다.

2월 9일 : 이날 13.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朴在浩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載寧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1,500발로써 載寧 東北쪽 6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裵相昊소위, 4번기 鄭周良대위)의 指揮로 甘灘 상공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해서 철로 3개소를 大破하였다.

2월 10일 : 이날 06.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錦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吳春睦대위, 4번기 林淳爀소위)의 지휘로 伊川—安岳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機銃 3,500발을 퍼부어 伊川 東쪽 8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3棟을 燒却시켰을 뿐 아니라 5명을 射殺하는 한편 安岳 東南쪽 15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07.55에 출동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金川—伊川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발로써 金川 東南쪽 12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伊川 東쪽 8km에 있는 敵의 건물 4棟을 全燒시켰을 뿐 아니라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5.4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成龍소령(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선두지휘로 伊川 東쪽 8km의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1,200발로 보급로와 機動路 2개소를 폭파하고 軍트럭 1대를 完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伊川—安岳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1,8000발로써 伊川 東쪽 8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3개소와 Bunker 2개소를 完破하는 한편 安岳 東쪽 17km의 철로 3개소를 强打하여 수송 不能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2월 11일 : 이날 08.2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朴在浩(2번기 吳春睦대위, 3번기 朴斗元소위, 4번기 美空軍이 Lagro.대위)를 선두로 長淵 上空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銃機掃射 1,000발로써 철로 3개소를 大破하

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黃州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을 집중하여 黃州 西南쪽 5km의 철로 3개소를 폭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5.38에 敵의 보급로를 遮斷코자 離陸한 5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俞致坤중위, 4번기 林淳爀소위, 5번기 金 信대령)을 선두로 北韓 상공으로 急向하다가 氣象이 고르지 않아 開城 東北쪽 15km 상공에서 機首를 東南쪽으로 돌려 東海에 遊弋中인 海上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귀착하였으며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氣象이 고르지 않은 까닭에 金成龍소령(2번기 李基陝대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權重華소위)의 지휘로 임무를 中止하고 제1편대의 뒤를 이어 폭탄 8발을 投下하고 基地로 귀환하였다.

2월 12일~22일 : 空軍本部(총참모장 金貞烈소장)에서는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준장)으로 하여금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日동안 敵의 보급로 遮斷作戰을 中止하고 다음 출격에 만전을 期하기 위하여 비행단의 각 戰隊들이 戰力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후방부대의 擴張을 위하여 지난 달에 제80航空廠을 泗川(K—4)基地로 移動시킨 뒤를 이어 이달 20일에는 제40補給廠을 大邱에 창설하고 제801 施設大隊도 大邱에 창설함으로써 空軍力의 增强에 拍車를 加하였다.

2월 23일 : 이날 13.40에 江陵(K—18)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吳春睦대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平壤 南쪽 상공에서 그 東쪽 9km에 있는 砲陣地를 捕捉하자 곧 敵의 對空砲가 난비하는 목표에 폭탄 8발과 機銃掃射 1,600발을 加함으로써 砲陣地 1개소를 完破하였다.

이어 13.5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白晶鉉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를 선두로 金城—勝湖里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과 機銃 2,000발을 퍼부어 金城 北쪽에 있는 敵의 건물 2棟을 燒却시키고 Bunker 3個所를 폭파하는 한편 勝湖里의 철교 1개 徑間을 强打하는 동시에 鐵路 1개소를 大破하였다.

2월 24일 : 이날 08.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裵相昊소위, 4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의 선두지휘로 金城—苔灘—安岳 상공에서 그 일대에 대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4발과 機銃掃射 5,000발로써 철교 1개소를 强打하고 철로 1개소를 大破하는 한편 敵의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08.1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吳春睦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興俊중위)의 지휘로 金城—黃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炸裂하는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發로써 金城 北쪽에 있는 敵

의 건물 1棟을 燒却시키고 黃州 西南쪽 8km의 철로 3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3.5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林淳爀소위)의 선두지휘로 金城—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機銃 4,500발을 퍼부어 金城부근의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完破하는 동시에 海州 西南쪽 2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敵의 건물 3棟을 燒却시켰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2대의 F—15전폭기 제2편대도 李基陸대위(2번기 金錦成대위)를 선두로 金城—海州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4발과 機銃 2,000발을 集中해서 金城의 敵 건물 2棟을 全破하고 Bunker 1개소를 强打하는 한편 海州 西南쪽 2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2월 25일 : 이날 09.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林淳爀소위)의 지휘로 金城—黃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咆哮하는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4,000발을 集中해서 金城부근에 있는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4棟을 全燒하는 한편 黃州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09.45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李基陜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金城—黃州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發로써 金城의 철로 3개소를 大破하는 한편 黃州 東南쪽 10km에 있는 彈藥 集積所 2개소를 强打하니 연쇄적인 폭발로 因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는 탄환이 우박같았으니 必是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을 것이다.

또 아울러 건물 2棟을 全燒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2월 26일~27일 : 전날 오후부터 氣象이 고르지 않더니 26일과 27일 兩日間에 걸쳐 심한 눈보라가 계속되어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Mustang)전폭기들은 敵의 보급로 遮斷 출격을 斷念하고 自體 정비요원으로부터 機體의 정비점검을 받으면서 다음 출격에 만전을 期하였다.

2월 28일 : 이날 09.0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Mustang)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新溪—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機銃 2,500발로써 철로 1개소 철교 1개소를 强打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또 09.15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朴斗元중위, 3번기 俞致坤소위)의 선두 지휘로 新溪—甕津 상공에서 폭탄 6발과 2,800발의 機銃을 집중해서 新溪에 있는 건물 2棟을 全破하는 한편 敵 5명을 사살하고 海州 西南 2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한 이날 13.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의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新溪—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下하고 機銃掃射 2,500발로써 철로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4棟을 全破하였다

또 14.0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羅昌俊대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新溪—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機銃 2,000발로써 철로 1개소를 强打하고 건물 5棟과 Bunker 1개소를 全破하였다.

2월 29일 : 이날 11.0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林淳爀소위)지휘로 新溪—苦灘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500발로써 新溪 西北쪽 11km에 있는 敵의 건물 6棟을 全燒시키고 海州 西南쪽 2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3,500발로써 철로 1개소와 機動路 1개소를 각각 폭파하고 건물 4棟과 Bunker 2개소를 完破하였다.

(라) 3月中의 活動狀況

3월 1일 : 이날 空軍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韓國空軍의 擴張 6개년 計劃案을 韓 美 각 要路에 제출하는 한편 제1전투비행단 제10전대는 F—51 전폭기 조종사들의 출격을 中止하고 3월중에 計劃하는 敵의 보급로 遮斷作戰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폭격목표에 대한 치밀한 作戰 Briefing을 받으면서 次期 출격에 만전을 期하도록 措置하였다.

3월 2일 : 이날 09.05에 基地를 陸離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黃州 상공에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掃射 1,000발로써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09.1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甕津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彈이 紛飛하는 가운데 폭탄 8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고 機銃 500발로써 철로 1개소를 大破하고 砲陣地 1개소와 건물 2棟을 完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3일 : 이날 08.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金城—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발로써 金城 北쪽 10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건물 3棟을 全燒시키고 海州 西南쪽 20km의 철로 1개소를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Mustang) 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美 空軍의 Lagro 대위, 4번기 孫在櫃중위)의 지휘로 金城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폭탄 8발과 Rocket탄 13발, 그리고 機銃 2,500발로써 金城 西北쪽 5km에 있는 Bunker 5개소를 폭파하고 金城 北쪽 10km에서 敵의 건물 3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3월 4일 : 이날 06.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谷山—松禾 상공으로 急航하여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3,500발을 집중해서 谷山東北 25km에 있는 Bunker 5개소를 폭파하고 松禾 南쪽 10km의 철로 3개소를 强打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朴在浩대위, 4번기 林淳嫌소위)를 선두로 谷山—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 500발로 谷山東北쪽 30km에 있는 2건물 棟을 燒却시키고 甕津의 철로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0.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 (2번기 權成根소령, 3번기 孫在櫃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金城—苔灘 상공으로 直向하여 목표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5,000발로써 보급품 集積所 6개소를 强打 燒却시켰으며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55에 출동한 4대의 F—51(Mustang) 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伊川—甕津 상공으로 急進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機銃 3,000발을 퍼부어 伊川 西北쪽 12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甕津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건물 2棟을 燒却시켰다.

3월 5일 : 이날 09.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新溪—甕津—黃州 상공으로 急向하여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4,500발의 機銃掃射로써 철로 3개소를 强打하고 貨物車輛 4輛을 全破 하였으며 건물 3棟과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 대위(2번기 林淳嫌소위 3번기 孫在櫃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淮陽—松禾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000발로써 淮陽東南쪽 5km에 있는 건물 4棟을 全破하고 松禾 東南 8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3월 6일 : 이날 06.5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鄭重岩소위, 3번기 孫在櫃중위, 4번기 林淳嫌소위)의 선두 지휘로 金城—新幕—苔灘 상공

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는 한편 4,000발의 機銃掃射로써 철로 1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물 2棟을 燒却시켰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白晶鉉소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新幕—甕津 상공으로 急進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고 機銃 3,500발로써 철로 2개소를 强打하는 한편 砲陣地 1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全燒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1.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尹應烈소령,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新幕—甕津을 連하는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000발로써 철로 5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4개소를 强打하여 全燒시켰다.

또 제1편대와같이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權成根소령,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8발과 機銃 2,000발로써 新幕 東南쪽 12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고 苔灘부근에 있는 건물 1棟과 Bunker 2개소를 完破하였다.

3월 7일~8일 :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兩日間에 걸쳐 목표상공에 低層雲과 비바람이 눈보라로 바뀌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출격을 중단하고 機體 점검을 발으면서 목표에 對한 作戰 Breifing으로 다음 출격에 萬全을 期하였다.

3월 8일 : 이날 08.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玉萬鎬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林淳爀소위, 4번기 金成龍소령)를 선두로 新幕—苔灘 상공으로 出動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熾烈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4,500발을 퍼부어 철로 1개소를 大破하고 砲陣地 1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Bunker 5개소를 强打 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5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 5번기 美 空軍의 Crego소령)을 선두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 10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3,500발의 機銃掃射로써 철로 2개소를 强打하고 敵의 砲陣地 3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6개소를 폭파하였으며 Bunker 4개소도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5.45에 離陸한 5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 5번기 金 信대령)를 선두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가 亂飛하는 목표에 폭탄 10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 3,000발로써 철로 1개소를 大破하는 한편 砲陣地 2개소와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5.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 (2번기 玉滿鎬대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新幕 東南쪽 11km상공으로 急進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3,000발로써 砲陣地 1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破하고 Bunker 1개소도 폭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10일 : 이날 06.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 3번기 林淳爀소위, 4번기 鄭重岩소위)의 지휘로 新幕 상공으로 急行中 4번기 鄭重岩소위가 江陵 鏡浦台 上空에서 機體의 고장으로 산화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新幕 東南쪽 11km 상공으로 急向하여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써 보급품 集積所 5개소를 全破하고 08.25에 귀환하였다.

이어 07.3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金城—新幕—甕津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가 熾烈한 가운데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1,500발을 퍼부어 철로 1개소와 砲陣地 1개소를 强打하고 교량 1개소와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물 1棟을 燒却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0.55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裵相昊소위)의 선두지휘로 新幕—苔灘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彈이 난비하는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3,000발로써 철로 3개소를 大破하였으며 보급품 集積所 3개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공격에서 3번기(裵相昊소위)가 右翼에 被彈되어 한 때 위태로운 비행으로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12.55에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2번기 金 信대령,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朴斗元소위)를 선두로 新幕—黃州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2,000발의 機銃洗禮로써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4개소를 大破하고 黃州 東쪽 4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시켰다.

3월 11일 : 이날 15.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尹應烈소령(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新幕—苔灘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5,000발로써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물 4棟을 燒却시켰다.

이어 15.4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 (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를 선두로 新幕—黃州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3,000발의 機銃洗禮로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급보품 集積所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黃州 東쪽 4km

의 Bunker 2개소와 防空壕 2개소를 完破하였다.

3월 12일 : 이날 09.3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를 先頭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가 집중하는 가운데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 2,000발로써 철로 1개소와 砲陣地 1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또 제1편대와 함께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塘소위, 3번기 美 空軍의 Lagro대위)의 지휘로 新幕—黃州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8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4개소를 强打하고 黃州 東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3棟을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5.35에 離陸한 3대의 F—51 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대위 (2번가 朴用萬소위, 3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新幕—黃州 線을 連하는 上空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는 한편 機銃掃射 2,000발로써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黃州 東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防空壕 2개소를 完破하였다.

이어 15.40에 출격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金 信대령(2번기 朴斗元소위, 3번가 孫在權중위)의 指揮로 甕津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2발과 機銃掃射 1,500발로써 新幕 東南 10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甕津 北쪽에 있는 건물 1棟을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출격에서 1번기(金 信대령)의 Engine 異狀으로 17.10에 汝矣島(K—16) 基地에 不時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3월 13일 : 이날 08.10에 基地에서 出擊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200발의 機銃洗禮로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甕津 北쪽에 있는 건물 6棟을 全燒시켰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玉滿鎬대위)를 선두로 新幕—黃州로 直向하여 敵의 對空砲彈이 集中하는 가운데 폭탄 6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2,5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철로 3개소를 强打하였으며 砲陣地 3개소와 건물 3棟을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2.15에 基地에서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李基陝4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의 지휘로 목표로 向하던中 氣象이 고르지 않아 黃州地域의 폭격을 斷念하고 元山 상공으로 反轉하여 敵의 砲가 발광하는 목표에 急降下로 進入하는 찰나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500발로

철로 2개소를 强打하는 동시에 砲陣地 3개소를 完破하였으며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이어 12.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權成根소령, 4번기 金成龍소령)를 선두로 元山으로 急進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6발을 집중한 결과 철로 4개소를 大破하였다.

3월 14일 : 이날 09.55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美空軍 Lagro 대위, 4번기 金成龍소령)를 선두로 新幕—苔灘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5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1개소를 大破하고 甕津 北쪽 苔灘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金鍚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權成根소령,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新幕—黃州 상공에 나타나는 즉시로 목표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2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黃州 東쪽 5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大破하는 동시에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14.15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美 軍空의 Largo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新幕—苔灘 상공에 다다르자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2,000발의 機銃掃射로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1개소와 機動路 2개소를 大破하고 甕津 北쪽 苔灘의 Bunker 1개소를 비롯하여 건물 4棟을 完破하였다.

이어 14.20에 출격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 (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의 선두지휘로 新幕—黃州線을 連하는 上空에서 목표에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1발과 機銃 2,000발로써 철로 4개소를 强打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시켰다.

3월 15일 : 이날 10.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權成根소령)를 선두로 新幕 東南쪽 11km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고 2,0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敵의 건물 5棟을 全破하였다.

이어 10.15에 離陸한 4대의 F—51 전폭기 제2편대도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裵相昊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尹應烈소령)를 선두로 新幕—沙里院 상공에서 목표로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 8발과 Rokc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8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幕 東南쪽 11km에 있는 敵의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3棟을 燒却하였으며, 沙里院 西南쪽 3km의 철로 1개소를 大破하였다.

3월 16일 : 이날 08.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

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新幕—松禾 上空에서 목표를 捕捉하는대로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200발의 機銃掃射로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1개소를 大破하고 松禾 東쪽 10km에 있는 Bunker 1개소와 건물 4棟을 完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출동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俞致坤중위)지휘로 新幕—松禾線을 連하는 上空에 나타나자 곧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500발로써 철로 1개소를 强打하고 Bunker 1개소와 건물 4棟을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2.5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의 지휘로 新幕—黃州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고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3,500발의 機銃洗禮로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黃州 東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3개소와 Bunker 3개소를 完破하는 동시에 건물 3棟을 燒却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出動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羅昌俊대위, 4번기 金成龍소령)를 선두로 新幕—黃州 상공에 나타나자 곧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였으며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1,500발로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黃州 東쪽 5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强打하는 동시에 건물 3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3월17일 : 이날 08.4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李基陝대위,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을 집중하는 한편 機銃 1,500발로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甕津 北쪽 苔灘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5棟을 燒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2번기 朴斗元소위 3번기 孫在權중위, 4번기 權成根소령)의 지휘로 新幕—黃州로 急進하여 목표에 폭탄 8발과 機銃掃射 2,500발로 新幕 東南쪽 13km에 있는 敵의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1棟을 폭파하였으며 黃州의 철로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3.1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指揮로 新幕—甕津 상공에 나타나는 즉시로 목표를 捕捉하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2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新幕 東南쪽 12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고 甕津 北쪽 苔灘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4棟을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어 13.15에 출동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

기 俞致坤중위, 4번기 朴斗元소위)의 선두지휘로 新幕—安岳 상공으로 急進하였는데 2번기 (林淳嬅소위)의 機體가 고장을 일으킨 탓으로 中途에서 그대로 귀환하고 나머지 3대만이 목표를 捕捉한 다음 이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機銃掃射 2,000발로써 新幕 東南쪽 11km의 철로 2개소를 폭파하고 安岳 西南쪽 14km에 있는 Bunker 4개소를 完破하였다.

3월 18일 : 이날 12.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鄭周良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의 지휘로 新幕—黃州上空에 나타나자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1,000발로써 新幕 東南쪽 10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고 黃州 東쪽 5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건물 6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또 제1편대와 함께 출격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嬅소위, 3번기 美 空軍의 Bordley중위)의 선두지휘로 新幕 10km상공에 나타나는 즉시로 목표를 捕捉하고 폭탄 6발과 Rocket탄 11발을 집중하는 한편 機銃掃射 2,000발로 철로 2개소를 强打하고 보급품 集積所 3개소와 Bunker 2개소를 完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19일 : 이날은 심한 비바람으로 氣象이 고르지 않아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출격을 斷念하고 機體 점검을 받으면서 목표에 對한 作戰 Breifing으로 다음 출격에 만전을 기하였다.

3월 20일 : 이날 11.00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陝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白晶鉉소위)의 지휘로 新幕—甕津 상공에 나타나자 곧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洗禮를 퍼부어 新幕 東南 11km의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甕津 北쪽 苔灘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건물 4棟을 完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출동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羅昌俊대위(2번기 林淳嬅소위, 3번기 朴斗元소위)의 선두지휘로 新幕—甕津 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는 한편 2,0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幕 東南쪽 9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고 甕津 北쪽 苔灘에 있는 건물 3棟을 燒却시켰다.

한편 이날 15.50에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美空軍의 Bordley중위)의 지휘로 新幕—甕津 상공으로 출격하여 목표에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 新幕 東南 10km의 철로 2개소와 機動路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甕津 北쪽에 있는 砲陣地 1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完破하고 건물 4棟을 燒却하였다.

또 제1편대와 함께 출동한 3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金錦成대위)의 선두지휘로 新幕—黃州線 上空에 이르러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폭탄 6발과 Rocket탄 12발을 집중하는 한편 2,000발의 機銃洗禮로 新幕 東南쪽 10km의 철

로 2개소를 强打하고 黃州 東쪽 7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1개소와 Bunker 5개소를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3월 21일 : 이날 13.25에 基地를 離陸한 3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玉滿鎬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兪致坤중위)가 「左右에 요기를 이끌고 元山으로 急進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집중하는 가운데 폭탄 6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8발과 機銃 1,500발로 元山 南쪽 3km와 東쪽 10km에 있는 철로 1개소를 폭파하고 砲陣地 1개소와 Bunker 3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金錦成대위(2번기 權重華소위, 3번기 鄭周良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元山으로 急行하여 목표를 捕捉하자 즉시 이에 Rocket탄 16발과 機銃 800발로 철로 2개소와 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물 5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3월 22일 : 이날 07.3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陜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權成根소령,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黃州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5발로 强打하여 철로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 (2번기 孫在權중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Bordley중위)의 지휘로 黃州 東쪽 4km상공에서 폭탄 8발과 Recket탄 16발을 집중해서 철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3월 23일~24일 : 양일간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出擊을 보류하고 제30보급정비전대로부터 그간 連日 계속된 출격에서의 機體의 이상 有無를 점검 받고 아울러 조종사들은 피로를 회복하면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3월 25일 : 이날 09.2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朴在浩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兪致坤중위, 4번기 羅昌俊대위)를 선두로 沙里院 東南쪽 5km상공에서 목표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하는 한편 1,000발의 機銃洗禮로 철로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와같이 離陸한 제2편대는 金錦成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李基陜대위, 4번기 白晶鉉소위)를 선두로 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6발과 機銃掃射 2,000發로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를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3.20에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李基陜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金成龍소령, 4번기 裵相昊소위)를 선두로 沙里院에서 목표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을 집중해서 철로 4개소를 폭파하여 敵의 보급수송을 지연시켰다.

또 제1편대와함께 出動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羅昌俊대위(2번기 孫在權중위, 3번기 美空軍의 Lagro대위, 4번기 Bordley중위)의 지휘로 沙里院에서 폭탄 8발과 Rocket탄 16발로써 철로 5개소를 强打하였다.

3월 25일 : 이날 09.2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美 空軍의 Lagro 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孫在擢중위, 4번기 羅昌俊대위)를 선두로 沙里院 상공에서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1,200발로써 철로 3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건물 2棟을 全破하였다.

또 제1편대와 같이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는 李基炅대위(2번기 朴用萬소위, 3번기 金錦成대위, 4번기 美 空軍의 Bordley중위)의 指揮로 新幕—沙里院 상공에 다다르자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1,500발의 機銃掃射로써 新幕 東南쪽 8km에 있는 보급품 集積所 2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沙里院 東南 15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3.00에 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전폭기 제1편대는 鄭周良대위(2번기 裵相昊소위, 3번기 白晶鉉소위, 4번기 美 空軍의 Bordley중위)의 지휘로 新幕—沙里院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를 무릅쓰고 목표에 폭탄 8발을 投下하고 Rocket탄 15발과 機銃 2,000발로써 新幕 東南쪽 8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와 건물 1棟을 完破하고 沙里院 東南쪽 7km의 철로 2개소를 强打하였다.

이어 13.05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 제2편대도 朴在浩대위(2번기 林淳爀소위, 3번기 兪致坤중위, 4번기 孫在擢중위)의 선두지휘로 新幕상공에 나타나는 즉시로 敵의 對空砲火가 난비하는 가운데 목표에 폭탄 8발과 Rocket탄 14발을 집중하고 1,000발의 機銃掃射로 新幕 東南쪽 8km에 있는 砲陣地 1개소와 건물 2棟을 完破하고 新幕 西北쪽 16km의 철로 2개소를 大破하여 敵의 철도 수송에 쐐기를 박았다.

라. 작전 후의 개황

韓國空軍은 단독 출격以來로 UN空軍과 함께 敵의 후방 보급로 遮斷作戰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특히 기간중에는 休戰會談으로 말미암아 地上軍의 戰況은 制限된 攻防戰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會談 長期化 趨勢에 따라 敵은 그간 弱化된 前線의 戰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광분한 까닭으로 空軍에서는 이를 根本的으로 遮斷할 목적으로 철로와 機動路를 비롯한 기타 보급로를 폭파하고 敵의 戰線一帶에 散在한 陣地를 強打키로 하였다.

이 作戰을 전개하던 初期에는 후방의 치안을 교란하고 있는 智異山地區의 제2, 제3차 殘敵 擊滅 지원작전을 아울러 전개하였기 때문에 元山地區의 보급로 遮斷作戰만으로 制限하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元山—黃州間을 매일같이 출격하여 주요 철로와 기타보급로를 비롯하여 砲陣地등에 폭탄과 Rocket탄을 집중하고 機銃掃射로써 목표를 격파하는 한편 멀리 平壤상공까지 進入하여 UN空軍이 끝내 폭파하지 못한 勝湖里 철교를 強打해서 사용不能토록 함으로써 敵의 前線戰力 증강을 크게 牽制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戰力은 我 空軍의 敏捷한 활동으로 분쇄되어, 각종 보급로와 陣地의 復舊作業에 급급 도록하여 南侵의 氣勢를 減殺하는데 寄與하는 바가 컸으며 再侵의 기회를 주지않기 위하여 空軍에서는 自體의 후방 戰力을 강화하면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로 하여금 敵의 주요 都市폭격

각전준비에 만전을 期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중 空軍에서는 폭탄 1,395발과 Rocket탄 2,546발 그리고 Cal 50탄 477,600발을 기록하였는데, 各 조종사들의 출격회수와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期間中 操縱士들의 出擊回數

(1951.12.3~1952.3.26)

將校別 \ 年月別		1951年	1952年		
		12月	1月	2月	3月
金	信	대령	1	—	1	3
金	成龍	소령	—	—	3	5
姜	錡倫	〃	3	—	—	—
金	斗萬	〃	19	11	—	—
田	鳳熙	〃	—	11	—	—
尹	應烈	〃	—	10	14	8
周	永福	〃	—	10	—	—
吳	春踏	〃	—	—	8	—
朴	成根	〃	—	—	—	7
玉	滿鎬	대위	11	12	17	15
辛	鐵洙	〃	10	—	—	—
朴	在浩	〃	16	10	8	4
鄭	周良	〃	19	10	11	6
李	基陝	〃	15	11	16	17
羅	昌俊	〃	10	3	1	16
金	錦成	〃	13	7	11	17
張	星太	〃	—	9	—	—
朴	完圭	중위	20	1	—	—
孫	興俊	〃	17	7	9	—
孫	在權	〃	14	3	2	17
俞	致坤	〃	5	15	9	6
李	日泳	소위	16	8	—	—
徐	商純	〃	14	—	—	—
朴	斗元	〃	—	—	10	14
朴	用萬	〃	—	—	8	15
白	晶鉉	〃	—	—	10	15
權	重華	〃	—	—	10	13
裵	相昊	〃	—	—	10	14
林	淳鏞	〃	—	—	10	15
鄭	重岩	〃	—	—	11	3
Adams		소령	2	—	—	—
Lagro		대위	10	—	11	24
Crego		중위	—	7	—	2
Bordley		중위	1	—	—	7
計			216	145	190	243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鐵路 爆破……327個所

軍用建物 全破……405棟

砲陣地 完破……105個所

補給品 集積所 全破……123個所

彈藥庫 爆破……3個所

Bunker 完破……94個所

防空壕 全破……3個所

敵 射殺……103名

鐵橋 爆破……15個所

橋梁 爆破……6個所

貨物車輛 全破……22輛

軍트럭 全破……2臺

牛馬車 全破…14臺

損 失

F—51(Mustang)戰爆機 全破…3臺

戰死…3名

§ 參戰者의 手記

◇ 날개의 聖地

(羅昌俊대위, 당시 제10비행전대 조종사)

1951년 12월 15일 13.40에 江陵(K—18)基地를 離陸한 4대의 F—51(Mustang)전폭기는 편대장 辛鐵洙대위(2번기 徐商純소위, 3번기 羅昌俊대위, 4번기 孫興俊중위)를 선두로 태백산 일대가 백설로 뒤덮혀 마치 온 누리가 백의민족을 상징케하는 모습을 눈아래에 보면서 一路 제1 목표로 향하였다.

江陵(K—18) 基地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시야에는 곳곳에 散在한 우리의 숙적의 陣地가 전개될 뿐이었다.

이때 편대장 辛鐵洙대위는 僚機를 돌아보며 폭격준비를 Radio로 통하여 지시하자 우리는 보지 않고도 손에 익은 폭격에 필요한 모든 스윗치를 on하고 편대장기의 指揮에 따라 10,000ft로부터 서서히 高度를 낮추어 元山 南쪽 6km의 松山里상공으로 進入하여 제1목표인 철로를 兩翼 아래로 넣고 7,000ft까지 下降하였을 때 辛鐵洙대위는 공격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먼저 敵의 補給동맥인 철로를 목표로 突入하는 순간 편대장機가 機首를 들어 左側으로 急上乘 선회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철로는 千破萬片으로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目擊하였다.

이어서 3대의 僚機도 때를 놓치지 않고 進入하여 철로 목과 목격을 100% 達成하고 곧 機首를 제2 목표로 向해 우리는 유유히 敵 집결지와 砲陣地인 淮陽 南쪽 4km의 下里洞으로 機動하였다.

일정한 高度에서 편대機가 차차 高度를 낮추어 低空으로 敵 陣地에 접근하는 것을 직감하였을 때 편대장의 의도인 기습공격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마치 敵의 급소에 그 예리한 一刀를 내려치듯 우리는 아무런 對空砲의 공격도 받지 않고 제일격을 加하고 급상승으로 이탈하는 때를 같이하여 敵은 砲門을 열고 우리를 공격하였다.

이때 편대장機의 上下左右에는 熾烈한 포연과 눈을 뜨고 보지못할 만큼 올라오는 불덩덩어리가 작열하였으나 편대장은 여전히 悠然한 태도로 180°선회하면서 재차 공격을 명령하자 우리는 반대쪽에서 제2의 공격을 기도하였다.

『아! 그것이 최후의 명령이었을 줄이야』

처음공격 때와는 방법을 달리해서 분대 단위로 2대씩 다시금 敵陣地로 進入하여 機銃洗禮를 퍼부을때 돌연 편대장기가 연기를 뿜더니 곧 火焰으로 휩싸이자 이미 생환 불능을 각오한 편대장機는 兩翼을 옆으로 두어번 흔들어 비장한 그 최후의 신호를 僚機에게 보낸 다음 이윽고 機首를 敵 陣地로 突入하여 장열한 자폭으로 최후를 마쳤다.

참으로 삼시간의 참변이라 정신을 가다듬고 거짓과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상공을 선회하였으나 人力으로 도리킬 수 없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 上空을 선회하다가 편대장기를 잃은 치솟는 울분을 짓누르고 눈물을 삼키면서 쓸쓸히 基地로 귀환하였다.

◇ 勝湖里 鐵橋의 폭파

(金 信대령,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장)

1952년 1월 15일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이 몰아치는 江陵(K—18) 비행장에도 동이 트고 어둠이 밀려나자 F—51(Mustang)전폭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들은 눈을 가리울만큼 털모를 깊숙히 내려쓴채 무척 기민하게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곧 地上 검열은 끝나고 操縱士들이 機上에 오르고 出擊 준비를 完了한 다음 左右를 돌아 볼 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勝戰의 幸運을 비는 미소가 교차되는 순간 이것이 生死를 같이하는 戰友愛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이윽고 08.25에 爆音도 우렁차게 基地를 離陸한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 6대는 제1편대장 玉滿鎬대위(2번기 俞致坤중위, 3번기 朴在浩대위)와 제2편대장 尹應烈대위(2번기 鄭周良대위, 3번기 張是太대위)는 목표 勝湖里 철교를 향하여 鐵原상공을 지나 직선 코스를 택하여 北으로 敵의 對空砲가 작열하는 敵 상공으로 突入하였다.

이 勝湖里 철교는 UN空軍의 우수한 戰爆機들이 500回 이상이나 출격하여서도 爆破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불과 2개편대로 突破할 수 있을지 무척 착찹한 심경이었으나 戰友들에게 호언장담한 6명의 操縱士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은막으로 희게 덮인 山野와 곳곳에 파괴된 敵의 주요 보급로를 뒤로 젖히며 목표 상공에 다다라 제1, 제2편대는 勝湖里 철교 상공을 크게 선회한 다음 목표에 접근할 때에 敵의 對空砲彈이 비교적 정확하게 機體附近에 炸裂하였다.

제1편대는 敵의 심한 對空砲彈을 피해가며 편대장기를 先頭로 機首를 목표에 직선으로 마추어 滑降進入하니 철교가 점점 확대되어 몇번 조준을 수정한 다음 各機마다 폭탄 스위치를 누르고 Rocket탄을 발사한 뒤에 상승함으로써 철교 2개 徑間에서 검붉은 불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제2편대가 다시 고도를 낮추고 1,2,3번機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목표로 進入하였다.

제1편대는 제2편대를 엄호하면서 남은 Rocket탄과 機銃으로써 敵의 對空砲陣地 正面에 육박하여 폭격을 단행하니 제2편대는 敵의 對空砲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정확한 조준으로 爆彈과 Rocket탄을 목표에 집중하고 機銃掃射로써 強打하니 2개의 徑間에서 부서지는 鐵片이 허공에 솟아오르다 江속에 감기고 鐵橋中央部分에 2個의 커다란 空間이 시야에 들어 왔다.

勝利의 기쁨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순간 나란히 機首를 南으로 돌려 찬물을 끼얹어 흠뻑 젖은 듯한 땀에 배인 조종복차림으로 무사히 귀환하자 환성과 찬사가 基地를 메웠으며 作戰 경과 보고를 받은 戰隊長인 나와 악수를 나눈 조종사들은 벅찬 환희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흐트러지는것 같았다.

이날 6대의 F—51 전폭기는 폭탄 12발과 Rocket탄 20발을 목표에 집중하고 도합 4,700발의 機銃洗禮로써 철교 2개의 徑間을 完破하고 2개 徑間을 強打하는 한편 砲陣地 6개소와 보급품 集積所 1개소를 비롯하여 Bunker 3개소와 건물 1棟을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 戰功은 이달 25일 美 제5공군 각 비행단의 전대장 會議에서 소개되었고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나는 축하의 악수세례를 받았으며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나오는 戰隊長의 앞을 가로막은 한 美 空軍대위가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 他장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철교의 遮斷목표를 할당한 것도 자신이고 戰果 有無에 對하여 돈까지 걸어 덕분에 21弗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함께 축배를 들자는 것을 진땀을 빼며 만류하고, 비행장으로 향했던 일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다.

15. UN 空軍의 活動 (1952년 2월 1일부터 1952년 3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54호

要 旨

UN空軍은 1월에 敵의 MIG—15 Jet기들이 MIG通路의 空域 南쪽에서 出沒하는 것을 妨害하면서 制空權을 장악하고 敵의 後方遮斷 폭격에 拍車를 加하였는데 特히 清川江 南쪽에서부터 宣川까지의 주요 철로를 따라 마련된 對空砲臺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폭탄을 집중하고 철교의 徑間과 主要교량을 폭파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夜間에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는 한편 前線에 있는 보급품에 폭탄 洗禮를 퍼부어 그들의 戰力에 큰 打擊을 주었다.

2월에는 敵의 MIG—15 Jet기와 폭격기들의 夜間空中 활동이 減少된 까닭으로 UN空軍에서는 이달에 RB—45 偵察機로 하여금 夜暗을 利用한 목표의 寫眞撮影에 따라 戰爆機들은 F—86E Sabre Jet邀擊機의 엄호아래 必要한 목표에 대한 急降下 폭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UN空軍의 『Shoran 작전』 地域인 新安州 一帶에 대하여 敵은 곳곳에 對空砲臺를 배치하여 놓았던 까닭에 이달 14일 RB—29 偵察爆擊機가 이 목표에 대하여 16,000 ft 상공에서 偵察 임무를 수행중 對空砲에 被擊된 다음 金浦(K—14)에 不時着하는등 夜間폭격에 많은 臨路事項이 따랐으나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이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과 合同하여 이 癌的 존재인 對空砲臺에 集中폭격을 감행하였다.

또 極東空軍 폭격 사령부에서는 敵의 비행장에 대한 폭격과 並行하여 敵의 주요 機關庫와 操車場 그리고 철교를 폭파한 결과 이를 사용 불능토록 하고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들은 그 주요 철로에 대한 차단 목표에 每 8시간 마다 反復폭격을 실시하여 路盤까지 완전히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UN空軍의 戰爆機들은 軍트럭 2,367대를 全破하였다. 그리하여 2월중에 도합16,972회에 達하는 출격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 근접 지원이 162회, 遮斷폭격이 6,268회로서 總 10,494 ton의 폭탄과 132ton의 Napalm탄을 集中投下하는 한편 공수지원은 모두 4,451회에 達하였다.

3월에도 UN空軍에서는 그동안 연구分析한 美 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가 그 성능에 있어서 敵의 MIG-15 Jet 기를 따를 수 없지만 우수한 조종술을 最大限으로 활용하여 敵機를 격퇴하고 戰爆機들은 敵의 철도망과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효과적인 폭격을 위하여 民—목표에 『集中爆擊(Saturate) 作戰』과 『窒息 (Strangle)作戰』을 敢行하였다.

特히 이달11일에는 美 제5공군 제5전폭전대의 F-86戰爆機 51대가 동이 틀때부터 日沒까지 鴨開里의 敵 집결지와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 洗禮를퍼부어 그 일대를 火海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이달 22일에는 지난 달에 遮滅 되었던 敵의 夜間空中 활동이 激烈로 증가 되어 美 제5공군 제319邀擊大隊의 F-94B全天候邀擊機가 水原(K-13)基地에서 출격하여 이를 격퇴하고 이달에 戰爆機들은 敵의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고 있는 軍트럭 1,750대를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3월중 UN空軍은 도합 19,653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근접지원은 1,661회,

遮斷폭격은 6,437회로서 11,814 ton의 폭탄과 207 ton의 Napalm탄을 投下하고 공수지원은 도합 5,002회를 기록하였다.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極東空軍 司令官
중장 Otto P. Wayland
美 제5공군 司令官
중장 Frank F. Everest
美 極東空軍 爆擊司令官
준장 Joe W. kelly
준장 Wiley D. Ganey
(1952. 3. 15 以後)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준장 John P. Henebry
대령 Cecil H. Chidlre
(1952. 2. 26 以後)

나. 2월중 UN空軍의 활동

(1) 對空戰鬪

1951년 末부터는 MIG—15 Jet機의 跳梁이 大甚해졌기 때문에 UN空軍의 F—86E Sabre Jet邀擊機들은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 제51전투邀擊 비행단의 2개대대를 F—86E Sabre Jet 邀擊機로 전환하게되자 Wing Tank의 需要는 2倍에 達하게 되었다.

1952년 2월에는 Wing Tank 需要가 500%로 急增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급이 거의 枯渴狀態에 이르게되니 極東空軍에서는 C—124 輸送機를 特別 운항시켜 美 空軍當局으로부터 2,000개의 Tank를 緊急히 보급 받을 수 있도록 非常 措置하였다.

그러나 이 Tank가 到着할때까지 全 F—86E Sabre Jet邀擊 비행단에서는 그 출격회수마저 감소시키야 하는 危局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뒤에 곧 補給됨으로써 이러한 隘路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달에 MIG기들은 몇몇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新安州—鴨川江 南쪽에 別로 出沒하지 않았으나, MIG進路 空域에 출몰하는 敵機는 空中戰의 領域밖인 40,000ft 以上의 고도로써 UN 空軍의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의 哨戒비행 고도보다 높은 初期 高度(Initial Altitude)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緣由는 未詳하지만 지난 달에 이어서 敵의 夜間空中 활동이 감소되어 1월중의 敵 夜間 出沒臺數 22대에서 이달에는 단지 10대만이 확인되었으며, 이 期間中 UN 空軍의 戰爆機에 대한 敵機의 邀擊도 도합 9次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UN空軍에서는 이달에 RB—45偵察爆擊機를 夜間 寫眞撮影 임무로 전환시키고 UN戰爆機들이 敵의 後方 깊숙히 비행하면서 目標를 폭격할 경우에는 그 상공에서 F—86E Sabre Jet 邀擊機 편대의 엄호를 받도록 措置하는 한편 戰爆機들은 F—86E Sabre Jet 邀

擊機들이 탐색을 끝낸 다음에 비로소 목표에 進入하여 폭격토록 措置하였다.

즉, F—86E Sabre Jet 邀擊機 편대가 離陸하여 목표상공에서 10분동안에 걸쳐 探索활동을 끝내면 곧 戰爆機가 나타나 폭격을 斷行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은 20,000 ft 상공을 旋回하면서 戰爆機의 폭격을 지켜보다가 임무를 끝내고 上昇하면 그를 엄호하여 함께 歸路에 올랐다.

그러나 때때로 MIG—15 Jet기들이 UN空軍의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의 掩護網을 뚫고 戰爆機를 急襲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로 因한 UN戰爆機의 損失은 없었다.

그 까닭은 MIG—15 Jet기가 F—86E Sabre Jet 邀擊機들의 掩護網을 뚫고 急降下하여도 F—86E Sabre機가 곧 경계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F—80戰爆機와 F—84 戰鬪機들은 低高度에서 敵機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IG—15 Jet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期間中 UN空軍의 對空활동은 더욱 활발히 展開되었다.

(2) 遮斷作戰

2월부터 敵의 對空砲의 配置는 漸次로 戰線 가까이까지 南下하는 傾向으로 分析되었는데 特히 新安州 부근의 교량과 滿浦鎭線의 철로를 따라 軍隅里부근까지 증강되는 趨勢로 보였다.

또 UN空軍에서 『Shoran 作戰』지역으로 결정한 新安州 일대에 對空砲를 增配하였으며, 오직 淸川江에 沿한 그 東北쪽 지역만은 例外로 對空砲의 配置가 없는 듯 하였으나 淸川江 沿岸에서부터 『Shoran 作戰』地域까지의 江의 兩岸에는 Radar調整 探照燈을 설치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 제3전폭전대의 戰爆機들은 夜間에 이 地域에 대한 폭격을 단행할 때에는 地形을 참작하여 急降下로써 最低高度에서 목표를 폭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도 夜間爆擊을 수행토록 그 임무가 전환되어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과 合勢하였는데 極東空軍 폭격司令部의 폭격 順位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달 以前과 커다란 變動이 없는 것이었다.

첫째 : 北韓의 敵 비행장에 대한 폭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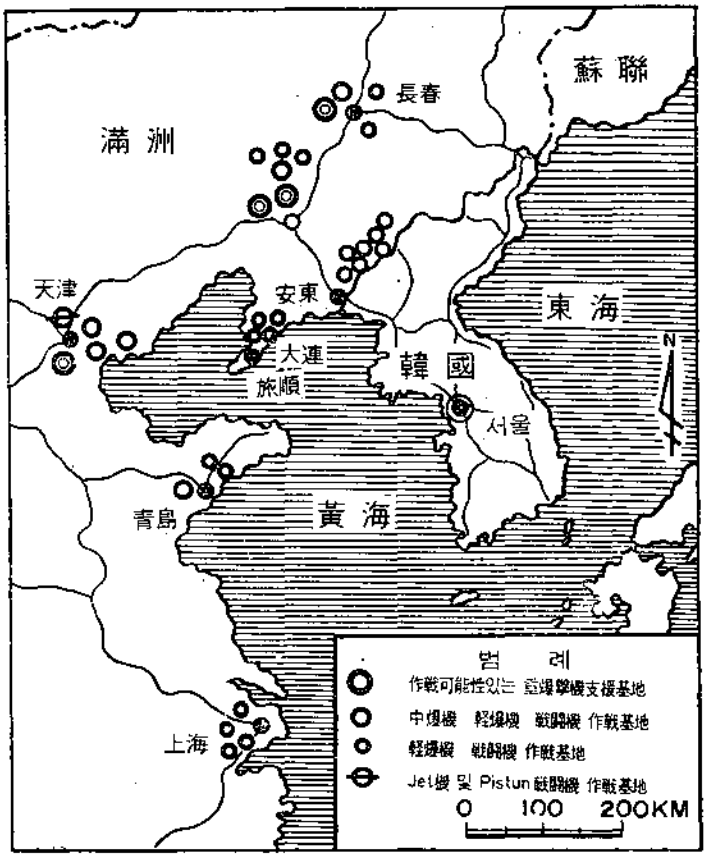
둘째 : 주요 철교와 幹線 교량에 대한 遮斷폭격.

세째 : 敵의 操車場에 대한 폭격.

그러나 UN空軍에서는 지난 年末부터 北韓의 各비행장에 대하여 小規模의 作業으로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게끔 폭파하였기 때문에 가끔 B—29 重爆擊機들의 補級的인 폭격만으로서 能히 繼戰이 困難할 程度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偵察機들의 細密한 정찰 結果로 밝혀졌다.

따라서 B—29重爆擊機 戰力의 大部分은 『Strangle 作戰』에 있어서의 爆擊司令部가 맡은 교량 폭파에 집중되었으며 그 교량을 폭파한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주요 操車場과 보급품

◇ 상황도 제51호 中共의 비행장 현황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發揮케 하였다.

이달에 美 제5공군의『Strangle 作戰』을 變更함에 따라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爆擊司令部에 要旨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이달에 軍偶里—熙川 그리고 新安州—新義州間의 2개 주요 철로로 이어지는 철교들을 恒時 사용이 불능한 상태로 유지하라』이러한 命令에 따라 爆擊司令部에서는 B—29重爆擊機를 6대 乃至 16대를 1개 편대로 하여 폭격토록 하였는데 이달 中旬以後부터는 1개의 교량폭파에 동원되는 대수가 증강되었고 이달 28일에는 B—29重爆擊機 49대가 新安州에 있는 兩個의 迂回 철교를 목표로 출격하여 各 徑間에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사용불능토록 하는 目的을 達成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철도遮斷에 대한 集中爆擊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案의 모색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 까닭은 每日 無數한 곳에서 철도가 절단되고 있지만 夜間이나 惡天候 또는 晝間이라 할지라도 UN空軍機가 출격하지 않는 地域에서는 敵의 철로 복구작업이 계속되었으므로 小規模의 절단인 경우에는 敵은 끈덕진 수리로 몇시간 지나지 않아 能히 復舊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에서는 同一 목표에 集中的인 폭격을 단행하여 覆滅을 期하니 주요한 修理用 重裝備의 不足으로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事實을 美 제5공군 情報部에서 提供하였는데 이를 實證이나 하 듯이 敵이 解氷期의 수송로를 유지코자 이를 再建하려는 企圖에 打擊을 주게된 것이 분명하였다.

또 美 제5공군 司令官 Frank F. Everest 중장은 麾下 各 비행단에 그의 決心을 다음과 같이 披瀝하였다.『敵에게 甚한 타격을 주기 위하여 가능하면 지정된 주요철로의 路盤까

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폭탄을 24시간 계속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美 제5공군의 爆擊機로써 晝間에는 同一 목표에 대하여 每 8시간마다 반복하여 폭격하고, 夜間에는 B—26輕爆機로써 照明彈과 폭탄을 同時에 적재하고 출격케하여 照明彈을 投下하는 즉시로 500 Lb폭탄 10개를 同一 철도목표에 집중하고, 아울러 주요보급로를 따라 공격목표를 捕捉하자 곧 機銃掃射와 100 Lb彈의 폭격을 加하는 方式을 採擇하게 되었다.

이러한 遮斷 폭격의 4개 목표가 된 곳은 沙里院—平壤間과 三登里—順川間을 비롯하여 軍隅里—熙川間과 新安州—南市 間에 指向되었는데 그 밖에도 美 제5공군의 B—29重爆擊機가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까지 맡았던 까닭에 順川—新安州間의 철교와 철도 수송상의 中心要地에 폭격을 集中하였다.

期間中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316회에 걸쳐 출격하였는바 이 중에서 근접지원은 1일 평균 6회, 그리고 遮斷 출격은 212회에 達하였다.

뿐만 아니라 武裝偵察은 1일 평균 8회 掩護출격은 평균 1회, 敵機를 격퇴한 空中반격 출격은 89회로 도합 9,172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2월중에 활약한 UN空軍의 日日作戰 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2월 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淸川江 상공에서 MIG—15Jet기와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그중 1대를 격추하였으며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는 夜間에 成川 철교에 폭탄을 집중하여 徑間들을 끊어 놓아 사용 불능토록 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F—51(Mustang)戰爆機를 비롯하여 各 Jet 戰爆機들은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도 併行하였다.

2월 2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18대는 新義州 東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55대와 空中戰 끝에 敵機 3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며 戰爆機는 敵 집결지에 폭탄과 Napalm탄을 투하하여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또 이날 오후에 機種을 알수없는 6대의 敵機가 金城 南쪽에 나타나 我地上軍 陣地에 機銃掃射를 加하였으나 아무런 損失도 없었다.

2월 3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空中戰 끝에 敵機 2대를 격추하고 F—51(Mustang)戰爆機들은 海州 地區의 敵陣地와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게 하였다.

2월 4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MIG通路에서 MIG—15 Jet기들과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파하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北韓內의 주요 보급根據地와 機動路에 대하여 猛爆을 斷行하였다.

또한 이날 美 國防長官은 美 上院 歲出分科위원회의 公聽會에서 言明하기를『美國은 현재 敵의 MIG—15 Jet기보다 우수한 航空機를 製作 實驗中이다』라고 하였다.

2월 5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편대는 新安州 철교에 폭탄을 集中하여 徑間들을

폭파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敵의 戰線後方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Napalm탄 洗禮를 加하였다.

2월 6일 : 이날은 文登里 溪谷 西쪽에서 UN地上軍의 探索隊와 敵과의 接戰이 있었을 뿐 全 戰線의 戰況은 대체로 평온하였기 때문에 美 제5공군 戰爆機는 UN艦載機와 合同하여 鎭南浦에 있는 군사시설과 보급품 집적소에 大爆擊을 加하였다.

2월 7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半破하여 추락시키고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擊機 편대는 이날 夜間에 新安州 철교에 폭탄을 집중하여 徑間을 폭파하였다.

또 이날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말하기를 『UN空軍의 폭격이 만일 中斷된다면 우리는 30일내에 北韓 비행장으로부터 巨大한 Jet기 편대의 공격을 받게될 것이다』라고 警告하였다.

2월 8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계속하고 B—26 輕爆擊機는 이날 夜間에 軍隅里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宣川에 있는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삽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2월 9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前後 2次에 걸친 空中戰을 전개하여 3대를 半破 墜落시키고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機 편대는 이날 夜間에 定州부근의 주요철교에 폭탄을 집중하여 徑間을 폭파하였다.

2월 10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5대를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나 이 空中戰에서 敵機 격추 기록 保持者인 George A. Dauis소령(美 제5공군 제4邀擊비행단 소속)이 軍隅里 상공에서 敵의 對空砲火로 散華하였으니 自由를 守護하는 勇士 한사람의 喪失은 곧 UN군 全體의 一大損失이 아닐수 없었다.

이날 UN空軍은 戰線에 대한 근접지원과 敵의 後方遮斷을 爲한 출격등 도합 1,057회를 기록하였다.

2월 11일 : 전날에 이어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그중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반파 추락케 하였다.

2월 12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前線 背後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Napalm탄을 集中하여 이를 燒失케 하는 한편 敵의 後方 깊숙히 출격하여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遮斷 포격도 아울러 敢行하였는데 특히 熙川 西南쪽의 터널 2개소를 폭파하여 이곳을 통과하려던 貨物車輛을 埋沒시킴으로써 철도에 대한 遮斷目的을 充分히 達成하였다.

2월 13일 :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는 전날에 이어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並行하여 敵의 後方遮斷을 위한 출격을 하였는데 이날은 주요철도 시설과 操車場에 대한 폭파에 專力하였다.

2월 14월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에 併行하여 敵의 前線으로 通하는 보급로와 機動路에 차단 폭격을 단행하고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그중 1대를 격추하였다.

2월 15일 : 敵에 대한 後方 차단 폭격을 斷行中인 美 제5空空의 B—26과 B—29 兩爆擊機를 엄호하던 F—86 Sabre Jet 邀擊機 19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30대와 空中戰 끝에 그중 1대를 반파 擊墜케 하였다.

2월 1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파하고 1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날 美 제5공군에서 週間戰果를 발표하기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5대를 격추하고 11대를 격파하였는데 我空軍의 損失은 3대였다』라고 하였다.

2월 17일 :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는 北韓에 있는 군용건물을 비롯하여 各 철도시설에 猛爆을 단행하는 한편 이를 掩護하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MIG通路에서 前後 2次에 걸친 空中戰끝에 敵機 4대를 격추하고 1대를 격파하였다.

2월 18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空中戰끝에 2대를 半破 격추하는 한편 戰爆機 편대들은 北韓地域內의 주요 철도시설에 대한 폭격을 併行하였다.

이날 美 空軍當局은 發表하기를 『지금 MIG—15 Jet기보다 우수한 航空機를 生產中이며 新型 Jet邀擊機들이 參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월 19일 : 전날에 이어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北韓內의 주요 철도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이 戰爆機들을 엄호하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기 3대를 격추하였다.

2월 20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2次에 걸친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파하고 B—29重爆擊機들은 이날 夜間에 宣川 南쪽에 있는 철교에 폭탄을 집중하여 徑間을 大破하였다.

2월 21일 : UN空軍의 F—51(Mustang)戰爆機를 비롯한 各種 戰爆機는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으로 출격을 실시하고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은 新安州 東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이날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발표하되 『지난 1월 29일과 30일 兩日間에 B—29重爆擊機의 搭乘員들이 元山과 順川 상공에서 목격하였다는 球形비행 물체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2월 22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파하고 또 戰爆機들은 敵의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 폭격을 併行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過間 戰果 및 損失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敵의 MIG—15Jet기 11대를 격추하고 9대를 격파하였으며 我空軍機는 10대의 損失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2월 23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36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4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였으며 UN空軍의 戰爆機는 敵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투하하여 많은 物資를 소실케 하였다.

이날 Philippine에서 美 極東空軍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聲明하되 『韓國의 休戰交涉은 漸次로 成立에 接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2월 24일 : UN空軍의 戰爆機는 敵의 철도시설에 대하여 폭격을 계속하는 한편 Australia 空軍의 Jet戰爆機 편대도 北韓 靑丹邑의 敵군사시설에 猛爆을 加하였다.

2월 25일 : 美 제5공군의 F—51(Mustang)戰爆機는 金城 및 杆城地區의 敵陣地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대적인 爆擊으로 極甚한 打擊을 加하는 한편 極東空軍의 B—26과 B—29 兩爆擊機 편대도 北韓 깊숙히 進擊하여 敵의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 폭격을 단행하였으나 氣象이 고르지 않아 목표 選定에 대한 정확성을 잃기도 하였다.

2월 26일 : 전날에 이어 北韓 상공의 氣象은 심한 눈보라로 비행활동이 中斷되었는데 이날 UN空軍의 출격은 14회에 不過하였다.

2월 27일 : UN空軍은 2일동안 계속된 不良한 氣象이 漸次로 회복되어 敵의 보급로 차단 폭격을 전개하는 한편 戰爆機와 B—26 및 B—29 兩爆機 편대를 掩護한 F—86 Sabre Jet 邀擊機는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기들과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墜落케 하였다.

2월 28일 : 美 제5공군의 B—26과 B—29 兩爆擊機들은 北韓의 주요 철도와 군용물건에 대하여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建物등을 燒失케 하고 鐵道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2월 29일 :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平康 北쪽에서 前線으로 南下中인 戰車 부대를 捕捉하자 곧 急降下 하면서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그중 4대를 全破하고 3대를 반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2월중의 戰果로써 MIG—15 Jet기 51대를 全破 또는 半破하고 損失로서는 UN空軍機는 27대를 잃었다고 발표하였다.

期間中의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MIG機 擊墜 또는 半破 51대	B—26輕爆擊機 3대
鐵橋 爆破 4개소	B—29重爆擊機 2대
戰車 全破 7대	F—51戰爆機 7대
敵의 軍트럭 全破 2,367대	F—80戰爆機 3대
損失 (美空軍機)	F—84戰鬪機 16대
	F—86戰鬪機 5대

다. 3월중 UN空軍의 活動

(1) 對空戰鬪

3월 初에 UN空軍에서는 그동안 F—86E Sabre Jet 邀擊機와 MIG—15 Jet 기와의 성능에 대하여 細密한 연구 檢討끝에 그 比較分析을 매듭지었는데 이에 의하면 敵의 MIG기는 이제까지 모든 고도에서 F—86E Sabre Jet 邀擊機보다 上昇力이 우수하고 상승율은 그 高度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顯著하였다.

따라서 MIG기의 성능이 30,000 ft 以上에서 뚜렷이 나타났고 20,000 ft 以下에서는 F—86기와의 차이가 別로 크지 않지만 MIG—15 Jet기가 계속 上昇할 때에는 그 邀擊이 불가능하며 또 水平과 上昇에 있어서 F—86機보다 그 機動性의 우수함이 一般的으로 시인되었다.

즉, F—86E Sabre Jet 邀擊機는 20,000 ft 以下에서는 MIG—15기보다 水平 비행高度가 多少 우세하지만 敵機를 邀擊하다 보면 MIG기가 더욱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므로 別로 큰 힘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30,000 ft 以上의 고도에서 기동력을 변경하여 急上昇할 때에는 MIG機의 性能이 더욱 우수하였다.

또 F—86E Sabre Jet 邀擊機는 모든 고도에서 急降下와 長距離下降을 0.95(Mach) 以上의 機動力으로써 充分히 敵機를 邀擊할 수 있으나 敵機는 追擊을 받을 때에 결코 降下하면서 逃避하지는 않았으며 機動力을 전환하여, 高角(High Angle)으로 急上昇하는 機能이 全高度에서 MIG機가 F—86機를 凌駕하는 것을 實證하였다.

옆들이(Rolling) 능률은 F—86機가 MIG기보다 우세하나 45,000 乃至 47,000 ft상공에서 4기 편대비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反面에 MIG機는 50,000 ft 以上의 고도에서도 能히 6機 편대비행이 可能하였다.

이와같이 MIG—15 Jet 機는 UN空軍의 F—86E Sabre Jet 邀擊機보다 全般的으로 凌駕하는 성능이라는 것이 35,000 ft 以上에서는 明確하게 反證되었고 20,000 ft 以下에서는 그 기능이 對等함에도 不拘하고 F—86기 조종사들의 뛰어난 조종술로 30,000 ft 以下에서는 MIG機보다 빠른 旋回비행과 邀擊으로써 이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UN空軍의 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美空軍當局에서는 新型 戰鬪邀擊機의 生產에 注力하게 되고 UN空軍에서는 우수한 조종사들의 조종술을 최대로 활용하여 계속 制空權을 장악하고 MIG기의 出沒空域을 制限하는데 拍車를 加하였다.

그러나 이달에는 夜間에 있어서의 敵의 空中 활동이 증가되었으므로 지난달 美 제5공군에 배속된 제319전투 邀擊大隊의 F—94B 全天候 邀擊機들이 이달 22일부터 水原(K—13) 基地에서 작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大隊는 韓國에 進駐할 때 F—94B 全天候邀擊機 25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美 제5공군의 1개대대의 全天候 邀擊機가 어둠속을 뚫

고 侵襲하는 敵의 夜間戰鬪機들을 격퇴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跳梁코자 노리던 敵機들에게 一針을 加하게 된 것이다.

(2) 遮斷作戰

지난 달 末부터 夜間에만 보급품 수송을 계속하던 敵의 철도망을 効果的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UN空軍에서는 3월以來 展開한 『集中爆擊(Saturate) 作戰』에 專念하였는데 特히 美 제5공군 제3전폭비행단에서는 敵의 軍트럭 폭파임무를 수행하던 戰爆機의 40% 戰力을 이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 『集中爆擊(Saturate) 作戰』 計劃書에 따르면 B—26輕爆擊機는 照明彈을 投下한 다음 B—26輕爆機의 목표위치에 關한 協力을 받으면서 철도遮斷 목표에 急降下로 突入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뒤에 이미 定하여진 暗戒路를 따라 다른 편대의 戰爆機들과 合同하여 基地로 歸飛하는 途中에서도 오히려 50mm Caliver와 Rocket탄을 비롯한 폭탄들을 敵의 보급품 수송목표에 집중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美 제5공군 제3전폭비행단에서는 每日 밤 49대의 B—26輕爆機를 철도 차단 폭격으로 출격하였을 뿐 아니라 UN空軍의 戰爆機들이 이 작전에 每日 평균 300회를 출격하여 도합 600개의 폭탄을 집중 투하 하였다.

또한 UN空軍의 『窒息(Strangle) 作戰』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이달 25일까지는 주춤한 상태였으나 이날 新安州—定州間의 철도를 폭격목표로 다시 결정하였는데 이 지역은 水位가 높고 長距離에 걸쳐 路盤이 완전하며 河川의 교량이 2개나 가설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적 敵의 對空砲 배치가 미약한 까닭에 選定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307대의 戰爆機가 1,000 Lb의 폭탄 530개와 500Lb의 폭탄 84개를 投下하고 다음날인 26일에는 戰爆機 161대가 1,000 Lb의 폭탄 322개를 投下하였으며 전날 밤부터 이날 밤 사이에 B—25輕爆擊機 8대가 500 Lb의 폭탄 42개를 晝間에 파괴되지 않은 철로에 집중하였다.

한편 이날 25일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41대가 平壤에 있는 225 ft의 교량을 完破하고 28일에는 47대가 320 ft의 新安州 교량을 폭파하였으며 31일에는 新興洞의 교량을 B—29重爆擊機 13대가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美 제5공군 제8전폭전대의 F—80戰爆機는 敵의 보급품 집적소에 對한 폭격을 단행하였는데 特히 物開里부근의 20平方 mile에 達하는 보급품 집적소 一帶에 대하여 51대의 F—80戰爆機가 도합 254회에 걸쳐 출격한 결과 277 ton의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平壤南쪽에 있는 6개의 보급품 집적소중 1개소인 이곳을 불 바다로 만들었다.

期間中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373回의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그중 근접지원이 35회, 遮斷출격이 205회에 이르렀다.

또한 武裝偵察 출격은 1일 平均 23회, 掩護출격은 5회, 敵機를 격퇴한 空中反擊은 105회

로 도합 11,569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3월중 UN空軍에서 實施한 日日作戰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3월 1일 : UN空軍의 B—26輕爆擊機 편대는 前線을 向하여 南下中인 敵의 戰車 隊列을 捕捉하자 곧 急降下 폭격을 集中하여 戰車 3대를 전파하고 6대를 半破하는 한편 F—86 Sabre Jet 邀擊機 27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30대와 空中戰 끝에 1대를 半破 격추시키는 등 이날 도합 475회의 출격으로 MIG기 15대를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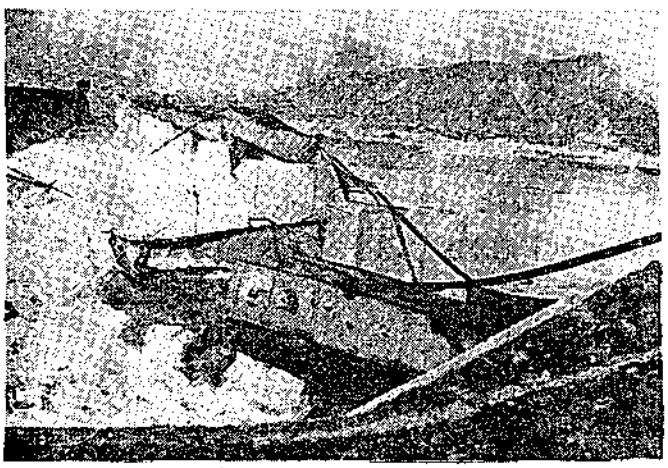
한편 美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美空軍의 機構改編을 발표하였으며, 白堊館에서는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berg 대장의 任期가 來 4月末에 滿了되지만 이를 다시 1년 2개월간 延長할 것이다』라고 발표 하였다.

3월 2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는 UN海軍의 艦載機群과 合同으로 平壤 西南쪽 海岸砲 陣地에 폭탄을 집중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夜間에는 B—26 輕爆擊機들이 元山—平壤間의 交通要衝地인 陽德을 강타하는 동 UN空軍은 이날 도합 600회의 출격으로 北韓內의 보급로 62개소를 폭파하였다.

3월 3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90대와 前後 2次에 걸친 空中戰에서 5대를 격추하는 한편 平壤 南쪽에서는 4倍 以上의 敵機와 攻防戰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3월 4일 :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는 金化 北쪽에서 急降下 機銃掃射로 敵 20명을 射殺하는 한편 F—86 Sabre Jet邀擊機 28대는 鴨綠江 상공에서 MIG—15 Jet기 5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파하는등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1,000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北韓內의 보급로를 大破하였다.

3월 5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26대는 韓滿國境에서 MIG—15 Jet기 5대를 격추하였다.



<UN空軍의 爆擊에 의하여 파괴된 敵의 鐵橋>

3월 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 6대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 22대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격추케 하였으며 戰爆機들은 보급품을 수송하는 貨物車輛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急襲하여 50輛을 전파 燒却시켰다.

3월 7일 : 이날의 氣象은 비바람이 눈보라로 바뀌는등 고르지 않은데도 不拘하고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는 보급품 집적소와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 敵 後方에서 前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폭격을 감행하였는데 그 출격 回數는 도합 200회에 達하였다.

3월 8일 : 美 제5공군의 B—26輕爆擊機 편대와 美 海兵 戰爆機들은 敵의 後方 깊숙히 進襲하여 보급로 차단폭격을 斷行하였는데 이날도 전날에 이어 暴雪雨로 말미암아 UN空軍의 활동이 비록 低調하였으나 오히려 290회의 출격을 記錄하였다.

또 이날 極東空軍에서는 週間의 綜合戰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期間中 도합 9,700회의 출격으로 敵의 MIG—15 Jet기 9대를 격파하고 8대를 半破 격추시키는 동시에 敵 285명을 살상하였으며 戰車 7대를 전파하고 3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나 UN空軍機도 9대의 損失을 보았다.

3월 9일 : UN空軍의 戰爆機들과 B—26輕爆擊機를 비롯하여 B—29重爆擊機들은 敵의 보급로 차단 폭격에 注力하였는데 이날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敵의 주요 철도 50개소가 절단되었을 것이므로 보급수송에 致命傷을 免치 못하였을 것이다.

3월 16일 : UN空軍의 戰爆機 100대는 順川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에서 500,000 Lb의 폭탄을 집중 투하하여 全燒케하는 한편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鴨綠江을 越境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한 끝에 7대를 격추하고 3대를 반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11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 기들과 空中戰을 전개하여 4대를 격추하고 5대를 반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開戰 以來 격추된 敵의 MIG기는 도합 205대에 達하였다.

3월 12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기들은 北韓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기들과의 空中戰에서 敵機 4대를 격추하고 2대를 반파하였으며 戰爆機 편대들은 敵의 보급로를 폭파하는 한편 B—29重爆擊機 7대는 平壤 비행장에 70 ton의 폭탄을 집중 투하하여 작전불능토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도합 500회의 출격으로 平壤—新義州間의 철도 94개소를 폭파하고 철교 1개소를 비롯하여 貨物車 13輛을 폭파하였으며 野砲 7문과 高射砲 2문 및 船舶 10척을 전파 또는 반파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3월 13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敵陣에 대한 猛爆을 斷行하였는데 즉 Jet기와 戰爆機 편대들은 東海岸에서 開城 西北쪽 海岸에 이르는 敵의 前線全地域에 있는 敵의 陣地와 시설을 목표로 機銃掃射와 폭탄 투하로써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美 제5공군의 F—51 戰爆機와 海兵 航空機들은 23개소의 敵陣地에 폭탄을 집중하여 陣地를 폭파하고 敵 20명을 殺傷하였는데 한편 美 空軍의 Shuting Star Jet기들은 元

山과 平壤에 있는 彈藥庫에 폭탄을 집중하니 連鎖的인 폭발로 그 일대가 삽시간에 修羅場이 되었다.

이날 그밖의 UN空軍의 戰果는 野砲 14문과 高射砲陣地 4개소 그리고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敵의 철도차량 29輛을 전파하였다.

3월14일 : UN空軍은 惡天候에도 不拘하고 도합 400회의 출격 결과 Jet기와 戰爆機들은 敵의 前線에 있는 野砲陣地에 폭탄을 집중하는 한편 18개소의 敵陣地와 對空砲陣地 12개소를 전파 또는 반파하고 敵 16명을 爆死시켰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 發表하되 『開戰以來 美 제5공군의 전투 邀擊機에 의하여 격추된 敵機는 도합 258대이고 반파된 敵機는 모두 402대에 達한다』라고 하였다.

3월 15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北韓의 敵 後方 보급시설과 敵의 前線에 있는 敵陣地에 폭탄을 집중하여 敵110명을 살상하고 B—26輕爆擊機들은 新安州 철교의 徑間을 폭파하는 한편 前線으로 南下하는 軍트럭부대를 捕捉하자 곧 이에 急降下 폭탄을 집중함으로써 그중 15대를 전파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週間戰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敵의 MIG—15 Jet기 15대를 격추하였으나 UN空軍機도 8대의 損失을 보았다는 것이다.

3월 16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3次에 걸친 空中戰끝에 5대를 격추하고 8대를 반파하는 戰果를 거두었고 이날 밤 UN戰爆機들은 달빛아래 敵의 軍트럭 부대를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을 집중하여 10대를 반파하였으며 B—26 輕爆擊機 9대는 沙里院 비행장에 50,000 Lb의 폭탄을 집중하여 작전 불능토록 폭파하는 등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50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3월 17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편대들은 新安州 비행장에 100 ton의 高性能 폭탄을 집중 투하하여 작전 불능토록 만들었으며 이날 UN空軍機들은 1,000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敵陣地와 보급품 집적에 猛爆을 加하였다.

3월 18일 : 이날 UN空軍의 Jet기와 戰爆機들은 東部 및 中部戰線의 敵 陣地와 野砲陣地를 파격하였으며 對空砲陣地 8개소와 陣地 18개소를 覆滅하였다.

3월 19일 : 이날 氣象이 고르지 않아 午前에는 비행활동이 中斷되었으나 오후에는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이 新安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MIG—15 Jet기와 恰似한 新型의 MIG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파하고 이어 계속된 2次 空中戰에서 新型 MIG Jet기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반파 추락케 하였다.

3월 20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敵의 前線 一帶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에 폭격을 단행하고 이날 오후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新安州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반파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다른 F—86 Sabre Jet 邀擊機 편대들도 新安州 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機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반파

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21일 : UN空軍은 東西 兩海岸으로 戰爆機를 출격시켜, 敵의 보급로와 敵兵 집결지에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B—29 重爆撃機들은 鎭南浦 操車場과 軍隅里 北쪽 철도에 대대적인 폭격을 加함으로써 敵의 철도수송을 마비시켰다.

3월 22일 : 美 제5공군의 F—84 Jet 邀撃機들은 東海岸 일대의 敵陣地를 强打하여 數 미상의 敵 待避所와 塹壕를 폭파하였다.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 發表하기를 『開戰 以來 UN空軍은 敵機 502대를 撃墜하고 495대를 격파하였으며 我空軍은 Jet기 219대와 其他 推進式 戰爆機 228대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3월 23일 :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F—86 Sabre Jet 邀撃機 편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敵의 後方차단 폭격을 自由로이 전개하여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날 오후에는 F—51 戰爆機 편대가 開城 東北쪽의 敵 집결지 9개소를 폭격하였다.

3월 24일 : 美 제5공군의 B—25輕爆撃機 편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보급품을 滿載한 軍트럭 83대를 전파 燒却시키고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撃機와 F—84 Thunder Jet機는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3次에 걸친 空中戰끝에 5대를 격추하고 11대는 반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25일 : UN空軍의 F—85 Sabre Jet 邀撃機는 新義州 東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고 F—84 Thunder Jet機 편대들은 金川 機動路를 따라 南下中인 敵의 戰車 3대를 격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戰爆機 3대는 新安州—定川間의 철도에 高性能 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폭파하는 등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는 도합 1,199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開戰以來 日日出撃 제3위를 記錄하였으며 夜間에는 B—23輕爆撃機가 敵의 前線으로 보급로를 수송하는 軍트럭 群에 대한 急降下폭격도 敢行하였다.

3월 26일 : UN空軍의 戰爆機는 전날에 이어 新安州—定川間의 철도 차단 폭격을 실시하고 B—23輕爆撃機는 敵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집중하는 한편 肅川에 있는 操車場 폭파를 비롯하여 北韓의 機動路에서 軍트럭 54대를 전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월 27일 : 이날은 짙은 안개로 空中戰이 困難하였으나 Australia空軍의 Jet기 2대는 平壤南쪽에 있는 군용건물에 폭격을 加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이른 아침에 肅川 操車場을 폭격하고 귀환중이던 UN空軍의 B—23輕爆撃機 1대는 滿洲平野로부터 휘몰아치는 狂風暴雨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事例도 있었다.

또 이날 極東空軍에서 發表하기를 『美 제5공군과 Philippine에 駐屯한 美 제13공군을 비롯하여 韓國과 日本의 美 제315戰鬪物資 수송비행단 등 180,000명의 병력과 數千대의 비행기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였다.

3월 28일 : 이날 오전에 UN空軍의 B—26輕爆擊機 편대는 北韓의 철도와 機動路에 대한 차단 폭격을 단행하고 '오후에는 淸明한 氣象을 이용하여 美 제5공군의 戰爆機와 Jet기들이 大大的인 출격으로 敵의 보급로 차단 폭격을 敢行하였다.

한편 이날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berg 대장은 美 下院歲出委員會 小委員會에서 說明하기를 『蘇聯은 長距離 原子폭탄과 Jet기의 생산이 豊富하며 中共이 滿洲에 건설한 空軍基地는 美國의 全 世界에 駐屯한 基地數보다도 많다』라고 하였다.

3월 29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 끝에 11대를 반파 격추케 하였으나 我軍側에서도 2대를 喪失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 發明하되 『지난 週에 數台의 UN機가 極甚한 惡天候로 말미암아 歸還하지 못하는 不祥事가 있었으나 敵은 新安州—定川間의 철도에 UN空軍의 계속된 폭격을 받고 철도수송의 마비상태를 免치 못하고 있으며, 1週間의 成果는 철도폭파 579개소와 보급품 집적소 290개소를 비롯하여 貨物車輛 477輛과 戰車 3대를 완파하였다』라는 것이다.

3월 30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北韓 상공에서 MIG—15 Jet기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4대를 격파하였는데 또 戰爆機들은 軍隅里 北쪽의 교량 1개소와 操車場을 폭파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 편대들은 海州의 보급품 집적소와 沙里院—黃州간의 철도 線上에 각각 痛擊을 加하였다.

3월 31일 : 이날은 비가 내리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輕微하였는데 지상 戰況은 東部戰線의 杆城 西北쪽인 UN軍 前哨陣地에 대한 敵의 侵攻으로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고 漣川 西쪽 高地에서도 一進一退의 激戰이 계속되고 있어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惡天候에도 不拘하고 我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을 敢行하여 空地協同의 極致를 보여주고 敵에게 痛擊을 加하니 將兵의 士氣는 沖天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失(美 空軍機)
MIG기 擊墜 또는 半破 104대	B—26輕爆機 6대
戰車 全破 13대	B—29重爆機 1대
補給路 爆破 794개소	F—51戰爆機 7대
貨物車輛 全破 140량	F—84戰鬪機 19대
野砲 全破 7문	F—86戰鬪機 4대
對空砲陣地 爆破 36개소	
船舶 全破 10隻	
軍트럭 全破 1,750대	
爆殺 431명	

第 50 章

白野戰 戰鬪司令部의 作戰

1. 參加部隊 및 主要 指揮官
2. 作戰前의 槪況
3. 作戰計劃
4. 作戰經過의 槪要
5. 作戰後의 槪況

第50章 白野戰 戰鬪司令部의 作戰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2월 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2 호
상 황 도 제55.56.57.58.59.60호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白야전전투사령부사령관	중장	白善燁
首都사단	장 군장	宋堯讚
기갑연대	장 대령	李龍
제1대대	장 소령	李鵬稙
제2대대	장 소령	朴翊均
제3대대	장 대위	朴明景
	대위	韓錫基 (52. 1. 25부터)
제1연대	장 중령	朴春植
제1대대	장 소령	尹鍾浩
	소령	咸鎔翼 (51. 12. 10부터)
제2대대	장 소령	李鍾錄
제3대대	장 소령	朴魯雄
	소령	金承吉 (51. 12.10부터)
제26연대	장 대령	李東和
제1대대	장 소령	車文錫
제2대대	장 소령	朴基淳
제3대대	장 소령	禹敬鵬
제8사단	장 준장	崔榮喜
제10연대	장 대령	鄭剛
제1대대	장 소령	車萬石
제2대대	장 소령	李基萬
제3대대	장 소령	林炳根
제16연대	장 대령	李存一
제1대대	장 소령	李定浩
제2대대	장 소령	韓丙甲
제3대대	장 소령	鄭順基
제21연대	장 대령	全富一
제1대대	장 소령	金光哲
제2대대	장 소령	金同會
제3대대	장 소령	林彰模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준장	金容培
제107예비연대	장 중령	金海日
제110예비연대	장 중령	金在命
제117예비연대	장 중령	盧永牧
제1경비대대	장 중령	柳根春
	대위	李鍾益(후임)
제2경비대대	장 소령	金相興
	중령	河正煥(후임)
제9경비대대	장 소령	車東俊
南原 治安局前方司令部 治安局長대리	경무관	崔致煥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사령관 경무관 李 咸 雨
제200경찰연대 장 총경 金 東 淳
제207경찰연대 장 총경 文 鶴 東
鷄林경찰대대 장 경감(임시)徐泰翰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사령관
경무관 辛 相 默
제203경찰연대 장 총경 趙 石 元
제205경찰연대 장 총경 金 源 湧
제18경찰대대 장 경감 車 一 赫
경감 李炳善(후임)
제36경찰대대 장 경감 金 錫 琓
七寶경찰대대 장 경감 李 鶴 熙
장 崔松基(후임)
白雅山경찰대대장 경감 金 東 鎭
朱炯來(후임)
全南전투경찰대대 장
경감 朱 在 善
경감 金基朱(후임)
全南(行政)경찰대대 장
경감 閔 丙 讚
제1102野戰공병대대 장
중령 朴 正 采
제225자동차수송대대 장
소령 金 興
제35野戰통신중대 장
대위 韓 哲 東

敵 軍

南반부 인민유격군 총사령관 李 鉉 相
南부군단 장 金 明 坤
제46사단 장 白 岩 一
제57사단 장 李 永 禧
제68사단 장 馬 泰 植
제81사단 장 金 興 福
제92사단 장 金 在 連
慶北道당 장 南 京 裕
全南道당 장 朴 春 成
全北道당 장 韓 奎 洪
제45, 제53, 제605, 제807사단
蘆嶺, 제51병단, 慶南道黨, 각郡黨

2. 작전 전의 개황

가. 국내 공비의 암약상황

1950년 9월 15일에 시작된 총반격전으로 退路가 막힌 일부의 北傀군과 지방 赤色분자들은 太白 및 小白山脈등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로 潛入하여 공비로 化하였는데, 그 수효는 同년 12월 현재 20,000명 규모로 추산되었다.

當時 이들은 전황의 불리로 말미암아 다만 延命을 꾀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潛伏期가 장기화되어 山中생활에 익숙케되고 더구나 中共의 침략으로 다시 전선이 南下하게 되자 점차로 擡頭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자체 정비를 통하여 그 조직을 강화하고 비무장 分子의 무장화에 광분하면서 암약지역을 확대하여 我軍 후방을 교란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활동은 다음해 1월에 접어들어서는 北傀로부터 밀파된 유격대와 합류하는 등 더욱 激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를 포착한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과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의 智異山 및 錦山 扶安지구작전(50. 10. 4~51. 5. 11), 그리고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의 太白山지구작전으로 가는 곳

마다 격파됨으로써 殘敵들은 深山 깊이 分散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새로운 방책으로 비무장공비들을 그들의 출신지로 潛入시키고 暗躍하기에 유리한 夏節期에 再入山케 하는 수법까지 쓰게 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때 三陟지방의 地利를 이용하여 분산 潛伏中이던 공비들은 제11, 제8 兩 사단의 전선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樹林이 무성하기 시작하자 병력을 再수습하고 날뛰는 듯 하였는데, 同년 5월~6월간에 걸친 활동은 主로 그 목표가 我경찰부대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 活動을 방해하고 이틈을 타서 再編強化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智異山일대와 그 인근에 潛伏中인 공비들은 제8사단이 전선에 進出한 뒤에 我경찰 전투병력만으로 要地 경비등으로 守勢로 바뀌게 되자 從來의 전술인 소수의 병력으로 目標를 기습한 다음 分散잠적하는 常例를 벗어나 집단병력으로 大膽하게 기습하는 방식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국내 공비들의 趨勢는 日月山지구에 70명~100명, 兄弟峰(丹陽)지구에 40명, 荊供山지구에 100명, 俗離山지구에 40명, 大屯山—德裕山—智異山—回文山—白雅山지구에 7,500명등 도합 8,300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同년 6월 중순에는 俗離山—三道峰(茂朱 東쪽)경유 德裕山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南部군단 병력 300여명이 그 두목 李鉉相의 지휘를 받아 智異山에 잠입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전선을 돌파 침투한 것으로 믿어지는 이른바 제6지대의 800여명은 太白山—兄弟峰—俗離山 일대에서 이 지역 공비들과 야합하여 갖은 만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智異山을 中心으로 한 일대에서 跳梁中이던 공비는 6월하순에 100명규모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特攻隊를 조직하여 西北山(馬山 西쪽)—鐵馬山 경유 雲門山및 荊供山(清道 東南쪽)에 침투하고 同지구 공비들과 合流하여 암약하는 등 遠거리에 걸친 跳梁마저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7월중순에는 德裕山에 은거한 것으로 믿어졌던 李鉉相의 주도아래 6道(慶南北, 忠南北, 全南北)黨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부와 군사부로 구성하는 二元체제 아래 師團制 편성으로 재편할 것과 그 本據地를 智異山에 설치할 것등을 결의하여 李鉉相을 총책으로 하는 南部군단의 단일 지휘체제 밑에,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我軍이 후방 平定작전의 소홀과 消極化를 奇貨로 이들은 이른바 「보급투쟁」이라는 이름아래 白晝에도 村落을 습격하고 통행차량을 기습하며 良民을 학살 납치하는 등 그 만행은 참으로 天人이 共怒할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南部군단의 主力으로 믿어지는 제57, 제81, 제82의 3개사단 병력과 智異山, 白雲山지구 유격대, 그리고 南原, 求禮, 山清郡黨 要員등 도합 3,800여명은 수시로 雲峰 谷城 河東등지에 出沒하므로 이지역의 民心은 극도로 불안에 싸여 騷然하였다.

그 한 例로 同년 11월 3일에 제57사단 소속 공비 300여명이 白雲에 內大里(山清郡 矢川面)에 침입하고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부락민을 強徵하여 秋收곡식을 약탈 입신하였으며 同월 25일에는 岳陽面(河東郡)에 侵襲하여 3일동안이나 체류하면서 秋穀을 掠取한 다음 1,000여명의 부락민을 拉致하여 山中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일까지 있었다.

나. 白야전 전투사령부의 轉進상황

戰線 후방에서 出沒하는 공비의 격멸전은 前述한 바와같이 제11, 제8 兩사단이 각기 時差를 두고 智異山을 中心으로 前後 2회에 걸쳐 전개하였거니와 東海지구에 있어서는 제2사단의 작전(51. 2. 17~4. 25)이 있은 다음 太白山지구전투사령부가 同년 4월 28일에 창설되어 이 지구 일대에서의 殘匪 격멸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嶺南 西部와 湖南지구에 있어서는 제11사단에 이어 공비격멸 작전을 수행한 제8사단의 戰線進出이 있은 다음부터 4개월 동안은 경찰부대로만 작전을 수행케 하다가 8월중순에야 南部지구 전투사령부(장, 金容培준장)가 設置되어 제1, 제2 양개 경비대대와 제107, 제110, 제117등 3개 예비연대를

統轄하여 경찰부대들과 더불어 激化하는 공비들의 출몰을 阻止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작전의 連續性을 缺如하고 병력의 逐次사용으로 敵勢를 감당키 어렵게되고 同년 10월초에는 이를 부대만으로서는 후방시설에 대한 경비와 안전 유지에도 未洽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陸本과 협의끝에 11월中間에 한국군만으로 強力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이 부대의 轉用으로 出沒하는 共匪를 短時日內에 섬멸하여 후방보급路에 대한 안전과 治安의 유지책을 強化키로 결심하였는데, 이와같은 措置는 韓國정부에서의 요청에 副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의 配慮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戰線이 피아의 대진으로 발이 얽혀 冬季中 我軍이 공세를 取하지 않는다면 戰況의 큰 변동은 예상되지 않으며 따라서 2개사단규모의 抽出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遊擊中인 공비를 격멸하기에는 낙엽기가 적기라고 판단된다.

세째, 韓國軍의 재편과 훈련을 위하여 후방작전의 經驗도 필요하다.

이리하여 그는 즉시 관계관들에게 韓國軍 2개사단으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것을 命令하였으며, 同時에 당시 제1군단장인 白善燁소장이 이를 지휘케 되었는데, 白소장은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白야전전투사령부가 金州에 개설되기 2~3주전에 李鍾贊 陸軍총참모장으로 부터 전화가 오기를 『Van Fleet대장과 만나 새로운 임무를 受領케 되어 있으니 急히 上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白소장은 李총참모장과 같이 美제8군 사령부(서울 梨花洞 서울大 본관)를 방문하고 그와 面談하는 자리에서 2개사단을 지휘하여 智異山일대 지구에서 暗躍中인 공비를 섬멸하는 임무를 委託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首都및 제8사단이 선정됨에 따라 곧 후방으로 轉用할 준비에 착수케 되었는데 首都사단은 11월 15일에 陸本작지 제107호에 의거 담당 地區를 제11사단에게 인계하고 同월 19일에 扶月里(東草)에 집결하게 되었고, 제8사단은 同월 18일에 陸本작지 제108호로 담당지구를 제7사단에 인계하고 22일~25일자로 春川에 집결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李鍾贊 총참모장은 兩개 사단을 根幹으로 「白특수임무부대」가 편성케 됨에 이르러 처음에는 『陸軍야전전투사령부』라 指稱하고 白소장 주도 아래 大邱에서 작전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케하면서 지원책을 熟議한 다음 同월 20일 18.00부로 陸本작지 제109호와 제110호로 兩개사단의 목표지역으로의 이동을 下命하였다.

먼저 제8사단의 이동요령과 경로를 밝힌 陸本작지 제109호의 大要에서 말하기를 『철도와 自隊수송기관을 이용하여 1개연대를 春川에서 金泉에, 2개연대를 春川에서 金州에, 同월 26일에서 30일까지 이동완료하라』는 것이며, 陸本작지 제110호는 『首都사단을 東草—麗水와 東草—馬山間 해상이동으로 목표지역에 진입하라』는 것이었다.

11월 26일 扶月里(東草근처)에 부대를 집결하고 부대정비를 갖추고 있던 首都사단은 이날 美해군에서 지원된 LST 10척에 병력을 3개제대로 區分 승선하고 이날 08.00를 期하여 제1, 제28 兩개연대와 직할부대는 東草를 出航한 다음 28일 08.00에 麗水에 상륙하고 이어서 이날 14.30에 順天으로 進入하여 사단 CP를 개설하는 동시에 제26연대를 河東에, 제1연대(—1)를 求禮에, 그리고 同연대 1개대대를 光陽에 각기 29일까지 전개 하였다.

한편 사단주력과 同일에 東草를 떠난 기갑연대는 28일 16.40에 馬山에 상륙한 다음 晋州를 거쳐 30일 院旨(丹城面)로 약진하고 智異山脈 南쪽을 三面에서 공격키 위한 태세를 굳혔다.

또 26일~28일 3일간에 8개의 임시 열차로 春川을 떠난 제8사단은 제16연대가 27일에 金州에 도착하고 28일 11.30에 南原에 進駐하게 되었으며, 제10연대가 27일에 春川을 출발하고 28일 08.00에 金

泉에 이르고 이곳에서 지원된 차량 30대(제806자동차중대)로 咸陽으로 전진하였다.

그리고 27일과 28일 兩일에 泰川을 떠난 사단본부와 제26연대가 29일 12.00에 南原에 진출하여 이곳에 사단 CP를 개설하고 제26연대만을 突進으로 이동 배비하여 智異山일대를 北쪽에서 포위 공격키 위한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같이 戰線부대의 전진이 진행되는 동안 同사령부는 大邱에서 참가부대 지휘관(대대장급 이상)들을 별도 소집하여 공비격멸작전의 계획을 소상히 알린 다음 陸本作戰지시 제113호(11월 23일 12.00부)에 따라 부대명칭을 「白야전전투사령부」로 改稱하고 同월 25일에 全州로 이동 하는 한편 그 前方 CP를 南原에 추진하게 되었다.

3. 작전계획

陸本직할下에서 兩개사단이 白善燁소장 지휘밑에 西南지구로 轉進하여 공비 격멸전을 전개하게 되자 李鍾贊 총참모장은 11월 16일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작전계획 제26호를 하달하였다.

『① 현 西南지구전투사령부 담당지구一圓에 대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② 군은 白전투부대를 사용하여 후방 西南지역에서 암약중인 공산 유격대를 섬멸하려 한다.

③ 白전투사령부

㉮ 全州부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現 西南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지구와 그 책임을 인수하라.

㉯ 首都 및 西南지구전투사령부가 麗水에, 제8사단이 大田에 이동 進入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지휘하라.

㉰ D일 H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다음 단계별 작전을 담당하라.

제1기작전 : 공비들의 강력한 據點인 智異山지구에 全부대로써 공격을 감행하라. 작전의 완료日程을 1월 10일로 豫定한다.

제2기작전 : 2개지역에서 동시에 감행하며 일부 부대는 全北지역의 강력한 공비 거점에 他 일부부대는 慶南지역내 공비 거점에 각기 사용하라. 작전의 완료日程을 12월 30일로 豫定한다

제3기작전 : 제1, 제2 兩期작전 지역에 대한 재탐색으로 殘敵을 격멸하라. 작전의 完了日程은 1월 10일로 豫定한다.

제4기작전 : 일부부대로 하여금 공비가 침투한 他지역에서의 격멸전을 專擔하라.

㉱ 上記단계의 계획은 1월 17일前에 陸本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부대는 항시 어떤지역에서라도 출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동시에 전선 進出을 준비하라.

㉲ 각기작전의 계획은 실시 2일전에 제출하라.

㉳ 가급적 신속한 방법으로 예속부대의 통할지휘日時를 보고하라.

④ 西南지구전투사령관은 현담당지구의 책임을 免하고 白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라.

⑤ 太白山지구전투사령부

㉮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면서 豊基—尙州, 忠州—尙州線을 차단 봉쇄하라.

㉯ 別命이 있을때 24시간內로 白전투부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

⑥ 치안국장

㉮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忠州—大田—全州선과 天安—江景선을 차단하라.

㉯ 別命이 있을때 24시간內로 白전투부대를 지원할 준비와 부가적으로 사용할 부대를 준비하라.

⑦ 제1102야전공병단

배속 : (제104, 제106야전공병대대, 제504철교중대, 제602경장비중대, 제1302전방보급중대, 제802경비중대 1개소대)白전투부대사령관의 命으로 전투부대를 지원하라.

⑧ 協調指示

㉮ 적극적인 방책으로 작전지역內 민간인의 행동과 이동을 제한하라.

㉯ 계획은 세밀히 그리고 極秘裡에 실시되어야 하며, 공비의 潛伏地는 발견 즉시 이를 고립시켜 각개 격파하라.

㉰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기동타격부대와 阻止부대 그리고 據點수비부대로 구분 실시하되, 기동타격부대로는 主力을 포착 격멸하는데 사용하고, 阻止부대로는 충분한 중심을 두어 배치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 阻止하고 타격부대를 원조하라.

㉱ 각지구 공비의 거점이 潰滅되면 기동타격부대는 기동력을 활용하여 분산된 殘敵을 격멸하기 위한 他지역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준비하라.

㉲ 각기작전에 있어서 阻止부대는 기동타격부대를 신속히 追隨하고 공비의 再起를 방지하라.』

이상과 같은 계획이 下達됨에 따라 白善燁소장은 참모장 金點坤대령과 작전참모 孔國鎭대령의 建議를 얻어 兩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부대로, 西南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들을 阻止부대와 據點수비부대로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同월 20일에 작전계획 제1호(제1기작전 계획참조)를 下達하여 제1기작전에 임할 그의 결심을 밝힘으로써 후방전선의 安定을 기하는 공비토벌작전이 그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윽고 同월 21일에 李鍾贊총참모장은 白야전전투사령부의 임전태세가 갖추어짐에 따라 陸本作指 제111호로 제8사단에 제110重박격포중대를 배속하여 首都사단이 제107重박격포 중대를 보유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게 하고 다음날인 22일에는 首都사단의 선박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할부대인 제301철도운용대대와 제302항만대대 항만중대 및 제10병기정비중대를 기한부로 배속하였다.

그리고 同월 23일에는 作指 제113호를 하달하여 白야전전투사령부를 11월 25일 18.00부로 全州에 설치할 것을 밝히고 要旨 다음과 같이 下命하였다.

『① 白야전전투사령관은 現 西南지구전투사령부의 담당職區를 11월 26일 06.00부로 인수함과 同時에 同부대를 통합지휘할 것이며 또한 아래 부대가 목적지에 진입함과 同時에 통합 지휘하라.

首都사단……麗水

제 8 사단……全州

제1102야전 공병단 } …南原

제225자동차 수송대대 파견대

② 陸本작전계획 제26호의 D일은 12월 1일임.

③ 정보보고는 작전계획 제26호 정보 보고에 의할 것이며 정기작전보고는 매일 00.01~12.00와 12.01~24.00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하라.』

4. 작전 경과의 개요

가. 第一期 (51.12.2~12.14)

(1) 작전계획

11월 16일에 陸本작전계획 제26호가 下達되어 白전투부대의 공비결멸전의 전모가 밝혀지자 白善燁소장은 곧 제1기작전부터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兩개사단의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首都사단을 智異山 南쪽에, 제8사단을 그北쪽에 배비토록하여 공비들의 根據地로 믿어지는 智異山일대 지역을 크게 포위한 다음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부대로 그리고 西南지구전투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부대

로 하여 四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일제히 中央으로 突進, 공비의 潛伏地를 일거에 분쇄하고 아울러 반복탐색으로 그 殘黨을 목표지역內에서 색출 격멸키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지역의 中樞지역을 점령키로 한 5일간을 前半期작전으로, 지역내의 반복탐색을 後半期작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동편성을 마련하였다.

首都사단(제11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배속)

기동타격부대……기갑, 제1, 제26, 3개연대

저지부대……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제8사단(제110, 제107예비연대 배속)

기동타격부대……제10, 제16, 제21, 3개연대

저지부대……제110예비연대, 제107예비연대 제2대대

西南지구전투사령부

저지부대……제203경찰연대(一)

거점수비부대……제1경비대대(一), 제2경비대대, 제107예비연대 제3대대, 제205경찰연대, 제207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 제36경찰대대, 七寶경찰대대, 白雅山경찰대대, 全南전투경찰대대, 全南(行政)경찰대대, 鷄林경찰대대

이리하여 11월 20일에 기동편성을 포함한 작전계획 제1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전투사령부는 首都 및 제8사단과 西南지구전투부대를 統合지휘하여 西南지구에서 出沒하는 공비의 섬멸전을 감행한다.

② 首都사단(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배속)은 D—1일 06.00까지 최종집결지에 은밀히 집결하여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고 D+5일까지 목표(B)를 점령하라. 또한 배속된 저지부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潰退하는 敵을 포착하라.

③ 제8사단(제110예비연대, 제107예비연대 배속)은 D—1일 06.00까지 최종집결지에 은밀히 집결하고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 담당지역내의 敵을 격멸하여 D+5일전에 목표 "A"를 점령하라. 또한 배속부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 潰退하는 敵을 포착하라.

④ 西南지구전투부대는 저지부대로 편성된 일부부대를 兩사단장이 선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지휘권을 이양하라. 또한 回文山지구에서 현재 작전중인 경찰 2개대대를 R진지上에 배치하여 北上이 예상되는 敵을 저지케 하라. 또 소속부대를 재배치하여 거점수비에 임하도록 하라.

⑤ 兩사단의 기동타격부대는 각담당 지역내의 敵을 포위섬멸한 연후에 분산된 敵을 각개 격파하라.

⑥ 작전지역내에서의 민간인의 통행을 통제하며 정찰대의 활동을 강화하여 敵情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라.

⑦ D일 H시는 12월 2일 06.00로 예정하나 後遲한다.

⑧ 사령부는 全州에 설치하며 작전中 前方 CP는 南原에 개설한다. 각부대는 다음과 같이 CP를 개설하라.

首都사단……順天(D일 H시後 求禮)

제8사단……全州(작전중 前方지휘소 南原)

西南지구전투사령부……南原』

이상과 같이 제1기작전에 따른 계획을 마련한 白사령관은 陸本지시로 兩사단이 海路와 陸路기동으로 목표지역에 진입하기에 앞서 11월 25일 全州에 사령부를 설치함과 아울러 지방관서와 협조하여 작전지역내 주민들의 民心收拾과 필요한 疎開를 斷行하여 匪·民을 分離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작전에 따른 제반지원조치를 取하게 된 사령관은 兩사단의 전진과 더불어 同월 30일 陸本작지 제115로 陸本작전계획 제26호가 作戰命令 제270로 변경되어 D일 H시가 12월 2일 06.00로 확정되기에 이르자, 곧 同일 12.00부로 작전지시 제1호를 하달하여 이미 하달한 계획 제1호를 作命 제1호로 수정하고 제1기작전에 돌입할 것을 下命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本職은 11월 29일 12.00부로 首都사단과 西南지구전투사령부를, 그리고 同월 同일 10.00부로 제8사단을 통합지휘한다.

② 首都 및 제8사단에 배속된 저지부대는 12월 1일에 각기 지정된 저지진지를 점령하라

③ D일 H시는 12월 2일 06.00이다.』

이상과 같은 작전에 수반하여 12월 1일을 期해 西南지구一圓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부각부처에서는 고위관리를 南原에 파견하여 협의체를 구성케 하여 同작전을 지원케함으로써 이날 사령부도 南原에 추진하고 그 前方지휘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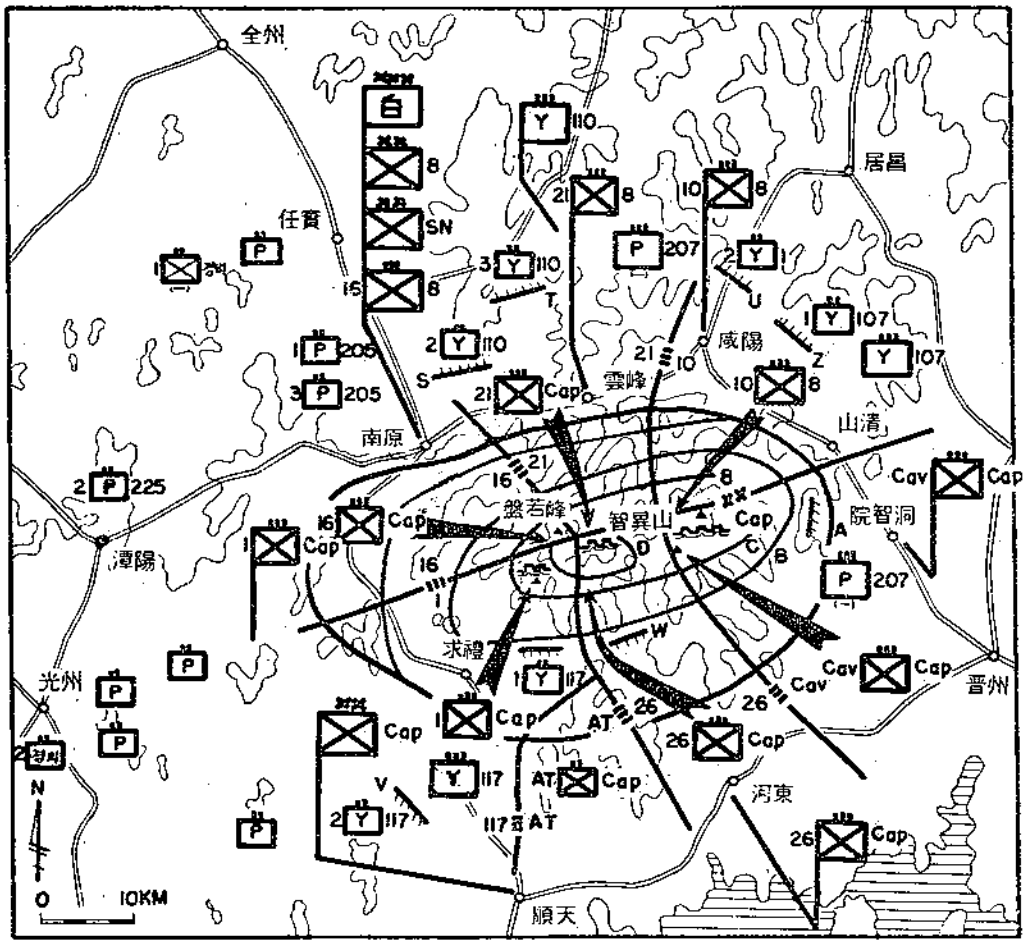
(2) 작전실시

(가) 首都사단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11월 28일과 29일 兩日간에 全부대가 상륙을 완료하고 院旨, 河東光陽, 求禮등지에 집결하게 되자 D일 H시까지 포위권 外廓線인 A線밖 지역에서 암약이 예상되는 敵을 驅逐하여 목표지역내로 몰아넣고 일제공격으로 이를 격멸키로 決心하고 각 연대장에게 12월 1일中에 A선까지 진출할 것을 下命하였다.

이에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제1, 제2대대를 계속 집결지에서 부대를 정비케 하는 가운데 제3대대(장, 朴明景대위)를 院旨一 院里 街道를 따라 急進케 하여 院里(院旨 西쪽)一內公里線을 점령케 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河東에 집결을 완료한 제26

◇ 상황도 제55호 第1期作戰 前半期(51. 12. 3~6)



연대(장, 李東和대령)는 晋州—河東間의 國道에 沿하여 제1, 제3 兩대대를, 그리고 河東 西쪽 蟾津江 對岸에는 제2대대를 각기 전개한 다음 이날 一齊히 弓項里(內公里 南쪽)—新興里 河東 北쪽 11Km)—高上里(新興里 西南쪽)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또 光陽과 求禮에 집결한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는 제1대대를 예비로 하고, 제2대대를 부대정비를 위하여 求禮에 控置한 다음 光陽에 진출한 제3대대(장, 朴魯雄소령)로 하여금 白雲山—兄弟峰—天皇峰을 공격케하여 A선까지 直衝케 하였는데, 이들은 國師峰(光陽 東쪽) —△812(光陽 北쪽 12Km)—△468(△812 西南쪽 7Km)를 踏破하여 일몰前까지는 목표에 전출하고 진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사단에 배속된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장, 趙東夏警監)는 熊石峰(△1,099)과 阻止진지 X로,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장, 金尙鉉警監)는 河東에서 제26연대를 追隨한 다음 阻止진지 W로, 그리고 CP를 求禮口에 개설한 제117예비연대(장, 盧永牧중령)는 저

지진지 Y와 V를 각각 점령하기 위한 부대전개를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실시한 이날의 先制작전에서 사단은 양민으로 부터 食糧을 약탈하여 그들 潛伏地로 운반중인 것으로 보이는 共匪 300여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白사령관은 이때를 회상하여 證言하기를 『초일의 공비발견으로 목표지역내에 潛據中인 공비들이 我軍작전을 豫測하고 事前에 그 종적을 감추어 이로 말미암아 작전성과를 감소하지나 않을까 하는 疑懼를 버리게 되었으며 今次작전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D일前까지 포위권을 先占하게 된 사단은 同월 2일 06.00를 기하여 右翼에 기갑연대, 中央에 제26연대, 左翼에 제1연대를 배비하고 일제히 三面에서 통제線 B를 向하여 돌진하면서 제8사단과의 협동으로 포위망을 점차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공격첫날인 이날 기갑연대는 제2대대를 예비로 院旨에 控置하고 제1, 제3 兩대대대로써 阻止진지 X—九谷山—內大里선을 점령하였다.

제26연대는 전날의 점령진지에서 제1, 제3, 2개대대의 併進으로 △984—兄弟峰(△1, 115 岳陽面)으로, 左一線의 제1연대는 오전中 제3대대로 하여금 中大里—三山里—長文里를 거쳐 求禮로 집결케 하여 예비로 配備하고 한편 제1, 제2 兩대대를 東進케하여 제1대대를 松亭里에, 제2대대를 把道里에 각기 전개하였다.

3일에는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가 연대 OP를 九谷山에 推進開設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前記 2개대대로써 통제선 B와 C 사이 지역일대를 탐색하고 銳意 敵의 據點을 색출하였으며, 제26연대는 默溪里(青巖面)—雲樹里(花開面)로 진격하고 전날 岳陽面에서 潛跡한 것으로 믿어지는 敵을 다시 登村里 北쪽에서 발견하여 이를 추격하였다.

또 사단 左翼인 제1연대는 계속 제3대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2개대대로 하여금 文殊里(土旨面)北쪽으로 진출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였는데, 이들은 俗稱불당 東쪽에서 공비 300명과 접촉하였으나 그들이 신속히 분산 潰退하므로 그중 4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한편 배속부대인 제117예비연대의 수색대는 이날 차단진지에서 潛據中인 敵과 교전하여 7명을 사살하였는데 이로써 사단이 거둔 종합전과는 사살11명에 達하였다.

이어서 감행된 4일과 5일 兩日間의 공격은 통제선 B와 C 사이 C와 D 사이, 지역일대에 대한 공격이 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敵情이 예상되었는데,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4日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控置한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를 연대 右第一線에 새로이 전개하고 제8사단과의 地境線을 목표로 進擊하여 이날 巨林—細石을 점령하고 5일에는 法溪寺—△1, 398로 進出하였다.

연대는 이 2일간의 전투에서 사살 34명, 포로 510명의 전과를 기록하였다. 사단中央에 配備된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는 山淸 및 河東 郡界와 道界(慶南과 全南)內 地域을 탐색하고 大成里(花開面)로 直衝하면서 사살 72명, 포로 79명, 화기 노획 30정과 隱匿中인 白米 71가마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는 兩日間에 道界以西지역을 일제히 踏破하여 一路 老姑嶺(△1,507)으로 돌진하고 4日에는 敵 11명을 사로 잡은 다음 5일에는 또한 포로 26명, 潛伏地 覆滅 20개소, 무기 2정을 노획하였다.

이렇듯 사단이 최종목표로 육박하는 동안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는 저지진지 X로 부터 △1,024—內源里로 약진하고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장, 金尙鉉경감)는 阻止진지 W로부터 默溪里로, 그리고 제117예비연대(장, 盧永牧중령)는 阻止진지 V를 계속 점령하면서 일부부대로써 開花場—內東里(土旨面)로 漸進하여 제26연대와 제1연대의 間隙을 메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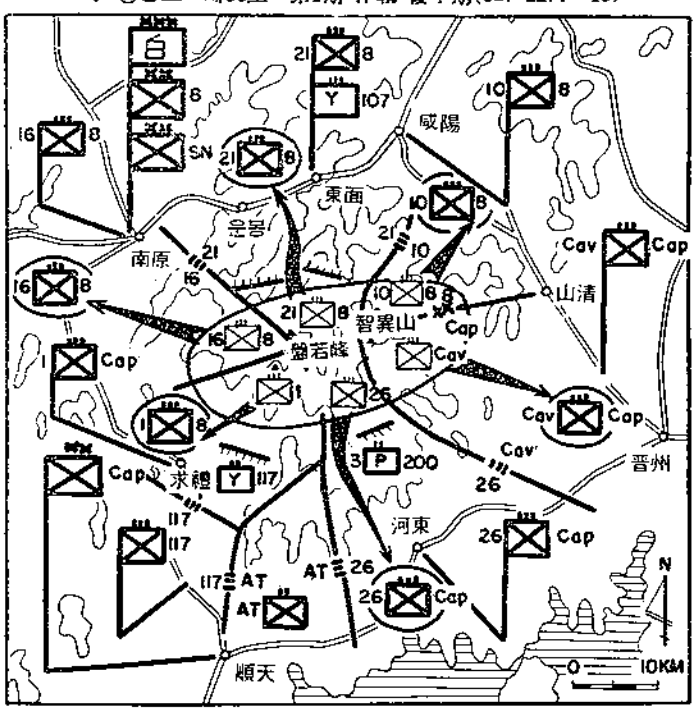
이리하여 6일 06.00를 期하여 공격을 계속한 사단은 到處에서 潛匿中인 敵을 격멸하고 사살 21명, 포로 11명, 무기노획 5정의 전과를 거두고 前半期작전을 종료하였으며, 이로서 後半期작전을 수행키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즉, 기갑연대는 이날 智異山(△1,915)南麓을 따라 西進하고 목표들을 점령한 다음 內大里—中山里(矢川面)로 돌진하였고, 제26연대는 中央에서 智異山脈 分水嶺으로 急進하면서 기갑연대와 제1연대 및 제8사단의 先鋒부대들과 협동하여 內大里—大成里선을 堅守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이날 예비인 제3대대가 依命 일부병력이 제117예비연대를 지원키 위하여 기동하는 것과 함께 老姑嶺—盤若峯—△1,585—白小嶺을 답파 東進하였다.

이로서 목표지역에 대한 포위공격을 마친 사단은 7일부터 白야전사作指 제3호(12월 4일부)로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제207경찰연대 제3, 제 5대대를 통합지휘하고 老姑嶺으로부터 西南쪽으로 이들을 진입시켜 退路를 차단하여 同日부 白野戰司 作指에서 밝힌 공비의 西北쪽 潰走를 留念하면서 후반기작전에 돌입한 다음 이로써 담당지역인 목표 B지역일대에 대한 반복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 상황도 제56호 第1期 作戰 後半期(51. 12.7~15)



14일까지 계속된 이 작전에서 기갑연대(장, 李龍대령)는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를 다시 예비로 控置하고 이들을 熊石峯일대로 反轉케 하여 경찰부대와 더불어 敵의 퇴로를 계속 차단케 하는 가운데 主力으로써

細石—巨林 일대 지역을 연일 精密 탐색하였으며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는 大成里일대를, 그리고 제1연대는 白小嶺—盤若峯—老姑壇으로 逐次로 西進하면서 탐색기지를 이동하고 지역내를 반복 剔抉하였다.

기간中 사단은 전사상자 29명의 손실로 敵사살 505명, 포로 969명, 投降 4명, 潛據地파괴 57개소 外에 소총 176정, 박격포 3문, 경기 3정, 수류탄 25발을 노획하고 白野戰司 작전계획 제2호(12월 7일 20.00부)로 다음작전으로의 轉進을 준비하였다.

이에 기갑연대는 14일 10.40에 花開場에 일단 집결하였다가 15일 順天에 집결 完了하였으며, 제26연대는 雲樹里(花開面)로부터 花開場을 거쳐 15일에 求禮口에, 제1연대는 같은 날 탐색지역인 盤若峯(제1대대), 老姑壇(제2대대), 白雲山(제3대대)에서 14일 기동을 시작하여 이날 求禮에 집결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同일부로 배속부대中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와 제117예비연대를 배속해제하게 되었는데, 이들부대는 이로부터 西南지구전투사령부에 복귀하여 智異山—盤若峯—老姑壇등 사단탐색지역에 殘留하고 공비의 격멸을 계속 하였다.

(나) 제8사단

목표지역으로 陸路이동 끝에 11월 30일 사단 CP를 全州에, 제10연대를 咸陽에,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南原에 집결케 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白野戰司 작전계획 제1호에 따라 智異山일대를 兩分한 北쪽인 목표A를 공격하기 위하여 右로부터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 제10연대(장, 鄭剛대령)를 전개하고 아울러 2개대대(제10연대 제1대대, 제16연대 제1대대)를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D일 H시를 기해 일제공격을 감행키로 계획하였다.

이에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사단작명 제146호(11월 30일부)로 CP를 南原으로 추진 개설키로 하고 제16연대에는 南原—盤若峰, 제21연대에는 雲峰—東面線에서 達宮—山內面(南原郡)일대를, 제10연대에는 咸陽—山淸선에서 智異山의 北麓을 軸線으로 삼아 돌진할 것을 下命하였다.

따라서 제16연대는 12월 1일 周川里(南原 南쪽 3km)와 孝坪里(南原 南쪽 7km)에 主力을 전개하고 포위 外廓線인 A선을 先占케 하였으며 제21연대는 30일 집결지인 南原에서 東進하여 CP를 東面(南原郡)에 추진하는 동시에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를 甘味里(咸陽郡)에, 제2대대(장, 金同會소령)를 東面에, 제3대대를 雲峰 南쪽지역에 각각 전개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또 제10연대는 11월 30일 은밀히 咸陽에 집결완료하고 여기에 CP를 개설하는 하편 제1대대(장, 車萬石소령)를 예비로 控置하고 제2대대(장, 李基萬소령)를 山淸에, 제3대대(장, 林炳根소령)를 咸陽 南쪽 지역에 각기 進入케 한 다음 12월 1일 06.00까지 사단 左翼 포위선의 外廓을 점령하였다.

한편 백축부대인 제110예비연대(장, 金在命중령)의 제2, 제3 兩대대는 西南지구전투사령관의 命令으로 11월 30일 집결지인 池塘里(南原 周生面)를 출발하고 저지진지 S,T를 점령하기 위한 行軍을 시작하였으며, 제107예비연대(장, 金海日중령), 제2, 제3兩개대대는 이날 집결지로 부터 花山里(咸陽 水東面)로 기동하여 저지진지 U,Z를 점령하고 退路를 차단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D일 H시인 12월 2일 06.00를 期하여 일제공격을 감행한 사단은 當日에 天馬山(谷城 東쪽 8km)—△650(南原 東쪽 7km)—△734(雲峰 南쪽 5km)—德頭山(△1,150 東面 南쪽 3km)—三峰山(△1,187 咸陽 西南쪽 8km)—△380(咸陽 南쪽 5km)—王山(△923 山淸 西쪽 5km)에 진출하고 통제선 B를 점령하였으며, 저지부대인 제110예비대대의 제2, 제3兩개대대는 이날 사단 기동타격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저지진지 S,T를 대대별로 점령하고, 제107예비연대의 제1, 제2 兩개대대는 鐵馬山(咸陽 東쪽 13km)을 中心으로 한 南北일대의 저지진지 U,Z를 각기 점령한 다음 공비들의 退路를 차단하였다.

이로하여 3일 06.00에 확보한 진지로부터 공격을 감행한 사단은 이날 右翼인 제16연대가 전날의 진지로부터 全南北 道界의 준령을 일거에 踏破하여 同일 16.00에 萬福臺(南原 東쪽 12km)를 直衝하였으며, 中央에 배치된 제21연대가 細骨山(△1,198 雲峰 南쪽 7km)—浮雲里(南原 東面 南쪽 7km)로 진격하여 이날 포위망을 탈출하려는 공비 4개조를 추적하고 또한 제10연대가 제2, 제3兩대대로써 이날 文正里(咸陽 休川面)—芳谷里(山淸 今西面) —△938(熊石峰 西쪽 5km)로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어서 4일에는 右翼인 제16연대가 치일峰(老姑壇 西쪽 3km)—妙峰峙(盤若峰 西쪽)로 진입하여 西側 포위망을 4~7km를 압축하는 가운데 제21연대가 達宮일대와 俗稱 비끼재(白小嶺 北쪽 4km)로 肉薄하여 敵 30名을 추격하였으며 左翼인 제10연대는 智異山 山麓을 반달形으로 포위하고 3~5km를 전진하였다.

5일에는 사단의 先鋒이 老姑壇—盤若峰—△1,186(白小嶺 西쪽 2km)—△1,217(智異山 西쪽 2km)—智異山에 진출하여 탐색전지를 점령하였으며 6일에는 최종목표인 白小嶺—△1,248(白小嶺 東쪽 2km)—△1,134—△1,806(智異山 西쪽 1km)로 일제히 돌진하고 무난히 이들를 점령함으로써 前반기 작전을 끝마치게 되었는데, 사단은 기간중에 敵사살 57명 據點 파괴 14개소, 소총노획 17정의 전과를 올렸다.

이리하여 목표지역 A 일대에 대한 반복 탐색으로 분산潛伏中인 공비를 격멸키로 한 후반기 작전에 돌입한 사단은 7일부터 공격 逆順으로 각대 별로 탐색기지를 점차 이동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대별 탐색을 續行하여 14일까지 8일간에 사상자 11명의 손실로 敵사살 271명, 포로 98명, 敵거점파괴 50개소, 소총 51정, 다발총 9정, 박격포 1문, 경기 6정을 노획하였다.

이와같이 首都사단과의 합동으로 智異山일대의 공비격멸전을 마친 사단은 白野戰司작전

지시 제3호(12월 7일 20.00부)에 따라 次期작전으로 移行키 위하여 14일에 집결지로의 기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15일에는 사단 CP를 雲峰에서 南原으로 移動하는 한편 제10연대가 南原에, 제21연대가 東面에, 제1연대가 咸陽에 각각 집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또한 사단작전을 위하여 저지진지 S.T를 점령하고 차단 저지임무를 수행한 제110예비연대의 제2, 제3 兩대대는 同일부로 배속이 해제되어 西南지구 전투사령부로 복귀하여 雲峰 北쪽 2km지역과 孝基里(南原 二白面)로 轉進하고 또 제107예비연대의 제1, 제2 兩연대는 계속 사단에 배속되어 차기작전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저지진지 U,Z로부터 南原 집결하게 되었다.



〈智異山地區에서 捕虜된 共匪들〉

(다) 西南지구전투사령부

51년 9월 이래 南原에 CP를 개설하고 陸本 직할 밑에 智異山을 中心으로 한 지역에서 對共작전을 수행하던 부대는 同년 11월 20일 현재 3개의 예비연대(제107, 제110, 제117)와 2개의 경비대대(제1, 제2)그리고 4개의 경찰연대(제200, 제203, 제205, 제207) 및 7개의 경찰대대(제18, 제36, 七峯, 白雅山, 全南, 全南(行政), 鷄林)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同월 26일 06.00부로 前述한 경위로 白野戰司에 배속케 되었으며 이로써 白사령관麾下에서 제1기 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자 부대 일부를 白野戰司 작전계획 제1호로 首都 및 제8 兩개사단에 배속한 다음 餘他부대를 계속 지휘하여 공비의 예상 退却통로에 대한 차단과 我軍 주요거점에 대한 경비임무를 병행하게 되었다.

當時 西南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준장)에 배속된 경찰부대들은 국립경찰의 獨自的인 편성인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사령관, 李成雨경무관)와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사령관, 辛相默경무관)에 소속된 부대들이었으며, 白野戰司 작전에 수반하여 治安局은 南原에 治安局 前方사령부(사령관 치안국장대리, 崔致煥경무관)를 설치하고 前記 2개의 경찰전투사령부와 慶南 全南北 3개道 경찰국의 관련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배속경찰부대 중 제200경찰연대(장, 金東淳총경)와 제207경찰연대(장, 文鶴東총경) 및 鷄林경찰대대(장, 徐泰翰 임시경감)는 太白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에, 그리고 제203경찰연대(장, 趙石元총경)와 제205경찰연대(장, 金源湧총경)는 智異山지구경

찰사령부에 각각 隸屬되어 있었다.

12월 1일 西南 지구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 제1, 제2 兩개대대를 順天으로부터 花開場(河東郡)으로 진입시켜 저지 진지 R을 점령토록 하고, 제107예비연대 제3대대와 제1, 제2 兩개경비대대 그리고 제205, 제207 兩경찰연대, 제18, 제36, 七賓, 白雅山 全南, 全南(行政), 鷄林등 경찰부대로서 계속 예상되는 공비의 발악에 대비하여 要衝을 경비토록 命令하였다.

따라서 제203경찰연대(一)는 同월 3일에 首都사단 제26연대를 뒤따라 저지진지 R에 진입하여 이를 점령하고 공비들이 我軍포위망을 벗어나 南쪽 白雲山지역으로 潛入함을 차단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대 CP도 順天에서 6일 谷城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거점경비부대로 선정된 각부대는 본작전기간中 계속 열세한 장비와 병력으로 종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부대별 활동사황은 다음과 같다.

제1경비대대(CP 平沙里)……蟾津江 발전소 경비

제2경비대대(CP 光州飛行場)……光州飛行場경비와 羅州, 月明里(井邑 東北쪽), 榮山浦등을 거점경비

제107예비연대제3대대(CP 錦山)…錦山지역 경비와 퇴로차단

제205경찰연대(CP 南原)…南原—淳昌차단

제207경찰연대(CP 咸陽)…鎭安일대 경비

제18경찰대대(CP 茂山)…茂山일대 경비

제36경찰대대(CP 全州)…全州경비

七賓경찰대대…蟾津江 발전소경비와 西쪽지역차단

白雅山경찰대대…白雅山주둔

全南경찰대대…光州경비

全南(行政)경찰대대…光州주둔

나. 第二期 (51.12.16~52.1.4)

(1) 작전계획

12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智異山 일대에 潛據中이던 敵은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하고 거점을 잃게 되자, 그 殘黨이 我軍의 포위망을 교묘히 벗어나 蘆嶺산맥의 高지대를 목표로 潰走하고 지방 공비와 합류하여 再起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全北道黨의 제5사단과 忠南道黨의 제68사단이 主軸을 이룬 雲長山(△1,126 全州 東北쪽) 지구의 1,600명으로 추산되는 兵力은 부대를 재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蘆嶺兵團 소속의 제6연대와 제46사단 산하의 제407, 제408 兩연대는 任實—淳昌부근의 回文山—將軍峰—神仙峰 일대에서 합류하여 1,050명의 兵勢를 이루어 西해안으로 통하는 거점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고 全南 내륙지방에서는 和順, 谷城郡黨의 基幹과 全南總司 산하의 흩어진 병력들이 모여 추산 1,080명으로써 主로 白雅山—母後山 일대에서 거점을 마련코자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分散 거점으로 潛跡하여 가급적 接戰을 피하고 세력 확장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白野戰司 사령관은 이들의 분산 거점을 각개 격파키로 결정한 다음 麾下의 여러兵力을 3개 梯隊로 크게 구분하고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과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 및 西南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준장)를 주축으로, 餘他 병력을 이에 배속하여 지역별 작전을 전개키로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제2기작전이다. 그 과정으로 미루어 최초에 敵의 분산거점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前반기작전(12월 19일~28일), 흩어진 殘黨을 수색격멸하는 것을 後半期 작전(12.30~52.1.5)으로 구분 실시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求禮에 집결한 首都사단을 열차편으로 北쪽 雲長山지구에, 제8사단을 차량便으로 南쪽 回文山지구에, 각각진입키로 결정한 다음 12월 7일 20.00부로 大要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2호를 하달하였다.

『① 首都사단은 제203, 제207경찰연대 및 제18경찰대대를 통합지휘하여 雲長山지구의 敵을 복멸하라.

② 제8사단은 제107예비연대와 제1, 제2 兩개경비대대 및 제205경찰연대를 비롯한 제36, 七寶, 白雅山, 鷄林등 4개 경찰대대를 통합지휘하여 回文山지구 및 白雅山지구의 敵을 복멸하라.

③ 西南지구전투사령부는 제110, 제117 兩개예비연대와 제200경찰대대 제2대대의 병력으로써 智異山지구에 재집결을 기도하는 敵을 격멸하라.』

이상과 같은 命令을 下達한 白사령관은 陸本지시로 새로이 배속된 제9경비대대를 首都사단에 재배속하여 15일부터 부대를 전개하는 한편, 大田에 있는 제1302보급중대를 陸本지시로 南原의 工兵보급소로 병합, 지원태세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제1102野戰공병단을 비롯한 可用한 병력을 동원하여 淳昌, 潭陽, 葛潭, 井邑등 4개처에 정찰기(L—19)착륙장을 개설케 하는 등 一連의 필요한 조치를 取하고 D일 H시를 12월 19일 06.00로 결정하여 本攻으로 移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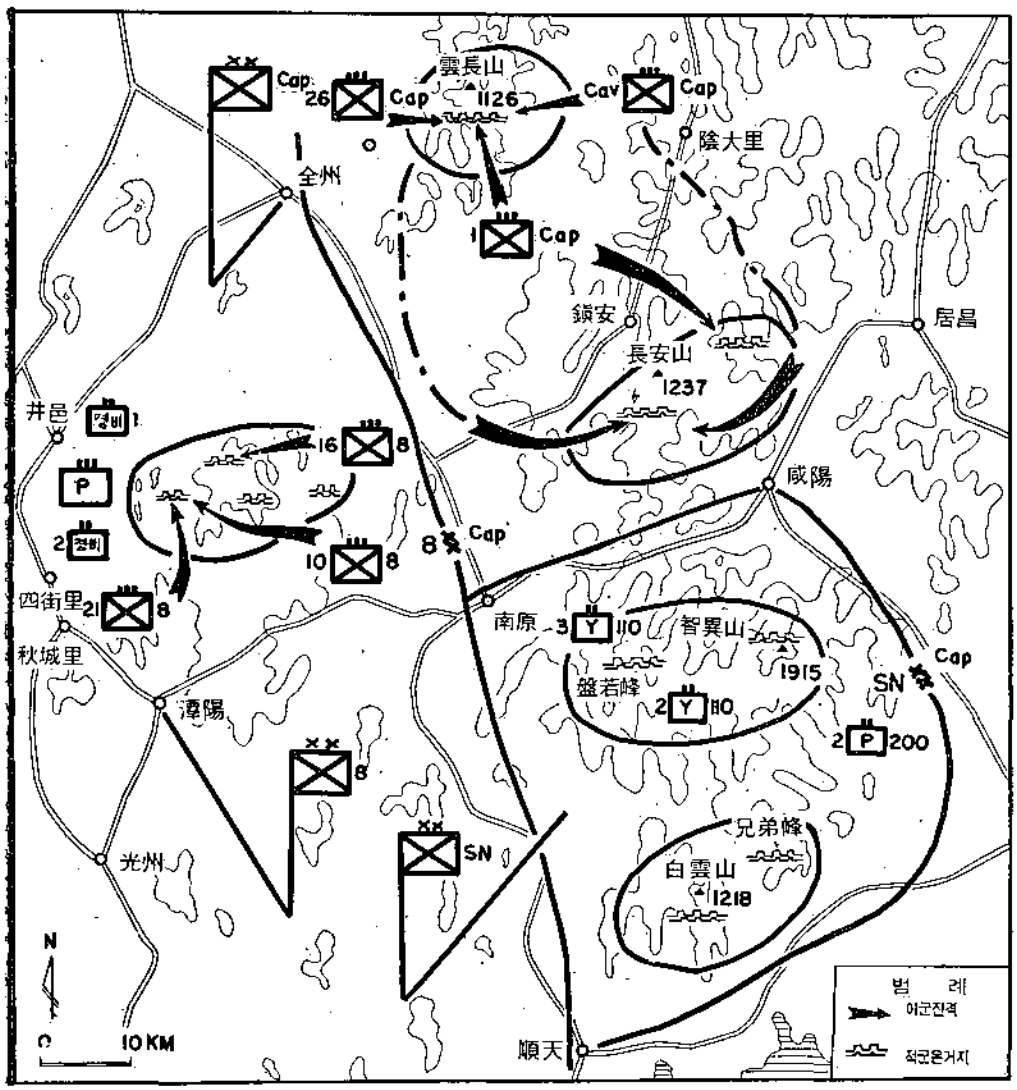
(2) 작전실시

(가) 首都사단

求禮부근에 집결한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12월 15일부로 현지 작전임무를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全州 東北쪽에 있는 雲長山지구로 主力을 이동하였다.

즉,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順天으로부터 求禮—南原—全州를 경유하여 陰大里(雲長山 東쪽)로,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는 16일 03.00에 집결지인 求禮口를 출발하여 南原과 全州를 거쳐 鎭安으로,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는 집결지인 求禮口로부터 南原—

◇ 상황도 제57호 第2期 前半期作戰



金州를 거쳐 高山(雲長山 西쪽)으로 각기 直行하여 17일까지 병력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단 CP도 金州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배속부대는 작전에 수반하여 공비들의 潰走가 예상되는 주요통로를 차단케 함으로써 제9경비대(장, 車東俊소령)는 大屯山(雲長山 北쪽)에, 제203경찰연대(장, 趙石元총경)는 永同에, 제207경찰연대(장, 文鶴東총경)는 安義에, 제18경찰대대(장, 車一赫경감)는 茂朱에 각각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전술배치를 마친 사단은 19일 06.00를 期하여 3개연대로써 同時에 포위권을 형성하고 敵을 압축하였으며, 이로써 공격첫날에는 接戰을 피하여 主峰(雲長山)쪽으로 潛

跡하려는 공비들의 退避전술로 말미암아 특기할만한 교전이 없이 다만 62개소의 潛據地를 파괴하고 사살 3명과 포로 7명의 전과로서 그들의 소굴 中腹지대를 장악하였다.

다음날인 20일에는 07.00부터 일제히 공격을 再開하고 사단 주력으로써 全목표지역을 탐색케 하였는데, 이날 공격부대는 공비의 일부가 高山쪽으로 탈출코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격하여 사살 13명, 포로 29명의 전과를 올리게 되었으나 主力은 포착하지 못한채 行方이 묘연하더니 이날밤 01.00에 제1연대와 기갑연대의 間隙을 교묘히 뚫고 智異山쪽으로 潰走하였음이 판명되었다.

사단은 이에 21일 일부의 병력으로 雲長山 主峯일대를 계속 탐색케하는 한편 주력을 東南쪽 퇴로에 급진시켜 23일까지 추격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 작전으로 사단은 공비의 主力을 聖燕山(鎭安 南쪽)부근에서 大破하게 되었으나, 그 일부 殘黨은 23일 밤사이에 다시 포위망을 뚫고 長安山(南原 東北쪽 20km)으로 潰走하게 되어 24일에는 雲長山지구에서 작전中인 사단 일부부대마저 轉用하고 全力으로써 長安山을 二重으로 포위한 다음 28일까지 5일간 격멸전을 감행끝에 그 대부분을 사살하거나 또는 사로 잡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기간중의 작전으로 都合 790명을 사살하고 478명을 사로잡았으며 그밖에 114정의 무기를 노획하고 또 은익한 식량 30가마, 지폐 10.000원등을 回收하였다. 我軍의 손실은 29명의 전사자와 29명의 전상자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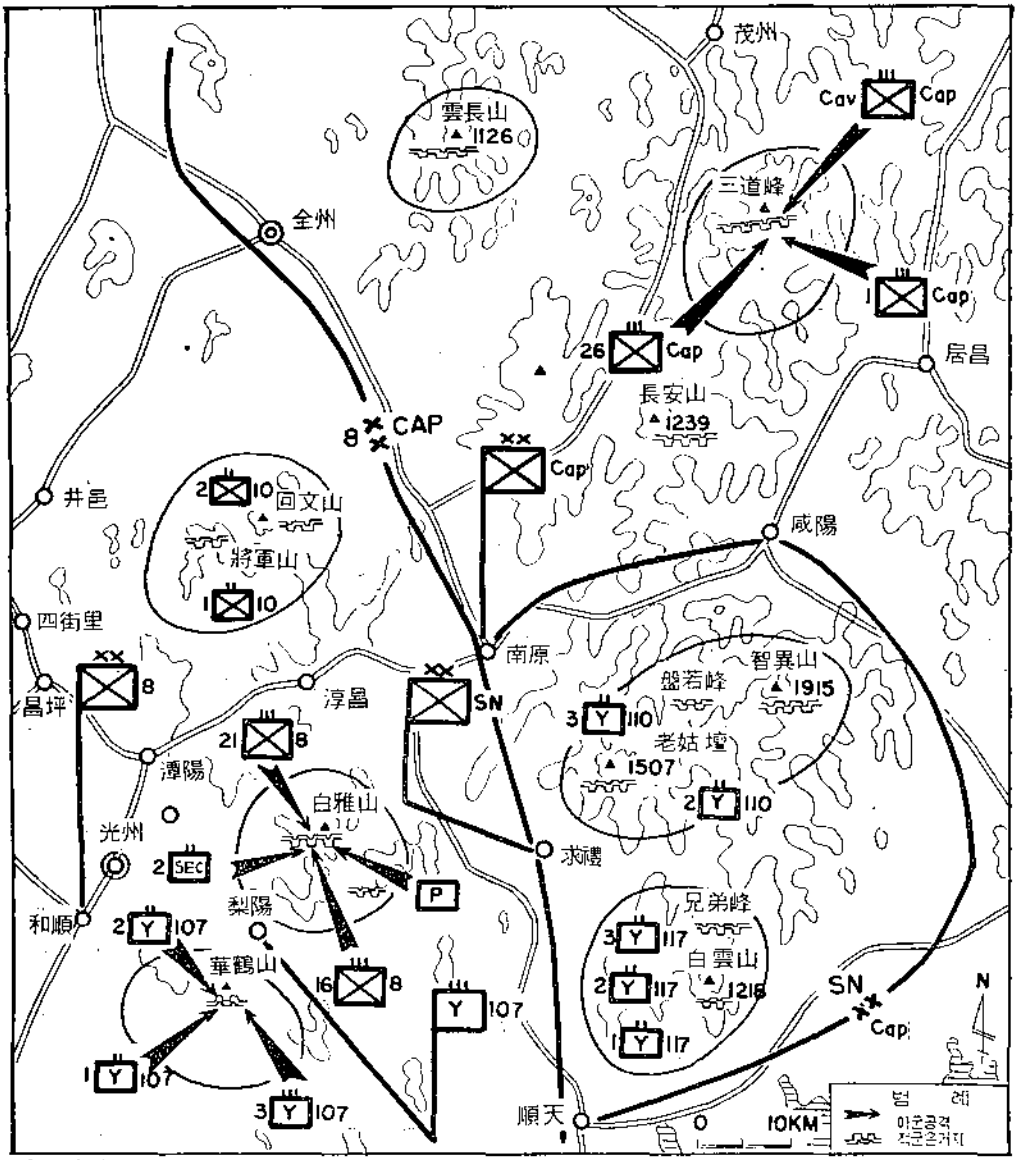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제2기 전반기 작전을 통하여 全北 일대의 高山지대를 누빈 사단은 28일에 사단 前方 지휘소를 長溪里(長水 溪內面)로 移設하고 主力을 茂朱—居昌—咸陽으로 이동하여 부대의 재정비와 기지일대의 수색활동등으로 29, 30 兩일간을 보낸 다음 다시 31일 06.00를 기하여 후반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작전은 1월 4일까지 5일동안 감행되었는데, 이무렵 敵은 智異山으로 재집결하려는 기도가 좌절되자 三道峰(居昌 西北쪽 20km)으로 潛入하여 새로이 潛據地를 구축하려는 듯 하므로 사단은 이를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를 茂朱에,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를 居昌에, 그리고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를 咸陽에 각기 전개한 다음 三面에서 分進 合擊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시작된 공격 첫날에는 큰 접전이 없는 가운데 포위망을 압축하고 中間목표를 탈취하였으며, 다음날인 新正 1월 1일에는 지역내의 主峰일대를 탐색하였다. 그런데 이날 공격에서 각부대는 퇴로가 막혀 최후 발악하는 공비들을 一擊하였으며, 2일에는 그 殘黨을 추격하여 黃石山(智異山 北쪽 30km)에서 그 基幹부대를 섬멸하였다.

그 뒤로 사단은 이미 踏破한 바 있는 雲長山—德裕山—黃石山일대를 再탐색하고 同월 4일에 차기작전 지구인 智異山일대에 재전입키 위하여 기갑연대는 居昌으로, 제1연대는 雲峰으로, 제26연대는 咸陽으로 각각 이동하게 되었으며 사단 CP는 長溪里에서 南原으로 이동

◇ 상황도 제58호 第2期 後半期作戰



개설하였다.

(나) 제8사단

사단은 제2기작전으로 蘆嶺山脈의 西南部인 回文山—將軍峰—神仙峰—內藏山 일대에 潛伏中인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南原부근의 집결지에서 16일 일제히 기동을 개시하고 17일까지 전술배치를 완료하였다.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사단장명으로 16일 11.30에 집결지인 咸陽을 떠나 同일 15.00에 淳昌에 CP를 개설하고 병력을 그西쪽일대에 전개하였으며,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

는 이날 南原으로부터 葛潭里 (南原 西南쪽)로 기동을 시작하여 17일에 병력전개를 마쳤다.

또한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16일 14.20에 CP를 東面에서 秋城里(潭陽 龍面 : 潭陽 北쪽 5km)로 移設하는 한편 17일까지 병력을 그 일대에 전개하였다.

그리고 배속부대인 제107예비연대(장, 金海日중령)과 제205경찰연연대(장, 金源湧총경)는 2일사이 南原으로부터 四街里(長城 北쪽 14km)—井邑線에 각기 지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예상되는 통로를 차단하여 요격 태세를 갖추었으며 또 제1, 제2경비대대를 비롯한 경찰부대들은 종전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점령한 진지에서 待機케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전개키로 한 이번 작전은 首都사단이 목표지역을 全面포위하고 敵을 압축격멸키로 한 것과는 달리 예하 3개연대가 참가한 기동타격부대를 回文山를 基點으로 일제히 西쪽지역내의 敵을 驅逐하면서 전진케 하고 요격부대로 하여금 西側方에 伏兵케 하여 적시에 敵의 주요거점을 복멸키로 한 것이 특이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任實—淳昌線에서 사단작명 제148호로 行動을 개시한 사단 9개대대는 각기 분담지역을 맡아 19일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공격첫날에 사단주력부대는 回文山부근에서 공비의 潛伏地 20개소를 掃滅하고 宗聖里(回文山 南北쪽 5km)—錦坪(回文山 南쪽 4km)—紫陽里(淳昌 西北쪽 8km)線까지 진출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일에도 사단은 계속 敵을 포위압축하였는데, 이날 전투에서 제10연대가 將軍峰일대를 탐색하여 17명을 사살하고 30명을 사로잡았으며 이어서 21일과 22일 兩일 공격에서는 山內面(井邑郡)과 福興面(淳昌郡)일원을 탐색하고 23일에는 주요거점인 神仙峰(△763 潭陽 北쪽 18km)—內藏山—白羊山을 집중공격하게 되었다.

사단은 여기에서 24일까지 탐색전을 마친 다음 일부의 병력을 남겨 재탐색전을 계속 벌이게 하고 25일부터 주력으로 하여금 逆으로 탐색전을 단행케 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전반기 작전을 일단락 짓고 전열을 再정비하게 되었는데, 기간中에 종합전과는 사살 417명, 포로 851명, 根據地 파괴 313개소에 이르렀고 그 밖에 무기와 탄약등을 노획하였으며 我軍 손실은 전사상자 39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前반기 작전을 마친 사단은 사령부로 부터 『30일 06.00를 期하여 공격을 재개하여 白雅山, 華鶴山지구의 공비를 격멸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아 27일 後半夜에 기도를 비익하여 주력부대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반기 작전에 돌입하면서부터 사단은 제10연대를 回文山에 잔류시켜 반복탐색으로 흩어진 殘黨을 섬멸도록하는 한편 제16, 제21 兩연대와 제205경찰연대 및 제2경비대대로써 白雅山지구를 全面 포위 압축키로 하였으며 제107예비연대로는 華鶴山지구를 專擔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장, 鄭 剛대령)는 同일부로 回文山지구를 인수하였으며 기타부대는 다음 지구인 白雅山과 華鶴山으로 向發하였다.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는 이날 和順경

유 同福으로 이동하여 院洞—和順간에 주력을 전개하고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淳昌에서 昌坪으로 이동하여 白雅山 北쪽에서 進攻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제205경찰연대(장, 金源洞총경)는 이날 玉果—院洞간에 진입하였으며 제2경비대대(장, 柳根春중령)는 사단 CP와 함께 和順으로, 제107예비연대(장, 金海日중령)는 四街里(長城郡)를 떠나 羅州를 거쳐 華鶴山으로 直行하였다.

이렇듯 각 지구별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된 각 부대는 30일 06.00에 일제히 四面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敵을 압축하여 新年 1월 3일까지 5일동안 탐색전을 계속하였다.

기간중 사단은 華鶴山지구에서의 敵情이 경미하였으나 白雅山지구에서는 제16, 제21兩개연대가 2次에 걸쳐 白雅山과 母後山을 重點 수색하여 사살 155명, 포로 202명의 전과를 올렸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107예비연대가 梨陽(和順郡)으로 집결하는 가운데 기타부대는 현지에 각기 집결하여 부대를 재정비 하였다.

(다)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기간중 當부대는 智異山지구에서 제110, 제117 兩개예비연대와 제200경찰대대의 주력으로써 智異山지역으로 다시 잠입코자 하는 공비들을 포착격멸하고 아울러 주요 거점을 수색하였다.

이들 부대는 기동장비가 미약하고 酷寒에도 불구하고 不斷한 위력수색으로 廣正面의 담당지역을 踏破하였는데 12월 16일~17일에 제110예비연대(장, 金在命중령)는 주로 盤若峰과 智異山에 제117예비연대(장, 盧永牧중령)는 兄弟峰에 각기 병력을 전개하고 사령부 CP를 求禮에 개설한 가운데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同월 19일 전투에서 제110예비연대 제3대대는 盤若峰 東쪽 △1,585부근에서 공비 50명을 격멸하고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는 巨林에서 150명을 포착격멸하였다.

이어 20일 전투에서 제200경찰연대는 다시 巨林부근에서 150명의 공비와 교전하여 이들을 격파하였으며, 21일에는 제117예비연대 제2대대가 老姑壇에서 33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또 22일에는 巨林부근에 출현한 200명의 공비로 말미암아 이곳을 탐색中이던 제110예비연대 제2대대가 4시간동안 교전끝에 격퇴하였는데 그 뒤로 사령관 金容培준장은 제110예비연대 제2대대로 花開場부근에, 제117예비연대를 老姑壇부근에 재배치하고 光陽署경찰대를 天皇峰(求禮 南쪽 9km)에 진입케 하여 예상 통로를 차단케 하였다.

이와같이 진지를 재조정하고 다시 일부의 병력으로써 거점탐색을 계속한 西南지구전투사령부는 首都사단이 長安山을 포위 공격할 무렵인 同월 26일과 27일 兩일 사이에 天皇峰에 추산 200명의 공비를 捕捉하여 제26연대와의 협동으로 이를 격파하였다.

그 뒤 後반기 작전 기간에 當사령부는 智異山지구에서 저지임무를 수행하는 一方, 탐색활

동을 계속하다가 현지에서 제3기작전에 이행하게 되었다.

다. 第三期 (52.1.15~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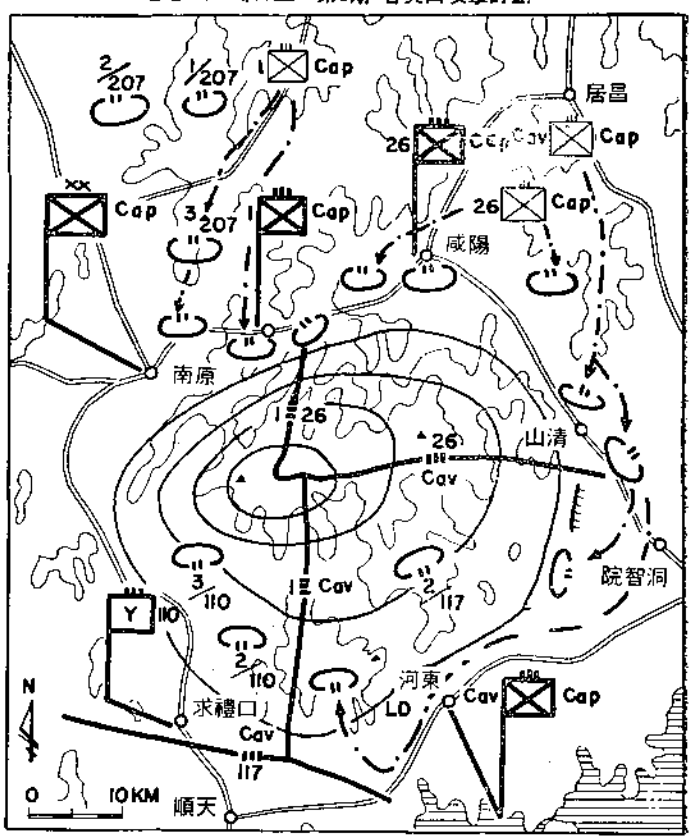
(1) 작전계획

제2기 작전 기간중 공비들의 주요조직이 崩壞되고 대부분의 潛伏地가 覆滅되자 李鉉相을 두목으로 하는 그들의 지도부는 우선 각처에 분산중인 병력의 減衰를 방지하고 재정비키 위하여 보다 유리한 智異山일대로 再 잠입을 기도하는 새로운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白野戰司 사령관은 종전과 같이 배속부대를 크게 3개 제대로 구분하여 각기 전개키로 하고,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을 智異山과 白雲山에 진입시켜 이를 포위케 하여 이미 南部군단의 주력을 규합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敵을 격파키로 하였으며,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을 回文山一白雅山一曹溪山一華鶴山에, 또한 西南지구전투부대(사령관, 金容培준장)를 德裕山一雲長山에 각기 배비하여 殘黨을 정밀탐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30일 24.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3호를 하달하였다.

상황도 제59호 第3期 智異山攻撃計劃



『① 當부대는 제1, 제2기 작전으로 분산潰走한 공비의 殘黨을 捕捉섬멸하려 한다.

② 首都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智異山一白雲山一長安山의 敵을 포위하고 섬멸하라. 단 D+3일까지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의 작전지휘권을 西南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대신 智異山지구에서 작전中인 제110(一), 제117 兩개 예비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③ 제8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回文山一白雅山一曹溪山一華鶴山지구에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각개격파 하라.

但 D+3일까지 제1, 제2 兩경비대대와 제107예비연대, 제36, 七寶 兩경찰대대 및 智異山

지구경찰전투사령부소속 경찰부대를 통합지휘하라.

④ 西南지구전투사령부는 배속부대들로써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德裕山—雲長山지구의 공비를 각개 격파하라.

⑤ D일 H시는 다음과 같다.

首都사단 및 西南지구전투사령부 1. 6. 06.00.

제8사단 1. 4. 04.00

이어서 새해 1월 3일 18.00에 작전지시 제18호를 下達하여 이를 作命 제3호로 代替수정하게 되었다.

(2) 작전실시

(가) 首都사단

1월 3일에 하달된 白野戰司 작전지시 제18호로 D일 H시가 결정되기에 이르자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主力으로써 智異山과 白雲山지구를 차례로 포위공격하는 同時에 일부부대로 하여금 長安山—八公山—天皇峰일대에 출몰하는 공비를 저지키로 하여 智異山지구 작전을 전반기로, 白雲山지구작전을 후반기로 구분 실시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1월 4일 10.00부로 작명 제153호를 하달하고 부대를 4개제대로 구분하여, 기갑연대(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107박격포중대 제2소대 배속)를 智異山 東南쪽에, 제1연대〔제110예비연대(—1), 제107중박격포중대 제3소대 배속〕를 그 西쪽에, 제26연대(제107중박격포중대 제1소대 배속)를 그 東北쪽에 각기 배비한 다음 제207경찰연대를 智異山 北쪽일대에서 계속 八公山—長安山—天皇峰를 차단케 하고 또한 제117예비연대(—)를 光陽에 진입시켜 白雲山지구의 퇴로를 차단케하여 일제히 주력으로써 智異山를 三面 포위키로 하였다.

따라서 기갑연대(장, 李龍대령)는 집결지인 居昌에서 1월 6일 06.00에 출동하여 居昌—山淸간을 踏破끝에 同일 12.00에 山淸에 일단 집결하였다가 7일~8일 작전으로 예하 3개대대를 智異山 東南쪽 九谷山 南北일대에 전개하고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는 4일에 雲峰으로 CP를 추진 개설한데 이어서 6일 집결지로 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이날 13.00에 雲峰에 일단 집결하였다가 7일~8일에 1개대대를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예하 2개대대로써 德頭山(雲峰 東南쪽 5km)과 朱川(南原 南쪽 2km)에 각기 전개하게 되었다.

또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는 4일 CP를 東面(雲峰 東쪽 6km)으로 추진하여 예하 3개대대를 6일작전으로 咸陽에 일단 집결케 한 다음 7일~8일에 제2, 제3대대를 咸陽—山淸선에 전개하여 목표지역으로의 진공태세를 갖추어 포위권을 압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智異山지역에서 또 다시 거점을 형성한 이른바 南部군단의 제57, 제81, 제92, 3개사단과 경남道黨소속의 殘黨을 격멸하게 되었는데, 9일~11일에는 기갑연대가 포위권 東南쪽에서,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九谷山의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九谷山 南쪽지역일대로 부터 智異山—內大里를 急襲하였으며, 제1연대는 기간中 CP를 求禮

로 이동개설하고 배속된 제110예비연대(—1)를 求禮—花開場에서 퇴로를 차단케 하는 가운데 예하 2개대대(제1, 제2)를 德頭山—盤若峰—老姑壇으로 直衝케 하고 제3대대를 사령관 命으로 芝草峰(南原 北西쪽 18km)—川潭里(任實 德峙面)에 약진케 하여 이곳에 출현한 추산공비 150명을 급습케 하였다.

또 기간中에 제26연대는 제207경찰연대 제3대대의 증원을 받아 이들이 慶南과 全北道界로 진입하려는 그 퇴로를 차단하는 가운데 2개대대(제2, 제3대대)를 智異山 東北쪽에서 기갑연대와의 協同으로 智異山 北쪽과 西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예비로 控置한 제1대대로는 神武山(長水 南쪽 6km)에 나타난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西北쪽으로 直衝케 하였다.

이로써 최종목표에 진입하게 된 사단은 12일부터 三丁里(智異山 西北쪽 7km)—智異山—巨林—老姑壇—盤若峰을 연결하는 中心지대에 全力을 집중하여 험준한 지세를 고묘히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비를 섬멸키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단주력이 일제히 탐색기지를 설정하는 동안 사단 CP를 求禮로 이동하였으며 同월 15일에는 제207경찰연대의 主力마저 제1연대와 제26연대 사이에 증원 전개하고 연일 정밀탐색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은 同월 19일 08.00부로 下達된 白野戰司 作指 제23호에 따라 제8사단과의 지경선이 咸陽—東面—南原선으로 21일 18.00를 기하여 변경되기에 이르러 同일부 제207경찰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제8사단에 인계하는 동시에 제107예비연대와 智異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 및 제205경찰연대 그리고 白雅山, 全南 兩개경찰대대를 제8사단으로 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11일 이후 줄곧 목표 中樞지역의 반복탐색으로 敵 殘黨을 一網打盡한 사단은 作命 제154호(22일 14.00부)로 智異山지구작전을 종료하고 24일부로 白雲山지구작전을 8일간 감행하게 됨으로써 곧 제3기 후반기작전에 이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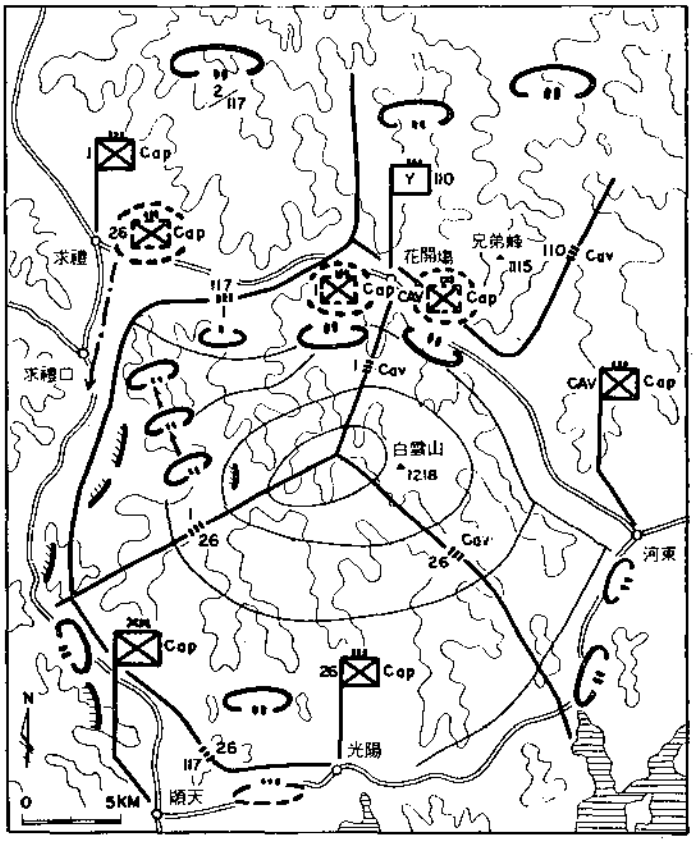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 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21일 12.00에 順天으로 CP를 이동하고 23일까지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를 花開場—河東—光陽에,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를 그 北西쪽인 花開場—求禮—求禮口—望龍里(求禮口 南쪽 10km)에, 그리고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를 光陽—大九里(昇州 內面)에 각기 전개하였다.

아울러 배속된 제107, 제117 兩개 예비연대는 현 위치에서 계속 저지임무를, 그리고 제110예비연대는 花開場부근의 저지진지를,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제205경찰연대, 白雅山 全南경찰대대)는 점령진지에서 각각 계속 거점수비 임무를 수행케 하였는데, 사단은 이로써 白雲山을 三面에서 포위한 다음 24일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當時 이 지역에는 추산 350명의 殘黨이 재집결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사단은 이러한 敵을 분쇄하기 위하여 24일~27일에는 기동전으로 최종목표를 直衝하고, 이어서 28일부터는 지역일대의 반복정밀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배속부대中 제107, 제117 兩개 예비연대로 白野戰司 作指 제24호(1월

◇ 상황도 제60호 第3期 白雲山 攻擊計劃



24일부)로 27일~28일 兩일간에 배속 해제하고 제2경비대대를 새로이 배속하는 한편 기갑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를 同作指 제25호(1월 31일부)로 陸本직할下에 雲門山(密陽 東北쪽 25km)지구로 急進케 됨에 따라 同월 31일 이들 부대를 작전지역에서 철수하여 河東에 일단 집결케 하였다가 同일 16.30에 晋州—密陽으로 轉進케 하였다.

그뒤 사단(—)은 제110예비연대와 제2경비대대, 그리고 제203, 제205 兩개경찰대대와 제18, 全南, 白雅山의 3개경찰대대를 계속지휘하는 가운데 차기 작전에 이행키 위하여 2월 1일을 기해 全부대를 작전지역에서 철수케 하고 제1연대를 求禮에, 제26연대를 光陽에, 제110예비연대를 龍崗里(花開場 北쪽 5km)에, 제205경찰연대를 花開場에 집결케 하였다. 사단이 제3기작전기간중에 거둔 종합전과는 사살 1,867명 포로 1,155명과 장비노획 경기 29정, 소총 66정에 달하였으며 我軍 손실은 전사 68명, 전상 96명이었다.

(나) 제8사단

사단은 제3기작전으로 사단이 回文山—白雅山—曹溪山—華鶴山일대에서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각개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10연대(장, 鄭剛대령)를 계속 回文山지구에, 제16연대(장, 李存一대령)를 神仙峯(井邑 南쪽 10km)지구에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를 白雅山지구에 각기 전개하는 한편 제107예비연대(장, 金海日중령)를 華鶴山에, 제205경찰연대(장, 金源湧총경)를 曹溪山지역에 계속 배비하여 잔당을 섬멸키로 하였다.

따라서 제10연대는 제2기작전 종료와 더불어 CP를 淳昌에 개설하고 예하 3개대대를 回文山 西쪽일대에 전개하게 되었으며, 제16연대는 CP를 長城에 개설하고 全병력을 神仙峯

일대에 계속전개 하였다.

또한 제26연대는 CP를 玉果에 개설하고 그 예하부대를 白雅山 西쪽일대에, 그리고 제107예비연대는 CP를 계속 梨陽에 설치하고 華鶴山과 그 東쪽 고지에, 제205경찰연대는 CP를 廣川里(玉果南쪽 11km)에 개설하여 병력을 曹溪山일대에 배비하게 되었으며, 사단 CP는 제2경비대대와 더불어 潭陽에 계속 開設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월 4일 06.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감행한 사단은 4일에서 8일에 이르는 5일동안에 제10연대가 사살 32명, 각종무기 12정을 노획하고, 제16연대는 사살 34명, 포로 15명, 각종무기 13정을 노획하는 전과가 있었다.

또한 南쪽지역에서 작전한 제107예비연대는 梨陽北쪽에서 공비 2명을 사살하고 무기 2정을 노획하였으며 제21연대는 기간中의 작전으로 공비 3명을 사살하고 포로 2명과 무기 3정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白野戰司 作指 제20호(1월 10일 12.00부)로 白雅山지구 작전을 수행하던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를 回文山지구에 轉用하는 한편 同 연대의 작전지구를 白雅山경찰대대가 인수하여 수행케 하였다.

이리하여 10일 이후에 사단은 主力을 동원하여 回文山—神仙峯일대를 집중탐색케 되었으나 15일부 白野戰司 作指 제21호가 하달되어 제21연대의 제1대대를 급거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준장)에 배속케 하였다가 17일에 同 作指 제22호로 雲長山지구마저 인수케 되어 제21연대를 井邑—全州—高山경유 雲長山으로 直行케 함으로써 同대대는 사단에 복귀케 되고 이에 배속되었던 제9경비대대(장, 車東俊소령) 역시 사단이 지휘하게 되었다.

首都사단이 智異山지구에서 예하 3개연대와 기타부대를 집중하여 공비 격멸전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神仙峯, 回文山, 白蓮山(△754 任實 西쪽 10km)雲長山등 4개 지역에서 병력을 분산하고 연대별 작전을 전개하게 된 사단은 다시 首都사단이 白雲山지구에서 후반기 작전을 전개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21일 18.00부로 白野戰司作指 제23호(1월 19일)에 의거 八公山—聖壽山—天皇峯—長安山에서 임무수행중인 제207경찰연대(장, 文鴻東총경)의 작전지휘권을 首都사단으로 부터 인수하고 대신 제107예비연대(장, 金海日중령)와 智異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사령관, 辛相默경무관) 및 제205경찰연대(장, 金源湧총경) 그리고 白雅山, 全南의 兩개경찰대대를 首都사단에 인계하게 되었다.

그뒤에 사단은 期末에 이르도록 계속 神仙峯—回文山—白蓮山—雲長山—八公山—聖壽峯—長安山등 지역에서 敵의 殘黨을 격멸하였는데, 31일까지의 종합전과는 사살 1,715명 포로 1,972명과 각종화기 노획 625정에 達하고 我軍손실은 전사 48명, 전상 56명이었다.

그런데 사단은 陸本 작지 제122호(1월 25일 12.00부)로 전선에 복귀되기에 이르러 2월 2일에 배속되었던 제207, 경찰연대, 제36경찰대대, 七寶兩경찰대대, 그리고 제1경비대대를

首都사단에, 제9경비대대를 西南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그 지휘권을 인계하고 부대 이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다)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當부대는 제2기작전 기간中 CP를 求禮에 개설하고 제110, 제117 兩개예비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를 지휘하여 主로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제3기작전에 따라 智異山지구 작전임무와 배속부대 작전지휘권을 首都사단에 인계하고 1월 8일 長溪里(咸陽西北쪽 27km)로 진출하여 CP를 이곳에 개설하였다.

이로써 새로이 배속된 제9경비대대(장, 車東俊소령)와 제203경찰연대(장, 趙石元총경) 및 제18경찰대대(장, 李炳善경감)를 통합지휘하여 前期작전에서 首都사단에 의하여 큰타격을 받고 德裕山—雲長山일대로 潰走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비의 제68사단과 全北, 忠南道黨과 長水, 居昌, 金泉, 鎭安, 茂朱등 각郡黨 및 제6지대의 殘黨을 격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同월 17일에 白野戰司 지시로 雲長山지구의 작전임무와 제9경비대대(장, 車東俊소령)를 제8사단에 인계하게 되어 當부대는 期末까지 德裕山지구 공비섬멸에만 전력하게 되었다.

각부대의 활동상을 살펴 보면 제9경비대대는 同월 9일 首都사단으로 부터 當부대에 배속이 변경되어 CP를 鎭安에 개설하고 雲長山지구로 부터의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한 다음 여기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격멸키로 하였는데 11일 12.30에 大佛里(雲長山 東北쪽 5km)에서 11명을 사살하고, 114명을 사로잡은 전과를 거두었다.

그뒤에 대대는 雲長山지구로 급진한 제8사단 제21연대 제1대대(장, 金光哲소령)에 잠시 배속되었다가 제21연대에 再배속됨으로써 西南지구전투사령부로 부터 배속이 해제 되었다

또 제203경찰연대(장, 趙石元총경)는 1월 9일 油坪里(山淸 西南쪽 10km)에 일단 부대를 집결하였다가 다음날 CP를 長溪里로 추진하고 3개대대를 德裕山 三面에 전개하여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 저지 하면서 포위 공격하였다.

그리고 또 소속부대의 하나인 제18경찰대대(장, 李炳善경감)는 前期작전에서 首都사단에 배속되어 高山일대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공비들의 北上 퇴로를 차단하였으나 제3기작전이 전개되자 8일 西南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茂朱—永同간 보급로를 경비하다가 일부병력을 鳥項山(俗難山 北쪽)과 그 西쪽일대에 진출시켜 계속 저지임무를 수행하였다,

기간中 西南지구전투사령부는 도합 102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615명을 사로잡은 外에 소총 16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나. 第四期(Rat Killer작전) (52.2.4~2.8)

(1) 작전계획

1월 31일 24.00부로 일단 제3기 작전을 마치게 된 白野戰司는 陸本 作指 제271호(52년

1월 20일부)로 제8사단과 같이 第一線 進出을 待機케 되었으나 그렇다고 작전을 이것으로 종료한 것은 아니었다.

사령관 白善燁중장(1월 12일진급)은 이 作命에서 受任된 Rat Killer작전을 전선복귀時까지 지휘한 연후에 首都사단장에게 인계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智異山—白雲山—回文山—白雅山—德裕山—雲長山등 여러 지역을 再三 탐색키로 하였다.

그러나 1월 25일에 하달된 陸本作指 제122호로 제8사단의 戰線 進出이 2월 5일로 결정되기에 이르러 이작전은 首都사단(一)과 西南지구전투사령부가 主軸이 되고 제8사단은 임무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白중장은 2월 2일에 부대 배속과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고 제8사단을 全州, 井邑등에 집결케 하였으며 首都사단(—1) 및 西南지구전투사령부 그리고 예비연대, 경비대대, 경찰부대를 새로이 전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예정된 공격일을 다소 늦추어 결정한 同월 4일 06.00를 期하여 일제히 지역內외 공비 殘黨을 격멸케 된 사령부는 이어서 하달된 陸本作指 제125호(2월 4일부)로 同월 8일 06.00에 그 임무를 首都사단에 인계하고 戰線으로 복귀하게 됨으로써 이 작전은 이후 3월 14일까지 首都사단에 의하여 계속 감행되었다.

따라서 白野戰司의 공비 격멸전은 2월 8일 06.00로 종결케 되고 그뒤의 책임은 陸本에 귀속되었는데 2월 7일 12.00에 예하에 하달한 白野戰司作指 제26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野戰司는 陸本 作指 제125호에 의거 담당지역내의 임무를 2월 8일 06.00부로 首都사단에 이양하고 계속 從前任務를 수행하려 한다.

② 野戰司는 2월 9일 09.00에 南原을 出發하여 同월 13일 06.00까지 春川부근에 이동하고 美 제9군단에 배속될 것이다.

③ 제225차동차수송대대 파견대는 사령부 이동완료와 동시에 陸本직할로 복귀한다.』

(2) 작전실시 (首都사단)

首都사단은 제8사단이 戰線복귀를 위하여 병력을 집결하는 동안 白野戰司의 일련의 계획에 따라 白雲山지구를 踏破한 여세를 몰아 白雅山—毋後山—曹溪山지구를 直衝키로 하고 2월 3일까지 사단 CP를 南原으로 이동하는 한편 제1연대(장, 朴春植중령)를 曹溪山 北쪽 지역에,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를 筏橋(順天 西쪽 13km)로 전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연대는 CP를 求禮에서 廣川으로 이동하고 예하 3개 대대를 曹溪山 東北쪽에서 北西쪽 사이에 진입시켜 제26연대와 협동으로 曹溪山을 포위하였으며 제26연대는 光陽에서 順天으로 CP를 이설하는 한편 前方 CP를 樂安(順天 西쪽13km)으로 추진하고 右로부터 제3, 제1, 제2대대순으로 전개하였다.

이로써 同월 4일 06.00에 曹溪山를 급습한 사단은 이날 배속된 제2경비대대(장, 河正煥중령)를 계속 梨陽에 駐留케 하고 白雅山 경찰대대(장, 朱炯來경감)를 白雅山 西쪽에, 그

리고 全南경찰대대(장, 金基朱경감)를 毋後山에 각기 배비하여 敵의 脫出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이날 下達된 陸本 作指 제125호로 白野戰司가 戰線복귀를 준비하게 되어 이에 배속된 모든 부대의 작전 지휘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니 사단의 작전지역은 白野戰司가 담당하였던 全지역을 包攝하게 되었다.

當時에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준장)는 CP를 鎭安에 두고 제110예비연(대—1)(장, 金在命중령)와 제9경비대대(장, 車東俊소령) 및 제36경찰대대(장, 金錫琓경감)를 배속하여 德裕山—長溪里—鎭安—任實 北쪽—全州線 以北 전구를 담당 高山, 雲長山지구에서 敵殘黨을 격멸하고 있었다.

또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장, 李成雨경무관)는 CP를 咸陽에 설치하고 제207경찰연대(장, 文鶴東총경)와 제18경찰대대(장, 李柄善경감)를 배속하여 德裕山—居昌—咸陽—雲峰—南原—任實—鎭安을 연결하는 지역內를 담당, 德裕山, 長安山, 天皇峰등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장, 辛相默경무관)는 咸陽—南原—求禮口—順天 以東의 智異山, 白雲山등 戰區를 담당하여 CP를 求禮에 설치하고 또한 새로이 창설된 孫부대(장, 孫繼天총경)가 CP를 葛潭에 설치한 가운데, 七峰, 雞林 兩경찰대대를 지휘하여 全州—任實—南原—潭陽—井邑線內에서 回文山 지역에 대한 공비 격멸에 任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하여 사단은 曹溪山을 중심으로 南北으로 분할하여 南原—求禮口—曹溪山—光州—潭陽 지역을 제1연대에게 할당하고 白雅山과 毋後山에 진입한 白雅山경찰대대와 全南경찰대대를 이에 배속하였다. 그리고 曹溪山 南쪽을 제26연대에, 제1, 제2 兩경비대대를 작할하게 되었다.

공격첫날에 兩연대는 협공으로 曹溪山을 포위하여 상당한 전과를 획득하는 가운데 최종목표를 점령하고 탐색기지를 설정하였으며,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제205경찰연대의 주력으로 花開場 北쪽을 탐색하였다. 또한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德裕山지역에서, 西南지구 전투사령부는 雲長山일대 지역에서 각기 주력으로써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7일까지 제1, 제26兩연대가 협동으로 曹溪山 일대를 반복 탐색하여 潛伏中인 공비의 잔당을 색출하고 격멸하는 동안 배속부대들도 각기 敵情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8일 06.00를 期하여 사단은 白野戰司가 담당하였던 지역內의 모든 작전책임을 인수하고 陸本 직할부대가 됨으로써 當初 白野戰司가 계획한 제4기(Rat Killer)의 나머지 작전을 계속 수행케 되었으며 따라서 사단은 이후부터 單獨으로 Rat Killer 작전을 수행하였다.

5. 작전 후의 개황

51년 11월 25일에 白野戰司를 全州에 설치하고 12월초부터 다음해 1월末까지 首都 및 제8사단을 主軸으로 하여 감행된 西南지구 일대에서의 공비 격멸전은 이 지역 일대를 부대로 하여 跳梁하던 공비의

주력을 완전 격멸하게 되고 僥倖히 分散하여 潛跡한 일부의 少數 공비라 할지라도 무기력 상태가 되어 이의 殲滅은 我軍이 작전을 中斷하지 않는 限 시간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陸軍총참모장 李鍾贊중장은 美 제8군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축차로 西南지구에서 兵力을 철수시켜 戰線으로 轉用키로 결심하고 제4기 작전을 首都사단을 基幹으로 예비부대와 경비부대 그리고 경찰부대들로 하여금 續行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陸本의 계획으로 제8사단은 2월 6일 06.00에 집결지인 陽地里(南原 北쪽 36km), 全州, 井邑을 떠나 배정된 열차편으로 退溪院으로 向發함으로써 西南지구에서 부대의 1차 轉用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음날인 08.00에 退溪院에 집결한 同사단은 제227자동차대대의 지원 차량으로 제1야전훈련소(FTC)로 직행 하고 이후 陸本 직할밑에 부대 교육에 들어갔다.

제8사단의 전선 進出로 首都사단(—1)과 西南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로 제4기 작전에 돌입한 白野戰司는 陸本 作指 제125호로써 西南지구 공비격멸의 계속을 首都사단에 맡긴 다음 전선으로 進出하게 됨으로써 白野戰司의 공비 격멸전은 여기에서 종료케 된 것이다.

白野戰司는 陸本에서 지시된 일자인 2월 8일 06.00에 작전 임무에서 해제되어 이때까지 본부를 지원한 의무대와 제32통신운용중대만을 계속 배속하여 同월 10일 南原을 출발, 지원된 제806, 제807兩개 자동차중대의 차량으로 春川으로 이동끝에 同월 13일 06.00에 美 제9군단에 배속되었다.

이리하여 白野戰司는 CP를 下文廷里(春川 北쪽 2km)에 개설하고 장차 제2군단 창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작전지역에서 계속 제4기 작전을 수행한 首都사단(—1)은 陸本作指 제127호(2월 9일부)와 同 제130호(2월 25일부)로 축차적으로 제110예비연대와 제2경비대대의 배속을 해제하였으며 3월 2일에는 雲門山에 출격하였던 기갑연대가 임무를 완수하고 光州로 복귀함에 따라 이들 부대 역시 主力과 合勢하게 되었다.

그런데 同사단은 陸本 作命 제272호(3월 8일부)와 同作指 제133호(3월 10일부)로 白野戰司가 계획한 Ret Killer작전을 3월 14일에 종료하고 작전책임지구와 경찰부대 및 경비부대의 지휘권을 西南지구전투사령부(장, 金容培준장)에 인계하게 됨으로써 白野戰司가 설치된 이후 전선에서 후방으로 轉進한 부대들은 모두 공비 격멸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후방에서 이와같은 조치가 이루어 지는 동안 戰線에 進出後 계속 美 제9군단에 배속되어 CP를 土古味(華川 北쪽 4km)에 移設하고 부대 교육中이던 白野戰司는 3월 5인에 제8군으로부터의 일련의 전선인수 계획으로 光州에서 創設되어 春川으로 이동한 제52전차중대를 배속받고 이어서 同월 18일에는 제3사단의 작전지휘권을 美 제9군단으로 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또한 同월 23일 12.00에는 戰線으로 복귀후 제1야전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首都사단을 지휘하여 當面의 진지를 점령케 하였으며, 同월 29일 12.00에는 제6사단을 배속하였는데, 이로써 白野戰司는 麾下에 3개사단을 거느리고 4월초부터 右翼에 제3사단을, 中央에 首都사단을, 左翼에 제6사단을 전개하여 美 제10, 제9兩군단 사이 東西 25km의 前線을 인수하게 되었다.

第51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 狀況

第 51 章 國立警察의 活動 (1951년 9월 1일부터 1951년 11월 1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3호

1. 一般狀況

기간중에는 休戰會談이 再開되고 軍事分界線이 假調印됨에 따라 통일의 전망이 더욱 흐려지는 가운데 國軍과 UN軍은 膠着된 戰線에서 高地爭奪戰을 전개하였다.

이때 國立경찰은 太白山 및 智異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와 철도 機動사령부를 主軸으로 하고 共匪出沒地區의 行政경찰도 戰鬪本位로 그 體制를 바꾸어 掃共安民에 拍車를 加하였다.

가. 後方 共匪의 활동 개요

(1) 李鉉相의 動靜

共匪魁首 李鉉相은 8월 22일에 智異山의 細石에서 소위 首腦회의를 열고 후방治安을 최대한으로 攪亂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指令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軍服을 假裝할 것.
② 輸送機關을 強奪할 것.
③ 兵器 및 彈藥의 보급투쟁을 강화할 것.
④ 민간인의 拉致와 血緣者의 強制入山으로 병력보충을 強行할 것.
⑤ 都市와 경찰官署를 大單位 부대로 역습할 것.
⑥ 越冬用食糧을 보급투쟁으로 早速히 확보할 것.
⑦ 勞動黨의 細胞組織을 확대할 것.

(2) 共匪의 出沒상황

魁首 李鉉相의 指令에 의한 활동이 漸次로 露骨化하여 갔는데 그가 직접 지휘하는 大單位 共匪는 雲峰, 谷城을 襲擊하였으며 各地區에 분산된 共匪는 山間村落과 경찰支署를 奇襲하고 機動路를 위협하였다.

특히 그들은 보급투쟁과 병력보충을 위하여 零細農民의 식량을 無慈悲하게 掠奪하고 민간인을 拉致하는 한편 反共人士와 軍警家族 및 기독교도들을 殺傷하였다.

나. 民心의 動向

戰線에서의 UN軍과 國軍의 勇戰奮鬪로 國民總和가 날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三南지방에서의 共匪의 蠢行은 계속 되었다.

따라서 在山共匪들의 出沒地區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속에 戰戰兢兢하면서 그들의 早速한 掃滅만을 바라고 있었으며 정부와 국회는 軍警의 合同作戰을 전개토록 하는 措置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다. 國立警察의 後方作戰 상황

國立경찰은 후방 共匪의 早速한 격멸을 위하여 全경찰력을 戰鬪本位로 轉換하여 擊滅戰을 계속 감행하였다.

(1) 非常警備總司令部의 作戰方針

내무부장관은 崔致煥경무관으로 하여금 南原에 治安局 前方指揮所를 설치케 하여 治安局長 代理官으로서 경찰作戰을 지휘케 하였는데 그 指導方針은 大要 다음과 같다.

전투경찰

① 共匪의 主力을 捕捉하여 이를 擊滅한다.

② 秋收保護를 위한 作戰을 展開한다.

③ 軍警協調의 萬全을 期한다.

행정경찰

① 전투경찰의 指揮 또는 區處下에 分散하여 流動하는 共匪를 隨時 到處에서 擊滅한다.

② 秋收保護 및 M.S.R과 鐵道警戒에 注力한다.

③ 細胞를 剔抉한다.

④ 五列을 檢擧한다.

⑤ 歸順工作과 宣撫工作을 併行한다.

⑥ 民弊를 根絶한다.

이와 아울러 長期間에 걸친 전투경찰대 服務者를 후방 근무자와 交流토록 하여 전투경찰대원의 士氣를 진작시켰다.

(2) 戰鬪警察司令部의 활동

太白山 및 智異山地區 전투경찰사령부와 철도機動사령부는 각각 命課된 共匪擊滅과 열차護送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太白山地區 전투경찰사령부 隷下 경찰전투부대는 李鉉相의 本據地인 達宮을 攻略하고 三壯一矢川 地區를 平定한 다음, 추수를 보호하였다.

한편 智異山地區 전투경찰사령부는 그 隷下 경찰부대로써 回文山地區의 平定作戰을 완수하여 共匪主力의 據點을 殲滅하였다.

특히 1951년 12월 1일부로 정부가 釜山, 大邱 및 9개郡을 제외한 慶南北과 全南北一圓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고 白善燁소장이 지휘하는 白野戰鬪司令部 隷下의 首都, 제8 兩사단이 共匪擊滅作戰을 전개함에 따라 治安局長의 代理官인 崔致煥경무관이 統轄하는 太白山 및 智異山地區 전투경찰사령부 隷下의 全경찰전투부대는 51.12.1부터 52.3.13에 걸쳐 다음과 같이 軍警合同作戰을 수행하였다.

① 제1단계 작전(51.12.1~12.31)

(ㄱ) 太白山地區 전투경찰대는 수도사단과의 合同作戰으로 智異山과 慶南 西部地區의 共匪를 격멸하였다.

(ㄴ)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는 제8사단과의 合同作戰으로 德裕山—回文山을 중심으로 하는 全北일대의 共匪를 격멸하였다.

② 제2단계 작전(52.1.1~1.31)

太白山 및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는 수도사단과 西南地區사령부 隷下의 육군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智異山—德裕山—回文山—白雲山을 비롯하여 慶南과 全北일대에서 共匪를 撲滅하였다.

③ 제3단계 작전(52.2.1~3.13)

(ㄱ) 太白山地區 전투경찰대는 수도사단과 더불어 德裕山—長安山—智異山을 連하는 東쪽의 慶南地域을 담당하고 일부 병력은 神佛山부근으로 이동하여 殘匪를 격멸하였다.

(ㄴ)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는 西南地區경비사령부 隸下 전투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全南北 일대의 共匪를 격멸하여 그 主力을 擊破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3) 義勇경찰대의 활동

각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共匪擊滅작전을 펴게 된 義勇경찰대는 反共의 勇士로서 향토방어와 철도 및 主補給路 警備를 담당하고 매복 또는 共匪의 據點奇襲에 크게 寄與하였다.

(4) 육군 鷄林부대의 引受

육군 제9사단이 유격부대로 편성하여 東海岸의 山岳지대에서 敗殘兵 및 共匪擊滅에 크게 功勳을 세운 鷄林부대는 軍의 事情에 의하여 1951년 9월 30일 11.00에 咸陽에서 육본 정보국장 金宗平준장으로부터 太白山地區 전투경찰 李成雨경무관에게 부대가 引繼되었다.

부대장 徐泰翰이하 전장병은 이날부터 戰鬪경찰로 임명되어 咸陽上林에서 對유격전 훈련을 받고 進宮攻略을 비롯하여 智異山共匪격멸작전에서 太白山전투경찰대의 先鋒으로서 많은 功勳을 세웠다.

2. 國立警察의 共匪 擊滅 狀況

가. 靑岩附近 戰鬪(1951.9.5~9.8)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07연대	제3대대	장	경감 宋	相 基(河東경찰서 靑岩지서)
	敵 軍			
共匪	제57사단	장	李	永 檜

(2) 전투 전의 개황

巨林에 據點을 둔 共匪 제57사단(장, 李永檜)은 慶南 山淸郡下에 있는 三壯—矢川—靑岩일대에 계속 出沒하면서 治安을 교란하고 경찰支署에 대한 습격을 劃策하였다.

이에 太白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 隸下의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搜索과 매복을 계속하면서 該敵을 捕捉 격멸키로 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敵의 빈번한 출몰상황과 歸順共匪의 陳述에 따라 敵이 靑岩支署습격을 企圖하는 것으로 판단한 太白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 예하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은 이에 對處하고 아울러 敵을 捕捉擊滅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제3대대는 河東경찰서 靑岩지서 전투대를 統合지휘하여 靑岩일대에서 暗躍하는 共匪를 격멸하라.

② 敵을 捕捉하면 接敵을 계속 維持하여 主力을 격파하라.

③ 민간인의 安全保護에 만전을 期하라』

(ㄴ) 작전 실시

9월 5일 : 04.40에 共匪 제57사단의 主力 500명은 靑岩支署와 부락을 포위하고 侵襲하였다.

때마침 敵의 奇襲에 대비하여 매복중이던 제207연대 제3대대와 靑岩支署전투대는 敵을 至近距離까지 誘引한 다음 계획된 火網을 펴 敵에게 타격을 주었으나 그들의 집요한 波狀공세로 3시간동안에 걸쳐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다. 실탄이 부족하게 된 경찰대는 일단 제2防禦線으로 逐次 轉進하여 실탄의 再補給을 받은 다음 09.00를 期하여 일제히 反擊을 감행함으로써 敵은 부근 高地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를 계속 追擊하여 激戰을 벌였는데 敗色이 짙은 敵은 18.00에 內川里쪽으로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9월 6일 : 02.30에 敵의 別動隊 30명은 靑岩支署를 또다시 奇襲하였으나 제3대대는 全火力을 집중하여 이를 即刻 擊退하는 한편 그들의 退路를 차단하면서 포위공격하여 많은 타격을 주었다.

한편 河東경찰서 靑岩支署전투대는 대대의 일부 병력과 협동하여 매복중에 있었는데 別動隊의 支署 奇襲과 동시에 潛侵하는 一團을 捕捉하고 집중사격을 加하여 一擧에 격퇴하였다.

9월 7일 : 靑岩支署 襲擊에 실패한 共匪 제57사단 主力이 內川里에 집결중임을 확인한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은 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의 지도에 따라 이를 포위 격멸키로 하고 이날 부대整備에 着手케 하였다.

9월 8일 :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夜暗을 이용하여 內川里부근으로 機動한 다음 04.00를 期하여 집결중인 共匪 제57사단 主力 57명을 포위공격 하였다. 이에 當惑한 敵은 한때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함으로써 대대는 包圍網을 壓縮하면서 火力을 집중하여 致命的인 타격을 加하였으며 絶對絶命의 상황에 이른 敵은 발악적인 저항을 試圖하기에 이르러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激戰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激突이 8시간동안 계속되자 敵은 12.00를 期하여 智異山의 巨林쪽으로 分散潛走하였다.

이에 대대는 일부 병력을 靑岩支署경비에 增援케 하고 主力은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그런데 이날 대대의 유격대인 靑虎隊는 敵의 경계부대인 30명의 共匪를 捕捉하고 격전끝에 이를 격멸함으로써 主力의 작전에 寄與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대대로 부터 계속적인 波狀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받은 共匪 제57사단은 巨林으로 퇴각하였다. 이에 제3대대는 靑岩일대의 警戒를 강화하면서 敵을 追擊, 교란함으로써 敵의 집단적인 部落 및 경찰 支署 습격을 阻止하였다.

이 戰鬪에서의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射殺 56명과 鹵獲 M1, 13挺, 그리고 損失로서는 戰死 1명, 戰傷 2명이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相基 경감

雨岩地區는 山勢가 험준한 高地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小兵力으로 방어하기에 困難을 받았다.

더우기 가장 奸惡한 共匪두목인 李永燾는 智異山地域의 地理에 밝고 用兵에도 뛰어난 者여서 抗戰 방법도 다양한 관계로 惡戰苦鬪하였다.

나. 雲峯一荒山地區 攻擊戰(9.19~9.22)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치안국장 (대리)	경무관	崔致煥	제1대대 장	경감	鄭成俊
智異山地區 전투경찰 사령관	경무관	辛相默	제207연대 장	총경	文鶴東
제203연대 장	총경	趙石元	제1대대 장	경감	洪南植
제2대대 장	경감	金相旭	南原경찰서 장	총경	尹榮國
제205연대 장	총경	金源湧	雲峯지서 장	경위	金景祚
敵軍			**敵軍**		
인민유격군 南半部 총사령관		李鉉相	全南道黨 위원장		金善宇
南半部군단 장		金明坤	南原郡黨유격대		
全北道黨 위원장		方俊杓	(총 병력 1,700명)		

(2) 전투 전의 개황

共匪총사령관 李鉉相이 지휘하는 南部군단의 主力부대는 淸州를 습격하고 三道峯을 거쳐 南下하면서 德裕山地區에서는 全北 長水경찰서 明德지서와 慶南 咸陽경찰서 西下지서를 습격하였다. 敵은 黃梅山地區로 다시 이동하면서 慶南 陜川경찰서 佳會지서를, 智異山地區에 潛入한 다음에는 山淸경찰서 三壯지서와 矢川지서를 연속적으로 습격하였다. 51년 8월 22일에 智異山 巨林에 本據를 둔 이래로 敵은 그 侵攻을 더하여 河東경찰서 蟾谷지서와 花溪지서, 富春출장소를 또다시 습격하고 이를 占據하기에 이르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51년 9월 19일에 치안국장 대리인 崔致煥 경무관은 40度 高熱의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咸陽경찰서에서 太白山地區 전투경찰대 제207연대의 各級지휘관과 慶南 西部地區의 경찰서장을 소집하여 敵의 빈번한 경찰支署 습격에 대처하기 위한 作戰會議를 主宰하였는데 이때 치안국 전방사령부로부터 雲峯이 또다시 敵의 습격을 받아 苦戰中임을 보고 받았다.

이에 崔致煥경무관은 이 기회에 그들을 捕捉격멸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경찰은 雲峯에 侵襲한 敵을 捕捉 격멸하려 한다.

②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는 隷下 제203, 제205 兩연대로써 敵을 포위격멸하라.

③ 제207연대 1개대대는 雲峯 東北쪽의 東面支署로 진출한 다음, 別途명령에 따라 雲峯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라.

④ 南原경찰서장은 雲峯지서장으로 하여금 대한청년단원과 義勇隊를 통합지휘하여 雲峯을 계속 확보케 하고 戰況을 정확히 보고토록 하라.

⑤ 余는 東面지서에 위치한다.』

(ㄴ) 작전 실시

9월 19일 : 23.00에 李鉉相이 지휘하는 1,700명의 共匪는 雲峯을 포위하고 습격하였다.

이에 雲峯 外廓陣地를 점령한 雲峯지서 전투대는 지서장 金景祚경위를 중심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敵을 阻止코자 奮戰하였으나 漸次로 밀리는 바 되어 支署를 최후의 據點으로 하면서 결사적인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때 市街로 亂入한 共匪는 放火, 掠奪, 虐殺을 恣行하여 修羅場을 이루었다.

이러한 戰況을 보고받은 南原경찰서장 尹榮國총경은 上報하는 즉시로 경찰 1개중대를 雲峯 西南쪽으로부터 進擊케 하고 1개중대는 二白지서로부터 雲峯으로 진격토록 명령하였다.

한편 智異山地區 전투경찰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은 치안국 前方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제203, 제205 兩연대의 각 1개대대를 雲峯으로 急派하여 敵을 逆包圍하고 일거에 격멸토록 하였다.

이때에 崔致煥경무관은 제207연대 1개대대를 직접지휘하여 東面지서를 거쳐 雲峯 東北쪽 下水橋쪽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雲峯을 습격중인 敵은 경찰부대에 의하여 逆包圍되기에 이르자 彼我間에는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9월 20일 : 이날 未明에 雲峯 外廓으로 진출한 崔致煥경무관과 Spring 顧問官 그리고 제203, 제205 兩연대장과 제207의 3개포대장을 소집하여 作戰會議를 개최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공격을 감행하여 李鉉相이 지휘하는 主力을 捕捉키로 하였다.

雲峯 東北쪽으로 迂回한 제207연대 제1대대(장, 洪南植경감)는 05.00에 荒山에서 100명으로 推定되는 共匪를 포착하여 6시간에 걸친 공격끝에 큰 타격을 주고 荒山을 奪還한 다음 德頭山으로 潰走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한편 智異山地區 경찰전투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이 陣頭指揮하는 제203연대 제2대대(장, 金相旭경감)는 雲峯 西南쪽과 還峯일대에서, 제205연대 제1대대(장, 鄭成俊경감)는 雲峯 東南쪽 外廓지대와 世傑山일대에서 敵과 격돌하였으며 이에 힘 입은 南原경찰대와 雲峯지서의 混成전투대는 市街戰을 벌여 敵을 격멸하였다.

9월 21일 : 경찰부대의 과감한 포위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은 敵은 이날 08.00에 드디어 雲峯을 포기하고 潰退하기 시작함으로써 敵侵 3일만에 雲峯을 收復하게 되었다.

경찰부대는 崔致煥 경무관의 陣頭指揮下에 敵이 潰走할 것으로 예상되는 達宮에 이르는 退路를 차단하는 한편 일부 부대는 追擊을 계속 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전투경찰부대의 과감한 포위공격으로 雲峯을 襲擊한 李鉉相부대는 智異山 達宮쪽으로 潰退하였으나 그들의 奇襲방법이 大單位化하고 화력이 增強된 點으로 미루어 그들의 跳梁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崔致煥경무관은 이에 대한 對應策을 강화토록 嚴達하였다.

雲峯에서 作戰을 전개한 경찰부대는 南原경찰대만을 殘置하고 다음 作戰을 위하여 雲峯에서 撤收하였다.

이 전투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165명	戰死	21명
捕虜		7명	負傷	8명
鹵獲	小銃	110정	失踪	4명
	實彈	2,726발		

§ 參戰者의 證言

◇치안국 전방사령부 작전참모 白昌煥 경감

咸陽에서 野戰지휘관 회의중에 雲峯襲擊의 보고를 받고 崔致煥경무관은 連日의 出張과 出動으로 40度高熱의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雲峯으로 진출하였다. 雲峯 下水橋에 이르니 雲峯에서는 市街戰이 벌어져 彼我의 銃聲이 천지를 진동하고 그들의 無差別사격으로 狀況은 지극히 悲觀的이었다.

그러나 崔致煥경무관의 과감한 對應措置로 마침내 이 敵을 격퇴하고 雲峯을 奪還하였다.

다. 谷城 攻防戰(9.30~10.2)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智異山地區 전투경찰 사령관	경무관	辛 相 默
제203연대	장 총경	趙 石 元
제205연대	장 총경	金 源 湧
배속부대		
全南연합전투부대	장 총경	趙 左 容
谷城경찰서	장 경감	具 書 七
求禮경찰서	장 경감	金 龍 勳

敵軍		
共匪		
인민유격군南半部총사령관		李 鉉 相
南部군단	장	金 明 坤
各地區黨 연합共匪		
(병력 1,500명)		

(2) 전투 전의 개황

智異山으로 잠입하여 達宮을 그 本據地로 한 南部군단 主力은 雲峯을 습격하고, 達宮—通明山일대의 山岳地帶를 掌握하면서 求禮—谷城—南原—咸陽—山淸등의 경찰官署를 또다시 습격코자 策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智異山地區內의 각 경찰서는 자체경계를 위하여 築城과 防柵 및 望樓등의 방어시설에 역점을

두어 敵의 奇襲에 對處하는 한편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소방관 義勇경찰, 大韓청년단원으로 混成전투부대를 편성하고 搜索과 매복을 강화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敵이 또다시 경찰官署를 습격코자 하는 兇策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자 辛相默경무관은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智警司는 敵의 습격을 未然에 방지하고 敵을 捕捉격멸하려 한다.

② 제203, 제205 兩연대는 現 戰術責任地域에서 搜索과 매복을 강화하고 隣接 경찰서로부터 敵襲通報를 받을 때에는 즉각 출동하여 이 敵을 격멸하라.

③ 각 경찰서는 敵의 侵襲을 받았을 때 즉각 隣接 경찰서 또는 전투경찰대에 通報하고 최대의 戰鬪力을 발휘하여 部落 및 경찰官署를 보호하라』

(ㄴ) 작전 실시

9월 30일 : 이날 谷城경찰서 전투대는 전날에 이어 外廓陣地를 확보하고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 예하 각 부대는 戰術責任地域內에서 搜索과 매복을 계속 하였는데 23,40에 이르러 共匪총사령관 李鉉相이 지휘하는 南部군단의 主力부대는 谷城을 三面으로 포위공격하였다.

즉, 그들은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外廓陣地와 梧谷지서에 집중하여 이를 占據하는 즉시로 谷城경찰서에 사격을 집중함으로써 谷城邑內는 삽시간에 血戰場으로 변하였다.

이에 경찰서 전투부대는 이 敵襲을 저지코자 하였으나 병력과 화력이 優勢한 敵이 경찰서 주변까지 近迫하므로 불리한 상황아래에서 경찰서를 최후의 堡壘로 삼으면서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이때 市內는 共匪들의 殺人, 掠奪, 放火로 修羅場化하였다.

이와 같은 戰況을 報告받은 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은 제203연대 일부병력을 陣頭指揮하여 緊急出動하였다.

10월 1일 : 사령관이 陣頭指揮하는 경찰增援부대가 05.00에 蟾津江 東岸의 新月里에 到達하였을 무렵에 잠복중이던 90명의 共匪는 경찰를 奇襲하였으나 즉각적인 應戰과 반격으로 谷城쪽으로 潰走하였다.

이에 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은 경찰增援부대에 대하여 敵前渡河를 명령하는 동시에 자신이 率先하여 江속으로 뛰어 들어 渡涉하자, 경찰부대는 일부 掩護부대가 敵火를 制壓하는 가운데 사령관에 뒤질세라 渡涉를 강행하여 11.30에는 彼岸의 敵을 一擊으로써 撲滅하고 谷城으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제203연대 제8중대(장, 方得允경감)은 진촌—新基里로 迂回하고 제10중대는 장성里로, 그리고 독립중대와 번개중대는 大坪里로 각각 進擊하여 谷城경찰서를 포위하고 있는 敵을 三面으로 逆包圍한 다음 일제히 공격하였다.

敵은 執拗한 저항을 계속 하였으나 경찰대의 과감한 突擊에 밀려 谷城外廓지대로 退却

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서에 當到한 辛相默사령관이 敵의 重圍 속에서도 寡兵으로 勇戰奮鬪하여 끝까지 固守한 具碧七경감의 勞苦를 치하하고 14시간동안의 生地獄에서 구출된 谷城郡民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歡呼聲을 올렸다.

한편 이날 04.00에 機動한 求禮경찰서장 金龍勳경감이 지휘하는 유격대와 全南경찰국 直轄 기동대 1개중대는 梨坪—天馬山—교당里를 거쳐 14.00에 梧谷지서 부근으로 진출하였을 무렵에 경찰부대와 激戰중인 共匪를 발견하고 그 배후를 찔러 一擊에 이를 擊破한 다음, 계속 谷城으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潰退중인 敵을 또다시 포착하여 追擊中인 경찰대와의 挾擊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谷城에서 퇴각한 敵이 兄弟峯과 天德山으로 잠입하자 경찰전투부대는 이를 포위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03연대 제8중대와 求禮철도경찰대는 市內에 잠복중인 殘敵을 색출하고 질서를 回復하였다.

10월 2일 : 08.00에 행동을 개시한 谷城전투경찰대는 兄弟峰을, 제205연대(장, 金源湧총경)는 天德山을 각각 공격하였는데 제205연대는 12.00에 新佛堂에서 敵 300명을 捕捉하고 포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頑强한 저항으로 激戰만을 계속할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18.00에 이르러 群山基地에서 출격한 美 空軍 전폭기편대의 有効適切한 對地 공격에 뒤이어 공격을 再起하여 敵을 擊破하였다.

한편 谷城경찰대와 합세한 全南기동대는 18.00에 鳳井里에서 潰退중인 一團의 共匪를 포착하고 이를 追擊하였으며 全南연합부대는 通店에서 共匪 500명이 집결중인 것을 발견하자 곧 이를 포위공격한 다음, 현조동—三岐—白雅山—雲橋里—月鏡里까지 追擊戰을 벌여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4) 전투 후의 개황

淸州奇襲에 이어 谷城을 共匪六部隊로 습격한 李鉉相의 최후 발악적인 공격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提起하였다.

이에 非常警備總司令部는 全國경찰에 대하여 共匪의 奇襲에 철저한 對應措置를 취하도록 治安명령을 下達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寡兵으로 勇戰奮鬪하여 谷城을 死守한 谷城경찰서의 戰功을 높이 찬양하고 谷城攻略戰의 戰鬪詳報를 全國경찰에 하달하여 戰訓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때 李鉉相이 지휘하는 南部군단 主力부대는 智異山 達宮—巨林—細石 일대로 잠입하여 계속 治安교란을 위한 策謀를 劃策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戰鬪를 통하여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506명	機關銃	8정
捕虜		31명	小銃	153정
投降		5명	戰死	24명
鹵獲	迫擊砲	5門	負傷	17명

§ 參戰者의 證言

◇ 谷城경찰서장 具書七경감

敵襲에 對處하고 경계하였으나 예상치도 못한 共匪 大部隊가 夜襲하였다.

이때 谷城 全市民이 경찰서로 蝟集하므로 작전에 큰 지장을 주었으나,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도자급의 右翼人士와 婦女子, 어린이들을 경찰서에 수용하고 侵襲하는 敵을 맞아 勇戰奮鬪하였다.

敵은 市內에 侵襲하면서 放火 掠奪하고 그리고 양민을 살해하는 일방 無差別 銃撃을 加하면서 최후堡壘인 경찰서를 포위공격하였다.

全 경찰전투대원은 최후의 一人까지 경찰서를 死守키로 하고 죽음을 超越한 勇戰을 벌였으나 漸次 줄어드는 실탄에 나는 무던히도 속을 썩혔다.

그러나 辛相默사령관이 陣頭指揮하는 증원부대가 敵을 逆包囲하고 일제히 공격할때의 그 感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戰鬪를 통하여 평소의 戰鬪訓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再認識하였다.

라. 達宮 攻戰防(10.15~10.27)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軍		
太白山地區 경찰전투 사령관			제5대대	장 경감	鄭 喜 煥
경무관	李 成 雨		제200연대 제2대대	장 경감	黃 澤 周
제207연대	장 총경	文 鶴 東	계림부대	장 경감	徐 泰 翰
제1대대	장 경감	李 鍾 午	제1중대	장 경위	尹 在 瓊
제2대대	장 경감	姜 元 淳	제2중대	장 경위	李 熙 豊
제3대대	장 경감	宋 相 基	제3중대	장 경위	金 漢 喆
敵軍					
인민유격군 南部총사령관		李 鉉 相	제81사단	장	金 興 福
南部군단	장	金 明 坤	제92사단	장	金 在 連
제57사단	장	李 永 檜			

(2) 전투 전의 개황

李鉉相은 각 道黨위원장과 南部군단 首腦部의 連席會議를 개최하고 투쟁목표를 『官公署와 都市 및 교통기관을 최대한으로 습격하는 동시에 右翼人士 및 基督敎人·軍警家族을 무자비하게 殺傷하여 후방治安을 교란하라.』고 指令하였다.

이를 뒷받침하 듯 그들의 경찰官署에 대한 습격이 거듭되고 군용열차에 대한 妨害工作이 반복되었다.

특히 越冬을 위한 보급투쟁이 三南地方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을 예상하였다.

이에 太白山地區 전투경찰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은 敵의 核心根據인 達宮을 攻略하여 그 主力을 一擧에 분쇄키로 결심하고 隷下 경찰전투부대의 교육훈련을 督勵하는 한편 敵情수집에 專力하였다.

그리하여 얻어진 이 情報의 分析결과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達宮은 盤若峯 西北쪽에 있는 險峻한 山岳으로 半月型의 천연적 要衝이다.

② 공격의 時期는 降雨量이 적은 10월이 適期이다.

③ 達宮과 그 주변 山岳地帶를 占據한 共匪 南部군단은 重기관총 10정과 輕기관총 23정 외에 상당수

의 60mm 迫擊砲를 保有하고, 지휘관급은 권총과 多發銃을, 그리고 一般은 소총과 수류탄 一發씩을 갖고 있다.

④ 共匪중에는 軍警服裝으로 假裝한 者와 女子共匪가 많다.

⑤ 達宮의 共匪는 全國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전투력이 강한 것으로 推定된다.

⑥ 그들의 總數는 600명이고 敗殘兵과 地方共匪로 편성되어 있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太白山地區 전투경찰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은 機先을 制하여 敵의 據點을 공격하고 최고 首腦部와 最强을 自負하는 共匪를 一擧에 격멸키로 결심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太警司는 達宮을 공격하여 敵을 격멸하려 한다.

② 제207연대는 達宮을 포위 공격하라.

③ 제200연대 제2대대는 제20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鷄林부대는 포위망을 벗어나는 敵을 찾아서 擊破하라.

⑤ D일 H시는 10.15.13.00이다.

⑥ 前方指揮所는 馬川에 위치한다.』

(ㄴ) 작전 실시

10월 15일 : 각 공격梯隊는 공격개시線으로 진출한 다음, 13.00를 期하여 達宮을 목표로 일제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207연대 제1대대(장, 李鍾午경감)는 大成洞일대를 探索한 다음, 영원동으로 진격하고 제2대대(장, 姜元淳경감)는 △1,048 일대를 搜索하였는데 18.00에 내령里에서 敵 100명과 遭遇하여 격돌하였다. 그러나 窮地에 몰린 그들은 △1,043로 退却하여 頑强하게 저항하므로 대대는 突擊戰을 감행하여 19.00에 이 高地를 점령하자 敵은 達宮方面으로 潰退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三和里를 거쳐 20.00에 無名高地를 接敵없이 점령하고 제5대대(장, 鄭嘉煥경감)는 대점里 일대를 搜索한 다음 그 東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점령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 하였다.

이때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澤周경감)와 鷄林부대(장, 徐泰翰경감)는 馬川에 집결, 待機하였다.

10월 16일 : 제207연대 제1대대는 영원능에서 03.00에 機動하여 △1,337—△1,586—△1,502일대를 搜索하고 08.00에 盤若峯을 점령한 다음 達宮 東쪽 稜線으로부터 盤若峯에 이르는 사이에 병력을 配置함으로써 敵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同연대 제2대대는 전날 22.30에 팔랑峠에서 敵의 奇襲을 받았으나 3시간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격퇴하고 이날 07.00에는 世傑山 일대를 搜索한 끝에 09.30에 그 頂上과 △1,125

를 각각 점령함으로써 計劃된 進出線을 확보 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右側方에서 공격중인 제5대대와 협조하면서 達宮을 목표로 진격하였는데 無名高地에서 50명의 共匪로부터 奇襲사격을 받았으나 곧 이를 一蹴하고 계속 진격하였다.

제5대대는 06.20에 無名高地에서 50명의 共匪를 발견하고 공격을 감행하여 큰 打擊을 주었는데 敵은 포위망을 뚫고 達宮쪽으로 潰走하므로 대대는 계속 追擊하였다.

馬川에 집결 待機중이던 제200연대 제2대대는 제207연대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敵을 포착키 위하여 10.30에 機動하였는데 영원寺를 거쳐 21.00에는 영원陵으로 進出하였다.

이때 鷄林부대는 德頭山 일대를 搜索하였다.

10월 17일 : 未明에 達宮을 兩翼으로 包圍하고 공격을 감행한 제207연대는 제3, 제5 兩대대는 外廓陣地에서 頑强하게 저항하는 南部군단 主力을 격파하고 09.00에 達宮을 점령하였다. 敵은 老姑塏으로 潰退하였으며 제3, 제5 兩대대는 四周防禦陣地를 급편하여 逆襲에 對備하는 한편 부근일대를 搜索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는데 掩體壕 7개소를 파괴하고 多數의 양곡을 鹵獲하였다.

이로써 제3, 제5 兩대대는 麗·順反亂事件 以來, 최초로 達宮을 완전히 수복하는 榮譽를 차지하였다.

한편 동연대 제1대대는 전날에 이어 盤若寺부근의 稜線을 확보하고 敵의 退路를 차단하였는데, 22.00에 達宮에서 潰走한 李鉉相의 親衛隊인 「나팔부대」 소속의 100명을 포착하고 밤새도록 激戰을 계속 하였다. 이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敵은 다음날 06.00에 俗稱 밤새골로 潰退하므로 이를 계속 追擊하였다.

同연대 제2대대는 전날에 이어 世傑山을 계속 확보하면서 主攻梯隊인 제3, 제5 兩대대의 右側方을 掩護하였다.

이때 제200연대 제2대대는 제207연대 제3, 제5 兩대대를 後續하여 탐색을 계속하면서 진격하였는데 연정里부근에 이르렀을 때 잠복중이던 敵의 사격을 받아 激戰을 계속하였으며, 鷄林부대는 德頭山 일대를 수색하고 13.00에는 그 頂上을 점적없이 점령하였다.

10월 18일 :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전날에 達宮을 奪取하고 그 東北쪽의 無名高地를 확보하였는데 100명으로 推定되는 共匪가 그 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挑戰하므로 이를 공격하여 2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격퇴하였다. 한편 제5대대(장, 鄭喬煥경감)는 09.00부터 達宮 西쪽의 無名高地 일대를 수색하였는데 12.00에 100명의 共匪를 포착하고 퇴로를 차단한 다음 16.00까지 포위망을 壓縮하면서 계속 공격하였다.

敵은 타격을 받고 潰走하므로 대대는 이를 계속 追擊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負傷者를 山內지서로 후송코자 일부병력을 機動시켰는데 20.00에 達宮東北쪽 無名高地에 이르렀을 때 매복중인 共匪의 奇襲사격을 받았으나 즉각 應戰하여 이를

격퇴하고 負傷者를 후송하였다.

한편 同연대 제1대대(장, 李鍾午경감)는 老姑檀부근의 無名高地에 병력을 配備하고 敵의 퇴로를 차단하였는데 22.30에 南部군단의 主力共匪 300명이 대대正面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대는 敵을 至近距離까지 誘引한 다음, 全火力을 집중함으로써 彼我間에는 3시간에 걸친 熾烈한 攻防戰이 展開되었는데 敵의 공세가 猪突的이어서 대대는 △1,337로 逐次로 轉進하게 되었다.

同연대 제2대대(장, 姜元淳경감)는 전날에 이어 世傑山일대를 수색하였는데 09.00에 無名高地에서 共匪 50명을 포착하고 포위공격하였으나 그들이 우거진 숲속으로 潰走하므로 이를 계속 追擊하였다.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深周경감)는 이때 三和里를 출발하여 11.30에 반서里로 進擊하였을 때 散發的인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격파하고 15.00에는 △800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이 △1,315로 潰退하므로 이를 계속 追擊하였다.

한편 鷄林부대는 11.30에 德頭山에 대한 수색을 끝마치고 馬川으로 轉進하여 제200연대 제5중대와 합류한 다음, 백소嶺—老姑壇에 이르는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達宮포위망을 벗어나는 敵에 대비하였다.

10월 19일 : 제207연대 제1대대는 전날 南部군단의 主力과의 激戰끝에 △1,337로 轉進하였는데 이날 04.00를 期하여 敵이 占據한 無名高地를 포위 공격하였다.

敵은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나 대대의 突擊으로 06.00에 潰退함으로써 대대는 無名高地(達宮 東쪽 6km)를 再奪還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敵의 최강主力부대와 決戰을 감행하여 치명적인 打擊을 주었으나 대대도 많은 손실을 보았다.

한편 敵의 主力이 無名高地(達宮 東南쪽 5km)에 집결중임을 확인한 李成雨경무관은 작전지시 제3호로써 제207연대의 제3, 제5 兩대대와 제200연대의 제2대대로 하여금 포위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207연대 제3대대는 無名高地로부터 영원寺에 이르는 포위망을 壓縮하였는데 13.00에 無名高地에서 頑强하게 저항하는 120명의 共匪를 포위하고 다섯차례에 걸쳐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유리한 地形을 이용한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環峯으로 轉進하였다. 그런데 敵은 23.30에 도리어 대대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彼我間에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었으나 과감한 近接戰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한편 同연대 제5대대는 이날 21.00에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주변일대의 接近路에 매복하였으며 제200연대 제2대대로 같은 시각에 無名高地로 追擊하여 포위망을 形成하였다.

이때 鷄林부대와 제200연대 제5중대는 敵이 智異山 天皇峯과 細石쪽으로 탈출하기 위한 突破口로 예상되는 백소嶺 일대를 차단하고 제207연대 제2대대는 世傑山에서 23.00에 共

匪 20명을 포착하고 이를 포위 격멸하였다.

10월 20일 : 太營司 작전지시 제3호에 의거하여 無名高地(達宮 東南쪽 5km)를 포위공격한 제207연대 제3, 제5 兩대대와 제200연대 제2대대는 이날 「밤새골」 일대를 포위하고 搜索을 계속 하였다.

한편 同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鷄林부대도 각각 전날의 陣地에서 매복과 搜索을 계속 하였다.

10월 21일 : 이날 일부병력은 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의 명령에 따라서 再配置하였다.

즉 제207연대 제3대대는 環峯으로 이동하고 동연대 제5대대는 山內지서를 거쳐 12,30에 雲峯으로 이동 집결하였으며 제200연대 제2대대로 山內 東面지서를 거쳐 24.00에 雲峯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207연대 제2대대는 世傑山에서 同연대 제1대대는 達宮부근의 無名高地에서, 그리고 鷄林부대는 백소嶺에서 각각 전날에 이어 搜索과 매복을 계속 하였다.

10월 22일 : 전날 環峯으로 轉進한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이날 陣地工事를 하고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澤周경감)는 雲峯으로부터 다시 高基里로 진출하였다.

한편 제207연대 제5대대는 雲峯에서, 同연대 제1대대는 達宮부근의 無名高地에서, 그리고 제2대대는 世傑山에서 각각 搜索과 매복을 계속 하고 鷄林부대는 백소嶺을 확보 하였다.

10월 23일 : 이날 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은 前方指揮所를 馬川에서 環峯으로 推進하였다.

그런데 23.30에 이르러, 여자 共匪를 앞세우고 共產黨노래를 부르는 200명규모의 共匪가 環峯 東쪽과 東北쪽으로부터 일제히 攻襲하였다.

이에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相基경감)는 敵을 至近距離까지 접근시킨 다음, 全火力을 집중함과 동시에 일부 병력으로 逆襲을 감행하였는데 계속적인 打擊을 받은 敵은 다음날 01.30에 巨林쪽으로 潰走하였다.

이때 同연대 제5대대(장, 鄭喜煥경감)와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澤周경감)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環峯으로 急據增援하였으나 敵이 潰退하자 이를 追擊하여 제1萬福臺, 제2萬福臺에 이르는 부근에서 搜索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207연대 제1대대(장, 李鐘午경감)는 와운里에서 잠복중이 있었는데 22.00에 70명의 敵을 捕捉하고 熾烈한 射擊戰을 벌였다. 이때 敵은 행峠방면으로 潰退하자 일부 병력이 이를 追擊하였으며 同연대 제2대대(장, 姜元淳경감)는 전날에 이어 世傑山에서 搜索과 매복을 계속하였다.

또한 백소嶺일대를 차단한 鷄林부대는 숲을 헤치면서 접근하는 70명의 共匪를 포착하고 제207연대 제1대대와의 協同으로 이를 포위공격 하였으나 敵이 행峠쪽으로 潰走하자 60mm 追擊砲사격을 加하여 제207연대 제1대대의 追擊을 掩護하였다.

그런데 뒷날 사로잡은 共匪의 陳述에 의하면 『행峠로 潰退중이던 共匪의 거의 전부가

鷄林부대의 迫擊砲사격으로 射殺되었는데 그 屍體는 埋葬하였으며, 전투경찰 부대가 環峯에 前進據點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達宮일대에 크게 위협을 받은 共匪는 巨林부근으로 潰退하였다』고 하였다.

10월 24일~26일 : 제207연대 隷下 4개대대와 제200연대 제2대대 그리고 鷄林부대는 부대를 정비하는 일방, 각 戰術責任地域內에서 매복과 수색을 계속하였다.

10월 27일 : 이날 太白山地區 경찰전투대는 작전임무를 智異山地區 경찰전투부대(사령관, 辛相默경무관)와 육군 제5010부대에 引繼하고 17.00에 咸陽에 집결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이때 鷄林부대(장, 徐泰翰경감)는 智警司에 배속과 동시에 백소嶺에서 차단임무를 계속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太警司 隷下 경찰전투부대의 공격과 捜索으로 큰 타격을 받은 共匪主力은 掠奪한 양곡마저 鹵獲됨으로써 앞으로는 越冬을 위한 소위 보급투쟁에 罷頓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李成雨경무관은 秋收保護作戰을 전개키로 결심하고 작전참모 金億淳경감으로 하여금 작전계획을 수립케 하는 동시에 각 전투대대는 特殊훈련에 着手케 하였다.

한편 陸軍 西南地區전투사령관 金容培준장은 國防部長官을 대리하여 10월 28일에 咸陽농업학교 교정에서 達宮攻略戰의 戰功者 25명에 대한 武功勳章을 授與하였다.

南原에서는 達宮攻略을 축하하는 全北 道民大會가 열렸고 李承晩대통령은 뒷날에 達宮攻略의 戰功을 높이 찬양하고 部隊表彰과 동시에 李成雨경무관에게 太極武功勳章을 授與하였다.

達宮攻略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223명	戰死		8명
捕虜		5명	戰傷		25명
鹵獲	小銃	25정	失踪		2명
	輕기관총	1정	亡失	小銃	6정
	手榴彈	38발			
	實彈	1,320발			

§ 參戰者의 證言

◇ 제207연대 제3대대장 宋根基경감

達宮攻略은 처절한 攻防戰이었다. 敵의 戰鬪力도 결코 무시할수 없을 程度였는데 대원들의 果敢한 공격정신이 성과를 거둔 原動力이었다고 본다.

특히 憤한 것은 죽은 共匪들의 시체를 埋葬한 곳을 찾지 못하여 전과를 擴大하지 못한 일이다

◇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澤周경감

險峻한 山岳의 우거진 숲속에서 敵과 遭遇할 때는 敵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곤 하였는데 우리 隊員도 용감하였지만 敵의 戰鬪力도 대단하였다. 作戰期間중에는 맡은 바 임무에만 열중하여서 미처 몰랐는데 대통령의 부대表彰을 받고 勳章이 授與될때 達宮攻略의 중요성을 再認識하였다.

◇ 太白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 정보참모 韓千洙총경

俗離山에서 39회에 걸친 接戰끝에 사로 잡은 李鉉相의 전속부관 方俊杓의 秘密등을 洗腦하여 얻어진 諜報를 기초로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운 작전참모 金億淳경감의 노력과 一線 전투대원들의 왕성한 공격정신의 대가로 얻어진 戰勝記錄이다. 이것은 太警司의 자랑이요, 경찰의 名譽로서는 만족스러우나 李鉉相을 사로 잡지못

한 것이 매우 섭섭하다.

◇ 合同通信社 南原特派員 朴容基記者

記者로서는 처음으로 후방의 共匪擊滅작전중인 전투경찰의 전투상황을 環峰의 前方지휘소와 그 주변陣地에서 직접 取材하였다. 險峻한 山岳의 咫尺을 헤아릴 수 없는 우거진 숲속에서 共匪와 싸우는 現實을 보고 경찰전만을 取材하던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標高 1,200m~1,400m의 高地에서 밤새도록 暴風雨를 맞아 가면서 싸우는 전투경찰은 防寒服 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環峰에 도착한 날은 女子共匪가 아우성 치는 가운데 야간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경찰은 敵이 근접할 때까지 沈默을 지키다가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여 激戰이 벌어 졌다. 彼我의 銃砲소리는 천지를 震動하고 불꽃튀는 듯한 曳光彈의 교차는 아름다운 야경을 이루었다.

共匪擊滅은 그 나름으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전투경찰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가를 똑똑히 보았다.

마. 回文山附近 戰鬪(10. 20)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智異山地區 경찰전투 사령관				보아라부대	장	경위	文順默
	경무관	辛	相默	배속부대			
제203연대	장 총경	趙	石元	淳昌경찰서 전투대	장		
제205연대	장 총경	金	源湧		경감	崔	鎭龍
			敵	軍			
全北道黨委員會	장	方	俊杓	외팔이부대	장	文	南昊
抗美연대	장	吳	永寬	淳昌郡黨			

(2) 전투 전의 개황

方俊杓가 지휘하는 全南道黨은 回文山의 地勢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双峙—福興—龜材등 淳昌郡內의 未收復地區를 占據하고 공공건물, 절간, 민가등을 強占하여 共匪로 하여금 영농케하는 一方, 양민들로부터 現物稅를 強徵하였다. 또한 이들은 인민학교 군사훈련소 淳昌인민위원회등을 설치하고 그 蠻行의 범위를 넓혀 湖南平野와 七寶발전소까지 장악코자 劃策하였다.

이에 智異山地區 전투경찰 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은 顧問官 Spring 소령을 帶同하고 美 空軍 群山基地사령관과 협의하여 기갑부대의 지원을 확약받은 다음 收復작전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智異山地區 경찰전투사령관 辛相默경무관은 美 기갑부대의 지원下에 回文山地區의 共匪를 일격에 擊滅하고 治安을 회복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智警司는 美 기갑부대의 지원下에 回文山의 共匪를 격멸하려 한다.

② 美 기갑부대의 裝甲車 20대는 回文山일대를 威力搜索하고 제203, 제205 兩연대의 공격을 지원할 것이다.

③ 제203 제205 兩연대는 回文山 主峯을 목표로 포위 공격하라.

④ 보아라부대는 예비대로서 다음 명령을 待機하라.

⑤ 淳昌경찰대는 공격의 進展과 동시에 行政機關을 진출케 하여 奪還地域을 收復토록하라.

⑥ 일시는 51.10.20.05.00』

(ㄴ) 작전 실시

10월 20일 : 이날 05.00를 期하여 공격 梯隊인 제203, 제205 兩연대는 回文山을 포위공격하였으며 美 기갑부대는 戰車의 先導下에 20대의 裝甲車가 雙峙—福興—龜城을 逐次로 석권하면서 回文山一帶에 砲擊을 집중하였다.

이때에 500명의 共匪는 山頂부근에 있는 據點에서 집요하게 저항하여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群山의 美 空軍基地에서 출격한 戰爆機 1개편대의 熾烈한 對地攻擊으로 德裕山으로 潰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 시간은 11.00이었다.

이에 제203, 제205 兩연대는 보아라부대(장, 文順默경위)의 지원下에 敵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追擊戰을 전개하여 큰 타격을 주고 21.00에 일단 作戰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敵性地域을 완전히 收復하게 되니 共匪로부터 苦楚를 겪어 온 주민들은 실로 16개월만에 自由大韓의 품에 돌아 오기에 이르렀다.

(4) 전투 후의 개황

이 戰鬪의 다음 날 淳昌農高校庭에서는 수복축하 郡民大會가 성대하게 擧行되었는데, 이 戰鬪에서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65명
捕虜		20명
投降		31명
鹵獲	小銃	19정
	實彈	1,500발

損	失
戰死	3명
戰傷	10명

§ 參戰者의 證言

제203연대장 趙石元총경

回文山부근전투는 共匪의 殘存과 활동을 크게 위협하게 되고 敵이 德裕山으로 潰退하기에 이른 것은 그들의 실망이 漸次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智異山地區 경찰전투사령부의 전투 記錄이 없어져서 각부대 및 戰友들의 戰功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 한다.

바. 三壯—矢川附近 戰鬪(11. 1~11. 3)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太白山地區 경찰전투사령관	제3대대 장 경 감 宋 相 基
경무관 李 成 雨	제5대대 장 경 감 鄭 壽 煥
제207연대 장 총 경 文 鶴 東	제200연대제2대대장 경 감 黃 澤 周
제1대대 장 경 감 李 鐘 午	鷄林부대 장 경 감 徐 泰 翰
제2대대 장 경 감 姜 元 淳	배속부대

山淸경찰서 장 경 감 朴 又 範

			敵		軍		
인민유격군 南半部총사령관		李 鉉 相		제81사단	장	金 興 福
南部군단	장	金 明 坤		제92사단	장	金 在 漣
제57사단	장	李 永 檜				

(2) 전투 전의 개황

太醫司의 攻略으로 遠宮에서 巨林부근으로 潰退한 南部군단 主力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越冬用食糧확보를 山淸郡內의 미수복지구인 三壯面과 矢川面일대에서의 보급투쟁으로 解決코자 하고 있음이 경찰諜報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에 太醫司는 遠宮攻略後에 이어 三壯—矢川 일대를 수복하여 敵의 糧道를 遮斷하고 아울러 秋收를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 계획

太醫司 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은 三壯—矢川地區를 수복하여 경작면적 1,227,550坪의 추수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지대로 運搬함으로써 共匪의 糧道를 차단하는 한편 敵을 分散시켜 이를 격멸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太醫司는 三壯—矢川 일대의 敵을 격멸하고 추수를 보호하려 하다.

② 제207연대는 三壯—矢川 일대 제200연대(제2대대 배속)는 三壯—矢川 일대를 공격하라.

③ 山淸경찰서 전투대는 공격의 進展과 동시에 行政機關의 수복을 담당하고 義勇경찰로 하여금 機動路경비를 담당케 하라.

④ 鷄林부대는 巨林을 공격하라.

⑤ D일 H시는 11.1.05.00이다』

(ㄴ) 작전 실시

11월 1일 : 이날 05.00를 期하여 제207연대는 三壯을 목표로 공격을 開始하였다.

즉, 同연대 제1, 제2 兩대대는 丹城으로부터 三壯에 이르는 單一道路의 兩側을 따라 散發的인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進擊하고 제3, 제5 兩대대는 대원寺일대의 敵을 포위공격하여 擊滅한 다음 三壯 東北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三壯을 포위한 연대는 文鷄東총경의 陣頭指揮下에 집요하게 저항하는 敵을 격멸하고 15,00에 三壯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제1, 제2 兩대대를 後續하여 三壯에 進駐한 제200연대 제2대대(장, 黃澤周경감)는 敵이 巨林쪽으로 潰退하자 이를 추격하였다.

이때 山淸경찰대의 협조下에 三壯으로 진출한 面사무소와 支署요원은 三壯점령과 동시에 각각 行政機能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鷄林부대(장, 徐泰翰경감)는 백소嶺으로부터 細石 일대를 搜索한 다음 巨林을 포위공격

하고 각중대는 進出線에서 매복하였다.

11월 2일 : 제3, 제5 兩대대는 三壯面일대의 추수보호를 위하여 주변高地에 據點을 확보하는 한편 搜索을 계속 하였으며 제1, 제2 兩대대는 제200연대 제2대대의 지원下에 07.00를 期하여 矢川面일대를 포위하고 搜索하였으며 16.00에 矢川을 완전 奪還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지서와 面사무소요원은 山淸경찰대의 협조下에 矢川으로 진출하여 行政機能을 발휘하였다.

이때 鷄林부대는 전날에 이어 晩秋의 우거진 숲속을 헤치면서 巨林일대를 搜索하였다.

11월 3일 : 이날 10.00에 연대장 文鶴東총경은 山淸경찰서장 朴又範경감과 協調하여 民匪分離로서 三壯—矢川의 주민중 15세이상 40세에 이르는 靑壯年으로써 부락自衛隊를 편성하여 전투경찰의 지휘下에 指定된 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三壯面은 365명으로 1개대대를, 矢川面은 525명으로 2개대대를 각각 편성하였다.

山淸경찰서는 通匪分子의 摘發을 위하여 民衆組織에 착수하고 太警司의 宣撫工作隊(장, 朴泰俊경위)는 三壯—矢川 양면에 대하여 反共歌劇도 실시 하였다.

이때 제3, 제5 兩대대는 三壯에서, 제1, 제2 兩대대와 제200연대 제2대대는 矢川일대에서 부근 高地에 대한 搜索을 전개하는 한편 面民과 협동하여 秋收作業에 拍車를 加하였다.

한편 鷄林부대는 전날에 이어 巨林일대를 거듭 搜索하여 三壯—矢川에 대한 逆襲을 劃策할 것으로 예상되는 敵의 集結을 방해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三壯과 矢川 그리고 巨林에서 마저 물러선 南部군단은 太警司隷下경찰대와의 접촉을 忌避하여 盤若峰—熊石峯—黃梅山으로 分散潰退함으로써 太警司의 三壯—矢川에 대한 平定을 一段落짓게 되었다.

太警司隷下 제207연대는 山淸경찰서와의 협조下에 추수작업과 脫穀을 서둘러 山淸郡 丹城으로 운반 보관하여 共匪의 보급투쟁에 대비하고 주민의 生計를 保障케 하였다.

이와 같이 平定과 추수작업이 一段落되자 사령관 李成雨경무관은 제200연대 제2대대와 鷄林부대로 하여금 계속 三壯—矢川일대에 殘留하여 敵의 侵襲에 對處케 하는 한편 제207연대는 다음 작전을 위하여 11월 5일에 山淸에 집결토록 하였다.

이 戰鬪기간중에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아지트破壞	78개소
射殺	102명	損失	
捕虜	16명	戰死	7명
投降	280명	負傷	16명
小銃	127정		

§ 參戰者의 證言

◇ 제200연대 제2대대 S—3 金永式경위

智異山부근의 穀倉인 三壯—矢川 兩面面에 대한 平定作戰은 敵의 糧道를 완전히 차단한 痛快한 것이었다.

11월 5일에 제207연대가 철수한 다음에도 絶糧狀態에 빠진 敵은 三壯—矢川에 계속 夜襲을 劃策하였으나 우리대대의 勇戰으로 격퇴하였는데 이때 捕虜 또는 投降한 共匪들이 밥을 달라고 哀願하고 그 복장들이 襤褸한 것이어서 그들의 궁지에 몰린 現狀을 짐작 할수 있었다.

사. 慶北道黨 擊滅戰(11. 13~11. 14)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奉化경찰서 장	경감 朴 鐘 燮	勞動黨 慶南道黨

(2) 전투 전의 개황

慶北道黨의 殘黨인 16명의 共匪는 盈德郡 明東山에 據點을 두고 英陽郡 日月山(△1,218)에 潛侵한 다음 各郡黨을 再組織코자 暗躍하는 한편 후방治安을 교란하였다.

이에 奉化경찰서 査察형사대는 이 敵을 격멸키 위하여 諜報工作을 펴고 있었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11월 13일 : 奉化경찰서 北谷 出張所의 경찰대 1개분대는 日月山부근의 共匪豫想接近路에 매복하였는데 24.00에 접근하는 共匪 3명을 捕捉하자 곧 射擊을 집중하여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 잡았다. 이 共匪의 진술에 따라서 日月山속의 共匪據點을 확인하게 되자, 奉化경찰서는 이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11월 14일 : 경찰서장 朴鐘燮경감이 陣頭指揮하는 奉化경찰서 전투대는 15.00에 日月山으로 진출하여 敵의 秘密據點을 포위하고 수류탄을 일제히 投擲하였다.

완전히 포위된 敵은 執拗하게 저항하여 3시간에 걸쳐 激戰이 전개되었으나 경찰대의 과감한 공격으로 殲滅되기에 이르렀다.

(4) 전투 후의 개황

慶北道黨이 殲滅됨으로써 奉化郡黨을 비롯하여 各郡黨을 再建하려던 共匪의 企圖는 水泡化되었을 것이다.

陸軍 太白山地區 戰鬪司令官 金益烈대령은 國防部長官을 대리하여 11월 16일에 奉化경찰서의 有功경찰관 11명에게 武功勳章을 授與하였다.

이 戰鬪에서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으며 損失은 전혀 없었다.

戰 果		
射殺		14명
捕虜		2명
鹵獲	小銃	13挺

附　　錄

1. 作命·作指·訓令
2. 年　　表
3. 戰歿者 名單
4. 索　　引

1. 作命·作指·訓令

부록 제1호

1951. 9. 2. 18.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訓令 제197호

一. 軍은 1951년 9월 5일 00.01附로 "軍" 後方地域 및 "軍" 基地地域을 설정한다.

1. 軍 基地지역은 개략 新岱里(BRk8842)~公州(CR 3335)~報恩(CR 8638)~成昌DR 2742)~安東(DR 7646)~盈德(ER 3329)을 連하는 일반선의 南方지역으로 한정한다.

2. 軍 後方지역은 軍區後方 경계선의 南方에서 前記 1項에서 限定한 軍 基地지역의 北側경계선에 이르는 지역으로 限定한다.

二. 軍은 1951년 9월 5일 00.01附로 「서울, 永登浦, 仁川」지역과 「群山」지역 「大邱」지역 및 「釜山」지역을 제외한 軍 후방지역 및 軍 基地 지역의 경비를 담당한다.

1. 「서울·永登浦·仁川」지역은

西海岸(BS 9354) 지점으로부터 東으로(CS 0956)~北으로(CS 1065)~東北으로(CS 1670)~東北으로(CS 2472)~東南으로(CS 3560)에 이르러 漢江을 따라(CS 2153)~西南으로(CS 1046), 西南으로 西海岸(CS 0040)을 連하는 線以內로 한다.

2. 群山지역은

西海岸(BQ 9090) 지점에서 東으로(CQ 0060)~南으로(CQ 0080) 西南으로 西海岸(BQ 8575)을 連하는 線以內로한다.

3. 大邱지역은

(DQ 6165) 지점으로부터東으로(DQ 6665)~北으로(DQ 6672) 西로(DQ 6172) 南으로(DQ 6165)을連하는 線 以內로 한다.

4. 釜山지역은

西海岸(EP 1291) 지점으로부터 北方으로 水營江을 따라 (EP 1096) 지점에 이르러 西로(EP 0895)~(EP 0395) 西로 洛東江岸(EP 0395)에서 南方으로 洛東江을 따라 南海岸에 이르는 線以內로 한다.

三. 1.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은

現 담당중의 管內경비 및 殘匪掃蕩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治安局 비상경비사령관은

現 담당중의 管內경비 및 殘匪소탕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3. 제8경비대대는 1951년 9월 5일 00.01附로 제2兵站관구사령관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本隊 지휘하에 복귀한다.

제8경비대대장은

(1) 현재 2個소대 병력으로서 담당중의 永川彈藥廠(DQ 9479) 경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현 대대 殘餘主力(大隊本部및本部中隊)으로서 담당중의 K—2비행장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4. 제11경비대대는 1952년 9월 5일 00.01附로 제2병참관구사령관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本隊 지휘하에 복귀한다.

제11경비대대장은

(1) 현재 담당중의 K~9(EP 1391), K~1(DP 9591), K~10(DP 7190), 3개 비행장에 계속 각각 1個중대 병력을 사용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라.

(2) 현재 담당중의 제1병기정비기지(EP 0491) 및 제335兵器廠(EP 1490)에 계속 각각 2개 소대 병력을 사용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라.

5. (1) 제8.11경비대대장의 임무수행상 兵力被派遣隊長과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2) 제8.11경비대대장은 매일 4회(08.00. 12.00, 18.00, 24.00) 상황보고를 실시하라.

6. 제6경비대대장은 현 담당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7. 제2경비대대장은 현 담당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陸軍總參謀長 육군 소장 李 鍾 贊

부록 제2호

1951. 9. 8. 12.00

陸本 作戰指示 제88호

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은

1. 제110聯隊(缺1개대대)를 1951년 9월 13일 12.00까지 晋州(DP 1794)부근으로 移動시키라.
2. 목적지 到着과 동시에 配屬解除하여 陸本直轄로 한다.
3. 輸送에 要하는 車輛은 陸本에 신청하라.

二. 제110연대(缺1個大隊)는 別名 有할시까지 晋州((DP 1794)附近의 警備를 實施하라.

부록 제3호

1951. 9. 8. 18.00

陸本 作戰指示 제89호

一. 1951년 9월 1일 00.01附로 제99포병대대(155粍榴彈砲)를 陸本 直轄로부터 포병사령관에 배속한다

二. 포병사령관은 1951년 9월 15일 24.00까지 現 위치 洪川(DS 0373) 부근에서 제99포병대대의 編成 及 장비를 완료토록 하라.

三. 1951년 9월 16일 00.01附로 제99砲兵대대를 現 위치 洪川(DS 0373) 부근에서 砲兵사령관 배속으로 부터 解除하여 同日同時附로 美 제10군단에 배속한다.

부록 제4호

1951. 9. 11. 20.00

陸本 訓令 제198호

陸本 訓令 제196호(1951년 8월 28일 00.01附)中 兵力 보고의 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을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記

통신망 이용

(1) 병력 보고의 전보 송달 순위는 "우선"으로 한다.

但 同一한 송달 순위의 전보중에서 병력보고 전보는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2) 병력보고의 전보문은 간략을 期하기 위하여 전시용 略號를 제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병력보고의 전화통화는 제3순위 "보통전화"로 취급한다. 但 통화시간 10분 이내로 한다(陸軍會報 제166호 1951년 5월 30일 참조)

부록 제5호

1951. 9. 15. 18.00

陸本 作戰指示 제90호

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은

1. 제3경비대대 제1중대를 遲滯없이 現 위치 金井(DS 8301)으로부터 1951년 9월 19일 24.00까지 서울(CS 2055)로 移動시키라.

2. 前記 제1중대는 목적지 도착과 同時에 原隊復歸하는 동시 제2兵站管區 사령관에 배속한다.

3. 이동에 所要되는 차량은 陸本에 신청하라.

二. 제3경비대대 제1중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同時 서울지구 사령관에 報告하라.

부록 제6호

1951. 9. 15. 24.00

陸本 作戰指示 제91호

一. 軍은 西南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西南地區 一帶에서 蠢動하는 敵 유격대及 殘匪를 捕捉擊滅하여 該地區의 치안을 확보하려함. 戰鬪地境一별지 작전 透明圖참조(附錄一)

二. 1. 治安局 비상경비 總사령관은

(1) 1951년 9월 20일 12.00附로 智異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 및 전투경찰 제203부대 及 戰鬪警察 제205부대와 전투경찰 제207부대(제2대대)를 각각 現 위치에서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에 배속하라.

(2) 변경된 擔當 지역내에서 遊擊하는 殘匪를 早速히 捕捉擊滅하라.

2. 제5군단장은

1951년 9월 20일 12.00附 예하 제107聯隊及 제106師團을 각각 現 위치에서 西南地區 戰鬪사령관에 作戰上 배속하라.

3. 제1경비대대(제1.3중대)를 1951년 9월 20일 12.00附로 現위치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西南地區 전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4. 제2경비대대를 1951년 9월 20일 12.00附로 現 위치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西南地區 전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5.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은

(1) 遲滯없이 사령부를 南原(CQ 5319) 부근에 편성 설치하여 1951년 9월 20일 12.00부터 임무수행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라.

(2) 1951년 9월 20일 12.00附로 제110聯隊(1個대대)를 現 위치에서 作戰上 統合 지휘하라.

(3) 1951년 9월 20일 12.00附로 배속되 각 부대를 統合 지휘하라.

(4) 擔當地域內의 主補給路, 주요시설, 通信線의 경비 및 遊擊隊와 殘匪를 조속한 時日內 捕捉 격멸하여 치안을 확보하라.

(陸軍本部에서 目下實施중에 있는 大田, 光州間 통신선 건설작업의 경비에 關하여 관계 작업부대장과 打合 緊急 措處하라). (作業隊본부—大田 宣化國民學校建物內 제71통신가설대대 제2중대)

(5) 제1경비대대 제2.4중대 第2警備대대는 現 임무를 계속 遂行하라.

(6) 1951년 9월 30일까지 討伐계획서를 陸本에 제출하라.

三. 1. 각 關係官間의 협의를 爲한 직접 通信을 許可한다.

2. 각 관계관은 西南地區 戰鬪사령부에 배속된 부대의 兵力, 裝備(統砲, 車輛, 通信機材) 현황을 상세히 把握하여 9월 30일까지 陸本에 제출하라.

3. 通信機材는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通信TO/E 결정時까지 배속부대의 現 裝備 보유품을 적극 활용하고 陸本과 전투사령부間의 通信網 구성에 關하여서는 通信監과 협의하라.

부록 제7호

1951. 9. 16. 17.00

陸本 訓令 제199호

地雷戰法에 關한件

近間 Kansas 線上의 방어축성공사 강화를 위하여 전술적 견지에서 다수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바 교육 불충분에 起因하여 一線 보병부대가 지뢰에 誤觸되어 本意아닌 사상자를 발생하고 있음.

此는 지뢰를 매설한 本意에 甚히 배반되는 일임. 특히 일선 각급 지휘관은 末端사병에 이르기까지 지뢰에 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동시에 지뢰지대에 대한 정보를 悉知하고 있어야 한다. 지뢰사고의 미연 방지와 아울러 부하 교육 자료로서 아래에 수항을 例記하니 銘骨常念하여 지뢰전법운용에 만전을 期할 것을 요망한다.

記

A. 사단 지뢰지대

(1) 사단 지뢰지대는 방어할 필요 있는 광대한 지역을 방어할 목적에 사용한다.

그것은 敵의 공격조직을 격파하여 맹열한 포격권내에 敵을 捕捉하여 그 행동을 원만케하며 또한 敵 병력을 살상할 목적에 사용된다. 또한 사단 지뢰지역은 천연의 地形地物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사단 지뢰지역은 지형에 의하여 표준양식을 응용하여 敷設한다.

(2) 사단 또는 상부 사령관은 防塞組織을 (BARRIER SYSTEM)의 概略的 지역과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및 부비트럽등의 사용에 관한 방침을 세기하여야 한다. 사단 공병참모는 지뢰원을 부설할 정확한 위치와 또한 同樣인 障碍物부설에 따른 관계있는 지휘관과 합과 결정하는 것이다.

사단지뢰 매설의 임무는 공병부대가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부대의 助力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3) 사단 지뢰지대는 아래에 例記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a) 부대의 半靜止 상태와 공격이 중지된 경우

(b) 퇴각하고 있는 아군의 후방에 구축되는 防塞組織의 일부로서

(c) 敵 낙하산부대에 대한 조직적 방어에

(d) 해안지대의 조직적인 방어의 일부로서 對水陸兩地雷지대 및 해안지뢰지대를 포함하는 해안방어에 해안 및 對水陸兩用 지뢰지대는 보통 併用되고 있지만 각자는 분담된 사명을 가지고 있다.

B. 被雷방지책

(1) 지뢰지대에 대한 확실한 표식(특히 夜間)

(a) 後方 및 側方표식을 必히 할것

(b) 수색대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표식

(c) 主陣地(지뢰지대) 前方에 我軍이 진출되어 있을시에는 必히 지뢰지대에 전방표식을 할것이며 진출 병력철수시에는 此표식도 제거할것.

(d) 지뢰지대에 관하여 上級或은 관계부대에 下記에 對하여 상세히 보고 및 연락을 할것

㉮ 위치 및 표식의 형태

㉯ 통로의 위치 및 표식의 형태

(e) 전투 정면교대 또는 변경된 사항이 有할 時에는 지뢰지대에 관하여 상세히 인계할것(지뢰망도의 인계와 현지 설명)

(f) 近間 보병부대에서 임의로 수류탄 또는 박격포탄등을 이용하여 부대정면에 부비트랩 장치를 하고 있으나 如斯한 폭발장치가 필요할 시에는 관계 공병에게 요청할 것이며 엄히 其실시를 통제할것.

부록 제8호

1951. 9. 19. 12.00

陸本 作戰指示 제92호

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은

(1) 예하 경찰 1個大隊를 즉시 金泉(DQ 2198)에 이동하여 제207부대 제2대대와 交代케하라.

(2) 교대 완료와 同時 제207부대 제2대대를 金泉(DQ 2198) 부근으로부터 陜川(DQ 2435)에 이동시키라.

同 대대는 陜川(DR2435) 도착과 동시에 原 소속으로 복귀한다.

(3) 제200부대 제2대대를 DR 0105부근으로부터 宜寧(DQ 3308)부근에 이동시키라.

同 대대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1)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은 前記 제200부대 제2대대와 제207부대 제2대대를 목적지 到着과 동시에 統合指揮하라.

三. (1)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은 제207부대 제2대대와 交代케 할 부대를 즉시 陸本에 報告하라.

(2) 이동에 要하는 차량은 陸本에 신청하라.

부록 제9호

1951. 9. 25 19.50

陸本 作戰指示 제93호

一. 治安局長은

(1) 1951년 10월 7일 24.00까지 예하 警察兵力 250명을 仁川(BS 9545)으로 이동케 하라.

(2) 上記 병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 美 제2兵站管區사령관에게 배속한다.

(3) 이동後는 仁川—서울間 送油管 警備에 任한다.

二. 相互 직접 통신을 許可한다.

부록 제10호

1951. 9. 25. 12.00

陸本 作戰指示 제94호

一. 西南지구 戰闘사령관은

1951년 9월 26일 12.00附로 제106사단及 제107聯隊를 배속 解除하여 原隊復歸시키라.

부록 제11호

1951. 9. 29 17.00

陸本 作戰指示 제95호

一. 獨立砲兵 제81포대及 제82砲隊는

1.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포병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포병사령관은

1. 獨立砲兵 제81포대及 제82포대를 綜合 지휘하라.
2. 목적지 도착 時日을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12호

1951. 10. 3 12.00

陸本 作戰指示 제97호

一. 1951년 9월 30일 13.00附로 제7사단은 現地에서 美 제10군단장 지휘로부터 解除되어 本官지휘하에 복귀된다.

二. 제7사단장은

1. 1951년 9월 18일附 陸本 교육지시 제86호附錄 제1號의 條項에 의거하여 1951년 10월1일 08.00부터 사단 재정비를 실시하라.
2. 1951년 9월 18일附 陸本 교육지시 제86호에 의거하여 1951년 10월 8일 08.00부터 野戰훈련통제부의 직접 지휘감독하에 사단 재교육을 實施하라.
훈련은 陸本으로부터 通告가 有한후 48시간이내에 사단이 戰闘에 참가할 수 있는 態勢下에서 실시하라.

三. 後方支援은 1951년 6월 13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19호수정 제1호~18호에 의거하여 支援한다.

부록 제13호

1951. 10. 4 12.00

陸本 作戰指示 제96호

一. 非常警備 總사령관은

1. 釜山(EP 0588)으로부터 永登浦(CS 1455)間의 "록덴" 통신선(國際地下 케이블)의 警備를 擔當

하라. (附錄 제1호 참조)
2. 경비병력을 충분히 差出하여 該線의 破壞或은 盜難을 防止하라.
3. 實行 보고는 陸本에 提出하라.

부록 제14호

1951. 10. 7 15.00

陸本 訓令 제200호

江岸防禦진지 공사강화에 관하여
자연 장애물을 이용하는 방어구축물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시적절한 보수를 加하여야함.
각 사단은 "칸사스"線 의 방어선상 湖水 河川등 천연장애물을 이용하는 진지의 築城공사는 必히 結氷前에 완료할 것이며 특히 湖水河川등의 凍結로 因한 지리적 요소 및 전술적가치의 변화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旣成陣地의 補修或은 改修를 急速히 완료하라.

부록 제15호

1951. 10. 7.18.00

陸本 作戰指示 제98호

一. 제51전차 중대장은
1. 1951년 10월 14일 08.00까지 船舶에 乘船 完了할수 있도록 人員 및 장비를 自隊수송기관을 利用하여 東萊(EP 0715)부근 現 위치로부터 釜山(EP 0588)부근으로 이동하라.
2. 1951년 10월 15일 08.00까지 목적지 東草里(DT 6528)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3.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4. 목적지 도착시는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二. 陸軍 步兵學校長은
1. 1951년 10월 5일 00.00附로 제52戰車中隊를 통합지휘하라.
2. 陸軍本部 命令이 有할 時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라.

부록 제16호

1951. 10. 12 09.00

陸本 作戰指示 제99호

太白山지구 戰鬪사령관은
一. 제9경비대대를 10월 12일 延豊(DR 1168)으로부터 10월 15일 馬山里(CQ 3198)에 이동시키라.
二. 全 대대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陸本 直轄로 한다.
三. 輸送上 要하는 차량은 陸本에 신청하라.
제9경비 대대장은
一. 馬山里(CQ 3198)에 도착과 동시 警備任務에 關하여 제2훈련소장과 협조하라.
二. 제2훈련소 工事施設及 論山邊補給所 論山驛~馬山間 主 補給路 경비를 담당하라.
三. 목적지 도착 時日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17호

1951. 10. 12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00호

제9사단은
1951년 10월 15일 부로 현지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解除하여 美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18호

1951. 10. 13 12.00

陸本 訓令 제201호

空地協同作戰

一. 序文

此는 地上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如何히하면 공중지원 목표에 대한 공중공격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제인식시키는데 있다.

즉 공중지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또는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공중지원계통 및 책임분야를 명확히 검토 파악하는데 있다. 공중공격의 최대의 효과를 획득함에는 지상관측자, 前方공지연락원 및 항공기에 탑승한 대지연락원간의 유기적이며 광범위한 협조가 능률화할 수 있도록 숙달되는데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각자는 그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임무이며

1. 공중공격을 요청한 후에 前線(진지의 前線 或은 공격부대의 제1선)을 표지하는 대공布板이 정확하게 呈示되어 있는가.
2. 관측자 空地연락원 및 항공기간의 연락이 적절히 취하여져 있는가.
3. 표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4. 목표지정의 결과를 空地연락반(TACD)에게 확실히 전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급 지휘관은 이상 論述한 바 특히 空地협동에 대한 지상부대지휘관의 임무의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이하 각 부문의 직책을 파악하여 空地연락 및 협조에 있어서 적절한 운용을 기하라.

記

一. 空地연락반

空地연락반이란 視號통신(Visval Method)등을 사용함으로서 지상군진지 전방에 대한 空中공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성된 반이며 其職能은 如左하다.

1. 아군진지 前方 목표에 대한 항공기의 공중공격을 유도한다.
2. 항공기(정찰)로부터 정보를 入手하여 지상부대에게 연락한다.
3. 공중작전에 관한 전술적 의견을 지상부대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말한다.

二. 공지연락반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된 공중지원 출격수 통신기관의 유용성 및 전술적 상황의 변화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現 전장에 있어서 空地연락반이 포병통신망내에서 연락원을 이용하였을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例로서 포병사격지휘소(FDC)에서 大隊或은 연대의 연락장교를 사용하였을 때이다.

포병통신망내에서 空地연락반이 작전함으로서 前方 空地연락원(FAC)는 담당지역내의 모든 前方

포병관측자의 관측을 임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상공격부대 지휘관과 연락할 수 있는 까닭이다.

三. 對地연락원(항공기)

1. 대지연락원은 과거의 지상공지연락원으로서 공지연락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가 하게 된다.
對地연락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지상부대를 직접지원하기 위하여 공중공격을 지시 或은 유도하며 또 下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空地연락반으로부터 목표에 관한 정보를 入手하여 공중공격 목표를 선정한다.
나. 폭격선내의 특수한 도로 및 지역을 정찰함과 동시에 목표를 선정 항공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책임지역내의 모든 적의 위치, 활동상황, 집결지 중요시설의 배치, 이동상황등을 정찰하여 공지연락반이나 사단 포병연락장교에게 연락한다.
라. 공중공격의 결과를 공지연락반 및 사단 포병연락장교에게 연락한다.

2. 대지연락원은 高周波무전기와 SCR 300무전기를 保有하고 있다. 前者는 前方 공지연락반과 통신하기 위하여 항시 통신할 수 있도록 調節되어 있다.
對地연락원(항공기)과 지상군 지휘관과의 통신이 필요할時는 SCR 300(조정되어 있지않은)이 사용되며 공지연락반을 통하여 對地연락원을 호출하여야 한다. 호출시는 地上軍 지휘관의 통신계통 호출부호 및 위치등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대지연락원(관측기)은 책임지역내 全 전술적 목표 및 기타 관측사항을 그 관계 空地연락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空地연락반은 사단작전처의 허가된 계통을 통하여 合同작전본부에 공중지원을 요구한다. 他계통을 통한 공중지원 요청은 정상적인 계통기관이 이용 불가능할 時에만 허가되어 있다.

四. 목표선정 및 지정

폭격선과 我軍진지간에 위치하고 있는 空中 공격목표는 공격전에 공격기에게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前方 空地연락원은 지상부대와 협의하여 下記 방법中의 하나 或은 몇가지 통합한 방법을 통하여 공격기에게 목표를 明示하여야 한다.

가. 大縮尺圖 或은 모형도상의 좌표를 이용.
나. 비행사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근 지상목표물.
다. 有色煙幕彈의 이용.
라. 夜間에는 각종 조명탄으로서 목표물을 조명한다.
마. 가능하면 방향표시 전파기(Radiobeam) 및 항공표식기를 사용한다.
바. 조종사가 정확한 방향을 취할 수 있도록 공중공격을 조정한다.
사. 공격기를 목표로 유도하는 지대지연락원과 연락할 時는 순차로 전기 방법중의 한가지或은 몇가지를 사용한다. 대지연락원은 가능하면 煙幕을 로켓트탄을 사용하여 目標를 명시한다.
아. 有色 對空布板을 使用하여 공격기를 목표로 유도하고 我方진지를 명시한다.
자. 有色 煙幕留彈의 사용.
차. 박격포, 무반동포, 전차포의 白燐彈의 사용.

附錄「實例」 아래와 같음.

附錄

空地작전의 긴밀한 협조와 숙달은 무의미한 人命의 피해를 방지하고 有效적인 對敵 空中공격을 加할 수 있는 것이나 往往 空地間의 착오 및 空地 연락의 미숙한 관계로 예기치 않은 人的 物的 피해를 보는 例 不少하며 최근의 실례로서

1. 1951년 10월 3일 我 제1군단 首都사단 正面(DT 469 560) 지점에서 友軍機가 我軍砲진지를 誤認 기총소사를 加하여 戰死 8명 負傷 3명의 人的 피해를 보았으며
2. 我 제5사단 正面에서는 수일전에 수송기 4대가 敵陣을 友軍陣地로 誤認하여 방어진지 구축용 철조망 300卷을 敵陣에 투하한 사실이 있으며
3. 1951년 10월 15일 我 首都사단 기갑연대가 月飛山(DT 394743) 공격시 우군기가 誤爆하여 전사 7명 부상 28명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有함.

如斯한 例는 각 지구전선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불상사이며 기상의 不順 或은 기술면의 차오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이 空地間의 협조 불충분에 기인하는 것임.

부록 제19호

1951. 10. 13 24.00

陸本 作戰指示 제101호

一. 1951년 10월 18일 00.00附로 제98砲兵大隊(155粍榴彈砲)를 陸本 直轄로부터 砲兵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砲兵사령관은 1951년 10월 21일 24.00까지 富坪里(CS 4278) 부근에서 제9포병대대의 編成 장비를 完了토록 하라.

三. 1951년 10월 22일 00.00附로 제9砲兵대대를 砲兵사령관으로 부터 解除하여 美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20호

1951. 10. 14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02호

一. 제5군단장은

1. 1951년 10월 15일 00.00附로 예하 제107及 117聯隊를 각각 現 위치에서 西南지구 戰鬪사령관에게 배속하라.

二. 西南지구 戰鬪사령관은

1. 1951년 10월 15일 00.00附로 제107, 117聯隊의 軍敎育 기본방침에 의한 교육실시에 만전을 期하라.

부록 제21호

1951. 10. 17 10.00

陸本 作戰指示 제103호

一. 步兵 제5사단은 襄陽(DT 6614) 부근 훈련지 도착과 동시 美 제10軍團長 배속으로부터 解除되어 本官 지휘하에 복귀한다.

二. 步兵 제5사단장은

1. 1951년 10월 23일 08.00를 期하여 1951년 9월 18일附 陸軍本部 訓練覺書 제86호附錄 제1에 의하여 사단 再 정비를 실시하라.
2. 1951년 10월 29일 08.00부터 제2野戰訓練統制部의 지도 감독하에 1951년 9월 18일附 陸本訓練

覺書 제86호에 의한 사단 再 훈련을 개시하라.

훈련은 陸本 指示가 있은後 48시간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下에서 실시하라.

三. 前方 지원은 陸本 행정명령 제19호(1951년 6월 13일附) 수정 행정지시 제1호—제20호에 의하여 지원한다.

2. 목적지 도착 즉시 도착 日時를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22호

1951. 10. 23.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04호

一. 1951년 11월 1일 00.01附로 제97포병대대(155mm榴彈砲)를 陸本 直轄로부터 포병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포병사령관은 1951년 11월 4일 24.00까지 新浦里(CT 1090)부근에서 제97포병대대의 편성 및 장비를 完了하라.

三. 1951년 11월 5일 00.01附로 제97포병대대를 포병사령관으로부터 배속을 解除하여 美 제9군단장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23호

1951. 10. 24 08.00

陸本 作戰指示 제105호

一. 軍은 교육總監府 및 보병, 포병, 통신 각 학교를 現 위치에서 光州(CP 1091)로 이동하려함.

二. 교육총감 및 각 학교장은

1. 先發隊를 급속히 釜山—六邱—大田을 경유 光州(1部 本浦)에 이동케 하라.

2. 光州에 도착 즉시 대표자(KMAG 오리어 소령)와 협의하여 부대수용을 爲한 諸般準備를 실시케하라.

3. 本浦에서는 後發隊(主力)及 수송관과 협의코 積荷作業 및 移動作業에 적극 협조케 하라.

三. 後發隊(主力)의 이동은 下記에 의하라.

1. 步兵학교 및 교육總監府는

가. 1951년 10월 27일 釜山港에서 승선하라.

2. 포병학교는

가. 1951년 11월 3일 鎭海(DP 6989)에서 승선하라.

3. 통신학교는

가. 1951년 11월 2일 釜山港에서 승선하라.

4. 교육총감부 및 각 학교는

가. 港口까지의 이동은 각 학교의 이동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라.

나. 수송감실 釜山分室長 은 本浦軍事鐵道수송관과 긴밀히 연락하라.

四. 교육총감 및 각 학교장은 後發隊의 釜山 鎭海出發 및 光州도착 日時를 報告하라.

五. 細部는 別紙 행정사항에 의거하라.

別紙

보병, 통신, 학교 이동에 따르는 輸送事項 및 이동후의 後方 지원서항은 下記와 같음.

記

補給

A. (1) 각 학교소유 탄약은 일체 지원 탄약보급소에 반납후 이동할 것.

(2) 3일분의 糧穀을 携帶할 것.

B. (1) 兵站

施設名	運營部隊
松汀里驛邊補給所	

(2) 兵器搪當부대 제1020보급중대 派遣隊

제16兵器輕整備중대

光州彈藥보급소(1951. 10. 30 開設)光州

(3) 醫務搪當부대

제77육군병원 分院

(4) 通信

松汀里 通信野戰 창고

(5) 工兵

제1701施設관리소 派遣隊

二. 後送 및 의료

施設名

제2陸軍 병원 分院

三. 수송

보병학교장, 포병학교장 및 통신학교장은 수송감실 釜山分室長 및 木浦 軍事철도수송관과 긴밀히 連絡下, 下記 수송계획에 의거 光州지구로 이동할 것.

A. 보병학교 및 교육총감부

(1) 東萊—釜山 間

a. 추럭 26臺가 이동지원함.

(2) 釜山—木浦間(船舶)

a. 第1차…1951년 10월 27일 장비—切 出發(선박 1乃至 2隻)

b. 제2차…1951년 10월 27일 병력출발(船舶 2隻)

(3) 木浦—松汀里間

a. 장비 一切는 自隊에서 수송할 事

b. 병력은 鐵道로서 한다.

ㄱ. 有蓋車 70輛이 10월 28일까지 木浦驛 構內에 準備되어 있음.

ㄴ. 열차편성은 2個 및 3個열차로 한다.

ㄷ. 전차수송용으로 無蓋車 5輛 貨物車 30輛이 준비됨.

(4) 수용 소요시간

a. 釜山—木浦間 約 25시간

b. 木浦—松汀里間 約 4시간 30분

B. 포병학교 통신학교間

(1) 釜山—鎭海—木浦間(船舶 4隻)

통신학교는 11월 3일 釜山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병력장비 一切를 2일까지 乘船시킬 것.

(2) 포병학교는 1951년 11월 3일 통신학교가 乘船하고 있는 船舶 및 別途借出되는 선박으로서 출발함.

(3) 木浦—光州間

a. 군수품 장비 一切는 自隊輸送

b. 병력은 철도수송

ㄱ. 有蓋車 50輛이 11월 4일까지 준비됨.

ㄴ. 열차편성은 1個열차

(4) 수송 소요시간

a. 鎭海—木浦間 約 20시간

b. 木浦—光州間 約 5시간

四. 勤務

(1) 部隊名	위치
1. 제16병기輕裝備中隊	光州
2. 제91통신수리중대	釜山
3. 1701공병시설관리소 파견대	

五. 이동에 소요되는 梱包費는 財務監에 신청하라.

부록 제24호

1951. 11. 11. 12.00

陸本 訓令 제202호 修正 제1호

陸本 訓令 제202호(1951년 11월 1일 12.00附) 인사관계 제2항 포로취급에 관하여 下記와 如히 追加한다.

記

3. 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취급될 포로나 유격대원으로 취급될 포로를 不問하고 일체 제네바 협정에 의한 인도주의적 대우를 하여야 한다.

부록 제25호

1951. 11. 11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06호

一. 西南지구 戰鬪사령관은

(1) 예하 경찰 제203부대의 1個중대 병력을 論木里(CP 5785)로부터 仁川(BS 9248)으로 이동시키라.

(2) 목적지 도착과 동시 西南지구 戰鬪사령관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美 兵站管區 사령관에게 배속된다.

(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제21港灣사령관에게 申告케 하라.

(4) 수송에 要하는 차량은 陸本에 신청하라.

부록 제26호

1951. 11. 15 15.00

陸本 作戰指示 제107호

一. 제5사단장
1. 예하 1개연대를 1951년 11월 16일 12.00附로 現 位置에서 韓國 제1군단에 배속하라.
2. 배속 완료 즉시 陸本에 보고하라.

二. 首都사단장
1. 사단 主力(砲兵대대)은 束草里(DT 6429)에 도착과 동시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되어 陸本 直轄로 된다.
2. 束草里 도착시각을 遲滯없이 陸本에 보고하라.
3. 束草里 부근에서 LST와 차량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4. 其他는 後達한다.

부록 제27호

1951. 11. 16

陸本 作戰計劃 제26호

軍隊구분

白野戰 전투사령부 陸軍소장 白善燁
首都사단
제 8사단
제1102野戰工兵團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陸軍준장 金容培
太白山지구전투사령부 陸軍대령 金益烈
제200戰鬪경찰부대
제 5경비대대
제 6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제 3경비대대 제2중대
국립경찰 치안국장 李益興
제8경비대대 육군소령 朴敏坤
제9경비대대 육군소령 車東俊
제2경비대대 육군중령 徐廷學

一. 가. 부록 1. 情報
나. 美 제8軍은 현 임무를 계속함.
다. 현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임.

二. 가. 軍은 白戰鬪부대를 사용하여 공산유격대를 격멸하고 그 물질과 보급품을 破壞하려함.
D일 H시는 後達함.
나. 부록 2 作戰透明圖 參照
다. 戰鬪地境

(1)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변경無
(2)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변경 無
(3) 국립경찰 변경 無

가. 白野戰 戰鬪사령부

(1) 全州(CQ 3365)부근에 사령부를 설치하라.
(2) 현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지역내의 책임을 담당하라.
(3)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와 首都사단은 麗水(CP 8545)에, 8사단은 大田(CR 6021)에 각각 도착과 동시에 통환지휘하라.
(4) D일 H시 공격하여 下記 단계에 따라 공산유격대를 격멸하고 물질 및 보급품을 破壞하라.
(a) 제1期 작전은 공산유격대의 강력한 거점인 智異山 지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全 부대로서 적접적이고 협조된 공격을 실시한다. 此期 작전은 12월 10일에 완료되어야 한다.
(b) 제2期 작전은 2個의 別個 작전이나 동시에 실시한다.
1個 부대는 全羅北道內의 강력한 共匪據點에 대하여 사용되며 他 1個부대는 慶尙南北道內의 강력한 공비거점에 對하여 사용된다.
이 작전은 1951년 12월 30일에 완료되어야 한다.
(c) 제3期 작전은 제1期 및 제2期 작전지역내의 철저하고 완전한 討伐을 실시한다. 지휘관은 지방 諸 官廳과 협조 할 것이나 法과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3期 작전은 1952년 1월 10일에 완료 되어야 한다.
(d) 제4기 작전에 있어서는 殘餘부대로서 유격대의 침법한 他 지역에서 잔비의 섬멸을구체화 한다. 이 단계의 계획은 陸軍本部에 1952년 1월 1일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부대는 南韓의 如何한 지방에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或은 제3군 지휘하에 前線에 복귀하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e) 각기 작전의 계획은 적어도 실시 3일전에 陸軍本部에 제출하라.
(5) 지역내의 통신연락선 및 긴급한 시설을 확보유지 하라.
(6)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예하부대의 統轄사간을 陸本에 보고하라.

나.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現 지역의 책임을 免하고 白戰鬪부대의 지휘를 받으라.

다.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1) 현 임무를 계속하라.
(2) 공비의 동북방으로의 도피로, 특히 尙州—豊基 및 尙州—忠州道路를 봉쇄하라.
(3) 別命時 24시간내로 白戰鬪부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
(4) 지역내의 共匪를 격멸하는데 附加하여 使用할 부대를 준비하라.

라. 치안국장

(1) 현 임무를 계속하라.
(2) 北方으로의 共匪 逃避路 특히 大田—全州—忠州線 및 江景—天安의 도피로를 阻止하라.
(3) 別命時 24시간내로 白戰鬪부대를 支援할 준비를 하라.
(4) 지역내의 共匪를 격멸하기 위하여 附加 이용할 부대를 준비하라.

마. 제8경비대대

현 임무를 계속하라.

바. 제9경비대대

현 임무를 계속하라.

사. 제11경비대대

현 임무를 계속하라.

아. 제1102야전공병단

野戰전투사령관의 命에 따라 전투부대를 지원하라.

(1) 제104野戰공병대대—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2) 제106야전공병대대—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3) 제504철교중대—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4) 제602경장비중대—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5) 제1302前方보급소를 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6) 제802정비중대의 1개 소대—제1102야전공병단에 배속함.

협조지시

(1) 작전지역내의 민간인의 행동 및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도가 취하여져야 한다

(2) 계획은 상세히 또한 극비밀리에 실시되어야 한다.

(3) 공산유격대는 확실히 그 위치를 알아야 하며 이를 고립시켜 각개 격파한다.

(4)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강력한 기동타격부대를 신속히 사용함과 동시에 분산된 敵 집단으로부터 소수의 공비가 도주함을 방지키 위하여 충분히 縱深있게 阻止부대를 사용하여 打擊部隊를 원조한다.

(5) 기동타격부대는 각 고립된 지역내의 敵 複廓陣地 或은 긴요한 시설을 포위하여 潰滅하도록 사용되어야하며 敵의 主集團을 擊滅 或은 捕捉하여야 한다.

(6) 각 지역의 敵 저항의 中核이 潰滅되면 打擊部隊는 迅速히 他 지역으로 이동하여 敵을 기습하도록 하며 그 위력과 기동력을 가장 有利하게 이용하도록한다.

(7) 각 작전에 있어서 縱深깊이 공비가 도피할 수 있는 모든 자연 접근로에 阻止부대가 사용되어야 한다.

掃蕩部隊는 殘留하고 있는 敵을 소탕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격부대를 신속히 追隨하며 또 공비의 再起를 防止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四. 행정명령

五. 가. 통신작전규정(別途下達함)

나. 韓國陸軍 大邱(DQ 6470)

(2) 白戰鬪部隊 (始初) 全州(CQ 3365)

(3) 西南地區전투사령부 南原(CQ 5318)

(4) 太白山지구전투사령부 榮州(CR 6875)

(5) 국립경찰 大邱(DQ 6470)

(6) 제8경비대대 大邱(DQ 6470)

(7) 제9경비대대 馬山里(CQ 3198)

(8) 제11경비대대 金海(DP 9298)

부록 제28호

1951. 11. 16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08호

一. 제7사단장

1. 예하 제5연대를 1951년 11월 16일 12.00附로 現地에서 美 제10군단에 배속하라.

2. 사단 주력(1個연대)은 1951년 11월 18일 12.00附로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제10군단에 배속한다.

二. 제8사단장

1. 사단 主力(포병대, 제21연대)은 春川(CS 8893) 附近에 도착과 동시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되고 陸本直轄로 한다.
2. 제21연대는 春川 (CS 8893) 부근에 도착과 동시 美 제9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되고 陸本 直轄로 한다.
3. 도착시각을 遲滯없이 陸本에 보고하라.
4. 도착 즉시로 春川(CS 8893) 부근으로부터 鐵道 或은 자동차편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
5. 其他 指示는 後述한다.

三. 제3사단장

1. 사단 主力은 竹里(DT 1214) 부근 훈련장소에 도착과 동시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하고 陸本 直轄로 한다.
2. 도착시각을 遲滯없이 보고하라.
3. 1951년 9월 18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86호에 의거하여 野戰훈련통제부 직접 감독하에 예정 교육을 完了하기 위한 소요 준비를 實施하라.
4. 後方지원은 1951년 10월 30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20호(修正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實施한다.

부록 제29호

1951. 11. 20. 18.00

陸本 作戰指示 제109호

一. 제8사단장은 예하 1개연대 병력을 철도 및 自隊수송기관을 利用하여 春川(CS 8863)으로부터 南原(CQ 5419)에 이동하라.

가. 自隊수송기관으로서 이동될 장비 및 필요한 警戒 人員을 南原에 11월 28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하라.

經路는 春川(CS 8893)—原州(DS 0734)—淸州(CR 6654)—大田(CR) 5921)—全州(CQ 3364)—南原(CQ 5419)

나. 人員은 鐵道로서 南原에 11월 28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移動하라.

二. 예하 1個연대 병력을 철도 및 自隊수송기관에 의하여 春川(CS 8893)으로부터 金泉(DQ 2298)에 이동하라.

가. 自隊수송기관으로 이동될 장비 및 필요 경계 인원을 金泉(DQ 2298)에 11월 28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하라.

經路는 春川(CS 8893)~原州(DS 0734)~淸州(CR 6654)~大田(CR 521)~金泉(DQ 2298)

나. 人員은 철도로서 金泉(DQ 2298)에 11월 28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三. 사단사령부 및 사단直轄隊를 철도 및 自隊수송기관으로서 春川(CS 8893)으로부터 全州(CQ 3364)로 이동하라.

가. 自隊수송기관으로 이동될 장비 및 필요한 警戒 人員을 全州(CQ 3364)에 11월 28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하라.

經路는 春川(CS 8895)~原州(DS 0734)~淸州(CR 6654)~大田(CR 5921)~全州(CQ 3364)

나. 人員은 철도로서 全州(CQ 3364)에 11월 28일 晝間에 이동하도록 하라.

四. 예하 1個聯隊 병력을 철도 및 自隊수송기관으로서 春川(CS 8893)으로부터 全州(CQ 3364)에 이동하라.

가. 白隊 수송기관으로 이동될 장비 및 필요한 경계 인원을 全州(CQ 3364)에 11월 29일 12.00以前에 도착하도록 하라.

나. 인원은 철도로서 全州(CQ 3364)에 11월 29일 12.00以前에 이동하도록 하라.

五. 이동의 우선권은 下記와 같다.

가. 南原(CQ 5419)에 向하는 연대

나. 金泉에 向하는 연대

다. 全州에 向하는 사단사령부 및 사단 直轄隊

라. 全州에 向하는 聯隊

六. 사단 공병대대의 重장비는 4個의 無蓋貨車로서 南原(CQ 5419)에 11월 30일 晝間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七. 車輛 이동에 關하여 左記 사항을 제425교통관리단에게 통보하라.

가. 各 자동차梯團의 出發시간

나. 各 자동차梯團의 자동차 數

다. 사용될 도로

라. 목적지

八. 각 부대의 출발시간, 이동운행사항 및 도착시각을 迅速한 方法으로 遲滯없이 보고하라.

九. 5일분 식량 및 기본 탄약 수량을 携帶하라.

十. 철도수송에 있어서 각 부대인원은 80명에 對하여 1개 화차, 공병대의 重裝備에 對하여는 4個의 無蓋貨車가 配當된다.

十一. 목적지 도착과 동시 제8사단은 陸本 直轄로부터 白野戰 戰鬪사령부에 配屬한다.

陸本 作戰指示 제109호

附錄 제1호

鐵道 輸送 計劃表

제8사단

부대	열차	출발			도착		
		時	日	停車場	時	日	停車場
1개 연대	1	11월	26일	春川	11월	28일	南原
	2	11월	26일	〃	11월	28일	南原
1개 연대	3	11월	27일	〃	11월	28일	金泉
	4	11월	27일	〃	11월	28일	金泉
사령부 및 直轄隊	5	11월	27일	〃	11월	28일	金泉
	6	11월	27일	〃	11월	28일	金泉
1개 연대	7	11월	28일	〃	11월	29일	金泉
	8	11월	28일	〃	11월	29일	金泉
工兵隊 重裝備	9	11월	28일	〃	11월	30일	南原

註記 ×는 15個 貨車로 連結되어 있는 열차임.

××는 14個 有蓋貨車로 連結되어 있으며 4個화차는 사단공병대대에 의하여 이용될 것임.

부록 제30호

1951. 11. 20. 18.00

陸本 作戰指示 제110호

一. 首都사단장은 예하 1개 연대병력을 1951년 11월 26일 黎明을 期하여 束草里(DT 6429)출발 船舶에 의하여 11월 28일 馬山(DP 6195)에 도착하도록 하라.

二. 사단사령부 및 사단直轄隊와 2개 연대병력은 1951년 11월 26일 黎明을 期하여 束草里(DT 6429) 출발 船舶에 의하여 11월 28일 麗水(CP 8445)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三. 늦어도 11월 24일 黎明부터 예하 1개 연대의 수송기관 장비 및 병력은 지정된 선박에 積載를 開始하며 사단사령부, 사단直轄부대 및 2個 연대의 수송기관 및 장비도 積載를 開始하라.

四. 積載의 우선권은 麗水(CP 8445)에 向하는 사단사령부 및 사단직할대와 2個 연대에 있다.

五. 下記를 확인하기 위한 處置를 取하라.

가. 船舶에 음료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每人當 1개以上의 水筒을 携帶하도록 할것.

나. 기본 휴대량의 탄약을 携帶할것.

다. 5일분의 식량을 携帶할것.

라. 全 車輛에는 휘발유를 充滿시켜 積載할것.

六. 목적지 도착과 同時 首都사단은 陸本 直轄로부터 白野戰 戰鬪사령부에 배속된다.

목적지 도착시각을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31호

1951. 11. 21. 24.00

陸本 作戰指示 제111호

一. 제 8 사단

1. 제110 重박격포중대는 1951년 11월 25일까지 春川(CS 8893)에 도착한다. 도착과 동시 제110 重박격포중대는 美 제9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 陸本 直轄로됨과 동시에 次期 作戰을 爲하여 제8사단에 배속한다.

2. 도착시각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32호

1951. 11. 22.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12호

一. 首都師團長

束草里(DT 6429)—麗水(CP 8445)間 海上 수송을 爲하여 下記 陸本 直轄부대를 즉시 현 위치에서 首都사단에 배속한다.

제301철도운용대대 수송중대

제302港灣대대 港灣중대

제10兵器정비중대

同 부대는 後送일시에 陸本 直轄로 복귀한다.

부록 제33호

1951. 11. 23.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12호

一. 1951년 11월 25일 18.00附로 白野戰 戰鬪사령부를 全州(CQ 3365)에 設置한다.

1. 白野戰사령관은 1951년 1월 26일 06.00에 西南지구에 對한 책임을 인수함과 동시 西南地區 전투사령부를 통합 지휘하라.

2. 白野전사령관은 下記 각 부대가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 통합 지휘하라.

(1) 首都사단……麗水(CP 8146)

(2) 제8사단……全州(CQ 5318)

(4) 제1108야전공병대……南原(CQ 5318)

(4) 제225自動車 수송대대과견대……南原(CQ 5318)

제803자동차 수송중대

제804자동차 수송중대

제806자동차 수송중대

제807자동차 수송중대

3. 보고는 下記 요령에 의거하라.

(1) 정보보고는 1951년 11월 16일附 陸本 작전계획 제27호 부록 제7항에 의할것.

(2) 정기작전보고는 下記 기간별로 보고할것

00.01~12.00(電話或은 電文)

12.00~24.00(電話或은 電文)

(3)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 할것.

4. 1951년 11월 16일附 陸本 作戰 計劃 제26호에 關한 D일은 1951년 12월 1일임.

부록 제34호

1951. 11. 25. 12.00

陸本 訓令 제203호

陸軍 통신취급소 例規改正에 의한 통신취급소 운용시정에 관한件

今般 陸軍 통신취급소例規를 새로히 제정하여 來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됨에 수반하여 통신취급소의 운용에 있어서는 相當 是正을 요함으로서 新제정 통신취급소 例規 및 下記 각항을 熟讀 研究하여 此의 실시에 만전을 期하라.

記

一. 통신취급소라함은 다음 부서를 總稱한다.

A. 문서취급소……통신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통신문서류의 접수 발송 송달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함.

B. 암호조……전보문의 암호조립 및 분해에 관한 업무를 분담함.

C. 통신소……종래의 俗稱 수신소 즉 전보송신에 관한 업무를 분담함.

二. 통신취급소의 업무

公用통신문 서류를 소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고 안정하게 신속한 방법으로 송달함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二次 職能을 갖는다.

A. 공용 통신문 서류에 틀림없는가를 조사 판정한다.

B. 가장 정확하고 안정 신속한 송달 방법을 선택한다.

三. 통신취급소에서 취급하는 공용통신문 서류(以下 통신문 서류라 칭함)라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 지정한 장소에 보내는 지휘관의 공무상(직무상)의 의사를 표지한 서류를 말한다.

B. 통신문 서류는 송달방법에 의하여 다음 두가지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에 의하여 송달되는 전보, 傳人에 의하여 전달되는 傳令통신문.

C. 前項의 전보와 傳令통신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서 통신취급소에 취급될 수 있다.

전보문……소정의 전보용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傳令통신문……所定의 문서包낭 또는 封皮(帶紙)로 包裝封緘되어 있어야 한다.

四. 電報 起案

전보 기안자는 다음과 같은 要件을 完備한 전보문을 소정의 전보용지에 의하여 2통을 작성하여 통신취급소에 제출 접수시킨후 1통은 영수증으로 도로 받는다.

A. 지휘관의 공무상 의사를 표시한 통신문이므로 발신인 및 수신인은 지휘관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참모 또는 보좌관의 명의로서는 不可함.

B. 일반 공문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지휘관의 결재가 있어야함.

C. 書體는 楷書로, 송달순위, 암호취급의 구별, 連名 및 解得 通報와 기안자의 署名 및 시간이 明記되어 있어야함.

D. 他 부대에 출장중 전보발신시는 그 부대 지휘관 결재하에 該 부대에서 한다. 이런때에 실지 발신인 또는 수신인을 알리고저 할때 그 전보본문에 포함시킨다.

五. 통신취급소장은 電報송신 사무에 관하여 또는 통신 主管參謀는 통신운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각각 자기명의로 전보를 발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전보를 所報라 稱한다.

六. 전보 접수번호와 전화번호

A. 전보 접수번호는 통신취급소에서 전보접수 順次로 매기는 一連번호로서 통신취급소와 발신인간 및 통신취급소 內部 각 업무분담 部署 상호간에 通行되는 번호이다.

B, B전보번호는 통신사가 전보 送信前에 相對 통신별로 송신할 順次를 매기는 一連번호로서 相對 통신소간에 통용되는 번호이다.

C. 전보 접수 번호의 전보번호는 매일 零時를 期하여 更新된다.

D. 전보 접수 번호는 통신취급 記錄(陸本,양식 900~3)에 전보번호는 통신送受 번호표(陸本 기본양식 (900—1)에 각각 매긴다.

七. 전보의 송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通信士는 下記에 의하여 통신한다)

(1) 전보번호 (2) 送開순위

(3) 접수시간 (4) 發信所의 호출

부호(FM……冠送)

(5) 着信所의 호출부호(TO……冠送)

(6) 참조 발신인(INFO……冠送)

(7) 語數(GR……冠送)

(8) 통신專務文(UU……冠送)

(9) 앞 (TO……冠送) 필요시에 한하여 송신함

(10) 本文(BT……冠送)

(11) 終信부호(BT……要 계속 송신시)

또는 AR……(到呼에 송신할 전보없을 때)

(4)(5)(6)項은 中繼 및 필요시에 限하여 逐信함.

八. 傳令 통신문은 고급 부관실(高級 부관실이 없는 부대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함 以下同)에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所定의 문서를 包囊 또는 封皮로 封緘되어 있어야 한다.

A. 수령부대별로 구분하여 문서 包囊으로 포장함.

但 通數 少數일 경우에는 封皮로 封囊된채 通信취급소에 제출함. 이런것은 통신취급소에서 적절히 문서 包囊 또는 傳令 包囊으로 包裝함.

B. 비밀 취급을 要하는 문서와 非비밀문서를 구분하여 포장함. 함비밀취급을 要하는 문서 包囊에는 朱線 二條를 친 標札를 結付함.

九. 모든 전보 및 傳令통신문 또는 문서 包낭은 그 부대의 고급부관실에 전달함으로 전달 완료한 것으로 看做된다.

十. 발송 또는 도착된 공문서 및 전보를 문서 件명부 또는 문서접수부에 접수 등록하여 관계참모부에 배포하는 것과 같은 사무는 고급부관실의 소관임무이며 此는 통신취급소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취급소의 시설 또는 요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래의 그릇된 통신취급소의 운용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부록 제35호

1951. 11. 28.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14호

一. 1951년 11월 29일 06.00附로 白野戰 戰鬪사령부와 국립경찰간의 戰鬪지경선을 如下히 調整한다.

1. 現 전투地境線上(CR 7505) 지점으로부터 東北方으로(CR 8110) 錦江에서(CR 9317) 446고지를 連하여 忠淸北道 慶尙北道 境界線을 따라 東南方으로 現戰鬪地境線上(DR 1506) 지점에 이르는 선은 白野戰 전투사령부에 속함.

二. 1951년 11월 29일 06.00附로 太白山 전투사령부와 국립경찰간의 전투地境線을 如下히 調整한다.

1. 현 전투지경선상(DR 0033)지점으로부터 忠淸北道, 慶尙北道 경계선을 沿하여 南으로 白野戰 전투사령부와 국립경찰과의 新 戰鬪地境線上(CR 9717)지점에 이르는 線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에 속함.

三. 사령부間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부록 제36호

1951. 11. 30

陸本 訓令 제204호

凍傷 예방에 關한 件

凍傷예방에 관하여는 교육각서 제90호 陸本 人事甲發 제153호 陸本 軍需甲發 제70호, 陸本 政訓甲發 제38호 등으로 수차 指示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初冬期인 최근에 임이 某 부대에서 다수 凍傷者가 발생하였음은 각급 지휘관이 此에 對하여 교육 및 예방 조치에 等閑視한 사실이라 지적아니할 수 없음. 故로 此에 對하여 再次 訓令으로서 嚴達하니 각급 지휘관은 冬期작전에 있어서 凍傷예방에 對한

全 책임을 질 것은 물론 百方手段을 강구하여 凍傷자 발생 全無를 期하라.

一. 동상의 종류와 증상

凍傷의 정도를 一度, 二度 및 三度로 구분한다.

1. 제1도(기후 零下 7~8度時 發生)

피부에 붉은 腫脹이 있으며 처음에는 知覺이 鈍痲해지거나 後에 이르러 熱感 또는 瘙痒感을 일으킨다.

2. 제2도(기후 零下 10~15度時 발생)

보통 제1도에 併發한다. 赤色 또는 暗赤色으로 腫脹한 피부에 豌頭大 및 指頭大의 水泡가 발생한다. 보통 火傷처럼 크지는 않으며 또한 아픔도 甚하지 않다. 水泡가 化膿하면 그 내용이 膿性이되며 周圍가 炎症이 생기여 疼痛이 甚해진다.

제1.2度로부터 漸進하는 수도 있으나 흔히 酷寒에 曝露된 후 처음부터 제3도로서 시작한다. 이것은 특히 寒地 전선장병에 많으며 피부가 壞死하기 때문에 凍傷部는 蒼冷 해진다.

壞死部는 전연 지각이 없으나 건강부와의 사이에 疼痛을 느낀다. 日字가 경과함에 따라 壞死部는 漸次로 蒼白色으로부터 灰白稼色, 黑色을 변하여 脫落한다.

또 潰瘍을 이르켜 오랫동안 苦痛을 주며 甚至於는 絶脚 又는 凍死에 이르게 한다.

二. 凍傷을 발생키 쉬운 조건

1. 脂肪이 많고 피부 혈관이 細少한 者.
2. 피부가 얇은자 및 末梢部의 血液순환이 불충분한자.
3. 영양신경의 긴장이 저하된 자.
4. 飢餓 또는 빈혈상태에 있는 者.
5. 일반적으로 허약한 자 및 회복기 환자

三. 동상예방에 있어서는 下記에 의거하여 실천에 철저를 期하라.

1. 교육

ㄱ.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의 각급 지휘관은 매주 3시간 이상의 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라.

ㄴ. 동상예방에 대한 心得書를 등사하여 必히 全 장병에게 휴대시키라.

ㄷ. 軍醫장교를 수시로 最前方에 파견시켜 凍傷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을 全 장병에 주지시켜라.

2. 被服

ㄱ. 每 개인에 할당 지급된 被服 일체를 지체없이 지급하라.

ㄴ. 降雨降雪로 인한 젖은 被服에 대하여는 百般手段으로 乾燥시켜 착용시켜라.

ㄷ. 防寒靴, 毛양말 防寒手甲등의 예비품을 항시 所持시켜 교환사용시켜라.

ㄹ. 체격에 협소한 被服, 단화등은 末梢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상호교환 착용시켜라.

ㅁ. 凍傷의 대부분이 足部(발가락)이니 솜 또는 고추가루등을 이용하여 足部 保溫을 保持시키라.

3. 給養

ㄱ. 장병에게 항상 溫水, 溫食을 給與시키고 冷食을 엄금하라.

ㄴ. 가능한限 1일 1回 이상「국」을 給與시키라.

ㄷ. 刺戟性 있고 지방질인 조미료와 부식을 다량급여 시키라. (고추가루, 마늘, 김치, 종류)

ㄹ. 步哨근무자의 喫煙을 금지시키라.

담배 한대 피우는데 발가락의 온도가 섭씨 1도가 低下된다.

ㅁ. 항상 입은 운동시키기 위하여「껌」(껌의 代用으로 甘草 또는 메루치 乾燥) 등을 부단히 깨물도록 한다.

ㅂ. 급식에 있어서는 온돌 장치가 된 장소에서 집단 取食케 하라(但 작전에 지장이 없는 限)

4. 보건

ㄱ. 온돌을 高地壕 천막 기타 장병이 근무에 장시간 임하는 곳에 장치하라.

ㄴ.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頻繁한 耐寒運動(특히 手足部)를 勵行시키라.

ㄷ. 근무시간의 공평화와 특히 야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라. 每人으로 하여금 계속 2시간의 야간 立哨는 不可하다.

ㄹ. 寒氣에서 暖氣로 급격히 변화를 주지않도록 마찰(특히 末梢신경)을 하고 徐徐히 暖氣를 取하도록 하라.

四. 동상 환자의 처치를 如下히 하라.

1. 조속한 진단과 처치를 取하여 치료를 要하는 重患者는 단시간내에 후송시키라.

2. 凍傷部位에 손대지 말며 안정시키라.

이상과 如히 동상 예방에 대하여 각급 지휘관의 강력한 교육과 실천이 요구된다.

陸本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관을 편성하여 각 부대에 파견시킬 것임.

現下 방어태세에 처한 기간에 있어서 凍傷환자가 계속 발생시에는 그 원인을 究明하여 만일 其지휘관이 교육 및 감독을 소홀이 하였을時는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

부록 제37호

1951. 11. 30. 20.00

陸本 作戰指示 제115호

一. 此命令 수령과 동시 1951년 11월 16일附 陸本 작전계획 제26호는 1951년 11월 30일附 陸本 작전명령 제270호로서 發效한다.

二. 陸本 作戰명령 제270호의 D일 H시는 1951년 12월 2일 06.00로 한다.

부록 제38호

12951. 1. 6. 12.00

陸本 訓令 제205호

臨戰態勢 強化에 關하여

目下 板門店에서 계속중인 停戰회담은 그 歸趨에 對한 추측으로 장병의 심리적 動搖와 戰力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에 鑑하여 회담당초 陸本 訓令 제193호로 軍의 세부방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회담진보에 따라 今後 명심準據할바를 下에 追加 시달하니 軍 임무 수행에 秋毫의 유감없기를 期하는 동시 全장병에게 철저히 주지 시키라.

一. 정전회담으로 인하여 一線 사병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신훈화 및 훈련으로서 세심 지도하라.

二. 회담 吾不關의 堅確한 태도로서 공세적이고 방어적인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三. 敗驕謀略은 敵의 常套手段임에 항시 국군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의 謀略에 속지 말것이며 敵의 기도를 明察하여 萬若 來襲하면 철저히 이를 破摧하라.

四. 소강상태에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대의 再 정비훈련에 치중하여 전력을 최대한 배양하라.

五. 현실을 直視하고 停戰云云하여 六本을 망각치 마라.

정면의 敵은 不俱戴天之讐임을 명심하고 전투에 있어 더욱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명예를 擧揚하라.

六. 최근 敵機의 도전은 顯著하며 前線 및 後方에 침법할 기세가 농후하니 旣達된 지시에 의거하여 대공방어를 강화하라.

七. 정전회담에 因한 소강상태에 안심하지 말고 急速 長期작전에 대한 제반준비를 갖추라.

八. 凍死傷 或은 敵機에 의한 피해등 직접 간접으로 전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事故에 대하여는 즉시로 정확한 보고를 勵行하라.

부록 제39호

1951. 12. 10

陸本 訓令 제206호

一. 목적

이 訓令의 목적은 교육총감부를 略記하고 교육총감의 책임을 확인하려는데 있다.

二. 임무

光州 陸軍 訓練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지시한다. 또한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장병은 각자의 責務를 有效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확보한다.

三. 책임

교육총감은 下記에 對한 책임이 있다

a. 下記 기능을 제외한 光州 陸軍훈련지역과 그에 駐屯中인 각 부대 및 학교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한다.

b. 陸軍本部의 교육계획 및 명령으로 지시된 교육 목적 및 원칙에 따라 교육 훈련을 감독 및조정한다.

c. 常時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상황 판단을 실시함.

d. 陸軍本部 지시에 따라 其他의 職能을 수행한다.

四. 要求에 따라 교육총감은 陸軍本部에 보고한다.

부록 제40호

1951. 12. 12. 24.00

陸本 作戰指示 제116호

一. 1951년 12월 14일 06.00附로 陸本 直轄 제9경비대대(1個중대)를 현지에서 白野戰 전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2. 1951년 12월 14일 06.00附로 白野戰 전투사령관에게 제2경비대대의 光州지구로부터의 이동 및 任意運用을 許可한다.

二. 가. 白野戰 戰鬪사령관

1. 前記 각 부대를 12월 14일 06.00附로 통합지휘하라.

2. 제2경비대대는 이동에 앞서 이용가능한 부대로서 現 임무를 交代 인수케함과 동시 迅速히 陸本에 보고하라.

3. 교육총감(光州 CP 1191) 제2훈련소장(馬山里 CQ 3198)과의 直接 통신을 허가한다.

나. 제9계비대대장

1. 1951년 12월 14일 06.00附로 1個중대로서 白野戰 戰鬪사령관 지휘하에 入하라.

2. 1個중대를 現地에서 제2훈련소장 지시를 받아 現 임무를 계속케 하라.

다. 治安局長

1. 제2훈련소장과 협의하여 예하 일부 병력으로서 제2훈련소(馬山里 CQ 3198) 부근의 일부 경비를 담당하라.

2. 제2훈련소장과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3. 필요에 따라 白野戰 戰鬪사령관 요구에 응하여 경비 임무를 담당 협조하라.

三. 實行 결과를 遲滯없이 陸本에 보고하라 .

부록 제41호

1951. 12. 18.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17호

一. 作戰 명령 제270호 제2기 作戰에 對한 D일 H시는 1951년 12월 19일 06.00로 한다.

부록 제42호

1951. 12. 28.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18호

一. 포병사령관은 1951년 12월 27일 24.00까지 楊口(DT 1117)부근에서 제96야전포병대대의 편성 및 장비를 완료하라.

二. 1951년 12월 28일附로 제96야전포병대대를 陸本 直轄로부터 美 제10군단에 配屬된다.

부록 제43호

1952. 1. 1.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19호

一. 1. 步兵 제3사단은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제9군단장에게 배속한다. 시간은 後述한다.

2. 보병 제6사단은 楊口(DT 1218)부근 도착과 동시 美 제9군단으로부터 배속 解除되어 本官 지휘하에 복귀한다.

二. 보병 제6사단장

1. 사단이 교육지구(楊口 DT 1218)에 도착과 동시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보고하라.

2. 목적지에 도착翌日부터 1951년 11월 24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92호 부록 제1호에 의거하여 사단 再 경비를 실시하라.

2. 목적지에 도착일+8일부터 야전훈련통제부의 직접 지도감독하에 1951년 11월 24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92호에 의거하여 사단 再 훈련을 실시하라.

4. 陸本 명령이 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出動可能한 태세하에 훈련을 실시하라.

5. 後方지원은 1951년 12월 20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21호 修正 제1호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부록 제44호

1952. 1. 2.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20호

一. 1., 1952년 1월 11일 06.00附로 제5사단(제36연대)을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韓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2. 제11사단(1個연대)은 襄陽(DT 6713)부근 훈련지구에 도착함과 동시 韓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해제 되어 本官 지휘下에 복귀한다.

二. 제11사단장

1. 사단 主力(1개연대)이 목적지 도착翌日부터 1951년 11월 24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92호附錄 제1호에 의거하여 사단 再 정비를 實施하라.

2. 목적지 도착일+8일부터 야전훈련 통제부의 直接 지도 감독下에 1951. 11월 24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92호에 의거하여 사단 再 훈련을 실시하라.

3. 陸本 명령 有할時 48시간 以內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下에서 훈련을 실시하라.

4. 後方지원은 1951년 12월 20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21호 修正 제1호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5. 목적지 도착 시간을 遲滯없이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45호

1952. 1. 5. 12.00

陸本 訓令 제207호

敵은 停戰을 이용하여 병력증강에 광분중이며 특히 항공 세력강화에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음.

新年壁頭 다음 사항에 명심하고 엄연한 滅敵態勢를 一層 강화하여 有事時에 유감없기를 期하라.

1. 現下 敵의 능력은 何時라도 再 공세를 取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2. 次期 敵의 공세가 있다면 強大한 敵의 항공세력이 수반할 것을 예측하고 對空處置에 만전을 期하라.

3.「敵이 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준비가 있음을 믿으라」

부록 제46호

1652. 1. 5.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21호

陸本 작전명령 제270호의 제3기 작전의 D일 H시는 1952년 1월 6일 06.00로 한다.

부록 제47호

1952. 1. 20. 06.00

陸本 作戰命令 제271호

軍隊區分

白野戰사령부 사령관 陸軍중장 白善燁

首都사단

제 8 사단
西南地區 전투사령부
제 2 경비대대
제 9 경비대대(1개중대 缺)
제 1 경비대대 제2 및 4중대
제107예비연대
제110예비연대(제1대대 缺)
제117예비연대
제203경찰연대
제205경찰연대
제207경찰연대
제200경찰연대
제18경찰연대
제36경찰대대
七寶경찰대대
智異山지구 전투경찰사령부
白雅山경찰대대
全南 특공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陸軍대령 金益烈
제200경찰연대(1個대대缺)
제5경비대대
제6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제3경비대대 제2중대
제110예비연대 제1대대

비상경비총사령부 사령관 李益興
제8경비대대 대대장 육군소령 朴在坤
제11경비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徐廷學

1. 가. 부록 제1호(情報)
나. 美 제8군은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함.
다. 戒嚴지구는 現 軍 直轄지구까지 포함하여 擴張함(但 大邱, 釜山除外)

2. 가. 軍은 계속 白야전 전투사령부로써 軍團 後方 戰鬪地境線 南方의 敵 유격대의 掃蕩 및 물자보급의 破壞를 완료하고 제4기 작전에 있어서 敵 유격대의 재편성과 再起할 능력을 분석하려함
제4기 작전의 목표일은 1952년 2월 1일임
나. 戰鬪地境線
(1) 白野戰 戰鬪사령부 : 軍 直轄 지구를 포함함
(2)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 變更 無함
(3) 비상경비총사령부 : 變更 無함
다. D일 H시는 後達함

3. 가. 白野戰 戰鬪사령부는
(1) D일 H시에 現 擔當 지구에 附加하여 軍 直轄 지구에 對한 책임을 인수하라.
(2) 제8사단을 배속 해제하여 철도로 후달할 목적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1952년 2월 1일에 美

제8군 지휘下에 移讓한 준비를 하라.

(3) D일 H시를 期하여 사단 예속 1個 연대로서 雲門山(EQ 0041)지구에 對한 작전을 담당케 하고 특히 智異山(CQ 8511) 白雲山(CQ 7585)地區, 回文山(CQ 3030), 白雅山(CD 3391)지구 포함) 德裕山(CQ 8058) 및 雲長山(CQ 5174) 지구에 유의하면서 지정된 담당지구내의 徹底的인 掃蕩戰을 완료하라.

제4기 작전에 있어서는

(가) 중대병력 이상의 전투부대의 책임지구는 직속 상급부대와 협의 결정하라.

(나) 강력한 기동예비대와 迅速한 통신전술적 첩보기관과 공중감시 및 공중지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다) 敵의 활동과 위치에 대하여 정보를 迅速히 수집 전달하겠금 첩보활동을 집중시키라.

(라) 小 유격대를 固着 섬멸하고 他 지구로의 침투를 방지키 위하여 공격적인 소규모 수색대를 계속 출동시키라.

(마) 명령 有할 時는 유격대 섬멸을 지원키 위하여 隣接管下로 증원부대를 파견시키라.

(4) 命令 有할 時는 1952년 2월 6일頃에 白野戰 戰鬪사령부는 現 작전으로부터 해임될 준비를 하라.

(5) 命令 有할 時 首都사단은 1952년 2월 6일頃에 白野戰 戰鬪사령부의 작전지구와 其 임무를 인수할 준비를 하라.

(6) Rat Killer 작전은 1952년 3월 1일頃에 終結케 하라.

나.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는

(1) 중요 도로지역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殘餘 병력으로서 敵 小 유격대를 섬멸하기 위하여 攻擊的인 소규모 수색대를 계속 출동시키라.

(3) 敵의 再編 및 행동의 再起를 防止하라.

(4) 小유격대를 迅速히 討滅시키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전투부대를 증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다. 非常경비총사령관은

(1) 現 임무를 繼行하라.

(2) 小유격대를 섬멸하기 위하여 最大限度로 攻擊的인 소규모 수색대를 계속 출동시키라.

(3) 敵의 再編 및 행동의 再起를 방지하라.

(4) 小유격대를 迅速히 섬멸하기 위하여 利用가능한 전투부대를 증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 제8 및 제11경비대대는

(1)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명령 有할 時는 白野戰司 或은 首都사단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

(가) 각 사령부는 1952년 1월 24일까지 隨本에 각각 作戰 계획서를 提出하라.

(나) 전술적 정보는 最 迅速한 방법으로 직속 상급부대에 제출할 것이며 특히 유격대 및 敵세포조직 지구 類似隊의 정확한 위치 및 敵 人員과 보급에 관하여 중점을 두라.

(다) 本 작전의 특성은 晝夜間을 통하여 협의된 전투를 계속 수행하는데 있음을 명심하라.

(라) 敵의 火器 및 탄약을 鹵獲 或은 秘匿된 것을 찾아내는데 全 努力을 경주하라.

(마) 全部隊는 極秘裡에 기습을 상세히 計劃하며 공격을 迅速히 수행하라.

(바) 보고 요령은 SOP에 準함

4. 1952년 1월 7일附로 변경된 第1號를 包含한 행정명령 제21호((1951. 12. 20)가 有効하다.

5. 가. 現行 통신규정은 그대로 有効하다.

나. 지휘소

(1) 陸軍本部 : 大邱(DQ 6369)

(2) 白野戰司 : 最初 南原(CQ 5318)

(3) 太戰司 : 最初 榮州(DR 6675)

(4) 非常경비총사령부 : 大邱(DQ 6369)

(5) 제8경비대대 : 大邱(DQ 6369)

(6) 제11경비대대 : 大沙里(DP 9497)

부록 제48호

1952. 1. 25.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22호

一. 白野戰 戰鬪사령관

가. 제8사단(포병대) 및 제110박격포중대를 제1야전정비훈련소(CS 414783)로 철도 및 自隊차량에 依하여 이동시키기 위하여 全州(CQ 3364) 井邑(CQ 0538) 및 陽地里(CQ 4643) 지구에 집결시키라.

이동은 1952년 2월 5일에 개시하여 1952년 2월 9일 24.00以前에 完了하라.

나. 1952년 2월 4일 24.00以前에 集結地에 도착케하라. 이동과 동시에 제8사단은 제1야전정비 훈련소에서의 再 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白野戰 戰鬪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되어 陸本直轄로 한다.

二. 제8사단장

가. 제8사단(포병대) 및 제110追擊砲중대를 1952년 2월 4일 24.00以前에 집결 완료하라. 1952년 2월 9일 24.00에 開始하여 1972년 2월9일 24.00以前에 完了되는 제1야전정비훈련소(CS 441783)로의 철도 및 自隊차량에 의한 이동을 위하여 集結地 도착과 동시附로 本官 지휘下에 入한다. 각 연대 및 주요부대의 목적지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서 陸本에 보고하라.

나. 이동에 관해서는 陸本과 협의하라.

다. 1952년 2월 10일부터는 陸本 교육각서 제92호 附錄 제1호(1951년 11월 24일附)에 의거하여 再 정비 및 再 편성을 개시하라.

라. 再 정비 및 재 편성단계가 완료함과 동시附로 부대는 1951년 11월 24일부 陸本 교육각서 제92호에 의거하여 再 교육을 개시하라.

교육은 야전정비훈련소의 8주간 교육계획에 基礎할 것이나 최초 2주일 경과후에는 何時라도 出動 가능한 태세下에서 실시하라.

마. 後方지원은 議政府 美 제5.6彈藥보급소에서 지급되는 제5種보급품 및 議政府驛設 보급소에서 지급되는 제3種 보급품을 제외하고는 1952년 1월 28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22호에 의거한다.

부록 제49호

1952. 1. 27. 24.00

陸本 作戰指示 제123호

一. 작전명령 제270호의 제3기 작전은 1952년 1월 31일 24.00現在로 終了한다.

二. 작전명령 제271호(1952. 1. 20. 06.00附)의 제4기 作戰의 D일 H시는 1952년 2월 1일 06.00로 한다

부록 제50호

1952. 1. 30.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24호

一. 白野戰 戰鬪사령관

가. 1952년 2월 1일 06.00附로 白野戰 戰鬪사령부 책임지역과 陸本 直轄 지역간의 전투地境線을 下記와 같이 設定한다.

現 戰鬪地境線上 DQ 5363부근 지점으로부터 南으로 洛東江을 沿하여 現 戰鬪地境線上 DQ 5516 지점에서 다시 南으로 主補給路를 通하여 馬山(DP 6295)을 連하는 線임.

發効동시부로 陸本은 此지역에 對한 책임을 인수한다.

나. 1952년 2월 1일頃에 기갑연대(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배속)를 자동차 및 철도편으로(DQ 7827에 이동시키라.

철도수송은 1952년 1월 31일 24.00까지 晋州(DP 1794)驛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기갑연대는 密陽(DQ 7827)에 도착과 동시부로 陸本 直轄로 한다.

二. 기갑연대장

가. 증강된 기갑연대는 密陽(DQ 7827)에 도착과 동시附로 本官이 지휘한다.

목적지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나. 密陽(DQ 7827)에 도착後에 可能한 限 早速한 시간에 熊門山(EQ 0041)지구(大邱—釜山)에서 掃蕩作戰을 실시하라.

此작전은 1952년 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작전 계획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제출하라.

다. (1) 每日 1200 및 2400 現在 작전 현황을 정기적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2) 이보고는 變動사항이 없을 時에도 실시하라.

(3) 필요시에는 隨時 중간 보고를 실시하라.

라. 後方 지원은 陸本 행정명령 제22호(1952.1.28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三. 治安局長

가. 지방 경찰행동을 陸本 및 기갑연대장의 작전 계획에 合致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라.

부록 제51호

1952. 2. 4.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25호

一. 共匪討伐 작전을 繼行하기 위하여 1952년 2월 28일 06.00附로 白野戰 戰鬪사령관은 現 책임지역 및 現 임무를 首都사단장에게 이양하라.

二. 白野戰 戰鬪사령부 본부 및 본부중대(白野戰 戰鬪사령부 의무대 및 제35통신野戰운용중대 배속)는 現 위치로부터 자동차편으로 1952년 2월 10일 이동 개시하여 1952년 2월 13일 06.00까지 春川(CS 8893) 부근에 이동 완료하라.

가. 白野戰 전투사령부는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훈련을 위하여 美 제9군단에 배속된다.

나. 제806 및 제807자동차중대는 부대이동을 위하여 白野戰 전투사령부에 배속되며 부대이동 완

로와 동시에 복귀하여 軍 直轄로 된다.

다. 이동 상황 및 목적지 도착시간을 陸本에 보고하라.

그 後의 보고는 업무규정에 의거하라.

三. 後方지원

가. 공병 : 春川의 제1302공병 前方 보급중대

나. 의무대 : 春川의 제3202보급 의무중대 제2소대

수용 및 후송—華川의 제2이동 외과병원

다. 兵器 : 제2종, 제4종 및 정비—春川의 제14정비중대

제5종—舍坪(CT 8323)의 제55彈藥補給所(美軍)

라. 兵站 : 제1종, 제2종 및 제4종—春川 제109兵站보급소

제3종—제147兵站대대(美軍)

마. 通信 : 보급—春川의 81통신중대 파견대

정비—春川 제91통신수리중대 파견대

바. 수송 : 자동차수송—現 위치의 제805 및 807자동차중대

사. 행정 및 기타 : 1951년 6월 1일附 陸本 업무규정 및 1952년 1월 28일附 陸本 행정명령 제2호에 의거하라.

四. 협의를 위하여 白野戰 戰鬪사령부와 美 제9군단간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부록 제52호

1952. 2. 7.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26호

一. 1952년 2월 8일 00.01附 제1102야전공병단(제104야전공병대대, 제106야전공병대 및 제504철교중대, 제602輕裝備중대를 포함)은 白野戰 戰鬪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되는 동시에 공병감 작전지휘하에 복귀하라.

二. 1952년 2월 10일 00.01附로 제1103野戰工兵團본부 및 본부중대는 白野戰전투사령부에 배속한다.

三. 1952년 2월 10일 00.01附로 제1302공병 前方 보급중대는 제1102野戰공병단으로부터 배속 해제되는 동시에 白野戰전투사령부에 對하여 공병보급지원 임무를 수행하라.

四. 1952년 2월 8일 00.01附로 제802공병정비중대 1個소대는 제1102야전공병단으로부터 배속 해제되는 동시에 제802공병정비중대에 복귀하라.

부록 제53호

1952. 2. 9.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27호

一. 首都사단장

제110예비연대(제1대대)를 현 위치로부터 1952년 2월 14일 24.00까지 南原(CQ 5318)에 이동 완료시켜라.

제110예비연대는 南原에 도착과 동시 附로 陸本 直轄로 한다.

二.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

제110예비연대 제1대대를 자동차 및 철도수송편으로 현 위치로부터 南原(CQ 5318)에 1952년 2월

14일 24.00까지 이동 완료시켜라. 철도수송편은 後達하는 시간에 大田驛(CR 5921)에서 이용하라. 제110예비연대 제1대대는 南原에 도착과 동시附로 원대에 복귀한다.

三. 제110예비연대장

제110예비연대는 南原(CQ 5318)에 도착과 동시에 陸本 直轄로 한다. 차후 指示는 後述한다.

부록 제54호

1952. 2. 13.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28호

一. 1952년 1월 30일附 陸本 作戰指示 제124호(1952년 1월 20일 06.00附 陸本 작전명령 제271호 修正)를 參照하라.

二. 기갑연대는 陸本으로부터 別命 有할 時까지 담당지구내의 現 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부록 제55호

1952. 2. 25. 17.00

陸本 作戰指示 제129호

一. 1. 首都사단장

가. 제4기 共匪討伐 작전을 1952년 3월 15일頃까지 연기하라.

나. 1952년 3월 2일頃에 기갑연대가 晋州(DP 1794)에 도착과 동시 統轄지휘하라.
도착시일을 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다. 智異山지구 掃蕩작전을 1952년 3월 3일頃 개시하여 1952년 3월 15일以內에 완료하라.

2. 기갑연대장

가. 1952년 3월 1일 06.00附로 現 위치에서 경찰제200部隊 제2대대의 지휘관을 비상경비총사령관에게 이양하라.

나. 1952년 3월 1일附로 철도 및 自隊 자동차수송으로 密陽(DQ 7827)으로부터 晋州(DP 1794)에 이동하라.

다. 철도수송에 관한 것을 陸本(군수국)에 즉시 요청하라.

3. 非常경비총사령관

가. 1952년 3월 1일 06.00附로 現 위치에서 경찰 제200부대 제2대대를 장악 지휘하라.

나. 육본으로부터 別命有할 時까지 경찰 제200대대 제2대대로 하여금 現 鎭門山지구(大邱~釜山) 共匪討伐작전을 계속 수행케 하라.

4.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

現 경비 및 공비소탕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5. 後方지원

가. 1952년 3월 1일 05.00附로 下記보급소를 봉쇄한다.

(1) 密陽(DQ 7827)兵站보급소

(2) 密陽(DQ 7827)韓 제26兵器탄약보급소

(3) 密陽(DQ 7827) 통신보급소

나. 1952년 3월 1일 06.00附로 現在 密陽(DQ 7827)에 있는 下記 부대는 原隊복귀하라.

(1) 제1030병참 驛逓보급소파견대

(2) 제56병기탄약 再生중대 1개소대

(3) 제81野戰通信 창고중대 파견대

다. 기갑연대에 對한 後方지원은 首都사단장이 담당하라.

부록 제56호

1952. 2. 25. 15.00

陸本 作戰指示 제130호

一. 首都사단장

가. 제2경비대대 1개중대를 差出하여 1952년 2월 28일 12.00까지 現 위치로 부터 光州(CP 1191)에 移動시키라.

나. 該중대를 光州에 도착과 同時附로 헌병사령관의 지휘에 入케하라.

다. 輸送은 自隊車輛을 利用하라.

2. 憲兵司令官

가. 제2경비대대 1개중대를 光州에 도착과 同時附로 장악 지휘하라.

나. 該중대를 사용하여 光州 포로수용소 경비에 만전을 期하라.

三. 이동개시 및 完了 時間과 경비상황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57호

1952. 3. 2.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31호

一. 가. 1952년 3월 5일頃에 제52전차중대를 철도수송으로 光州(CP 1191)에서 春川(CS 8893)으로 이동시키라.

나. 春川(CS 8893)에 도착과 동시부로 제52전차중대는 보병학교장으로부터 白戰사령관에게 배속된다.

다. 철도수송에 관한 요청을 迅速히 陸軍本部(군수국)에 提出하라.

二. 제52전차중대장

가. 此명령 수령과 동시부로 先發隊(2名을 초과치 않음)를 春川(CS 8893)에 파견하라. 春川에 도착과 동시 이후 指示를 받기 위하여 白野戰 전투사령관에게 보고하라.

三. 全 명령수령자

가. 협의를 위한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四. 가. 後方 지원은 白野戰 전투사령관이 담당하라.

부록 제58호

1952. 3. 7.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32호

一. 1952년 2월 28일 00.01附로 下記 각 공병부대의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로부터 本官에게 이양되는

同時에 제1103야전공병단장에게 복귀한다.

가. 제901공병舟橋중대(美 제1군단) (陸本 作命 제264호 修正 작전지시 제1호(1951년 4월 6일 18.00附)에 依한 제1사단 행정상 배속도 해제함.

나. 제107야전공병대대(美 제9군단)

다. 제105야전공병대대(美 제10군단)

라. 제502공병철교중대(美 제9군단)

마. 제802공병정비중대(美 제10군단)

부록 제59호

1952. 3. 8. 12.00

陸本 作戰命令 제272호

軍隊區分

首都사단 사단장 陸軍准將 宋堯讚

西南지구 전투사령부

太白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

智異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연대

제205경찰연대

제207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

제36경찰대대

七寶경찰대대

白雅山경찰대대

全南 특공대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陸軍大領 金益烈

제5경비대대

제6경비대대

제10경비대대

제200경찰연대(缺1個대대)

비상경비총사령부 사령관 李益興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3경비대대 대대장 陸軍中領 安光榮

제8경비대대 대장장 陸軍少領 朴載坤

제11경비대대 대대장 陸軍少領 宋星三

제13경비대대 대대장 陸軍中領 文正植

1. 가. 현 경보보고 참조

나. 美 제8軍은 현 임무를 續行함

다. 西南地區의 戒嚴令은 存續함

2. 가. 軍은 西戰司, 太戰司 및 경찰을 사용하여 1952년 3월 15일까지의 Rat Killer작전에 後續하여 軍團 後方 戰鬪地境線 南方에 있어서의 共匪를 섬멸하며 물자 및 보급품을 破壞하여 共匪의 再編 및 再起를 방지하려함.

나. 戰鬪지경선 變更 無

다. D일 H시는 後達한다.

라. 本 작전은 Ferret작전이라 稱함.

3. 가. 首都사단장

(1) 현 임무를 단속 수행하라.

(2) Rat Killer작전을 1952년 3월 15일 06.00에 終了하라.

(3) 1952년 3월 15일 06.00附로 현 임무 및 책임지구및 현재 배속중인 경찰부대 및 경비대대를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라.

(4) 首都사단을 南原부근에 집결시켜 1952년 3월 16일 철도 및 자대차량으로 제1野戰경비훈련소에 이동할 준비를 하라.

先發隊 및 사단 後續部隊 이동은 현 규정에 의거할 것이며 陸軍本部 지시하에 수행하라.

(5) 最 迅速한 방법으로 陸軍本部(軍需局)에 철도수송 신청서를 제출하라.

나. 1952년 3월 15일 06.00附로 首都사단의 현 임무 및 책임지역을 인수하고 현 首都사단 작전지휘하의 경찰부대 및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라.

(2) 장차 陸本에서 추가 배속시킬 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할 준비를 하라.

(3) 命令 有할 時 제1경비대대 일부병력을 배속 해제하여 제2훈련소(馬山里(CR 3200))에 이동시키라.

(4) D일 H시를 期하여 공격개시하여 책임지역내의 공비를 섬멸하며 物資 및보급품을 破壞하라 智異山 白雅山 母後山 回文山 德裕山 및 雲長山지구에 대하여 특별히 留重하라.

(5) 命令 有할 時 隣接 戰鬪지구로 증원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라.

(6) 上記 작전에 관한 계획을 1952년 3월 12일까지 승인을 얻기 위하여 陸本에 제출하라.

다.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

(1) 현 경비 및 共匪 소탕임무를 수행하라.

(2) 命令 有할時 제8경비대대(大邱)의 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제200경찰연대 1個 대대를 배속 해제하여 비상경비총사령관에게 복귀시킬 준비를 하라.

(3) 命令 有할時 제3경비대대 제2중대를 원대복귀시킬 준비를 하라.

라. 非常경비총사령관

(1) 단속하여 현 경비 및 共匪 소탕임무를 수행하라.

(2) 命令 有할時 이용할 수 있는 부대로서 제1, 제3, 제11, 제8 및 제13(1개중대) 경비대대의 現 임무를 交代 인수할 준비를 하라.

마. 제1경비대대장

(1) 有命 有할時 현 임무를 경찰부대에 인계할 준비를 하라.

(2) 命令 有할時 再 정비 및 再 교육을 위하여 제2훈련소(馬山里)에 이동할 준비를 하라.

바. 제3, 제8, 제11 및 제13(1개중대) 경비대대장

(1)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2) 명령 있을 時 現 임무를 경찰부대에 인계하고 後達할 목적지에 이동할 준비를 하라.

사. 제9경비대대장

제2훈련소에 파견중인 제3중대를 통활지휘할 준비를 갖추라.

X. Ferret 작전간 下記 事項에 유의 하라.

(1) 지정된 책임지역내에 최소한도의 전술부대의 보유.

(2) 直屬上級 부대와 협의하여 공격 격이며 계속적인 수색중대로서 共匪小集團을 발견하여 섬멸함.

(3) 旣知의 或은 새로히 발견된 共匪의 六據點에 對한 作戰에 있어서는 機動戰鬪부대의 主力을 사용함.

(4) 本 작전간 특히 강조할 사항은 부대이동의 迅速, 정보기관의 최대한의 이용 기습 및 전격적 掃蕩, 晝夜를 통하여 계속적이며 협의된 전투, 치밀한 기획 및 절대적인 秘密保持等임.

(5) 보고 : 현 업무규정에 의거하라.

4. 가. 兵站

(1) 제401병참보급소(서울)는 首都사단이 제1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同사단을 지원하라(제1, 2및 4종품)

(2) 제204병참보급소(南原)는 계속하여 南原지구의 西戰司를 支援하라.

(3) 首都사단의 自隊차량은 大田까지의 이동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출발전에 제204병참보급소로부터 충분한 油類를 지급받으라.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油類는 大田에서 제202병참보급소로부터 지급될 것임.

나. 醫 務

(1) 제7이동외과병원의 南原부대는 계속하여 南原지구에서 西戰司를 지원하다.

다. 통 신

(1) 제81통신창고중대 파견대는 現지구에 잔유하여 西戰司를 지원하라.

(2) 제5통신보급소(서울) (제81통신창고중대 파견대)는 首都사단이 제1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제2종에限하여 同 사단을 지원하라.

(3) 제4종보급품에 限하여 補給規定에 의거 美軍 보급소에서 수령하라(永登浦)

라. 兵 器

(1) 제10병기輕整備中隊는 首都사단이 제1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同 사단을 지원하라

(2) 美 제56탄약보급소(議政府)는 首都사단이 제1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同사단을 지원하라.

(3) 西戰司에 對한 탄약지원—제11탄약보급소

(4) 제20병기중정비중대 1개소대는 首都사단이 이동과 동시에 원대복귀하라.

5. 가. 現 통신규정에 의거하라.

나. 지휘소의 위치

(1) 陸軍本部 : 大邱(DQ 6369)

(2) 首都사단 : 最初南原(CQ 5318)

(3) 太 戰 司 : 安東(DR 7546)

(4) 西 戰 司 : 南原(CQ 5319)

(5) 非 整 司 : 大邱(DQ 6369)

(6) 제 1 경비대대 : 群山(BQ 9485)

(7) 제 3 경비대대 : 서울(CS 2055)

(8) 제 8 경비대대 : 大邱(DQ 6369)

(9) 제11경비대대 : 金海(DP 9199)

(10) 제13경비대대 : 水原(CS 2426)

부록 제60호

1952. 3. 10

陸本 作戰指示 제133호(작전명령제272호수정)

一. 제1사단장

가. 陸本으로부터 別命 有할 時까지 제1야전정비훈련소에서 훈련을 계속하라.

나. 後方지원 : 變動無

二. 제6사단장

가. 1952년 3월 20일附로 제6사단의 작전지휘권은 本官으로부터 美 제9군단장에게 이양된다.

三. 제2사단장

가. 楊口(DT 1218) 부근의 제3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제2사단은 美 제9군단장으로부터 배속 해제되어 陸本 直轄로 된다.

목적지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나.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야전정비훈련소장(KMAG)의 直接 감독하에 1951년 11월 24일附 陸本 敎育작서 제92호에 의거하여 再 정비 및 再 훈련을 실시하라.

四. 首都사단장

가. 1952년 3월 14일 00.01附로 Rat Killer作戰을 終了하라.

나. 1952년 3월 14일 00.01附로 현임무 및 책임지역과 경비대대 및 경찰부대의 작전 지휘권을 西南지구전투사령관에게 引繼하라.

다. 首都사단(野砲隊)은 기차 및 자동차편으로 春川(CS 8893)에 이동하기 위하여 각 연대별로 南原(CQ 5318) 求禮(CP 6097) 順天(CP 6268) 지구에 집결시키라.

목적지에 이동은 1952년 3월 14일부터 개시하며 기차사용은 1952년 3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출발시간은 陸本과 협의하에 決定하여 실시하라.

라. 1952년 3월 17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단은 기차 및 자동차편에 의하여 연대별로 각각 출발하라.

마. 春川(CS 8893)에 도착과 동시附로 陸本 直轄로부터 美 제9군단장에게 배속한다.

사령부 및 각 연대의 도착시간을 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바. 명령이 有할時 美 제9군단에 최소한도의 先發隊를 파견하라.

五. 西南지구 전투사령관

가. 1952년 3월 14일 00.01附로 現首都사단 지휘하에 있는 경비대대 및 경찰부대와 現 임무 및 책임지역을 인수하라.

六. 後方지원은 별도로 지시한다.

七. 通信사항

가. 수도사단장은 1952년 3월 14일 00.01를 期하여 現用中의 有線幹線(TP~14 및 TP—9包含) 일체를 변동함이 없이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에 인계하라.

나.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은前記 시설을 인수 계속 운용하라.

다. 제65통신지원대대장 및 제71통신가설대대장은 西南지구 전투사령부의 통신지원을 계속하라.

라. 無線통신망 구성은 SOI에 의하라. 단, 암호에 관한 것은 별도 지시함.

부록 제61호

1952. 3. 13.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34호(작전명령 제272호수정)

一. 西南지구 전투사령관

가. 1952년 3월 16일 제36경찰대대를 현 위치로부터 群山(BQ 9485)에 이동시키라.

도착과 동시에 제14수송항만대대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K~8비행장및 群山항만시설을 경비하기 위하여 제14수송항만대대장에게 配屬한다.

나. 1952년 3월 23일 제1경비대대 제2중대 및 제4중대를 現 위치로부터 제2훈련소(馬山里 CQ 3397)에 이동시키라.

다. 1952년 3월 30일頃 제8경비대대가 南原(CQ 5318)에 도착과 동시 該大隊를 統轄지휘하라.

라. 1952년 4월 14일頃 제3경비대대가 南原(CQ 5318)에 도착과 동시 該대대를 統轄지휘하라.

마. 작전지휘권 인수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二. 太白山지구 전투사령관

가. 1952년 3월 22일 제200경찰연대 2개중대를 現 위치로부터 大邱(DQ 6369)에 이동시키라.

도착과 동시 該부대는 大邱지구 경비사령관에게 보고할 것이며 K—2비행장 및 大邱에 이르는 送油管에 대한 경비임무를 위하여 大邱지구 경비사령관에게 배속한다.

나. 1952년 4월 13일 제3경비대대 제2중대를 現 위치로부터 南原(CQ 5318)에 이동시키라.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該부대는 原隊복귀한다.

三. 非常경비총사령관

가. 1952년 3월 17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대를 사용하여 水原(CS 2527)의 제13경비대(鉄)와 교대시키라.

도착과 동시 該부대는 K—13비행장기지 사령관에게 보고할 것이며 K—13비행장에 對한 경비임무를 위하여 K—13비행장기지 사령관에게 배속한다.

나. 1952년 3월 29일 제200경찰부대 제2대대를 現위치로부터 金海(DP 9199)에 이동시키라.

도착과 동시 該부대는 제3兵站管區(B)사령관에 보고할 것이며 K—1 및 K—10 비행장에 對한 경비임무를 위하여 제3병참관구(B) 사령관에게 배속한다.

다. 1952년 4월 6일附로 現在 이용할 수 있는 부대를 사용하여 서울—仁川지구의 제3경비대대와 교대시키라.

도착과 동시 該부대는 제21항만부대(仁川)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仁川항만 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제21항만부대장에게 배속한다.

四. 제1경비대대장

가. 1952년 3월 23일 06.00附로 제1경비대대는 現地에서 제2병참관구사령관으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陸本 直轄로 한다.

나. 1952년 3월 23일 제1경비대대를 철저적인 再 장비 및 再 교육을 爲하여 現 위치로부터 제2훈련소(馬山里 CQ 3398)에 이동시키라. 목적지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다. 1952년 3월 23일頃 제23중대 및 제4중대가 제2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同중대를 통합지휘하라. 작전지휘권 인수시간을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五. 제8경비대대장

가. 1952년 3월 29일 제8경비대대를 철도 및 자대차량 수송에 의하여 大邱(DQ 6369)로부터 南原(CQ 5318)에 이동시키라.

나.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附로 제8경비대대는 陸本 直轄로부터 해제하여 西南지구 전투사령관에

게 배속한다.

六. 제13경비대대장

가. 1952년 3월 24일 제13경비대대를 美 제1군단장의 指示에 의거하여 現 위치로부터 이동시키라

七. 제11경비대대장

가. 1952년 4월 5일 제11경비대대를 現 위치로부터 南明里(DQ 9637)에 이동시키라.

나. 雲門山(大邱—釜山) 지구에서 共匪掃蕩作戰을 遂行하라. 작전계획을 1952년 4월 10일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八. 제3경비대대장

가. 1952년 4월 13일 06.00附로 제3경비대대는 現地에서 제2병참관구사령관으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陸本 直轄로 한다.

나. 1952년 4월 13일 06.00 제3경비대대를 철도 및 自隊차량수송에 의하여 現 위치로부터 南原(CQ 5318)에 이동시키라.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에 제3경비대대는 陸本 直轄로부터 해제되어 西南지구전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다. 제2중대가 南原(CQ 5318)에 도착과 동시에 該中隊를 統轄지휘하라.

라. 철도수송 신청서를 陸本(군수국)에 제출하라.

九. 後方 지원은 별도로 지시함.

부록 제62호

1952. 3. 13.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35호

一. 指令 제32호(1951.6.19 08.00 附) 中3項 4項을 參照하라.

二. 제279병참단장

가. 1952년 3월 20일附로 現위치에서 陸軍 中央遺骨安置所(梵魚寺)를 경비중인 警察 1個소대를 非常경비총사령관에게 원대복귀 시키라.

三. 비상경비총사령관

가. 1952년 3월 20일附로 陸軍 中央遺骨安置所(梵魚寺)에 差出中인 경찰 1個소대를 統轄指揮하라.

四. 각 지휘관은 實行結果를 最迅速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63호

1952. 3. 16.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36호

一. 제8사단장

가. 1952년 3월 18일附로 제8사단(제50포병대대)은 現 위치에서 陸軍本部 直轄로부터 解除하여 美 제10군단장에게 배속한다.

나. 사단은 5일分의 제1종 및 제5종 보급품의 一基本 携帶量을 携帶하고 이동하라.

美 제10군단지구에 도착후 次後 指示有할 時까지 下記 지점에서 後方 지원을 한다.

(1) 兵器 : 제5종품—美 제10군단장 제2 및 4종품 및 정비—제11경비中隊(桃村里 DT 1414)

(2) 兵站 : 제3종품—美 제10군단장

제1,2 및 4종품—제111병참보급소(楊口 DT 1711)

(3) 通信 : 제4종품(消耗品)—美 제10군단장

제2 및 4종품—제81通信창고중대파견대(東草里 DT 6529)

정비—제91통신수리중대파견대(東草里 DT 6529)

(4) 醫務 : 제2 및 4종품—衛生材料廠파견대(東草里 DT 6529)

병원 및 後送—제6이동외과병원(桃村里 DT 1414)

(5) 工兵 : 제4종품 및 정비—美 제10군단장

二. 제1사단장

가. 제1사단(제108 重迫擊砲중대 배속)은 제1야전정비훈련소(CS 4178)에 도착과 同時附로 美제1군단장으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陸軍本部 直轄로 한다.

목적지 도착 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나.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附로 야전정비훈련소장의 직접 감독하에 1951년 11월 24일附 陸本 교육각서 제92호에 의거하여 사단의 再 정비 및 再 교육을 실시하라.

교육은 야전정비훈련소의 8주간 교육계획에 의거할 것이나 2주일 경과후에는 何時라도 출동할수 있도록 하라.

다. 제1사단의 後方 지원은 제1야전정비훈련소에 도착과 동시에 下記와 如히 실시한다.

(1) 兵器 : 제5종품—美 제1군단장 제2·4종품 및 정비—제10輕整備중대(抱川 CS 4494)

(2) 通信 : 제4종품(消耗品)—美 제1군단장

제2 및 4종품—제81통신창고중대파견대(서울)

통신정비—제91통신수리중대파견대(서울)

(3) 醫務 : 제2 및 제4종품—醫務보급 중대 제1소대(서울)

병원 및 후송—제36육군병원(서울)

(4) 兵站 : 제1.2 및 4종품—제401兵站보급소(서울)

제3종품—美 제1군단장

(5) 工兵 : 제4종품 및 정비—美 제1군단장

부록 제64호

1952. 3. 18.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37호

一. 西南地區 전투사령관

가. 1952년 3월 24일에 제9경비대대 제3중대를 제2훈련소로부터 鎭安(CQ 5362)에 이동시키라.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附로 該중대는 원대복귀한다.

목적지에 도착시간을 迅速히 陸本에 보고하라.

二. 제9경비대대 제3중대장

가. 1952년 3월 24일 00.00附로 제9중대 제3중대는 제2훈련소(馬山里 CQ 3189)에 對한 경비임무로부터 해임된다.

부록 제65호

1952. 3. 19. 06.00

陸本 作戰指示 제139호

一. 太白山지구 사령관

가. 作戰지시 제134호(1952.3.13附) 中 제2項 가를 下記와 같이 訂正한다.

1952년 3월 22일에 제200경찰연대 1개대대를 現 위치로부터 大邱(DQ 6369)에 이동시키라.

목적지 도착과 동시 該部隊는 大邱지구 경비사령관에게 보고하라. K—2비행장 및送油管경비임무를 遂行하기 위하여 大邱지구 경비사령관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66호

1952. 3. 20.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38호

一. 제11사단장

가. 1972년 3월 30일附로 제11사단(제20연대)은 현지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해제하여 韓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二. 제20연대 및 제36연대는 제2야전경비훈련소(DT 6613)에 도착과 동시附로 야전경비훈련소장의 直接 감독下에 陸本 교육각서 제92호(1951년 11월 24일附)에 의거하여 각연대의 再 정비 및 再 교육을 實施하라 陸本으로 부터 명령有하면 何時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라.

三. 後方지원 : 變動無

四. 통신사항 : 통신망구성은 陸本 통신규정(SO1)에 의거하라.

부록 제67호

1952. 3. 24.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40호

一. 제11사단장

가. 1952년 3월 25일 零時附로 제11사단공병대대를 韓 제11사단장으로부터 韓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68호

1952. 3. 24.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41호

一. 제110야전공병대대(제1중대缺)는 1952년 3월 25일 零時附로 제1103야전공병단에 배속됨.

부록 제69호

1952. 3. 28. 12.00

陸本 作戰指示 제142호

一. 제2사단장

가. 1952년 3월 10일附 作戰指示 제133호(1952년 3월 8일附 作命 제272호修正)中 제3項 "가"를 下記와 같이 修正한다.

제2사단은 史倉里(CT7015)부근 훈련지구에 도착함과 同時 美 제9군단장으로부터 배속해제되어 陸本 直轄로 한다.

목적지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陸軍總參謀長 陸軍中將 李 鍾 贊

부록 제70호

1951. 9. 12

海本作命甲 第4號

1. 巨濟島에 收容中인 포로 약90명이 7일전 巨濟島附近 船舶을 利用 脫走하여 陸地遊擊隊와 합류하였으며 계속 脫出을 기도하고 있음.
2. 軍은 기왕 탈출한 포로의 체포및 차후의 계속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島濟島 北部海域을 봉쇄하고 小舟艇으로 警備하려함.
3. 鎭海統制府司令官은 下記細部指示에 依하여 早速鑑艇을 出動시켜 警備에 任케 하라.
4. 警備區域及 細部指示
   ① 警備區域은 北緯 35° 東經 128° 42′點 및 加德島燈台와 北緯 35° 06′東經 128° 50′點을 連結한 線및 巨濟島北岸 및 北緯 34°45′ 東經 128°25′點에서 閑山島 南端과 峰岩島北西端을 거쳐 北緯 38°46′40″ 東經 128°32′45″點을 連結한 線부터 陸地까지의 海域이며 주로 巨濟島北西岸을 警備하고 此區域에서의 漁撈는 주간에 한하여 실시케 할 것임.
   ② 偵察艇 1척을 此海域에 파견하여 警備를 擔當케 하고 輕機 1挺, 小銃 1挺, 拳銃 1挺의 裝備를 所持시키고 S.C.R通信으로 狀況을 報告케 하라.
   ③ 巨濟島週邊에 情報員을 파견하여 脫出兵 搜索과 動靜을 탐지하라.
   ④ 此行動은 別命 有할 時까지 실시하고 交代는 現地에서 실시할 것임.
   ⑤ 統制府司令長官은 每日 08.00 此警備現況을 電報로 本部에 報告하라.

但 異狀이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하고 異狀의 狀況을 即時 電報로 報告한後 書類報告하라.

5.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海軍總參謀長 海軍少將 孫 元 一

부록 제71호

1951. 9. 26

海本作命甲 第5號

1. 省 略
2. 軍은 日本에 있는 美海軍(후리겟)PF 3號 및 PF5 號 二隻을 我海軍에서 引受하려 함.
3. ① 任命된 各鑑長(PF 3號 및 PF 5號)은 隸下乘組將校 士兵을 引率하여 日本橫須賀에 이르러 美東洋鑑隊司令官의 指示를 받어 PF3號 및 PF5號를 각각 引受後 釜山에 歸港하라.
   ②輸送官은 作戰局長 및 人事局長과 緊急한 連絡下에 引受要員을 日本橫須賀까지 輸送하라.
4. ①人事局長은 PF3號및 五號의 鑑長및 乘組將兵을 基本編成表에 依據任命하라.
   ② 其他 關係 各局監室長은 PF3號및 PF5號의 引受에 關한 業務를 執行하라.

③其他 細部事項은 別途 指示함.

5. 余는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72호

1951. 9. 29

海本作命甲 第6號

1. 省 略
2. 軍은 全艦艇의 補給擔當部署를 一部 변경실시하려함.
3. ①軍需局長은 從來에 實施하여오던 各艦艇補給業務를 9월 20일을 期하여 鎭海軍需局長에게 一切 移管하라.

②艦艇局長은 淸水및 油類補給業務를 9월 30일을 期하여 軍需局長에게 移管하라.

③鎭海軍需部長은 軍需局長이 艦政局長으로부터 移管받은 各艦艇의 淸水 및 油類補給業務 및 軍需局에서 從來實施하던 各艦艇軍需品 補給業務 一切을 9월 30일을 期하여 引受하고 10월 1일부터 各艦艇에 補給業務를 執行하라.

④各艦艇은 11월 1일부터 油類, 淸水 및 軍需補給物 一切을 鎭海軍需部에서 受領하라.

⑤艦政局長은 油類 淸水擔當將校 및 文官全員을 軍需局에 派遣하여 補給을 實施케 하라.

2. 別途 指示가 有할時까지 61艦, 62艦의 油類補給은 軍需局에서 受配하라.
5. 余는 釜山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73호

1951. 10. 30

空本作命 第37號

1. 省 略
2. 軍은 一部 兵力을 撤收하려 함.
3. ①제106基地戰隊는 서울 先遣隊로 하여금 先遣隊諸般業務를 제105基地戰隊長에게 移管하고 1951. 11. 5 24.00까지 撤收하라.

②제100基地團長은 제105基地戰隊長으로 하여금 先遣隊 位置에 一部 兵力을 派遣하여 從來의 先遣隊業務를 掌握遂行케 하라.

4. ①兵力輸送은 鐵道車輛과 自隊의 車輛에 依한다.

②移動에 必要한 燃料는 自隊分에 依한다.

③移動間 給食은 自隊에서 擔當한다.

5. 余는 大邱에 在함

空軍總參謀長 空軍少將 金 貞 烈

부록 제74호

1951. 12. 8

空本作命 第21號

1. ①省 略

②我陸軍은 智異山 共匪에 對한 包圍殲滅戰을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제1전투비행단 江陵 前進部隊 一部 兵力을 一時 泗川基地에 撤收하여 地上作戰 直接 協力을 實施하려함.

3. ①제1전투비행단장은 在江陵基地 F—51전폭기 全機와 此作戰에 所要되는 最少限의 兵力및 器材를 1951. 11. 28 12.00까지 泗川基地에 移動 完了케하고 12.1.06.00以後 即時 出動시킬 수 있도록 待期시켜라.

② 제2정찰비행전대장은 本作戰間 智異山地區 一部 偵察 및 連絡에 임할 수 있도록 1951. 12.1 06.00까지 준비 完了하라.

4. 輸送은 飛行機에 依한다.

5. 余는 大邱에 在함.

부록 제75호

1951. 12. 12

空本作命 第39號

1. 省略

2. 軍은 元山作戰을 계속 實施하려 함.

3. 第1戰鬪비행단장은 一時 泗川基地에 撤收한 江陵 前進部隊 一部 兵力 및 器材를 1951. 12.12. 12.00까지 江陵原隊에 복귀시켜 계속 作戰을 遂行케 하라.

4. 輸送은 飛行機에 依한다.

5. 余는 大邱에 在함.

부록 제76호

1951. 12. 26

空本作命 第40號

命 令

1. ①省略

② 我軍은 西南地區 共匪에 對한 掃蕩戰을 계속하고 있음.

2. 軍은 第1戰鬪비행단 江陵前進部隊 一部 兵力을 一時 鎭海基地에 撤收하여 地上作戰 直接 協力을 實施하려 함.

3. ① 第1戰鬪비행단장은 在 江陵基地 F—52全機와 此作戰에 所要되는 最少限의 兵力器材를 1951. 12.13.14.00까지 鎭海基地에 移動 完了시켜 西南地區 陸軍地上作戰에 協力하라.

② 第2偵察비행전대장은 本作戰間에 鎭海撤收部隊에 적극 協力하라.

4. 輸送은 비행기에 依한다.

5. 余는 大邱에 在함.

부록 제77호

1951. 12. 28

空本作命 第41號

命 令

1. 省略

2. 軍은 元山 作戰을 계속 實施하려 함.

3. 第1戰鬪 비행단장은 一時 鎭海基地에 撤收한 江陵前進部隊 一部 兵力 및 器材를 1951.12.27까지 江陵原部隊에 복귀시켜 계속 作戰을 遂行케 하라.

4. 輸送은 비행기에 依한다.

5. 余는 大邱에 在함.

부록 제78호

1951. 9. 4.

海兵8100 作命 第109號

要旨命令

1. (가) 현행 일일정보 보고서 참조

2. 부대는 해이스선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를 계속하며 전방의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찰을 실시한다.

3. (가) 각대대는 증강된 1개소총 소대의 병력을 차출하여 별명이 有할때 까지 매일 지정된 정찰경로를 밟아 정찰을 실시 하라. 특히 敵 방카의 위치 수 지형 병력과 敵 방카를 사격할수 있는 아방의 지형 지물등을 선택하라.

(나) 연대수색대는 별도 지시함.

(다) 각대대는 현 만대리 분지에 잔적이 잔류하고 있으니 진지 前方과 後方 각 요소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경계에 만전을 기하라.

(라)

① 각대대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되 호는 유축호로 하고 철조망 가설을 새로히 하라.

② 지뢰 매설은 美공병대대에서 담당하나 부비트랩의 매설은 일체 금한다.

X1. 敵機 내습과 敵기습의 우려성이 농후하니 각대는 철저한 통화관제를 실시 하라.

2. 각대대는 정찰예정을 출발전 1900까지 보고 하며 출발시간과 정찰실시 결과를 보고 하라.

4. (가) 생략

(나) 연대 지휘소 위치 변동무

5. (다) 통신대장은 연대경계 좌측부대와 연락할수 있도록 유선을 가설하라.

海兵 제8100부대장

海軍大領 金 東 河

2. 年 表

월 일	중 요 사 항
9월 1일	**軍 事** ○ 東海岸戰線 平穩. ○ 我軍, 麟蹄 北方에서도 계속전진. ○ 楊口北方 및 西北方에서 我軍, 敵의 熾烈한 反擊으로 部分的인 撤收敢行 後 다시 前進하여 失地를 回復. ○ 金城東北方의 敵 抵抗力 弱化. 我軍 3個 高地탈환. ○ 金城東方지구에서 我軍 若干撤收. ○ UN「제트」機및 戰爆機대, 中部 및 東部戰線 山岳지대의 敵을 猛攻. ○ 空軍 第1戰鬪飛行團, 海州北方 新院 지구 폭격. **休戰會談** ○ UN軍連絡將校「카너—」大領, 1日未明에 UN軍機가 開城 市立지구내의 共産軍 代表宿舍부근을 폭격하였다는 共産側 非難에 對하여 현장조사, 「카너」 大領 該侵犯機가 UN軍에 속한다는 증거는 全然없다고 共産側에 통고. ○ UN軍前進司令部, 聲明을 發表하여 29日의 開城 照明彈投下 事件 및 30日의 中立지대 공격사건을 부정. ○ 國籍不明의 雙發機 1臺 UN軍 前進基地에 12個의 照明彈을 投下. **政 治** ○ 國會, 共和民政會, UN軍 勞務者의 處遇改善을 要望하는 談話發表. ○ 美國 對韓政策에 대한 朝野의 輿論 調査次「하바드」大學의 「헨리·키신저—」敎授 來韓.
9월 2일	**軍 事** ○ UN軍, 3日째로 계속된 中部 및 中東部戰線高地 爭奪戰에서 8個所의 高地를 奪取. ○ 麟蹄北方의 敵 2個 主要抵抗 中心地點에 대하여 我軍 猛攻擊끝에 그 2個所를 奪還. ○ 楊口東北方에서 敵이 1個 高地를 戰鬪없이 占領 그 隣接 西方 2個高地에서는 猛烈한 爭奪戰 계속. ○ 楊口北方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東海岸에서 UN艦隊巨砲, 如前히 敵陣에 戰慄的 砲火 集中. ○ F—86「제트」機와 交戰, 敵機 4臺 擊墜. ○ 空軍 濟州飛行場 擴張. **休戰會談** ○ 國籍不明의 單發機, UN軍 前進交涉本部로부터 約1.6哩의 臨津江北岸을 攻擊. ○ UN軍 首席代表, 30日에 UN軍이 板門店 및 淸潭洞지구에서 共産軍을 攻擊하였다는 共産軍側 抗議를 拒否. ○ 共産軍司令官, UN軍機가 1日未明 開城 中立지구의 南日 共産軍 代表宿舍부근을 爆擊하였다고 正式으로 非難 同「멧세지」에서 共産軍側 休戰會談은 UN軍이 中立을 保障할 경우에만

월 일	중 요 사 항
	再開될 것이라고 言明.
	政 治
	○ 駐韓 中國大使 邵毓麟氏, 離韓에 際하여 韓國民의 奮鬪를 祈願하는 談話發表.
	○ 陸軍工兵學校 第19期 士官候補生 卒業式 거행.
	○ 韓國 造幣社法 公布施行.
9월 3일	軍 事
	○ 中部戰線 山岳戰 熾烈, UN軍 奪還지역, 확보중.
	○ 楊口 北西北方의 高地上, 我軍부대 敵과 猛烈한 交戰 계속.
	○ 金城東南方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中東部戰線에 共產軍 戰鬪機 數臺 出現하여 6次에 걸쳐 我地上부대에 銃擊을 加하였음.
	○「맨」司令官,「코카시아」및 蒙古 義勇軍을 包含한 85萬의 共產軍이 全面攻擊에 待機하고 있다고 言明.
	休戰會談
	○ 共產軍 首席代表, 8月 19日의 松谷里 攻擊事件, 同 19日의 開城 照明彈投下 事件, 同 30日의 國韓軍의 中立지대侵犯 事件에 對하여 再次 抗議.
	○ 開城休戰會談 韓國代表에 李亨根少將 新任, 白善燁少將은 第1軍團에 復歸.
	政 治
	○李大統領, UN記者와의 單獨會見席上에서 施設과 裝備만 許容된다면 25萬 兵力을 더 增員할 수 있다고 談話發表.
	○ 社會部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5個年計劃으로 住宅 60萬戶 再建計劃을

월 일	중 요 사 항
	極力 推進中이라고 言明.
	○ 和順炭鑛操業 開始.
	○ 國民會, 農總, 勞總, 韓靑, 制憲同志會等 各 團體代表들 新黨發起準備委員會, 構成協議會를 組織.
9월 4일	軍 事
	○ UN軍, 東部戰線 山岳지대에서 敵의 反擊을 粉碎코 계속 漸進.
	○ 楊口東北方 및 北方일대의 敵 活動 顯著히 減少.
	○ 華川貯水池北方에서 再攻擊을 展開한 我軍부대, 目標高地 回復.
	○ 金城東方의 一連의 高地에서도 敵의 侵透企圖를 完全히 擊退.
	○ UN空軍機, 地上軍부대를 掩護하여 東部戰線의 共產軍을 攻擊.
	○ 我空軍부대, 夜間에 順川 新安州의 敵 操車場을 爆擊.
	○ 軍總司令部 公報當局 大砲, 「탱크」및 裝甲車等을 保有하고 있는 多數의 「코카시아」소련軍이 北韓 前線 부근에 存在하고 있으며 滿州 安全지대내에는 1千臺 以上의 전투기, 폭격기 등으로 구성된 괴뢰공군이 증강되고 있다고 發表.
	○ 美極東海軍 發表 過去 13個月間의 海軍戰果는 敵 損傷 63,024名.
	休戰會談
	○ UN軍 首席代表, 2日附의 共產軍側 抗議를 拒否.
	政 治
	○ 保健部, 8月31日 閉鎖한 溫陽 鎭鄕

월 일	중 요 사 항
	壯丁 臨時 救護病院을 一般 戰災患者用으로 利用하기로 決定.
	○ 美國으로부터 義手義足 製作機 到着.
9월 5일	**軍 事**
	○ UN軍 18日間에 걸친 爭奪戰 後 楊口北方의 「피의 稜線」을 占領.
	○ 金城 我軍 野砲擊圈內에 듬.
	○ 中部戰線 일대는 輕微한 戰鬪 散發.
	○ 我空軍 夜間에 成川, 順川, 陽德, 新溪等 各地에서 敵 車輛부대를 攻擊.
	○ 美第8兵站基地司令官「윤트」准將, 閔韓國 釜山港灣司令官에게 美國 銅星勳章 授與.
	政 治
	○ 前 美9軍副司令官「콜터」中將 李大統領을 禮訪하고 離任人事.
	○ 國立 서울大學校總長에 崔奎南氏 任命.
	○ 서울特別市 警察當局, 私有財産의 搬出을 當分間 禁止.
9월 6일	**軍 事**
	○ 楊口北東北方에서 거의 抵抗없이 3個 目標 高地 奪還.
	○ 華川貯水池北方에서 敵의 抵抗을 擊退.
	○ 漣川西方에서 UN軍機 敵 탱크 2臺 擊破.
	○ 漣川西方에서 昨冬以來 처음으로 共産軍 戰車(쏘련제 M34型) 3臺 出現.
	○ 西部戰線에서 탱크를 包含한 共産軍 1個聯隊 漣川西方에서 UN軍 前哨陣地를 攻擊.
	○ UN軍부대 漣川西方에서 包圍網을 좁고 無事 撤收.
	○ 美海兵隊機, 漣川西方에서 共産軍戰車를 攻擊코 1臺 파괴 其他 1臺에 손해를 입혔음.
	休戰會談
	○「릿」將軍, 共産軍側(1日字發 2日字接受)에 回答하고 UN軍側의 中立協定遵守를 強調하는 同時에 이 休戰會談의 中斷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會談地 선정을 위하여 연락장교회의의 개최 토의를 提案한다고 통고.
	○ UN軍 總司令部 涉外局, 開城을 休戰會談地로 決定한 경위 및 그 후의 開城 中立지대를 圍繞한 경과를 發表하고 아울러 新會談地 提案理由를 闡明.
	政 治
	○ 共和民政黨의 新黨發起會 院內 準備委員會, 于先 院內의 發起會 構成工作의 推進을 協議.
	○ 서울特別市 全副市長 生必品 搬入問題에 관하여 搬入은 食糧과 柴炭에 局限한다고 言明.
9월 7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我軍, 계속하여 部分的인 공격을 감행.
	○ 鐵原西北方에서 敵의 攻擊을 擊退.
	○ 漣川西北方에서 我軍부대 1個 高地를 再 탈환.
	○ UN軍 地上부대 西部 및 中西部戰線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韓國海軍 東海岸 板斗鎭里, 敵陣을 砲擊.

월 일	중 요 사 항
	○ UN空軍 約800臺의 敵車輛 粉碎.
	○ B29機, 定州操車場 및 新安州鐵橋를 폭격.
	○ 極東空軍 爆撃司令官에 「조·W·케一디」준장 新任.
	休戰會談
	○ 共産軍首席代表, 4日字「죠이」代表의 回答에 反駁.
	○ 8월 29日의 照明彈投下 事件 및 同 19日, 30日의 中共軍事 監察員 殺害事件을 再三 非難.
	○ 開城 休戰會談代表「호자一스」少將, 第8軍參 謀長에 被命.
	政 治
	○ 國會 財政法案 통과.
	○ 國會, UN 貸上金 淸算을 爲한 경제사절 파견안을 可決.
	○ 李大統領, 夫人同伴코 大邱 國立救護病院等 視察.
9월 8일	**軍 事**
	○ 全戰線의 戰鬪 다시 弱化, 我軍偵察隊, 敏活한 探索 계속.
	○ 共産軍 金化東方의 我軍陣地를 攻撃.
	○ 高浪浦 北北西方에서 彼我間에 探索戰鬪 계속.
	○ 韓國海軍艦, 西海岸에서 奇襲作戰 敵 射殺 45名.
	○ B—29機隊, 順安 飛行場 폭격.
	政 治
	○ 李大統領 住宅 建設에 대하여 一般의 적극적인 協力을 요망하는 담화발표.
9월 9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金城지구로부터 杆城에 이르는 高地 일대에서 UN軍 다시 攻勢.
	○ 楊口北方에서 攻撃하는 UN軍부대에 대하여 共産軍 抵抗.
	○ 平康南方에서 敵의 頑強한 抵抗을 排除코 高地 확보.
	○ UN軍부대「탱크부대」지원하에 漣川西方의 失地를 再탈환.
	○ F—86「제트」機, 新安州 上空에서 MIG「제트」機 70臺와 空中戰 共産軍機 2臺 격추.
	○ 美 第5空軍機, 夜間에 敵 補給物資 수송부대를 攻撃, 敵 車輛 50臺 撃破損.
	○ 英國 雙發流星「제트」機隊, 夜間에 最初로 武裝偵察作戰에 參加.
	休戰會談
	○「죠이」UN軍首席代表 UN軍이 開城 中立지대를 侵犯하였다고 再三 非難한 7日字 共産側 非難에 回答을 拒否.
	政 治
	○ 國會 臨時 土地 收得稅法案을 通過. (從來 金納制로 되었던 地稅·地方稅 不動産 所得稅를 全部 物納制로 代換).
9월 10일	**軍 事**
	○ 杆城西方 高地上에서 敵 頑強히 抵抗 그中 1個 高地 奪還.
	○ 共産 最初의「로켙트」彈 (132미리), 金化東方戰線 某所에 投下.
	○ 平康南方, UN軍 攻撃을 계속.
	○ 金城南方에서 猛烈히 交戰.
	○ 西部戰線 大體로 平穩.
	○ F—86「제트」機 80臺, 安州, 平壤에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서 MIG 80臺와 交戰, 그 중 2臺에 損害.		○ 共産軍側 北京放送을 通하여 長文의 멧세—지를 發表 UN軍 司令部는 會談 再開의 條件을 承認하거나 不然이면 會談 中斷으로 因하여 야기될 모든 결과에 對하여 全 責任을 負擔하라고 攻駁.
	○ 美 第5空軍 多數의 敵 車輛부대가 夜間에 한만국경으로부터 西部 및 中部로 移動하고 있다고 發表.		○ 共産側 同멧세지에서 「릿」장군의 會談場所변경 제안에 言及하여 이는 會談을 中斷시키려는 口實에 지나지 않는다고 非難.
	休戰會談		**政 治**
	○ 共産軍側, 10日 早朝에 UN軍機가 再次 開城 中立지대에서 銃擊을 하였다고 非難, 同事件에 대한 UN軍機 관련 부인.		○ 居昌事件軍裁—申性模 前 國防長官에 대한 證人 申請을 채택하고 同氏의 出頭時까지 休廷할 것을 宣言.
	○ 共産軍首席代表, 9月 1日~8日間에 中立지대에 侵犯한 UN軍機는 139回를 UN軍機가 侵入하였다고 抗議文을 傳達.		○ 金空軍 總謀長, 記者 會見席上에서 現 韓國空軍에 賦與된 任務에 言及하고 韓國空軍의 質的 優秀性을 強調.
	政 治	**9월 12일**	**軍 事**
	○ 「맨」司令官, 大統領禮訪.		○ 東部山岳지대에서 苛烈한 戰鬪 계속 共産軍 抵抗 猛烈.
	○ 國會 24日까의 休會.		○ 杆城西方에서 敵 大隊를 驅逐하고 高地 탈환.
	○ 居昌事件 高等軍法會議 續開, 當時 憲兵副司令官 金宗元大領을 추가 기소.		○ 楊口東北方에서 敵의 猛烈한 抵抗을 排除코 目標 高地 탈환.
9월 11일	**軍 事**		○ 楊口 北西方에 敵 兵力을 증강하면서 저항.
	○ 杆城西方에서 我軍 一時 撤收한 後, 다시 強力한 反擊을 加하여 失地를 回復.		○ 金化東北方에서 地上軍과 空軍과 協同下에 敵을 攻擊코 1個 高地를 탈환.
	○ 麟蹄北方에서 終日 交戰.		○ B—29 惡天候 무릅쓰고 「진남포」敵 補給 中心地 폭격.
	○ 楊口東北方 일대 高地에 依據한 敵, 我軍 攻擊에 對하여 頑強히 抵抗.		○ 夜間 폭격기대 鐵道車輛 100臺 以上과 機關車 5輛 擊破.
	○ 平康南方의 高地를 계속 攻擊中이던 美第25師團, 2個 高地 탈환 共産軍 遺棄屍體 367名.		**休戰會談**
	休戰會談		
	○ UN軍司令部, 10日早朝 美軍機의 開城 誤射 事件을 認定.		

월 일	중 요 사 항
	○ 北京放送 6日附 「딧」將軍의 會談地 變更 要請에 對하여 共產軍司令官의 回答聲明에서 「딧」 將軍의 同提案은 전연 만족할 수도 없고 수락할 수도 없다고 하였음.
	○ UN軍總司令部, 開城上空 飛行制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協定도 없다고 공산측 비난에 反駁.
	政 治
	○ 國務會議 一線 UN將兵의 休息을 위해 東來에 「호텔」 設置 決定.
	○ 渡美 留學生 250名, 美步學校 및 砲兵學校에서 被敎育次 釜山港 出港.
9월 13일	軍 事
	○ 麟蹄北方 盆地東北 高地를 攻擊한 UN軍부대, 敵의 猛烈한 抵抗으로 一時 進擊停頓 我軍 同地方에서 一個 高地 탈환.
	○ 楊口東方 및 東北方에서 我軍 攻擊에 敵 頑強히 抵抗.
	○ 我軍 金化지구에서 1個 山頂과 周邊 丘陵線 7個所 탈환.
	○ 金化지구의 共產軍 抵抗 5日間에 걸친 UN軍의 猛烈한 攻擊을 받고 突然 弱化.
	○ 平康南北方 高地에서 撤收.
	○ 連川西方에서 UN空軍 「네이팜」彈으로 「탱크」 攻擊.
	政 治
	○ 全羅南北 및 慶南 警察局長 連席會議개최, 智異山 共匪 소탕에 대한 특별 조치를 강구.
9월 14일	軍 事
	○ 金城以東 戰線, 攻防戰 如前히 熾熱.
	○ 杆城西北 方高地에서 敵 1個 聯隊와 終日 交戰.
	○ 土耳 및 「에치오피아」부대 東部戰線에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
	○ 麟蹄北方에서 美第1海兵師團 1個 高地를 占領, 同 地區의 別個 高地 苦戰끝에 擊退.
	○ 西部戰線에서 UN空軍機 및 砲兵 서울北方 35哩 지점에서 발견된 敵戰車 8臺中 3臺 擊破.
	○ B—29 夜間에 新義州부근 3個 조차장 폭격.
	○ 美第5空軍 소속기, 공산군 철도 시설에 對한 攻擊.
	○ 在韓 土耳其軍 聯隊長「셀말·도라」大領에게 銀星勳章 授與.
	○ 李大統領 國防部長官을 帶同하고 前線 國軍 訓練基地를 시찰.
	○ 在韓 UN空軍司令官「에버레스트」少將 言明, 『萬若 共產軍이 大大的으로 攻擊을 開始하여 온다면 美空軍機는 滿洲로 出動케 한다』고.
	政 治
	○ 慶北地方이 旱魃로 秋穀 수확고는 53%의 減收로 100萬石에도 達하지 못할 것이라고 豫想.
9월 15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白兵戰.
	○ 杆城北方 主要 高地上의 頑強한 敵과 熾烈한 交戰.
	○ 楊口北方 戰線傾斜에서 戰鬪 계속 熾烈.

월 일	중 요 사 항
	○ 楊口東北方에서 夜半의 敵을 攻擊擊退.
	○ 金化西北方에서 肉迫戰으로 高地 탈환.
	○ 金化東北方에서 敵 夜半의 砲火掩護下에 攻擊시도.
	○ UN空軍, 夜間에 敵의 鐵道 施設 및 補給부대를 猛攻.
	○ 昨 14日 陜川 및 三嘉文置를 습격하고 占領한 共匪를 軍警 合同 총반격으로 擊滅.
9월 16일	**軍 事**
	○ 楊口지구에서 終日 苛烈한 白兵戰 展開.
	○ 楊口北方에서 敵의 反擊擊退.
	○ 金城南方 高地上의 堅固한 陣地에 依據하여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驅逐하고 同 高地 탈환.
	○ 西部戰線 敵 活動 增加.
	○ UN艦隊 東海岸 高城北方의 元山 城津 및 西海岸 鎭南浦西南지구 포격.
	○ 韓國海軍 東海岸 金南里 敵陣에 砲擊.
	○ 韓國空軍, 江陵飛行場 擴張.
	政 治
	○ 全南道에 光州 綜合大學 設置를 推進中.
9월 17일	**軍 事**
	○ 麟蹄北方 盆지대의 北北 東 昭陽江 溪谷에서 UN軍 8哩 進出코 重要高地 奪還.
	○ 楊口北方 戰線南端에서 敵 未明에 砲火의 支援을 받고 來襲 終日 猛烈한 戰鬪 繼續.
	○ 東海岸 海域에서 活動中이던 美驅逐艦「퍼—킨스」號, 敵 進擊 砲彈에 被彈이로써 韓國에서 破損된 UN 艦艇은 回에 26隻.
	○ 美第5空軍, 韓國戰亂 勃發以來 第5空軍 所屬機의 出擊 回數는 近 20萬回 達한다고 發表.
	○ 空軍第1戰鬪飛行團 江陵前進基地로 推進開始.
	休戰會談
	○「릿」將軍 會談의 再開를 提案 板門店에서 兩側 連絡將校會議를 開催하여 休戰會談 再開에 雙方이 滿足할 諸條件을 檢討할 用意가 있다고 通告.
	政 治
	○ 金商工部長官 國內 製紙工業의 唯一한 原料인 襤類의 一切 輸出 禁止에 關하여 談話發表.
	○ 前管財廳長 敵産家屋의 不當 利權化에 關하여 惡德 家主는 解約 逐出한다고 警告.
9월 18일	**軍 事**
	○ 東部 및 中東部戰鬪 依然 繼續, UN軍 敵 防衛線에 對하여 火焰放射器로 攻擊.
	○ 杆城西方 占領 高地에서 我軍, 敢敵을 掃蕩코 敵의 反擊을 擊退.
	○ 麟蹄北方 盆地 西西北方 高地 堅壘에 蟠居하여 抵抗하는 敵을 驅逐.
	○ 前日 奪還한 麟蹄北方 高地上의 陣地를 強化코 敵의 反擊을 擊退.
	○ UN軍, 長時間 攻擊끝에 楊口北方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斷腸의 稜線」上의 主要 山峰을 奪還.		號 元山港에 集中 砲火.
	○ 第7師團3聯隊 楊口北方 「883高地 탈환에 果敢한 肉迫突擊.		○ 彼我「제트」機 112臺, 空中戰, 共産軍機 1臺 擊破, 5臺 損害.
	休戰會談		○ UN軍 폭격기隊 淸川江 木造浦助橋梁을 폭격.
	○ UN軍司令部, 休戰會談 再開에 관한 軍側 立場을 再次 闡明.		○ UN空軍 戰爆機隊 北韓 各地 鐵道施設 및 道路網을 攻擊.
	○ 共産軍代表—UN軍 兵士 4名이 板門부근에서 中立地帶를 侵犯하였다고 無電으로 通報 明 19日 午前 9時 板門店에서 連絡將校會合을 要求한다고 아울러 通告.		**休戰會談**
			○ 總司令部 發表 4名의 非武裝 韓國軍衛生兵이 中立지대 外邊部에 과오로 侵入 共産軍 檢門所에 逮捕되었으나 19日아침 UN軍 조사단의 調査完了後 釋放되었다고 發表.
	政 治		○ 共産軍側, 20日 午前 6時 板門店에서 兩側 연락장교의 會見을 要請.
	○ 崔保健部長官 記者會見談 世界保健機構 西太平洋 지구회의에 관하여 韓國으로서는, 各種 保健事業을 爲한 技術的, 物的 援助를 要請한다고.		**政 治**
	○ 서울特別市, CAL當局, 生必品 搬入을 正式으로 許可.		○ 卞外務部長官 記者會見談 韓國政府는 日本과의 對獨 講和를 推進시킬 意思를 가지고 있다고 言明.
9월 19일	**軍 事**		○ 金交通部長官, 第2次大戰 末期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回航된 約 百隻의 船舶의 韓國返還이 總司令部로부터 認可되었다고 發表.
	○ 共産軍 東部戰線에서 反擊, 昨週 UN軍이 奪還한 數個 高地 다시 占領.		
	○ 杆城西方 UN軍陣地에 대하여 共産軍 反擊, 我軍陣地 확보코 敵을 擊退.		
	○ 鱗路北方 盆地대에서 我軍부대 敵 高地 攻擊에 不成功.	9월 20일	**軍 事**
	○ 共産軍, 我軍이 占領한 斷腸의 稜線 山峰에 대하여 猛烈한 反擊, 我軍 不得已 撤收.		○ 杆城西方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楊口東方 高地上의 我軍부대 未明에 敵의 猛烈한 攻擊으로 一時 철수하였으나 다시 奪還.
	○ UN軍 楊口北方 및 西北方에서 若干 撤收.		○ 楊口西北方 및 北方지구에서 終日 激戰 展開 敵 頑強히 抵抗.
	○ 鐵原西北方에서 我軍 機動부대 敵의 頑強한 抵抗을 粉碎코 目標地에 肉迫.		○ 金城東南보에서 敵의 強力한 抵抗 擊退.
	○ 美第95機動艦隊 重巡洋艦 「볼레도」		○ UN軍「시콜스키·헬리콜터」機隊(21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臺) 美海兵隊 1個中隊를 東部戰線 山岳地帶에 輸送.		③ UN 監視下의 北韓, 自由선거 實施.
	○ 新安州西方 上空에서 空中戰, MIG-15「제트」機 2臺 損害.		④ 休戰會談의 時間的 制限 부여.
	○ UN軍 戰鬪機隊 및 爆擊機隊, 北韓鐵道 및 道路上의 敵 輸送車輛부대를 공격.		○「맨」司令官「무—쵸」大使 同途 李大統領을 禮訪.
	○ 9월20일 현재.		○ 白文敎部長官, 學制改編 및 思想指導院 新設에 관하여 기자 회견 談.
	敵軍 損害, 1.324,598名		○ 社會部長官, 피난민 入住문제에 관하여 惡德 家主는 嚴罰하겠다고 警告.
	(美國防省發表)	9월 21일	軍 事
	北共軍 663,107名		○ 杆城西方 高地에서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反擊코 完全 奪還.
	戰死傷 408,759名		○ 漣川北方에서 我軍 20哩 前進.
	非戰死傷 107,396名		○ 楊口東北方 高地上의 敵 저항 계속.
	捕 虜 146,951名		○ 楊口西北方에서 終日交戰.
	中共軍 661,851名		○ 金城東南方 高地上에서 敵과 夜半에 이르기까지 격전.
	戰 死 傷 542,864名		○ 鐵原北方에서 목표고지 탈환.
	非戰死傷 101,023名		○ UN軍 混成戰車부대, 鐵의 三角지대 北方 平康南方 및 金化東北方으로 蹂進 敵의 頑強한 抵抗에 遭遇 夜間에 撤收.
	捕 虜 17,963名		○ 東部戰線 2個 處에서 北共軍, 2個大隊 同時에 集團 投降.
	○ 6月 20日—9月 20日間		○ UN空軍 F-80「제트」機隊, 敵 戰車擊破 5臺, 破損 3臺.
	敵 MIG機의 驅逐破數 56臺, 同 期間中 共產軍 地上부대에 의한 UN空軍機의 墜落數 55臺(美極東空軍發表).		○ 第77機動艦隊 계속해서 明川—元山의 補給路를 砲擊破.
	休戰會談		政 治
	○ 共產軍司令官, 兩側 연락장교會見을 통하여 覺書를 傳達 會談再開 條件의 討議없이 即時 開城에서 兩側代 表가 會談을 再開할 것을 提議.		○ 海軍 當局, 釜山부두 保安行政事務를 釜山鐵道警察隊에 移讓.
	政 治	9월 22일	軍 事
	○ 李大統領 休戰會談再開에 관하여 重大聲明—韓國 政府는 다음 4個項目의 條件下에서 會談이 再開될 것을 要求.		
	① 中共軍의 韓國 撤退.		
	② 北共軍의 武裝 解除.		

월 일	중 요 사 항
	○ 楊口東北方 山岳지대에서 敵의 攻擊試圖를 擊退.
	○ 楊口北方「斷腸의 稜線」最高 山峰에 대하여 攻擊敢行, 敵 激烈한 抵抗계속.
	○ 金城東南方 高地에서 我軍부대 未明에 敵 3個 中隊의 猛烈한 抵抗으로 一時 撤收하였으나 다시 反擊을 加하여 同 高地를 奪還 射殺 367名.
	○ 漣川北方 및 西北에서도 敵 反擊을 擊退.
	○ 美第5空軍 F-86「세트」機 34臺, 西北韓 上空에서 MIG「젯트」機 85臺와 空中戰一敵機 3臺 破損.
	○ 我空軍부대 계속하여 夜間에 敵 補給車輛부대를 攻擊.
	○ 李大統領, 空軍 第1戰鬪 飛行團을 視察.
	政 治
	○ 商工部, 小溪谷 水力發電所 新設計劃 推進코 現地 調査班 派遣.
9월 23일	軍 事
	○ 美重砲隊, 麟蹄北方 盆地일대 高地에서 敵의 反擊을 邀擊.
	○ 步兵부대, 苛烈한 戰鬪後 楊口北方「斷腸의 稜線」上 主峯을 탈환코 敵의 反擊을 擊退.
	○ 楊口西北方 高地上의 敵 大隊 終日 頑強히 抵抗.
	○ 金城東南方 지역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코 敵 中隊와 終日 交戰.
	○ 漣川西北方에서 戰鬪.
	○ UN海軍 機動艦隊, 城津, 元山 一帶의 敵砲臺, 鐵道 交叉點, 港灣 施設等 砲擊.
	○ 敵機 3臺, 未明에 金浦飛行場에 來襲코 폭탄 2個 投下, 我軍 夜間戰爆機, 延安 근처에서 그 1臺를 擊墜.
	○ 駐韓 瑞典野戰病院隊 韓國出陣 一週年 祝賀.
	休戰會談
	○「릿」將軍, 共產軍側에 回答하고 會談 再開에 同意—24日 午前 10時 板門店에서 連絡將校會議를 개최하고 休戰會談 再開에 必要한 諸條件을 討議할 것을 要請.
	政 治
	○ 陸軍兵站學校 修了式 擧行.
	○ UN救護物資 原棉 1萬8百包, 兒童服 2,100箱子, 雜類 4,000屯等 入荷.
9월 24일	軍 事
	○ 杆城西方 지역에서 8次에 걸친 敵의 探索, 攻擊을 擊退.
	○ 麟蹄北方·盆地南北方 高地에서 敵의 계속적인 反擊을 擊退.
	○ 楊口北方「斷腸의 稜線」高地 奪還戰 激烈, 大隊 乃至 聯隊 兵力의 北韓傀儡軍, 手榴彈 彈幕의 掩護下에 前進하여 다시 同 稜線 主峰 占領.
	○ 楊口西北方 高地에서도 猛烈한 戰鬪 反覆.
	○ 金城東南方 高地에서도 交戰 계속.
	○ 西部戰線일대 比較的 平隱.
	○ 海軍 驅逐艦「鴨綠」號 東海岸 金南里 庫底부근, 敵陣을 猛砲擊 後 共產軍 大口徑砲에 被彈.

월 일	중 요 사 항
	○ 空軍부대 夜間에 順安 龍川 操車場 및 北韓 各 道路上에 敵 輸送부대 공격.
	○ 美第8軍司令部 發表—8月 18日 以來 主로 會談中止 期間中의 共産軍 損害—死傷 58,000名, 捕虜 2,800名.
	○ 中東部戰線 金日成 高地 奪還에 偉勳을 세운 海兵제8100부대 吳小尉以下 15名이 銀·銅星勳章을 受領.
	休戰會談
	○ 共産軍司令官, 北京放送을 通하여 「릿」將軍의 23日字 提案에 回答—24日의 連絡將校會議는 會談 再開의 日時의 協議에 局限할 것을 主張.
	○ UN軍 연락장교 「키너」대령, 개성에서 공산군측 연락장교 張六領과 會見—「키너」대령 會談 再開에 관한 「릿」장군의 覺書를 공산측에 수교하고 회담장소 변경을 요구.
	政 治
	○ 國軍 落伍兵의 自首期間을 10月 1日—15日로 定하고 이 기간중 落伍 理由 不問코 寬大히 待遇한다고 發表.
	○ 第15次 「헬싱키」「올림픽」大會 正式 招請狀을 大韓 體育會에서 接受.
	○ 交通部 北韓地域(連川—鐵原 鐵原—金化間) 復舊次 現地 조사단 파견.
9월 25일	**軍 事**
	○ 東部山岳戰鬪 계속.
	○ 楊口北方「斷腸의 稜線」에서 韓, 美, 佛軍隊, 相互 協助하여 勇戰, 熾烈한 交戰 後, 同 稜線西部에 있는 1個 高地를 奪還.
	○ 美步兵第23聯隊 連 25日째 「斷腸의 稜線」에서 奮戰.
	○ 美戰艦 「뉴—저시」號 巨砲 高城南方 共産軍 陣地를 砲擊.
	○ 西北韓 上空 「MIG通路」에서 彼我 「제트」機隊 35分間에 걸친 空中戰—敵機 5臺 擊墜, 15臺 擊破損.
	○ 美封鎖 및 警護艦隊司令官 「다이아」少將, 美極東艦隊司令官 命에 의하여 美驅逐艦 2隻을 韓國 해군에 양도한다고 宣布.
	○ 李大統領, 美巡洋艦 ○○○號 觀察, UN軍封鎖 警護艦隊參謀長 「죠셉·파렐」대령등 美 海軍 將校 3名에 武功勳章 授與.
	休戰會談
	○ 第 2次 연락장교會議—UN軍 연락장교, 雙方의 連絡將校는 會談 再開의 條件을 討議할 權限을 委任되어야 한다고 提案. 共産軍 연락장교, 此提案을 拒否코 會議를 中止하여 退場.
	政 治
	○ 國會 再開(15日間 休會 마치고).
	○ 臨時 土地收得稅法 및 國民醫療法 公布.
9월 26일	**軍 事**
	○ 楊口 北方과 東北方지구에서 大隊兵力에 이르는 敵과 數個所에서 交戰.
	○ 楊口 北西北方 高地上의 敵 大隊를 擊退코 同 高地 탈환.
	○ 金城東南方에서 계속 交戰.
	○ 美·英 兩 空軍「제트」機 101臺, 敵 MIG15 「제트」機 155臺와 西北韓 上空에

월 일	중 요 사 항
	서 4回에 걸친 交戰. 韓國戰亂 以來 最大 空中戰 展開 敵機 損害는 擊破 12臺, 擊墜(不確實) 2臺.
	○ UN空軍機隊, 共產軍 道路 및 鐵道 補給路를 猛攻 車輛 900臺를 擊破.
	休戰會談
	○ 兩側 連絡將校會見—共產軍側, 27日 兩側 代表團이 休戰會談을 即時 再開할 것을 提案	UN軍 연락장교會談 再開에 雙方이 滿足할 條件을 討議할 訓令만을 받고 있다고 回答.
	政 治
	○ 李公報處長, 戰時下 言論人의 重責을 強調코 一部 惡質 記者에 대하여 嚴重 警告.
9월 27일	**軍 事**
	○ 東部 및 中部戰線 各處에서 敵 反擊
	○ 麟路北方 盆地지대의 北方에서 敵 數回 偵察 攻擊.
	○ 敵. 楊口東北方에서 UN軍부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攻擊.
	○ 楊口北方 「斷腸의 稜線」에서 共產軍 執拗히 高地를 固守코 UN軍부대에 砲擊集中.
	○ 鐵原北方 및 西方에서 敵 反擊 終日 戰鬪 계속.
	○ UN海空軍機 「斷腸의 稜線」의 共產軍野砲 및 迫擊砲陣地 猛打.
	○ 美第 5空軍 所屬機 敵 補給路를 攻擊
	○ 北韓 上空에서 彼我「제트」機隊 連3日째 空中戰 展開, 3日間에 敵 MIG「제트」機 擊墜 確實 5臺 未確認 2臺.
	休戰會談
	○ 「딘」將軍, 共產軍司令官에 벤세지 傳達休戰會談을 松賢里(開城東 南方 12.8粁)에서 再開하고 中立保障문제의 토의에 계속하여 議題 第2項(軍事境界線문제)의 토의를 속행할 것을 提案.
	政 治
	○ 李大統領, 國民保健의 見地에서 玄米食의 愛用을 國民에게 勸奬.
9월 28일	**軍 事**
	' 杆城北西北方에서 敵 中隊兵力의 抵抗을 물리치고 目標 高地 2個所를 奪還.
	○ 楊口東北方 山岳지대에서는 散發的으로 輕微한 交戰.
	○ 楊口東西北方에서 未明에 敵의 攻擊으로 若干 撤收한 我軍, 다시 攻擊을 展開하여 猛烈한 手榴彈戰 계속.
	○ 金城東南方 高地上에 我軍부대, 未明에 敵 2個 大隊의 壓力으로 一旦 撤收한 後 다시 強力한 攻擊을 加하여 同高地탈환.
	○ 9月 22—28日間 全戰線에서 敵 1,013名을 殺傷.
	政 治
	○ 第1回 陸海空戰沒將兵 合同 慰靈祭, 李大統領 以下 內外貴賓 參席裡에 東萊 步兵學校 校庭에서 嚴修.
	○ 國務院公告 壯丁 召集에 관한건, 公布 滿19才以上 25才 以下의 第2國民兵을 10月 1日부터 召集.
	○ 北共 中央通信社, UN軍의 開城中立지대 侵犯사건을 反復非難 共產軍司

월 일	중 요 사 항
	令官의 會談 再開 後 中立保障 機構 設置 提案을 支持한다고 強調.
9월 29일	軍 事
	○ 楊口北方에서 兵力을 계속 增強하고 抵抗하는 敵 聯隊의 反擊으로 若干 撤收.
	○ 楊口西北方에서 敵을 攻擊中인 我軍 부대, 終日토록 猛烈한 戰鬪를 계속하고 戰線에 肉迫中.
	○ 金城東南方 계속 交戰.
	○ 鐵原西方 3個 山峰을 中心으로 하는 高地爭奪戰에서 UN軍 그 中 2個 掌握.
	○ 高浪浦北方과 西北方의 5個所에서 小接戰.
	○ UN 海軍艦隊, 北韓 東西海岸의 共産軍 交通 中心地를 砲擊.
	政 治
	○ 保健部次官 言明, 各道에 13個所의 衛生試驗所를 再建하게 되었다고.
	○ 서울大學校 第4回 卒業式 擧行.
	○ 釜山市 壯丁 召集 成績 26% 洪兵事區司令官, 不參者의 再審査 出頭를 要望코 再次 不出 頭時의 嚴重處斷 경고.
9월 30일	軍 事
	○ 楊口東北方에서 敵 抵抗.
	○ 楊口西北方 「斷腸의 稜線」 西部高地에서 韓國軍 熾烈한 白兵戰끝에 山頂을 掌握.
	○ 金城東南方에서 계속 抵抗中이던 約 2個大隊의 敵을 完全히 擊退.
	○ 金城東 南方高地 일대에서 國軍부대 27日~30日間에 敵 1,466名을 射殺 18名을 生捕.
	○ 鐵原 西方高地爭奪戰, UN軍 步兵부대, 火焰放射器의 支援을 받어 第3山峯을 強襲코 이를 탈환.
	○ 英國「노포크」大隊 釜山港 到着.
	○ 我空軍, 夜間에 新義州 平壤, 元山, 平康등지에서 敵 車輛부대를 攻擊코 430臺 以上을 擊破.
	○ 「밴」司令官 言明, UN軍은 5月 25日부터 9月25日까지 地上에서만 敵 188,000餘名을 殺傷하였다고.
	○ 「밴」司令官言明, 第8軍은 9月 25日로써 局限된 目的을 가진 夏季攻勢를 종결시키고 秋期攻勢를 開始하였다고.
	政 治
	○ 駐美梁大使 UN軍 貸上金에 대한 美國側 償還通告를 政府에 報告.
	○ 陸軍工兵學校 第2回 工兵士官候補生 卒業式 擧行.
10월 1일	軍 事
	○ 「斷腸의 稜線」에 대한 敵의 攻擊을 擊退.
	○ 國軍, 3日間에 걸친 爭奪戰 後, 楊口西北方에서 1個 高地를 탈환.
	○ 鐵原西方에서 我軍부대 局限된 前進을 계속.
	○ 高浪浦北方에서 5回에 걸쳐 短時間 戰鬪 展開.
	○ F-86「제트」機 27臺 新安州 上空에서 敵 MIG 約 40臺와 空中戰, 敵機 擊墜 1臺 破損 3臺.
	○ B-29 成川 補助鐵橋 및 鎭南浦 船渠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구역 폭격.		**政 治**
	○「브랫드리」美合同參謀會議 議長, 「릿」司令官 帶同코 韓國戰線 視察.		○ 李大統領「브랫드리」元帥와 要談.
	○ 總司令部發表, 共產軍側이 中斷되고 있는 休戰會談을 決裂시킨다 하드래도 美 第8軍은 韓國에서 攻勢로 나갈 態勢와 準備를 保持하고 있다고.		○ 慶南兵事區司令部管下 第3次 第2國民兵 召集 成績 70%로 依然 不良.
	○ 總司令部, 伊太利政府는 衛生부대의 한국 파견을 計劃하고 있다고 發表.	10월 3일	**軍 事**
	○ 美 極東空軍 發表, 9月中에 極東空軍이 擊破 或은 破損시킨 敵 車輛數는 15,900輛 以上, 그 中에는 機關車 113臺, 鐵道 車輛 3,500輛을 包含.		○ UN軍 西部戰線에서 第1師 美第1機甲師團 美 第3師團, 美 第25師團 및 英聯邦師團을 包含한 6個 師團 一齊 前進.
	○ 韓國空軍 第1戰鬪飛行團 江陵前進基地 推進 完了.		○ 英聯邦軍소속 高浪浦 東北方에서 數次에 걸쳐 中共軍과 熾烈한 白兵戰을 展開.
	政 治		○ 5個 師團의 UN軍 高浪浦로부터 鐵原에 이르는 幅 51粁戰線에서 制限된 攻擊을 開始.
	○ 財務當局, 金融機關 整備 統合案을 銳意急 研究中.		○ 美戰艦「뉴—저지」號 高城南方의 共產軍陣地를 砲擊.
	○ 大韓 新聞協會 發起會 開催.		○ B-29 淸川江 補助鐵橋를 폭격.
	○ 金 서울特別市長, 市民證 更新 發給에 關하여 談話發表.		○ F-86「제트」機 12臺, 北韓 上空에서 敵 MIG 2臺를 파괴하고 1臺를 파손,
10월 2일	**軍 事**		○ 美國防省 發表, 韓國戰線에서 美軍 死傷者 總數는 87,600名 昨週 發表에 比하여 2,181名의 증가.
	○ 數百門의 UN軍砲, 高浪浦西北 方高地帶에 共產軍에 대하여 猛烈한 彈幕射擊을 開始.		○ 開城 休戰會談 UN軍 代表「호지스」少將 第8軍副司令官에 任命.
	○ MIG 通路에서 彼我「제트」機 193臺, 2回에 걸쳐 空中戰 展開, 敵機 6臺乃至 7臺를 擊墜.		**休戰會談**
	○ B-29編隊, 順川鐵橋를 爆擊.		○ 共產軍司令官 9月 27日附 「릿」將軍의 提案에 回答 松賢里에서의 會談 再開를 拒否 開城에서 即時 會談을 再開하고 中立問題에 關한 嚴格한 協定을 規定할 것을 提案.
	○ 美 軍事當局 發表, 10月 2日現在, 韓國戰線에서의 共產軍 死傷者數는 1,346,723名 最近 12日間에 21,767名 增加.		**政 治**
			○ 陸軍 軍醫學校 修了式.

월 일	중 요 사 항
	○ 造幣公社 創業式 擧行.
	○ 平壤放送 中斷되고 있는 休戰會談의 成攻은 會談場所에 있다기보다 美國側 誠意 如何에 달려 있다고.
10월 4일	軍 事
	○ 楊口北方「斷腸의 稜線」陣地에 敵 猛烈한 射擊계속.
	○ 金城東南方에서 攻擊을 試圖하는 敵 中隊를 擊退.
	○ 鐵原西方의 我軍부대 敵의 反擊을 받고 一時 撤收.
	○ 漣川北西方에서 敵의 反擊으로 若干 撤收.
	○ 英聯邦軍 漣川西方에서 敵 抵抗을 排制하고 目標高地를 탈환.
	○ 泰國軍 新步兵부대, 西部戰線에 出動코 中共軍과 첫 戰鬪.
	○ UN空軍機「斷腸의 稜線」지구 猛擊.
	○ 美 第5空軍機 地上友軍 掩護에 猛活躍.
	休戰會談
	○「릿」總司令官 共產軍側 멧세—지에 即答, 開城에서의 會談 再開를 再次 拒否 兩軍 戰線 中間의 適當한 場所에서 會談을 再開할 것을 提案.
	政 治
	○ 李成錄司令官, 民間人 武器 所持 禁止에 관한 布告文을 告示.
	○ UN 韓國再建局次長「럭키」鄕 釜山發 向「쥬네—브」出發에 앞서 荒廢한 韓國 經濟상태를 正常的 軌道에 오르게 할 本局의 全面的 事業은 그리 멀지 않다고 言明.

월 일	중 요 사 항
10월 5일	軍 事
	○ 西部戰線에서 UN軍 4日間에 걸친 攻擊끝에 3哩~4哩 前進코 有利한 防衛線을 掌握.
	○ UN軍 探索隊 高城에 入城 探索.
	○ 約 3個大隊의 共產軍, 未明에 鐵原 지구에서 我戰線을 突破코져 一連의 反擊을 敢行.
	○ 中部 및 中西部戰線에 있어서의 共產軍의 抵抗 弱化.
	○ 美 第3師團步兵부대 鐵原西方의 1個 戰略的 高地를 占領.
	○ 美 第3師團 步兵부대 鐵原北方의 中共軍 防衛線을 突破.
	○ 美 第1機甲師團, 漣川北北西方에서 中共軍의 猛烈한 攻擊을 擊退.
	○ 漣川 西方의 一部지점에서 若干 撤收.
	○ UN軍 機動砲隊 興南을 盛砲射擊.
	○ 美空軍「제트」機 38臺 共產軍「제트」機 98臺와 西北韓 上空에서 2回에 걸쳐 空中戰, 敵 MIG-15「제트」機 1臺 擊墜, 1臺 擊破.
	○ B-29 六同江 鐵橋 폭격.
	○ 9月 29日~10月 5日間에 我軍부대 全戰線에 걸쳐 敵 11,520名을 殺傷 포로.
	政 治
	○ 李大統領. 陸軍綜合學校 視察.
	○ 文敎部, 越南 學令者 對策을 發表.
	○ 泰國軍 交代兵 1,000名 離韓.
	○ 泰國 陸海軍軍 醫務監, 各 病院및 一線을 4日間에 걸쳐 시찰완료.

월 일	중 요 사 항
10월 6일	軍 事
	○ 5일 「斷腸의 稜線」 攻擊개시.
	○ 美·佛 兩軍부대 火焰放射器 및 銃劍으로 「斷腸의 稜線」上 最高峰을 完全 占領.
	○ 美 第1機甲師團 및 希軍. 漣川北方에서 中共軍의 強力한 反擊을 擊退.
	○ 美海軍, 城律의 敵 操車場, 砲臺 및 교량 등 포격.
	○ UN軍機 100臺 以上과 共產軍機 150臺와 3回에 걸쳐 空中戰 1臺 격추 1臺 파손.
	政 治
	○ 曺奉岩議員등 地方自治團體의 선거를 무速히 실시할 것을 捉求하는 긴급결의안 提出.
10월 7일	軍 事
	○ 楊口 北西方과 北方지역 일대의 山岳지대에서 攻擊中인 我軍부대 大隊兵力의 敵과 終日 交戰.
	○ 楊口 北方 1個 高地 탈환.
	○ 共產軍, 漣川北西北方에서 새로히 연합군이 탈환한 高地를 向하여 約 4,000發 맹열 砲擊.
	○ 美「트」大統領 去 9月 1日 夜間 金城지구 734高地 (金日城高地) 防禦線에서 勇戰敢鬪한 제2사단 제32연대 제7중대에 대하여 表彰狀 授與.
	休戰會談
	○ 共產軍司令官, 10月 4日附 「릿」將軍의 멧세지에 回答, 新會談場으로 板門店을 提示 다시 中立區域을 開城과 汶山을 包含한 矩形지구로 擴張하고 會談을 即時 再開할 것을 提案.
	政 治
	○ 慶南 警察局, 非常警備司令部를 晋州에 移動.
10월 8일	軍 事
	○ 國軍. 麟蹄北方 盆地帶西北方에있는 高地로부터 北傀共軍을 擊退.
	○ 楊口北方 「斷腸의 稜線」 및 西北方 「金日成 稜線」에서 敵의 치열한 攻擊을 물리치고 稜線확보에 努力.
	○ 「金日成 稜線」에서 戰鬪치열 美第2師團 38聯隊, 共產軍의 맹열한 反擊을 擊退하고 戰略的 高地 탈환.
	○ B-29 成川 鐵橋 폭격.
	○ UN空軍機, 地上軍 支援 作戰에서 約 430名 殺傷.
	○ 2師 32연대 G中隊에 「릿」장군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 2,200噸級의 美驅逐艦 2隻 韓國海軍에 讓受.
	休戰會談
	○ 「릿」총사령관, 共產軍에 回答 休戰會談을 板門店에서 再開하려는 共產側 提案을 同意, 中立지대 擴大 제안에 관하여 開城·汶山으로부터 板門店에 이르는 도로를 포함하여 新會談地 주변의 小地帶에 局限할 見解 表明.
	政 治
	○ 國會, 後方治安 確保를 위하여 完全武裝 國軍 1個 師團의 配置를 政府에 건의코, 이에 수반하는 戰線兵力 배치

월 일	중 요 사 항
	변동에 對한 양해를 「밴」將軍에게 要請.
	○ 京釜線 「다이야」 改正 來 11日부터 韓國軍人 專用運行.
10월 9일	軍 事
	○ 楊口北西北과 北方에서 終日토록 激戰 展開.
	○ 「金日成 稜線」上에서 美 第2師 38연대 中共軍과 白兵戰.
	○ 漣川西北方 終日 激戰.
	○ 我空軍부대 元山에서 油類貯藏所 1個所 攻擊 炎上.
	○ 陸海空軍 政訓監會議 釜山에서 開催.
	政 治
	○ 國務會議. 第6次 UN總會 파견 代表를 選出, 首席대표에 張勉 國務總理.
	○ 8月下旬 「스톡홀름」에서 開催된 UN協會 世界聯盟 第6次 總會에 韓國代表로 參席한 鄭一亨 및 金龍周 兩氏 歸國.
10월 10일	軍 事
	○ 我軍 戰車부대 楊口 北方 경곡을 8哩 進出코 共產軍 占領地域 急襲.
	○ 楊口 北方高地 2個 奪還.
	○ B-29 平壤飛行場 爆擊.
	○ 美國防省發表—共產軍 損害 10日 現在로 1,373,000名 比前週 26,000名 증가. 美軍 死傷者 총수는 89,382名 作週에 比하여 1,732名 증가.
	○ 「웨이랜드」 美極東空軍司令 官言明—UN空軍은 過却 3個月半 동안 敵機關車 50臺, 「추럭」 11 500臺, 補給

월 일	중 요 사 항
	物資 30.000屯을 破壞하고 機關車 110臺, 貨車 5.100臺, 추럭 1.9000 損害를 주었다.
	休戰會談
	○ UN軍 連絡장교, 板門店에서 共產軍 連絡將校와 會見, 板門店南方 砂川橋 부근을 調査코 新會談場을 討議.
	政 治
	○ 國防部, 軍事援護事務를 憲兵監室로부터 兵事區 司令部로 移管.
10월 11일	軍 事
	○ 美 第1海兵師團 鐵踏지구에서 完全武裝한 1個 大隊 「헬리콥터」로 輸送.
	○ 美 第2師戰車부대 「斷腸의 稜線」 西方 溪谷을 거쳐 文登里까지 到達코, 同 계곡의 共產軍陣地를 席捲한 다음 귀환.
	○ 「斷腸의 稜線」 西方지구 產業高地 탈환.
	○ 韓國空軍, 江陵지구 戰鬪飛行戰隊, 陸軍 第1軍團에 대한 空中支援作戰 開始.
	○ 美極東空軍機의 11日의 出擊 回數는 延 1,045機로 去 6月 25日 以來 最高記錄.
	○ 「밴」將軍 英聯邦 第1師團을 表彰.
	休戰會談
	○ UN 共產 兩軍, 연락장교회의 속개.
	○ 休戰會談 UN軍代表 李亨根 少將 記者會見談, 休戰會談이 實現된다 하여도 이는 國際聯合의 確實한 約束과 UN軍의 戰略下에서 行하여지는 것이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라고,		행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言明.
	政 治	10월13일	軍 事
	○ 華府에서 開催될 「UN DAY」에 參加할 韓國 空軍代表 金成龍 大尉 出發.		○ 第2, 第6, 第8師團 및 美 第24師團, 金化西方에서 楊口西北에 걸친 戰線에서 제한된 공격개시.
	○ 財務部長官. 土地收得稅法 實施 및 UN軍 貸與金의 一部 淸算을 契機로 한 今後의 國政施策을 聞明.		○ 「斷腸의 稜線」에서 전투 계속.
10월12일	軍 事		○ 楊口西北方 6個 高地에서 敵 擊退.
	○ 高城南方에서 限定目標 攻擊한 我軍, 若干 進出.		休戰會談
	○ 美佛 兩軍부대, 月餘에 걸친 激戰끝에 「斷腸의 稜線」上의 共產軍側 最後의 據點을 탈환.		○ 李亨根代表, 韓國民은 統一을 원하고 회담의 續開를 원치 않는다고 記者會見談.
	○ 楊口 西北方의 重要 5個 高地 탈환.		政 治
	○ UN艦隊 東海岸 端川으로부터 高城에 이르는 지대를 포격.		○ 一線地區를 視察한 李國防部 長官. 記者會見談. 前線 將兵의 士氣는 旺盛하여 後方 共匪는 明春까지 掃蕩될 것이라고.
	○ F-86편대 新安州 上空 MIG 通路에서 敵 MIG 전투기 約 100臺를 捕捉코 6臺 파손 1대 파괴.		○ 全北 鐵道—南原間에서 列車피습, 共匪, 旅客 150名을 拉致코 積載 彈丸을 운반.
	休戰會談		○ 陸軍 제1801 기술공병단에서 全國 도로 개수공사 착수.
	○ 第3回 연락장교회의 속개.		
	○ 「나콜스」 UN軍側 代辯人 言明—UN 共產 兩軍 연락장교는 開城의 共產軍側 交涉本部 周邊의 非軍事 行動지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會談 再開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협정에 도달하였다고.	10월14일	軍 事
			○ 美軍 機甲師團이 確保中인 漣川北方 UN軍 陣地에 對하여 共產軍 쏘련 陸軍 標準型 182mm 「로켓트」彈을 상당한 規模로 使用.
	政 治		○ 美海軍 艦載機 城津港近方에서 共產軍을 攻擊코 300餘名을 殺傷.
	○ 國務會議, 高級料亭 및 遊興營業에 관한 措置를 決定, 高級料亭을 閉鎖코 大衆食堂으로 轉換.		○ 美세이버「제트」機 33臺와 MIG 30臺 新安州 上空에서 空中戰 MIG 3臺 機關車 5臺 擊破.
	○ 白財務部長官 通貨 팽창 억제의 新措置로서 明年度부터 月別 最高 通貨발		政 治
			○ UNCUCK 商工局 「헬서氏」 政府側

월 일	중 요 사 항
	企劃院, 外資廳, 商工, 체신 交通등 各 관계 부처 責任者 연석회의 개최—53년도(52年 7月 1日 53年 6月 30日) 부흥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 UN軍 貸與金의 一部 상환 1,200餘萬弗을 한국은행 정부 특별계정에 入金
10월15일	**軍 事**
	○ 美 第38연대, 北漢江 및 「斷腸의 稜線」間의 最高지대를 占領.
	○ 韓. 美軍 楊口西北方에서 約 6Km 進出코 4個 高地를 占領.
	○ 金城南方의 22哩에 걸친 中部戰線에서 1.5哩 進出.
	○ 中部戰線 白兵戰을 展開하여 金城부근의 敵 맹공.
	政 治
	○ 國防部 6.25戰亂 以後 軍報道 使命遂成에 獻身努力한 從軍記者 22名을 表彰.
10월16일	**軍 事**
	○ 韓國機甲부대, 東海岸 高城을 確保.
	○ UN軍 數個師團(美24師團 6師 包含) 中部戰線에서 中共軍의 反擊을 물리치고 金城南方 4哩까지 進擊.
	○ 美 第1機甲師團 漣川西北方, 臨津江北方의 中共軍陣地에 대하여 攻擊敢行.
	○ MIG通路에서 空中戰 敵機 8臺 擊破. 5臺 파손 我方 손해는 1臺.
	休戰會談
	○ UN軍 代辯人「나코르스」준장 16日의 연락장교회의에서 雙方은 지금까지의 會議에서 協定한 6個 項目의 原則을 確認하였다고 言明. ①新會談場은 板門店의 天幕內로 함. ② 新會談場 周邊 半徑 900m를 會談지구로 함. ③ 雙方代表의 會談지구 出入의 自由保障 等.
	政 治
10월17일	○ 國務會議, 大統統 直接選擧制 및 兩院制 改憲案 통과.
	軍 事
	○ UN軍부대, 金城으로부터 3哩 以內까지 進擊코 約 800名의 中共軍을 包圍.
	○ 金城으로 向하여 進擊 5日間에 UN軍의 탈환한 高地는 約 40個所.
	○ 美國防省 發表, 一在韓 美軍損害 90,735名 比 前週 1,550名 增加.
	○ 美極東空軍司令部 發表, 韓國戰 勃發以來 UN空軍의 損害失喪損失 335臺 (전투機 260臺, 爆擊機 40臺, 輸送機 6臺, 其他 29臺) 共産軍 241臺 擊破. 85臺未確認 擊墜 264臺 擊破損.
	政 治
	○ 國會, 居昌事件에 대한 證人으로 中央高等法 會議에서 再三 出頭 督促을 받고 있는 駐日 申大使를 즉시 소환하자는 對政府 건의안 可決.
	○ 卞外務部長官, 韓日豫備會談 代表決定에 대하여 談話文 發表 首席代表에 梁裕燦 駐美大使.
	○ 共匪 約 500餘名, 沃川을 습격, 死亡 141名, 重輕傷者 17名, 拉致 68名 重要 官公署 燒失 7棟.

월 일	중 요 사 항
10월18일	軍 事
	○ 杆城東北方에서 UN軍 3時間에 걸쳐 맹렬한 전투 끝에 共産軍 격퇴.
	○ 金城南方의 重要高地 1個 占領.
	○ 中共軍 맹렬한 UN軍의 공격을 받고 金城南方 3哩지점의 방어진지로부터 후퇴중.
	○ 漣川西北方에서 共産軍, 第1機甲師團에 대하여 현저히 증강된 迫擊砲火 集中.
	○ 韓國空軍 泗川飛行場 大擴張.
	○ 金 空軍總參謀長 韓國 戰鬪飛行團은 今後 獨自的인 作戰任務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記者會見談.
	政 治
	○ 李大統領, 同胞愛發揚 期間 設定에 관하여 談話 發表코 同族相愛와 相互扶助의 정신을 강조.
10월19일	軍 事
	○ 高城南方通路를 防禦中인 北共軍 소규모적인 反擊을 試圖.
	○ 共産軍「斷腸의 稜線」東方계곡에서 進出한 UN軍 전차부대에 맹렬한 砲火 集中.
	○ UN軍 先鋒부대 金城市에 對하여 西南方, 南方 및 東南東方으로부터 3面 攻擊.
	○ 機甲부대 支援을 받은 UN軍 地上부대 攻擊을 감행하여 金城市 2哩 以內에 突入.
	○ 西部전선 敵 저항 감퇴 UN軍 4方으로 장악하는 3個 高地를 탈환.
	○ UN空軍機 平壤 沙里院間鐵道 맹공.
	○ 10月 13日—19日間의 地上戰鬪에 있어서의 共産軍側 손해 戰死 22,000名, 전상자 6,000名, 포로 1,275名(8軍發表).
	政 治
	○ 國會, 戰時國民生活法案 통과.
	○ 韓日 豫備會談의 代表團 一行. 水營비행장 출발.
	○ 北傀 金日成 쏘련의 外交通商 개시 3週年 기념일에 제하여 「스타—린」에게 멧세지 전달코, 軍事원조에 謝意 表明.
10월20일	軍 事
	○ UN軍부대 金城東南方 1.5哩 지점의 2個 高地를 攻擊.
	○ UN軍부대, 昨夜 喪失한 金城市 南方主要 高地 再 탈환.
	○ UN軍 전차부대 金城市 郊外로 突入, 約 1時間 交戰後 원진지 귀환.
	○ 아군 수색대, 漣川西方에서 中隊兵力의 共産軍과 2次에 걸쳐 交戰.
	○ B-29 惡天候를 무릅쓰고 平壤비행장 폭격.
	○ 美太平洋함대 司令官 發表, 한국전이래 共産軍 機雷 又는 砲擊으로 인하여 沈沒 또는 손해받은 UN軍 함정. 32隻 그中 擊沈된 것은 掃海艇 4隻 海軍및 海兵隊 所屬機의 손해는 534臺.
	休戰會談
	○ 極東空軍 副司令官 韓國休戰 會談 UN軍代表 「로—렌스·크레기」소장 美空軍司令部 參謀次長으로 轉出, 後任 「하워드·터나」소장 極東空軍부

월 일	중 요 사 항
	사령관에 「사무엘 브렌트 날」소장 任命.
	政 治
	○ 新任 駐韓 中國大使 王東原氏 着任.
	○ 李陸軍總參謀長, 共匪 掃蕩을 위하여 智異山 및 太白山 지구에 戰鬪司令部를 設置하였다고 發表.
10월21일	**軍 事**
	○ 金城 西南 1哩 지점에서 同市를 俯瞰할 수 있는 戰略的 高地 탈환.
	○ F-86「세이어·제트」機隊 西北韓 上空에서 展開된 空中戰에서 敵 MIG 6臺를 손괴.
	○ B-29 咸興폭격.
	○ UN艦艇機隊 共產軍補給路 맹격.
	○ 美 第3師團長 「라버트一소월」少將에게 二等武功훈장 수여.
	政 治
	○ 李大統領 密陽 第7陸軍病院 위문.
10월22일	**軍 事**
	○ 金城北方의 中共軍 集結處에 대하여 集中 포격.
	○ 我軍 戰車부대 金城市 再 突入.
	○ 金城東南, 全長 2哩稜線上 最高處를 방위중이던 少數의 共產軍 夜間을 틈타 그 東端으로 철수.
	○ 美巡洋艦 「헤테나」號 東北韓 海岸철도시설 포격.
	○ B-29 泰川 秘密 비행장 폭격.
	○ 美空軍 當局者 發表, 6月 30日 이후 UN공군기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소제「제트」機는 파과 30臺 파손 240臺.
	○ 美空軍 代辯人, 共產空軍은 滿州에 1,200臺 以上의 비행기를 保持하고 있으며 그 半數는「제트」機라고 發表.
	休戰會談
	○ UN軍總司令部 休戰會談 再開에 關한 協定文書를 承認. 「콘이」中將. 同協定에 대한 UN軍側 批准을 南日에게 通告하고 共產軍側의 同協定에 대한 承認 回答을 要求.
	政 治
	○ 洪內務部次官, 現 保有 警察力으로써는 自體 警備에도 未及하며 共匪의 完全 掃蕩은 困難하다고 國會에서 答辯.
10월23일	**軍 事**
	○ 金城市 火焰 中天 我軍 戰車부대 金城東北方 1哩 지점까지 進出.
	○ 漣川西方에서 我軍 偵察隊 高地上의 共產軍을 攻擊.
	○ 西北韓 上空 MIG通路에서 大空中戰 展開. 美「제트」機 96臺 蘇製 MIG 15「제트」機 150臺와의 交戰에서 敵機 7臺 파괴 7—10臺에 損害. UN空軍 F-84(선더제트) 1대 손실.
	○ UN軍 포로병원, 1年間에 공산군 포로 7萬名을 UN軍兵士와 똑 같은 대우로써 치료.
	休戰會談
	○ 北京放送 共產軍側 休戰會談 代表의 一部更迭을 報導, 中共代表 鄧華의 後任에 邊章五, 北共代表 張平山을 鄭斗困과 交代.
	政 治
	○ 古鐵收集은 民間에 放任하고 오직

월 일	중 요 사 항
	政府에서만 購入하여 美國에 輸出하기로 決定.
	○ 工兵 및 機甲學校에서 被敎育次, 國軍將校 渡美.
10월24일	軍 事
	○ 金城지구 제외 全戰線戰鬪行爲 輕微.
	○ UN軍부대 金城西南에서 500碼進出.
	○ 美, 濠 兩國「제트」機 西北韓上空에서 敵「제트」機 約 155臺와 空中戰.
	○ B-29 宣川의 補助鐵橋에 폭탄 投下.
	○ 美國防省 發表, 韓國 戰線(美軍死傷者數 13,985名, 부상 66,535名, 行方不明 12,477名, 計 92,997名, 昨週에 比하여 2,062名 증가.
	○ 美 第7艦隊司令官「마—틴」中將, 韓國海軍 61號艦을 訪問하고 同艦의 赫赫한 武勳을 격찬.
	○ 이날 現在 UN軍艦隊 韓·美·英·和蘭·콜롬비아·濠加·新西蘭·泰의 9個國 艦隊로서 健鬪中.
	○ 美國務次官補 「로젠버-크」 夫人 來韓.
	休戰會談
	○ 共產軍側 休戰會談再開에 관한 基本協定의 承認을 通告코 會談을 25日 午前 11時부터 開催할 것을 提案 UN軍 首席代表「조이」中將 同 提案의 受諾을 回答.
	政 治
	○ 李大統領, UN의 날 경축기념사에서 한국에서의 UN事業의 主要意義을 강조코 그 早速한 成就를 全世界 自由民에게 呼訴.
10월25일	軍 事
	○ 共產軍「제트」機 約 80臺 3個 UN空軍편대에 도전 敵機 1臺 損害.
	○ UN航空機隊, 新義州 新安州間 및 平壤 畢隅里間 主要 敵 補給路를 攻擊.
	○ 國防部 戰功이 赫赫한 自耳義軍에 從軍記章 授與.
	○「밴」將軍 第2師, 第6師에 褒彰狀 傳達.
	休戰會談
	○ 會談 再開(第27次) 南日 共產軍 首席代表, 交涉을 合同分科委員會에 옮길 것을 提案코 다시 行政事項 安全保障協定 및 各種事件의 調査等을 處理하기 위한 合同 연락장교위원회 설치 提案.「조이」UN軍 首席代表, 同兩案을 受諾.
	政 治
	○ 新任 駐韓 中國大使 王東原氏 李大統領께 信任狀 捧呈.
	○ 美國에서 貸與받은 FS型 570屯級 船舶 4隻 釜山 入港.
	○ 交通部 龍山—淸凉里間 鐵道 複線工事에 着手.
10월26일	軍 事
	○ 金城東南方에서 攻擊中인 UN軍부대 敵 抵抗을 排除하고 前進.
	○ 我軍 戰車 및 步兵부대 金城近郊를 攻擊하여 敵「토치카」수개소 파괴.
	○ 漣川北方에서 攻擊中인 UN軍부대, 大隊兵力의 敵부대의 맹렬한 反擊을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擊退.		리라고 言明.
	○ B-29 泰川 및 南市비행장을 夜間에 폭격.		○ 第32回 全國 體典 光州에서 開催.
	○ UN空軍「제트」機 68臺, MIG 15「제트」機 121臺와 MIG 通路 및 평양부근에서 3次에 걸쳐 空中戰 展開, 敵 피해 격추 2臺, 破損 3臺.	10월28일	軍 事
			○ 美第1海兵師團所屬 海兵隊「해리콥터」로써 共産軍 後方陣地 攻擊.
			○ B-26 夜間에 北韓 主要 道路上에서 敵 輸送車輛을 攻擊.
	○ UN 第95機動艦隊 鎭南浦를 砲擊.		○ 陸軍大學 創設.
	○ 10月 21日以來 連續 6日間의 彼我空中戰에서 敵 MIG「제트」機 2隊 擊墜. 14臺 손해. UN軍 F-86「제트」機 1臺 F-84「제트」機 1臺 상실.		政 治
			○「코린스」美陸軍參謀總長 來韓.
			○ 李大統領 慶州 視察.
		10월29일	軍 事
	○「밴」將軍. 金城據點에 最初로 突入한 UN軍 부대인 「코롬비아」大隊에 特別 멧세지發送.		○ 東部戰線 盆地帶西方에서 2個 高地 탈환.
			○ 金城東部 및 東南方에서 共産軍의 3次에 걸친 맹열한 反擊.
	政 治		
	○ 新任 金駐中大使 任命式 擧行.		○ 中共軍, 金城周邊을 탐색하는 UN軍 戰車 및 步兵부대에 대하여 頑強히 저항.
10월27일	軍 事		
	○ 楊口西北方에서 共産軍의 偵察 攻擊을 擊退.		○ UN軍, 金城市를 支配하는 高地를 確保中, 同時는 이미 補給中心地로서의 가치를 喪失.
	○ 金城東南方의 主要高地를 탈환.		○ 漣川南北方에서 2個 高地를 탈환
	○ UN軍 戰車砲兵探索隊 金城北方 1哩로 浸透.		○ UN 第77機動艦隊機 艦載機, 東海岸各地를 폭격, 보급로 차단 31個所 차량 파괴 35臺.
	○ 第5空軍「제트」機 112臺, MIG-15「제트」機 105臺와 新安州 上空에서 空中戰 敵機 8臺에 損害.		○ 美海兵隊司令官「케이리스」大將 韓國海兵 第1연대의 果敢한 전투를 찬양.
	○ B-29. 1臺 空中戰에서 損害를 받고 한국기지에 不時着.		○「코린스」美陸軍 參謀總長 記者會見談, 休戰協定 成立되어도, UN軍은當分間 韓國에서 주둔할 것이며 第 8軍 및 韓國軍은 극히 우수하다고.
	○ 美第2師團長「멜릿프너」소장등에게 武功훈장을 수여.		
	政 治		政 治
	○ 李大統領, UN記者에 대하여 來年 6月의 大統領 선거에 立候補하지 않으		

월 일	중 요 사 항
	○ 李大統領, 釜山郊外 某處에서 「코린스」將軍과 要談.
	○ 在韓 UN軍 使用의 古鐵 蒐集운동 CTR 建設團에 의해서 本格的으로 展開.
	軍 事
10월30일	○ UN軍부대, 東部戰線 金化대西北方의 敵 高地를 攻擊코 特火點 40個所 粉碎.
	○ 金城東南方에서 2次에 걸쳐 敵의 輕微한 攻擊을 擊退.
	○ UN軍 西部전선 漣川西北方에서 제속 진격.
	政 治
	○ 李大統領 徵集 保留 廢止에 관하여 談話를 發表코 國民의 國土防衛의 義務를 強調.
	軍 事
10월31일	○ 全 前線 靜寂化, 지상부대 현 진지 整理.
	○ UN軍부대, 金城東南方서 約 200名의 共産軍 부대의 攻擊을 擊退
	○ 美「선디·제트」機 20臺, 敵 MIG「제트」機 50臺와의 混戰에서 敵機 1臺 擊破.
	休戰會談
	○ 北京放送, 共産側 提案의 內容을 詳報, 共産軍側이 提案한 接觸線은 東海岸 高城東南 16粁지점으로부터 西進하여 文登里北方 5粁를 通過. 金城南方 10粁 지점에 도달하고, 金化西北 約4粁, 鐵原西北 10粁 朔寧東北 12粁를 통과, 西南쪽으로 나가, 板門店 西方 1粁 지점에 도달, 이로부터 開城東南方 20粁인 臨津江河口에 이르는 線.
	政 治
	○ 大統領 三軍 將兵에 훈장 수여.
	○ 公報處 發表, 韓國 戰線에서 美軍이 使用한 一切 彈皮類의 收集은 韓國神學校 建設團에서 取扱하기로 되었다고.
11월 1일	軍 事
	○ 金城西南方 UN軍 前哨陣地에 대한 共産軍의 攻擊을 擊退.
	○ 惡天候로 美 極東空軍 出擊回數 610回, 新安州 上空에서 「선더—젯트」機隊 敵 MIG 約 60臺와 10分間 交戰 雙方 損失無.
	休戰會談
	○ 休戰會談 第14次 合同分科委員會, 非武裝地帶 設定問題에 關하여 金化以東地域에 있어서는 「斷腸의 稜線」地區를 除外하고 大略 意見 一致.
	政 治
	○ 金融通貨委員會, 11月 10日부터 外國換銀行 換算率을 1弗對 2,500圓으로부터 1弗對 6,000圓으로 變更實施할 것을 決議.
	○ 香港駐屯 英砲兵 3개부대 韓國 向發.
11월 2일	軍 事
	○ UN軍 金城東南方에서 敵의 2次에 걸친 威力偵察攻擊을 擊退.
	○ UN軍 漣川西方의 前哨陣地에 대한 數次에 걸친 共産軍의 攻擊으로 撤收
	○ 美 戰艦「뉴—저—시」號 元山港을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砲擊. ○ 美 海軍當局 發表—韓國戰爭 開始以來 美軍艦 5隻 沈沒 29隻 損傷. 政 治 ○ 밴프리트將軍, 30日字 國會議長에 대한 回翰에서 韓國軍과 協同하여 後方治安에 最善의 努力을 하겠다고 確約. ○ 麗水—順天—裡里線 一般旅客 및 貨物取扱을 中止하고 UN援助物資 輸送에 全力 傾注. ○「코린스」美 陸軍參謀總長, 華府 歸還後 韓國의 休戰을 結局 成立될 것이라고 言明.		○戰車의 支援을 받는 共產軍 1개사단, 漣川西南쪽에서 攻擊을 開始하였으나 UN軍 이를 擊退. ○ 美 空軍 젯트機 92臺, 北韓 西北部上空에서 MIG젯트機 145臺와 交戰 敵機 2臺, 擊破 6臺에 損失. 休戰會談 ○ 共產軍代表, UN軍側의 開城 非武裝提案을 拒否. 政 治 ○ 美「힛카—슨」및「소—프」兩 國務次官補 라디오 인터뷰에서 韓國의 UN軍 增強과 中共에대 한 經濟制裁의 強化를 示唆.
11월 3일	軍 事 ○ UN軍 昨夜 撤收한 漣川西方의 前哨陣地를 再次 占領. ○ 美 戰鬪「뉴—저—시」號 興南을 砲擊. 休戰會談 ○ UN軍 「홋지—스」號 非武裝地帶에 關하여 妥協案을 提示. 政 治 ○ 國會, 英「처—칠」首相에 대한 祝賀 멧세지 發送을 滿場一致로 可決. ○ 平壤放送, 傀儡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勞動黨秘書 許嘉誼를 副首相에任命. ○ 金日成「코민포름」機關紙上에서 美國側이 協定에 到達하려는 誠意와 眞實한 希望을 表示한다면 休戰會談의 成立은 可能하다고 主張.	11월 5일	軍 事 ○ 韓美空軍 合同會議 開催. ○ 戰車를 先頭로한 共產軍 1개 사단, 漣川西方 8哩에 걸쳐 攻擊을 繼續, UN軍 2개 高地를 喪失하였으나 곧 再奪還. 休戰會談 ○ 休戰會談 第18次 合同分科委員會 UN代表, 非武裝地帶 設定에 關하여 4項目의 新提案을 提示. 政 治 ○ 國會, 休戰會談에 있어서의 鎭津, 延白地區 讓步 反對에 대한 建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 ○ 張勉 UN代表團長, 出發에 앞서 談話發表. ○ 國會, 法文系學生 徵集 保留에 대한 對政府 建議案을 圓滿코 贊反 兩論.
11월 4일	軍 事		○ 救護物資의 暗去來 防止 團束에 特

월 일	중 요 사 항
	別調 査委員會 發足.
	○ 北京放送, 共産軍側을 開城 非武裝化 案에 反對를 繼續할 것이라고 強調.
11월 6일	軍 事
	○ 杆城西北方에서 UN軍 2000—3000 碼 進出.
	○ UN 軍, 未明에 中共軍의 強壓으로 漣川西北方. 2個 高地를 喪失.
	○ UN軍, 「므스탕」 및 「선더—겟트」 機偏隊 漣川西北方 對地攻擊.
	○ 美 戰艦 「뉴—저—지」號 淸津을 砲擊.
	政 治
	○ 國會, 內務部長官 引責辭任에 關한 對政府建議案을 95對 35로 可決.
	○ 第6次 UN總會 韓國 代表團 一行. 空路 巴里 向發.
	○ 北京放送, 休戰會談에서의 5日字 UN軍側 新提案을 非難.
11월 7일	軍 事
	○ 共産軍, 漣川西北方에서 奪取한 2個 高地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中.
	○ UN軍 步兵部隊 漣川西方 臨津江附近 高地에서 中共軍의 攻勢을 擊退.
	休戰會談
	○ 共産側, 後日 雙方이 變更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條件附로한 非武裝地帶의 設定에 關하여 正式으로 提案.
	○ UN軍側, 同 提案을 受諾할수 없다고 態度를 表明.
	政 治
	○ 國會, 文敎. 國防 兩委員會 共同提案인 在學生 學業繼續에 關한 對政府

월 일	중 요 사 항
	建議案을 通過.
	○ 美. 英. 佛 3國 蘇聯의 同調를 條件으로 하는 軍隊 및 原爆을 包含한 兵器의 公開 縮少를 提案하는 共同宣言을 各國 首都에서 發表.
	○ 美「트」大統統, 유—고에 軍事的 및 經濟的 援助를 줄 것이라고 議會에서 言明.
11월 8일	軍 事
	○ UN軍, 麟路北方 盆地의 北方에 있는 共産軍 外郭陣地를 奇襲.
	○ UN軍 機甲部隊 金城東南方의 敵陣을 急襲코 敵 火力據點 20個所를 粉碎.
	○ UN軍, 漣川西北方 高地를 再奪還.
	休戰會談
	○ 第21次 合同分科委員會—UN軍代表, 即時 停戰할 것을 主張한 共産側 提案을 拒否.
	○ 릿지웨이 UN軍總司令官, 空路 戰線 到着, UN軍 休戰代表와 會談하고 戰線을 視察.
	政 治
	○ 許 社會部長官, 失明 傷痍軍警 希望에 따라 東萊 傷痍軍人 靜養院에 收容시키는 한편 職業補導를 實施하겠다고 言明.
	○ 韓日 豫備會談 第6次本會議 開催.
	○ 美 UN代表側, 蘇聯「비신스키」代表가 西歐側 軍縮案을 檢討하지도 않고 拒否한데 對하여 失望의 態度表明.
11월 9일	軍 事
	○ 戰線에 걸쳐 共産軍의 攻擊을 小規

월 일	중 요 사 항
	模의 偵察隊 및 探索隊의 衝突 程度로 減退.
	○ UN軍「제트」機 52臺, 共産軍「제트」기 51臺와 西北韓 上空에서 交戰 敵機 3臺擊墜 3臺에 損失.
	政 治
	○ 白 財務部長, UN軍 經費의 支出方式에 關하여 不遠間 劃期的인 改善이 있을 것이라고 談話 發表.
	○ 北京放送, UN軍總司令官을 共産軍側의 停戰線 提案을 世界에 歪曲 宣戰하고 있다고 非難.
	○ 美國務省, 美.英.土.佛 4個 國은 中東防衛司令部의 設置에 關하여 明 10日에 共同宣言을 發表한다고 言明.
11월10일	軍 事
	○ 金城西南方에서 6次에 걸친 共産軍의 來襲을 擊退.
	○ 西部戰線에서 UN軍 威力搜索隊, 增加하는 敵의 抗抵에 遭遇.
	○ 美 戰艦「로레도」號, 淸津을 砲擊.
	○ 美 重巡洋艦「로스안젤스」號, 高城杆城地區의 敵 軍事施設을 砲擊.
	○「밴덴 버—크」美 空軍參謀總長 來韓.
	休戰會談
	○ UN, 共産 兩側, 軍事 境界線 問題에 關하여 新提案을 提示.
	UN側, 休戰協定調印 當時의 戰線에 基礎를 둔 軍事 境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設定을 主張.
	共産軍側, 7日의 提案과 大同小異하나 接觸線調整에 關한 拒否權에 對하여는 不言及.
	政 治
	○ 農林部에 中央糧穀緊急操作委員會 設置 總會.
	○ UN 總會運營委員會 美, 英, 佛의 軍縮案과 蘇聯의 4項目 平和案을 討議없이 議題로 採擇.
	○ UN運營委員會, 中共의 UN 加入에 關한 蘇聯案에 對한 泰國 反對案을 11對 2로可決. (反對 蘇聯, 波蘭) 棄權 1票 (유고).
	○「딘지 웨이」UN軍總事令官, 東京歸還.
	○ 美國務省, 美政府는 相互安全保障計劃에 依하여 南河聯邦政府에 武器 軍事資材를 資却하는데 同意하였다고 發表.
11월11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共産軍 約 2個 大隊의 來襲을 擊退.
	休戰會談
	○ 第24次合同分科委員會 無進展.
	○ UN軍 首席代表「조이」中將 聲明을 發表코 UN軍 代表가 努力하고 있는 主目標를 闡明.
	政 治
	○ 大韓軍人遺家族會 私團法人으로 發足.
	○ 醫藥品 1,053箱子를 비롯한 多量의 UN 救護物資 入荷.
	○ 莫府放送 共産陣營의 世界平和會議의 決議案 內容을 發表.
11월12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11월13일	를 擊退. ○ 金城西南方 UN軍, 制限된 目標 攻擊에서 2個 高地를 奪取. 政 治 ○ 李國防長官, 壯丁 歸還問題點等 當面問題에 關하여 談話. ○ 李國防長官, 山淸勞務者 遭難事件 眞相을 發表. ○ 軍事 輸送 關係로 一時中止하고 있던 全羅線 嶺水.順天間의 旅客取扱 再開. ○ UN總會, 波蘭代表, 本會議 演說에서 北大西洋條約 및 美國의 日, 獨 再軍備 政策 非難. ○ 韓日 豫備會談第 七次本會議 開催. ○「아랍」聯盟 7個國 會議 巴里에서 會合코 美, 英, 佛, 土, 4個國 提案의 中東防衛計劃에 對한 態度를 協議. 軍 事 ○ 高城南方에서 數次에 걸친 敵 5個 大隊의 攻擊을 擊退. ○ 金城西南方에서 UN軍 步兵部隊 2個 高地를 占領하고 約1哩 前進. ○ 共產軍, 鐵原西方에서 戰車, 迫擊砲 및 野砲의 支援下에 來襲. ○ 高浪浦西方에서도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 休戰會談 ○共產軍代表, 軍事境界線問題에 關한 協定이 成立되는대로 事實上의 停戰이 行해질 것을 主張. 政 治 ○李國防長官, 美國의 援助로 韓國軍은	11월14일	明年에 現 兵力의 2培가 될 것이라고 言明. ○ 空軍, 航空機獻納 基金募集運動을 明年 4月末까지 延期. ○ UN總會, 中共代表의 UN參加問題 議題 上程에 關한 蘇聯案을 37對11 票 棄權 4票로 否決. ○「맥」元帥「시아틀」市政 百週年記念式典에서 美政府의 內外政策을 非難. 軍 事 ○ UN軍, 金城南方에서 共產軍의 2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 ○ UN軍 海軍部隊, 共產軍의 補給港과 海岸砲陣地를 攻擊. ○ UN海軍機隊, 東北 및 東部地方의 敵을 攻擊, 380名의 共產軍을 死傷. ○ 美 第8軍法務部長「한대이」大領, 共產軍은 開戰以來 5,790의 UN軍捕虜를 虐殺하였다고 發表. ○ 美 國務省 發表 韓國戰線, 美軍死傷者 總數 99,226名이라고 發表. 休戰會談 ○ 共產側, 非武裝地帶 問題가 先決되지 않는限 休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強硬態度를 表明. 政 治 ○ 京釜線 永同驛에 武裝共匪 80餘名이 來襲코 驛舍에 放火. ○ 北京放送, 11日字 「조이」中將의 聲明을, 反駁코 事實을 歪曲하고 있다고 非難. ○ 新華社報道, 周恩來 中共首相, 中共 殷民兵은 1,280萬名以上이라고 言明.

월 일	중 요 사 항
11월15일	軍 事
	○ UN軍部隊 楊口北方에서 共産軍의 攻擊으로 一時撤收하였으나 即刻 同高地를 再 奪還.
	○ 中共軍, 鐵原西方에서 攻擊하였으나 未明에 UN軍의 反擊으로 擊退.
	○ 在韓 白耳義部隊長, 「쿠—르스」中領 新任.
	政 治
	○ 國會, 大田 臨時 遷都에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在席 116名中 60對 32로 可決.
	○ 軍報道課, 軍을 憑籍한 出版物 強賣에 警告.
	○ 美 在鄕軍人會, 共産軍의 捕虜虐殺에 對한 報復手段으로 原爆使用에 贊成하는 態度를 表明.
11월16일	軍 事
	○ 戰線 比較的 平穩.
	東部戰線 盆地帶西方에서 3個 中隊의 共産軍部隊, UN軍部隊를 攻擊.
	○ UN軍部隊, 鐵原西方에서 大隊 程度의 敵이 掌握하고 있는 高地를 攻擊.
	○ 美 極東空軍, 好天候로 北韓 깊숙이 들어가서 鐵道를 破壞.
	○ 泰, 伊太利, 和蘭, 그리스 4個軍 增援部隊 釜山 到着.
	政 治
	○ 金正柱議員, 光武 11年 新聞紙法 廢棄에 對한 緊急動議案을 提出.
	○ 中央廳, 國會, 法曹 3記者團, 東亞日報 筆禍事件에 關하여 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에 建議書 提出.
	○ 傀儡軍司令部 代辯人, 捕虜虐殺에 關한 「한레이」報告書를 反駁.
	○ UN總會 「비신스키」蘇代表, 原子武器의 全面的 禁止와 五大國 軍備의 1/3縮少를 提案.
	○ 「릿」總司令官, 「한레이」大領의 捕虜虐殺報告를 詳細히 調査하기 위하여 涉外局長 「웰치」大領을 韓國에 派遣.
11월17일	軍 事
	○ UN軍部隊, 金城東南方에서 敵 1個聯隊의 抵抗을 排除하고 2—3哩 前進.
	○ UN軍部隊, 鐵原西方의 高地를 奪還.
	○ 共産軍, 漣川西方에서 月明을 利用하여 英聯邦 第1師團을 攻擊.
	休戰會談
	○ UN軍代表, 議題 第2項에 關한 停頓狀態를 打開하기 위하여 新提案을 提示.
	政 治
	○ 國會,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고 梁裕燦 大使로부터 韓日會談에 關한 中間報告를 聽取.
	○ 寄附金品 募集 禁止法 公布.
	○ 柳 鴻議員等 10餘議員 內務部長官의 逮退與否에 對한 書面答辯을 要求.
	○ 「애치슨」 美 國務長, 官UN總會政治委員會에서 韓國休戰에 言及, U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는 多少의 柔軟性을 갖게하는 것이 希望된다고 言明.
	○ 北京放送, 共産軍의 UN軍 捕虜虐殺을 否定.

월 일	중 요 사 항
	○ 英政府 駐美 英大使에게 韓國에 있어서의 捕虜 虐殺에 關한 發表의 眞相을 調査토록 訓令.
11월18일	軍 事
	○ UN軍, 中部戰線에서 다시 2000碼 前進하여 北漢江東方 3個 高地를 壓倒.
	○ 英聯邦 第1師團, 漣川西方에서 前日 喪失한 戰略的 高地를 再 奪還.
	○ 韓 第6師團, 中東部戰線 949高地를 占領.
	○ 美 第8軍司令部發表. 過去 1週日間 共產軍 死傷者 6,759名.
	政 治
	○ 戰時生活改善法 公布.
	○ 美英佛의 3國, UN總會, 政治委員會에 提出할 新軍縮案의 內容을 發表.
	○ 日本參議員本會議, 講和, 安保 兩條約을 承認.
	○ 美 第8軍 法務部長 東京에서 記者團會見 共產軍은 上記命令으로 UN軍 捕虜를 虐殺하고 있다고 言明.
	○ 北京放送, UN軍側은 30日期限內에 休戰協定을 成立시킬 것을 條件으로 暫定的 軍事境界線을 決定할 것을 提案하였다고 報道.
	○「레이 맛든」美下院議員, 議會에서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軍의 捕虜虐殺을 調査할 것을 要함.
11월19일	軍 事
	○ 高城南方 2個 高地에서 UN軍 步兵部隊, 數回에 걸친 交戰끝에 同 高地를

월 일	중 요 사 항
	拋棄.
	○ 韓國軍, 第 6, 第8師團 所屬部隊, 金城東南方에서 2次에 걸친 敵의 偵察을 擊退.
	○ UN軍 漣川西方에서 來襲한 大隊兵力의 中共軍을 擊退.
	○ 在韓 土耳基軍司令官「다신 야지치」少將歸國.
	政 治
	○ 國會, 前保導聯盟員等, 拘攝에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通過.
	○ 李大統領, 國會에 公翰을 送付하여 現行 歸屬財產處理法에서 優先權 認定 條項을 削除. 한것을 要請.
	○ 北傀外相 朴憲永, UN總會議長, 및 安保理事會議長에 電報, UN軍 側이 發表한 捕虜虐殺은 事實無根이라고 否定.
	○ UN事務局, 蘇聯代表部는 16日 UN總會議長에게 第3次大戰 回避를 위한 決議案을 提出하였다고 發表.
	○ 國府系中國聯合通信, 蘇聯에서 訓練받은 1,650名의 外蒙古人「젯트」機操縱士가 共產空軍에 參加하고 있다고 報道.
	○ 北京放送, UN總會에서 蘇聯이 提議한 4個 條案을 全幅的으로 支持.
11월20일	軍 事
	○ 高城南方에서 高地 占領을 企圖한 敵部隊를 白兵戰으로 擊退.
	○ 麟蹄北方 盆地帶西北方에서 UN軍 步兵 및 戰車混成部隊 半哩 前進.

월 일	중 요 사 항
	○ 韓國軍師團, 金城東南方에서 共産軍 冬季防衛線을 突破코 4哩 前進.
	○ 漣川西方에서 未明에 UN軍 數次의 敵部隊의 攻擊을 받고 撤收하였으나 反擊으로 同 高地를 再 奪還.
	○ UN軍 重爆機隊, 北韓西北地域의 共産軍 飛行場을 猛打.
	政 治
	○ 國防部, 學徒訓練에 對備하여 豫備役將校를 登錄.
	○ UN總會政治委員會, 美, 英, 佛 3國 共同提案의 軍縮案을 討議.
	○ UN軍總司令部, 共産軍의 UN軍 捕虜虐殺事件에 關한 調査結果를 發表 美 第8軍「한레이」大領의 非難을 支持하고 屍證 365具를 確認.
	○ 日本政府, 講和條約 및 美日安全保障條約의 正式批准을 公表.
11월21일	**軍 事**
	○ 共産軍 金城東南方 韓國軍陣地 攻擊에 失敗.
	○ 共産軍 漣川西方 UN軍陣地에 대하여 5回 來襲하였으나 繼續陣地 確保中
	○ 我 空軍, 敵 補給路를 強打.
	○ 美 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 死傷者數 100,176名, 昨週 對比 950名增加.
	休戰會談
	○ 共産軍側代表, 去 17日付 UN軍側提案을 原則的으로 同意하고 若干의 相違點을 包含하는 代案을 提出.
	政 治
	○ 서울市 開都 558週 年記念式에서 名譽 市長으로 推戴된 「벤」將軍, 首都防衛의 굳은 決意와 確固한 自信을 表明.
11월22일	**軍 事**
	○ 金城東南方 및 北漢江東方에서 敵의 小規模 探索攻擊을 擊退.
	○ 鐵原西南方地區에서 中隊乃至大隊兵力의 共産軍, 4次에 걸쳐 來襲.
	休戰會談
	○ UN軍代表, 21日의 共産軍側 提案에 對한 修正案 提出.
	○ UN, 共産 兩軍代表, 雙方의 參謀將校는 23日부터 接觸線의 劃定을 開始한다고 發表.
	政 治
	○ 「버—크레」美副統領 金浦飛行場 到着.
	○ 許總理署理, 大田 臨時遷都를 反對하는 政府見解를 公翰으로 國會에 傳達.
	○ 北京放送—共産側은 幅 4粁의 非武裝地帶로부터 即時 撤退할 것을 主張하기보다 休戰線의 最終的 決定에 더 關心을 갖고 있다고 強調.
11월23일	**軍 事**
	○ UN軍 步兵部隊, 楊口西北方에서 共産軍 大隊의 抵抗을 물리치고 1,500碼 前進.
	○ 中共軍 1個師團, 漣川西方 延5 哩의 戰線에서 攻擊을 開始.
	○ 美 陸軍省, 韓國戰爭 開始以來 11月 14日까지의 共産軍의 損失은 1,467,407名이라고 發表.
	○ 「버—크레」美副統領, 美 第8軍司令

월 일	중 요 사 항
	部에서「릿」總司令官 및「벤」第8軍司令官과 會談.
	休戰會談
	○ UN, 共産 兩軍代表, 軍事境界線 決定에 關한 協定文의 作成에 關하여 意見 一致.
	○ 兩軍 參謀將校, 地上 接觸線의 劃定을 開始.
	政 治
	○ 國會, UN軍 및 國軍 輸送鐵道運賃 改正에 對한 同意案을 可決.
	○ 國會, 政府 保有 古鐵輸出과 車輛 外注 整備에 對한 建議案을 通過.
	○ 駐中 大使 金弘一將軍, 蔣介石總統에게 信任狀을 捧呈.
	○「막사이 사이」國防相을 비롯한 比律賓 閣僚 10名,「퀴리노」大統領에게 辭表 提出.
11월24일	軍 事
	○ 楊口西北方에서 UN軍, 大隊兵力의 共産軍과 數次 交戰.
	○ UN軍, 金城西南方의 2個 前哨陣地를 喪失하였으나 다시 奪還.
	○ 停戰線劃定에 有利地點 掌握코자 漣川西方에서 猛烈한 白兵戰 展開.
	○ UN鷹隊, 高城, 杆城地域을 砲擊.
	○ 美 極東空軍, 繼續하여 義州飛行場을 攻擊.
	政 治
	○ 李大統領, 申國會議長, 「버—크레」美副統領과 美 第8軍司令部에서 會談.
	○ 許總理署理, 戰爭으로 因한 財産損害는 7兆6千5百億圓에 達하고 一般建

월 일	중 요 사 항
	物全燒는 51萬4千9百餘棟이라고 國會서 答辯.
	○「버—크레」美副統領 東京歸還.
	○ 日本朝日新聞, 獨島를 日本領이라고 主張한 特派員記事를 揭載.
11월25일	軍 事
	○ UN軍部隊 24時間에 걸친 激戰끝에 漣川西方의 主要高地를 奪還.
	○ UN海軍, 高城地區의 敵 砲陣地 및 元山港周邊의 敵 海岸砲臺를 砲擊.
	○ UN軍爆擊機隊, 南市 및 泰川의 敵 飛行場施設을 爆擊.
	○ UN空軍「젯트」戰鬪機隊, 北韓 上空의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4臺를 擊破.
	休戰會談
	○ 參謀將校會議 接觸線의 劃定을 續行하고 全接觸線의 75%에 意見一致.
	政 治
	○ 陸軍第13次傷痍軍人 名譽除隊式 擧行.
11월26일	軍 事
	○ UN軍部隊, 漣川西方 重要高地「小지부랄타—르」를 繼續 確保中.
	○ UN軍 戰鬪機隊, 「小지부랄타—르」地區의 中共軍部隊를 猛打.
	休戰會談
	○ 參謀校將會議 全戰線에 있어서의 兩軍 接觸線의 劃定에 關하여 最終的인 協定에 到達.
	政 治
	○「라스크」美國務次官補 來韓 李大統領을 禮訪코 要談.

월 일	중 요 사 항
	○ 李大統領, AP記者와의 單獨 會見에서 30日間 停戰에 言及코 共産軍의 30日間을 利用하는 軍隊增強 危險性을 警告.
	○ 釜山, 美大使館 全燒.
	○ 吳保健部長官, 高級料亭 및 遊興業 廢止를 徹底히 斷行하겠다고 言明.
	○ 李公報處長, 獨島所屬에 關하여 日本朝日新聞 特派員의 記事를 反駁.
	○「버—크레」美 副統領, 東京에서 休戰會談에 對하여 大體로 樂觀的 見解를 表明.
11월27일	軍 事
	○ 韓國軍 第6師團, 金城東南方에서 中共軍部隊와 交戰하고 北漢江 上流東方에 있는 小高地를 再 奪還.
	○ 美 第5空軍 所屬「세이버, 젯트」機 19臺, 敵 MIG15「젯트」機 18臺와 空中戰, 敵機 4臺 撃墜, 1臺에 損失.
	休戰會談
	○ 休戰會談 第28次本會談, 軍事境界線을 最終的으로 承認.
	政 治
	○ 國務會議 改憲案을 通過.
	○「國際傷病軍人의 날」記念式, 釜山東亞劇場에서 擧行.
	○ 佛蘭西·美·英의 支持下에 伊太利의 UN加盟案을 UN總會信託統治委員會에 提出.
	○ 北大西洋同盟理事會, 北大西洋條約加盟, 各國 參謀總長會議로부터 提出된 再軍備 促進에 關한 報告를 採擇.
	○ 美國 및 白耳義 歐洲軍 創設 促進을
월 일	중 요 사 항
	위한 決議案을 北大西洋條約理事會에 提出.
	○ 美·英·佛·3國,「파키스탄」等 3國 共同提案에 依하여 蘇聯과 4個國 軍縮會議를 開催하기에 原則的으로 意見一致.
11월28일	軍 事
	○ 全戰線 極히 平穩.
	○ UN軍, 楊口西北方에서 UN軍 陣地에 來襲한 共産軍을 撃退.
	○ 美 第5空軍 所屬「세이버, 젯트」機隊, 敵 MIG15「젯트」機 3臺를 撃墜하고 3臺에 損失.
	○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 死傷者總數 100,883名, 昨週對比 707名增加.
	休戰會談
	○ 南日共産軍 首席代表, 議題 第3項에 關한 UN軍側 提案中 兵力增強의 禁止 및 休戰監視를 위한 合同監視團의 設置를 拒否.
	○ 兩軍參謀將校, 暫定的 非武裝地帶의 劃定을 開始.
	○ UN軍 代辯人「니콜스」准將, 聲明을 發表하여 休戰協定이 調印될때까지 敵對行爲가 繼續된다고 強調.
	政 治
	○ 許國務總理署理, 改憲問題에 對하여 不日內로 國會에 提出될 것이라고 言明.
	○ 釜山中央埠頭의 美軍被服倉庫 全燒.
	○ UN軍總司令部 涉外部長「윌치」大領, UN軍地上部隊에 對한 攻撃停止命令의 事實을 否定.

월 일	중 요 사 항
	○ 韓日會談 第9次本會議 開催.
11월29일	**軍 事**
	○ UN軍, 楊口西北쪽에서 2次나 喪失한 前進陣地를 再 奪還.
	○ UN軍砲兵部隊, 砲擊을 再開.
	○ 美 Saber-Jet機 22臺, 175臺의 敵機와 交戰後 敵機 1臺를 擊破. 我側, 4臺에 輕微한 損傷.
	休戰會談
	○ 第30次本會談, 南日共產軍 首席代表, 休協定調印後 外國軍 및 裝備를 서서히 減少시킬 것을 提案.
	政 治
	○ 「맥」司令官은 聲明을 發表하고 韓國戰線의 攻擊停止 命令에 관한 신문보도를 정식으로 否定하고 戰鬪停止에 관한 誤報는 某種 軍事上의 指令의 內容을 曲解한 것이라고 釋明.
	○ 泰國에 無血쿠—데타, 軍首腦部, 現政府를 顚覆, 臨時 執政會議를 組織하고 1932年 制定의 憲法을 復活.
11월30일	**軍 事**
	○ UN軍 F—86 Jet機31臺, 鴨綠江河口 南쪽에서 MIG機 16臺에 護衛된 蘇聯 爆擊機 30臺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爆擊機 9台와 MIG 1臺를 각각 擊墜.
	休戰會談
	○ 第31次本會談, UN軍 首席代表, 外國軍隊의 漸進的 撤退를 討議하자는 共產軍側 提案을 拒否.
	政 治
	○ 政府, 憲法改正의 提議를 公告.
	○ 國防部長官 12월 1일을 기하여 一部 共匪出沒地區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고 討伐作戰을 전개한다고 談話發表.
12월 1일	**軍 事**
	○ 戰線 비교적 平穩.
	○ UN空軍 夜間爆擊機隊, 敵의 車輛部隊를 攻擊하여 300여대를 擊破함.
	休戰會談
	○ 第32次本會談, UN軍側은 다음 4項目을 主張, ① 休戰期間中 增援部隊를 投入치 않을 것, ② 休戰協定이 實施될 경우 軍事施設 및 資材를 增強하지 않을 것. ③ 休戰協定의 實施및 遵守를 감시하기 위한 軍事休戰委員會의 設置. ④ 外國軍 撤退問題는 關係國의 高位會談에서 檢討할 것.
	○ 共產軍 南日代表, UN側의 4項目에 反對의 見解를 表明.
	政 治
	○ 共匪掃蕩을 위하여 忠南·全羅·慶南 一部地域에 戒嚴令宣布.
	○ 美·英·佛·蘇 4大國 軍縮秘密會談이 개최되어 議事運營에서 意見一致를 이룸.
12월 2일	**軍 事**
	○ 美海兵隊 및 英國奇襲部隊, 夜間에 東海岸 端川附近 海岸에 奇襲 上陸하여 敵의 通信·輸送施設을 破壞하고 撤退.
	休戰會談
	○ 第33次本會談, 飛行場 增強問題로 對立.
	○ 共產軍 代表, UN軍 占領下에 있는 北韓沿岸諸島의 返還을 要求.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Wilson 美國防 動員局長, 美國의 軍備生産은 每月 10億弗의 比率로 增大되고 있다고 言明.
12월 3일	**軍 事**
	○ 美海兵隊 및 英國軍部隊, 다시 城津 南쪽 海岸에 上陸하여 敵 背後를 攻擊.
	休戰會談
	○ 第34次本會談, 共産軍側, 休戰實施에 關한 妥協案을 提示하였는데 ①休戰 期間中의 雙方兵力 및 兵器의 凍結 ② 中立國代表로 구성된 監視機關의 後方監視 等임.
	政 治
	○ 共匪歸順者 連日 續出
	○ UN政治委員會, UN에 地域的 集團安全保障 兵力을 使用할 權限을 付與하기 위하여 討議를 개시함.
12월 4일	**軍 事**
	○ B—29爆擊機隊; 義州飛行場 猛爆.
	休戰會談
	○ 第35次本會談, UN共産兩軍代表, 休戰監視에 關한 議題는 合同分科委員會로 옮길 것을 同意.
	○ 休戰合同分科委員會, 共産側, 中立國에 의한 監視는 「出入口」에 限하며 監視員은 如何한 건설계획의 감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政 治
	○ 韓日豫備會談 第10次本會議—來年 2월까지 全般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할 것에 合意.
	○ 英國上院— 對日講和條約 批准案을 承認.
12월 5일	**軍 事**
	○ UN軍夜間爆擊機隊, 敵車輛 12臺를 破壞.
	○ UN軍 Jet戰鬪機隊, 新安州上空에서 敵 MIG機 5臺를 擊墜, 5臺에 損害.
	○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 南北으로부터 脫出路를 차단하고 서서히 진격중.
	休戰會談
	○ 休戰合同分科委員會— 共産側代表, 中立國의 資格을 가진 國家를 例示하였는데 체코, 波蘭, 瑞典, 丁抹, 瑞西等임.
	○ 休戰會談 UN軍側代表「버—크」海軍少將 本國歸還.
	政 治
	○ 李大統領, 12월 10일부터 개시된 智異山地區 共匪大掃蕩作戰에 대하여 特別談話를 발표하고 國民의 협력을 요망함.
	○ 李公報處長, 休戰會談에 관하여 共産侵略을 擊滅않고는 平和를 確保할 수 없다고 發表.
	○「라벳트」美國防相, 1953년度 軍事費는 450億弗을 초과한 것이라고 記者會見에서 言明.
	○ 國際赤十字委員會, 北韓에 있는 UN軍捕虜에게 食糧, 醫藥品을 供與코저한 희망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발표.
12월 6일	**軍 事**
	○ 地上戰鬪 小康狀態를 維持.
	○ B—26B夜間爆擊機隊, 平壤操車場을 爆擊.

월 일	중 요 사 항
	○ 6일 현재로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果—射殺 562명, 生捕 348명, 歸順 24명, 武器鹵獲 200挺.
	休戰會談
	○ 休戰合同分科委員會— UN軍代表, 休戰監視問題에 관하여 8개항목의 新提案을 提示.
	政 治
	○「코린스」 美陸軍參謀總長, 라듸오 방송을 통해 가까운 將來에 原子砲를 戰鬪에 使用할 수 있으리라고 言明.
12월 7일	**軍 事**
	○ 共產軍, 金城西南쪽에서 소규모의 夜間攻擊을 기도.
	休戰會談
	○ 休戰合同分科委員會— 敵對行爲 停止, 非武裝地帶로 부터의 철수, 同地域의 出入禁止等 3項目에 同意.
	○ UN, 共產 兩軍 參謀將校, 非武裝地帶의 劃定作業을 完了.
	政 治
	○ 國防部長官, 釜山造兵廠 火藥庫爆發事件에 대한 眞相을 發表.
	○ UN總會, 伊太利의 UN加盟을 可決.
12월 8일	**軍 事**
	○ 美極東空軍 週間戰果發表—敵機擊墜 13臺, 不確實 1臺, 破損 17臺, 我軍損害 飛行機喪失 7臺.
	休戰會談
	○ 休戰合同分委—共產軍代表, UN軍側이 提示한 妥協案을 拒否하고 그들의 飛行場 再建을 비롯한 5개항목을

월 일	중 요 사 항
	表明.
	政 治
	○ 李國防部長官, 造兵廠爆發事件에 관하여 國會에서 報告.
	○「유—고」政府, 西獨과의 正常外交關係關立을 결정.
12월 9일	**軍 事**
	○ UN海軍 驅逐艦 6척, 北韓海岸에서 敵의 軍事施設 및 補給線을 砲擊.
	○ 求禮地方叛徒 44명, 國軍과 경찰에 투항.
	休戰會談
	○ 休戰同分合科委員會, 계속하여 休戰監視問題를 討議.
	政 治
	○ 許國務總理理署, 李國防部長官을 대동하고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을 시찰.
12월10일	**軍 事**
	○ 智異山地區 掃蕩戰,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敵을 殲滅中이며 我軍 機動搜索隊, 敵 第7聯隊本部를 기습하여 聯隊長 및 作戰主任을 포함한 96명을 생포.
	休戰會談
	○ 兩軍 參謀將校, 잠정적인 非武裝地帶의 경계선을 확정할 協定에 署名.
	政 治
	○ 4國 特別軍縮委員會 終了.
	○ 華府消息通, 美政府는「Ridgway」總司令官에 대하여 韓國休戰會談의 打開를 指示하였다고 示唆.
12월11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地上戰鬪, 兩軍 探索隊間의 交戰程度.		○ 華府消息通, 美政府는 瑞典, 瑞西, 諾威 3국에 대하여 韓國休戰의 中立國이 될 가능성을 타진하였다고 言明.
	○ 11일 현재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果 射殺 1,263명, 捕虜 1,751 歸順 159명.	12월14일	**軍 事**
	休戰會談		○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 一段落, 계속하여 搜索戰을 전개중인데 8일~14일간의 戰果는 射殺 825명, 生捕 10. 31명, 歸順者 138명, 我軍 損失은 戰死者 40명, 負傷 16명, 行方不明 1명.
	○ 共産軍側, 捕虜交換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合同分科委員會의 設置에 同意.		○ 金空軍總參謀長, 기자회견을 통하여 韓國空軍의 급속한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함.
	○ 捕虜交換合同分科委員 開會.		**休戰會談**
12월12일	**軍 事**		○ 休戰監視合同分委—共産軍側, 休戰期間中 한정된 部隊交代의 승인을 포함한 6개항목을 주장.
	○ 白野戰戰鬪司令部, 智異山 一帶에서 殘敵의 據點을 急襲.		○ 捕虜交換合同分委—共産軍側, 國際赤十字代表의 捕虜收容所 방문은 議題範圍外라고 반대.
	休戰會談		**政 治**
	○ 休戰監視合同分委—UN側, 中立國에 의한 休戰監視 및 北韓沿岸 島嶼領海로부터의 撤退를 수락함.		○ UN 한국대표, 總會席上에서 共産軍이 한국의 일부를 점령한 뒤에 休戰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韓國의 全面的 敗北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의 兩斷을 持續시키는 것이고 力說.
	政 治	12월15일	**軍 事**
	○ 政府高位側言明—UN軍 經費支出에 관한 韓美協定의 修正이 1월초에 行하여진 것이라고.		○ 全戰線에 걸쳐 散發的인 探索戰程度.
12월13일	**軍 事**		**休戰會談**
	○ UN空軍爆擊機隊, 夜間에 順川, 軍隅里等 敵戰略地點을 爆擊.		○ 捕虜交換合同分委—共産側, 捕虜의 姓名 및 收容所의 위치를 明白히 할 것을 拒否.
	休戰會談		○ 李防部長官, 共匪掃蕩戰에 일반국민의 協力을 요청하고 해당지구의 주민
	○ 休戰監視, 捕虜問題 兩合同分科委員會—兩側이 주장함으로 進展이 없음.		
	政 治		
	○ 李國防部長官, 共匪討伐은 良好하다고 言明.		
	○ 韓日豫備會談, 韓國側 首席代表代理 金溶植氏, 會談의 추진문제에 관하여 「덜레스」고문과 의견교환.		

월 일	중 요 사 항
	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談話를 發表.
	政 治
	○ 美極東空軍司令官「웨이란드」중장, F—86 Saber—Jet戰鬪機 1個聯隊의 極東空軍增配를 發表.
12월16일	軍 事
	○ 全戰線, 戰鬪行爲는 休止狀態.
	○ 第5空軍機隊, 平壤東쪽의 機關車 修理工場을 爆擊.
	○ 伊太利 病院部隊, 活動을 開始.
	休戰會談
	○ 休戰監視合同分委—無進展.
	○ 捕虜交換分委—UN側, 國際赤十字代表에 의한 北韓捕虜收容所 視察提案을 철회.
	政 治
	○「덜레스」씨 來韓, 前線視察後 李大統領을 예방하고 休戰은 자유세계가 韓國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UN의 목적인 韓國의 통일을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言明.
	○ 諾威政府, 韓國休戰會談에서 제의되고 있는 中立國 休戰監視 委員會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성명.
12월17일	軍 事
	○ UN海軍 驅逐艦「스웬손」號等, 淸津地區 보급로를 猛打.
	○ 捕虜交換分委—共產軍側, 抑留捕虜의 全員釋放을 要求.
	○ 休戰監視分委—UN軍代表「홋지-스」少將에 교대하여「파렌보」少將이 出席.
	○ UN軍司令部— 12일 이후부터는 平壤—開城間의 도로를 爆擊하겠다고 경고.
	政 治
	○ 韓日豫備會談 船舶分科委員會 제21차 회의에서 韓國置籍 船舶問題로 대립.
12월18일	軍 事
	○ 鐵原 西北쪽에서 大隊兵力의 敵攻擊을 격퇴.
	休戰會談
	○「릿」將軍·「밴」司令官·「조이」首席代表等, 汶山의 前進司令部에서 중요회담을 가짐.
	○ 捕虜交換合同分委—共產軍代表, 捕虜名簿의 제출에 동의하고 午後會談에서 이를 交換.
	○ UN軍側, 兩軍의 捕虜數를 發表—UN軍抑留의 共產軍捕虜(12월 31일 현재) 北傀軍 111,754명, 中共軍 20,720명, 共產軍抑留의 UN軍捕虜, 韓國軍 7,142명, 美軍 3,198명, 기타의 UN軍 1,216명.
	政 治
	○ 李公報處長, 「릿」將軍 轉任說은 韓國에 큰 충동을 주고있다고 談話.
	○ 韓日豫備會談 國籍分科委員會—日本側, 在日僑胞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提出.
	○「이란」總選擧 開始.
	○ 瑞典政府, 韓國休戰 中立國監視制度에 대표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성명.
12월19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金化, 金城道路上에서 2차에 걸쳐 偵察交戰.
	休戰會談
	○ 休戰監視合同分委—UN軍代表, 休戰監視問題解決에 共産軍側의 양보를 요구.
	政 治
	○ 제11회 臨時國會 開會式.
	○ 李公報處長, 포로명부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共産側名簿는 믿기 어렵다고.
	○ 休戰反對 서울시민 궐기대회, 德壽宮廣場에서 개최.
	○ 韓日豫備會談 國籍分委—재일교포의 旣得權, 永住權, 財産搬出權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 UN軍 總司令部, 前美第24師團長「딘」少將을 포함한 UN軍捕虜의 姓名을 발표.
12월20일	**軍 事**
	○ B—29 空中要塞機隊, 新安州飛行場에 총계 60屯의 폭탄을 투하.
	休戰會談
	○ 休戰監視合同分委— 雙方의 의견을 參謀將校會議에 委任.
	政 治
	○ 李大統領, 國會開會式 致辭에서 改憲案에 언급하고 통과를 要求.
	○ UN總會—安全保障理事會 非常任理事國인「유고」의 후임으로「희랍」을 선출.
12월21일	**軍 事**
	○ 第7師團工兵隊, 50일간의 惡戰苦鬪끝에「斷腸의 稜線」上에 戰車도로를 완성.
	休戰會談
	○ 參謀將校會談—①休戰協定發效後 24시간 이내로 일체의 敵對行爲를 停止할것. 雙方은 協定發效後 5일 이내로 非武裝地帶로 부터 철수하고 상대방의 後方地域, 沿岸島嶼 및 沿岸水域으로부터 撤退할 것을 결정함.
	政 治
	○ 李大統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官民의 협조로서 聖戰下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
	○ 忠北에서 統一없는 休戰反對 국민궐기대회를 개최.
	○ 美國務省, 伊太利講和條約中에 軍備制限條項을 撤廢키로 발표.
12월22일	**軍 事**
	○ 漣川地區에서 敵의 공격을 擊退.
	休戰會談
	○ 休戰監視合同分委— 飛行場再建禁止에 관하여 토의를 계속.
	○ 捕虜交換合同分委—UN軍側, 重傷病捕虜의 즉시교환을 요구.
	政 治
	○ 國會, 拉致愛國者의 석방청원을 정부로 이송하고 休戰會談을 통하여 조속히 실현하도록 조치를 요망.
	○ 政府, 국회의원, 보궐선거실시에 관하여 공고하고 선거일자를 2월 5일로 정함.

월 일	중 요 사 항
	○韓日 豫備會談 國籍分科委員會—재일교포의 旣得權 認定問題를 포함한 처우 및 永住權報題에 관하여 의견근접.
12월23일	**軍 事**
	○ 北韓一帶에 敵의 차량부대이동 激增, 夜間爆擊機출격, 敵補給車輛部隊 125대를 격파.
	休戰會談
	○ 捕虜委—共産側, 22일 UN軍이 提案한 傷病捕虜의 즉시석방에 대하여 회답을 회피.
	政 治
	○ 自由黨發黨式, 院內外 別個로 거행.
	○「코린스」 美陸軍參謀總長, 26일의 期限終了까지 韓國休戰協定이 成立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방송연설.
12월24일	**軍 事**
	○ UN軍艦隊, 興南港을 強打, 英및 加驅逐艦, 鎭南浦 南쪽의 砲臺와 軍事集結所를 猛攻擊.
	休戰會談
	○ 共産軍司令官, 國赤代表의 北韓捕虜收容所의 방문을 拒否.
	○ 捕虜交換公同分委—兩側代表, 捕虜와 家族間의 통신교환에 동의.
	政 治
	○ 李大統領, UN各國에 성탄절 멧세지를 전달.
	○ 陸軍當局, 北韓에 收容中인 韓國軍捕虜 7,142명의 명부를 발표.
	○ 李陸軍參謀總長,「크리스마스」와 新年을 맞이하여 일선위문에 전국민의 熱成을 요망하는 담화를 발표.
	○ 北京放送—共産側은 捕虜收容所 조사문제보다 捕虜의 安全을 보장할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 「×」 美大統領 美國民에 대한「크리스마스」 멧세지에서 美國은 正義와 平和의 창조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강조.
12월25일	**軍 事**
	○ 共産軍 1個大隊, 文登里 西쪽의 3個 UN軍 前哨陣地를 공격.
	○ B-29 空中要塞機隊, 레이더를 使用코 淸川江鐵橋및 黃州飛行場을 폭격.
	休戰會治
	○ 休戰監視合同分委—共産軍側, 休戰期間中 항공세력을 증강할 권리를 계속 주장.
	政 治
	○ 日本 吉田內閣 第3次 改閣.
12월26일	**軍 事**
	○ 文登里 西쪽 前哨陣地 爭奪戰 계속.
	○ UN海軍 Rocket艦, 城津市를 急襲하고 5吋 Rocket彈 24發을 사격.
	○ 深雪로 제5空軍 7회出擊, 금년 2월 9일 이래도 최소의 출격.
12월27일	**軍 事**
	○ 文登里 西쪽 高地에서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전투전개.
	○ 第5空軍戰鬪爆擊機隊, 北韓의 主要鐵路 197개소를 遮斷.
	○「웨이랜드」 美極東空軍司令官, 極東空軍의 8월 이후 4개월 반의 주요 戰果를 發表—① 北韓共産軍輸送路破壞 ② 貨物自動車 4萬臺 破壞, ③ 共産軍의 次期 攻勢를 위한 軍需品의 집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결을 방해.		協案을 提示.
	休戰會談		① 중립감시반의 공중감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
	○ 30일간의 잠정적 기한을 滿了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결에는 未到達.		②휴전성립후의 兵員교대제한에 동의.
	政 治		③ 군용비행장 再建금지를 依然 主張하나 特定地點에 있어서의 一定數民間人航空用 비행장의 再建에 동의.
	○ 西歐 6個國外相會議, 巴里에서 개최—歐州軍에 관한 諸問題를 검토.		○ 포로교환 合同分委—共產軍 및 全포로에 관한 情報의 交換에 동의.
12월28일	**軍 事**		**政 治**
	○ UN군부대, 文登里 西方地區에서 상실한 전진진지를 탈환.		○ 極東의 「가나다」軍 시찰을 위해서 加國防相 「콜랙스톤」氏 等 一行 東京도착.
	○ 전차의 지원을 받은 中共 보병부대, 高浪浦 西쪽의 UN군 진지에 來襲.		○ 佛軍당국발표—26일간의 黑河전투에서 胡志明군 손실 피살 5천, 부상 5천, 포로 1천 以上, 胡志明군 2개사단이 붕괴.
	○ 美戰艦「센트·포—트」, 驅逐艦「마—샬」등 杆城地方의 敵포진지를 猛打.		○ 西歐 6개국 外相會議 終了, 歐洲軍 창설에 관하여 原則的으로 의견 일치.
	休戰會談	12월30일	**軍 事**
	○ 휴전감시 合同分委—共產軍측, 휴전기간중 공군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口頭上의 서약을 문서에 기록하는것도 拒否.		○ 戰線氣溫 零下 20度.
	○포로교환 合同分委—UN군대표, 포로에 관한 一層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을 요구.		○ UN군부대, 高浪浦 西쪽 전진진지에서 9시간에 걸친 교전끝에 공산군 2개 중대를 격퇴.
	政 治		○ 平壤방송—공산군을 海州灣의 大睡鴨, 小睡鴨 兩島를 奪回.
	○ 北京방송—韓國휴전협정이 기한내로 成立되지 않는 것을 UN군측에 全책임이 있다고 비난.		**休戰會談**
	○ 西歐 6개국外相會議, 歐洲軍창설의 경비 부담을 토의.		○ 휴전감시 合同分委—共產군대표, 29일 UN군提示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군사비행장의 再建禁止는 절대 수락할 수 없다고 언명.
12월29일	**軍 事**		○ 포로교환 合同分委—UN군측, 外交官, 宣敎師, 敎育者를 포함한 7개국의 민간인 55명의 명부를 手交하고 調査
	○ 東部, 中部전선 接敵 경미.		
	○ 高浪浦 西쪽에서 전투계속.		
	休戰會談		
	○ 휴전감시 合同分委—UN군측, 新安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를 요구.		○ UN海軍 제77機動艦隊 艦載機, 北青, 元山地域을 爆撃.
	政 治		○ 濠洲 航空母艦 「시드니」號 艦載機 海州, 新寧地域을 攻撃.
	○ 「애치슨」長官, 猶太人系 재향군인회 會合席上에서 美國은 UN군 포로전부가 석방되기까지 休戰치 아니할 것이며 韓國의 安全을 위협할 해결에는 斷乎 反對한다고 강조.		○ F86 젯트기 31臺, 敵 MIG 15機와 北韓 上空에서 空中戰, 敵機 2臺에 損害.
	○ 歐洲軍 창설에 관한 西歐 6개국회의 終了, 歐州軍의 統合 및 구성에 관한 基本的인 문제에 의견일치.		休戰會談
12월31일	軍 事		○ 休戰監視分委 無進展.
	○ 文登里 西方에서 UN군, 敵 2개분대의 공격을 격퇴.		○ 捕虜交換分委, 民間送還에 關한 UN軍側 提案에 原則的으로 合意하고 名簿에서 漏落된 50,000명의 UN軍 捕虜에 관하여 情報提供도 約束(文 204).
	○ 高浪浦 西쪽에서 백병전 展開, UN軍, 28일에 상실한 전진진지를 再奪還하기 爲하여 계속 반격전을 감행.		政 治
	休戰會談		○ 三府合同 新年 祝賀式 擧行.
	○ 휴전감시 合同分委—「터—너」 UN군 대표 共産군측의 공군력 증강요구의 고집을 비난.		○ 李大統領, 年頭辭에서 統一獨立과 自由幸福을 위한 鬪爭繼續을 強調.
	○ 포로교환 合同分委—UN군측, 共産군측에 명부로 부터의 탈락을 主張하고 있는 포로에 관한 정보의 提供을 약속.		○ 美政府, 中共軍이 美軍捕虜를 宣傳目的에 使用하고 있다는 報道에 관한 調査開始.
	政 治		○ 蘇「스타린」, 日本國民에 新年「멧세지」를 통하여 平和위한 鬪爭에 成功할 것을 希望한다고 전달.
	○ 금년중 釜山세관集計, 밀수 摘發 820件, 押收物資 總額 32億餘圓.	1월 2일	軍 事
	○ 「처칠」 英首相및 政府首腦一行 海路訪美 上程.		○ 敵, 夜間에 文登里 西쪽에서 UN軍 前哨陣地를 공격.
1952년 1월 1일	軍 事		○ 美國務省發表—韓國戰線에서 美軍犧牲者總數 103,739명이라고, 昨週發表에 比하여 371명 增加.
	○ 戰線平隱.		休戰會談
	○ 漣川 西北方에서 敵의 小規模 偵察攻撃을 擊退.		○ 捕虜交換分委—UN軍代表, 全捕虜의 交換을 原則으로 하는 6個項의 提案을 提示.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李大統領, 「인터뷰」에서 來 5월에 華府를 訪問하여 「트」大統領에게 韓國의 分斷을 持續시키는 如何한 休戰에도 反對할것을 要請한 것이라고 言明(AP).
	○ 「코—엔」 UN美國代表, 政治委員會에서 在韓UN軍은 撤國行動에 모범적이라고 指摘하고 萬若 韓國休戰이 拒否된다면 軍事力을 包含한 UN의 새로운 努力이 必要하게 될 것이라고 言明.
1월 3일	軍 事
	○ 敵陣 後方 各地域에서 敵의 戰車 活動이 활발.
	○ 高浪浦 西쪽에서 UN軍 12월 28일에 상실한 前哨陣地를 奪還코저 攻擊開始, 熾烈한 交戰끝에 1個高地 奪還.
	○ UN軍 「젯트」機隊, 新安州, 平壤 부근의 鐵道施設을 破壞.
	○ F84 및 F81機 各 1臺 敵軍地上 砲火로 喪失.
	休戰會談
	○ 休戰監視 分委 無進展.
	○ 捕虜交換分委—共產側, 2日 UN側의 提案을 全面的으로 拒否(文 207).
	政 治
	○ 「처칠」首相, 休戰會談의 結果로 自由統一韓國이 樹立될것을 希望하고 韓國民의 期待에 誠實盡力할것을 約束.
	○ 駐韓 中國大使館, 200,000명의 中共捕虜中 80%는 前 國府軍이며, 이들은 中共으로 돌아가기를 不願한다고 發表.
	○ UN政治委員會 「비」 蘇聯代表, 國際的 緊張을 緩和하고 韓國戰爭을 終結시킬 手段을 檢討하기 위하여 臨時 安全保障理事會의 開催를 要請한 決議文을 提出.
1월 4일	軍 事
	○ 杆城 西方에서 敵의 輕微한 搜索攻擊을 擊退.
	○ UN軍部隊 長時間의 夜間戰鬪끝에 文登里 西方高地를 再奪還.
	○ 高浪浦 西方에서 아직도 敵이 1個高地를 確保中.
	○ UN軍 艦艇, 東海岸 元山에 대한 艦砲射擊을 계속.
	○ 治安局管下 警戰隊 一年間 戰果發表, 交戰回數—7,880回, 射殺—52,571명, 捕虜—8,536명, 歸順—43,937명.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共產側, 飛行場 建設制限 문제에서 讓步를 계속 거부.
	○ 捕虜交換分委—共產軍代表, 2일의 UN軍提案에 대하여 項目別로 反論.
	○ UN軍側 「나콜스」准將, UN軍側은 主要한 讓步를 거듭해 왔다고 指摘.
	政 治
	○ 李大統領, 陸海空軍 全員에게 特製煙草를 新年下賜.
	○ 「코엔」 美UN代表, 韓國休戰 交涉을 安保理로 옮기자는 蘇聯의 提案은 休戰會談 決裂의 위험성이 있다고 談話.
	○ 美 「애」 國務長官, 記者會見에서 上記 提案을 非難하고 同提案의 拒否를

월 일	중 요 사 항
	示唆.
1월 5일	軍 事
	○ 東部戰線 盆地地帶에서 3次에 걸쳐서 探索戰.
	○ 高浪浦 西方에서 前哨高地 爭奪戰 계속. UN軍, 敵이 掌握한 2個高地를 除外 其他地域에서 600m 前進.
	○ UN軍 戰鬪爆擊機隊, 敵의 補給地를 強打.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 無進展.
	○ 共産側 病傷捕虜의 即時釋放 要求를 再次 拒否.
	政 治
	○ 濠洲 記者團 一行 來韓.
	○ 北傀, 다시 UN加入을 申請(AP).
	○ 美英 兩巨頭會談 開幕(華府에서).
1월 6일	軍 事
	○ 漣川 北方에서 小規模 交戰.
	○ 高浪浦 西方에서 終日 激戰.
	○ UN空軍 F86젯트기 75臺, 敵 MIG機와 空中戰에서 敵機 5臺를 撃墜하고 10臺를 撃破.
	休戰會談
	○ UN軍 代表, 捕虜 및 民間人의 交換에 關한 2日의 6項目 提案을 다시 說明.
	○ 共産側, 同提案을 非現實的이라고 이를 拒否.
	政 治
	○ 尙武臺 開所 및 命名式, 李大統領, 「벤」 司令官 參席下에 擧行.
	○ 佛「슈망」外相, 人民共和黨 大會席上에서 韓國休戰은 不遠調印될것이며 印度支那에서도 休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論及.
1월 7일	軍 事
	○ 文登里 溪谷에서 UN軍 探索隊 중대규모의 敵과 交戰.
	○ 高浪浦 西方에서 高地奪還戰 계속.
	○ 美 重巡洋艦「로체스타」號 杆城近方 敵陣에 9시간동안 砲撃.
	○ UN B29 爆撃機隊, 淸川江 鐵橋를 爆撃.
	○ 智異山地區 殘匪掃蕩戰 계속.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UN軍側이 空軍力 增強을 反對하는 것은 會談을 故意로 遲延시키는 것이라고 敵側이 非難.
	○ 捕虜交換分委—無進展.
	政 治
	○ 蘇聯 UN代表, 韓國休戰會談을 UN 特別安保理에서 문제點을 解決토록 하자고 再次 主張.
	○ 北京放送—韓國休戰會談의 無進展을 宣傳에 利用.
	○ 休戰會談 UN側 首席代表「크이」中將 東京歸還.
	○ 美國防省, 東南亞 防衛문제의 討議를 위한 美英佛 3國 軍事會談이 11일부터 華府에서 開催된다고 公式發表.
	○ 佛內閣 總辭退.
1월 8일	軍 事
	○ 高浪浦 西方 激戰 繼續.
	○ 제1사단 高浪浦西方 砂是里高地 부근에서 中共軍 4個대대와 激戰을 展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開 敵 1,000餘名을 射殺.		示.
	○ B29 爆擊機隊, 軍隅里 操車場을 爆擊.		○ 李國防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國軍增強에 努力中임을 言明.
	休戰會談		○ UN 政治委員會, 韓國문제 蘇側提案을 否決.
	○ UN代表, 捕虜交換에 關한 2日의 提案을 修正하여 6個項目의 提案을 다시 提出.		○ 美英 兩巨頭, 韓國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共同努力할것을 聲明.
	政 治		○ 白耳義 內閣 總辭職.
	○ 李國防長官, 兵役義務 負擔의 均衡을 強調하고 一大刷新을 斷行함에 際하여 國民의 協調를 要望.	1월10일	軍 事
	○ 休戰會談 UN首席代表「조이」中將「릿」司令官과 協議.		○ UN軍部隊 漣川 西北方 敵의 高地를 攻擊.
	○ 韓日會談 韓國代表 金溶植氏, 日本側 千葉代表와 會談.		○ 和蘭巡洋艦, 東海岸 城津地區에 集中砲擊.
	○ 美英 巨頭會談 終了.		○ 美驅逐艦 2隻 元山海岸 砲臺에 集中砲擊
1월 9일	軍 事		○ 8軍司令部, 1月 1日부터 7日까지 사이에 敵 3.343명을 射殺하고, 2,500명을 負傷케 하였으며, 36명을 捕虜로 했다고 發表.
	○ 地上戰闘 대체로 靜隱.		休戰會談
	○ 小隊規模의 敵 文登里 西方 前哨陣地를 奇襲.		○ UN 軍側, 9日의 共產側 提案을 다시 拒否.
	○ B29機隊 鴨川부근 鐵道要衝을 爆擊.		○ 會議終了後「리비」UN側代表 拒否理由로서 다음과 같은點을 指摘.
	○ UN空軍, 智異山地區 共匪掃蕩戰 支援.		① 捕虜自身의 自由意思에 依한 歸還
	休戰會談		② 捕虜와 抑留民間人과의 交換.
	○ 休戰監視分委—共產軍側, 飛行場增設문제를 除外하고는 거의 同一한 內容의 新提案을 提出, UN側, 軍用飛行場의 建設 및 修理의 禁止條項이 包含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拒否.		③ 共產軍에 編入한 韓國軍將兵에 대한 UN軍側의 調査.
	○ 捕虜交換分委—無進展.		④ 다시 參戰하지 않는다는 宣誓附의 捕虜釋放.
	政 治		政 治
	○ 李大統領, 重石弗을 一律的으로 韓銀에 貸渡토록 財務部와 商工部에 指		○ 李大統領, 美第7艦隊 「위스콘신」호를 訪問하고 「마틴」 司令官에게 太極

월 일	중 요 사 항
	武攻勳章을 授與.
	○ 政府, 國務院公告 제24호 「防空態勢確立을 위한 防空 非常事態 宣布에 關한 件」을 10日字로 宣布.
	○ 平壤放送, 敵은 9日 甕津半島 南方의 昌麟, 魚化 兩島를 占領하였다고 報道.
	○ 北京放送, 休戰期間中의 軍事飛行場 建設에 關한 共產側 主張은 不變이라고 講調.
1월11일	軍 事
	○ UN軍 探索隊, 平康 西南方 敵 前哨陣地를 攻擊.
	○ 漣川 西北方에서 結氷을 利用하여 敵陣을 奇襲.
	○ UN艦隊, 東海岸 元山—咸興—城津地區의 海岸砲臺 砲擊.
	○ 板門店 北方 30km 上空에서 彼我間에 空中戰 展開.
	○ B29機隊, 新安州 操車場을 爆擊.
	休戰會談
	○ 休戰 兩分委—無進展.
	政 治
	○ 敎府 代辯人, 巨濟島에 收容된 5,500餘명의 捕虜는 最近 「反共青年同盟」을 結成하고 國會에 對하여 捕虜의 無條件 내지 無差別交換을 反對한다는 陳情書를 提出하였다고 言明.
	○ 洪慶南兵事區司令官, 近間 全國的으로 제2국민병 해당자에 대하여 3個月間 예정으로 一齊身體檢査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言明.
	○ 韓國戰線을 巡訪하고 香港에 到着한 濠洲新聞記者團, 濠洲軍의 韓國參軍狀況이 優秀하다고 言明.
1월12일	軍 事
	○ 全戰線에 걸쳐 戰鬪는 探索行動에 局限.
	○ 鐵原西方 敵의 高地를 攻擊.
	○ 美제5空軍發表, 1月 4日부터 11日까지 사이에 我方損失은 F86機를 포함하여 16臺로서 週間最高損失이라고 發表.
	休戰會談
	○ 休戰 兩分委—無進展.
	政 治
	○ 敎府 閣僚移動을 發表, 國務總理署理 許敎氏, 遞信部長官 李淳銘씨, 社會部長官 崔昌順氏.
	○ 李陸軍總參謀長, 孫海軍總參謀長, 白野戰司令官, 各各 中將으로 昇進.
	○ 英, 外務省 代辯人, 美英佛等 韓國前兵諸國은 만약 共產側이 休戰協定을 파기한 경우 中共에 對한 共動軍事行動을 取하는데 同意하였다고 言明.
1월13일	軍 事
	○ 北韓江 上流 東部地域에서 敵 搜索隊를 擊退.
	○ 平康 南쪽에서 輕微한 交戰.
	○ 第5空軍 所屬機 敵 補給品 集積所 爆擊.
	休戰會談
	○ 捕虜交換分委—捕虜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送還하자는 UN側 主張과 全捕虜의 強制送還을 主張하는 共產側과의 意見對立 依然.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ECA 援助物資로서 衣類 1,247包, 米穀 1,300ton, 原綿 1,488包, 綿布 877包 등 入荷.
	○ 13日 判明된 印度 總選擧, 國民會議 前 壓倒的인 勝利.
1월14일	軍 事
	○ 第1師團 高浪浦 西쪽의 砂是里에서 4시간 동안 交戰.
	○ UN空軍 2日째의 暴雪風때문에 겨우 575回 出擊.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UN軍側 飛行場 建設 制限에 同意할것을 促求.
	○ 共產軍代表, UN軍機가 瀋陽·撫順 등에 侵入하였다고 非難.
	④「죠이」UN 首席代表 汶山歸任.
	政 治
	○ 孫海軍 總參謀長, 1個月內로 상당수의 艦艇이 援助輸入된다고 記者會見席上에서 言明.
	○ UN韓國協會,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同會의 社團法人化및 學生UN運動 強化등을 決意.
	○ 中共 新華社通信, UN軍機 瀋陽上空에 侵入하였다고 報道.
1월15일	軍 事
	○ 地上戰鬪 大體로 平穩.
	○ 杆城 西北方에서 敵의 輕微한 捜索隊 擊退.
	○ UN軍艦隊 與南 城津등 敵 海軍目標를 砲擊.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無進展.
	○ 捕虜交換分委—共產軍代表, UN軍機가 14일밤에 江東 共產軍 제8捕虜收容所에 投彈, UN軍 捕虜 18명이 死亡, 60명 이상이 負傷하였다고 通告.
	政 治
	○ 第12回 定期國會에서 許國務總理 新年 施政演說.
	○ 李陸軍總參謀長, 創軍 6週年을 맞이하여 壬辰先烈의 精神繼承을 強調.
	○「럿」總司令官, 北韓捕虜收容所 爆擊事件에 關하여 空軍의 調査를 命함.
1월16일	軍 事
	○ 漣川 西北方에서 步戰協同으로 중대규모의 中共軍과 交戰.
	○ 美·加 海軍部隊, 城津地區에 대한 砲擊을 경속.
	○ UN軍司令部, 江東爆擊事件에 對하여 位置不明으로 眞僞를 確認할수 없다고 發表.
	休戰會談
	○ 國際赤十字委員會, 極東首席代表「윳트, 레너」博士 板門店도착.
	○ 共產側, 板門店에 도착한 赤十字代表의 入北을 拒否
	政 治
	○ 國會, 新年度 豫算案에 대한 各部所管補充 說明 聽取.
	○ 韓日會談, 國籍分科委員會 再開.
	○ 美「트」대통령, 年頭經濟報告書를 議會에 提出, 自由諸國의 繼續的인 원조를 강조.
1월17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UN軍「Z」機隊, 蘇聯製 T34型戰車 3臺를 擊挫破壞.		統 宣言을 發表.
	○「럿」司令官, 前線巡訪,「죠이」中將 과도 要談.		○ 李治安局長, 警察義勇隊의 待遇改善을 言明.
	休戰會談	1월19일	軍 事
	○ 休戰監視分委—飛行場建設制限의 國家主權侵害에 關한 解釋으로 論爭.		○ 文登里 西南方 溪谷에서 UN軍部隊 共産軍陣地를 奇襲.
	○ 捕虜交換分委—共産側이 捕虜收容所에 標識하지 않았던것은「쥬네—브」議定書의 違反이라고 非難.		○ 高浪浦 西北方에서 敵陣攻擊.
	○ 國際赤十字代表, 共産軍司令官에 對한「멧세지」를 李相朝 共産代表에 手交.		○ 智異山 地區 共匪擊滅戰, 18, 19 兩日간에 敵射殺 589명, 捕虜 237명을 發表.
	政 治		○ 共産側, 18일 平壤—開城間에서 標識한 共産代表 輸送隊를 攻擊하였다고 非難.
	○ 國會 改憲案 審議.		○ 捕虜交換分委—共産側. 戰鬪期間中에 있어서 捕虜의 保證에 關한 參謀將校委員會을 設置하자는 UN側案에 原則的으로 同意.
	○ 張勉 UN代表, 國會에 對韓으로 活動 經過를 報告.		政 治
	○ 美·英·加·印,「우루과이」의 5個國 代表로 組織된 UN韓國復興委 諮問委員會가 2億5千萬弗의 韓國復興計劃을 承認했다고「킹스리」再建局長이 發表.		○ UN總會. 蘇聯이 提案한「새로운 世界大戰防止措置」에 關한 件을 政治的 黑幕이라하여 否決.
1월18일	軍 事		○「럿」司令官, 汶山에서 UN軍 休戰會談代表와 秘密會議를 마치고 東京歸還.
	○ 地上戰鬪—小規模 搜索戰.		
	○ 高城 南쪽에서 小隊規模의 敵 擊退		
	○ 文登里 溪谷에서 輕微한 交戰.	1월20일	軍 事
	休戰會談		○ 平康南方에서 小規模 偵察隊 交戰.
	○「나콜스」UN軍 代辯人, UN軍은 捕虜交換및 飛行場 增設문제에 關하여 基本方針을 변경할수없다고 聲明.		○ UN軍 海軍部隊, 元山, 興南, 城津을 砲擊.
	政 治		○ 콜롬비아 海軍部隊 司令官「헤에르」大領 同部隊 將兵의 半數以上이 繼續戰鬪를 自願하였다고 言明.
	○ 國會, 改憲案에 대한 表決結果 143對 19票로 否決.		休戰會談
	○ 政府, 隣接海岸의 主權에 對한 大統		○ UN軍代表, 捕虜交換문제에 關하여

월 일	중 요 사 항
	部分的인 修正을 考慮한다고 言明. 즉, 宣誓釋放을 全捕虜에 適用하는 內容과 共產軍 捕虜와 抑留한국 市民과의 交換에 關한 原則을 改定案에서 考慮한다고.
	政 治
	○ 陸軍士官學校 開校式, 李大統領 臨席下에 盛大히 擧行.
	○ 美海軍長官, 「컴볼」씨, 텔레비존 방송에서 蘇聯潛水艦隊의 增強을 警告.
	○ 英外務省, 이란政府의 要求에 應하여 在이란 英領事館 閉鎖를 指令.
1월21일	軍 事
	○ 鐵原 西쪽에서 敵의 探索隊 擊退.
	○ 漣川 西北方에서 敵의 高地를 2시간 동안 攻擊.
	○ UN空軍部隊, 계속하여 敵의 補給集積所 爆擊.
	○ 新任美海兵師團長 「센톤」少將 韓國海兵 제8,100部隊를 訪問하고 同部隊의 業績을 讚揚.
	休戰會談
	○ 捕虜交換分委—共產軍代表, UN軍側은 共產軍捕虜를 韓國과 國府에 넘겨줄려한다고 非難.
	○ 國際赤十字代表, 18日附 書翰에 대한 回答을 收領.
	政 治
	○ 國會, 造兵廠事件 軍裁審에 대한 眞相聽取를 決定.
	○ 在日 居留民團長, 國會에서 在日同胞의 實情을 報告.
1월22일	軍 事
	○ 地上戰鬪 平穩.
	○ UN 軍 海軍部隊, 繼續 敵의 港灣및 補給基地를 砲擊.
	○ 空軍機, 계속 敵의 補給要衝地 攻擊
	休戰會談
	○ UN軍側, 共產側이 飛行場 建設禁止에 同意한다면 其他 監視分委件을 受諾하겠다는 意思表示.
	○ 捕虜交換分委—共產側 參謀將校會議開催에 正式으로 同意.
	政 治
	○ 許總理署理, 國會議員 보궐選擧에 관하여 談話發表.
	○ 國會 朝紡爭議事件에 대한 眞相報告聽取.
1월23일	軍 事
	○ 東海 岸戰線에서 敵偵察隊 2個부대를 擊退.
	○ UN軍 戰車部隊, 金城東南方 敵토치를 攻擊.
	○ 鐵原 西方高地에서 中共과 6시간 交戰.
	休戰會談
	○ 中共側, UN軍은 韓國軍 士官學校등을 創設함으로써 軍事力 增強을 企圖하고 있다고 非難.
	○共產側, 捕虜收容所의 位置를 明示한 地圖의 手交를 約束.
	政 治
	○ 李國防長官, 造兵廠事件 決審에 대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繼續 眞犯搜査에 全力할 것을 言明.
	○ 金弘一 駐華韓國大使, 公報處를 통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하여 密船, 密輸 自肅을 國民에게 要望.		○ 休戰監視分委—UN軍代表, 現 停頓狀態의 打開를 위하여 3個方案을 提示. 즉 ① 合同分委에 併行하여 參謀將校會議를 開催하고 雙方이 同意한 原則의 細目을 討議 ② 參謀將校會議를 開催하여 그 結果를 報告할때까지 合同分委를 休會 ③ 參謀將校 會議가 諸原則의 細目을 解決한後 飛行場 문제도 同參謀將校會議에 上程.
	○ 1950년 7월以來 韓國戰線에 出動하고 있던 美제1機甲師團은 今當 日本으로 歸還하였다고 UN軍司令部發表.		政 治
1월24일	軍 事		○ 國會. 國政監査를 위하여 2月 13日까지 休會.
	○ 西部戰線에서 強力한 捜索戰을 展開		○ 慶南道內 제2국민병召集. 釜山市 出頭率. 至極히 不良.
	○ 極東空軍司令官「웨이렌드」中將, 敵 MIG機 操縱士가 中共軍같다고 談話.		○ 北京放送. 捕虜名簿에 記錄되지 않은 48명의 外國人은 休戰協定이 調印되는데로 釋放할것이라고 言明.
	○ 孫提督, 日本佐世保에서 水雷艇 4隻을 美軍으로부터 讓受하였다고 言明.		○ 美相互安全保障本部, 3月末 까지의 對亞細亞諸援助國에 割當할 額數發表
	休戰會談	1월26일	軍 事
	○ UN 軍側, 病傷捕虜의 即時交換을 再次 提議하였으나 共產側이 拒否.		○ 杆城南方 및 金城西方에서 小規模의 交戰, 敵 偵察隊 擊退.
	○ 參謀將校會議—北韓捕虜收容所의 位置를 明示하고 收容所의 標識에 同意.		○ 板門店 東北方에서 UN軍 探索隊 2시간에 걸쳐 交戰.
	政 治		○ B-29 7臺義州飛行場을 爆擊.
	○ 新年度 豫算審議를 앞두고, 國會에서 國政監査實施.		休戰會談
	○ 國會, 共匪掃蕩中의 軍警에게 感謝狀傳達可決.		○ 捕虜交換分委—共產側, 抑留外國人名簿(68명)를 手交하고, 休戰協定 成立後歸鄕을 願하는 全抑留民間人의 無條件 釋放送還도 約束.
	○ 中共 新華社通信, 美軍機가 19, 20, 21일의 三次에 걸쳐 滿州上空에 侵入하였다고 報道.		政 治
1월25일	軍 事		○ 外務部 情報局, 聲明을 發表하여 隣接海洋主權宣言에 대한 日本側 非難
	○ 東部戰線 盆地帶 北쪽에서 敵의 威力偵察隊 擊退.		
	○ 漣川 西方에서 敵의 占領高地 1個를 奪取.		
	○「세이버 젯트」機隊, 敵MIG機와 4次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機 10臺를 擊墜.		
	休戰會談		

월 일	중 요 사 항
	을 反駁.
	○ 申國會議長, 智異山地區 共匪討伐軍 慰問.
	○ 「릿」司令官, 記者會見에서 韓國休戰 交涉은 큰 未知數이며 會談은 極히 微妙하고도 困難하다고 見解披瀝.
1월27일	軍 事
	○ 文登里 西쪽에서 3次에 걸친 小規模 搜索戰.
	○ UN海軍部隊 鎭南浦 부근 要處를 砲擊.
	○ B-29機隊 新安州 橋梁 爆擊.
	休戰會談
	○ 休戰監視分委一合同 分科委員會 一時 休會하고 參謀將校會議에 委任키로 共産側 同意.
	○ 休戰監視문제 參謀將校會議—UN軍側, 現在까지의 討議結果에 의하여 作成한 休戰協定의 一部草案을 提出.
	政 治
	○ 任農林長官, 穀價騰貴에 관하여 買占의 嚴罰을 警告.
	○ 李大統領 서울訪問.
1월28일	軍 事
	○ 杆城 西北方에서 敵探索隊를 擊退.
	○ 文登里 西쪽 溪谷에서 敵의 侵襲을 擊退.
	○ 李大統領 「벤」 司令官帶同하고 제1사단 訪問激勵.
	休戰會談
	○ 捕虜交換分委—UN軍側, 休戰協定에 包含될 捕虜交換에 關한 14個項目의 草案을 提示.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李大統領, 中央廳廣場에서 열린 서울市民歡迎式席上에서 1個月내지 2個月內로 歸還할것을 希望한다고 言明.
	○ 金交通部長官, 來月 3日 北漢江 鐵橋開通式을 擧行키로 하였다고 發表.
	○ 比·日 賠償 豫備會談 開始.
1월29일	軍 事
	○ 東部戰線 高城 南쪽에서 敵의 攻擊을 擊退.
	○ 金城부근에서 小規模 探索戰.
	○ UN軍「젯트」機, 西北韓 上空 空中戰에서 敵 MIG機 1臺을 擊墜.
	休戰會談
	○ 共産側, UN側이 28일 提示한 協定草案을 拒否.
	政 治
	○ 李大統領, 李國防長官 및 「벤」司令官을 帶同하고 仁川 港灣視察.
	○ 日本政府, 隣接海洋에 關한 主權을 宣布한 大韓民國의 措置에 抗議.
1월30일	軍 事
	○ 鐵原 西北方에서 敵을 擊退.
	○ 高浪浦 西北에서 敵 2個分隊 我軍陣地를 攻擊.
	○ UN軍 海軍部隊 城津, 海州地區에서 作戰.
	休戰會談
	○ 休戰監視問題參謀將校 會議—共産軍側, 兵員交代문제에서 讓步 즉, 休戰期間中의 1個月 交代限度를 25,000으로 할것을 提案.
	○ UN軍 代辯人, UN軍機가 25日以來

월 일	중 요 사 항
	17回에 걸쳐 中立地區를 侵犯하였다는 29일의 北京放送을 否定.
	政 治
	○ 李大統領, 鎭海도착.
	○ UN安保理事會, 12個國 軍事委員會 新設作業을 開始.
	○「처칠」英首相, 韓國休戰成立後 共產側이 違反할 경우 英國이 對處하겠다고 公約한바없다것 言明.
1월31일	軍 事
	○ 高城 南方에서 소규모 搜索戰.
	○ 北漢江 上流에서 2個分隊규모의 敵을 擊退.
	○ UN軍 輕爆擊機隊, 敵 後方의 補給集積所 攻擊.
	休戰會談
	○「죠이」UN軍 首席代表, 共產側 南日 代表 에게 書翰을 發送 즉, 議題 제3, 제4項에 併行하여 제5項을 討議하기 爲한 合同分科委員會를 即時 設置하자고 提案.
	政 治
	○ 李國防長官, 全羅南北道 補闕選擧地區에서 非常戒嚴令을 解除하여 自由雰圍氣를 保障하겠다고 言明.
	○ 社會部發表—50년 6월부터 52年 1월까지 사이에 民間人 犧牲者수는 928,076명이라고.
	○ 日本 吉田首相, 衆議院에서 現 警察예비대는 10月에 防衛隊로 改編할 것을 考慮하고 있다고 言明.
2월 1일	軍 事
	○ 全戰線 大體로 平穩.

월 일	중 요 사 항
	○ 金城 南方에서 我軍 搜索隊 40명의 敵과 2시간동안 交戰.
	○ UN空軍, 淸川江 上空에서 敵 MIG機 1臺를 擊破.
	○ 西南地區 白野戰司令官, 共匪擊滅戰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곧 이를 全部 掃討할 것이라고 言明.
	休戰會談
	○ UN軍側, 中立監視班의 構成國으로서 瑞西, 瑞典, 諾威, 3個國을 指名.
	○ 共產國側, 休戰監視班이 駐留할「出入口」를 各己 3個所로 限定할것을 提案하되, 敵은 新義州, 咸安, 淸津으로하고 南韓은 釜山, 仁川, 水原으로 提議.
	○ 捕虜交換分委一共產側, UN側이 提案한 中立國으로 難民視察團 編成문제를 拒否.
	政 治
	○ 大韓 在鄕軍人會 結成大會.
	○ 佛國과 小包交換 業務 2월 1일부터 開始.
	○ 日本 吉田首相, 國會에서 裕仁天皇 退位說을 否認.
2월 2일	軍 事
	○ 金化 西北方에서 小隊규모의 搜索戰.
	○ UN 艦載機, 興南地域의 3個 飛行場 建物을 破壞.
	○ 國籍不明의 戰鬪機6臺, 金城南方 UN軍陣地를 機銃掃射.
	○ F-86「젯트」機 18臺, 新義州 上空에서 敵 MIG機와 空中戰 敵機 3臺를 擊墜.

월 일	중 요 사 항
	○ UN軍側, 休戰監視班의 「出入口」를 12個所 提案에서 3個所로 限定하려는 共産側의 提案을 反對.
	○ 共産側, 難民視察團 構成문제를 拒否.
	政 治
	○ 李大統領, 제5공군 제452基地를 訪問하고 表彰狀 授與.
	○ 國防長官, 慶南北 9個郡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기에 앞서 道民의 協調를 要望.
	○ 「마리크」 蘇聯代表, 合同委員會에서 韓國과 極東에 있어서의 今後事態에 對한 全責任은 美國이 져야한다고 非難.
2월 3일	軍 事
	○ 地上戰鬪 小康狀態繼續.
	○ 美驅逐艦, 西海岸 椵島地區에서 共産軍 海岸砲의 直擊彈을 被彈.
	○ F-86젯트機隊, 敵 MIG 15젯트機 2대를 擊破.
	○ 全羅, 慶尙地區에서 警察戰鬪隊, 殘匪 80명을 射殺하고 14명을 生捕.
	休戰會談
	○ 南日共産軍首席代表, 1월 13일부 「조이」首席代表 書簡에 回答하고 議題第5項의 並行討議에 同意, 正式代表에 依한 本會談을 開催하고 第5項에 關한 諸原則에 對하여 討議할것을 提案.
	○ 捕虜交換分委—共産軍側 9項目의 新提案提示.
	政 治
	○ 智異山地區隣接 慶南北 9個郡에 非常戒嚴令宣布.
	○ 李國防長官, 捕虜와의 郵便交換에 關하여 그 方法等을 明示한 談話를 發表.
	○ 「태프트」上院議員, 「트」行政府는 韓國戰爭의 勝利와 대만의 방위를 不願하고 있다고 비난연설.
	○ 英 「이든」外相言明—「트」大統領, 「애」長官, 「보」 合同參謀會議議長등 모든 美國高位側은 韓國戰爭을 中國本土에까지 擴大시키기를 不願한다고
2월 4일	軍 事
	○ 地上戰鬪, 酷寒으로 경미한 小規模戰鬪에 局限.
	○ 鐵原西北方에서 UN군 探索隊, 中共軍陣地를 奇襲.
	○ UN군, 共産軍 中隊兵力의 攻擊을 받고 連川西北方 前進陣地로부터 철수.
	○ UN군 폭격기대, 공산군 보급근거지와 交通施設을 간단없이 공격.
	○ F-86「젯트」機隊, 敵 MIG機 2대를 격파.
	休戰會談
	○ 兩軍連絡將校, 議題제5항목을 討議할 本會談을 6일 10시부터 開催할 것을 決定.
	○ 休戰監視問題 參謀將校會議—UN군측 交代人員數를 1個月 6萬名으로 할것을 提案.
	○ 捕虜交換分委—3일의 共産軍側 提案을 討議하고 다음 4項目에 原則的으로 意見一致.

월 일	중 요 사 항
2월 5일	(1) 傷病兵의 優先交換. (2) 板門店을 交換地點으로 指定. (3) 抑留期間中 死亡者의 資料交換. (4) 雙方難民의 歸還援助. **政 治** ○ 外務部長官에 葛弘基氏任命. ○ 中共放送, 美國이 緬甸中共國境地帶 國府軍殘留部隊를 積極的으로 援助하고 있다고 非難. ○ 「라빗트」美國防長官, 上院歲出分科委員會 公聽會에서 美國은 現在 MIG 15「젯트」機 보다 優秀한 航空機를 實驗中이라 言明. **軍 事** ○ UN군 早曉에 前日 철수한 漣川西方 前進陣地를 戰鬪없이 탈환하였으나 下午에 다시 철수. ○ B-29爆擊機隊 新安州鐵道側橋를 爆擊. **休戰會談** ○ 休戰監視問題 參謀將校會議—休戰期間中 非武裝地帶의 合同軍事監視班을 10個班으로 할 것으로 同意. ○ 捕虜交換分委—共產軍側, 다음 數個條項의 考慮를 言約. ① 포로교환의 早速한 實施를 爲한 時間的 制限問題. ② 捕虜收容所를 訪問할 赤十字社의 構成問題. ③ 板門店以外에도 交換場所를 設置할 問題. **政 治** ○ 國會議員 補闕選擧(全國 8個區域)實施.
2월 6일	○ 內務部長官에 現長官署理 張錫潤氏, 保健部長官에 現次官 崔在裕氏를 任命. ○ UN總會, 韓國休戰成立直後 特別總會를 召集하자는 美英佛提案을 51對5票로 可決. **軍 事** ○ 文登里溪谷西方에서 UN軍探索隊 敵軍과 交戰. ○ UN軍 步戰混成部隊, 平康東南方 敵高地陣地를 攻擊. ○ UN군, 漣川西方 前進陣地를 再奪還 ○ UN海軍艦載機部隊, 鎭南浦市를 猛攻. **休戰會談** ○ 議題第5項(關係各國政府에 對한 勸告)을 討議할 休戰會談의 第36次 本會談開催, 南日共產軍首席代表, 全外國軍의 撤退및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討議하기 爲하여 休戰後 3個月以內에 高位政治會議를 開催할 것을 提案. ○ 捕虜交換分委—다음 2個事項에서 意見一致. ① UN군—共產軍, 雙方의 赤十字團體로 構成된 合同機關이 捕虜收容所를 訪問하고 送還을 援助. ② 必要한 境遇 板門店以外에 交換地點을 追加. ○ 捕虜分科委員會, 捕虜問題에 關한 討議를 參謀將校會議에 委任하여 詳細한 協定을 作成케 하기로 意見一致.

월 일	중 요 사 항
2월 7일	○「릿」總司令官 汶山 訪問. 政 治 ○ 李大統領, 改憲案 否決은 民意背反이며 환도는 3월경 실현될 가망이 있다고 기자 회견담. ○ 李국방장관 7일 오전 零時를 기하여 一部 지구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와 一部 지구에 대한 계엄종류의 변경을 한다고 담화발표. 軍 事 ○ 증대병력의 UN군 기습부대, 板門店 남방의 공산군지역에 침투, 교전. ○ B-29폭격기대, 夜間에 新安州철교 폭격. ○ 극동공군사령관「웨이란드」중장, UN공군 폭격이 중단되면 공산군은 30일이내 북한 비행장으로부터 巨大한「젯트」편대로 공격할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 ○ 西南地區 공비토벌전, 잔비 12명을 사살, 9명을 生捕.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漢江河口 공동감시에 동의하고 UN군측, 다음 2點에서 양보. ① 각부대 소재지 명시 要求의포기를 고려, ② 沿岸으로부터 12哩을 영해로하자는 공산군측 주장을 고려.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공산군측 抑留포로수 이상으로 UN군측이 抑留하고 있는 공산군포로와 현재 공산군 지구에 있는 韓國籍 一般
2월 8일	人과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철회. 政 治 ○ 李大統領, 英國王「죠지」6世 서거에 吊電. ○ 金堤郡, 求禮郡, 潭陽郡에 비상계엄 선포. 경기도 水原市外 8개군 및 강원도 原州郡에 對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선포. ○ 美國으로부터 양도된 魚雷艇 4척에 對한 命名式, 대통령 임석하에 거행. ○ 北京방송—美공군기 2대가 板門店 中立地區 상공을 飛行하였다고 非難. 軍 事 ○ 전선, 비교적으로 平穩. ○ B-26폭격기대, 夜間에 宣川操車場및 軍隅里 보급중심지를 폭격. ○ 작전 개시 以來의 공비토벌 종합전과—사살, 생포 귀순을 合하여 17,478명, 각종총기 노획 : 3,140점. 休戰會談 ○ 휴전감시 문제 참모장교회의, 무진전 兵員교대문제에 관하여 토의계속.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포로 교환 기간을 60일로 연장할것을 주장. 政 治 ○ 李대통령「인접海洋의 主權」宣言에 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日 劃定線 設定의 主目的은 韓日 양국간에 평화와 友誼 유지에 있다고 강조. ○ UN本部 포로 특별위원회, 제2회기 종료, 관계정부에 포로 명부의 제출을 요청.

월 일	중 요 사 항
2월 9일	**軍 事**
	○ UN군부대, 平康西南方 共産軍陣地를 探索攻擊하고 敵 25名을 射殺.
	○ 美海兵隊所屬「글세아」機隊, 高城西南方 敵補給中心地를 攻擊.
	○ B-29空中要塞機隊, 夜間에 定州地區重要鐵橋를 폭격.
	○ 李國防長官, 「죠-지스」소령以下 141名의 白耳義軍 將兵에게 종군記章을 수여.
	休戰會談
	○ 제37차 본회담—「죠이」UN군 수석대표 6일부, 共産側 提案에 回答하고 議題를 韓國問題에 限定할 것과 韓國의 參加를 條件으로 休戰後 上級機關에 依한 政治會談 開催에 同意.
	○ 休戰監視問題 參謀將校會議, 無進展
	○ 捕虜問題 參謀將校會議, 捕虜交換合同委員會 設置問題에 關한 條項에 對하여 部分的으로 同意.
	政 治
	○ 職場防空關規則(大統領令 제606호) 公布 施行.
	○ 張內務部長官, 選都說을 利用하여 暴利를 노리는 無自覺한 一部市民에 警告.
	○ 考試委員長에 金法麟氏 社會部長官에 金容澤氏를 任命.
	○ 「맥」元帥의 共和黨大統領候補支持派 元帥를 「뉴—한프샤」州 豫備選擧의 候補者에 登錄.
2월10일	**軍 事**
	○ 地上戰闘平穩.
	○ UN海軍 東海岸에서 砲擊을 계속.
	○ F-86「젯트」機隊 MIG 15「젯트機 3대를 擊墜, 5대를 擊破.
	○ 美 第5空軍 敵機 擊墜記錄保持者「데비스」소령, 西北韓 上空 空中戰에서 行方 不明.
	休戰會談
	○ 제38차 본회담, 共産軍側—政治會議를 韓國問題에 限定하자는 UN군측 修正提案을 拒否, 韓國代表 參加를 受諾
	○ 休戰監視問題 參謀將校會議—UN軍側, 監視할 「出入口」의 數를 各各 8個所로 할 것을 提案.
	○ 捕虜問題 參謀將校會議—11項目으로 된 UN군측 제안의 逐條討議를 完了.
	政 治
	○ 3軍 政訓監會 議開催.
	○ 李公報處長, 漢江河口 共同管理案等 休戰會談에 있어서의 UN군측 양보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大韓民國으로서는 도저히 容認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表明.
	○ 日本 朝日新聞, 日本政府는 15일부터 開始될 韓日會談에 提案하기 위하여 兩國間에 正式 外交關係를 設定할 條約案을 作成하였다고 報道.
2월11일	**軍 事**
	○ 지상전투 경미.
	○ 高浪浦 西北方에서 경미한 적의 탐색 공격을 격퇴.
	○ 新安州 上空 공중전에서 「세이버 젯트」機隊, 적 MIG 15「젯트」機 1대를 격추하고 4대에 손해.
	休戰會談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제39차 본회담—「조지」대표, 만일 공산군측이 政治會議에서 소極東 문제의 제출을 고집한다면 UN군측은 제5항의 토의를 거부한다고 통고.		출을 言明.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出入口」문제에 不讓步.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交對兵員수를 2만5천명으로부터 3만명, 감시「出入口」수를 3개소로부터 4개소로 양보.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UN군측, 難民歸還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립국 시찰단을 파견하자는 요구의 양보 용의를 표명.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휴전성립후 戰線 後方에서의 赤十字 代表團의 活動에 부분적으로 동의.
	政 治		政 治
	○ 在日同胞 義勇軍中 상이제대된 15명 歸日.		○ 英國王「조지」6世 서거에 대한 李대통령의 조전에 對해서 「엘리자베스」 女王이 答電.
	○ 美國務省, 緬甸內 國府軍 잔유부대를 UN위원단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자는 영국 제안을 거부.		○ 政府, 1月 29日자 일본정부의 항의를 거부하는 각서를 送付하고 隣接 海洋上 主權 宣言의 正當性을 強調.
2월12일	軍 事		○ 일본 法務部 特審局長 日本 共産黨의 현황을 說明—공산당 實勢力은 30만 내지 35만, 그중 비합법 조직은 약 7할 무장반란 준비도 착착 진행중.
	○ 早曉에 文登里계곡 UN군 陣地에 대한 2차의 적 탐색공격을 격퇴, 敵 射殺 96명.	2월13일	軍 事
	○ UN공군 熙川西南方 적 「턴넬」 2개소를 파괴.		○ 동부전선 盆地帶西方 UN군 진지에 대한 공산군의 3차에 걸친 공격을 격퇴.
	○ 治安局 발표—西南地區 공비토벌전 개시이래의 警察戰果—敵射殺 2,752명포 1,150, 귀순 908명, 노획중화기 43정, 각종 소총 1,302.		○ 文登里 溪谷西方에서 적 1개 중대의 공격을 격퇴.
	休戰會談		○ UN공군 폭격機隊, 공산군 철도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 제40차 본회의—공산군측, 議題 5項에 관한 勸告는 정치회의에 出席할 各國 政府를 拘束하는 것이 아니라는 UN군측 主張을 受諾.		休戰會談
	○ 南日 공산측 수석대표, 議題 제5항의 合理的 해결을 위한 新修正案 제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出入口」수를 7개소로 할 것을 提案.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쌍방대표, 휴전협정 조인후 2개월 이내로 포로

월 일	중 요 사 항
	교환을 完了하기에 의견 일치.
	政 治
	○ 李대통령, 去10일 북한 상공 공중전에서 전사한 美 제5공군 적기격추 기록 保持者 「데비스」소령 부인에 吊電.
	○ 許총리서리,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5대 원칙을 무시한 휴전은 단호 배격할 것이라고 言明.
	○ 院內自由黨, 굴욕적인 停戰은 決死反對한다고 談話.
	○ 次期 大統領 共和黨 후보인 「스탓센」氏, 인터뷰에서 국부군의 한국전선 사용을 力說.
2월14일	軍 事
	○ 야간에 약 1천명의 공산군부대, 文登里 계곡에서 UN군 방어진지 돌파 공격에 실패.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中立國監視團에 참가할 中立國을 近間 指名한다고 言約.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新提案을 手交.
	政 治
	○ 李국방장관, 壯丁들의 兵役義務 이행에 대하여 注意를 환기하는 담화를 발표.
	○ UN本部, 미국은 UN 한국 재건국에 다시 1천만불을 거출하였다고 발표.
	○ 美육군 참모총장 「헐」대장, 「릿」總司令官 및 「죠이」수석대표들과 會談하고 휴전협상문제를 토의.
	○ 「트」대통령, 기자회견에서 UN은 한국휴전협정 締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言明하고 協定 侵犯 境遇의 UN군의 보복에 관하여서는 言及 回避.
2월15일	軍 事
	○ UN군 포병대, 文登里 계곡北方 공산군진지를 猛擊.
	○ 중대병력의 敵軍, 북한강 상류 東方 2개 UN군진지에 對하여 攻擊.
	○ 濠구축함 「바탄」호, 서해안 豊川 공산군 해안砲臺를 포격.
	○ 韓國空軍 江陵前進部隊, 平壤南方 沙里院 一帶에 출격.
	○ F-86「씻트」機 19대, 敵 MIG 15「씻트」機 30대와의 空中戰에서 적기 1대에 손해.
	休戰會談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自由意思송환문제를 除外하고 雙方 意思 接近.
	○ 휴전감시문제, 무진전.
	政 治
	○ 한일 양국의 友好條約 성립과 財産措置 및 어업문제등 諸懸案의 해결을 위한 한일 정식회담 개막.
	○ 美 태평양함대 참모장 「헤딩그」소장, 張介石총통과 회담.
	○ 故 영국왕 「죠—지」 6世 장례식 엄숙 거행.
2월16일	軍 事
	○ UN군 7개 공격부대, 서부전선에서 적진지를 猛攻.
	○ UN 海軍 發表, UN해군의 元山만에 대한 함포사격 및 봉쇄작전은 약 1개년간 계속. 每時間 평균 발사탄수는 22발.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休戰會談		共產軍진지를 砲擊.
	○ 제41차 本會談—南日 공산수석대표, 議題 제5항목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		○ 板門店東北方 UN군 전진진지에 대한 적 소대병력의 정찰대를 격퇴.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휴전중의 중립감시국으로 쏘련, 波蘭, 「체코」 3국을 指名.		○ F-86「젯트」機隊, 敵 MIG通路에서 2次의 공중전을 展開, 적 MIG「젯트」機 4대를 격추(그중 1대는 未確認)하고 1대를 격파.
	○ UN군측, 쏘련의 중립국감시機關 參加를 거부.		○ 西地區및 領南地區에서 계속 임무수행중인 國軍部隊 기습작전을 敢行하고 적 30명을 사살, 21명 生捕 10명 귀순.
	政 治		休戰會談
	○ 國會, 壁報事件(國會議員召還云云)에 관한 對정부 질의 응답에서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비난 공격.		○ 제42차 本會談—UN군측, 議題 5項에 관한 16일의 공산군측안을 조건부로 수락.
	○ 國會,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壁報事件에 對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을 可決.		① 勸告는 UN군사령관에 依하여 UN 각국 및 한국에 대하여 行함.
	○ 李대통령, 國會議員 召還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자기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은 法理的으로 不當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		② 外國軍隊라 함은 非韓國軍을 意味.
	○ 한일정식회담 제2회 회의—議題5項目을 採擇.		③ 其他問題라 함은 한국문제 이외에 관련되는 것은 아님.
	① 正常 外交關係 設定을 포함한 양국기본 관계의 토의.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共產軍代表 쏘련의 중립국 감시기관 참가를 고집.
	② 양국 국민의 財產請求權의 處理.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전선후방에서 활동할 赤十字委員會의 기능과 구성문제의 토의에 始終.
	③ 어업협정 締結을 위한 교섭.		政 治
	④ 通商航海條約 締結을 위한 토의.		○ 美陸軍參謀副長「헐」대장 「무초」대사 안내로 李대통령을 예방코 회담.
	⑤ 海底戰線의 분할.		○ 李국방장관, 巨濟島 포로수용소를 視察.
	○ 「덜레스」美국무장관고문, 기자회견에서 공산군에게 한국 점령을 허용한다면 자유세계는 將來에 있어 日本을 상실하게 되리라고 言明.		○ UN軍 총사령부, 美 제24사단은 한국전선으로부터 일본에 귀환하였다고
2월17일	軍 事		
	○ UN군 기습부대, 北漢江 上流東方		

월 일	중 요 사 항
	발표.
2월18일	軍 事
	○ UN군 攻擊部隊, 平康南方 中共軍高地陣地를 攻擊.
	○ UN 군 步·戰 混成部隊, 金城 正東方地區에서 中共陣地를 攻擊하고 격전전개.
	○ UN군 전투폭격機隊, 계속하여 敵철도시설을 공격.
	○ 敵 防空態勢 強化. 新安州에서 探照燈을 使用.
	○ 巨濟島 民間人 抑留所內에서 폭동사건 발생. 공산주의자에 편동된 약 1천 5백명의 抑留者들, 美군경비대를 공격. 미군 1명및 抑留者 69명사망, 美군 23명 및 投留者 142명 부상(22일 발표).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쏘련의 중립국 감시기구참가에 관하여 UN군의 再考를 요청.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赤十字代表團의 활동에 관한 2項目에서 양보.
	政 治
	○ 국회 의사당 주위에서 개회 직전에 수백명 청년들이 개헌안 부결에 반대하고 데모 展開.
	○ 국회, 시위사건을 圍繞하고 행정부를 論難한후 특별조사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위를 규명케 하기로 決定.
	○ 한일회담 한국수석대표 梁裕燦駐美大使 東京 到着.
	○ 美空軍當局, 미공군은 현재 쏘련제 MIG「젯트」機보다 우수한 항공機를 企劃 生産中이라고 言明.
2월19일	軍 事
	○ 國籍不明機 1대 동부전선 盆地帶西北方 UN군진지를 폭격.
	○ 北漢江 상류동방 UN군 전진 진지부대, 敵 中隊兵力의 攻擊을 받고 陣地를 포기.
	○ 西北韓 상공 공중전에서 F-86「젯트」機隊, 敵 MIG 15「젯트」機 3대를 격추.
	休戰會談
	○ 제43차 本會談—議題제5항(關係 各政府에의 勸告)에 關하여 原則的 同意에 到達.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 代表, 중립국으로서 쏘련 수락을 요구하는 공산군측 주장을 論難.
	政 治
	○ 國會, 議員召還云云問題와 시위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
	○ 국회, 同上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질의키로 決定.
	○ 北京放送, 쏘련을 중립국으로 看做한 것을 거절한 UN측 태도를 비난.
	○韓日會談, 韓國 수석대표 梁裕燦氏, 記者會見에서 회담歸結의 如何는 일본측 성실성에 左右된다고 言明.
2월20일	軍 事
	○ 중공군 1개소대, 初半에 北漢江東方 UN군 진지에 대하여 探索攻擊.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鐵原西方에서 UN군 공격부대, 중공군 부대와 교전. ○ UN군 공격부대, 板門店東北方에서 敵 1개 소대와 교전. ○ 공산군 1개 대대, 城津港근방의 「양도」에 上陸 企圖. ○ B-29폭격機隊, 夜間에 宣川南方 철교를 폭격.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휴전중의 交代 兵力數를 1개월 4만명으로부터 3만5천명으로 양보 제안.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무진전. **政 治** ○ 國會, 國會議員召還云云 문제에 대하여 12개 항목에 걸친 질의서를 대통령에게 提出. ○ 國會議員 召還云云 문제에 대한 대법원장의 法的 證言을 청취키로 決定. ○ 한일회담, 청구권및 어업 양 분과위원회, 최초회합 개최. ○ 한일정식회담 제3차 본회담—한국수석대표 梁裕燦주미대사 출석, 外交關係의 設定을 포함하는 基本關係의 수립을 토의하기 위한 分科委員會의 設置를 決定. ○ 美上院 군사위원회, 今年 18歲青年의 일반군사훈련 실시안을 12對 0으로 가결, ○ 美國은 目下 한국의 군사력을 急速히 증가할 구체적 계획을 신중 검토중이라고 報道(뉴—욕 타임스紙).		○ 北漢江 상류동방 UN군 전진진지에 대한 중공 1개 소대의 탐색공격을 격퇴. ○ 城津港近方 「양도」에 주둔 한국해병대, 上陸을 企圖한 공산군 1개 대대를 격퇴. ○ 美구축함 및 新西蘭순찰순양함, 「양도」 上陸企圖한 공산군 수송선 20척중 15척을 擊沈. ○ 「벤」사령관, 명예로운 휴전과 한국전의 만족한 해결은 문제없이 환영될 것이라고 言明.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쏘련을 중립국가로서 거부하는 이유를 說明.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 계속. **政 治** ○ 李대통령, 개헌문제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民意의 존중을 강조. ○ 김대법원장, 국회에서 議員召還問題에 대하여 證言—認定法上 召還說이 成立되나 基本法 規定과 節次法이 필요하다고. ○ 국회, 국군의 江華島 주둔 요청 결의안을 可決. ○ 下외무부장관, 쏘련을 중립국으로 容認한다면 자유세계의 체면이 손실된다고 담화. ○ 「애」 미국부장관, 「리스본」회의 석상에서 봄까지는 한국 휴전협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크다고 言明.
2월21일	**軍 事**	2월 22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지상전투 平隱.
	○ 文登里 계곡에서 교전.
	○ 中東部전선 북한강 상류에서 적 2개 소대 군진지에 대하여 탐색행동.
	○ 제5공군발표 過間戰果 敵 MIG「제트」機 10대 격추, 미확인 격추 1대, 격파 9대, 아군 손실수는 10대.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交代兵員 3만명 감시「出入口」를 각각 5개소로 주장. UN군측은 3만 5천명과 6개소를 주장.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UN군측, 13일 잠정적으로 協定에 도달한 제원칙 전부를 成文化한 포로교환에 관한 新草案을 提示.
	政 治
	○ 卞외무부장관,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限 한국利害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국가간의 결정도 결코 수락할 수 없다고 談話발표.
	○ 國會, 관계 각부장관 출석하에 議員 소환사건으로 계속 논난.
	○ 한일회담 基本問題分科위원회— 제1회 會合開催하고 議事수속협의 동위원회 한국수석대표는 俞鎭午氏, 日本側은 大野외무성 참사관.
2월 23일	**軍 事**
	○ 지상군 전투 계속하여 平隱.
	○ 공산군, 동부전선 盆地帶西北方 UN 군진지를 猛射擊.
	○ 漣川西南方에서 적의 경미한 수색공격을 격퇴.
	○ 西南地區 3개소에서 殘匪 13명사살 생포 1명.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휴전기간중 雙方은 1個月 3만5천명의 兵員交代를 승인하자는 군측주장에 동의.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UN이 巨濟島에서 포로를 학살하였다고 비난하고 항의문을 수교.
	○ 美극동공군사령관「웨이라드」중장「마니라」에서 한국휴전성립 氣運의 접근을 言明.
	○ 香港中立系華僑日報—제4야전군 제5집단군은 한국전선으로부터 印支국경부근에 移駐하고 同軍의 交代에는 제2 및 제3야전군의 新銳가 보충되었다고 보도((AP).
	○「트」대통령, 美군의 한국전쟁 目的에 관한「릿」장군의 연설을 찬양.
2월24일	**軍 事**
	○ 지상군 전투 경미.
	○ 공산군 계속하여 東部전선 盆地西北方의 군진지를 砲擊.
	○ 漣川地區에서 UN군탐색대, 공산군 1개 소대와 교전.
	○ 板門店南方에서 敵 1개 분대의 탐색공격을 격퇴.
	○ UN군전투폭격機隊, 북한 공산군 철도시설을 계속 공격.
	○ 濠洲「머티어 제트」機隊 北韓 清丹邑을 공격.
	休戰會談

월 일	중 요 사 항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 무진전.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자유 의사에 의한 포로의 석방에 계속 완강히 반대.
	政 治
	○ 李대통령, 「릿」장군에게 「워싱톤」탄생일 연설을 찬양하는 電文發送.
	○ 北京放送—美군이 북한에서 세균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허위선전.
	○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위원회—한국측 청구권에 관한 제안 이유를 설명.
	○ 新華社報道—北京政府는 昨年 6月 1日부터 12月末까지의 重火器 및 항공機 구입기금 거출운동에서 3,349대의 비행기를 구입할수 있는 금액을 收集하여 북한 중공군에게 전달하였다고.
2월25일	**軍 事**
	○ 지상전선 平隱 공중활동도 악천후로 인하여 극도로 저하.
	○ 美「무스탕 전폭機隊」金城 및 杆城地區 敵軍과 敵 補給集積所를 攻擊.
	休戰會談
	○ 휴전감시참모장교회의—UN군측, 중립국감시기구에 참가할 중립국수를 3國에서 2國으로 削減할 것을 제안.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무성과.
	○ 連絡將校會議—공산군측장교 「UN군기 4대가 21일 板門店會談場地區 상공을 침범하였다고 항의.
	政 治
	○ 美제7함대사령관 「마틴」중장, 신임사령관 「부리스코」중장과 더불어 李대통령을 예방.

월 일	중 요 사 항
	○ 국회의원 소집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本會議의 중간보고에서 동문제에 대한 정부태도는 무성의 하였다고 결론.
	○ 金交通部長官, 91%의 철도시설은 복구되고 있으며 교량 「턴넬」에 대한 복구공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기자회견담.
2월26일	**軍 事**
	○ 지상전투, 小規模 충돌에 국한.
	○ UN군 포병대, 文登里 계곡에서 적 탐색대를 포착하고 砲火洗禮.
	○ 中部戰線에서 UN군부대, 소대병력의 공산군과 경미한 교전.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중립감시국을 각각 3國에서 2國으로 削減하고 쏘련을 감시국으로부터 除外하려는 UN군측 제안을 거부.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 이미 合意가 성립된 條項을 중국어 및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
	政 治
	○ 李대통령, 국회의원 소집문제에 관하여 국회서 제출된 12개 항목에 걸친 질의서에 회답.
	○ 국회특별 조사위원회, 대통령의 회답을 愼重檢討.
	○ 「릿」UN총사령관, 주한 UN군에게 수혈용 혈액을 보내준 「뉴—욕」市 「가토릭」婦女 千百名에 感謝電文.
	○ 日本外務省報告—제2차대전후 昨年末까지 쏘련에 拿捕된 일본 어선 총수

월 일	중 요 사 항
	는 178隻.
	○ 英下院, 한국휴전문제 및 對中國 태도에 關하여 노동당이 提出한 「처—칠」수상 不信任案을 318대 285표로 否決.
2월27일	軍 事
	○ 지상전투, 산발적인 탐색전에 始終.
	○ UN군 탐색대 철원西方에서 중공군과 사격전 전개.
	○ 西部戰線에서 공산군대표, UN군 진지에 宣傳「삐라」砲彈을 발사.
	○ UN공군, 일기회복으로 敵 補給線에 대한 맹공격을 再開.
	休戰會談
	○ 휴전감시문제 참모장교회의—無進展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 未解決의 포로 교환문제를 合同分科 위원회에 옮기기로 同意.
	政 治
	○ 국회, 국회의원 소환문제에 대한 26일부 대통령의 회답 書簡을 공개.
	○ 한일회담기본문제 분과위원회—일본측 제출의 友好條約案에 대하여 질의.
	○「뉴욕 타임스」紙, 社說에서 英國의 原爆生産은 世界勢力 均衡에 變化를 齎來할 것이라고 論評.
2월28일	軍 事
	○ 地上戰鬪 平穩, 경미한 探索戰과 砲火交換.
	○ 공산군, 계속하여 선전「삐라」彈을 發射.
	○ UN군 계속하여 공산군 補給鐵道線에 對하여 猛攻擊.

월 일	중 요 사 항
	○ 西南地區 8개처, 嶺南地區 2개처에서 共匪 28명을 射殺, 11명을 生捕.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 全然 無進展. 공산군측, 계속하여 쏘련의 중립국 감시단 加入을 주장.
	○ 포로문제 참모장교회의—포로合同분과위를 29일 再開키로 決定. UN軍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雙方포로에 대한 完全한 資料의 교환을 제안.
	政 治
	○ 各道「3.1節」기념 및 민족선언 선포식을 거행. 참석한 李대통령, 各道에 특별 政府要員을 파견.
	○ 英「애트리」勞動黨首 한국 작전에 관한 英노동당정부와 美政府間의 秘密覺書中에는 作戰을 한국에 局限한다는 일반적 정책을 벗어난 점은 없다고 聲明.
	○ 英「애트리」前首相, 그의 政府는 共產軍이 UN군에게 大空中 攻擊을 加해 온다면 압록강 넘어를 폭격한다는 비밀협정을 美國과 締結하였다는 것을 承認(AP).
2월29일	軍 事
	○ UN군 戰車部隊, 金城東方 및 南方地區 공산군 진지로 進出코 5시간에 걸쳐 交戰.
	○ 중대병력의 공산군부대 鐵原西方 UN군진지를 攻擊.
	○ UN공군 平康北方에서 敵 戰車 1대를 擊破하고 3대에 손해.
	○ 美國務省 發表-開戰以來 29일까지의 공산군 사상자수 總計는 1,597,841名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非戰線지구 사상자포함) 포로수는 132,288명.		**政 治**
	休戰會談		○ 己未年 獨立運動 33週年 記念式.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 UN군代表 強硬한 태도로 쏘련의 중립국 참가를 단호거부.		○ 李大統領, 對北放送을 通하여 祖國統一을 希求.
			○ 國會, 朝紡爭議에 關하여 姜一邁社長을 退社키로 決議.
	○ 포로문제 합동분과위원회 再開-이미 參謀將校會議에서 合議를 본 些少한 문제에 관하여 若干進展, 自由意思, 送還問題에 관하여서는 雙方 各自主張을 反復陳述.		○「드골」將軍이 지휘하는 佛國民聯合, 聯立內閣 樹立을 發表.
		3월 2일	**軍 事**
	政 治		○ 休戰會談 難航에 逢着 따라서 全戰線動搖.
	○ 韓中航空協定 署名式, 國務會議室에서 거행.		○ UN軍 步兵協同부대 東部戰線에서 威力搜索.
	○ 陸本에 예속되었던 各道 兵事區司令部를 國防部에 배속키로 決定.		○ 漣川 西北方에서 敵 高地 1個 奪還.
			○ B26輕爆擊機隊, 夜間飛行으로 平壤元山間의 要衝 특히 陽德을 集中 爆擊.
	○ 李國防部長官, 比律賓部隊長「디오니스트에스」오디다」대령에게 銀星乙支武功勳章을 수여.		**休戰會談**
			○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 捕虜交換分委 兩會議場에서 UN軍側代表, 聲明을 朗讀하고 會議의 續行에 疑惑을 갖게 된다고 指摘, 共產側의 中立國指名과 捕虜資料 交換에 關한 協定侵犯을 非難.
3월 1일	**軍 事**		
	○ 文登里 溪谷에서 約 30명의 敵과 交戰.		**政 治**
	○ 鐵原 西쪽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擊退		○ 陸軍士官學校 제5期 卒業式.
	○ UN空軍 西北韓 上空에서 撃 MIG 27台와 空中戰 6台 破損.		○「아데나워」西獨 首相, 全獨自由選擧 實施에 關한 可能性을 調査하는 UN委員會에 招請을 受諾.
	○ 韓國空軍 1,000回 出擊記錄 樹立.		
	休戰會談	3월 3일	**軍 事**
	○ UN軍側 代表, 病傷捕虜交換을 要求, 共產側 이를 다시 拒否.		○ 東部戰線에서 敵 宣傳삐라 砲彈發射 지금까지 2,511個의 宣傳彈 使用.
	○ 休戰監視問題 參謀將校會議-共產側, 中立國監視委員團에서 蘇聯을 除外하자는 UN側의 提案 撤回를 要求.		○ 鐵原부근 我軍 威力搜索隊 攻擊.

월 일	중 요 사 항
	○ 西部戰線에서도 威力搜索.
	○ UN空軍機, MIG 敵機 90台와 2次에 걸친 空中戰 5台 破損.
	休戰會談
	○ 共産側, 巨濟島暴動에 關하여 UN側의 非合法的인 處遇에 因한것이라고 非難.
	○ 兩分委一無進展.
	政 治
	○ 李六統領, 美記者團一行에게 現 休戰會談은 韓國民으로서는 참을수 없는 侮蔑과 絶望으로 看做하며 우리의 戰爭目的은 어디까지나 國土統一에 있다고 闡明.
	○ 北京放送, 北傀 金日成 黑死病撲滅을 위하여 北韓을 非常事態에 두는 法令을 發表하였다고 放送.
	○ 蘇聯紙報道— 七個國의 代表 者들이 소위 國際法 侵犯 諸行爲를 調査하기 위하여 平壤에 到着하였다고.
3월 4일	**軍 事**
	○ UN軍 探索隊, 鐵原西쪽에서 2시간 交戰.
	○ 我戰爆機隊, 漣川地區에서 敵 25명을 射殺.
	○ 28台의 UN空軍機 鴨綠江 上空에서 敵 MIG機 編隊와 空中戰, 敵機 1台 擊破.
	休戰會談
	○「리비」UN側代表, 捕虜自由交換문제에 대하여 軋轢을 야기시켰을 당시의 立場으로 환원 하였다고 言明.
	○ 共産側, 萬一 UN側에 收容된 捕虜가 送還을 希望하지 않는 者가 있다면 武力에 依하여 脅迫을 당한 것이라고 非難.
	政 治
	○「릿」司令官, AP通信社의 要求에 의하여 日本內의 空中撮影 禁止令을 解除.
	○「에차슨」美國務長官, 共産側의 細菌戰 非難은 全然無根함으로 共産側의 國際的機構의 公平한 調査를 歡迎한다고 言明.
	○ 英外務省 代辦人, 中共 및 모스크바 放送이 國聯軍의 細菌戰 非難을 空想的인 羞恥스러운 일이라고 言明.
3월 5일	**軍 事**
	○ 文登里 溪谷에서 前後 2次에 걸쳐서 중대규모의 敵과 交戰.
	○ 中·西部戰線에서 2回에 걸쳐서 交戰.
	○ 海兵隊「무스탕」機 戰線背後에서 敵 25명을 殺傷.
	休戰會談
	○ UN軍 代表, UN軍捕虜 174명의 名簿를 提出하고 交換人員의 追加를 要求.
	政 治
	○ 李國防長官, 2월 3일부로 宣布된 慶尙南北道의 非常戒嚴令을 6일 零時附로 解除.
	○ UN總會 韓國代表 張澤相 國會副議長 歸國.
	○ 韓日會談 第四回基本問題 分科委員會 日外務省에서 開會 韓國側에서 韓日友好條約案을 提出.

월 일	중 요 사 항
3월 6일	**軍 事**
	○ 東部戰線 UN軍 探索隊, 89명의 敵을 殺傷.
	○ 全戰線에서 敵의 砲擊이 증가함에 따라 軍 首腦部 春季攻勢의 徵候가 아닌가 分析.
	○ 金城 東北方에서 交戰
	休戰會談
	○ 雙方代表, 곧 決定에 開하지 못하리라는 意見一致 全般的으로 無進展.
	政 治
	○ 戰亂으로 因하여 閉鎖되었던 陸軍情報學校 再建.
	○ 美太平洋艦隊司令長官, 「럿」UN總司令官, 極東空軍司令官, 休戰會談UN側首席代表駐日 美大使館에서 會談.
	○「노벨」賞 委員會, 27명의 1952년度 受賞者 發表.
3월 7일	**軍 事**
	○ 東部戰線 탐색전계속.
	○ UN空軍 天氣不順에도 불구하고 200回出擊.
	休戰會談
	○ 雙方代表 各己 立場을 固執 無進展.
	政 治
	○ 國務會議에서, 主要企業 生産 責任制案을 原案대로 議決.
	○ 美國務省, 日本의 戰時略奪資産 分配方式을 決定하고 9個 國에 對한 支佛을 最高司令官에게 指示.
	○ 英國「히마라야」探索隊, 印度로 出發.
3월 8일	**軍 事**
	○ UN空軍, 暴風雪을 무릅쓰고 290回出擊.
	○「벤」司令官, 北韓에 共産軍 90萬이 集結, 그中 45만이 前線에 配置되었으나 그 阻止에 自信滿滿하다고 言明.
	○ 智異山地區 掃蕩戰에서 敵 45명 사살 무기 6挺을 鹵獲.
	休戰會談
	○「리비」UN代表, 會談進展을 爲한 捕虜交換관계 3個 條件을 提示.
	○ 共産側, UN軍이 板門店 周邊의 中立地帶에 宣傳 삐라를 投擲하였다고 非難.
	政 治
	○ 李國防長官, 李 潛治安局長에게 金星武功勳章을 授與.
	○ 國會, 石公에 對한 運營資金 28億원 政府保證 융자 동의안을 可決.
	○ 北京攻送, 中共外相 周恩來는 美國이 細菌戰을 滿洲에까지 擴大함으로써 韓國休戰會談을 지연시킨다고 非難하였음.
	○ UN事務次長「코리어」씨 日本 訪問中「럿」總司代官과 會談.
3월 9일	**軍 事**
	○ 地上戰鬪 輕微한 搜索戰 계속.
	○ 智異山地區, 戰警隊 敵射殺 39명, 捕虜 43명, 歸順 2명, 小銃鹵獲 12정.
	休戰會談
	○ 共産側, UN側이 捕虜收容所에서 反共團體를 組織하는 不法行爲를 하고 있다고 非難.
	政 治

월 일	중 요 사 항
	○ 全國 各地에서 大統領 直選制와 兩院制를 骨子로한 改憲案의 國會 否決은 民意를 背反한 것이라는 輿論이 비등.
	○ 美政府, 在美 蘇聯人의 行動制限을 決定(AFP).
	○ 西獨「아데나워」首相, 4~5만명의 西獨 防衛隊를 1953年까지 編成하겠다고 言明.
	○ 蘇聯의 各新聞은 美航空機들이 中國東北地方에 對하여 細菌戰을 전개하였다는 北京電을 대대적으로 揭載.
3월10일	軍 事
	○ 地上戰鬪 平穩.
	○ UN軍 板門店 東北方의 前哨陣地를 奪還.
	○ 美海軍 驅逐艦 西海岸 一帶의 共產軍要衝을 砲擊.
	○ UN空軍機, 鴨綠江 上空에서 敵 MIG 2台를 擊破.
	休戰會談
	○ 兩分委 成果無.
	○ 會談後 UN側代表는 聲明을 발표하여 共產側의 威脅的인 脅迫 試圖는 虛無한 것이라고 非難.
	政 治
	○ 李統領, 經濟自立에 關한 特別談話 發表.
	○ 韓日會談 首席代表 梁裕燦大使, 在日同胞 國籍문제와 船舶문제에 대하여 談話發表.
	○「릿」司令官, 韓國戰爭에서 사용하고 있는 共產側의 武器는 사실상 全部 蘇聯이 供給하는 것이라고 發表.
3월11일	軍 事
	○ 北韓 上空에서 空中戰, 敵 MIG機 9臺擊破, 今日까지 擊墜된 敵機數는 205臺임.
	○ 軍報道課, 異山地區의 主要 敵 據點을 完全히 擊破하였다고 發表.
	休戰會談
	○「릿」司令官 汶山에서 談話 發表, 共產側의 허위주장으로 휴전교섭의 예측이 곤란하며 一方的인 모략을 弄하는 자들과 連日 會談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政 治
	○ 國會, 6月 下旬 대통령선서를 앞두고 院內 各勢力 兩編 氣運 漸高.
	○ 蘇聯, 4強會談을 提議.
	○「티토」유고首相, 소련은 최근 그 위성국가들에게 「젯트」機를 供給하고 있다고 言明.
3월12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敵의 迫擊砲공격 격퇴.
	○ UN空軍 北韓 上空에서 敵 MIG機 4臺를 擊墜.
	○ 後方共匪蕩戰 敵 21명 사살 6명 포로.
	休戰會談
	○共產側, 中立國監視團에 蘇聯이 加入을 再次 提議하자 UN側이를 拒否.
	政 治
	○李公報處長, 漢字 제한문제에 관하여 國民의 협조를 요망.
	○「릿」장군 日本 吉田首相과 會談.
	○ 英國訪次官, 최근 소련이 東獨에 軍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隊를 增派하고 있다고 言明.		을 發表.
3월13일	**軍 事**		○「마리크」蘇聯대표 다시 細菌戰을 비난.
	○ 美 제5空軍, 敵의 戰線목표를 공격.		○ 日本정부, 前海軍提督, 野村吉三郎 이하 843명의 公職 追放解除를 發表.
	○ 海兵隊機, 敵의 陣地를 공격 최소 20명의 敵을 射殺.	3월 15일	**軍 事**
	○ 美國務省, 韓國戰線에서 입은 美軍의 死傷者 및 行方不明者 數는 106,458명이라고 發表.		○ 東部戰線, UN군 전차부대 전진.
	休戰會談		○ 板門店南方에서 巨大한 UN군 전차부대 大進擊, 高性能砲彈으로 36개소의 대피호 및 포대 파괴, 敵 使用 民家 12棟 파괴.
	○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無進展.		○ UN공군부대, 북한 공산군 후방보급시설 및 敵 一線 진지에 공격을 집중. 공산군 110명을 사살 또는 부상.
	○ 捕虜交換分委, 共產側 全捕虜의 交換을 다시 要求.		**休戰會談**
	政 治		○ 휴전감시 참모 장교회—UN군측, 공산군측에 대하여 휴전감시에 관한 2차적 문제로 5항목의 총괄적 타협안을 제시. 휴전후의「出入口」를 각각 5개소로 하자는 提案 以下 3개문제에 관하여 UN 군측, 양보한 것을 示唆.
	○ 巨濟島 捕虜收容所에 投石暴動, 즉시 鎭壓.		
	○「저」UN事務總長, 韓國戰線에서 共產側의 態度가 의문이며 會談 前途는 樂觀을 不許한다고 言明.		
	○ 北京放送, 滿洲및 北韓 각지역에서 細菌兵器사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發表.		
3월14일	**軍 事**		○ 포로교환 분과위원회-UN군측 대표, 13일에 발생한 巨濟島포로수용소 폭동 사건을 共產軍측 대표에 통고. 탄원 혈서를 냈다는 共產側 中央社 보도를 비난.
	○ 全戰線 威力수색을 強化.		
	○ UN空軍 惡天候 불구하고 400回 出擊.		**政 治**
	○ 제5空軍, 開戰以來 제5공군에서 敵機 220臺를 격파하였다고 發表.		○ 社會部, 전국피난민 등록을 실시.
	休戰會談		○「코—엔」美 UN대표, 기자회견에서 소련대표 세균전 비난을 반박.
	○ UN空軍, 捕虜交換에 관한 參謀將校會議의 討議를 再次 촉구.		○「라벳트」美국무장관담—한국전란의 종결을 희망하나 그 때문에 완화정책은 절대 不取. 또 1951년 下半期 보고
	○ 休戰감시에 관한 UN側 提案을 토의		
	政 治		
	○ 政府는 제8회 高等考試合格者 任用		

월 일	중 요 사 항
	중에서 同長官은 금년엔 국민생산의 18%가 美 再軍備計劃에 충당된다고 言明.
3월16일	**軍 事**
	○ 東部戰線 高城南方, 3개의 UN군 정찰대, 8시간반에 걸쳐 격전.
	○ UN군은 야간 文登里계곡 東쪽에서 공격해온 敵을 격퇴.
	○「벤」제8군사령관 언명-포로폭동 발생은 UN군, 厚待에 起因한 것이라고.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은 15일부의 UN軍측의 휴전감시에 관한 5개 조항의 타협안에 대하여 暫定的으로 동의.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수석대표 南日의 名義로 공산군 포로로 폭동 사건에 대한 항의문을 제출코 폭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
	政 治
	○ 李공보처장, 戰意를 앙양키 위하여 멸공「뺏지」를 佩用할 것을 談話발표.
	○ 中國聯合通信 報道—쏘제 장비를 갖고 胡志明군 복장을 한 中共軍 15만이 印度支那에 침투, 그 일부는 紅河삼각주로 進出中이라고(AEP).
	○ 美上院議員「태프트」氏,「트루만」政府가 韓國전쟁의 승리를 불원하고 있다고 지적. 그 證左로「맥아더」장군의 해임, 例擧.
3월17일	**軍 事**
	○ 東部 및 中部戰線 대체로 平隱.
	○ 야간, 중대병력의 중공을 臨津江西쪽 전선에서 7차에 걸쳐 격퇴.
	○ UN공군기 1,000回출격, 공산군진지 및 보급물자 蓄積所를 猛攻. 中型폭격기 新安州 비행장에 100톤의 고성능 폭탄을 투하.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UN군측「키너」대령, 雙方이 잠정적으로 동의한 휴전감시에 관한 타협안에 基本하여 雙方 수도를 포함한 10개소의「出入口」를 지정할 것을 제안.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은 UN機 1대가 北韓 西北쪽 昌城의 제1호 포로수용소를 공격 美軍포로 1명이 부상하였다고 항의.
	政 治
	○ 韓日회담—兩측 대표, 회담진행에 관하여 懇談. 在日 韓國人 국적협정은 18일부터 起草 豫定.
	○ 佛蘭西군, 紅河 삼각주 지대에 침투한 越南군에 대하여 新攻勢 開始.
	○ 美극동관계 전문가「오웬, 래티아」氏, 미국은 침략 억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闡明함이 火急하다고 強調.
3월 18일	**軍 事**
	○ 西部전선—昨夜에 계속하여 중공의 중대병력 6차에 걸친 공격을 UN군 포병부대가 저지.
	○ 臨津江 西쪽에서 夜間 1,000명정도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의 敵병력 8회에 걸친 수색행동. UN군 4개의 전진기기를 포기.		를 파손.
	○ UN「젯트」機, 東部및 중부전선의 공산군과 야포진지를 폭격, 대공포화진지 8개소, 「토—치카」18개소를 격파.		○「밴」사령관, 기자단과 회견—공산군의 春季공세는 없으리라고 言明.
	休戰會談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공산측, 휴전기간중 중립국 감시반이 駐在할「出入口」로서 10개 都市를 提示. UN군측 제안과 2개 都市의 차이.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휴전감시「出入口」문제. 사실상 동의에 도달. (UN군측이 제출한 타협안)
	南韓=仁川·釜山·江陵·水原·群山.		南韓=釜山·江陵·群山·仁川(서울비행장포함).
	北韓=新義州·新安州·滿浦鎭·興南·淸津.		北韓=咸興(興南포함)·鎭南浦(平壤비행장 포함)·新義州·淸津·滿浦鎭.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전날 제출한 UN군의 7개항목 질문에 공산군측 不答.		**政 治**
	政 治		○ 서울에 相當히 강력한 지진 19일 下午 6시 강도 4.
	○ 李대통령, 次期 대통령후보에 관하여 自由公開的으로 입후보 및 추천한 것을 담화발표.		○「코—엔」美 UN대표, 韓國에서 UN군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소련 提訴에 관하여 소련을 痛擊. 각국 대표는 이를「크레므린」의 造作宣傳으로 認定. 美 대표는 眞相을 國際赤十字社로 하여금 調査케 할 것을 요구, 소련대표는 직접회담을 拒否(INS).
	○「애치슨」미국무장관, 上院 외교위원회에서 言明—韓國휴전회담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나 現단계로서는 樂觀도 悲觀도 不許.		○ 美國 民主黨 전국위원회 議長「프랑크, 맥키너」氏「트」대통령의 再出馬 여부는 韓國에서의 평화 確保 如何에 따라 決定되리라고 言明.
	○ 쏘련「푸라우다」紙, 英, 濠, 佛, 佛「브라질」등 각국인들로 구성된 세균조사 위원회의 談이라하여 세균전은 人道에 背馳되는 범죄라고 보도(AP).	**3월20일**	**軍 事**
3월19일	**軍 事**		○ 地上戰闘, 降雪로 因하여 경미한 共產軍 偵察攻擊과 산발적인 彼我間의 小規模 探索戰.
	○ 美공군「세이버 젯트」機隊는 19일 늦게 MIG 15「젯트」機에 恰似한 新型 공산군「젯트」機 1대를 격추, 대		○ UN海軍艦艇, 共產軍 해군시설에 포격을 계속.
			○ 在韓 美步兵師團長言明—제40사단은 9월에「칼리포니아」州로 복귀예정.

월 일	중 요 사 항
	○ 李國防部長官, 韓國戰線에서 功勳을 세운 UN군 희랍장병 및 美해군장교에게 武功勳章을 수여.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담—UN군측, 出入口에 관한 수정안 提出.
	南韓=釜山·大邱·江陵·群山·仁山(서울비행장포함)
	北韓=新義州·滿浦鎭·淸津·興南·新安州(平壤비행장포함)
	共產軍側, 이를 受諾.
	政 治
	○ 院外 자유당 전국대회 開催, 당수로 李承晩博士 부당수에 李範奭氏를 推戴. 李博士는 平生의 目的을 이루었다고 訓話.
	○ 國會 各派間에 極秘密裡에 胎動하여 모든 책임 內閣制 改憲工作, 漸次로 院內 자유당내에서 擡頭.
	○ UN國府代表, 韓國에서의 세균전에 관하여 소련대표의 提訴는 中國 本土內에 만연되고 있는 유행병의 결과라고 지적.
	○ 최근의 공산군측 방송은 4대의 미국 비행기가 3월 12일 북한 동해안에 있는 高城近方 공산군 진지에 毒瓦斯彈을 投下하였다고 비난.
	○ 中共國際赤十字 委員會의 北韓 및 滿洲의 세균전 조사를 거부.
	○「트」대통령, 韓國 事態는 자기의 再出馬 여부 결정에 무관하다고 言明.
3월21일	**軍 事**
	○ 地上戰鬪 平穩.

월 일	중 요 사 항
	○ 西部戰線, 共產軍 부대는 UN군, 전진진지의 小部隊에 대하여 압력을 加하여 UN군 일단 철수.
	○ UN海空軍, 東西 兩海岸에서 活動—UN군 艦載機 共產軍 補給輸送路 및 人的 目標를 攻擊, 전투함정도 적에게 포격.
	休戰會談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共產軍側, 포로의 無條件 송환을 고집.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出入口」의 한계를 都市 外部로 확정시키는 범위를 劃定코저 雙方이 상세한 圖面을 交換코 硏究.
	政 治
	○ 李대통령, 仁川에서 日本武裝問題에 言及하여, 이에 反對하지 않으나 韓國도 對等한 武裝이 緊要하다고 言明.
	○ 院外 自由黨, 中央執行 委員會 開催 大統領領 直選制와 上下兩院制等 12項目에 걸친 對政府 建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
	○ 英 UN代表「제브」卿, 소련의 세균전 비난에 관하여 言明—公平한 調査에 同意하지 않는 限, 세균전에 관한 그들의 對 UN攻擊은 責任性을 忘却한 것이며 또 군축지원회보사 동 세균전 비난은 순전히 선전적 目的으로 提出된 것으로 認定.
3월22일	**軍 事**
	○ 文登里 계곡西方, 20명의 敵部隊와 UN군간에 경미한 接觸.
	○ 西部戰線, UN군 정찰대는 數的으로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優勢한 中共軍 步兵部隊와 交戰.		○ F 51「무로펠라」機隊, 開城東北方에서 敵 集結地 9個所를 擊破.
	○ 美 제84「젯트」전폭機隊, 東海岸地區 공산군 前線陣地를 猛襲하여 數未詳의 공산군 대피소 및 참호를 파괴.		**休戰會談**
	○ 美極東空軍 發表—韓國戰爭 발발 以來, UN空軍 戰果는 不確實한 것 108대를 包含하여 敵機 502대 격추, 495대 격파, UN공군 손해는 젯트機 219 추진식 288대.		○포로교환 참모 장교회의—UN군代表 포로 문제에 관하여 秘密會議를 가질 意向이 있다고 表明.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共產軍側이 提出한 北韓側「出入口」 5部市의 地圖는 新安州地區外 地圖가 남은 것으로 UN군측 受領 拒否.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북한후방 5個所「出入口」에 있어서의 中立國감시단 활동에 對한 限界를 表示하는 修正案을 提出.		**政 治**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會議後 UN군측 將校談, 雙方은 솔직히 이야기할 秘密會議에서 決定的인 것을 提出하기를 希願한다고.		○ 政府, 數日前 極東軍 司令部를 通하여 太平洋戰爭 當時 徵兵, 徵用者中 死亡한 者로 日本政府에서 保管中인 2,303柱의 遺骨送還을 日政府에 요청.
	政 治		○ 「랫」장군 기자회견담—共產軍側의 세균전 비난은 소련지도자들에 依하여 計劃的으로 만들어진 虛僞.
	○ 日本 無任所大臣 岡崎勝夫氏,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言明—소련과의 戰爭狀態의 終結은 소련내 포로문제등 現在問題의 解決後에야 可能, 中共에 대하여는 可能한 限 美國政策에 接近함이 必要.		○ 美國務省發表—美육군 22만5천 및 해병대소속 地上部隊 2만5천 計 25만명이 交替되기 爲하여 韓國으로부터 철수. 現在 韓國戰線에는 육군 6개사단, 海兵 3개사단이 作戰中.
	○「맥」元帥「미서십피—」州議會 上下合同會議에서「트」政府를 猛烈히 攻擊.		○「노—랜드」美上院議員 放送—韓國에서의 停頓狀態를 打開하기 爲하여 中國 沿岸의 봉쇄가 必要.
3월23일	**軍 事**	3월24일	**軍 事**
	○ 東部戰線盆地帶 西北方의 小戰鬪에서 공산군은 死體 19具를 遺棄 遁走.		○ UN군 보병부대, 공산군 정찰대와 경미한 小戰鬪.
	○ 제5공군, 北韓 上空에서 全面的인 空軍作戰을 自由로이 展開.		○ UN海軍艦隊 暴風雨를 무릅쓰고 서부해안의 공산군 집령 村落을 砲擊.
			○ 美空軍 F26 輕爆擊機隊, 23日 夜부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터 24日 朝에 걸쳐 공산군 補給「루럭」83대 격파.		400명의 공산군을 捕捉 猛擊.
	○「벤」將軍, 共產軍側의 休戰會談에 대한 無誠意를 指摘코 確言現在 北韓地域에 90만 兵力이 集結되어 있으나 共產軍의 如何한 공격이라도 저지할 수 있다고.		○ UN「센더 겟트」機隊 金川地區에서 共產軍 中型戰車 3대를 격파.
			○ 야간에 B26機隊, 共產軍이 設置한 緊急「트럭」補給路를 攻擊.
	休戰會談		**政 治**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共產軍側은 北韓地區 5個所「出入口」에 대한 새로운 圖地를 提出. 휴전기간중 板門店으로부터 中立監視國이 51個所「出入口」에 通할 경로에 관하여 公路使用을 是認하고 航空巡行에 대해서도 合意.		○ 金國防部次官言明—國軍의 副食費 一般軍人 1日當 500圓을 750圓으로, 入院患者 1,200圓을 2,250圓으로 引上, 4月 1日부터 施行.
			○ UN韓委「푸림솔」濠洲新任代表, 韓國의 復興計劃은 오로지 한국민의 창조력에 달려 있다고 新任人事.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停頓狀態를 打開코저 秘密會談 개시.		○ 臺灣 訪問中의 「컴볼」 美海軍長官記者會談—韓國休戰의 成否에 不拘하고 臺灣을 保護할터(AFP).
	政 治		○ 國府「컴볼」美海軍長官의 言明을 重視. 이는 韓國問題와 관련하여 臺灣의 中立化 政策을 밝힌 1950年度의 「트」聲明을 完全 변경하는 것이라고 指摘(AFP).
	○ 北京方送, 세균戰에 있어서 英國이 美國과 協助하고 있다고 英政府를 비난.	3월26일	**軍 事**
	○ 韓日會談, 兩國間에 介在한 財產, 權利問題에 關한 會談에서 日本代表團은 日政時代에 그들이 所有 혹은 管理하던 韓國內 財產에 대하여 所有權을 主張, 我代表 이를 峻烈히 攻駁.		○ 未明에 東部戰線 文登里 계곡 西部의 共產軍 丘陵地帶에 對하여, UN군 3회에 걸친 突擊戰. 1시간 20분간 確保後 철수.
			○ 早曉, 前夜에 계속하여 高浪浦 北方에서 치열한 전투, 중대병력의 中共軍이 UN군진지에 探索攻擊. 共產軍部隊는 UN군 진지에 1,400發以上의 박격포 및 야포탄을 발사.
	○ UN軍總司令部放送 共產軍의 세균전에 관한 선전은 UN군 포로의 大量虐殺에 對한 辯明이 아니면 새로운 攻勢를 爲한 口實일듯.		
3월25일	**軍 事**		○ 美空母艦 艦載機隊, 延安 西南方 共產軍 集結部落을 폭격.
	○ UN군砲兵部隊, 高浪浦 西方에서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政府 國會議員 李敎善氏를 商工部長官에 同趙柱泳氏를 遞信部長官에 補.
	○ 李大統領, 國會內에서 次期選擧에 大統領 職位를 持續하고자 要望치 않을 것이라고 言明.		○ 大韓民國 航空社機 雲南號. 韓中 親善文化使節團一行을 태우고 向臺北處女 就航.
	○ UN軍縮委員會一「마리크」 蘇代表, 美國의 군축회의 운영안과 세균전에 관하여 國際赤十字社에 依囑 調査할 려는 美提案을 拒否.		○ 北京放送一美爆擊機 延 200餘臺가 25일 26일에 걸쳐 連續 6시간 平壤市를 空襲.
	○ 韓日會談 基本問題委員會, 제7회위원회에서 作成中인 條約案의 大部分에 意見一致.		○「웨일랜드」美極東空軍司官, 記者會見談 美極東空軍은 必要에 따라 韓國에서 철퇴하드라도 72時間以內에 「아세아」如何한 곳에라도 出動可能.
	○ 緬甸政府發表一緬甸政府軍을 켄텅州北部의 國府軍에 大規模의 攻擊開始.	3월28일	**軍 事**
	○「애치슨」國務長官談一공산주의자들은 한국전선에서 세균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事實 無根한 것.		○ UN海軍部隊들은 北韓 東西 兩海岸의 攻擊的 봉쇄를 계속.
3월27일	**軍 事**		○ UN 제1해병대공군부대, 28일로 1만회째 출격을 完遂.
	○地上戰과, 解氷의 전선을 通하여 UN군을 東部, 西部地區에서 경미한 정찰전.		**政 治**
	○ 早朝 肅州操車場을 폭격하고자 出動한 B26 경폭격機隊, 滿州로부터 韓國으로 移動하는 暴風에 遭遇.		○ 國會에서 卞外務部長官 言明一포로강제송환 문제에 관하여 美國大使館을 통하여 들은바에 依하면 남한에서 강제로 끌려간 4만2천명은 원칙적으로 포로명부에 편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休戰會談		○ 美해군장관「킴볼」氏, 서울에서 言明一自己는 美國의 제7함대가 한국전쟁 종식후라도 계속하여 대만을 방위할 것을 희망한다고.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휴전감시韓國語譯中「UN군사령부」란 말에 대한, 韓語問題論議 공산군측, 제2차대전시 연합구을 指稱함에 사용하던 명칭 사용을 주장.	3월29일	**軍 事**
	○ 포로교환 비밀참모장교회의—계속開催.		○ 地上戰鬪, 155哩전선에 걸쳐 경미한 적의 탐색공격.
	政 治		○ 過去 3일간의 폭격으로 定州, 新安州간의 공산군 철도수송은 마비상태.

월 일	중 요 사 항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UN군측대표, 「태로」대령, 공산군 대표에게 공산군측이 쏘련에 關한 論議를 거듭하는 것은 會談을 다시 지연시킬뿐이라고 言明.
	○ 포로교환 참모장교회의, 토의 계속 如前 보도관제.
	政 治
	○ 國防部長官 更迭—李起鵬氏를 依願免職하고 申泰英陸軍少將, 中將昇進과 同時 豫編하여 國防部長官에 補함.
	○ UN軍縮委員會—쏘련대표 「마리크」 세균전 비난에 항구조치를 취함.
	○ 張勉國務總理, 東京에서 건강상태로 인하여 이 이상 총리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非公式 言明.
3월30일	**軍 事**
	○ 東部戰線 杆城西方北에서 敵 小部隊 UN군진지에 침투 2次에 걸쳐 交戰.
	○ UN군 전폭기대, 軍隅里北方에서 교량 1개소와 操車場을 파괴.
	○ 제5공군 소속기대, 海州重要補給物資集積所 및 黃州·沙里院間 鐵道를 攻擊.
	政 治
	○ 中華民國 親善使節 記者團 來韓.
	○ 平壤放送—朴憲永 北傀外相은 UN에 對하여 美군이 세균전을 行하고 있다고 正式 抗議文을 제출.
	○ UN군사령부, 共産軍이 포로수용소를 北韓의 군사목표 부근의 위험구역에 두고 있다고 비난.
	○ 北京放送—UN군이 세균전을 滿州內 주요도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선전.
	○ 北京放送—UN군이 송포로의 송환을 不願하고 있다고 비난.
3월31일	**軍 事**
	○ 東部戰線 杆城西北方 UN군 전초진지에 대한 3次에 걸친 敵 偵察攻擊을 격퇴.
	○ 國防部 發表—3月중 智異三 地區 共匪討伐 綜合戰果—敵 人的損害 2,187명 노획무기, 각종포 12문, 각종총기 980정, 昨年 12월 작전개시 이래 3월까지 敵 人的損害는 총계 21,051명.
	休戰會談
	○ 휴전감시 참모장교회의—공산군측, 휴전감시 합동분과위원회를 4月 1日에 開會할 것을 提案.
	政 治
	○ 中華民國 親善使節團一行, 李대통령을 예방.
	○ 大韓青年團에서 休戰會談 反對聲明發表.
	○ 美국무성 당국자談—緬甸政府의 同國內 國府軍 殘存部隊의 逐出은 中立政策과 背反되지 않으며 國務省은 兩國分爭에 介入을 不願.
	○ 「트」대통령 은퇴 선언에 歐美各國의 反響이 多大. 미국 외교정책의 변경 可能視.

3. 戰 歿 者 名 單

<陸 軍>

수도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연대	중 령	12635	朴 魯 權	52. 1. 1	全 北	전 사
〃	소 령	13848	俞 鎭 奎	51. 9.28	金 城	〃
〃	중 위	17759	尹 福 英	12.23	全 北	〃
기갑연대	〃	18466	黃 幹 周	52. 2. 5	〃	〃
〃	〃	18602	金 東 成	2. 5	〃	〃
제1연대	〃	200459	韓 龍 柱	51.12.30	〃	순 직
제26연대	대 위	201619	金 元 植	11. 4	제15육군병원	전 사
제26연대	중 위	202369	千 淳 根	11.16	제15육군병원	순 직
〃	대 위	207625	金 源	52. 1. 4	全 北	〃
제1연대	중 위	208090	金 正 坤	1.31	全南求禮	전 사
제26연대	〃	208393	朴 夏 龍	51.10.15	高 城	〃
기갑연대	소 위	208400	金 成 燮	9.28	제15육군병원	〃
	중 위	208420	郭 宇 淳	9.13	高 城	〃
기갑연대	〃	211983	趙 炯	9.26	〃	〃
제1연대	〃	212000	金 敬 熙	52. 1.27	全 南	〃
	소 위	212027	崔 炳 玉	51.10.22	제15육군병원	순 직
제1연대	중 위	212830	崔 應 煥	52. 1.19	全 南	전 사
〃	〃	212847	朴 贊 熙	51. 9.17	高 城	〃
제26연대	〃	214222	李 相 鶴	11. 5	〃	〃
〃	〃	214399	任 光 鎭	12. 5	全 南	〃
제1연대	〃	214723	奏 京 貸	12.29	全 北	〃
〃	〃	214731	金 致 億	12.24	〃	〃
〃	〃	214748	李 石 福	12.24	〃	〃
〃	〃	214771	金 張 鎭	11. 4	高 城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26연대	중 위	214780	鄭 淵 道	51.12. 5	慶南河東	전 사
제 1 연대	소 위	223497	金 泰 坤	52. 2.19	제77육군병원	〃
	〃	223532	金 增 坤	51.11. 8	高 城	〃
〃	〃	223533	丁 壽 遠	11. 5	〃	〃
	〃	223553	金 用 泰	11. 6	〃	〃
〃	〃	223627	曺 萬 鍾	52. 2.29	全 南	〃
〃	〃	223627	金 斗 溶	2. 5	蔚 山	〃

제 1 사단

제11연대	중 령	12784	崔 熙 燮	51.10.27	長 湍	전 사
	대 위	15290	鄭 銑 濟	52. 1. 3	梧 山 里	순 직
제15연대	중 위	209308	金 永 先	1. 8	長 湍	전 사
〃	〃	210000	李 奎 植	1. 7	〃	〃
	〃	210211	高 元 根	51.11.26	〃	〃
제12연대	〃	210383	黃 完 玉	11.15	〃	〃
제15연대	대 위	211804	洪 慶 秀	52. 1. 8	제36육군병원	순 직
	소 위	212136	李 云 燮	52. 2.29	積 城	〃
제12연대	중 위	212583	鄭 基 道	1. 7	長 湍	전 사
제15연대	〃	212834	李 東 守	51. 9. 7	〃	〃
〃	〃	213157	金 東 漢	52. 1. 6	〃	〃
제12연대	〃	213291	金 鍾 熙	51.11.24	〃	〃
제15연대	〃	214788	黃 炳 洙	52. 1. 6	〃	〃
제12연대	〃	214832	李 在 撰	51.12.29	〃	〃

제 2 사단

제32연대	중 위	18612	崔 炳 奇	52. 3. 6	金 化	전 사
제17연대	대 위	200482	金 正 吉	2.24	제 1 육군병원	순 직
〃	〃	202287	洪 龍 鐵	51.12. 1	제 2 이동외과병원	전 사
제32연대	중 위	205560	金 鍾 鶴	9.10	永 登 浦	순 직
제31연대	대 위	205591	洪 淳 榮	9.12	金 化	전 사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31연대	대 위	205592	金 泰 權	51.10. 5	제3외과이동병원	전 사
제17연대	〃	205594	鄭 仁 學	11.21	金 化	〃
제32연대	〃	205759	宋 正 一	9.20	〃	〃
〃	〃	207844	金 榮 國	9. 2	〃	〃
〃	중 위	209093	元 載 鵬	9. 4	〃	〃
제17연대	〃	209149	金 長 雲	12.10	〃	〃
	〃	210249	洪 白 義	11. 6	華 川	순 직
	소 위	210343	元 慶 錦	9.19	金 化	〃
제17연대	중 위	210515	文 明 善	11.21	〃	전 사
제31연대	대 위	210980	高 炯 默	12.25	〃	〃
제17연대	소 위	211816	柳 秉 碩	52.1 .12	〃	〃
제32연대	중 위	212612	金 英 建	51.11.18	제3이동외과병원	〃
제31연대	〃	213958	洪 泰 義	9.10	金 化	〃
제17연대	〃	214008	金 性 文	10.15	〃	〃
제31연대	〃	214097	金 昌 協	9.12	〃	〃
제32연대	〃	214140	朴 成 凡	11.12	〃	〃
〃	〃	214152	裵 秉 錫	9. 2	〃	〃
제17연대	〃	214154	朴 奇 鍾	10.13	〃	〃
〃	소 위	214844	太 根 茂	52. 2.10	제5육군병원	〃
제32연대	중 위	214872	具 洪 林	51.11.26	金 化	〃
제31연대	소 위	223597	金 忠 本	52. 1. 1	〃	〃

제 3 사단

	소 령	10958	金 道 泰	52. 3. 7	永 同	순 직
	중 위	18100	安 載 裕	1.15	金 化	전 사
	〃	18255	徐 洪 善	2.15	〃	〃
	대 위	200444	李 掟 鉉	51. 9. 5	高 城	〃
제23연대	중 위	202247	韓 星 鉉	12.31	제6이동외과병원	순 직
제22연대	대 위	202947	金 泰 植	11.29	제27육군병원	전 사
	〃	207209	崔 濟 龍	10.27	高 城	전 사
	중 위	209031	李 淵 禹	10.30	楊 口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중 위	209890	李 柱 英	52. 2.22	高 城	전 사
	〃	210291	金 亨 煥	51.10.30	麟 蹄	〃
	소 위	210375	李 翊 載	10.15	제59육 군 병 원	순 직
	중 위	211503	李 永 達	10.29	楊 口	전 사
	〃	211907	徐 廷 範	10.31	〃	〃
	〃	212526	金 有 信	10.30	〃	〃
	〃	213099	朴 鍾 珏	11.17	萬 岱 里	〃
	〃	213180	金 君 瑞	11. 5	楊 口	〃
	〃	213196	朴 在 連	10.30	麟 蹄	〃
	〃	213261	盧 福 培	51. 9.14	楊 口	〃
제23연대	〃	213287	禹 相 萬	11.11	제 1육 군 병 원	〃
	〃	214267	任 東 燾	52. 2.18	金 化	〃
	〃	214269	成 淳 溶	51.11. 3	楊 口	〃
	〃	214275	金 允 善	11. 3	〃	〃
	〃	214285	金 中 烈	11. 3	〃	〃
	소 위	214909	金 炯 哲	11.17	加 七 峰	〃
	〃	223469	黃 東 文	11.17	〃	〃
제18연대	〃	223470	梁 奉 奎	52. 3.16	金 化	〃
제18연대	〃	223510	李 泰 鎭	51. 9.26	〃	〃
	〃	223522	金 鎭 洪	10.24	麟 蹄	〃
	〃	223560	李 廷 晩	11. 7	加 七 峰	〃
	〃	223566	金 容 植	52. 2.17	金 化	〃
	〃	223610	趙 泰 熙	1. 6	제 1이동외과병원	〃
	〃	223614	玄 昌 鎬	2. 8	楊 口	〃
제18연대	〃	223615	林 鍾 喆	51.11. 2	〃	〃
	〃	223616	李 武 用	52. 2.15	金 化	〃

제 5 사단

제35연대	소 령	13946	許 郁 振	51.10. 1	楊 口	전 사
	대 위	17353	文 仁 俊	9.21	〃	〃
	소 위	17724	張 昌 烈	12. 4	襄 陽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중 위	17981	徐 徹 鎬	52. 1.5	高 城	전 사
	대 위	200421	金 京 祿	51.10. 6	楊 口	〃
제35연대	〃	202400	鄭 寧 鶴	10. 1	〃	〃
〃	〃	203680	崔 鍾 球	10. 2	〃	〃
	〃	205297	禹 庚 奉	9. 6	〃	〃
	중 위	208779	金 德 謙	10. 2	〃	〃
	〃	209388	郭 治 魯	9.20	〃	〃
	〃	210333	方 尙 矩	9.18	〃	〃
제27연대	〃	210605	黃 仁 亨	9. 9	〃	〃
	〃	210718	李 吉 永	10. 8	〃	〃
	〃	210750	崔 榮 洙	10. 8	〃	〃
	〃	210799	郭 星 九	12. 3	〃	〃
	〃	211427	金 昔 鎭	10.12	〃	〃
	〃	212597	劉 承 一	9.15	〃	〃
	〃	212756	金 夏 鎭	9.10	〃	〃
	〃	212799	全 成 梓	9.24	제1육군병원	〃
	〃	212862	林 又 榮	10. 2	楊 口	〃
	〃	212871	姜 昌 圭	9.21	〃	〃
	〃	213067	宋 鴻 駿	9.18	〃	〃
	〃	213094	金 鎭 洛	9.24	〃	〃
	〃	213942	朴 萊 成	9.20	〃	〃
	〃	213954	李 鍾 觀	10. 2	〃	〃
	〃	214012	諸 尙 根	9.20	〃	〃
	〃	214100	劉 吉 鍾	9.17	〃	〃
	〃	214118	李 諒 鎬	9.13	〃	〃
	〃	214127	俞 欽 穆	10. 5	〃	〃
	〃	214129	朴 學 權	9.22	〃	〃
	〃	214142	韓 明 烈	9.22	〃	〃
	〃	214224	張 正 根	11.27	〃	〃
	〃	214401	尹 河 俊	10. 3	〃	〃

제 6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2 연대	중 령	12065	李 洛 煥	51.12.10	楊 口	전 사
제 7 연대	중 위	13971	崔 利 道	12. 5	金 化	〃
	소 령	15818	高 在 權	10.16	梧 隱	〃
	중 위	17913	黃 允 烈	12.19	金 化	〃
	대 위	203093	崔 炳 華	10.20	〃	〃
	〃	204340	鄭 尙 守	12.24	〃	〃
	〃	205332	申 泰 駿	10.19	〃	〃
	중 위	205376	尹 錫 基	11.15	〃	〃
	대 위	206260	崔 命 烈	11. 8	〃	〃
	〃	207300	李 炅 權	10.16	〃	〃
	중 위	209532	薛 鎭 九	10.16	〃	〃
	〃	209776	丁 受 鎭	11.28	〃	〃
	〃	209814	車 鍾 奐	12.14	〃	〃
	〃	210044	鄭 此 桓	10.14	〃	〃
	〃	212282	趙 昞 鎬	10.13	〃	〃
	〃	212300	金 容 鎭	10.16	〃	〃
	〃	212762	林 道 榮	11.25	〃	〃
	〃	212866	朴 基 完	10.21	〃	〃
	〃	213015	金 光 揆	10.15	〃	〃
	〃	214020	朴 鴻 珞	10.16	〃	〃
	〃	214036	朴 海 棹	10.15	〃	〃
	〃	214105	鄭 文 旭	11. 3	〃	〃
	〃	214216	楗 在 佑	11.18	〃	〃
	〃	214220	鄭 昌 燾	11.18	楊 口	〃
	〃	214474	趙 成 寬	10.21	〃	〃
	〃	214564	都 泰 喆	10.24	華 川	〃
제19연대	〃	214989	金 柱 炫	12.14	제 2 이동외과병원	〃

제 7 사단

제 3 연대	중 령	12110	咸 聖 熙	52. 2. 7	楊 口	전 사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시	장 소	구 분
	소 령	17094	金 正 鎭	51. 9. 1	楊 口	전 사
제 5연대	중 위	17755	李 尙 純	11.24	〃	〃
제 3연대	〃	17996	李 鍾 錡	12.26	水 監	〃
제 5연대	〃	19184	許 叔	52. 3.28	楊 口	〃
제 8연대	대 위	201595	李 景 植	9.26	白 石 山	〃
〃	중 위	201698	金 海 龍	51.10. 4	全 北 任 實	순 직
제 3연대	대 위	201906	李 龍 栗	12.24	楊 口	전 사
	〃	204884	吳 炳 哲	10.26	〃	〃
제 3연대	〃	205404	李 南 俊	10. 2	제27육군병원	〃
제 3연대	〃	206296	梁 承 喆	9.26	文 登 里	〃
제 5연대	〃	206350	朴 海 永	9.13	楊 口	〃
제 8연대	〃	206377	劉 憲 鍾	9.27	〃	〃
제 8연대	〃	207183	崔 漢 朝	9.18	〃	〃
제 3연대	중 위	209078	李 章 熙	9.29	登 梅 里	〃
제 8연대	〃	209635	洪 炳 殷	9.27	白 石 山	〃
제 5연대	〃	209780	金 英 斗	9. 9	楊 口	〃
〃	〃	210128	宋 商 珍	11.15	〃	〃
	〃	210546	姜 炳 秀	9. 2	〃	〃
제 3연대	〃	210516	尹 次 鉉	52. 3.30	巨 文 里	순 직
	〃	210589	金 在 文	51. 9. 3	楊 口	전 사
	〃	211153	具 哲 龍	9.28	〃	〃
제 5연대	〃	213936	金 仁 謙	9.18	〃	〃
〃	〃	214330	黃 榮 性	9.14	〃	〃
〃	〃	214338	金 源 寧	9.21	〃	〃
	〃	214351	洪 貞 植	9.21	제27육군병원	〃
	〃	214355	鄭 哉 謹	9. 9	楊 口	〃
제 5연대	〃	214397	李 鍾 燁	9.14	〃	〃
제 3연대	〃	214405	李 獻 默	9.14	〃	〃
	〃	214458	金 在 坤	9.29	〃	〃
〃	〃	214473	權 九 鉉	12.26	〃	〃
제 8연대	〃	214484	李 章 基	9.27	〃	〃
제 8연대	〃	214511	李 銀 河	9.13	〃	〃
제 5연대	〃	215045	崔 俊 千	12.26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시	장 소	구 분
제 8 연대	중 위	215654	李 天 興	51.12.16	楊 口	전 사
제 5 연대	소 위	223506	朴 奎 鍾	11. 5	春 城	〃
	〃	223541	金 容 叔	52. 1.21	제 6 이동외과병원	〃
제 5 연대	〃	223624	金 德 煥	51. 9.14	楊 口	〃

제 8 사단

	중 령	10856	車 聖 勳	51.12.20	回 文 山	전 사
제16연대	대 위	13444	張 世 根	11.27	〃	〃
제10연대	중 위	17703	羅 龍 浩	52. 1. 7	全 北	〃
	대 위	200222	金 魯 熙	51.10. 3	白 石 山	〃
제21연대	〃	200332	崔 龍 雲	9.13	麟 蹄	〃
제10연대	〃	200554	鄭 孟 祚	10.29	楊 口	〃
	〃	200975	徐 甫 錫	10. 4	〃	〃
제16연대	〃	201925	白 南 鍾	9.14	蘆 田 坪	〃
제16연대	〃	202029	吳 喆 宗	10.20	楊 口	〃
	〃	204517	高 仁 叔	10.24	〃	〃
	중 위	205741	朴 廷 允	11.26	〃	〃
	〃	207248	鄭 漢 玉	12.26	春 川	〃
	대 위	207468	朴 圭 林	12.30	全 北	〃
제21연대	〃	207919	金 東 哲	9.10	麟 蹄	〃
제10연대	중 위	209225	安 相 玉	10. 3	白 石 山	〃
	〃	209537	郭 魯 俊	9.18	松 蹄 谷	〃
	〃	209638	陣 泰 浦	9.12	麟 蹄	〃
	〃	210424	金 在 琓	9. 8	〃	〃
	〃	211149	李 河 錡	10.17	〃	〃
제16연대	〃	211167	金 成 國	9.18	松 峰 山	〃
제10연대	〃	211180	崔 明 鏞	52. 3.22	全 北	〃
	〃	211205	曺 永 浩	51. 9.28	楊 口	〃
제10연대	〃	211224	金 喆 源	9.12	麟 蹄	〃
	〃	211247	宋 東 浩	9.11	〃	〃
	〃	211261	金 東 源	9.12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시	장 소	구 분
제16연대	중 위	211263	方 漢 圭	51. 9.20	松 峠 谷	전 사
	〃	211283	李 敬 浩	9.12	麟 蹄	〃
제16연대	〃	211310	朴 友 善	9.15	松 峠 谷	〃
	〃	211696	宋 完 國	11.23	麟 蹄	〃
	소 위	214202	曺 正 鉉	52. 3. 2	楊 州	순 직
제16연대	중 위	214475	張 在 宇	51. 9.18	麟 蹄	전 사
	〃	214496	尹 鶴 林	9.23	楊 口	〃
	〃	215153	崔 年 泰	12.27	全 北	〃
제10연대	〃	215167	金 明 石	52. 1.16	〃	〃
	소 위	223482	李 慶 燮	51.10.10	楊 口	〃
	〃	223483	姜 碩 律	9.18	〃	〃
	〃	223503	孫 熙 燮	10.11	〃	〃
	〃	223554	金 柱 賢	9.14	麟 蹄	〃
	〃	223562	崔 大 鉉	10.26	楊 口	〃
	〃	223589	李 善 奎	9.14	麟 蹄	〃
	〃	223622	朱 泰 中	9.30	楊 口	〃
	준 위	303266	金 德 煥	9.14	〃	〃

제 9 사단

	중 위	18561	李 龍 源	52. 1.30	鐵 原	전 사
	대 위	201730	朴 魯 彦	51.11.17	〃	〃
	중 위	204796	趙 祥 行	9.10	西 湖	〃
	대 위	204810	李 英 恒	11.15	鐵 原	〃
	〃	204182	趙 基 俊	11.11	〃	〃
	중 위	204825	李 學 魯	9.10	洪 川	〃
제30연대	〃	207898	石 斗 均	11. 3	鐵 原	〃
	〃	208345	嚴 秉 烈	11.17	〃	〃
	〃	209095	咸 基 弘	11.15	〃	〃
	소 위	209102	鮮 午 一	11.15	〃	〃
제28연대	중 위	209305	張 鎭 浩	10.10	〃	〃
	〃	211490	趙 誠 鈞	11.10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시	장 소	구 분
	중 위	211518	金 泰 榮	51.11. 4	鐵 原	전 사
	〃	211521	閔 惠 東	11. 4	〃	〃
	〃	211557	許 東 栗	11.17	〃	〃
	〃	212280	韓 英 煥	12. 5	〃	〃
	〃	212354	李 寅 根	11.21	〃	〃
	〃	212366	趙 昌 浩	9.10	〃	〃
	소 위	212775	權 五 元	9.23	장 현 리	순 직
	중 위	213985	崔 元 鍾	11. 4	鐵 原	전 사
	소 위	223524	崔 在 德	11. 3	〃	〃

제11사단

	대 위	204335	李 鍾 德	51.11.20	高 城	전 사
	〃	204408	高 泰 昊	11.20	〃	〃
	〃	205556	金 永 皓	9.16	〃	〃
	소 위	209918	朴 心 山	52. 1.11	〃	〃
제20연대	중 위	210334	金 永 琉	51. 9.22	〃	〃
	〃	212320	吳 世 鎭	12. 2	〃	〃
	〃	212577	羅 建 三	10.28	〃	〃
	소 위	212610	金 洪 植	52. 2.28	송 정	〃
제20연대	중 위	214489	貢 義 仁	1.19	제1의과이동병원	전 사
제20연대	소 위	215215	崔 景 鎭	1. 5	속 초 南	〃

其他部隊

제1801기술공병단	소 령	11981	崔 錫 英	52. 3.13	金 泉	순 직
제27육군병원	〃	12299	張 進	51.12.24		전 사
제1군단	대 위	12900	白 晃 圭	9.22	盈 德	순 직
제36육군병원	〃	13320	鄭 允 吉	52. 2.18		전 사
제3보충대	중 위	15018	金 鳳 河	51.12.30		순 직
제1군단	대 위	15425	金 泰 窓	52. 1.18		〃
보병학교	중 위	15609	車 南 松	51. 9. 4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야전재무대	대 위	16217	成 可 慶	52. 3. 9	春 川	순 직
	중 위	16708	俞 東 濾	51.11. 3	浦 穴	전 사
	〃	17123	崔 宣 煥	12. 5		〃
공병학교	〃	17625	孔 義 成	10.20		〃
병기학교	〃	22123	朴 龍 來	52. 2.16		순 직
미 제409 공병대대	대 위	31107	李 佑 範	51.10.23		전 사
제31육군병원	중 위	110026	柳 乙 男	12.29		순 직
제 505 병 기 대 대	대 위	200061	鄭 揆 然	12. 5		전 사
제77육군병원	〃	201140	李 善 玉	52. 2.20		순 직
제 3 육군병원	〃	202598	異 錫 圭	51.11. 9	수도육군병원	〃
육군원호대	중 위	203302	千 東 洙	52. 1.21	제1육군병원	〃
제50병기대대	대 위	204142	洪 承 晩	1.25	東 草	전 사
제1101야공단	〃	204870	鄭 海 潤	51. 9. 4	마 사 령	〃
제36육군병원	소 위	206753	金 英 順	12.11		순 직
〃 1103야공단	대 위	207580	李 景 玉	11.28	忠 州	전 사
제 1 훈련소	소 위	210078	金 六 中	11. 9	濟 州	순 직
제1201건공단	〃	211355	柳 永 鶴	10.31		〃
제 1 경비대대	중 위	211914	金 成 大	9.20	井 邑	전 사
제 1 훈련소	소 위	212349	朴 尙 鎭	52. 1.14	제1육군병원	순 직
〃	〃	212411	鄭 三 太	51.10.20	濟 州	〃
제 2 훈련소	〃	212795	李 天 炯	12.31		〃
제 1 보충대	〃	213246	李 鍾 億	9.20	제5육군병원	〃
제1103야공단	〃	213578	朴 東 洙	52. 3.14		〃
제1201야공단	〃	213852	金 基 玟	51.10. 2		〃
제98포병대대	〃	214673	尹 正	52. 1. 5	鐵 原	〃
제 9 경비대대	〃	223599	金 世 雲	1.15	全 北 完 州	전 사

<海 軍>

PC—704함	중 령	80180	李 泰 榮	51.12.26	元 山 近 海	전 사
〃	〃	80139	權 順 達	〃	〃	〃
〃	소 령	80396	金 河 根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시	장 소	구 분
PC—704함	중 위	82056	安 禹 燮	51.12.26	元山近海	전 사
〃	〃	82080	朴 贊 益	〃	〃	〃
聯合艦隊	대 위	80407	金 明 煥	52. 3. 5	延 平 島	〃
〃	이등준위	8102550	千 世 源	〃	〃	〃

<空 軍>

제1전투비행단	대 위	50197	辛 鐵 洙	51.12.15	下里洞上空	전 사
〃	중 위	50938	李 日 泳	52. 1. 9	〃	〃
〃	〃	50946	鄭 重 岩	3.10	鏡浦臺上空	〃

<海兵隊>

제1연대	대 위	60273	金 重 年	51.12.29	麟 蹄	전 사
사 령 부	〃	60170	金 容 熙	52. 3.21	星 州	순 직
제3대대	중 위	60018	姜 吉 泳	51. 9. 1	月 山 嶺	전 사
제43중대	〃	60031	崔 永 南	10.18	洋 島	〃
제2대대	〃	60292	金 錫 東	11.24	月 山 嶺	〃
〃 42 〃 〃	〃	60331	李 章 遠	11.29	黃 土 島	〃
〃 2 〃 〃	〃	60281	洪 淳 浩	12. 1	鎭海병원	〃
제1대대	〃	60408	韓 東 昱	52. 1.17	月 山 嶺	〃
해병학교	〃	80581	鄭 泰 喬	2. 9	鎭 海	순 직
사 령 부	〃	82160	朴 應 濬	3. 9	原 州	〃
제1연대	〃	80747	趙 南 珍	3.15	楊 口	전 사
제1대대	〃	60291	李 康 鎭	3.25	長 湍	〃
제7대대	〃	60496	鄭 亨 模	〃	胡 島	〃
제1대대	소 위	60077	吳 相 文	51. 9.12	육군병원	〃
사 령 부	〃	90100	趙 大 鎭	11. 1	龜 浦	순 직
제7대대	〃	60427	李 奇 成	52. 1. 1	席 島	전 사
해병학교		사관후보생	崔 大 鉉	2.17	鎭 海	순 직

4. 索 引

人 名 索 引

(ㄱ)

姜東秀 85
姜東遠 413, 417
姜順鏞 95, 101
姜元淳 754, 755
姜鎬倫 264
桂炳道 165, 170
高白圭 41, 174
高秉善 552
高亨來 101
孔在浩 128
具晉七 751
具滋春 162
權丙元 84
權成根 263
權寧寅 121
金景祚 749
金敬振 48
金啓容 82, 110
金 光 32, 121
金光哲 32, 739
金錦成 264
金基東 80, 554
金基朱 714, 741
金洛泉 168
金大植 189
金大弘 96
金德俊 317, 326
金東奎 175
金東根 149
金東淳 714, 726
金東俊 626
金東鎭 714
金東河 41, 165
金東浩 61
金同曾 713
金斗滿 263
金斗星 121
金斗業 316, 324
金斗逸 132, 379
金斗燦 626
金得周 171
金利德 95
金麟泰 151
金明坤 714, 751
金明烈 106
金明益 145, 390
金秉鎬 165, 190
金祥鈺 541
金上王 316, 325
金相旭 479
金尙鉉 721
金相興 713
金錫琉 714, 741
金善宇 749
金成梓 62, 64
金成澤 93
金性一 50
金承吉 713
金 信 262
金安一 480, 487
金億淳 759
金永祥 165, 168
金永式 763
金永逸 62
金永熙 159
金英煥 263
金容培 713, 726
金容珣 157
金容和 44
金龍澤 85, 102

金龍勳 751, 753
金源湧 714, 751
金 雄 10
金潤根 165, 168
金益烈 764
金寅文 543
金寅植 121
金日成 10, 481
金在植 316
金在命 713, 725
金在連 714, 762
金鼎德 157
金晶煥 83, 93
金涼舜 316, 324
金鍾植 165, 168
金振暐 411, 416
金晋卓 165, 170
金珍河 321
金鎭福 316, 321
金昌鉉 628
金 徹 33
金楮集 41, 72
金泰興 161
金漢基 162
金漢喆 754
金海日 713, 725
金好奎 88, 106
金昊榮 160
金孝穆 110
金 興 714
金興福 714, 762

(ㄴ)

羅寬日 83
羅昌俊 262
南京裕 714
南 日 10
盧沈根 83, 557
盧永牧 713, 722
盧在萬 64

(ㅁ)

馬 襲 151, 155
馬泰植 714
馬 輝 385
孟寶永 33
文南昊 760
文順默 760
文在駿 95, 121
文鶴東 714, 749
閔機植 41, 316
閔丙贊 714
閔容植 623, 626

(ㅂ)

朴基成 126
朴基淳 713
朴魯雄 713
朴達仁 41, 75
朴東烈 168
朴東錫 163
朴斗璽 121
朴利穆 165
朴林恒 412, 413
朴明景 713, 720
朴丙權 536, 537
朴相一 41, 71
朴瑞權 121
朴成哲 184
朴容基 760
朴又範 762, 763
朴元根 480
朴應奎 536
朴翊均 713, 722
朴在玉 170
朴在元 48
朴在浩 263
朴正模 165, 170
朴正采 714
朴晶浩 132
朴鍾武 165, 170

朴鍾燮 764
朴鍾華 82
朴周用 95
朴蒼林 628
朴哲遠 381
朴春成 714
朴春植 713, 728
朴致玉 36
朴海軾 33
朴亨國 61, 65
方得允 751
方後均 749, 760
方虎山 121, 198
裵炳魯 82, 91
白基淳 64
白南褧 76, 327
白南山 612
白南均 171
白善燁 79, 746
白岩一 714
白彰煜 98
白昌煥 750

(人)

徐商純 262
徐廷善 537, 538
徐泰翰 714, 755
成百元 51
成泳煥 41, 69
薛景鎬 47
宋奇德 134, 378
宋大厚 131, 375
宋相基 747, 755
宋堯讚 317, 480
宋寅奎 83
孫介同 41
孫繼天 741
孫榮鎭 316, 326
孫在權 263
孫興俊 262
申德均 164
申仁均 185
申鉉玉 165, 175
申鉉俊 622
辛相默 714, 750
辛鐵洙 262
沈熙澤 610, 612

(O)

安永善 316, 325
安載寧 85
安昌極 30
安泰燁 121
安享洙 105
梁正吉 413
梁仲鎬 134, 375
吳德俊 197, 481
吳瑞林 536
吳承鎬 44
吳永寬 760
吳天錫 148
玉滿鎬 262
龍虎山 419
王採生 536
禹敎驅 713
柳京洙 165
柳根昌 163
柳根春 713, 733
柳凡洙 160
柳承源 379
柳日馨 161
俞義濬 54, 170
俞致坤 263
劉載興 317
劉七福 99
尹根老 121
尹榮國 749
尹應烈 262
尹鍾浩 713
尹柱燮 754
李康和 262
李璟植 101
李寬熙 316, 320
李光鐸 126

李圭昇 41, 52
李琴永 121
李技南 121
李基德 165, 168
李基南 713
李基陝 263
李南周 41
李東用 165, 168
李東和 713, 722
李培聖 48
李培德 54, 62
李範俊 38
李炳善 714, 739
李鵬稙 713
李相旭 750
李成佳 83, 547
李成雨 714, 748
李召東 558
李順鎬 104
李永檜 714, 747
李 龍 713, 720
李源夏 148
李應德 165, 172
李義鍾 159
李寅德 41, 53
李將遠 610, 612
李 靜 140, 375
李定浩 713
李存一 32, 732
李鍾錄 713
李鍾午 754, 755
李鍾宅 82, 100
李鍾益 713
李鍾贊 716
李周基 161
李昌得 41, 70
李昌碩 536, 537
李喆用 41, 316
李春景 34, 197
李判凱 173
李鶴熙 714
李鉉相 714, 745
李孝烈 82, 92
李熙豐 754
殷頴杓 163
印聖勳 379
林炳根 713, 724
林富澤 76
林完植 145
林益淳 134, 375
林彰模 713
林春勃 84
林致煥 107
林風清 131
林孝燮 175
任正順 67

(ㅈ)

張圭栢 162
張都暎 121, 547
張奭均 544
張星太 262
張時雨 413, 416
張志良 262
張昌國 76
張春權 316, 318
齋 武 140
全炳烈 51
全富一 33, 376
全禹榮 487
全月奉 481
鄭 剛 121, 731
鄭炳甲 41, 316
鄭成俊 749, 750
鄭願基 35, 713
鄭喜煥 754, 755
鄭元軾 64
鄭仁淳 41, 69
鄭周良 262
鄭 褒 79, 217
鄭昌鎬 66, 68
鄭炯模 623
丁永鎭 263
丁海寬 551

曹玉淸 233, 547
曹元哉 82, 89
趙 寬 41
趙東夏 721
趙秉洪 80
趙石元 714, 751
趙誠七 539
趙原英 163
趙在容 751
趙貞鉉 83, 91
趙昌鎬 47, 52
趙昌浩 30
周永福 262
朱 燕 30
朱在善 714
朱炯來 714, 740
池英武 616, 617
池澤淵 417
陳坊仁 389

(ㅊ)

車圭憲 47
車東俊 713, 729
車萬石 121, 713
車文錫 713
車成九 556
車一赫 714, 719
車儀榮 147
蔡命新 80, 102
蔡秉國 84
蔡原默 101
蔡昊柄 487, 491
崔基宗 82, 100
崔德新 714
崔東安 41, 73
崔鳳基 121
崔錫鏞 480
崔松基 714
崔秉旭 41, 75
崔榮喜 31, 389
崔鎬健 10
崔元道 148
崔章學 316, 321
崔在鴻 486
崔鎭玉 121
崔鎭龍 760
崔靑松 616, 617
崔忠吉 48
崔忠國 121
崔致煥 713, 749
崔鶴根 162
崔 賢 316
崔熙六 382

(ㅍ)

彭德淸 131, 155
表武源 616, 617

(ㅎ)

河正煥 713, 740
河泰榮 62
韓官興 152
韓奎洪 714
韓永喆 629
韓禮澤 165, 182
韓鎔甲 145
韓禎龍 165, 171
韓哲東 714
韓千洙 759
韓致完 99
咸炳善 140, 154
咸炳甲 82
咸鎔翼 713
許 泓 165, 168
洪南植 749, 750
洪錫疇 41
洪淳明 86
洪淳丁 316, 319
洪永洙 61, 64
洪載翊 132, 381
洪昌杓 41, 53
黃德晟 72
黃炳鎬 622
黃鳳翔 84
黃澤周 754, 757
黃 燁 41, 70

地 名 索 引

(ㄱ)

加七峰 10, 316
佳 會 749
開花場 723, 724
間乾培 222
杆 城 317
看霧峰 166, 200
間榛峴 159
葛 潭 728
葛麻半島 610
江 界 19
江 陵 23
江華島 623
江厚耳島 616
巨 林 722, 759
乾率里 222
雞 林 727
見山里 266
高浪浦 416
高飛木 164
高方山里 201, 222
高 山 729
高山里 721
高陽洞 83
高 原 615
庫 底 10
谷 內 221
谷 城 728, 752
艮文里 722
科湖里 389
廣大洞 381
廣 洞 134
光山里 482, 484
光 陽 720, 721
光 州 727
校 洞 12
喬洞島 623, 627
轎岩山 375
九谷山 722, 735
求 禮 26, 751
求禮口 721, 728
龜 林 760
九萬里 143
九化里 412
國師峰 22
弓 谷 82
弓項里 720
金剛山 481
金谷里 411
錦 山 21, 727
金 城 10, 374
金城川 11, 374
金岳里 83, 123
錦 坪 732
金 化 11, 161
吉 州 616, 617
金 提 26
金 泉 716, 739
金 浦 23

(ㄴ)

羅 州 727, 733
南 江 176
內大里 715, 723
南大川 12
南山洞 412
南 原 720, 751
南 市 461
浪龜尾 82
浪城里 611
內公里 720, 721
內東里 723
內城洞里 148, 375
內源里 723
內藏山 22, 732

內川里 748
老姑壇 22, 757
蘆田坪 30, 121

(ㄷ)

端 川 615
達 宮 724, 755
堠 嶺 209
潭 陽 26, 278
丹城面 716
堂巨里 134, 387
堡谷里 117
大 邱 23
大堡里 76
大德山 411
大 島 610, 611
大屯山 715, 729
大佛山 739
大成洞 755
大成里 722, 723
大愚山 52, 199
大青島 629
大坪里 752
德巨里 97, 123
德頭山 725, 750
德泰山 22
東幕洞 376
東 面 725
同 福 733
杜 木 157
杜 密 49
登大里 11, 376
登梅洞 82, 117
登村里 722

(ㅁ)

馬哥洞 83
馬 山 715
萬堡里 44, 316
萬福堂 725
末輝里 187, 548
望海山 412, 415
明 德 749
明月里 727
明 川 616, 617
毛 島 615
母後山 728, 733
茂 山 727
茂 朱 729, 739
默溪里 722
文登里 11, 548
文正里 725
文殊里 722
文 坪 615

(ㅂ)

朴 達 168
盤若峰 22, 755
芳谷里 725
芳 洞 154
鉢岩洞 551
白鷗島 610, 623
白石山 11, 201
白小嶺 723, 757
白雅山 22, 753
白岩山 374
白羊山 732
白蓮山 738
白雲山 22, 746
鳳堂德里 159
鳳井里 753
烽火山 384
釜 山 21, 23
扶 安 714
浮雲里 725
扶月里 716
富 春 749
福興面 732
比雅里 201

(ㅅ)

祠堂洞 117, 230

砂 島 615
寺 洞 134
沙尾川 411, 413
泗 川 262
沙汰里 11, 224
山內面 732
山 淸 735, 751
三 岐 753
三道峰 22, 730
三山里 722
三 壯 746, 761
三盤洞 200, 231
三和里 755, 757
上加面 616
商山面 388
尙 州 716
上 坪 45, 170
雙頭洞 58, 327
雙 峠 761
西浦里 623
瑞和里 31, 175
西海里 625
西希嶺 32, 175
西希里 176
石橋里 76
石柱院里 415
席 島 623, 626
仙儀堡 84
宣 川 460
蟾津江 737, 752
城洞里 135
城北里 611, 612
聖裔峰 738
聖裔山 22
城 津 615, 616
成 川 140
世傑山 755, 757
細骨山 725
細 石 22, 757
小 島 610
小城洞里 381
昭陽江 170, 187
小靑島 629
俗離山 715, 759
束 草 716
松巨里 121
松溪里 317
松洞里 384
松亭里 548
松峴里 82, 232
松 禾 623
水串地 375
水東面 725
水上里 134
首陽山 22
水於口 83
水入川 200
淳 昌 727, 728
順 川 140
承岩里 159
矢 川 746, 761
新基里 752
薪 島 610, 611
新佛堂 753
神佛山 715
新安州 19, 458
新月里 752
新義州 23, 140
新興里 721
深浦里 117

(ㅇ)

岳陽面 715, 722
安 邊 264
安 義 729
岩 洞 552
鴨綠江 16, 455
鴨 石 547
野村里 46, 201
楊 口 39, 75
洋 島 615, 616
襄 陽 76, 316
陽地里 742
漁雲里 389

魚隱山　128, 550
汝乃谷　380
旅　島　610, 811
汝文里　374
麗　水　716
驛谷川　9, 12
蓮　川　12
延坪島　629
永　同　729
榮山浦　727
永興灣　610
梧　谷　753
五柳里　58
玉　果　733
沃　川　21
外城洞里　147, 378
龍　岡　623
龍虎洞　386
雲門山　715, 737
雲　峰　724, 750
雲峰山　22
雲樹里　722, 724
雲長山　727, 734
雲田里　167
雲川里　58
熊　島　615
院　洞　733
元　山　11, 611
院　旨　716
元　通　187
月鏡里　753
月峰山　155
月沙里半島623, 628
月山嶺　165
月山里　170
月雲里　226
油坪里　739
六德谷　84
栗沙里　389
殷　栗　623, 625
陰大里　728
梨木亭　201
二白面　726
梨　陽　733, 740
梨　坪　753
伊布里　31
麟　蹄　187, 166
仁　川　23
日月山　715, 764
任　實　727
臨浦江　9
義　州　454

(ㅈ)

紫陽里　732
長溪里　730, 739
將軍峰　22, 727
長　城　732, 733
長　水　739, 749
長安山　22, 746
長財垈　98
長財洞　136, 377
長　箭　10
長村洞　133
長坪里　123, 558
赤根山　11, 374
全　州　716
占方里　547
井　邑　727, 728
定　州　20, 140
曹溪山　22, 734
鳥項谷　208
宗聖里　732
周生面　725
周川里　724
竹　洞　376
竹　里　96
竹浦洞　234
中江里　9
中大里　722
中山里　723
地境里　265

池塘里 725
支石里 43, 226
智異山 21, 745
鎭南浦 23, 623
鎭 安 739
晋 州 716
楼峴里 154
鎭 海 184, 623

(ㅊ)

天德山 753
天馬山 725, 753
天尾里 98
天皇峰 757
天皇山 22
鐵馬山 715
徹尾洞 199
鐵 原 11
靑 岩 747
淸 州 749
淸 津 23, 616
楸 島 624, 628
春 川 716
忠 州 717
七 寶 719, 760

(ㅌ)

太白山 715, 745
泰 川 454
土古味 742
土旨面 722, 723
通明山 751
通先谷 202
通 店 753
通 川 10, 202
退溪院 742

(ㅍ)

把道里 722
板門店 550
八公山 738
平 康 11
平 壤 16, 23
坪 村 187
豐 基 717

(ㅎ)

河 東 716, 747
亥安盆地 167
下文廷里 742
下所里 384
下野於洞 199
下午望 121, 549
下深浦 236
下汀月 483, 538
下珍富里 317
寒溪里 166
漢灘江 12
合 津 613
陜 川 749
縣 里 83, 123
兄弟峰 715, 753
胡 島 623, 624
虎島半島 610, 612
洪 川 166, 187
孝基里 726
曉星山 537, 538
花 溪 749
花開面 722
花山里 725
和 順 728
華 川 742
華鶴山 22, 734
黃石山 730
黃土島 610, 612
淮 陽 262
槍 谷 548
回文山 22, 760
回龍里 76
後谷里 203
後項谷 200
興 南 23

合同審議會議芳名録

1974. 10. 16

部署	職責	階級	姓名	署名
陸軍	諮問委員	前參謀總長 陸軍大將	白善燁	白善燁
海軍	〃	前參謀總長 海軍大將	張志洙	장지수
空軍	〃	前參謀總長 空軍中將	金貞烈	김정렬
高麗大學校	〃	敎授 文學博士	金成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學院長 文學博士	韓沽劤	한우근
漢陽大學校	校閱委員	敎授 工學博士	趙鍾琇	조종수
〃	非常任委員	敎授 法學博士	李院錫	이원석
檀國大學校	〃	法大學長 法學博士	朴鍾聲	박종성
國防部	政訓局長	副理事官	鮮于塡	선우진
合參	作戰局次長	准將	梁昶植	양창식
空本	作戰次長	准將	黃尙欽	황상흠
陸本	軍史室長	大領	趙玉植	조옥식
海本	作戰次長	大領	梁中炫	양중현
海本	海兵隊當	大領	車洙貞	차수정
合參	情報局企劃課長	大領	金東植	김동식
國防部	情報補佐官	大領	南雄鍾	남웅종
	軍事專門家		李漢喆	이한철

執 筆 陣

主幹	陸軍大領	李	鳳 英
編纂委員	兼 資料室長	李	謙 周
〃		朴	景 錫
〃		金	源 寬
〃		李	昌 錄
〃		姜	聲 湖
〃		甘	成 海
〃	(前 任)	金	東 郁
專門委員	陸軍中領	全	殷 相
〃	海軍少領	兪	在 鎬
〃	海軍中尉	黃	在 文
〃	空軍大尉 (兼 越南戰史)	金	顯 洙
非常任委員		劉	官 鍾
〃		金	億 淳
製圖		李	世 哲
資料擔當		全	周 錫
幹事	陸軍中領 (專門委員)	安	龍 鉉

本卷 執筆中에 過勞로 因하여 殉職하신 前 主幹 故 鄭陸地大領의 靈前에 삼가 이 한 卷을 바칩니다.

韓國戰爭史 <第7卷>

1974年 12月 5日 印刷
1974年 12月 1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行 國防部
印刷 서울신문사

(不許 無斷 複製)